

ETHER LIBRARY

0030

돈키호테

Don Quijote de la Mancha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 1605 · 1615

문학 · 소설

돈키호테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미겔 데 세르반테스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1605) · 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 (1615)

지은이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1547~1616)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제1부 1605년, 제2부 1615년, 마드리드 후안 데 라 쿠에스타 인쇄소. 이 책은 두 부 전체를 스페인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의 《돈키호테》 두 부, 곧 1605년에 나온 제1부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와 1615년에 나온 제2부 『기발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를 **스페인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단 한 곳의 예외는 아래 「저본에 빠진 소네트」에 적었습니다).

저본은 1999년에 처음 공개되고 2010년에 고쳐진 **퍼블릭도메인 스페인어 전자텍스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입력하고 교정한 본문인데, **어느 학술판을 옮겨 적었는지는 텍스트 어디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 근거 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강세 부호와 구두점, 대문자는 현대식으로 고쳤으나 낱말의 꼴은 17세기 철자를 상당 부분 그대로 둔(agora, mesmo, ansí, priesa 같은) 반쯤 현대화한 본문이고, 1605년 제1부를 네 「편」으로 나눈 머리가 남아 있습니다.

존 오름스비(John Ormsby)의 1885년 영역본은 **뜻이 갈리는 자리를 확인하는 대조용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름스비가 영국식으로 바꾼 화폐와 호칭, 줄이거나 잘게 나눈 문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두 부의 첫머리에 실린 **법정 앞부분**(정가 증명, 오식 증명, 국왕의 특허장, 제2부의 인가 세 편)도 옮겼습니다. 책값과 날짜가 적힌 이 짧은 공문서들이 1605년과 1615년 초판의 일부이고, 제2부 인가 셋째 편에는 프랑스 사신들이

세르반테스의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짰습니다. 제2부의 서문과 헌사는 저본의 순서대로 서문을 앞에 두었습니다.

문단과 짜임

원문의 문단은 모두 5,028개입니다. 원문 한 문단을 번역 한 문단으로 옮겼고, 시는 연과 행의 수까지 원문과 같게 했습니다. 소네트는 열네 행입니다.

다만 저본이 **문장 한가운데서 문단을 끊어 놓은 여덟 자리**(제1부 제7장, 제44장, 제49장, 제50장, 제2부 제18장, 제23장, 제26장 두 곳)는 전자 텍스트로 옮겨 적다 생긴 끊김으로 보고 이 책에서 한 문단으로 이었습니다. 문장 안에 시 한두 행이 끼어 있던 자리는 행 사이를 「 / 」로 표시해 문단 안에 두었습니다. 반면 인물이 말하는 도중에 노래나 라틴어 한 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자리는 인용한 시를 따로 세운 것으로 보아 저본의 문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단은 5,018개입니다.

제1부는 1605년판대로 **네 편**으로 나뉩니다(제1~8장, 제9~14장, 제15~27장, 제28~52장). 세르반테스가 제8장 끝에서 이야기를 끊고 제9장에서 「 이 이야기의 제1편 」 을 다시 부르는 것이 이 나눔 때문이므로, 편이 바뀌는 자리마다 구분 쪽을 넣었습니다. 1615년의 「 제2부 」 는 편 없이 제1장부터 제74장까지 이어집니다. 장 번호는 부마다 제1장부터 다시 셉니다.

저본에 빠진 소네트

제1부 맨 끝, 아르가마시야의 학자들이 지었다는 시들 가운데 「**부를라도르가 산초 판사에게**」 **소네트**는 저본에 제목과 「소네트」 한 줄만 있고 본문 열네 행이 빠져 있습니다. 1605년판에는 실려 있는 시입니다. 스페인어 본문을 구할 수 없어 **오름스비의 영역본에서 옮겨 채웠고**, 그 자리에 각주로 밝혔습니다. 이 책에서 영역본을 거쳐 옮긴(중역한) 곳은 이 열네 행뿐입니다.

판본에 따라 읽기가 갈리는 곳

제1부 제27장, 루스신다와 돈 페르난도의 혼인 대목을 저본은 「en disoluble nudo(풀 수 있는 매듭으로)」라고 적었습니다. 널리 읽히는 판들은 이 자리를 「indisoluble(풀 수 없는)」로 읽습니다. 1605년 초판의 글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혼인 서약의 문맥에 맞는 통행본의 읽기를 따라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착오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서두르며 썼고 1605년 초판에는 이름과 날짜가 어긋나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은 제2부에서 작중 인물들이 직접 들추어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착오를 고치지 않았고 각주로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1부 제23장에서 도둑맞은 산초의 잿빛 당나귀가 그 뒤에도 나오는 것, 산초 아내의 이름이 테레사 판사, 후아나 구티에레스, 마리 구티에레스, 테레사 카스카호로 흔들리는 것, 제10장 제목의 「양구에스 사람들」, 카르데니오가 도로테아를 「테오도라」라고 부르는 것 들이 그렇습니다. 기억이 어긋난 듯한 인용(제2부 제60장의 「오시리스」 같은 것)도 원문의 꼴을 따랐습니다.

서술의 층

《돈키호테》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럿 겹쳐 있습니다. 라만차의 고문서를 뒤지는 「두 번째 작가」, 그가 톨레도 시장에서 찾아낸 아랍의 역사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의 원고, 그 아랍어 원고를 스페인어로 옮겼다는 모리스코 번역자, 서문의 세르반테스 자신. 「이야기는 전한다」, 「…라고들 한다」, 「이 이야기를 옮긴 사람은 말한다」 같은 출처 표지가 이 소설의 장치이므로 하나도 빼지 않았습니다. 번역자가 본문 안에서 하는 곁말은 우리 각주가 아니라 원문의 일부입니다.

말투에 관하여

서술은 해라체 과거형으로 옮겼습니다.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하는 말과 격언만 현재형입니다.

돈키호테에게는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험 앞에서, 거인과 기사와 귀부인 앞에서, 둘시네아를 부를 때 그는 기사 소설의 옛 말투를 흉내 냅니다. 이 「기사 모드」는 하오체에 「-노라」, 「-도다」, 「-느니라」, 「-리라」, 「-ㄹ지어다」, 「-소서」, 「-나이다」 같은 예스러운 어미를 섞어 옮겼습니다. 기사도 밖의 화제(황금시대 연설, 무예와 학문 연설, 문학론, 산초에게 주는 충고)에서 그는 명석한 시골 귀족으로 돌아가고, 말투도 예스러운 어미 없이 차분해집니다. 임종 자리의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는 옛 말투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해라체로, 객줏집 주인이나 신부, 이발사, 낯선 사람들에게 하오체로 말합니다. **산초**는 주인에게 「나리」라 부르며 해요체로 말하고, 정색할 때 합쇼체로 올립니다. 산초는 시골 사람이지 어느 지방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므로 방언은 쓰지 않았고, 「-습죠」, 「-습니다요」, 「쇤네」 같은 촌스러운 꼴만 드물게 섞었습니다.

두 서문에서 세르반테스가 독자에게 하는 말은 하게체(「한가한 독자여」, 「자네」)로, 헌사는 합쇼체로, 국왕의 특허장은 「짐」으로 시작하는 칙서체로 옮겼습니다.

원문의 2인칭(tú, vos, vuestra merced)이 바뀌는 자리에서만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제2부에서 테레사가 남편을 vos로 부르는 자리처럼 원문이 바꾼 곳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포로 이야기의 아랍어와 링구아 프랑카(지중해의 잡탕 말) 대화에서 쓰이는 tú는 그 말의 문법일 뿐 친밀함이나 하대의 표시가 아니므로 하오체로 올렸습니다.

이름과 낱말

이름은 스페인어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습니다. 「돈키호테」는 한 낱말로 쓰고, 시나 호격에서 don이 빠지면 「키호테」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의 지명 별호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가울라의 아마디스」처럼 「X의 Y」로 옮겼으나, 돈키호테의 마음의 귀부인만은 한국 독자에게 익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로 적었습니다.

hidalgo는 「시골 귀족」, caballero andante는 「편력 기사」, venta는 「객줏집」, escudero는 「종자」, el cura는 「신부」로 옮겼습니다. 혼례 장면에서만 cura를 「본당 신부」라고 해 신부(新婦)와 가렸습니다. 산초가 늘 꿈꾸는 ínsula는 첫 자리에만 원어를 밝히고 「섬」으로 옮겼습니다.

제1부에 끼어 있는 소설 「El curioso impertinente」는 『주제넘은 호기심』으로 옮겼습니다. 1614년에 아베야네다라는 이름으로 나온 가짜 속편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로, 그 작가는 작중의 말대로 「아라곤 작가」로 적었습니다(표제지를 통째로 인용하는 제2부 제62장만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

속담과 말장난

산초의 속담은 원문의 그림(당나귀, 빵, 느릅나무와 배)을 살려 우리말 격언의 꼴로 옮겼습니다. 같은 그림의 한국 속담이 이미 있을 때만 그 꼴을 빌렸고, 뜻이 비슷하다고 한국 속담으로 갈아 끼우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속담이 다시 나오면 같은 글자로 옮겼습니다. 속담에는 각주를 달지 않았습니다.

산초가 어려운 말을 틀리게 하는 자리는 같은 종류로 틀린 우리말로 옮겼고, 이름을 틀리는 자리(맘브리노 → 말란드리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 → 시데 아메테 베렌헤나)는 틀린 꼴을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세르반테스의 낱말 놀이는 우리말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안 되면 원어를 괄호에 밝혔습니다.

그 밖의 것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인용은 우리말로 옮기고 원문을 괄호에 함께 적었습니다. 성경 구절은 개역한글 문구를 따랐습니다.

옮긴이 주는 71개입니다. 화폐(마라베디, 레알, 두카도, 에스쿠도)와 거리(레과, 약 5.5킬로미터)가 처음 나올 때, 본문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실존 인물과 작품, 우리말로 살지 않는 낱말 놀이에만 달았습니다. 기사 소설의 줄거리, 인물의 심리, 풍자의 뜻은 풀지 않았습니다.

수는 한글 수사(「서른 개인지 마흔 개인지」, 「여드레」)로, 연도와 날짜,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1604년」, 「290마라베디 반」)로 적었습니다. 원문 대사의 줄표는 큰따옴표로, 대사 안의 인용은 작은따옴표로 바꾸었습니다.

등장인물

처음 나오는 무렵의 모습만 적었습니다. 괄호 안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라만차의 마을

돈키호테 (라만차의 돈키호테, 슬픈 얼굴의 기사, 사자의 기사, 알론소 키하노) · 쉰 줄에 가까운 시골 귀족. 기사 소설을 너무 읽다가 분별을 잃고, 스스로 편력 기사가 되어 세상의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겠다며 길을 나선다. 성은 키하다, 케사다, 케하나라고도 전한다.

산초 판사 · 같은 마을의 농사꾼. 글은 모르지만 말이 빠르고 속담을 끝없이 늘어놓는다. 섬 하나를 다스리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키호테의 종자가 된다.

로시난테 · 돈키호테의 비쩍 마른 말. 그리고 산초의 **잿빛 당나귀**.

둘시네아 델 토보소 · 돈키호테가 마음의 귀부인으로 삼은 여인. 실은 이웃 마을 토보소의 시골 처녀 **알돈사 로렌소**로, 돈키호테를 본 적도 없다.

테레사 판사 (후아나 구티에레스, 마리 구티에레스, 테레사 카스카호) · 산초의 아내. 딸 **산치카**(마리 산차)와 함께 남편의 백작령을 기다린다.

신부 페로 페레스 · 마을 신부이자 석사. 돈키호테의 친구로, 그의 서재를 뒤져 기사 소설을 불사르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궁리를 한다.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 · 마을 이발사. 신부와 한패가 되어 돈키호테를 데려오러 나선다.

가정부와 조카딸 안토니아 키하나 · 돈키호테의 집 식구. 마흔이 넘은 가정부와 스물이 채 안 된 조카딸.

삼손 카라스코 · 살라망카에서 갓 돌아온 학사. 제1부가 책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돈키호테를 고향에 붙잡아 두려고 거울의 기사, 하얀 달의 기사로 변장해 나선다.

제1부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객줏집 주인과 마리토르네스 · 돈키호테가 성으로 믿는 객줏집의 주인, 그리고 아스투리아스 출신의 하녀.

안드레스와 후안 알두도 · 주인에게 매를 맞던 소년과 그를 때리던 농부.

히네스 데 파사몬테 (히네시요 데 파라필라, 제2부의 페드로 선생) · 돈키호테가 풀어 준 갤리선 죄수. 제2부에서 원숭이와 인형극을 끌고 다시 나타난다.

카르데니오와 루스신다 · 시에라 모레나에 숨어 사는 미친 젊은이와 그가 사랑한 여인.

도로테아 (미코미코나 공주) · 돈 페르난도에게 버림받은 농가의 딸. 돈키호테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미코미코나 공주 노릇을 한다.

돈 페르난도 · 공작의 둘째 아들. 루스신다를 빼앗고 도로테아를 버린다.

안셀모, 로타리오, 카밀라 · 신부가 객줏집에서 읽는 소설 『주제넘은 호기심』의 세 사람.

포로 루이 페레스 데 비에드마와 소라이다 · 알제에서 포로로 지내다 무어인 처녀 소라이다와 함께 도망쳐 온 대위.

참사회원 · 우리에 갇혀 가는 돈키호테와 기사 소설과 연극을 두고 논쟁하는 톨레도의 성직자.

제2부에서 만나는 사람들

돈 디에고 데 미란다 (초록 외투의 기사) · 돈키호테가 사자와 맞서는 것을 지켜본 신중한 시골 귀족. 아들 돈 로렌소는 시인이다.

카마초, 키테리아, 바실리오 · 부자 카마초와 혼인하려는 키테리아, 그리고 꾀를 써서 그 혼례를 가로채는 가난한 바실리오.

공작과 공작 부인 · 제1부를 읽은 아라곤의 귀족 부부. 돈키호테와 산초를 성에 맞아들여 온갖 장난을 꾸민다. 시녀 **알티시도라**와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 집사가 그 장난을 거든다.

트리팔디 백작 부인 (슬픔의 시녀 부인) · 공작 집안이 꾸민 장난 속 인물. 그 장난 끝에 나무 말 **클라빌레뇨**가 나온다.

리코테 · 추방령으로 떠났다가 몰래 돌아온 산초의 옛 이웃 모리스코. 딸 **아나 펠릭스**는 알제에 남겨 둔 연인 **돈 그레고리오**를 구하려고 바르셀로나 앞바다에 나타난다.

로케 기나르트 · 카탈루냐의 산적 두목.

돈 안토니오 모레노 · 바르셀로나에서 돈키호테를 맞아들이는 부유한 신사.

알바로 타르페 · 가짜 속편에 나오는 인물. 귀향길의 돈키호테와 어느 여관에서 마주친다.

이야기 밖의 이야기꾼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 · 이 이야기를 처음 썼다는 아랍의 역사가.

차례

제1부 22

정가 증명 23

오식 증명 24

특허장 25

헌사 27

서문 28

머리 시 37

제1편 50

제1장 이름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됨됨이와 생활을 다룬다 51

제2장 기발한 돈키호테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일을 다룬다 57

제3장 돈키호테가 기사 서임을 받은 우스운 경위를 이야기한다 65

제4장 우리 기사가 객줏집을 떠난 뒤에 일어난 일 73

제5장 우리 기사의 불운한 이야기를 이어 간다 82

제6장 신부와 이발사가 우리 기발한 시골 귀족의 서재에서 벌인 유쾌하고도 대대적인 검열 88

제7장 우리 착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두 번째 출정 98

제8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무시무시하고 일찍이 상상도 못 한 풍차 모험에서 거둔 멋진 성과와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104

제2편 114

제9장 늠름한 비스카야 사람과 용감한 라만차 사람이 벌인 엄청난 결투가 끝나고 결판이 난다 115
제10장 돈키호테가 비스카야 사람과 겪은 그 뒤의 일과 양구에스 무리를 만나 처한 위험 122
제11장 돈키호테가 산양치기들과 함께 겪은 일 129
제12장 산양치기 하나가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138
제13장 양치기 여자 마르셀라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146
제14장 죽은 양치기의 절망의 노래가 실리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158

제3편 173

제15장 돈키호테가 잔인한 양구에스 사람들과 맞닥뜨려 겪은 불운한 모험을 이야기한다 174
제16장 기발한 시골 귀족이 성이라고 여긴 객줏집에서 겪은 일 183
제17장 용감한 돈키호테와 그의 착한 종자 산초 판사가 불행히도 성이라고 여긴 객줏집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을 이어 간다 192
제18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이야기와 이야기할 만한 다른 모험들 203
제19장 산초가 주인과 나눈 사려 깊은 이야기와 시체를 만난 모험과 그 밖의 이름난 사건들 216
제20장 세상의 어떤 이름난 기사도 라만차의 용맹한 돈키호테만큼 적은 위험으로 끝낸 적이 없는, 보도 듣도 못한 모험 226
제21장 맘브리노의 투구를 얻은 고귀한 모험과 값진 수확, 그리고 무적의 우리 기사에게 일어난 다른 일들 243
제22장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억지로 끌려가던 불운한 이들을 돈키호테가 풀어 준 일 258

제23장 이름난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일, 이 참된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희한한 모험 가운데 하나 272
제24장 시에라 모레나의 모험을 이어 간다 286
제25장 라만차의 용감한 기사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기이한 일들과 그가 벨테네브로스의 고행을 본뜬 일을 다룬다 297
제26장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답게 바친 정성을 이어 간다 318
제27장 신부와 이발사가 뜻을 이룬 경위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실릴 만한 다른 일들 329

제4편 350

제28장 같은 산중에서 신부와 이발사에게 일어난 새롭고 즐거운 모험을 다룬다 351
제29장 아름다운 도로테아의 슬기와 몹시 재미있고 즐거운 다른 일들을 다룬다 369
제30장 사랑에 빠진 우리 기사를 그가 스스로 뛰어든 혹독한 고행에서 끌어낸 재치 있는 계략과 절차를 다룬다 384
제31장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가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와 다른 일들 397
제32장 객줏집에서 돈키호테 일행 모두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다 409
제33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를 들려준다 418
제34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를 이어 간다 442
제35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가 끝난다 465
제36장 돈키호테가 붉은 포도주 가죽 부대들과 벌인 용감하고 엄청난 싸움과 객줏집에서 일어난 다른 희한한 일들을 다룬다 476
제37장 이름난 미코미코나 공주 이야기를 이어 가며 다른 우스운 모험들도 곁들인다 489
제38장 돈키호테가 무예와 학문에 관하여 펼친 흥미로운 연설을 다룬다 502

제39장 포로가 자신의 생애와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507
제40장 포로의 이야기를 이어 간다 517
제41장 포로가 아직도 자기 이야기를 이어 간다 532
제42장 객줏집에서 더 일어난 일과 알아 둘 만한 다른 많은 일들을 다룬다 554
제43장 노새 모는 젊은이의 즐거운 이야기와 객줏집에서 일어난 다른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563
제44장 객줏집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이어 간다 577
제45장 맘브리노의 투구와 길마를 둘러싼 의문이 마침내 판가름 나고 정말로 일어난 다른 모험들 588
제46장 순찰대원들의 놀라운 모험과 우리 착한 기사 돈키호테의 대단한 맹렬함 598
제47장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마법에 걸린 기이한 경위와 다른 이름난 사건들 608
제48장 참사회원이 기사 소설 이야기를 이어 가고 그의 재주에 걸맞은 다른 이야기도 한다 620
제49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슬기로운 대화를 다룬다 630
제50장 돈키호테와 참사회원이 벌인 슬기로운 논쟁과 다른 일들 639
제51장 돈키호테를 데려가던 이들 모두에게 산양치기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룬다 647
제52장 돈키호테가 산양치기와 벌인 싸움과 채찍 고행자들과의 희한한 모험, 그는 땀 흘려 이 모험을 훌륭히 끝냈다 654

제2부 670

정가 증명 671
오식 증명 672
인가 673
특허장 676
독자에게 드리는 서문 678

헌사 683
제1장 신부와 이발사가 돈키호테와 그의 병을 두고 나눈 이야기 685
제2장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와 벌인 유명한 말다툼과 다른 우스운 일들을 다룬다 699
제3장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나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706
제4장 산초 판사가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의문과 물음에 답하고 알아 두고 이야기할 만한 다른 일들 716
제5장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가 나눈 슬기롭고 우스운 이야기와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723
제6장 돈키호테가 조카딸과 가정부와 겪은 일,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 731
제7장 돈키호테가 종자와 나눈 일과 아주 유명한 다른 일들 738
제8장 돈키호테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만나러 가다가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747
제9장 여기서 보게 될 일을 이야기한다 756
제10장 산초가 둘시네아 아씨를 마법에 걸려고 꾸민 꾀와 참말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다른 일들을 이야기한다 761
제11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죽음의 궁정」을 실은 수레, 아니 짐수레와 마주친 기이한 모험 773
제12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용감한 거울의 기사와 마주친 기이한 모험 782
제13장 숲의 기사 모험이 이어지고 두 종자가 나눈 슬기롭고 새롭고 부드러운 대화 791
제14장 숲의 기사 모험이 이어진다 799
제15장 거울의 기사와 그의 종자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알린다 813
제16장 돈키호테가 라만차의 슬기로운 신사와 겪은 일 816

제17장 돈키호테의 전대미문의 용기가 다다랐고 다다를 수 있었던 마지막 극점이 드러나고 사자 모험이 다행히 끝난다 828
제18장 돈키호테가 초록 외투의 기사의 성, 아니 집에서 겪은 일과 다른 엉뚱한 일들 841
제19장 사랑에 빠진 양치기의 모험과 정말로 우스운 다른 일들을 이야기한다 853
제20장 부자 카마초의 혼례와 가난한 바실리오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862
제21장 카마초의 혼례가 이어지고 재미있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874
제22장 라만차 한복판에 있는 몬테시노스 동굴의 큰 모험을 이야기한다, 라만차의 용맹한 돈키호테가 이 모험을 훌륭히 마무리했다 883
제23장 비범한 돈키호테가 깊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한 놀라운 일들, 너무나 있을 수 없고 엄청나서 이 모험은 꾸며 낸 것으로 여겨진다 893
제24장 이 위대한 이야기를 참되게 이해하는 데 쓸데없으면서도 꼭 필요한 자잘한 일 천 가지를 이야기한다 906
제25장 당나귀 울음 모험과 인형극꾼의 우스운 모험을 꺼내 놓고 점치는 원숭이의 기억할 만한 점괘를 곁들인다 914
제26장 인형극꾼의 우스운 모험을 이어 가며 정말로 퍽 좋은 다른 일들도 곁들인다 926
제27장 페드로 선생과 그 원숭이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돈키호테가 당나귀 울음 모험에서 바라고 생각한 대로 끝내지 못한 불운을 이야기한다 937
제28장 베넹헬리가 말하기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면 알게 될 일들 946
제29장 마법에 걸린 배의 이름난 모험 953
제30장 돈키호테가 아름다운 여자 사냥꾼과 겪은 일 961
제31장 크고 많은 일들을 다룬다 968

제32장 돈키호테가 자기를 꾸짖은 사람에게 한 대답과 진지하면서도 우스운 다른 일들 980
제33장 공작 부인과 그 시녀들이 산초 판사와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 읽고 새겨 둘 만하다 997
제34장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마법에서 풀어 줄 방법을 알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이름난 모험 가운데 하나 1006
제35장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일에 관해 들은 소식이 이어지고 다른 놀라운 일들 1016
제36장 트리팔디 백작 부인, 일명 슬픔의 시녀 부인의 기이하고 일찍이 상상도 못 한 모험과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한다 1027
제37장 슬픔의 시녀 부인의 이름난 모험이 이어진다 1035
제38장 슬픔의 시녀 부인이 자신의 불운을 털어놓은 이야기 1038
제39장 트리팔디가 놀랍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이어 간다 1046
제40장 이 모험과 이 기억할 만한 이야기에 관계되고 닿아 있는 일들 1050
제41장 클라빌레뇨의 도착과 이 길고 긴 모험의 끝 1057
제42장 돈키호테가 섬을 다스리러 떠나는 산초 판사에게 준 충고와 잘 생각한 다른 일들 1071
제43장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준 두 번째 충고 1077
제44장 산초 판사가 통치하러 떠난 경위와 성에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기이한 모험 1085
제45장 위대한 산초 판사가 섬을 손에 넣고 다스리기 시작한 경위 1098
제46장 사랑에 빠진 알티시도라의 연애 사건 와중에 돈키호테가 겪은 방울과 고양이의 무시무시한 소동 1107
제47장 산초 판사가 통치를 하며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어 간다 1114

제48장 돈키호테가 공작 부인의 시녀 부인인 도냐 로드리게스와 겪은 일과 글로 남겨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1125
제49장 산초 판사가 섬을 순찰하다 겪은 일 1136
제50장 시녀 부인을 매질하고 돈키호테를 꼬집고 할퀸 마법사들과 형리들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산차에게 편지를 가져간 시동이 겪은 일 1150
제51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나아간 모습과 그만큼 좋은 다른 일들 1162
제52장 두 번째 슬픔의 시녀 부인, 곧 고통의 시녀 부인, 다른 이름으로 도냐 로드리게스의 모험을 이야기한다 1173
제53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맞은 고달픈 끝과 마무리 1182
제54장 이 이야기에 관한 일이지 다른 어떤 이야기에 관한 일도 아닌 것들을 다룬다 1189
제55장 산초가 길에서 겪은 일들과 더없이 볼 만한 다른 일들 1199
제56장 도냐 로드리게스 시녀 부인의 딸을 지키려고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하인 토실로스와 벌인 엄청나고 전대미문의 결투 1208
제57장 돈키호테가 공작에게 작별을 고한 경위와 공작 부인의 시녀인 영리하고 당돌한 알티시도라와 겪은 일을 다룬다 1214
제58장 돈키호테에게 모험이 쉴 새 없이 잇달아 쏟아진 일을 다룬다 1220
제59장 모험이라 할 만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비범한 일을 이야기한다 1234
제60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겪은 일 1244
제61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에 들어서며 겪은 일과 슬기롭다기보다 참된 다른 일들 1260
제62장 마법에 걸린 머리의 모험과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어린애 장난 같은 일들을 다룬다 1264
제63장 산초 판사가 갤리선을 구경하다가 겪은 봉변과 아름다운 모리스코 여인의 새로운 모험 1280

제64장 그때까지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그를 가장 괴롭힌 모험을 다룬다 1292
제65장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였는지 알리고 돈 그레고리오가 풀려난 일과 다른 일들 1298
제66장 읽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읽어 주는 것을 듣는 사람은 듣게 될 일을 다룬다 1305
제67장 약속한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돈키호테가 양치기가 되어 들판에서 살기로 결심한 일과 정말로 재미있고 좋은 다른 일들 1312
제68장 돈키호테에게 닥친 돼지 떼 모험 1319
제69장 이 위대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가장 희한하고 가장 새로운 일 1326
제70장 제69장에 이어지며 이 이야기를 밝히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일들을 다룬다 1333
제71장 돈키호테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종자 산초와 겪은 일 1342
제72장 돈키호테와 산초가 마을에 다다른 경위 1349
제73장 돈키호테가 마을에 들어서며 본 불길한 징조들과 이 위대한 이야기를 꾸미고 그 참됨을 보증하는 다른 일들 1356
제74장 돈키호테가 병들어 누운 일과 그가 남긴 유언과 그의 죽음 1363

제1부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정가 증명

나 후안 갈로 데 안드라다는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궁정 서기로서 평의회에 상주하는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이며, 다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 평의회 의원들께서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가 지은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이라는 책을 살펴보시고, 그 책 전지 한 장마다 3마라베디 반으로 값을 매기셨다. 책은 전지 83장이므로 이 값으로 셈하면 290마라베디 반이 되며, 제본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값에 팔아야 한다. 의원들께서는 이 값으로 팔아도 좋다고 허가하시고, 이 정가 증명을 책 첫머리에 싣되 이것 없이는 팔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를 증거로 남기고자 1604년 12월 20일 바야돌리드에서 이 증서를 발급한다.

후안 갈로 데 안드라다.

오식 증명

이 책에는 원본과 어긋나서 지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교정을 마쳤음을 증명하고자 이 증서를 발급한다. 1604년 12월 1일, 알칼라 대학교 신학자들의 '하느님의 어머니' 학원에서.

석사 프란시스코 무르시아 데 라 야나.

특허장

국왕.

그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은 몹시 공을 들인 것이며 매우 쓸모 있고 유익하다고 짐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그 책을 인쇄할 허가와 권한을 내려 주고, 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또는 짐의 뜻대로 특허를 내려 달라고 청원하고 간청하였다. 짐의 평의회가 이를 살펴본즉 책의 인쇄에 관하여 짐이 근래에 반포한 칙령이 정한 절차를 그 책이 모두 거쳤으므로, 그 사유로 그대에게 이 칙서를 내리기로 의결하였고 짐도 이를 가상히 여겼노라. 이에 그대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자, 그대 또는 그대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밖에는 누구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을 짐의 카스티야 모든 왕국에서 이 칙서의 날짜로부터 셈하여 10년 동안 인쇄할 수 있도록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라. 그대의 위임 없이 그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거나, 인쇄하게 하거나 판매하게 한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인쇄한 책을 활자와 기구와 함께 모두 잃을 것이요, 아울러 어길 때마다 5만 마라베디의 벌금을 물리라. 이 벌금은 3분의 1을 고발한 사람에게, 3분의 1을 짐의 국고에, 나머지 3분의 1을 판결한 재판관에게 돌리라. 다만 앞서 말한 10년 동안 그 책을 인쇄하게 할 때마다, 평의회가 살펴본 원본, 곧 쪽마다 서명 표시를 하고 끝에 짐의 평의회에 상주하는 궁정 서기 후안 갈로 데 안드라다가 서명한 그 원본과 함께 책을 평의회에 가져와 인쇄본이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짐의 명으로 임명한 교정자가 원본에 비추어 인쇄본을 살피고 바로잡았으며 원본대로 인쇄되었다는 공증 증서를, 교정자가 짚어 낸 오식을 인쇄해 붙인 채로, 그렇게 인쇄한 책마다 가져올지어다. 그래야 그대가 한 권마다 받을 값을 매길 수 있노라. 또한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에게 명하노니, 그 책이 먼저 짐의 평의회에서 교정과 값 매김을 마치기 전에는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지 말 것이며, 교정과 값 매김을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저자나 비용을 대는 사람에게 단 한 권만 넘기고 그 밖의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지어다. 교정과 값

매김이 끝난 뒤에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렇게 한 뒤에야,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고 이어서 이 칙서와 인가서와 정가 증명과 오식 목록을 실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짐의 여러 왕국의 법과 칙령에 정한 벌을 받으리라. 또한 짐의 평의회 의원들과 그 밖의 모든 재판관에게 명하노니, 이 칙서와 거기 담긴 바를 지키고 이행하라. 1604년 9월 26일 바야돌리드에서 내리노라.

짐, 국왕.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으로.

후안 데 아메스케타.

헌사

베하르 공작께,

히브랄레온 후작, 베날카사르와 바냐레스 백작, 라 푸에블라 데 알코세르 자작, 카피야·쿠리엘·부르기요스 마을의 영주께

각하께서는 온갖 책을 너그럽게 맞아들이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훌륭한 학예를, 특히 고귀한 나머지 속된 무리의 비위를 맞추고 이익을 좇는 데로 몸을 낮추지 않는 학예를 아끼시는 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믿고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각하의 더없이 빛나는 이름 아래 세상에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그토록 높으신 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공경을 다하여 간청하오니, 이 책을 기꺼이 각하의 보호 아래 받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책이 학식 있는 이들의 집에서 지어진 글들이 으레 걸치는 우아함과 박식함이라는 귀한 장식은 하나도 걸치지 못했지만, 각하의 그늘 아래서 몇몇 사람의 판단 앞에 마음 놓고 나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 무지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서, 남의 노고를 더 엄하게, 그리고 덜 공정하게 단죄하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하께서 지혜로운 눈길을 제 착한 뜻에 두어 주신다면, 이토록 보잘것없는 봉헌의 초라함을 업신여기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서문

한가한 독자여,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 주겠지만, 나는 이 책이 내 지성의 자식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늠름하고 가장 슬기로운 책이 되기를 바랐다네. 그러나 나라고 자연의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었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저를 닮은 것을 낳는 법이니까. 그러니 메마르고 제대로 가꾸지 못한 내 재주가 무엇을 낳을 수 있었겠는가? 바싹 마르고 쭈글쭈글하고 변덕스러우며, 다른 누구도 떠올린 적 없는 갖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자식의 이야기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온갖 불편이 자리를 잡고 온갖 서글픈 소리가 깃들어 사는 감옥에서 잉태된 자식다운 이야기지. 고요함, 아늑한 곳, 들판의 아름다움, 하늘의 맑음, 샘물의 속삭임, 마음의 평온이 있으면, 가장 메마른 뮤즈들도 풍요로워져서 세상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자식을 내놓는다네. 어떤 아버지에게 못생기고 아무 매력도 없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눈을 가려 그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결점을 슬기와 귀여움으로 여겨 친구들에게 재치요 익살이라고 자랑하게 하는 일이 있지. 그러나 나는 겉으로는 아버지 같아 보여도 실은 돈키호테의 의붓아버지라서, 세상 관습의 물살에 휩쓸려 가고 싶지 않네. 남들처럼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친애하는 독자여, 내 이 자식에게서 보게 될 결점을 용서해 달라거나 눈감아 달라고 빌고 싶지도 않네. 자네는 그 애의 친척도 친구도 아니고, 자네 몸 안에 자네 영혼이 있고 누구 못지않게 자유 의지가 있으며, 자네

집에서는 왕이 제 세금의 주인이듯 자네가 주인이고, 흔히들 하는 말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내 망토 밑에서는 왕도 죽인다고. 이 모든 것이 자네를 온갖 눈치와 의무에서 풀어 주고 자유롭게 하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두고 무엇이든 자네 생각대로 말해도 되네. 나쁘게 말했다고 헐뜯을 사람도 없고, 좋게 말했다고 상을 줄 사람도 없으니 걱정 말게.

나는 그저 이 이야기를 서문으로 꾸미지도 않고, 책머리에 으레 싣는 소네트며 경구시며 찬사를 수도 없이 줄줄이 늘어놓지도 않은 채, 맨몸 그대로 자네에게 내주고 싶었네. 사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짓는 데도 꽤 애를 먹었지만, 지금 자네가 읽고 있는 이 머리말을 쓰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네. 나는 이것을 쓰려고 몇 번이나 펜을 들었다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내려놓았지. 한번은 그렇게 넋을 놓고 종이를 앞에 둔 채 펜은 귀에 꽂고, 팔꿈치는 책상에 괴고, 손으로 뺨을 받치고 무슨 말을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재치 있고 사리에 밝은 내 친구 하나가 불쑥 들어왔네. 친구는 내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까닭을 물었지. 나는 숨기지 않고 말해 주었네. 돈키호테 이야기에 붙일 서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어찌나 난처한지 서문을 쓰기도 싫고 그토록 고귀한 기사의 무훈을 세상에 내놓기도 싫어졌다고 말일세.

"그도 그럴 것이, 자네 생각해 보게. 속인들이라 부르는 저 옛 입법자가 무어라 할지 어찌 내가 걱정하지 않겠는가? 망각의 침묵 속에 그토록 여러 해를 잠들어 있던 내가 이제 나이를 한 짐 짊어지고 나와서 내놓는 것이, 에스파르토 풀처럼 메마르고 지어낸 솜씨도 없고 문체도 모자라고 착상도 빈약하고 학식이며 가르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야기라면 말일세. 여백에 주석도 없고 책 끝에 해설도 없지 않은가. 다른 책들을 보면, 허황되고 세속적인 책이라 해도 아리스토텔레스며 플라톤이며 온갖 철학자 무리의 금언이 가득해서 읽는 사람들이 감탄하고, 저자들을 박식하고 학문 깊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다들 그들을 성 토마스요 교회 박사들이라고 할 걸세. 그들은 이 점에서 어찌나 재치 있게 격식을 지키는지, 한 줄에서는 넋 나간 연인을 그려 놓고 다음 줄에서는 짤막한 그리스도교 설교를 늘어놓아, 듣거나 읽기에 그토록 즐겁고 흐뭇할 수가 없다네. 내 책에는 이런 것이 모두 없을 걸세. 여백에 달 주석도, 끝에 붙일 해설도 없고, 내가 책에서 어떤 저자들을 따랐는지도 모르니, 남들이 다 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 크세노폰과 조일로스나 제욱시스로 끝나는 에이, 비, 시 순서로 그 이름을 책머리에 실을 수도 없네. 둘 가운데 하나는 독설가였고 하나는 화가였는데도 말일세. 또 내 책에는 책머리에 실을 소네트도 없을 걸세. 적어도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이나 주교나 귀부인이나 아주 이름난 시인이 지은 소네트는 없을 거야. 하기야 내가 글 짓는 일을 하는 친구 두셋에게 부탁하면 지어 주리라는 것은 알고 있네. 그것도 우리 에스파냐에서 가장 이름난 사람들의 소네트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것을 말일세. 요컨대, 여보게, 내 친구." 내가 말을 이었네. "나는 돈키호테 나리를 라만차의 문서 보관소에 묻어 두기로 마음먹었네. 하늘이 그에게 모자란 그 많은 것을 채워 꾸며 줄 사람을 보내 줄 때까지 말일세. 나는 재주도 모자라고 배운 것도 적어서 그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없고, 게다가 천성이 게으르고 굼떠서, 나 혼자서도 할 줄 아는 말을 대신 해 줄 저자들을 찾아다니기가 귀찮기 때문이네. 자네가 보았을 때 내가 넋을 놓고 생각에 잠겨 있던 까닭은 여기서 나왔네. 자네가 들은 대로, 그만한 까닭이면 나를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겠나."

이 말을 듣자 친구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탁 치고 웃음을 한바탕 터뜨리더니 내게 말했네.

"맙소사, 형제여, 이제야 나는 자네를 알고 지낸 그 오랜 세월 내내 빠져 있던 착각에서 깨어났네. 나는 자네가 무슨 일에서나 슬기롭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늘 여겼거든.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는 하늘이 땅에서 먼 만큼이나 그런 사람과 거리가 머네. 이렇게 하찮고 바로잡기 쉬운 일들이, 어떻게 자네처럼 무르익고 그보다 훨씬 큰 어려움도 부수고 짓밟고 나아가는 데 익숙한 재주를 붙들어 매고 넋을 빼놓을 힘이 있단 말인가? 맹세코 이것은 솜씨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게으름이 넘치고 궁리가 모자라서 생긴 일이네. 내 말이 사실인지 보고 싶은가? 그럼 내 말을 잘 듣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자네의 어려움을 모두 무찌르고, 자네의 그 이름난 돈키호테, 온 편력 기사도의 빛이요 거울인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의 빛 아래 내놓지 못하게 자네를 붙들고 겁먹게 한다는 그 모자람을 모두 메워 줄 테니."

"말해 보게."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대꾸했네. "자네는 무슨 수로 내 두려움의 빈자리를 채우고 내 혼란의 혼돈을 밝은 데로 이끌어 내겠다는 건가?"

그러자 친구가 말했네.

"첫째로 자네가 마음에 걸려 하는 것, 곧 책머리에 실을 소네트며 경구시며 찬사가 없고, 그것도 무게 있고 작위 있는 인물들이 지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네가 몸소 조금 수고해서 지으면 해결되네. 그런 다음 그것들에 세례를 주어 자네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면 되지. 인도의 사제왕 요한이나 트라피손다 황제가 지은 것으로 해 두는 걸세. 내가 알기로 그들이 이름난 시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설령 그들이 시인이 아니었고, 어떤 현학자나 학사 나부랭이가 뒤에서 자네를 물어뜯고 이 진실을 두고 수군거린다 해도, 2마라베디[1]만큼도 개의치 말게. 그들이 자네의 거짓말을 밝혀낸다 해도, 그것을 쓴 자네 손을 잘라 가지는 못할 테니까.

"여백에 인용하는 일, 곧 자네 이야기에 넣을 금언과 명언을 어느 책 어느 저자에게서 따왔는지 밝히는 일은, 자네가 외우고 있거나 적어도

찾기에 큰 수고가 들지 않는 금언이나 라틴어 구절 몇 개를 꼭 들어맞게 넣기만 하면 되네. 이를테면 자유와 속박을 다룰 때는 이런 구절을 넣는 걸세.

자유는 온 세상 황금을 다 주어도 팔 것이 못 된다(Non bene pro toto libertas venditur auro).

그리고 곧바로 여백에 호라티우스라고, 아니면 누구든 그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지. 죽음의 힘을 다룰 때는 곧장 이 구절을 끌어오게.

> 창백한 죽음은 가난한 이의 오두막도 똑같은 발로 두드리고(Pallida mors aequo pulsat pede pauperum tabernas,)
> 임금의 탑도 두드린다(Regumque turres).

하느님께서 원수에게도 품으라고 명하신 우정과 사랑을 다룰 때는, 곧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게. 조금만 공을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니, 적어도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Ego autem dico vobis: diligite inimicos vestros).' 나쁜 생각을 다룰 때는 복음서를 끌어오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De corde exeunt cogitationes malae).' 친구의 변덕을 다룰 때는 카토가 있으니, 그가 이행시 한 수를 내줄 걸세.

> 네가 행복한 동안에는 친구를 많이 셀 것이나(Donec eris felix, multos numerabis amicos,)
> 때가 흐려지면 너는 혼자가 되리라(tempora si fuerint nubila, solus eris).

이런 라틴어 부스러기며 그 비슷한 것들을 넣어 두면 사람들이 적어도 자네를 문법학자로는 여겨 줄 걸세. 요즘 세상에 문법학자라는 것은 적잖이 명예롭고 쓸모 있는 일이거든.

"책 끝에 해설을 붙이는 일은 이렇게 하면 틀림없네. 자네 책에 거인 이름을 하나 넣어야 한다면 거인 골리앗으로 하게. 그것만으로, 거의 아무 수고 없이 큰 해설 하나가 생기네.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거인 골리아스, 또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으로, 『열왕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양치기 다윗이 테레빈토 골짜기에서 커다란 돌팔매로 죽였다.' 몇 장인지는 자네가 찾아서 적어 넣게. 다음으로, 인문학에 박식하고 우주지에도 밝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자네 이야기에 타호강이 나오게 하게. 그러면 또 하나의 이름난 해설이 생길 걸세. 이렇게 적는 거지. '타호강은 에스파냐의 어느 왕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린다. 이 강은 어디어디에서 발원하여, 이름난 도시 리스본의 성벽에 입 맞추며 대양으로 흘러들어 죽는다. 그 모래가 금이라는 설이 있다 운운.' 도둑을 다룰 때는 내가 카쿠스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건 내가 줄줄 외우고 있으니까. 창녀를 다룰 때는 몬도녜도 주교[2]가 있으니, 그가 라미아와 라이다와 플로라를 빌려줄 걸세. 그 해설이 자네에게 큰 신망을 안겨 줄 거야. 잔인한 사람을 다룰 때는 오비디우스가 메데이아를 넘겨줄 것이고, 마법사와 마녀를 다룰 때는 호메로스에게 칼립소가 있고 베르길리우스에게 키르케가 있네. 용맹한 장수를 다룰 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자기가 쓴 『전쟁 기록』에서 자기 자신을 빌려줄 것이고,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천 명이나 내줄 걸세. 사랑을 다룰 때는 토스카나 말을 두 온스만 알아도 레온 에브레오[3]와 마주칠 텐데, 그가 자네 몫을 넉넉히 채워 줄 걸세. 남의 나라까지 갈 생각이 없다면 자네 집에도 폰세카의 『하느님의 사랑에 관하여』가 있네. 그 책에는 그 문제에 관해 자네나 가장 재주 있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지. 결국 자네는 내가 여기서 말한 이 이름들을 대거나 이 이야기들을 자네 이야기에 슬쩍 건드리기만 하고, 해설과 주석 다는 일은 내게

맡기게. 맹세하건대 자네 책의 여백을 가득 채우고, 책 끝에 전지 넉 장은 써 주겠네.

"이제 다른 책에는 있고 자네 책에는 없는 저자 목록 이야기를 하세.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아주 쉽네. 자네 말대로 에이부터 제트까지 저자를 모두 늘어놓은 책을 한 권 찾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그 알파벳 목록을 그대로 자네 책에 옮겨 놓게. 자네가 그들을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었으니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겠지만, 그건 아무 상관 없네. 어쩌면 자네의 그 단순하고 소박한 이야기에 그 저자들을 모두 이용했다고 믿을 만큼 단순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달리 쓸모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긴 저자 목록은 책에 단숨에 권위를 실어 주는 구실은 할 걸세. 게다가 자네가 그들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굳이 캐 보려는 사람은 없을 걸세. 그래 봐야 자기한테 아무 득이 없으니까. 더구나 내가 제대로 짚었다면, 자네의 이 책에는 자네가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 소설을 공격하는 글이니까. 기사 소설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 바실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키케로는 알지도 못했네. 그 허황된 엉터리 이야기들은 진실의 정확함이나 천문학의 관측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기하학의 측량도, 수사학이 쓰는 논박도 그것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네. 또 인간의 일과 신의 일을 뒤섞어 누구에게 설교할 까닭도 없지. 그런 뒤섞음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지성이라면 결코 걸쳐서는 안 되는 옷이니까. 이 책은 쓰는 동안 모방만 잘 활용하면 되네. 모방이 완벽할수록 쓰는 글도 더 나아지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자네의 이 글은 기사 소설이 세상과 속인들 사이에서 누리는 권위와 인기를 무너뜨리는 것만을 노리니, 철학자의 금언이며 성경의 가르침이며 시인의 우화며 수사가의 연설이며 성인의 기적을 구걸하고 다닐 까닭이 없네. 그보다는 뜻이 분명하고 점잖고 제자리에 놓인 낱말로, 자네의 말과 문장이 쉽고

낭랑하고 흥겹게 나오도록 힘쓰게. 할 수 있는 한 자네의 뜻을 그려 보이고, 생각을 얽히게 하거나 흐리지 말고 알아듣게 전하게. 또 자네 이야기를 읽으며 우울한 사람은 웃음이 나고, 잘 웃는 사람은 더 웃고, 단순한 사람은 지루해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은 그 착상에 감탄하고, 근엄한 사람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신중한 사람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도록 힘쓰게. 요컨대, 그토록 많은 이가 혐오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이가 칭송하는 이 기사 소설이라는, 터를 잘못 잡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데 눈길을 두게. 그것만 이룬다면 결코 작은 것을 이룬 게 아닐 걸세."

나는 친구의 말을 잠자코 귀 기울여 들었네. 그 말이 어찌나 깊이 내게 새겨졌는지 나는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였고, 바로 그 말로 이 서문을 짓기로 했다네. 너그러운 독자여, 자네는 이 서문에서 내 친구의 슬기와, 이토록 궁할 때 그런 조언자를 만난 내 행운과, 이토록 꾸밈없고 꼬인 데 없는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를 만난 자네의 다행을 보게 될 걸세. 몬티엘 들판 일대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돈키호테는 여러 해 전부터 그 부근에서 보지 못한 가장 정결한 연인이요 가장 용맹한 기사였다네. 그토록 고귀하고 훌륭한 기사를 자네에게 알려 주는 수고를 두고 생색을 내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그의 종자인 이름난 산초 판사를 알게 해 준 것만큼은 고맙게 여겨 주기 바라네. 내가 보기에 나는 이 사람 안에, 허황된 기사 소설 무리 속에 흩어져 있는 종자다운 멋을 모두 담아 자네에게 주는 셈이니까.

그럼 이만. 하느님께서 자네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도 잊지 마시기를. 잘 있게.

---

1. 마라베디는 카스티야의 가장 작은 셈 단위다. 이 무렵 1레알은 34마라베디, 1두카도는 375마라베디, 1에스쿠도는 400마라베디 남짓이었다.

2. 안토니오 데 게바라(1480?~1545). 『친밀한 편지들』에서 라미아·라이다·플로라 같은 옛날의 이름난 창녀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3. 유다 아브라바넬(1460?~1530?)의 에스파냐식 이름. 이탈리아어로 『사랑의 대화』를 썼다.

머리 시

라만차의 돈키호테 책에 부쳐

알 수 없는 여인 우르간다
착한 이들 곁에 가려 하거-,
책이여, 글 아는 티를 내거-,
풋내기 애송이도 네게 말하지 못하-
손가락을 잘못 짚는다-.
그러나 빵이 구워지기를 못 기다-
바보들 손에 들어가려 하-,
너는 대번에 보게 되리-,
못대가리 한 번 못 맞히-,
제 손을 물어뜯으면서까-
영리한 척 뽐내는 꼴-.
그리고 겪어 보면 알 수 있-
좋은 나무에 기대는 사-
좋은 그늘이 감싸 주는 법이-,
베하르에서 너의 좋은 별-
왕실의 나무 하나를 내어 주-
그 나무는 열매로 군주들을 맺-,
거기 공작 한 분이 꽃피었-
그분은 새로운 알렉산드로스 대-:
그 그늘로 가거라, 대담한 자-
운명은 돕기 마련이-.
라만차의 어느 고귀한 시골 귀-
모험을 너는 들려주리-,
그는 한가한 책 읽기 때문-,
머리가 그만 뒤집혔-:
귀부인과 무기와 기사-,
그것들이 그를 부추기-,
미친 오를란도처-,

사랑에 달아오르-,
팔 힘으로 마침내 얻어 낸 것-
토보소의 둘시네-.
분별없는 상형 문-
방패에 새기지 말-,
온통 그림 패뿐이-,
하찮은 점수로 판돈을 거-.
헌사에서 몸을 낮추-,

아무도 비웃으며 말하지 못하리-:
'무슨 돈 알바로 데 루-,
무슨 카르타고의 한니-,
무슨 에스파냐에 사로잡힌 프랑수아 왕-
운명을 원망한단 말이-!'
하늘이 바라지 않으셨-
네가 그토록 약삭빠르-
흑인 후안 라티노처-,
라틴말일랑 마다하-.
내게 재치를 뽐내지 마-,
철학자들을 끌어대지도 마-,
입을 비죽 비틀-
글을 아는 사람이 말하-,
당나귀 귀가 아닌 사-:
'나한테 무슨 꽃타-?'
그림 그리는 데 끼어들지 마-,
남의 삶을 캐지도 마-,
아무 상관 없는 일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슬기로운 법이-.
익살꾼들은 흔히 두건 위-
꿀밤을 얻어맞기 마련이-;
너는 눈썹이 타도록 애-
좋은 이름 얻는 데만 힘쓰-;
어리석은 소리를 찍어 내는 자-
그 소리를 영영 세 놓는 셈이-.
명심하라, 어리석은 짓이-,
제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으-,
손에 돌을 집어 들-
이웃에게 던지는 짓-.
분별 있는 사람은 내버려 두어-,
자기가 짓는 작품에-,
납으로 된 발로 신중히 걷게-;
종이 뭉치를 세상에 내놓는 사-
아가씨들 심심풀이 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쓰는 법이-.

가울라의 아마디스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소네트

그대, 내가 보낸 눈물의 삶을 본받은 이여,
임과 떨어져 냉대받으며 나는 머물렀노라,
가난한 바위의 드높은 비탈 위에서,
기쁨에서 고행으로 떨어진 그 삶을.
그대, 두 눈이 마실 것을 내주었으니
넘치도록 흐르는, 그러나 짠 눈물이었고,
은그릇도 주석 그릇도 구리 그릇도 앗기고
맨땅 위에서 땅이 내준 것을 먹은 이여,
안심하고 살지어다, 영원토록,
적어도 넷째 하늘에서
금빛 아폴론이 말들을 몰아대는 동안은
그대는 용맹하다는 빛나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대의 고향은 모든 고장 가운데 으뜸이 되고,
그대의 슬기로운 작가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리라.

그리스의 돈 벨리아니스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소네트

나는 부수고 베고 찌그러뜨렸으며, 말하고 행한 것이
세상 어느 편력 기사보다 많았노라.
나는 날랬고, 용감했고, 오만했노라.
모욕 천 가지를 갚았고, 십만 가지를 바로잡았노라.
명성에게 무훈을 주어 길이 남기게 했고,
예의 바르고 다정한 연인이었노라.
내게는 어떤 거인도 난쟁이였고,
결투의 법도는 어느 대목에서나 채웠노라.
운명의 여신이 내 발아래 엎드렸고,
내 분별은 대머리 '기회'의 앞머리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노라.
그러나 내 행운이 늘 초승달 뿔 위에
높이 올라앉아 있었다 해도,
그대의 무훈이 부럽도다, 오 위대한 키호테여!

오리아나 아씨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소네트

아, 어여쁜 둘시네아여,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더 편하고 더 느긋하게 지내려고
미라플로레스 성을 토보소로 옮겨 놓고
그 런던을 그대의 마을과 바꾸련만!
아, 그대의 소망과 그대의 표장으로
내 영혼과 몸을 꾸밀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대가 행운을 안겨 준 그 이름난 기사가
힘겨운 싸움 벌이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아, 나도 그토록 정결하게 벗어날 수 있다면,
아마디스 나리에게서, 그대가
예의 바른 시골 귀족 돈키호테에게서 그리했듯이!
그러면 나는 시샘을 받되 시샘하지 않고,
슬펐던 날들이 즐거운 날이 되었을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도 기쁨을 누렸을 것을.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종자 간달린이 돈키호테의 종자 산초 판사에게
소네트

평안하라, 이름난 사내여, 운명의 여신은
그대를 종자의 일에 앉힐 때
어찌나 부드럽고 슬기롭게 마련해 주었는지
그대는 아무 불운 없이 그 일을 치러 냈노라.
이제 괭이나 낫도 편력의 일과
그리 어긋나지 않으니, 이제는
종자의 소박함이 쓰이는 때라, 나는 그것으로
달을 짓밟으려 드는 오만한 자를 꾸짖노라.
나는 그대의 당나귀와 그대의 이름이 부럽고,
그대의 자루도 똑같이 부러우니,
그것들이 그대의 슬기로운 대비를 보여 주었노라.
다시 한 번 평안하라, 오 산초여, 참으로 착한 사람이여,
우리 에스파냐의 오비디우스가 오직 그대에게만
손등 입맞춤에 뺨치기를 얹어 절을 올리노라.

반쯤 시인인 익살꾼이 산초 판사와 로시난테에게

나는 산초 판사, 종-
라만차의 돈키호-.
나는 줄행랑을 놓았-,
슬기롭게 살아 보려-;
말 없는 비야디에-
나라의 이치를 모-
물러남 하나에 담았다-,
『셀레스티나』가 일러 주-,
내 보기엔 신성한 책이-
인간의 일을 더 감추었더라-.
로시난테에게
나는 로시난테, 이름-
위대한 바비에카의 증손-.
비쩍 마른 죄 때-,
어느 돈키호테 손에 들어갔-.
경주는 느릿느릿 뛰었-;
그래도 말발굽 솜-
보리는 놓친 적이 없-;
이건 라사리요에게 배-
장님 영감의 포도주 훔치-
밀짚 대롱을 꽂았을 때-.

광란의 오를란도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소네트

그대가 열두 기사의 짝이 아니라 해도, 그대와 짝할 이도 없었으니,
천 명의 짝 가운데서도 그대는 짝이 될 만하고,
그대가 있는 곳 어디에도 그대와 짝할 이는 없으리라,
꺾이지 않는 승리자여, 한 번도 지지 않은 이여.
키호테여, 나는 오를란도, 앙헬리카 때문에
넋을 잃고 먼 바다를 떠돌며
명성의 제단에 바쳤노라,
망각도 감히 손대지 못한 그 용맹을.
나는 그대와 같을 수 없으니, 그 영예는
그대의 무훈과 그대의 명성에 돌아갈 몫이라,
비록 그대도 나처럼 정신을 잃었으나.
그러나 그대가 오만한 무어인과 사나운 스키타이인을
길들인다면 그대는 나와 같아지리라. 오늘 세상은 우리를
사랑에 똑같이 불운한 자들이라 부르노라.

태양의 기사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소네트

내 칼은 그대의 칼에 미치지 못했고,
에스파냐의 태양이여, 멋을 아는 궁정인이여,
내 손도 그대 용맹의 드높은 영광에 미치지 못했노라,
해가 뜨고 지는 곳에서 번개였던 이 손도.
나는 제국들을 업신여겼고, 붉은 동방이
내게 바친 왕위를 헛되이
버렸노라, 나의 아리따운 새벽빛
클라리디아나의 지엄한 얼굴을 보려고.
나는 그 아가씨를 단 하나뿐인 드문 기적으로 사랑했고,
그 아가씨가 없는 불행 속에서는 지옥조차
그 분노를 길들인 내 팔을 두려워했노라.
그러나 그대, 고귀하고 빛나는 고트의 키호테여,
그대는 둘시네아 덕분에 세상에 영원하고,
그 아가씨는 그대 덕분에 이름나고 정숙하고 슬기롭도다.

솔리스단이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소네트

키호테 나리, 비록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대의 골을 무너뜨려 놓았을지언정,
그대가 비천하고 상스러운 짓을 하는 자라고
누구에게서도 손가락질받지는 않으리로다.
그대의 무훈이 그대의 심판관이 되리니,
그대는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으며 다녔고,
천 차례나 몽둥이찜질을 당했도다,
비겁하고 비루하고 천한 놈들에게.
그리고 그대의 어여쁜 둘시네아가
그대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그대의 시름에 좋은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낭패 속에서 그대의 위안이 될지어다,
산초 판사가 서툰 뚜쟁이였다는 것이,
그는 어리석고 아가씨는 매정하고 그대는 연인이 못 되었다는 것이.

바비에카와 로시난테의 대화

소네트

바. 로시난테, 어찌 그리 비쩍 말랐소?
로. 먹지는 못하고 일만 하니 그렇소.
바. 그럼 보리와 짚은 다 어찌 되었소?
로. 주인이 한 입도 남겨 주지 않는다오.
바. 이보시오, 나리, 참 버릇없구려,
그대의 당나귀 같은 혀로 주인을 욕보이다니.
로. 그분은 요람에서 수의까지 당나귀라오.
보고 싶소? 사랑에 빠진 꼴을 보시오.
바. 사랑이 어리석은 짓이오? 로. 대단한 분별은 아니지요.
바. 형이상학자가 되셨구려. 로. 먹지를 못해서 그렇소.
바. 종자를 탓하시오. 로. 그것으로는 모자라오.
이 병든 몸으로 어찌 하소연을 하겠소,
주인이며 종자며 집사며 하는 것들이
모두 로시난테만큼이나 비루먹은 말인데?

제1편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1편

제1장 이름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됨됨이와 생활을 다룬다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창걸이에 창을 걸어 두고 낡은 가죽 방패와 비쩍 마른 말과 날랜 사냥개를 거느린 그런 부류의 시골 귀족(hidalgo) 하나가 살고 있었다. 양고기보다 쇠고기를 조금 더 넣은 냄비 요리, 저녁이면 거의 날마다 먹는 다진 고기 무침, 토요일의 베이컨 달걀 볶음, 금요일의 렌즈콩, 일요일이면 덤으로 곁들이는 어린 비둘기 한 마리가 그의 수입의 4분의 3을 먹어 치웠다. 나머지는 고운 검은 모직 윗옷과 나들이 때 입는 벨벳 바지, 같은 천으로 지은 덧신에 들어갔고, 평일에는 가장 좋은 갈색 모직 옷으로 체면을 차렸다. 집에는 마흔이 넘은 가정부와 스물이 채 안 된 조카딸, 그리고 말에 안장도 얹고 전지가위도 잡는 머슴이 하나 있었다. 우리 시골 귀족의 나이는 쉰 줄에 가까웠다. 체격은 단단했으나 몸은 마르고 얼굴은 홀쭉했으며, 새벽같이 일어나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즐겼다. 그의 성이 키하다였다고도 하고 케사다였다고도 하는데, 이 일을 기록한 작가들 사이에 얼마간 말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럴듯한 짐작으로는 케하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이야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알아 둘 것은, 앞서 말한 이 시골 귀족이 한가할 때면, 그러니까 한 해의 거의 대부분을 기사 소설 읽기에 빠져 지냈다는

사실이다. 어찌나 열중하고 좋아했는지 사냥은 물론이고 살림 돌보는 일까지 거의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 일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어리석음이 지나쳐서, 그는 읽을 기사 소설을 사려고 씨 뿌릴 밭을 여러 뙈기 팔아 치웠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기사 소설은 모조리 집으로 들였다. 그 가운데서도 이름난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쓴 책들만큼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그 문장의 명료함과 뒤얽힌 말솜씨가 그에게는 진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연애편지와 결투 신청장 대목에 이르면 더욱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곳곳에 적혀 있었다. '나의 이치에 가해지는 이치 없음의 이치가 나의 이치를 그토록 쇠하게 하니, 내가 그대의 아리따움을 원망함은 이치에 맞도다.' 또 이런 대목을 읽을 때도 그랬다. '……그대의 신성을 별들과 더불어 신성하게 굳건히 하시어, 그대의 위대함이 마땅히 받을 만한 마땅함을 받기에 마땅한 분으로 그대를 만드시는 드높은 하늘이……'

이런 말들 때문에 가엾은 기사는 정신을 잃어 갔다. 그는 그 말들을 이해하고 뜻을 캐내려고 밤잠을 설쳤지만, 오직 그 일 하나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살아난다 해도 뜻을 캐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돈 벨리아니스가 입히고 입은 상처들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 치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얼굴이며 온몸이 흉터와 자국투성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작가가 끝나지 않을 모험을 약속하며 책을 끝맺은 것만은 칭찬했고, 몇 번이나 펜을 들어 거기 약속된 대로 그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끝맺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른 더 크고 끊임없는 생각들이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고, 해내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는 시구엔사에서 학위를 받은 학식 있는 사람인 마을 신부와, 잉갈라테라의 팔메린과 가울라의 아마디스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한 기사였느냐를 두고 여러 번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같은 마을의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은 어느 쪽도 태양의 기사에는 미치지 못하며, 그에 견줄 만한 이가 있다면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아우 돈 갈라오르뿐이라고 했다. 갈라오르는 무엇에나 두루 맞는 성품이라 까다롭게 구는 기사도 아니고 형처럼 울보도 아니며, 용맹에서는 형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요컨대 그는 독서에 너무 깊이 빠져, 밤에는 날이 샐 때까지 꼬박, 낮에는 날이 저물 때까지 내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잠은 적게 자고 책은 많이 읽다 보니 골이 바싹 말라 버려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은 책에서 읽은 온갖 것으로 가득 찼다. 마법, 싸움, 전투, 결투, 부상, 사랑의 속삭임, 연애, 폭풍, 그리고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들. 그가 읽은 그 소문난 꿈같은 이야기들의 얼개가 모두 사실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어찌나 단단히 박혔는지, 그에게는 세상에 그보다 확실한 역사가 없었다. 그는 시드 루이 디아스가 아주 훌륭한 기사였지만, 칼을 단 한 번 되받아 휘둘러 사납고 엄청난 거인 둘을 두 동강 낸 불타는 칼의 기사와는 견줄 바가 못 된다고 했다. 그는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를 더 좋아했다. 베르나르도는 헤라클레스가 대지의 아들 안타이오스를 두 팔로 껴안아 숨통을 끊은 꾀를 써서, 론세스바예스에서 마법에 걸린 롤단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는 거인 모르간테를 크게 칭찬했다. 그 거인 족속은 하나같이 오만하고 무례한데 모르간테만은 상냥하고 예의 발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몬탈반의 레이날도스를 좋아했는데, 특히 레이날도스가 제 성에서 나와 마주치는 사람마다 털어먹을 때,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다 건너 땅에서 온통 금으로 된 마호메트의 우상을 훔쳐 올 때 그랬다. 배신자 갈랄론을 실컷 걷어찰 수만 있다면, 그는 가정부를 내주고 조카딸까지 덤으로 얹어 주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이 완전히 나가 버리자, 그는 세상의 어떤 미치광이도 떠올린 적 없는 가장 기이한 생각에 이르렀다.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려면 편력 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찾아 나서고, 편력 기사들이 했다고 책에서 읽은 모든 일을 몸소 해 보이며, 온갖 불의를 바로잡고 위기와 위험에 몸을 던져 그것을 이겨 냄으로써 영원한 이름과 명성을 얻는 것이 마땅하고도 필요하다고 그는 여겼다. 가엾은 그는 자기 팔의 용맹으로 벌써 적어도 트라피손다 제국의 왕관을 쓴 모습을 그려 보았다. 이렇게 즐거운 생각에 잠기고 거기서 느끼는 기이한 쾌감에 이끌려, 그는 바라는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서둘렀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증조부들이 쓰던 갑옷을 닦는 일이었다. 녹이 슬고 곰팡이가 잔뜩 핀 그 갑옷은 오랜 세월 한구석에 처박혀 잊혀 있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갑옷을 닦고 손질했지만, 큰 결함이 하나 있었다. 얼굴 가리개 달린 투구가 아니라 그냥 밋밋한 철모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꾀를 내어 이 결함을 메웠다. 두꺼운 종이로 반쪽짜리 얼굴 가리개 비슷한 것을 만들어 철모에 맞춰 끼우자, 그럴듯한 온전한 투구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그것이 튼튼하여 칼질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칼을 뽑아 두 번 내리쳤는데, 첫 칼질에 한 주일 동안 만든 것이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다. 그렇게 쉽게 산산조각이 난 것이 영 마음에 걸린 그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려고 안쪽에 쇠막대를 몇 개 대어 다시 만들었고, 마침내 그 튼튼함에 흡족해했다. 그리고 다시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더없이 훌륭한 얼굴 가리개 달린 투구로 정하고 그렇게 여겼다.

다음으로 그는 자기 말을 보러 갔다. 그 말은 발굽에 갈라진 데(cuarto)가 레알 은화 한 닢을 바꾼 쿠아르토 동전보다 많았고, '가죽과 뼈뿐이었다(tantum pellis et ossa fuit)'는 고넬라의 말보다 흠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그의 눈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부케팔로스도, 시드의 바비에카도 이 말에 견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말에 무슨 이름을 붙일지 궁리하느라 나흘을 보냈다. 스스로 되뇐 바에 따르면, 그토록 이름난 기사의 말이, 그것도 저 자신도 그토록 훌륭한 말이 알려진 이름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이 편력 기사의 말이 되기 전에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인지를 드러내 줄 이름을 지어 주려고 애썼다. 주인이 신분을 바꾸었으니 말도 이름을 바꾸어, 주인이 이제 몸담은 새로운 기사의 길과 새 직분에 걸맞게 이름나고 요란한 이름을 얻는 것이 지극히 이치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름을 기억과 상상 속에서 지어냈다가 지우고, 빼고, 보태고, 허물고, 다시 지은 끝에, 마침내 그는 말을 로시난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고상하고 낭랑하며, 지금의 처지가 되기 전 한낱 로신(rocín), 곧 볼품없는 말이었을 때를 일러 주면서도, 이제는 세상의 모든 로신 가운데 앞선(ante) 으뜸이라는 뜻까지 담은 이름이었다.

말에 그토록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이고 나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짓고 싶어졌다. 이 생각으로 다시 여드레를 보낸 끝에 그는 마침내 자기를 돈키호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참으로 진실한 이야기의 작가들은 여기서 그의 이름이 다른 이들이 말한 대로 케사다가 아니라 틀림없이 키하다였으리라는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용맹한 아마디스가 그냥 아마디스라고만 불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 왕국이자 고향의 이름을 덧붙여 그곳을 이름나게 하려고 가울라의 아마디스라고 불렸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그래서 훌륭한 기사답게 자기 이름에도 고향의 이름을 덧붙여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자기 가문과 고향을 아주 생생하게 밝히는 동시에, 고향의 이름을 제 성으로 삼아 고향을 영광스럽게 하는 셈이었다.

이렇게 갑옷을 닦고, 철모를 투구로 만들고, 말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도 새로 확정하고 나니, 이제 사랑할 귀부인 하나를 찾는 일 말고는 모자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 없는 편력 기사란 잎도 열매도 없는 나무요, 영혼 없는 몸이기 때문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든 운이 좋아서든, 편력 기사들에게 늘 그러하듯 내가 어디선가 거인과 마주쳐 단번에 그를 쓰러뜨리거나 몸통을 두 동강 내거나, 아무튼 그를 이겨 항복을 받아 낸다면, 그를 선물로 보낼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들어가 나의 다정한 아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항복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뢰도록 말이다. '아씨, 저는 말린드라니아 섬(ínsula)의 영주인 거인 카라쿨리암브로이옵니다. 아무리 칭송해도 마땅한 만큼 칭송받은 적이 없는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께서 일대일 결투로 저를 이기시고, 아씨 앞에 나아가 아씨의 위대하심이 마음 내키시는 대로 저를 처분하시게 하라고 명하셨나이다.'"

아, 우리 착한 기사가 이 말을 다 늘어놓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던가. 게다가 자기 귀부인이라는 이름을 줄 상대를 찾아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사람들이 믿는 바로는 이렇다. 그의 마을 가까운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쁘장한 농사꾼 처녀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한때 그 처녀를 좋아했지만, 알려진 바로는 처녀는 그것을 전혀 몰랐고 눈치채지도 못했다. 처녀의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였다. 그는 그 처녀에게 자기 마음의 귀부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처녀의 원래 이름과 아주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공주나 높은 귀부인의 이름에 가까워 보이는 이름을 찾다가, 처녀가 토보소 태생이었으므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물건에 붙인 다른 모든 이름처럼, 음악 같고 색다르며 뜻깊은 이름이었다.

제2장 기발한 돈키호테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일을 다룬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자 그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 바로잡아야 할 모욕, 곧게 펴야 할 비뚤어진 일, 고쳐야 할 불의, 개선해야 할 악습, 갚아야 할 빚이 그토록 많으니, 자기가 꾸물거리는 탓에 세상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생각이 그를 다그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뜻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7월의 무더운 날 가운데 하루, 날이 밝기 전 어느 아침에 갑옷을 빠짐없이 갖추어 입고, 엉성하게 맞춘 투구를 쓰고, 로시난테에 올라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 창을 든 채, 마당의 뒷문으로 해서 들판으로 나섰다. 자기의 착한 뜻을 이토록 쉽게 시작했다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고 기뻤다. 그러나 들판에 나서자마자 무시무시한 생각 하나가 그를 덮쳤다. 하마터면 막 시작한 일을 그만둘 뻔할 만큼 무서운 생각이었다. 자기가 아직 기사 서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기사도의 법에 따르면 서임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떤 기사와도 무기를 겨룰 수 없고 겨루어서도 안 되었다. 설령 서임을 받았다 해도 신참 기사이니, 제 힘으로 문장을 얻기 전까지는 방패에 문장이 없는 흰 갑옷을 입고 다녀야 했다. 이런 생각에 그는 결심이 흔들렸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치보다 그의 광기가 더 힘이 셌으므로,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 기사 서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를 이 꼴로 만든 책들에서 읽은 바로는 다른 많은 기사들도 그렇게 했다. 흰 갑옷 문제는,

틈이 나는 대로 갑옷을 닦아서 흰 담비보다 더 희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힌 그는, 말이 가고 싶어 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을 고르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모험의 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새내기 모험가는 길을 가면서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앞으로 올 시대에 나의 이름난 무훈을 담은 참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을 쓰는 현자가 이른 아침에 떠난 나의 이 첫 출정 대목에 이르러 이렇게 쓰지 않으리라고 누가 의심하겠느냐? '불그레한 아폴론이 넓고 드넓은 대지의 얼굴 위에 그 아름다운 머리칼의 금실을 막 펼쳤을 즈음, 그리고 알록달록한 작은 새들이 하프 같은 혀로 달콤하고 꿀 같은 화음을 울리며 장밋빛 새벽의 오심을 막 반겼을 즈음, 새벽은 시샘 많은 남편의 보드라운 침상을 떠나 라만차 지평선의 문과 발코니를 통해 인간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름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게으른 깃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이름난 말 로시난테에 올라, 예부터 이름난 몬티엘 들판을 가로질러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가 말을 덧붙였다.

"청동에 새기고 대리석에 아로새기고 화판에 그려 후세에 길이 기억할 만한 나의 이름난 무훈이 세상에 빛을 볼 그 시대는 복된 시대요, 그 세기는 복된 세기로다. 오, 그대 현명한 마법사여, 그대가 누구이든 이 진기한 이야기의 연대기 작가가 될 그대에게 비노니, 나의 모든 길과 나들이에 영원한 동무인 나의 착한 로시난테를 잊지 말아 다오!"

그러다 다시,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말했다.

"오, 둘시네아 공주여, 사로잡힌 이 가슴의 아씨여! 그대의 아리따움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엄한 분부로 나를 내치고 꾸짖으셨으니, 그대는

내게 크나큰 모욕을 주셨나이다. 아씨여, 그대의 사랑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름을 견디는, 그대에게 매인 이 가슴을 부디 기억해 주소서."

이런 말에 그는 다른 헛소리들을 줄줄이 꿰어 붙였다. 모두 책에서 배운 것과 같은 투였고, 그는 할 수 있는 한 그 말투를 흉내 냈다. 그러면서 어찌나 느릿느릿 갔던지, 그사이 해는 어찌나 빨리 그리고 뜨겁게 떠올랐던지, 그에게 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것을 녹이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날은 거의 하루 내내 이야기할 만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 때문에 애가 탔다. 자기의 억센 팔의 용맹을 시험해 볼 상대를 당장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떤 작가들은 그가 처음 겪은 모험이 푸에르토 라피세의 모험이었다고 하고, 또 어떤 작가들은 풍차 모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해 내가 알아낼 수 있었던 것, 『라만차 연대기』에서 찾아낸 기록은 이렇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길을 갔고, 해 질 무렵에는 그의 말과 그가 둘 다 지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는 몸을 의탁하고 심한 허기와 곤궁을 달랠 성이나 양치기 움막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가던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객줏집 하나를 발견했다. 마치 그를 구원의 문간이 아니라 구원의 궁전으로 이끌어 줄 별 하나를 본 것만 같았다. 그는 서둘러 길을 재촉했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 그곳에 다다랐다.

마침 문간에는 이른바 몸 파는 여자들 가운데 젊은 여자 둘이 서 있었다. 두 여자는 그날 밤 우연히 그 객줏집에 묵게 된 노새꾼 몇 사람을 따라 세비야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모험가에게는 자기가 생각하거나 보거나 상상하는 모든 것이 책에서 읽은 대로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만 같았으므로, 그는 객줏집을 보자마자 그것이 은빛으로 번쩍이는 뾰족지붕을 얹은 탑 네 개를 거느리고, 도개교와 깊은 해자를 비롯해 그런 성을 그릴 때 으레 따라붙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갖춘 성이라고 여겼다. 그는 자기 눈에 성으로 보이는 객줏집으로 다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로시난테의 고삐를 당겨 세웠다. 난쟁이 하나가 성가퀴 사이로 나와 나팔을 불어 기사가 성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 주기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늦어지고 로시난테는 마구간으로 가려고 서두르자, 그는 객줏집 문간으로 다가갔고, 거기 있던 그 헤픈 젊은 여자 둘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들이 성문 앞에서 바람을 쐬는 아름다운 아가씨 둘, 또는 우아한 귀부인 둘로 보였다. 그때 마침 돼지치기 하나가 그루터기만 남은 밭에서 돼지 떼를(실례지만 그렇게 부르는 수밖에 없다) 몰아들이면서 뿔피리를 불었다. 돼지들은 그 신호를 들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돈키호테의 눈앞에는 그가 바라던 일, 곧 난쟁이 하나가 그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광경이 그려졌다. 그래서 그는 이상하리만큼 흐뭇해하며 객줏집과 귀부인들에게 다가갔다. 두 여자는 그런 꼴을 한 사내가 갑옷을 입고 창과 가죽 방패를 들고 오는 것을 보자 겁에 질려 객줏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여자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음을 짐작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들어 올려 바싹 마르고 먼지투성이인 얼굴을 드러내고는, 점잖은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신 아가씨들이여, 달아나지 마시오. 몹쓸 짓을 당할까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내가 몸담은 기사도는 누구에게도 몹쓸 짓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하물며 그대들의 모습이 보여 주듯 그토록 고귀한 아가씨들에게랴."

여자들은 그를 바라보며 고약한 얼굴 가리개에 가려진 얼굴을 눈으로 찾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의 처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가씨라는 말을 듣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찌나 웃어 댔던지 돈키호테는 무안해져서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다.

"아리따운 이들에게는 조신함이 어울리는 법이요, 하찮은 까닭으로 터뜨리는 웃음은 크나큰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대들이 시름에 잠기거나 언짢은 마음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오. 내 마음은 오직 그대들을 섬기는 것밖에 없느니라."

두 여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우리 기사의 볼품없는 꼴까지 더해져 여자들은 더욱 웃어 댔고 기사는 더욱 화가 났다. 그때 객줏집 주인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일이 꽤 커졌을 것이다. 주인은 몹시 뚱뚱해서 몹시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고삐며 창이며 가죽 방패며 가슴받이며, 그렇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갑옷 무기를 걸친 그 엉터리 꼴을 보자 하마터면 아가씨들을 따라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그 많은 장비가 이루는 기괴한 덩어리가 겁이 나서 공손하게 말을 걸기로 하고, 이렇게 말했다.

"기사 나리, 묵을 곳을 찾으시는 거라면, 잠자리만 빼고는(이 객줏집엔 침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건 다 넉넉히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요새의 성주가 이렇게 겸손한 것을 보고(그의 눈에는 객줏집 주인과 객줏집이 그렇게 보였다) 대답했다.

"성주(castellano)여, 내게는 무엇이든 족하오. 왜냐하면
내 몸치장은 갑옷이요,
내 쉼은 싸움이니, 운운."

주인은 그가 자기를 카스티야 사람(castellano)이라고 부른 것이 자기를 카스티야의 순박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실은 안달루시아 사람이었고, 그것도 산루카르 해변 출신으로 카쿠스 못지않은 도둑이요 학생 시동 못지않은 건달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리의 침대는 단단한 바위요, 나리의 잠은 늘 깨어 있는 것이겠군요. 그렇다면 마음 놓고 내리셔도 됩니다. 이 오두막에서라면 하룻밤은 고사하고 한 해 내내 잠을 못 이룰 거리가 하나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주인은 돈키호테의 등자를 잡아 주러 갔다. 돈키호테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답게 몹시 힘들고 애를 써서 말에서 내렸다.

그는 곧 주인에게 자기 말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일렀다. 세상에서 빵을 먹는 짐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녀석이라고 했다. 주인은 말을 보았지만 돈키호테가 말하는 것만큼, 아니 그 절반만큼도 훌륭해 보이지 않았다. 주인은 말을 마구간에 들여놓고 손님이 무엇을 시키는지 보러 돌아왔는데, 손님은 이미 그와 화해한 아가씨들의 손에 갑옷을 벗고 있었다. 아가씨들은 가슴받이와 등받이는 벗겼지만, 목가리개는 끝내 풀 줄도 몰랐고 풀 수도 없었으며, 초록 끈 몇 가닥으로 묶은 엉터리 투구도 벗기지 못했다. 매듭을 풀 수가 없으니 끈을 잘라야 했는데, 그가 결코 그것을 허락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내내 투구를 쓴 채로 있었고,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우습고 기이한 꼴이었다. 갑옷을 벗기는 동안, 그는 자기 갑옷을 벗기는 그 닳고 닳은 여자들이 그 성의 지체 높은 마님이요 귀부인들이라고 여기고, 아주 멋을 부려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어느 기사도
귀부인들에게 이토록 시중받은 적 없으니
돈키호테가
제 마을에서 왔을 때만큼은.
아가씨들은 그를 보살폈고
공주들은 그의 말을 보살폈도다,

말이라 함은 로시난테인데, 이것이 내 말의 이름이요, 아씨들이여,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내 이름이오. 그대들을 섬기고 그대들을 이롭게 하려고 이룬 무훈이 나를 드러내 줄 때까지는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랜슬롯을 노래한 이 옛 로맨스를 지금 일에 맞추어 보려다 보니 때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되었구려. 그러나 그대들 귀부인들께서 분부하시고 내가 따르며, 내 팔의 용맹이 그대들을 섬기려는 내 소망을 드러낼 때가 오리라."

그런 수사를 들어 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저 무얼 좀 드시겠느냐고만 물었다.

"무엇이든 먹고 싶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짐작으로는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할 듯하오."

공교롭게도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객줏집 안에는 카스티야에서는 아바데호, 안달루시아에서는 바카야오, 다른 곳에서는 쿠라디요, 또 다른 곳에서는 트루추엘라라고 부르는 생선 몇 토막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들은 혹시 나리께서 트루추엘라, 그러니까 새끼 송어를 드시겠느냐고 물었다. 그것 말고는 드릴 생선이 없다고 했다.

"새끼 송어가 많이만 있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송어 한 마리 노릇은 하겠지. 나는 8레알을 잔돈으로 받든 8레알짜리 은화 한 닢으로 받든 상관없으니 말이오. 게다가 그 새끼 송어가 송아지 고기처럼,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가 쇠고기보다 낫고 새끼 염소가 늙은 숫염소보다 낫듯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어서 가져오시오. 갑옷의 수고와 무게는 창자를 다스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사람들은 시원하라고 객줏집 문간에 상을 차렸고, 주인이 제대로 우리지도 않고 더 엉망으로 익힌 대구 한 토막과 그의 갑옷만큼이나 시커멓고 때 묻은 빵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가 먹는 꼴이 큰

웃음거리였다. 투구를 쓰고 얼굴 가리개를 들어 올린 채라서, 누가 집어서 넣어 주지 않으면 제 손으로는 입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마님들 가운데 하나가 그 일을 맡았다. 그러나 마실 것을 주는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객줏집 주인이 갈대 줄기에 구멍을 뚫어 한쪽 끝을 그의 입에 물리고 다른 쪽 끝으로 포도주를 부어 넣어 주지 않았더라면 끝내 못 마셨을 것이다. 그는 투구 끈을 끊지 않으려고 이 모든 것을 꾹 참고 받아들였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돼지 거세꾼 하나가 객줏집에 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갈대 피리를 네댓 번 불었다. 그 소리에 돈키호테는 자기가 어느 이름난 성에 와 있고, 사람들이 음악으로 자기를 대접하고 있으며, 대구는 송어요, 빵은 하얀 밀빵이요, 창녀들은 귀부인이요, 객줏집 주인은 성의 성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기의 결심과 출정이 보람 있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를 무엇보다 괴롭힌 것은 아직 기사 서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기사도의 서품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모험에도 정당하게 나설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제3장 돈키호테가 기사 서임을 받은 우스운 경위를 이야기한다

이 생각에 시달린 그는 객줏집의 보잘것없는 저녁을 서둘러 마쳤다. 저녁을 다 먹자 그는 객줏집 주인을 불러 마구간에 함께 틀어박히더니,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그대의 너그러움이 내가 청하려는 은혜 하나를 베풀어 주기 전에는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은혜는 그대에게 칭송이 되고 인류에게 이로움이 될 것이오."

객줏집 주인은 손님이 제 발치에 엎드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어쩔 줄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주인은 일어나라고 거듭 졸랐지만 그는 끝내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결국 주인은 청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리, 그대의 크나큰 아량에 나는 그만한 것을 기대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말하리다. 내가 청하여 그대의 너그러움으로 허락받은 은혜란, 내일 그날로 그대가 나를 기사로 서임해 주는 것이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대의 이 성 예배당에서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우겠소.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내일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세상의 네 귀퉁이를 두루 돌아다니며 곤궁한 이들을 위해 모험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오. 그것이 기사도와

편력 기사들의 소임이니, 나 또한 그런 기사로서 그런 무훈에 마음이 기울어 있느니라."

앞서 말했듯이 객줏집 주인은 조금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손님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벌써 얼마간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다 듣고 나자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밤 웃을 거리를 장만하려고 손님의 비위를 맞춰 주기로 했다. 그는 손님이 바라고 청하는 것이 아주 옳으며, 손님처럼, 그리고 그 늠름한 풍채가 보여 주듯 그토록 지체 높은 기사에게는 그런 뜻을 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도 젊었을 때 그 명예로운 일에 몸을 바쳐, 모험을 찾아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했다. 말라가의 페르첼레스, 리아란 섬들, 세비야의 콤파스, 세고비아의 아소게호, 발렌시아의 올리베라, 그라나다의 론디야, 산루카르 해변, 코르도바의 포트로, 톨레도의 벤티야스[1]를 비롯해 안 가 본 데가 없다고 했다. 그곳들에서 그는 날랜 발과 재빠른 손을 갈고닦으며 비뚤어진 일을 숱하게 저지르고, 과부를 숱하게 꾀고, 처녀를 몇이나 망쳐 놓고, 미성년자 몇을 속였으며, 마침내 에스파냐 거의 모든 고등 법원과 재판소에 이름을 알렸다고 했다. 그러다 끝내 이 성으로 물러나 자기 재산과 남의 재산으로 살면서, 신분이나 처지가 어떻든 모든 편력 기사들을 맞아들이고 있는데, 그건 오로지 그들을 몹시 아끼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착한 뜻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와 나누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인은 또 자기 성에는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울 예배당이 없다고 했다. 새로 짓느라 헐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할 때는 어디서든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울 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 오늘 밤은 성의 안뜰에서 밤을 새우면 될 것이고, 아침이 되면 하느님의 뜻대로

마땅한 의식을 치러 그가 기사로 서임될 것이며, 그것도 세상에 그보다 더한 기사는 없을 만큼 기사다운 기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인은 그에게 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돈키호테는 블랑카 한 닢도 없다고 대답했다. 편력 기사들의 이야기에서 돈을 가지고 다닌 기사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주인은 그가 잘못 알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은, 돈이나 깨끗한 셔츠처럼 그토록 뻔하고 꼭 챙겨야 하는 것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작가들이 여겼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기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 그토록 많은 책을 가득 메운 편력 기사들은 모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돈주머니를 두둑이 채워 다녔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알아 두라고 했다. 또 그들은 셔츠와, 입은 상처를 치료할 고약이 가득 든 작은 함도 가지고 다녔다고 했다. 그들이 싸우다 상처를 입는 들판과 황야에는 치료해 줄 사람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현명한 마법사를 친구로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서, 그 마법사가 곧 그들을 구하러 와 주었다고 했다. 어떤 아가씨나 난쟁이가 신통한 약물이 든 작은 병을 들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는데, 그 물을 한 방울만 맛보아도 그 즉시 상처와 부상이 씻은 듯이 나아 아무 탈도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동안에는 옛 기사들은 종자들에게 돈과 그 밖에 꼭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상처를 치료할 붕대 실과 고약 같은 것을 챙기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다고 했다. 그리고 기사에게 종자가 없을 때는, 그런 일은 드물고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기사들이 손수 그 모든 것을 아주 얇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루에 넣어 말 엉덩이에 싣고 다녔는데, 마치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물건인 것처럼 했다고 했다.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자루를 메고 다니는 것이 편력 기사들 사이에서 그리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인은, 머지않아 대자가 될 그에게

이제는 대부로서 명령할 수도 있으니 충고하건대, 앞으로는 돈과 앞서 말한 채비 없이 길을 나서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던 때에 그것들이 얼마나 요긴한지 알게 될 거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충고받은 대로 빈틈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곧 객줏집 한쪽에 있는 커다란 마당에서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우도록 채비가 갖춰졌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모두 모아 우물 곁에 있던 물구유 위에 얹어 놓고,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 창을 쥔 채 점잖은 태도로 구유 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가 거닐기 시작했을 때 밤이 막 내려앉기 시작했다.

객줏집 주인은 객줏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손님의 광기와,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일과, 그가 기다리는 기사 서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그토록 기이한 광기에 놀라 멀리서 그를 구경하러 갔다. 그는 차분한 몸짓으로 거닐다가, 때로는 창에 몸을 기대고 갑옷에 눈길을 둔 채 한참 동안 눈을 떼지 않았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았지만 달빛이 어찌나 밝은지 달에게 빛을 빌려주는 해와 겨룰 만했으므로, 신참 기사가 하는 일은 모두에게 훤히 보였다. 그러다 객줏집에 묵던 노새꾼 하나가 제 노새 떼에게 물을 먹이러 갈 마음이 들었고, 그러려면 구유 위에 놓인 돈키호테의 갑옷을 치워야 했다. 돈키호테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 그대가 누구이든, 일찍이 칼을 찬 가장 용맹한 편력 기사의 갑옷에 손을 대려고 다가오는 무엄한 기사여! 무엇을 하는지 잘 보고 손대지 말지어다. 그 무엄함의 값으로 목숨을 내놓고 싶지 않거든."

노새꾼은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아랑곳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다치기 전에 미리 몸을 돌본 셈이었을 테니까). 그러기는커녕 갑옷 끈을 움켜쥐고 멀찍이 내던져 버렸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아하니 마음을 둘시네아 아씨에게 두고 말했다.

"나의 아씨여, 그대에게 사로잡힌 이 가슴에 닥친 이 첫 모욕에서 저를 도우소서. 이 첫 고비에서 그대의 은총과 가호가 저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는 이런 말과 그 비슷한 말을 하며 가죽 방패를 내려놓고 창을 두 손으로 치켜들어 노새꾼의 머리를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노새꾼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져 몹시 험한 꼴이 되었다. 한 번만 더 내리쳤다면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갑옷을 주워 모으고 다시 처음처럼 차분하게 거닐기 시작했다. 얼마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로(첫 노새꾼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다른 노새꾼이 똑같이 제 노새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다. 그가 구유를 비우려고 갑옷을 치우러 다가가자, 돈키호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 가호를 빌지도 않고, 다시 가죽 방패를 내려놓고 다시 창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창은 부러뜨리지 않은 채 둘째 노새꾼의 머리를 세 조각도 넘게, 곧 네 조각으로 쪼개 놓았다. 그 소리에 객줏집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고, 그 가운데 객줏집 주인도 있었다. 이것을 본 돈키호테는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 칼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오, 아리따움의 아씨여, 약해진 내 가슴의 힘이요 기운이여! 이토록 큰 모험을 기다리는 그대의 이 포로 기사에게 그대의 위엄 어린 눈길을 돌릴 때가 지금이로다."

그러자 그는 자기 생각에 어찌나 기운이 솟았던지, 세상의 모든 노새꾼이 덤벼든다 해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다친 이들의 동료들은 그들이 그 꼴이 된 것을 보자 멀리서 돈키호테에게 돌을 비 오듯 던지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할 수 있는 한 가죽 방패로 막았고, 갑옷을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구유 곁을 감히 떠나지 못했다.

객줏집 주인은 그를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그가 미치광이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은 미치광이라서 너희를 다 죽인다 해도 무사히 풀려날 거라고 했다. 돈키호테도 더 크게 소리쳤다. 그는 그들을 배신자요 반역자라고 부르고, 편력 기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게 내버려 두는 성주는 비겁하고 천한 기사라면서, 자기가 기사 서임만 받았다면 성주에게 그 배신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 주었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 상스럽고 천한 무리는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노라. 던져라, 다가오너라, 덤벼라,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해쳐 보아라. 너희의 어리석음과 방자함에 어떤 값을 치르게 되는지 보게 되리라."

그가 어찌나 기세등등하고 당차게 이 말을 했던지, 덤벼들던 이들은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때문에, 그리고 객줏집 주인이 타이른 덕분에 그들은 돌 던지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다친 이들을 데려가게 내버려 두고, 처음과 똑같이 고요하고 차분하게 다시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객줏집 주인은 손님의 장난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을 서둘러 그 망할 기사 서임을 당장 해 주기로 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그 천한 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무례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엄함의 대가로 단단히 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이 성에는 예배당이 없고, 남은 일을 하는 데는 예배당도 필요 없다고 했다. 자기가 아는 기사단의 의식에 따르면, 기사 서임의 요체는 목덜미를 한 대 치는 일과 칼등으로 어깨를 치는 일에 있으며, 그것은 들판 한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갑옷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일은 두 시간만 해도 되는데 그는 네 시간도 넘게 했으니 이미 다 마친 셈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말을 모두 믿고, 자기는 여기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 달라고 했다. 다시 공격을 받는데 그때 기사

서임을 받은 몸이라면, 성주가 살려 두라고 명하는 사람들만 성주를 봐서 살려 주고 성 안의 나머지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 말에 경계심과 두려움이 생긴 성주는 곧 노새꾼들에게 내준 짚과 보리를 적어 두는 장부 한 권을 가져왔다. 그리고 소년 하나가 들고 온 초 도막과 앞서 말한 두 아가씨를 데리고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했다. 그는 경건한 기도문이라도 읊는 듯이 장부를 읽다가, 읽던 중간에 손을 들어 그의 목덜미를 세게 한 대 치고, 이어서 그의 칼로 어깨를 멋지게 한 대 쳤다. 그러는 내내 기도라도 하는 듯이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귀부인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의 허리에 칼을 채워 주라고 명했다. 여자는 아주 능숙하고 눈치 있게 그 일을 해냈다. 의식이 진행되는 순간마다 웃음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적잖은 눈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본 신참 기사의 무훈이 웃음을 붙잡아 두었다. 칼을 채워 주면서 그 착한 여인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나리를 아주 운 좋은 기사로 만들어 주시고, 싸움에서 행운을 내려 주시기를."

돈키호테는 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받은 은혜를 앞으로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자기 팔의 용맹으로 얻을 명예의 얼마간을 그 여자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여자는 아주 공손하게 자기 이름은 톨로사이며, 산초 비에나야 거리의 좌판 가게들 곁에 사는 톨레도 태생 구두 수선공의 딸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 그를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름 앞에 '도냐'를 붙여 도냐 톨로사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여자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다른 여자가 그에게 박차를 채워 주었고, 그 여자와도 칼을 채워 준 여자와 나눈 것과 거의 같은 대화가 오갔다. 그가 이름을 묻자 여자는 자기 이름은

몰리네라이며 안테케라의 정직한 방앗간 주인의 딸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여자에게도 '도냐'를 붙여 도냐 몰리네라라고 불러 달라고 청하며, 새로이 섬기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했다.

이렇게 그때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의식을 서둘러 단숨에 해치우고 나자, 돈키호테는 어서 말에 올라 모험을 찾아 나서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곧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올라탄 다음, 자기를 기사로 서임해 준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을 끌어안고 어찌나 기이한 말들을 늘어놓았던지 그것을 다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객줏집 주인은 어서 그를 객줏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 못지않은 수사로, 그러나 더 짧은 말로 그의 말에 답했다. 그리고 숙박비도 청하지 않고 잘 가라며 그를 떠나보냈다.

---

1. 모두 당시 에스파냐에서 이름난 건달·좀도둑·노름꾼들의 소굴이었다.

제4장 우리 기사가 객줏집을 떠난 뒤에 일어난 일

돈키호테가 객줏집을 떠난 것은 동틀 무렵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기사 서임을 받은 몸이 되었다는 생각에 어찌나 흐뭇하고 의기양양하고 들떠 있었던지, 기쁨이 말 뱃대끈까지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꼭 챙겨 다녀야 할 채비, 특히 돈과 셔츠에 관한 객줏집 주인의 충고가 떠오르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갖추고 종자도 하나 구하기로 했다. 그는 가난하고 자식이 딸렸지만 기사도의 종자 노릇에는 안성맞춤인 이웃 농부 하나를 종자로 들일 셈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로시난테를 마을 쪽으로 몰았다. 로시난테는 제 보금자리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어찌나 신나게 걷기 시작했던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오른쪽, 거기 있던 숲의 우거진 데서 누가 하소연하는 듯한 가녀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말했다.

"하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노라. 내 직분에 마땅한 일을 다하고 내 착한 뜻의 열매를 거둘 기회를 이토록 빨리 눈앞에 내놓아 주시는구나. 저 소리는 틀림없이 내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어느 곤궁한 사내나 곤궁한 여인의 소리로다."

그는 고삐를 돌려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쪽으로 로시난테를 몰았다. 숲으로 몇 걸음 들어가자 떡갈나무 한 그루에 암말 한 마리가 매여 있고, 다른 떡갈나무에는 웃통을 벗은 열다섯 살쯤 된 소년 하나가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소리를 지르던 것은 그 소년이었는데 까닭이 없지

않았으니, 풍채 좋은 농부 하나가 가죽 허리띠로 소년을 수없이 매질하면서 매질 한 번마다 꾸지람과 훈계를 곁들이고 있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혀는 가만히, 눈은 똑바로."

그러면 소년이 대답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인님. 하느님의 수난을 걸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양 떼를 더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요."

돈키호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무례한 기사여, 제 몸을 지킬 수 없는 자를 상대로 하다니 보기 흉하도다. 그대의 말에 올라 그대의 창을 들라." 농부도 암말을 매어 둔 떡갈나무에 창을 하나 기대어 두었던 것이다. "그대가 하는 짓이 겁쟁이의 짓임을 내가 깨우쳐 주리라."

농부는 갑옷을 잔뜩 걸친 그런 꼴이 자기 얼굴 앞에서 창을 휘두르며 덮쳐 오는 것을 보자, 이제 죽었구나 싶어 좋은 말로 대답했다.

"기사 나리, 제가 벌주고 있는 이 녀석은 제 하인인데, 이 근방에서 제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덜렁대는지 날마다 양이 한 마리씩 없어집니다요. 그래서 제가 그 덜렁거림을, 아니 못된 짓을 벌주니까, 이 녀석은 제가 구두쇠라서 밀린 품삯을 안 주려고 이런다고 합니다. 하느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내 앞에서, 이 천한 촌놈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를 비추는 저 해를 걸고 맹세하노니, 이 창으로 너를 꿰뚫어 버리고 싶구나. 군말 말고 당장 품삯을 치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걸고, 이 자리에서 너를 끝장내고 없애 버리리라. 당장 풀어 주어라."

농부는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하인을 풀어 주었다. 돈키호테가 소년에게 주인이 품삯을 얼마나 밀렸느냐고 묻자, 소년은

아홉 달 치, 한 달에 7레알씩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셈을 해 보고 73레알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그 돈 때문에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내놓으라고 농부에게 말했다. 겁에 질린 촌놈은 자기가 처한 이 처지와 자기가 한 맹세를 걸고(실은 아직 아무 맹세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소년에게 사 준 신발 세 켤레 값과, 소년이 아플 때 두 번 피를 뽑게 한 값 1레알을 빼고 셈해야 한다고 했다.

"그건 다 좋다."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그러나 신발과 피 뽑은 값은, 네가 잘못도 없는 저 아이에게 한 매질 값으로 치고 말아라. 네가 값을 치른 신발 가죽을 저 아이가 해지게 했다면, 너는 저 아이 몸의 가죽을 해지게 했다. 저 아이가 아플 때 이발사가 피를 뽑았다면, 너는 멀쩡할 때 저 아이의 피를 뽑았다. 그러니 그 몫으로는 저 아이가 네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문제는요, 기사 나리, 제가 지금 여기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안드레스를 저와 함께 집으로 보내 주시면 한 푼 한 푼 쌓아서 치르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따라가라고요?" 소년이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 안 돼요, 나리, 어림도 없어요. 단둘이 있게 되면 저를 성 바르톨로메오처럼 산 채로 가죽을 벗길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내가 명하기만 하면 저자는 나를 어려워할 것이다. 저자가 받은 기사도의 법을 걸고 내게 맹세만 하면, 저자를 풀어 주고 품삯은 내가 보장하마."

"나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말했다. "이 주인은 기사도 아니고 기사 서임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킨타나르에 사는 부자 후안 알두도라고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두도 집안에도 기사가 있을 수 있느니라.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제 행실의 자식이니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무슨 행실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제 품삯을, 제가 땀 흘려 일한 값을 떼먹으려 드는데요."

"떼먹으려는 게 아닐세, 안드레스 형제." 농부가 대답했다. "자, 제발 나와 함께 가세. 세상의 모든 기사단을 걸고 맹세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 푼 한 푼 쌓아서, 그것도 향까지 쐬어서 치러 주겠네."

"향 쐬는 것은 면해 주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레알 은화로만 치르시오. 나는 그것으로 족하오. 그리고 맹세한 대로 꼭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 맹세를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대를 다시 찾아와 벌을 주리라. 그대가 도마뱀보다 더 잘 숨는다 해도 기어이 찾아내리라. 그리고 누가 이 명령을 내리는지 알고 싶다면, 그래서 그것을 더욱 참되게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싶다면, 알아 두시오. 나는 모욕과 불의를 바로잡는 자,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오.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마음에서 놓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선고한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금세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농부는 눈으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가 숲을 지나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하인 안드레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리 오게, 얘야. 저 모욕을 바로잡는 양반이 명하고 간 대로 내가 자네에게 빚진 것을 치러 주고 싶네."

"맹세코 그러셔야지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천 년을 사실 그 착한 기사의 명령을 지키시는 게 얼마나 잘하시는 일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용맹하시고 공정한 재판관이시니, 정말이지 주인님이 품삯을 안 주시면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나도 맹세하네." 농부가 말했다. "그런데 내가 자네를 하도 아끼니까, 치를 값을 불리려고 빚을 좀 불려 볼까 하네."

그러더니 소년의 팔을 붙잡아 다시 떡갈나무에 묶고는 어찌나 매질을 해 댔던지 소년은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다.

"자, 안드레스 나리, 이제 그 모욕을 바로잡는 양반을 불러 보게." 농부가 말했다. "이 모욕은 어떻게 바로잡지 못하는지 보게 될 걸세. 하기야 아직 다 끝난 것 같지 않네. 자네가 겁내던 대로 자네를 산 채로 가죽을 벗기고 싶은 생각이 드니 말일세."

그래도 결국 농부는 소년을 풀어 주고, 선고한 판결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안드레스는 조금 시무룩해서 떠났다. 그는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찾아가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일러바치겠다고, 그러면 주인이 일곱 배로 갚게 될 거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하면서도 그는 울면서 떠났고, 주인은 웃으면서 남았다.

용맹한 돈키호테는 이렇게 모욕을 바로잡았다. 그는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더없이 흐뭇해하며, 자기 기사도가 더없이 행복하고 드높은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여기고, 몹시 뿌듯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가면서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오, 아름다운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오늘 땅 위에 사는 모든 여인 가운데 그대야말로 행복하다고 일컬어질 만하도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라만차의 돈키호테, 그토록 용감하고 그토록 이름난 기사를 그대의 뜻과 마음대로 그대에게 매이고 항복한 몸으로 두는 행운을 얻었으니. 온 세상이 알다시피 그는 어제 기사 서임을 받았고, 오늘은 불의가 빚어내고 잔인함이 저지른 가장 큰 비뚤어진 일과 모욕을 바로잡았도다. 오늘 그는 그 가녀린 아이를 아무 까닭 없이 그토록 두들겨 패던 그 무자비한 원수의 손에서 채찍을 빼앗았노라."

그러다 그는 길이 넷으로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자 곧 편력 기사들이 그런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 궁리하던 장면이 떠올라, 그는 그들을 흉내 내려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로시난테의 고삐를 놓아 제 뜻을 말의 뜻에 맡겼는데, 말은 처음 뜻을 굽히지 않고 마구간으로 가는 길로 갔다.

2마일쯤 갔을 때 돈키호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르시아로 비단을 사러 가는 톨레도 상인들이었다. 상인은 여섯이었는데, 저마다 양산을 받쳐 들고 말을 탄 하인 넷과 걸어서 따라오는 노새꾼 셋을 거느리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새로운 모험거리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장면들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점에서 흉내 내려고, 해 보려고 마음먹었던 장면 하나가 여기 안성맞춤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점잖고 당찬 태도로 등자를 단단히 디디고 창을 꽉 쥐고 가죽 방패를 가슴에 붙인 채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그 편력 기사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벌써 그들을 편력 기사로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보이고 들릴 만한 거리까지 다가오자,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여 오만한 몸짓으로 말했다.

"온 세상은 걸음을 멈출지어다. 온 세상 어디에도 라만차의 여제,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보다 아름다운 아가씨는 없다고 온 세상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이 말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기이한 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꼴과 그 말로 보아 곧 그 주인이 미쳤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구하는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 느긋하게 보고 싶어졌다. 그 가운데 조금 장난기가 있고 아주아주 영리한 사람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우리는 그대가 말하는 그 훌륭한 아씨가 누구인지 모르오. 우리에게 그 아씨를 보여 주시오. 그대가 말하는 만큼 아름답다면, 그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실을 아무 강요 없이 기꺼이 고백하리다."

"내가 그 아씨를 보여 준다면"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그토록 뻔한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도 믿고, 고백하고, 단언하고, 맹세하고, 지켜야 한다는 데 있느니라. 그러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나와 싸워야 하리라, 이 무지막지하고 오만한 무리야. 기사도의 법도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오든, 그대들 족속의 버릇이자 못된 관습대로 한꺼번에 오든, 나는 내 편에 선 정의를 믿고 여기서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노라."

"기사 나리." 상인이 대꾸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왕자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간청하오.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고백하여 양심에 짐을 지지 않도록, 더구나 그 고백이 알카리아와 에스트레마두라의 황후와 왕비들에게 그토록 해가 되는 것이니, 부디 그 아씨의 초상화라도 하나 보여 주시오. 밀알만 한 것이라도 좋소. 실 끝을 보면 실타래를 알 수 있다 하지 않소.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하고 안심할 것이고, 그대도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것이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대 편이 다 되었으니, 설령 초상화를 보니 그 아씨가 한쪽 눈이 멀고 다른 쪽 눈에서 주홍 물감과 유황이 흘러나온다 해도, 그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그 아씨를 편드는 말을 다 해 주리다."

"흘러나오지 않는다, 이 파렴치한 무리야." 돈키호테가 분노로 달아올라 대답했다. "네가 말하는 그런 것은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흘러나오는 것은 솜에 싼 용연향과 사향이로다. 그리고 그 아씨는 눈이 멀지도 등이 굽지도 않았고, 과다라마의 물렛가락보다 더 곧으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아씨의 그토록 크나큰 아름다움을 두고 내뱉은 그 크나큰 불경의 값을 치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더니 그는 창을 낮게 꼬나들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어찌나 사납고 성나게 덤벼들었던지, 다행히 로시난테가 길 한가운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무엄한 상인은 혼쭐이 났을 것이다. 로시난테가 넘어지자 그 주인은 들판 위로 한참이나 굴러갔고, 일어나려 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창이며 가죽 방패며 박차며 투구가, 낡은 갑옷의 무게와 함께 그만큼 그를 옭아맸던 것이다. 일어나려고 버둥대도 일어나지 못하는 동안 그는 이렇게 외쳤다.

"달아나지 말지어다, 겁쟁이 무리야. 비루한 무리야, 기다려라! 내가 여기 쓰러져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내 말 탓이니라."

거기 따라오던 노새꾼 가운데 하나는 그리 마음씨가 곱지 못했던지, 쓰러진 가엾은 사람이 그렇게 오만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듣고 그 대답을 갈비뼈에 해 주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가가서 창을 빼앗아 산산조각을 내고는, 그 한 토막으로 우리 돈키호테를 어찌나 두들겨 팼던지 갑옷을 입었는데도 곡식 갈듯 짓찧어 놓았다. 주인들이 그만 때리고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지만 노새꾼은 이미 약이 올라서, 분노의 판돈을 남김없이 걸어 버릴 때까지 놀이를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창의 다른 토막들을 주워다가 가엾게 쓰러진 사람 위에서 그것마저 다 부서뜨렸다. 쓰러진 사람은 제 위로 쏟아지는 그 몽둥이 폭풍 속에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하늘과 땅과, 자기 눈에는 흉악한 놈들로 보이는 그자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노새꾼이 지치자 상인들은 가엾게 얻어맞은 사람 이야기를 길 내내 할 거리로 안고 제 갈 길을 갔다. 혼자 남게 되자 그는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애써 보았다. 그러나 멀쩡할 때도 못 일어났는데, 짓찧이고 거의 박살 난 몸으로 어찌 일어나겠는가? 그래도 그는 자기가 운이 좋다고 여겼다. 그것이야말로 편력 기사다운 불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의 잘못으로 돌렸다. 온몸이 멍투성이라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5장 우리 기사의 불운한 이야기를 이어 간다

정말로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늘 쓰던 처방, 곧 책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처방에 기대기로 했다. 그러자 그의 광기는 발도비노스와 만토바 후작의 이야기, 카를로토가 발도비노스를 다친 채로 산속에 버려두고 간 대목을 기억 속으로 끌어왔다. 아이들도 알고, 젊은이들도 모르지 않으며, 노인들은 즐겨 노래하고 믿기까지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마호메트의 기적보다 더 참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그가 처한 처지에 꼭 들어맞았다. 그래서 그는 몹시 서러운 시늉을 하며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고, 숲속에서 다친 기사가 했다는 바로 그 말을 기운 빠진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나의 아씨여, 그대는 어디 있기에
내 아픔을 아파하지 않는가?
아씨여, 그대가 모르는 것이거나
그대가 거짓되고 신의가 없는 것이로다."

그는 이렇게 로맨스를 이어 가다가 마침내 이런 구절에 이르렀다.

"오, 고귀한 만토바 후작이여,
나의 숙부요 피를 나눈 주인이여!"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가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농부 하나가 방앗간에 밀 한 짐을 가져다주고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갔다. 농부는 그 사람이 거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구냐고,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서럽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물었다. 돈키호테는 그가 틀림없이 자기 숙부 만토바 후작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로맨스가 노래하는 그대로 자기의 불운과, 황제의 아들이 자기 아내와 벌인 정사를 후작에게 일러 주는 대목을 계속 읊었다.

농부는 그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으며 어리둥절했다. 그는 몽둥이찜질에 이미 산산조각이 난 얼굴 가리개를 벗기고 먼지를 뒤집어쓴 얼굴을 닦아 주었다. 얼굴을 다 닦아 주자마자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키하나 나리." 그가 정신이 있어 아직 차분한 시골 귀족에서 편력 기사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불렸던 모양이다. "누가 나리를 이 꼴로 만들었나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물어도 로맨스만 이어 갔다. 이것을 본 착한 사람은 상처가 있는지 보려고 할 수 있는 한 그의 가슴받이와 등받이를 벗겼다. 그러나 피도 상처 자국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 애쓰다가, 적잖이 고생한 끝에 그래도 더 순한 탈것이겠다 싶어 제 당나귀에 태웠다. 그리고 창 부스러기까지 갑옷과 무기를 모두 주워 모아 로시난테 위에 묶은 다음, 로시난테는 고삐를 잡고 당나귀는 굴레 끈을 잡고 마을 쪽으로 향했다. 돈키호테가 늘어놓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으며 농부는 생각이 많았다. 돈키호테도 그 못지않았는데, 너무나 짓찧이고 부서져서 당나귀 위에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이따금 하늘까지 닿을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농부는 다시 어디가 아픈지 말해 달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꼭 악마가 그의 처지에 맞는 이야기들을 기억 속으로 끌어다 주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발도비노스는 잊어버리고, 안테케라의 성주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가 무어인 아빈다라에스를 사로잡아 자기 성으로 끌고 간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래서 농부가 다시 몸이 어떠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묻자, 그는 포로가 된 아벤세라헤가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에게 했던 바로 그 말과 이치로 대답했다. 호르헤 데 몬테마요르의 『디아나』에 적힌 그 이야기를 읽은 그대로였고, 그것을 어찌나 그럴싸하게 끌어다 썼던지, 농부는 그 어리석은 소리의 덩어리를 듣다 못해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이로써 그는 이웃이 미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돈키호테의 긴 연설이 안겨 주는 짜증을 피하려고 서둘러 마을로 향했다. 연설 끝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 나리, 알아 두시오. 내가 말한 이 아름다운 하리파는 지금의 어여쁜 둘시네아 델 토보소이니, 나는 그 아씨를 위해, 세상이 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 볼 가장 이름난 기사도의 무훈을 이루었고, 이루고, 이루리라."

이 말에 농부가 대답했다.

"나리, 이를 어쩌나, 잘 보세요. 저는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 나리도 아니고 만토바 후작도 아니고, 나리의 이웃 페드로 알론소예요. 그리고 나리도 발도비노스도 아빈다라에스도 아니고, 점잖은 시골 귀족 키하나 나리시고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말한 이들뿐 아니라 프랑스의 열두 대등 기사 모두, 아니 명성의 아홉 용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들이 모두 함께, 또 저마다 이룬 무훈을 내 무훈이 모두 넘어설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날이 저물 무렵 마을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부는 얻어맞은 시골 귀족이 그토록 볼품없이 말에 실려 오는 꼴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날이 조금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알맞은 때가 되었다 싶자 그는 마을로 들어가

돈키호테의 집으로 갔다. 집 안은 온통 소란스러웠다. 거기에는 돈키호테와 아주 가까운 친구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고, 가정부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석사 페로 페레스 나리." 신부의 이름이 그러했다. "우리 나리께 닥친 이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흘째 나리도, 말도, 가죽 방패도, 창도, 갑옷도 보이질 않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제 생각엔, 그리고 제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만큼이나 틀림없는 사실인데, 나리가 갖고 계시고 늘 그렇게 읽으시던 이 망할 기사 소설들이 나리의 정신을 돌게 만든 거예요. 이제 생각나는데, 나리가 혼잣말로 편력 기사가 되어 모험을 찾아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 책들은 사탄한테나 바라바한테나 넘겨줘 버려야 해요. 온 라만차에서 가장 섬세한 머리를 그렇게 망쳐 놓았으니까요."

조카딸도 같은 말을 했고, 아니 그보다 더한 말을 했다.

"니콜라스 선생님." 그것이 이발사의 이름이었다. "알아 두세요. 우리 삼촌은 이 몹쓸 불행의 책들을 이틀 밤낮을 꼬박 읽고 계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고 나면 책을 손에서 내던지고 칼을 잡고 벽을 상대로 칼싸움을 하셨죠. 그러다 몹시 지치시면 탑처럼 큰 거인 넷을 죽였다고 하셨고, 지쳐서 흘린 땀을 싸움에서 입은 상처에서 나온 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찬물을 한 단지 가득 들이켜시고는 다 나아서 차분해지셨는데, 그 물은 위대한 마법사이자 친구인 현자 에스키페가 가져다준 더없이 귀한 약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삼촌의 터무니없는 짓을 두 분께 미리 알려 드렸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손을 쓰시고, 이 파문당할 책들을 모조리 태워 버리셨을 텐데요. 삼촌은 그런 책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단자의 책처럼 불태워져 마땅해요."

"나도 같은 말을 하겠네." 신부가 말했다. "맹세코 내일이 지나기 전에 그 책들을 공개 재판에 부쳐 불에 태우는 형을 내리겠네. 그래야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내 착한 친구가 했을 법한 짓을 따라 할 빌미를 주지 않을 테니."

농부와 돈키호테는 이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 말로 농부는 이웃의 병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문 좀 열어 주세요. 발도비노스 나리와 만토바 후작 나리가 크게 다쳐서 오셨어요. 안테케라의 성주인 용맹한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가 사로잡아 오는 무어인 아빈다라에스 나리도 오셨고요."

이 외침에 모두 밖으로 나왔다. 남자들은 제 친구를, 여자들은 제 주인이자 삼촌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그는 아직 당나귀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가 말했다.

"모두들 멈추시오. 나는 내 말 탓에 크게 다쳐서 왔소. 나를 내 침대로 데려가고, 할 수만 있다면 현명한 우르간다를 불러 내 상처를 살피고 고치게 하시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때 가정부가 말했다. "우리 나리가 어느 쪽 다리를 저는지 제 마음이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어서 올라가세요, 나리. 그 후르가다인지 뭔지가 안 와도 여기서 우리가 고쳐 드릴 수 있어요. 나리를 이 꼴로 만든 이 기사 소설들은 다시 한 번, 아니 백 번이라도 저주받아라!"

사람들은 곧 그를 침대로 데려가 상처를 살폈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는 온몸이 짓찧였을 뿐이라고 했다. 땅 위의 넓은 곳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흉포하고 무엄한 거인 열 명과 싸우다가 자기 말 로시난테와 함께 크게 나뒹굴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런!" 신부가 말했다. "거인들까지 춤판에 끼었단 말인가? 성호를 걸고 맹세하건대, 내일 밤이 오기 전에 그것들을 불태우고 말겠네."

사람들은 돈키호테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그는 먹을 것을 주고 자게 내버려 두라는 말 말고는 어떤 물음에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었고, 신부는 농부에게서 돈키호테를 어떤 꼴로 찾았는지 아주 자세히 캐물었다. 농부는 그를 찾았을 때와 데려오는 동안 그가 늘어놓은 터무니없는 소리까지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자 석사는 이튿날 할 일을 더욱 하고 싶어졌다. 그는 이튿날 친구인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을 불렀고, 그와 함께 돈키호테의 집으로 갔는데,

제6장 신부와 이발사가 우리 기발한 시골 귀족의 서재에서 벌인 유쾌하고도 대대적인 검열

그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다. 신부는 조카딸에게 화근인 책들이 있는 방의 열쇠를 달라고 했고, 조카딸은 아주 기꺼이 열쇠를 내주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갔고 가정부도 함께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주 훌륭하게 제본된 커다란 책이 백 권도 넘게 있었고 작은 책들도 있었다. 가정부는 그 책들을 보자마자 부랴부랴 방을 나가더니 곧 성수 한 사발과 성수채를 들고 돌아와서 말했다.

"받으세요, 석사 나리. 이 방에 성수를 뿌려 주세요. 이 책들 속에 우글거리는 마법사 가운데 하나가 여기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 책들을 세상에서 쫓아내며 주려는 벌을 앙갚음하려고 우리한테 마법을 걸면 어떡해요."

석사는 가정부의 단순함에 웃음이 났다. 그는 불에 태우는 벌을 받을 만하지 않은 책도 있을지 모르니 무엇을 다룬 책인지 보자며, 이발사에게 그 책들을 하나씩 건네 달라고 했다.

"안 돼요." 조카딸이 말했다. "한 권도 봐줄 필요가 없어요. 모두 해를 끼친 놈들이니까요. 창밖으로 안뜰에 던져서 한 무더기로 쌓아 놓고 불을 지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뒷마당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화형을 하면 연기도 해가 안 될 거예요."

가정부도 같은 말을 했다. 두 여자는 그 죄 없는 것들이 죽기를 그토록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신부는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먼저 읽어 보지

않고는 거기 따르지 않았다. 니콜라스 선생이 맨 처음 그의 손에 건넨 것은 『가울라의 아마디스』 네 권이었다. 신부가 말했다.

"이거 어딘가 신비로운 일이로군. 내가 듣기로 이 책은 에스파냐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기사 소설이고, 다른 기사 소설은 모두 이 책에서 비롯하고 생겨났다고 하네. 그러니 내 생각엔, 그렇게 고약한 이단을 처음 세운 교주로 보고 조금도 봐주지 말고 화형에 처해야 하겠네."

"아닙니다, 나리." 이발사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류로 지은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그 방면에서 유일한 책으로 보고 살려 두어야 합니다."

"그 말이 맞네." 신부가 말했다. "그 까닭으로 지금은 목숨을 살려 주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책을 보세."

"이건" 이발사가 말했다.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적자인 『에스플란디안의 무훈』입니다."

"그렇다면 정말이지" 신부가 말했다. "아비가 훌륭하다고 자식까지 덕을 볼 수는 없지. 자, 아주머니, 그 창문을 열고 이걸 뒷마당으로 던지게. 이제 쌓아 올릴 화형 무더기의 첫 장작이 되라고."

가정부는 아주 신이 나서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착한 에스플란디안은 뒷마당으로 날아가, 자기를 위협하는 불을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다음." 신부가 말했다.

"다음에 오는 이것은" 이발사가 말했다. "『그리스의 아마디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은 아마디스 집안 핏줄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뒷마당으로 보내게." 신부가 말했다. "핀티키니에스트라 여왕과 양치기 다리넬과 그의 목가들과, 그 작가의 악마 같고 뒤엉킨 문장들을 태울 수만 있다면, 나를 낳아 주신 아버지라도 편력 기사 꼴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함께 태워 버리겠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저도요." 조카딸이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정부가 말했다. "이리 주세요, 뒷마당으로 보내 버리게요."

사람들이 건넨 책은 수가 많았는데, 가정부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고 창문으로 그것들을 곧장 내던졌다.

"그 술통 같은 건 뭔가?" 신부가 말했다.

"이건" 이발사가 대답했다. "『라우라의 돈 올리반테』 입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은" 신부가 말했다. "『꽃동산』 을 지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네. 그런데 정말이지 두 책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참된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느 쪽이 덜 거짓말인지 가려낼 수가 없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터무니없고 오만하니 뒷마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뿐일세."

"다음 것은 『 이르카니아의 플로리모르테 』 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거기 플로리모르테 나리가 계시는가?" 신부가 대꾸했다. "그렇다면 맹세코 그 기이한 탄생과 소문난 모험에도 불구하고 곧 뒷마당 신세가 될 걸세. 그 딱딱하고 메마른 문체가 다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주머니, 이것도 저것도 뒷마당으로 보내게."

"분부대로 하지요, 나리."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시킨 일을 해냈다.

"이건 『플라티르 기사』 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오래된 책이로군." 신부가 말했다. "용서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 군말 없이 다른 것들과 함께 가라고 하게."

그대로 되었다. 또 한 권을 펼쳐 보니 제목이 『십자가의 기사』 였다.

"이 책이 지닌 이름이 이토록 거룩하니 그 무지를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불로 가라."

이발사가 다른 책을 집어 들며 말했다.

"이건 『기사도의 거울』 입니다."

"그 나리라면 나도 알고 있네." 신부가 말했다. "거기에는 몬탈반의 레이날도스 나리가 카쿠스보다 더한 도둑인 친구며 동료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열두 대등 기사가 진짜 역사가 투르팽과 함께 나오지. 정말이지 영원한 추방형 정도로만 판결할까 싶네. 이름난 마테오 보야르도가 지어낸 것을 얼마간 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교 시인 루도비코 아리오스토도 거기서 실을 뽑아 제 천을 짰지. 그런데 그 아리오스토를 여기서 찾았는데 제 말이 아닌 남의 말로 말하고 있다면, 나는 조금도 존중해 주지 않을 걸세. 그러나 제 말로 말하고 있다면 머리 위에 받들어 모시겠네."

"저는 그 책을 이탈리아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네가 그걸 알아듣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걸세." 신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대위님[1]이 그 책을 에스파냐로 가져와 카스티야 말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그분을 용서했을 텐데. 그분은 그 책의 타고난 값어치를 많이 깎아 먹었네. 시로 된 책을 다른 말로 옮기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걸세. 아무리 공을 들이고 솜씨를 보여도, 시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경지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지. 결국 내 말은, 이 책과 프랑스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으면 모두 마른 우물에 던져 넣어 두었다가, 더 곰곰이 생각한 뒤에 어떻게 할지 정하자는 걸세. 다만 그 근처에 있는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와 『론세스바예스』라는 다른

책은 빼고. 이 둘은 내 손에 들어오는 대로 가정부의 손으로, 그 손에서 불의 손으로 넘어가야 하네. 조금도 봐주지 말고."

이발사는 그 말을 모두 옳다고 하며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여겼다. 신부는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진실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라, 세상의 무엇을 준다 해도 다른 말은 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또 한 권을 펼쳐 보니 『올리바의 팔메린』이었고, 그 옆에는 『잉갈라테라의 팔메린』이라는 다른 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석사가 말했다.

"그 올리브 나무는 당장 쪼개서 태워 재도 남지 않게 하게. 그리고 그 잉갈라테라의 종려나무는 둘도 없는 물건으로 잘 간직하게. 알렉산드로스가 다리우스의 전리품 가운데서 찾아내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을 넣어 두는 데 쓰기로 한 그 상자 같은 것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말일세. 여보게, 이 책이 권위를 지니는 데는 까닭이 둘 있네. 하나는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르투갈의 어느 슬기로운 왕이 지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네. 미라과르다 성의 모험들은 모두 더없이 훌륭하고 아주 공들여 지었지. 문장은 품위 있고 분명하며, 말하는 사람의 격식을 아주 알맞게, 사리 있게 지키고 살피네. 그러니 니콜라스 선생, 자네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 이 책과 『가울라의 아마디스』는 불에서 면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더 따져 보고 캐 볼 것 없이 없애 버리세."

"아닙니다, 나리." 이발사가 대꾸했다. "여기 제가 든 이것은 그 이름난 『돈 벨리아니스』입니다."

"그것은" 신부가 대꾸했다. "제2부, 제3부, 제4부와 함께, 지나친 담즙을 씻어 내게 대황을 조금 먹일 필요가 있네. 그리고 명성의 성 이야기며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쓸데없는 대목들을 모두 빼내야 하지. 그러기 위해 바다 건너만큼 넉넉한 유예 기간을 주고, 고치는 대로

자비를 베풀든 정의를 행하든 하세. 그동안 자네가 자네 집에 맡아 두게. 그러나 누구에게도 읽히지는 말게."

"분부대로 하지요."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신부는 더는 기사 소설을 읽느라 지치고 싶지 않아서, 가정부에게 큰 책은 모두 가져다 뒷마당에 내던지라고 했다. 바보나 귀머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아무리 크고 고운 베 한 필을 짜는 것보다도 그 책들을 태우는 쪽을 더 원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었다. 가정부는 한 번에 거의 여덟 권씩 움켜쥐고 창밖으로 내던졌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집다 보니 한 권이 이발사의 발치에 떨어졌고, 이발사는 그것이 누구의 책인지 보고 싶어졌다. 보니 『이름난 기사 백기사 티란테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신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백기사 티란테』가 있다니! 이리 주게, 여보게. 이 책에서 나는 기쁨의 보물과 즐거움의 광맥을 찾아낸 셈이네. 여기에는 용맹한 기사 몬탈반의 돈 키리엘레이손과 그의 아우 몬탈반의 토마스, 그리고 기사 폰세카가 나오고, 용감한 티란테가 사냥개와 벌인 싸움, 아가씨 플라세르데미비다의 재치, 과부 레포사다의 사랑과 속임수, 그리고 자기 종자 이폴리토를 사랑하는 황후 마마가 나오지. 내 참말을 하네만, 여보게, 문체로 보자면 이 책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일세. 여기서는 기사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제 침대에서 죽고,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네.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류의 다른 책에는 하나도 없지. 그렇긴 해도 내 말하네만, 이 책을 지은 사람은 일부러 그토록 어리석은 짓을 많이 써 놓은 것이 아니니, 평생 갤리선으로 보내야 마땅했네.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 보게. 내가 이 책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

"그렇게 하지요."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남은 이 작은 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은" 신부가 말했다. "기사 소설이 아니라 시집인 것 같네."

그리고 한 권을 펼쳐 보니 호르헤 데 몬테마요르의 『디아나』였다. 그는 나머지도 모두 같은 부류라고 믿고 말했다.

"이것들은 다른 책들처럼 불에 태울 까닭이 없네. 기사 소설이 끼친 해를 끼치지도 않고 앞으로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교양 있는 책들이지."

"아이고, 나리!" 조카딸이 말했다. "그것들도 다른 것들처럼 태우라고 하셔도 돼요. 삼촌이 기사도 병에서 낫고 나서 이걸 읽으면, 양치기가 되어 숲과 풀밭을 노래하고 악기를 타며 돌아다니고 싶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더 나쁘게는 시인이 되고 싶어질지도 모르고요. 그건 사람들 말로는 고칠 수도 없고 옮기도 하는 병이래요."

"이 아가씨 말이 맞네." 신부가 말했다. "우리 친구 앞에서 이런 걸림돌과 빌미를 치워 주는 게 좋겠지. 그리고 몬테마요르의 『디아나』부터 시작했으니, 내 생각엔 이 책은 태우지 말고, 현자 펠리시아와 마법의 물을 다룬 대목과 긴 시행으로 된 시를 거의 다 빼내면 되겠네. 산문은 남겨 두고, 이런 책들 가운데 첫째라는 영예도 남겨 주세."

"다음 이것은" 이발사가 말했다. "살라만카 사람이 쓴 『디아나』 제2부라는 책이고, 이것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책인데 지은이가 힐 폴로입니다."

"살라만카 사람의 것은" 신부가 대답했다. "뒷마당에 보낼 죄인 무리를 따라가 그 수를 불리게 하고, 힐 폴로의 것은 아폴로 본인의 것처럼 간직하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세, 여보게. 서두르세. 날이 저물어 가니."

"이 책은" 다른 책을 펼치며 이발사가 말했다. "사르데냐의 시인 안토니오 데 로프라소가 지은 『사랑의 운명 열 권』 입니다."

"내가 받은 서품을 걸고 맹세하네만" 신부가 말했다. "아폴로가 아폴로가 되고 뮤즈가 뮤즈가 되고 시인이 시인이 된 뒤로, 그토록 우습고 그토록 터무니없는 책은 지어진 적이 없네.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이런 부류로 세상에 나온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유일무이한 책이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재미있는 것을 하나도 읽지 않은 셈이라고 여겨도 되네. 이리 주게, 여보게. 피렌체산 나사로 지은 사제복을 받는 것보다 이 책을 찾아낸 것이 더 값지네."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 책을 따로 놓았고, 이발사는 말을 이었다.

"다음 것들은 『 이베리아의 양치기 』 , 『 에나레스의 님프들 』 , 『질투의 환멸』 입니다."

"그렇다면 할 일은 하나뿐이네." 신부가 말했다. "가정부라는 세속의 팔에 넘겨주는 걸세. 왜냐고는 묻지 말게. 그러다간 끝이 없을 테니."

"다음에 오는 것은 『필리다의 양치기』 입니다."

"그건 양치기가 아니라" 신부가 말했다. "아주 슬기로운 궁정인일세. 귀한 보석처럼 간직하게."

"여기 오는 이 큰 책은" 이발사가 말했다. "제목이 『여러 가지 시의 보고』 입니다."

"시가 그렇게 많지만 않았더라면" 신부가 말했다. "더 귀히 여겨졌을 걸세. 이 책은 그 훌륭함 사이에 끼어 있는 천박한 것들을 김매듯 솎아내고 깨끗이 해야 하네. 간직하게. 지은이가 내 친구이기도 하고, 그가 쓴 더 영웅적이고 드높은 다른 작품들을 생각해서라도 말일세."

"이건" 이발사가 말을 이었다. "로페스 말도나도의 『 노래책 』 입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도" 신부가 대꾸했다. "내 아주 가까운 친구일세. 그의 시는 그의 입에서 나오면 듣는 이를 감탄하게 하지. 그 노래하는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사람을 홀린다네. 목가가 좀 길긴 하지만, 좋은 것이 많았던 적은 없지. 골라 둔 책들과 함께 간직하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책은 무엇인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라 갈라테아』입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그 세르반테스는 여러 해 전부터 내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시보다는 불운에 더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지. 그의 책에는 그럴듯한 착상이 좀 있네. 무언가를 내놓긴 하는데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하지. 그가 약속한 제2부를 기다려 봐야 하네. 어쩌면 고친 다음에는 지금은 받지 못하는 자비를 온전히 받게 될지도 모르지. 그것을 보게 될 때까지, 여보게, 자네 집에 가두어 두게."

"분부대로 하지요."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여기 세 권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돈 알론소 데 에르시야의 『라 아라우카나』, 코르도바 시 의원 후안 루포의 『라 아우스트리아다』, 발렌시아 시인 크리스토발 데 비루에스의 『엘 몬세라토』입니다."

"그 세 권은 모두" 신부가 말했다. "카스티야 말로 쓴 영웅시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이탈리아의 가장 이름난 시들과 겨룰 만하네. 에스파냐가 가진 가장 값진 시의 보배로 간직하게."

신부는 책을 더 보는 데 지쳐서 나머지는 모두 따져 보지 말고 한꺼번에 태워 버리라고 하려 했다. 그런데 이발사가 벌써 한 권을 펼쳐 들고 있었는데, 제목이 『앙헬리카의 눈물』이었다.

"내가 그런 책을 태우라고 했다면 그 눈물을 내가 흘렸을 걸세." 신부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말했다. "그 지은이는 에스파냐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름난 시인 가운데 하나였고, 오비디우스의 몇몇 이야기를 아주 훌륭하게 옮겼거든."

1.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를 에스파냐어로 옮긴 헤로니모 데 우레아(1510?~1573?) 대위를 가리킨다.

제7장 우리 착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두 번째 출정

그러고 있는데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여기다, 여기, 용맹한 기사들이여! 지금이야말로 그대들의 용맹한 팔의 힘을 보여 줄 때로다. 궁정 기사들이 마상 시합에서 이기고 있노라."

이 소란과 법석에 달려가느라 남은 책들의 검열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로는 『라 카롤레아』와 『에스파냐의 사자』, 그리고 돈 루이스 데 아빌라가 지은 『황제의 위업』이 아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 책들은 틀림없이 남은 책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신부가 보았더라면 어쩌면 그토록 가혹한 판결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돈키호테에게 갔을 때 그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미친 짓을 이어 가고 있었다. 사방으로 칼을 내리치고 되받아 휘두르는데,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말짱하게 깨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안고 억지로 침대에 다시 눕혔는데, 그는 조금 진정되자 신부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참으로, 투르팽 대주교 나리, 우리 모험 기사들이 앞선 사흘 동안 상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마상 시합의 승리를 궁정 기사들에게 내주다니, 열두 대등 기사라 일컫는 우리에게 크나큰 수치로다."

"잠자코 계시오, 이 사람아." 신부가 말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운수가 바뀌어, 오늘 잃은 것을 내일 얻게 될 것이오. 지금은 몸이나 돌보시오.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몹시 지치신 것 같소."

"다치지는 않았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짓찧이고 부서진 것은 틀림없소. 그 서자 놈 돈 롤단이 떡갈나무 둥치로 나를 두들겨 팼기 때문이오. 그것도 오직 시샘 때문이니, 그자의 용맹에 맞설 이는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 그자의 온갖 마법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치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몬탈반의 레이날도스라 불릴 자격이 없으리라. 지금은 먹을 것이나 가져오시오. 그것이 내게 가장 요긴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앙갚음은 내가 맡아 하겠소."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는 다시 잠들었고, 사람들은 그의 광기에 혀를 내둘렀다.

그날 밤 가정부는 뒷마당과 온 집 안에 있던 책을 모조리 불태워 없앴다. 그 가운데는 영원한 문서 보관소에 간직해야 마땅한 책들도 타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들의 운명과 검열관의 게으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책들에게서 때로는 의인이 죄인 대신 벌을 받는다는 속담이 이루어졌다.

그때 신부와 이발사는 친구의 병에 내린 처방 가운데 하나로, 그가 일어났을 때 책들을 찾지 못하도록 책들이 있던 방을 벽으로 막고 회칠을 해 버리기로 했다(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그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마법사가 책들을 방째로 가져가 버렸다고 말하기로 했다. 이 일은 아주 재빨리 이루어졌다. 이틀 뒤에 돈키호테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맨 먼저 자기 책들을 보러 갔다. 그런데 책들을 두었던 방이 보이지 않자 그는 이리저리 방을 찾아다녔다. 문이 있던 자리에 가서 손으로 더듬어 보고, 아무 말 없이 사방으로 눈을 굴리고 또 굴렸다.

한참 뒤에야 그는 가정부에게 자기 책들이 있는 방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다. 가정부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이미 단단히 일러 받은 터라 이렇게 말했다.

"무슨 방을, 아니 무슨 헛것을 찾으세요, 나리? 이 집엔 이제 방도 책도 없어요. 다 악마가 몸소 가져가 버렸거든요."

"악마가 아니었어요." 조카딸이 대꾸했다. "마법사였어요. 삼촌이 여기서 떠나신 다음 날 밤에 구름을 타고 왔어요. 타고 온 큰 뱀에서 내려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얼마 안 있다가 지붕을 뚫고 날아가 버렸는데, 집 안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짓을 해 놓았는지 보러 갔더니 책도 방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와 가정부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그 고약한 늙은이가 떠나면서 큰 소리로, 그 책들과 그 방의 주인에게 남모를 원한이 있어서 이 집에 해코지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보게 될 거라고 한 말뿐이에요. 자기 이름은 현자 무냐톤이라고도 했어요."

"프레스톤이라고 했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가정부가 대답했다. "프레스톤이었는지 프리톤이었는지. 이름이 '톤'으로 끝났다는 것만 알아요."

"그렇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자는 현명한 마법사로, 나의 큰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자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그자가 편드는 어느 기사와 일대일로 싸우게 되고, 그자가 막을 수도 없이 내가 그 기사를 이기리라는 것을 그자는 제 술법과 학문으로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온갖 고약한 짓을 내게 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말하노니, 하늘이 정한 일을 그자가 거스르거나 피하기는 어려우리라."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조카딸이 말했다. "그런데 삼촌, 누가 삼촌을 그런 싸움에 끌어들인대요? 많은 사람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제가 털을 깎이고 돌아온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밀보다 나은 빵을 찾아 세상을 헤매느니,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오, 얘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얼마나 셈을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깎기 전에, 내 머리카락 한 올 끝이라도 건드릴 생각을 하는 자들의 수염을 내가 모조리 뽑아 버렸을 것이다."

두 여자는 그의 분노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더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그는 보름 동안 집에서 아주 얌전히 지내며, 처음의 망상을 되풀이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 보름 동안 그는 두 친구인 신부와 이발사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편력 기사이며, 세상에 편력 기사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부는 그의 말에 어떤 때는 반대하고 어떤 때는 수긍했다. 그런 꾀를 쓰지 않으면 그와 도무지 말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돈키호테는 이웃에 사는 한 농부를 꾀었다. 착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런 칭호를 줄 수 있다면 말이다) 머리는 영 신통치 않은 사람이었다. 요컨대 그가 하도 말하고 설득하고 약속하는 바람에, 가엾은 촌사람은 그를 따라나서서 종자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한 여러 말 가운데는, 기꺼이 자기와 함께 갈 마음을 먹으라는 말도 있었다. 어쩌다 모험이 생기면 지푸라기 하나 치우는 사이에 섬 하나를 얻어 그를 그 섬의 통치자로 앉혀 둘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약속과 그 비슷한 약속에 넘어가, 산초 판사라는 그 농부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이웃의 종자가 되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곧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팔고 저것은 저당 잡히고, 모든 것을 헐값에 처분해서 꽤 쓸 만한 돈을 모았다. 그는 또 친구에게서 둥근 방패 하나를 빌리고, 부서진 투구를 할 수 있는 한 손질한 다음, 종자 산초에게 길을 떠날 생각인 날짜와 시각을 미리 알려

주었다. 그사이에 산초도 가장 필요하다 싶은 것을 챙기게 하려는 뜻이었다. 무엇보다도 자루를 꼭 챙기라고 일렀다. 산초는 챙기겠다고 하면서, 아주 좋은 당나귀가 한 마리 있으니 그것도 데려갈 생각이라고 했다. 자기는 오래 걷는 데 익숙지 않다고 했다. 당나귀 이야기에 돈키호테는 조금 망설였다. 당나귀 등에 올라 당나귀답게 말 타고 다닌 종자를 거느린 편력 기사가 있었는지 기억해 내려 했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산초가 당나귀를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기회가 생기는 대로 처음 만나는 무례한 기사에게서 말을 빼앗아, 더 체면이 서는 탈것을 마련해 줄 셈이었다. 그는 객줏집 주인이 해 준 충고대로 셔츠와 그 밖에 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챙겼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판사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돈키호테는 가정부와 조카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밤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그들은 어찌나 멀리 갔던지, 새벽녘에는 누가 찾아 나선다 해도 붙잡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놓았다.

산초 판사는 자루와 가죽 술 부대를 챙겨 당나귀 위에 족장처럼 올라앉아, 주인이 약속한 섬의 통치자가 된 모습을 어서 보고 싶어 안달하며 갔다. 돈키호테는 마침 첫 여행 때 지난 바로 그 길, 몬티엘 들판을 가로지르는 길로 접어들었다. 아침나절이라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그들을 지치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지난번보다 덜 괴롭게 길을 갔다. 그때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말했다.

"편력 기사 나리, 저한테 약속하신 섬 일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큰 섬이라도 저는 다스릴 줄 알 거예요."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아 두어라, 산초 판사, 내 벗아. 옛 편력 기사들은 자기가 얻은 섬이나 왕국의 통치자로 종자를 앉히는 관습을 아주 널리 따랐느니라. 나는 나 때문에 이 고마운 관습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오히려 그 관습에서 그들을 앞지를 생각이다. 그들은 가끔, 아니 어쩌면 대개, 종자가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 종자가 섬기는 데 지치고 궂은 낮과 더 궂은 밤을 실컷 보낸 뒤에야 고작 어느 골짜기나 그만그만한 고장의 백작, 많이 쳐 주어야 후작 칭호 하나를 주었지. 그러나 너도 살고 나도 산다면, 엿새가 지나기 전에 내가 다른 왕국들이 딸린 왕국 하나를 얻어, 그 가운데 하나의 왕으로 너를 세우기에 안성맞춤이 될 수도 있느니라.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기사들에게는 일찍이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길로 온갖 일과 사건이 일어나니, 내가 약속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쉽게 줄 수도 있느니라."

"그렇게 되면"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나리 말씀대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왕이 된다면, 적어도 우리 집사람 후아나 구티에레스는 왕비가 되고 제 자식들은 왕자가 되겠네요."

"그걸 누가 의심하겠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가 의심해요." 산초 판사가 대꾸했다. "하느님이 땅 위에 왕국을 비처럼 쏟아부으신다 해도, 마리 구티에레스 머리에는 어느 것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나리, 알아 두세요. 그 사람은 왕비로는 2마라베디 값어치도 없어요. 백작 부인이면 더 잘 어울릴 텐데, 그것도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할 거예요."

"그 일은 하느님께 맡겨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총독 자리보다 못한 것으로 만족할 만큼 기를 죽이지는 마라."

"그러지 않을게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더구나 나리처럼 훌륭한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나리는 제게 어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주실 줄 아실 테니까요."

제8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무시무시하고 일찍이 상상도 못 한 풍차 모험에서 거둔 멋진 성과와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그 들판에 서 있던 풍차 서른 개인지 마흔 개인지를 보게 되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마자 종자에게 말했다.

"행운이 우리 일을 우리가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잘 이끌어 주는구나. 보아라, 산초 판사, 내 벗아. 저기 서른 남짓한 엄청난 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저놈들과 싸워 하나도 남김없이 목숨을 빼앗을 작정이다. 그 전리품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요, 이렇게 고약한 씨앗을 땅 위에서 쓸어 없애는 것은 하느님을 크게 섬기는 일이니라."

"무슨 거인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저것들 말이다." 주인이 대답했다. "팔이 긴 저놈들 말이다. 저런 놈들 가운데는 팔 길이가 거의 2레과나 되는 놈도 있느니라."

"나리, 잘 보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저것들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예요. 팔처럼 보이는 건 날개고요. 바람에 날개가 돌면 방앗돌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아하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모험이라는 일에 통 익숙하지 않구나. 저것들은 거인이다. 무섭거든 거기서 비켜나, 내가 저들과

사납고도 힘에 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기도나 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말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했다. 그가 덤벼들려는 것은 틀림없이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종자 산초가 외쳐 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것이 거인이라고 어찌나 굳게 믿었던지, 그는 종자 산초의 외침도 듣지 못했고 이미 바로 앞까지 다가갔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다.

"달아나지 말지어다, 비겁하고 비루한 족속들아. 너희에게 덤비는 자는 오직 기사 한 사람뿐이니라."

그때 바람이 조금 일어 커다란 날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희가 거인 브리아레오스보다 더 많은 팔을 휘두른다 해도, 이 값은 치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둘시네아 아씨에게 이 위기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빌며 온 마음으로 아씨께 몸을 맡긴 다음, 둥근 방패로 몸을 단단히 가리고 창을 창받이에 낀 채 로시난테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내달려 맨 앞의 풍차에 부딪쳤다. 그가 날개를 창으로 찌르자 바람이 날개를 어찌나 세차게 돌렸던지 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날개는 말과 기사를 함께 휩쓸어 갔다. 기사는 몹시 험한 꼴로 들판에 굴렀다. 산초 판사가 당나귀를 있는 힘껏 몰아 도우러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 그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로시난테와 함께 나가떨어진 충격이 그만큼 컸다.

"아이고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그러기에 나리께 잘 보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건 풍차일 뿐이라고요. 머릿속에 저런 풍차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잠자코 있거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전쟁의 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뒤바뀌기 마련이니라. 게다가 내

생각에는, 아니 틀림없이 그러하거니와, 내 방과 책을 훔쳐 간 그 현자 프레스톤이 내가 이 거인들을 무찌르는 영광을 빼앗으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바꾸어 놓았다. 그자는 나를 그만큼 미워한다. 그러나 끝내는, 끝내는 그자의 사악한 술수도 내 칼의 올곧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리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겠지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는 산초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어깨가 반쯤 빠진 로시난테에 다시 올랐다. 그들은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나누며 푸에르토 라피세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돈키호테 말로는 그곳은 오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라 갖가지 모험을 숱하게 만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만 창을 잃은 것이 그는 몹시 마음 아팠다. 그는 그 이야기를 종자에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디에고 페레스 데 바르가스라는 에스파냐 기사가 어느 싸움에서 칼이 부러지자 떡갈나무에서 묵직한 가지, 아니 둥치 하나를 꺾어 들고 그날 그것으로 어찌나 대단한 일을 하고 무어인을 어찌나 많이 짓찧었던지, 마추카(짓찧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은 바르가스 이 마추카라고 불리게 되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도 처음 마주치는 떡갈나무나 참나무에서 그 못지않게 훌륭한 둥치를 꺾을 생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으로 대단한 무훈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럴 작정이니, 너는 그 무훈을 보러 오고 거의 믿기지 않을 일들의 증인이 될 자격을 얻은 것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느님 뜻대로 되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나리 말씀을 다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몸을 좀 똑바로 세우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시는 것 같은데, 떨어지실 때 짓찧인 탓인가 봐요."

"그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아프다고 하지 않는 것은, 편력 기사는 상처 때문에 창자가 쏟아져 나온다 해도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리가 어디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저로 말하자면, 아무리 작은 아픔이라도 하소연할 거예요. 그 하소연하지 않는다는 법이 편력 기사의 종자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돈키호테는 종자의 단순함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산초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마음대로 하소연해도 좋다고 일러 주었다. 지금까지 기사도에서 그와 반대되는 말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산초는 밥 먹을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주인은 자기는 지금 먹을 생각이 없으니 산초는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대답했다. 이 허락을 받은 산초는 당나귀 위에 할 수 있는 한 편히 자리를 잡고, 자루에 넣어 온 것을 꺼내 주인 뒤를 따라가며 아주 느긋하게 먹었다. 그리고 이따금 술 부대를 치켜들고 어찌나 맛있게 마셨던지, 말라가에서 가장 호강하는 선술집 주인이라도 그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렇게 한 모금씩 자주 들이켜며 가는 동안 그는 주인이 해 준 어떤 약속도 떠올리지 않았고, 모험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고생이기는커녕 큰 쉼처럼 여겼다.

요컨대 그날 밤 그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보냈다. 돈키호테는 그 가운데 한 나무에서 거의 창 노릇을 할 만한 마른 가지 하나를 꺾어, 부러진 창에서 떼어 낸 창날을 거기에 끼웠다. 돈키호테는 그날 밤 내내 한숨도 자지 않고 둘시네아 아씨를 생각했다. 책에서 읽은 대로, 기사들이 숲과 황야에서 자기 아씨를 그리는 생각에 잠겨 여러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것을 따라 하려는 뜻이었다. 산초 판사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 배가 그득했고, 그것도 치커리 우린 물로 채운 배가 아니었으니, 한잠에 밤을 다 보내 버렸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얼굴을 비추는 햇살도, 새날이 오는 것을 수없이 즐겁게 반기는 새들의 노래도 그를 깨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자 술 부대를 한번 더듬어 보았는데, 간밤보다 조금 홀쭉해져 있자 그 모자람을 그리 빨리 채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괴로워졌다. 돈키호테는 아침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달콤한 추억을 먹고 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푸에르토 라피세로 가는 길을 이어 갔고, 오후 세 시쯤 그곳을 발견했다.

"여기서는" 그곳을 보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우 산초 판사야, 우리가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팔꿈치까지 손을 담글 수 있겠구나. 그러나 명심하여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에 빠진 것을 보더라도 나를 지키려고 네 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나를 해치는 자들이 천한 상것들이라면 그때는 얼마든지 도와도 좋다. 그러나 그들이 기사라면, 네가 기사 서임을 받을 때까지는 네가 나를 돕는 것이 기사도의 법으로 결코 허락되지도 용인되지도 않느니라."

"물론이지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리 분부를 아주 잘 따를게요. 게다가 저는 원래 얌전한 사람이라 소동이나 싸움에 끼어드는 건 질색이거든요. 그래도 제 몸을 지키는 일에서는 그런 법을 별로 따지지 않을 거예요. 하느님의 법도 사람의 법도 누구든 자기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제 몸을 지키는 것은 허락하니까요."

"나도 그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기사들을 상대로 나를 돕는 일에서는 네 타고난 혈기를 억눌러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 계명은 주일을 지키듯 잘 지키겠습니다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길에 성 베네딕도회 수도사 두 사람이 낙타 두 마리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탄 노새 두 마리가 낙타 못지않게 컸던 것이다. 그들은 먼지막이 안경을 쓰고 양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그 뒤로 마차 한 대가 오고 있었는데, 말을 탄 사람 네댓이 마차를 따랐고 걸어서 오는 노새꾼이 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차에는 비스카야 귀부인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아주 영예로운 직책을 맡아 인디아스로 건너가려는 남편이 머물고 있는 세비야로 가는 길이었다. 수도사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귀부인의 일행은 아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종자에게 말했다.

"내가 잘못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일찍이 본 적 없는 가장 이름난 모험이 될 것이다. 저기 보이는 저 검은 덩어리들은 틀림없이, 아니 의심할 여지 없이, 어느 공주를 훔쳐 저 마차에 싣고 가는 마법사들일 테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하느니라."

"이건 풍차보다 더 고약하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 잘 보세요. 저 사람들은 성 베네딕도회 수도사들이고, 마차는 길 가는 어떤 사람들 거예요. 잘 보시라니까요. 무슨 짓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악마가 나리를 속이는 게 아니면 좋겠어요."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모험이라는 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내 말이 맞으니,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앞으로 나서서 수도사들이 오는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섰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싶자 큰 소리로 말했다.

"악마 같고 무지막지한 무리야, 그 마차에 억지로 싣고 가는 지체 높은 공주들을 지금 당장 놓아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벌로 곧 죽음을 맞을 채비를 하여라."

수도사들은 고삐를 당겨 서서, 돈키호테의 꼴과 그의 말에 똑같이 놀랐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기사 나리, 우리는 악마 같지도 무지막지하지도 않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 둘일 뿐이오. 이 마차에 억지로 끌려가는 공주들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오."

"내게는 그런 부드러운 말이 통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너희를 알고 있노라, 이 거짓된 무리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고는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창을 낮게 꼬나들고 첫째 수도사에게 어찌나 사납고 당차게 덤벼들었던지, 수도사가 스스로 노새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억지로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을 것이고, 죽지는 않았더라도 크게 다쳤을 것이다. 둘째 수도자는 동료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자, 성채만 한 제 착한 노새에 박차를 가해 바람보다도 빠르게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다.

산초 판사는 수도사가 땅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자 날쌔게 당나귀에서 내려 그에게 덤벼들어 수도복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 수도사들의 하인 둘이 와서 왜 수도사의 옷을 벗기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그것이 자기 주인 돈키호테가 이긴 싸움의 전리품이니 정당하게 자기 몫이라고 대답했다. 장난을 알 리도 없고 전리품이니 싸움이니 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리도 없는 하인들은, 돈키호테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마차에 탄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산초에게 덤벼들어 땅바닥에 메다꽂고, 수염 한 올 남기지 않고 뽑아 놓고는 발길질로 짓찧어, 숨도 못 쉬고 정신도 잃은 채 땅바닥에 뻗게 만들었다. 수도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겁에 질리고 기가 죽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다시 노새에 올랐다. 그리고 말에 오르자마자 동료를 쫓아 박차를 가했는데, 동료는 꽤 떨어진 곳에서 그 소동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막 시작된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다려 볼 생각도 없이, 등에 악마라도 업은 듯 성호를 그어 대며 제 갈 길을 갔다.

앞서 말했듯이 돈키호테는 마차에 탄 귀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씨, 그대의 아리따움은 이제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셔도 되오. 그대를 납치한 자들의 오만은 나의 이 억센 팔에 꺾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노라. 그대를 풀어 준 이의 이름을 알지 못해 애태우지 않으시도록 알려 드리리다. 내 이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모험을 찾는 편력 기사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토보소의 도냐 둘시네아에게 사로잡힌 몸이로다. 그대가 내게서 받은 은혜의 보답으로 나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노라. 다만 토보소로 돌아가 나를 대신하여 그 아씨 앞에 나아가, 그대를 풀어 주려고 내가 한 일을 아뢰어 주시오."

돈키호테가 하는 이 말을 마차를 따르던 종자 가운데 하나가 다 듣고 있었는데, 비스카야 사람이었다. 그는 돈키호테가 마차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당장 토보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자,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창을 움켜쥐고는 서툰 카스티야 말과 더 서툰 비스카야 말로 이렇게 말했다.

"가라, 기사, 잘못 가는 너. 나 만든 하느님 걸고, 마차 안 놔두면, 너 죽는다, 여기 비스카야 사람 있는 것처럼."

돈키호테는 그 말을 아주 잘 알아듣고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가 기사라면, 물론 기사가 아니지만, 나는 벌써 너의 어리석음과 무엄함을 벌했을 것이다, 이 비루한 놈아."

이 말에 비스카야 사람이 대꾸했다.

"나 기사 아니? 하느님 걸고 맹세, 너 거짓말한다, 그리스도 사람만큼. 창 던지고 칼 뽑으면, 고양이 물에 끌고 가는 거 누군지 금방 본다!

땅으로 비스카야 사람, 바다로 시골 귀족, 악마로 시골 귀족. 그리고 너 거짓말한다, 봐라, 다른 말 하면."

"'이제 보게 되리라' 하고 아그라헤스가 말했느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창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칼을 뽑고 둥근 방패를 팔에 끼고, 비스카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작정으로 그에게 덤벼들었다. 비스카야 사람은 그가 그렇게 오는 것을 보고 노새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노새가 형편없는 삯노새라 믿을 수가 없었으므로 칼을 뽑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마차 곁에 있었던 덕분에 거기서 방석 하나를 집어 방패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철천지원수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비스카야 사람이 엉터리로 꿰맞춘 말로, 자기가 이 싸움을 끝내지 못하게 하면 자기 손으로 제 마님과 방해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마차의 귀부인은 눈앞의 일에 놀라고 겁이 나서 마부에게 마차를 조금 비켜 세우게 하고, 멀리서 그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비스카야 사람이 둥근 방패 위로 돈키호테의 한쪽 어깨를 칼로 크게 내리쳤는데, 아무것도 막아 주지 않았더라면 허리까지 쪼개졌을 것이다. 그 터무니없는 일격의 무게를 느낀 돈키호테는 크게 소리쳤다.

"오, 내 영혼의 아씨 둘시네아여, 아리따움의 꽃이여, 그대의 크나큰 선함에 보답하려다 이 혹독한 고비에 처한 그대의 기사를 구하소서!"

이 말을 하는 것과 칼을 움켜쥐는 것과 둥근 방패로 몸을 단단히 가리는 것과 비스카야 사람에게 덤벼드는 것이 모두 한순간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일격에 모든 것을 걸 작정이었다.

비스카야 사람은 그가 그렇게 덤벼드는 것을 보고 그 당찬 기세에서 그의 용기를 알아차리고, 자기도 돈키호테와 똑같이 하기로 했다.

그래서 방석으로 몸을 단단히 가리고 그를 기다렸는데, 노새를 이리저리 돌릴 수는 없었다. 노새는 너무 지친 데다 그런 어린애 장난에 익숙지 않아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돈키호테는 조심성 많은 비스카야 사람을 반으로 쪼갤 작정으로 칼을 높이 들고 덤벼들었고, 비스카야 사람도 칼을 치켜들고 방석으로 몸을 감싼 채 그를 기다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서로 겨누는 그 엄청난 일격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다. 마차의 귀부인과 그 시녀들은 하느님께서 자기네 종자와 자기들을 이 크나큰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며, 에스파냐의 모든 성상과 성지에 수없이 서원하고 봉헌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고약한 점은, 이 이야기의 작가가 바로 이 대목, 바로 이 고비에서 이 싸움을 매달아 둔 채 끝낸다는 데 있다. 작가는 돈키호테의 무훈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것 말고는 더 적힌 것을 찾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하기야 이 작품의 두 번째 작가는 그토록 흥미로운 이야기가 망각의 법에 내맡겨졌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라만차의 재사들이 그토록 호기심이 없어서, 이 이름난 기사를 다룬 문서 몇 장을 자기네 문서 보관소나 책상 서랍에 간직해 두지 않았으리라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 즐거운 이야기의 끝을 찾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하늘이 도와 그것을 찾아냈다. 그 경위는 제2편에서 이야기하겠다.

제2편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편

제9장 늠름한 비스카야 사람과 용감한 라만차 사람이 벌인 엄청난 결투가 끝나고 결판이 난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제1편에서 용맹한 비스카야 사람과 이름난 돈키호테를, 둘이 칼을 높이 빼어 든 채 서로 성난 일격을 막 내리치려는 참에 두고 왔다. 그 일격이 제대로 들어맞았다면 적어도 둘 다 위에서 아래까지 쪼개지고 갈라져 석류처럼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아슬아슬한 대목에서 그토록 재미있는 이야기가 뚝 끊기고 말았고, 작가는 빠진 부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아무 소식도 주지 않았다.

이 일로 나는 몹시 속이 상했다. 그토록 조금 읽은 즐거움이, 내가 보기에 그토록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빠진 많은 부분을 찾아낼 길이 험하다는 생각에 그만 언짢음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훌륭한 기사에게, 일찍이 본 적 없는 그의 무훈을 글로 적는 일을 떠맡은 현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모든 좋은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런 현자는 편력 기사라면 누구에게도 빠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 말마따나

>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난다는
> 그 기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그들은 저마다 판에 박은 듯 현자를 하나나 둘씩 거느렸고, 그 현자들은 기사의 행적을 적었을 뿐 아니라, 아무리 깊이 감춘 것이라도

기사의 아주 사소한 생각과 어린애 같은 짓까지 그려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기사가, 플라티르나 그와 비슷한 다른 기사들에게는 남아돌던 것이 자기에게만 모자랄 만큼 그렇게 불운할 리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토록 늠름한 이야기가 팔다리가 잘리고 망가진 채 남았으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모든 것을 삼키고 먹어 치우는 시간의 악의를 탓했다. 시간이 그 이야기를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거나 먹어 치웠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그의 책들 가운데 『질투의 환멸』이나 『에나레스의 님프와 양치기들』처럼 아주 새로운 책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야기도 새로운 것이 틀림없고, 아직 글로 적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마을과 그 이웃 마을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에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이름난 에스파냐 사람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일생과 기적을 참으로, 진실로 모두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라만차 기사도의 빛이요 거울이며, 우리 시대에, 이토록 재앙 많은 시절에 처음으로 편력하는 무예의 수고와 일에 몸을 바쳐,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과부를 돕고 아가씨들을 지킨 사람이다. 그 아가씨들이란 채찍을 들고 얌전한 승용마를 타고서 처녀의 몸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다니던 그런 아가씨들로, 어떤 비겁한 놈이나 도끼를 들고 쇠모자를 쓴 어떤 상놈이나 어떤 엄청난 거인이 겁탈하지 않는 한, 지난 시절에는 여든 해 동안 단 하루도 지붕 밑에서 자지 않고도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큼이나 온전한 몸으로 무덤에 들어간 아가씨도 있었다. 그러니 말하거니와, 이런저런 많은 까닭으로 우리의 늠름한 키호테는 끊임없이 길이 기억될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즐거운 이야기의 끝을 찾느라 들인 수고와 정성을 보아 칭송을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늘과 우연과 운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 거의 두 시간은 누릴 즐거움과 재미를 세상이 잃고 말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낸 경위는 이러했다.

어느 날 내가 톨레도의 알카나 거리[1]에 있을 때, 한 소년이 낡은 공책 묶음과 종이 뭉치를 비단 장수에게 팔러 왔다. 나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종이라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타고난 버릇에 이끌려 소년이 팔던 공책 하나를 집어 들었는데, 보니 아랍 글자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자는 알아보았지만 읽을 줄은 몰랐으므로, 그것을 읽어 줄 에스파냐 말을 아는 모리스코[2]가 근처에 없나 둘러보았다. 그런 통역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오래된 말을 옮길 사람을 찾았더라도 찾아냈을 것이다. 마침내 운 좋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바람을 말하고 그 책을 손에 쥐여 주자 그는 책을 한가운데쯤 펼쳐 조금 읽더니 웃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이 우스우냐고 묻자, 그는 이 책 여백에 주석으로 적혀 있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을 말해 달라고 하자 그는 웃음을 그치지 않은 채 말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백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그토록 여러 번 나오는 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솜씨가 라만차의 어느 여자보다도 좋았다고 한다.'"

나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말을 듣자 깜짝 놀라 넋을 잃었다. 그 공책 묶음에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대뜸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나는 그에게 첫머리를 읽어 달라고 재촉했고, 그는 그렇게 하면서 아랍어를 즉석에서 카스티야 말로 옮겨, 거기에 『아랍의 역사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 책 제목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솟구치는 기쁨을 감추느라 무척 애를 써야 했다. 그러고는 비단 장수를 앞질러 소년에게서 종이와 공책 묶음을 모조리 반 레알에 샀다. 소년이

눈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탐내는지 알았더라면, 그 거래에서 여섯 레알 넘게도 바라고 받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곧 그 모리스코를 데리고 대성당 회랑으로 물러나, 그 공책 묶음 가운데 돈키호테를 다룬 것을 모두, 아무것도 빼거나 보태지 말고 카스티야 말로 옮겨 달라고 부탁하며 원하는 만큼 삯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건포도 2아로바와 밀 2파네가로 만족했고, 잘, 충실하게, 아주 빨리 옮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나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하고 그토록 귀한 발견을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곳에서 한 달 반 남짓 만에, 여기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것을 모두 옮겼다.

첫 번째 공책에는 돈키호테와 비스카야 사람의 결투가 아주 실감 나게 그려져 있었다. 둘은 이야기가 전하는 바로 그 자세로 칼을 치켜들었고, 하나는 둥근 방패로, 다른 하나는 방석으로 몸을 가렸으며, 비스카야 사람의 노새는 어찌나 생생한지 석궁 한 바탕 거리에서도 삯 노새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비스카야 사람의 발치에는 「돈 산초 데 아스페이티아」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틀림없이 그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로시난테의 발치에는 「돈키호테」라고 적힌 글이 또 하나 있었다. 로시난테는 기막히게 그려져 있었다. 어찌나 길쭉하고 늘씬하고, 어찌나 여위고 말랐으며, 등뼈는 어찌나 튀어나오고 폐병이 어찌나 깊이 든 꼴인지,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얼마나 잘 살피고 꼭 맞게 붙였는지 훤히 드러나 보였다. 그 곁에는 당나귀 고삐를 쥔 산초 판사가 있었고, 당나귀 발치에는 「산초 산카스」라는 글이 또 하나 적혀 있었다. 그림이 보여 주는 바로는 그는 배가 크고 몸통이 짧고 정강이가 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에게 판사(배불뚝이)와 산카스(장다리)라는 이름이 붙었을 텐데, 이야기는 이 두 별명으로 그를 이따금 부른다. 그 밖에도 짚어 둘 자잘한 것들이 있었지만, 모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참되게 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참되기만 하면 어떤 이야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무슨 이의를 달 수 있다면, 작가가 아랍인이라는 점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 민족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기로 이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원수이니, 이야기에 지나치게 보탰다기보다 오히려 모자라게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그토록 훌륭한 기사를 칭송하는 데 붓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고 마땅히 그래야 했을 자리에서, 작가는 일부러 입을 다물고 지나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요 더 잘못 생각한 일이다. 역사가는 정확하고 참되어야 하며 조금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익이나 두려움이나 원한이나 애착 때문에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진실의 어머니는 역사이니, 역사는 시간의 맞수요 행적을 담아 두는 곳간이며, 지나간 일의 증인이요 지금 일의 본보기이자 교훈이며,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경고다. 이 이야기에는 가장 즐거운 이야기에서 바랄 만한 것이 모두 들어 있음을 나는 안다. 그래도 무엇이든 좋은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이야기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개 같은 작가 탓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번역에 따르면 그 제2편은 이렇게 시작했다.

용맹하고 성난 두 투사가 날 선 칼을 높이 치켜들자,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과 지옥을 한꺼번에 위협하는 것 같았다. 그토록 대담한 기세와 몸가짐이었다. 먼저 일격을 내리친 쪽은 성미 급한 비스카야 사람이었는데, 어찌나 힘차고 사납게 내리쳤던지 칼날이 도중에 비껴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한 번의 일격만으로 이 혹독한 싸움도, 우리 기사의 모든 모험도 끝장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더 큰일에 쓰려고 아껴 두었던 행운이 상대의 칼을 비틀어 놓았다. 그래서 칼은 그의 왼쪽 어깨에 맞았지만, 그쪽의 갑옷을 몽땅 벗겨 내고 그 김에 투구의 큰

부분과 귀 반쪽을 앗아 간 것 말고는 다른 해를 입히지 못했다. 그것들이 모두 무시무시하게 무너져 내리며 땅에 떨어졌고, 그는 몹시 험한 꼴이 되었다.

하느님 맙소사, 자기가 그런 꼴이 된 것을 본 우리 라만차 사람의 가슴에 치솟은 분노를 지금 누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으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다시 등자를 딛고 일어서서 두 손으로 칼을 더 꽉 움켜쥐고는 어찌나 사납게 비스카야 사람을 내리쳤던지, 칼이 방석과 머리 위에 정통으로 떨어지자 그토록 훌륭한 방비도 소용이 없었다. 비스카야 사람은 산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 듯 코와 입과 귀로 피를 쏟기 시작했고, 노새에서 굴러떨어질 기색을 보였다. 노새 목을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도 결국 그는 등자에서 발을 빼고 이어서 팔을 놓았다. 노새는 그 끔찍한 일격에 놀라 들판으로 내달렸고, 몇 번 날뛰지도 않아 주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돈키호테는 아주 침착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 말에서 뛰어내려 날쌔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칼끝을 그의 눈앞에 들이대고, 항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말했다. 비스카야 사람은 어찌나 정신이 없었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돈키호테가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그때까지 몹시 겁에 질려 싸움을 지켜보던 마차의 귀부인들이 그가 있는 데로 와서 제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자기네 종자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간곡히 빌지 않았더라면, 비스카야 사람은 험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이에 돈키호테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근엄하게 대답했다.

"참으로, 아리따운 귀부인들이여, 그대들이 청하는 바를 나는 기꺼이 들어주겠소. 다만 조건과 약속이 하나 있으니, 이 기사는 토보소 마을로

가서 내 대신 비할 데 없는 도냐 둘시네아 앞에 나아가, 아씨께서 그를 마음 내키시는 대로 처분하시게 하겠다고 내게 약속해야 하오."

겁에 질리고 넋이 나간 그 귀부인은 돈키호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따져 보지도 않고, 둘시네아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은 채, 종자가 그에게서 명령받은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믿고 나는 그에게 더는 해를 끼치지 않겠소. 그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말이오."

---

1. 톨레도 대성당 가까이에 있던 상점 거리. 비단과 헌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2.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무어인과 그 후손. 이 무렵 에스파냐에는 아랍어와 에스파냐어를 함께 아는 모리스코가 적지 않았다.

제10장 돈키호테가 비스카야 사람과 겪은 그 뒤의 일과 양구에스 무리를 만나 처한 위험

이때쯤 산초 판사는 수도사들의 하인들에게 얼마간 험한 꼴을 당한 몸으로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주인 돈키호테의 결투를 눈여겨보면서, 하느님께서 부디 주인에게 승리를 내려 주시고 주인이 그 싸움에서 섬을 하나 얻어 약속대로 자기를 그 섬의 통치자로 삼게 해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러다 싸움이 끝나고 주인이 다시 로시난테에 오르려는 것을 보자, 그는 등자를 잡아 주러 다가갔다. 그리고 주인이 말에 오르기 전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 입을 맞춘 다음 말했다.

"주인 돈키호테 나리, 이 혹독한 싸움에서 얻으신 섬의 통치를 부디 저한테 맡겨 주세요. 그 섬이 아무리 커도, 세상에서 섬을 다스려 본 누구 못지않게 잘 다스릴 힘이 저한테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아 두게, 아우 산초. 이번 모험과 이와 비슷한 모험들은 섬을 얻는 모험이 아니라 갈림길의 모험일세. 이런 모험에서 얻는 것이라고는 깨진 머리나 떨어져 나간 귀 한쪽밖에 없네. 참고 기다리게. 자네를 통치자로 삼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도 올려 줄 모험이 나타날 테니."

산초는 몹시 고마워하며 다시 주인의 손과 사슬 갑옷 자락에 입을 맞추고, 주인이 로시난테에 오르는 것을 거들었다. 그러고는 자기도 당나귀에 올라, 마차의 귀부인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더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잰걸음으로 가까이 있던 숲으로 들어가는 주인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산초는 당나귀를 힘껏 몰아 따라갔지만 로시난테가 어찌나 빨리 걷던지, 뒤처지는 것을 깨닫자 주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돈키호테는 그 말대로 로시난테의 고삐를 당기고 지친 종자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종자는 다가오자마자 말했다.

"나리, 아무래도 어디 성당에라도 숨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리하고 싸운 그 사람이 그렇게 험한 꼴이 되었으니, 누가 그 일을 성스러운 형제단[1]에 알려서 우리를 잡아가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정말이지 그렇게 되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꽁지에서 땀깨나 나게 고생할 거예요."

"잠자코 있거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편력 기사가 아무리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재판정에 끌려 나간 일을 너는 어디서 보았으며, 언제 읽기라도 했느냐?"

"저는 살인이니 원수니 하는 건 하나도 몰라요." 산초가 대답했다. "평생 누구한테 원한 한 번 품어 본 적 없고요. 제가 아는 건 성스러운 형제단이 들판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상관한다는 것뿐이고, 그 밖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너를 칼데아 사람들 손에서도 빼내 줄 텐데, 형제단 손에서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네 목숨을 걸고 말해 보아라. 너는 이 땅의 알려진 온 세상에서 나보다 더 용맹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 덤벼드는 데 더 기운차고, 버티는 데 더 끈질기고, 찌르는 데 더 날래고, 쓰러뜨리는 데 더 능란한 기사가 지금 있거나 예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느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이야기책이라고는 한 권도 읽어 본 적이 없어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감히 내기를 걸 수 있는 건, 저는 평생 나리보다 더 대담한 주인을 섬겨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부디 이 대담한 짓들의 값을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서 치르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리께 부탁드릴 건, 상처를 좀 돌보시라는 거예요. 그 귀에서 피가 많이 나요. 여기 안장 주머니에 실밥 붕대하고 흰 연고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모두 쓸데없었을 게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피에라브라스의 향유를 한 병 만들어 둘 생각만 했더라면 말이다. 그 향유는 단 한 방울로 시간도 약도 아낄 수 있느니라."

"무슨 병이고 무슨 향유인데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것은 향유인데"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드는 법이 내 머릿속에 들어 있다. 그것만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상처로도 죽을 걱정이 없느니라. 그러니 내가 그것을 만들어 너에게 주거든, 너는 어느 싸움에서 내 몸이 한가운데로 동강 난 것을 보았을 때(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기 마련이다), 땅에 떨어진 쪽 몸을 고이, 아주 솜씨 좋게, 피가 굳기 전에 안장에 남은 다른 반쪽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때 고르게, 꼭 맞게 맞추도록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 내가 말한 향유를 딱 두 모금만 마시게 하면, 내가 사과보다 더 멀쩡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게다."

"그런 게 있다면" 판사가 말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섬의 통치를 내놓겠어요. 제가 바친 많은 훌륭한 봉사의 대가로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리께서 그 기막힌 약물 만드는 법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 그건 어디서든 1온스에 2레알은 넘게 받을 테니, 저는 그것만 있으면 이 한평생 체면 지키며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둬야겠네요."

"3레알도 안 되는 돈으로 3아숨브레를 만들 수 있느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이고, 이 죄 많은 놈!" 산초가 맞받았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뭘 기다리고 그걸 안 만드시고 저한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자코 있거라,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너에게 그보다 더 큰 비밀도 가르쳐 주고 더 큰 은혜도 베풀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처나 돌보자꾸나. 귀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아프구나."

산초는 안장 주머니에서 실밥 붕대와 연고를 꺼냈다. 그런데 돈키호테는 자기 투구가 부서진 것을 보자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는 칼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다.

"나는 만물의 창조주와, 이 일이 더 자세히 적혀 있는 거룩한 네 복음서에 걸고 맹세하노라. 위대한 만토바 후작이 조카 발도비노스의 죽음을 갚겠다고 맹세했을 때 지낸 그대로 지내리라. 식탁보 깐 상에서 빵을 먹지 않고, 아내와 즐기지 않으며, 다른 일들도 그리하리라. 그 일들은 지금 기억나지 않으나 여기서 모두 말한 것으로 하노라. 내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자에게 온전히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리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산초가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사가 분부받은 대로 우리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 앞에 가서 나섰다면 할 일은 다 한 셈이니, 새로 죄를 짓지 않는 한 다른 벌을 받을 까닭이 없잖아요."

"말 한번 잘했고 짚기도 잘 짚었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그자에게 새로 원수를 갚는 일에 관해서는 맹세를 거두겠다. 그러나 어느 기사에게서 이만큼 훌륭한 투구를 힘으로 빼앗을 때까지 내가 말한 대로 지내겠다는 맹세는 새로 하고 다시 굳히겠다. 산초, 내가 이 일을 짚불 연기처럼 공연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일에는 내가 본받을 이가 있느니라. 맘브리노의 투구를 두고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글자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 투구 때문에 사크리판테가 비싼 값을 치렀느니라."

"주인 나리, 그런 맹세는 악마한테나 줘 버리세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건 건강에도 몹시 해롭고 양심에도 몹시 해로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여러 날 동안 투구 쓴 무장한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나면 우리는 어떡해요? 옷을 입은 채 자고, 마을에서 자지 않고, 나리께서 지금 다시 굳히시려는 그 늙은 미치광이 만토바 후작의 맹세에 들어 있던 다른 고행 천 가지까지, 그 숱한 불편과 고생을 무릅쓰고 맹세를 지켜야 하나요? 나리, 잘 보세요. 이 길들로는 무장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다니는 건 마부와 짐수레꾼들뿐인데, 그 사람들은 투구를 쓰기는커녕 평생 투구라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을지 몰라요."

"그건 네가 잘못 안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가 이 갈림길들에 두 시간도 채 머물기 전에, 아름다운 안헬리카를 손에 넣으려고 알브라카로 몰려온 자들보다 더 많은 무장한 자들을 보게 될 테니."

"그럼 좋아요, 그렇다고 치죠." 산초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부디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시고, 저한테 그토록 비싸게 먹히는 그 섬을 얻을 때가 어서 와서, 그다음엔 당장 죽어도 좋겠어요."

"산초, 그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섬이 모자라면 덴마크 왕국이나 솔리아디사 왕국이 있는데, 그것들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너에게 꼭 맞을 게다. 게다가 그 나라들은 뭍에 있으니 너는 더욱 기뻐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 안장 주머니에 먹을 것이 좀 있는지 보아라. 곧 오늘 밤 묵을 성을 찾아 나서서, 거기서 내가 말한 향유를 만들어야겠다. 하느님께 맹세코 귀가 몹시 아프구나."

"여기 양파 하나하고 치즈 조금하고 빵 부스러기가 몇 개인지 모르게 있습죠." 산초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리처럼 용감한 기사께 어울리는 음식은 아니에요."

"참으로 뭘 모르는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알려 주마. 편력 기사들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먹더라도 손에 가장 잘 잡히는 것을 먹느니라. 너도 나만큼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이것을 확실히 알았을 게다. 나는 그런 책을 숱하게 읽었지만, 편력 기사들이 무엇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했다. 어쩌다 먹었거나, 누가 그들에게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먹었을 뿐이고, 나머지 날들은 꽃으로 끼니를 삼았다. 물론 그들도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먹지 않고서는, 그리고 몸이 바라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 대부분을 요리사도 없이 숲과 빈 들판을 떠돌았으니, 그들이 가장 흔히 먹은 것은 네가 지금 내게 내놓는 것 같은 시골 음식이었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산초, 내 벗아, 내 마음에 드는 일로 너는 괴로워하지 마라. 그리고 새 세상을 만들려 들거나 편력 기사도를 그 돌쩌귀에서 떼어 내려 들지도 마라."

"용서해 주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니, 기사라는 직업의 규칙을 알지도 못하고 깨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기사이신 나리를 위해 안장 주머니에 온갖 말린 과일을 채워 두고, 기사가 아닌 저를 위해서는 날개 달린 것이나 더 실속 있는 다른 것을 채워 둘게요."

"산초, 내 말은"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편력 기사들이 네가 말하는 그 과일 말고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흔히 먹고 산 것이 그런 과일과, 들판에서 찾아낸 풀 몇 가지였으리라는 말이다. 그들은 그 풀을 알았고, 나도 안다."

"그 풀을 아시는 건 좋은 재주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언젠가 그 재주를 써야 할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산초가 가져왔다던 것을 꺼내자 두 사람은 사이좋게 오순도순 먹었다. 그러나 그날 밤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초라하고 메마른 식사를 아주 서둘러 끝냈다. 그들은 곧 말에 올라 날이 저물기 전에 마을에 닿으려고 길을 재촉했지만, 산양치기들의 오두막 몇 채 곁에서 해가 지고 바라던 곳에 닿을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다. 마을에 닿지 못한 것이 산초에게는 괴로운 만큼, 하늘을 지붕 삼아 밤을 지내는 것이 주인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자기 기사 신분을 증명하기 쉽게 해 주는 점유 행위를 하나씩 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

1. 15세기 말 가톨릭 왕들이 정비한 시골 치안 조직. 마을 밖 길과 들판에서 일어난 범죄를 맡아 즉결로 다루었다.

제11장 돈키호테가 산양치기들과 함께 겪은 일

산양치기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산초는 로시난테와 자기 당나귀를 될 수 있는 대로 잘 매어 두고, 불 위의 가마솥에서 끓고 있던 산양 고기 육포의 냄새를 따라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당장 고기가 솥에서 배 속으로 옮겨 갈 만큼 익었는지 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산양치기들이 솥을 불에서 내리고 양가죽 몇 장을 땅바닥에 펴서 서둘러 투박한 상을 차리더니, 아주 기꺼운 얼굴로 두 사람에게 가진 것을 함께 먹자고 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먼저 돈키호테에게 뒤집어 놓은 여물통 위에 앉으라고 서툴게 예를 갖추어 권한 다음, 양가죽 둘레에 빙 둘러앉았다. 그 우리에 있던 산양치기는 여섯 명이었다. 돈키호테가 자리에 앉자 산초는 뿔로 만든 술잔을 시중들려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말했다.

"산초, 편력 기사도가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것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직분에서든 편력 기사도에 몸담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세상의 존경과 높은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네가 알도록, 나는 네가 여기 내 곁에 이 착한 사람들과 함께 앉기를 바란다. 네 주인이요 타고난 상전인 나와 한 몸이 되어, 내 접시에서 먹고 내가 마시는 데서 마시기를 바란다. 사랑을 두고 하는 말을 편력 기사도를 두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다는 말 말이다."

"고맙기도 하셔라!" 산초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리께 드릴 말씀은, 먹을 것만 넉넉하다면 저는 황제 곁에 앉아서 먹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맛있게 혼자 서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빵 한 조각에 양파 하나라도 제 구석에서 격식도 체면도 차리지 않고 먹는 게, 천천히 씹고 조금 마시고 자주 입을 닦아야 하고, 하고 싶어도 재채기나 기침도 못 하고,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하는 다른 일도 못 하는 남의 상에서 칠면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 주인 나리, 제가 나리의 종자로서 편력 기사도의 일꾼이요 한패라고 해서 나리께서 저한테 주시려는 이 영예는 저한테 더 편하고 쓸모 있는 다른 것으로 바꿔 주세요. 이 영예는 잘 받은 걸로 치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양하겠어요."

"그래도 너는 앉아야 한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느님께서 높이시느니라."

그러고는 산초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자기 곁에 앉혔다.

산양치기들은 종자니 편력 기사니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먹고 잠자코 있으면서 손님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손님들은 아주 흥겹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주먹만 한 고기를 꾸역꾸역 배 속에 쟁여 넣었다. 고기가 끝나자 그들은 양털 가죽 위에 개암처럼 고소한 도토리를 수북이 펼쳐 놓고, 회반죽으로 빚은 것보다 더 딱딱한 치즈 반 덩이도 함께 내놓았다. 그러는 동안 뿔잔도 놀고 있지 않았다. 수차에 매달린 물동이처럼 찼다가 비었다가 하며 어찌나 자주 돌았던지, 눈앞에 놓인 가죽 술 부대 둘 가운데 하나가 금세 바닥났다. 돈키호테는 배를 넉넉히 채운 뒤 도토리 한 줌을 손에 쥐고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이런 말을 소리 높여 늘어놓았다.

"옛사람들이 황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시대, 그 세기들이야말로 복된 시대요 복된 세기였소. 지금 우리의 이 쇠의 시대에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황금을 그 행복한 시대에는 아무 수고 없이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오. 그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네 것'과 '내 것'이라는 두 낱말을

몰랐기 때문이오. 그 거룩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었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얻으려고 손을 뻗어 튼튼한 떡갈나무에서 따는 것 말고 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아무에게도 없었소. 떡갈나무들은 달고 잘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내밀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소. 맑은 샘과 흐르는 강은 맛있고 투명한 물을 넘치도록 그들에게 내주었소. 부지런하고 슬기로운 꿀벌들은 바위 틈과 나무 구멍에 나라를 이루고, 더없이 달콤한 수고로 거둔 넉넉한 수확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구의 손에나 내주었소. 늠름한 코르크나무들은 아무 재주도 부리지 않고 그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고 가벼운 껍질을 벗어 주었고, 사람들은 그 껍질로 투박한 말뚝에 얹힌 집을 덮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오직 하늘의 사나운 날씨를 막으려는 것이었소. 그때는 모든 것이 평화였고, 모든 것이 우정이었고, 모든 것이 화합이었소. 굽은 쟁기의 무거운 보습도 아직 우리 첫 어머니의 자비로운 배 속을 감히 가르거나 찾아들지 않았소. 대지는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기름지고 드넓은 품 어디에서나, 그때 대지를 차지하고 살던 자식들을 배불리고 먹여 살리고 즐겁게 할 만한 것을 내주었소. 그때야말로 순박하고 아름다운 양치기 처녀들이 머리를 땋거나 풀어 늘어뜨린 채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다녔소. 옷이라고는 정숙함이 가리라고 바라고 언제나 바라 온 것을 정숙하게 가릴 만큼만 입었소. 그 처녀들의 꾸밈새는 지금 쓰는 것, 곧 티로스의 자줏빛 물감과 갖은 수로 시달림을 받은 비단으로 값을 올린 그런 것이 아니었소. 우엉 잎과 담쟁이 잎 몇 장을 엮은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마 지금 우리 궁정 귀부인들이 한가한 호기심이 가르쳐 준 진기하고 낯선 고안물로 꾸민 것만큼이나 화려하고 단정했을 것이오. 그때는 순박한 영혼이 품은 사랑의 생각을, 영혼이 품은 그대로 꾸밈없이 소박하게 나타냈고, 그 생각을 부풀리려고 말을 교묘하게 에두르지도 않았소. 거짓과 속임수와 악의가 진실과

솔직함에 섞여 들지 않았소. 정의는 제자리를 지켰고, 지금 정의를 그토록 깎아내리고 어지럽히고 짓밟는 연줄과 이익을 따지는 무리도 감히 정의를 흐트러뜨리거나 해치지 못했소. 재판관이 제멋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는 법도 아직 재판관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았소. 그때는 판가름할 일도, 판가름을 받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오. 내가 말한 대로 처녀들과 정숙함은 어디든 홀로, 제 주인이 되어 다녔고, 남의 방자함이나 음탕한 속셈이 그것을 해칠까 두려워할 것도 없었소. 처녀가 몸을 망친다면 그것은 제 즐거움과 제 뜻에서 비롯되었소. 그런데 지금, 이 가증스러운 우리의 세기에는 어떤 처녀도 안전하지 않소. 크레타의 미궁 같은 새 미궁이 처녀를 감추고 가둔다 해도 마찬가지요. 저주받은 끈질긴 구애의 열성을 타고 사랑의 역병이 틈새로든 바람을 타고든 그곳까지 스며들어, 처녀들이 그토록 조신하게 지켜 온 것을 모두 망쳐 놓기 때문이오. 세월이 더 흐르고 악의가 더 자라자, 처녀들의 안전을 위해 편력 기사들의 기사도가 세워졌소. 처녀들을 지키고 과부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소. 산양치기 형제들이여, 나는 그 기사도에 속한 사람이오. 그대들이 나와 내 종자를 이렇게 대접하고 반겨 준 것을 고맙게 여기오. 세상에 사는 모든 이는 자연의 법에 따라 편력 기사들을 도울 의무가 있지만, 그대들은 이 의무를 모르면서도 나를 맞아들이고 대접해 주었음을 알기에, 나도 내 힘닿는 마음을 다해 그대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오."

이 긴 연설은 하지 않았어도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우리 기사는 사람들이 준 도토리를 보자 황금시대가 떠올라서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산양치기들에게 늘어놓고 싶어졌던 것이다. 산양치기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넋을 놓은 채 멍하니 듣고 있었다. 산초도 잠자코 도토리를 먹으며 두 번째 가죽 술 부대를 아주 자주 찾아갔다. 그 술 부대는 술을 차게 하려고 코르크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저녁을 다 먹는 데 걸린 시간보다 길었다. 저녁이 끝나자 산양치기 하나가 말했다.

"편력 기사 나리, 저희가 기꺼이 선뜻 나리를 대접한다고 나리께서 더 참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 동무 하나에게 노래를 시켜 나리를 즐겁고 흐뭇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요. 그 친구는 곧 여기 올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사랑에 흠뻑 빠진 젊은이인데, 무엇보다 읽을 줄도 쓸 줄도 알고, 라벨이라는 시골 현악기를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잘 켜거든요."

산양치기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라벨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조금 뒤 그것을 켜는 사람이 다가왔다. 스물두 살쯤 된, 아주 맵시 좋은 젊은이였다. 동무들이 저녁을 먹었느냐고 묻자 그는 먹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까 노래를 권하겠다고 나섰던 산양치기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우리를 위해 노래 좀 불러 주게. 우리 손님 나리께서 산과 숲에도 음악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시게 말이야. 자네 좋은 재주를 우리가 이분께 말씀드렸으니, 그 재주를 보여 드려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밝혀 주게. 그러니 제발 앉아서, 성당 녹을 받는 자네 삼촌께서 지어 주신 자네 사랑 노래를 불러 주게. 마을에서 아주 좋다고들 했잖나."

"좋고말고."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는 더 조르게 할 것도 없이 가지가 잘린 떡갈나무 둥치에 앉아 라벨을 고르더니, 조금 뒤 아주 맵시 있게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안토니오

"올랄랴,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알아,
네가 그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눈으로조차 말한 적 없지,
사랑의 말 없는 혀인 그 눈으로도.
네가 영리한 걸 아니까
네가 날 좋아한다고 굳게 믿어.
남이 알아준 사랑이
불행했던 적은 없으니까.
하긴 이따금,
올랄랴, 네가 내게 내비치긴 했지,
네 영혼은 청동이요
네 하얀 가슴은 바위라고.
그래도 너의 꾸지람과
더없이 정숙한 외면 사이로
이따금 희망이
제 옷자락 끝을 내보여.
그 미끼에 덤벼드는
내 믿음은 이제껏
불러 주지 않는다고 줄어든 적도,
뽑혔다고 불어난 적도 없어.
사랑이 곧 상냥함이라면,
네가 지닌 상냥함으로 미루어
내 희망의 끝은
내 짐작대로 되리라 여겨.
그리고 정성이
가슴을 너그럽게 하는 몫이 된다면,
내가 바친 정성 몇 가지가
내 편을 든든하게 해 줄 거야.

너도 눈여겨보았다면
한두 번 본 게 아닐 테지,
일요일에 날 빛내 주던 옷을
내가 월요일에도 입은 걸.
사랑과 맵시는
한길을 가는 법이라,
언제나 네 눈앞에서
말쑥하게 보이고 싶었어.
너를 위해 춘 춤 얘기는 접어 둘게,
노래 얘기도 늘어놓지 않을게,
네가 한밤중에 들었던,
첫닭 울 무렵 들었던 그 노래들.
네 아름다움을 두고
내가 늘어놓은 칭찬도 말하지 않을게.
참말이긴 해도 그 칭찬 때문에
몇몇 사람한테 미움을 샀거든.
베로칼의 테레사는
내가 너를 칭찬하니까 이러더라.
'천사를 섬기는 줄 알지만
원숭이를 섬기게 될걸.
숱한 장신구 덕분에,
가짜 머리채 덕분에,
사랑의 신조차 속이는
위선의 아름다움 덕분에.'
거짓말 말라 했더니 그 애가 화를 냈고,
그 애 사촌이 편을 들고 나섰어.
나한테 결투를 걸었으니, 너도 알지,
내가 무얼 했고 그가 무얼 했는지.

나는 너를 함부로 탐하지 않아,
너를 바라고 섬기는 것도
첩으로 삼자는 게 아니야.
내 뜻은 그보다 착하니까.
교회에는 멍에 끈이 있는데
그건 비단실 매듭이야.
너는 멍에에 목을 넣어 봐,
내가 내 목을 넣는 걸 보게 될 테니.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맹세할게,
가장 복된 성인께 걸고,
이 산을 떠나는 날은
카푸친 수도사가 될 때뿐이라고."

산양치기는 이것으로 노래를 끝냈다. 돈키호테는 무엇이든 더 불러 달라고 청했지만 산초 판사가 그러게 두지 않았다. 그는 노래를 듣기보다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이제 오늘 밤 주무실 곳에 자리를 잡으셔도 좋겠어요. 이 착한 사람들은 온종일 일을 해서 밤새 노래나 부르고 있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알겠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술 부대를 그렇게 찾아갔으니 음악보다는 잠으로 갚아 달라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는구나."

"하느님 덕분에 우리 모두 맛있게 먹었잖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부인하지 않으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나 너는 어디든 마음 내키는 데 자리를 잡아라.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는 것보다 깨어 있는 편이 더 보기 좋으니라. 그래도 산초, 이 귀를 다시 한번 돌봐 주는 게 좋겠다. 아파야 할 것보다 더 아프구나."

산초는 시키는 대로 했다. 산양치기 하나가 그 상처를 보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쉽게 낫게 할 약을 써 주겠다고 했다. 그는 그 근처에 지천으로 자라던 로즈메리 잎을 몇 장 따서 씹은 다음 소금을 조금 섞어 귀에 붙이고 붕대를 잘 감아 주면서, 다른 약은 필요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되었다.

제12장 산양치기 하나가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러고 있는데 마을에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날라다 주던 젊은이 하나가 와서 말했다.

"이보게들,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그럼 들어 보게."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그 이름난 대학생 양치기 그리소스토모가 오늘 아침 죽었다네. 부자 기예르모의 딸, 양치기 옷차림을 하고 이 외진 들판을 쏘다니는 그 마귀 같은 처녀 마르셀라 때문에 상사병으로 죽었다고들 수군거리더군."

"마르셀라 때문이란 말이지." 하나가 말했다.

"그래, 그 처녀 말일세." 산양치기가 대답했다. "그런데 기막힌 건, 그 사람이 유언으로 자기를 무어인처럼 들판에 묻어 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것도 코르크나무 샘이 있는 바위 발치에다 말일세. 소문으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들 하는데, 그곳이 그가 그 처녀를 처음 본 곳이라더군. 다른 일들도 시켰는데, 마을 신부들 말로는 이교도의 짓 같아서 그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그의 둘도 없는 벗으로 그와 함께 양치기 옷을 입은 대학생 암브로시오는, 그리소스토모가 남긴 분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마을이 온통 시끄럽다네.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결국 암브로시오와 그의 벗인 양치기들 모두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아.

내일 그를 아까 말한 그곳에 성대하게 묻으러 온다니, 내 생각엔 아주 볼만할 걸세. 적어도 나는 내일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보러 가겠네."

"우리도 모두 그러겠네." 산양치기들이 대답했다. "누가 남아서 모두의 산양을 지킬지 제비를 뽑자고."

"페드로, 자네 말이 옳네."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 내가 모두를 대신해서 남겠네. 그렇다고 내가 착하거나 궁금한 게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요전 날 이 발에 박힌 나무 가시 때문에 걸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고맙네." 페드로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페드로에게 그 죽은 사람이 누구이고 그 양치기 처녀는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청했다. 이에 페드로는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 죽은 사람은 이 산속 어느 마을에 살던 부유한 시골 귀족으로, 여러 해 동안 살라망카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아주 학식이 깊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별의 학문을 알고, 저 하늘에서 해와 달이 무슨 일을 겪는지도 안다고들 했습니다요. 해와 달이 '식'하는 때를 우리한테 꼭 맞게 일러 주었거든요."

"벗이여, 그 두 큰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식'이 아니라 '일식' '월식'이라 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페드로는 그런 자잘한 일에는 개의치 않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리고 그해가 풍년이 들지 흉연이 들지도 알아맞혔습죠."

"벗이여, 흉년이라고 말하려는 것이겠지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흉년이든 흉연이든" 페드로가 대답했다. "다 그게 그거죠.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은 그 아버지와 친구들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올해는 밀 말고 보리를 심으세요. 올해는 보리 말고 병아리콩을 심어도 됩니다. 내년엔 올리브기름이 풍년이고, 그다음 세 해 동안은 한 방울도 거두지 못할 겁니다.'"

"그 학문을 점성술이라 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요." 페드로가 맞받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걸 다 알았고, 그보다 더한 것도 알았다는 건 알지요. 아무튼 살라망카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안 되어, 어느 날 그 사람이 대학생 때 입던 긴 옷을 벗어 던지고 지팡이를 짚고 양가죽 옷을 입은 양치기 차림으로 불쑥 나타났습니다요. 그와 함께 학교를 다닌 그의 둘도 없는 벗 암브로시오도 같이 양치기 차림을 했고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죽은 그리소스토모는 노래 짓는 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요. 성탄 밤에 부르는 노래도, 성체 축일에 우리 마을 젊은이들이 하는 종교극도 그 사람이 지었는데, 다들 그만이라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대학생이 느닷없이 양치기 차림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었는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요. 그때는 이미 우리 그리소스토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는 살림살이며 땅이며 많은 재산과, 크고 작은 가축을 적지 않게, 그리고 돈도 아주 많이 물려받았습니다요. 젊은이는 그 모든 것의 제멋대로 주인이 되었는데, 정말이지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요. 아주 좋은 길동무에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얼굴은 하느님의 축복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옷차림을 바꾼 건 다름 아니라 아까 우리 젊은이가 말한 그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쫓아 이 빈 들판을 쏘다니려는 것이었습니다요. 가엾은 그리소스토모가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계집애가 누구인지 말씀드리지요. 알아 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나리께서는 옴(sarna)보다

오래 사신다 해도, 아마, 아니 아마가 아니라 틀림없이, 평생 그런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요."

"'사라(Sarra)'보다라고 하시오." 돈키호테가 그 산양치기가 말을 바꿔 쓰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맞받았다.

"옴도 꽤 오래 살거든요." 페드로가 대답했다. "나리, 제가 말할 때마다 낱말을 하나하나 트집 잡으시면 일 년이 가도 이야기를 끝내지 못할 겁니다요."

"용서하시오, 벗이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옴과 사라는 하도 달라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오. 그러나 그대의 대답이 아주 옳았소. 옴이 사라보다 오래 사니까. 이야기를 이어 가시오. 이제 무엇에도 토를 달지 않겠소."

"그럼 말씀드리지요, 제 영혼의 나리." 산양치기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 그리소스토모의 아버지보다도 더 부유한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예르모였습니다요.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많은 재산 말고도 딸 하나를 주셨는데, 그 딸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지요. 그 어머니는 이 근방 일대에서 가장 정숙한 여자였습니다요. 해를 한쪽에, 달을 다른 쪽에 지닌 그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요. 무엇보다 살림을 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꼈으니, 그 영혼은 지금쯤 저세상에서 하느님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요. 그토록 좋은 아내가 죽자 남편 기예르모도 슬픔에 겨워 죽었고, 어리고 부유한 딸 마르셀라를 우리 마을의 성당 녹을 받는 신부인 삼촌 손에 맡겼습니다요. 그 아이는 자라면서 아주 아름다워져서, 역시 대단한 미인이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요. 그래도 딸이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워지리라고들 여겼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지요. 열네댓 살이 되자, 그 애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토록 아름답게 길러 주신 하느님을 찬양했고, 대부분은 그 애한테 반해 넋을 잃었습니다요. 삼촌은 그 애를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꼭꼭

숨겨 길렀습니다요. 그런데도 그 애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어찌나 퍼졌던지, 그 아름다움 때문에, 또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사방 여러 레과[1] 안에 사는 사람들, 그것도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까지 그 애를 아내로 달라고 삼촌한테 빌고 조르고 귀찮게 했습니다요. 그렇지만 삼촌은 올곧은 그리스도교 신자라, 그 애가 혼인할 나이가 된 걸 보고 당장이라도 시집보내고 싶었지만 그 애가 승낙하지 않는 한 그러려 하지 않았습니다요. 그 애의 재산을 맡아 두면 생길 이득과 벌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혼인을 미루었지요. 정말이지 이 일로 마을의 여러 사랑방에서 그 착한 신부를 칭찬하는 말이 오갔습니다요. 편력 나리, 알아 두셔야 할 건,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든 입에 오르고 무슨 일이든 수군거린다는 겁니다요. 그러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나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두세요. 교구민들한테 자기를 좋게 말하게 만드는 성직자라면, 특히 시골 마을에서는,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틀림없다고요."

"과연 그렇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이야기가 아주 좋고, 착한 페드로, 그대는 아주 맵시 있게 이야기하는구려."

"주님의 은총이 저한테 모자라지만 않으면 됩니다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면, 삼촌이 그 애를 아내로 달라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하나의 됨됨이를 일러 주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혼인하라고 빌었지만, 그 애는 지금은 혼인하고 싶지 않고, 아직 너무 어려서 혼인이라는 짐을 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대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요.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핑계에 삼촌은 그 애를 조르기를 그만두고, 그 애가 나이를 좀 더 먹어 마음에 드는 짝을 고를 줄 알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요. 부모가 자식의 뜻을 거슬러 혼처를 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말했는데, 그 말이 아주 옳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에도 그 까다로운 마르셀라가 어느 날 양치기

처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요. 삼촌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말렸지만 소용없이, 그 애는 마을의 다른 양치기 처녀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제 가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요. 그 애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부잣집 젊은이들, 시골 귀족이며 농부들이 그리소스토모처럼 양치기 옷을 입고 이 들판에서 그 애한테 구애하며 쫓아다니는지 제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죽은 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그 애를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아예 숭배했다고들 합니다요. 그렇다고 마르셀라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제멋대로, 몸가짐을 조금도 아니 전혀 삼가지 않고 사니까 정숙함과 조신함을 해칠 낌새나 기미라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요. 오히려 그 애는 제 명예를 어찌나 철저히 지키는지, 그 애를 섬기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 애가 소원을 이룰 작은 희망이라도 주었다고 자랑한 적이 없고 참말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요. 그 애는 양치기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하기를 피하거나 꺼리지 않고 그들을 정중하고 다정하게 대하지만, 누구든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만 하면, 그게 혼인처럼 바르고 거룩한 뜻이라 해도, 투석기로 내던지듯 제 곁에서 쫓아 버립니다요. 그 애가 이런 성미라 이 고장에는 역병이 들이닥친 것보다 더 큰 해가 미칩니다요. 그 애의 상냥함과 아름다움은 그 애와 사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그 애를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지만, 그 애의 냉담함과 매정한 거절은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애를 두고 큰 소리로 잔인하다느니 배은망덕하다느니, 그 애 성미를 잘 드러내는 그 비슷한 다른 이름들로 부르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요. 나리께서 언제 여기 계셔 보시면, 그 애를 따라다니다 매정하게 거절당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이 산과 골짜기가 울리는 걸 보실 겁니다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키 큰 너도밤나무가 스물네 그루 가까이 서 있는데,

매끄러운 껍질에 마르셀라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요. 어떤 나무에는 그 이름 위에 왕관까지 새겨져 있는데, 마치 그 애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르셀라야말로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 왕관을 쓸 만하고 또 쓰고 있다고 더 똑똑히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요. 여기서는 한 양치기가 한숨을 쉬고, 저기서는 다른 양치기가 하소연하고, 저쪽에서는 사랑의 노래가, 이쪽에서는 절망의 애가가 들립니다요. 어떤 사람은 떡갈나무나 바위 발치에 앉아 밤을 꼬박 새우며, 눈물 젖은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제 생각에 빠져 넋을 놓고 있다가 아침 해를 맞습니다요. 또 어떤 사람은 한숨을 멈추지도 쉬지도 못한 채, 여름 한낮 가장 괴로운 더위 속에 뜨거운 모래 위에 드러누워 자비로운 하늘에 하소연을 올려 보냅니다요. 그런데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마르셀라는 그들 모두를 거침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 냅니다요. 그 애를 아는 우리는 모두 그 애의 도도함이 어디서 끝날지, 그토록 무서운 성미를 길들이고 그토록 빼어난 아름다움을 누릴 행운아가 누구일지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확실한 사실이니, 우리 젊은이가 그리소스토모가 죽은 까닭을 두고 떠도는 말이라고 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요. 그러니 나리, 내일 그 장례에 꼭 가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요. 그리소스토모는 친구가 많으니 아주 볼 만할 겁니다요. 게다가 여기서 그가 묻히고 싶다고 한 곳까지는 반 레과도 안 됩니다요."

"꼭 그리하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토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나를 즐겁게 해 준 것을 고맙게 여기오."

"아이고!" 산양치기가 맞받았다. "저는 마르셀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겪은 일의 절반도 모릅니다요. 하지만 내일 길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양치기를 만날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지금은 지붕 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요. 밤이슬이 상처에 해로울지도 모르니까요. 하기야 나리께 붙인 약이 워낙 좋아서 나쁜 탈이 날 걱정은 없지만요."

산초 판사는 산양치기의 그 많은 말에 벌써부터 넌더리를 내던 터라, 자기대로 주인에게 페드로의 오두막에 들어가 자자고 졸랐다. 돈키호테는 그렇게 했고, 밤의 대부분을 마르셀라를 사랑한 사람들을 본떠 자기 아씨 둘시네아를 그리워하며 보냈다. 산초 판사는 로시난테와 자기 당나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잤는데, 사랑에 버림받은 사람처럼이 아니라 발길질에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잤다.

---

1. 레과는 걸어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로, 카스티야에서는 약 5.5킬로미터였다.

제13장 양치기 여자 마르셀라 이야기가 끝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동녘의 발코니로 날이 막 밝아 오기 시작하자, 여섯 산양치기 가운데 다섯이 일어나 돈키호테를 깨우러 가서, 아직도 그리소스토모의 이름난 장례를 보러 갈 생각이 있느냐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함께 가 주겠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바로 그것을 바라던 터라 일어나서 산초에게 당장 말에 안장을 얹고 당나귀에 길마를 얹으라고 일렀다. 산초는 아주 부지런히 그 일을 했고, 모두 그만큼 부지런히 곧 길을 떠났다. 4분의 1레과도 채 가지 않아 오솔길이 엇갈리는 곳에서, 검은 양가죽 옷을 입고 실편백과 쓰디쓴 협죽도로 엮은 화관을 머리에 쓴 양치기 여섯 명쯤이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마다 손에 굵은 호랑가시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길차림을 아주 잘 갖춘 말 탄 신사 둘이 오고 있었고, 걸어서 그들을 따르는 하인 셋도 함께였다. 서로 만나자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어디로 가느냐고 서로 묻다가 모두 장례 치를 곳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되어 다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말 탄 이들 가운데 하나가 동행에게 말했다.

"비발도 나리, 이 이름난 장례를 보느라 길이 늦어지는 것쯤은 보람 있게 쓴 시간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치기들이 죽은 양치기며 사람 잡는 양치기 처녀를 두고 그렇게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이름난 장례가 아닐 수 없겠지요."

"내 생각도 그렇소." 비발도가 대답했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루가 아니라 나흘이라도 늦어지겠소."

돈키호테는 그들이 마르셀라와 그리소스토모에 관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 나그네는, 오늘 새벽 이 양치기들과 마주쳤는데 그토록 슬픈 차림을 한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고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마르셀라라는 양치기 처녀가 얼마나 기이하고 아름다운지, 그 처녀에게 구애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장례에 가는 그리소스토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려주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는 페드로가 돈키호테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모두 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비발도라는 이가 돈키호테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토록 평화로운 땅에서 그렇게 무장을 하고 다니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직업은 내가 달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소. 편한 걸음과 호사와 휴식은 저 나약한 궁정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수고와 불안과 무기는 오로지 세상이 편력 기사라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고 마련되었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요."

이 말을 듣자마자 모두 그를 미치광이로 여겼다. 비발도는 그것을 더 확실히 알아보고 그의 광기가 어떤 종류인지 보려고, 「편력 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잉갈라테라의 연대기와 역사를 읽지 않으셨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거기에는 아르투로 왕, 우리 카스티야 말로 흔히 아르투스 왕이라 부르는 왕의 이름난 무훈이 실려 있소. 저 대브리타니아 왕국 온 땅에 예로부터 널리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이 왕은 죽지 않고 마법의 힘으로 까마귀로 변했으며, 세월이 흐르면

돌아와 다시 다스리고 자기 왕국과 왕홀을 되찾으리라 하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잉글랜드 사람이 까마귀를 한 마리라도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오. 그런데 바로 이 훌륭한 왕의 시대에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그 이름난 기사단이 세워졌고, 거기 이야기된 호수의 란사로테와 히네브라 왕비의 사랑도 한 치 어김없이 일어났소. 그 사랑을 주선하고 그 비밀을 알던 이가 그 존경스러운 킨타뇨나 시녀 부인이었소. 거기서 우리 에스파냐에 그토록 널리 알려지고 그토록 즐겨 불리는 그 로맨스가 생겨났소.

일찍이 어떤 기사도
귀부인들의 섬김을 그토록 받은 적 없었네,
란사로테가
브리타니아에서 왔을 때만큼은.

그 사랑과 용맹한 무훈이 그토록 달콤하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사연과 함께 말이오. 그때부터 그 기사도는 이 손에서 저 손으로 건너가며 세상의 여러 다양한 곳으로 퍼지고 넓어졌소. 그 기사도 안에서 용감한 가울라의 아마디스가 그 아들과 손자들, 다섯째 대에 이르는 자손들과 함께 무훈으로 이름을 떨치고 알려졌소. 용맹한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도, 마땅한 만큼 칭송받은 적이 없는 백기사 티란테도 그러했소. 그리고 거의 우리 시대에 와서는 무적의 용맹한 기사 그리스의 벨리아니스를 우리가 보고 사귀고 그 말을 들었소. 여러분, 편력 기사란 바로 이런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그들의 기사도요. 앞서 말했듯이 나는 죄 많은 몸이지만 그 기사도에 몸을 바쳤고, 앞서 말한 기사들이 서원한 것을 나도 똑같이 서원하오. 그래서 나는 이 쓸쓸한 빈 들판을 다니며 모험을 찾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운명이

내게 내미는 가장 위험한 모험에 내 팔과 몸을 바치기로 굳게 마음먹었소."

그가 한 이 말로 나그네들은 돈키호테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과 그를 사로잡은 광기가 어떤 종류인지 완전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광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모두 그랬듯이 그들도 놀라워했다. 비발도는 아주 사려 깊고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장례가 열리는 산에 닿기까지 남았다는 얼마 안 되는 길을 지루하지 않게 가려고 돈키호테가 엉뚱한 소리를 더 늘어놓게 할 빌미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편력 기사 나리, 보아하니 나리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엄격한 직업 가운데 하나에 몸을 바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카르투시오회 수도사들의 생활도 그만큼 엄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엄격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세상에 그만큼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나는 손가락 두 마디만큼도 의심할 생각이 없소. 사실대로 말하자면, 대장이 명령한 것을 실행하는 병사가 그것을 명령하는 대장 자신보다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오. 내 말은 이렇소. 수도자들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하늘에 이 땅의 안녕을 빌지만, 우리 병사와 기사들은 그들이 비는 것을 실행에 옮겨, 우리 팔의 용기와 우리 칼날로 이 땅을 지키오. 그것도 지붕 밑에서가 아니라 하늘 아래 드러난 곳에서, 여름의 견딜 수 없는 햇살과 겨울의 곤두선 얼음의 과녁이 되어서 말이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꾼이요, 하느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실행되는 팔이오. 그리고 전쟁의 일과 전쟁에 닿고 얽힌 일들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으니, 그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이들은 고요한 평화와 휴식 속에서 힘없는 이들을 도와 달라고 하느님께 비는 이들보다 틀림없이 더 큰 수고를 하는 셈이오. 나는 편력 기사의 신분이

수도원에 틀어박힌 수도자의 신분만큼 좋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스치지도 않소. 다만 내가 겪는 고생으로 미루어, 그것이 틀림없이 더 고되고 더 두들겨 맞고, 더 배고프고 목마르고, 비참하고 누더기 차림에 이투성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오. 지난날의 편력 기사들이 평생 숱한 불운을 겪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오. 몇몇은 팔의 용기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맹세코 그들은 그 대가로 피와 땀을 적잖이 쏟았소. 그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 그들을 돕는 마법사와 현자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희망에 크게 속았을 것이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그네가 맞받았다. "그런데 편력 기사들에게서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몹시 못마땅합니다. 목숨을 잃을 위험이 뻔히 보이는 크고 위험한 모험에 덤벼들 때가 되면, 그들은 그 순간에 하느님께 몸을 맡기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위험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자기네 귀부인이 하느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토록 간절하고 경건하게 귀부인에게 몸을 맡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교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나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은 결코 달리할 수 없는 일이오. 달리하는 편력 기사는 낭패를 볼 것이오. 편력 기사가 어떤 큰 무훈에 덤벼들 때, 자기 아씨가 눈앞에 있으면 아씨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눈길을 돌려, 그 눈으로 자기가 덤벼드는 아슬아슬한 고비에서 도와주고 지켜 달라고 비는 듯이 하는 것이 편력 기사도의 관례요 관습이 된 지 오래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어도 기사는 온 마음으로 아씨께 몸을 맡기는 말을 몇 마디 입속으로 중얼거려야 하오. 이런 예는 이야기책에 셀 수 없이 많소. 그렇다고 그들이 하느님께 몸을 맡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오.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할 때와 자리는 얼마든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나그네가 맞받았다. "제게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두 편력 기사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말끝마다 화가 치밀어 말머리를 돌려 들판을 넉넉히 물러난 다음, 더도 덜도 말고 있는 힘껏 달려 다시 맞부딪치는데, 달리는 도중에 자기네 귀부인에게 몸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맞부딪치면 흔히 한 사람은 상대의 창에 몸이 꿰뚫린 채 말 엉덩이 쪽으로 굴러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말갈기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토록 다급한 일을 치르는 동안 언제 하느님께 몸을 맡길 틈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달리면서 귀부인에게 몸을 맡기느라 쓴 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썼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게다가 제 생각에는 편력 기사라고 해서 모두 몸을 맡길 귀부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는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귀부인 없는 편력 기사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오.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사들에게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본디 타고난 일이오. 사랑 없는 편력 기사가 나오는 이야기책은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오. 바로 그런 까닭으로, 사랑이 없는 기사는 적법한 기사가 아니라 서자로 여겨질 것이고, 말한 기사도의 요새에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강도요 도둑으로 여겨질 것이오."

"그래도" 나그네가 말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용맹한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아우 돈 갈라오르는 몸을 맡길 정해진 귀부인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낮게 여겨지지 않았고 아주 용감하고 이름난 기사였습니다."

이에 우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리,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지는 않소. 게다가 나는 그 기사가 남몰래 아주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음을 알고 있소.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 누구든 좋아한 것은 그의 타고난 성미여서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오. 그러나 결국 그에게는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삼은 단 한 여인이 있었고, 그가 그 여인에게 아주 자주, 아주 남몰래 몸을 맡겼다는 것은 이미 잘 밝혀진 일이오. 그는 비밀을 지키는 기사임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편력 기사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 본질이라니" 나그네가 말했다. "그 직업에 계신 나리께서도 사랑에 빠져 계시리라고 믿어도 되겠군요. 나리께서 돈 갈라오르만큼 비밀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여기 일행 모두를 대신해, 또 저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한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나리의 귀부인의 이름과 고향과 신분과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도 나리 같은 기사에게 사랑받고 섬김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면 스스로 행복하다 여기실 겁니다."

이때 돈키호테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나의 달콤한 원수가 내가 자기를 섬긴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는 단언할 수 없소. 다만 그토록 정중하게 청하시니 대답하자면, 그분의 이름은 둘시네아요. 고향은 라만차의 한 마을인 토보소요. 신분은 적어도 공주는 되어야 하오. 나의 여왕이요 아씨이시니까. 아름다움은 사람의 것을 넘어서오. 시인들이 자기네 귀부인에게 갖다 붙이는, 있을 수 없는 꿈같은 아름다움의 속성들이 그분에게서 모두 참이 되기 때문이오. 머리칼은 황금이요, 이마는 엘리시온의 들판이요, 눈썹은 하늘의 무지개요, 눈은 해요, 뺨은 장미요, 입술은 산호요, 이는 진주요, 목은 설화석고요, 가슴은 대리석이요, 손은 상아요, 그 흰 살결은 눈이오. 그리고 정숙함이 사람의 눈에서 가린

부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짐작하기로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기릴 수는 있어도 무엇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오."

"그분의 가문과 혈통과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비발도가 맞받았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분은 옛 로마의 쿠르티우스, 가이우스, 스키피오 집안도 아니고, 요즘의 콜로나나 우르시노 집안도 아니오. 카탈루냐의 몽카다나 레케센스 집안도 아니고, 하물며 발렌시아의 레베야나 비야노바 집안도 아니오. 아라곤의 팔라폭스, 누사, 로카베르티, 코레야, 루나, 알라곤, 우레아, 포스, 구레아 집안도, 카스티야의 세르다, 만리케, 멘도사, 구스만 집안도, 포르투갈의 알렌카스트로, 파야, 메네세스 집안도 아니오. 그분은 라만차의 토보소 집안이오. 새 가문이기는 하지만, 다가올 세기들의 가장 빛나는 가문들에 고귀한 시작을 줄 수 있는 가문이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마시오. 세르비노가 오를란도의 무구를 걸어 둔 전리품 기둥 발치에 써 붙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소.

롤단과 겨룰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이것에 손대지 말라."

"제 가문은 라레도의 카초핀 집안입니다만" 나그네가 대답했다. "감히 라만차의 토보소 집안에 견주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성은 지금껏 제 귀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성이 귀에 들어온 적이 없다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다른 이들은 모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며 가고 있었고, 산양치기와 양치기들까지도 우리 돈키호테가 정신이 몹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산초 판사만은 주인이 하는 말이 모두 참말이라고 여겼다.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주인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이다. 그가 좀 의심스러워한 것은 그 어여쁜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 관한 이야기였다. 토보소 바로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런 이름이나 그런 공주가 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가고 있는데, 높은 산 두 개가 갈라놓은 골짜기로 양치기 스무 명쯤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모두 검은 양털 가죽 옷을 입고 화관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 어떤 이는 주목으로, 어떤 이는 실편백으로 엮은 화관이었다. 그들 가운데 여섯이 갖가지 꽃과 나뭇가지로 덮은 들것을 메고 왔다. 그것을 본 산양치기 하나가 말했다.

"저기 오는 사람들이 그리소스토모의 시신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고, 저 산 발치가 그 사람이 묻어 달라고 한 곳입니다요."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그들이 닿았을 때는 마침 시신을 메고 온 이들이 들것을 땅에 내려놓은 참이었고, 그 가운데 넷이 뾰족한 곡괭이로 단단한 바위 한쪽에 무덤을 파고 있었다.

양쪽 사람들은 서로 정중하게 맞이했다. 곧이어 돈키호테와 그와 함께 온 이들은 들것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꽃에 덮인 시신 하나가 양치기 차림으로 누워 있었는데, 서른 살쯤 되어 보였다. 죽었는데도 살았을 때 잘생긴 얼굴에 늠름한 몸매였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둘레 들것 위에는 책 몇 권과 펼쳐지거나 접힌 종이가 많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무덤을 파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도 놀라울 만큼 잠자코 있었는데, 이윽고 시신을 메고 온 이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에게 말했다.

"암브로시오, 여기가 그리소스토모가 말한 곳인지 잘 보게. 그가 유언으로 남긴 분부를 그토록 꼼꼼하게 지키고 싶다니 말일세."

"여기가 맞네." 암브로시오가 대답했다. "내 불행한 벗은 여기서 여러 번 자기 불운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네. 그는 여기서 인류의 그

철천지원수를 처음 보았다고 했고, 처음으로 정숙하고도 사랑에 넘치는 제 마음을 그 처녀에게 털어놓은 곳도 여기였네. 그리고 마르셀라가 마지막으로 그를 매정하게 물리치고 업신여겨 그의 비참한 삶의 비극에 끝을 맺게 한 곳도 여기였지. 그래서 그는 그 숱한 불행을 기억하며, 여기 영원한 망각의 품속에 묻히기를 바랐다네."

그러고는 돈키호테와 나그네들 쪽으로 몸을 돌려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이 몸은, 하늘이 그 보물의 끝없는 몫을 담아 둔 영혼을 맡아 지녔던 몸입니다. 이것이 그리소스토모의 몸입니다. 그는 재주로는 비할 데가 없었고, 예의로는 홀로였으며, 기품으로는 으뜸이었고, 우정으로는 불사조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너그러웠고, 거만하지 않으면서 진중했고, 천박하지 않으면서 쾌활했으며, 요컨대 선한 사람이 된다는 모든 일에서는 첫째였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모든 일에서는 버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했으나 미움을 받았고, 숭배했으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들짐승에게 빌었고, 대리석을 졸랐고, 바람을 쫓아 달렸고, 쓸쓸함을 향해 소리쳤고, 배은망덕을 섬겼습니다. 그 대가로 그가 얻은 것은 인생길 한가운데서 죽음의 노획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끝장낸 것은 한 양치기 처녀였는데, 그는 그 처녀를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종이들이 그것을 잘 보여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자기 몸을 흙에 맡기고 나면 그것들을 불에 맡기라고 내게 분부하지 않았더라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그 주인 자신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루려는 것이오." 비발도가 말했다. "모든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난 것을 명령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옳지도 슬기롭지도 않소. 거룩한 만토바 사람[1]이 유언으로 남긴 분부를 실행하도록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허락했더라면 그는 좋은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없었을 것이오. 그러니

암브로시오 님, 벗의 몸은 흙에 맡기더라도 그의 글까지 망각에 맡기려 하지는 마시오. 그가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명령했다 해도, 당신이 분별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따르는 것은 좋지 않소. 오히려 이 종이들에 생명을 주어 마르셀라의 잔인함이 언제까지나 살아 있게 하시오. 그래서 앞으로 올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멀리 피하게 하시오. 나도, 여기 함께 온 이들도 사랑하다 절망한 당신 벗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소. 당신들의 우정과 그가 죽은 까닭과 그가 생을 마치며 남긴 분부도 알고 있소.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우리는 마르셀라의 잔인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소스토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신의 우정이 얼마나 미더웠는지,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랑이 눈앞에 펼쳐 놓는 길을 고삐 풀린 채 내달리는 이들이 어디에 이르는지 알 수 있소. 우리는 어젯밤 그리소스토모가 죽었고 이곳에 묻히리라는 것을 알았소.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여 가던 길을 버리고, 듣기만 해도 그토록 가슴 아팠던 일을 제 눈으로 보러 오기로 했소. 이 가여움과,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갚는 뜻으로, 오, 슬기로운 암브로시오여, 그대에게 청하오(적어도 나는 내 몫으로 그대에게 간청하오). 이 종이들을 태우지 말고 그 가운데 몇 장을 내가 가져가게 해 주시오."

그러고는 양치기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던 종이 몇 장을 집었다. 그것을 본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예의로 보아 이미 집으신 것은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그러나 남은 것을 태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비발도는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고 싶어서 곧 그 가운데 하나를 펼쳤는데, 「절망의 노래」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암브로시오가 말했다.

"그것이 그 불운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나리, 그의 불운이 그를 어떤 지경에 몰아넣었는지 보시도록, 다들 들리게 읽어 주십시오. 무덤을 파는 동안 그럴 시간은 넉넉할 겁니다."

"기꺼이 그리하겠소." 비발도가 말했다.

둘레에 있던 이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므로 그를 빙 둘러섰다. 그가 맑은 목소리로 읽어 보니 다음과 같았다.

---

1. 베르길리우스. 죽기 전에 『 아이네이스 』 원고를 태우라고 유언했으나 아우구스투스가 이를 막았다.

제14장 죽은 양치기의 절망의 노래가 실리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소스토모의 노래

잔인한 이여, 네가 바라는 대로
이 혀에서 저 혀로, 이 겨레에서 저 겨레로
너의 모진 매정함의 힘을 알리리니,
지옥 그 자체가
슬픈 내 가슴에 아픈 소리를 전하게 하여
내 목소리가 늘 쓰던 가락을 비틀리라.
내 고통과 너의 공적을 말하려
애쓰는 내 소원과 나란히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의 가락이 가고,
더 큰 고통을 주려고 그 가락에는
비참한 내 창자의 조각들이 섞이리라.
그러니 들어라, 귀를 기울여 들어라,
가지런한 노랫소리가 아니라 소란을,
내 쓰디쓴 가슴 깊은 곳에서
어쩔 수 없는 광란에 실려
내 즐거움과 너의 원망을 위해 터져 나오는 소란을.

사자의 포효, 사나운 늑대의
무서운 울부짖음, 비늘 덮인 뱀의
소름 끼치는 쉿쉿 소리, 어떤 괴물의
무시무시한 고함, 불길한
까마귀의 깍깍 소리, 그리고
출렁이는 바다에서 맞부딪치는 바람의 굉음,
이미 꺾인 황소의
그칠 줄 모르는 울음, 짝 잃은 산비둘기의
애달픈 구구 소리, 남들이 시샘하는
부엉이의 슬픈 노래, 그리고
지옥의 검은 무리 모두의 울음이
아픈 넋과 함께 밖으로 터져 나와
한 소리로 뒤섞여
모든 감각이 어지러워지게 하라.
내 안에 있는 이 잔인한 고통은
그것을 말하는 데 새로운 가락을 바라니.

그토록 어지러운 소리의 슬픈 메아리를
아버지 타호강의 모래는 듣지 못하리라,
이름난 베티스강의 올리브나무들도.
내 모진 고통은 그곳이 아니라
높은 바위산과 깊은 구렁에 흩어지리라,
죽은 혀와 살아 있는 말로.
아니면 어두운 골짜기에, 아니면
사람의 발길이 끊긴 쓸쓸한 바닷가에,
아니면 해가 한 번도 빛을 비춘 적 없는 곳에,
아니면 리비아 들판이 먹여 기르는
독을 품은 들짐승 떼 가운데.
비록 인적 없는 황야에서
내 아픔의 쉰 메아리가 희미하게
비할 데 없는 너의 매정함과 함께 울린다 해도,
내 짧은 운명이 누리는 특권으로
그 메아리는 너른 세상으로 실려 가리라.

업신여김 하나가 죽이고, 의심 하나가
참이든 거짓이든 인내를 무너뜨린다.
질투는 더 모진 힘으로 죽이고,
오랜 헤어짐은 삶을 어지럽힌다.
잊힐까 하는 두려움 앞에서는
행복한 운을 바라는 굳은 희망도 소용없다.
그 모두에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건만,
나는, 아 일찍이 본 적 없는 기적이여! 살아 있다,
질투하고, 멀리 떨어지고, 업신여김을 받고,
나를 죽게 한 의심이 참임을 알면서도.
내 불길을 되살리는 망각 속에서도,
그 숱한 고통 속에서도
내 눈은 희망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고,
절망한 나는 희망을 찾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 하소연을 끝까지 몰아가려고
희망 없이 영원히 살리라 맹세한다.

한순간에 바라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는 것이 옳은가,
두려움의 까닭이 더 확실한데도?
모진 질투가 눈앞에 있는데
이 두 눈을 감아야 하는가, 영혼에 뚫린
천 개의 상처로 그것을 보아야만 한다면?
누가 불신에게 문을 활짝
열어 주지 않으랴, 업신여김이
드러나고, 의심이,
아 쓰라린 뒤바뀜이여! 참이 되고,
깨끗한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뀐 것을 볼 때?
오, 사랑의 왕국의 사나운 폭군인
질투여, 이 두 손에 칼을 쥐여 다오!
업신여김이여, 꼰 밧줄을 다오.
그러나 아, 슬프도다! 잔인한 승리로
너희의 기억이 내 인내를 목 졸라 죽이는구나.

결국 나는 죽는다. 죽음에서도 삶에서도
좋은 결말을 바라지 않으려고
나는 내 망상을 고집하리라.
잘 사랑하는 자는 옳은 길을 가고,
사랑의 오랜 폭정에 더 많이
굴복한 영혼이 더 자유롭다고 말하리라.
언제나 나의 원수인 그 여자는
몸처럼 영혼도 아름답고,
그 여자가 나를 잊은 것은 내 탓이며,
사랑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을 보더라도
사랑은 제 제국을 정의로운 평화 속에 다스린다고 말하리라.
이 생각을 품고, 모진 올가미로
비참한 기한을 앞당기며,
그 여자의 업신여김이 나를 이끌어 온 그 기한을,
나는 바람에 몸과 넋을 바치리라,
앞날의 복을 바라는 월계관도 종려 잎도 없이.

그토록 숱한 이치 없음으로, 너는
나를 몰아붙여 결말을 짓게 하는 이치를 보여 주는구나,
내가 미워하는 이 지친 삶에.
이제 너도 보듯이
이 가슴 깊은 상처가 네게 뚜렷이 보여 주니,
내가 얼마나 기꺼이 네 매정함에 몸을 바치는지.
혹시라도 내가 그만한 값이 있다고 네가 안다면,
네 아름다운 눈의 맑은 하늘이
내 죽음에 흐려질 만하다고, 그러지 마라.
네가 무엇으로든 갚아 주기를 바라지 않으니,
내 영혼의 노획물을 네게 바칠 때에.
오히려 그 불길한 때에 웃음으로
내 마지막이 너의 잔치였음을 드러내라.
하지만 이것을 네게 일러 주다니 참 어리석구나,
너의 영광이 널리 알려진 것은
내 삶이 이토록 빨리 끝나는 데 있음을 내가 아니.

오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깊은 심연에서
목마른 탄탈로스여. 오라, 시시포스여,
무시무시한 바위의 무게를 지고.
티티오스는 제 독수리를 데려오고, 또한
익시온도 제 수레바퀴와 함께 멈추지 말라,
그토록 고되게 일하는 자매들도.
그리고 모두 함께 제 죽을 고통을
내 가슴에 옮겨 놓고, 낮은 목소리로,
절망한 자에게도 그런 것이 허락된다면,
슬프고 애달픈 장송가를 불러 다오,
수의조차 거절당할 이 몸을 위해.
그리고 세 얼굴을 한 지옥의 문지기는
다른 천 가지 괴물과 천 가지 요괴와 함께
아픈 대위 가락을 맞추어라.
죽은 연인에게 이보다 나은
장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니.

절망의 노래여, 하소연하지 마라,
나의 슬픈 곁을 떠날 때에.
오히려 너를 낳은 그 까닭이
나의 불행으로 제 행운을 불리니,
무덤 속에서도 슬퍼하지 마라.

그리소스토모의 노래는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었다. 다만 그것을 읽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마르셀라의 조신함과 착함에 관한 이야기와 그 노래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래에서 그리소스토모는 질투와 의심과 헤어짐을 하소연하는데, 그것은 모두 마르셀라의 좋은 평판과 좋은 이름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암브로시오가 벗의

가장 깊이 감춘 생각까지 잘 아는 사람답게 대답했다. "나리, 그 의심을 푸시려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이 이 노래를 썼을 때 그는 마르셀라에게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헤어짐이 늘 부리는 위세를 자기에게도 부리는지 보려고 스스로 마르셀라 곁을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멀리 떨어진 연인에게는 괴롭지 않은 것이 없고 덮치지 않는 두려움이 없듯이, 그리소스토모도 상상한 질투와 두려워한 의심에 마치 그것이 참인 듯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마르셀라가 착하다고 소문이 전하는 진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처녀는 잔인하고 조금 거만하고 몹시 쌀쌀맞다는 것 말고는, 시샘 그 자체도 아무 흠을 잡지 않을 것이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렇소." 비발도가 대답했다.

그리고 불에서 건져 둔 종이 가운데 다른 것을 읽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들 눈앞에 나타난 놀라운 광경, 정말 그렇게 보였던 광경이 그것을 막았다. 무덤을 파던 바위 위로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처녀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이 소문을 넘어섰다. 그때까지 그 처녀를 본 적 없던 이들은 감탄하며 말없이 바라보았고, 이미 늘 보아 온 이들도 처음 보는 이들 못지않게 넋을 잃었다. 그러나 암브로시오는 처녀를 보자마자 분개한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오, 이 산의 사나운 바실리스크야, 네 잔인함에 목숨을 빼앗긴 이 가엾은 사람의 상처가 네가 오니 피를 흘리는지 보러 왔느냐? 아니면 네 성미가 저지른 잔인한 공적을 뽐내러 왔느냐, 아니면 저 무자비한 네로처럼 그 높은 데서 불타는 로마의 화재를 구경하러 왔느냐, 아니면 배은망덕한 딸이 제 아버지 타르퀴니우스의 시신을 짓밟았듯이 이 불행한 주검을 거만하게 짓밟으러 왔느냐? 무엇 하러 왔는지, 무엇이 가장 네 마음에 드는지 어서 말해라. 그리소스토모의 생각은 살아서 한

번도 네게 거스르지 않았으니, 나는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벗이라 일컬어진 모든 이의 생각이 네게 따르게 하겠다."

"오, 암브로시오, 나는 네가 말한 그 어떤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마르셀라가 대답했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네 괴로움과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모두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 있는지 알려 주러 왔다. 그러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슬기로운 이들에게 한 가지 진실을 납득시키는 데는 긴 시간도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 말대로 하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소. 그것도 어찌나 아름답게 만들었던지, 여러분은 어쩔 도리 없이 내 아름다움에 이끌려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 보이는 사랑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하느님이 주신 타고난 분별로 나는 아름다운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것이 사랑받는다는 까닭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소. 게다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이가 못생긴 사람일 수도 있소. 못생긴 것은 미움을 받아 마땅한데, '나는 네가 아름다워서 사랑한다. 나는 못생겼어도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일이오. 그러나 아름다움이 서로 대등하다고 쳐도, 그렇다고 해서 바라는 마음까지 대등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은 아니오. 모든 아름다움이 사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오. 어떤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할 뿐 마음을 굴복시키지는 않소. 모든 아름다움이 사랑을 일으키고 마음을 굴복시킨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모른 채 갈피를 잃고 헤맬 것이오. 아름다운 대상이 끝이 없으니, 바라는 마음도 끝이 없어야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참된 사랑은 나뉘지 않으며 억지가 아니라 제 뜻에서 우러나야 하오. 내가 믿는 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나를 좋아한다고 말한다는 까닭 하나만으로 왜 내가 억지로 마음을 굴복시키기를 바라는 것이오? 아니라면 말해 보시오. 하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든 대신 못생기게 만들었더라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여러분을 원망하는 것이 옳았겠소? 더구나 여러분은 내가 지닌 이 아름다움을 내가 고른 것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오. 이 아름다움은 어떻든 간에 하늘이 내가 바라지도 고르지도 않았는데 거저 준 것이오. 독사는 제가 지닌 독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그 독은 자연이 준 것이니 그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없소.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아름답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을 까닭이 없소. 정숙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멀리 떨어진 불이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불은 가까이 오지 않는 이를 태우지 않고 칼은 가까이 오지 않는 이를 베지 않소. 명예와 덕은 영혼의 꾸밈이니, 그것이 없으면 몸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이오. 정숙함이 몸과 영혼을 가장 잘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덕 가운데 하나라면, 아름다워서 사랑받는 여자가 오직 제 즐거움을 위해 온 힘과 꾀를 다해 그것을 잃게 하려는 남자의 속셈에 응하느라 왜 그것을 잃어야 하오?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들판의 고독을 골랐소. 이 산의 나무들이 나의 벗이요, 이곳 시냇물의 맑은 물이 나의 거울이오. 나는 나무들과 물과 함께 내 생각과 아름다움을 나누오. 나는 멀리 떨어진 불이요, 멀리 놓인 칼이오.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게 된 이들을 나는 내 말로 깨우쳐 주었소. 바라는 마음이 희망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리소스토모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희망을 준 적이 없으니, 그들 가운데 누구의 죽음이든 내 잔인함보다는 그 사람의 고집이 죽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정숙했으니 내가 그것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나를 탓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소. 지금 그의 무덤을 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자기 뜻이

착하다는 것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내 뜻은 영원히 고독하게 사는 것이요, 내 조신함의 열매와 내 아름다움의 노획물은 오직 땅만이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소. 그토록 분명히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가 희망을 거슬러 고집하고 바람을 거슬러 배를 몰려 했다면, 그가 제 어리석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은 것이 무엇이 그리 이상하겠소? 내가 그를 붙잡아 두었다면 나는 거짓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를 만족시켰다면 나는 내 더 나은 뜻과 다짐을 거슬렀을 것이오. 그는 깨우침을 받고도 고집했고, 미움을 받지도 않았는데 절망했소. 그러니 이제 그의 괴로움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옳은지 보시오! 속은 사람은 하소연하고, 약속받은 희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망하고, 내가 부르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뽐내도 좋소. 그러나 내가 약속하지도 속이지도 부르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은 사람은 나를 잔인하다느니 사람을 죽였다느니 부르지 마시오.

"하늘은 아직까지 내가 운명에 따라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골라 사랑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오. 이 모두를 향한 깨우침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들 하나하나에게 저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가 나 때문에 죽는다 해도 그는 질투나 불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님을 알아 두시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질투를 일으킬 까닭이 없으니까. 깨우쳐 주는 것을 업신여김으로 여겨서는 안 되오. 나를 들짐승이니 바실리스크니 부르는 사람은 나를 해롭고 나쁜 것으로 여기고 내버려 두시오. 나를 배은망덕하다 부르는 사람은 나를 섬기지 말고, 낯가림한다 부르는 사람은 나를 알려 하지 말고, 잔인하다 부르는 사람은 나를 따르지 마시오. 이 들짐승, 이 바실리스크, 이 배은망덕한 여자, 이 잔인한 여자, 이 낯가리는 여자는 결코 그들을 찾지도 섬기지도 알려 하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이오. 그리소스토모를 죽인 것이 그의 조급함과 무모한

욕망이라면, 왜 내 정숙한 처신과 조신함을 탓해야 하오? 내가 나무들을 벗 삼아 내 깨끗함을 지킨다면, 남자들 사이에서 깨끗함을 지키기를 바라는 사람이 왜 내가 그것을 잃기를 바라야 하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내 재산이 있으니 남의 것을 탐내지 않소. 나는 자유로운 성미라 남에게 매이기를 좋아하지 않소.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소. 이 사람을 속이지도 저 사람을 꾀지도 않고, 이 사람을 놀리지도 저 사람과 노닥거리지도 않소. 이 마을 양치기 처녀들과 나누는 정숙한 이야기와 내 산양을 돌보는 일이 나의 낙이오. 내 바람은 이 산을 끝으로 삼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것은 영혼이 처음 살던 거처로 걸어가는 걸음이오."

이렇게 말하고 처녀는 아무 대답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까이 있던 산의 가장 빽빽한 숲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처녀의 슬기와 아름다움에 똑같이 감탄했다. 처녀의 아름다운 눈에서 쏟아진 빛의 강력한 화살에 맞은 이들 가운데 몇몇은, 방금 똑똑히 들은 깨우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녀를 뒤쫓으려는 기색을 보였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지금이야말로 곤경에 처한 아가씨를 도와 자기 기사도를 쓸 때라고 여기고,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누구든,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있든, 감히 아리따운 마르셀라를 뒤쫓지 말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맹렬한 분노를 사게 되리라. 마르셀라는 분명하고 넉넉한 이유를 들어, 그리소스토모의 죽음에 자기 잘못이 거의, 아니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의 바람에도 응할 마음이 얼마나 없는지도 보여 주었소. 그러니 마르셀라는 쫓기고 시달리는 대신 세상의 모든 선한 이에게 존경받고 귀히 여겨져야

마땅하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정숙한 뜻으로 사는 사람은 마르셀라 혼자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오."

돈키호테의 위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암브로시오가 그들의 좋은 벗에게 해야 할 일을 마치자고 했기 때문이었는지, 양치기들 가운데 누구도 움직이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무덤이 다 파이고 그리소스토모의 종이들이 불탄 뒤 그들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 넣었고, 둘레의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묵직한 바위로 무덤을 덮었다. 암브로시오는 따로 묘석을 만들게 할 생각이니 그것이 다 될 때까지만 그렇게 해 두자고 했다. 묘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길 작정이었다.

여기 한 연인의
비참하게 얼어붙은 몸이 누워 있으니,
그는 가축을 치던 양치기였으나
사랑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노라.
그는 매정함의 손에 죽었으니,
쌀쌀맞고 아름답고 배은망덕한 한 여인의 매정함이라,
그 여인을 빌려
사랑의 폭정은 제 제국을 넓히노라.

이어서 그들은 무덤 위에 많은 꽃과 나뭇가지를 뿌리고, 모두 그의 벗 암브로시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다음 작별했다. 비발도와 그 동행도 그렇게 했고, 돈키호테도 자기를 묵게 해 준 이들과 나그네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그네들은 그에게 함께 세비야로 가자고 청했다. 세비야는 모험을 찾기에 아주 알맞은 곳이라, 거리마다 모퉁이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모험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일러 줌과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려는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이 산에 가득하다고 소문난 흉악한 도둑놈들을 모조리 몰아낼 때까지는 지금 세비야에 가고

싶지도 않고 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가 그토록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나그네들은 더 조르려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한 다음 그를 두고 제 길을 갔다. 그 길에서 그들은 마르셀라와 그리소스토모의 이야기며 돈키호테의 미친 짓이며 이야깃거리가 모자라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를 찾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처녀를 섬기겠다고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 참된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야기하듯이 일은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제2편이 끝난다.

제3편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3편

제15장 돈키호테가 잔인한 양구에스 사람들과 맞닥뜨려 겪은 불운한 모험을 이야기한다

현자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돈키호테는 자기를 묵게 해 준 이들과 양치기 그리소스토모의 장례에 왔던 모든 이에게 작별하자마자, 종자와 함께 양치기 처녀 마르셀라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숲으로 들어갔다. 두 시간 넘게 숲 속을 다니며 사방으로 처녀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 채, 그들은 싱싱한 풀이 가득한 풀밭에 이르렀다. 풀밭 곁으로는 잔잔하고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시원했던지 벌써 기세 좋게 다가오기 시작한 한낮 더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라고 그들을 부르고 떠밀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말과 당나귀에서 내려, 당나귀와 로시난테가 그곳에 우거진 풀을 마음껏 뜯어 먹게 내버려 두고 안장 주머니를 털었다. 그리고 주인과 하인은 아무 격식도 차리지 않고 사이좋게 오순도순 그 안에서 찾아낸 것을 먹었다.

산초는 로시난테의 다리를 묶어 두지 않았다. 로시난테가 얼마나 순하고 암말에 얼마나 무심한지 잘 알았으므로, 코르도바 목장의 암말을 다 갖다 대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명이, 그리고 늘 잠만 자지는 않는 악마가 일을 꾸며, 갈리시아 마부 몇 사람이 거느린 갈리시아 조랑말 떼가 그 골짜기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이 마부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에서 짐바리 짐승들을 데리고 한낮 더위를 피해 쉬는 버릇이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마침 자리 잡은

곳이 갈리시아 사람들에게 아주 알맞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로시난테에게 그 암말 아가씨들과 재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녀석은 냄새를 맡자마자 타고난 걸음걸이와 버릇을 벗어나, 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법 잰 종종걸음으로 암말들에게 제 아쉬움을 하소연하러 갔다. 그러나 보아하니 암말들은 다른 일보다 풀 뜯는 데 마음이 더 있었던 모양이라, 편자와 이빨로 녀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금세 뱃대끈이 끊어지고 녀석은 안장도 없이 맨몸이 되었다. 그러나 녀석이 더 뼈저리게 느꼈을 일은, 마부들이 자기네 암말이 억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서는 녀석을 어찌나 두들겨 팼던지 땅바닥에 엉망으로 쓰러뜨린 것이었다.

그때쯤 로시난테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본 돈키호테와 산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내 벗아, 내가 보기에 저놈들은 기사가 아니라 천하고 비루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로시난테가 당한 모욕을 마땅히 갚는 일을 네가 얼마든지 도와도 된다는 뜻이다."

"무슨 놈의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 사람들은 스무 명이 넘고 우리는 둘뿐인데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 반밖에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나 하나가 백 명 몫을 하느니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칼을 뽑아 들고 갈리시아 사람들에게 덤벼들었다. 산초 판사도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 부추김을 받아 똑같이 했다. 돈키호테는 첫 칼에 한 사람을 내리쳐, 그가 입고 있던 가죽 윗옷을 등짝 큰 부분과 함께 갈라 놓았다. 갈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 두 사람한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자 몽둥이를 집어 들고, 두 사람을 가운데 몰아넣은 채 아주 끈질기고 사납게 연거푸 두들겨 대기 시작했다. 사실 두 번째 매질에 산초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돈키호테도 그 솜씨와 용기가 아무 소용이 없이 똑같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쓰러진 곳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로시난테의 발치였다. 이로 보아 시골뜨기들의 성난 손에 쥐어진 몽둥이가 얼마나 사납게 짓찧는지 알 수 있다.

갈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고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서둘러 짐바리 짐승들에게 짐을 싣고 제 길을 떠났다. 두 모험가는 몰골도 엉망이고 기분은 더 엉망인 채 남겨졌다.

맨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산초 판사였다. 그는 주인 곁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자 아프고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아이고, 돈키호테 나리!"

"무엇을 바라느냐, 아우 산초야?" 돈키호테가 산초와 똑같이 기운 없고 아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될 수만 있다면"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페오 블라스(못난이 블라스)의 그 물약을 두 모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리께서 그걸 거기 가까이 갖고 계신다면 말이에요. 그게 상처에 좋다니 뼈가 부러진 데도 좋을지 모르잖아요."

"아아, 불행한 나로구나, 그것이 여기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모자라겠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산초 판사야, 편력 기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마. 운명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틀이 지나기 전에 나는 그것을 손에 넣을 것이다. 그러지 못한다면 내 손이 쓸모없는 탓이리라."

"그런데 나리께서 보시기엔 며칠이면 우리가 발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산초 판사가 맞받았다.

"나로서는" 흠씬 두들겨 맞은 기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날수를 얼마라고 정할 수 없구나. 그러나 모두 내 잘못이다. 나처럼 기사 서임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칼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 내가 기사도의 법을 어긴 벌로 싸움의 신이 이런 매를 내게 내리도록 허락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산초 판사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 둘의 안녕에 아주 중요한 일이니라. 이런 천한 무리가 우리에게 무슨 모욕을 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그놈들에게 칼을 뽑기를 기다리지 마라.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너 스스로 칼을 뽑아 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놈들을 혼내 주어라. 그놈들을 도우러, 지키러 기사들이 달려오면 그때는 내가 온 힘을 다해 너를 지키고 그들을 쳐부수겠다. 내 이 억센 팔의 용기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너도 천 가지 표적과 경험으로 이미 보았을 게다."

그 가엾은 나리는 용감한 비스카야 사람을 이긴 뒤로 이토록 거만해져 있었다. 그러나 산초 판사는 주인의 그 일러 줌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 대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리, 저는 평화를 좋아하고 순하고 얌전한 사람이라, 어떤 모욕이든 못 본 척 시치미 땔 줄 압니다요.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할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명령은 될 수 없을 테니 나리께도 일러 드리는 말씀으로 아세요. 저는 촌놈한테든 기사한테든 결코 칼을 뽑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한 모욕과 앞으로 할 모욕을 모두 용서합니다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시골 귀족이든 세금 내는 평민이든, 어떤 신분 어떤 처지도 빼놓지 않고, 이미 했든 지금 하든 앞으로 하든 다 용서합니다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대답했다.

"숨이라도 좀 편히 쉬어 말을 할 수 있고, 이 갈빗대의 아픔이 조금만이라도 가라앉았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판사야, 네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듣게 해 줄 텐데. 이리 오너라, 이 죄 많은 녀석아.

지금껏 그토록 거슬러 불던 운명의 바람이 우리 편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소원의 돛을 밀어 주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섬들 가운데 하나에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닻을 내리게 된다고 하자. 내가 그 섬을 얻어 너를 그 섬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기사도 아니고 기사가 되려 하지도 않고, 네가 당한 모욕을 갚고 네 영지를 지킬 용기도 뜻도 없다고 해서 그 일을 그르치려느냐? 새로 정복한 왕국이나 지방에서는 그곳 토박이들의 마음이 결코 그리 고분고분하지도, 새 주인 편에 그리 서 있지도 않아서, 무슨 변을 일으켜 다시 판을 뒤엎고 흔히 말하듯 또 한 번 운을 시험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 새로 차지한 주인에게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분별과, 어떤 일이 닥쳐도 치고 막을 용기가 있어야 하느니라."

"방금 우리한테 닥친 일에서는" 산초가 대답했다. "저도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별과 그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하지만 가난뱅이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는 지금 이야기보다 고약 붙이는 게 더 급해요. 나리, 일어나실 수 있는지 보세요. 로시난테를 도와줍시다. 그럴 자격은 없지만요. 이 흠씬 두들겨 맞은 일이 모두 그 녀석 탓이니까요. 로시난테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녀석을 저처럼 얌전하고 평화로운 위인으로 여겼거든요. 아무튼 사람을 알게 되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꼭 맞아요. 나리께서 그 불운한 편력 기사한테 그토록 대단한 칼질을 하신 뒤에, 그 뒤를 바싹 쫓아 역마처럼 달려와 이토록 엄청난 몽둥이 소나기가 우리 등에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등이야,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런 먹구름에 익숙해져 있을 테지만, 고운 무명과 네덜란드 아마포 속에서 자란 내 등은 이 불운의 아픔을 더 느낄 것이 뻔하구나. 이런 고생이 모두 무예의 일에 바싹 따라붙는 것이라고

내가 상상하지만 않았다면, 아니 상상이라니 무슨 말이냐, 아주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나는 순전히 분해서 여기서 죽어 버렸을 게다."

이에 종자가 맞받았다.

"나리, 이런 불운이 기사도에서 거두는 수확이라면, 이런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어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그 끝없는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수확을 두 번만 거둬도 세 번째에는 우리가 쓸모없는 몸이 될 것 같거든요."

"알아 두어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편력 기사의 삶은 천 가지 위험과 불운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만큼 편력 기사는 왕이나 황제가 될 가까운 가능성 속에 있느니라. 여러 다양한 기사들의 경험이 그것을 보여 주었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안다. 아픔이 허락한다면, 오직 팔의 용기만으로 내가 말한 그 높은 자리에 오른 몇몇 기사들 이야기를 지금 들려줄 수도 있을 게다. 바로 그 기사들도 그 전과 그 뒤에 갖가지 재앙과 비참을 겪었다. 용맹한 가울라의 아마디스는 철천지원수인 마법사 아르칼라우스의 손아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아르칼라우스는 그를 사로잡아 어느 안뜰 기둥에 묶어 놓고 말고삐로 이백 대가 넘게 매질을 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여겨진다. 또 남몰래 쓴, 적잖이 믿을 만한 어느 작가는, 태양의 기사가 어느 성에서 발밑이 꺼지는 함정에 걸려 떨어졌더니 땅 밑 깊은 구렁 속에 손발이 묶여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눈 녹은 물과 모래로 만든 관장약이라는 것을 그에게 넣어서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 큰 시름 속에서 그와 아주 친한 위대한 현자가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가엾은 기사는 몹시 험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 나도 그 많은 훌륭한 이들 틈에 끼어 견딜 수 있느니라. 그들이 겪은 수모가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컸으니까. 산초, 너에게 알려 줄

것이 있다.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연장으로 입힌 상처는 수모가 되지 않느니라. 결투의 법에 그렇게 분명한 말로 적혀 있다. 구두장이가 손에 들고 있던 구두 골로 남을 친다면, 그것이 정말 나무로 만든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맞은 사람이 몽둥이찜질을 당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흠씬 두들겨 맞았다 해서 수모를 당했다고 네가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들고 와서 우리를 짓찧은 무기는 몽둥이뿐이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가운데 누구도 찌르는 칼이나 큰 칼이나 단검을 지니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명검에 손을 대자마자 그 사람들이 소나무 몽둥이로 제 어깨에 성호를 그어 주는 바람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금 제가 누워 있는 여기로 나가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몽둥이찜질이 수모였는지 아닌지 생각하는 건 하나도 괴롭지 않은데, 맞은 데가 아픈 건 괴로워요. 그 매질은 제 등에 새겨진 만큼 제 기억에도 새겨질 거예요."

"그래도 아우 판사야, 너에게 알려 주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세월이 지우지 못하는 기억은 없고, 죽음이 삭이지 못하는 아픔도 없느니라."

"그런데 세월이 삭여 주기를 기다리고 죽음이 끝내 주기를 기다리는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판사가 맞받았다. "우리 이 불운이 고약 두어 장으로 낫는 것이라면 그나마 그리 나쁘지 않겠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병원 하나에 있는 고약을 다 갖다 붙여도 제대로 낫게 하기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는 그만두고, 산초, 약한 몸에서 힘을 짜내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도 그리하마. 그리고 로시난테가 어떤지 보자꾸나. 내가

보기에 그 가엾은 녀석이 이 불운에서 받은 몫이 가장 적지는 않은 것 같다."

"그건 놀랄 일도 아니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 녀석도 그렇게 훌륭한 편력 기사니까요. 제가 놀라운 건 우리는 뼈도 못 추렸는데 제 당나귀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운명은 불행 속에서도 늘 문 하나를 열어 두어 그 불행을 고칠 길을 주느니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작은 짐승이 지금 로시난테 대신 나를 여기서 어느 성으로 데려가 내 상처를 치료받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그런 것을 타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리라. 웃음의 즐거운 신을 기르고 가르친 그 착한 늙은이 실레노스가 백 개의 문이 있는 도시에 들어갈 때 아주 아름다운 당나귀를 타고 아주 흡족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나리 말씀대로 그 양반은 올라타고 갔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올라타고 가는 거하고 쓰레기 자루처럼 가로 걸쳐 실려 가는 거하고는 크게 다르잖아요."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싸움에서 입은 상처는 명예를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명예를 주느니라. 그러니 판사, 내 벗아, 더는 말대꾸하지 말고, 내가 이미 말했듯이 될 수 있는 대로 잘 일어나서 나를 네 마음에 가장 드는 대로 네 당나귀 위에 얹어라. 그리고 밤이 와서 이 빈 들판에서 우리를 덮치기 전에 여기를 떠나자."

"그런데 저는 나리한테서 들었는데요." 판사가 말했다. "편력 기사들은 한 해의 대부분을 황야와 빈 들판에서 자는 게 아주 어울리는 일이고, 그걸 큰 행운으로 여긴다고요."

"그것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달리 어쩔 수 없을 때나 사랑에 빠졌을 때 이야기다. 이것은 아주 참말이어서, 어떤 기사는 바위 위에서 해를 받고 그늘을 받고 하늘의 사나운 날씨를 받으며 두 해를 지냈는데 그의 아씨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디스였다. 그는 벨테네브로스라 이름을 바꾸고 가난한 바위에 묵었는데, 여덟 해였는지 여덟 달이었는지 셈을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그는 오리아나 아씨가 그에게 준 무슨 언짢은 일 때문에 거기서 고행을 했다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산초,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두고, 로시난테처럼 당나귀에게도 다른 불운이 닥치기 전에 일을 마저 해라."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악마 짓이죠." 산초가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고 소리를 서른 번, 한숨을 예순 번, 자기를 그곳에 끌고 온 사람을 향한 욕지거리와 저주를 백스무 번 내뱉으며 일어섰는데, 터키 활처럼 반쯤 굽은 채 끝내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자기 당나귀에 길마를 얹었다. 당나귀도 그날 지나치게 자유를 누린 탓에 얼마간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어서 그는 로시난테를 일으켰는데, 로시난테에게 하소연할 혀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산초나 그 주인 못지않았을 것이다.

결국 산초는 돈키호테를 당나귀 위에 얹고 로시난테를 그 뒤에 줄줄이 매고서, 당나귀 고삐를 잡고 큰길이 있을 법해 보이는 쪽으로 대충 길을 잡아 나아갔다. 일을 좋은 데서 더 좋은 데로 이끌어 가던 운명은, 그가 채 1레과도 가기 전에 그에게 큰길을 내주었다. 그 길에서 그는 객줏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로서는 언짢게도 돈키호테에게는 기쁘게도 그것은 성이어야만 했다. 산초는 객줏집이라고 우겼고, 주인은 아니다, 성이라고 우겼다. 그 말다툼이 어찌나 오래갔던지 그들은 결판을 내지도 못한 채 그곳에 닿고 말았고, 산초는 더 따져 보지도 않고 짐승들을 몽땅 끌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제16장 기발한 시골 귀족이 성이라고 여긴 객줏집에서 겪은 일

객줏집 주인은 돈키호테가 당나귀 위에 가로 걸쳐 있는 것을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산초에게 물었다. 산초는 별것 아니고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갈빗대가 좀 결릴 뿐이라고 대답했다. 객줏집 주인의 아내는 그런 장사를 하는 여자들이 흔히 지닌 성미와는 달랐다. 본디 인정이 많아 이웃의 재앙을 제 일처럼 아파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곧 돈키호테를 치료하러 달려갔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아주 예쁘장한 어린 딸에게도 손님 치료를 거들게 했다. 그 객줏집에는 아스투리아스 출신 하녀도 하나 일하고 있었는데, 얼굴은 넓적하고 뒤통수는 납작하고 코는 뭉툭하고, 한쪽 눈은 애꾸에 다른 쪽 눈도 그리 성하지 않았다. 사실 몸매의 맵시가 다른 흠을 메워 주기는 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일곱 뼘도 안 되는 데다, 등이 좀 굽어서 본인이 바라는 것보다 더 땅을 내려다보고 다녔다. 이 어여쁜 하녀가 그 딸을 거들어, 둘이서 돈키호테에게 아주 형편없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지붕 밑 허름한 다락방으로, 예전에 여러 해 동안 짚 광으로 쓰였다는 표가 뚜렷했다. 그 다락방에는 노새꾼 하나도 묵고 있었는데, 그의 잠자리는 우리 돈키호테의 잠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노새꾼의 잠자리는 제 노새들의 길마와 담요로 만든 것이었지만, 돈키호테의 잠자리보다는 훨씬 나았다. 돈키호테의 잠자리라고는 높이가 고르지 않은 걸상 두 개 위에 대충 다듬은 널빤지 네 장을 얹고, 그 위에

이불이라 해도 될 만큼 얇은 요를 깐 것이 전부였다. 요에는 뭉친 덩어리가 가득했는데, 터진 데로 양털인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만져 보아 딱딱한 것이 꼭 자갈 같았을 것이다. 거기에 가죽 방패 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 홑청 두 장과 담요 한 장이 있었는데, 담요는 올을 세려고 들면 한 올도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을 지경이었다. 이 저주받은 잠자리에 돈키호테가 누웠다. 곧이어 객줏집 안주인과 딸이 그의 몸에 위아래로 고약을 발랐고, 마리토르네스가 불을 비추어 주었다. 그것이 아스투리아스 하녀의 이름이었다. 고약을 붙이다가 돈키호테의 몸 여기저기가 시퍼렇게 멍든 것을 본 안주인은, 이것은 떨어져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얻어맞은 자국 같다고 말했다.

"얻어맞은 게 아니라" 산초가 말했다. "바위에 뾰족한 데하고 튀어나온 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저마다 멍을 하나씩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삼 부스러기를 좀 남겨 두세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 또 없지 않을 테니까요. 저도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렇다면" 안주인이 대답했다. "자네도 떨어졌나 보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주인 나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하도 놀라서, 몽둥이 천 대는 맞은 것처럼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딸이 말했다. "저도 탑에서 떨어지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땅에 닿지 않는 꿈을 여러 번 꾸었는데, 꿈에서 깨면 정말로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렸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아가씨."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저는 꿈 하나 꾸지 않고, 지금보다 더 말짱하게 깨어 있었는데도 우리 돈키호테 나리 못지않게 멍이 들었으니까요."

"이 기사님 이름이 뭐예요?" 아스투리아스 하녀 마리토르네스가 물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모험을 찾아다니는 기사인데,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굳센 축에 들지요."

"모험을 찾아다니는 기사가 뭔데요?" 하녀가 맞받았다.

"그것도 모르다니 자네는 세상에 그렇게 갓 나왔나?"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럼 알아 두게, 아가씨. 모험을 찾아다니는 기사란 눈깜짝할 새에 몽둥이찜질도 당하고 황제도 되는 것일세.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하고 가장 가난한 신세였다가, 내일이면 종자한테 줄 왕국의 왕관을 두세 개 갖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나리의 종자라면서" 안주인이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는 백작령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일러요." 산초가 대답했다. "모험을 찾아다닌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까지 모험다운 모험을 하나도 못 만났거든요. 하기야 무엇을 찾다가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일도 있지요. 그래도 사실 우리 돈키호테 나리가 이 상처, 아니 떨어진 데서 나으시고 저도 이 일로 불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제 희망을 에스파냐에서 가장 좋은 작위와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돈키호테는 이 이야기를 모두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잠자리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앉더니 안주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리따운 부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그대는 이 그대의 성에 나를 묵게 했으니 스스로 복되다 일컬어도 좋소. 나는 그런 사람이오.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는 것은 흔히 말하듯 제 칭찬은 제 값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오. 그러나 내 종자가 내가 누구인지 그대에게 말해 줄 것이오. 다만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가 내게 베푼 이 봉사를 나는 영원히

기억에 새겨 두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감사하리라. 사랑이 나를 그토록 굴복시키고 그 법에 그토록 매어 두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입속으로 이름을 되뇌는 그 아름답고 매정한 여인의 눈이 나를 매어 두지 않았더라면, 이 아리따운 아가씨의 눈이 내 자유의 주인이 되었을 것을, 높은 하늘이 그리 해 주셨더라면 좋았으련만."

객줏집 안주인과 딸과 착한 마리토르네스는 편력 기사의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마치 그가 그리스 말을 하는 것처럼 알아들었으니까. 그래도 그 말이 모두 무엇을 베풀겠다는 것과 추어올리는 것으로 흐른다는 것만은 잘 알았다. 그런 말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감탄했고, 그가 흔히 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 같았다. 그들은 객줏집 사람다운 말로 그의 호의에 감사하고는 그를 두고 나갔다. 그리고 아스투리아스 하녀 마리토르네스가 산초를 치료해 주었는데, 산초도 주인 못지않게 치료가 필요했다.

노새꾼은 그날 밤 그 하녀와 함께 재미를 보기로 약속해 두었고, 하녀는 손님들이 잠잠해지고 주인 내외가 잠들면 그를 찾아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그의 욕정을 채워 주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이 착한 하녀에 관해서는, 산속에서 증인 하나 없이 한 약속이라도 그런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전한다. 그 여자는 시골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 몹시 뻐겼고, 객줏집에서 시중드는 일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불운과 궂은일들이 자기를 이 처지로 몰아왔다고 말하곤 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딱딱하고 좁고 초라하고 믿을 수 없는 잠자리는 지붕 틈으로 별이 보이는 그 마구간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곁에 산초가 자기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부들 돗자리 한 장과 담요 한 장이 전부였다. 그 담요는 양털이라기보다 보풀을 깎은 거친 삼베처럼 보였다. 이 두 잠자리 다음에 노새꾼의 잠자리가 있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가 끌고 다니던 노새 가운데 가장 좋은 두 마리의 길마와 장식을 몽땅 깔아 만든 것이었다. 그의 노새는 열두 마리로 모두 털에 윤이 나고 살찌고 이름난 녀석들이었다. 이 이야기의 작가가 말하는 바로는 그는 아레발로의 부유한 노새꾼 가운데 하나였다. 작가는 이 노새꾼을 특별히 언급하는데, 그를 아주 잘 알았기 때문이고, 그와 얼마간 친척이었다고들 한다. 게다가 시데 마하마테 베넹헬리는 무슨 일에서든 아주 꼼꼼하고 아주 정확한 역사가였다. 앞서 말한 일들이 그토록 자잘하고 하찮은데도 입 다물고 지나가려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진지한 역사가들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 그들은 행적을 어찌나 짧고 간추려 들려주는지 겨우 입술에 닿을까 말까 하고, 부주의나 악의나 무지 때문에 작품에서 가장 알맹이 있는 부분을 잉크병 속에 남겨 두고 만다. 『리카몬테의 타블란테』를 쓴 작가와, 토미야스 백작의 행적을 이야기한 그 다른 책의 작가에게 천 번이고 복이 있으라! 그들은 모든 것을 얼마나 꼼꼼하게 그려 내는지!

그러니 말하자면, 노새꾼은 짐바리 노새들을 돌보고 두 번째 꼴을 준 다음 자기 길마 위에 드러누워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마리토르네스를 기다렸다. 산초는 이미 고약을 붙이고 누워서 잠을 청했지만 갈빗대가 아파 잠이 오지 않았다. 돈키호테도 갈빗대가 아파 산토끼처럼 눈을 뜨고 있었다. 객줏집 전체가 고요했고, 대문간 한가운데 매달린 등잔 하나가 타며 내는 빛 말고는 온 객줏집에 다른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

이 놀라운 고요함과, 자기 불행의 장본인인 책들에서 걸핏하면 이야기되는 사건들을 우리 기사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탓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광기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이름난 성에 왔다고 상상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가 묵는 객줏집은 모두 그의 눈에 성이었다. 그리고 객줏집 주인의 딸은 성주의 딸인데, 그의 기품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오늘 밤 부모 몰래 와서 한참 동안

그와 함께 눕겠다고 약속했다고 상상했다. 그는 스스로 지어낸 이 망상을 굳고 틀림없는 사실로 여기고, 자기 정절이 처하게 될 위험한 고비를 생각하며 시름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설령 히네브라 왕비가 그 시녀 부인 킨타뇨나와 함께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자기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배신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에게는 불길한 시각이 된 아스투리아스 하녀가 오는 때가 다가왔다. 하녀는 속옷 바람에 맨발로, 무명 머릿수건에 머리를 감싸고, 소리 없이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노새꾼을 찾아 세 사람이 묵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문간에 닿자마자 돈키호테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고약을 붙인 몸으로 갈빗대가 아픈데도 잠자리에 일어나 앉아 자기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맞으려고 두 팔을 내밀었다. 아스투리아스 하녀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손을 앞으로 내밀고 제 정인을 더듬어 찾다가 돈키호테의 팔에 부딪쳤다. 그는 하녀의 손목 하나를 꽉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하녀가 감히 한마디도 못 하는 사이에 잠자리 위에 앉혔다. 그러고는 하녀의 속옷을 더듬어 보았는데, 그것은 거친 자루 천이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곱고 얇은 비단으로 여겨졌다. 하녀는 손목에 유리구슬을 차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귀한 동방의 진주처럼 반짝였다. 말갈기 비슷한 하녀의 머리칼을 그는 해의 광채마저 무색하게 하는 더없이 빛나는 아라비아 황금 실로 보았다. 그리고 하녀의 숨결은 틀림없이 밤새 묵은 식은 샐러드 냄새가 났을 텐데, 그에게는 그 입에서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것만 같았다. 결국 그는 상상 속에서 하녀를, 자기 책들에서 읽은 어떤 공주, 사랑에 못 이겨 몹시 다친 기사를 찾아온 그 공주와 똑같은 모습과 차림으로, 여기 적은 그 모든 꾸밈새를 갖추어 그려 냈다. 그 가엾은 시골 귀족의 눈멂은 어찌나 심했던지, 그 착한

아가씨의 손에 닿는 감촉도, 숨결도, 아가씨가 몸에 지닌 다른 것들도 그의 착각을 깨우쳐 주지 못했다. 그것들은 노새꾼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토하게 했을 만한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름다움의 여신을 품에 안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하녀를 꽉 붙든 채 사랑에 젖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리땁고 높으신 아씨여, 그대의 크나큰 아리따움을 보여 주어 내게 베푼 이토록 큰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형편이면 좋으련만, 선한 이들을 괴롭히기에 지칠 줄 모르는 운명이 나를 이 잠자리에 눕혀 놓았소. 나는 여기 어찌나 두들겨 맞고 부서진 채 누워 있는지, 내 뜻으로는 그대의 뜻을 채워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구려. 게다가 이 불가능에 더 큰 불가능이 하나 더해지니, 그것은 내 가장 깊이 감춘 생각의 단 하나뿐인 아씨,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내가 바친 맹세이오. 이것이 가운데 끼어 있지 않다면, 나는 그대의 크나큰 선함이 내게 마련해 준 이 복된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낼 만큼 어리석은 기사가 아닐 것이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에게 그렇게 꽉 붙잡힌 것을 알고 몹시 애가 타서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귀담아듣지도 않은 채 한마디 말없이 빠져나가려고 애썼다. 착한 노새꾼은 고약한 욕정 때문에 깨어 있던 터라, 제 정부가 문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돈키호테가 하는 말을 모두 주의 깊게 듣다가, 아스투리아스 하녀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기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가 싶어 질투가 나서 돈키호테의 잠자리로 점점 다가갔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들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려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하녀가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리고 돈키호테는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자, 그 장난이 고약하다 싶어 팔을 높이 치켜들고 사랑에 빠진 기사의 홀쭉한 턱에 어찌나 무시무시한 주먹을 내리꽂았던지 기사의 입안이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기사의 갈빗대 위에 올라타더니, 종종걸음보다 더 빠른 발로 갈빗대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조리 밟고 다녔다.

잠자리는 좀 허술하고 받침도 튼튼하지 않았던 터라, 노새꾼의 무게까지 더해지자 견디지 못하고 바닥으로 무너졌다. 그 요란한 소리에 객줏집 주인이 잠을 깼고, 곧 마리토르네스가 무슨 다툼을 벌이는 것이리라고 짐작했다. 큰 소리로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을 품고 그는 일어나서 등잔에 불을 붙여 싸우는 소리가 난 쪽으로 갔다. 하녀는 주인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무서운 성미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겁에 질리고 허둥지둥하여, 아직 자고 있던 산초 판사의 잠자리로 피해 들어가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말았다. 객줏집 주인이 들어오며 말했다.

"어디 있느냐, 이 화냥년아? 이건 틀림없이 네년 짓이렷다."

그때 산초가 잠을 깼는데, 웬 덩어리가 거의 자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을 느끼자 가위에 눌린 줄 알고 이리저리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몇 대인지 모를 주먹이 마리토르네스에게 맞았다. 마리토르네스는 아파서 정숙함 따위는 내팽개치고 산초에게 어찌나 많은 주먹을 되돌려 주었던지, 산초는 싫든 좋든 잠이 확 달아났다. 산초는 누구에게서인지도 모른 채 그런 대접을 받자 겨우 몸을 일으켜 마리토르네스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우스운 드잡이가 벌어졌다. 노새꾼은 객줏집 주인의 등잔불에 제 여자가 어떤 꼴인지 보자 돈키호테를 버려두고 여자를 도우러 달려갔다. 객줏집 주인도 그렇게 했지만 속셈은 달랐다.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오직 하녀 하나라고 굳게 믿고 하녀를 혼내 주러 간 것이다. 그리하여 흔히 말하는 「고양이는 쥐를, 쥐는 밧줄을, 밧줄은 막대기를」 처럼, 노새꾼은 산초를, 산초는 하녀를, 하녀는 산초를, 객줏집 주인은 하녀를 치고, 모두 어찌나 바쁘게 연거푸 쳐 댔던지 한숨 돌릴 틈도 없었다.

그런데 기막힌 것은 객줏집 주인의 등잔불이 꺼져 버린 일이었다. 캄캄해지자 그들은 모두 마구잡이로 어찌나 사정없이 서로 두들겨 댔던지, 손이 닿는 곳마다 성한 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마침 그날 밤 그 객줏집에는 톨레도 옛 성스러운 형제단이라 부르는 데 딸린 순찰대원 하나가 묵고 있었다. 그도 그 기이한 싸움 소리를 듣자 짧은 지휘봉과 임명장이 든 양철통을 집어 들고 캄캄한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법의 이름으로 멈춰라! 성스러운 형제단의 이름으로 멈춰라!"

그가 맨 먼저 맞닥뜨린 사람은 주먹세례를 받은 돈키호테였다. 돈키호테는 무너진 잠자리 위에 정신을 잃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순찰대원은 더듬더듬 그의 수염을 움켜쥐고 쉴 새 없이 외쳤다.

"법을 도와라!"

그러나 붙잡은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자 그가 죽었다고 여겼고, 방 안에 있는 자들이 그를 죽인 살인자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심을 품자 그는 목소리를 더 높여 외쳤다.

"객줏집 대문을 닫아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라.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

이 외침에 모두 깜짝 놀랐고, 저마다 그 외침이 들린 바로 그 지경에서 싸움을 그만두었다. 객줏집 주인은 자기 방으로, 노새꾼은 자기 길마로, 하녀는 자기 거처로 물러갔다. 불운한 돈키호테와 산초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 순찰대원은 돈키호테의 수염을 놓고 범인들을 찾아 붙잡으려고 불을 구하러 나갔다. 그러나 불을 찾지 못했다. 객줏집 주인이 자기 방으로 물러갈 때 일부러 등잔불을 꺼 버렸기 때문이다. 순찰대원은 할 수 없이 아궁이로 가서 한참을 애쓴 끝에 겨우 다른 등잔에 불을 붙였다.

제17장 용감한 돈키호테와 그의 착한 종자 산초 판사가 불행히도 성이라고 여긴 객줏집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을 이어 간다

그사이 돈키호테는 혼절에서 깨어나 있었다. 그는 전날 몽둥이 골짜기에 쓰러져 있을 때 종자를 부르던 것과 똑같은 목소리로 종자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 내 벗아, 자느냐? 자느냐, 산초, 내 벗아?"

"제기랄, 잠이 오게 생겼어요?" 산초가 괴로움과 분통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 악마란 악마는 다 저하고 놀아난 것 같은데요?"

"틀림없이 그렇다고 믿어도 좋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이 성은 마법에 걸려 있느니라.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는 말은 내가 죽은 뒤까지 비밀로 지키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네, 맹세해요." 산초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나는 누구의 명예든 빼앗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네, 맹세한다니까요." 산초가 다시 말했다. "나리께서 돌아가신 뒤까지 입 다물고 있을게요. 하느님께서 부디 내일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초, 내가 너에게 그토록 몹쓸 짓을

하기에 너는 내가 그토록 빨리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무엇이든 오래 쌓아 두는 걸 싫어해서, 쌓아 두다가 썩어 버리면 안 되니까요."

"무엇 때문이든 좋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너의 사랑과 예의를 더 믿느니라. 그러니 알아 두어라. 오늘 밤 내게 내가 아무리 부풀려 말해도 모자랄 만큼 기이한 모험 하나가 일어났다. 짧게 이야기하자면, 조금 전에 이 성의 성주 따님이 내게 왔다. 이 넓은 땅 대부분을 뒤져도 찾을 수 있는 가장 맵시 있고 아리따운 아가씨니라. 그 몸의 꾸밈새를 너에게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슬기는 또 무어라 하겠느냐? 그 밖의 감추어진 것들은? 그것들은 내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 바쳐야 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대지 않고 말없이 지나가겠다. 다만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운명이 내 손에 쥐여 준 그토록 큰 복을 하늘이 시샘했는지, 아니면 아마도, 그리고 이것이 가장 확실하거니와, 앞서 말했듯이 이 성이 마법에 걸려 있기 때문인지, 내가 아씨와 더없이 달콤하고 더없이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어떤 엄청난 거인의 팔에 붙은 손 하나가 다가와 내 턱에 주먹을 한 대 먹였다는 것이다. 그 주먹에 내 턱은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그런 다음 그것이 나를 어찌나 짓찧었던지, 어제 로시난테가 지나친 짓을 하는 바람에 갈리시아 사람들이 너도 아는 그 모욕을 우리에게 했을 때보다 더 몸이 엉망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아가씨의 아리따움이라는 보물은 마법에 걸린 어떤 무어인이 지키고 있으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짐작하느니라."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무어인 사백 명도 넘는 놈들이 저를 두들겨 패서 몽둥이찜질은 과자에 꽃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리, 말씀해 보세요. 이 꼴이 되고 말았는데 이걸 좋고 희한한

모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리는 그래도 말씀하신 그 비길 데 없는 아리따움을 손에 쥐어 보셨으니 덜 나쁘죠. 하지만 저는 평생 받을 것 중 가장 센 주먹 말고 뭘 받았나요? 아이고, 불쌍한 내 신세,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지! 저는 편력 기사도 아니고 앞으로 될 생각도 없는데, 불운이란 불운은 제가 제일 큰 몫을 받으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도 두들겨 맞았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기랄,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산초가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지금 귀한 향유를 만들 테니, 그것으로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을 것이다."

이때 순찰대원이 등잔에 불을 다 붙이고, 죽었다고 여긴 사람을 보러 들어왔다. 산초는 그가 속옷 바람에 머릿수건을 쓰고 손에 등잔을 들고 아주 험상궂은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주인에게 물었다.

"나리, 혹시 이게 그 마법에 걸린 무어인 아닐까요? 잉크병에 뭘 남겨 두고 갔다고 우리를 또 혼내러 온 거 말이에요."

"무어인일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법에 걸린 자들은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느니라."

"모습은 안 보여도 손맛은 보이던데요." 산초가 말했다. "못 믿겠으면 제 등한테 물어보세요."

"내 등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게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지금 보이는 이자가 마법에 걸린 무어인이라고 믿을 증거가 못 되느니라." 순찰대원이 다가왔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자 어리둥절했다. 하기야 돈키호테는 너무 두들겨 맞고 고약을 잔뜩 붙인 터라 아직도 꼼짝 못 하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순찰대원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래, 좀 어떻소, 이 양반?"

"내가 그대라면 더 예의 바르게 말하겠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고장에서는 편력 기사에게 그따위로 말하는 것이 관례요, 이 멍청한 자야?"

순찰대원은 그토록 몰골 사나운 사람에게서 그토록 험한 대접을 받자 참지 못하고, 기름이 가득 든 등잔을 치켜들어 돈키호테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를 제대로 터뜨려 놓았다. 그러고는 사방이 캄캄해진 틈에 곧 나가 버렸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나리, 이게 틀림없이 그 마법에 걸린 무어인이에요. 보물은 다른 사람들 몫으로 지키고, 우리한테는 주먹질하고 등잔 세례만 아껴 두는가 봐요."

"그렇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런 마법의 일은 마음에 둘 것도 없고, 화를 내거나 성낼 까닭도 없느니라.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헛것이니, 아무리 애써도 원수 갚을 상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산초, 일어날 수 있거든 일어나서 이 요새의 성주를 부르고, 몸에 좋은 향유를 만들게 기름과 포도주와 소금과 로즈메리를 좀 달라고 해라. 정말이지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구나. 이 유령이 낸 상처에서 피가 많이 나는구나."

산초는 뼈마디가 몹시 아픈데도 일어나서, 캄캄한 데를 더듬어 객줏집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다 자기 적이 어떻게 되는지 엿듣고 있던 순찰대원과 마주치자 말했다.

"나리, 누구시든 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로즈메리와 기름과 소금과 포도주를 좀 주세요. 이 땅에 있는 가장 훌륭한 편력 기사 가운데 한 분을 치료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분은 이 객줏집에 있는 마법에 걸린 무어인 손에 몹시 다쳐서 저 잠자리에 누워 계세요." 순찰대원은 이 말을 듣자 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그리고 벌써 날이 밝아 오기 시작했으므로 객줏집 대문을 열고 주인을 불러 그 착한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일러 주었다. 객줏집 주인이 그가 바라는 것을 모두 내주자 산초는 그것을 돈키호테에게 가져갔다. 돈키호테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등잔에 맞은 데가 아프다고 끙끙대고 있었다. 사실 등잔에 맞은 상처는 꽤 큼직한 혹 두 개를 솟게 한 것 말고는 별 탈이 없었고, 그가 피라고 여긴 것은 지난밤 폭풍에 애태우느라 흘린 땀일 뿐이었다. 아무튼 그는 약재들을 받아 모두 섞어 한참 동안 끓여 합제를 만들었고, 마침내 알맞게 되었다고 여겼다. 그러고는 그것을 담을 약병을 달라고 했는데, 객줏집에 약병이 없자 양철 기름병에 담기로 했다. 객줏집 주인이 그 기름병을 기꺼이 거저 주었다. 이어서 그는 기름병에 대고 주님의 기도를 여든 번 넘게, 성모송과 성모 찬송과 사도신경도 그만큼 외웠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축복하듯 성호를 그었다. 산초와 객줏집 주인과 순찰대원이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있었다. 노새꾼은 이미 차분하게 노새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을 마치자 그는 그 귀한 향유라고 상상한 것의 효험을 자기가 몸소 곧바로 시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기름병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끓인 냄비에 남은 것을 반 아숨브레쯤 마셨는데, 다 마시자마자 토하기 시작하더니 배 속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토했다. 토하느라 애쓰고 몸부림친 끝에 그는 땀을 흠뻑 흘렸고, 그래서 이불을 덮어 주고 혼자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세 시간 넘게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몸이 몹시 가벼워지고 부서진 데가 어찌나 나았던지 스스로 다 나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말로 피에라브라스의 향유를 제대로 만들어 냈으니, 앞으로는 이 약만 있으면 아무리 위험한 파멸이든 싸움이든 말다툼이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산초 판사도 주인이 나은 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냄비에 남은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빌었다. 남은 것은 적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그러라고 하자, 산초는 두 손으로 냄비를 받쳐 들고 좋은 믿음과 더 좋은 기분으로

그것을 들이켜 주인보다 그리 적지 않게 배 속에 쟁여 넣었다. 그런데 가엾은 산초의 위장은 주인의 위장만큼 예민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토하기도 전에 어찌나 메슥거리고 구역질이 나고 진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지던지, 그는 정말 참으로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토록 괴롭고 애가 타자 그는 향유와 그것을 자기에게 준 도둑놈을 저주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이 모든 탈은 네가 기사 서임을 받지 않은 탓인 것 같구나. 내 생각에 이 약물은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듯하다."

"그걸 아셨다면" 산초가 맞받았다. "아이고, 나랑 우리 친척 모두 망할 놈의 신세지! 왜 저한테 그걸 맛보게 하셨어요?"

이때 약물이 효험을 내기 시작해, 가엾은 종자는 두 길로 한꺼번에 어찌나 급하게 쏟아 내던지, 다시 드러누운 부들 돗자리도 덮고 있던 삼베 담요도 더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는 어찌나 심한 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며 땀을 흘리고 또 흘렸던지, 그 자신뿐 아니라 모두 그의 목숨이 다하는 줄 알았다. 이 폭풍과 불운은 거의 두 시간이나 이어졌고, 그 끝에 그는 주인처럼 되기는커녕 몸을 가눌 수도 없을 만큼 녹초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몸이 가볍고 다 나았다고 느낀 돈키호테는 곧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거기서 지체하는 시간은 모두 세상과, 세상에서 그의 도움과 보호를 바라는 이들에게서 빼앗는 시간이라고 여겼고, 향유를 믿는 마음이 든든하니 더욱 그러했다. 이 소원에 떠밀려 그는 몸소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종자의 당나귀에 길마를 얹었으며, 종자가 옷을 입고 당나귀에 오르는 것도 거든 다음 자기도 말에 올라 객줏집 한구석으로 가서, 거기 있던 긴 창 하나를 창으로 쓰려고 집어 들었다.

객줏집에 있던 사람은 모두 스무 명이 넘었는데, 다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객줏집 주인의 딸도 그를 바라보았고, 그도 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따금 창자 깊은 곳에서 뽑아내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모두 그것이 갈빗대가 아파서 내쉬는 한숨이려니 생각했다. 적어도 전날 밤 그가 고약을 붙이는 것을 본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두 사람이 말과 당나귀에 오르자 그는 객줏집 대문 앞에 서서 객줏집 주인을 불러, 아주 차분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주여, 이 그대의 성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많고도 크니, 나는 평생 날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할 큰 빚을 졌노라. 그대에게 무슨 모욕을 한 어떤 오만한 자에게 그대 대신 원수를 갚아 줌으로써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알아 두시오. 내 직분은 다름 아니라 힘없는 이들을 돕고, 비뚤어진 일을 당한 이들의 원수를 갚고, 배신을 벌하는 것이오. 기억을 더듬어 보시오. 이런 종류의 일로 내게 맡길 것이 있거든 말하기만 하면 되오. 내가 받은 기사 서임에 걸고 약속하노니, 그대가 바라는 대로 흡족하게 갚아 주리라."

객줏집 주인도 똑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기사 나리, 저는 나리께서 제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모욕을 하면 제 마음대로 원수를 갚을 줄 아니까요. 저한테 필요한 건 나리께서 오늘 밤 객줏집에서 쓰신 비용, 그러니까 두 짐승의 짚과 보리 값하고 저녁 식사와 잠자리 값을 치러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객줏집이란 말이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것도 아주 점잖은 객줏집입죠."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정말이지 나는 이곳이 성이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성이라고 여겼소. 그러나 이곳이 성이 아니라 객줏집이라니,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대가

값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오. 나는 편력 기사의 규율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오. 내가 확실히 알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반대되는 것을 읽은 적이 없거니와, 편력 기사들은 묵은 객줏집에서 숙박료든 다른 무엇이든 값을 치른 적이 한 번도 없소. 그들이 받는 좋은 대접은 무엇이든 법으로 보나 권리로 보나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오. 밤이나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걸어서나 말을 타고서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추운 가운데, 하늘의 온갖 사나운 날씨와 땅의 온갖 불편을 무릅쓰고 모험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견디기 힘든 고생을 하는 데 대한 값이기 때문이오."

"그런 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제가 받을 걸 치러 주시고, 이야기니 기사도니 하는 건 그만두세요. 저는 제 돈 받아 내는 일 말고는 아무 셈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리석고 고약한 여관 주인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하고 긴 창을 비스듬히 들고서,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는 사이에 객줏집을 나갔다. 그는 종자가 따라오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한참이나 멀리 가 버렸다.

객줏집 주인은 그가 값을 치르지 않고 가는 것을 보자 산초 판사에게 받아 내려고 달려들었다. 산초는 주인 나리가 치르려 하지 않았으니 자기도 치르지 않겠다면서, 자기는 엄연히 편력 기사의 종자이니 여관이나 객줏집에서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규칙과 도리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객줏집 주인은 이 말에 몹시 골이 나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후회할 만큼 따끔하게 받아 내겠다고 그를 을러댔다. 이에 산초는 주인이 받은 기사도의 법에 따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코르나도 한 닢 치르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자기 때문에 편력 기사들의 훌륭하고 오랜 관습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 세상에 나올 그런 기사들의 종자들이 그토록 정당한 특권을 깨뜨렸다고 자기를 원망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불운한 산초에게는 운수 사납게도, 객줏집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세고비아의 모직 다듬는 직공 넷, 코르도바 포트로 광장[1]의 바늘 장수 셋, 세비야 시장 동네에 사는 사람 둘이 끼어 있었다. 모두 쾌활하고 악의는 없으나 짓궂고 장난을 좋아하는 무리였다. 그들은 마치 한 영이 부추기고 움직인 듯 한꺼번에 산초에게 다가가 그를 당나귀에서 끌어내렸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손님 잠자리의 담요를 가지러 들어갔고, 산초를 담요에 눕힌 다음 눈을 들어 보니 천장이 그들이 벌일 일에 필요한 높이보다 좀 낮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끝이 되는 안마당으로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산초를 담요 한가운데 놓고, 사육제 때 개를 가지고 놀듯이 그를 높이 헹가래 치며 즐기기 시작했다. 헹가래를 당하는 가엾은 사람이 어찌나 소리를 질러 댔던지 그 소리가 주인의 귀에까지 닿았다. 주인은 귀를 기울여 듣기로 마음먹고는 무슨 새 모험이 다가오는 줄 알았다가, 마침내 소리치는 사람이 자기 종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그는 고삐를 돌려 고달픈 구보로 객줏집에 이르렀으나 대문이 닫혀 있자 들어갈 곳이 없나 하고 객줏집 둘레를 돌았는데, 그리 높지 않은 안마당 담장에 이르자마자 종자가 당하는 고약한 장난이 눈에 들어왔다. 종자가 어찌나 우아하고 날렵하게 공중을 오르내리던지, 화가 나지만 않았다면 그도 웃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말 위에서 담장 위로 올라가 보려 했지만, 몸이 너무 두들겨 맞고 부서져서 말에서 내리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는 말 위에서 산초를 헹가래 치는 자들에게 어찌나 많은 욕설과 꾸지람을 퍼부었던지 그것을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웃음과 일을 그치지는 않았고, 날아다니는 산초도 때로는 을러대고 때로는 빌며 하소연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들이

그저 지쳐서 그를 놓아줄 때까지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들은 그의 당나귀를 그곳으로 끌고 와서 그를 그 위에 올려놓고 외투로 감싸 주었다. 인정 많은 마리토르네스는 그가 그토록 지친 것을 보자 물 한 주전자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더 시원하라고 우물에서 길어다 주었다. 산초는 그것을 받아 입으로 가져가다가 주인이 외치는 소리에 멈칫했다.

"얘야 산초, 물을 마시지 마라! 얘야, 마시지 마라, 그것이 너를 죽일 게다! 보이느냐? 여기 더없이 거룩한 향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약물이 든 기름병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두 방울만 마시면 틀림없이 나을 게다."

이 외침에 산초는 곁눈질하듯 눈을 돌리고 더 큰 소리로 말했다.

"혹시 제가 기사가 아니라는 걸 나리께서 잊으셨나요? 아니면 어젯밤에 남은 창자까지 마저 토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약물일랑 악마들한테나 줘 버리시고 저는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을 마치는 것과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 한순간이었다. 그러나 첫 모금에 그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자 더 마시려 하지 않고, 마리토르네스에게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빌었다. 마리토르네스는 아주 기꺼이 그렇게 해 주었고, 제 돈으로 값을 치렀다. 사실 그 여자를 두고, 그런 장사를 하고 있기는 해도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그림자와 기미가 얼마간 있었다고들 한다.

산초는 포도주를 마시자마자 당나귀에 발뒤꿈치로 박차를 가했고, 사람들이 객줏집 대문을 활짝 열어 주자 그곳을 빠져나갔다. 아무것도 치르지 않고 제 뜻을 이루어 내서 몹시 흐뭇했다. 비록 그 대가는 늘 그의 보증을 서 주는 제 등짝이 치렀지만. 사실 객줏집 주인은 받을 값 대신 그의 안장 주머니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초는 하도 정신없이 나가느라 그것이 없어진 줄도 몰랐다. 객줏집 주인은 산초가 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려 했으나 헹가래 친 자들이 그러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정말로 원탁의 편력 기사 가운데 하나라 해도 그를 두 푼어치로도 여기지 않을 무리였다.

---

1. 코르도바의 포트로 광장과 세비야의 시장 동네는 세고비아의 직공들과 함께 당시 건달과 장난꾼이 많기로 이름났다.

제18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이야기와 이야기할 만한 다른 모험들

산초는 시들고 기운이 빠져 당나귀를 몰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 주인에게 다가왔다. 그런 꼴을 보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착한 산초야, 이제야 나는 그 성인지 객줏집인지가 틀림없이 마법에 걸려 있다고 확신한다. 너를 그토록 잔혹하게 가지고 논 자들이 유령이나 저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것을 굳게 믿는 것은, 안마당 담장 너머로 네 슬픈 비극의 여러 막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 담장을 넘어갈 수도 없었고 로시난테에서 내리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마법에 걸어 놓았던 게지. 내 이름에 걸고 맹세하거니와, 담장을 넘거나 말에서 내릴 수만 있었다면 나는 그 비겁하고 흉악한 놈들이 그 장난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네 원수를 갚아 주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기사도의 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기사도의 법은, 급하고 큰 필요가 있어 제 목숨과 몸을 지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기사 아닌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저도 할 수만 있었다면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기사 서임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를 가지고 논 놈들은 나리 말씀처럼 유령도 마법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헹가래 칠 때 서로 부르는 걸 들으니 모두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페드로 마르티네스,

하나는 테노리오 에르난데스라고 했고, 객줏집 주인은 왼손잡이 후안 팔로메케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리, 안마당 담장을 뛰어넘지 못하신 것도, 말에서 내리지 못하신 것도 마법 말고 다른 데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제가 깨끗이 건져 낸 결론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이 모험들이 결국은, 결국은 우리를 숱한 불운으로 몰아넣어서 우리가 어느 쪽이 오른발인지도 모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은 추수 철이고 살림을 돌볼 때이니 흔히 말하듯 세카에서 메카로, 진창에서 우유 통으로 헤매고 다니는 건 그만두고 우리 마을로 돌아가는 게 더 좋고 더 옳을 것 같아요."

"산초, 너는 기사도의 일을 참 모르는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잠자코 참고 있거라. 이 일에 몸담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니라면 말해 보아라. 싸움에 이기고 원수를 무찌르는 기쁨보다 더 큰 만족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어떤 즐거움이 그에 견줄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모르지만요. 제가 아는 건, 우리가 편력 기사가 된 뒤로, 아니 나리께서 편력 기사가 되신 뒤로 (저까지 그렇게 명예로운 축에 셀 까닭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긴 싸움은 비스카야 사람과의 싸움 말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도 나리는 귀 반쪽과 투구 반쪽을 잃고 나오셨잖아요. 그 뒤로는 줄곧 몽둥이에 또 몽둥이, 주먹에 또 주먹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덤으로 헹가래까지 당했는데, 그것도 마법에 걸린 사람들한테 당했으니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나리 말씀처럼 원수를 무찌르는 즐거움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 길도 없지요."

"그것이 내 괴로움이고, 산초, 네 괴로움이기도 해야 하느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앞으로 나는 어떤 칼을 손에 넣도록 애쓰겠다. 아주 뛰어난 솜씨로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법도 걸 수 없는 칼 말이다. 어쩌면 운명이 아마디스가 불타는 칼의 기사라 불리던 때 지녔던 그 칼을 내게 내줄지도 모른다. 그것은 세상의 기사가 지닌 칼 가운데 가장 좋은 칼의 하나였다. 앞서 말한 힘을 지닌 데다 면도칼처럼 잘 베었고, 아무리 튼튼하고 마법에 걸린 갑옷이라도 그 앞에서 버티지 못했느니라." "저는 운이 하도 좋아서요." 산초가 말했다. "그런 일이 생겨서 나리께서 그런 칼을 찾아내신다 해도, 그건 향유처럼 기사 서임을 받은 사람한테만 쓸모 있고 도움이 될 거예요. 종자들은 슬픔이나 삼키라지요."

"그런 걱정은 마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늘이 너를 더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돈키호테와 종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던 길로 크고 짙은 흙먼지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돈키호테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자 그는 산초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오, 산초, 오늘이야말로 내 운명이 나를 위해 아껴 둔 복이 드러날 날이다. 오늘이야말로, 내 말하거니와, 다른 어느 날 못지않게 내 팔의 용기가 드러날 날이요, 앞으로 올 모든 세기 동안 명성의 책에 적혀 남을 일을 내가 해낼 날이니라. 산초, 저기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보이느냐? 저것은 온통 갖가지 셀 수 없는 민족들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군대가 저리로 행군해 오면서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치면 두 군대인가 봐요." 산초가 말했다. "이쪽 맞은편에서도 그 비슷한 흙먼지가 피어오르니까요."

돈키호테가 다시 돌아보니 정말 그러했다.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것이 그 드넓은 벌판 한가운데서 맞붙어 싸우려고 다가오는 두 군대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 어느 때나 기사 소설에 나오는 싸움과 마법과 사건과 엉뚱한 짓과 사랑과 결투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런 일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본 흙먼지는 양과 숫양의 큰 무리 둘이 일으킨 것이었다. 그 무리들은 같은 길을 따라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오고 있었는데, 흙먼지 때문에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그것이 군대라고 어찌나 굳세게 우겼던지 산초도 그 말을 믿게 되어 이렇게 말했다.

"나리,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무엇을 하느냐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편을 들어 돕는 것이다. 산초, 알아 두어라. 우리 앞쪽에서 오는 이 군대는 큰 섬 트라포바나의 주인인 위대한 황제 알리판파론이 이끌고 지휘하고 있다. 내 등 뒤에서 행군해 오는 저 다른 군대는 그의 원수인 가라만테스족의 왕, 걷어붙인 팔의 펜타폴렌의 군대다. 늘 오른팔을 드러낸 채 싸움터에 나서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느니라."

"그런데 이 두 나리는 왜 서로 그렇게 미워하는데요?" 산초가 물었다. "서로 미워하는 까닭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알레판파론이 사나운 이교도인데 펜타폴린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딸은 몹시 아리땁고 게다가 우아한 아씨인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교도 왕이 먼저 거짓 예언자 마호메트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의 율법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딸을 그에게 주려 하지 않느니라."

"내 수염에 걸고 말하지만" 산초가 말했다. "펜타폴린은 정말 잘하는 거고, 저는 힘닿는 데까지 그분을 도와야겠어요!"

"그러면 너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 싸움에 끼어드는 데는 기사 서임을 받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건 잘 알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난 뒤에 틀림없이 다시 찾을 수 있게 이 당나귀를 어디다 두죠? 이런 탈것을 타고 싸움에 끼어드는 건 지금까지 관례가 아닐 테니까요."

"그건 맞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녀석은 잃어버리든 말든 제 모험에 맡겨 두면 된다. 우리가 이기고 나면 말이 어찌나 많이 생길지, 로시난테조차 다른 말과 바뀌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일 테니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아라. 이 두 군대에 끼어 오는 가장 주요한 기사들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네가 그들을 더 잘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저기 솟은 작은 언덕으로 물러나자. 거기서는 두 군대가 다 보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둘은 어느 둔덕 위에 올라섰는데, 돈키호테가 군대로 여긴 두 양 떼가 일으키는 흙먼지 구름이 그들의 눈을 흐리고 가리지만 않았다면 거기서는 두 양 떼가 잘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돈키호테는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 속에서 보면서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저기 보이는 누런 갑옷의 기사, 방패에 한 아가씨의 발치에 엎드린 왕관 쓴 사자를 그린 기사가 은다리의 영주인 용맹한 라우르칼코다. 황금 꽃무늬 갑옷을 입고 방패에 푸른 바탕에 은관 셋을 그린 또 한 기사는 키로시아 대공인 무시무시한 미코콜렘보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인 같은 팔다리의 또 한 기사는 세 아라비아의 주인인, 결코 두려움을 모르는 볼리체의 브란다바르바란인데, 저 뱀 가죽으로 무장하고 방패 대신 문짝 하나를 들었다. 소문으로는 삼손이 죽음으로 원수를 갚을 때 무너뜨린 신전의 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이 다른 군대의 앞쪽 맨 머리에, 늘 이기고 결코 진 적이 없는 카르카호나의 티모넬, 새 비스카야의 왕자가 보일 것이다. 그는 푸른빛, 초록빛, 흰빛, 누런빛 네 칸으로 나뉜 갑옷을 입고, 방패에는 황갈색 바탕에 황금 고양이를 그리고 「야옹」 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그것은 그의 아씨 이름의 첫머리인데, 소문으로는 그 아씨가 알가르베의 알페니켄 공작의 딸인 비할 데 없는 미울리나라고 한다. 저 힘센 큰 군마의 등을 짓누르고 올라탄 또 한 기사는 눈처럼 흰 갑옷을 입고 문장

없는 흰 방패를 들었는데, 우트리케 남작령의 영주인 피에르 파팽이라는 프랑스 태생의 새내기 기사다. 편자 박은 발뒤꿈치로 저 얼룩덜룩하고 날랜 얼룩말의 옆구리를 차는 또 한 기사는 푸른 다람쥐 털 무늬의 갑옷을 입었는데, 네르비아의 힘센 공작인 숲의 에스파르타필라르도다. 그는 방패에 문장으로 아스파라거스 한 포기를 그리고, 카스티야 말로 「내 운명은 땅을 긴다」라는 글귀를 적었다." 그는 이렇게 상상 속의 두 진영의 많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이름 대어 불렀고, 일찍이 본 적 없는 광기의 상상에 이끌려 그들 모두에게 즉석에서 갑옷과 빛깔과 문장과 글귀를 붙여 주었다. 그러고는 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 맞은편의 이 진영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이름난 크산토스강의 단물을 마시던 자들이 있고, 마실리아 들판을 밟는 산사람들, 행복한 아라비아에서 더없이 곱고 잘디잔 금을 체로 거르던 자들, 맑은 테르모돈강의 이름나고 시원한 강가를 누리는 자들, 황금빛 팍톨로스강의 물을 여러 갈래 다양한 물길로 빼내는 자들,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누미디아인들, 활과 화살로 이름난 페르시아인들, 달아나면서 싸우는 파르티아인들과 메디아인들, 집을 옮겨 다니는 아랍인들, 살결이 흰 만큼 잔인한 스키타이인들, 입술을 뚫은 에티오피아인들, 그리고 얼굴은 알아보고 보이지만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그 밖의 셀 수 없는 민족들이 있다. 저 다른 진영에는 올리브가 우거진 베티스강의 수정 같은 물을 마시는 자들, 언제나 풍요롭고 황금빛인 타호강의 물로 얼굴을 씻고 다듬는 자들, 거룩한 헤닐강의 이로운 물을 누리는 자들, 꼴이 넉넉한 타르테소스 들판을 밟는 자들, 헤레스의 낙원 같은 풀밭에서 즐거워하는 자들, 부유하고 금빛 이삭으로 관을 쓴 라만차 사람들, 고트족 피의 오랜 유물인 쇠로 몸을 감싼 자들, 잔잔한 물살로 이름난 피수에르가강에서 몸을 씻는 자들, 숨어 흐르는 물길로 이름난 구불구불한 과디아나강의 너른 목장에서 가축을 치는

자들, 숲 우거진 피레네산맥의 추위와 높이 솟은 아펜니노산맥의 흰 눈송이에 떠는 자들, 요컨대 온 유럽이 품고 담은 모든 자들이 오고 있느니라."

하느님 맙소사, 그는 얼마나 많은 지방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민족의 이름을 댔던가! 거짓말투성이 책에서 읽은 것에 온통 넋을 빼앗기고 흠뻑 젖은 채, 놀랄 만큼 재빠르게 저마다에 걸맞은 속성을 붙여 주면서 말이다. 산초 판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말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따금 주인이 이름을 대는 기사와 거인들이 보이나 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거인이고 기사고, 이 근방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 악마한테나 맡기렵니다. 적어도 저는 안 보여요. 어쩌면 어젯밤 유령들처럼 다 마법인가 봐요."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말 울음소리며 나팔 소리며 북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제 귀에는 양하고 숫양이 매애매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두 양 떼가 벌써 가까이 다가와 있었으니까.

"산초, 네가 두려워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감각을 흐리게 해서 사물이 제 모습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두렵거든 한쪽으로 물러나 나를 혼자 두어라. 내가 돕는 편에 승리를 안겨 주는 데는 나 혼자로 족하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하고 창을 창받이에 낀 채 번개처럼 비탈을 내려갔다. 산초가 그에게 외쳤다. "돌아오세요, 돈키호테 나리! 하느님께 맹세코 나리께서 덤벼드시는 건 숫양하고

양이라니까요! 돌아오세요, 나를 낳은 아버지도 불쌍하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보세요, 거인도 기사도 하나 없고, 고양이도 갑옷도, 나뉜 방패도 온전한 방패도, 푸른 다람쥐 털 무늬도 악마 같은 무늬도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느님 앞에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돈키호테는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갔다. "자, 용맹한 황제, 걷어붙인 팔의 펜타폴린의 깃발 아래 따르고 싸우는 기사들이여, 모두 나를 따르라. 내가 얼마나 손쉽게 그의 원수 트라포바나의 알레판파론에게 원수를 갚아 주는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양 떼의 진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마치 정말로 철천지원수를 창으로 찌르기라도 하듯 용기백배하여 대담하게 양들을 창으로 찔러 대기 시작했다. 양 떼를 몰고 오던 양치기와 목자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소용이 없자 허리에 찬 투석끈을 풀어 주먹만 한 돌로 그의 귀에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방으로 내달리며 외쳤다.

"오만한 알리판푸온아, 어디 있느냐? 내게 오너라. 나는 홀로 있는 기사이니, 일대일로 네 힘을 겨루고, 네가 용맹한 가라만테스의 펜타폴린에게 입히는 괴로움의 벌로 네 목숨을 빼앗고 싶을 뿐이니라."

그때 시냇가 조약돌 하나가 날아와 그의 옆구리에 맞더니 갈빗대 두 대를 몸속에 파묻어 버렸다. 그토록 험한 꼴이 되자 그는 자기가 죽었거나 몹시 다쳤다고 틀림없이 믿었다. 그리고 자기 약물이 생각나서 기름병을 꺼내 입에 대고 약물을 배 속에 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넉넉하다 싶을 만큼 다 쟁여 넣기도 전에, 아몬드 사탕만 한 돌이 또 하나 날아와 손과 기름병을 어찌나 정통으로 맞혔던지 기름병이 산산조각 났다. 그 김에 그 돌은 입안의 앞니와 어금니 서너 개를 앗아 가고 손가락 두 개를 몹시 짓찧어 놓았다.

첫 번째 일격도 그러했고 두 번째 일격도 그러했으니, 가엾은 기사는 말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양치기들이 그에게 다가와 보고는 그를 죽였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주 서둘러 가축을 모으고, 일곱 마리가 넘는 죽은 양들을 짊어지고는 더 알아보지도 않고 가 버렸다.

그동안 내내 산초는 비탈 위에서 주인이 벌이는 미친 짓을 지켜보며 제 수염을 쥐어뜯었고, 운명이 자기에게 주인을 알게 해 준 그 시각과 그 순간을 저주했다. 그러다 주인이 땅에 쓰러져 있고 양치기들도 가 버린 것을 보자 비탈을 내려와 주인에게 다가갔다. 주인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몹시 험한 꼴이었다. 산초가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돌아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나리께서 덤벼드시려는 건 군대가 아니라 숫양 떼라고요."

"내 원수인 그 도둑놈 같은 현자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사라지게 하고 바꿔 놓을 수 있느니라. 산초, 알아 두어라. 그런 자들에게는 제 마음대로 무엇이든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다. 나를 쫓아다니는 이 악한 자는 내가 이 싸움에서 얻게 될 영광을 보고 시샘하여 적의 진영을 양 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아니라면, 산초, 내 목숨을 걸고 부탁하니 한 가지만 해 보아라. 네가 착각에서 깨어나 내 말이 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당나귀에 올라 그들을 살그머니 따라가 보아라. 여기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들이 본디 모습으로 돌아가 숫양이기를 그치고, 내가 처음에 너에게 그려 보인 그대로 어엿하고 늠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게다…… 그러나 지금은 가지 마라. 네 도움과 거들기가 필요하다. 이리 와서 내 어금니와 앞니가 몇 개나 빠졌는지 보아라. 입안에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산초는 거의 주인의 입속에 눈을 들이밀 만큼 바싹 다가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향유가 돈키호테의 배 속에서 일을 다 끝낸 참이었다. 산초가 주인의 입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돈키호테는 속에 든 것을 모조리

화승총보다 더 세차게 내뿜었고, 그것이 모두 인정 많은 종자의 수염에 쏟아졌다.

"성모 마리아님!" 산초가 말했다. "이게 웬일이람? 이 죄 많은 양반이 틀림없이 치명상을 입었나 봐. 입으로 피를 토하니."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빛깔과 맛과 냄새로 보아 그것은 피가 아니라 주인이 기름병에서 마시는 것을 본 그 향유였다. 그는 어찌나 메스꺼웠던지 배 속이 뒤집혀 제 주인 위에 창자를 다 쏟아 냈고, 두 사람 다 진주를 두른 듯 번들번들하게 되었다. 산초는 안장 주머니에서 몸을 닦을 것과 주인을 치료할 것을 꺼내려고 당나귀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안장 주머니가 없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제 신세를 저주했고, 그동안 섬긴 품삯과 약속받은 섬의 통치에 대한 희망을 잃더라도 주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때 돈키호테가 일어나서, 이가 마저 빠져나가지 않게 왼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았다. 로시난테는 주인 곁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만큼 충직하고 성미가 착했다. 그러고는 종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종자는 당나귀에 가슴을 기대고 손으로 뺨을 괸 채 아주 생각에 잠긴 사람 꼴을 하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가 그토록 슬픈 기색으로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산초, 알아 두어라. 남보다 더 하지 않는 사람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폭풍은 곧 날씨가 개고 일이 잘 풀리리라는 징조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오래갈 수는 없으니, 나쁜 것이 오래갔다면 좋은 것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이다. 그러니 나에게 닥치는 불운 때문에 너는 애태울 것 없다. 너에게는 그 몫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째서 안 돌아가요?" 산초가 대답했다. "혹시 어제 헹가래당한 게 우리 아버지 아들 말고 딴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제

살림살이가 몽땅 든 채 없어진 안장 주머니는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거예요?"

"안장 주머니가 없어졌다고,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없어졌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먹을 것이 없겠구나."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려면"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안다고 하신 그 풀들이 이 풀밭에 없어야겠지요. 나리처럼 운 나쁜 편력 기사들은 그 풀로 이런 모자람을 채우곤 한다면서요." "그래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나는 디오스코리데스가 묘사한 온갖 풀보다, 그것이 라구나 박사가 주해를 단 것이라 해도, 빵 한 덩이나 큰 빵 하나에 훈제 청어 대가리 두 개를 더 얼른 집겠다. 그러나 그래도 착한 산초야, 네 당나귀에 올라 나를 따라오너라. 만물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토록 그분을 섬기며 다니고 있으니. 그분은 공중의 모기도, 땅의 벌레도, 물속의 올챙이도 저버리지 않으시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어찌나 자비로우신지 착한 이와 악한 이 위에 해를 뜨게 하시고, 불의한 이와 의로운 이 위에 비를 내리시느니라."

"나리는 편력 기사보다 설교자가 더 어울리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산초, 편력 기사들은 무엇이든 알았고 또 알아야 하느니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난 세기에는 파리 대학을 나온 사람처럼 진지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추고 설교나 강론을 한 편력 기사도 있었다. 그러니 창이 펜을 무디게 한 적 없고 펜이 창을 무디게 한 적도 없다는 말이 나오느니라."

"그럼 좋아요, 나리 말씀대로라고 쳐요." 산초가 대답했다. "이제 여기를 떠나서 오늘 밤 묵을 데를 찾아봐요. 하느님께서 부디 담요도 헹가래꾼도 유령도 마법에 걸린 무어인도 없는 데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보따리고 갈고리고 다 악마한테 줘 버릴 거예요." "얘야, 그것은 네가 하느님께 빌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잡아라. 이번에는 묵을 곳을 네가 고르게 맡기겠다. 그러나 이리 손을 내밀어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고, 위턱 오른쪽에 어금니와 앞니가 몇 개나 빠졌는지 잘 보아라. 거기가 아프구나." 산초는 손가락을 넣어 더듬어 보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이쪽에 어금니가 원래 몇 개 있으셨어요?"

"네 개였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사랑니 말고도 모두 온전하고 아주 튼튼했느니라."

"나리, 잘 생각해 보고 말씀하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네 개라니까, 다섯 개가 아니었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평생 이 하나 어금니 하나 뽑힌 적도, 빠진 적도, 충치나 무슨 병으로 썩은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쪽 아래에는" 산초가 말했다. "어금니가 두 개 반밖에 없고요, 위에는 반 개도 아니 하나도 없어요. 손바닥처럼 반반해요."

"아아, 불운한 나로구나!" 돈키호테가 종자가 전하는 슬픈 소식을 듣고 말했다. "차라리 팔 하나를 잘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칼 쥐는 팔만 아니라면 말이다. 산초, 알려 주마. 어금니 없는 입은 맷돌 없는 방앗간과 같고, 이 하나가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귀하게 여겨져야 하느니라. 그러나 엄격한 기사도에 몸 바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겪기 마련이다. 벗아, 당나귀에 올라 길을 잡아라. 네가 바라는 걸음으로 따라가마."

산초는 그렇게 했다. 그는 그 근방에서 내내 이어지던 큰길을 벗어나지 않은 채, 묵을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쪽으로 나아갔다. 돈키호테의 턱이 아파서 그는 가만히 있지도, 서두르지도 못했으므로 그들은 천천히 나아갔다. 산초는 무슨 말이든 해서 주인의 마음을

달래고 기분을 풀어 주고 싶었다. 그가 한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다음 장에서 할 이야기다.

제19장 산초가 주인과 나눈 사려 깊은 이야기와 시체를 만난 모험과 그 밖의 이름난 사건들

"나리, 아무래도 요 며칠 우리한테 닥친 이 모든 불운은 틀림없이 나리께서 기사도의 규율을 거스르신 죄의 벌인가 봐요. 나리께서는 그 말란드리노의 투구인지, 그 무어 놈 이름이 뭐였는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아무튼 그 투구를 빼앗을 때까지는 식탁보 깐 상에서 빵을 먹지도 않고 왕비와 즐기지도 않고, 거기 딸린 다른 것들까지 다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안 지키셨잖아요."

"네 말이 아주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일은 내 기억에서 깜빡 빠져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담요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도 네가 제때 그 일을 내게 일깨워 주지 않은 탓이라고 굳게 믿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속죄를 하겠다. 기사도에는 무슨 일에든 잘못을 갚고 화해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아니, 그럼 제가 뭘 맹세라도 했나요?" 산초가 대답했다.

"네가 맹세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도 한패라는 혐의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하니, 그렇든 아니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다."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나리, 이번 일은 그 맹세처럼 또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유령들이 저를 데리고 다시 한번 놀고 싶어질지도 모르고, 나리께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걸 보면 나리하고도 놀고 싶어질지 몰라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들은 길 한가운데서 밤을 맞았는데, 그날 밤 몸을 누일 곳은 가진 것도 없고 눈에 띄는 것도 없었다. 더 고약하게도 그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안장 자루가 없어지는 바람에 곳간과 길양식이 송두리째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운을 마저 굳혀 주려는 듯, 꾸민 데라고는 조금도 없이 참으로 모험처럼 보이는 모험 하나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일인즉 밤이 꽤 어둡게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길을 걸었는데, 산초는 이 길이 큰길이니 1레과나 2레과쯤 가면 틀림없이 객줏집 하나는 나오리라고 믿었다. 이렇게 밤은 어둡고 종자는 배가 고프고 주인은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채로 나아가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바로 그 길로 수많은 불빛이 마치 움직이는 별들처럼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산초는 그것을 보자마자 넋이 나갔고 돈키호테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았으므로, 한 사람은 당나귀 고삐를, 또 한 사람은 비쩍 마른 말의 고삐를 당겨 둘은 꼼짝 않고 서서 저것이 무엇일까 하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불빛은 점점 그들에게 다가오며 가까이 올수록 더 커 보였는데, 그것을 보자 산초는 수은 중독자처럼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고 돈키호테는 머리털이 곤두섰는데, 그는 조금 기운을 내어 말했다.

"산초, 이것은 틀림없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로다. 여기서 나는 내 용기와 힘을 남김없이 보여 주어야 하리라." "아이고, 내 팔자야!" 산초가 대답했다. "혹시 이 모험이 유령 모험이면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걸 견뎌 낼 갈비뼈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유령들이라 해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것들이 네 옷의 털끝 하나 건드리게 두지 않으마. 지난번에 그것들이 너를 놀림감으로 삼은 것은 내가 안마당 담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탁 트인 들판에 있으니,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지난번처럼 나리께 마법을 걸어서 몸을 굳게 만들어 버리면요" 산초가 말했다. "탁 트인 들판이든 아니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도"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산초, 부탁이니 용기를 내어라. 내 용기가 어떤지는 겪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네, 내 볼게요, 하느님 뜻이라면요." 산초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걸어오는 그 불빛들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흰 겉옷을 걸친 사람 여럿을 알아보았는데,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산초 판사는 남아 있던 용기마저 완전히 꺾여 사흘거리 학질로 오한이 든 사람처럼 이를 딱딱 부딪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이자 떨림과 이 부딪치는 소리는 더 심해졌다. 흰 겉옷을 걸친 사람이 스무 명쯤, 모두 말을 타고 손에 불붙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 뒤로 검은 상복 천을 덮은 가마 하나가 따랐으며, 가마 뒤로는 노새 발끝까지 상복을 늘어뜨린 사람 여섯이 말을 타고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탄 것이 말이 아니라 노새라는 것은 그 느긋한 걸음걸이로 잘 알 수 있었다. 흰 겉옷을 걸친 사람들은 낮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저희끼리 무어라 중얼거리며 갔다. 이런 시각에 이런 외딴 곳에서 본 이 기이한 광경은 산초의 가슴에, 아니 그 주인의 가슴에까지 두려움을 심기에 충분했다. 돈키호테에게도 그럴 뻔했다는 말인데, 산초는 이미 용기를 몽땅 내팽개친 뒤였다. 그러나 주인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그 순간 그의 상상 속에는 이것이 자기가 읽은 책 속의 모험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에게는 그 가마가 크게 다쳤거나 죽은 어느 기사를 싣고 가는 상여로 보였고, 그 원수를 갚는 일은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긴 창을 창받이에 끼우고 안장에 단단히 앉은 다음, 늠름한 기세와 몸가짐으로 흰 겉옷의 무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 한복판에 버티고 섰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멈추시오, 기사들이여, 아니 그대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대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 상여에 싣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밝히시오. 보아하니 그대들이 몹쓸 짓을 저질렀거나 그대들이 몹쓸 짓을 당했거나 둘 중 하나로다. 그대들이 저지른 악행을 벌하든지 그대들이 당한 비뚤어진 일을 갚아 주든지 하려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마땅하고 또 알아야만 하느니라."

"우리는 바쁘오." 흰 겉옷을 걸친 사람 하나가 대답했다. "객줏집은 멀고, 당신이 묻는 것을 시시콜콜 다 대답하느라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소."

그러고는 노새를 몰아 앞으로 지나갔다. 돈키호테는 이 대답에 몹시 언짢아져 노새의 재갈을 붙잡고 말했다.

"멈추고 예의를 좀 더 갖추시오. 그리고 내가 물은 것을 밝히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 모두 나와 싸워야 하리라."

노새는 겁이 많은 놈이어서 누가 재갈을 붙잡자 어찌나 놀랐던지 뒷발로 일어서더니 제 주인을 엉덩이 너머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걸어서 따라가던 젊은이 하나가 흰 겉옷 입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돈키호테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이미 화가 치민 돈키호테는 더 기다리지 않고 긴 창을 겨누어 상복 입은 사람 하나에게 덤벼들었고, 그를 크게 다치게 하여 땅에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나머지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가 그들에게 덤벼들어 흩어 놓는 그 재빠름은 참으로 볼 만했다. 로시난테가 어찌나 가볍고 의기양양하게 움직이던지, 그 순간 로시난테에게 날개가 돋아난 것만 같았다.

흰 겉옷을 걸친 사람들은 모두 겁 많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손쉽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싸움판을 버리고 불붙은 횃불을 든 채 들판을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잔치와 축제가 벌어진 밤에 뛰어다니는

가면 행렬과 다를 바 없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 역시 긴 옷자락과 사제복에 휘감기고 뒤엉켜 꼼짝도 할 수 없었으므로, 돈키호테는 아무 위험 없이 그들을 모두 두들겨 패고, 그들이 싫든 좋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 다들 그가 사람이 아니라 가마에 싣고 가는 시신을 빼앗으러 나타난 지옥의 악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산초는 주인의 용맹에 감탄하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주인 나리는 틀림없이 당신 말씀대로 용감하고 씩씩한 분이구나."

노새가 떨어뜨린 첫 번째 사람 곁 땅바닥에 횃불 하나가 타고 있었고, 돈키호테는 그 불빛으로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긴 창끝을 그 얼굴에 들이대고, 항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쓰러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항복이라면 벌써 실컷 했습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하니까요. 나리께서 그리스도교 기사시라면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석사이고 하급 성품을 받은 몸이니, 저를 죽이시면 큰 신성 모독을 저지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람이 대체 어떤 악마에게 끌려 여기까지 왔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누구냐고요, 나리?" 쓰러진 사람이 맞받았다. "제 불운이지요."

"그보다 더 큰 불운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처음에 물은 것에 모두 흡족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말이오."

"흡족하게 해 드리는 건 쉬운 일입니다." 석사가 대답했다. "그러니 나리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아까는 제가 석사라고 했지만 실은 학사일 뿐이고, 이름은 알론소 로페스, 알코벤다스 태생입니다. 다른 사제 열한 명과 함께 바에사시에서 오는 길인데, 횃불을 들고 달아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저 가마에 실린 시신을 모시고 세고비아시로 가는

중입니다. 바에사에서 죽어 그곳에 임시로 안치되었던 어느 기사의 시신인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분의 고향 세고비아에 있는 묘소로 유골을 모셔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를 죽였소?" 돈키호테가 물었다.

"하느님이시지요. 몹쓸 돌림 열병을 내리셔서요." 학사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다른 누가 그를 죽였다면 내가 그 죽음의 원수를 갚느라 수고해야 했을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덜어 주셨구려. 그러나 그를 죽인 분이 그분이시니 잠자코 어깨를 움츠리는 수밖에 없소. 그분이 나 자신을 죽이신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테니 말이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알아 두시오. 나는 돈키호테라는 라만차의 기사이며, 세상을 돌아다니며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는 것이 내 직분이자 일이오."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사가 말했다. "바르던 저를 당신이 비뚤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 놓으셨으니, 그 다리는 평생 다시 바로 펴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억울한 일을 풀어 주셨다는데, 그게 저를 억울하게 만들어 앞으로 영영 억울한 채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모험을 찾아다니는 당신과 마주친 것이야말로 크나큰 불운이었지요."

"모든 일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오. 알론소 로페스 학사 나리, 탈은 그대들이 그렇게 밤중에, 그 중백의를 입고, 불붙은 횃불을 들고, 기도를 읊조리며, 상복을 두르고 온 데 있었소. 그대들은 정말이지 저세상에서 온 사악한 것처럼 보였소. 그래서 나는 그대들에게 덤벼들어 내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대들이 정말로 지옥의 사탄들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덤벼들었을 것이오. 나는 그대들을 줄곧 그런 것들로 여기고

판단했으니까." "제 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으니 할 수 없지요." 학사가 말했다. "편력 기사 나리, 저한테는 참 고약한 편력을 겪게 하신 분이지만, 부탁이니 이 노새 밑에서 빠져나오게 좀 도와주십시오. 등자와 안장 사이에 다리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나 말할 참이었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고생을 언제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리려 했소?"

그는 곧 산초 판사에게 오라고 소리쳤지만 산초는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선량한 양반들이 끌고 온 예비 짐 노새 한 마리, 먹을 것을 잔뜩 실은 그 노새의 짐을 털어 내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산초는 외투를 자루 삼아 할 수 있는 만큼,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쓸어 담아 당나귀에 싣고 나서야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학사 나리를 짓누르던 노새 밑에서 그를 끌어내는 것을 도운 다음 그를 노새 위에 태우고 횃불을 건네주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동료들이 간 길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대신해 그들에게 이번 행패에 대해 용서를 빌어 달라고, 그것은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일렀다. 산초도 그에게 말했다.

"혹시 그 양반들이 자기들을 그 꼴로 만든 용사가 누구냐고 묻거든,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하는 분이라고 전해 주세요."

그러자 학사는 떠났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무엇 때문에 하필 이제 와서 자기를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렀느냐고 물었다.

"말씀드릴게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저 불운한 양반이 들고 가는 횃불에 비춰 한참 나리를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이지 요 근래 나리 얼굴처럼 꼴사나운 얼굴은 생전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싸움에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어금니랑 이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가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무훈의 이야기를 쓰는 일을 맡았을 그 현자가, 옛 기사들이 모두 그랬듯이 나도 별호 하나쯤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불타는 칼의 기사라 불렸고, 어떤 이는 일각수의 기사, 저 사람은 아가씨들의 기사, 이 사람은 불사조의 기사, 또 다른 이는 그리핀의 기사, 또 저 사람은 죽음의 기사라 불렸다. 그들은 이런 이름과 문장으로 둥근 땅 온 세상에 알려졌느니라. 그러니 말하건대, 앞서 말한 그 현자가 지금 네 혀와 생각에 나를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부르도록 넣어 주었을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불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내게 더 잘 어울리도록, 기회가 오면 내 방패에 아주 슬픈 얼굴 하나를 그려 넣게 할 작정이다." "그런 얼굴을 그리느라 시간이랑 돈을 쓸 것 없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보다는 나리께서 나리 얼굴을 드러내서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그림이나 방패 없이도 다짜고짜 나리를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부를 거예요. 제 말이 참말이라는 걸 믿으세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나리, 정말이지 배고픔과 어금니 빠진 것 때문에 나리 얼굴이 하도 고약해 보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슬픈 그림은 빼도 아주 그만이에요."

돈키호테는 산초의 재치에 웃었다. 그래도 그는 생각해 둔 대로 방패, 곧 둥근 방패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그 이름으로 불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학사가 돌아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나리께서는 거룩한 것에 폭력으로 손을 대셨으니 파문을 당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운운하는 구절대로지요(juxta illud: Si quis suadente diabolo, etc.).[1]"

"그 라틴어는 모르겠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긴 창을 댔다는 것만은 잘 아오. 더구나 나는 사제들이나 교회의 것을 해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소. 나는 가톨릭 신자요 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교회를 존경하고 공경하오. 내가 해친다고 생각한 것은 저세상의 유령과 괴물들이었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시드루이 디아스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소. 그는 교황 성하 앞에서 어느 왕의 사신이 앉은 의자를 부수었고 그 때문에 교황이 그를 파문했지만, 그날 저 착한 로드리고 데 비바르는 아주 명예롭고 용감한 기사답게 처신했소."

학사는 이 말을 듣자, 앞서 말한 대로 한마디 대꾸도 없이 떠났다. 돈키호테는 가마에 실려 온 시신이 정말 유골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지만 산초가 말리며 말했다.

"나리, 나리께서는 제가 본 모험 가운데 가장 탈 없이 이 위험한 모험을 끝내셨어요. 이 사람들은 지고 흩어지긴 했지만, 자기들을 이긴 게 고작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모여 우리를 찾아와 골탕을 먹일 수도 있어요. 당나귀는 짐을 알맞게 실었고, 산은 가깝고, 배는 고프니, 할 일이라고는 점잖은 걸음으로 물러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 말마따나, 죽은 사람은 무덤으로 가고 산 사람은 빵 덩어리로 가는 거죠." 그러고는 당나귀를 앞세우고 주인에게 따라오라고 청했다. 주인은 산초 말이 옳다고 여겨 더 대꾸하지 않고 따라갔다. 두 작은 산 사이로 조금 걸어가자 그들은 넓고 숨은 골짜기에 이르러 말과 당나귀에서 내렸다. 산초가 당나귀 짐을 내려 주자 그들은 푸른 풀밭에 몸을 뻗고 배고픔을 양념 삼아 아침과 점심과 새참과 저녁을 한꺼번에 먹었는데, 죽은 이를 모시던 성직자 나리들이 예비 짐 노새에 싣고 다니던 찬합 여러 개로 배를 채웠다. 그런 양반들은 좀처럼 궁하게 지내는 법이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불운이 그들에게 닥쳤고, 산초는 그것을 모든 불운 가운데 가장 고약한 것으로 여겼다. 마실 포도주는커녕 입에 축일 물 한 모금도 없었다. 목이

타들어 가던 산초는 자기들이 있는 풀밭에 푸르고 가는 풀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

1.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 교령의 첫머리. "누구든지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폭력으로 손을 대면 파문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제20장 세상의 어떤 이름난 기사도 라만차의 용맹한 돈키호테만큼 적은 위험으로 끝낸 적이 없는, 보도 듣도 못한 모험

"나리, 이 풀들을 보면 틀림없이 이 근처에 이 풀들을 적셔 주는 샘이나 개울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더 가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독한 목마름을 달랠 데가 곧 나올 거예요. 목마름은 틀림없이 배고픔보다 더 괴로우니까요."

돈키호테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겼다. 그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고, 산초는 저녁을 먹고 남은 것을 당나귀 등에 얹은 다음 당나귀 고삐를 잡고, 둘은 풀밭을 따라 더듬더듬 올라가기 시작했다. 밤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백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높이 솟은 커다란 바위 벼랑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요란한 물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그들은 몹시 기뻐했고,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들어 보려고 걸음을 멈추었는데, 바로 그때 뜻밖에도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와 물을 찾은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타고나기를 겁 많고 배짱이 약한 산초에게는 더욱 그랬다. 말하자면 그들은 무언가를 장단 맞춰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쇠붙이와 쇠사슬이 철거덕거리는 소리가 함께 났고, 거기에 사납게 쏟아지는 물소리까지 어우러지니 돈키호테의 가슴이 아닌 다른 가슴이라면 누구든 겁에 질렸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밤은 어두웠고, 그들은 마침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들어섰는데,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무시무시하면서도 나지막한 소리를 냈다. 그리하여 외로움과 그곳의 생김새와 어둠과 물소리와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가 모두 공포와 두려움을 자아냈고, 두들기는 소리는 그치지 않고 바람은 잠들지 않고 아침은 오지 않는 것을 보자 더욱 그랬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대담무쌍한 마음을 벗 삼아 로시난테에 훌쩍 올라타고는 둥근 방패를 팔에 끼고 긴 창을 비껴 잡으며 말했다. "산초, 내 벗아, 알아 두어라.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철의 시대에, 황금시대 또는 흔히 부르듯 금빛 시대를 되살리려고 태어났다. 위험과 위대한 무훈과 용맹한 업적은 바로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원탁의 기사들과 프랑스의 열두 대등 기사와 아홉 명의 명예로운 용사를 되살릴 사람이요, 플라티르들, 타블란테들, 올리반테들, 티란테들, 태양의 기사들과 벨리아니스들, 그리고 지난 시대의 이름난 편력 기사 무리 전부를 잊히게 할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그들이 이룬 가장 빛나는 무훈도 빛을 잃게 할 만큼 위대하고 기이한 무예의 업적을 이룰 것이니라. 충실하고 믿음직한 종자여, 너도 잘 보고 있을 것이다. 이 밤의 어둠과 그 기이한 고요, 이 나무들이 내는 먹먹하고 어지러운 소리, 우리가 찾아온 저 물의 무시무시한 소리, 달의 높은 산에서 곤두박질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저 소리, 그리고 우리 귀를 때리고 아프게 하는 저 그칠 줄 모르는 두들김을. 이것들은 다 함께든 하나씩이든 군신 마르스의 가슴에도 겁과 두려움과 공포를 불어넣기에 충분하니, 이런 일과 모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려 보인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내 용기를 북돋우고 일깨우는 것이어서, 이 모험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거기에 덤벼들고 싶은 마음에 벌써 가슴이 터질 것 같구나. 그러니 로시난테의 뱃대끈을 조금

조이고 하느님과 함께 남아 있거라. 여기서 사흘만 나를 기다려라. 그 사이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우리 마을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 친절을 베풀어 토보소로 가서, 비할 데 없는 나의 아씨 둘시네아께, 아씨께 사로잡힌 기사가 아씨의 기사라 불릴 자격을 얻을 일에 덤벼들다가 죽었다고 전해 다오."

산초는 주인의 말을 듣자 세상에서 더없이 애달프게 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리, 왜 나리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험에 덤벼들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밤이고,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으니,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는 한이 있어도 길을 틀어 위험을 피해 갈 수 있잖아요.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더 없을 테고요. 게다가 나리도 잘 아시는 우리 마을 신부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위험을 찾는 자는 위험 속에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기적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덤벼들어 하느님을 시험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담요에 실려 헹가래를 당했는데 나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셨고, 죽은 사람을 따라오던 그 많은 적들 사이에서 나리를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이기게 해 주셨으니, 하늘이 나리께 베푸신 기적은 그걸로 넉넉해요. 이 모든 말로도 그 굳은 마음이 움직이지도 누그러지지도 않는다면, 나리께서 여기를 떠나시자마자 제가 무서워서 제 넋을 아무나 가져가고 싶은 사람한테 내주고 말 거라는 걸 생각하고 믿어서라도 마음을 돌리세요. 저는 더 나아질 줄 알았지 더 못해질 줄은 모르고 나리를 모시러 고향을 떠났고 자식들이랑 마누라도 두고 왔어요. 그런데 욕심이 자루를 찢는다더니, 제 희망이 찢어지고 말았네요. 나리께서 그토록 여러 번 약속하신 그 시커멓고 재수 없는 섬을 얻을 희망이 가장 팔팔할 때, 나리께서는 그 대가로, 그 섬 대신에 저를 사람 사는 데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두려고 하시니까요. 하나뿐인 하느님을 걸고 비오니, 나리, 제게 그런 몹쓸 짓은 하지 마소서. 이 일에 덤벼드는 걸 아주 그만두지는 않으시겠다면 적어도 아침까지만이라도 미루세요. 제가 양치기 노릇을 할 때 배운 학문이 보여 주는 바로는 지금부터 새벽까지 세 시간도 안 남았을 거예요. 나팔자리 주둥이가 머리 위에 있고, 자정이 왼팔 줄에 걸려 있으니까요.[1]"

"산초,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밤이 이렇게 어두운데"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줄이 어디에 걸렸는지, 네가 말하는 그 주둥이니 뒤통수니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네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건 그래요."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겁은 눈이 많아서 땅속에 있는 것도 보는데, 하늘 위에 있는 거야 오죽하겠어요. 하긴 따져 보면 날이 샐 때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잘 알 수 있어요."

"얼마가 남았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이든 언제든 눈물과 애원 때문에 내가 기사의 법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산초, 부탁이니 잠자코 있거라. 이 보도 듣도 못한 무시무시한 모험에 지금 덤벼들 마음을 내 가슴에 넣어 주신 하느님께서 내 몸을 돌보시고 네 슬픔을 달래 주실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로시난테의 뱃대끈을 단단히 조이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곧 돌아오마."

산초는 주인의 마지막 결심을 보았고, 자기의 눈물과 충고와 애원이 주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꾀를 부려 할 수만 있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말의 뱃대끈을 조이면서 살그머니, 주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당나귀 고삐로 로시난테의 두 다리를 묶어 버렸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떠나려 했을 때 말은 깡충깡충 뛸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산초 판사는 속임수가 잘 먹혀든 것을 보고 말했다.

"그것 보세요, 나리. 하늘이 제 눈물과 기도에 마음이 움직여서 로시난테가 꼼짝 못 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나리께서 고집을 부리고 박차를 가하고 말을 때리시면, 그건 운명을 화나게 하는 거고, 사람들 말마따나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셈이에요."

이 말에 돈키호테는 애가 탔다. 그러나 말에 다리를 대고 차면 찰수록 말은 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가 묶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든지 로시난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든지 하기로 했다. 그는 틀림없이 이 일이 산초의 꾀가 아니라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로시난테가 움직일 수 없다니 나는 새벽이 웃음 지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마. 새벽이 늦게 오는 만큼 내가 울게 되더라도 말이다."
"우실 것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날이 샐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며 나리를 즐겁게 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편력 기사들이 하는 대로 말에서 내려 푸른 풀밭에 누워 잠깐 눈을 붙이셔도 되고요. 그러면 나리를 기다리는 이 어마어마한 모험에 덤벼들 날과 때가 왔을 때 더 개운하실 거예요."

"내리라니 무슨 소리냐, 자라니 무슨 소리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위험 앞에서 쉬는 그런 기사들 가운데 하나란 말이냐? 너는 자려고 태어났으니 너나 자거라.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나는 내 뜻에 가장 맞다고 보는 대로 하겠다."

"화내지 마세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주인에게 다가가 한 손은 앞 안장머리에, 다른 손은 뒤 안장머리에 얹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주인의 왼쪽 넓적다리를 끌어안은 꼴이 되었는데, 주인에게서 손가락 하나만큼도 떨어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직도 번갈아 울리는 두들기는 소리가 그만큼 무서웠다.

돈키호테는 약속한 대로 자기를 즐겁게 해 줄 이야기를 하나 해 보라고 했고, 산초는 들리는 소리가 무서워 견딜 수 없는 지경만 아니면 그러겠다고 했다.

"그래도 한번 애써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대로 들려 드리기만 하고 중간에 누가 막지만 않으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좋은 이야기예요. 나리, 귀 기울여 들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일은 모두에게 찾아오고, 나쁜 일은 그걸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 가거라…… 나리, 옛사람들이 옛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건 아무렇게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두세요. 로마 사람 카톤 손소리노(멍청이 감찰관)의 격언인데요, '나쁜 일은 그걸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지요. 이 말이 여기에 손가락에 반지처럼 꼭 맞아요. 나리께서 가만히 계시고 어디로든 나쁜 일을 찾으러 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길로 돌아가요. 무서운 일이 이렇게 많이 덮쳐 오는 이 길로 계속 가라고 우리를 억지로 미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이야기나 계속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가 갈 길은 나에게 맡겨 두고."

"그러니까요." 산초가 이어 갔다. "엑스트레마두라의 어느 마을에 양치기, 그러니까 산양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산양을 쳤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양치기, 아니 산양치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로페 루이스였어요. 그리고 이 로페 루이스는 토랄바라는 양치기 처녀한테 반해 있었는데, 토랄바라는 이 양치기 처녀는 부자 목장 주인의 딸이었고, 이 부자 목장 주인은……" "산초,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는 말마다 두 번씩 되풀이하면 이틀이 걸려도 못 끝낸다. 죽 이어서, 생각 있는 사람답게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을 거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산초가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옛이야기를 다 그렇게 해요. 저는 다르게 할 줄 모르고, 나리께서 저더러 새 버릇을 들이라고 하시는 것도 옳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운명이 내가 네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게 해 놓았으니, 계속해라."

"그러니까요, 제 영혼 같은 나리." 산초가 이어 갔다. "말씀드렸듯이 이 양치기는 양치기 처녀 토랄바한테 반해 있었는데, 토랄바는 통통하고 새침하고 좀 사내 같은 데가 있는 처녀였어요. 콧수염이 조금 났거든요.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너는 그 여자를 알았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가 안 건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 준 사람이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하도 확실하고 참말이라서, 남한테 이야기할 때 다 제 눈으로 봤다고 우기고 맹세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이 가고 날이 오고 하다 보니, 잠도 안 자고 무엇이든 휘저어 놓는 악마가 일을 꾸며서, 양치기가 양치기 처녀에게 품었던 사랑이 원한과 미움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입이 험한 사람들 말로는 그 까닭이 처녀가 양치기에게 안긴 자잘한 질투 몇 가지였는데, 그게 선을 넘어 금지된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양치기가 처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그 고장을 떠나 다시는 처녀가 눈에 띄지 않을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토랄바는 로페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걸 보자, 금세 전에 없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여자들의 타고난 성품이니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 말이다. 계속해라, 산초." "그런데" 산초가 말했다. "양치기가 마음먹은 대로 실행에 옮겨서 산양들을 앞세우고 엑스트레마두라 들판을 지나 포르투갈 왕국으로 건너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그걸 안 토랄바는 그를

뒤쫓아 갔는데,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목에는 안장 자루를 걸고, 맨발로 걸어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 자루에는 깨진 거울 조각 하나랑 빗 조각 하나랑, 얼굴에 바르는 분인지 뭔지 담은 작은 단지가 들어 있었대요. 그런데 무엇을 넣어 갔든, 저는 지금 그걸 캐고 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 말만 할게요. 사람들 말이, 양치기가 가축 떼를 몰고 과디아나강을 건너려고 갔는데, 그때 강물이 불어서 거의 둑을 넘칠 지경이었고, 그가 닿은 곳에는 큰 배도 작은 배도 없고 그와 가축 떼를 건너편으로 건네줄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몹시 애를 태웠어요. 토랄바가 벌써 바짝 다가오는 게 보였는데, 처녀가 애원하고 울고불고하며 몹시 성가시게 굴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리번거리며 다니다가 어부 하나를 보았는데, 그 곁에 아주 작은 배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 하나랑 산양 한 마리밖에 탈 수 없을 만큼 작은 배였어요. 그래도 그는 어부에게 말을 걸어, 자기와 몰고 가는 산양 삼백 마리를 건네 달라고 흥정을 했어요. 어부가 배에 올라 산양 한 마리를 건넸어요. 돌아와서 또 한 마리를 건넸어요. 또 돌아와서 또 한 마리를 건넸어요. 나리, 어부가 건네는 산양 수를 잘 세 두세요. 한 마리라도 기억에서 놓치면 이야기가 끝나 버리고 더는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럼 계속할게요. 건너편 뭍에 닿는 데는 진흙투성이에 미끄러워서, 어부가 갔다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그는 또 한 마리를 데리러 돌아왔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다 건넸다고 쳐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갔다 왔다 하지 마라. 그러다간 한 해가 걸려도 다 못 건넨다."

"지금까지 몇 마리나 건넜죠?" 산초가 말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제기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 보세요, 제가 잘 세 두시라고 했잖아요. 하느님께 맹세코 이야기는 끝났어요. 더는 못 나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건넌 산양 수를 하나하나 다 아는 것이 이야기에 그토록 요긴해서, 그 수에서 하나만 틀려도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없단 말이냐?"

"네, 나리, 절대로 못 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나리께 산양이 몇 마리 건넜는지 말씀해 달라고 여쭈었을 때 나리께서 모른다고 대답하신 바로 그 순간, 제가 할 이야기가 남김없이 제 기억에서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맹세코 아주 덕이 되고 재미난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냐?"

"우리 어머니만큼이나 끝났어요." 산초가 말했다.

"참말로 말하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세상에서 누구도 생각해 내지 못했을 가장 새로운 옛이야기, 아니 꾸민 이야기, 아니 사연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그만두는 법은 평생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기야 나는 네 훌륭한 머리에서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놀랍지는 않다. 아마도 이 그칠 줄 모르는 두들기는 소리가 네 정신을 어지럽혀 놓았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제 이야기에서 더 할 말이 없다는 건 확실해요. 산양 건넌 수를 틀리기 시작한 바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좋다, 어디서 끝나든 마음대로 끝나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로시난테가 움직일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다시 말에 다리를 대고 찼고, 로시난테는 다시 깡충 뛰었다가는 가만히 섰다. 그만큼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이때, 다가오는 새벽의 찬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산초가 저녁에 배를 무르게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었는지, 그도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가장 믿을 만한 것은 이것이다), 아무튼 산초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과 욕구가 들었다. 그러나 가슴속에

파고든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주인에게서 손톱 끝 때만큼도 떨어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도 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좋게좋게 일을 치르려고, 뒤 안장머리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풀어 그 손으로 살그머니, 아무 소리 없이, 다른 데 손 하나 빌리지 않고 바지를 붙들어 매던 올가미 매듭을 풀었다. 매듭을 풀자 바지는 곧장 흘러내려 족쇄처럼 발목에 걸렸다. 그다음 그는 셔츠를 최대한 걷어 올리고, 결코 작지 않은 두 엉덩이를 바깥 공기에 드러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는 이 무서운 곤경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이 할 일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곤경이 닥쳤다. 소리를 내지 않고는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깨를 움츠리며 숨을 있는 대로 들이마셔 참았다. 그러나 이렇게 갖은 애를 썼는데도 운이 나빠서, 끝내는, 끝내는 소리를 조금 내고 말았다. 그를 그토록 무섭게 한 그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돈키호테가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산초, 저게 무슨 소리냐?"

"모르겠어요, 나리." 그가 대답했다. "무슨 새로운 일인가 봐요. 모험이든 불운이든 작게 시작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해 보았고, 이번에는 아주 잘되어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나 소동 없이, 그토록 그를 괴롭히던 짐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났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귀만큼이나 코도 밝은 데다 산초가 바짝 붙어 꿰매 놓은 듯 붙어 있어서 김이 거의 곧장 위로 올라갔으므로, 그 가운데 얼마가 그의 코에 닿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이 코에 닿자마자 그는 두 손가락으로 코를 꽉 쥐어 막아 구원에 나섰고, 조금 코 막힌 소리로 말했다.

"산초, 너는 몹시 겁을 먹은 모양이구나."

"네, 겁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째서 하필 지금 그걸 아셨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네게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용연향 냄새는 아니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그건 제 탓이 아니라, 이런 시각에 이렇게 다닐 데가 아닌 데로 저를 끌고 다니시는 나리 탓이에요." "벗아, 서너 걸음 저리 물러나라." 돈키호테가 말했다(이 말을 하는 내내 그는 코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네 몸가짐과 내 몸에 대한 도리를 더 잘 차려라. 내가 너와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었구나."

"내기해도 좋아요." 산초가 맞받았다. "나리께서는 제가 몸으로 해서는 안 될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휘저을수록 더 고약해지는 법이다,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주인과 머슴은 이런 이야기,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러다 산초는 아침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로시난테를 풀어 주고 제 바지를 붙들어 맸다. 로시난테는 풀려나자, 타고나기를 기운찬 놈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느꼈는지 앞발로 땅을 차기 시작했다. 앞발을 들고 뛰어오르는 재주는, 로시난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할 줄 몰랐으니까. 돈키호테는 로시난테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좋은 징조로 여겼고, 그 무시무시한 모험에 덤벼들라는 징조라고 믿었다.

이 무렵 새벽이 다 밝아 사물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자, 돈키호테는 자기가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늘을 아주 짙게 드리우는 밤나무들이었다. 그는 두들기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무엇이 그 소리를 내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머뭇거리지 않고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산초에게 다시 작별을 고하면서, 전에도 말했듯이 길어야 사흘

동안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그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 위험한 모험에서 자기 생을 마치게 하시기로 하셨다고 굳게 믿으라고 일렀다. 그는 자기 대신 둘시네아 아씨에게 전할 말과 사연을 다시 일러 주었고, 산초가 섬긴 데 대한 품삯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거기에 산초가 일한 기간만큼 날수로 쳐서 품삯에 관한 것은 모두 보상받게 해 두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자기를 이 위험에서 탈 없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꺼내 주신다면 약속한 섬은 틀림없는 것보다 더 틀림없는 것으로 여겨도 좋다고 했다.

산초는 착한 주인의 애처로운 말을 다시 듣자 다시 울기 시작했고, 이 일의 마지막 고비와 끝까지 주인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 이야기의 작가는 산초 판사의 이 눈물과 이토록 갸륵한 결심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적어도 순수한 그리스도교 혈통이었으리라고 짐작한다. 산초의 이 마음씨에 주인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만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할 수 있는 한 시치미를 떼고, 물소리와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산초는 늘 하던 대로,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운명을 함께하는 영원한 길동무인 당나귀의 고삐를 끌고 걸어서 주인을 따라갔다. 그 밤나무들과 그늘진 나무들 사이를 한참 걸어가자 그들은 높은 바위 벼랑 발치에 펼쳐진 작은 풀밭에 이르렀는데, 그 벼랑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바위 발치에는 집이라기보다 무너진 건물 같은 허술한 집이 몇 채 있었고, 아직도 그치지 않는 그 두들기는 소리와 굉음이 그 집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렸다.

로시난테가 물소리와 두들기는 소리에 놀라 날뛰었다. 돈키호테는 말을 달래면서 조금씩 그 집들 쪽으로 다가갔는데, 이 무시무시한

여정과 거사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아씨에게 간청하며 온 마음으로 아씨께 몸을 맡겼고, 가는 길에 하느님께도 자기를 잊지 마시라고 몸을 맡겼다. 산초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그토록 애태우고 겁먹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보이려나 싶어 로시난테의 다리 사이로 목을 있는 대로 빼고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 백 걸음쯤 더 갔을까, 어느 모퉁이를 돌자 밤새 그들을 그토록 애태우고 겁먹게 한 그 요란하고, 그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소리의 원인이 다른 것일 수 없게 드러나 눈앞에 똑똑히 보였다. 그것은, 아아 독자여, 그대가 언짢아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면 말하겠는데, 축융 방아(모직 천을 두들겨 다지는 물방아)의 방망이 여섯 개였고, 그것들이 번갈아 두들기며 그 굉음을 내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자 말문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산초가 그를 바라보니, 그는 고개를 가슴께로 떨구고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돈키호테도 산초를 바라보니, 산초는 두 볼이 불룩하고 입안 가득 웃음을 물고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기색이 뚜렷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아무리 우울해도 산초를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산초는 주인이 웃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참고 있던 웃음을 어찌나 터뜨렸던지, 웃다가 배가 터지지 않도록 두 주먹으로 옆구리를 눌러야 했다. 네 번이나 웃음을 가라앉혔다가 그만큼 다시 처음과 같은 기세로 웃음을 터뜨렸다. 돈키호테는 이 꼴에 벌써 부아가 치밀었는데, 산초가 놀리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더욱 그랬다.

"'산초, 내 벗아, 알아 두어라. 나는 하늘의 뜻으로 이 철의 시대에 금빛 시대 또는 황금시대를 되살리려고 태어났다. 위험과 위대한 무훈과 용맹한 업적은 바로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산초는 무시무시한 두들기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돈키호테가 한 말을 다, 아니면 거의 다 되풀이했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자기를 놀리는 것을 보자 몹시 부끄럽고 화가 나서 긴 창을 들어 산초에게 두 대를 내리쳤다. 그 두 대를 등이 아니라 머리에 맞았더라면 주인은 그에게 품삯을 줄 걱정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상속인들에게 줄 품삯이라면 모를까. 산초는 장난이 이토록 험악한 꼴로 돌아오는 것을 보자, 주인이 더 나아가지 않을까 겁이 나서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진정하세요, 나리. 정말이지 농담이에요."

"자네가 농담을 한다고 해서 나까지 농담을 하는 건 아닐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리 오게, 명랑한 양반. 이것들이 축융 방아의 방망이가 아니라 다른 위험한 모험이었다면, 내가 거기 덤벼들어 끝장을 내는 데 걸맞은 용기를 보여 주지 않았을 것 같은가? 내가 기사라고 해서, 소리를 알아듣고 가려서 어느 것이 축융 방아 소리고 어느 것이 아닌지 알아야 할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게다가 정말로 그렇듯이 나는 평생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네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나고 자란 비루한 촌놈이니 틀림없이 보았겠지. 아니라면 이 여섯 방망이를 거인 여섯으로 바꿔서 하나씩이든 한꺼번에든 내 수염 앞에 내던져 보게.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모조리 벌렁 나자빠지게 하지 못하거든 그때는 자네 마음대로 나를 놀려도 좋네."

"그만하세요,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제가 좀 지나치게 웃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나리, 이제 우리가 화해했으니 말씀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리께 닥칠 모든 모험에서 이번 모험처럼 나리를 탈 없이 무사히 꺼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한 게 웃을 일이 아니었나요? 남한테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적어도 제가 무서워한 건요. 나리께서는 겁이 무엇인지도,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신다는 걸 저도 이미 아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웃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남에게

들려줄 만한 일은 아니다. 사람이 모두 일을 제자리에 놓을 줄 알 만큼 슬기로운 것은 아니니까."

"적어도"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는 그 긴 창을 제자리에 놓을 줄은 아셨지요. 제 머리를 겨누고는 등을 치셨으니까요. 하느님 덕분에, 그리고 제가 재빨리 몸을 비튼 덕분에요. 그래도 좋아요. 빨래를 하면 다 빠져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너를 울리는 사람이 너를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게다가 높은 나리들은 하인한테 험한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곧 바지 한 벌을 주곤 하잖아요. 몽둥이찜질을 하고 나서 무엇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편력 기사들이라면 몽둥이찜질 뒤에 섬이나 육지의 왕국을 주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주사위가 그렇게 굴러갈 수도 있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래서 네 말이 모두 참말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일은 용서해라. 너는 슬기로우니 처음 치미는 감정은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테지. 그리고 앞으로는 한 가지를 명심해서 나와 너무 많은 말을 나누는 것을 삼가고 자제해라. 내가 읽은 기사 소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어느 종자도 네가 네 주인과 말하는 것만큼 제 주인과 말을 많이 나눈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참말이지 나는 이것을 너와 나의 큰 허물로 여긴다. 너는 나를 하찮게 여기니 네 허물이고, 나는 나를 더 높이 여기게 하지 못하니 내 허물이다. 그렇고말고.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종자 간달린은 굳은 섬의 백작이 되었지만, 그가 언제나 모자를 손에 들고 머리를 숙이고 튀르크식으로(more turquesco) 허리를 굽혀 주인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돈 갈라오르의 종자 가사발은 뭐라 하겠느냐? 그는 말이 어찌나 없었던지, 그 놀라운 침묵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그 위대하고도 참된 이야기 전체에서 그의 이름이 딱 한 번만 나온다. 산초, 내가 한 이 모든 말에서 너는 주인과 머슴, 나리와 하인, 기사와 종자 사이에 구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더 정중하게 대하고 서로 놀리지 않기로 하세. 내가 무슨 까닭으로든 자네에게 화를 내게 되면 항아리만 손해를 보는 법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은혜와 혜택은 때가 되면 올 걸세. 오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품삯은 떼이지 않을 걸세. 전에도 말했듯이."

"나리 말씀이 다 옳아요." 산초가 말했다. "그런데 혹시 은혜를 받을 때가 오지 않아서 품삯을 받을 때에 기대야 한다면, 그 시절에 편력 기사의 종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미장이 일꾼처럼 달로 셈했는지 날로 셈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종자들이 품삯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은혜를 바라고 섬겼을 뿐이다. 내가 지금 집에 남겨 둔 봉인한 유언장에 네 품삯을 정해 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였다. 우리의 이 재난 많은 시대에 기사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도 모르겠고, 하찮은 일 때문에 내 영혼이 저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산초, 알아 두어라. 이 세상에 모험가의 신분보다 더 위험한 신분은 없느니라."

"정말 그래요." 산초가 말했다. "축융 방아 방망이 소리만으로도 나리처럼 용맹한 편력 모험가의 가슴이 그렇게 들썩이고 불안해졌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나리 일을 두고 재담을 부리려고 입술을 여는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셔도 돼요. 제 주인이자 타고난 나리로서 나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너는 땅 위에서 오래 살리라. 부모 다음으로는 주인을 부모처럼 공경해야 하느니라."

---

1. 「나팔자리」(la Bocina)는 북극성을 품은 작은곰자리를 사냥 나팔 모양으로 본 이름이다. 양치기들은 북극성 둘레를 도는 이 별자리를 몸에 대고 팔·머리의 방향으로

밤 시각을 헤아렸다.

제21장 맘브리노의 투구를 얻은 고귀한 모험과 값진 수확, 그리고 무적의 우리 기사에게 일어난 다른 일들

이때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자 산초는 축융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 고약한 장난 때문에 그것들이 몹시 싫어져서 결코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길을 오른쪽으로 틀어 전날 걸었던 것과 같은 다른 길로 들어섰다.

얼마 뒤 돈키호테는 말을 탄 사람 하나를 보았는데, 그 사람은 머리에 금으로 만든 것처럼 번쩍이는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를 보자마자 산초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산초, 내가 보기에 참되지 않은 속담은 하나도 없다. 속담이란 모두 모든 학문의 어머니인 경험 그 자체에서 뽑아낸 격언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속담이 그렇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간밤에 운명이 축융 방아로 우리를 속여 우리가 찾던 모험의 문을 닫았다면, 이제는 더 낫고 더 확실한 다른 모험으로 가는 다른 문을 활짝 열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탓이다. 축융 방아를 잘 몰랐다거나 밤이 어두웠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 하나가 머리에 맘브리노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 투구를 두고 맹세를 했느니라."

"나리, 말씀은 잘 보고 하시고 일은 더 잘 보고 하세요." 산초가 말했다. "저게 또 다른 축융 방아라서 우리 정신을 마저 두들겨 다지고 짓찧어 놓는 건 싫으니까요."

"이 망할 놈 같으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투구하고 축융 방아가 무슨 상관이냐?"

"저야 아무것도 모르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맹세코 제가 전처럼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이라는 걸 아시게 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의심 많은 배신자야,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잘못일 수 있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말해 보아라. 얼룩 회색 말을 타고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우리 쪽으로 오는 저 기사가 보이지 않느냐?" "제 눈에 보이고 어렴풋이 들어오는 건" 산초가 대답했다. "저 같은 갈색 당나귀를 타고 머리에 뭔가 번쩍이는 걸 쓴 사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맘브리노의 투구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한쪽으로 비켜서서 나 혼자 저자를 상대하게 두어라. 시간을 아끼려고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모험을 어떻게 끝내는지, 그토록 바라던 투구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비켜서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제발 저게 오레가노 같은 향초이고 축융 방아는 아니기를요."

"아우, 축융 방아 이야기는 꿈에서도 다시 꺼내지 말라고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맹세코…… 더는 말하지 않겠네만, 자네 넋을 축융 방아처럼 두들겨 주겠네."

산초는 주인이 공처럼 둥글게 다 채워 내뱉은 그 맹세를 지킬까 겁이 나서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보던 그 투구와 말과 기사의 내막은 이러했다. 그 근방에 마을이 둘 있었는데, 한 마을은 아주 작아서 약방도 이발사도 없었고, 그 곁의 다른 마을에는 둘 다 있었다. 그래서 큰 마을의 이발사가 작은 마을 일도 맡아보았는데, 그 작은 마을에서 병자 하나가 피를 뽑아야 하고 또 한 사람이 수염을 깎아야 했으므로 이발사가 놋대야 하나를 들고 그리로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오는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아마 새것이었을 모자가 얼룩지지 않도록 놋대야를 머리에 썼다. 대야가 깨끗했으므로 반 레과 밖에서도 번쩍번쩍 빛났다. 산초가 말한 대로 그는 갈색 당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이 돈키호테에게는 얼룩 회색 말과 기사와 황금 투구로 보인 까닭이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자기의 엉뚱한 기사도와 불운한 생각에 끼워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가엾은 기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로시난테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긴 창을 낮게 겨누어 들고 달려들었다. 그를 꿰뚫어 버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다다랐을 때, 내닫는 기세를 늦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몸을 지켜라, 이 비루한 놈아! 아니면 내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것을 순순히 내놓아라!"

이발사는 전혀 생각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그 유령 같은 것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자, 창에 찔리지 않으려면 당나귀에서 굴러떨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땅에 닿기가 무섭게 사슴보다 가볍게 일어나 바람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빠르게 그 벌판을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놋대야를 땅에 버려두고 갔고, 돈키호테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그 이교도가 슬기롭게 굴었다고, 비버를 흉내

냈다고 말했다. 비버는 사냥꾼들에게 쫓기면 타고난 본능으로 사냥꾼들이 무엇 때문에 저를 쫓는지 알고, 그것을 제 이빨로 물어뜯어 끊어 버린다고 한다. 그는 산초에게 투구를 주워 오라고 했다. 산초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말했다.

"맙소사, 이 놋대야 참 좋네요. 1마라베디가 1마라베디 값이듯이 8레알 은화 한 닢 값은 거뜬히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에게 건넸다. 주인은 그것을 곧장 머리에 쓰고 이리저리 돌려 가며 들어맞는 자리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이름난 투구를 처음 제 치수에 맞춰 벼리게 한 그 이교도는 틀림없이 머리가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다. 더 고약한 것은 이 투구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다." 산초는 놋대야를 투구라고 부르는 것을 듣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만, 주인이 화를 내던 일이 떠올라 웃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무엇이 우스우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웃음이 나는 건요" 그가 대답했다. "이 투구의 임자였던 그 이교도의 머리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 그래서예요. 이건 영락없이 이발사의 놋대야 같거든요." "산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느냐? 이 마법에 걸린 투구의 이 이름난 조각이 무슨 기이한 사고로 그 값어치를 알아보지도 귀히 여기지도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자는 그것이 순금으로 된 것을 보고,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값을 챙기려고 절반을 녹였을 테고, 남은 절반으로 이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네 말대로 이발사의 놋대야처럼 보이는 이것을 말이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 이것을 알아보는 내게는 그 모습이 바뀐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장장이가 있는 첫 마을에서 내가 이것을 고칠 것이다. 대장간의 신이 싸움의 신을 위해 벼려 만든 투구도 이것을 앞서지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말이다. 그동안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쓰고 다니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있는 편이 나으니까. 게다가 돌팔매 하나쯤 막기에는 넉넉할 것이다."

"그건 그렇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투석기로 던지지만 않는다면요. 두 군대가 싸울 때 그놈들이 나리 어금니에 성호를 그어 주고, 제 창자까지 다 토하게 만든 그 거룩하디거룩한 물약이 든 기름병을 깨뜨렸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 물약을 잃은 것은 그리 아깝지 않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 처방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저도 외우고 있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그걸 또 만들거나 맛이라도 보면 여기서 제 명이 다해도 좋아요. 게다가 그게 필요해질 일을 만들 생각도 없어요. 다치지도 않고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게 오감을 다 써서 조심할 거니까요. 담요에 실려 또 헹가래를 당하는 일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런 불운은 미리 막을 수가 없고, 닥치면 어깨를 움츠리고 숨을 참고 눈을 감고 운명과 담요가 데려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산초, 너는 나쁜 그리스도교 신자로구나." 이 말을 듣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한 번 당한 모욕을 절대 잊지 않으니 말이다. 자질구레한 일에 개의치 않는 것이 고귀하고 너그러운 가슴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라. 그 장난을 잊지 못할 만큼 네가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 갈비뼈가 부러졌느냐, 머리가 깨졌느냐? 잘 따져 보면 그것은 장난이요 놀이였다.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면 벌써 그리로 돌아가서, 납치된 헬레네를 위해 그리스 사람들이 저지른 것보다 더 큰 해를 네 원수를 갚느라 끼쳤을 것이다. 그 헬레네가 지금 시대에 살았거나 나의 둘시네아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헬레네는 지금처럼 아름답다는 명성을 얻지 못했으리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는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이 구름에 닿을 듯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장난이었다고 쳐요. 참말로 원수를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참말과 장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제가 알고, 그게 제 등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제 기억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요. 그건 그렇고, 나리, 갈색 당나귀처럼 보이는 이 얼룩 회색 말을 어떻게 할지 말씀해 보세요. 나리께서 쓰러뜨린 그 마르티노가 여기 버려두고 갔잖아요. 그자가 발에 먼지를 날리며 빌라디에고 줄행랑을 놓은 걸 보면 다시 찾으러 올 낌새는 전혀 없어요. 내 수염을 걸고 말하는데, 이 당나귀 참 좋네요!"

"나는 내가 이긴 자들에게서 빼앗는 버릇이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긴 사람이 싸움에서 제 말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진 자들의 말을 빼앗고 그들을 걷게 하는 것은 기사도의 관습이 아니다. 그런 경우라면 진 자의 말을 정당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 그러니 산초, 그 말인지 당나귀인지, 네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든 그것을 그냥 두어라. 우리가 여기서 멀어진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다."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걸 끌고 가고 싶어요." 산초가 맞받았다. "아니면 적어도 제 당나귀하고 바꾸고 싶어요. 제 건 이만큼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기사도의 법이란 참 빡빡하기도 하네요. 당나귀 하나를 다른 당나귀로 바꾸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그럼 마구라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미심쩍을 때는, 더 잘 알게 될 때까지, 네가 정말로 몹시 필요하다면 바꾸어도 좋다고 하마."

"얼마나 몹시 필요하냐 하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몸에 쓸 거라 해도 이보다 더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그 허락을 얻은 김에 곧장 망토 바꾸기(mutatio caparum)[1]를 해서 자기 당나귀를 기막히게 멋지게 꾸며 주었다. 마치 상속분을 3분의 1에 5분의 1까지 더 얹어 받은 자식처럼 당나귀 신세가 나아졌다. 일을 마치자 그들은 짐 노새에게서 빼앗은 진영의 남은 먹을거리로 점심을 먹고 축융 방앗간 개울물을 마셨지만, 고개를 돌려 방앗간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기들을 그토록 겁에 질리게 한 그것들이 그만큼 싫었다.

이렇게 노여움도, 우울함까지도 가시자 그들은 다시 말과 당나귀에 올랐다. 그들은 정해진 길을 잡지 않았다. 어떤 길도 확실히 정하지 않는 것이 편력 기사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시난테의 뜻이 가는 대로 길을 걸었는데, 로시난테의 뜻은 주인의 뜻을 제 뒤에 끌고 갔고, 어디로 가든 늘 사이좋게 정답게 로시난테를 따라가는 당나귀의 뜻까지 끌고 갔다. 그래도 그들은 다시 큰길로 돌아와 다른 아무 계획 없이 운에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나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나리께서 그 엄한 침묵 명령을 내리신 뒤로 제 배 속에서 썩어 버린 게 네 가지도 넘어요. 지금 제 혀끝에 걸려 있는 이것 하나만은 썩히고 싶지 않아요."

"말해 보아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짧게 해라. 길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요 며칠 사이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리께서 이런 황무지와 갈림길을 다니며 찾으시는 이런 모험을 찾아다녀 봐야 얻는 것도 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위험한 모험을 이기고 끝내도 그걸 보거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 모험들은 나리의 뜻에도 그 모험들이 받아야 할 대접에도 어긋나게 영원히 묻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리 생각이 더 나으시면 몰라도, 우리가 어느 황제나 전쟁을 치르는 다른 큰 군주를 섬기러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리께서 섬기는 동안 나리의 용맹과 엄청난 힘과 그보다 더 큰 슬기를 보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나리가 그걸 보시면 우리에게 저마다 공로에 따라 상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 테고, 거기서는 나리의 무훈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글로 남길 사람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제 무훈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종자의 테두리를 벗어날 리 없으니까요. 그래도 기사도에서 종자의 무훈도 글로 쓰는 관습이 있다면, 제 무훈이 줄과 줄 사이에 묻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네 말이 틀리지는 않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런 끝에 이르기 전에, 이를테면 수습을 하듯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몇 가지 모험을 끝내 이름과 명성을 얻어, 어느 위대한 군주의 궁정에 갈 때쯤에는 기사가 이미 자기 업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가 성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모두 그를 따라다니고 둘러싸며 소리치기를, '이분이 태양의 기사다' 또는 뱀의 기사다, 아니면 그가 큰 무훈을 이룰 때 내건 다른 어떤 문장의 기사다 할 것이다. '이분이' 하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큰 힘의 거인 브로카브루노를 일대일 결투로 무찌른 분이요, 페르시아의 대맘루크를 거의 구백 년 동안 걸려 있던 긴 마법에서 풀어 준 분이다.' 이렇게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네 업적을 외치고 다닐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 나라의 왕이 왕궁 창가에 나와 설 것이다. 왕은 기사를 보자마자 갑옷이나 방패의 문장으로 그를 알아보고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어서! 내 궁정에 있는 기사들은 모두 나가, 저기 오시는 기사도의 꽃을 맞이할지어다!' 그 분부에 모두가 나갈 것이고, 왕은 계단 한중간까지

내려와 그를 꼭 끌어안고 얼굴에 입 맞추며 평화의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의 손을 잡고 왕비의 거처로 데려갈 것이다. 거기서 기사는 왕비가 공주인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공주는 이 땅의 알려진 곳 대부분을 다 뒤져도 좀처럼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리땁고 흠 없는 아가씨일 것이다. 그 뒤에 곧바로 공주는 기사에게 눈길을 주고 기사는 공주에게 눈길을 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라기보다 신에 가까운 존재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은 풀 수 없는 사랑의 그물에 사로잡히고 얽혀, 어떻게 말을 건네야 제 그리움과 마음을 털어놓을지 몰라 가슴에 큰 시름을 품게 되리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를 화려하게 꾸민 궁전 어느 방으로 데려가 갑옷을 벗겨 주고, 몸에 두를 화려한 진홍빛 망토를 가져다줄 것이다. 갑옷을 입었을 때도 멋졌지만 웃옷 차림일 때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멋져 보일 것이다. 밤이 되면 그는 왕과 왕비와 공주와 함께 저녁을 먹을 텐데, 둘레 사람들 몰래 공주를 훔쳐보며 한시도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고, 공주도 똑같이 영리하게 똑같이 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공주는 아주 슬기로운 아가씨니까. 식탁을 치우고 나면 뜻밖에 큰 방 문으로 못생긴 난쟁이 하나가 아리따운 시녀 부인 하나를 데리고 들어올 것이다. 시녀 부인은 두 거인 사이에 서서 난쟁이 뒤를 따라오는데, 아주 오래된 어느 현자가 꾸민 모험 하나를 가지고 온다. 그 모험을 끝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왕은 곧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명할 것이고, 손님으로 온 기사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끝내고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의 명성을 크게 드높일 것이고, 공주는 몹시 기뻐하며, 자기 마음을 그토록 높은 곳에 두고 바친 것을 흡족하고 보람 있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왕인지 군주인지 무엇인지가 자기만큼 강한 다른 왕과 몹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손님 기사는 (그 궁정에 며칠 머문 끝에) 그 전쟁에 나가 왕을 섬기게 해 달라고 허락을 청한다. 왕은 기꺼이 허락할 것이고, 기사는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며 정중하게 왕의 손에 입 맞출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공주가 자는 방 쪽으로 난 정원의 창살 너머로 아씨인 공주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다. 전에도 여러 번 그 창살 너머로 공주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공주가 몹시 믿는 시녀 하나가 그 사이를 이어 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고, 공주는 까무러치고, 시녀는 물을 가져오고, 아침이 다가오므로 시녀는 몹시 애를 태울 것이다. 아씨의 명예를 생각해 두 사람이 들키기를 바라지 않을 테니까. 마침내 공주는 정신을 차리고 창살 사이로 흰 두 손을 기사에게 내밀 것이고, 기사는 그 손에 천 번 또 천 번 입 맞추며 눈물로 적실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어떻게 알릴지 약속을 정할 것이고, 공주는 되도록 빨리 돌아와 달라고 그에게 부탁할 것이며, 그는 숱한 맹세로 그러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그는 다시 공주의 손에 입 맞추고, 어찌나 애달프게 작별하는지 하마터면 목숨이 끊어질 뻔한다. 그는 그곳을 떠나 제 방으로 가서 침대에 몸을 던지지만 이별의 아픔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왕과 왕비와 공주에게 작별을 고하러 간다. 왕과 왕비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자 사람들이 그에게 공주 아씨는 몸이 편치 않아 손님을 맞을 수 없다고 말한다. 기사는 그것이 자기가 떠나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하마터면 그 아픔을 겉으로 드러낼 뻔한다. 다리를 놓아 준 그 시녀가 그 자리에 있다가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아씨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아씨는 눈물로 시녀를 맞으며 가장 큰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자기 기사가 누구인지, 왕가의 혈통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녀는 자기 기사가 지닌 것만큼의 예의와 기품과 용기는 왕가의 고귀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담을 수 없다고 아씨를 안심시킨다.

가엾은 공주는 이 말로 위안을 얻는다. 부모에게 자기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달래려 애쓰다가, 이틀 뒤에 사람들 앞에 나선다. 기사는 이미 떠났다. 그는 전쟁에서 싸우고, 왕의 적을 무찌르고, 수많은 도시를 차지하고, 수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궁정으로 돌아와 늘 만나던 곳에서 아씨를 만나고, 그 공로의 대가로 공주를 아내로 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청하기로 약속한다. 왕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딸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납치를 해서든 다른 어떤 수를 써서든 공주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 아버지는 이 일을 큰 행운으로 여기게 된다. 그 기사가 어느 나라인지 모를 나라의 용맹한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그 나라는 지도에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고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으니, 두말할 것 없이 기사가 왕이 된다. 여기서 곧 자기 종자와, 자기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시작된다. 그는 자기 종자를 공주의 시녀와 짝지어 주는데, 그 시녀는 틀림없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 준 그 시녀일 것이고, 아주 높은 공작의 딸이다."

"바로 그거예요, 속임수 없이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다릴래요.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이름을 가지신 나리께 그 일이 다 글자 그대로 일어날 테니까요."

"의심하지 마라,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내가 이야기한 바로 그대로, 바로 그 단계를 밟아 편력 기사들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또 되어 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교도의 왕이든 이교도의 왕이든,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름다운 딸이 있는 왕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했듯이, 궁정에 가기 전에 먼저 다른 곳에서 명성을 얻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자란 것이 또 하나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름다운 딸이 있는 왕을 찾았고, 내가 온 우주에 믿기 어려운 명성을

얻었다 해도, 내가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아니면 적어도 황제의 육촌이라는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이름난 업적이 아무리 그럴 자격이 있다 해도, 왕은 먼저 이 점을 아주 잘 알기 전에는 내게 딸을 아내로 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이 모자람 때문에 내 팔이 마땅히 얻을 것을 잃을까 두렵다. 하기야 나는 이름난 가문의 시골 귀족이고, 그 신분을 실제로 누리고 소유하며, 모욕을 당하면 오백 수엘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몸이다.[2] 그러니 내 이야기를 쓸 현자가 내 친척과 혈통을 잘 가려내어, 내가 어느 왕의 오대손이나 육대손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산초, 알아 두어라. 세상에는 두 가지 가문이 있다. 하나는 군주와 임금에게서 혈통을 끌어내려오다가 세월이 조금씩 허물어 거꾸로 세운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해지고 만 가문이고, 또 하나는 낮은 사람들에게서 시작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마침내 큰 귀족이 된 가문이다. 그러니 그 차이는, 한쪽은 예전에 대단했으나 지금은 아니고, 다른 쪽은 지금 대단하나 예전에는 아니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내가 앞쪽 가문이어서, 따져 보고 나면 내 시작이 위대하고 이름났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장차 내 장인이 될 왕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주가 나를 몹시 사랑해서, 내가 물장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더라도 제 아버지가 반대하든 말든 나를 주인이자 남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때는 공주를 납치해서 내 마음 내키는 곳으로 데려가는 수가 있다. 세월이나 죽음이 그 부모의 노여움을 끝내 줄 테니까."

"거기에는" 산초가 말했다. "몹쓸 인간들이 하는 말도 잘 들어맞네요.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좋게 달라고 빌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이 더 잘 들어맞겠어요. '점잖은 사람들의 탄원보다 덤불에서 뛰쳐나가 달아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나리의 장인이 되실

임금님이 우리 공주 아씨를 나리께 내주는 데 고분고분하지 않으시면, 나리 말씀대로 아씨를 납치해서 딴 데로 모셔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라를 평화롭게 누리게 될 때까지 가엾은 종자는 은혜고 뭐고 이빨만 쳐다보며 굶어야 한다는 거죠.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다리 놓은 시녀가 공주와 함께 달아나서, 하늘이 다른 일을 정하실 때까지 종자가 그 여자와 함께 고생을 견디는 거라면 또 몰라도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 주인이 곧바로 그 시녀를 종자에게 정식 아내로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다면야"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께 몸을 맡기고, 운이 가장 좋은 길로 흘러가게 두는 수밖에 없지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산초, 네가 필요로 하는 대로.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가 비천한 자이니라."

"하느님께 맹세코 그러기를 바라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백작이 되는 데는 그거면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는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왕이 되면 네가 귀족 신분을 사지 않아도, 나를 위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너에게 귀족 신분을 줄 수 있으니까. 너를 백작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너는 영락없는 귀족이다. 남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맹세코 그들은 싫든 좋든 너를 각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제가 그 칭오를 번듯하게 갖출 줄 모를 것 같아요!" 산초가 말했다. "칭오가 아니라 칭호라고 해야지." 주인이 말했다.

"그러죠, 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아무튼 저는 그걸 잘 갖출 줄 안다니까요. 제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한때 저는 어느 신심회의 심부름꾼이었는데요, 심부름꾼 옷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다들 저더러

그 신심회 회장도 할 만한 풍채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공작의 긴 예복을 걸치거나 외국 백작처럼 금과 진주로 차려입으면 어떻겠어요? 제 생각엔 백 레과 밖에서도 저를 보러 올 거예요." "보기 좋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수염은 자주 깎아야 할 것이다. 네 수염은 숱이 많고 덥수룩하고 제멋대로 났으니,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면도칼로 밀지 않으면 총 한 방 닿을 거리에서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게 뭐 어려워요?" 산초가 말했다. "이발사를 하나 데려다가 집에 두고 품삯을 주면 되죠. 필요하면 대귀족의 말 시종처럼 제 뒤를 따라다니게 할 거예요."

"그런데 대귀족들이 말 시종을 뒤에 데리고 다닌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말씀드릴게요." 산초가 대답했다. "몇 해 전에 제가 궁정에 한 달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니 아주 작은 나리 한 분이 거닐고 있었는데 다들 그분이 아주 큰 분, 대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돌든 말을 탄 사람 하나가 줄곧 따라다니는 거예요. 꼭 그분의 꼬리 같았어요. 저 사람은 왜 그분과 나란히 가지 않고 늘 뒤에서만 따라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말 시종인데 대귀족들은 그런 사람을 뒤에 데리고 다니는 게 관습이라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걸 아주 잘 알게 돼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네 말이 옳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이발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관습이란 한꺼번에 다 생겨난 것도, 단번에 다 지어낸 것도 아니니까. 네가 자기 이발사를 뒤에 데리고 다니는 첫 백작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수염을 깎는 일은 말에 안장을 얹는 일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다."

"이발사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왕이 되셔서 저를 백작으로 만드는 일이나 맡으세요."

"그렇게 하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는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

1. 추기경들이 부활절 무렵 겨울 망토를 여름 망토로 갈아입던 교회의 관습을 가리킨다. 산초가 마구를 바꿔 단 일을 그 엄숙한 이름으로 부른 농담이다.

2. 카스티야 옛 법에서 시골 귀족이 모욕을 당하면 오백 수엘도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오백 수엘도를 받을 귀족」은 확실한 귀족 신분을 뜻하는 상투어였다.

제22장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억지로 끌려가던 불운한 이들을 돈키호테가 풀어 준 일

아랍인이자 라만차 사람인 작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더없이 엄숙하고, 드높이 울리고, 더없이 자잘하고, 달콤하고, 상상으로 지어낸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전한다.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 사이에 제21장 끝에 적힌 그 이야기가 오간 뒤,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 보니 그가 가던 길로 사람 열두어 명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묵주알처럼 목이 커다란 쇠사슬 하나에 줄줄이 꿰여 있었고 모두 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말 탄 사람 둘과 걸어가는 사람 둘이 오고 있었는데, 말 탄 사람들은 바퀴 격발식 총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투창과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산초 판사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건 갤리선 죄수들 행렬이에요. 임금님께 억지로 끌려가서 갤리선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억지로 끌려가다니?" 돈키호테가 물었다. "임금이 누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갤리선에서 억지로 임금님을 섬기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어떻게 된 일이든, 이 사람들은 끌려가기는 하지만 억지로 가는 것이지 제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죠." 산초가 말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말했다. "여기야말로 내 직분을 실행할 자리로다. 억지로 당한 일을 풀어 주고, 불쌍한 이들을 돕고 구하는 것 말이다."

"나리, 알아 두세요." 산초가 말했다. "임금님 그 자체인 법은 저런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거나 억울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벌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때 갤리선 죄수들의 행렬이 다가왔다. 돈키호테는 아주 정중한 말로 그들을 지키며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까닭, 아니 무슨 까닭들로 저 사람들을 저렇게 끌고 가는지 알려 주고 말해 주십사 하고 청했다. 말 탄 호송병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갤리선 죄수, 갤리선으로 가는 국왕 폐하의 사람들이니 더 할 말도 없고 당신이 더 알 것도 없다고 했다.

"그래도"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이들 하나하나에게서 저마다 어떤 불운을 겪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소."

그는 이 말에 또 이런저런 아주 점잖은 말을 보태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게 하려고 그들을 움직였으므로, 다른 말 탄 호송병이 이렇게 말했다. "이 불운한 놈들 하나하나의 판결 기록과 증서를 여기 가지고 가긴 하지만, 지금 멈춰서 그걸 꺼내 읽을 때가 아니오. 나리가 가서 저놈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마음이 내키면 말할 거요. 내킬 거요.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는 걸 즐기는 놈들이니까."

돈키호테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허락을 얻었을 터였으나 이렇게 허락을 얻자 행렬로 다가가, 맨 앞 사람에게 무슨 죄로 이렇게 험한 꼴로 가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탓에 이런 꼴로 간다고 대답했다. "그것뿐이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갤리선으로 보낸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서 노를 젓고 있었을 것이오."

"나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오."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내 사랑은 흰 빨래가 그득 든 빨래 광주리에 반한 거였소. 어찌나 꼭 끌어안았던지 법이 억지로 빼앗아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제 발로는 놓지 않았을 거요. 현장에서 딱 걸려서 고문할 것도 없었소. 재판은 끝났고, 내 등에 매 백 대를 얹어 주고, 덤으로 구라파스 꼬박 세 해를 주더니 일이 끝났소."

"구라파스가 뭐요?" 돈키호테가 물었다.

"구라파스란 갤리선이오."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그는 스물네 살쯤 된 젊은이였고, 피에드라이타 태생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두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것을 물었다. 그는 어찌나 슬프고 우울했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그를 대신해 대답했다.

"나리, 이놈은 카나리아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노래꾼, 가수로 말이오."

"아니" 돈키호테가 되물었다. "노래꾼과 가수도 갤리선에 간단 말이오?"

"그렇소, 나리."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괴로울 때 노래하는 것만큼 나쁜 일도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돈키호테가 말했다. "노래하는 자는 제 시름을 쫓는다고 들었소."

"여기선 거꾸로요."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한 번 노래한 자는 평생 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자 호송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이 거룩하지 못한 무리 사이에서 '괴로울 때 노래한다'는 건 고문을 받다가 자백한다는 뜻이오. 이 죄인은 고문을 받고 제 죄를

자백했는데, 그게 가축 도둑, 그러니까 짐승을 훔치는 도둑질이었소. 자백을 했으니 갤리선 여섯 해 판결을 받았고, 그 밖에 등에 매 이백 대를 이미 맞았소. 그래서 늘 시름에 잠겨 슬픈 얼굴로 다니는 거요. 저쪽에 남은 도둑들이나 여기 함께 가는 도둑들이나 저놈을 들볶고 짓밟고 놀리고 업신여기거든. 자백을 하고 '아니'라고 버틸 배짱이 없었다고 말이오. 저놈들 말로는 '아니'에도 '그래'만큼 글자가 있고, 증인이나 증거가 아니라 제 혀에 제 목숨이 걸려 있는 죄인은 큰 복을 타고난 거라는 거요. 내가 보기에도 저놈들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세 번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은 것을 물었다. 그는 냉큼, 아주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10두카도가 모자라서 구라파스 마님한테 다섯 해 동안 가는 길이오." "그 괴로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20두카도를 내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건 말이오"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돈을 가지고도 필요한 걸 살 데가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 꼴이오. 이 말을 하는 건, 나리가 지금 주겠다는 그 20두카도가 제때 내게 있었다면 그걸로 서기의 펜에 기름칠을 하고 소송 대리인의 머리를 깨워 놓아서, 오늘 이렇게 사냥개처럼 목줄에 매여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톨레도의 소코도베르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을 거라는 거요. 그러나 하느님은 위대하시니, 참는 수밖에. 그만하겠소."

돈키호테는 네 번째 사람에게로 갔다. 그는 가슴 아래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에 점잖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여기 오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듣자 울기 시작하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섯 번째 죄수가 그의 혀 노릇을 하며 말했다.

"이 점잖은 양반은 늘 다니는 그 거리들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말을 탄 채 한 바퀴 돈 다음, 네 해 동안 갤리선으로 가는 길이오."

"그러니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가 보기엔 조리돌림을 당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소." 갤리선 죄수가 맞받았다. "이런 벌을 받은 죄목은 귀로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 아니 온몸으로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 노릇을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신사는 뚜쟁이 죄로 가는 거요. 게다가 마법사 티도 좀 났고."

"그 마법사 티만 보태지 않았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저 깨끗한 뚜쟁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갤리선에 노를 저으러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갤리선을 지휘하고 갤리선의 총사령관이 되어야 마땅하오. 뚜쟁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것은 슬기로운 사람의 일이며 질서가 잘 잡힌 나라에 더없이 필요한 일이니,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오. 다른 직업에도 있듯이 그런 사람들을 감독하고 시험하는 관리가 있어야 하고, 거래소의 중개인처럼 정해진 인원을 두어 누가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하오. 그러면 이 일과 직업이 어리석고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이를테면 별 볼 일 없는 아낙네들이나 나이 어리고 경험 없는 시동과 어릿광대들 손에 놀아나는 바람에 생기는 숱한 해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오. 이런 자들은 가장 요긴한 때에, 중요한 꾀를 내야 할 때가 되면 빵 부스러기가 입과 손 사이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어느 쪽이 오른손인지도 모르오. 나라에서 그토록 요긴한 직업을 맡을 사람을 왜 가려 뽑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그 까닭을 밝히고 싶지만, 여기는 그럴 자리가 아니오. 언젠가 그것을 마련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겠소. 지금은 다만 이 말만 하겠소. 이 흰 머리와 이 점잖은 얼굴이 뚜쟁이 죄로 이토록 고생하는 것을 보고 느낀 내 안타까움은 마법사라는 덧붙은 죄목 때문에 싹

가셨소. 하기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의 뜻을 움직이고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마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우리의 자유 의지는 자유로운 것이어서 어떤 풀도 어떤 주문도 그것을 억지로 바꾸지 못하오. 어리석은 아낙네들과 사기꾼 악당들이 흔히 하는 짓은 무슨 혼합물이나 독약을 만들어 남자들을 미치게 하면서, 그것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오. 내가 말했듯이 사람의 뜻을 억지로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오." "그렇습니다요." 그 착한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정말이지, 나리, 마법사라는 데는 저는 죄가 없습니다. 뚜쟁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그게 나쁜 짓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죠. 제가 바란 건 오로지 온 세상 사람들이 싸움도 괴로움도 없이 즐겁게, 평화롭고 고요하게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좋은 뜻도 다시 돌아오리라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걸 막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무겁고, 오줌 병까지 있어서 잠시도 쉬지 못하니까요."

그러고는 처음처럼 다시 울기 시작했다. 산초는 그가 몹시 가엾어서 품속에서 4레알 은화 한 닢을 꺼내 적선으로 주었다.

돈키호테는 다음으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죄목을 물었다. 그는 앞사람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당당하게 대답했다.

"내가 여기 가는 건 내 사촌 누이 둘하고, 또 내 누이가 아닌 다른 누이 둘하고 너무 지나치게 장난을 쳤기 때문이오. 결국 그 여자들 모두와 어찌나 장난을 쳤던지, 그 장난 끝에 집안 식구가 불어났는데, 어찌나 얽히고설켰는지 어떤 악마도 그 촌수를 풀지 못할 거요. 모든 게 증명되었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마터면 목줄을 잃을 뻔했는데, 갤리선 여섯 해 판결을 받았고 나는 받아들였소. 내 죄의 벌이니까. 나는 젊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얻는 법이오. 기사 나리, 이 가엾은 놈들을 도와줄 무엇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갚아 주실 거요. 우리는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리의 목숨과 건강을 하느님께 빌겠소. 나리의 훌륭한 풍채에 걸맞게 오래도록 좋으시라고."

이 사람은 학생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호송병 하나가 말하기를, 그는 대단한 말재주꾼이고 라틴어를 썩 잘한다고 했다.

이들 모두의 뒤로 서른 살쯤 된, 생김새가 아주 훤한 사내 하나가 오고 있었는데, 다만 무엇을 볼 때면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조금 몰리는 사팔뜨기였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묶여 있었는데, 발에 찬 쇠사슬이 어찌나 길던지 온몸에 칭칭 감겨 있었고 목에는 쇠고리를 둘 차고 있었다. 하나는 쇠사슬에 달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구 지킴이」 또는 「친구 발판」이라고 부르는 목고리였다. 거기서 쇠막대 두 개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쇠막대에 수갑 두 개가 걸려 있어 그 수갑에 두 손이 채워져 있었는데, 수갑이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그는 손을 입까지 올릴 수도 없고 머리를 숙여 손에 닿게 할 수도 없었다. 돈키호테는 저 사람은 어째서 다른 이들보다 그렇게 많은 사슬을 차고 가느냐고 물었다. 호송병은 그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이들의 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그가 어찌나 대담하고 어찌나 대단한 악당인지, 이렇게 묶어 끌고 가는데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달아나지 않을까 겁이 난다고 했다.

"무슨 죄가 있기에 그렇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래 봐야 갤리선에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벌은 받지 않았는데 말이오."

"열 해 동안 가는 거요." 호송병이 맞받았다. "시민으로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더 알려 하지 마시오. 이 양반이 그 이름난 히네스 데 파사몬테, 다른 이름으로 히네시요 데 파라필라라고 부르는 놈이라는 것만 알면 되오."

"호송관 나리" 그러자 그 갤리선 죄수가 말했다. "살살 좀 하쇼. 지금 이름이니 별명이니 따지고 들 것 없잖소. 내 이름은 히네스지 히네시요가 아니고, 내 집안은 파사몬테지 댁이 말하는 파라필라가 아니오. 저마다 제 둘레나 한 바퀴 돌아보쇼.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닐 테니."

"말투를 좀 낮추시지." 호송관이 맞받았다. "치수를 훌쩍 넘는 도둑 나리, 싫든 좋든 내가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오."

"사람이 하느님 뜻대로 끌려가는 건 잘 알겠소." 갤리선 죄수가 대답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누군가 내 이름이 히네시요 데 파라필라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이 사기꾼아?" 호송병이 말했다.

"부르긴 하지." 히네스가 대답했다. "그래도 다시는 그렇게 못 부르게 만들 거요. 못 하면 내가 이 사이로만 중얼거리는 거기 털을 몽땅 뽑혀도 좋소. 기사 나리, 우리한테 줄 게 있으면 어서 주고 잘 가쇼. 남의 인생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 이제 짜증이 나오. 내 인생을 알고 싶거든 알아두쇼. 나는 히네스 데 파사몬테고, 내 인생은 이 엄지손가락들로 다 써 놓았소."

"그건 참말이오." 호송관이 말했다. "이놈은 제 손으로 제 이야기를 썼소. 그건 틀림없소. 그리고 그 책을 감옥에 이백 레알에 저당 잡혀 두고 가는 길이오." "이백 두카도에 잡혀 있다 해도 되찾을 작정이오." 히네스가 말했다. "그렇게 훌륭한 책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히네스가 대답했다. "『라사리요 데 토르메스』[1]도, 그런 부류로 쓰였거나 앞으로 쓰일 책들도 다 울고 갈 거요. 댁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책은 참말을 다루는데 그 참말이

어찌나 멋지고 재미있는지 어떤 거짓말도 그것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히네스 데 파사몬테의 생애』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 다 끝냈소?" 돈키호테가 물었다.

"내 인생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가 대답했다. "책이 어떻게 끝날 수 있겠소? 써 놓은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번에 또 갤리선으로 보내진 때까지요."

"그렇다면 전에도 갤리선에 간 적이 있다는 말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느님과 임금님을 섬기느라 전에도 네 해 동안 있었소. 그래서 건빵 맛도 채찍 맛도 이미 알지." 히네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거기 가는 게 그리 서운하지도 않소. 거기 가면 내 책을 끝낼 짬이 날 테니까.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 에스파냐의 갤리선에는 필요한 것보다 한가한 시간이 많소. 하기야 내가 쓸 것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소.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재주가 있어 보이는구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불운하지." 히네스가 대답했다. "불운이란 늘 좋은 재주를 쫓아다니니까."

"악당을 쫓아다니는 거지." 호송관이 말했다.

"호송관 나리, 아까도 말했지만" 파사몬테가 대답했다. "살살 좀 하쇼. 그 높은 양반들이 그 지팡이를 준 건 여기 가는 가엾은 우리를 못살게 굴라는 게 아니라, 국왕 폐하가 명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데려가라는 거요. 그러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걸고……! 그만두지. 언젠가 빨래할 때 객줏집에서 묻은 얼룩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 다들 입

다물고, 착하게 살고, 말은 더 착하게 하고, 길이나 갑시다. 이만하면 노닥거릴 만큼 노닥거렸소."

호송관은 파사몬테의 협박에 대한 대답으로 그를 치려고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그를 못살게 굴지 말라고 청했다. 손이 그렇게 꽁꽁 묶인 사람이니 혀라도 조금 풀려 있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 그러고는 쇠사슬에 묶인 이들 모두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더없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내게 한 모든 말에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냈소. 그대들은 제 죄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앞으로 겪을 형벌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며, 아주 마지못해, 제 뜻과는 몹시 어긋나게 그 벌을 받으러 가고 있소. 그리고 저 사람이 고문을 받을 때 배짱이 모자랐던 것, 이 사람에게 돈이 없었던 것, 또 저 사람에게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 마지막으로 재판관의 비뚤어진 판결이, 그대들을 망치고 그대들 편에 있던 정의를 얻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을지도 모르오.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기억 속에 떠올라 나에게 말하고, 나를 설득하고, 아니 억지로 시키고 있소. 하늘이 나를 세상에 던져 기사도를 받들게 하고, 그 기사도에서 궁핍한 이들과 힘센 자에게 짓눌린 이들을 돕겠다고 한 맹세를 하게 한 그 뜻을, 이제 그대들에게 보여 주라고 말이오. 그러나 좋게 할 수 있는 일을 나쁘게 하지 않는 것이 분별의 한 부분임을 알기에, 나는 이 호송병 나리들과 호송관 나리께 그대들을 풀어 주고 평화롭게 가게 해 주십사 청하려 하오. 더 좋은 때에 임금을 섬길 다른 사람들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오. 하느님과 자연이 자유롭게 만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가혹한 일로 보이기 때문이오. 게다가 호송병 나리들"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이 가엾은 이들이 그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오. 저마다 제 죄는 저쪽에서 제가 알아서 할 일이오.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셔서 악한 자를 벌하고 착한 자에게 상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니, 점잖은

사람들이 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남의 형리 노릇을 하는 것은 옳지 않소.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차분하게 청하는 것은, 그대들이 들어주면 그대들에게 고마워할 일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오. 그러나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창과 이 칼이 내 팔의 용맹과 더불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 것이오."

"참 재미있는 헛소리로군!" 호송관이 대답했다. "한참 만에 나온 재담치고는 아주 그럴싸하네! 임금님의 죄수들을 내놓으라니, 우리가 그들을 풀어 줄 권한이 있기라도 하고 저 양반이 그걸 우리한테 명할 권한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리, 잘 가시오. 가던 길이나 가시오. 머리에 쓴 그 요강이나 똑바로 고쳐 쓰고, 고양이 발이 세 개인지 찾으러 들지 마시오." "고양이도 그대요, 쥐도 그대요, 악당도 그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말과 동시에 어찌나 재빨리 그에게 덤벼들었던지, 호송관은 막을 틈도 없이 창에 크게 찔려 땅에 나가떨어졌다. 다행히도 그는 총을 든 자였다. 다른 호송병들은 뜻밖의 일에 얼이 빠지고 넋이 나갔으나, 정신을 차리자 말 탄 자들은 칼을, 걸어가던 자들은 투창을 잡고 아주 침착하게 그들을 기다리던 돈키호테에게 덤벼들었다. 갤리선 죄수들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고 저희를 줄줄이 꿰어 묶은 쇠사슬을 끊으려고 애써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혼쭐이 났을 것이다. 소동이 어찌나 컸던지 호송병들은 풀려나는 죄수들에게 달려가랴 자기들에게 덤벼드는 돈키호테에게 덤벼들랴 아무 쓸모 있는 일도 하지 못했다. 산초는 산초대로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풀려나는 것을 도왔다. 히네스는 맨 먼저 거리낌 없이 몸을 빼 들판으로 뛰어나가더니, 쓰러진 호송관에게 덤벼들어 그의 칼과 총을 빼앗았다. 그가 그 총으로 이 사람을 겨누고 저 사람을 가리키자, 한 번도 쏘지 않았는데도 들판에 호송병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파사몬테의 총을 피해, 그리고 이미 풀려난 죄수들이

던지는 숱한 돌팔매를 피해 다들 달아나 버렸다. 산초는 이 일에 몹시 시름에 잠겼는데, 달아난 자들이 이 일을 성스러운 형제단에 알릴 테고, 형제단은 경종을 울리며 죄인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당장 여기를 떠나 가까이 있는 산속에 숨자고 청했다.

"그것도 좋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내가 안다."

그리고 그는 갤리선 죄수들을 모두 불렀다. 그들은 시끌벅적 소란을 피우며 호송관의 옷을 홀랑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놓은 참이었는데, 무엇을 시키려는지 보려고 모두 그를 빙 둘러섰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할 일이며, 하느님을 가장 노엽게 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은 내게서 받은 은혜를 이미 똑똑히 겪어 보았기 때문이오. 그 대가로 내가 바라는 것, 내 뜻은 이것이오. 내가 여러분의 목에서 벗겨 준 그 쇠사슬을 짊어지고 곧장 길을 떠나 토보소 마을로 가서, 거기서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 앞에 나아가, 아씨의 기사인 슬픈 얼굴의 기사가 아씨께 안부를 여쭈라고 여러분을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바라던 자유를 얻기까지 이 이름난 모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해 드리시오. 그 일을 마치면 여러분은 가고 싶은 곳으로 행운을 빌며 가도 좋소."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모두를 대신해 대답했다.

"우리 나리이자 해방자이신 나리,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은 불가능 중에서도 불가능해서 할 수가 없소. 우리는 함께 길을 갈 수가 없고, 따로따로 흩어져 저마다 제 길로 가서 땅속 깊이 숨어들어야 하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 나설 성스러운 형제단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말이오. 나리께서 할 수 있고 또 하는 게 옳은 일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 바치는 그 봉사와 통행세를 성모송과 사도 신경 몇 번으로 바꾸는 거요. 그건 우리가 나리의 뜻을 위해 바치겠소. 그건 밤이든 낮이든, 달아나면서든 쉬면서든, 평화로울 때든 싸울 때든 할 수 있는 일이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집트의 고기 가마로, 그러니까 쇠사슬을 다시 걸머지고 토보소 가는 길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 아침 열 시도 안 됐는데 지금이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우리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건 느릅나무에서 배를 찾는 격이오."

"맹세코!" 이미 화가 치민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화냥년의 자식 나리, 히네시요 데 파로필로 나리, 아니면 네 이름이 무엇이든, 너 혼자서라도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쇠사슬을 몽땅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이다."

파사몬테는 참을성이 조금도 없는 자인 데다, 자기들을 풀어 주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을 보고 돈키호테가 그리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터라, 그런 대접을 받자 동료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이 한쪽으로 물러서더니 돈키호테 위로 어찌나 많은 돌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던지, 그는 둥근 방패로 몸을 가리기에도 손이 모자랐다. 가엾은 로시난테는 마치 청동으로 만든 말처럼 박차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산초는 제 당나귀 뒤에 숨어 그것을 방패 삼아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구름 같은 돌우박을 막았다. 돈키호테는 아무리 막아도 몇 개인지 모를 자갈에 몸을 맞았는데,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땅에 나동그라졌다. 그가 쓰러지자마자 그 학생이 덤벼들어 그의 머리에서 놋대야를 벗겨 내더니, 그것으로 그의 등을 서너 번 치고 땅바닥에도 그만큼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 버렸다. 그들은 그가 갑옷 위에 걸치고 있던 짧은 웃옷을 벗겨 갔고, 정강이 받이만 아니었더라면 긴 양말까지 벗겨 가려 했다. 산초에게서는 외투를 빼앗아 속옷

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싸움에서 거둔 나머지 전리품을 저희끼리 나눠 갖고 저마다 제 길로 흩어졌는데, 쇠사슬을 짊어지고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 앞에 나아갈 걱정보다는 두려운 형제단을 피해 달아날 걱정이 더 컸다.

당나귀와 로시난테, 산초와 돈키호테만 남았다. 당나귀는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겨 이따금 귀를 털었는데, 아직도 돌팔매 폭풍이 그치지 않아 제 귀를 쫓아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로시난테는 또 하나의 돌팔매에 맞아 함께 땅에 나동그라진 주인 곁에 누워 있었다. 산초는 속옷 바람으로 성스러운 형제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푼 바로 그자들에게 이토록 험한 꼴을 당한 것을 보고 더없이 침울해 있었다.

---

1. 1554년에 나온 작자 미상의 소설. 가난한 소년 라사리요가 여러 주인을 섬기며 겪은 일을 1인칭으로 털어놓은 책으로, 이른바 악한 소설(피카레스크)의 시작으로 꼽힌다.

제23장 이름난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일, 이 참된 이야기에 나오는 가장 희한한 모험 가운데 하나

돈키호테는 자기가 이토록 험한 꼴이 된 것을 보고 종자에게 말했다.

"산초, 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다에 물을 붓는 것이라는 말을 나는 늘 들어 왔다. 네가 한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괴로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일이니 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지."

"제가 튀르크 사람인 만큼이나 나리께서 교훈을 얻으시겠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제 말을 믿었더라면 이 화를 피했을 거라고 하시니, 이번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더 큰 화를 피하실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성스러운 형제단 앞에서는 기사도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편력 기사를 다 합쳐도 2마라베디어치로도 안 치거든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게, 벌써 그 사람들 화살이 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 같아요."

"산초, 너는 타고난 겁쟁이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고집불통이라서 네 충고는 한 번도 듣지 않는다는 말을 네가 하지 못하도록, 이번만은 네 충고를 받아들여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노여움에서 비켜나 주마.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가 겁이 나서 이 위험에서 물러나 비켜났다고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네 애원을 들어주려고 그랬다고 해야 한다. 네가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니,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를 거짓말쟁이라 하노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마다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는 대꾸하지 마라. 내가 어떤 위험에서, 특히 겁이라는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비치는 듯한 이번 위험에서 물러나 비켜난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벌써 여기 남아서 혼자 기다리고 싶어진다. 네가 말하고 네가 무서워하는 성스러운 형제단뿐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형제들과 마카베오 일곱 형제와 카스토르와 폴룩스 형제,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와 형제단까지도 말이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물러나는 건 달아나는 게 아니고, 위험이 희망보다 클 때 버티고 기다리는 건 슬기가 아니에요. 오늘 몸을 아껴 내일을 대비하고 하루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게 슬기로운 사람이 할 일이고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게, 저는 무지렁이 촌놈이지만 사람들이 훌륭한 다스림이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은 알아요. 그러니 제 충고를 받아들이신 걸 뉘우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으면 로시난테에 오르세요. 못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 머리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손보다 발이 더 필요하대요."

돈키호테는 더 대꾸하지 않고 말에 올랐다. 산초가 당나귀를 타고 앞장서서, 그들은 바로 곁에 있던 시에라 모레나 한 자락으로 들어섰다. 산초는 이 산을 통째로 가로질러 비소나 알모도바르 델 캄포로 빠져나갈 작정이었고, 형제단이 자기들을 찾더라도 들키지 않도록 그 험한 산속에 며칠 숨어 있을 생각이었다. 그가 이렇게 마음먹은 데는 갤리선 죄수들과 한바탕 싸우는 와중에도 당나귀에 실려 있던 먹을거리가 무사히 남은 것을 본 것도 힘이 되었는데, 죄수들이 무엇을 찾아내 가져갔는지를 생각하면 그는 그것을 기적으로 여겼다.

돈키호테는 그 산속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기뻐졌다. 그곳이 자기가 찾는 모험에 알맞은 곳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외지고 험한 곳에서 편력 기사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나아갔는데, 어찌나 그 생각에 빠지고 넋을 빼앗겼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산초도 안전한 데를 지나고 있다고 여기게 된 뒤로는 성직자들에게서 털어 온 것 가운데 남은 먹을거리로 제 배를 채우는 것 말고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나귀 위에 여자처럼 옆으로 걸터앉아 주인 뒤를 따라가면서 자루에서 꺼내서는 제 배 속에 쑤셔 넣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는 다른 모험을 찾는 일 따위에 한 푼어치 관심도 없었다.

그러다 그가 눈을 들어 보니 주인이 멈춰 서서 땅에 떨어진 무슨 꾸러미 같은 것을 긴 창끝으로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하면 주인을 도우려고 서둘러 다가갔다. 그가 다다랐을 때 마침 주인이 긴 창끝으로 안장 방석 하나와 거기 매달린 가방 하나를 들어 올리고 있었는데, 둘 다 반쯤 썩었거나 아주 썩어서 너덜너덜했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산초가 당나귀에서 내려 그것을 받아야 했고, 주인은 그에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라고 했다.

산초는 아주 재빨리 그렇게 했다. 가방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찢어지고 썩은 틈으로 안에 든 것이 보였다. 고운 네덜란드 아마포 셔츠 네 벌과 다른 리넨 물건들이었는데 깨끗한 만큼이나 정성들여 만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손수건 하나에는 에스쿠도 금화가 수북하게 싸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말했다.

"온 하늘이여, 복 받으소서! 드디어 쓸모 있는 모험을 하나 내려 주셨네!"

그리고 더 뒤지다가 화려하게 꾸민 작은 비망록 하나를 찾아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달라고 하고, 돈은 산초더러 간수해서 가지라고

했다. 산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인의 손에 입 맞추고, 가방에서 리넨 물건들을 털어 내어 먹을거리 자루에 넣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내 생각에는, 아니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데, 길 잃은 어느 길손이 이 산을 지나다가 흉악한 놈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고, 놈들이 그를 이렇게 깊숙이 숨은 곳으로 끌고 와 묻은 것 같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도둑들이었다면 이 돈을 여기 두고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말이 옳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짐작도 안 가고 감도 잡히지 않는구나. 그러나 기다려 보아라. 이 작은 비망록에 무엇이라도 적혀 있다면, 그것을 실마리 삼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더듬어 알아낼 수 있을지 보자."

그는 비망록을 펼쳤다. 거기서 맨 먼저 찾아낸 것은 초고처럼 적혀 있으나 글씨는 아주 좋은 소네트 한 편이었는데, 산초도 들을 수 있게 소리 내어 읽어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의 신에게 앎이 모자라든가,
잔인함이 넘치든가, 아니면 내 괴로움이
가장 모진 고문으로 나를 내모는
그 까닭에 걸맞지 않은 것이리라.
그러나 사랑이 신이라면, 이는 곧
모르는 것이 없다는 증거요, 신이 잔인할 리
없다는 것도 옳은 이치로다. 그러면 누가
내가 우러르며 느끼는 이 끔찍한 아픔을 정하는가?
필리여, 그것이 그대라 한다면 틀린 말이리라.
그토록 큰 선 속에 그토록 큰 악이 깃들 수 없고,
이 파멸이 하늘에서 내게 온 것도 아니니.
나는 머지않아 죽으리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일.
까닭을 알 수 없는 병에
맞는 약을 찾는 것은 기적이니.

"그 노랫가락만으로는" 산초가 말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네요. 거기 나오는 그 일로(hilo), 그러니까 실 끝을 잡고 실타래를 다 풀어내면 몰라도요."

"여기 무슨 실이 있다는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리께서 거기서 '일로'라고,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요." 산초가 말했다.

"나는 '필리'라고 했을 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 소네트를 쓴 사람이 원망하는 귀부인의 이름일 것이다. 그리고 맹세코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시인이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시를 잘 모르는 것이지."

"그럼 나리께서는" 산초가 말했다. "노랫가락도 아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나의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 처음부터 끝까지 시로 쓴 편지를 가져가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산초, 알아 두어라. 지난 시대의 편력 기사들은 모두, 아니면 대부분 위대한 음유 시인이자 위대한 음악가였다. 이 두 가지 재주, 아니 더 잘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재능은 사랑에 빠진 편력 기사에게 딸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옛 기사들의 노래는 솜씨보다는 기백이 더 낫기는 하다."

"나리, 더 읽어 보세요." 산초가 말했다. "우리 궁금증을 풀어 줄 게 나오겠지요."

돈키호테는 장을 넘기고 말했다.

"이것은 산문이다. 편지 같구나."

"보내는 편지요, 나리?" 산초가 물었다.

"첫머리를 보니 연애편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럼 나리, 소리 내어 읽어 주세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이런 연애 이야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산초가 청한 대로 소리 내어 읽어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의 거짓 약속과 나의 틀림없는 불운이 나를 어느 곳으로 데려가니, 내가 원망하는 말보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먼저 네 귀에 돌아갈 것이다. 아, 배은망덕한 이여,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때문에 나를 버렸다. 그러나 덕이 귀히 여겨지는 재산이라면 나는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지도 내 불행을 울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의 아름다움이 쌓아 올린 것을 너의 행실이 허물어 버렸다.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네가 천사라고 알았고, 행실을 보고 나는 네가 여자임을 안다. 내 싸움을 일으킨 이여, 평안히 있거라. 부디 하늘이 네 남편의 속임수를 늘 감추어 주어, 네가 저지른 일을 뉘우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앙갚음을 하지 않게 되기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편지로는 시보다도 알아낼 것이 더 적구나. 이것을 쓴 사람이 버림받은 어느 연인이라는 것밖에는."

그리고 비망록을 거의 다 넘겨 보니 다른 시와 편지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읽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모두에 담긴 것은 원망과 탄식, 의심, 기쁨과 쓰라림, 호의와 냉대였고, 어떤 것은 기리고 어떤 것은 울며 노래한 것이었다.

돈키호테가 비망록을 넘기는 동안 산초는 가방을 뒤졌다. 가방에도 안장 방석에도 찾고 살피고 캐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고, 뜯지 않은 솔기도, 빗질하듯 헤집지 않은 양털 한 오라기도 없었다. 부지런하지 못하거나 소홀해서 무엇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찾아낸 에스쿠도 금화가 백 닢이 넘었으니 군침이 그만큼 돋을 만도 했다. 그는 이미 찾은 것 말고는 더 찾지 못했지만, 담요 위로 날아오른 일, 물약을 토한 일, 말뚝이 내린 축복, 노새꾼의 주먹질, 안장 자루를 잃은 일, 외투를 도둑맞은 일, 착한 주인을 섬기며 겪은 그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단함이 다 보람 있었다고 여겼다. 찾아낸 것을 넘겨받은 은혜로 넉넉하고도 남게 보상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슬픈 얼굴의 기사는 그 가방 임자가 누구인지 몹시 알고 싶었다. 소네트와 편지, 금화, 그 훌륭한 셔츠들로 미루어 그는 그 임자가 사랑에 빠진 어느 지체 높은 사람일 것이고, 귀부인의 냉대와 몹쓸 대접 때문에 무슨 절망적인 처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험한 곳에는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로시난테가 가고 싶어 하는 길, 곧 로시난테가 걸을 수 있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을 잡지 않았는데, 그 덤불 속에서 무슨 기이한 모험이 없을 리 없다는 생각을 줄곧 품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가다가 그는 눈앞에 솟은 작은 산 꼭대기 위로 한 사내가 바위에서 바위로, 덤불에서 덤불로 놀랍도록 가볍게 뛰어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보였다. 수염은 검고 덥수룩했으며, 머리털은 숱이 많고 헝클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에 다리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다. 넓적다리는 황갈색 벨벳으로 보이는 반바지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찌나 갈가리 찢어졌던지 여러 군데로 살이 드러나 보였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사내는 앞서 말한 대로 그렇게 가볍게 지나갔지만, 슬픈 얼굴의 기사는 이 자잘한 것들을 모두 보고 눈여겨 두었다. 그는 사내를 뒤쫓으려 애썼으나 따라갈 수가 없었다. 로시난테는 그 험한 길을 다닐 만큼 튼튼하지 못했고, 게다가 타고나기를 걸음이 짧고 느릿느릿한 놈이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곧 저 사내가 안장 방석과 가방의 임자라고 짐작했고, 그를 찾을 때까지 한 해 동안 이 산속을 헤매게 되더라도 그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산초에게 당나귀에서 내려 산 한쪽으로 질러가라고 하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토록 서둘러 그들 앞에서 사라진 그 사내와 마주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건 못 하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 곁을 떠나기만 하면 금세 겁이 저한테 들러붙어서 온갖 놀람과 헛것으로 저를 덮치거든요. 그러니 제 말씀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제가 나리 곁에서 손가락 하나만큼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자." 슬픈 얼굴의 기사가 말했다. "네가 내 용기에 기대고 싶어 하니 나는 몹시 기쁘다. 네 몸에서 넋이 빠져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 용기는 네게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천천히,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눈을 등불처럼 밝혀라. 우리는 이 작은 산을 한 바퀴 돌아볼 것이다. 어쩌면 아까 본 그 사내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그 사내는 틀림없이 우리가 찾은 물건의 임자일 것이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그 사람을 안 찾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 사람을 찾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돈 임자라면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쓸데없이 애쓰지 말고 제가 그 돈을 선의로 가지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러다가 다른 길로, 이렇게 꼬치꼬치 캐고 애쓰지 않아도 진짜 임자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보고요. 어쩌면 그때쯤이면 제가 돈을 다 써 버렸을 테고, 그러면 임금님이 저를 빚에서 풀어 주실 거예요." "산초, 그것은 네 생각이 틀렸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임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고, 그 임자가 거의 눈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를 찾아서 돌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가 그를 찾지 않는다 해도, 그가 임자라는 강한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정말 임자인 것과 다름없는 허물을 지게 된다. 그러니 산초, 내 벗아, 그를 찾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찾으면 내 괴로움이 덜어질 테니까."

그러고는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했고, 산초는 늘 함께하는 당나귀를 타고 그를 따라갔다. 산을 한 자락 돌아가자 그들은 개울가에서 안장과 재갈을 얹은 노새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개들이 반쯤 뜯어 먹었고 까마귀들이 쪼아 놓았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달아난 그 사내가 노새와 안장 방석의 임자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들이 노새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축을 지키는 목동이 부는 것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들의 왼편에 산양 떼가 꽤 많이 나타났고, 그 뒤로 산 위에 산양들을 지키는 산양치기가 나타났는데 나이 든 사람이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소리쳐 자기들이 있는 데로 내려와 달라고 청했다. 그는 산양이나 늑대나 그 근방을

돌아다니는 다른 짐승의 발이 아니고는 밟는 일이 좀처럼, 아니 전혀 없는 이런 곳에 누가 당신들을 데려왔느냐고 소리쳐 대답했다. 산초가 내려오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산양치기는 내려왔고, 돈키호테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말했다.

"보아하니 저 골짜기에 죽어 있는 세 낸 노새를 보고 계시는군요. 맹세코 저 노새는 저기 있은 지 벌써 여섯 달이나 됐습죠. 말씀해 보세요. 여기 어디서 그 임자를 만나셨나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안장 방석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찾았을 뿐이오."

"저도 그 가방을 봤습니다." 산양치기가 대답했다. "그래도 무슨 탈이 날까 봐, 훔친 물건이라고 내놓으라고 할까 봐 한 번도 줍거나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악마는 교활해서, 사람 발밑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걸려 넘어질 것을 솟아나게 하거든요."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도 그걸 봤는데 돌을 던져 닿을 거리만큼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그대로 두었으니 거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방울 단 개는 싫거든요."

"말해 보시오, 착한 양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는 이 물건들 임자가 누구인지 아시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산양치기가 말했다. "한 여섯 달쯤 전, 많게 잡든 적게 잡든 그쯤 전에, 여기서 3레과쯤 떨어진 양치기 움막에 풍채 좋고 늠름한 젊은이 하나가 찾아왔습죠. 저기 죽어 있는 바로 그 노새를 타고, 나리들이 찾았지만 손대지 않았다는 바로 그 안장 방석과 가방을 싣고서요. 그 사람이 이 산에서 가장 험하고 깊이 숨은 데가 어디냐고 묻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여기서 반 레과만 더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리 오는 길도 오솔길도 없는데 나리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지 놀랍습니다. 아무튼 그 젊은이는 우리 대답을 듣자 고삐를 돌려 우리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는데, 우리는 다들 그 사람 풍채가 좋아 흐뭇해하면서도 그런 걸 묻는 것과, 그 사람이 서둘러 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뒤로는 다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그 사람이 우리 양치기 하나가 가는 길에 나타나서 아무 말도 없이 다가와 주먹질에 발길질을 마구 하더니, 짐 싣는 암탕나귀한테 가서 싣고 있던 빵과 치즈를 몽땅 빼앗아 갔어요. 그러고는 놀랍도록 가볍게 다시 산속으로 숨어 버렸고요. 우리 산양치기 몇이 이 일을 알고 이 산에서 가장 우거진 데를 거의 이틀 동안 뒤졌는데, 마침내 굵고 우람한 코르크참나무 구멍 속에 들어앉은 그 사람을 찾았습죠. 그 사람은 아주 순하게 우리 앞에 나왔어요. 옷은 벌써 찢어졌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햇볕에 그을려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다만 옷이 찢어지긴 했어도 우리가 그 옷을 기억하고 있었던 덕에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몇 마디 안 되지만 아주 훌륭한 말로, 자기가 이런 꼴로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숱한 죄 때문에 받은 어떤 고행을 치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청했지만 끝내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테니,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일러 달라고, 그러면 아주 정성껏 가져다주겠다고 했습죠. 그것도 싫다면 적어도 양치기들한테서 빼앗지 말고 나와서 달라고 하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 제의에 고마워하고, 지난번에 덤벼든 일은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빌어먹겠다고 했어요. 사는 곳에 대해서는, 밤이 덮치는 데가 어디든 그곳 말고는 다른 데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고는 어찌나 애달프게 울며 말을 맺던지,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모습과 그때 모습을 떠올리며 함께

울지 않았다면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돌로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아주 늠름하고 잘생긴 젊은이였고, 정중하고 조리 있는 말솜씨로 보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궁정 사람다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촌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 기품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촌스러움 그 자체에게도 그걸 알아보게 할 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창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멈추더니 말문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땅바닥에 눈을 박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모두 숨죽이고 넋을 놓은 채 그 넋 나간 모습이 어떻게 끝날지 기다렸어요. 그 꼴을 보니 적잖이 가엾었습죠. 눈을 크게 떴다가,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참 동안 땅바닥만 뚫어지게 보다가, 또 어떤 때는 입술을 꽉 다물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눈을 감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미친 발작이 그 사람한테 닥쳤다는 걸 쉽게 알았어요. 그 사람은 곧 우리 생각이 맞았다는 걸 보여 주었어요. 누워 있던 땅바닥에서 몹시 사납게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곁에 있던 사람한테 어찌나 기세등등하고 사납게 덤벼들었던지, 우리가 떼어 놓지 않았다면 주먹질과 이빨로 물어뜯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내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신의를 저버린 페르난도야! 여기서, 바로 여기서 네가 내게 저지른 부당한 짓의 값을 치르게 하마. 이 두 손으로 네 심장을 꺼내 주마. 온갖 악이 함께 깃들고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심장, 무엇보다 사기와 속임수가 깃든 그 심장을!' 그리고 거기에 다른 말들도 보탰는데, 모두 그 페르난도를 욕하고 배신자에 신의를 저버린 놈이라고 몰아붙이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적잖이 애를 써서 그 사람을 떼어 놓았는데, 그 사람은 더 아무 말도 없이 우리를 떠나 이 바위장미 덤불과 가시덤불 사이로 달려 들어가 숨어 버려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따금 미친 증세가 온다는 것과, 페르난도라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무슨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걸 보면 그 짓이 꽤

무거운 것이었으리라고 짐작했어요. 그 뒤로 이 짐작은 다 맞아떨어졌습죠. 그 사람이 길에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때는 양치기들한테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빌고, 어떤 때는 억지로 빼앗아 갔어요. 미친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양치기들이 순순히 내주어도 받지 않고 주먹질로 빼앗아 가고, 제정신일 때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정중하고 점잖게 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눈물까지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리들, 정말로 말씀드리는데요" 산양치기가 이어 갔다. "어제 저하고 젊은 목동 넷이, 둘은 제 머슴이고 둘은 제 벗인데,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기로 마음먹었어요. 찾으면 억지로든 좋게든 여기서 8레과 떨어진 알모도바르 고을로 데려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고쳐 주고, 제정신일 때 누구인지, 그 불운을 알릴 친척이 있는지 알아볼 작정입니다. 나리들, 물으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리들이 찾은 물건의 임자는 바로 나리들이 본, 벌거벗은 만큼이나 가볍게 지나가던 그 사람이라고 알아 두세요." 돈키호테가 그 사내가 산을 뛰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미 산양치기에게 말해 둔 터였다.

돈키호테는 산양치기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놀랐고, 그 불운한 미치광이가 누구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미 생각해 둔 대로, 그를 찾을 때까지 산속 구석구석, 동굴 하나 빼놓지 않고 살피며 온 산을 뒤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운은 그가 생각하거나 바란 것보다 더 잘 일을 꾸며 주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이어진 산의 골짜기 사이로 그가 찾던 젊은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무어라 혼잣말을 하며 오고 있었는데, 가까이서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니 멀리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차림새는 앞서 그린 그대로였는데, 다만 가까이 오자 돈키호테는 그가 걸친 갈가리 찢어진 가죽 조끼가 용연향을

먹인 것임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가장 낮은 신분은 아닐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젊은이는 그들에게 다가오자 쉬고 거친 목소리로,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돈키호테도 그 못지않게 점잖게 인사를 돌려주었고, 로시난테에서 내려 늠름한 몸가짐과 멋진 태도로 그를 끌어안으러 갔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한참 동안 그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우리가 돈키호테를 슬픈 얼굴의 기사라 부르듯이 꼴사나운 얼굴의 누더기 사내라고 부를 수 있을 그 사람은, 돈키호테에게 안겨 있다가 그를 조금 떼어 놓고 두 손을 돈키호테의 어깨에 얹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기가 아는 사람인지 보려는 것 같았는데, 돈키호테가 그를 보고 놀란 것 못지않게 그도 돈키호테의 얼굴과 풍채와 갑옷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결국 껴안은 뒤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누더기 사내였고, 그가 한 말은 뒤에서 이야기하겠다.

제24장 시에라 모레나의 모험을 이어 간다

이야기는 전한다. 돈키호테는 누더기를 걸친 산의 기사의 말을 더없이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이어 이렇게 말했다.

"나리, 그대가 누구든 나는 그대를 모르지만, 그대가 내게 보여 준 마음과 예의에 참으로 감사하오. 그대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며 내게 보여 준 호의를 마음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처지라면 좋으련만, 내 운명은 내게 베풀어지는 친절에 보답할 것으로 그 친절을 갚고 싶은 좋은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구려."

"내 바람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대를 섬기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그대를 찾아 그대에게서 직접 알아낼 때까지 이 산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소. 그대가 그 기이한 삶에서 드러내는 그 괴로움에 무슨 약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면 있는 힘을 다해 찾으려고 말이오. 그리고 그대의 불운이 모든 위안에 문을 닫아걸어 버린 불운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대와 함께 그 불운을 울고 슬퍼해 줄 생각이었소. 불행 속에서도 그 불행을 함께 아파해 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래도 위안이 되기 때문이오. 그리고 내 좋은 뜻이 어떤 예의로든 보답받을 만하다면, 나리, 그대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보이는 그 크나큰 예의를 걸고 그대에게 비오. 아울러 그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거나 지금 사랑하는 것을 걸고 간청하오. 그대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 외딴 곳에서 짐승처럼 살고 죽으려고 왔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대의 옷차림과 몸이 보여 주듯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아주

잃어버린 채 짐승들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오. 그리고 맹세하오."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부족하고 죄 많은 몸이지만 내가 받은 기사도와 편력 기사라는 신분을 걸고, 나리, 그대가 이 일로 내 청을 들어준다면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성을 다해 그대를 섬기겠소. 그대의 불운에 약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 주고, 약이 없다면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와 함께 울어 주겠소."

숲의 기사는 슬픈 얼굴의 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저 그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다 그를 한참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먹을 것이 있거든 하느님의 사랑으로 좀 주시오. 먹고 나면 여기서 내게 보여 준 그 좋은 뜻에 감사하는 뜻으로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곧 산초는 자루에서, 산양치기는 가죽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냈고, 누더기 사내는 그것으로 허기를 채웠다. 그는 받은 것을 넋 나간 사람처럼 어찌나 허겁지겁 먹던지 한 입과 다음 입 사이에 틈이 없었고, 삼킨다기보다 집어삼켰다. 그가 먹는 동안에는 그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먹기를 마치자 그는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그들이 따라가자 그는 그들을 거기서 조금 떨어진 바위 모퉁이를 돌아 있는 작은 푸른 풀밭으로 데려갔다. 거기에 이르자 그는 풀 위 땅바닥에 몸을 눕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마침내 누더기 사내가 자리를 잡고 앉은 뒤에 말했다.

"여러분, 내 끝없는 불운을 짧은 말로 들려주기를 바라신다면, 어떤 질문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내 슬픈 이야기의 실마리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하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멈출 테니까."

누더기 사내의 이 말에 돈키호테는, 강을 건넌 산양 수를 맞히지 못해 종자의 이야기가 매달린 채 끝나 버렸던 그 옛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러나 누더기 사내에게로 돌아가자면, 그는 말을 이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내 불운한 이야기를 짧게 지나가고 싶어서요. 그 불운을 떠올리는 것은 새로운 불운을 보태는 것 말고는 내게 아무 쓸모가 없소. 여러분이 덜 물을수록 나는 그만큼 빨리 이야기를 끝낼 것이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바람을 온전히 채워 주는 데 중요한 것을 하나라도 빼놓지는 않겠소."

돈키호테가 다른 이들을 대신해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이렇게 다짐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은 카르데니오요. 내 고향은 이 안달루시아에서 손꼽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내 가문은 귀족이며, 내 부모는 부자요. 내 불운은 어찌나 큰지, 내 부모는 그것을 두고 울고 내 가문은 그것을 슬퍼했겠지만 그 재산으로도 덜어 줄 수가 없었소. 하늘이 내린 불행을 고치는 데는 운명이 준 재물이 별 소용이 없기 마련이니까. 바로 이 고장에 하늘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사랑의 신은 거기에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담아 놓았소. 루스신다의 아름다움이 그러하오. 루스신다는 나만큼 고귀하고 나만큼 부유한 아가씨였지만, 나보다 운이 좋았고, 내 진실한 마음에 마땅히 돌아와야 할 만큼 굳건하지는 못했소. 나는 이 루스신다를 어리고 철없던 첫 시절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우러렀고, 루스신다도 그 어린 나이가 허락하는 대로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소. 우리 부모들은 우리 마음을 알았지만 언짢아하지 않았소. 그 마음이 더 나아간다 해도 우리가 혼인하는 것 말고는 다른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오. 두 집안의 가문과 재산이 비슷했으니 혼인은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소.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함께 자랐는데, 루스신다의 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하여 내가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여겼소. 이 일로 그는 시인들이 그토록 노래한 저 티스베의 부모를 거의 그대로 흉내 낸 셈이오. 그리고 이렇게 막은 것은 불길에 불길을, 바람에 바람을 보탠 꼴이 되었소. 그들은 혀에는 침묵을 씌울 수 있었지만 펜에는 씌울 수 없었기 때문이오. 펜은 혀보다 더 자유롭게, 마음에 갇힌 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 주기 마련이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아무리 굳게 다진 뜻도, 아무리 대담한 혀도 어지러워지고 말문이 막히는 일이 흔하니까. 아아, 하늘이여, 나는 그 아가씨에게 얼마나 많은 쪽지를 썼던가! 얼마나 다정하고 정숙한 답장을 받았던가! 얼마나 많은 노래와 사랑의 시를 지었던가! 그 시에서 내 영혼은 제 마음을 털어놓고 옮겨 적었으며, 불타는 바람을 그려 내고, 추억을 달래고, 제 뜻을 즐겁게 했소.

"마침내 나는 궁지에 몰려 그 아가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영혼이 타들어 가자, 내가 바라던 마땅한 보답을 얻는 데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 일을 실행에 옮겨 단번에 끝내기로 마음먹었소.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 루스신다를 정식 아내로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렇게 했소. 그는 내게 대답하기를, 자기를 높여 주고 자기 혈육으로 나를 높이려는 내 뜻은 고맙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 그런 청혼은 마땅히 내 아버지가 하셔야 할 일이라고 했소. 내 아버지가 진심으로 기꺼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루스신다는 몰래 데려가거나 몰래 내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소.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의 좋은 뜻에 감사했고, 내가 말씀드리기만 하면 아버지도 승낙하시리라 생각했소.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아버지께 내 바람을 말씀드리러 갔소.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는 펼친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계셨는데,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 편지를 내게 주며 말씀하셨소. '카르데니오, 이

편지를 보면 리카르도 공작이 네게 은혜를 베풀려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리카르도 공작은 이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좋은 땅에 영지를 가진 에스파냐의 대귀족이오. 나는 편지를 받아 읽었소. 편지에 어찌나 간곡하게 쓰여 있던지, 아버지가 거기서 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조차도 잘못이라고 여길 만했소. 공작은 나를 곧 자기에게 보내 달라고 했소. 나를 맏아들의 하인이 아니라 벗으로 삼고 싶고, 자기가 나를 얼마나 높이 여기는지에 걸맞은 자리에 나를 앉히는 일은 자기가 맡겠다는 것이었소. 나는 편지를 읽으며 말문이 막혔는데,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더욱 그랬소. '카르데니오, 이틀 뒤에 너는 공작의 뜻을 받들러 떠나거라. 그리고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을 길을 열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아버지는 여기에 충고하는 아버지다운 다른 말씀들을 덧붙이셨소. 떠날 날이 다가오자 나는 어느 날 밤 루스신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고, 그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며, 리카르도 공작이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될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딸의 혼사를 미뤄 달라고 간청했소. 그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루스신다는 천 번의 맹세와 천 번의 까무러침으로 그 약속을 굳혔소. 마침내 나는 리카르도 공작이 있는 곳에 이르렀소. 공작은 나를 어찌나 잘 맞아 주고 대접해 주던지, 곧바로 시기심이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소. 오래된 하인들이 나를 시기했는데, 공작이 내게 은혜를 베푸는 기색이 자기들에게 해가 되리라 여겼기 때문이오. 그러나 내가 온 것을 누구보다 반긴 사람은 공작의 둘째 아들 페르난도였소. 그는 늠름하고 기품 있고 너그럽고 사랑에 잘 빠지는 젊은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어찌나 가까운 벗으로 삼으려 들었던지 모두의 입방아에 오를 정도였소. 맏아들도 나를 아끼고 잘 대해 주었지만, 돈 페르난도가 나를 아끼고 대하는 그 극진함에는 미치지 못했소.

"그런데 일은 이렇게 되었소. 벗들 사이에는 나누지 않는 비밀이 없는 법이고, 내가 돈 페르난도에게 받는 총애는 우정이 되어 더는 총애라 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그는 자기 생각을 모두 내게 털어놓았소. 특히 사랑에 관한 생각 하나를 털어놓았는데, 그 때문에 그는 마음이 조금 어지러웠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영지에 사는 농사꾼 처녀 하나를 사랑하고 있었는데(그 처녀의 부모는 아주 부자였소), 그 처녀가 어찌나 아름답고 조신하고 슬기롭고 정숙하던지, 그 처녀를 아는 사람은 누구도 이 가운데 어느 점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앞서는지 가려낼 수 없었소. 아름다운 농사꾼 처녀의 이 훌륭한 장점들 때문에 돈 페르난도의 욕망은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소. 그 처녀를 손에 넣고 그 처녀의 정절을 정복하기 위해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오. 달리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꾀하는 셈이었으니까. 나는 그와의 우정에 이끌려 내가 아는 가장 좋은 말과 내가 들 수 있는 가장 생생한 본보기로 그를 막고 그 뜻에서 돌려세우려 애썼소. 그러나 소용이 없는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 리카르도 공작에게 이 일을 말하기로 마음먹었소. 그러나 돈 페르난도는 꾀바르고 영리한 사람이라 이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소. 착한 하인이라면 내 주인인 공작의 명예에 그토록 해가 되는 일을 숨겨 두어서는 안 되리라고 내가 여길 것 같았기 때문이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을 딴 데로 돌려 나를 속이려고, 자기를 그토록 사로잡은 그 아름다움을 기억에서 떨쳐 내려면 몇 달 동안 멀리 떠나 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고 했소. 그리고 그렇게 떠나 있는 동안 우리 둘이 내 아버지 집에 가 있고 싶다고 했소. 공작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들을 낳는 내 고향 도시에 아주 좋은 말이 몇 필 있어서 그것을 보고 사러 간다는 핑계를 대겠다고 했소.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듣자마자, 나는 내 사랑에 이끌려, 그의 결정이 그리 훌륭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결정 가운데 하나로 여겨 찬성했을 것이오. 나의 루스신다를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때가 얼마나 좋게 찾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이오. 이런 생각과 바람으로 나는 그의 생각에 찬성하고 그 뜻을 부추기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행하라고 했소.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제 할 일을 하기 마련이니까.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러 왔을 때 그는 이미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 농사꾼 처녀를 차지한 뒤였고, 자기 아버지 공작이 그 터무니없는 짓을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안전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었소. 젊은이들의 사랑이란 대개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오. 욕정은 쾌락을 마지막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쾌락을 얻고 나면 끝나 버리고, 사랑처럼 보이던 것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소. 자연이 정해 놓은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인데, 자연은 참된 사랑에는 그런 한계를 정해 놓지 않았소……. 내 말은, 돈 페르난도가 그 농사꾼 처녀를 차지하자마자 그의 욕망은 가라앉고 그의 열정은 식어 버렸다는 것이오. 처음에는 그 욕망을 다스리려고 떠나고 싶은 척했다면, 이제는 그 욕망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고 정말로 떠나려 애썼소. 공작은 그에게 허락을 내렸고 나에게 그를 모시고 가라고 명했소. 우리는 내 고향 도시에 왔고, 내 아버지는 그의 신분에 걸맞게 그를 맞이했소. 나는 곧 루스신다를 만났고, 내 바람은 죽은 적도 시든 적도 없었지만 다시 살아났소. 불행히도 나는 그 바람을 돈 페르난도에게 털어놓았소. 그가 보여 주는 그 두터운 우정의 법도로 보아 그에게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오. 나는 루스신다의 아름다움과 기품과 슬기를 어찌나 칭찬했던지, 내 칭찬이 그에게 그토록 많은 장점으로 꾸며진 아가씨를 보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고 말았소. 나는 운이 없게도 그 욕망을 채워 주었소. 어느 날 밤 우리 둘이 늘 이야기를 나누던 창문으로 촛불을 비추어 그에게

루스신다를 보여 준 것이오. 그는 평상복 차림의 루스신다를 보았는데, 그 모습에 그때까지 보았던 모든 아름다움을 잊어버렸소. 그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고 넋이 빠졌으며, 마침내는 내 불운한 이야기를 들어 가면서 여러분이 보게 될 만큼 사랑에 빠져 버렸소. 그리고 그의 욕망에 더 불을 지르려는 듯, 그는 그 욕망을 내게는 숨기고 하늘에만 털어놓았는데, 어느 날 운명은 그가 루스신다의 쪽지 하나를 찾아내게 했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를 아내로 달라고 청해 달라고 내게 부탁하는 쪽지였는데, 어찌나 슬기롭고 어찌나 정숙하고 어찌나 사랑이 넘치던지, 그는 그것을 읽자마자 세상 다른 여자들에게 나뉘어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의 모든 은총이 오직 루스신다 한 사람에게 다 담겨 있다고 내게 말했소.

"이제 고백하고 싶은데, 돈 페르난도가 얼마나 정당한 까닭으로 루스신다를 칭찬하는지 나도 알았지만, 그 칭찬을 그의 입에서 듣는 것이 괴로웠소. 그리고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소. 그는 루스신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려 하지 않았고, 머리채를 잡아끌듯이 억지로라도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오. 이것이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질투 같은 것을 일깨웠소. 루스신다의 착한 마음과 신의가 등을 돌릴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소. 그런데도 루스신다가 나를 안심시키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운명을 두려워하게 했소. 돈 페르난도는 늘 내가 루스신다에게 보내는 편지와 루스신다가 내게 보내는 답장을 읽으려 했는데, 두 사람의 슬기가 몹시 마음에 든다는 핑계였소. 그러던 어느 날, 루스신다가 무척 좋아하는 기사 소설 한 권을 읽고 싶다고 내게 청했는데, 그것은 『가울라의 아마디스』였소……."

돈키호테는 기사 소설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이야기 첫머리에 루스신다 아씨께서 기사 소설을 좋아하신다고만 말했더라도, 그 아씨의 지성이 얼마나 높은지 내게 알려 주는 데 다른

과장은 필요 없었을 것이오. 그토록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즐길 줄 모른다면, 나리, 그대가 그려 보인 만큼 지성이 훌륭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 내게는 그 아씨의 아름다움과 덕과 지성을 밝히는 데 더 말을 쓸 필요가 없소. 그 아씨가 좋아하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나는 그 아씨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기로운 여인으로 인정하오. 그리고 나리, 나는 그대가 『가울라의 아마디스』와 함께 저 훌륭한 『그리스의 돈 루헬』도 보내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오. 루스신다 아씨께서 다라이다와 헤라야, 양치기 다리넬의 슬기로운 말들, 그리고 그가 더없이 멋지고 슬기롭고 거침없이 노래하고 연기한 그 놀라운 목가들을 몹시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나는 아오.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오. 그대가 나와 함께 내 마을에 가 주기만 하면 그 잘못은 곧바로 바로잡힐 것이오. 거기서 나는 그대에게 삼백 권이 넘는 책을 줄 수 있소. 그 책들은 내 영혼의 기쁨이요 내 삶의 즐거움이오. 하기야 사악하고 시기심 많은 마법사들의 심술 탓에 이제는 한 권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하오. 그리고 그대의 이야기를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그것을 어긴 것을 용서하시오. 기사도와 편력 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소. 햇살이 데우지 않을 수 없고 달빛이 적시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니 용서하고 이야기를 이어 가시오. 지금은 그것이 가장 요긴하오."

돈키호테가 앞에 적은 말을 하는 동안 카르데니오는 고개를 가슴께로 떨구고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었다. 돈키호테가 두 번이나 이야기를 이어 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 생각에서 이것을 떼어 낼 수는 없소. 세상 누구도 떼어 내지 못할 것이고, 나에게 다른 것을 믿게 할 사람도 없을 것이오(그와 반대로

알거나 믿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얼간이일 것이오). 그 악당 놈 엘리사바트 의원이 마데시마 왕비와 붙어먹었다는 것 말이오."

"그건 아니오, 맹세코!" 돈키호테가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다(그는 늘 그러듯이 상대에게 대들었다). "그것은 아주 고약한 심술, 아니 더 잘 말하자면 악당 짓이오. 마다시마 왕비는 아주 지체 높은 귀부인이셨소. 그토록 고귀한 공주께서 탈장이나 고치는 돌팔이와 붙어먹었으리라고 짐작해서는 안 되오. 그와 반대로 아는 자는 아주 고약한 악당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나는 걸어서든 말을 타고서든, 갑옷을 입고서든 벗고서든, 밤이든 낮이든, 아니면 그대가 가장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에게 깨닫게 해 주겠소."

카르데니오는 그를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미 미친 발작이 찾아와 이야기를 이어 갈 형편이 아니었다. 돈키호테도 마다시마에 대해 들은 말에 그토록 언짢아졌으니 그 이야기를 들어 줄 형편이 아니었다. 희한한 일이다! 그는 마다시마가 정말로 자기의 참된 타고난 주군이라도 되는 듯이 그 여자를 감싸고 나섰다. 그 저주받을 책들이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르데니오는 이미 미쳐 있었는데 거짓말쟁이니 악당이니 하는 말과 그 비슷한 욕을 듣자 그 농담이 고깝게 여겨졌다. 그래서 그는 곁에 있던 자갈 하나를 집어 들어 돈키호테의 가슴을 어찌나 세게 쳤던지 돈키호테는 뒤로 나자빠졌다. 산초 판사는 주인이 그런 꼴이 되는 것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고 미치광이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누더기 사내는 그를 맞받아 주먹 한 방에 제 발밑에 쓰러뜨리고는, 그 위에 올라타 마음껏 갈비뼈를 짓이겼다. 산초를 감싸려던 산양치기도 똑같은 꼴을 당했다. 그는 그들 모두를 꼼짝 못 하게 두들겨 눕혀 놓고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유유히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버렸다.

산초는 일어나서, 아무 잘못도 없이 두들겨 맞은 것이 분해 산양치기에게 앙갚음하러 달려들었다. 저 사람에게 이따금 미친 증세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산양치기의 잘못이고, 그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조심해서 몸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산양치기는 이미 말했고, 그가 듣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산초 판사가 맞받고 산양치기가 다시 맞받다가, 그 말다툼은 끝내 서로 수염을 움켜잡고 주먹질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돈키호테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를 산산조각 냈을 것이다. 산초는 산양치기를 움켜잡은 채 말했다.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놈은 저 같은 촌놈이고 기사 서임도 받지 않았으니, 점잖은 사람답게 맞붙어 싸워서 이놈이 제게 준 억울함을 마음 놓고 풀 수 있어요."

"그건 그렇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어난 일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그는 두 사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카르데니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몹시 알고 싶었으므로, 카르데니오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산양치기에게 다시 물었다. 산양치기는 처음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근방을 오래 돌아다니면 제정신이든 미쳤든 그를 못 찾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25장 라만차의 용감한 기사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겪은 기이한 일들과 그가 벨테네브로스의 고행을 본뜬 일을 다룬다

돈키호테는 산양치기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시 로시난테에 올라 산초에게 따라오라고 명했고, 산초는 당나귀를 타고 마지못해 따라갔다. 그들은 조금씩 산의 가장 험한 곳으로 들어갔다. 산초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주인이 내린 분부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주인이 먼저 말을 꺼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침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주인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떠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제 집으로, 마누라와 아이들한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하고 싶은 말을 실컷 주고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리께서 이 외진 산속을 밤낮으로 따라다니게 하시면서 제가 하고 싶을 때 말도 못 하게 하시는 건 저를 산 채로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소페테(이솝) 시절처럼 짐승들이 말을 하게끔 운이 따라 준다면 그래도 덜 고약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 당나귀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불운을 견딜 테니까요. 평생 모험을 찾아다니는데 걷어차이고 헹가래 당하고 벽돌에 얻어맞고 주먹질당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 찾고, 그런데도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입을

꿰매고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말을 감히 하지도 못해야 하니, 이건 참 모진 일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내가 네 혀에 걸어 둔 금령을 풀어 달라고 죽을 지경이로구나. 풀어 준 것으로 알고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다만 이 풀어 줌은 우리가 이 산중을 돌아다니는 동안만 간다는 조건이다."

"그러기로 하죠." 산초가 말했다. "지금은 제가 말을 하고, 나중 일은 하느님이나 아시겠죠. 그럼 그 통행증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나리께서는 그 마히마사 왕비인지 뭐라는 여자 편을 그토록 드셔서 무슨 득을 보셨나요? 아니면 그 수도원장이 그 여자의 정부였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나요? 나리께서 그 여자의 재판관도 아니시니 그냥 넘어가셨더라면, 그 미치광이도 제 이야기를 이어 갔을 테고 자갈 한 방이며 발길질이며, 거기다 여섯 번도 넘는 따귀도 피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맹세코,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다시마 왕비가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지체 높은 귀부인이셨는지 내가 아는 만큼 너도 알았더라면, 내가 참을성이 대단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신성 모독이 튀어나온 그 입을 내가 부숴 놓지 않았으니 말이다. 왕비가 외과 의원과 붙어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도 아주 큰 신성 모독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진실은 이러하다. 그 미치광이가 말한 엘리사바트 의원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건전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왕비의 스승 노릇과 의원 노릇을 했다. 그러나 왕비가 그의 정부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벌을 받아 마땅한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리고 카르데니오가 제가 한 말을 몰랐다는 것을 네가 알도록 일러두거니와,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산초가 말했다. "미치광이의 말을 셈에 넣을 까닭이 없었다고요. 행운이 나리를 돕지 않아서 자갈이 가슴으로 날아간 것처럼 머리로 날아갔더라면, 하느님이 거꾸러뜨리실 그 마님 편을 들어 준 덕에 우리 꼴이 참 볼만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카르데니오는 미치광이라는 이유로 아무 탈 없이 빠져나갔겠죠!"

"제정신인 자에게든 미친 자에게든 맞서서, 편력 기사는 누구나 여자의 명예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물며 마다시마 왕비처럼 그토록 지체 높고 훌륭한 왕비의 명예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그 왕비의 좋은 됨됨이 때문에 각별한 정을 품고 있다. 그분은 아리따웠을 뿐 아니라 아주 신중했고 숱한 재앙 속에서도 아주 잘 참았는데, 그분은 재앙을 많이도 겪었다. 엘리사바트 의원의 조언과 곁을 지켜 준 일은 그분이 그 고난을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견디는 데 큰 도움과 위안이 되었다. 무지하고 심보 고약한 무리는 여기서 핑계를 얻어 왕비가 그의 정부였다고 말하고 생각했다. 그러니 다시 말하거니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백 번은 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알아서들 하라죠. 제 빵은 제가 먹으라죠. 붙어먹었든 안 붙어먹었든 하느님께 셈을 다 치렀겠죠. 저는 제 포도밭에서 오는 길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남의 사는 일을 캐는 건 제 취미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값을 제 주머니로 치르는 법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벌거벗고 태어나 지금도 벌거벗은 몸이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이였다 한들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베이컨이 걸려 있으려니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걸 말뚝도 없는 법이죠. 그래도 누가 들판에 문을 달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느님을 두고도 사람들이 말들을 했는걸요."

"하느님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는 어리석은 소리를 어찌 그리 줄줄이 꿰어 대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네가 줄줄이 엮어 대는 속담이 무슨 상관이냐? 산초, 제발 입 좀 다물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네 당나귀에 박차나 가하는 데 마음을 쓰고, 너와 상관없는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그리고 네 다섯 감각을 다 기울여 알아 두어라. 내가 한 일,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은 모두 이치에 꼭 맞고 기사도의 규칙에 꼭 들어맞는다. 나는 그 규칙을 세상에서 그것을 따른 어떤 기사보다도 잘 아느니라."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길도 오솔길도 없는 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미치광이를 찾아다니는 게 기사도의 좋은 규칙인가요? 그자를 찾고 나면, 그자가 시작해 놓고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마저 끝내고 싶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리의 머리와 제 갈비뼈 말이에요. 그걸 아예 박살 내서 끝장을 보려 들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말하거니와 잠자코 있거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알려 주거니와, 나를 이 고장으로 이끄는 것은 그 미치광이를 찾으려는 바람만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공훈 하나를 세우려는 바람을 품고 있다. 그 공훈으로 나는 이 땅의 알려진 온 세상에 길이 남을 이름과 명성을 얻을 것이고, 그것은 편력 기사 한 사람을 완전하고 이름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일에 내가 마지막 도장을 찍을 만한 공훈이 될 것이다."

"그럼 그 공훈은 아주 위험한 건가요?" 산초 판사가 물었다.

"아니다." 슬픈 얼굴의 기사가 대답했다. "물론 주사위가 굴러 좋은 끗수 대신 나쁜 끗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너의 부지런함에 달려 있다."

"제 부지런함에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너를 보낼 생각인 곳에서 네가 빨리 돌아오면 내 고통도 빨리 끝나고 내 영광도 빨리 시작될 테니까. 내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기다리게 하며 너를 더 애태우는 것은 옳지 않으니, 산초, 알아 두어라. 이름난 가울라의 아마디스는 가장 완전한 편력 기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니, 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잘못이다. 그는 그 시대 세상에 있던 모든 기사들 가운데 단 하나요 으뜸이요 유일한 이였고, 그들 모두의 주인이었다. 그가 무엇 하나에서라도 아마디스와 맞먹었다고 말하는 돈 벨리아니스와 그런 자들 모두에게는 재수 없는 해와 재수 없는 달이나 들라지. 그들은 틀렸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맹세한다. 또 말하거니와, 어떤 화가가 제 솜씨로 이름을 얻고 싶으면 자기가 아는 가장 뛰어난 화가들의 원작을 본뜨려 애쓴다. 나라를 빛내는 데 이바지하는 이름 있는 직업과 일에는 모두 이 같은 규칙이 통한다. 신중하고 참을성 있다는 이름을 얻으려는 자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 그는 오디세우스를 본뜨는데, 호메로스는 그 사람됨과 고난 속에서 신중함과 참을성의 산 초상을 우리에게 그려 보인다. 마찬가지로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아스라는 인물로 효성스러운 아들의 덕과 용감하고 사리에 밝은 장수의 지혜를 보여 주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어떠해야 마땅했는지를 그리고 드러내어 뒤에 올 사람들에게 그 덕의 본보기로 남기려 한 것이다. 이와 똑같이 아마디스는 용감하고 사랑에 빠진 기사들의 북극성이요 샛별이요 태양이었으니, 사랑과 기사도의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는 모두 그를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실 그러하니, 산초, 내 벗아, 그를 가장 잘 본뜨는 편력 기사가 기사도의 완성에 가장 가까이 이르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기사가 그 신중함과 덕과 용맹과 참을성과 굳셈과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준 일 가운데 하나는, 오리아나 아씨에게 냉대를 받고 물러나 가난한 바위산에서 고행을 할 때였다.

그때 그는 이름을 벨테네브로스로 바꾸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뜻깊고 그가 스스로 택한 삶에 꼭 맞는 이름이었다. 그러니 거인을 쪼개고 뱀의 목을 베고 엔드리아고 괴물을 죽이고 군대를 무찌르고 함대를 쳐부수고 마법을 푸는 일보다 이 일로 그를 본뜨는 편이 나에게는 더 쉽다. 그리고 이곳은 그런 일을 하기에 이토록 알맞으니, 기회가 이렇게 손쉽게 앞머리 타래를 내밀어 주는 지금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까닭이 없다."

"그러니까"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이렇게 외딴곳에서 하시려는 게 대체 뭔가요?"

"아직도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아마디스를 본뜨고 싶다고 했다. 여기서 절망한 사람, 넋 나간 사람, 미쳐 날뛰는 사람 노릇을 하면서 용감한 돈 롤단도 함께 본뜨려는 것이다. 롤단은 아름다운 안헬리카가 메도로와 추한 짓을 저질렀다는 흔적을 어느 샘가에서 찾아내고는 그 괴로움에 미쳐 버려서, 나무를 뽑고 맑은 샘물을 흐려 놓고 양치기들을 죽이고 가축을 없애고 오두막을 불사르고 집을 허물고 암말들을 끌고 다니며, 영원한 이름과 기록에 남을 만한 다른 무례한 짓을 십만 가지나 저질렀다. 나는 롤단, 아니 오를란도, 아니 로톨란도(그는 이 세 이름을 다 가졌다)가 저지르고 말하고 생각한 그 모든 광기를 하나하나 다 본뜰 생각은 없지만, 내게 가장 요긴해 보이는 것들을 골라 할 수 있는 만큼 밑그림을 그려 보겠다. 그리고 어쩌면 아마디스를 본뜨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디스는 해를 끼치는 광기 없이 눈물과 슬픔의 광기만으로 누구 못지않은 명성을 얻었으니까." "제가 보기엔" 산초가 말했다. "그런 짓을 한 기사들은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런 어리석은 짓과 고행을 할 까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리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미치시려는 건가요? 어느 귀부인이 나리를 냉대했나요, 아니면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서 무어인하고든 그리스도교도하고든 무슨 철없는 짓을 했다는 흔적이라도 찾으셨나요?"

"바로 거기가 요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이 내 일의 묘미다. 편력 기사가 까닭이 있어서 미치는 것은 고마워할 것도 칭찬할 것도 없다. 묘수는 아무 까닭 없이 정신을 놓아, 마른 데서도 이러는데 젖은 데서는 무슨 짓을 하겠느냐고 내 아씨가 알아차리게 하는 데 있다. 게다가 나의 영원한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 곁을 이토록 오래 떠나 있었으니 까닭은 넉넉하다. 지난번 그 양치기 암브로시오가 하는 말을 너도 들었듯이, 떠나 있는 사람은 온갖 불행을 겪고 또 두려워하는 법이니까. 그러니 산초, 내 벗아, 이토록 희한하고 이토록 복되며 이토록 보도 듣도 못한 본뜨기를 그만두라고 나를 타이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나는 미쳤고, 네가 내 아씨 둘시네아에게 보낼 생각인 편지의 답장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미쳐 있어야 한다. 그 답장이 내 신의에 마땅한 것이라면 내 광기와 고행은 끝날 것이고, 그 반대라면 나는 정말로 미칠 것이며, 미치고 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아씨가 어떻게 답하든 나는 네가 나를 남겨 두고 갈 이 곤경과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정신이 되어 네가 가져오는 복을 누리든가, 미쳐서 네가 가져오는 불행을 느끼지 못하든가 할 테니까. 그런데 말해 보아라, 산초, 맘브리노의 투구는 잘 간수하고 있느냐? 그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 그것을 산산조각 내려 할 때 네가 땅에서 그것을 주워 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자는 그러지 못했으니, 거기서 그 투구가 얼마나 잘 벼려졌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께 맹세코,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건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때문에 저는 나리께서 기사도니 왕국과 제국을 얻는다느니 섬을 준다느니 하시고

편력 기사들이 으레 하는 다른 은혜와 큰일을 베푼다느니 하시는 것이 모두 바람이고 거짓이고, 모두 헛수리, 아니 헛소리, 아니 뭐라 부르든 그런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발사의 놋대야를 맘브리노의 투구라고 하시고 나흘이 넘도록 그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시는 나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고 우기는 사람은 머리가 곯은 달걀처럼 곯았다고밖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놋대야는 온통 찌그러진 채로 제 자루에 넣어 가지고 다녀요.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젠가 제 마누라와 아이들 곁에 있게 되면, 집에서 그걸 펴서 거기다 대고 수염을 깎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아라, 산초, 네가 아까 걸고 맹세한 바로 그분을 걸고 나도 맹세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지금 세상에 있는 종자든 예전에 있던 종자든 그 누구보다도 머리가 짧구나. 나와 함께 다닌 지가 얼마인데, 편력 기사들의 일은 모두 헛된 공상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터무니없는 짓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가는 것을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냐? 그것이 정말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늘 마법사 무리가 돌아다니며 우리 일을 모두 제 마음대로, 우리를 도우려는지 망치려는지에 따라 바꾸고 뒤집고 돌려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발사의 놋대야로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맘브리노의 투구로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참으로 맘브리노의 투구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놋대야로 보이게 한 것은 내 편인 현자의 희한한 섭리였다. 그 투구는 그토록 귀한 것이니 온 세상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나를 쫓아다닐 텐데, 그것이 이발사의 대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니 손에 넣으려 애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부수려다가 가져가지도 않고 땅에 내버려 둔 그자에게서 그것이 잘 드러났다. 맹세코, 그자가 그것을 알아보았더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잘 간수해 두어라, 내 벗아. 지금은 그것이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고행에서 아마디스보다 롤단을 더 본뜨고 싶어진다면, 나는 이 갑옷을 모두 벗고 태어났을 때처럼 알몸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은 높은 산의 기슭에 이르렀다. 그 산은 깎아지른 바위 봉우리처럼 그것을 둘러싼 숱한 산들 사이에 홀로 솟아 있었다. 그 기슭으로는 순한 시냇물이 흘렀고, 산을 빙 둘러서는 보는 눈을 즐겁게 할 만큼 푸르고 무성한 풀밭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근처에는 들나무가 많았고 풀과 꽃도 더러 있어서 그곳을 아늑하게 만들었다. 슬픈 얼굴의 기사는 고행을 할 자리로 이곳을 골랐고, 그곳을 보자마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 하늘이여, 이곳이 바로 그대들이 나를 몰아넣은 이 불운을 울며 슬퍼하려고 내가 정하고 고른 자리로다. 이곳이 바로 내 눈에서 흐르는 물이 이 작은 시냇물을 불리고, 끊임없는 내 깊은 한숨이 이 산 나무들의 잎사귀를 쉼 없이 흔들어, 고달픈 내 마음이 겪는 고통의 증거와 표시가 될 자리로다. 오, 그대들이 누구이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에 거처를 둔 들의 신들이여, 이 불행한 연인의 하소연을 들으시오. 오랜 떠나 있음과 상상에서 생긴 질투가 그를 이 험한 곳으로 이끌어 탄식하게 하고,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의 끝이요 마지막인 저 무정하고 아름다운 이의 모진 성품을 하소연하게 하였소! 오, 산의 우거진 숲에 사는 것이 버릇인 골짜기 요정 나페아들과 나무 요정 드리아스들이여, 그대들을 사랑하나 헛되이 사랑하는 날래고 음탕한 사티로스들이 그대들의 달콤한 고요를 결코 어지럽히지 않기를 비노니, 나를 도와 내 불운을 함께 슬퍼해 주시오. 아니면 적어도 그 하소연을 듣는 것을 지겨워하지 마시오! 오,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내 밤의 낮이요 내 고통의 영광이요 내 길의 북극성이요 내 행운의 별이여, 그대가 하늘에 비는 모든 일에 하늘이 행운을 내리기를 비노니, 그대가 떠나 있음이 나를 어떤 곳, 어떤

처지로 이끌었는지 헤아려 주시고, 내 신의에 마땅한 것에 좋은 끝으로 보답해 주소서! 오, 오늘부터 내 외로움의 벗이 되어 줄 외로운 나무들이여, 그대들 가지의 부드러운 흔들림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싫지 않다는 표시를 해 주시오! 오, 너, 나의 종자여, 순탄한 일에서도 궂은일에서도 나의 정다운 길동무여,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을 보거든 잘 기억해 두어라. 이 모든 일의 온전한 까닭인 그분께 그것을 이야기하고 낱낱이 아뢰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순식간에 굴레와 안장을 벗겼다. 그리고 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치면서 말했다.

"자유를 잃은 자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오, 그 행실은 그토록 빼어나나 그 운수는 그토록 불행한 말이여!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날래기로는 아스톨포의 히포그리프도, 브라다만테가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른 이름난 프론티노도 너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 네 이마에 쓰여 있느니라."

이것을 보고 산초가 말했다.

"지금 잿빛 당나귀 길마를 벗기는 수고를 덜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맹세코 그 녀석을 칭찬하면서 철썩 쳐 줄 손바닥도, 들려줄 말도 모자라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 녀석이 여기 있었더라도 저는 누구도 그 녀석의 길마를 벗기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사랑에 빠진 자의 조항도 절망한 자의 조항도 그 녀석에게는 해당이 안 됐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실 땐 제가 그 녀석의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그런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제가 떠나는 것과 나리께서 미치시는 게 정말이라면, 잿빛 당나귀 대신 로시난테에게 다시 안장을 얹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갔다 오는 데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테니까요. 걸어서 가면 언제 도착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저는

걸음이 영 시원찮거든요." "산초, 네 말대로 하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계획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사흘 뒤에 떠나거라. 그동안 내가 아씨를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네가 보고 아씨께 말씀드리기를 바라니까."

"그럼 제가 본 것 말고 뭘 더 봐야 하나요?" 산초가 말했다.

"너는 아직 이야기를 한참 모르는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제부터 옷을 찢고 갑옷을 흩어 버리고 이 바위들에 머리를 찧어야 한다. 그 밖에도 너를 놀라게 할 그런 종류의 일들이 남아 있다."

"제발 부탁이에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 머리를 어떻게 찧으시는지 잘 보세요. 하필 그런 바위에 하필 그런 자리로 머리를 찧으면 첫 번째 한 번에 이 고행이라는 큰 틀이 통째로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리께서 보시기에 여기서 머리 찧기가 꼭 필요하고 그것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어차피 이 모든 게 꾸민 거고 흉내고 장난이니, 물속에서나 솜처럼 부드러운 것에다 대고 찧는 것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은 그걸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세요. 나리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바위 끝에다 머리를 찧으셨다고 제가 아씨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좋은 뜻은 고맙다,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장난이 아니라 아주 진지한 것임을 너에게 알려 두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사도의 법도를 거스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기사도의 법도는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이를 어기면 재범자의 벌을 받는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체하며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내 머리 찧기는 궤변 같은 것도 헛것 같은 것도 섞이지 않은, 참되고 확실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돌볼 실밥 뭉치를 좀 남겨 두고 가야겠다. 운이 나빠 우리가 향유를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당나귀를 잃은 게 더 컸죠." 산초가 대답했다. "실밥 뭉치고 뭐고 다 당나귀와 함께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리, 제발 그 빌어먹을 물약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세요.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아니라 넋이 다 뒤집히니까요. 한 가지 더 부탁드려요. 나리께서 하시는 미친 짓을 보라고 제게 주신 사흘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셈해 주세요. 저는 그걸 이미 본 것으로, 판결이 끝난 일로 치고 아씨께 놀라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 편지를 쓰셔서 저를 얼른 보내 주세요. 나리를 남겨 두고 가는 이 연옥에서 어서 나리를 꺼내 드리러 돌아오고 싶으니까요."

"연옥이라고 했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옥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지옥보다 더 고약한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나쁘게 불러도 좋다."

"지옥에 있는 자는" 산초가 대답했다. "눌라 에스 레텐시오래요. 그렇게 들었어요."[1]

"레텐시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레텐시오란" 산초가 대답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절대 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리께는 그게 거꾸로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발이 영 말을 안 듣는 거겠죠. 로시난테를 몰아 댈 박차만 있다면요. 저를 토보소에, 둘시네아 아씨 앞에 딱 데려다 놓아만 주세요. 나리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어리석은 짓과 미친 짓, 어차피 둘 다 같은 거지만, 그 이야기를 아씨께 해 드려서, 아씨가 코르크참나무보다 더 딱딱하더라도 장갑보다 더 말랑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꿀처럼 달콤한 답장을 받아 들고 마법사처럼 하늘을 날아 돌아와서, 지옥처럼 보이지만 지옥은 아닌 이 연옥에서 나리를 꺼내 드릴게요. 여기서는 나올 희망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올 희망이 없지만요. 나리께서도 달리 말씀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이 옳다." 슬픈 얼굴의 기사가 말했다. "그런데 편지는 무엇으로 쓰지?"

"새끼 당나귀 어음도요." 산초가 덧붙였다.

"모두 안에 넣으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종이가 없으니 옛사람들이 하던 대로 나뭇잎이나 작은 밀랍 판에 쓰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것을 찾기란 종이를 찾기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디에 쓰면 좋을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없이 좋을지 생각났다. 카르데니오의 것이던 그 작은 비망록이다. 너는 처음 들르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좋은 글씨로 종이에 옮겨 쓰게 하는 데 마음을 써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 성당지기라도 옮겨 써 줄 것이다. 그리고 공증인에게는 옮겨 쓰게 맡기지 마라. 그자들은 소송 서류 글씨를 써서 사탄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럼 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산초가 말했다.

"아마디스의 편지에는 서명을 하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어음에는 꼭 서명을 해야 해요. 그걸 옮겨 쓰면 서명이 가짜라고들 할 테고, 그러면 저는 새끼 당나귀를 못 받게 될 거예요."

"어음은 바로 그 비망록에 서명을 해서 넣으마. 그것을 보면 내 조카딸은 군말 없이 그대로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연애편지에 관해서라면 서명 자리에 '죽을 때까지 아씨의 것인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써 넣어라. 남의 손으로 쓴 것이라도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둘시네아는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고, 평생 내 글씨도 내 편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사랑과 아씨의 사랑은 언제나 플라톤식 사랑이었고, 정숙하게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것마저 어찌나 드문드문했던지, 이 두 눈, 언젠가 흙이 먹어 버릴 이 두 눈의 빛보다 아씨를 더 사랑해 온 열두 해 동안 아씨를 본

것은 네 번도 안 된다고 나는 참으로 맹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네 번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아씨가 알아차렸는지조차 모를 일이다. 그 아버지 로렌소 코르추엘로와 그 어머니 알돈사 노갈레스가 아씨를 그만큼 조신하게, 집 안에 꼭꼭 들여앉혀 길렀기 때문이다."

"아니, 아니!" 산초가 말했다. "그러니까 로렌소 코르추엘로의 딸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 다른 이름으로 알돈사 로렌소라는 그 여자라고요?"

"바로 그 여자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아씨가 될 만한 분이다."

"그 여자라면 잘 알아요." 산초가 말했다. "쇠막대 던지기를 마을에서 제일 힘센 젊은 놈만큼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느님께 맹세코, 그 처녀는 다 큰 어엿한 처녀에다 가슴에 털 난 사내 못지않아서, 그 처녀를 아씨로 모시는 편력 기사든 편력하려는 기사든 누구라도 진창에서 수염을 건져 줄 거예요! 제기랄, 그 기운 하며 그 목청 하며! 언젠가 그 처녀가 마을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 아버지네 묵정밭에 있던 젊은 일꾼들을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반 레과도 넘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탑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처녀의 제일 좋은 점은 내숭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궁정 여자 같은 데가 많거든요. 누구하고나 농담을 하고 무엇에든 얼굴을 찡그려 보이며 익살을 부려요. 이제야 말씀드리는데요,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나리께서는 그 처녀를 위해서라면 미친 짓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명분으로 절망하시고 목을 매실 수도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러다 악마가 잡아간다 해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처녀를 보려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길을 나서고 싶어요. 못 본 지 여러 날이 되었으니 아마 많이

변했을 거예요. 늘 들에 나가 해와 바람을 맞으면 여자 얼굴이 많이 상하니까요. 그리고 나리께 한 가지 참말을 털어놓을게요, 돈키호테 나리. 저는 지금까지 아주 크게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둘시네아 아씨가 나리께서 사랑에 빠지신 어느 공주님이거나, 나리께서 보내신 그 값진 선물들을 받을 만한 어떤 분이 틀림없다고 진심으로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비스카야 사람이며 갤리선 죄수들이며, 그리고 제가 아직 나리의 종자가 아니던 때에 나리께서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시는 승리가 많을 테니 그만큼 많을 다른 선물들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리께서 보내셨고 앞으로 보내실 패배자들이 알돈사 로렌소 아씨, 아니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 아씨에게 무슨 득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아씨가 마침 아마를 훑고 있거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아씨를 보고 낯이 뜨거워질 테고, 아씨는 그 선물을 보고 웃다가 짜증을 낼지도 모르니까요."

"산초, 전에도 여러 번 말했다만"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아주 대단한 수다쟁이이고, 머리는 무디지만 가끔은 날카로운 데를 드러낸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슬기로운지 알도록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너도 알아 두어라. 아름답고 젊고 매인 데 없고 돈 많은, 무엇보다도 거리낄 것 없는 과부 하나가 머리 깎은 젊은 평수사에게 반했는데, 그 젊은이는 통통하고 덩치가 좋았다. 그 수도원의 원장이 그 일을 알게 되어, 하루는 그 착한 과부에게 형제다운 꾸지람 삼아 말했다. '마님, 놀랍습니다. 까닭 없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처럼 지체 높고 아름답고 돈 많은 여인이, 이 수도원에 학위 받은 선생도 그토록 많고 박사 후보도 그토록 많고 신학자도 그토록 많아 그 가운데서 배를 고르듯 골라 「이 사람이 좋아요, 저 사람은 싫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아무개처럼 그토록 천하고 비루하고

무식한 사내에게 반하시다니요.' 그러나 과부는 아주 재치 있고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원장님, 크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 보여도, 제가 그 사람을 고른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이 아주 낡으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쓰려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철학을 안답니다.' 그러니 산초, 내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바라는 일에 관해서라면 그 아씨는 이 땅의 가장 지체 높은 공주와 맞먹는다. 그렇다. 귀부인들을 칭송하는 시인들이 모두 제멋대로 붙인 이름 아래 정말로 그런 귀부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이며 로맨스며 이발소며 연극 무대며 어디에나 가득한 아마릴리스니 필리스니 실비아니 디아나니 갈라테아니 알리다니 하는 여자들이 정말로 살과 뼈를 지닌 귀부인이었고, 그 여자들을 칭송하고 칭송한 자들의 연인이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천만에. 대부분은 제 시에 거리를 주려고,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 사랑할 만한 기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고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그 착한 알돈사 로렌소가 아름답고 정숙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으로 족하다. 가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슨 기사단 휘장을 주려고 그 가문 내력을 캐러 갈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그 아씨를 세상에서 가장 지체 높은 공주로 여긴다. 산초, 네가 모른다면 알아 두어라.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오직 두 가지, 큰 아름다움과 좋은 평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둘시네아에게는 더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아름다움에서는 아무도 그 아씨와 견줄 수 없고, 좋은 평판에서는 그 아씨에게 미치는 여자가 드물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맺자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모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꼭 그러하다고 상상한다. 그리고 나는 아름다움에서나 지체에서나 내가 바라는 대로 상상 속에 아씨를 그려 놓는데, 헬레네도 그 아씨에게 미치지 못하고 루크레티아도

따라오지 못하며, 지난 시대의 이름난 여인들 누구도, 그리스 여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라틴 여인이든 따라오지 못한다. 누구든 하고 싶은 말을 하라지. 이 일로 무지한 자들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해도 엄격한 자들에게 벌을 받지는 않을 테니까."

"나리 말씀이 모두 옳다는 거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당나귀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입에 당나귀를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목매달린 사람 집에서는 밧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법인데요. 아무튼 편지나 주세요. 그럼 잘 계세요, 저는 떠납니다."

돈키호테는 비망록을 꺼내 한쪽으로 물러나 아주 차분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다 쓰고 나서 그는 산초를 불러, 자기의 불운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걱정해야 했으므로 혹시 가다가 편지를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외워 두도록 읽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 거기 비망록에 두세 번 써서 주세요. 제가 잘 간수해서 가져갈게요. 제가 그걸 외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터무니없어요. 기억력이 어찌나 나쁜지 제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읽어 주세요. 듣고 싶어 죽겠어요. 틀림없이 인쇄한 것처럼 반듯할 테니까요."

"들어 보아라. 이렇게 쓰여 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돈키호테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보내는 편지

지엄하고 드높으신 아씨여

떠나 있음의 칼끝에 찔리고 마음의 갈피갈피 상처 입은 자가, 더없이 감미로운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자신은 지니지 못한 안녕을 그대에게 보내나이다. 그대의 아리따움이 나를 업신여기고, 그대의 덕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으며, 그대의 냉대가 나를 괴롭힌다면, 비록 내가 넉넉히 참을성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시름 속에서 버티기 어려우리라. 이 시름은 모질 뿐 아니라 몹시 오래가는 것이로다. 나의 착한 종자 산초가, 오 아름답고도 무정한 이여, 사랑하는 나의 원수여, 그대 때문에 내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낱낱이 아뢰리라. 나를 구해 주고 싶다면 나는 그대의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소서. 내 목숨을 끝냄으로써 그대의 잔인함과 나의 바람을 함께 채우게 되리라.

죽을 때까지 그대의 것인

슬픈 얼굴의 기사.

"우리 아버지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요." 편지를 듣고 산초가 말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본 것 가운데 제일 고상한 거예요. 아이고, 나리께서는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을 어쩌면 그렇게 다 하시고, 서명에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이름은 또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정말이지 나리는 악마 그 자체예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맡은 일을 하려면 무엇이든 필요하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 그럼" 산초가 말했다. "나리, 그 뒷장에 새끼 당나귀 세 마리 증서를 써 넣으시고 아주 또렷하게 서명해 주세요. 보자마자 알아보게요."

"그러자꾸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 나서 산초에게 읽어 주었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조카딸 아가씨는 이 새끼 당나귀 제1어음에 따라, 내가 집에 두고 와서 아가씨가 맡고 있는 다섯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내 종자 산초 판사에게 내주시오. 이 새끼 당나귀 세 마리는 여기서 같은 수만큼 현금으로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내주고 치르도록 명하는 바이며, 그의 영수증이 있으면 바르게 내준 것으로 한다. 시에라 모레나의 깊은 산속에서, 올해 8월 22일 발행.

"좋네요." 산초가 말했다. "서명해 주세요, 나리."

"서명할 필요는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수결만 해 두면 된다. 그것이 서명과 같으니, 당나귀 세 마리는 물론이요 삼백 마리라도 넉넉할 것이다."

"나리를 믿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이제 그만 저를 보내 주세요. 가서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을게요. 나리께서는 제게 축복을 내려 주실 채비를 하세요. 저는 나리께서 하실 어리석은 짓은 보지 않고 바로 떠날 생각이에요. 나리께서 하시는 걸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많이 보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적어도 나는 바란다, 산초. 그렇게 해야 하니까 바란다는 말이다. 네가 내 알몸을 보고, 내가 미친 짓을 한두 다스쯤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그것은 반 시간도 안 걸려 해치울 것이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네가 덧붙이고 싶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맹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장담하거니와, 네가 말할 것이 내가 할 생각인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제발요, 나리, 나리의 알몸은 보지 않게 해 주세요. 너무 안쓰러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젯밤 잿빛 당나귀 때문에 운 탓에 머리가 지끈거려서 또 울 형편이 못 돼요. 그리고 나리께서 제가 미친 짓을 보기를 정 원하시면 옷을 입은 채로, 짧게, 나리께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하세요. 게다가 저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돌아오는 길을 아낄 수 있을 텐데요. 그 길은 나리께서 바라시고 받을 만하신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둘시네아 아씨는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아씨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답하지 않으면, 제가 맹세할 수 있는 분께 엄숙히 맹세하는데요, 발길질과 따귀로 그 배 속에서 좋은 답을 끄집어내고 말 테니까요. 아니, 나리처럼 그토록 이름난 편력 기사가 이렇다 할 까닭도 없이 웬…… 때문에 미치는 걸 어디서 두고 볼 수 있겠어요? 아씨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지 않기를 바라야죠. 하느님께 맹세코, 마구 퍼부어서 판을 다 엎어 버릴 테니까요, 팔리든

말든요. 제가 그런 일에 순순할 사람인 줄 아세요! 아씨는 저를 잘 몰라요! 저를 알기만 하면 저를 무서워서 금식이라도 할걸요!"

"맹세코,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보아하니 너도 나보다 더 제정신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았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냥 성미가 더 급할 뿐이죠.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나리께서는 무얼 드실 건가요? 카르데니오처럼 길로 나가서 양치기들한테서 빼앗아 드실 건가요?"

"그 걱정은 하지 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먹을 것이 있다 해도 나는 이 풀밭과 이 나무들이 내게 주는 풀과 열매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테니까. 내 일의 묘미는 먹지 않는 데, 그리고 그에 맞먹는 다른 고행을 하는 데 있다."

"그럼 잘 계세요. 그런데 나리, 제가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나리를 남겨 두고 가는 이곳이 워낙 깊이 숨어 있어서 제대로 찾아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표지를 잘 보아 두어라. 나는 이 근방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돌아올 때 너를 찾아낼 수 있을지 보려고 이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있도록 하마. 게다가 네가 나를 놓치고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근처에 많은 금작화 가지를 몇 개 꺾어서 탁 트인 곳에 이를 때까지 군데군데 놓아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테세우스의 미궁의 실을 본떠서 말이다. 그것이 네가 돌아올 때 나를 찾는 이정표와 표지가 되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할게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산초는 가지를 몇 개 꺾은 다음 주인에게 축복을 청했고, 두 사람 다 눈물을 적잖이 흘리며 작별을 고한 뒤, 돈키호테가 자기 몸처럼 돌보라고 신신당부한 로시난테에 올라, 주인이 일러 준 대로 군데군데 금작화 가지를 흩어 놓으며 들판 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렇게 그는

떠났다. 돈키호테는 그래도 미친 짓을 적어도 두 가지는 보고 가라고 여전히 그를 졸라 댔다. 그러나 산초는 백 걸음도 채 가지 않아 되돌아와서 말했다.

"나리, 나리 말씀이 아주 옳았어요. 제가 나리께서 미친 짓을 하시는 걸 보았다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맹세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는 보는 게 좋겠어요. 나리께서 여기 남으시겠다는 것부터가 아주 큰 미친 짓이긴 하지만요."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기다려라, 산초. 사도신경 한 번 욀 동안에 해치우마."

그러고는 서둘러 바지를 벗어 던져 맨살에 속옷 바람이 되더니, 이렇다 할 것도 없이 공중에서 발뒤꿈치를 두 번 마주치고는 머리를 아래로 발을 위로 하여 재주를 두 번 넘었다. 그 바람에 드러난 것들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산초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렸고, 주인이 미쳤다고 맹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됐다고 흡족해했다. 그러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자. 그는 금방 돌아왔다.

---

1. 라틴어 「In inferno nulla est redemptio(지옥에는 구원이 없다)」를 산초가 잘못 외운 말. 「레뎀프티오(구원)」가 「레텐시오」가 되었다. 죽은 이를 위한 성무일도에 나오는 구절이다.

제26장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사랑에 빠진 사람답게 바친 정성을 이어 간다

혼자가 된 뒤에 슬픈 얼굴의 기사가 한 일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는 전한다. 허리 아래는 벗고 허리 위는 입은 채로 재주넘기, 아니 공중제비를 다 넘고 나서, 산초가 어리석은 짓을 더 보려고 기다리지 않고 가 버린 것을 보자, 돈키호테는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전에도 여러 번 생각했으나 한 번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생각했다. 롤단이 저지른 미쳐 날뛰는 광기와 아마디스의 우울한 광기 가운데 어느 쪽을 본떠야 더 낫고 자기에게 더 알맞겠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롤단이 모두들 말하듯 그토록 훌륭하고 그토록 용감한 기사였다 한들 그게 무슨 놀라운 일이겠느냐? 결국 그는 마법에 걸려 있어서, 블랑카 한 닢짜리 핀을 발바닥에 찔러 넣지 않고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고, 그는 늘 쇠 밑창을 일곱 겹 댄 신을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에게는 그런 수가 통하지 않았다. 베르나르도는 그 수를 알아채고 론세스바예스에서 그를 두 팔로 껴안아 숨을 막아 죽였다. 그러나 그의 용맹 이야기는 한쪽으로 젖혀 두고 정신을 잃은 이야기로 가 보자. 그가 정신을 잃은 것은 틀림없다. 샘가에서 찾아낸 흔적과, 안헬리카가 아그라만테의 시동인 곱슬머리 무어인 애송이 메도로와 낮잠을 두 번도 넘게 잤다고 양치기가 전해 준 소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제 귀부인이 자기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그가 여겼다면, 미쳐 버린 것도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광기의 까닭을 본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광기를 본뜰 수 있겠느냐? 나의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평생 무어인을, 무어인 차림을 한 무어인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하나도 본 적이 없고, 오늘도 낳아 준 어머니 품에서 나온 그대로라고 나는 감히 맹세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씨를 두고 다른 것을 상상하며 미쳐 날뛰는 롤단의 그런 광기로 미쳐 버린다면 아씨에게 뻔한 모욕을 주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가울라의 아마디스는 정신을 잃지도 않고 미친 짓을 하지도 않고서 누구 못지않게 사랑에 빠진 기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한 일은, 제 뜻이 설 때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한 오리아나 아씨에게 냉대를 받자 어느 은자와 함께 가난한 바위산으로 물러나 거기서 실컷 울고 하느님께 몸을 맡긴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가장 깊은 시름과 곤궁 한가운데서 하늘이 그를 구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러하거니와, 내가 지금 무엇 하러 알몸이 되는 수고를 하고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이 나무들을 괴롭히겠느냐? 목이 마를 때 내게 마실 물을 줄 이 시냇물의 맑은 물을 흐려 놓을 까닭도 없다. 아마디스를 기리는 마음이여, 길이 살아 있으라. 그리고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그를 본뜨기를. 그러면 사람들은 저 다른 이에게 했던 말을 그에게도 하리라. 큰일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꾀하다 죽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버림받거나 냉대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미 말했듯이 아씨 곁을 떠나 있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그럼 일에 손을 대자. 아마디스의 일들이여, 내 기억으로 오너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대들을 본떠야 할지 가르쳐 다오. 그러나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몸을 맡긴 것임을 나는 이미 안다. 그런데 묵주가 없으니 어찌할꼬?"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늘어져 있던 셔츠 자락을 길게 한 가닥 찢어 매듭을 열한 개 지었는데, 하나를 다른 것들보다 굵게 했다.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것이 묵주 노릇을 했고, 그는 그것으로 성모송을 백만 번이나 바쳤다. 그리고 그를 몹시 괴롭힌 것은 고해를 들어 주고 함께 위로를 나눌 그런 은자를 그 근처에서 하나도 찾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풀밭을 거닐며 나무껍질과 고운 모래 위에 시를 많이 써 넣고 새기며 시간을 보냈는데, 모두 자기 슬픔에 맞춘 시였고 몇 편은 둘시네아를 기리는 시였다. 그러나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를 찾아냈을 때 온전하게 찾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어지는 이것들뿐이었다.

이곳에 서 있는
나무여, 풀이여, 초목이여,
그토록 높고 푸르고 많은 그대들이여,
내 불행이 그대들에게 즐겁지 않거든
나의 거룩한 하소연을 들으라.
내 고통이 아무리 끔찍하다 한들
그대들을 어지럽히지 말기를.
그대들에게 제 몫을 치르려고
여기서 돈키호테가 울었노라,
둘시네아가 곁에 없음을,
델 토보소.

여기가 바로 그곳이로다.
가장 충직한 연인이
제 아씨를 피해 숨어든 곳,
어찌 된 영문인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른 채
이토록 큰 불행에 이른 곳.
사랑이 그를 마구 휘둘러 대니
사랑은 아주 고약한 족속이라.
그리하여 작은 술통 하나를 채우도록
여기서 돈키호테가 울었노라,
둘시네아가 곁에 없음을,
델 토보소.

모험을 찾아
험한 바위 사이를 헤매며
모진 마음을 저주하며 가노라니,
바위와 덤불 사이에서야
슬픈 이가 불운을 만나는 법이라,
사랑이 그를 채찍으로 내리쳤도다,
부드러운 가죽끈이 아니라.
그리고 뒷덜미를 맞자마자
여기서 돈키호테가 울었노라,
둘시네아가 곁에 없음을,
델 토보소.

앞에 적은 시를 찾아낸 사람들은 둘시네아라는 이름에 「델 토보소」를 덧붙인 것을 보고 적잖이 웃었다. 둘시네아를 부르면서 「델 토보소」까지 말하지 않으면 노래가 이해되지 않으리라고 돈키호테가 상상했음이 틀림없다고 그들은 상상했는데, 그가 나중에 털어놓았듯이

사실이 그러했다. 그는 다른 시도 많이 썼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연 말고는 깨끗하게도 온전하게도 옮겨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 일로, 그리고 한숨을 쉬고 그 숲의 파우누스들과 실바누스들, 강의 님프들, 슬프고 눅눅한 에코를 불러 자기에게 대답해 주고 위로해 주고 들어 달라고 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으며, 산초가 돌아올 때까지 연명할 풀을 찾기도 했다. 산초가 사흘 걸린 것처럼 세 주가 걸렸더라면, 슬픈 얼굴의 기사는 얼굴이 아예 얼굴 같지 않게 되어 낳아 준 어머니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한숨과 시에 싸여 있는 그를 내버려 두고, 산초 판사가 심부름길에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산초는 큰길로 나서자 토보소를 찾아 길을 잡았고, 이튿날 헹가래의 봉변을 당했던 그 객줏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객줏집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또다시 공중에 붕 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침 점심때라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야 마땅했으며 따뜻한 것을 좀 먹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벌써 여러 날째 찬 음식만 먹었기 때문이다.

이 배고픔에 못 이겨 그는 들어갈지 말지 아직 망설이면서도 객줏집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객줏집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니 곧 그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석사 나리. 저기 말 탄 사람, 산초 판사 아닌가요? 우리 모험가 양반의 가정부가 그러는데, 주인을 따라 종자로 나갔다던 그 사람 말이에요."

"맞네." 석사가 말했다. "그리고 저건 우리 돈키호테의 말이고." 그들이 그를 그렇게 잘 알아본 것은, 그들이 바로 같은 마을의 신부와 이발사였고 책을 검열하고 그 대대적인 처분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초 판사와 로시난테를 알아보자마자 돈키호테의 소식이 궁금해 그에게 다가갔고, 신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산초 판사, 내 친구여, 자네 주인은 어디 있나?"

산초 판사는 곧 그들을 알아보았고, 주인이 있는 곳과 처지를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이 어떤 곳에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느라 바쁘며, 자기 얼굴에 박힌 두 눈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밝힐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아니, 아니지, 산초 판사." 이발사가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자네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네가 그를 죽이고 물건을 털었다고 여길 걸세. 이미 그렇게 여기고 있네만. 자네가 그의 말을 타고 오지 않았나. 정말이지 그 비쩍 마른 말의 주인을 우리에게 내놓아야 하네. 아니면 그 일로 한바탕 붙을 줄 알게."

"저한테 그렇게 을러댈 것 없어요. 저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제 운수가, 아니면 저를 지으신 하느님이 죽이는 법이죠. 제 주인은 이 산 한복판에서 아주 마음 내키는 대로 고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는 곧 쉬지도 않고 단숨에, 주인이 어떤 처지로 남아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모험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주인이 간이 녹도록 사랑에 빠져 있는 로렌소 코르추엘로의 딸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에게 자기가 어떻게 편지를 가져가는 길인지를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산초 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놀랐다. 돈키호테의 광기와 그 광기가 어떤 종류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삼 놀라곤 했다. 그들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에게 가져가는 편지를 보여 달라고 산초 판사에게 청했다. 그는 편지가 비망록에 쓰여 있으며, 처음 들르는 마을에서 그것을 종이에 옮겨 쓰게 하라는 것이 주인의 분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신부가 그것을 보여 주면 자기가 아주

좋은 글씨로 옮겨 써 주겠다고 했다. 산초 판사는 비망록을 찾으려고 품속에 손을 넣었으나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찾는다 해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돈키호테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주지 않았으며, 그도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비망록을 찾지 못하자 산초의 얼굴은 송장처럼 질려 갔다. 그는 다시 온몸을 허겁지겁 더듬어 보고 나서도 그것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자, 이렇다 할 것도 없이 두 주먹으로 수염을 움켜쥐고 절반을 뽑아 버렸다. 그러고는 쉬지도 않고 허겁지겁 제 얼굴과 코에 주먹질을 여섯 번이나 해 대서 코를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이것을 본 신부와 이발사는 무슨 일이 생겼기에 그렇게 험한 꼴을 하느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긴요." 산초가 대답했다. "선 자리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새끼 당나귀 세 마리를 잃었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성채 같은 놈들을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이발사가 되물었다.

"비망록을 잃어버렸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거기에 둘시네아에게 보내는 편지하고, 주인 나리께서 서명하신 증서가 있었거든요. 집에 있는 네댓 마리 가운데 세 마리를 저한테 주라고 나리의 조카딸한테 명하는 증서요." 그러고는 잿빛 당나귀를 잃은 이야기를 했다. 신부는 그를 위로하며, 주인을 찾으면 그 분부를 다시 유효하게 해 주도록 하고 으레 하는 관례대로 어음을 종이에 다시 써 주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쓴 어음은 결코 받아 주지도 치러 주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에 산초는 마음이 놓여, 일이 그렇다면 둘시네아의 편지를 잃은 것은 그리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자기가 그것을 거의 외우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옮겨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말해 보게, 산초." 이발사가 말했다. "나중에 우리가 옮겨 쓸 테니." 산초 판사는

편지를 기억해 내려고 멈춰 서서 머리를 긁적였다. 한 발로 섰다가 다른 발로 섰다가, 땅을 내려다보았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가 하더니, 손가락 끝을 반쯤 물어뜯고 나서, 이제나저제나 그가 편지를 읊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참이나 애태운 끝에 마침내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코, 석사 나리, 편지에서 기억나는 건 악마나 물어가라죠. 그래도 첫머리에는 '드높고 지겨우신 아씨여'라고 했어요." "지겨우신이라고 했을 리가 없지." 이발사가 말했다. "사람을 뛰어넘으신, 아니면 지엄하신 아씨라고 했겠지." "맞아요." 산초가 말했다. "그다음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어지기를……,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갈피 잡고 잠 못 잔 자, 그리고 찔린 자가 아씨의 손에 입맞추나이다, 무정하고 아주 몰라주는 아름다운 이여'라고 했고, 건강인지 병인지를 보낸다고 뭐라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줄줄 흘러가다가 '죽을 때까지 아씨의 것인 슬픈 얼굴의 기사'로 끝났어요."

두 사람은 산초 판사의 좋은 기억력을 보고 적잖이 재미있어하며 그것을 많이 칭찬했고, 자기들도 때가 되면 옮겨 쓸 수 있게 외워 두도록 편지를 두 번 더 읊어 달라고 청했다. 산초는 편지를 세 번 더 읊었고, 그때마다 또 다른 터무니없는 소리를 삼천 가지나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그는 주인의 일들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들어가기를 꺼리는 그 객줏집에서 당한 헹가래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주인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에게서 좋은 답을 받아 오기만 하면 황제, 아니 적어도 군주가 될 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해 두었고, 주인의 사람됨이 그토록 훌륭하고 팔힘이 그토록 세니 그렇게 되기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인은 자기를 장가보내 줄 것인데, 그때쯤이면 자기는 홀아비가 되어 있을 테니 그럴 수밖에 없고, 황후의 시녀 가운데 대륙에 있는 크고 부유한 영지를 물려받을 아가씨를 아내로 주실 것이며,

섬놈이니 섬이니(ínsulos ni ínsulas) 하는 것은 이제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산초는 이따금 코를 닦아 가며 이 말을 어찌나 차분하게, 그리고 어찌나 정신없이 하던지 두 사람은 새삼 놀라며 돈키호테의 광기가 얼마나 거세었으면 이 가엾은 사람의 정신까지 함께 끌고 갔을까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잘못에서 꺼내 주느라 애쓰고 싶지 않았다. 양심을 다치는 일도 아니니 그대로 두는 편이 낫고, 그들로서도 그의 어리석은 소리를 듣는 편이 더 재미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주인의 건강을 위해 하느님께 빌라고 말하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의 말대로 황제가 되는 것, 아니면 적어도 대주교나 그에 맞먹는 다른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있을 법하고 아주 해낼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여러분, 혹시 운명이 일을 그렇게 돌려서 우리 주인께서 황제가 아니라 대주교가 되고 싶어지신다면, 편력 대주교들은 자기 종자들한테 무얼 주는지 지금 알고 싶은데요." "그런 이들은 대개" 신부가 대답했다. "성직록을 주지. 녹만 받는 것이든 신자를 돌보는 것이든. 아니면 성당지기 자리를 주는데, 그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꽤 되고, 거기다 제단 사례금도 있는데 그것도 대개 그만큼은 쳐주네."

"그러려면" 산초가 되받았다. "종자가 장가를 안 들었어야 하고, 적어도 미사 시중은 들 줄 알아야 하겠네요. 그렇다면 아이고, 저는 큰일이에요. 저는 장가든 몸인 데다 ABC의 첫 글자도 모르거든요! 편력 기사들이 으레 하는 대로 황제가 되시지 않고 우리 주인께서 대주교가 되고 싶은 변덕이 나시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말게, 산초 친구." 이발사가 말했다. "우리가 자네 주인에게 황제가 되고 대주교는 되지 말라고 빌고 권하겠네. 양심의 문제로

삼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네. 그게 그분에게도 더 쉬울 걸세. 그분은 공부꾼이라기보다 용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나리는 무엇에든 재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쪽에서 할 생각인 건, 우리 주님께서 나리를 당신께서 가장 잘 쓰실 수 있고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런 곳으로 보내 주시라고 비는 거예요."

"자네는 슬기로운 사람답게 말하고" 신부가 말했다.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네 말로 자네 주인이 하고 있다는 그 쓸데없는 고행에서 그분을 끌어낼 방도를 마련하는 것일세. 그 방법을 궁리하기도 하고 밥도 먹을 겸, 마침 때가 되었으니 이 객줏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네."

산초는 그들은 들어가라고 하고, 자기는 바깥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왜 들어가지 않는지, 왜 들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지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다만 따뜻한 먹을 것을 좀 내다 주고 로시난테에게 줄 보리도 내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그를 남겨 두고 들어갔고, 조금 뒤에 이발사가 그에게 먹을 것을 내다 주었다. 그 뒤 두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룰 방도를 함께 곰곰이 궁리하다가, 신부에게 돈키호테의 취향에도 맞고 그들이 바라는 일에도 아주 알맞은 생각이 떠올랐다. 신부는 이발사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다. 자기는 편력하는 아가씨 차림을 하고 이발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종자처럼 꾸민 다음, 그렇게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시름에 잠긴 가련한 아가씨인 체하며 그에게 소원 하나를 청하겠다고 했다. 용맹한 편력 기사인 그로서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했다. 그리고 청할 소원이란, 어느 못된 기사가 자기에게 저지른 몹쓸 짓을 바로잡아 주도록 자기가 데려가는 곳으로 함께 가 달라는 소원이었다. 또 그 못된 기사에게 원수를 갚아 줄 때까지 자기의 가면을 벗기라고 명하지도 말고 자기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청하면 돈키호테는 무엇이든 틀림없이 들어주리라고 믿어도 좋으며, 그렇게 해서 그를 거기서 끌어내어 그의 마을로 데려간 다음 그의 기이한 광기에 무슨 고칠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제27장 신부와 이발사가 뜻을 이룬 경위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실릴 만한 다른 일들

이발사는 신부의 꾀가 나쁘지 않다고, 아니 아주 좋다고 여겼으므로 그들은 곧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객줏집 안주인에게 치마 한 벌과 머릿수건 몇 장을 청하고, 그 담보로 신부의 새 사제복을 맡겼다. 이발사는 객줏집 주인이 빗을 걸어 두던 잿빛인지 붉은빛인지 모를 소꼬리로 커다란 수염을 만들었다. 객줏집 안주인이 그런 것들을 무엇에 쓰려고 달라느냐고 물었다. 신부는 돈키호테의 광기를 짧게 이야기해 주고,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산에서 그를 끌어내려면 그런 변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객줏집 주인 부부는 그 미치광이가 자기네 손님이었던 그 향유 사내이며 헹가래당한 종자의 주인임을 곧 알아차리고, 산초가 그토록 숨기던 일까지 빼놓지 않고 그에게 겪은 일을 모두 신부에게 이야기했다. 결국 객줏집 안주인은 더 볼 것도 없을 만큼 신부를 차려 입혔다. 한 뼘 너비의 검은 벨벳 띠를 잔뜩 둘렀는데 그 띠마다 칼집을 낸 모직 치마를 입히고, 흰 공단 테두리를 두른 초록 벨벳 윗옷을 입혔는데, 그 윗옷과 치마는 둘 다 왐바 왕 시절에 지은 것이 틀림없었다. 신부는 머리에 여자 머리 장식을 씌우지 못하게 하고, 밤에 잘 때 쓰려고 가지고 다니던 누빈 무명 두건을 머리에 썼다. 그리고 이마에 검은 호박단 대님 하나를 두르고, 다른 대님 하나로 가면을 만들어 수염과 얼굴을 잘 가렸다. 그는 양산으로 써도 될 만큼 커다란 제 모자를 눌러쓰고 짧은 망토를 두른 다음 여자처럼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노새에 올라앉았고, 이발사도 제 노새에 올랐다. 이발사의 수염은 허리까지 닿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얼룩덜룩한 붉은 소의 꼬리로 만든 것이라 붉은빛과 흰빛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착한 마리토르네스에게도 작별을 고했다. 마리토르네스는 자기는 죄 많은 여자지만 그들이 시작한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일을 하느님께서 잘 이루어 주시도록 묵주 기도를 한 꿰미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객줏집을 나서자마자 신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걸려 있다 해도 사제가 그런 차림을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니 그런 꼴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발사에게 그 말을 하며 옷을 바꿔 입자고 청했다. 이발사가 가련한 아가씨가 되고 자기가 종자 노릇을 하는 편이 더 옳고, 그래야 자기 성직의 위엄도 덜 더럽혀진다고 했다. 그리고 이발사가 그러기 싫다면 악마가 돈키호테를 잡아가든 말든 더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에 산초가 왔는데, 두 사람이 그런 차림을 한 것을 보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결국 이발사는 신부가 바라는 대로 다 따랐고, 꾀를 바꾸어, 신부는 이발사에게 돈키호테를 움직여 자기와 함께 오게 하고 그가 헛된 고행을 하려고 고른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일러 주었다. 이발사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잘 해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돈키호테가 있는 곳 가까이 갈 때까지는 그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개어 두었고, 신부는 수염을 매만졌다. 그리고 그들은 산초 판사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이어 갔다. 산초는 가는 길에 산에서 만난 그 미치광이와 겪은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가방과 그 안에 든 것을 찾아낸 일만은 숨겼다. 그 젊은이는 어리숙하긴 해도 욕심이 조금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그들은 산초가 주인을 남겨 둔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나뭇가지로 표시를 해 둔 곳에 이르렀다. 산초는 그곳을 알아보고,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이니 그 변장이 주인을 풀어 주는 데 쓸모가 있다면 이제 옷을 입어도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들은 그런 차림으로 가서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주인을 그가 고른 그 고약한 생활에서 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산초에게 말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산초가 자기들을 안다는 것도 주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주인이 둘시네아에게 편지를 전했느냐고 물으면, 틀림없이 물을 테니, 그렇다고 대답하라고 했다. 아씨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말로 대답했는데, 아씨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거든 당장 와서 아씨를 만나라고, 그것이 아씨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명했다고 말하라고 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이 할 말을 보태면 그를 틀림없이 더 나은 생활로 돌려놓고, 곧바로 황제나 군주가 되러 길을 나서게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대주교가 되는 일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산초는 그 말을 모두 듣고 잘 기억해 두었고, 주인에게 대주교가 아니라 황제가 되라고 권하겠다는 그들의 뜻에 크게 고마워했다. 종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는 편력 대주교보다 황제가 더 힘이 있다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자기가 먼저 가서 주인을 찾아 아씨의 답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주인을 그곳에서 끌어내기에 넉넉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했다. 그들은 산초 판사의 말이 옳다고 여겨, 그가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산초는 그 산의 골짜기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작고 순한 시냇물이 흐르는 어느 골짜기에 남았다. 그 근처의 다른 바위들과 나무 몇 그루가 그 시냇물에 기분 좋고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른 날은 8월의 어느 날이었고 더위도 그러했는데, 그 고장에서는 그 무렵이면 대개 열기가 대단하다. 시각은 오후 세 시였다. 이 모든 것이 그곳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 그들은 거기서 산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싶어졌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악기 반주도 없이 달콤하고 곱게 울리는 목소리 하나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 그들은 적잖이 놀랐다. 그곳은 그토록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숲과 들에는 목소리가 빼어난 양치기들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 시인들의 과장일 때가 더 많다. 게다가 그들이 듣고 있는 노래가 시골 목자들의 시가 아니라 슬기로운 궁정 사람의 시임을 알아차리자 더욱 놀랐다. 그들이 들은 시가 다음과 같았으니 이 사실이 확인되었다.

누가 내 행복을 줄이는가?
냉대가.
누가 내 슬픔을 키우는가?
질투가.
누가 내 참을성을 시험하는가?
떠나 있음이.
그러니 내 아픔에는
어떤 약도 얻을 수 없도다.
내 희망을 죽이는 것은
냉대와 질투와 떠나 있음이니.
누가 내게 이 고통을 주는가?
사랑이.
누가 내 영광을 가로막는가?
운명이.
누가 내 슬픔을 허락하는가?
하늘이.
그러니 나는 두렵도다,
이 기이한 병으로 죽을까 봐.
내 상처를 키우는 것은
사랑과 운명과 하늘이니.
누가 내 운수를 낫게 하리오?
죽음이.
사랑의 복은 누가 얻는가?
변덕이.
사랑의 병은 누가 고치는가?
광기가.
그러니 슬기로운 일이 아니로다,
이 정념을 고치려 함은.

그 약이라는 것이
죽음과 변덕과 광기이니.

시각과 계절과 외로움과 그 목소리와 노래하는 이의 솜씨가 두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다. 그들은 무슨 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까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한동안 고요가 이어지자 그토록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 악사를 찾으러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막 그러려는데 같은 목소리가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목소리가 다시 그들의 귀에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소네트를 부르고 있었다.

소네트

거룩한 우정이여, 가벼운 날개로
그 겉모습만 땅 위에 남겨 둔 채
복된 영혼들 사이로, 하늘로
기꺼이 가장 높은 하늘의 궁전에 올랐구나.
거기서 그대는 원할 때면 우리에게
너울에 덮인 올바른 평화를 가리켜 보이고,
그 너울 사이로 때때로 비쳐 보이는 것은
선행인 척하다 끝내 악행이 되는 열성이로다.
하늘을 떠나 내려오라, 오 우정이여, 아니면
속임수가 그대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라.
속임수는 그 옷으로 참된 뜻을 무너뜨리기에.
그대가 속임수에게서 그대의 겉모습을 벗겨 내지 않으면
세상은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태초의 그 어지러운 혼돈의 싸움을.

노래는 깊은 한숨으로 끝났고, 두 사람은 노래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다시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음악이 어느새 흐느낌과 애처로운 탄식이 되어 버린 것을 보고, 목소리가 빼어난 만큼 신음도 구슬픈 그

슬픈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어느 바위 모퉁이를 돌았을 때, 산초 판사가 카르데니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려 보인 바로 그 생김새와 모습을 한 사내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사내는 그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고개를 가슴에 떨군 채 가만히 서 있었고, 그들이 불쑥 다가왔을 때 처음 한 번 쳐다본 뒤로는 눈을 들어 그들을 보지 않았다.

신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그 생김새로 그를 알아보았으니 그의 불행을 이미 들어 알고 있던 터였다) 그에게 다가가, 짧지만 아주 슬기로운 말로 그토록 비참한 생활을 그만두라고, 거기서 목숨을 잃는 것이야말로 불행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니 그러지 말라고 간청하고 타일렀다. 그때 카르데니오는 제정신이었고, 그토록 자주 그를 제정신에서 끌어내던 그 미친 발작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그 외진 곳을 다니는 사람들과는 영 다른 차림을 한 두 사람을 보고 얼마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자기 일을 이미 아는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더욱 놀랐다(신부가 한 말로 보아 그렇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든 나는 잘 알겠소. 착한 이들을, 그리고 때로는 악한 이들까지도 돌보아 구해 주는 하늘이,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외진 곳으로 몇몇 사람을 보내 주는구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어긋나는지 생생하고 갖가지인 이치를 내 눈앞에 들이대며 나를 이 삶에서 더 나은 곳으로 끌어내려 애썼소. 그러나 이 불행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불행에 빠지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니, 아마 나를 생각이 얕은 사람으로, 아니 더 나쁘게는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모양이오. 그렇게 여긴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오. 내 불행을 떠올리는 상상의 힘이 어찌나 세고 나를 망치는 데 어찌나 큰 힘을 쓰는지, 나로서는 그것을 막을

도리도 없이 돌처럼 되어 버려 온갖 분별과 지각을 잃고 만다는 것을 나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이오. 그 무서운 발작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동안 내가 한 일들의 흔적을 누가 말해 주고 보여 줄 때에야 나는 이 진실을 깨닫게 되오. 그러면 나는 헛되이 괴로워하고 쓸데없이 내 운명을 저주할 줄밖에 모르고, 내 광기의 까닭을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이에게 그 까닭을 들려주는 것으로 내 광기를 변명할 뿐이오. 슬기로운 이들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 보면 그 결과에 놀라지 않을 테고, 나를 고쳐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를 탓하지는 않을 것이오. 내 방자함에 대한 노여움이 내 불행에 대한 연민으로 바뀔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다른 이들이 왔던 것과 같은 뜻으로 왔다면, 그 슬기로운 설득을 더 이어 가기 전에 부디 끝이 없는 내 불운의 이야기를 들어 주기를 청하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을 위로하느라 들일 수고를 아마 덜게 될 것이오."

자기 불행의 까닭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던 두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하며, 그를 고치거나 위로하는 일에서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슬픈 기사는 며칠 전 돈키호테와 산양치기에게 들려준 것과 거의 같은 말과 같은 순서로 애처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이야기가 전하듯이 엘리사바트 의원의 일과 기사도의 체면을 지키는 데 돈키호테가 꼼꼼했던 탓에 이야기가 끝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행히 광기의 발작이 멈추어 그가 끝까지 이야기할 틈을 주었다. 그래서 돈 페르난도가 『가울라의 아마디스』 책 사이에서 찾아낸 쪽지 대목에 이르자, 카르데니오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루스신다가 카르데니오에게.

"날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저를 묶어 당신을 더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훌륭한 점을 찾아내요. 그러니 제 명예를 압류하지 않고 이 빚에서 저를 풀어 주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게는 당신을 알고 저를 아끼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는 제 뜻을 억누르지 않고, 당신이 품는 것이 마땅한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제가 믿는 대로 저를 귀히 여기신다면요.'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쪽지에 마음이 움직여 나는 루스신다를 아내로 달라고 청했소. 그리고 이 쪽지 때문에 돈 페르난도는 루스신다를 당대에 가장 슬기롭고 사리 밝은 여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게 되었고, 바로 이 쪽지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망치고 싶은 욕망을 그에게 심어 주었소. 나는 돈 페르난도에게 루스신다의 아버지가 무엇을 걸고넘어지는지 말했소. 내 아버지가 직접 청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그 일에 동의하지 않을까 두려워 아버지께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했소. 루스신다의 지체와 착함과 덕과 아름다움을 아버지가 잘 몰라서가 아니었소. 루스신다는 에스파냐의 어느 가문이라도 빛낼 만한 됨됨이를 넉넉히 지니고 있었으니까. 다만 리카르도 공작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볼 때까지는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빨리 장가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었소. 한마디로 나는 그에게, 그 걸림돌 때문에도 그렇고 무엇인지도 모를 다른 여러 걸림돌이 나를 겁나게 해서 아버지께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고, 내가 바라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다고 말했소.

"이 모든 말에 돈 페르난도는 자기가 내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아버지가 루스신다의 아버지에게 말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소. 오, 야심 많은 마리우스여, 오, 잔인한 카틸리나여, 오, 흉악한 술라여, 오, 거짓말쟁이 갈랄론이여, 오, 배신자 베이도여, 오, 앙심 품은

훌리안이여, 오, 탐욕스러운 유다여![1] 배신자요 잔인하고 앙심 품은 거짓말쟁이여, 그토록 스스럼없이 제 마음의 비밀과 기쁨을 너에게 털어놓은 이 슬픈 사람이 너에게 무슨 몹쓸 짓을 했더냐?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나 해 준 충고 가운데 네 명예와 이익을 키우려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그러나 아아, 가련한 나여, 내가 무엇을 하소연하는 것이오? 불행이 별들의 흐름을 타고 올 때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사납고 거세게 곤두박질쳐 내려오니, 땅 위의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어떤 꾀로도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름 높고 슬기롭고 내게 신세를 졌으며, 사랑의 욕망이 바라는 것이라면 어디에서든 얻을 힘을 가진 기사 돈 페르난도가, 흔히 하는 말로, 아직 내 것도 아니던 내 단 한 마리 양을 빼앗으려고 그토록 독을 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쓸데없고 아무 소용 없으니 한쪽으로 젖혀 두고, 내 불행한 이야기의 끊어진 실을 다시 이어 봅시다.

"그러니까, 돈 페르난도는 자기의 거짓되고 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데 내가 곁에 있는 것이 거북하다고 여겨, 나를 자기 형에게 보내기로 했소. 말 여섯 마리 값을 치를 돈을 좀 달라고 청한다는 핑계였는데, 그는 일부러, 오로지 내가 자리를 비우게 하려고(자기의 고약한 뜻을 더 쉽게 이루려고) 내 아버지에게 말해 주겠다고 나선 바로 그날 그 말들을 샀고, 내가 그 돈을 가지러 가기를 바랐소. 내가 이 배신을 미리 막을 수 있었겠소? 혹시라도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소? 천만에. 오히려 나는 그가 말을 잘 샀다고 흐뭇해하며 아주 기꺼이 곧 떠나겠다고 나섰소. 그날 밤 나는 루스신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돈 페르난도와 약속한 일을 말하고, 우리의 착하고 정당한 바람이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희망을 품으라고 했소. 루스신다는 나만큼이나 돈 페르난도의 배신을 꿈에도 모른 채, 빨리 돌아오라고

내게 말했소. 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우리 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더 오래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소.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루스신다는 이 말을 마치자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고 목에 무엇이 걸린 듯 메어, 내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던 다른 많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소.

"나는 그때까지 루스신다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새로운 일에 놀랐소. 행운과 내 부지런함이 허락할 때면 우리는 언제나 아주 즐겁고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우리 이야기에 눈물이나 한숨이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섞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하늘이 루스신다를 내 아씨로 내려 준 그 행운을 한껏 높이며 루스신다의 아름다움을 부풀려 칭찬하고 그 덕과 슬기에 감탄할 뿐이었소. 루스신다도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내게서 칭찬할 만해 보이는 것을 칭찬하며 그 칭찬을 되돌려 주었소.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과 아는 사람들의 자잘한 일과 사건을 십만 가지나 주고받았고, 내가 가장 대담하게 군 것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낮은 창살의 좁은 틈이 허락하는 만큼 루스신다의 아름답고 흰 손 하나를 거의 억지로 잡아 내 입술에 갖다 대는 일이었소. 그러나 내가 떠나는 슬픈 날의 전날 밤, 루스신다는 울고 신음하고 한숨지으며 가버렸고, 루스신다에게서 그토록 새롭고 그토록 슬픈 괴로움과 슬픔의 표시를 본 나는 놀라 어리둥절하고 불안에 휩싸인 채 남았소. 그러나 내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루스신다가 나에게 품은 사랑의 힘과, 서로 아끼는 사이라면 떨어져 있을 때 으레 느끼는 아픔 탓으로 돌렸소.

"마침내 나는 슬프고 생각에 잠겨,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을 상상하는지도 모르는 채 상상과 의심으로 가득한 넋을 안고 떠났소. 그것은 내게 마련된 슬픈 일과 불운을 보여 주는 뚜렷한 조짐이었소. 나는 보내진 곳에 이르러 돈 페르난도의 형에게 편지를 전했소. 나는

환대를 받았으나 일은 빨리 처리되지 않았소. 그는 내 뜻과는 아주 딴판으로 나더러 여드레를 기다리라고 했고, 그것도 그의 아버지 공작이 나를 보지 못할 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소. 그의 아우가 아버지 몰래 얼마간의 돈을 보내 달라고 편지에 썼기 때문이오. 이 모든 것은 그 거짓된 돈 페르난도의 꾀였소. 그의 형에게는 나를 곧바로 돌려보낼 돈이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이 명령과 분부는 나로 하여금 거역하고 싶게 했소. 루스신다 곁을 떠나 그토록 여러 날을 목숨을 부지하기란, 더구나 내가 이야기한 그 슬픔 속에 루스신다를 두고 왔으니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오. 그래도 나는 착한 하인답게 따랐소. 내 건강을 대가로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그곳에 이른 지 나흘째 되는 날, 한 사내가 편지를 들고 나를 찾아와 내게 주었소. 겉봉을 보고 나는 그것이 루스신다의 편지임을 알아보았소. 겉봉의 글씨가 루스신다의 글씨였기 때문이오. 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소. 곁에 있을 때도 좀처럼 편지를 쓰지 않던 루스신다가 내가 떠나 있는 동안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무언가 큰일 때문이 틀림없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읽기 전에 그 사내에게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 오는 길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물었소. 그는 이렇게 말했소. 한낮에 우연히 그 도시의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부인 하나가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창문에서 자기를 부르더니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소. '형제여, 보아하니 그리스도교 신자이신 듯한데 정말 그렇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이 편지를 당장, 당장 겉봉에 적힌 곳과 사람에게 보내 주세요. 다 잘 알려진 곳과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님께 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이 손수건에 싼 것을 받아 주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면서 창문으로 손수건 하나를 던져 주었는데, 거기에 100레알과 제가 여기 끼고 있는

이 금반지가 묶여 있었고, 제가 드린 그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편지와 손수건을 받아 드는 것을 보았고, 저는 시키신 대로 하겠다고 손짓으로 알렸지요. 그래서 나리께 이것을 갖다 드리는 수고에 그토록 넉넉한 삯을 받은 데다, 겉봉을 보고 이 편지를 받으실 분이 나리라는 것을 알았고, 나리, 저는 나리를 아주 잘 알거든요, 게다가 그 아름다운 부인의 눈물에도 마음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나리께 드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열여섯 시간 만에, 아시다시피 18레과나 되는 길을 왔습니다.'

"그 고마운 새 심부름꾼이 이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그의 말에 매달려 있었고, 다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서 있기도 힘들었소. 마침내 나는 편지를 열었고, 거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소. '돈 페르난도가 당신 아버지께 말씀드려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께 말씀하시게 하겠다던 약속을, 그는 당신의 이익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게 지켰어요. 알아 두세요, 나리, 그가 저를 아내로 달라고 청했고, 제 아버지는 돈 페르난도가 당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 우월함에 끌려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어찌나 서두르는지 지금부터 이틀 뒤에 혼약식을 올린대요.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해서 하늘과 집안사람 몇몇만 증인이 된대요. 제가 어떤 처지인지 상상해 보세요. 오셔야 한다면 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알려 드릴 거예요. 이 편지가, 맹세한 신의를 그토록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의 손과 제 손이 맺어지기 전에 당신 손에 닿기를 하느님께 빌어요.' 편지에 담긴 말은 대강 이러했고, 이 말 때문에 나는 다른 답도 다른 돈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길을 나섰소. 돈 페르난도가 나를 형에게 보낸 것은 말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제 욕심을 사려는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아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오. 돈 페르난도에게 품은 분노와,

그토록 여러 해 동안 섬기고 바라 온 끝에 얻은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게 날개를 달아 주었소. 나는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여 이튿날 루스신다를 만나러 가기에 꼭 알맞은 시각에 내 고향에 이르렀소. 나는 몰래 들어가, 타고 온 노새를 내게 편지를 가져다준 그 착한 사람의 집에 맡겨 두었소. 그때는 운도 좋아서 나는 우리 사랑의 증인인 그 창살 앞에 서 있는 루스신다를 만났소. 루스신다는 곧 나를 알아보았고 나도 루스신다를 알아보았소. 그러나 루스신다가 나를 알아보아야 했던 것처럼, 내가 루스신다를 알아보아야 했던 것처럼은 아니었소. 그러나 여자의 어지러운 생각과 변덕스러운 성품을 꿰뚫어 알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소? 아무도 없소, 확실히.

"그러니까, 루스신다는 나를 보자마자 내게 말했소. '카르데니오, 나는 혼례복을 입고 있어. 배신자 돈 페르난도와 욕심 많은 우리 아버지가 다른 증인들과 함께 벌써 큰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내 혼약의 증인이 되기 전에 내 죽음의 증인이 될 거야. 놀라지 마, 내 사람아. 이 희생의 자리에 꼭 와 있어 줘. 내 말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나는 단검을 하나 숨겨 가지고 있어. 그 단검은 더 굳센 힘도 막아 낼 수 있어. 내 목숨을 끝내고, 내가 너에게 품어 왔고 지금도 품고 있는 마음을 네가 알게 되는 시작이 될 테니까.' 나는 대답할 틈이 없을까 두려워 허둥지둥 서둘러 대답했소. '아씨, 네 행동으로 네 말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 줘. 네가 네 마음을 증명하려고 단검을 지녔다면, 나는 여기 칼을 지녔어. 그것으로 너를 지키든가, 운이 우리를 거스르면 나를 죽이든가 할 거야.' 루스신다가 이 말을 다 들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신랑이 기다린다며 루스신다를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로써 내 슬픔의 밤이 닫히고, 내 기쁨의 해가 졌소. 나는 눈에서 빛을 잃고 머리에서 생각을 잃었소. 나는 루스신다의 집에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았고 어디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들어갔소. 나는 그 집의 드나드는 길을 모두 잘 알고 있었고, 더구나 집 안이 몰래 법석을 떨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소. 그렇게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바로 그 큰방의 창문이 만든 오목한 자리에 숨을 수 있었소. 그 자리는 두 장의 벽걸이 융단 끝자락과 가장자리로 가려져 있었고, 나는 그 틈으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큰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볼 수 있었소.

"그곳에 있는 동안 내 가슴이 얼마나 철렁거렸는지,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는지, 무엇을 헤아렸는지 지금 누가 말할 수 있겠소? 그것은 어찌나 많고 어찌나 대단했던지 말로 할 수도 없고 말하는 것이 옳지도 않소. 신랑이 평소에 입던 여느 옷 말고는 아무 치장도 하지 않고 큰방에 들어왔다는 것만 알아 두면 충분하오. 그는 루스신다의 사촌 오라비 하나를 후견인으로 세웠고, 큰방에는 집안 하인들 말고는 바깥사람이 하나도 없었소. 조금 뒤에 루스신다가 어머니와 자기 시녀 둘을 거느리고 안방에서 나왔소. 루스신다는 그 지체와 아름다움에 걸맞게, 그리고 궁정의 맵시와 화려함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답게 잘 차려입고 꾸미고 있었소. 나는 넋을 잃고 황홀해서 루스신다가 무엇을 입었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볼 겨를이 없었소. 다만 빛깔이 붉은색과 흰색이라는 것과, 머리 장식과 옷 전체에 박힌 보석과 장신구가 반짝이는 것만 알아볼 수 있었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루스신다의 아름다운 금발 머리칼이 남다르게 빼어났소. 그 머리칼은 귀한 보석들과 큰방에 켜 둔 횃불 네 개의 빛과 겨루면서 더 찬란한 빛을 눈에 보냈소. 오, 기억이여, 내 안식의 철천지원수여! 이제 와서 저 사랑하는 원수의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을 내게 떠올려 보인들 무슨 소용이냐? 잔인한 기억이여, 차라리 그때 루스신다가 한 짓을 떠올려 보여 주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토록 뻔한 모욕에 마음이 움직여, 복수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목숨이라도 버리도록 말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곁가지로 빠지는 이야기를 듣느라 지겨워하지 마시오. 내 괴로움은 짧게,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거나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오. 그 하나하나가 긴 이야기를 할 만하다고 나는 생각하오."

이 말에 신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기는커녕 그가 들려주는 자잘한 일들이 아주 재미있다고 대답했다. 그 일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만한 것이고, 이야기의 줄기만큼이나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카르데니오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 "모두가 큰방에 모였을 때 그 성당의 본당 신부가 들어왔소. 그는 그런 의식에 필요한 일을 하려고 두 사람의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소. '루스신다 아가씨, 거룩한 어머니 교회가 명하는 대로, 여기 계신 돈 페르난도 나리를 정식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벽걸이 융단 사이로 머리와 목을 다 내밀고, 귀를 바짝 기울이고 넋이 어지러운 채 루스신다가 무어라 대답하는지 듣기 시작했소. 그 대답에서 내 죽음의 선고나 내 삶의 확인을 기다리면서. 오, 그때 누가 감히 뛰쳐나가 이렇게 소리칠 수 있었겠소! '아, 루스신다, 루스신다,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아라. 네가 나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는 내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아라. 네가 「네」라고 말하는 것과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아 두어라. 아, 배신자 돈 페르난도, 내 영광을 훔친 자, 내 삶의 죽음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너는 네 욕망의 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루스신다는 내 아내이고 나는 루스신다의 남편이니까.' 아, 어리석은 나여,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에서야 하지 못한 일을 했어야 했다고 말하다니! 내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둔 지금에서야 그 도둑을 저주하다니! 지금 하소연할 배짱이 있는 것처럼 그때 그럴 배짱이 있었더라면 그자에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그때 내가 겁쟁이요 바보였으니, 지금 부끄러움과 뉘우침과 광기 속에서 죽는다 한들 대단한 일은 아니오.

"본당 신부는 루스신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루스신다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루스신다가 제 마음을 증명하려고 단검을 꺼내거나, 아니면 혀를 풀어 내게 도움이 될 어떤 진실이나 진상을 말하리라 생각했는데, 루스신다가 힘없이 가냘픈 목소리로 '네, 맞이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소. 돈 페르난도도 똑같이 말했소. 그리고 그가 반지를 건네자 두 사람은 풀 수 없는 매듭으로 묶였소. 신랑이 신부를 껴안으려고 다가가자, 루스신다는 가슴에 손을 얹더니 어머니 품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소. 이제 남은 이야기는, 내가 들은 그 「네」 한마디에 내 희망이 우롱당하고 루스신다의 말과 약속이 거짓이 되고, 그 순간 잃어버린 복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내가 어떤 꼴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내가 보기에 온 하늘에게서 버림받았으며, 나를 먹여 살리는 땅의 원수가 되었소. 공기는 내 한숨에 숨을 주지 않고 물은 내 눈에 물기를 주지 않았소. 오직 불만이 거세어져 온몸이 분노와 질투로 타올랐소.

"루스신다가 정신을 잃자 모두가 법석을 떨었소. 어머니가 바람이 들도록 루스신다의 가슴을 풀어 헤치자 거기서 봉한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돈 페르난도가 곧 그것을 집어 들고 횃불 하나의 빛에 비추어 읽기 시작했소. 그는 다 읽고 나서 의자에 앉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손으로 뺨을 괴고는, 기절한 신부를 깨우려고 다들 하는 일을 거들러 가지도 않았소. 나는 온 집안사람들이 법석을 떠는 것을 보고, 남의 눈에 띄든 말든 나가 보기로 했소. 누가 나를 본다면 엄청난 짓을

저질러, 거짓된 돈 페르난도를 벌하고, 아울러 기절한 그 변덕스러운 배신자를 벌함으로써 내 가슴의 정당한 분노를 온 세상이 알게 하리라 마음먹었소. 그러나 내 운명은, 더 큰 불행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나를 남겨 둔 모양인지, 그 순간 내게 분별이 넘치도록 해 주었소. 그 분별이 그 뒤로는 줄곧 내게 모자랐지만. 그래서 나는 가장 큰 원수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고(그들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 복수하기도 쉬웠을 텐데) 내 손으로 나에게 복수하여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나에게 가하기로 했소. 그것도 아마 그때 그들을 죽였을 때 그들에게 했을 것보다 더 혹독하게 말이오. 갑자기 맞는 죽음은 고통을 금세 끝내지만, 고문하며 늦추는 죽음은 목숨을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죽이니까. 결국 나는 그 집을 나와, 노새를 맡겨 둔 그 사람의 집으로 갔소. 그에게 노새에 안장을 얹게 하고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노새에 올라 도시를 빠져나왔소. 또 하나의 롯처럼 감히 고개를 돌려 도시를 돌아보지도 못했소. 그리고 들판에 혼자 있게 되어, 밤의 어둠이 나를 감추어 주고 밤의 고요가 하소연하라고 부르자, 누가 듣거나 알아볼까 꺼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목청을 터뜨리고 혀를 풀어 루스신다와 돈 페르난도를 마구 저주했소. 마치 그 저주로 그들이 내게 한 모욕을 갚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나는 루스신다를 잔인한 여자, 무정한 여자, 거짓된 여자,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고 불렀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욕심 많은 여자라고 불렀소. 내 원수의 재산이 루스신다의 마음의 눈을 가려 나에게서 루스신다를 빼앗아, 운명이 더 너그럽고 더 후하게 대해 준 그자에게 넘겨주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한가운데서 나는 루스신다를 두둔하기도 했소. 부모의 집에 들어앉아 늘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길들여진 처녀가 부모의 뜻에 따르려 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토록 지체 높고 그토록 부유하고 그토록 멋진 기사를 남편으로 준다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정신이 없거나 다른 데 마음을 두었다고 여겨질 수 있었을 테고, 그것은 루스신다의 좋은 평판과 명성에 크게 해가 되는 일이었다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말했소. 루스신다가 내가 자기 남편이라고 말했더라도, 그들은 루스신다가 나를 고른 것이 용서 못 할 만큼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돈 페르난도가 나타나기 전이라면 그들 자신도, 제 바람을 이치에 맞게 잰다면, 자기 딸의 남편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손을 내주어야 하는 그 마지막 피할 수 없는 고비에 이르기 전에, 내가 이미 자기에게 손을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나는 달려와서 그 경우에 루스신다가 꾸며 낼 수 있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맞장구쳤을 것이라고.

"마침내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소. 사랑이 모자라고 분별이 모자라며 야심이 크고 높은 신분을 바란 탓에, 루스신다는 나를 속이고 붙잡아 두고 내 굳은 희망과 정직한 바람을 지탱해 주던 그 말들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안절부절못하며 나는 그 밤의 남은 길을 걸었고, 새벽녘에 이 산맥의 어느 들머리에 닿았소. 그리고 길도 오솔길도 없는 이 산속을 사흘을 더 걸어, 이 산들의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를 풀밭에 이르렀소. 거기서 나는 몇몇 목자들에게 이 산에서 가장 험한 곳이 어느 쪽이냐고 물었소. 그들은 이쪽이라고 했소. 나는 곧 이리로 길을 잡았는데, 여기서 목숨을 끝낼 작정이었소. 이 험한 곳에 들어서자 내 노새가 지치고 굶주려 쓰러져 죽었소. 아니, 내가 더 그렇다고 믿는 바로는 나처럼 쓸모없는 짐을 제 몸에서 털어 버리려고 그랬을 것이오. 나는 걸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기운이 다 빠지고 굶주림에 꿰뚫린 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생각도 없었소.

"그렇게 얼마 동안인지도 모르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 배고픔은 사라졌고, 내 곁에 산양치기 몇이 있었소. 내 굶주림을 달래 준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오. 그들은 나를 어떤 상태로 찾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찌나 터무니없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던지 정신을 잃은 것이 뚜렷해 보였다고 내게 말해 주었소. 그 뒤로 나는 내 정신이 늘 온전하지는 않고 어찌나 쇠약하고 흐릿해지는지 숱한 미친 짓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왔소. 옷을 찢고, 이 외진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내 운명을 저주하고, 내 원수의 사랑하는 이름을 헛되이 되뇌며, 그때는 소리치다가 목숨을 끝내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뜻도 없소.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면 어찌나 지치고 몸이 쑤시는지 움직이기도 힘드오. 내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은 이 비참한 몸 하나를 덮을 만한 코르크참나무의 구멍이오. 이 산을 다니는 소치기와 산양치기들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를 먹여 살려 주는데, 내가 혹시 지나가다 찾을 만하다고 여기는 길과 바위 위에 먹을 것을 놓아두오. 그래서 그때 정신이 없더라도 타고난 굶주림이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하고, 먹고 싶은 마음과 집어 들 마음을 내 안에서 일깨우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내가 제정신일 때 나를 만나서 말해 주기를, 마을에서 산양 우리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양치기들이 기꺼이 내주는데도 내가 길로 나가 억지로 빼앗는다고 하오. 이렇게 나는 비참하고 극한의 삶을 보내고 있소. 하늘이 이 삶을 마지막 끝으로 이끌어 주거나, 아니면 내 기억에 손을 써서 루스신다의 아름다움과 배신과 돈 페르난도의 모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 줄 때까지. 하늘이 내 목숨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해 준다면 나는 내 생각을 더 나은 길로 돌릴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오직 하늘에 내 영혼을 온전히 불쌍히 여겨 달라고 빌 수밖에 없소. 나는 내가 원해서 몸을 들여놓은 이 궁지에서 몸을 꺼낼 기개도 힘도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오, 여러분, 이것이 내 불행의 쓰라린 이야기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보인 것보다 덜 슬퍼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해 보시오. 그리고 이치가 내 치료에 좋을 수 있다고 일러 주는 것을 내게 설득하거나 권하느라 애쓰지 마시오. 그것은 이름난 의원이 처방한 약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환자에게 소용없는 만큼만 내게 소용이 있을 것이오. 나는 루스신다 없는 건강은 바라지 않소. 루스신다가 내 것이거나 내 것이어야 마땅한데 남의 것이 되기를 즐겼으니, 나도 행복의 것이 될 수 있었으나 불운의 것이 되기를 즐기겠소. 루스신다는 그 변덕으로 내 파멸을 굳게 만들려 했으니, 나는 나를 망치려 애씀으로써 루스신다의 뜻을 흡족하게 해 주겠소. 그리고 그것은 뒤에 올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오. 모든 불행한 사람에게 남아도는 것이 나 하나에게만 모자랐다는 본보기 말이오.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흔히 위로가 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더 큰 슬픔과 불행의 까닭이 되오. 그 슬픔과 불행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여기서 카르데니오는 긴 이야기, 사랑스러운 만큼 불행한 그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신부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몇 마디 하려고 채비를 하는데, 한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와 신부를 멈추게 했다. 그들은 그 목소리가 애처로운 가락으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이 이야기의 제4편에서 하기로 한다. 슬기롭고 신중한 역사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 대목에서 제3편을 끝맺었기 때문이다.

---

1. 마리우스·카틸리나·술라는 로마의 야심가와 반역자. 갈랄론은 『롤랑의 노래』에서 롤랑을 배신한 가늘롱의 에스파냐 이름, 베이도는 1072년 카스티야의 산초 2세를 죽인 베이도 돌포스, 훌리안은 711년 무어인을 이베리아반도로 끌어들였다고 전하는 훌리안 백작이다.

제4편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4편

제28장 같은 산중에서 신부와 이발사에게 일어난 새롭고 즐거운 모험을 다룬다

더없이 대담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세상에 나온 그 시절은 더없이 복되고 행운에 찬 시절이었다. 이미 사라져 거의 죽어 버린 편력 기사도를 되살려 세상에 돌려놓으려는 그토록 명예로운 결심을 그가 했기에, 즐거운 소일거리가 아쉬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그의 참된 이야기의 달콤함뿐 아니라 그 안에 든 이야기와 곁가지 이야기들까지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들은 얼마간 이야기 본줄기 못지않게 재미있고 공교하며 참되다. 그 본줄기 이야기는 삼을 훑고 꼬고 감은 그 실을 이어 가며 이렇게 전한다. 신부가 카르데니오를 위로하려고 채비를 하는데, 한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와 그것을 가로막았다. 그 목소리는 슬픈 가락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하느님! 제 뜻과는 너무도 다르게 지고 다니는 이 몸의 무거운 짐을 남몰래 묻어 둘 무덤 노릇을 할 곳을 이제야 찾은 걸까요? 그래요, 이 산이 약속하는 외로움이 저를 속이지 않는다면. 아, 불행한 나! 이 바위와 덤불이 제 뜻에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정다운 벗이 되어 줄까요. 여기서는 하소연하며 제 불행을 하늘에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땅 위에는 의심할 때 조언을, 하소연할 때 위안을, 불행할 때 구원을 바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신부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모두 듣고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으므로(실제로

그러했다) 그들은 말한 사람을 찾으러 일어섰다. 스무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큰 바위 뒤에서 농사꾼 차림의 젊은이 하나가 물푸레나무 밑동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젊은이는 그 근처를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씻느라 얼굴을 숙이고 있어서 그때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어찌나 조용히 다가갔던지 젊은이는 그들이 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젊은이는 발을 씻는 일 말고는 아무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 발은 시냇물의 다른 돌들 사이에서 생겨난 흰 수정 두 조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발의 희고 고움에 넋을 잃었다. 그 주인의 차림새가 보여 주는 것처럼 흙덩이를 밟거나 쟁기와 소를 따라다니도록 생긴 발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키지 않은 것을 보고, 앞서가던 신부는 다른 두 사람에게 거기 있던 바위 조각 뒤에 웅크리거나 숨으라고 손짓을 했다. 모두 그렇게 하고서 젊은이가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젊은이는 자락이 두 겹인 짧은 갈색 외투를 입고 흰 수건으로 몸에 꼭 맞게 졸라매고 있었다. 또 갈색 모직 바지와 각반을 차고, 머리에는 갈색 사냥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각반을 정강이 중간까지 걷어 올렸는데, 그 다리는 틀림없이 흰 설화석고처럼 보였다. 젊은이는 그 아름다운 발을 다 씻고 나서 모자 밑에서 머릿수건을 꺼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그 수건을 벗으려다가 얼굴을 들었으므로, 지켜보던 이들은 비길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카르데니오가 신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람은 루스신다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요."

젊은이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흔들자, 해의 머리칼도 시샘할 만한 머리칼이 풀려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들은 농사꾼처럼 보이던 사람이 여자이며, 그것도 가냘픈 여자이고, 두 사람의 눈이 그때까지 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카르데니오의 눈도, 루스신다를 보고 알지 않았더라면 그러했을 것이다.

그는 나중에 오직 루스신다의 아름다움만이 그 여자와 겨룰 수 있다고 단언했다. 길고 금빛 나는 머리칼은 어깨를 덮었을 뿐 아니라 온몸을 빙 둘러 그 밑에 감추었는데, 그 머리칼이 어찌나 길고 숱이 많던지 발 말고는 몸의 어느 곳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두 손이 빗 노릇을 했다. 물속의 발이 수정 조각처럼 보였다면 머리칼 속의 손은 단단히 다진 눈덩이 조각 같았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를 바라보던 세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하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더욱 부추겼다.

그래서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들이 일어서려고 움직이는 소리에 아름다운 처녀는 고개를 들고 두 손으로 눈앞의 머리칼을 헤치며 소리 나는 쪽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신을 신을 겨를도 머리를 걷어 올릴 겨를도 없이 곁에 있던 옷 보따리 같은 것을 재빨리 움켜쥐고는, 놀라고 겁에 질려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여섯 걸음도 채 가지 않아 그 가냘픈 발이 거친 돌을 견디지 못해 그만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것을 본 세 사람이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신부가 먼저 말했다. "멈추시오, 아가씨, 아가씨가 누구든 여기 보이는 우리는 아가씨를 도우려는 뜻뿐이오. 그렇게 공연히 달아날 까닭이 없소. 아가씨의 발도 그것을 견디지 못할 테고 우리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그 모든 말에 그 여자는 넋이 나가고 어리둥절하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이 다가가자 신부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아가씨, 아가씨의 옷차림이 우리에게 감추는 것을 아가씨의 머리칼이 드러내 주는구려. 그 아름다움을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옷으로 가리고 이토록 외진 곳으로 데려온 까닭이 예사롭지 않다는 뚜렷한 표시요. 이곳에서 아가씨를 만난 것은 다행이오. 아가씨의 불행을 고쳐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언은 해 줄 수 있으니 말이오. 목숨이 다하지 않는 한, 어떤 불행도 그 불행을 겪는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해 주는 조언조차

듣지 않으려 할 만큼 괴롭히거나 극에 이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아가씨, 아니 젊은이, 아니면 그대가 무엇이 되고 싶든, 우리를 보고 놀란 마음을 거두고 그대의 운수가 좋았든 나빴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 셋이 함께든 저마다든, 그대의 불행을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을 찾게 될 것이오."

신부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변장한 처녀는 넋을 잃은 듯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들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다. 꼭 진기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을 갑자기 보게 된 시골 촌사람 같았다. 그러나 신부가 같은 뜻으로 다른 말을 다시 건네자, 그 여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 산의 외로움도 저를 감추어 주지 못했고, 풀어 헤쳐진 제 머리칼도 제 혀가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다시 무엇을 꾸며 대 봐야 헛일이겠지요. 설령 믿어 주신다 해도 그건 다른 까닭보다는 예의 때문일 테니까요. 그러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게 해 주신 제안에 감사드려요. 그 제안 덕분에 저는 여러분이 청하신 것을 모두 들려드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어요. 물론 제 불행을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이 연민과 함께 괴로움도 느끼시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 불행을 고칠 방도도, 그것을 달랠 위안도 찾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여자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제가 젊은 여자가 혼자서 이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함께든 하나하나든 어떤 정숙한 평판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 명예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입 다물고 싶은 것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로 보이는 그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쉬지 않고, 그토록 거침없는 혀로, 그토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했으므로, 그들은 그 아름다움 못지않게 그 슬기에 놀랐다. 그들이 다시 새로 도움을

약속하고 새로 간청하며 약속한 것을 지켜 달라고 하자, 그 여자는 더 졸리지도 않고 아주 단정하게 신을 신고 머리를 걷어 올린 다음 돌 하나를 자리 삼아 앉았다. 세 사람이 그 둘레에 앉자, 그 여자는 눈에 고이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안달루시아에 한 고장이 있는데, 어느 공작이 그 고장에서 칭호를 따왔고, 그 칭호 덕에 그분은 에스파냐에서 대귀족이라 불리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되었어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그 영지의 상속자이고, 보기에는 그 좋은 품행의 상속자이기도 해요. 작은아들은 무엇의 상속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베이도의 배신과 갈랄론의 거짓말의 상속자라면 모를까. 제 부모님은 이 나리의 가신인데, 가문은 미천하지만 아주 부자예요. 타고난 신분이 재산만큼만 되었더라면 부모님도 더 바랄 것이 없었을 테고, 저도 지금 이렇게 불행해질까 두려워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 불운은 부모님이 귀한 가문에 태어나지 못한 그 불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부모님은 제 신분을 부끄러워할 만큼 미천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제 불행이 그 미천함에서 왔다는 생각을 제게서 거두어 갈 만큼 높지도 않고요. 결국 부모님은 농사꾼이에요. 소박한 사람들이고, 귀에 거슬리는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흔히 하는 말로 묵은 그리스도교 혈통이에요.[1] 그런데 어찌나 부자인지 그 재산과 넉넉한 살림살이 덕에 차츰 시골 귀족, 아니 기사라는 이름까지 얻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큰 재산이자 영예로 자랑하신 건 저를 딸로 둔 일이었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다른 딸도 아들도 없었고, 또 부모로서 저를 아끼셨으니, 저는 세상의 어떤 부모가 귀여워한 딸보다도 귀여움을 받은 딸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들여다보는 거울이었고, 늙음의 지팡이였으며, 하늘에 견주어 가며 품은 모든 바람이 향하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이 그토록 착하셨으니 제 바람도 그 바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마음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재산의 주인이기도 했어요. 하인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도 저를 통해서였고, 무엇을 뿌리고 거두었는지 그 셈과 계산도 제 손을 거쳤어요. 기름 짜는 방앗간, 포도주 짜는 틀,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수, 벌통의 수까지요. 마침내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유한 농사꾼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진 모든 것의 셈을 제가 맡았고, 저는 그 집의 살림꾼이자 안주인이었어요. 저는 그 일을 아주 부지런히 했고 부모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두머리 목자와 감독과 다른 날품팔이들에게 할 일을 다 일러 주고 나서 하루에 남는 시간은, 처녀에게 합당하고도 꼭 필요한 일로 보냈어요. 바늘과 수틀, 그리고 자주 물레가 주는 그런 일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쉬려고 이런 일을 놓을 때면 신앙 서적을 읽거나 하프를 타는 즐거움에 기댔어요. 음악은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서 생기는 괴로움을 덜어 준다는 것을 겪어 보아 알았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부모님 집에서 살던 생활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것은 뽐내려거나 제가 부자라는 것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처지에서 지금 이 불행한 처지로 제가 얼마나 아무 잘못 없이 오게 되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예요.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일에 매여, 수녀원에 견줄 만큼 집 안에 들어앉아 살았기에, 제가 보기로는 집안 하인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미사에 가는 날도 아주 이른 아침에, 어머니와 다른 하녀들을 거느리고, 몸을 어찌나 꽁꽁 싸매고 조심했던지 제 눈은 발 디딜 땅밖에 거의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랑의 눈, 아니 더 잘 말하자면 한가로움의 눈이, 스라소니의 눈도 따를 수 없는 그 눈이 돈

페르난도의 집요함에 실려 저를 보고 말았어요. 돈 페르난도는 제가 말씀드린 공작의 작은아들 이름이에요."

이야기하던 여자가 돈 페르난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카르데니오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동요가 어찌나 컸던지 그것을 눈여겨본 신부와 이발사는, 이따금 그에게 찾아온다고 들은 그 광기의 발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두려워했다. 그러나 카르데니오는 진땀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고, 그 농사꾼 처녀가 누구인지 짐작하며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녀는 카르데니오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나중에 그분이 말한 대로라면, 저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혔는데, 그분이 보인 몸짓이 그것을 잘 알게 해 주었어요. 하지만 끝이 없는 제 불행 이야기를 빨리 끝내려고, 돈 페르난도가 제게 마음을 밝히려고 들인 공은 그냥 말없이 넘어가겠어요. 그분은 우리 집 사람들을 모두 매수했고, 제 친척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고 또 약속했어요. 우리 동네 거리는 날마다 잔치와 흥겨움이었고, 밤이면 음악 소리 때문에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게 제 손에 들어오는 쪽지는 끝이 없었고, 사랑의 말과 약속으로 가득했는데, 글자 수보다 약속과 맹세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마치 그분이 제 철천지원수라도 되는 듯 저를 더 굳어지게 했어요. 저를 그분 뜻대로 돌려놓으려고 그분이 한 일이 모두 반대 결과를 내려고 한 일처럼 되어 버렸지요. 돈 페르난도의 멋진 모습이 제게 나빠 보였거나 그분의 구애가 지나치다고 여겨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체 높은 기사에게 그토록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저도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뻤고, 그분의 쪽지에서 저를 칭찬하는 말을 보는 것도 싫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늘 기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맞서는 것이 제 정숙함과, 부모님이 끊임없이 해 주신 충고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돈 페르난도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온 세상이 그것을 알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은 당신들의 명예와 명성을 오직 제 덕과 착함에 맡기고 걸어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돈 페르난도 사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의 생각은 제 이익보다 그분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옳지 못한 뜻을 거두도록 제가 무슨 걸림돌이라도 놓고 싶다면, 당장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저를 시집보내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고장에서든 이웃 고장에서든 가장 지체 높은 사람 가운데서 말이에요. 부모님의 넉넉한 재산과 제 좋은 평판이라면 무엇이든 바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확실한 약속과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진실로 저는 제 굳은 마음을 다졌고, 돈 페르난도에게는 아무리 멀리서라도 그분의 바람을 이룰 희망을 보여 줄 만한 말은 한 번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냉대로 여겼을 게 틀림없는 이 모든 조심이 그분의 음탕한 욕망에 더 불을 붙인 까닭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제게 보인 마음에는 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 마음이 마땅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아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릴 계기가 없었을 테니까요. 마침내 돈 페르난도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시집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저를 차지하려는 희망을 꺾으려고, 아니면 적어도 저를 지킬 파수꾼을 더 두려고 말이에요. 이 소식, 아니 이 의심 때문에 그분은 이제 들으실 일을 저질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저를 시중드는 처녀 하나만 데리고 있었고, 혹시 방심해서 제 정숙함이 위험에 빠질까 두려워 문을 단단히 잠가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도 짐작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조심과 대비 한가운데서, 그 고요와 갇힌 외로움 속에서 문득 그분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자 저는 어찌나 놀랐던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혀가 굳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그분도 소리를 지르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곧 제게 다가와 저를 두 팔로 껴안더니(말씀드렸듯이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 어떻게 그런 재주를 지녀서 그토록 참말처럼 보이게 지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배신자는 눈물로 제 말을, 한숨으로 제 뜻을 믿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엾게도 제 식구들 사이에서만 지내 그런 일에 서툴렀기에,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숱한 거짓을 참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과 한숨이 저를 좋지 못한 연민으로 움직일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의 그 놀라움이 가라앉자 저는 잃었던 정신을 얼마간 되찾았고, 제가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용기를 내어 그분에게 말했어요. '나리, 지금 그대의 품에 있듯이 사나운 사자의 품에 안겨 있다 해도, 그리고 내 정숙함에 해가 되는 짓을 하거나 말을 해야만 거기서 풀려날 수 있다 해도, 이미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듯이 그런 짓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내게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대가 그대의 팔로 내 몸을 감싸 쥐었다 해도, 나는 내 착한 바람으로 내 영혼을 묶어 두었다. 그 바람이 그대의 바람과 얼마나 다른지는, 그대가 억지를 써서 그대의 바람대로 더 나아가려 한다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대의 가신이지 그대의 노예가 아니다. 그대 핏줄의 귀함이 내 핏줄의 미천함을 욕되게 하고 업신여길 권세를 지니지도 않았고 지녀서도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천한 농사꾼 여자이지만, 나리이자 기사인 그대가 그대를 귀히 여기는 만큼 나도 나를 귀히 여긴다. 내게는 그대의 힘도 아무 효험이 없을 것이고, 그대의

재산도 아무 값어치가 없을 것이며, 그대의 말도 나를 속이지 못하고, 그대의 한숨과 눈물도 나를 누그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 부모님이 내게 남편으로 정해 주신 사람에게서 보았다면, 내 뜻은 그 사람의 뜻에 맞추어졌을 것이고 그 사람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즐겁지는 않더라도 명예를 지킨 채, 나리, 그대가 지금 그토록 억지로 얻으려는 것을 기꺼이 내주었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내 정식 남편이 아닌 사람이 내게서 무엇이든 얻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뜻에서다.' '걸리는 게 그것뿐이라면, 더없이 아름다운 도로테아여' (이것이 이 불행한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 신의 없는 기사가 말했어요. '보아라, 여기 그대의 남편이 되겠다는 내 손을 그대에게 준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하늘과, 그대가 여기 모셔 둔 이 성모님 성상이 이 진실의 증인이 되어 주기를.'"

카르데니오는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이 도로테아라고 하는 것을 듣자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고, 처음에 짐작한 것이 참말임을 완전히 확신했다. 그러나 자기가 이미 거의 아는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려고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으려 했고, 다만 이렇게만 말했다.

"아가씨, 이름이 도로테아라고? 나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여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여자의 불행이 아가씨의 불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야. 이야기를 이어 가. 아가씨를 슬프게 하는 만큼 놀라게도 할 이야기를 해 줄 때가 올 테니까."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의 말과 그의 이상하고 비참한 차림새를 눈여겨보고, 자기 일에 대해 무엇이든 알고 있다면 당장 말해 달라고 그에게 청했다. 운명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 남겨 주었다면, 그것은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견딜 용기이며, 자기가 보기로는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을 조금이라도 더 키울 불행은 닥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 주는 데

망설이지 않을 거야, 아가씨." 카르데니오가 대답했다. "내가 짐작하는 게 참말이라면. 그리고 아직은 때를 놓친 게 아니고, 아가씨가 그걸 알아서 좋을 것도 하나 없어."

"무슨 일이든 간에요."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제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은 이랬어요. 돈 페르난도는 그 방에 있던 성상 하나를 들어 우리 혼약의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분은 더없이 힘 있는 말과 엄청난 맹세로 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그분이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저는 그분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분이 자기 가신인 천한 농사꾼 여자와 결혼한 것을 보면 그분 아버지가 얼마나 노하실지 헤아려 보라고 말했어요. 제 아름다움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지 말라고, 그 아름다움은 그분의 잘못을 변명해 줄 만큼 넉넉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게 무슨 좋은 일을 해 주고 싶다면, 제 신분에 맞는 만큼 제 운명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신분이 다른 결혼은 시작할 때의 그 즐거움을 결코 누리지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니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모든 말과, 기억나지 않는 다른 많은 말을 그분에게 했어요. 하지만 그 말들도 그분이 제 뜻을 밀고 나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흥정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과 꼭 같았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짧게 따져 보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결혼을 통해 미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오른 여자가 내가 처음은 아닐 테고, 아름다움이나 눈먼 애정(이게 더 맞는 말이겠지만) 때문에 자기 지체에 맞지 않는 짝을 맞은 사람이 돈 페르난도가 처음도 아닐 거야. 내가 새 세상을 만드는 것도 새 풍습을 여는 것도 아니라면, 운이 내미는 이 영예를 받아들이는 게 좋겠지. 이 사람이 내게 보이는 이 마음이 제 욕망을 채울 때까지밖에 가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하느님 앞에서는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될 테니까. 그리고

냉대해서 이 사람을 내치려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써야 할 수단을 쓰지 않고 힘을 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명예를 잃고, 내가 얼마나 잘못 없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는 사람이 내게 돌릴 탓을 변명할 길도 없게 되겠지. 이 기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고, 무슨 말로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겠어?'

"이 모든 물음과 대답을 저는 한순간에 머릿속에서 굴려 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파멸이 된 그 일로 저를 떠밀고 기울게 하기 시작한 것은 돈 페르난도의 맹세와 그분이 세운 증인과 그분이 흘린 눈물이었고, 마침내는 그분의 풍채와 멋이었어요. 그 풍채와 멋이 참사랑의 그 숱한 표시와 함께라면, 제 마음처럼 자유롭고 조심스러운 마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의 증인들에 땅의 증인도 하나 더하려고 시녀를 불렀어요. 돈 페르난도는 다시 맹세를 되풀이하고 다졌어요. 처음 증인들에 새 성인들을 증인으로 보탰고, 저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천 가지 저주를 받겠다고 했어요. 다시 눈을 적시고 한숨을 더했어요. 한 번도 저를 놓아주지 않은 그 팔로 저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러다가 저를 시중드는 처녀가 다시 방을 나가자, 저는 처녀이기를 그쳤고 그분은 배신자요 맹세를 저버린 자가 되기를 마쳤어요.

"제 불행의 밤 다음에 오는 날은 돈 페르난도가 바랐으리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지는 않았어요. 욕정이 바라는 것을 채우고 나면 가장 큰 즐거움은 그것을 채운 곳에서 떠나는 일이니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 페르난도가 서둘러 저를 떠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그분을 거기 데려온 바로 그 시녀의 꾀로, 그분은 날이 밝기 전에 거리로 나갔어요. 그분은 저와 작별하면서, 올 때만큼 간절하고 열렬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신의와 자기 맹세가 굳고 참되다는 것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약속을 더 다지려고

손가락에서 값진 반지를 빼어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그렇게 그분은 떠났고, 저는 슬펐는지 기뻤는지도 모르게 남았어요. 이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리둥절하고 생각에 잠겼으며, 그 새로운 일로 거의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 페르난도를 제 방에 들여보낸 배신을 저지른 시녀를 꾸짖을 용기도 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떠나는 돈 페르난도에게, 이제 나는 당신의 것이니 그분이 원할 때 그 일을 세상에 알릴 때까지 같은 길로 다른 밤에도 나를 만나러 와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다음 날 밤 말고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저는 한 달이 넘도록 거리에서도 성당에서도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려고 애써 봐야 헛일이었어요. 그분이 그 고을에 있고 거의 날마다 사냥을 다닌다는 것은 알았지만요. 그분은 사냥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 나날과 그 시간이 저에게는 불길하고 이지러진 날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 나날 동안 제가 돈 페르난도의 신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예 믿지 않게까지 되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때 시녀가 전에는 듣지 못한 꾸지람을, 그 대담한 짓을 나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제가 무엇 때문에 언짢아하느냐고 물으시고 제가 거짓말을 지어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눈물을 참고 얼굴빛을 다잡아야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체면이 짓밟히고 점잖은 궁리가 끝나며, 참을성이 바닥나고 제 남모르는 생각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에 돈 페르난도가 근처 어느 도시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우리 마을에 돌았거든요. 아주 지체 높은 부모의 딸인데, 지참금으로 그토록 귀한 혼인을 바랄 만큼 부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이 루스신다라고 했고, 그 혼약식에서 놀랄 만한 다른 일들도 일어났다고 했어요."

카르데니오는 루스신다라는 이름을 듣고 어깨를 움츠리고 입술을 깨물고 눈썹을 치켜올리더니, 조금 뒤에 두 눈에서 두 줄기 샘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도로테아는 이야기를 그치지 않고 이어 갔다.

"이 슬픈 소식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얼어붙기는커녕 가슴속에 불붙은 화와 분노가 어찌나 컸던지 하마터면 거리로 뛰쳐나가 제가 당한 배신과 불의를 소리쳐 알릴 뻔했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그날 밤 바로 해치운 일을 하자고 마음먹으면서 그때는 가라앉았어요. 그 일이란 이 옷을 입는 것이었어요. 이 옷은 농사꾼 집에서 젊은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 제 아버지의 머슴이 준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불운을 다 털어놓고, 제 원수가 있다고 알게 된 도시까지 함께 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은 제 대담함을 나무라고 제 결심을 탓하다가, 제 마음이 굳은 것을 보고는 그 사람 말대로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가 주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곧바로 무명 베갯잇에 여자 옷 한 벌과 보석 몇 개와 돈을 싸 넣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의 고요 속에서 배신자 시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머슴과 숱한 상상을 거느리고 집을 나와 걸어서 도시로 길을 떠났어요. 이미 일어난 일로 여긴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돈 페르난도에게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 보라고 하려고, 거기 닿고 싶은 바람에 실려 날아가듯 걸었어요. 저는 이틀 반 만에 가고 싶던 곳에 닿았어요. 도시에 들어서자 루스신다의 부모님 집을 물었는데, 처음 물어본 사람이 제가 듣고 싶었던 것보다 더 많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 사람은 그 집과, 그 집 딸의 혼약식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그 일은 그 도시에 어찌나 널리 알려졌던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서서 온 도시에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로는, 돈 페르난도가 루스신다와 혼약하던 밤에 루스신다가 그분의 아내가 되겠다고 「네」라고 한 뒤 깊이 기절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들도록 루스신다의 가슴을 풀어 헤치려고 다가가자 루스신다의 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나왔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루스신다는 카르데니오의 아내이므로 돈 페르난도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대요. 그 사람이 제게 말한 대로라면 카르데니오는 같은 도시의 아주 지체 높은 기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 페르난도에게 「네」라고 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랬을 뿐이라고 쓰여 있었대요. 한마디로 그 종이에 쓰여 있었다는 말로 보아, 루스신다는 혼약식이 끝나자마자 자결할 작정이었고, 왜 목숨을 끊었는지 그 까닭도 거기 적어 두었대요. 그 모든 것을 루스신다의 옷 어딘가에서 찾아낸 단검 한 자루가 확인해 주었다고들 해요. 이 모든 것을 본 돈 페르난도는 루스신다가 자기를 속이고 비웃고 업신여겼다고 여겨, 루스신다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달려들어 바로 그 단검으로 찌르려 했대요. 루스신다의 부모님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 거래요.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돈 페르난도는 곧 자취를 감추었고 루스신다는 이튿날에야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카르데니오의 참된 아내라고 부모님께 말했대요. 저는 또 알게 되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 카르데니오가 혼약식에 와 있었는데, 루스신다가 혼약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절망해서 도시를 떠났대요. 떠나기 전에 루스신다가 자기에게 한 모욕을 밝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할 곳으로 간다는 편지를 써 두었대요.

"이 모든 일이 온 도시에 널리 알려져 모두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루스신다가 부모님 집에서,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온 도시를 뒤져도 루스신다를 찾지

못해서, 부모님은 넋이 나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대요. 이 소식에 제 희망은 들썩였어요. 돈 페르난도가 결혼한 것을 보느니 그분을 찾지 못한 편이 더 낫다고 여겼어요. 제가 구원받을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는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늘이 그 두 번째 결혼에 그런 걸림돌을 놓은 것은 그분이 첫 번째 결혼에 진 빚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세상 체면보다 자기 영혼에 더 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이 모든 것을 저는 머릿속에서 굴려 보며 위안 없이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제는 싫어진 목숨을 이어 가려고 길고 힘없는 희망을 꾸며 내면서요.

"그렇게 그 도시에 머물며 돈 페르난도를 찾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공개 포고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를 찾는 사람에게 큰 상을 준다고 하며 제 나이와 제가 입은 바로 그 옷차림을 알리는 포고였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온 젊은이가 저를 부모님 집에서 데리고 나갔다는 말이 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제 영혼을 찔렀어요. 제 평판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보았으니까요. 제가 집을 나온 것만으로도 평판을 잃기에 충분한데, 거기다 누구와 함께였는지까지 덧붙여졌고, 그 상대가 제 착한 생각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그토록 미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포고를 듣자마자 저는 머슴과 함께 도시를 떠났어요. 그 머슴은 제게 약속한 충성의 신의를 벌써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들키지 않을까 두려워 이 산의 우거진 곳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흔히 하는 말로 불행은 불행을 부르고, 한 불운의 끝은 대개 더 큰 불운의 시작이라더니 제게 꼭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까지 충직하고 믿음직하던 제 착한 머슴이 이 외진 곳에서 저를 보자마자, 제 아름다움보다는 제 안의 못된 심보에 부추겨져 이 황야가 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를 이용하려 들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저를 존중하지도 않은 채

제게 사랑을 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뻔뻔한 수작에 모질고 옳은 말로 대꾸하는 것을 보자, 처음에 써먹으려던 애원을 집어치우고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올바른 뜻을 지켜보고 돕지 않는 일이 거의, 아니 전혀 없는 의로운 하늘이 제 뜻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잘것없는 힘으로 별로 애쓰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떠밀어 버렸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사람을 거기 버려두었어요. 그러고는 놀라고 지친 몸에 걸맞지 않게 날래게 이 산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산에 숨어 아버지와 아버지 쪽에서 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하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뜻도 없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어느 목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머슴으로 삼아 이 산 깊은 곳에 있는 마을로 데려갔어요. 저는 그동안 내내 그 사람의 젊은 일꾼 노릇을 하며 지금 이렇게 뜻밖에 저를 드러내 버린 이 머리칼을 감추려고 늘 들에 나가 있으려 애썼어요. 그러나 제 모든 꾀와 모든 조심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지금도 소용이 없어요. 제 주인이 제가 사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 안에도 제 머슴과 똑같은 못된 생각이 생겼으니까요. 운명이 고난과 함께 늘 구원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머슴에게 찾아낸 것과 같은 낭떠러지나 벼랑을 주인에게는 찾지 못해, 거기서 떨어뜨려 아예 떨쳐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힘으로 겨루거나 말로 둘러대 보느니 그 사람을 떠나 이 험한 산속에 다시 숨는 편이 덜 해롭겠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숲으로 숨어들어, 아무 방해 없이 한숨과 눈물로 하늘에 빌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제 불운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 불운에서 벗어날 꾀와 도움을 주시든가, 아니면 이 외진 곳에서 목숨을 버리게 해 주시든가 하라고요. 이 슬픈 여자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말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 고장에서도 남의 고장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수군거림을 받을 거리를 주고 말았을 테니까요."

---

1. 「묵은 그리스도교 혈통(cristianos viejos)」은 유대인이나 무어인 조상이 없는 집안을 말한다. 「 귀에 거슬리는 피 」 는 그런 조상의 피를 가리킨다. 당시 에스파냐에서는 이 「피의 순결」이 신분과 명예를 좌우했다.

제29장 아름다운 도로테아의 슬기와 몹시 재미있고 즐거운 다른 일들을 다룬다

"여러분, 이것이 제 비극의 참된 이야기예요. 이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이 들으신 한숨과 제 말과 제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더 넘치도록 쏟아질 까닭이 넉넉하지 않은지를요. 그리고 제 불행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시면 위로가 헛되리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불행은 고칠 길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여러분은 쉽게 하실 수 있고 또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들킬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목숨이 다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조언해 주세요. 부모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시니 저를 반겨 맞아 주시리라는 것은 알지만, 부모님이 생각하시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분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부끄러움이 저를 어찌나 짓누르는지, 부모님이 제게 기대하셨을 정숙함과는 거리가 먼 제 얼굴을 보신다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얼굴을 뵙느니 차라리 영영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떠도는 편이 낫겠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얼굴이 붉게 물들어 그 영혼의 슬픔과 부끄러움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 여자의 불행에 놀라는 만큼 가엾음을 느꼈다. 신부가 곧 그 여자를 위로하고 조언하려 했지만 카르데니오가 먼저 나서서 말했다.

"그러니까 아가씨, 아가씨가 부자 클레나르도의 외동딸, 그 아름다운 도로테아로구나."

도로테아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또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보고 놀랐다. 카르데니오가 얼마나 남루한 차림이었는지는 이미 말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형씨는 누구시기에 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아시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저는 제 불행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나는" 카르데니오가 대답했다. "아가씨가 말한 대로라면 루스신다가 자기 남편이라고 말했다는 그 불운한 사람이오. 나는 불행한 카르데니오요. 아가씨를 지금 이 처지에 빠뜨린 바로 그자의 몹쓸 짓이 나를 아가씨가 보는 이 꼴로 만들었소. 누더기를 걸치고 헐벗었으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온갖 위로를 잃었고, 무엇보다 나쁘게도 정신을 잃었소. 하늘이 내키는 대로 잠깐씩 정신을 돌려줄 때 말고는 나는 정신이 없으니까. 테오도라, 돈 페르난도의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짓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나요. 루스신다가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 들은 사람이 나요. 루스신다의 기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가슴에서 나온 종이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나요. 그 숱한 불행을 한꺼번에 볼 만큼 내 영혼이 참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래서 나는 그 집과 참을성을 함께 버렸고, 내가 묵던 집 주인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겨 루스신다의 손에 전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 외진 곳으로 왔소. 그때부터 내 철천지원수처럼 싫어진 목숨을 여기서 끝낼 작정이었소. 그러나 운명은 내 목숨을 거두려 하지 않고 내 정신을 거두는 것으로 만족했소. 어쩌면 아가씨를 만나는 이 행운을 위해 나를 남겨 두었는지도 모르오. 아가씨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사실이라고 믿거니와, 하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결말을 이 불행 속에 마련해 두었을지도 모르니까. 루스신다는 내 아내이니 돈 페르난도와 결혼할 수 없고, 돈

페르난도는 아가씨의 남편이니 루스신다와 결혼할 수 없으며, 루스신다가 그것을 그토록 분명히 밝혔으니, 하늘이 우리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바랄 수 있소.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고 남의 손에 넘어가지도 망가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위안이 있으니, 그것도 아주 먼 희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상상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니, 아가씨, 부디 그 정숙한 생각을 바꾸어 더 나은 운을 기다리도록 마음을 다잡기를 간청하오. 나도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꿀 작정이오. 나는 기사의 신의와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의를 걸고 아가씨에게 맹세하오. 아가씨가 돈 페르난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때까지 아가씨를 저버리지 않겠소. 그리고 내가 이치를 들어 그가 아가씨에게 진 빚을 깨닫도록 그를 이끌 수 없다면, 그때는 기사라는 신분이 내게 허락하는 자유를 써서, 그가 아가씨에게 저지르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이유로 정당하게 그에게 결투를 청하겠소. 내가 당한 모욕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오. 그 복수는 하늘에 맡기고, 땅 위에서는 아가씨가 당한 모욕을 갚으러 나서겠소."

카르데니오의 말에 도로테아는 그만 넋을 잃을 만큼 놀랐고, 그토록 큰 제안에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몰라 그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려 했다. 그러나 카르데니오는 그러지 못하게 했고, 석사가 두 사람을 대신해 대답했다. 그는 카르데니오의 좋은 생각을 칭찬하고, 무엇보다 자기와 함께 자기 마을로 가자고 두 사람에게 간청하고 권하고 설득했다. 거기서 모자란 것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돈 페르난도를 어떻게 찾을지, 도로테아를 부모에게 어떻게 데려다줄지, 아니면 가장 좋아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할지 방도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했다.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베풀어 주는 호의를 받아들였다. 내내 넋을 놓고 말없이 있던 이발사도 좋은 말을 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 신부 못지않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또 자기들이 그곳에 온 까닭과 돈키호테의 광기가 얼마나 기이한지, 그리고 그를 찾으러 간 그의 종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짧게 이야기했다.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와 벌인 다툼이 꿈결처럼 떠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때 그들은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산초 판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들을 두고 간 자리에서 그들을 찾지 못해 소리쳐 부르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맞으러 나가 돈키호테의 소식을 묻자, 산초는 주인을 찾았는데 셔츠 바람으로 벗은 채 비쩍 마르고 누렇게 떠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고, 그러면서도 둘시네아 아씨를 그리며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 했다. 그리고 아씨가 그곳에서 나와 아씨가 기다리고 있는 토보소로 오라고 명한다고 말했는데도, 주인은 아씨의 아리따움 앞에 나서기 전에 아씨의 은총을 받을 만한 무훈을 세우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하더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되면 주인은 마땅히 되어야 할 황제는커녕 적어도 될 수 있는 대주교도 못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 주인을 거기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해 달라고 했다.

석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이 싫어하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서 끌어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에게 돈키호테를 고치려고, 적어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자기들이 궁리해 둔 꾀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자기가 이발사보다 가련한 아가씨 노릇을 더 잘할 것이고, 게다가 그 노릇을 그럴듯하게 해낼 옷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뜻을 밀고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 보이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자기는 기사 소설을 많이 읽어서 시름에 잠긴 아가씨들이 편력 기사에게 소원을 청할 때 어떤 말투를 쓰는지 잘 안다고 했다.

"그럼 더 필요한 건 없고" 신부가 말했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겠소. 틀림없이 행운이 우리 편을 들어 주는 것 같소. 이렇게 뜻밖에,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필요하던 문이 쉽게 열렸으니까." 도로테아는 곧 베갯잇 보따리에서 값진 얇은 천으로 지은 치마 한 벌과 눈길을 끄는 다른 초록 천으로 지은 짧은 망토를 꺼내고, 작은 상자에서 목걸이와 다른 보석들을 꺼내더니 순식간에 몸을 꾸며 부유하고 지체 높은 귀부인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 여자는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 모든 것과 다른 것들도 집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그것을 쓸 일이 없었다고 했다. 모두가 그 여자의 넘치는 맵시와 재치와 아름다움에 더없이 흐뭇해했고, 그토록 아름다운 여자를 버린 돈 페르난도는 정말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산초 판사였다. 그는 평생 그토록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여겼다(실제로 그러했다). 그래서 그는 신부에게 저 그토록 아리따운 귀부인이 누구이고 이런 외진 데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몹시 다그쳐 물었다. "이 아름다운 귀부인은" 신부가 대답했다. "아우 산초,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하자면,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남자 쪽 직계 상속자일세. 자네 주인을 찾아와서 소원을 하나 청하려는 것인데, 그 소원이란 어느 못된 거인이 저지른 비뚤어진 일, 곧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일세. 그리고 자네 주인이 알려진 온 세상에서 훌륭한 기사라는 명성을 얻고 있으니 이 공주는 그 명성을 듣고 기니에서 그를 찾아온 것이네."

"복되게 찾아 나서고 복되게 찾아냈네요." 그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더구나 우리 주인께서 운이 좋아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 주고 그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아,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자식 같은 거인 놈을 죽인다면 더 그렇죠. 주인께서 그놈을 만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죽일 거예요. 그놈이 유령만 아니라면요. 유령한테는 우리 주인 나리도 아무 힘을 못 쓰시거든요. 그런데 석사 나리, 다른 것도 있지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인께서 대주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게 제가 걱정하는 건데요, 나리께서 주인께 이 공주님과 당장 결혼하시라고 권해 주세요. 그러면 주인께서는 대주교 서품을 받을 수 없게 될 테고, 손쉽게 제국에 이르실 테고, 저는 제 바람을 이루겠죠. 저는 이걸 잘 따져 보았는데, 제 셈으로는 우리 주인께서 대주교가 되시는 건 제게 좋지 않아요. 저는 장가든 몸이라 교회에는 쓸모가 없거든요. 마누라와 자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녹을 받으려고 이제 와서 관면장을 얻으러 쫓아다니다가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리, 요점은 우리 주인께서 이 아씨와 당장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아씨 존함을 몰라서 이름으로 부르지는 못하겠네요."

"이분 이름은" 신부가 대답했다. "미코미코나 공주일세. 왕국 이름이 미코미콘이니 공주도 그렇게 불리는 게 당연하지."

"그건 틀림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도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이름을 성이나 가문 이름으로 삼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알칼라의 페드로, 우베다의 후안, 바야돌리드의 디에고처럼요. 저기 기니에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죠. 여왕들이 자기 왕국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거요."

"그런 모양일세."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자네 주인이 결혼하는 일이라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다 해 보겠네."

이 말에 산초는 흐뭇해했고, 신부는 그의 순진함에, 그리고 그가 자기 주인과 똑같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머릿속에 어찌나 단단히 박아 두었는지에 놀랐다. 산초는 주인이 황제가 되리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도로테아는 신부의 노새에 올라앉았고, 이발사는 소꼬리로 만든 수염을 얼굴에 붙였다. 그들은 산초에게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하면서, 석사도 이발사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일렀다. 주인이 황제가 되느냐 마느냐는 모두 그들을 모르는 척하는 데 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신부도 카르데니오도 그들과 함께 가려 하지 않았다.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가 자기와 벌인 다툼을 떠올리지 않도록, 신부는 그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기들은 천천히 걸어서 뒤따라갔다. 신부는 도로테아가 할 일을 일러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걱정하지 말라고, 기사 소설이 요구하고 그려 보이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겠다고 말했다. 4분의 3레과쯤 갔을 때 그들은 뒤엉킨 바위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를 찾아냈다. 그는 이미 옷은 입었으나 갑옷은 걸치지 않은 채였다. 도로테아는 그를 보고 산초에게서 저 사람이 돈키호테라는 말을 듣자마자 귀부인의 말에 채찍을 대어 몰았고, 수염 덥수룩한 이발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의 곁에 이르자 종자는 노새에서 뛰어내려 도로테아를 안아 내리러 갔다. 그러나 도로테아는 아주 거침없이 내려서더니 돈키호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가 그 여자를 일으키려고 애썼지만 그 여자는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아뢰었다.

"오, 용맹하고 굳센 기사여, 그대의 착하심과 예의로 제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기 전까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그 소원은 그대의 명예와 영광이 되고, 해가 본 가운데 가장 서럽고 억울한 아가씨에게 도움이 되나이다. 그리고 그대의 굳센 팔의 용맹이 그대의 불멸의 명성에 걸맞다면, 그대는 그토록 먼 나라에서 그대의 이름난 이름을 좇아 제 불행을 고쳐 주십사고 그대를 찾아온 이 불운한 여인을 도울 의무가 있나이다."

"아리따운 아씨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씨가 땅에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아씨의 사정을 더 듣지도 않으리라."

"나리" 시름에 잠긴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대의 예의로 제가 청하는 소원을 먼저 들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그 소원을 들어주고 허락하노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다만 내 임금과 내 조국, 그리고 내 마음과 자유의 열쇠를 지닌 그분께 해가 되거나 흠이 되지 않는 일이어야 하오."

"말씀하신 분들께 해가 되지도 흠이 되지도 아니하나이다, 나의 착한 나리." 슬픔에 잠긴 아가씨가 대꾸했다.

그러는 사이에 산초 판사가 주인의 귀에 다가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나리, 저 여자가 청하는 소원을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요. 커다란 거인 놈 하나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청하는 이분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여왕, 지체 높으신 미코미코나 공주님이에요."

"누구든 상관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서약한 바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가씨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아씨의 크나큰 아리따움은 일어나시오. 아씨가 청하고자 하는 소원을 들어주노라."

"그럼 제가 청하는 소원은" 아가씨가 말했다. "그대의 너그러우신 몸이 곧바로 저와 함께 제가 모시고 가는 곳으로 가 주시고, 하느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모두 거슬러 제 왕국을 빼앗은 배신자에게 저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실 때까지 다른 어떤 모험이나 탐색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사 하는 것이나이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아씨, 오늘부터는 아씨를 괴롭히는 우울을 떨쳐 버리시고, 기운 잃은 아씨의 희망이 새 기운과 힘을 되찾게 하시오. 하느님의 도우심과 내 팔의 도움으로, 아씨는 거스르려 드는 비겁한 놈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분해하더라도 머지않아 아씨의 왕국을 되찾고 아씨의 오래고 위대한 나라의 옥좌에 앉게 되리라. 그러니 일에 손을 대십시다. 늦어지는 데 위험이 있다고들 하니까."

가련한 아가씨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무척 고집스럽게 애썼으나, 무엇에서나 예의 바르고 정중한 기사인 돈키호테는 끝내 그러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그 여자를 일으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껴안았다. 그리고 산초에게 로시난테의 뱃대끈을 살피고 당장 자기에게 갑옷을 입히라고 명했다. 산초는 전리품처럼 나무에 걸려 있던 갑옷을 내리고, 뱃대끈을 살핀 다음 순식간에 주인에게 갑옷을 입혔다. 갑옷을 입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떠나, 이 위대한 아씨를 도우러 가자." 이발사는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 웃음을 감추고 수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수염이 떨어졌더라면 아마 모두가 그 좋은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소원이 허락되었고 돈키호테가 그것을 이루러 가려고 서둘러 채비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다른 쪽 손으로 자기 아씨를 붙잡았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여자를 노새에 태웠다. 이어 돈키호테가 로시난테에 올랐고 이발사도 제 탈것에 올라앉았다. 산초만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잿빛 당나귀를 잃은 일이 그때 아쉬운 만큼 새삼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견뎠다. 주인이 이제 황제가 될 길에 들어섰고 그것도 바로 코앞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인이 그 공주와 결혼해서 적어도 미코미콘의 왕이 되리라고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그 왕국이 흑인들의 땅에

있으니 자기에게 신하로 줄 사람들이 모두 흑인이리라는 생각만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곧 상상 속에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고 혼잣말을 했다. "내 신하들이 흑인이면 어때? 그놈들을 실어서 에스파냐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잖아? 거기서 팔면 현금으로 값을 쳐줄 테고, 그 돈으로 무슨 칭호나 벼슬을 사서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래, 잠이나 자고 있으라지. 일을 꾸미고 신하 서른 명이든 만 명이든 지푸라기 하나 집어 주는 사이에 팔아 치울 머리도 재주도 없이 말이야! 하느님께 맹세코 작은 놈 큰 놈 할 것 없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대로 날려 버릴 거야. 아무리 검은 놈들이라도 희게 아니면 누렇게, 그러니까 은화나 금화로 바꿔 놓고 말겠어. 덤벼 보라지, 내가 손가락이나 빠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어찌나 부지런하고 흐뭇하게 걸었던지 걸어가는 괴로움도 잊어버렸다.

카르데니오와 신부는 덤불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들과 합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러나 꾀가 많은 신부는 바라는 것을 이룰 방도를 곧 생각해 냈다. 그는 주머니에 넣어 다니던 가위로 재빨리 카르데니오의 수염을 깎고, 자기가 입고 있던 짧은 갈색 외투를 그에게 입히고 검은 망토를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바지와 조끼 바람이 되었다. 카르데니오는 전과 어찌나 딴사람이 되었는지 거울을 들여다보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변장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서갔지만, 그 고장의 덤불과 험한 길에서는 말 탄 사람이 걷는 사람만큼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쉽게 큰길로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산을 빠져나오는 들머리의 평지에 자리를 잡았다. 돈키호테와 그 일행이 산에서 나오자 신부는 그를 알아보는 척하며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본 끝에 두 팔을

벌리고 그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기사도의 거울이요, 나의 착한 고향 사람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도다! 고상함의 꽃이요 정수요, 가련한 이들의 방패요 구원이요, 편력 기사들의 진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돈키호테의 왼쪽 무릎을 끌어안았다. 돈키호테는 그 사람이 하는 짓과 말을 보고 듣고 놀라 그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를 알아보고는, 그를 만난 것에 화들짝 놀란 듯이 말에서 내리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신부가 그러지 못하게 했으므로 돈키호테가 말했다.

"놓으시오, 석사 나리. 나는 말을 타고 있고 나리같이 그토록 존경스러운 분이 걸어가시는 것은 옳지 않소." "나는 결코 그렇게 둘 수 없소." 신부가 말했다. "그대의 위대함은 말 위에 그대로 계시오. 말 위에서 그대는 우리 시대에 본 가장 큰 무훈과 모험을 이루시니까. 나야 보잘것없는 사제지만, 그대와 함께 가는 이분들이 언짢아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의 노새 가운데 하나의 엉덩이에 올라타는 것으로 족하오. 그리고 나는 천마 페가수스나, 아니면 위대한 콤플루툼에서 멀지 않은 술레마 큰 언덕에 지금도 마법에 걸려 누워 있는 그 이름난 무어인 무사라케가 타던 얼룩말이나 군마를 타고 가는 셈 치겠소."[1]

"나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나의 석사 나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나의 아씨 공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종자에게 노새의 안장을 나리께 내드리라고 명해 주시리라 믿소. 종자는 노새가 견딜 수만 있다면 엉덩이에 올라타면 될 것이오."

"제가 알기로는 견딜 수 있나이다." 공주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 종자 나리에게 명할 필요도 없으리라는 것도 아나이다. 그는 아주 예의 바르고 세련된 사람이라, 말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성직자를 걸어가게 두지는 않으리라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노새에서 내려 신부에게 안장을 권했고, 신부는 크게 사양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일이 고약하게 되었다. 이발사가 엉덩이에 올라타려는데 그 노새는 사실 세 놓은 노새였으니 고약하다고 말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하거니와, 뒷다리를 조금 들어 공중에 뒷발질을 두 번 했다. 그 발길질이 니콜라스 선생의 가슴이나 머리에 맞았더라면 그는 돈키호테를 데리러 온 일을 악마에게나 줘 버렸을 것이다. 그래도 그 발길질에 어찌나 놀랐던지 그는 땅에 떨어졌고, 수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어 수염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그는 수염이 없어진 것을 보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금니가 부러졌다고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었다. 돈키호테는 쓰러진 종자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수염 뭉치가 턱도 피도 없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이건 큰 기적이로구나! 일부러 떼어 낸 것처럼 수염을 얼굴에서 뽑아 떨어뜨렸구나!"

신부는 자기 꾀가 들통날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곧 수염을 집어 들고,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누워 있는 니콜라스 선생에게 갔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자기 가슴께로 끌어당기더니 단번에 수염을 붙이면서 그 위에 대고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수염을 붙이는 데 알맞은 어떤 주문이라고 하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염을 다 붙이고 나서 그가 물러서자 종자는 전과 똑같이 수염이 덥수룩하고 멀쩡했다. 돈키호테는 이것을 보고 더없이 놀라, 틈이 나면 그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신부에게 청했다. 그 주문의 효험은 수염을 붙이는 것 이상으로 미칠 것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수염을 떼어 낸 자리에는 살이 다치고 상하기 마련인 것이 뻔하니, 그것을 다 낫게 한다면 수염 말고도 다른 데도 쓸모가 있으리라고 했다.

"그렇소." 신부가 말하고 처음 기회가 오면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우선 신부가 노새에 타고, 2레과쯤 떨어져 있을 객줏집에 닿을

때까지 세 사람이 군데군데서 번갈아 타기로 했다. 세 사람, 곧 돈키호테와 공주와 신부는 탈것에 오르고, 세 사람, 곧 카르데니오와 이발사와 산초 판사는 걸어가게 되자, 돈키호테가 아가씨에게 말했다.

"나의 아씨, 아씨의 위대함께서 가장 마음 내키는 쪽으로 이끄시오."

그리고 그 여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석사가 말했다.

"공주님께서는 어느 왕국 쪽으로 이끄시렵니까? 혹시 미코미콘 왕국 쪽입니까? 틀림없이 그러시겠지요. 아니라면 제가 왕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는 셈이니까요."

모든 것을 잘 알아차린 그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네, 나리, 제 길은 그 왕국으로 가는 길이나이다."

"그렇다면" 신부가 말했다. "우리는 우리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야겠습니다. 거기서 공주님께서는 카르타헤나로 길을 잡으시면 다행히 배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순풍이 불고 바다가 잔잔하고 폭풍이 없으면, 9년이 채 못 되어 메오나(오줌싸개) 늪, 아니 메오티데스 늪이 보이는 데까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늪은 공주님 왕국에서 이쪽으로 백 날 남짓 걸리는 곳에 있지요."

"나리께서 잘못 아셨나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저는 그 왕국을 떠난 지 두 해도 안 되었고, 정말이지 한 번도 날씨가 좋은 적이 없었는데도 그토록 보고 싶던 분을 보게 되었나이다. 바로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이시지요. 제가 에스파냐에 발을 딛자마자 그분의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고, 그 소식에 마음이 움직여 그분의 예의에 제 몸을 맡기고 그분의 무적의 팔의 용맹에 제 정의를 맡기려고 그분을 찾아 나섰나이다."

"그만, 내 칭찬은 그치시오."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온갖 아첨의 원수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아첨은 아니라 해도, 그런 말은

여전히 내 순결한 귀에 거슬리오. 나의 아씨,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용맹이 있든 없든, 있는 용맹이든 없는 용맹이든 목숨을 잃을 때까지 아씨를 섬기는 데 쓰이리라는 것이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때가 올 때까지 미뤄 두고, 석사 나리께 묻고 싶소. 무슨 까닭으로 이런 곳까지, 그토록 혼자서, 하인도 없이, 그토록 가벼운 차림으로 오셨는지. 그것이 나를 놀라게 하오."

"그건 짧게 대답하겠소." 신부가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 알아두시오. 나와 우리 친구이자 우리 이발사인 니콜라스 선생은 세비야로 가는 길이었소. 여러 해 전에 인디아스로 건너간 내 친척 하나가 내게 보낸 돈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돈이 적지도 않아서 순도를 시험한 6만 페소가 넘으니 그것도 대단한 돈이오. 그런데 어제 이 근처를 지나다가 노상강도 넷을 만나 수염까지 털렸소. 어찌나 털렸던지 이발사는 가짜 수염을 붙여야 했고, 여기 가는 이 젊은이도" (그는 카르데니오를 가리켰다) "아주 새사람을 만들어 놓았소.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 근방에 온통 소문이 돌기를, 우리를 턴 자들이 갤리선 죄수들인데, 거의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내가 그들을 풀어 주었다는 것이오. 그 사내는 어찌나 용감한지 호송관과 호위병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모두 풀어 주었다고 하오. 그 사내는 틀림없이 정신이 나갔거나, 그자들만큼 큰 악당이거나, 아니면 영혼도 양심도 없는 사람일 것이오. 양 떼 속에 늑대를, 닭들 속에 여우를, 꿀 속에 파리를 풀어놓으려 했으니까. 정의를 속이고, 제 임금이자 타고난 주군을 거스르려 했소. 그분의 정당한 명령을 거슬렀으니까. 내 말은, 그는 갤리선에서 발을 빼앗고, 여러 해 동안 잠잠하던 성스러운 형제단을 들쑤시려 했다는 것이오. 한마디로 제 영혼은 잃고 제 몸은 얻지도 못할 짓을 하려 했소."

산초가 신부와 이발사에게 갤리선 죄수의 모험, 그러니까 주인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해낸 그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기에, 신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돈키호테가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말을 세게 했다. 돈키호테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얼굴빛이 변했지만 그 착한 사람들을 풀어 준 자가 자기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신부가 말했다. "우리를 턴 자들이오. 그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러 끌려가지 못하게 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오."

---

1. 콤플루툼(Compluto)은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알칼라 데 에나레스의 옛 이름. 술레마 언덕은 그 근처의 언덕으로, 무어인 무사라케가 거기 마법에 걸려 잠들어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제30장 사랑에 빠진 우리 기사를 그가 스스로 뛰어든 혹독한 고행에서 끌어낸 재치 있는 계략과 절차를 다룬다

신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산초가 말했다.

"아이고 참말로, 석사 나리, 그 공훈을 세운 건 우리 주인이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짓을 하시는지 잘 보시라고, 그놈들은 모두 아주 지독한 악당이라서 거기 끌려가는 거니까 풀어 주는 건 죄라고 제가 일러 드렸거든요." "이 멍청이야!"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편력 기사는 길에서 만나는 괴로워하는 이들, 사슬에 묶인 이들, 억눌린 이들이 그런 꼴로 가는지,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가 제 죄 때문인지 제 덕 때문인지 캐 볼 일도 상관할 일도 없다. 오직 그들을 가련한 이로 여겨 돕는 것이 할 일이고, 그들의 악행이 아니라 고통에 눈을 두어야 한다. 나는 시무룩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묵주알처럼 줄줄이 엮인 것을 만나서 내 기사도가 내게 요구하는 일을 그들에게 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라지. 그리고 석사 나리의 거룩한 성직과 그 점잖은 인품은 빼고 말하거니와, 그 일을 나쁘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자는 기사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요, 화냥년의 자식이요 근본 없는 놈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 칼로 그자에게 깨우쳐 주리라. 거기에 더 자세히 적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등자를 딛고 몸을 버티며 철모를 깊이 눌러썼다. 그의 셈으로는 맘브리노의 투구인 이발사의 놋대야는 갤리선 죄수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고칠 때까지 안장 앞가지에 걸어 두고 다녔기 때문이다.

슬기롭고 재치가 넘치는 도로테아는 이미 돈키호테의 모자란 기질을 알았고, 산초 판사 말고는 모두가 그를 놀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므로, 자기도 뒤지지 않으려고 그가 몹시 화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저에게 약속하신 소원을 떠올리소서. 그 약속에 따라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다른 모험에 끼어드실 수 없나이다. 가슴을 가라앉히소서. 그 무적의 팔로 갤리선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것을 석사 나리께서 아셨더라면, 나리를 언짢게 할 말을 한마디라도 하기 전에 입을 세 바늘 꿰매고 혀를 세 번은 깨무셨을 것이나이다."

"그건 내가 맹세하오." 신부가 말했다. "콧수염 한쪽이라도 뽑아 버렸을 것이오." "나는 입을 다물겠소, 나의 아씨."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이미 내 가슴에 일어난 정당한 노여움을 누르고, 약속한 소원을 아씨에게 이루어 드릴 때까지 조용하고 평온하게 가겠소. 그러나 이 좋은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아씨가 언짢지 않으시다면 간청하오. 아씨의 시름이 무엇이며, 내가 마땅하고 흡족하고 온전한 복수를 해 드려야 할 사람들이 몇이고 누구이며 어떤 자들인지 말씀해 주시오."

"기꺼이 그러겠나이다."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가엾고 불행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지 않으시다면요."

"지겹지 않을 것이오, 나의 아씨."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말에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그럼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 주세요."

그 여자가 이 말을 하자마자 카르데니오와 이발사가 그 곁에 다가갔다. 슬기로운 도로테아가 제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 내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여자에게 주인만큼이나 속아 넘어간 산초도 그렇게 했다. 그 여자는 안장에 바로 앉고 기침을 하며 다른 몸짓도 해 보이며 채비를 한 다음, 아주 맵시 있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를……"

그러다가 그 여자는 여기서 잠시 멈췄다. 신부가 붙여 준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는 그 여자가 무엇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고 얼른 거들어 말했다.

"공주님, 공주님의 위대하심께서 불운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음이 어지러워 말이 막히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불운이란 대개 그런 것이어서, 그것이 괴롭히는 사람의 기억을 앗아 가 제 이름마저 떠오르지 않게 하는 일이 흔하지요. 공주님께서도 그렇게 되시어,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정당한 상속자 미코미코나 공주라는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이렇게 일러 드렸으니, 이제 공주님의 위대하심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을 모두 그 괴로운 기억 속에 쉽게 되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옳나이다." 아가씨가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일러 주실 필요가 없을 것 같나이다. 제 참된 이야기를 무사히 끝맺겠나이다. 제 이야기는 이러하나이다. 제 아버지 왕은 현자 티나크리오라는 분인데, 마법이라고 하는 기술에 아주 밝으셔서, 제 어머니 하라미야 왕비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나시어 제가 부모를 다 잃은 고아가 되리라는 것을 그 학문으로 아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보다 더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고 하셨나이다. 우리 왕국과 거의 맞닿은 큰 섬의 주인인 엄청난 거인, 흘겨보는 눈의 판다필란도라는 자가(이 거인은 두 눈이 제자리에 바로 박혀 있는데도 사팔뜨기처럼 늘 거꾸로 보는데, 심술궂게도 자기가 보는 사람을 겁주고 놀라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 다 밝혀진 일이나이다), 제 말씀은, 아버지는 이 거인이 제가 고아가 된

것을 알면 큰 군세로 제 왕국에 쳐들어와 제가 몸을 붙일 작은 마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빼앗으리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나이다. 다만 제가 그 거인과 결혼하려 한다면 그 모든 파멸과 불행을 피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아시기로는 제가 그토록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할 리는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참으로 옳았나이다. 저는 그 거인은 물론이요, 아무리 크고 사나운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나이다.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판다필란도가 제 왕국에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맞서 싸우려고 기다리지 말라고. 그것은 저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니, 착하고 충직한 제 신하들의 죽음과 완전한 파멸을 피하고 싶거든 차라리 순순히 왕국을 그자에게 비워 주라고 하셨나이다. 그 거인의 악마 같은 힘에 맞서 저를 지키기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제 사람 몇을 데리고 에스파냐로 길을 떠나라고 하셨나이다. 거기서 한 편력 기사를 찾으면 제 불행을 고칠 방도를 얻으리니, 그 기사의 명성이 그때쯤이면 이 왕국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고, 그 기사의 이름은,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돈 아소테(채찍)인지 돈 히고테(다진 고기)인지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돈키호테라고 하셨겠지요, 아씨." 그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얼굴의 기사고요."

"그 말이 옳나이다." 도로테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나이다. 그 기사는 키가 크고 얼굴이 야위었으며, 오른쪽 옆구리, 왼쪽 어깨 밑, 아니면 그 근처에 돼지 털 같은 털이 몇 가닥 난 갈색 점이 있으리라고요."

이 말을 듣자 돈키호테가 종자에게 말했다.

"얘야 산초, 이리 와서 옷 벗는 것 좀 거들어라. 내가 그 현명한 왕이 예언해 둔 기사인지 보고 싶구나."

"아니, 나리께서 왜 옷을 벗으시려고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아씨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이 내게 있는지 보려는 것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옷을 벗으실 필요 없어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 등뼈 한가운데에 그런 생김새의 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힘센 사람이라는 표시죠."

"그거면 되었나이다." 도로테아가 말했다. "벗들 사이에서는 자잘한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 법이니, 어깨에 있든 등뼈에 있든 별 상관없나이다. 점이 있으면 되었지, 어디에 있든 다 한 몸의 살이니까요. 틀림없이 제 착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맞히셨고, 저도 돈키호테 나리께 몸을 맡긴 것이 옳았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니까요. 얼굴의 생김새가 이 기사가 에스파냐에서뿐 아니라 라만차 전체에서 누리는 좋은 명성의 표시와 맞아떨어지니까요. 제가 오수나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분의 무훈을 어찌나 많이 들었던지, 제가 찾아온 바로 그분이라는 예감이 곧 들었나이다."

"그런데 아씨, 오수나는 바닷가 항구가 아닌데 어떻게 오수나에서 배에서 내리셨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러나 도로테아가 대답하기 전에 신부가 끼어들어 말했다.

"공주님께서는 말라가에서 배에서 내리신 다음 나리의 소식을 처음 들으신 곳이 오수나였다는 말씀을 하시려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하려던 것이나이다." 도로테아가 말했다.

"그래야 이치에 맞지요." 신부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야기를 이어 가십시오." "더 이을 것도 없나이다."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다만 마침내 돈키호테 나리를 만난 제 운이 어찌나 좋은지, 저는 벌써 제 왕국 전체의 여왕이요 주인이 된 것으로 여기고 있나이다. 이분은 그 예의와 너그러움으로 제가 모시고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 주시겠다는 소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곳은 다름 아니라 흘겨보는 눈의

판다필란도 앞이나이다. 이분이 그자를 죽이고, 그자가 그토록 이치에 어긋나게 빼앗아 간 것을 제게 돌려주시도록 말이나이다. 이 모든 일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나이다. 제 착한 아버지 현자 티나크리오가 그렇게 예언해 두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또, 저는 읽을 줄 모르는 칼데아 글자인지 그리스 글자인지로 이렇게 말씀해 두시고 써 두셨나이다. 예언에 나오는 이 기사가 거인의 목을 벤 뒤에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곧바로 그분의 정식 아내가 되고, 제 몸과 함께 제 왕국도 그분이 차지하게 해 드리라고요."

"산초, 내 벗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리지 않느냐?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보아라, 이제 우리에게 다스릴 왕국과 결혼할 여왕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건 제가 맹세하죠." 산초가 말했다. "판다힐라도 나리의 목구멍을 따자마자 결혼하지 않는 놈은 사내도 아니라고요! 여왕님이 참 못나기도 하셨지! 내 침대 벼룩들이 다 저런 여왕님으로 바뀌면 좋겠네!"

그러면서 그는 더없이 기쁜 기색으로 공중에서 발뒤꿈치를 두 번 마주치더니, 곧 도로테아의 노새 고삐를 잡아 세우고는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여자를 자기 여왕이요 주인으로 받드는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주인의 광기와 하인의 순진함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웃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결국 도로테아는 그에게 손을 내주고,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왕국을 되찾아 누리게 해 주면 그를 자기 왕국의 큰 나리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산초는 어찌나 우스운 말로 고마워했던지 모두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 이것이" 도로테아가 이야기를 이어 갔다. "제 이야기예요. 이제 남은 말씀은, 제가 왕국에서 데리고 나온 수행원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수염이 덥수룩한 이 착한 종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항구가 보이는 데서 큰 폭풍을 만나 모두 물에 빠져 죽고, 이 사람과 저만

널빤지 두 장에 매달려 기적처럼 뭍에 닿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셨듯이 제 삶의 행로는 온통 기적과 신비예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든 지나치거나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잘 맞히지 못한 데가 있다면, 석사 나리께서 제 이야기 첫머리에 하신 말씀을 탓해 주세요. 끊임없고 엄청난 고난은 그것을 겪는 사람의 기억을 앗아 간다는 말씀이요."

"오, 드높고 용맹하신 아씨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씨를 섬기며 내가 겪을 고난이 아무리 크고 보도 듣도 못한 것이라 해도, 그 고난이 내 기억을 앗아 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 나는 아씨께 약속한 소원을 다시 다지고, 아씨의 사나운 원수와 마주할 때까지 세상 끝까지라도 아씨와 함께 가겠노라고 맹세하오. 하느님의 도우심과 내 팔의 도움으로, 이…… 좋은 칼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내 칼을 가져가 버린 덕분에. 이 칼날로 그자의 오만한 머리를 베어 버릴 작정이오."

이 말은 입속으로 중얼거리고 나서 그는 말을 이어 갔다.

"그리고 그 머리를 베고 아씨를 아씨의 나라에 평온히 앉혀 드린 뒤에는, 아씨의 몸을 아씨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될 것이오. 내 기억이 사로잡히고 내 뜻이 포로가 되고 내 분별이 저 그분께…… 더는 말하지 않겠소. 그렇게 되어 있는 한, 비록 불사조와의 결혼이라 해도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으니까."

산초는 주인이 마지막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어찌나 못마땅했던지 몹시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내 목을 걸고, 내 목을 걸고 맹세하는데, 돈키호테 나리, 나리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지체 높은 공주님과 결혼하는 걸 어떻게 망설이실 수 있어요? 운명이 모퉁이마다 지금 같은 행운을 내밀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둘시네아 아씨가 더 아름다운가요? 천만에요, 절반도 못 따라와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의

신발 끈도 못 따라온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나리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뚱딴지를 캐러 다니시면 제가 바라는 백작령은 영영 물 건너가는 거라고요. 결혼하세요, 당장 결혼하세요. 사탄한테나 잡혀가실 양반 같으니. 그리고 공짜로 손에 굴러 들어오는 그 왕국을 차지하세요. 왕이 되시면 저를 후작이나 총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는 악마가 몽땅 잡아가든 말든요."

자기 아씨 둘시네아를 두고 그런 모독하는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참지 못하고, 긴 창을 쳐들고 산초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입도 벙긋하지 않고 두 번을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산초를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도로테아가 그만 치라고 소리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그의 목숨을 빼앗았을 것이다.

"이 비루한 촌놈" 한참 뒤에 그가 산초에게 말했다. "자네는 언제나 나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건드려도 되고, 늘 자네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게, 이 파문당한 악당. 너는 틀림없이 파문당한 놈이다,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에게 혀를 놀렸으니. 이 머슴 놈, 짐꾼 놈, 거지 놈아, 그분이 내 팔에 불어넣어 주는 용맹이 없다면 내 팔에는 벼룩 한 마리 죽일 용맹도 없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말해 보게, 독사 혓바닥을 가진 이 능구렁이야. 이 왕국을 얻고 이 거인의 목을 베고 자네를 후작으로 만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판결이 끝난 일로 여기거니와, 그것은 내 팔을 제 무훈의 도구로 삼은 둘시네아의 용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이 내 안에서 싸우고 내 안에서 이기며,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숨 쉬고 삶과 존재를 얻네. 오, 이 화냥년의 자식 같은 악당아, 자네는 어찌 그리 은혜를 모르는가. 땅의 먼지에서 칭호 받은 나리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그 좋은 일을 해 준 분을 헐뜯는 것으로 갚다니!"

산초는 주인이 하는 말을 모두 듣지 못할 만큼 험하게 다치지는 않았으므로, 조금 재빠르게 일어나 도로테아가 탄 말 뒤로 가서 숨더니 거기서 주인에게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나리. 나리께서 이 위대한 공주님과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 왕국은 나리 것이 안 될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나리 것이 안 되면 저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하소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듯 여기 계시니, 나리, 어쨌든 이 여왕님과 결혼하세요. 그다음에 둘시네아 아씨한테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세상에는 첩을 둔 왕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아름다움에 관해서라면 저는 끼어들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두 분 다 제 마음에 들어요. 물론 저는 둘시네아 아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요." "어째서 본 적이 없다는 거냐, 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배신자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방금 그분의 전갈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느냐?"

"제 말은" 산초가 말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좋은 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눈여겨볼 만큼 찬찬히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충 뭉뚱그려 보기에는 마음에 들어요."

"이제야 너를 용서하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언짢게 한 것을 용서해 다오. 처음 치미는 마음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까."

"그건 저도 알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처음 치미는 마음이라, 한 번만이라도 혀끝에 오르는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래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네가 하는 말을 조심해라. 항아리도 샘에 너무 자주 가면……. 더는 말하지 않겠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속임수를 다 보시니, 누가 더 나쁜 짓을 하는지 판가름해 주시겠죠. 말을 곱게 못 하는 저인지, 행동을 곱게 못 하시는 나리인지요."

"이제 그만하오." 도로테아가 말했다. "산초, 달려가서 주인의 손에 입 맞추고 용서를 비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칭찬하고 헐뜯는 데 더 조심하고, 그 토보소 아씨를 헐뜯지 마시오.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섬기고 싶은 마음뿐이오.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대가 왕자처럼 살 영지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오."

산초는 고개를 숙이고 가서 주인에게 손을 청했고, 주인은 점잖은 태도로 손을 내주었다. 산초가 손에 입을 맞추고 나자 주인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에게 물어볼 것과 이야기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조금 앞으로 가자고 말했다. 산초가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조금 앞으로 떨어져 나갔고,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돌아온 뒤로 나는 네가 가지고 간 사절의 일과 가지고 온 답장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틈도 여유도 없었다. 이제 운명이 우리에게 때와 자리를 주었으니,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행복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들어갈 때 잘 들어갔듯이 나올 때도 무엇이든 잘 빠져나오게 대답해 드릴게요. 그런데 나리, 앞으로는 그렇게 앙갚음을 좋아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려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산초가 대답했다. "방금 맞은 매가 제가 둘시네아 아씨께 한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그날 밤 악마가 우리 둘 사이에 붙여 놓은 그 다툼 때문인 것 같아서예요. 저는 아씨를 성유물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거든요. 그분한테 그런 게 없다 해도, 오로지 나리의 분이시니까요."

"제발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괴롭다. 나는 그때 이미 너를 용서했다. 그리고 너도 잘 알다시피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느냐. 새 죄에는 새 보속이니라."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동안, 신부는 도로테아에게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를 짧게 한 것도 그렇고 기사 소설 이야기와 닮게 한 것도 그렇고 아주 슬기롭게 해냈다고 말했다. 도로테아는 여러 번 기사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방이며 바닷가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서 오수나에서 배에서 내렸다고 어림짐작으로 말해 버렸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짐작했소." 신부가 말했다. "그래서 얼른 나서서 그렇게 말했고, 그 덕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 그런데 이 불행한 시골 귀족이 이 모든 꾸며 낸 이야기와 거짓말을, 오직 그것이 자기 책 속의 어리석은 이야기의 말투와 모양새를 띠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쉽게 믿는지 보면 기이한 일이 아니오?"

"그렇소." 카르데니오가 말했다. "어찌나 희한하고 보도 듣도 못한 일인지, 일부러 거짓으로 지어내고 꾸며 내려 한다 해도 그런 일을 생각해 낼 만큼 날카로운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소."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소." 신부가 말했다. "이 착한 시골 귀족은 자기 광기에 관한 어리석은 소리 말고 다른 일을 이야기하면 아주 훌륭한 이치로 따지고, 모든 일에서 맑고 차분한 분별을 보여 주오. 그러니 그의 기사도만 건드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를 아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동안 돈키호테는 자기 이야기를 이어 가며 산초에게 말했다.

"판사, 내 벗아, 우리 다툼 일은 잔털을 바다에 던져 버리듯 털어 버리자. 그리고 이제 노여움도 원한도 다 접어 두고 말해 보아라. 어디서, 어떻게, 언제 둘시네아를 만났느냐? 그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그분께 무슨 말을 했느냐? 그분은 무어라 대답했느냐? 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얼굴을 했느냐? 누가 그 편지를 옮겨 써 주었느냐? 그리고 이 일에서 알 만하고 물을 만하고 대답할 만하다고 네가 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 보아라. 내 비위를 맞추려고 덧붙이거나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더구나 내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려고 줄이지도 말고."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참말을 하자면, 편지는 아무도 옮겨 써 주지 않았어요. 저는 편지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네 말대로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편지를 쓴 그 작은 비망록이 네가 떠난 지 이틀 뒤에 내 손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몹시 괴로웠다. 편지가 없는 것을 알면 네가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는 편지가 없어진 것을 안 그 자리에서 네가 되돌아오리라고 줄곧 믿었다."

"그랬겠죠."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편지를 읽어 주셨을 때 제가 그걸 외워 두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성당지기한테 읊어 주었더니, 그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 써 주었어요. 그러고는 평생 파문장은 많이 읽어 봤지만 그렇게 멋진 편지는 보지도 읽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직도 그 편지를 외우고 있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뇨,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편지를 전하고 나서 더는 쓸모가 없겠다 싶어서 잊어버리기로 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 '지겨우신', 아니 '지엄하신 아씨' 대목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아씨의 것인 슬픈 얼굴의 기사' 하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내 영혼이여', '내 목숨이여', '내 눈이여'를 삼백 번도 넘게 넣었어요."

제31장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산초 판사가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와 다른 일들

"그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없구나. 계속해 보아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래, 네가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여왕은 무얼 하고 있더냐? 틀림없이 진주를 꿰고 있었거나, 이 포로 기사를 위해 금실로 무슨 표장을 수놓고 있었겠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집 마당에서 밀 두 파네가를 키질하고 계시던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여겨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밀알들은 아씨의 손이 닿아 진주알이 되었다고. 그런데 내 벗아, 잘 보았느냐? 그 밀이 흰 밀이더냐, 봄밀이더냐?"

"그냥 붉은 밀이었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장담하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씨의 손으로 키질했으니 그 밀은 틀림없이 흰 밀 빵이 되었을 게다. 그러나 계속해 보아라. 네가 내 편지를 드렸을 때 아씨께서 거기 입을 맞추시더냐? 머리 위에 얹으시더냐? 그런 편지에 걸맞은 무슨 예를 갖추시더냐, 아니면 어찌하시더냐?"

"제가 편지를 드리려고 할 때요." 산초가 대답했다. "아씨께서는 체에 담긴 밀을 한창 신나게 흔들어 대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여보게, 그 편지는 저 자루 위에 놓아 두게. 여기 있는 걸 다 체질하기 전에는 읽을 수가 없으니.'"

"슬기로운 아씨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건 틀림없이 천천히 읽으며 즐기시려고 그러신 게다. 계속하거라, 산초. 그래, 아씨께서 일을 하시는 동안 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느냐? 나에 대해 무얼 물으시더냐? 그리고 너는 무어라 대답했느냐? 어서 다 이야기해 보아라. 잉크병 속에 한 방울도 남겨 두지 말고."

"아씨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리께서 아씨를 섬기느라 허리 위로는 벌거벗은 채 야만인처럼 이 산속에 틀어박혀 고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맨땅에서 주무시고, 식탁보 깐 상에서 빵을 드시지도 않고, 수염도 빗지 않으신 채 우시면서 당신 운명을 저주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내 운명을 저주한다고 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오히려 운명을 축복하고, 살아 있는 동안 날마다 축복할 것이니라. 둘시네아 델 토보소처럼 그토록 높으신 아씨를 사랑할 자격을 내게 주었으니 말이다."

"높으시긴 정말 높으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맹세코 저보다 주먹 하나 높이는 더 크시던걸요."

"아니, 어떻게 아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아씨와 키를 대 보기라도 했느냐?" "이렇게 대 봤죠." 산초가 대답했다. "당나귀 등에 밀 자루 올리시는 걸 도와 드리러 다가갔다가 둘이 바짝 붙게 됐는데, 보니까 저보다 큰 뼘으로 한 뼘은 더 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참으로 그렇지 않으냐."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아씨는 그 큰 키에 영혼의 천만 가지 은총을 곁들여 그 키를 꾸미고 계시지 않으냐! 그러나 산초, 이것 하나만은 아니라고 하지 못할 게다. 네가 아씨 곁에 다가갔을 때 사바 땅의 향기를, 그윽한 향내를, 내가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좋은 무언가를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솜씨 좋은 장갑 장수의 가게에 들어선 듯한, 내음이랄까 훈김이랄까 하는 것 말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산초가 말했다. "좀 사내 같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일을 많이 하셔서 땀에 젖고 좀 끈적끈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필시 네가 코감기에 걸렸거나 네 냄새를 네가 맡은 게지. 그 가시 속의 장미, 그 들의 백합, 그 녹인 용연향이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 나는 잘 아느니라."

"다 그럴 수 있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때 둘시네아 아씨 마님한테서 나는 것 같던 그 냄새가 저한테서도 자주 나거든요. 그래도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악마는 악마끼리 닮는 법이니까요."

"그래."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자, 아씨께서 밀을 다 고르시고 방앗간으로 보내셨다 치자. 편지를 읽으시고는 어찌하셨느냐?"

"편지는요." 산초가 말했다. "안 읽으셨어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신다면서요. 그러기는커녕 편지를 찢어서 잘게 조각을 내 버리셨어요. 마을에 당신 비밀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무한테도 읽어 달라고 맡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요. 나리께서 아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씨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고행을 하고 계신지 제가 말로 전해 드린 것으로 족하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리께 손에 입 맞춘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편지를 쓰기보다는 나리를 뵙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을 받는 즉시 그 덤불에서 나와 미친 짓은 그만두시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당장 당장 토보소로 길을 떠나시라고 부탁도 하시고 분부도 하셨어요. 나리를 무척 뵙고 싶으시대요. 나리께서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리신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을 웃으시더라고요. 지난번 그 비스카야 사람이 찾아왔느냐고 여쭸더니 왔다고, 아주 점잖은 사람이더라고

하셨어요. 갤리선 죄수들 일도 여쭤봤는데, 그때까지 하나도 못 보셨답니다."

"지금까지는 다 좋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말해 보아라. 내 소식을 전해 드린 값으로, 작별할 때 아씨께서 네게 주신 보석은 무엇이더냐? 편력하는 기사와 귀부인들 사이에는 소식을 전하는 종자나 시녀나 난쟁이에게, 그러니까 귀부인의 소식을 기사에게, 기사의 소식을 귀부인에게 전하는 이에게 심부름의 고마움을 갚는 기쁜 소식 사례로 값진 보석을 하나씩 주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기 때문이다."

"그야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게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옛날 일일 거예요. 요새는 빵 한 조각하고 치즈 한 조각이나 주는 게 관습인 모양이에요. 둘시네아 아씨께서 작별할 때 마당 담장 너머로 저한테 주신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증거를 더 대자면, 그 치즈는 양젖 치즈였어요."

"아씨는 더없이 너그러우시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금 보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 자리에 네게 줄 보석이 손에 없었기 때문일 게다. 그래도 부활절이 지난 뒤에 받는 소매 선물도 반가운 법이니, 내가 아씨를 뵈면 다 채워질 것이다. 산초, 내가 무엇에 놀라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하늘을 날아서 갔다 온 것 같다는 거다. 여기서 토보소까지는 30레과가 넘는데, 너는 오가는 데 겨우 사흘 남짓 걸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짐작한다. 내 일을 돌보아 주는 내 벗인 그 강령술사 현자가(그런 현자는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훌륭한 편력 기사가 못 될 테니까), 내 말은 바로 그 현자가 네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네 걸음을 도와주었을 거라는 거다. 그런 현자들 가운데는 편력 기사를 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붙잡아다가, 어떻게 어떤 수로 그랬는지도 모르게, 이튿날 아침이면 밤을 맞은 곳에서 천 레과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깨어나게 하는 이도

있느니라. 이런 일이 아니라면 편력 기사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울 수가 없을 터인데, 그들은 걸핏하면 서로 돕는다. 이를테면 어떤 기사가 아르메니아 산중에서 엔드리아고 괴물이나 사나운 괴수나 다른 기사와 싸우다가 싸움에서 밀려 이제 막 죽게 되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저쪽 구름 위나 불 수레 위에 그의 벗인 다른 기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그 기사는 조금 전까지 잉갈라테라에 있었는데 그를 도와 죽음에서 건져 주고, 밤이면 제 숙소에서 마음껏 저녁을 먹고 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대개 2천이나 3천 레과나 되느니라. 이 모든 일이 이 용맹한 기사들을 돌보는 마법사 현자들의 재주와 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산초, 내 벗아, 네가 그토록 짧은 사이에 여기서 토보소까지 갔다 왔다는 것은 내게 믿기 어렵지 않다. 내가 말했듯이 어떤 벗 현자가 네가 알아채지도 못하게 너를 공중에 붕 띄워 날라다 주었을 테니까."

"그랬겠죠." 산초가 말했다. "맹세코 로시난테가 귀에 수은을 부어 넣은 집시의 당나귀처럼 내달리더라니까요."

"수은뿐이었겠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악마들까지 한 군단은 실었을 게다. 그것들은 지치지도 않고 제가 내키는 대로 무엇이든 걷게 하고 저희도 걷는 족속이니라.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접어 두고, 나를 보러 오라는 아씨의 분부를 두고 내가 이제 어찌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아씨의 분부를 따라야 할 의무가 내게 있음은 알지만, 우리와 함께 가는 공주께 약속한 소원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니냐. 그리고 기사도의 법은 내 즐거움보다 내 말을 먼저 지키라고 나를 다그친다. 한쪽에서는 아씨를 뵙고 싶은 마음이 나를 몰아세우고 괴롭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약속한 믿음과 이 일로 얻게 될 영광이 나를 부추기고 부른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일은 이렇다. 서둘러 길을 가서 이 거인이 있는 곳에 얼른 다다르면, 다다르자마자 놈의 목을 베고, 공주를

평화로이 그 나라에 앉혀 드린 다음, 곧바로 돌아서서 내 마음을 밝혀 주는 빛을 뵈러 갈 것이다. 그리고 아씨께 늦은 까닭을 넉넉히 아뢰어 아씨께서 내가 늦은 것을 좋게 여기시게 하리라. 아씨께서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아씨의 영광과 명성을 더하는 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예로 얻었고 얻고 있고 앞으로 얻을 영광은 모두 아씨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총에서, 그리고 내가 아씨의 것이라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아이고." 산초가 말했다. "나리 머리가 참 어지간히도 상하셨네요! 그럼 나리, 말씀해 보세요. 나리께서는 이 길을 헛걸음으로 가실 작정이세요? 지참금으로 왕국을 하나 통째로 주겠다는 이런 부자에 지체 높은 혼처를 그냥 흘려보내고 놓쳐 버리시겠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왕국은 둘레가 2만 레과도 넘고, 사람 목숨 이어 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넘쳐 나고, 포르투갈과 카스티야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던데요.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도 입을 다무시고 방금 하신 말씀을 부끄러워하세요. 그리고 제 충고를 들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본당 신부가 있는 첫 마을에서 당장 혼인하세요. 아니면 여기 우리 석사 나리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진주처럼 깔끔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 두세요. 저도 이제 충고를 할 만한 나이가 되었고, 제가 드리는 이 충고는 나리께 틀에 맞춘 듯 꼭 맞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손안의 새 한 마리가 낫고, 좋은 걸 가지고도 나쁜 걸 고르는 사람은 아무리 화를 내 봐야 앙갚음할 데가 없는 법이거든요."

"보아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혼인하라는 네 충고가, 내가 거인을 죽이자마자 왕이 되어 네게 은혜를 베풀고 약속한 것을 줄 형편이 되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고도 네 바람을 아주 쉽게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마.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덤으로 조건을 하나 달아 둘 테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기면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왕국의 한 자락을 내게 주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이다. 그걸 받으면 너 말고 누구에게 주기를 바라느냐?"

"그야 뻔하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리, 그 땅은 바닷가 쪽으로 고르세요. 살아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제 검은 신하들을 배에 실어 가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분할 수 있게요. 그리고 나리께서는 지금 둘시네아 아씨를 뵈러 가실 생각일랑 마시고 거인을 죽이러 가세요. 이 일을 끝장냅시다. 맹세코 이 일이 큰 영예도 되고 큰 이득도 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너에게 말하마,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말이 옳다. 둘시네아를 뵈러 가기보다 공주와 먼저 가는 일은 네 충고를 따라야겠다. 그리고 일러둔다. 우리가 여기서 주고받고 의논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우리와 함께 가는 이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둘시네아께서는 당신 생각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으실 만큼 조심스러운 분이니, 나도, 나 대신 다른 누구도 그 생각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그렇다면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어째서 나리 팔로 이기신 사람들을 죄다 둘시네아 아씨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하세요? 그게 바로 나리께서 아씨를 사랑하시고 아씨께 빠져 계시다는 걸 아씨 이름으로 도장 찍어 주는 셈인데요. 가는 사람들은 아씨 앞에 꿇어앉아 나리께서 보내서 복종하러 왔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의 생각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녀석 같으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그것이 모두 아씨를 더욱 드높이는 데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알아 두어라. 우리 이 기사도의 풍습에서는 한 귀부인을 섬기는 편력 기사가 많은 것이 큰 영예다. 그 기사들은 아씨가 바로 그분이시라는 까닭 하나로 섬길 뿐 섬기는 것 너머로 생각을 뻗지 않고, 그 많은 훌륭한 바람에 대해 아씨가 자기들을 기사로 받아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상을 바라지 않느니라."

"그런 사랑으로는요."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나 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움직이지 말고 오로지 그분 자체를 위해서요. 그래도 저는 그분이 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요." "이런 촌놈, 악마나 물어 가거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끔 어쩌면 그리 슬기로운 소리를 하느냐! 꼭 공부라도 한 것 같구나."

"맹세코 저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걸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때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이 잠깐 기다려 달라고 그들을 소리쳐 불렀다. 거기 있는 작은 샘에서 잠시 멈추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다. 돈키호테가 걸음을 멈추자 산초는 적잖이 기뻤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벌써 지친 데다 주인에게 말꼬리를 잡힐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둘시네아가 토보소의 농사꾼 처녀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평생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사이 카르데니오는 사람들이 도로테아를 찾아냈을 때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리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그가 벗어 버린 옷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들은 샘 옆에서 내려, 신부가 객줏집에서 마련해 온 것으로 모두가 품고 온 큰 허기를 조금이나마 달랬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길을 가던 소년 하나가 그곳을 지나다가, 샘가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금 뒤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몹시 서럽게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이고, 나리! 저를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제가 바로 나리께서 묶여 있던 털가시나무에서 풀어 주신 그 하인 안드레스예요." 돈키호테는 그를 알아보고 손을 잡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편력 기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이 알도록 말하겠소. 편력 기사는 세상에 사는 오만하고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비뚤어진 일과 억울한 일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이오. 여러분, 들어 보시오. 지난번에 내가 어느 숲을 지나는데, 괴로워하며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것 같은 몹시 가련한 비명과 외침이 들려왔소. 나는 내 의무에 이끌려 그 애처로운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쪽으로 곧장 달려갔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소년이 털가시나무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소(이 아이를 만나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오. 내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님을 증언해 줄 테니까). 말하자면 이 아이는 허리 위로 벗겨진 채 털가시나무에 묶여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의 주인인 어떤 촌놈이 암말 고삐로 살갗이 터지도록 매질을 하고 있었소. 나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토록 끔찍한 매질의 까닭을 물었소. 그 무지렁이는 이 아이가 제 하인이라서 때린다고, 이 아이가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는 어리숙해서라기보다 도둑 심보에서 나온다고 대답했소.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소. '나리, 제가 품삯을 달라고 해서 때리는 것뿐이에요.' 주인은 무슨 장광설과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기는 했으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소. 결국 나는 그자에게 아이를 풀어 주게 하고, 아이를 데려가서 한 푼 한 푼 쌓아서, 그것도 향까지 쐬어서 치러 주겠다는 맹세를 받아 냈소. 얘야 안드레스, 이게 다 사실이 아니냐? 내가 얼마나 위엄 있게 그자에게 명령했는지, 그리고 그자가 내가 지우고 알리고 바란 것을 모두 하겠다고 얼마나 공손하게 약속했는지 너도 보지 않았느냐? 대답해 보아라. 당황하지도 머뭇거리지도 말고 이분들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라. 길마다 편력 기사가 있는 것이 내 말대로 얼마나 이로운 일인지 보고 헤아리시게."

"나리께서 하신 말씀은 다 정말이에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건 나리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아주 거꾸로였어요."

"거꾸로라니?"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그럼 그 촌놈이 너에게 품삯을 치르지 않았단 말이냐?" "치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소년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숲을 넘어가시고 저희 둘만 남자마자, 주인은 저를 다시 그 털가시나무에 묶고는 새로 매질을 어찌나 해 댔는지 저는 가죽 벗겨진 성 바르톨로메오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대 때릴 때마다 나리를 비웃는 농담이랑 놀림을 한마디씩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그 말을 듣고 웃었을 거예요. 아무튼 주인이 저를 그 꼴로 만들어 놔서, 저는 그 몹쓸 촌놈이 그때 저한테 입힌 상처를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요. 이게 다 나리 탓이에요. 나리께서 그냥 가던 길을 가시고, 부르지도 않은 데 오지 않으시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주인은 저를 한두 다스 때리는 걸로 그치고 곧 풀어 주고 밀린 품삯을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리께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망신을 주고 상스러운 욕을 그렇게 퍼부으시니까 주인이 화가 치밀었고, 나리께 앙갚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남자 그 먹구름을 저한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다시는 사람 구실을 못 할 것만 같아요." "잘못은 내가 거기서 떠난 데 있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에게 품삯을 치르게 할 때까지 나는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촌놈치고 제가 한 약속이 저한테 이롭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는 놈은 없다는 것을 나는 오랜 경험으로 잘 알았어야 했다. 그래도 안드레스, 너도 기억하겠지. 그자가 너에게 품삯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그자를 찾아 나서겠다고, 그자가 고래 배 속에 숨더라도 기어이 찾아내겠다고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건 맞아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있는지 이제 보게 될 게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서둘러 일어나, 그들이 먹는 동안 풀을 뜯고 있던 로시난테에게 굴레를 씌우라고 산초에게 일렀다.

도로테아가 그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그 촌놈을 찾아가 그 고약한 짓을 벌하고, 세상의 촌놈이 모두 덤벼 막는다 해도

안드레스가 마지막 1마라베디까지 받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약속한 소원에 따라 그는 자기 일을 끝내기 전에는 어떤 일에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가 잘 알고 있으니, 자기 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이 그 여자의 대답이었다.

"옳은 말씀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씨께서 말씀하시듯 안드레스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소. 나는 그 아이에게, 원수를 갚아 주고 품삯을 받게 해 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맹세하고 새로 약속하오."

"그런 맹세는 못 믿겠어요." 안드레스가 말했다. "세상의 복수를 다 합친 것보다 지금 세비야까지 갈 노자가 있는 편이 훨씬 좋겠어요. 거기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싸 갈 걸 좀 주세요. 나리도, 편력 기사들도 모두 잘 지내세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행운을 베풀어 준 만큼만 그 사람들 앞길에도 행운이 따르라죠."

산초가 자기 식량 주머니에서 빵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을 꺼내 소년에게 건네며 말했다.

"받게, 안드레스 형씨. 자네 불운은 우리 모두에게 한 몫씩 돌아오니까." "그럼 당신한테는 무슨 몫이 돌아가오?" 안드레스가 물었다.

"내가 자네한테 주는 이 치즈와 빵 몫이지." 산초가 대답했다. "이게 나한테 아쉬울지 아닐지는 하느님만 아시네. 여보게, 알아 두게. 편력 기사의 종자들은 배를 많이 곯고 불운도 많이 겪는다네. 말로 하기보다 몸으로 느끼는 게 더 나은 다른 일들도 겪고 말이지."

안드레스는 빵과 치즈를 받아 쥐고는 아무도 다른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보자 고개를 숙이고, 흔히 하는 말로 길을 손에 쥐고 떠났다. 다만 떠나면서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이다.

"하느님을 봐서라도, 편력 기사 나리, 다음에 또 저를 만나시거든, 제가 갈가리 찢기는 걸 보시더라도 구해 주지도 돕지도 마시고 그냥 제 불운 속에 내버려 두세요. 그 불운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나리의 도움으로 저한테 닥칠 불운보다는 클 수 없을 테니까요. 하느님께서 나리를 저주하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편력 기사란 편력 기사는 모두 저주하시기를."

돈키호테는 그를 벌하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소년은 아무도 감히 뒤쫓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냅다 달아났다. 돈키호테는 안드레스의 이야기에 몹시 무안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아주 무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웃음을 참느라 무척 애를 써야 했다.

제32장 객줏집에서 돈키호테 일행 모두에게 일어난 일을 다룬다

푸짐한 식사가 끝나자 그들은 곧 안장을 얹고 길을 떠났고, 이야기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겪지 않은 채 이튿날 그 객줏집에 이르렀다. 산초 판사에게는 두려움이요 놀라움인 바로 그 객줏집이었다. 산초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도리가 없었다. 객줏집 안주인과 주인, 그 딸, 그리고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오는 것을 보자 몹시 반가워하며 맞으러 나왔고, 돈키호테는 근엄한 얼굴과 위엄 있는 몸짓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지난번보다 나은 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안주인은 지난번보다 값을 잘 쳐 준다면 왕자님 잠자리라도 내주겠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가 그러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지난번 그 다락방에 그럭저럭 쓸 만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그는 몹시 지치고 정신도 흐릿했으므로 곧바로 자리에 누웠다.

그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기가 무섭게 안주인이 이발사에게 달려들어 수염을 움켜잡고 말했다.

"성호를 걸고 말하는데, 이제 내 꼬리를 당신 수염으로 더는 못 써요. 내 꼬리 돌려줘요. 우리 남편 물건이 바닥에 뒹굴고 있어서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내 말은, 내가 늘 내 좋은 꼬리에 걸어 두던 그 빗 말이에요."

안주인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발사는 꼬리를 내주려 하지 않았는데, 마침내 석사가 그것을 돌려주라고 일렀다. 이제 그런 꾀는 더 쓸 필요가

없으니 변장을 벗고 본모습을 드러내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돈키호테에게는 갤리선 죄수 도둑들에게 옷을 털린 뒤 달아나 이 객줏집으로 왔다고 말하고, 혹시 그가 공주의 종자를 찾으면 공주가 그를 먼저 보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를 구해 줄 해방자를 모시고 간다고 알리게 했다고 둘러대기로 했다. 그러자 이발사는 기꺼이 안주인에게 꼬리를 돌려주었고,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풀어 주는 데 쓰려고 빌렸던 잡동사니도 모두 돌려주었다. 객줏집 사람들은 모두 도로테아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젊은 목동 차림의 카르데니오의 훤칠한 풍채에도 놀랐다. 신부가 객줏집에 있는 것으로 먹을 것을 마련해 달라고 하자, 주인은 값을 더 잘 받으리라는 기대에 부지런히 움직여 제법 괜찮은 식사를 차려 주었다. 그동안 돈키호테는 줄곧 자고 있었는데, 그때로서는 먹는 것보다 자는 것이 그에게 더 이로우리라 여겨 사람들은 그를 깨우지 않기로 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객줏집 주인과 그 아내와 딸, 마리토르네스, 그리고 묵고 있던 나그네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돈키호테의 기이한 광기와 그를 찾아낸 경위를 이야기했다. 안주인은 지난번 돈키호테와 노새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는, 혹시 산초가 거기 있나 둘러보다가 보이지 않자 그가 담요에 헹가래 쳐진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놓아 다들 적잖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신부가, 돈키호테가 읽은 기사 소설들이 그의 정신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자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읽을거리는 없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책이 두세 권, 다른 종이 뭉치하고 같이 있는데, 그게 참말로 저를 살려 주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도요. 추수 때가 되면 축일마다 여기 일꾼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중에는 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한 권 손에 들면 우리가 서른 명도 넘게 빙 둘러앉아 어찌나 재미있게 듣는지 흰머리가 천 가닥은 빠질 지경이에요. 적어도 제 얘기를 하자면, 기사들이 내리치는 그 사납고 무시무시한 칼질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그렇게 해 보고 싶어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고 싶어져요."

"나도 똑같아요." 안주인이 말했다. "당신이 남이 읽어 주는 걸 듣고 있을 때 말고는 이 집에서 내가 편할 때가 없거든요. 그때는 당신이 넋이 빠져서 싸움 걸 생각도 못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맹세코 저도 그런 이야기 듣는 걸 무척 좋아해요. 참 근사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떤 아씨가 오렌지 나무 아래서 자기 기사와 껴안고 있고, 시녀 부인 하나가 샘이 나서 죽을 지경인 채 가슴을 졸이며 망을 봐 주는 대목이 나오면요. 정말이지 그런 건 다 꿀맛이에요."

"그럼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부가 객줏집 주인의 딸에게 말했다.

"글쎄요, 나리, 맹세코 모르겠어요." 딸이 대답했다. "저도 듣기는 하는데, 정말이지 알아듣지는 못해도 듣는 게 즐거워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칼질 대목이 아니라, 기사들이 아씨와 떨어져 있을 때 늘어놓는 탄식이 좋아요. 정말이지 가끔은 그 기사들이 가여워서 울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가씨는, 그 기사들이 아가씨 때문에 운다면 그 사람들을 잘 달래 주겠네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처녀가 대답했다. "다만 그런 아씨들 중에는 어찌나 잔인한지 자기 기사들한테서 호랑이니 사자니 하는, 별의별 더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도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점잖은 남자를 쳐다봐 주지 않으려고 그 사람이

죽든지 미치든지 내버려 두는, 그렇게 매정하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족속인지 모르겠어요. 뭣 때문에 그렇게 새침을 떠는지도 모르겠고요. 정숙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게 없는데요."

"조용히 해라, 얘야." 안주인이 말했다. "그런 일을 꽤 많이 아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처녀가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떠드는 건 좋지 않아."

"이 나리께서 물으시니까요." 처녀가 대답했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신부가 말했다. "주인장, 그 책들을 가져와 보게. 좀 보고 싶네."

"그러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작은 사슬로 잠근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왔다. 가방을 열어 보니 큰 책 세 권과, 아주 고운 글씨로 손수 쓴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신부가 처음 펼친 책은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였고, 다른 하나는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 또 다른 하나는 『대장군 곤살로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 이야기,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의 생애를 곁들임』이었다. 신부는 앞의 두 제목을 읽자마자 이발사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지금 여기 내 벗의 가정부와 조카딸이 있었으면 좋겠군."

"없어도 됩니다." 이발사가 대답했다. "저도 책을 마당이나 아궁이로 들고 갈 줄은 아니까요. 마침 아궁이에 불도 아주 잘 타고 있네요."

"그럼 나리께서 책을 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이 둘만이네." 신부가 말했다. "『돈 시롱힐리오』 하고 『펠릭스마르테』 말일세."

"그럼 혹시 제 책들이 이단이나 이질이라도 걸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말했다. "그걸 태우시겠다니요?"

"이교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여보게." 이발사가 말했다. "이질이 아니라."

"그래요." 주인이 되받았다. "그렇지만 꼭 하나 태우고 싶으시다면 그 대장군하고 그 디에고 가르시아 책이나 태우세요. 다른 책은 하나라도 태우게 두느니 차라리 제 자식을 태우게 두겠어요."

"여보게, 형제." 신부가 말했다. "이 두 책은 거짓말투성이에 터무니없는 소리와 헛된 공상으로 가득하네. 그런데 이 대장군 책은 참된 역사이고, 곤살로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의 행적을 담고 있지. 이분은 크고 많은 무훈을 세워 온 세상에서 대장군이라 불릴 만했네. 이름나고 빛나는 별호이고, 오직 그분만이 받을 만한 이름이야. 그리고 이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는 에스트레마두라의 트루히요 시 태생의 지체 높은 기사로, 더없이 용맹한 병사였네. 타고난 힘이 어찌나 셌던지 한창 사납게 돌아가는 물레방아 바퀴를 손가락 하나로 멈춰 세웠고, 양손 대검을 들고 다리 어귀에 버티고 서서 셀 수 없이 많은 군대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아 냈지. 그 밖에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자신이 기사답고 제 일을 제가 적는 연대기 작가답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기록한 그 일들을, 만약 매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썼더라면 헥토르니 아킬레우스니 롤단이니 하는 이들의 행적은 다 잊히고 말았을 걸세."

"그런 소리는 우리 아버지한테나 하세요!" 그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보세요, 뭘 가지고 놀라시는지. 물레방아 바퀴 하나 멈춰 세운 걸 가지고요! 맙소사, 그럼 나리께서는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가 한 일을 읽으셔야 해요. 그 기사는 칼등치기 한 번에 거인 다섯을 허리에서 두 동강 냈다니까요. 마치 잠두콩으로 만든 것처럼, 아이들이 만드는

꼬마 수사 인형처럼요. 또 한번은 160만 명도 넘는 병사를 거느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강한 군대에 덤벼들어서 양 떼를 흩어 버리듯 모조리 무찔렀어요. 그럼 트라키아의 그 훌륭한 돈 시롱힐리오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사는 정말 용감하고 대담했어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물 한가운데서 불 뱀이 한 마리 솟아올랐대요. 그는 뱀을 보자마자 그 위로 몸을 날려 비늘 덮인 등에 걸터앉더니 두 손으로 목을 어찌나 세게 졸랐는지, 뱀은 숨이 막혀 오자 강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고, 끝내 놓아주려 하지 않는 기사를 뒤에 끌고 갔대요. 그리고 바닥에 닿으니 기사는 궁전과 정원 속에 있었는데, 그게 어찌나 아름다운지 놀라울 정도였대요. 그러자 곧 그 뱀이 늙은 노인으로 변해서, 더 들을 게 없을 만큼 온갖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만하세요, 나리. 이걸 들으시면 좋아서 미치실 거예요. 대장군한테도, 나리가 말씀하신 그 디에고 가르시아한테도 주먹 감자를 두 번 먹이라죠!"

도로테아가 그 말을 듣고 카르데니오에게 가만히 말했다.

"우리 주인장은 돈키호테 제2권을 만들 날도 머지않았네요."

"내 생각도 그렇소." 카르데니오가 대답했다. "하는 말로 보아 저 사람은 이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쓰인 그대로 일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맨발 수사들이 와도 다른 것을 믿게 하지는 못할 거요."
"이보게, 형제." 신부가 다시 말했다. "세상에는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도,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도, 기사 소설이 이야기하는 그 비슷한 다른 기사들도 있었던 적이 없네. 그건 모두 한가한 머리들이 꾸며 내고 지어낸 것이야. 자네가 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려고, 자네 일꾼들이 그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듯이 말일세. 정말이지

맹세하는데, 그런 기사들은 세상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런 무훈이나 터무니없는 일들도 세상에서 일어난 적이 없네."

"그 뼈다귀는 다른 개한테나 주세요!"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제가 다섯이 몇인지도,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도 모르는 줄 아세요! 저한테 죽을 떠먹이려 하지 마세요. 맙소사, 저는 그렇게 희멀건 숙맥이 아니거든요. 이 좋은 책들에 쓰인 게 다 터무니없는 소리고 거짓말이라고 저를 믿게 하시려다니 거참 기가 막히네요. 왕실 평의회 나리들의 허가를 받아 찍어 낸 건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데 모아서, 그렇게 많은 싸움과 그렇게 많은 마법을,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 걸 찍어 내게 내버려 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말하지 않았나, 여보게." 신부가 되받았다. "그런 책은 우리의 한가한 생각을 달래려고 만드는 거라고.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일할 것도 없고 일할 의무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시간을 보내 주라고 체스니 공놀이니 당구니 하는 놀이를 허락하듯이, 그런 책을 찍어 내고 퍼뜨리는 것도 허락하는 거라네. 그런 책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참된 역사로 여길 만큼 무지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 것이고, 그건 사실이 그렇지. 지금 내게 그래도 된다면, 그리고 듣는 이들이 원한다면, 기사 소설이 좋은 책이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네. 어쩌면 몇 사람에게는 이롭고 즐겁기까지 할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눌 때가 오리라 기대하겠네. 그러니 그동안은 주인장, 내가 한 말을 믿고 자네 책을 가져가게. 그 책이 참이든 거짓이든 자네가 알아서 하고, 그 책이 자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네 손님 돈키호테가 저는 그 다리를 자네만은 절지 않게 해 주시기를 비네."

"그건 아니에요." 주인이 대답했다. "제가 편력 기사가 될 만큼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그 옛날, 그 이름난 기사들이 세상을

돌아다녔다는 시절에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아니까요."

이 이야기가 한창일 때 산초가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이제는 편력 기사를 볼 수 없고 기사 소설은 모두 바보 같은 소리에 거짓말이라는 말을 듣고 몹시 어리둥절해져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인의 이번 여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다려 보고, 그가 생각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인을 떠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 늘 하던 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객줏집 주인이 가방과 책을 들고 나가려는데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잠깐 기다리게. 그렇게 고운 글씨로 쓴 그 종이들이 무엇인지 보고 싶네."

주인이 그것을 꺼내 읽어 보라고 건네자, 신부는 그것이 손으로 쓴 전지 여덟 장가량이며 첫머리에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라는 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신부는 속으로 서너 줄을 읽어 보고 말했다.

"정말이지 이 이야기는 제목부터 나쁘지 않아 보이는군. 전부 읽어 보고 싶어지네."

그러자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신부님께서 읽으셔도 돼요. 여기서 그걸 읽어 본 손님들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저한테 그걸 달라고 아주 간곡히 졸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주지 않았어요. 이 책들하고 그 종이들을 넣은 이 가방을 여기 깜빡 두고 간 사람한테 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언젠가 그 주인이 이리로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책이 없으면 아쉽겠지만, 맹세코 돌려줄 거예요. 객줏집 주인이라도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니까요."

"자네 말이 아주 옳네, 여보게." 신부가 말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면 베껴 쓰게 해 주어야 하네."

"기꺼이 그러지요." 주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사이에 카르데니오가 그 이야기를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역시 신부와 같은 생각이 들자,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신부에게 청했다.

"읽어 드리지요." 신부가 말했다. "읽는 것보다 자는 데 이 시간을 쓰는 편이 낫지 않다면 말이오."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한테는 충분한 휴식이 될 거예요." 도로테아가 말했다. "아직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자야 할 때에도 잠이 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읽어 보겠소." 신부가 말했다. "호기심에서라도 말이오. 어쩌면 재미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지."

니콜라스 선생도 다가와 같은 부탁을 했고 산초도 그랬다. 신부는 그것을 보고,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고 자기도 즐거우리라 여겨 말했다. "그렇다면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오."

제33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탈리아의 부유하고 이름난 도시, 토스카나라고 부르는 지방의 피렌체에 안셀모와 로타리오라는 두 기사가 살았다. 둘 다 부유하고 지체가 높았으며 사이가 어찌나 좋았던지,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으뜸가는 벗이라는 뜻에서 아예 그 말을 이름 삼아 그들을 '두 벗'이라고 불렀다. 둘은 혼인하지 않은 젊은이로 나이도 같고 몸가짐도 같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 우정을 주고받을 까닭은 넉넉했다. 하기야 안셀모는 로타리오보다 연애의 즐거움에 조금 더 기울었고 로타리오는 사냥의 즐거움에 끌려다녔지만, 기회가 오면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즐거움을 따르려고 제 즐거움을 마다했고, 로타리오도 안셀모의 즐거움을 따르려고 제 즐거움을 접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맞아 돌아가니, 아무리 잘 맞춘 시계라도 그렇게 맞아 돌아가지는 못했다. 안셀모는 같은 도시의 지체 높고 아름다운 처녀에게 홀딱 반해 있었다. 그 처녀는 훌륭한 부모의 딸이었고 그 자신도 훌륭했으므로, 안셀모는 무슨 일이든 그와 의논하지 않고는 하지 않던 벗 로타리오의 뜻을 물어 처녀의 부모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실행했다. 혼담을 들고 간 사람도 로타리오였고, 벗의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매듭지은 사람도 로타리오였다. 그리하여 안셀모는 머지않아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고, 카밀라는 안셀모를 남편으로 얻은 것이 어찌나 기뻤던지 하늘에, 그리고 이토록 큰 복을 가져다준 로타리오에게 고마워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혼례 때의 날들이 대개 그렇듯 처음 며칠은 즐거웠고, 로타리오는 늘 하던 대로 벗 안셀모의 집을 드나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받들고 축하하고 기쁘게 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혼례가 끝나고 찾아오는 손님과 축하 인사도 뜸해지자,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집에 가는 일을 조심스럽게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혼인한 벗의 집은 그 벗이 혼인하기 전처럼 찾아가고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옳다). 착하고 참된 우정은 무엇으로도 의심받을 수 없고 의심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혼인한 남자의 명예는 몹시 여려서 친형제에게서도 다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물며 벗에게서야 오죽하겠는가.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발길을 끊은 것을 알아차리고 몹시 서운해하며 그에게 하소연했다. 혼인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와 어울리지 못하게 될 까닭이 될 줄 알았더라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그가 혼인하기 전 두 사람이 서로 잘 어울린 덕에 '두 벗'이라는 그토록 다정한 이름을 얻었으니, 다른 아무 까닭도 없이 신중한 척하느라 그토록 이름나고 그토록 정다운 이름을 잃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둘 사이에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간청하건대, 예전처럼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드나들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면서 아내 카밀라에게는 남편이 바라는 것 말고는 다른 즐거움도 다른 뜻도 없다고 장담하고,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는지 알고 있는 아내가 로타리오의 이토록 쌀쌀한 태도를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예전처럼 집에 와 달라고 설득하려고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한 이 말과 그 밖의 숱한 말에, 로타리오는 어찌나 사려 깊고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던지 안셀모는 벗의 좋은 뜻을 알고 흡족해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로타리오가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축일마다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은 했어도 로타리오는 벗의 명예에 가장 알맞다고 여겨지는 것 말고는 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벗의 평판을 자기 평판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는 늘 말했고, 옳게 말했다. 하늘이 아름다운 아내를 내려 준 남편은 아내가 어떤 여자 벗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살피는 것만큼이나 어떤 벗들을 집에 데려오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광장에서도, 성당에서도, 공공의 잔치에서도, 성당 순례에서도(남편이 아내에게 늘 막을 수는 없는 일들이다) 이루어지지도 꾸며지지도 않는 일이, 가장 믿는 여자 벗이나 친척 여자의 집에서는 꾸며지고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타리오는 또 혼인한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처신에서 빠뜨린 것을 일깨워 줄 벗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하면 명예가 되고 하지 않으면 치욕이 될 일을 아내의 비위를 건드릴까 봐 일깨워 주지도 않고,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벗이 일깨워 주면 그는 모든 것을 쉽게 바로잡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로타리오가 바라는 만큼 분별 있고 그만큼 충실하고 참된 벗을 어디서 찾겠는가? 나는 정말 모르겠다. 오직 로타리오만이 그런 벗이었다. 그는 온 정성과 조심을 다해 벗의 명예를 지켰고, 약속한 날 그 집에 가는 횟수를 덜고 깎고 줄이려 애썼다. 부유하고 품위 있고 가문 좋은 젊은이, 게다가 스스로 여기기에 남부럽지 않은 장점까지 갖춘 젊은이가 카밀라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할 일 없는 뭇사람과 이리저리 헤매는 심술궂은 눈이 나쁘게 볼까 염려해서였다. 카밀라의 착함과 덕은 어떤 험담하는 혀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카밀라의 평판도 벗의 평판도 의심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약속한 날 대부분을 빠질 수 없는 일이라고 둘러댄 다른 일로 채우며 보냈다. 이리하여 한 사람은 하소연하고 한 사람은 변명하느라 하루의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성 밖의 풀밭을 거닐고 있을 때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로타리오, 내 벗아, 너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하느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곧 내 부모 같은 분들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타고난 복이라 부르는 것이든 재물의 복이라 부르는 것이든 아낌없이 내려 주신 은혜에, 나는 받은 복에 걸맞게 감사로 보답할 수 없다고. 너를 벗으로, 카밀라를 아내로 주신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둘은 내가 마땅히 귀히 여겨야 할 만큼은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귀히 여기는 보배다. 그런데 사람이 흡족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전부라 할 이 모든 것을 갖추고서도, 나는 온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언짢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어찌나 기이하고 남들의 흔한 생각과 동떨어진 바람이 나를 괴롭히고 옥죄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혼자서 나를 탓하고 꾸짖으며,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내 생각에서조차 감추려고 애쓴다. 그런데 일부러 온 세상에 떠벌리려고 애쓴 것만큼이나 이 비밀을 지키기가 힘들었다. 결국 이 비밀이 광장에 나가야 한다면, 네 비밀의 문서고라는 광장으로 나가게 하고 싶다. 네가 나의 참된 벗으로서 나를 고쳐 주려고 쏟을 정성과 그 비밀 지킴을 믿으니, 나는 머지않아 이 바람이 주는 괴로움에서 풀려날 것이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불만이 이른 데까지 네 정성 덕분에 내 기쁨도 이르게 될 것이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서, 이토록 긴 서두와 머리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벗을 그토록 괴롭히는 바람이 무엇일지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굴려 보았지만 진실의 과녁에서 번번이 한참 빗나갔다. 그리하여 이 궁금증이 주는 괴로움에서 얼른 벗어나려고, 가장 감추어 둔 생각을 털어놓는 데 이렇게 에둘러 길을 찾는 것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자기에게서라면 그 생각을 달랠

충고든 그것을 이룰 방도든 틀림없이 얻으리라 믿어도 좋지 않으냐고 그에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 안셀모가 대답했다. "그렇게 믿고 너에게 알려 주마, 로타리오, 내 벗아. 나를 괴롭히는 바람은, 내 아내 카밀라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착하고 흠 없는 여자인지 알아보려는 생각이다. 불이 금의 순도를 드러내듯이, 시험이 아내의 착함의 순도를 드러내게끔 아내를 시험해 보지 않고는 나는 이 진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오, 벗이여,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자는 유혹을 받는 만큼, 또는 받지 않는 만큼만 착한 것이며, 정성스러운 연인들의 약속과 선물과 눈물과 끝없는 졸라 댐에도 꺾이지 않는 여자만이 굳센 여자라고. 아무도 나쁜 여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데 여자가 착한 것이 무에 그리 고마울 일이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삐를 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여자, 처음 방종하는 것을 잡히자마자 제 목숨을 빼앗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자가 조신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하냐? 그러니 두려워서, 또는 기회가 없어서 착한 여자를, 나는 유혹받고 쫓기다가 이겨 내어 승리의 관을 쓴 여자만큼 귀히 여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까닭과, 내 생각을 뒷받침하고 굳히려고 네게 들려줄 수 있는 다른 많은 까닭으로, 나는 내 아내 카밀라가 이런 시련을 겪고, 그 마음을 바칠 만한 사람에게서 구애받고 유혹받는 불 속에서 정련되고 순도를 시험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내가 내가 믿는 대로 이 싸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온다면, 나는 내 행운을 비길 데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내 바람의 빈자리가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이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고 말한 그 현숙한 여인이 내 몫으로 돌아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일이 내 생각과 거꾸로 된다 해도, 내 생각이 맞았음을 보는 기쁨으로, 그토록 값비싼 내 실험이 마땅히 내게 안겨 줄 괴로움을 괴로운 줄 모르고 견디리라.

그리고 네가 내 바람을 거슬러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이니, 오, 벗 로타리오여, 너는 내 기쁨을 위한 이 일을 해낼 도구가 될 마음을 먹어 다오. 나는 네가 그 일을 할 기회를 주겠고, 정숙하고 명예롭고 조신하고 욕심 없는 여자를 유혹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 하나 모자라지 않게 해 주겠다. 내가 이토록 어려운 일을 너에게 맡기려는 데는 여러 까닭이 있지만, 그 하나는 이렇다. 카밀라가 네게 넘어간다 해도 그 넘어감은 끝까지, 막다른 데까지 가지 않고, 네 좋은 도리 덕에 해야 할 일을 한 셈으로 치는 데서 그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저 그 마음먹음만으로 모욕을 당할 뿐이고, 내 치욕은 네 침묵이라는 덕 속에 숨겨질 것이다. 나에 관한 일이라면 네 침묵이 죽음의 침묵처럼 영원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러니 내가 목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숨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너는 지금 당장 이 사랑의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 미적지근하게도 게으르게도 말고, 내 바람이 요구하는 열의와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우리 우정이 내게 장담해 주는 믿음으로."

안셀모가 로타리오에게 한 말은 이러했다. 로타리오는 그 말을 어찌나 귀 기울여 들었던지, 앞에 적은 대로 한 말 말고는 안셀모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입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더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보자,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놀랍고 무서운 무언가를 바라보듯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본 뒤에 말했다. "오, 벗 안셀모여, 네가 한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네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멀리까지 말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듣지 않음으로써 네 긴 열변을 막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네가 나를 모르거나 내가 너를 모르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네가 안셀모라는 것을 잘 알고, 너도 내가 로타리오라는 것을 안다. 탈은, 내가 보기에 너는 예전의 그 안셀모가 아니고, 너도 나를 마땅히 그래야 할 그 로타리오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라는 데 있다. 네가 내게 한 말은 내 벗인 그 안셀모의 말이 아니고, 네가 내게 청하는 것도 네가 아는 그 로타리오에게 청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좋은 벗들은 제 벗을 시험하고 벗에게 기대더라도 '제단까지(usque ad aras)'만 그래야 한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에서는 벗의 우정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교도도 우정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의 우정 때문에 하느님의 우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겠느냐? 그리고 혹시 벗이 막대를 너무 멀리 던져 벗의 일을 돕느라 하늘에 대한 도리마저 제쳐 둔다 해도, 그것은 가볍고 하찮은 일 때문이어서는 안 되고 벗의 명예와 목숨이 걸린 일 때문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말해 보아라, 안셀모. 이 둘 가운데 무엇이 위험에 처했기에 내가 너를 기쁘게 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네가 청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해야 한단 말이냐? 정말이지 어느 것도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내가 알아듣기로는, 오히려 너는 내가 애써 네 명예와 목숨을 빼앗고 그와 함께 내 명예와 목숨까지 빼앗아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내가 네 명예를 빼앗으려 한다면 너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뻔하다. 명예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리고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네게 닥칠 그 큰 불행의 도구가 된다면, 나도 명예를 잃고 그와 똑같은 이치로 목숨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 들어 보아라, 벗 안셀모. 네 바람이 네게 청하게 한 일을 두고 내가 할 말을 다 마칠 때까지 참고 대답하지 마라. 네가 되받아 말하고 내가 그 말을 들을 시간은 넉넉히 남을 테니까."

"좋다." 안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라."

그러자 로타리오가 말을 이었다.

"오, 안셀모여, 지금 너의 머리는 무어인들이 늘 가진 머리와 같은 것 같다. 그들에게는 그들 종파의 잘못을 성경의 구절로도, 지성의 사변에

터한 논리로도, 신앙 조항에 바탕을 둔 논리로도 깨우쳐 줄 수가 없다. 손에 잡히고, 쉽고, 알아듣기 쉽고, 증명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없는 예를 들어야 하고, 이를테면 '같은 두 양에서 같은 양을 덜면 남는 것도 같다'처럼 부정할 수 없는 수학의 증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말로 알아듣지 못하면, 실제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손으로 보여주고 눈앞에 갖다 대야 한다. 그렇게 해도 내 거룩한 종교의 진리를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너에게 바로 그 같은 수단과 방도를 써야 할 것 같다. 네 안에 생겨난 바람은 이치의 그림자라도 지닌 모든 것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네 어리석음을, 지금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으니 어리석음이라 해 두자, 그것을 깨우쳐 주는 데 드는 시간은 헛되이 쓰는 시간일 것 같기 때문이다. 네 나쁜 바람에 대한 벌로 너를 네 어리석음 속에 내버려 둘까 하는 마음까지 든다. 그렇지만 너에 대한 내 우정이 그런 매정함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 우정은 네가 이토록 뻔히 망할 위험에 빠져 있는데 너를 그대로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네가 똑똑히 보도록 말해 보아라, 안셀모. 너는 내게, 조신한 여자를 유혹하고, 정숙한 여자를 설득하고, 욕심 없는 여자에게 선물을 바치고, 사려 깊은 여자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네 아내가 조신하고 정숙하고 욕심 없고 사려 깊다는 것을 알면서 너는 무엇을 찾는 것이냐? 그리고 아내가 내 모든 공격을 이겨 내리라고, 틀림없이 이겨 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뒤에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무슨 칭호를 아내에게 주려는 것이냐? 지금보다 무엇이 더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내를 네가 말하는 그런 여자로 여기지 않거나, 아니면 네가 무엇을 청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아내를 네가 말하는 그런 여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무엇 하러 아내를 시험하려 하느냐? 나쁜 여자로 여겨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처분하면 될 것을. 그러나 아내가 네가 믿는 만큼

착하다면, 진실 그 자체를 시험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시험을 하고 나서도 처음 지녔던 평가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생기기 쉬운 일을 해 보려는 것은 분별없고 무모한 머리나 하는 짓이라는 결론이 마땅하다. 억지로 떠밀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해 보는 것 자체가 뻔한 미친 짓임이 멀리서도 훤히 보이는데 그런 일을 해 보려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어려운 일은 하느님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나, 둘 다를 위해서 하는 법이다. 하느님을 위해 하는 일은 성인들이 한 일이다. 그들은 사람의 몸으로 천사의 삶을 살려고 했다. 세상을 위해 하는 일은 운수의 복이라 부르는 것을 얻으려고 그토록 끝없는 바다를 건너고, 그토록 갖가지 기후를 거치고, 그토록 낯선 백성들을 지나가는 이들의 일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세상을 함께 위해 하는 일은 용맹한 병사들의 일이다. 그들은 적의 성벽에 둥근 포탄 하나가 뚫어 놓을 만큼의 틈만 보여도, 모든 두려움을 제쳐 두고 따져 보지도 않고 눈앞에 닥친 뚜렷한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신앙과 제 나라와 제 임금을 지키려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자기들을 기다리는 천 갈래로 엇갈린 죽음 한가운데로 겁 없이 몸을 던진다. 사람들이 흔히 해 보는 일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일은 불편과 위험이 가득하더라도 해 보는 것이 명예요 영광이요 이득이다. 그러나 네가 해 보고 실행하겠다는 그 일은 하느님께 영광도, 운수의 복도, 사람들 사이의 명성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네 뜻대로 일이 된다 해도 너는 지금보다 더 뿌듯해지지도, 더 부유해지지도, 더 명예로워지지도 않을 것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참에 빠질 것이다. 그때는 네게 닥친 불행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 봐야 소용이 없다. 네가 그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너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테니까. 이 진리를 굳혀 주려고, 이름난

시인 루이스 탄실로가 『성 베드로의 눈물』 제1부 끝에 지은 시 한 연을 들려주마. 그 시는 이렇다.

고통이 커지고 부끄러움이 커진다,
날이 밝아 오자 베드로 안에서.
거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부끄러워한다,
제 죄를 깨달았기에 제 자신을.
너그럽고 큰 가슴에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것은
남의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니,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하늘과 땅 말고는 보는 이가 없더라도.

"그러니 너는 비밀로 네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줄곧 울어야 할 것이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면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우리 시인이 들려주는 그 어리숙한 박사, 슬기로운 레이날도스는 더 나은 분별로 마다한 그 잔의 시험을 해 본 그 박사가 흘린 피눈물처럼 말이다.[1] 그것은 시인이 지어낸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알아 두고 깨닫고 본받을 만한 도덕의 비밀이 담겨 있다. 게다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들으면, 너는 네가 저지르려는 큰 잘못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해 보아라, 안셀모. 하늘이, 또는 좋은 운이 너를 더없이 고운 다이아몬드의 정당한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자. 그 다이아몬드를 본 보석상들은 모두 그 품질과 순도에 흡족해하고, 모두 한목소리로 그 순도와 품질과 고움이 그런 돌의 본성이 다다를 수 있는 끝까지 이르렀다고 입을 모으며, 너 자신도 반대되는 것을 모르니 그렇게 믿는다고 하자.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모루와 망치 사이에 놓고, 순전히 망치질과 팔 힘으로 남들 말처럼 정말 그렇게 단단하고 고운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옳겠느냐? 게다가 그것을 실제로 해 본다면? 설령 돌이 그런 어리석은 시험을 견뎌 낸다

해도 그 때문에 값이 오르거나 명성이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깨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모든 것을 잃지 않겠느냐? 그래, 틀림없이 그렇다. 게다가 그 주인은 모두에게 바보로 여겨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안셀모, 내 벗아, 카밀라는 너의 눈으로 보나 남의 눈으로 보나 더없이 고운 다이아몬드라고 여겨라. 그 다이아몬드를 깨질지도 모르는 처지에 내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온전히 남는다 해도 지금 지닌 값보다 더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 흠이 나서 견뎌내지 못한다면, 아내를 잃은 네가 어떤 처지가 될지, 아내와 너 자신을 망친 장본인으로서 네가 얼마나 너 자신을 원망하게 될지 지금부터 헤아려 보아라. 보아라, 세상에 정숙하고 명예로운 여자만큼 값진 보석은 없고, 여자의 명예는 모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품는 좋은 평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네 아내의 평판은 네가 아는 대로 착함의 끝까지 이르렀으니, 무엇 하러 이 진실을 의심 속에 던지려 하느냐? 보아라, 벗이여, 여자는 불완전한 생물이니,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앞에 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워 주고 어떤 거치적거림도 없게 길을 닦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여자는 괴로움 없이 가볍게 달려가 저에게 모자란 완전함, 곧 덕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이를 수 있다. 박물학자들의 말로는 흰담비라는 작은 짐승은 털가죽이 더없이 희다고 한다. 사냥꾼들은 흰담비를 잡으려 할 때 이런 꾀를 쓴다. 흰담비가 늘 지나다니고 찾아가는 곳을 알아 두었다가 그 길을 진흙으로 막고는, 흰담비를 몰아 그쪽으로 이끄는 것이다. 흰담비는 진흙에 이르자마자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진창을 지나가 제 흰빛을 잃고 더럽히느니 차라리 붙잡혀 사로잡히는 쪽을 택한다. 흰빛을 자유와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정숙하고 깨끗한 여자는 흰담비이고, 정숙함이라는 덕은 눈보다 더 희고 깨끗하다. 여자가 그 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지키고 간직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흰담비를 대할 때와는 다른 수를 써야 한다.

성가신 연인들의 선물과 시중이라는 진창을 여자 앞에 놓아서는 안 된다. 여자는 어쩌면,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 장애물을 스스로 짓밟고 넘어갈 만큼 타고난 덕과 힘을 지니지 못했을지도 모르니, 그것을 치워 주고 덕의 깨끗함과 좋은 이름이 품고 있는 아름다움을 여자 앞에 놓아 주어야 한다. 또 착한 여자는 반짝이고 맑은 수정 거울과 같다. 그러나 그 거울은 닿기만 하면 어떤 입김에도 흐려지고 어두워지게 마련이다. 정숙한 여자는 성유물처럼 대해야 한다. 우러러 받들되 손대지 않는 것이다. 착한 여자는 꽃과 장미가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을 지키고 아끼듯 지키고 아껴야 한다. 그 정원의 주인은 아무도 그 안을 거닐거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한다. 멀리서 쇠창살 사이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으로 족하다. 끝으로, 요즘 나온 어느 연극에서 들었던 시 몇 줄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데 꼭 들어맞는 것 같아 들려주고 싶다. 사려 깊은 노인 하나가, 딸을 둔 아버지인 다른 노인에게 딸을 단속하고 지키고 가두어 두라고 충고하면서 여러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

여자는 유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시험해 보아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게다가 깨지기는 더 쉬우니,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을
깨질 위험에 내맡기는 것은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모두 이 생각을
지녀라, 나는 이치에 기대어 말한다.
세상에 다나에들이 있다면
황금 비도 있는 법이다.[2]

"오, 안셀모여,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너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는 나에게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야 마땅하다. 길어지더라도 용서해 다오. 네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내가 너를 꺼내 주기를 바라는 그 미로가 이 모든 말을 요구하니까. 너는 나를 벗으로 여기면서 내 명예를 빼앗으려 한다. 그것은 모든 우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네 명예를 빼앗게 하려고까지 한다. 네가 내 명예를 빼앗으려는 것은 뻔하다. 네가 청하는 대로 내가 카밀라를 유혹하면, 카밀라는 틀림없이 나를 명예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내로 여길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와 너와의 우정이 내게 지우는 의무와 그토록 동떨어진 일을 꾀하고 저지르는 것이니까. 네가 내게 네 명예를 빼앗게 하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유혹하는 것을 보면 카밀라는 내가 자기에게서 무슨 경박함을 보았기에 내가 대담하게 나쁜 바람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이 명예를 잃었다고 여기면 그 불명예는 바로 너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내가

바로 너의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생겨난다. 바람난 여자의 남편은, 그가 그 일을 모르고, 아내가 마땅히 그래야 할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한 까닭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 불행을 막는 일이 그의 손에 달리지도 않았고 그의 소홀함과 조심성 부족 때문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를 욕되고 천한 이름으로 부르고 일컫는다. 그리고 그 아내의 악행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제 탓이 아니라 못된 짝의 욕정 때문에 그런 불행에 빠졌음을 알면서도, 가엾게 여기는 눈 대신 어느 정도 업신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그런데 나쁜 여자의 남편이, 그가 그것을 모르고 잘못도 없고 한몫 거들지도 않았으며 아내가 그렇게 될 까닭을 준 적도 없는데, 왜 마땅히 불명예를 입는지 그 까닭을 말해 주마. 그리고 듣기에 지치지 마라. 이것이 모두 너에게 이롭게 돌아올 테니까. 하느님께서 지상 낙원에서 우리의 첫 조상을 지으셨을 때, 거룩한 성경은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는 동안 그의 왼쪽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어 그것으로 우리 어머니 하와를 지으셨다고 전한다. 아담이 깨어나 하와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혼인이라는 거룩한 성사가 세워졌으니, 그 끈은 오직 죽음만이 풀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성사는 어찌나 큰 힘과 효험이 있는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든다. 그리고 착한 부부에게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해서, 그들은 영혼이 둘이면서도 뜻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아내의 몸이 남편의 몸과 같은 하나이므로, 아내에게 떨어지는 얼룩이나 아내가 찾아 저지르는 허물은,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그 해악의 까닭을 주지 않았어도 남편의 몸으로 돌아온다. 발이나 사람 몸의 어느 마디가 아프면 온몸이 한 몸이기에 온몸이 그 아픔을 느끼고, 발목이 다치면 머리가 제가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아픔을 느끼듯이,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기에 아내의 불명예를 나누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불명예는 모두 살과 피에서 나고 살과 피에 속하며 나쁜 여자의 불명예도 그런 것이니, 남편이 거기서 제 몫을 받고 저도 모르게 불명예를 입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보아라, 오, 안셀모여, 네 착한 아내가 누리는 평온을 어지럽히려다가 네가 어떤 위험에 몸을 던지는지. 보아라, 얼마나 헛되고 주제넘은 호기심 때문에 정숙한 아내의 가슴속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기질들을 휘저으려 하는지. 알아 두어라, 네가 얻으려고 거는 것은 적고 네가 잃을 것은 너무나 커서, 나는 그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 그것을 부풀려 말할 낱말이 내게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한 이 모든 말로도 너를 그 나쁜 뜻에서 돌려세우지 못한다면, 네 불명예와 불행의 다른 도구를 찾아보아라. 나는 그 도구가 될 생각이 없다. 그 때문에 너의 우정을 잃는다 해도. 그것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잃음이지만."

덕 있고 사려 깊은 로타리오는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안셀모는 어찌나 어리둥절하고 생각에 잠겼던지 한동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에게 말했다.

"로타리오, 내 벗아, 너도 보았듯이 나는 네가 내게 해 주려던 말을 다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너의 논리와 예와 비유에서 네가 지닌 깊은 분별과 네가 품은 참된 우정의 극치를 보았다. 또한 내가 네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좇아간다면 좋은 것에서 달아나 나쁜 것을 쫓아가는 셈이라는 것도 알고 인정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헤아려 다오. 나는 지금 어떤 여자들이 흔히 앓는 병을 앓고 있다. 흙이며 석고며 숯이며, 그보다 더한 것들, 먹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역겨운 것들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병 말이다. 그러니 내가 나으려면 무슨 꾀를 써야 하는데, 그건 쉽게 할 수 있다. 미적지근하게라도, 시늉으로라도 네가 카밀라를 유혹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카밀라는 처음 몇 번

부딪쳤다고 제 정숙함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칠 만큼 무른 여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시작만 해 주어도 나는 흡족할 것이고, 너는 나에게 목숨을 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명예를 잃지 않았다고 나를 설득해 주었으니 우리 우정에 진 빚을 다 갚은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한 가지 까닭만으로도 이 일을 할 의무가 있다. 지금 그렇듯이 내가 이번 시험을 실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이상, 너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어리석음을 털어놓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잃지 않기를 네가 그토록 바라는 명예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테니까. 그리고 네가 카밀라를 유혹하는 동안 카밀라의 마음속에서 너의 명예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 해도, 그건 별일이 아니거나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카밀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너는 곧 우리 꾀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너의 평판은 처음대로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 너는 거는 것이 그토록 적고 걸어 줌으로써 내게 그토록 큰 기쁨을 줄 수 있으니, 아무리 많은 불편이 앞을 막더라도 그 일을 마다하지 마라.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네가 시작하기만 하면 나는 이 소송이 끝난 것으로 치겠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굳은 뜻을 보았고, 그가 그 뜻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무슨 예를 더 들고 무슨 논리를 더 보여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바람을 털어놓겠다고 안셀모가 으르는 것을 보고, 더 큰 화를 피하려고 그를 만족시키며 그가 청하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카밀라의 생각을 흔들지 않고도 안셀모가 흡족해하도록 그 일을 이끌어 가겠다는 속셈과 뜻을 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안셀모에게 그 생각을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라고, 그 일은 자기가 맡아 자기 마음이 내키는 때에 시작하겠다고 대답했다. 안셀모는 그를 다정하고 애틋하게 끌어안고, 마치 무슨 큰 은혜라도 입은 듯이 그 제안을 고마워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카밀라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자리와 시간을 마련해 주고, 카밀라에게 주고 바칠 돈과 보석도 대 주기로 했다. 그는 카밀라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카밀라를 기리는 시를 쓰라고 일렀고, 로타리오가 시를 짓는 수고를 하기 싫다면 자기가 직접 짓겠다고 했다. 로타리오는 그 모든 것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속셈은 안셀모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달랐다.

이렇게 뜻을 맞춘 두 사람은 안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카밀라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애태우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남편이 여느 때보다 늦게 왔기 때문이다.

로타리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안셀모는 제 집에 남았는데, 로타리오가 생각에 잠긴 만큼 안셀모는 흡족했다. 로타리오는 그 주제넘은 일에서 잘 빠져나오려면 무슨 꾀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카밀라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안셀모를 속일 방도를 생각해 냈다. 이튿날 그는 벗과 식사를 하러 왔고, 카밀라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남편이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카밀라는 늘 그를 정성껏 맞아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보를 걷자, 안셀모는 급한 볼일이 있어 다녀오겠다며 한 시간 반 안에 돌아올 테니 그동안 카밀라와 함께 있으라고 로타리오에게 말했다. 카밀라는 가지 말라고 남편에게 청했고 로타리오도 함께 가 주겠다고 나섰지만 안셀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의논해야 하니 남아서 기다려 달라고 로타리오에게 졸랐다. 그리고 카밀라에게도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로타리오를 혼자 두지 말라고 일렀다. 아무튼 그는 집을 비워야 하는 급한 볼일을, 아니 급한 바보짓을 어찌나 그럴듯하게 꾸며 댔던지 누구도 그것이 꾸민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안셀모가 나가자 식탁에는 카밀라와 로타리오 단둘만 남았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밥을 먹으러 가 버렸기 때문이다. 로타리오는 벗이 바라던 결투장

울타리 안에 서게 되었고, 눈앞에 둔 적은 그 아름다움 하나만으로도 무장한 기사 한 부대를 무찌를 수 있을 만했다. 로타리오가 그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했는지 헤아려 보시라.

그러나 그는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대고 편 손으로 뺨을 괴었을 뿐이다. 그는 예의 없는 짓을 용서해 달라고 카밀라에게 청하고는, 안셀모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쉬고 싶다고 말했다. 카밀라는 의자보다는 방석 깔린 단 위에서 쉬는 편이 나을 거라며 그리 들어가 자라고 권했다. 로타리오는 마다하고 안셀모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잠이 들었다. 돌아온 안셀모는 카밀라는 제 방에 있고 로타리오는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가 그토록 늦게 왔으니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눌 틈은 물론 잠을 잘 틈까지 있었으리라 믿고, 로타리오가 깨어나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 성과를 물어보고 싶었다. 모든 일이 그가 바란 대로 되었다. 로타리오가 깨어났고, 곧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안셀모가 궁금한 것을 묻자 로타리오는, 처음부터 속을 다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카밀라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온 도시가 카밀라의 아름다움과 슬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는데, 그것이 카밀라의 마음을 얻으며 들어가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았고, 다음번에 카밀라가 기꺼이 자기 말을 들어 주게 마음을 다져 놓는 길이 될 것 같았다고 했다. 이것은 악마가 제 몸을 지키려고 망대에 올라선 사람을 속이려 할 때 쓰는 꾀를 쓴 것이었다. 악마는 본래 어둠의 천사이면서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그 사람 앞에 좋은 겉모습을 내놓다가, 처음에 속임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뜻을 이룬다. 안셀모는 이 모든 것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날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집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카밀라가 그의 꾀를 눈치채지 못할 다른 일에 매달려 있겠다고 했다.

그러다 여러 날이 지났다. 그동안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안셀모에게는 카밀라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나쁜 일에 넘어올 기미는 조금도 끌어낼 수 없었고 희망의 그림자라도 비칠 낌새조차 얻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카밀라가 그런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그를 을렀다고 했다. "좋네." 안셀모가 말했다. "지금까지 카밀라는 말에는 버텼으니, 이제 행동에는 어떻게 버티는지 보아야겠네. 내일 자네에게 금화 2천 에스쿠도를 주겠네. 그것을 카밀라에게 바치고 아예 주어 버리게. 그리고 카밀라를 꾈 보석을 살 돈으로 또 그만큼을 주겠네. 여자들은, 더구나 아름다운 여자들은, 아무리 정숙하더라도 몸치장하고 화려하게 차려입는 일을 좋아하게 마련이니까. 카밀라가 이 유혹에도 버틴다면 나는 흡족하겠고 더는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로타리오는 이미 시작한 일이니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지치고 패한 채 그 일에서 빠져나오게 되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그는 4천 에스쿠도를 받았고, 그와 함께 4천 가지 혼란도 받았다. 또 거짓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국 그는 카밀라가 말에 꿈쩍하지 않았듯이 선물과 약속에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시간만 헛되이 흘러가니 더 애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일을 다른 길로 이끌던 운명은 이렇게 짜 놓았다. 안셀모가 여느 때처럼 로타리오와 카밀라를 단둘이 남겨 두고는 어느 방에 틀어박혀 열쇠 구멍으로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지켜보고 엿들은 것이다. 그는 반 시간이 넘도록 로타리오가 카밀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거기 백 년을 있어도 말을 걸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카밀라의 대답이라며 벗이 들려준 말이 모두 지어낸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알아보려고 방에서

나와, 로타리오를 따로 불러 무슨 소식이 있는지, 카밀라의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로타리오는 그 일에 더는 바늘 한 땀도 뜨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카밀라가 어찌나 거칠고 쌀쌀맞게 대답하는지 다시 무슨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 안셀모가 말했다. "로타리오, 로타리오, 너는 내게 진 빚과 내가 너에게 거는 큰 믿음에 어쩌면 이리도 형편없이 보답하느냐! 나는 방금 이 열쇠가 드나드는 구멍으로 너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네가 카밀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아직 첫마디도 꺼내지 않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이 그렇다면, 무엇 하러 나를 속이느냐? 아니면 무엇 때문에 꾀를 부려 내가 내 바람을 이룰 수 있는 방도를 내게서 빼앗으려 하느냐?"

안셀모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만으로도 로타리오를 무안하고 당혹스럽게 하기에 넉넉했다. 로타리오는 거짓말이 들킨 것을 거의 명예가 걸린 문제로 여기다시피 하여, 그 순간부터 그를 만족시키고 그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일을 맡아 하겠다고, 호기심을 품고 엿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안셀모에게 맹세했다. 게다가 엿볼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를 만족시키려고 자기가 쏟을 정성이 모든 의심을 씻어 줄 테니까. 안셀모는 그의 말을 믿었고, 더 안전하고 덜 조마조마한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여드레 동안 집을 비우기로 했다. 그는 도시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사는 벗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카밀라에게 떠나는 핑계를 대려고 그 벗에게 꼭 와 달라는 간곡한 기별을 보내 달라고 미리 짜 두었다.

불행하고 생각 없는 안셀모여! 너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꾸미느냐? 무엇을 꾀하느냐? 보아라, 너는 너 자신을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다. 네 불명예를 꾸미고 네 파멸을 꾀하고 있다. 네 아내 카밀라는 착하고, 너는 아내를 고요하고 평온하게 누리고 있으며, 아무도 네 즐거움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아내의 생각은 집의 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너는 아내에게 땅 위의 하늘이요, 바람의 과녁이요, 즐거움의 완성이요, 제 뜻을 재는 잣대이니, 아내는 모든 일에서 제 뜻을 네 뜻과 하늘의 뜻에 맞춘다. 아내의 명예와 아름다움과 정숙함과 조신함이라는 광산이 아무 수고 없이 그 안에 품은, 그리고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너에게 주는데, 무엇 하러 땅을 더 깊이 파고 일찍이 본 적 없는 새 보물의 새 광맥을 찾으려 하느냐? 결국 그 광산은 연약한 본성이라는 허술한 버팀목 위에 서 있으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험에 몸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냐? 보아라, 불가능한 것을 찾는 자에게는 가능한 것마저 거절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시인이 더 잘 말했듯이.

나는 죽음 속에서 삶을 찾고,
병 속에서 건강을,
감옥 속에서 자유를,
닫힌 곳에서 나갈 길을,
배신자에게서 충실을 찾는다.
그러나 내 운명은,
거기서 나는 어떤 복도 바라지 않거니와,
하늘과 함께 이렇게 정해 놓았다.
내가 불가능한 것을 구하니
가능한 것조차 내게 주지 말라고.

이튿날 안셀모는 마을로 떠나면서, 자기가 없는 동안 로타리오가 집을 돌보러 와서 함께 식사를 할 테니 자기 자신을 대하듯 그를 대하라고 카밀라에게 일러 두었다. 카밀라는 분별 있고 명예로운 여자답게 남편이 남긴 분부에 괴로워하며, 남편이 없는데 다른 누가 그 식탁 자리에 앉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를까 미덥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면 이번 한 번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에도 넉넉하다는 것을 겪어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셀모는 그것이 자기 뜻이니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되받았다. 카밀라는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안셀모가 떠나자 이튿날 로타리오가 그 집에 왔고, 카밀라는 다정하면서도 정숙하게 그를 맞았다. 카밀라는 로타리오가 자기를 혼자 볼 수 있는 자리에는 결코 가지 않았다. 늘 하인과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지냈고, 특히 레오넬라라는 시녀를 곁에 두었다. 카밀라는 그 시녀를 무척 아꼈는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카밀라의 부모 집에서 함께 자랐고 카밀라가 안셀모와 혼인할 때 그 시녀를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처음 사흘 동안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보를 걷고 사람들이 서둘러 밥을 먹으러 갈 때면 말을 걸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카밀라가 그렇게 시켜 둔 것이었다. 게다가 레오넬라는 카밀라보다 먼저 식사를 하고 카밀라 곁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분부까지 받아 두었다. 그러나 레오넬라는 다른 제 즐거운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제 즐거움을 채우려면 바로 그 시간과 그 자리가 필요했으므로, 마님의 분부를 늘 따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런 분부라도 받은 양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 두곤 했다. 그러나 카밀라의 정숙한 모습과 진중한 얼굴과 단정한 몸가짐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로타리오의 혀를 묶어 두었다.

그러나 카밀라의 많은 덕이 로타리오의 혀를 잠잠하게 만들어 준 이로움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해로 돌아왔다. 혀는 잠잠해도 생각은 내달렸고, 카밀라가 지닌 착함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하나하나 바라볼 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살로 된 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리석 조각상이라도 사랑에 빠지게 하기에 넉넉했다.

로타리오는 카밀라에게 말을 걸어야 할 자리와 시간에 카밀라를 바라보며, 카밀라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여자인지 헤아렸다. 그리고 이런 헤아림이 안셀모에 대한 그의 도리를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그는 천 번이나 도시를 떠나, 안셀모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도 카밀라를 보지 못할 곳으로 가 버리고 싶었지만, 카밀라를 바라보며 느끼는 즐거움이 벌써 그를 붙들어 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카밀라를 바라보게 이끄는 그 기쁨을 떨쳐 내고 느끼지 않으려고 자신을 억누르며 제 자신과 싸웠다. 혼자 있을 때면 제 어리석음을 탓하며 자신을 나쁜 벗이라고, 나쁜 그리스도교 신자라고까지 불렀다. 그는 자신과 안셀모를 견주어 따져 보았는데, 그 따짐은 언제나 자기의 불충보다 안셀모의 미친 짓과 지나친 믿음이 더 컸다는 데서 끝났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처럼 하느님 앞에서도 변명할 거리가 있다면, 자기 죄로 받을 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데서 끝났다.

결국 카밀라의 아름다움과 착함이, 어리석은 남편이 그의 손에 쥐여 준 기회와 함께 로타리오의 충성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는 제 욕정이 기우는 쪽 말고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안셀모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그동안 제 욕망에 맞서려고 줄곧 싸운 끝에, 카밀라에게 구애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어찌나 떨리고 어찌나 사랑에 넘쳤던지 카밀라는 얼이 빠졌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쌀쌀맞음에도 로타리오의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 희망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태어나는 법이다. 오히려 그는 카밀라를 더 귀히 여기게 되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고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말을 걸 기회나 틈을 그에게 주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여겨, 바로 그날 밤 하인 하나에게 편지를 들려 안셀모에게 보내기로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편지에 카밀라는 이런 말을 적었다.

---

1. 「우리 시인」은 『광란의 오를란도』를 쓴 이탈리아 시인 아리오스토. 그 제42~43곡에서 한 만토바 사람이 아내의 정절을 시험하는 마법의 잔(정숙하지 않은 아내를 둔 남자가 마시면 술이 가슴에 쏟아진다)을 기사 레이날도스에게 권하자 레이날도스는 시험을 마다하고, 그 잔을 써 본 사람은 아내를 잃고 평생 운다.

2. 그리스 신화에서 아버지가 탑에 가둔 공주 다나에에게 제우스가 황금 비로 변해 스며들었다. 아무리 가두어도 황금(선물)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뜻.

제34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를 이어 간다

장수 없는 군대와 성주 없는 성은 꼴이 사납다고들 흔히 말하지만, 나는 젊은 유부녀가 아주 정당한 까닭도 없이 남편 없이 지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꼴사납다고 말하겠소. 나는 당신 없이 지내기가 몹시 괴롭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이 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 집을 지킬 사람 없이 비워 두게 되더라도 친정에 가서 지내야겠소. 당신이 남겨 두고 간 사람은, 그런 이름을 붙일 만한 사람이라면 말이지만, 당신에게 관계된 일보다 자기 즐거움을 더 돌보는 것 같기 때문이오. 당신은 분별 있는 사람이니 나는 더 할 말이 없고, 더 말하는 것도 옳지 않소.

안셀모는 이 편지를 받고, 로타리오가 이미 일을 시작했으며 카밀라가 자기가 바라던 대로 대답했으리라고 짐작했다. 이런 소식에 몹시 기뻐진 그는 집을 결코 옮기지 말라고, 자기가 곧 돌아가겠다고 카밀라에게 말로 전하게 했다. 카밀라는 안셀모의 대답에 놀랐고, 그 대답 때문에 처음보다 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에 있을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친정으로 가기는 더욱 어려웠다. 남아 있으면 정절이 위태롭고, 떠나면 남편의 분부를 어기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카밀라는 자기에게 가장 나쁜 쪽을 골랐다. 남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로타리오를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카밀라는 남편에게 그런 편지를 쓴 것을 벌써 후회하고 있었다. 로타리오가 자기에게서 무슨 경박함을 보았기에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되었다고 남편이 생각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카밀라는 제 착함을 믿고 하느님과 제 바른 생각에 몸을 맡겼다. 로타리오가 무슨 말을 하든 입을 다물고 버티며, 남편을 무슨 다툼과 고생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더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그 편지를 쓴 까닭을 물으면 로타리오를 위해 어떻게 변명해 줄지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슬기롭거나 이롭기보다는 명예로운 이런 생각을 품고, 이튿날 카밀라는 로타리오의 말을 들었다. 로타리오가 어찌나 공세를 퍼부었던지 카밀라의 굳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카밀라의 정숙함은 로타리오의 눈물과 말이 가슴속에 일깨운 사랑의 연민을 눈이 내비치지 않게 하느라 몹시 애를 먹었다. 로타리오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고, 그 모든 것이 그를 불타오르게 했다.

마침내 그는 안셀모가 집을 비운 이 틈과 기회에 그 요새의 포위를 좁혀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는 카밀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카밀라의 자부심을 공격했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허영으로 쌓아 올린 성탑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고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아첨하는 혀에 실린 바로 그 허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카밀라의 굳은 정절이라는 바위 밑을 팠는데, 그 연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카밀라가 온통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해도 땅에 무너졌을 것이다. 로타리오는 울고, 빌고, 약속하고, 아첨하고, 조르고, 그토록 깊은 감정으로, 그토록 진심인 듯한 시늉으로 꾸며 댔으니, 마침내 카밀라의 조심성을 무너뜨리고 가장 생각지 못했고 가장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다. 카밀라는 무너졌다. 카밀라가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로타리오의 우정도 무너졌는데 그게 무에 그리 놀랄 일이겠는가? 이것은 사랑의 정념은 피해 달아나야만 이길 수 있고, 아무도 그토록 힘센 적과 맞붙어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는 본보기다. 그

적이 지닌 인간의 힘을 이기려면 하느님의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님의 이 나약함을 안 사람은 레오넬라뿐이었다. 두 못된 벗이자 새 연인들이 레오넬라에게까지 숨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로타리오는 안셀모의 속셈을 카밀라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고, 안셀모가 자기에게 이 지경에 이를 틈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카밀라가 자기 사랑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일부러가 아니라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카밀라를 유혹했다고 생각할까 봐서였다.

며칠 뒤 안셀모가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집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기면서도 가장 귀히 여기던 보배였다. 그는 곧바로 로타리오를 만나러 갔고, 그를 집에서 찾았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았고, 한 사람이 자기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에 대한 소식을 물었다.

"오, 벗 안셀모여,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소식은" 로타리오가 말했다. "네가 모든 착한 여자들의 본보기요 면류관이 되기에 마땅한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바람이 다 날려 버렸고, 내 제안은 하찮게 여겨졌고, 내 선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가 꾸며 흘린 몇 방울 눈물은 톡톡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요컨대 카밀라는 모든 아름다움을 한데 모은 것이듯 정숙함이 깃들고 겸손과 조신함과, 명예로운 여자를 칭송받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모든 덕이 머무는 보고다. 네 돈을 도로 가져가라, 벗이여. 여기 있다. 손댈 필요가 없었다. 카밀라의 굳은 정절은 선물이나 약속 같은 그런 천한 것에는 굽히지 않는다. 만족해라, 안셀모. 이미 한 시험보다 더 시험하려 하지 마라. 여자를 두고 흔히 품을 수 있고 품게 마련인 어려움과 의심의 바다를 너는 발 하나 적시지 않고 건넜으니, 새로운 불편의 깊은 바다로 다시 들어가려 하지 마라.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라고 하늘이 네 몫으로 준 배가 얼마나 좋고 튼튼한지 다른 키잡이를 써서 시험해 보려 하지도

마라. 이제 안전한 항구에 들어왔다고 여기고, 좋은 분별이라는 닻으로 단단히 배를 매어 두어라.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귀족 신분으로도 갚기를 면할 수 없는 그 빚을 받으러 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말에 더없이 흡족해했고, 마치 무슨 신탁이 한 말인 양 그 말을 믿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로타리오에게 그 일을 그만두지 말아 달라고 청했다. 그저 호기심과 심심풀이로라도 좋으니,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클로리라는 이름으로 카밀라를 기리는 시를 몇 편 써 달라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그는 로타리오가 어느 귀부인에게 반해 있는데 그 여인의 정숙함에 마땅한 예의를 지키며 기리려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카밀라에게 둘러대겠다고 했다. 그리고 로타리오가 시를 쓰는 수고를 하기 싫다면 자기가 짓겠다고 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 로타리오가 말했다. "시의 여신들이 내게 그리 원수는 아니어서 해마다 몇 번은 찾아와 주니까. 너는 카밀라에게 내 꾸민 사랑 이야기를 네가 말한 대로 전해라. 시는 내가 짓겠다. 그 주제에 걸맞을 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가 될 것이다."

주제넘은 벗과 배신한 벗은 이렇게 뜻을 맞추었다. 집에 돌아온 안셀모는 카밀라에게, 카밀라가 왜 아직 묻지 않나 이상하게 여기던 것을 물었다. 자기에게 보낸 그 편지를 왜 썼느냐는 물음이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보다 자기를 조금 더 방자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었음을 알았고 자기 상상이었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로타리오가 이제는 자기를 보는 것도, 자기와 단둘이 있는 것도 피하니 말이다. 안셀모는 그런 의심은 마음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로타리오가 이 도시의 어느 지체 높은 처녀에게 반해 클로리라는 이름으로 그 여자를 기리고 있음을 자기가 안다고

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로타리오의 진실함과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다. 클로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꾸민 이야기이며, 로타리오가 이따금 카밀라를 기리는 데 몰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셀모에게 말했다는 것을 카밀라가 로타리오에게서 미리 듣지 않았더라면, 카밀라는 틀림없이 질투라는 절망의 그물에 걸려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기에 카밀라는 그 놀람을 괴로움 없이 넘겼다.

이튿날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안셀모는 로타리오에게 사랑하는 클로리를 위해 지은 시 가운데 하나를 들려 달라고 청했다. 카밀라는 그 여자를 모르니 마음 놓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했다.

"카밀라 님이 그 여자를 안다 해도" 로타리오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거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제 아씨를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매정하다고 탓한다 해서 그 아씨의 좋은 평판에 아무 누도 끼치지 않으니까. 아무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어제 이 클로리의 무정함을 두고 소네트를 한 편 지었다는 것이다. 그 소네트는 이렇다. 소네트

밤의 고요 속, 달콤한 잠이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차지할 때,
나는 내 풍성한 불행의 가난한 셈을
하늘과 나의 클로리에게 바치고 있다.
그리고 해가 장밋빛 동녘 문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
한숨과 고르지 못한 목소리로
나는 오래된 하소연을 새로 시작한다.
그리고 해가 별 박힌 자리에서
땅으로 곧은 햇살을 내리쏠 때,
울음은 커지고 나는 신음을 곱절로 한다.
밤이 돌아오면 나는 슬픈 셈으로 돌아가,
죽도록 끈질긴 내 고집 속에서 늘 보노라,
귀먹은 하늘을, 귀 없는 클로리를.

카밀라는 그 소네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안셀모는 더욱 마음에 들어 했다. 그는 시를 칭찬하며 그토록 분명한 진실에 응답하지 않는 그 아씨는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그러자 카밀라가 말했다.

"그럼 사랑에 빠진 시인들이 하는 말은 다 참말이란 말이오?"

"시인으로서는 참말을 하지 않소." 로타리오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는 늘 참되면서도 모자라게 말하오."

"그건 틀림없지." 안셀모가 되받았다. 카밀라 앞에서 로타리오의 생각을 북돋우고 믿게 하려고 한 말이었다. 카밀라는 안셀모의 꾀를 까맣게 모르는 만큼 이미 로타리오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카밀라는 로타리오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거웠고, 게다가 그의 바람과 글이 자기를 향하고 있으며 자기가 바로 진짜 클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다른 소네트나 시를 알면 들려 달라고 그에게 청했다.

"알고 있소." 로타리오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첫 번째만큼 좋지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보다 덜 나쁘지는 않을 거요. 잘 판단해 보시오. 이렇소."

소네트

나는 안다, 내가 죽어 감을. 믿어 주지 않는다면
죽음은 더욱 확실하니, 더욱 확실하듯이,
오, 아름답고 매정한 이여, 그대 발치에서 죽은 나를 보는 것이
그대를 우러른 것을 뉘우치는 나를 보기보다.
나는 망각의 나라에 들어
삶과 영광과 은총을 모두 잃을지라도,
거기서 열어젖힌 내 가슴에
그대의 아름다운 얼굴이 새겨진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성유물을 나는 간직한다, 혹독한
고비를 위해, 내 고집이 나를 으르는 그 고비,
바로 그대의 매정함으로 더 굳어지는 그 고집을 위해.
아, 슬프다, 하늘이 어두운데
낯선 바다, 위태로운 길을 저어 가는 자여,
북극성도 항구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안셀모는 첫 번째 소네트를 칭찬했듯이 이 두 번째 소네트도 칭찬했다. 이렇게 그는 제 불명예를 엮고 얽어매는 사슬에 고리를 하나하나 더해 갔다. 로타리오가 그의 명예를 더럽힐수록 그는 로타리오에게 자기가 더 명예로워졌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카밀라가 업신여김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남편의 생각

속에서는 모두 덕과 좋은 이름의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번은 카밀라가 시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레오넬라, 내 동무야, 내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생각하면 부끄러워. 그토록 빨리 내 마음을 고스란히 내주었으니, 로타리오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사게 하지도 못했잖아.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세게 몰아붙여서 내가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너무 서둘렀다고, 경박했다고 여길까 봐 두려워."

"아씨,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 레오넬라가 대답했다. "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고 그 자체로 귀히 여길 만하다면, 빨리 준다고 해서 대수롭지도 않고 값이 떨어질 까닭도 없어. 게다가 얼른 주는 사람은 두 번 주는 셈이라는 말도 있잖아."

"이런 말도 있지." 카밀라가 말했다. "적게 들인 것은 덜 귀히 여긴다고."

"그 말은 아씨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레오넬라가 대답했다. "내가 듣기로 사랑은 어떤 때는 날고 어떤 때는 걷고, 이 사람하고는 달리고 저 사람하고는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하게 식히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태우고, 어떤 사람은 다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같은 순간에 바람의 경주를 시작해서 바로 그 순간에 끝내고 마무리하고, 아침에 요새를 에워쌌다가 밤이면 함락시킨대. 사랑을 버텨 낼 힘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아씨는 뭘 놀라고 뭘 두려워해? 사랑이 우리를 무너뜨릴 도구로 나리가 집을 비운 걸 썼으니, 로타리오한테도 틀림없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사랑이 정해 둔 일은 나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끝나야만 했어. 안셀모 나리가 돌아올 때를 시간이 마련해 주어서 나리가 오는 바람에 일이 덜 끝나 버리지 않게 말이야. 사랑이 바라는 일을 해내는 데 기회만 한 일꾼은 없거든. 사랑은 무슨 일을 하든, 특히 처음에는 기회를 부려 써. 나는 이런 걸 들어서보다 겪어서 아주 잘

알아. 언젠가 아씨한테 얘기해 줄게, 나도 살과 피를 가진 젊은 여자니까. 게다가 카밀라 아씨, 아씨는 로타리오의 눈과 한숨과 말과 약속과 선물에서 그 사람의 온 영혼을 먼저 보고, 그 영혼과 그 사람의 덕을 보면서 로타리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나서야 몸을 맡기고 내준 거잖아. 그렇다면 그런 꼼꼼하고 새침한 생각이 아씨 머릿속을 덮치게 두지 말고, 아씨가 로타리오를 귀히 여기듯 로타리오도 아씨를 귀히 여긴다고 믿어. 그리고 사랑의 올가미에 걸리긴 했어도 아씨를 옥죄는 올가미는 값지고 귀한 것이니 기쁘고 흡족하게 지내. 그 사람은 좋은 연인이라면 갖춰야 한다는 시옷 넷만 가진 게 아니라 가나다를 통째로 갖췄어. 못 믿겠으면 들어 봐. 내가 줄줄 외워 줄게. 그분은 내가 보기에, 내 생각으로는, 가문 좋고, 나이 젊고, 다정하고, 마음 굳고, 바르고, '사'는 아까 말한 시옷들이고, 아낌없이 베풀고, 자상하고, 차분하고, 타고난 기사야. '라'는 마땅한 말이 없고, '카'와 '파'는 거센 글자라 그분한테 안 어울리고, '하'는, 하늘이 아씨 명예를 지키라고 보낸 파수꾼이지."

카밀라는 시녀의 가나다를 듣고 웃었고, 시녀가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연애에 더 닳고 닳았다고 여겼다. 레오넬라도 그렇다고 털어놓으며, 같은 도시의 가문 좋은 젊은이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카밀라에게 밝혔다. 카밀라는 그 말에 당황했다. 그 길로 자기 명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그 젊은이와 말만 나누는 사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레오넬라는 부끄러운 기색은 별로 없이 아주 뻔뻔하게, 그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마님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하녀들이 부끄러움을 잃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이치다. 하녀들은 마님들이 발을 헛디디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절름거려도, 그것을 남이 알아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카밀라는 레오넬라에게 자기 일을 그 애인이라는 사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안셀모도 로타리오도 모르게 그 애의 일을 몰래 처리하라고 비는 수밖에 없었다. 레오넬라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지킴이 어떠했던지 그 애 때문에 평판을 잃으리라는 카밀라의 두려움을 사실로 만들어 버렸다. 정숙하지 못하고 대담한 레오넬라는 마님의 처신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보자 아예 애인을 집 안에 들였다. 마님이 그를 보더라도 감히 일러바치지 못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님들의 죄가 불러오는 해악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마님들은 제 하녀들의 종이 되어 하녀들의 부정과 천한 짓을 숨겨 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카밀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카밀라는 레오넬라가 집 안의 한 방에서 정부와 함께 있는 것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보았지만, 감히 꾸짖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방에 들일 틈을 주었으며, 남편 눈에 띄지 않게 거치적거리는 것을 모두 치워 주었다.

그러나 로타리오가 그가 동틀 녘에 집을 나서는 것을 한 번 보는 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로타리오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유령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며 조심스레 망토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숨기는 것을 보자, 그 단순한 생각을 버리고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는데, 카밀라가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이 모두를 파멸시켰을 것이다. 로타리오는 그렇게 엉뚱한 시각에 안셀모의 집을 나서는 것을 본 그 사내가 레오넬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레오넬라가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가 자기에게 쉽고 가볍게 굴었듯이 다른 사내에게도 그러는 것이라고 믿어 버렸다. 나쁜 여자의 죄에는 이런 덤이 따라온다. 그 여자는 간청과 설득 끝에 몸을 맡긴 바로 그 남자에게서 명예의 신용을 잃고,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에게는 더 쉽게 몸을 맡기리라 믿으며, 이런 일로 생기는 어떤 의심이든 틀림없는 사실로

믿어 버린다. 그때 로타리오는 그 좋은 분별을 몽땅 잃고 그 사려 깊던 논리도 모두 잊어버린 것 같았다. 좋은 생각은커녕 그럴듯한 생각 하나 해 보지 않고 다짜고짜, 안셀모가 일어나기도 전에, 속을 갉아먹는 질투의 분노에 참지 못하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카밀라에게 앙갚음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안셀모를 찾아가 말했다.

"알아 두어라, 안셀모. 나는 여러 날 동안 나 자신과 싸우며, 더는 너에게 숨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은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나를 억눌러 왔다. 알아 두어라, 카밀라의 요새는 이미 함락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 진실을 너에게 늦게 밝힌 것은, 그것이 카밀라의 가벼운 변덕인지, 아니면 네 허락을 받아 내가 시작한 사랑을 내가 굳은 뜻으로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지 알아보려 해서였다. 나는 또 카밀라가 마땅히 그래야 할 여자, 우리 둘이 생각하던 그 여자라면 벌써 내 구애를 너에게 알렸으리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는 것을 보니, 네가 다음에 집을 비우면 네 세간을 넣어 두는 안쪽 침실에서 나와 이야기하겠다고 한 카밀라의 약속이 참말임을 알겠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카밀라는 늘 거기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지만 서둘러 무슨 복수를 하러 달려가지는 마라. 죄는 아직 생각으로만 저질러졌을 뿐이고, 지금부터 그것을 실행할 때까지 사이에 카밀라의 생각이 바뀌어 그 자리에 뉘우침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너는 늘 내 충고를 모두든 일부든 따라 왔으니, 이제 내가 할 충고 하나를 따르고 지켜라. 그러면 속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피며 너에게 가장 알맞다고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늘 하던 대로 이삼일 집을 비우는 척하고, 안쪽 침실에 숨어 있을 수 있게 해 두어라. 거기 있는 벽걸이 천과 그 밖의 것들이 몸을 숨기기에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네 눈으로, 나는 내 눈으로 카밀라가 무엇을 바라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라기보다 두려워해야 할 그

악행이라면, 너는 침묵과 꾀와 분별로 네가 당한 모욕의 사형 집행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셀모는 로타리오의 말에 넋이 나가고 얼떨떨하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카밀라가 로타리오의 거짓 공격을 이겨 냈다고 여기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땅바닥만 바라보며 말이 없다가 마침내 말했다.

"로타리오, 너는 내가 너의 우정에서 기대한 대로 해 주었다. 모든 일에서 네 충고를 따르겠다. 네 뜻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에 걸맞게 비밀을 지켜라."

로타리오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셀모와 헤어지자마자 그는 자기가 한 말을 몽땅 후회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카밀라에게 앙갚음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길로 할 일은 아니었다. 그는 제 분별을 저주하고 제 경솔한 결정을 탓했지만, 한 일을 되돌리거나 그럴듯한 출구를 마련할 방도를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카밀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그는 바로 그날 카밀라가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 카밀라는 그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자마자 그에게 말했다.

"알아 두시오, 내 벗 로타리오. 내 가슴에 근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찌나 가슴을 옥죄는지 가슴속에서 터져 버릴 것만 같고, 터지지 않는다면 그게 놀라운 일일 것이오. 레오넬라의 뻔뻔함이 갈 데까지 가서, 밤마다 이 집에 정부를 들여 아침까지 함께 지낸다오. 그 사내가 이렇게 엉뚱한 시각에 우리 집을 나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대로 짐작할 여지가 활짝 열려 있으니, 내 평판은 그만큼 다치게 되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그 애를 벌할 수도 꾸짖을 수도

없다는 것이오. 그 애가 우리 일의 비밀을 쥐고 있으니 그 애의 일에는 입을 다물라고 내 입에 재갈이 물린 것이오. 여기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소."

카밀라가 이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로타리오는, 자기가 본 그 사내가 카밀라의 정부가 아니라 레오넬라의 정부라고 둘러대려는 꾀라고 믿었다. 그러나 카밀라가 울고 괴로워하며 방도를 구하는 것을 보자 진실을 믿게 되었고, 진실을 믿게 되자 아주 어쩔 줄 모르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래도 그는 카밀라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레오넬라의 무엄한 짓을 막을 방도를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질투의 사나운 분노에 휩쓸려 안셀모에게 한 말과, 안셀모가 안쪽 침실에 숨어 거기서 카밀라가 자기에게 얼마나 충실하지 않은지 똑똑히 보기로 약속한 일도 털어놓았다. 그는 이 미친 짓을 용서해 달라고 빌며, 그것을 바로잡고 제 그릇된 생각이 빠뜨린 그토록 뒤얽힌 미로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게 충고해 달라고 청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고, 몹시 화를 내며 여러 슬기로운 말로 그의 나쁜 생각과 어리석고 못된 결정을 꾸짖고 나무랐다. 그러나 여자는 본래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남자보다 재치가 빠르고, 다만 일부러 이치를 따지려 들면 그 재치가 모자라게 마련이다. 카밀라는 곧바로 보기에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 일을 바로잡을 방도를 찾아내고는, 다음 날 안셀모가 말한 그곳에 숨게 하라고 로타리오에게 일렀다. 그가 숨어 있는 것을 이용해 앞으로 두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카밀라는 자기 생각을 다 밝히지 않은 채, 안셀모가 숨어 있을 때 레오넬라가 부르면 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는 안셀모가 엿듣는 줄 모르는 것처럼 대답하라고 그에게 일러두었다. 로타리오는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더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지킬 수 있게 속뜻을 다 밝혀 달라고 졸랐다.

"다시 말하지만" 카밀라가 말했다. "지킬 것은 내가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뿐이오." (카밀라는 자기가 하려는 일을 미리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기에게는 그토록 좋아 보이는 생각을 그가 따르지 않고, 그만큼 좋을 수 없는 다른 생각을 따르거나 찾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로타리오는 떠났다. 그리고 이튿날 안셀모는 벗이 사는 그 마을에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가 돌아와 숨었다. 카밀라와 레오넬라가 일부러 틈을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는 수월하게 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안셀모가 숨었다. 제 명예의 오장육부를 해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느낄 법한 그런 두근거림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카밀라에게서 누린다고 믿던 지극한 복을 이제 막 잃을 참이었다. 안셀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카밀라와 레오넬라는 안쪽 침실로 들어갔다. 카밀라는 그 방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레오넬라, 내 동무야! 네가 막으려 들지 않게 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내가 실행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달라고 했던 안셀모의 단검을 들고 이 수치스러운 가슴을 찔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러지 마라. 남의 죄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먼저 로타리오의 그 무엄하고 음탕한 눈이 내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나쁜 바람을, 제 벗을 업신여기고 나를 욕되게 하는 그런 바람을 내게 털어놓을 만큼 대담해졌는지 알고 싶다. 레오넬라, 저 창가에 가서 그 사람을 불러라. 틀림없이 길에서 제 나쁜 뜻을 이루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잔인하지만 명예로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이고, 아씨!" 약삭빠르고 눈치 빠른 레오넬라가 대답했다. "그 단검으로 뭘 하려고 그래? 혹시 아씨 목숨을 끊으려는 거야, 아니면 로타리오 목숨을 끊으려는 거야? 어느 쪽이든 아씨 평판과 명성만 잃게 될 거야. 그보다는 모욕을 당한 걸 모른 척하고, 그 못된 사내가 지금 이 집에 들어와 우리끼리만 있는 걸 보게 하지 않는 게 나아. 아씨, 생각해 봐. 우리는 연약한 여자들이고 그 사람은 사내에다 독한 사람이야. 그런 나쁜 뜻을 품고 눈이 멀어 달아올라서 오는데, 아씨가 아씨 뜻을 이루기 전에 그 사람이 아씨한테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이런 낯가죽 두꺼운 놈을 제 집에 그렇게 들였으니 우리 안셀모 나리는 벌을 받아도 싸지! 그리고 아씨, 아씨 생각대로 그 사람을 죽인다 치자. 죽은 다음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고, 얘야?" 카밀라가 대답했다. "안셀모가 묻게 내버려 둘 거야. 제 치욕을 제 손으로 땅에 묻는 수고가 그에게 쉼이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어서 불러라. 내가 당한 모욕에 마땅한 복수를 미루는 동안은 내내 남편에게 지켜야 할 충성을 해치는 것만 같구나."

안셀모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카밀라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다 카밀라가 로타리오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가서 모습을 드러내려 했다. 그러나 그토록 용감하고 정숙한 결심이 어디서 끝날지 보고 싶은 마음이 그를 붙들었다. 그는 때맞춰 나가 그 일을 막을 생각이었다.

그때 카밀라가 심하게 까무러치며 거기 있던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레오넬라가 몹시 서럽게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세상에서 가장 정숙한 꽃이, 착한 여자들의 면류관이, 정절의 본보기가 여기 내 품에서 죽는 그런 불운을 내가 겪는다면……!"

레오넬라는 이 비슷한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누구든 그 말을 들으면 레오넬라를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충실한 시녀로, 그 마님을 박해받는

또 하나의 새 페넬로페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카밀라는 곧 까무러친 데서 깨어났고, 정신이 들자 말했다.

"레오넬라, 해가 비추고 밤이 덮어 준 벗 가운데 가장 충실한 벗의 벗을 왜 부르러 가지 않느냐? 어서, 뛰어, 서둘러, 가라. 미루는 사이에 내 분노의 불길이 김빠져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정당한 복수가 으름장과 저주로만 끝나지 않게."

"지금 부르러 갈게, 아씨." 레오넬라가 말했다. "그렇지만 먼저 그 단검을 나한테 줘. 내가 없는 사이에 그걸로 무슨 짓을 해서 아씨를 아끼는 사람들을 평생 울게 만들면 안 되니까."

"안심하고 다녀와, 레오넬라, 내 동무야. 그러지 않을 거야." 카밀라가 대답했다. "네가 보기에 내가 내 명예를 지키는 데 무모하고 어리석다 해도,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기 불행의 까닭이 된 자를 먼저 죽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 루크레티아만큼 그러지는 않을 거야. 나는 죽는다면 죽겠지만, 내 잘못이라곤 하나도 없이 생겨난 그 무엄한 짓을 울며 탄식하러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만든 자에게 복수하고 앙갚음한 다음이어야 해."

레오넬라는 로타리오를 부르러 나가기 전에 한참이나 더 애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나갔다. 레오넬라가 돌아올 때까지 카밀라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느님 맙소사! 다른 여러 번 그랬듯이 로타리오를 돌려보내는 것이, 이미 그렇게 해 버렸듯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로잡는 데 걸릴 이 짧은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정숙하지 못하고 나쁜 여자로 여기게 만드는 것보다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그게 더 나았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 나쁜 생각이 끌고 들어온 곳에서 그렇게 손 하나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순탄하게 다시 걸어 나간다면, 나는 복수를 못 하고 남편의 명예도 앙갚음을 받지 못하겠지. 그 배신자는 그토록

음탕한 바람으로 꾀한 짓을 목숨으로 갚아라. 혹시 세상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카밀라가 남편에게 충성을 지켰을 뿐 아니라 남편을 욕보이려 한 자에게 남편 대신 복수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래도 이 일을 안셀모에게 알리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나는 마을로 보낸 편지에서 이미 그걸 넌지시 알렸어. 그런데 그이가 내가 거기서 짚어 준 해악을 막으러 오지 않은 건, 너무 착하고 너무 믿는 사람이라 그토록 굳은 벗의 가슴에 자기 명예를 거스르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깃들 수 있다고는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일 거야. 나도 그 뒤로 여러 날 동안 믿지 않았고, 그 사람의 무엄함이 갈 데까지 가서 드러내 놓고 주는 선물과 거창한 약속과 끝없는 눈물이 그것을 내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더라면 끝내 믿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 하러 이런 생각을 늘어놓지? 용감한 결심에 무슨 의논이 필요한가? 아니, 필요 없지. 그렇다면 물러가라, 배신이여. 이리 오라, 복수여! 그 거짓된 자는 들어와라, 와라, 다가와라, 죽어라, 끝장나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 나는 하늘이 내 짝으로 준 사람의 손에 깨끗하게 들어왔으니 깨끗하게 나가야 해. 그리고 기껏해야 내 정결한 피와, 우정이 세상에서 본 가장 거짓된 벗의 더러운 피에 젖어 나가게 되겠지."

이렇게 말하며 카밀라는 칼집에서 뺀 단검을 들고 방 안을 거닐었다. 그 걸음이 어찌나 어지럽고 사나우며 그 몸짓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정신이 나간 것 같았고 가녀린 여인이 아니라 막다른 데 몰린 불한당 같았다.

안셀모는 몸을 숨긴 벽걸이 천 뒤에 가려진 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놀랐다. 그는 이미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이보다 더 큰 의심이라도 넉넉히 풀릴 만하다고 여겼고, 갑자기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려워 로타리오가 오는 시험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리하여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고 나가서 아내를 끌어안고 진실을

밝히려는 참이었는데, 레오넬라가 로타리오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멈추었다. 카밀라는 로타리오를 보자마자 단검으로 제 앞 바닥에 굵은 금을 긋고 그에게 말했다.

"로타리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혹시라도 네가 여기 보이는 이 금을 넘어오거나 이 금에 다가오기만 해도, 네가 그러려는 것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손에 든 이 단검으로 내 가슴을 찌르겠다. 그리고 이 말에 네가 한마디라도 대답하기 전에 내 말을 몇 마디 더 들어라. 그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대답해라. 첫째로, 로타리오, 네가 내 남편 안셀모를 아는지,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 말해 다오. 둘째로, 네가 나를 아는지도 알고 싶다. 여기에 대답해라. 당황하지도 말고 무어라 대답할지 오래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묻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로타리오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카밀라가 안셀모를 숨게 하라고 말한 처음부터 그는 카밀라가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카밀라의 뜻에 어찌나 슬기롭게, 어찌나 때맞춰 장단을 맞추었던지, 두 사람은 그 거짓말을 틀림없는 진실보다 더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아름다운 카밀라여, 나는 네가 내가 여기 온 뜻과 그토록 동떨어진 것을 물으려고 나를 불렀을 줄은 몰랐다. 약속한 은혜를 미루려고 그러는 거라면 더 멀리서부터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바라는 복은 손에 넣을 희망이 가까울수록 더 애가 타는 법이니까. 그렇지만 네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도록 말하겠다. 나는 네 남편 안셀모를 안다. 우리 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았다. 우리 우정에 대해서는 네가 잘 아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저지르게 하는 모욕을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꼴이 되지 않게. 사랑은 더 큰 잘못들의 힘센 변명이 되지만. 너도 안다. 그가 너를 차지하듯 나도 너를 그렇게 여긴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보다 못한 보배를 위해 나라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거스르고, 참된 우정의 거룩한 법을 거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법을 이제 사랑이라는 그토록 힘센 적이 내 손으로 깨뜨리고 어기게 했지만."

"그걸 인정한다면" 카밀라가 대답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모든 것의 철천지원수야, 네가 마땅히 제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그 사람이 들여다보는 거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면서, 무슨 낯으로 감히 내 앞에 나타나느냐? 그 거울을 보았다면 네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그를 모욕하는지 알았을 텐데. 그렇지만 아, 가엾은 내 신세여, 이제야 알겠다.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 자신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그토록 하찮게 여기게 했는지. 그건 틀림없이 내가 보인 무슨 허술함이었을 거야. 정숙하지 못함이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다. 그것은 마음먹고 한 일이 아니라, 몸을 사려야 할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흔히 무심코 저지르는 무슨 방심에서 나왔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아라. 오, 배신자야, 내가 언제 네 간청에 네가 그 수치스러운 바람을 이루리라는 희망의 그림자라도 품게 할 만한 말이나 몸짓으로 대답한 적이 있느냐? 네 사랑의 말이 내 말에 엄하고 매섭게 꺾이고 꾸짖음을 받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 네 숱한 약속과 그보다 더 많은 선물을 내가 믿거나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 그렇지만 누구든 무슨 희망이 받쳐 주지 않으면 사랑의 뜻을 오래 지켜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네가 주제넘게 군 탓을 나 자신에게 돌리겠다. 틀림없이 내 어떤 방심이 그토록 오랫동안 네 애태움을 받쳐 주었을 테니까. 그러니 나는 나를 벌하고, 네 죄가 마땅히 받을 벌을 나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토록 무자비한 내가 너에게 무자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보도록, 너를 불러 내가 그토록 명예로운 내 남편의 다친 명예에 바치려는 제물의 증인이 되게 했다. 남편은 네가 할 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해 그를 모욕한 탓에, 그리고 내가 네 나쁜 뜻을 북돋우고 떠받들

기회를, 혹시 내가 무슨 기회를 주었다면, 그 기회를 피하는 데 조심하지 못한 탓에 모욕을 당했다. 거듭 말하지만, 내 어떤 방심이 네 안에 그토록 엉뚱한 생각을 낳았으리라는 의심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는 그것을 내 손으로 가장 벌하고 싶다. 다른 형리가 나를 벌하면 내 죄가 더 널리 알려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죽으면서 죽이고 싶다. 나를 이토록 절망스러운 지경에 빠뜨린 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바라고 품은 복수의 바람을 그가 마저 채워 주게 하고 싶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서, 사사로움 없고 굽히지 않는 정의가 그에게 내리는 벌을 보면서."

이 말을 하며 카밀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차고 날래게, 칼집에서 뺀 단검을 들고 로타리오에게 덤벼들었다. 그 가슴에 단검을 박아 넣으려는 기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로타리오는 그 몸짓이 거짓인지 참인지 거의 의심할 지경이었다. 카밀라가 찌르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는 재주와 힘을 다 써야 했다. 카밀라는 그 기이한 속임수와 추한 짓을 어찌나 생생하게 꾸며 냈던지, 거기에 진실의 빛깔을 입히려고 제 피로 물들이려 했다. 로타리오를 찌를 수 없음을 보자, 아니 찌를 수 없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나의 이토록 정당한 바람을 다 채워 주려 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내가 그 일부라도 채우는 것까지 막을 만큼 힘이 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카밀라는 로타리오가 붙잡고 있는 단검 든 손을 힘껏 빼내더니, 깊이 다치지 않을 곳으로 그 끝을 이끌어 왼쪽 쇄골 위, 어깨 가까이에 찔러 넣어 박고는 곧 까무러친 듯 바닥에 쓰러졌다.

레오넬라와 로타리오는 이 일에 얼이 빠지고 기가 막혀서, 카밀라가 피에 젖어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그 일이 참인지 아직 의심하고 있었다. 로타리오는 겁에 질려 숨도 쉬지 못한 채 단검을 뽑으려고 재빨리 달려갔다가, 상처가 작은 것을 보고서야 그때까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아름다운 카밀라의 약삭빠름과 사려와 깊은 슬기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자기가 맡은 몫을 해내려고 카밀라가 죽기라도 한 듯 그 몸 위에서 길고 슬픈 탄식을 늘어놓기 시작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를 이 지경에 빠뜨린 장본인에게도 숱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벗 안셀모가 엿듣고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카밀라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 해도 카밀라보다 그를 훨씬 더 가엾게 여길 만한 말을 했다.

레오넬라는 카밀라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카밀라를 몰래 치료해 줄 사람을 찾아와 달라고 로타리오에게 애원했다. 또 혹시 마님의 상처가 낫기 전에 안셀모가 돌아오면 그 상처를 두고 무어라 말해야 할지 충고와 의견을 구했다. 로타리오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자기는 쓸모 있는 충고를 할 형편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다만 피를 멎게 하라고만 이르고, 자기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데로 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몹시 괴롭고 슬픈 시늉을 하며 집을 나섰다. 혼자가 되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르자, 그는 카밀라의 재주와 레오넬라의 그토록 그럴듯한 몸짓에 놀라 연신 성호를 그었다. 그는 안셀모가 자기 아내를 제2의 포르키아로 여기게 되리라 헤아리며, 이제껏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감쪽같이 꾸민 거짓과 진실을 둘이서 함께 축하하려고 안셀모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앞서 말했듯이 레오넬라가 마님의 피를 멎게 했는데, 그 피는 속임수를 그럴듯하게 하는 데 넉넉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레오넬라는 포도주를 조금 써서 상처를 씻고 할 수 있는 한 잘 싸매면서, 치료하는 동안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그 말만으로도, 앞서 다른 말이 없었더라도, 안셀모가 카밀라를 정숙함의 화신으로 믿게 하기에 넉넉했다. 레오넬라의 말에 카밀라의 말이 더해졌다. 카밀라는 그토록 지긋지긋한 목숨을 끊는 데 용기가 가장 필요할 때 용기가 모자랐다며

자신을 겁쟁이요 배짱 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알릴지 말지 시녀에게 의논했다. 레오넬라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남편이 로타리오에게 복수해야 할 처지가 될 텐데, 그것은 남편이 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까닭이었다. 그리고 착한 아내는 남편이 싸울 거리를 만들어 주지 말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그런 거리를 모두 없애 주어야 한다고 했다.

카밀라는 그 의견이 아주 좋으니 그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어쨌든 남편이 보지 않을 수 없을 그 상처의 까닭을 무어라 둘러댈지는 찾아 두어야 했다. 그러자 레오넬라는 자기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럼 얘, 나는 어떻겠니?" 카밀라가 되받았다. "목숨이 걸렸다 해도 거짓말을 꾸며 내지도 우겨 대지도 못할 텐데. 이 일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느니 차라리 그이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게 낫겠어."

"걱정하지 마, 아씨." 레오넬라가 대답했다. "내일까지 나리께 무어라 말할지 내가 궁리해 볼게. 어쩌면 상처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리가 못 보게 감출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하늘이 우리의 이토록 정당하고 명예로운 생각을 기꺼이 도와주실 거야. 진정해, 아씨. 나리가 아씨를 보고 놀라지 않게 마음을 가라앉혀.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고, 늘 좋은 바람을 도와주시는 하느님께 맡겨." 안셀모는 제 명예가 죽어 가는 비극이 상연되는 것을 더없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들었다. 그 비극의 배우들이 어찌나 기이하고 실감 나는 감정으로 연기했던지, 그들은 자기들이 꾸미는 바로 그 일의 진실로 바뀐 것 같았다. 그는 밤이 오기를, 집을 빠져나가 좋은 벗 로타리오를 만날 틈이 생기기를 몹시 기다렸다. 아내의 착함을 확인하며 찾아낸 값진 진주를 두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두 여자는 그가 나갈 수 있게 틈과 편의를

마련해 주려고 신경을 썼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가 곧장 로타리오를 찾아갔다. 로타리오를 만나자 그가 퍼부은 포옹과 그가 털어놓은 기쁨의 말과 그가 카밀라에게 바친 칭찬은 이루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로타리오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기쁜 기색을 조금도 보일 수가 없었다. 벗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당하게 그를 모욕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안셀모는 로타리오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카밀라를 다친 채 두고 왔고 자기가 그 까닭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말 가운데, 카밀라의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두 여자가 상처를 자기에게 숨기기로 약속했으니 상처는 틀림없이 가벼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은 없으며, 앞으로는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로타리오의 재주와 수고 덕분에 자기가 바랄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에 올랐으니, 앞으로 두 사람의 즐거움은 다름 아니라 카밀라를 기리는 시를 지어 다가올 세기들의 기억 속에 카밀라를 영원히 남기는 일이기를 바랐다. 로타리오는 그 좋은 결심을 칭찬하며 자기도 그 빛나는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리하여 안셀모는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게 속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제 영광의 도구를 데려간다고 믿으며 제 명성을 송두리째 망칠 장본인을 제 손으로 이끌어 집으로 데려갔다. 카밀라는 보기에는 찡그린 얼굴로, 그러나 속으로는 웃으며 그를 맞았다. 이 속임수는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운명의 여신이 수레바퀴를 돌리자 그토록 교묘하게 숨겨 왔던 악행이 광장에 드러났고, 안셀모는 그 주제넘은 호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제35장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가 끝난다

이야기를 다 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돈키호테가 쉬고 있던 다락방에서 산초 판사가 몹시 허둥대며 뛰쳐나와 소리쳤다.

"여러분, 어서 와서 우리 주인을 도와주세요. 제 눈으로 본 것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뒤엉킨 싸움에 휘말려 계세요. 맙소사, 미코미코나 공주 아씨의 원수인 그 거인을 칼로 한 번 내리쳐서 목을 순무처럼 싹둑 잘라 버리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형제?" 신부가 남은 이야기를 읽다 말고 말했다. "자네 제정신인가, 산초? 거인은 여기서 2천 레과나 떨어져 있는데, 대체 자네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외쳤다.

"게 섰거라, 도둑놈아, 흉악한 놈아, 비겁한 놈아. 여기 너를 잡았으니 네 언월도도 소용없으리라!"

그리고 그는 벽을 마구 칼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멈춰 서서 듣고 계실 게 아니라 어서 들어가 싸움을 말리시든지 우리 주인을 도우시든지 하세요. 하기야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그 거인은 틀림없이 벌써 죽어서 지난날의 못된 삶을 하느님께 셈하고 있을 테니까요. 피가 바닥에 흐르는 걸 제가 봤고, 잘린 머리가 한쪽에 떨어져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게 커다란 포도주 가죽 부대만 하더라니까요."

"내 목을 걸지." 그때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돈키호테인지 돈 악마인지가 그자 머리맡에 가득 채워 둔 붉은 포도주 가죽 부대들 가운데 하나를 칼로 찌른 게 틀림없어. 이 사람이 피로 본 건 쏟아진 포도주일 거야."

이렇게 말하며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모두 뒤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본 돈키호테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차림이었다. 그는 셔츠만 걸치고 있었는데, 그 셔츠는 앞으로는 넓적다리를 다 가리지 못할 만큼 짧았고 뒤로는 손가락 여섯 마디만큼 더 짧았다. 다리는 몹시 길고 깡말랐으며 털투성이에 조금도 깨끗하지 않았다. 머리에는 객줏집 주인의 것인 기름때 전 빨간 모자를 썼고, 왼팔에는 산초가 원한을 품은 그 침대 담요를 감고 있었다. 산초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뽑아 든 칼을 쥐고 사방으로 휘두르며 정말로 어느 거인과 싸우고 있는 듯이 말을 내뱉고 있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가 눈을 뜨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잠든 채 거인과 싸우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막 끝내려는 모험을 어찌나 골똘히 상상했던지 벌써 미코미콘 왕국에 이르러 원수와 맞붙어 싸우고 있는 꿈까지 꾸었다. 그리고 거인을 친다고 믿고 가죽 부대들을 칼로 어찌나 많이 내리쳤던지 방 안이 온통 포도주 천지였다. 그것을 본 객줏집 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돈키호테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마구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떼어 놓지 않았더라면 거인과의 전쟁을 그가 끝장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가엾은 기사는 깨어나지 않다가, 이발사가 우물에서 찬물을 큰 솥으로 하나 길어 와 그의 온몸에 한꺼번에 끼얹자 그제야 깨어났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알아챌 만큼 정신이 들지는 않았다.

도로테아는 그가 얼마나 짧고 얇게 걸치고 있는지 보고, 자기를 돕는 이와 그 적수의 싸움을 보러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산초는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거인의 머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자 말했다.

"이 집의 일은 다 마법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누가 때리는지도 모르게 주먹질과 몽둥이질을 숱하게 당했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제 바로 이 두 눈으로 잘리는 걸 본 그 머리가 여기 보이지 않네요. 피도 몸뚱이에서 샘처럼 흘러나왔는데요."

"무슨 피고 무슨 샘이냐, 하느님과 성인들의 원수 같은 놈아?"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이 도둑놈아, 그 피고 샘이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구멍 난 이 가죽 부대들이고, 이 방 안에 둥둥 떠다니는 붉은 포도주라는 게 안 보이느냐? 이걸 뚫어 놓은 놈의 영혼이 지옥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꼴을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이 머리를 찾지 못하면 제 백작령이 물에 소금 녹듯 녹아 버리는 불운을 겪게 되리라는 것뿐이에요."

산초는 깨어 있는데도 잠든 주인보다 더 엉망이었다. 주인이 한 약속들이 그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객줏집 주인은 종자의 태평함과 주인의 몹쓸 짓을 보고 속이 뒤집혔다. 그는 지난번처럼 돈도 안 내고 가 버리게 두지는 않겠다고, 이번에는 그자의 기사도 특권으로도 이것저것 값을 치르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고, 터진 가죽 부대에 덧대야 할 마개 값까지 다 받아 내겠다고 맹세했다.

신부가 돈키호테의 두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돈키호테는 모험을 이미 끝내고 미코미코나 공주 앞에 있다고 믿고 신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드높고 이름 높으신 아씨여, 그대의 위대하심은 오늘부터 이 비천하게 태어난 놈이 해를 끼칠까 염려하지 않고 편히 사셔도 되오.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그대에게 드린 약속에서 풀려났소. 드높으신

하느님의 도우심과,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 숨 쉬는 그 아씨의 은총으로 그 약속을 이토록 훌륭히 지켰노라."

"제 말이 맞죠?" 이 말을 듣고 산초가 말했다. "그래요, 저는 취하지 않았다니까요. 보세요, 우리 주인이 벌써 거인을 소금에 절여 놓으셨잖아요! 투우는 틀림없이 열리는 거예요. 제 백작령은 이제 틀에 찍은 듯 들어맞았어요!"

주인과 하인 두 사람의 이 터무니없는 소리에 누군들 웃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모두가 웃었다. 악마한테 몸을 내줄 만큼 약이 오른 객줏집 주인만 빼고. 그러나 마침내 이발사와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적잖이 애를 쓴 끝에 돈키호테를 침대에 눕혔고, 그는 몹시 지친 기색으로 잠들어 버렸다. 그들은 그를 자게 두고 객줏집 현관으로 나와, 거인의 머리를 찾지 못한 산초 판사를 달랬다. 그러나 가죽 부대들이 갑자기 죽어 버려 넋이 나간 객줏집 주인을 달래는 일이 더 큰일이었다. 그리고 객줏집 안주인은 목청껏 고함을 질러 댔다. "재수 없는 때, 기운 빠진 시각에 이 편력 기사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내 눈으로 저자를 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게 먹히다니. 지난번엔 자기랑 종자랑 비쩍 마른 말 한 마리랑 당나귀 한 마리가 하룻밤 묵으면서 저녁밥이며 잠자리며 짚이며 보리 값을 떼먹고 갔지. 자기는 모험 기사라서(하느님께서 저자와 세상의 모든 모험꾼에게 험한 모험이나 내리시기를) 아무것도 낼 의무가 없다나, 편력 기사도의 요금표에 그렇게 적혀 있다나. 그런데 이번엔 저자 때문에 저 다른 양반이 와서 내 꼬리를 가져가더니, 쿠아르티요 두 닢어치도 넘게 망가뜨려서 돌려줬어. 털이 다 빠져서 우리 남편이 쓰려는 데 쓸 수도 없게 됐다고. 그리고 마지막 끝장으로, 내 가죽 부대들을 찢고 내 포도주를 쏟아 놓다니. 저자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 꼴을 보고 싶네. 어디 두고 보라지. 우리 아버지 뼈를 걸고, 우리 어머니 저승 복을 걸고 맹세하는데, 쿠아르토 한 닢 위에 또 한 닢 얹어서라도

다 물어내게 하고 말 테야. 안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고 우리 부모 딸도 아니야!"

객줏집 안주인은 몹시 화가 나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고, 착한 하녀 마리토르네스가 거들었다. 딸은 잠자코 있다가 이따금 빙긋 웃었다. 신부는 가죽 부대도 포도주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따지는 꼬리의 손상도 할 수 있는 한 잘 물어 주겠다고 약속해 모두를 진정시켰다. 도로테아는 산초 판사를 달래며, 그의 주인이 거인의 목을 벤 것이 참말로 드러나면 언제든 자기가 나라에서 평화를 되찾는 대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백작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산초는 그 말에 마음이 놓여, 자기가 거인의 머리를 본 것은 틀림없다고, 더 확실한 증거를 대자면 그 머리에 허리까지 닿는 수염이 있었다고 공주에게 장담했다. 그리고 머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마법으로 되기 때문이며, 지난번 그 집에 묵었을 때 직접 겪어 보았다고 했다. 도로테아는 그 말을 믿는다며 근심하지 말라고, 모든 일이 잘되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모두가 진정되자 신부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읽으려 했다.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끝까지 읽어 달라고 청했다. 신부는 모두를 즐겁게 해 주고 싶었고 자기도 읽고 싶었으므로 이야기를 이어 갔다. 이야기는 이러했다.

안셀모는 카밀라의 착함에 흡족하여 걱정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카밀라는 일부러 로타리오에게 언짢은 얼굴을 보였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에게 품은 마음을 안셀모가 거꾸로 알아듣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그럴듯하게 하려고, 로타리오는 카밀라가 자기를 볼 때마다 언짢아하는 기색이 뚜렷하니 이제 그 집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허락을 청했다. 그러나 속은 안셀모는 결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안셀모는 제 즐거움을 짓는다고 믿으며 천 가지 수로 제 불명예를 지어 갔다.

그러는 사이에 레오넬라는 마음대로 연애를 하는 데 맛을 들여, 마침내 다른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삐 풀린 듯 그 즐거움을 쫓아다니게 되었다. 마님이 숨겨 주고 있는 데다, 어떻게 하면 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지 일러 주기까지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날 밤 안셀모는 레오넬라의 방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누가 그 발소리를 내는지 보려고 들어가려 하자 누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오히려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을 부추겼다. 그가 어찌나 힘을 썼던지 문이 열렸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 사내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거리로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가 그 사내를 붙잡거나 얼굴이라도 알아보려고 재빨리 달려갔지만 어느 쪽도 이루지 못했다. 레오넬라가 그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진정해, 나리. 소란 피우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린 사람을 쫓아가지도 마. 내 사람이야. 그냥 내 사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니까."

안셀모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눈이 멀어 단검을 빼 들고 레오넬라를 찌르려 하며,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다. 레오넬라는 겁에 질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에게 말했다.

"나를 죽이지 마, 나리. 나리가 상상도 못 할 만큼 중요한 일을 말해 줄게."

"당장 말해라." 안셀모가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지금은 안 돼." 레오넬라가 말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걸. 내일까지만 기다려 줘. 그러면 나리가 깜짝 놀랄 일을 나한테서 듣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창문으로 뛰어내린 사람은 이 도시 젊은이인데, 나를 아내로 맞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이니 안심해."

안셀모는 그 말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레오넬라가 청한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카밀라의 착함을 그토록 흡족하게 믿고 있었으므로 카밀라를 거스르는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방에서 나오며 레오넬라를 그 안에 가두고, 할 말을 다 하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일렀다.

그는 곧장 카밀라를 만나러 가서 시녀와 있었던 일을 모두, 그리고 시녀가 크고 중요한 일을 말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이야기했다. 카밀라가 당황했는지 아닌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레오넬라가 카밀라의 불충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안셀모에게 말하리라고 정말로 믿었기에 (그렇게 믿을 만도 했다) 카밀라는 어찌나 겁에 질렸던지, 그 의심이 헛것으로 드러날지 어떨지 기다려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로 그날 밤, 안셀모가 잠들었다고 여겨지자 카밀라는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보석들과 돈 얼마를 챙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집을 빠져나가 로타리오의 집으로 갔다. 카밀라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자기를 안전한 곳에 숨겨 주든지, 아니면 둘이 함께 안셀모에게서 안전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고 청했다. 카밀라 때문에 로타리오는 어찌나 혼란에 빠졌던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결국 그는 그의 누이가 원장으로 있는 어느 수녀원에 카밀라를 데려다 두기로 했다. 카밀라도 그러기로 하자 로타리오는 사태가 요구하는 만큼 서둘러 카밀라를 데려가 수녀원에 맡기고, 자기도 곧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시를 떠났다.

날이 밝자 안셀모는 카밀라가 곁에 없는 것도 모른 채, 레오넬라가 하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 레오넬라를 가두어 둔 곳으로

갔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지만 레오넬라는 거기 없었고, 그리로 내려가 달아났다는 표시요 흔적으로 창문에 묶인 홑이불만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몹시 슬퍼하며 곧 카밀라에게 그 일을 말하러 돌아왔는데, 침대에도 집 안 어디에도 카밀라가 없자 아연실색했다. 그는 집안 하인들에게 카밀라를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다.

카밀라를 찾아다니던 그는 우연히 카밀라의 함들이 열려 있고 보석들이 거의 다 없어진 것을 보았고, 그제야 자기 불행을 깨닫고 자기 불운의 까닭이 레오넬라가 아님을 알았다. 그리고 옷도 채 다 입지 못한 그 차림 그대로, 슬프고 생각에 잠긴 채 벗 로타리오에게 제 불행을 털어놓으러 갔다. 그러나 로타리오를 찾지 못하고, 그의 하인들에게서 주인이 간밤에 집에서 사라졌으며 가진 돈을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자 그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끝장을 보려는 듯, 제 집에 돌아와 보니 그 많던 하인과 하녀가 하나도 없고 집은 텅 비어 쓸쓸할 뿐이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조금씩 정신이 돌아 버리는 것 같았다. 한순간에 아내도 벗도 하인도 없는 몸이 되어, 자기를 덮은 하늘에게서도 버림받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가 없어졌다. 카밀라가 없어진 데서 그는 자기 파멸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참 뒤 그는 마침내, 그 모든 불행이 꾸며지도록 자리를 내주었던 동안 머물렀던 벗의 마을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집의 문들을 잠그고 말에 올라 기진한 숨결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길을 반쯤 갔을 때 생각에 쫓긴 나머지 말에서 내려 나무에 말을 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나무 밑동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애처롭고 괴로운 한숨을 쉬며 거의 해가 질 때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 무렵 도시 쪽에서 말을 탄 사람

하나가 오는 것을 보고 인사를 나눈 뒤 피렌체에 무슨 소식이 있느냐고 물었다. 도시 사람이 대답했다.

"요 며칠 사이 거기서 들은 것 가운데 가장 희한한 소식이 있소. 부자 안셀모의 둘도 없는 벗으로 성 요한 성당 근처에 살던 로타리오가 간밤에 안셀모의 아내 카밀라를 데리고 달아났다고 다들 드러내 놓고 떠든다오. 안셀모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오. 이 모든 이야기는 카밀라의 하녀가 한 것인데, 그 하녀가 간밤에 안셀모 집 창문에서 홑이불을 타고 내려오다가 시장에게 붙잡혔다오. 사실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인지는 나도 모르오. 다만 온 도시가 이 일에 놀라고 있다는 것만은 아오. 두 사람의 깊고 허물없는 우정으로 보아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었으니까. 그 우정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두 벗'이라고 불렀다고들 하오."

"혹시 로타리오와 카밀라가 어느 길로 갔는지 아오?" 안셀모가 말했다.

"전혀 모르오." 도시 사람이 말했다. "시장이 그들을 찾느라 무척 애를 썼지만."

"잘 가시오." 안셀모가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계시오." 도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떠났다.

이토록 불행한 소식에 안셀모는 정신을 잃을 지경을 넘어 거의, 정말 거의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 벗의 집에 다다랐는데, 벗은 아직 그의 불행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누렇게 뜨고 여위고 바싹 마른 몰골로 오는 것을 보고 무슨 큰 화를 당해 지쳐 왔음을 알아챘다. 안셀모는 곧바로 자리에 눕혀 달라고, 그리고 글 쓸 도구를 갖다 달라고 청했다. 그대로 되어 사람들은 그를 눕혀 홀로 두었는데, 그가 그러기를 원했고 문까지 닫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혼자가 되자 그는 제 불행을 어찌나 깊이 곱씹었던지 목숨이 다해 가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기이한 죽음의 까닭을 적어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쓰기 시작해 하려던 말을 다 적기도 전에 숨이 다하여, 제 주제넘은 호기심이 불러온 고통의 손에 목숨을 내주었다.

집주인은 날이 저물었는데도 안셀모가 부르지 않자, 병이 더 깊어졌는지 알아보려고 들어가 보기로 했다. 들어가 보니 안셀모는 몸의 절반은 침대에, 나머지 절반은 책상 위에 걸친 채 엎어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글을 쓴 종이가 펼쳐져 있었고, 그는 아직 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집주인은 먼저 그를 불러 보고 다가가 손을 잡았는데, 대답이 없고 몸이 차가운 것을 보고 그가 죽었음을 알았다. 그는 몹시 놀라고 슬퍼하며 집안사람들을 불러 안셀모에게 닥친 불행을 보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를 읽었는데, 안셀모가 제 손으로 쓴 것임을 알아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어리석고 주제넘은 바람이 내 목숨을 앗아 갔다. 내 죽음의 소식이 카밀라의 귀에 들어가거든,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 여자는 기적을 행할 의무가 없었고, 나도 그 여자가 기적을 행하기를 바랄 까닭이 없었다. 그리고 내 불명예를 지어낸 것은 나였으니, 굳이……

안셀모는 여기까지 썼다. 그것으로 보아 그는 그 순간 문장을 끝맺지 못한 채 목숨을 다한 것이 분명했다. 이튿날 그의 벗은 안셀모의 친척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렸다. 친척들은 이미 그의 불행을 알고 있었고, 카밀라가 있던 수녀원도 알고 있었다. 카밀라는 남편이 떠난 그 피할 수 없는 길을 따라나설 지경에 이르러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남편의 소식 때문이 아니라 떠나간 벗의 소식 때문이었다. 이야기에 따르면 카밀라는 과부가 되었어도 수녀원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수녀 서원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타리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무렵 나폴리 왕국에서

로트레크 공이 대장군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코르도바와 벌인 싸움에서 죽었는데, 뒤늦게 뉘우친 그 벗이 흘러 흘러 간 곳이 거기였다. 카밀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서원을 했고, 슬픔과 우울의 혹독한 손에 얼마 안 가 목숨을 마쳤다. 그토록 터무니없는 시작에서 비롯된 모두의 끝은 이러했다.

"이 이야기는 괜찮은 것 같소." 신부가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참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구려. 지어낸 것이라면 작가가 잘못 지어냈소. 안셀모처럼 그토록 값비싼 실험을 하려 들 만큼 어리석은 남편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이 연인과 귀부인 사이에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데가 있소. 그래도 이야기하는 솜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없소."

제36장 돈키호테가 붉은 포도주 가죽 부대들과 벌인 용감하고 엄청난 싸움과 객줏집에서 일어난 다른 희한한 일들을 다룬다

그러고 있는데 객줏집 문간에 서 있던 주인이 말했다.

"저기 멋진 손님 일행이 오네요. 저 사람들이 여기 묵으면 잔치(gaudeamus)가 벌어지겠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오?" 카르데니오가 말했다.

"사내 넷이요." 주인이 대답했다. "짧은 등자로 말을 타고 창과 가죽 방패를 들었는데, 다들 검은 복면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흰옷 입은 여자 하나가 여자 안장에 앉아 오는데, 그 여자도 얼굴을 가렸고요. 걸어서 따라오는 젊은이도 두 명 있어요."

"가까이 왔소?" 신부가 물었다.

"아주 가까이요." 주인이 대답했다. "벌써 다 왔어요."

이 말을 듣자 도로테아는 얼굴을 가렸고, 카르데니오는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할 틈도 거의 없었는데, 주인이 말한 사람들이 모두 객줏집으로 들어왔다. 풍채와 몸매가 아주 훤칠한 말 탄 네 사내는 말에서 내리자 여자 안장에 앉아 온 여자를 내려 주러 갔다. 그중 하나가 여자를 두 팔에 안아, 카르데니오가 숨은 방 입구에 놓인 의자에 앉혔다. 그동안 여자도 사내들도 복면을 벗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고는, 병들어 까무러친

사람처럼 두 팔을 늘어뜨렸다. 걸어온 젊은이들은 말들을 마구간으로 끌고 갔다.

신부는 그것을 보고 그런 차림을 하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젊은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중 하나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맙소사, 나리,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다만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 같다는 것만 알아요. 특히 나리께서 보신 그 아씨를 두 팔로 안아 내린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을 받들고, 그 사람이 분부하고 명령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아씨는 누군가?" 신부가 물었다.

"그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오는 내내 얼굴을 못 봤거든요. 한숨 쉬는 소리는 여러 번 들었어요. 신음 소리도 내는데, 한 번 낼 때마다 영혼이 빠져나갈 것만 같더라니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밖에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저하고 제 동무는 이 사람들을 따라온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품삯을 아주 넉넉히 주겠다면서 안달루시아까지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설득해서요."

"그럼 저 사람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라도 들은 적이 있나?" 신부가 물었다.

"정말이지 없어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다들 놀랄 만큼 말없이 길을 가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거라곤 가엾은 아씨의 한숨과 흐느낌뿐인데, 그게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저희는 그 아씨가 어디로 가든 억지로 끌려가는 게 틀림없다고 믿어요. 옷차림으로 짐작해 보면 수녀이거나 수녀가 되러 가는 길인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수녀가 되는 게 제 뜻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슬퍼하는 모양이에요."

"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신부는 그들을 두고 도로테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도로테아는 복면한 여자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듣고 타고난 연민에 이끌려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씨, 어디가 아프세요? 여자들이 흔히 다뤄 보고 고칠 줄 아는 병이라면 말씀해 보세요. 저로서는 기꺼이 아씨를 돌봐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말에도 가엾은 아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도로테아가 더 정성스럽게 도와주겠다고 거듭 말했지만, 아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다른 이들이 모두 그를 따른다고 젊은이가 말한 그 복면한 기사가 다가와 도로테아에게 말했다.

"아씨,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주려고 애쓰지 마시오. 그 여자는 남이 자기를 위해 해 주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이 버릇이오. 그 여자의 입에서 무슨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 대답을 들으려 하지도 마시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소."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여자가 말했다. "오히려 너무 참되고 거짓 꾀를 부릴 줄 몰라서 지금 이토록 불행한 처지가 되었소. 그 증인은 바로 당신이 되어 주시오. 나의 순전한 진실이 당신을 거짓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카르데니오는 이 말을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었다.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사이에는 돈키호테의 방문 하나만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느님 맙소사! 이게 무슨 소리지? 내 귀에 들려온 이 목소리는 무엇이지?"

그 외침에 그 아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누가 외치는지 보이지 않자 일어나 그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기사가 그것을 보고

붙들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여자는 당황하고 허둥대다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비단 천이 흘러내려,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기적 같은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얼굴은 핏기가 없고 넋이 나가 있었다. 눈이 닿는 곳을 모두 어찌나 열심히 눈으로 훑었던지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 여자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도로테아도, 그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모두 그 몸짓을 보고 몹시 가엾게 여겼다. 기사는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그 여자를 꽉 붙잡고 있었는데, 붙잡느라 바빠서 흘러내리는 복면을 추켜올릴 수가 없었고, 결국 복면은 아예 벗겨지고 말았다. 그때 그 아씨를 끌어안고 있던 도로테아가 눈을 들어 보니, 역시 그 아씨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남편 돈 페르난도였다. 도로테아는 그를 알아보자마자 오장육부 깊은 데서부터 길고 몹시도 슬픈 '아!' 소리를 토해 내며 뒤로 까무러쳐 쓰러졌다. 바로 곁에 있던 이발사가 두 팔로 받아 주지 않았더라면 땅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신부가 곧바로 달려가 얼굴에 물을 끼얹어 주려고 도로테아의 가리개를 벗겼다. 그 얼굴이 드러나자마자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던 돈 페르난도가 도로테아를 알아보았고, 도로테아를 보자 죽은 사람처럼 굳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루스신다를 놓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품에서 빠져나가려 애쓰는 여자가 바로 루스신다였다. 루스신다는 탄식 소리로 카르데니오를 알아보았고, 카르데니오도 루스신다를 알아보았다. 카르데니오는 또 도로테아가 까무러치며 지른 '아!' 소리를 듣고 그것이 루스신다라고 믿어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왔는데, 맨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루스신다를 끌어안고 있는 돈 페르난도였다. 돈 페르난도도 곧 카르데니오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루스신다와 카르데니오와 도로테아 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거의 모른 채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로테아는 돈 페르난도를, 돈 페르난도는 카르데니오를, 카르데니오는 루스신다를, 루스신다는 카르데니오를. 그러나 맨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루스신다였다. 루스신다는 돈 페르난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놓아주시오, 돈 페르난도 나리. 다른 까닭으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나리라는 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생각해서라도 놓아주시오. 내가 담쟁이로 기대어 사는 담에게 가게 해 주시오. 나리의 성가신 졸라 댐도, 나리의 위협도, 나리의 약속도, 나리의 선물도 나를 떼어 놓지 못한 그 버팀목에게 말이오. 보시오, 하늘이 낯설고 우리에게는 숨겨진 길로 나의 참된 남편을 내 앞에 데려다 놓았소. 그리고 나리는 값비싼 숱한 경험으로, 오직 죽음만이 그분을 내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그러니 이토록 뚜렷한 깨우침을 보고,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면 사랑을 분노로, 바람을 원한으로 바꾸어 그 분노로 내 목숨을 끊으시오. 나의 착한 남편 앞에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잘 쓴 것으로 여기겠소. 어쩌면 내 죽음으로 그분은 내가 목숨의 마지막 고비까지 그분께 지킨 믿음을 보고 흡족해하실 것이오."

그사이 도로테아는 정신이 들어 루스신다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고, 그 말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도로테아는 돈 페르난도가 아직도 루스신다를 품에서 놓지 않고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름답고 애처로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리, 그대 품에서 빛을 잃은 이 해의 햇살이 그대 눈의 빛을 빼앗아 흐리게 하지 않았다면, 그대 발치에 무릎 꿇은 이 여자가 그대가 바라는 동안은 불운하고 가엾은 도로테아라는 것을 벌써 알아보았겠지. 나는 그대가 그대의 착함으로든 그대의 즐거움으로든 그대의 것이라 불릴 수

있는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려 했던 그 비천한 농사꾼 처녀다. 나는 정숙함의 울타리 안에 갇혀 흡족하게 살다가, 그대가 졸라 대는 목소리와 정당하고 사랑에 넘쳐 보이는 그대의 감정에 이끌려 조신함의 문을 열고 그대에게 내 자유의 열쇠를 건넨 바로 그 여자다. 그대는 그 선물을 그토록 고마워할 줄 몰랐으니, 내가 그대가 지금 나를 찾아낸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내가 그대를 지금 보는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이 그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불명예의 발걸음으로 여기 왔다고 그대가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그대에게 잊힌 괴로움과 슬픔의 발걸음뿐이니까. 그대는 내가 그대의 것이 되기를 바랐고, 그렇게 바랐으니 이제 와서 내가 그대의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해도 그대가 나의 것이 아닐 수는 없다. 나리, 생각해 봐라. 그대가 나를 버리고 택한 그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내가 그대에게 품은 비할 데 없는 마음이 갚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대는 아름다운 루스신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대는 나의 것이니까. 루스신다도 그대의 것이 될 수 없다. 카르데니오의 것이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대를 미워하는 여자의 마음을 돌려 그대를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그대를 우러르는 여자를 사랑하도록 그대의 마음을 돌리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그대는 나의 방심을 꾀었고, 그대는 나의 굳은 마음에 빌었고, 그대는 내 신분을 모르지 않았고, 그대는 내가 어떻게 그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맡겼는지 잘 안다. 그대에게는 속았다고 핑계 댈 자리도 피할 곳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지만, 그리고 그대가 기사인 만큼 그리스도교 신자이기도 하다면, 그대는 왜 처음에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듯이 끝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를 이렇게 에둘러 미루는가?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곧 그대의 참되고 정당한 아내로 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를 그대의 종으로라도 원하고 받아들여

다오. 그대의 손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나를 복되고 운 좋은 여자로 여길 테니까. 나를 버리고 내팽개쳐 내 불명예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게 하지 마라. 내 부모에게 그토록 험한 노년을 주지 마라. 착한 신하로서 그대의 부모를 늘 충실하게 섬겨 온 그분들은 그런 일을 당할 까닭이 없다. 그리고 내 피와 섞으면 그대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이 길을 거치지 않은 귀족 가문은 거의, 아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름난 가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 쪽에서 받은 피가 아니다. 더구나 참된 고귀함은 덕에 있으니, 그대가 마땅히 내게 갚아야 할 것을 거절하여 그 덕을 잃는다면, 고귀함으로 치면 내가 그대보다 더 낫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나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것이다.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그대의 아내다. 그대의 말이 증인이다. 그대가 나를 업신여기는 바로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대의 말은 거짓일 리도 없고 거짓이어서도 안 된다. 그대가 한 서명이 증인이 될 것이고, 그대가 내게 약속한 것의 증인으로 그대가 불러낸 하늘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없다 해도 그대의 양심이 그대의 기쁨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외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이 진실을 지키며 그대의 가장 좋은 즐거움과 기쁨을 어지럽힐 것이다."

가엾은 도로테아는 이런저런 말을 어찌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했던지, 돈 페르난도와 함께 온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돈 페르난도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마침내 도로테아가 말을 끝내고 흐느낌과 한숨을 시작하자, 그 숱한 괴로움의 표시를 보고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동으로 된 심장이었을 것이다. 루스신다는 도로테아를 바라보며, 그 슬픔에 마음 아파하는 만큼 그 깊은 슬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루스신다는 도로테아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네고

싶었지만, 자기를 꽉 붙잡은 돈 페르난도의 팔이 놓아주지 않았다. 혼란과 놀람에 가득 찬 돈 페르난도는 한참 동안 도로테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침내 팔을 풀어 루스신다를 놓아주며 말했다.

"이겼다, 아름다운 도로테아여, 그대가 이겼다. 이토록 많은 진실을 한꺼번에 부정할 배짱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까무러쳤던 루스신다는 돈 페르난도가 놓아주자 바닥에 쓰러지려 했다. 그러나 돈 페르난도에게 알아보이지 않으려고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카르데니오가 바로 곁에 있다가, 모든 두려움을 제쳐 두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루스신다를 붙들었다. 그리고 루스신다를 두 팔로 안으며 말했다.

"자비로운 하늘이 이제 네가 쉬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충실하고 굳세고 아름다운 나의 아씨, 지금 너를 받아 안는 이 팔보다 더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운명이 내게 너를 내 사람이라 부르게 허락했던 그 옛날에도 너를 받아 안았던 이 팔보다."

이 말에 루스신다는 카르데니오에게 눈길을 주었다. 먼저 목소리로 그를 알아보기 시작해 눈으로 그가 맞음을 확인하자, 루스신다는 거의 정신을 잃은 채 정숙한 예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카르데니오의 얼굴에 제 얼굴을 맞대고 말했다.

"그래요, 나리,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이 포로의 참된 주인이오. 아무리 거스르는 운명이 막는다 해도, 당신의 목숨에 기대어 사는 이 목숨을 아무리 위협한다 해도."

이것은 돈 페르난도에게도,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도 기이한 광경이었고, 다들 그 보도 듣도 못한 일에 놀랐다. 도로테아가 보기에 돈 페르난도는 얼굴빛을 잃었고, 카르데니오에게 복수하려는 몸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칼에 손을 대려고 손을 뻗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로테아는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보도 못한 날램으로 그의 무릎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꼭 붙들어 그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눈물을 잠시도 그치지 않은 채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고비에, 나의 단 하나뿐인 피난처여, 그대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그대 발치에는 그대의 아내가 있고, 그대가 아내로 삼으려는 여자는 제 남편의 품에 안겨 있다. 하늘이 한 일을 되돌리는 것이 그대에게 옳은 일인지, 아니 그럴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봐라. 아니면 모든 거리낌을 제쳐 두고 제 진실과 굳은 마음을 굳혀, 사랑의 눈물로 제 참된 남편의 얼굴과 가슴을 적시며 그대 눈앞에서 남편에게 눈을 맞추고 있는 그 여자를 그대와 나란한 자리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이 그대에게 맞는 일인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비노니, 그리고 그대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이토록 뚜렷한 깨우침이 그대의 분노를 키우지 말고 오히려 누그러뜨려, 이 두 연인이 하늘이 허락하는 동안 내내 그대의 방해 없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그 깨우침을 누리게 해 다오. 그러면 그대는 그 이름나고 고귀한 가슴의 너그러움을 보여 주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대에게서 욕정보다 이성이 더 힘센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도로테아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카르데니오는 루스신다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돈 페르난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자기를 해치려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목숨을 잃더라도 자신을 지키며 자기를 해치려고 나서는 자들을 모두 있는 힘껏 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돈 페르난도의 벗들과, 모든 일을 지켜보던 신부와 이발사가 달려왔고, 착한 산초 판사도 빠지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돈 페르난도를 둘러싸고, 도로테아의 눈물을 굽어보아 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리고 그들이 틀림없이 믿듯이 도로테아가 한 말이 참말이라면, 그토록 정당한 희망을 저버리고 도로테아를 속은 채로 두지 말라고 했다. 그들이 모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 한데 모인 것은

보기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이니 그것을 헤아려 보라고 했다. 그리고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죽음만이 루스신다를 카르데니오에게서 떼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라고, 칼날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해도 그들은 그 죽음을 더없이 행복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매듭 앞에서는 스스로를 억누르고 이겨 너그러운 가슴을 보여 주며 오직 그의 뜻으로 두 사람이 하늘이 이미 허락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슬기라고. 또한 도로테아의 아름다움에도 눈을 돌려 보라고 권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에 맞설 여자는 거의, 아니 하나도 없고 더 나은 여자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아름다움에 도로테아의 겸손과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까지 더해 보라는 말도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기사이자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준 약속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다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약속을 지키면 하느님께 도리를 다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흡족하게 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비천한 사람에게 있더라도 정숙함을 갖추기만 하면, 끌어올려 자기와 나란히 하는 사람에게 아무 흠도 되지 않고 어떤 높은 자리에도 올라 나란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의 특권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죄가 끼지 않는 한, 즐거움의 강한 법을 따르는 사람은 탓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요컨대 모두가 이 말에 이런저런 말을 숱하게 보태자, 돈 페르난도의 용맹한 가슴은(결국 이름난 피를 먹고 자란 가슴답게) 누그러져, 그가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었을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기에게 내놓인 좋은 의견에 항복하고 몸을 맡겼다는 표시로 몸을 굽혀 도로테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나의 아씨. 내가 내 영혼 속에 품은 사람이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옳지 않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의 표시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오.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그대에게서 보고, 그대를 마땅한 만큼 귀히 여길 줄 알게 하려는 뜻 말이오. 그대에게 비는 것은 내 못된 처사와 크나큰 소홀함을 꾸짖지 말아 달라는 것이오. 나로 하여금 그대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한 바로 그 계기와 힘이 나를 그대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 애쓰게 몰아붙였으니까. 이것이 참말임을 알고 싶거든 돌아서서 이제 흡족해진 루스신다의 눈을 보시오. 그 눈에서 내 모든 잘못의 변명을 찾게 될 것이오. 그리고 루스신다는 바라던 것을 찾아 얻었고 나는 그대에게서 내게 마땅한 것을 찾았으니, 루스신다는 카르데니오와 함께 길고 행복한 세월을 마음 놓고 흡족하게 살기를. 나는 내 도로테아와 함께 그런 세월을 살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도로테아를 끌어안고 그 얼굴에 제 얼굴을 맞대었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애틋했던지 눈물이 그의 사랑과 뉘우침을 틀림없는 표시로 드러내 버리지 않게 무척 애를 써야 했다. 루스신다와 카르데니오의 눈물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의 눈물은 그렇게 참아지지 않았다. 어떤 이는 제 기쁨에, 어떤 이는 남의 기쁨에 어찌나 많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던지, 꼭 무슨 크고 나쁜 일이 모두에게 닥친 것만 같았다. 산초 판사까지 울었다. 하기야 나중에 그는, 자기가 운 것은 도로테아가 자기 생각과 달리 미코미코나 여왕이 아니어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바랐던 여왕이 아니어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울음과 함께 놀라움이 모두에게 이어졌다. 그러다 카르데니오와 루스신다가 돈 페르난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말이 어찌나 정중했던지 돈 페르난도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깊은 사랑과 정중함을 보이며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는 도로테아에게, 자기 고향에서 그토록 먼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도로테아는 짧고 슬기로운 말로, 앞서 카르데니오에게 들려준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돈 페르난도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어찌나 즐거웠던지 더 길게 이어지기를 바랄 정도였다. 도로테아가 제 불운을 이야기하는 솜씨가 그토록 매력이 있었다. 도로테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돈 페르난도는, 루스신다의 가슴 속에서 루스신다가 카르데니오의 아내이므로 자기 아내가 될 수 없다고 밝힌 쪽지를 찾아낸 뒤 그 도시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루스신다를 죽이려 했고, 루스신다의 부모가 막지 않았더라면 정말 죽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분하고 창피한 마음으로, 더 좋은 기회에 앙갚음하리라 마음먹고 그 집을 나왔다. 그런데 이튿날 루스신다가 부모의 집에서 사라졌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몇 달 뒤 마침내 루스신다가 어느 수녀원에 있으며, 카르데니오와 함께 살 수 없다면 평생 그곳에 머물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알자마자 저 세 기사를 길동무로 골라 루스신다가 있는 곳으로 갔다. 자기가 와 있다는 것을 알면 수녀원의 경계가 더 삼엄해질까 두려워 루스신다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수녀원 문간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가, 두 사람에게 문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수녀원에 들어가 루스신다를 찾았는데, 루스신다는 회랑에서 수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루스신다에게 다른 틈을 주지 않고 낚아채 어느 마을로 데려왔고, 거기서 루스신다를 데려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고 했다. 수녀원이 마을에서 꽤 떨어진 들판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아무 탈 없이 해낼 수 있었다. 그는 루스신다가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을 알자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든 뒤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울고 한숨만 쉬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침묵과 눈물을 길동무 삼아 이 객줏집에 이르렀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땅 위의 모든 불행이 매듭지어지고 끝나는 하늘에 이른 것과 같았다고 했다.

제37장 이름난 미코미코나 공주 이야기를 이어 가며 다른 우스운 모험들도 곁들인다

산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적잖이 마음이 아팠다. 자기 작위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연기가 되어 가고, 어여쁜 미코미코나 공주는 도로테아로, 거인은 돈 페르난도로 바뀌어 버렸는데, 주인은 그동안 일어난 일은 아랑곳없이 세상모르고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테아는 자기가 누리는 행복이 꿈이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다. 카르데니오도 같은 생각이었고, 루스신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돈 페르난도는 받은 은총에 대해, 그리고 하마터면 명예와 영혼을 잃을 뻔했던 그 얽히고설킨 미로에서 자기를 꺼내 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했다. 요컨대 객줏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토록 엉키고 절망적이던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신부는 슬기로운 사람답게 모든 일을 제자리에 앉히며 저마다에게 얻은 복을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기뻐하고 흡족해한 사람은 객줏집 안주인이었으니, 돈키호테 때문에 입은 손해와 그 손해에 딸린 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듯이 괴롭고 불운하고 슬픈 사람은 산초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무룩한 얼굴로 막 잠이 깬 주인에게 들어가 말했다.

"슬픈 얼굴 나리, 이제는 거인을 죽일 걱정도, 공주님께 왕국을 되찾아 드릴 걱정도 없이 실컷 주무셔도 돼요. 벌써 다 끝나고 마무리됐거든요."

"그야 그렇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평생 다시는 없을 만큼 엄청나고 사나운 싸움을 그 거인과 벌였으니 말이다. 칼을 한 번 되받아 휘둘러, 휙! 그놈의 머리를 땅바닥에 떨궜는데, 쏟아진 피가 어찌나 많았던지 물이 흐르듯 땅 위로 시내를 이루어 흘렀다."

"붉은 포도주가 흐르듯, 하고 말씀하셨으면 더 맞았을 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모르신다면 알려 드리는데, 죽은 거인은 구멍 난 가죽 부대고, 피는 그 배 속에 들어 있던 붉은 포도주 여섯 아로바고, 잘린 머리는 저를 낳은 화냥년이에요. 몽땅 사탄이나 물어 가라죠."

"무슨 소리냐, 이 미친놈아?"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정신이 있느냐?"

"일어나 보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벌여 놓으신 근사한 꼴하고 우리가 물어내야 할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왕님이 도로테아라는 평범한 아가씨로 바뀐 것도 보실 거고요. 그 밖에도 눈치채시면 깜짝 놀라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라면 하나도 놀랍지 않다."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네가 잘 기억한다면, 지난번 여기 묵었을 때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마법의 소행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렇다 한들 대수로울 것이 없다."

"저도 다 믿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담요에 헹가래 쳐진 일도 그런 부류였다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객줏집 주인이 담요 한 귀퉁이를 잡고, 아주 신나고 힘차게, 힘만큼이나 웃음도 잔뜩 섞어서 저를 하늘로 밀어 올리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비록 무식하고 죄 많은 놈이지만 제 생각엔 마법이고 뭐고 없어요. 실컷 두들겨 맞는 일하고 고약한 운수만 잔뜩 있을 뿐이죠."

"자, 됐다. 하느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옷을 입혀 다오. 밖에 나가 봐야겠다. 네가 말하는 그 일들과 둔갑한 것들을

보고 싶구나."

산초가 옷을 입혀 주었다. 그가 옷을 입는 동안 신부는 돈 페르난도와 다른 이들에게 돈키호테의 미친 짓을 이야기하고, 아씨에게 퇴짜를 맞았다고 여기며 그가 틀어박혀 있던 가난한 바위산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쓴 꾀도 들려주었다. 산초가 이야기한 모험들도 거의 다 들려주자 그들은 적잖이 놀라고 웃었는데, 누구에게나 그렇게 보이듯 그들에게도 그것은 엉뚱한 머릿속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종류의 광기로 보였다. 신부는 또, 도로테아 아씨의 일이 잘 풀려 이제 처음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 그를 고향으로 데려갈 다른 꾀를 꾸며 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카르데니오가 시작한 일을 자기가 이어 가겠다고 나서며, 도로테아의 역할은 루스신다가 맡아 하면 되리라고 했다.

"아니오."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오. 나는 도로테아가 꾸민 이야기를 그대로 이어 가기를 바라오. 이 착한 기사의 마을이 여기서 아주 멀지만 않다면, 그를 고칠 방도를 찾는 일을 나도 기꺼이 돕겠소."

"여기서 이틀 길밖에 안 되오."

"더 멀다 해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소."

그때 돈키호테가 나왔다. 장비를 모두 갖추고, 찌그러지긴 했어도 맘브리노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둥근 방패를 팔에 끼고, 막대기인지 긴 창인지에 몸을 기댄 차림이었다. 돈 페르난도와 다른 이들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에 얼이 빠졌다. 반 레과는 됨 직한 기다란 얼굴은 바싹 마르고 누렇게 떴으며, 갖춘 무구는 하나도 짝이 맞지 않았고, 몸가짐만은 점잖았다. 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려고

잠자코 있었는데, 그는 아주 근엄하고 차분하게 아름다운 도로테아에게 눈길을 두고 말했다.

"아름다운 아씨, 나의 이 종자에게서 들으니 그대의 위대하심이 스러지고 그대의 존재가 허물어져, 예전의 여왕이자 위대한 귀부인에서 한낱 평범한 아가씨로 바뀌었다 하오. 그것이 그대의 아버님이신 강령술사 왕께서, 내가 그대에게 마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지 못할까 두려워하신 탓이라면, 분명히 말하노라. 그분은 미사의 절반도 모르셨고 지금도 모르시며, 기사도 이야기에 그리 밝지 못하셨소. 그분이 나처럼 주의 깊게, 나처럼 넉넉한 시간을 들여 그 이야기들을 읽고 훑으셨더라면, 나보다 이름이 덜 난 기사들이 더 어려운 일을 해낸 예를 걸음마다 보셨을 것이오. 하찮은 거인 하나쯤 죽이는 일은 그놈이 아무리 오만하다 해도 그리 어렵지 않소. 몇 시간 전에도 내가 그놈과 맞붙었는데……, 아니, 입을 다물겠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들 할 테니. 그러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말해 주리라."

"나리가 맞붙은 건 거인이 아니라 가죽 부대 두 개였죠." 그때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돈 페르난도가 주인에게 입을 다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돈키호테의 말을 끊지 말라고 이르자, 돈키호테는 말을 이었다.

"요컨대 높으시고 물려받을 나라를 빼앗기신 아씨여, 내 말하노라. 앞서 말한 까닭으로 그대의 아버님께서 그대의 몸에 이런 둔갑술을 부리셨다면 조금도 믿지 마시오. 이 땅에 내 칼이 길을 뚫지 못할 위험은 하나도 없으니, 이 칼로 그대 원수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머지않아 그대 머리에 그대 나라의 왕관을 씌워 드리리라."

돈키호테는 더 말하지 않고 공주의 대답을 기다렸다. 공주는 돈키호테를 고향까지 데려갈 때까지 속임수를 이어 가기로 돈

페르난도가 정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아주 재치 있고 근엄하게 대답했다.

"용맹한 슬픈 얼굴의 기사여, 제가 제 본모습에서 바뀌고 달라졌다고 그대에게 말한 이가 누구든, 그 사람은 참말을 하지 않았나이다.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행운이 깃든 어떤 일들이 제게 얼마간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요. 그 일들은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행운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 그대의 용맹하고 무적인 팔이 지닌 용맹에 기대어 힘을 얻으려던, 늘 품어 온 그 생각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리, 그대의 너그러움으로 저를 낳아 주신 아버님께 명예를 돌려 드리시고, 그분을 앞일을 내다보는 신중한 분으로 여겨 주소서. 그분은 그 학식을 써서 제 불행을 바로잡을 이토록 쉽고 참된 길을 찾아내셨으니까요. 나리, 그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누리는 이 행운을 결코 얻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된지는 여기 계신 이분들 대부분이 좋은 증인이십니다. 남은 일은 내일 길을 떠나는 것뿐이나이다. 오늘은 이제 얼마 가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좋은 결말의 나머지는 하느님과 그대 가슴의 용맹에 맡기겠나이다."

슬기로운 도로테아가 이렇게 말하자,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산초에게 돌아서서 몹시 화난 기색으로 말했다.

"이제 말하마, 산초 녀석아, 너는 에스파냐에서 제일가는 악당 녀석이다. 말해 봐라, 이 떠돌이 도둑놈아, 이 공주님이 도로테아라는 아가씨로 바뀌었다고, 내가 거인에게서 베었다고 여기는 머리가 너를 낳은 화냥년이라고, 그 밖에도 내 평생 그토록 갈피를 못 잡은 적이 없을 만큼 나를 어지럽힌 헛소리를 방금 늘어놓지 않았느냐? 맹세코……" 그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너를 혼쭐을 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편력 기사들의 거짓말쟁이 종자들 모두의 정수리에 소금을 쳐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주고 싶구나!"

"진정하세요, 주인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미코미코나 공주 아씨가 둔갑한 일이라면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인의 머리, 아니 적어도 가죽 부대에 구멍이 난 일하고 피가 붉은 포도주였다는 일만큼은, 하느님께 맹세코 제가 잘못 안 게 아니에요. 가죽 부대들이 나리 침대 머리맡에 찢어진 채로 있고, 붉은 포도주가 방을 호수로 만들어 놨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달걀 부칠 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장 나리께서 손해 본 걸 몽땅 물어내라고 하실 때 보시게 될 거란 말이죠. 나머지 일, 여왕 아씨가 예전 그대로 계신 일은 저도 진심으로 기뻐요. 이웃집 자식 누구나처럼 저한테도 제 몫이 걸려 있으니까요."

"이제 내가 말하마,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얼간이다. 용서해 다오. 그만하자."

"그만합시다."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더 하지 맙시다. 공주님께서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떠나자고 하시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밤은 다가올 날까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보냅시다. 내일은 우리 모두 돈키호테 나리를 모시고 가겠소. 나리께서 떠맡으신 이 큰일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해내실 용맹하고 전대미문인 무훈의 증인이 되고 싶으니 말이오."

"그대들을 섬기고 모실 사람은 바로 나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게 베푸는 호의와 나를 좋게 보아 주는 마음에 깊이 감사하오. 그 평판이 참이 되도록 애쓰겠소. 그러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을 것이고, 목숨보다 더한 것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까지 내놓겠소."

돈키호테와 돈 페르난도 사이에 정중한 말과 섬기겠다는 말이 숱하게 오갔다. 그러나 그때 객줏집에 들어선 나그네 하나가 이 모든 말을

잠재웠다. 그는 옷차림으로 보아 무어인의 땅에서 갓 돌아온 그리스도교도였다. 푸른 모직으로 지은 웃옷은 자락이 짧고 소매가 반쯤이며 깃이 없었고, 바지도 푸른 아마포였으며, 같은 빛깔의 챙 없는 모자를 썼다. 대추야자 빛 반장화를 신었고, 가슴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칼띠에 무어식 언월도를 차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당나귀를 탄 여자 하나가 들어왔는데, 무어 옷차림을 하고 머리에 쓴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금실 비단으로 지은 작은 모자를 쓰고, 어깨에서 발끝까지 덮는 알말라파라는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사내는 몸집이 다부지고 보기 좋았으며, 나이는 마흔을 조금 넘었고, 얼굴은 좀 가무잡잡하고, 콧수염이 길고 턱수염은 아주 단정했다. 한마디로 그의 풍채로 보아, 옷만 잘 입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지체 높고 가문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방을 달라고 했다가 객줏집에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옷차림으로 보아 무어 여자인 듯한 이에게 다가가 두 팔로 안아 당나귀에서 내려 주었다. 루스신다, 도로테아, 객줏집 안주인과 그 딸, 마리토르네스는 처음 보는 낯선 옷차림에 이끌려 무어 여자를 에워쌌다. 늘 상냥하고 정중하고 슬기로웠던 도로테아는, 그 여자도 그 여자를 데려온 사람도 방이 없어 애태우는 듯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아씨, 여기 편히 모실 것이 없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객줏집에는 원래 그런 게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지내시겠다면……" 그러면서 도로테아는 루스신다를 가리켰다. "……이 길을 오시는 동안 이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곳도 있었을 거예요."

얼굴을 가린 여자는 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가슴 위에 엇갈려 얹고 고개를 숙인 채 몸을 굽혔을 뿐인데, 고맙다는 표시였다. 그 여자가 말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틀림없이 무어 여자라서 그리스도교도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때 그때까지 다른 일을 보던 포로가 왔다. 여자들이 모두 자기와 함께 온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여자가 무슨 말을 들어도 잠자코만 있는 것을 보자 그가 말했다.

"아씨들, 이 아가씨는 내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제 나라 말 말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줄 모르오. 그래서 여쭌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지금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오."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루스신다가 대답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저희가 묵을 자리를 나눠 쓰시라고 권할 뿐이에요. 형편이 닿는 대로 편히 모실게요. 도움이 필요한 낯선 분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섬겨야 마땅하지만, 섬기는 분이 여자라면 더욱 그렇지요."

"이 아가씨와 나를 대신해" 포로가 대답했다. "아씨의 손에 입 맞추오. 베풀어 주신 호의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깊이 고맙게 여기오. 이런 때에, 아씨의 모습이 보여 주는 그런 분들께서 베푸시는 호의이니 아주 큰 호의임이 분명하오."

"말씀해 보세요, 나리." 도로테아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교도인가요, 무어인인가요? 옷차림과 말 없음을 보니 저희가 바라지 않는 쪽이 아닐까 싶어서요."

"옷차림과 몸은 무어인이지만, 영혼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교도요. 그리스도교도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까."

"그럼 세례는 받지 않았나요?" 루스신다가 되물었다.

"그럴 겨를이 없었소." 포로가 대답했다. "제 조국이자 고향인 알제를 떠나온 뒤로 말이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어머니 거룩한 교회가 정한 의식을 먼저 다 배우지 않고서라도 세례를 주어야 할 만큼 죽음이 가까이 닥친 위험을 겪은 적도 없었소.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머지않아 이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어 세례를 받게 될

것이오. 이 사람은 이 옷차림과 내 옷차림이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오."

이 말에 듣고 있던 이들은 모두 그 무어 여자와 포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때는 내력을 캐물을 때가 아니라 쉬게 해 줄 때라고 보았기에 아무도 묻지 않았다. 도로테아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자기 곁에 앉히고 얼굴 가리개를 벗어 달라고 청했다. 무어 여자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달라는 듯 포로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랍어로, 얼굴 가리개를 벗어 달라고들 하니 그렇게 하라고 일러 주자 그 여자는 가리개를 벗었다. 드러난 얼굴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도로테아는 그 여자가 루스신다보다 아름답다고 여겼고, 루스신다는 도로테아보다 아름답다고 여겼다.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얼굴에 견줄 만한 얼굴이 있다면 바로 그 무어 여자의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떤 점에서는 그 여자가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뜻을 끌어당기는 특권과 은총이 있는 법이어서, 모두가 곧 그 아름다운 무어 여자를 섬기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돈 페르난도가 포로에게 무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렐라 소라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도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알아듣고, 안타까움과 애교가 가득한 얼굴로 몹시 서둘러 말했다.

"아니, 아니, 소라이다 아니! 마리아, 마리아!" 소라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었다.

무어 여자가 그 말을 할 때 담긴 깊은 마음이, 듣고 있던 이들 몇몇의 눈에서, 특히 본디 마음이 여리고 인정 많은 여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한 방울 넘게 자아냈다. 루스신다는 그 여자를 깊은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마리아, 마리아."

무어 여자가 그 말에 대답했다.

"그래, 그래. 마리아. 소라이다 마칸헤!" 마칸헤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는 사이 밤이 다가왔다. 돈 페르난도와 함께 온 이들의 분부에 따라 객줏집 주인은 힘닿는 대로 가장 좋은 저녁을 차리려고 부지런히 정성을 쏟았다. 때가 되자 모두 하인들 식당에나 있을 법한 긴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객줏집에는 둥근 식탁도 네모난 식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사양하는데도 상석, 곧 맨 윗자리를 그에게 내주었다. 돈키호테는 자기가 미코미코나 아씨의 호위자이니 아씨가 자기 곁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그다음에 루스신다와 소라이다가 앉고, 그 맞은편에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가, 그다음에 포로와 다른 기사들이 앉았으며, 아씨들 곁에는 신부와 이발사가 앉았다. 그렇게 그들은 아주 즐겁게 저녁을 먹었는데, 돈키호테가 먹기를 멈추고, 산양치기들과 저녁을 먹을 때 그토록 길게 말하게 했던 것과 같은 기운에 이끌려 입을 열자 즐거움은 더욱 커졌다.

"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편력 기사도의 규율을 받드는 사람들은 크고 전대미문인 일들을 보게 되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성의 문으로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우리라고 판단하고 믿을 이가 이 세상 산 사람 중에 누가 있겠소? 내 곁에 있는 이 아씨가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위대한 여왕이고, 내가 명성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소? 이제 의심할 것이 없소. 이 기예와 직분은 사람들이 고안해 낸 다른 모든 기예와 직분을 넘어서며, 더 많은 위험에 놓일수록 그만큼 더 귀히 여겨야 하오. 학문이 무예보다 낫다고 말하는 자들은 내 앞에서 물러나라 하시오. 그들이 누구든 나는 그들에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겠소. 그런 자들이 흔히 내세우고 가장 굳게

기대는 이치는, 정신의 수고가 몸의 수고를 넘어서며 무예는 몸으로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오. 마치 무예가 힘만 세면 그만인 막노동꾼의 일이기라도 하다는 듯이, 혹은 무예를 업으로 삼는 우리가 무예라 부르는 것 속에, 실행하려면 큰 지성이 필요한 굳센 용기의 행위들이 담겨 있지 않기라도 하다는 듯이, 혹은 군대를 거느리거나 포위된 도시를 지키는 일을 맡은 전사의 마음이 몸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으로도 수고하지 않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이오. 그렇지 않다면, 적의 의도와 계획과 계략과 어려움을 알아내고 짐작하는 일, 두려운 손해를 미리 막는 일을 몸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지 보시오. 이 모든 일은 지성의 행위이고, 거기에 몸은 아무 몫도 없소. 그러니 무예에도 학문처럼 정신이 필요하다면, 이제 학자의 정신과 전사의 정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수고하는지 봅시다. 그것은 저마다 향해 가는 목적과 종착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오. 더 고귀한 목적을 겨누는 뜻일수록 더 높이 평가받아야 하니까 말이오. 학문의 목적과 종착지는……, 지금 나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신학은 영혼을 하늘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 과녁으로 삼으니, 이렇게 끝없는 목적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견줄 수 없소. 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문이오. 그 목적은 분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저마다 제 몫을 받게 하고, 좋은 법이 지켜지도록 헤아리고 힘쓰는 데 있소. 참으로 너그럽고 높고 크게 칭송받을 만한 목적이오. 그러나 무예가 겨누는 목적만큼 칭송받을 만하지는 않소. 무예는 평화를 과녁이자 목적으로 삼는데, 평화야말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선이오. 그래서 세상이 처음 받고 사람들이 처음 받은 기쁜 소식은, 우리의 낮이 된 그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노래하며 전한 소식이었소. 그리고 하늘과 땅의 가장 훌륭한 스승께서 가까운 이들과 아끼는 이들에게 가르치신 인사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이

집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라는 것이었소. 또 여러 번 그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남기노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손이 주고 남긴 보석이요 담보라 할 만하오. 그 보석이 없으면 땅에도 하늘에도 어떤 선도 있을 수 없소. 이 평화가 전쟁의 참된 목적이오. 무예라 하든 전쟁이라 하든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고 이 점에서 학문의 목적보다 낫다는 이 진리를 앞에 놓고서, 이제 학자의 몸이 치르는 수고와 무예를 업으로 삼는 이의 몸이 치르는 수고로 넘어가 어느 쪽이 더 큰지 봅시다."

돈키호테가 어찌나 조리 있고 훌륭한 말로 이야기를 이어 갔던지, 그때만큼은 듣고 있던 사람 누구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이 무예를 제 몫으로 타고난 기사들이었으므로 아주 기꺼이 귀를 기울였고,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학생의 수고는 이러하다고 말하겠소. 무엇보다 가난이오. 학생이 모두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를 될 수 있는 데까지 극단으로 밀어 보자는 것이오. 그런데 가난을 겪는다고 말했으니 그의 불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듯하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는 이 가난을 여러 갈래로 겪소. 굶주림으로, 추위로, 헐벗음으로, 때로는 그 모두를 한꺼번에. 그래도 아주 못 먹을 만큼 가난하지는 않소. 남들 먹는 때보다 좀 늦더라도, 부자들이 남긴 찌꺼기일지라도 먹기는 먹소. 학생들끼리 '수프 얻어먹으러 다닌다'고 부르는 이것이 학생의 가장 큰 비참이오. 그리고 남의 화로나 벽난로 하나쯤은 아주 없지 않으니, 덥혀 주지는 못해도 추위를 누그러뜨리기는 하고, 밤에는 그래도 지붕 밑에서 자오. 다른 자잘한 일들, 이를테면 속옷이 모자라고 신발이 넉넉지 않은 것, 옷이 닳고 보풀이 다 빠진 것, 그리고 운 좋게 잔치라도 얻어걸리면 그토록 신이 나서 배가 터지게

먹어 대는 일까지 들추고 싶지는 않소. 내가 그린 이 거칠고 험한 길을 따라, 여기서 비틀거리고 저기서 넘어지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이쪽에서 또 넘어지며 그들은 바라던 학위에 이르오. 그 학위를 얻고 나서 많은 이들이 저 시르티스 여울과 스킬라와 카리브디스를 지나, 마치 순풍 같은 행운에 실려 날아가듯, 의자 하나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소. 그들의 굶주림은 배부름으로, 추위는 서늘한 쉼으로, 헐벗음은 화려한 옷으로, 거적 위의 잠은 홀란드 아마포와 다마스크 비단 위에서 누리는 쉼으로 바뀌었으니, 그들의 덕에 마땅히 돌아갈 상이오.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병사요 전사인 이들의 수고와 맞대어 견주어 보면, 곧 말하겠지만, 모든 점에서 한참 뒤처지오."

제38장 돈키호테가 무예와 학문에 관하여 펼친 흥미로운 연설을 다룬다

돈키호테는 말을 이어 갔다.

"학생에게서 가난과 그 갈래들로 시작했으니, 병사는 더 부유한지 봅시다. 그러면 가난 그 자체로 보아도 병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음을 알게 될 것이오. 병사는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쥐꼬리만 한 봉급에, 아니면 제 손으로 긁어모으는 것에 기대어 사는데, 그러자면 목숨도 양심도 크게 위태로워지오. 때로는 헐벗음이 어찌나 심한지 칼자국 난 가죽 조끼 하나가 나들이옷 노릇도 하고 속옷 노릇도 하며, 한겨울 허허벌판에 나가 있으면서 하늘의 모진 날씨를 막을 것이라고는 제 입김 하나뿐인 때가 흔하오. 그 입김은 텅 빈 곳에서 나오니, 내 확신하건대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 차갑게 나올 수밖에 없소. 그러니 이 모든 고생을 달래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밤이 오기를 기다려 보시오. 그를 기다리는 잠자리는 제 탓이 아니고서는 좁아서 탈이 날 일이 결코 없소. 땅바닥에 발을 마음껏 뻗어 재어 볼 수 있고, 이불이 오그라들 걱정 없이 마음대로 뒹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 마침내 그 직분의 학위를 받는 날, 받는 시각이 오게 해 보시오. 싸움의 날이 오게 해 보시오. 그날 그의 머리에는 붕대 실오라기로 만든 학위 술이 얹힐 것이오. 어쩌면 관자놀이를 꿰뚫었거나 팔이나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을 총상을 치료하려고 말이오. 그런 일이 없고 자비로운 하늘이 그를 성하게 살려 둔다 해도, 그는 전과 다름없이 가난한 채로 남기

쉽소. 조금이라도 출세하려면 이 접전 저 접전, 이 싸움 저 싸움을 치러 모두 이기고 나와야 하는데, 이런 기적은 드물게만 보이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말해 보시오. 전쟁으로 상을 받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얼마나 적소? 여러분은 틀림없이, 견줄 수도 없고 죽은 자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상을 받고 살아남은 자는 세 자리 숫자로 셀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오.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정반대요. 소맷자락 속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옷자락 덕에라도 다들 먹고살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 병사의 수고가 더 크지만 상은 훨씬 적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 2천 명에게 상을 주기가 병사 3만 명에게 상을 주기보다 쉽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소. 학자들에게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관직을 주면 되지만, 병사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주군의 재산을 떼어 주는 것 말고는 상을 줄 길이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이 불가능함이 내 이치를 더욱 굳게 해 주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빠져나오기 몹시 어려운 미로이니 제쳐 두고, 학문에 대한 무예의 우위로 돌아갑시다. 양쪽이 저마다 내세우는 이치를 보면 이 문제는 아직도 판가름 나지 않았소. 내가 말한 이치들 말고도, 학문 쪽은 학문 없이는 무예가 버틸 수 없다고 말하오. 전쟁에도 법이 있고 전쟁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법은 학문과 학자의 소관이라는 것이오. 이에 무예 쪽은 무예 없이는 법이 버틸 수 없다고 대답하오. 무예로 나라를 지키고, 왕국을 보존하고, 도시를 수호하고, 길을 안전하게 하고, 바다에서 해적을 쓸어 내니까. 요컨대 무예가 없다면 나라도 왕국도 군주국도 도시도 바닷길도 뭍길도, 전쟁이 이어지면서 제 특권과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동안 몰고 오는 가혹함과 혼란에 내맡겨질 것이오. 그리고 더 많은 대가를 치른 것일수록 더 귀히 여겨지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은 이미 판가름 난 이치요. 학문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시간과 밤샘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어지럼증과 소화

불량과 그 밖에 거기 딸린 여러 가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것들은 이미 얼마간 말했소. 그러나 제 걸음으로 좋은 병사가 되려면 학생이 치르는 것을 모두 치르되,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치러야 하오. 걸음마다 목숨을 잃을 고비에 서 있으니까. 학생이 겪는 궁핍과 가난의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병사의 두려움에 이를 수 있겠소? 어느 요새에 포위되어 반달 보루나 높은 포대에서 보초나 파수를 서다가, 적들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땅굴을 파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고, 그토록 가까이서 위협하는 위험을 피해 달아날 수도 없는 병사 말이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장에게 사정을 알려 맞땅굴로 막게 하는 것뿐이고, 자기는 가만히 선 채 언제 갑자기 날개도 없이 구름까지 날아올랐다가 원치도 않게 깊은 데로 떨어질지 두려워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소. 이것이 작은 위험으로 보인다면, 넓은 바다 한복판에서 갤리선 두 척이 이물을 맞부딪는 위험이 이에 견줄 만한지, 아니면 더한지 봅시다. 두 배가 서로 맞물려 얽히면 병사에게는 충각 위 널빤지 두 발 너비 말고는 남는 자리가 없소. 그런데도 그는 맞은편에서 겨누는 대포 수만큼이나 많은 죽음의 사자들이 창 하나 길이도 안 되는 곳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보고, 발을 한 번만 헛디뎌도 넵투누스의 깊은 품을 찾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북돋는 명예에 이끌려 겁 없는 가슴으로 그 숱한 화승총의 과녁이 되기를 무릅쓰고 그 좁은 길을 지나 적의 배로 건너가려 하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지 못할 곳으로 떨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람마저 원수처럼 기다리는 바다에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틈도 주지 않고 뒤를 잇는다는 점이오. 전쟁의 온갖 고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용맹이요 대담함이오. 이 악마 같은 대포라는 물건의 무시무시한 광포를 몰랐던 저 복된 옛 시대에 축복이

있기를! 내 생각에 그것을 고안한 자는 지금 지옥에서 그 악마 같은 발명의 대가를 받고 있소. 그 발명 탓에 비열하고 비겁한 팔이 용맹한 기사의 목숨을 앗아 가게 되었으니 말이오. 용감한 가슴을 불태우고 북돋는 기개와 패기가 한창일 때,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어쩌면 그 저주받은 기계를 쏠 때 번쩍인 불빛에 놀라 달아난 자가 쏘았을지도 모를 빗나간 총알 하나가 날아와, 길이길이 수백 년을 누려 마땅했을 사람의 생각과 목숨을 한순간에 끊고 끝내 버리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처럼 고약한 시대에 편력 기사의 직분을 택한 것이 마음속으로 원망스럽다고까지 말하고 싶소. 나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지만, 그래도 화약과 주석 탄알이 내 팔의 용맹과 내 칼날로 이 땅의 알려진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기회를 빼앗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 않소. 그러나 하늘이 뜻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면, 지난 세기의 편력 기사들이 맞선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맞섰으니 그만큼 더 귀히 여겨질 것이오."

다른 이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돈키호테는 입에 한 술 가져가는 것도 잊은 채 이 긴 서두를 늘어놓았다. 산초 판사가 몇 번이나, 저녁부터 드시라고,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일렀는데도 그랬다. 그의 말을 들은 이들은 다시금 딱한 마음이 들었다. 다루는 일마다 지성과 사리 분별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그 시커멓고 후추처럼 매운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그 분별을 그토록 깡그리 잃어버리다니. 신부는 그에게, 무예를 두둔해 한 말이 모두 아주 옳으며 자기는 학자요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지만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저녁을 마치고 식탁보를 걷었다. 객줏집 안주인과 딸과 마리토르네스가, 그날 밤 여자들끼리만 묵기로 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다락방을 치우는 동안, 돈 페르난도는 포로에게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했다. 소라이다와 함께 온 것으로 보아 이미 내비친 기색대로라면 그 이야기는 틀림없이 진기하고 재미있을 터였다. 포로는 분부하시는 일이라면 아주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하면서, 다만 이야기가 자기 바람만큼 그들을 즐겁게 해 주지 못할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이야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신부와 다른 이들이 모두 그에게 고마워하며 다시 청하자,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이 청하는 것을 보고는, 분부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센데 청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오. 흔히 공들여 꾀를 짜서 지어내는 거짓 이야기들도 미치지 못할 참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오."

그의 이 말에 모두 편히 자리를 잡고 깊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모두 입을 다물고 그가 하려는 말을 기다리는 것을 보자, 그는 듣기 좋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제39장 포로가 자신의 생애와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우리 가문은 레온 산악 지방의 한 마을에서 비롯되었소. 운명보다는 자연이 더 고맙고 너그럽게 대해 준 가문이었지만, 그 고을들이 워낙 궁색한 터라 그래도 내 아버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소. 재산을 쓰는 데 들이는 솜씨만큼 지키는 데도 솜씨를 들였더라면 정말 부자가 되었을 것이오. 아버지가 너그럽고 씀씀이가 헤픈 성품을 갖게 된 것은 젊은 시절 병사로 지낸 탓이었소. 군대란 인색한 자는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운 자는 헤퍼지는 학교이니까. 병사 가운데 인색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괴물 같은 것이어서 드물게만 보이오. 아버지는 너그러움의 경계를 넘어 헤픔의 경계에 닿아 있었는데, 이것은 결혼하여 제 이름과 신분을 이을 자식을 둔 사람에게는 아무 득도 되지 않는 일이오. 아버지가 둔 자식은 셋이었는데, 모두 아들이었고 모두 제 앞길을 고를 나이였소. 아버지는 자기 말마따나 제 성품을 손으로 붙들어 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를 헤프고 손 크게 만드는 도구이자 원인을 없애 버리기로 했소. 곧 재산을 내놓기로 한 것인데, 재산이 없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도 쩨쩨해 보였을 것이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 셋을 따로 한 방에 불러 놓고 대략 지금 내가 하려는 것과 같은 말을 했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아낀다는 것을 말하려면 너희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려면, 너희 재산을

지키는 일에서 내가 제 손을 붙들어 매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아끼지 의붓아버지처럼 망치려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도록, 오래전부터 궁리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련해 둔 일 하나를 너희와 함께 하려 한다. 너희는 이제 제 앞길을 정할 나이, 적어도 커서 너희를 명예롭게 하고 이롭게 해 줄 직업을 고를 나이가 되었다. 내가 생각한 것은 내 재산을 넷으로 나누는 것이다. 셋은 너희에게 저마다 몫만큼, 조금도 넘치지 않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하늘이 내게 허락하시는 날까지 내가 먹고살려고 갖겠다. 다만 저마다 제 몫의 재산을 손에 넣고 나면, 내가 일러 줄 길 가운데 하나를 따라가 주었으면 한다. 우리 에스파냐에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주 참된 말이다. 속담은 길고 슬기로운 경험에서 뽑아낸 짧은 격언이니 다 참되기 마련이지만 말이다. 내가 말하는 속담은 「교회냐, 바다냐, 왕궁이냐」 인데, 이것을 더 분명하게 풀면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따르든지, 바다를 건너 장사를 하든지, 왕궁에 들어가 임금을 섬기든지 하라」는 말이다. 「영주의 은혜보다 임금의 빵 부스러기가 낫다」고들 하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는 학문을, 하나는 장사를 따르고, 하나는 전쟁에서 임금을 섬겼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자 뜻이기 때문이다. 왕궁에 들어가 섬기기는 어려우니 말이다. 전쟁이 큰 재물을 주지는 않더라도 큰 명예와 큰 이름은 주기 마련이다. 여드레 안에 너희 몫을 모두 돈으로 주마. 한 푼도 속이지 않을 것은 해 보면 알게 될 게다. 이제 내가 내놓은 이 일에서 내 생각과 충고를 따르겠는지 말해 보아라.' 아버지가 맏이인 나에게 먼저 대답하라고 하기에, 나는 재산을 내놓지 마시고 뜻대로 다 쓰시라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 벌 줄 안다고 말씀드린 뒤에, 결국 아버지 뜻을 따르겠으며 내 뜻은 무예의 길을 따라 그 길에서 하느님과 내 임금을 섬기는 것이라고 맺었소. 둘째 동생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는 제 몫의 재산을 장사 밑천으로 삼아 인디아스로 건너가기를 골랐소. 막내는, 내가 보기에 가장 슬기로운 아이였는데, 교회를 따르거나 살라망카로 가서 시작한 공부를 마치고 싶다고 했소. 우리가 뜻을 맞추고 저마다 할 일을 고르자마자 아버지는 우리를 모두 끌어안았고, 말한 대로 서둘러 약속한 것을 모두 실행했소. 내 기억으로는 저마다 3천 두카도씩을 돈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재산이 집안 줄기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숙부 한 분이 재산을 모두 사서 현금으로 값을 치렀기 때문이오. 우리 셋은 같은 날 착한 아버지에게 작별을 고했소.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아버지가 늙은 몸으로 그렇게 적은 재산만 가지고 남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 듯하여, 내 3천 두카도 가운데 2천 두카도를 받으시게 했소. 병사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는 남은 돈으로 충분했으니까. 두 동생도 내 본을 따라 저마다 1천 두카도씩 아버지께 드렸소. 그리하여 아버지에게는 돈으로 4천 두카도가 남았고, 거기에 팔지 않고 땅으로 지니기로 한 아버지 몫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도 3천 두카도는 나갈 듯했소. 요컨대 우리는 아버지와 앞서 말한 숙부에게, 모두 적잖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소. 두 분은 잘되든 못되든 소식을 전할 수 있을 때마다 꼭 알려 달라고 당부했소. 우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두 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축복해 주자 하나는 살라망카로, 하나는 세비야로, 나는 알리칸테로 길을 떠났소. 알리칸테에서 제노바로 가는 양털을 싣는 제노바 배가 한 척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올해로 스물두 해가 되오. 그동안 편지를 몇 통 쓰기는 했지만 아버지 소식도 동생들 소식도 하나도 듣지 못했소. 이 세월 동안 내가 겪은 일을 짧게 이야기하겠소. 나는 알리칸테에서 배에 올라 순조로운 뱃길로 제노바에 닿았고, 거기서 밀라노로 가서 무기와 병사의 나들이 차림 몇 가지를 갖추었소. 거기서 피에몬테로

가서 군적에 이름을 올리려 했는데, 알레산드리아 델라 팔리아로 가는 길에 위대한 알바 공작이 플랑드르로 건너간다는 소식을 들었소. 나는 뜻을 바꾸어 공작을 따라가서 그분이 치른 원정에서 섬겼고, 에그몬트 백작과 호른 백작이 처형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 과달라하라 출신의 이름난 대위 디에고 데 우르비나의 기수가 되었소. 플랑드르에 온 지 얼마쯤 지났을 때, 길이 기억될 교황 비오 5세 성하께서 공동의 적인 튀르크에 맞서 베네치아와 에스파냐와 동맹을 맺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소. 튀르크는 바로 그 무렵 함대를 이끌고 베네치아의 지배 아래 있던 이름난 키프로스섬을 빼앗았으니, 참으로 애통하고 불행한 손실이었소. 우리의 착한 임금 펠리페 왕의 배다른 아우이신 지극히 높으신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께서 이 동맹의 총사령관으로 오신다는 것이 확실히 알려졌고, 엄청난 전쟁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도 퍼졌소. 이 모든 일이 나의 마음과 바람을 북돋고 뒤흔들어, 다가올 그 원정에 꼭 끼고 싶어졌소. 기회가 오는 대로 대위로 진급하리라는 기미와 거의 틀림없는 약속까지 받고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고, 실제로 갔소. 마침 운 좋게도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 나리께서 막 제노바에 도착하여 베네치아 함대와 합류하러 나폴리로 가시는 참이었는데, 그 합류는 뒤에 메시나에서 이루어졌소.

"요컨대 나는 그 더없이 복된 원정에 참여했소.[1] 그때 나는 이미 보병 대위였는데, 내 공보다는 운이 나를 그 영예로운 자리에 올려 주었소. 그리고 그리스도교 세계에 그토록 복된 날, 튀르크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무적이라고 믿던 세상과 모든 민족이 그 잘못에서 깨어난 그날, 말하자면 오스만의 오만과 교만이 꺾인 그날, 그곳에 있던 그 숱한 행운아들 가운데(그곳에서 죽은 그리스도교도들이 살아남아 승리한 이들보다 더 큰 행운을 얻었으니 말이오) 불운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소. 로마 시대였다면 해전의 관이라도 바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름난 날 뒤에 이어진 밤에 나는 발에는 사슬을, 손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으니까.

"사정은 이러했소. 알제의 왕이자 대담하고 운 좋은 해적인 우찰리가 몰타 기사단의 기함에 덤벼들어 항복을 받아 냈는데, 그 배에서 살아남은 기사는 단 셋뿐이었고 그나마 모두 크게 다쳐 있었소. 그러자 후안 안드레아의 기함이 구하러 달려갔는데, 나는 내 중대를 이끌고 그 배에 타고 있었소. 그런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나는 적의 갤리선으로 뛰어올랐소. 그런데 그 배가 들이받은 배에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내 병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했고, 그리하여 나는 적들 한가운데 홀로 남았소. 적이 너무 많아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사로잡혔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우찰리는 제 함대를 모두 이끌고 빠져나갔으니, 나는 그의 손에 포로로 남게 되었소. 그 숱한 기쁜 사람들 가운데 슬픈 사람은 나 하나였고, 그 숱한 자유로운 사람들 가운데 포로는 나 하나였소. 그날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교도가 1만 5천 명이었는데, 모두 튀르크 함대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이오.

"그들은 나를 콘스탄티노플로 끌고 갔소. 거기서 튀르크 대황제 셀림은 내 주인을 해군 총사령관으로 삼았는데, 그가 싸움에서 제 소임을 다했고 그 용맹의 표시로 몰타 기사단의 깃발을 가져왔기 때문이오. 두 번째 해, 그러니까 72년에 나는 나바리노에서 등불 세 개를 단 기함의 노를 젓고 있었소. 그때 나는 튀르크 함대를 항구 안에서 통째로 사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았고 똑똑히 새겨 두었소. 함대에 타고 있던 레벤테 수병과 예니체리들은 모두 항구 안에서 공격을 받으리라 굳게 믿고, 싸움이 붙기도 전에 곧바로 뭍으로 달아나려고 옷가지와 파사마케, 그러니까 자기네 신발을 챙겨 두고 있었소. 우리

함대를 그만큼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오. 그러나 하늘은 다르게 정했소. 우리 편을 이끌던 사령관의 잘못이나 소홀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를 벌하는 형리가 늘 있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이었소.

"결국 우찰리는 나바리노 곁에 있는 섬 모돈으로 물러나 군사를 뭍에 내리고 항구 어귀를 단단히 지키며, 돈 후안 나리가 돌아갈 때까지 꼼짝하지 않았소. 이 원정에서 '전리품'이라는 이름의 갤리선이 사로잡혔는데, 그 배의 선장은 저 이름난 해적 바르바로하의 아들이었소. 그 배를 사로잡은 것은 '암늑대'라는 나폴리의 기함이었고, 그 배를 지휘한 사람은 전쟁의 벼락이요 병사들의 아버지인, 운 좋고 한 번도 진 적 없는 저 산타 크루스 후작 돈 알바로 데 바산 대장이었소. 그리고 '전리품'을 전리품으로 삼은 일에서 벌어진 일을 빼놓을 수 없소. 바르바로하의 아들은 어찌나 잔인하고 포로들을 어찌나 모질게 다루었던지, 노 젓던 이들은 '암늑대'가 다가와 따라잡는 것을 보자 한꺼번에 노를 놓고, 고물 갑판에 서서 빨리 저으라고 외치던 선장을 붙잡았소. 그러고는 고물에서 이물까지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그를 넘기며 물어뜯었는데, 돛대를 조금 지났을 즈음에는 이미 그의 넋이 지옥으로 넘어가 있었소. 내가 말했듯이 그가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다루었고, 그들은 그를 그토록 미워했던 것이오.

"우리는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소. 이듬해인 73년에 그곳에서는 돈 후안 나리가 튀니스를 손에 넣어 그 왕국을 튀르크에게서 빼앗고 물레이 아메트를 왕위에 앉혔다는 소식이 알려졌소. 그로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용맹한 무어인 물레이 아미다가 그 나라를 다시 다스리려던 희망은 끊어졌소. 튀르크 대황제는 이 손실을 몹시 마음 아파하며,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지닌 꾀를 부려 베네치아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소. 베네치아 쪽이 황제보다 훨씬 더 화친을 바랐으니까.

그리고 이듬해인 74년에 황제는 골레타와, 돈 후안 나리가 튀니스 곁에 반쯤 쌓다 남겨 둔 요새를 공격했소. 이 모든 고비 동안 나는 노를 저으며 자유를 얻을 희망 없이 지냈소. 적어도 몸값으로 풀려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는데, 내 불행을 아버지께 알리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오.

"마침내 골레타가 함락되었고 요새도 함락되었소. 그 두 곳을 치러 온 군사는 봉급을 받는 튀르크 병사가 7만 5천 명, 아프리카 온 땅에서 온 무어인과 아랍인이 40만 명이 넘었소. 그 엄청난 군사가 그토록 많은 탄약과 무기를 갖추고 그토록 많은 인부를 거느렸으니, 맨손으로 흙을 한 줌씩 뿌려도 골레타와 요새를 덮어 버릴 수 있었을 것이오. 먼저 그때까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골레타가 함락되었소. 지키던 이들의 잘못으로 함락된 것이 아니오. 그들은 지키는 데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소. 다만 그 황량한 모래땅에 참호를 쌓기가 얼마나 쉬운지 경험이 보여 주었기 때문이오. 전에는 두 뼘만 파도 물이 나왔는데 튀르크 사람들은 두 바라를 파도 물을 만나지 않았소. 그래서 그들은 모래 자루를 숱하게 쌓아 요새의 성벽보다 높은 참호를 올렸고, 위에서 내리쏘아 대니 아무도 버티고 서서 방어할 수 없었소. 우리 편이 골레타 안에 틀어박힐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적이 배에서 내리는 곳을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 세간의 의견이었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런 일을 겪어 본 적도 별로 없이 하는 말이오. 골레타와 요새를 다 합쳐도 병사가 7천 명이 될까 말까 했는데, 아무리 용감하다 한들 그 적은 수로 어떻게 들판에 나가면서 요새도 지킬 수 있었겠소? 그토록 많은 적에 맞서서 말이오. 그리고 구원군이 오지 않는 요새가, 더구나 수많은 끈질긴 적이 제 땅에서 에워싸고 있는 요새가 어찌 함락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았고 나도 그렇게 보았는데, 그곳이 무너지게 내버려 둔 것은 하늘이 에스파냐에

베푼 각별한 은총이요 은혜였소. 그곳은 온갖 악행의 공방이자 은신처였고, 그곳에서 쓸데없이 쓰이던 끝없는 돈을 삼키는 먹보 괴물이요 해면이요 좀벌레였소. 더없이 무적이신 카를로스 5세께서 그곳을 손에 넣으셨다는 더없이 복된 기억을 간직하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도 없었는데, 마치 그 기억을 영원하게 하려면, 실제로 지금도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하겠지만, 그 돌들이 떠받쳐 주어야 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오.

"요새도 함락되었소. 그러나 튀르크 사람들은 한 뼘 한 뼘 겨우 요새를 차지해 나갔소. 요새를 지키던 병사들이 어찌나 용감하고 굳세게 싸웠던지, 스물두 차례 총공격에서 그들이 죽인 적이 2만 5천 명이 넘었소. 살아남은 3백 명 가운데 성한 몸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 그들의 기개와 용맹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 싸우고 제자리를 지켰는지를 똑똑히 보여 주는 표시였소. 석호 한가운데 있던 작은 보루, 아니 탑 하나는 발렌시아의 기사이자 이름난 병사인 돈 후안 사노게라가 맡고 있었는데, 조건을 걸고 항복했소. 골레타 사령관 돈 페드로 푸에르토카레로도 사로잡혔는데, 그는 요새를 지키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요새를 잃은 것을 어찌나 원통해했던지 포로로 끌려가던 콘스탄티노플 길에서 비통한 나머지 죽고 말았소. 요새의 사령관도 사로잡혔는데, 이름은 가브리오 세르베욘으로, 밀라노의 기사이자 뛰어난 기술자요 더없이 용맹한 병사였소. 이 두 요새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 요한 기사단의 기사 파간 데 오리아였소. 그는 너그러운 성품이었는데, 이름난 형 후안 데 안드레아 데 오리아에게 베푼 더없는 너그러움이 그것을 보여 주었소. 그의 죽음을 더욱 애처롭게 한 것은, 요새가 이미 무너진 것을 보고 그가 믿고 맡긴 아랍인들의 손에 죽었다는 점이오. 그들은 그를 무어인 옷차림으로 꾸며 타바르카로 데려다주겠다고 했는데,

타바르카는 그 해안에서 산호를 따는 제노바 사람들이 두고 있는 작은 항구랄까 거처랄까 하는 곳이오. 그런데 그 아랍인들은 그의 목을 베어 튀르크 함대 사령관에게 가져갔고, 사령관은 그들에게 우리 카스티야 속담 「배신은 반가워도 배신자는 미움받는다」를 그대로 지켜 주었소. 그래서 사령관은 그 선물을 가져온 자들을, 그를 산 채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매달게 했다고들 하오.

"요새에서 사로잡힌 그리스도교도 가운데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라는 사람이 있었소. 안달루시아 어느 고장 출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새에서 기수를 지냈고 이름 높은 병사이자 드문 지성의 소유자였으며, 특히 사람들이 시라고 부르는 것에 각별한 재주가 있었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 그를 내 갤리선, 내 노 젓는 의자로 데려왔고, 그도 나와 같은 주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오. 우리가 그 항구를 떠나기 전에 이 기사는 묘비명 삼아 소네트 두 편을 지었는데, 하나는 골레타에, 하나는 요새에 바친 것이었소. 정말이지 그 시를 꼭 들려 드려야겠소. 외우고 있기도 하고, 듣고 언짢아지기보다는 즐거워하시리라 믿으니까."

포로가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의 이름을 대자 돈 페르난도가 길동무들을 쳐다보았고, 셋이 모두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포로가 소네트 이야기를 꺼내자 그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더 나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돈 페드로 데 아길라르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디 알려 주시오."

"내가 아는 것은" 포로가 대답했다. "그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해를 지낸 뒤 그리스인 첩자 하나와 함께 알바니아 사람 옷차림을 하고 달아났다는 것뿐이오. 자유의 몸이 되었는지는 모르오. 그렇게 되었으리라 믿기는 하지만. 한 해 뒤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그리스인을 보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끝났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소."

"자유의 몸이 되었소." 그 기사가 대답했다. "그 돈 페드로는 내 형이오. 지금은 우리 고향에서 잘 살고 있소. 넉넉하고, 장가들어 자식도 셋이나 두었소."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오." 포로가 말했다. "그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생각에 이 땅에서 잃었던 자유를 되찾는 것에 견줄 만한 기쁨은 없소."

"게다가" 기사가 되받았다. "나는 형이 지은 그 소네트들을 알고 있소."

"그럼 말씀해 주시오." 포로가 말했다. "나보다 더 잘 읊으실 테니."

"좋소." 기사가 대답했다. "골레타에 바친 시는 이러했소."

---

1. 1571년 10월 7일 그리스 서해안 레판토(나프팍토스) 앞바다에서 에스파냐·베네치아·교황청의 신성 동맹 함대가 오스만 함대를 무찌른 레판토 해전. 세르반테스도 이 싸움에 나가 가슴과 왼손에 총상을 입었다.

제40장 포로의 이야기를 이어 간다

소네트

복된 영혼들이여, 죽어 없어질 몸의 너울에서
벗어나 풀려나, 그대들이 행한 선 덕분에
낮은 땅에서 일어나 올라갔도다
하늘의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곳으로.
분노와 명예로운 열정에 불타
그대들은 몸의 힘을 다해 싸웠고,
제 피와 남의 피로 물들였도다
가까운 바다와 모래 깔린 땅을.
용기보다 먼저 목숨이 다했으니
지친 팔에서였다. 그 팔은 죽어 가며
지고서도 승리를 안고 간다.
그리고 그대들의 이 죽음의, 슬픈 쓰러짐은
성벽과 칼 사이에서 그대들에게 얻어 주리라
세상이 주는 명성을, 하늘이 주는 영광을.

"나도 그 시를 똑같이 알고 있소." 포로가 말했다.

"그럼 요새에 바친 시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기사가 말했다. "이러하오."

소네트

이 메마르고 무너진 땅 가운데서,
바닥에 흩어져 내던져진 이 흙덩이들 사이에서
삼천 병사의 거룩한 영혼들이
살아서 더 나은 거처로 올라갔도다.
먼저 헛되이 다 쏟았으니
힘차게 애쓴 그 팔의 힘을,
마침내 얼마 남지 않고 지쳐
칼날 앞에 목숨을 내주기까지.
이곳은 끊임없이
슬픈 기억 천 가지로 가득 찼던 땅이로다,
지난 세기에도 지금 세기에도.
그러나 이보다 의로운 영혼들이 그 단단한 품에서
맑은 하늘로 올라간 적은 없으리라.
이 땅도 이토록 용맹한 몸들을 떠받친 적은 없었도다.

소네트들은 듣기에 나쁘지 않았다. 포로는 동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리하여 골레타와 요새가 항복하자, 튀르크 사람들은 골레타를 허물라고 명령했소. 요새는 이미 무너뜨릴 것조차 남지 않은 꼴이었으니까. 그들은 더 빨리, 더 적은 수고로 허물려고 세 군데에 땅굴을 파 화약을 묻었소. 그러나 가장 덜 튼튼해 보이던 옛 성벽은 어느 것으로도 날려 버리지 못했고, 프라틴이 새로 쌓은 성채 가운데 서 있던 것은 모두 아주 쉽게 무너졌소. 결국 함대는 의기양양하게 승리하여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갔고, 몇 달 뒤 내 주인 우찰리가 죽었소. 사람들은 그를 우찰리 파르탁스라고 불렀는데, 튀르크 말로 '버짐쟁이 배교자'라는 뜻이오. 그가 정말 그랬거든. 튀르크 사람들 사이에는 제게 있는 어떤 흠이나 덕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풍습이 있소. 오스만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문 성씨는 넷뿐이고, 나머지는 내가 말했듯 몸의 흠이나 마음의 덕을 따서 이름과 성을 삼기 때문이오. 이 버짐쟁이는 대군주의 노예로 열네 해 동안 노를 저었고, 서른네 살이 넘어서 배교했소. 노를 젓다가 어느 튀르크 사람에게 따귀를 맞고는 앙심을 품어, 앙갚음을 하려고 제 신앙을 버린 것이오. 그리고 그는 용맹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튀르크 대황제의 총신들이 대개 밟고 올라가는 추잡한 수단과 길을 거치지 않고도 알제의 왕이 되었고, 다음에는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자리인 해군 총사령관이 되었소. 그는 칼라브리아 태생이었는데, 도덕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어서 포로들을 아주 인정 있게 대했소. 그의 포로는 3천 명에 이르렀는데, 그가 죽은 뒤 유언대로 대군주(대군주는 죽는 사람 누구의 상속인도 되어, 죽은 이가 남긴 다른 자식들과 함께 몫을 나눠 받소)와 그의 배교자들 사이에 나뉘었소. 나는 베네치아 출신 배교자 하나에게 돌아갔소. 그는 어느 배의 견습 선원이었을 때 우찰리에게 사로잡혔는데, 우찰리가 그를 어찌나 아꼈던지 가장 귀여움받는 시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그러다 일찍이 본 적 없는 가장 잔인한 배교자가 되었소. 이름은 아산 아가였는데, 큰 부자가 되었고 알제의 왕까지 되었소. 나는 그를 따라 콘스탄티노플에서 왔는데, 에스파냐에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 조금은 기뻤소. 누구에게 내 불행을 편지로 알리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보다 알제에서 운이 더 따라 주는지 보려는 마음이었소.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미 천 가지로 달아나 보려 했지만 어느 것도 때가 맞지 않았고 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제에서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을 다른 길을 찾아보려 했소. 자유를 얻으리라는 희망이 나를 저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말이오. 꾸미고 궁리하고 실행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주저앉지 않고 곧바로 다른 희망을 지어내고 찾아내어, 아무리 약하고 가냘픈 희망이라도 그것으로 나를 버티게 했소.

"나는 이렇게 목숨을 이어 가며, 튀르크 사람들이 바뇨라고 부르는 감옥, 아니 집에 갇혀 있었소. 그곳에는 그리스도교도 포로들을 가두는데, 왕의 포로도 있고 몇몇 개인의 포로도 있으며, 알마센의 포로라는 이들도 있소. 알마센의 포로란 도시의 포로라는 말과 같은데, 도시가 벌이는 공공 공사와 다른 일에서 도시를 위해 일하오. 이런 포로들은 자유를 얻기가 몹시 어렵소. 공동의 것이라 따로 주인이 없으니, 몸값이 있어도 몸값을 흥정할 상대가 없기 때문이오. 내가 말했듯 이 바뇨에는 고을의 몇몇 개인들이 자기 포로를, 특히 몸값을 받을 포로를 데려다 두곤 하오. 몸값이 올 때까지 그곳에 편하고 안전하게 두는 것이오. 왕의 포로 가운데 몸값을 받을 포로도 다른 무리와 함께 일하러 나가지 않는데, 몸값이 늦어질 때만은 예외요. 그때는 몸값을 보내 달라고 더 애타게 편지를 쓰게 하려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을 시키고 땔나무를 하러 보내는데, 이게 여간 고된 일이 아니오.

"나는 몸값을 받을 포로 가운데 하나였소. 내가 대위였다는 것이 알려지자, 내 형편이 넉넉지 않고 재산도 없다고 말했는데도 소용없이 기사와 몸값을 받을 사람들 축에 들게 되었소. 그들은 내게 사슬을 채웠는데, 나를 붙잡아 두려는 것이라기보다 몸값을 받을 포로라는 표시였소. 그래서 나는 몸값을 받을 사람으로 지목된 다른 많은 기사와 지체 높은 이들과 함께 그 바뇨에서 지냈소. 굶주림과 헐벗음이 때로는, 아니 거의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만도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괴롭힌 것은 내 주인이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저지르는, 보도 듣도 못한 잔학한 짓을 걸음마다 듣고 보는 일이었소. 날마다 누구 하나를 목매달고, 이 사람은 말뚝에 꿰고, 저 사람은 귀를 잘랐소. 그것도 아주 사소한 까닭으로, 아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니, 튀르크 사람들도 그가 그저 그러고 싶어서, 온 인류를 죽이는 것이 타고난 성품이라서 그런다는 것을 알았소. 그에게서 무사했던 사람은 사아베드라 아무개라는

에스파냐 병사 하나뿐이었소.[1] 그 병사는 그곳 사람들의 기억에 여러 해 남을 일들을, 그것도 모두 자유를 얻으려고 저질렀는데도, 주인은 그를 한 번도 매질하지 않았고 매질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으며 험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소. 그가 한 숱한 일 가운데 가장 작은 일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그가 말뚝에 꿰이리라고 두려워했고, 그 자신도 여러 번 그렇게 두려워했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이 병사가 한 일을 지금 조금 이야기하고 싶소. 내 이야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할 텐데.

"그런데 우리 감옥 마당 위로 어느 부유하고 지체 높은 무어인의 집 창문들이 나 있었소. 무어인의 창이 대개 그렇듯 창이라기보다 구멍이었고, 그나마 아주 촘촘하고 빽빽한 격자창으로 가려져 있었소. 어느 날 다른 그리스도교도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우리만 남았기에, 나는 동료 셋과 함께 감옥 평지붕에서 심심풀이로 사슬을 찬 채 뛰어오르기 시합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들어 보니 앞서 말한 그 닫힌 작은 창문으로 갈대 장대 하나가 나와 있었소. 장대 끝에는 천 조각이 묶여 있었고, 장대는 마치 와서 가져가라고 손짓이라도 하듯 흔들리고 움직였소.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다가, 나와 함께 있던 하나가 장대를 떨어뜨리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려고 장대 밑으로 가셨소. 그런데 그가 다가가자마자 장대를 들어 올려, 고개를 가로젓듯 양쪽으로 흔들었소. 그 그리스도교도가 돌아오자 장대를 다시 내리고 처음과 같은 움직임을 되풀이했소. 내 동료 가운데 다른 하나가 가 보았지만 첫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당했소. 마지막으로 셋째가 갔는데, 첫째와 둘째가 겪은 일을 그대로 겪었소. 그것을 보고 나도 운을 시험해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내가 장대 밑으로 가 서자마자 장대를 떨어뜨렸고, 장대는 바뇨 안 내 발치에 떨어졌소. 나는 얼른 달려가 천을 풀었는데, 거기 매듭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시아니 열 닢이 들어

있었소. 시아니는 무어인들이 쓰는 질 낮은 금화인데, 한 닢이 우리 돈 10레알이오. 이것을 얻고 내가 기뻐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소. 그 복이 어디서 우리에게, 특히 내게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하니 기쁜 만큼 놀라웠소.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장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한 기색이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해 주었으니까. 나는 내 고마운 돈을 챙기고, 장대를 부러뜨리고, 평지붕으로 돌아가 그 창을 바라보았소. 그러자 아주 하얀 손 하나가 창으로 나와 창을 아주 재빨리 열었다 닫았소. 이것으로 우리는 그 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이 은혜를 베풀었으리라고 알아차렸소, 아니 상상했소.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로 무어인 풍습대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두 팔을 가슴에 얹어 살레마 인사를 했소. 얼마 뒤 같은 창으로 갈대로 만든 작은 십자가가 나왔다가 곧 도로 들어갔소. 이 표시를 보고 우리는 그 집에 어떤 그리스도교도 여자가 포로로 있어 그 여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리라고 굳게 믿었소. 그러나 그 손이 하얗고 그 손에 팔찌가 끼워져 있던 것을 떠올리고는 그 생각을 접고, 배교한 그리스도교도 여자일 것이라고 짐작했소. 그런 여자들은 흔히 주인들이 정식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을 행운으로까지 여기오. 자기 나라 여자들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 보아도 일의 진상과는 동떨어진 짐작뿐이었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낙이라고는, 갈대 장대라는 별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창을 바라보며 북극성으로 삼는 것뿐이었소. 그러나 꼬박 보름이 지나도록 장대도 손도 다른 어떤 표시도 보이지 않았소. 그동안 우리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배교한 그리스도교도 여자가 있는지 갖은 애를 써서 알아보았지만, 그 집에 아히 모라토라는 지체 높은 부자 무어인이 산다는 것 말고는 아무도 다른 말을 해 주지 않았소. 그는 라 파타의 수비대장을 지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은 자리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시아니가 더 내리리라는 생각을 거의 잊고 있을 때, 느닷없이 장대가 다시 나타났소. 거기에 다른 천이 묶여 있었고 매듭은 더 불룩했소.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바뇨가 텅 비어 사람이 없을 때였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시험을 했는데, 같은 셋이 저마다 나보다 먼저 가 보았지만 장대는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않았소. 내가 가자마자 떨어뜨렸으니까. 매듭을 풀어 보니 에스파냐 금화 40에스쿠도와 아랍어로 쓴 종이 한 장이 있었고, 글 끝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소. 나는 십자가에 입 맞추고, 에스쿠도를 챙기고, 평지붕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다 같이 살레마 인사를 했소. 손이 다시 나타나자 나는 종이를 읽겠다는 손짓을 했고, 창은 닫혔소. 우리는 모두 이 일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뻤소. 우리 가운데 아랍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종이에 무엇이 쓰였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읽어 줄 사람을 찾기는 더욱 어려웠소.

"마침내 나는 무르시아 태생의 어느 배교자를 믿어 보기로 마음먹었소. 그는 나와 아주 가까운 벗이라고 자처했고, 우리 둘 사이에는 내가 맡기는 비밀을 그가 지킬 수밖에 없게 하는 담보가 있었소. 배교자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 때, 지체 높은 포로들의 서명을 받아 지니고 다니곤 하오. 거기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형식을 갖추어, 그 배교자가 착한 사람이고 늘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잘해 주었으며 처음 기회가 오면 달아나기를 바란다고 증언하오. 좋은 뜻으로 이런 증서를 얻는 이들도 있고, 어쩌다가 혹은 꾀를 부려 이용하는 이들도 있소.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약탈하러 왔다가 혹시 길을 잃거나 사로잡히면 서명을 꺼내 보이며, 이 종이를 보면 자기가 무슨 뜻으로 왔는지, 곧 그리스도교도의 땅에 남으려고 왔음을 알 것이고, 그래서 다른 튀르크 사람들과 함께 해적질하러 나섰다고 둘러대오. 이렇게 그들은 처음의

서슬을 피하고, 해를 입지 않고 교회와 화해하오. 그러다 기회가 오면 바르바리로 돌아가 예전의 자기로 돌아가오. 이 종이를 좋은 뜻으로 구해서 쓰고 그리스도교도의 땅에 남는 이들도 있소.

"내 벗은 앞서 말한 배교자 가운데 하나였소. 그는 우리 동료들 모두의 서명을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를 보증해 주었소. 무어인들이 이 종이를 찾아냈다면 그를 산 채로 불태웠을 것이오. 나는 그가 아랍어를 아주 잘 알아서, 말할 뿐 아니라 쓸 줄도 안다는 것을 알았소. 그러나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전에, 내 움막의 구멍에서 우연히 찾아낸 종이라며 읽어 달라고 했소. 그는 종이를 펴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이 사이로 중얼중얼 뜻을 풀었소. 알아듣겠느냐고 묻자 아주 잘 알아듣겠다며, 한 낱말 한 낱말 풀어 주기를 바란다면 더 잘할 수 있게 잉크와 펜을 달라고 했소. 우리가 곧 달라는 것을 주자 그는 조금씩 옮겨 적어 나갔고, 다 마치고는 이렇게 말했소. '여기 에스파냐 말로 적은 것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무어 글 종이에 담긴 그대로요. 그리고 렐라 마리엔이라고 쓴 곳은 우리 성모 동정 마리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오.'

"우리가 읽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여자 노예가 하나 있었다. 그 여자가 내 나라 말로 그리스도교의 살라를 가르쳐 주었고 렐라 마리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그 그리스도교도 여자는 죽었는데, 나는 그 여자가 불 속으로 가지 않고 알라 곁으로 간 것을 안다. 그 뒤로 그 여자를 두 번 보았는데,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가서 렐라 마리엔을 만나라고, 렐라 마리엔이 나를 몹시 아끼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 창으로 그리스도교도를 많이 보았지만, 그대 말고는 아무도 기사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주 예쁘고 어린 처녀이고, 가지고 갈 돈도 많다.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그대가 궁리해 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그곳에서 원한다면 내 남편이 될 것이고, 원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 렐라 마리엔이 내게 혼인할 사람을 주실 테니까. 이것은 내가 썼다. 누구에게 읽어 달라고 줄지 조심하여라. 어떤 무어인도 믿지 마라. 모두 마르푸스(배신자)들이니까. 이것이 내 큰 걱정이다. 그대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당장 나를 우물에 던지고 돌로 덮을 테니까. 장대에 실을 하나 매어 두겠다. 거기에 답장을 묶어라. 아랍어로 써 줄 사람이 없거든 손짓으로 말해 다오. 렐라 마리엔이 내가 알아듣게 해 주실 것이다. 렐라 마리엔과 알라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여러 번 입 맞추는 그 십자가도. 그 포로 여자가 내게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여러분, 이 종이에 적힌 말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한 것이 무리였는지 생각해 보시오. 놀라움도 기쁨도 어찌나 컸던지, 배교자는 그 종이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쓴 것임을 알아차렸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짐작한 것이 참이라면 자기를 믿고 털어놓으라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간청했소. 그러면서 가슴에서 쇠붙이 십자가상을 꺼내 들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자기는 죄 많고 악하지만 그 형상이 나타내는 하느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는다면서, 그 하느님께 걸고 우리가 털어놓으려는 모든 일에서 의리와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소. 그 종이를 쓴 여자를 통해 자기와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고,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일, 곧 썩은 지체처럼 자기의 무지와 죄로 떨어져 나가 멀어진 어머니 거룩한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을 이루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의 그렇게 예감한다고 했소.

"배교자가 이 말을 어찌나 눈물을 쏟으며 깊이 뉘우치는 기색으로 하던지,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하여 그에게 일의 진상을 털어놓기에 이르렀소. 그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알려 주었소.

장대가 나타나던 작은 창을 보여 주자 그는 거기서 그 집을 눈여겨 두었고, 누가 사는지 각별히 신경 써서 알아보겠다고 했소. 우리는 또 무어 여자의 쪽지에 답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소. 써 줄 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배교자는 곧바로 내가 불러 주는 말을 받아 적었소. 그 말은 내가 이제 들려줄 그대로요. 이 일에서 내게 일어난 요긴한 대목은 하나도 기억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고,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빠져나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하여 무어 여자에게 보낸 답장은 이러했소.

"'참된 알라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를, 나의 아씨. 그리고 하느님의 참된 어머니이시며, 그대를 아끼시기에 그대 마음에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가라는 뜻을 심어 주신 저 복된 마리엔께서도. 마리엔께서 명하시는 일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깨우쳐 주시도록 그대가 그분께 비시오. 그분은 아주 좋으신 분이니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오. 나와, 나와 함께 있는 이 그리스도교도들 모두를 대신해, 죽기까지 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오. 무엇을 할 생각인지 내게 꼭 편지로 알려 주시오. 나는 늘 답장하겠소. 위대한 알라께서 그대의 말을 이 종이에서 보듯 잘 말하고 쓸 줄 아는 그리스도교도 포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알려 주시오. 그대가 그리스도교도의 땅에 가면 내 아내가 되겠다는 말에는, 착한 그리스도교도로서 약속하오. 그리스도교도는 무어인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을 알아 두시오. 알라와 그분의 어머니 마리엔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를, 나의 아씨.'

"이 편지를 써서 봉한 뒤, 나는 바뇨가 여느 때처럼 비기를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늘 다니던 평지붕 자리로 나가 장대가 나타나는지 살폈소. 장대는 오래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소. 장대를 보자, 누가 내미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을 매어 달라는 듯 종이를 들어 보였소. 그런데 실은

이미 장대에 매여 있었으므로 나는 거기에 종이를 묶었소. 얼마 뒤 우리의 별이 평화의 하얀 깃발 같은 작은 보따리를 달고 다시 나타났소. 그것을 떨어뜨리자 내가 주워 들었는데, 천 속에는 갖가지 은화와 금화로 50에스쿠도가 넘게 들어 있었소. 그 50에스쿠도는 우리 기쁨을 쉰 배나 더 키웠고, 자유를 얻으리라는 희망을 굳혀 주었소.

"바로 그날 밤 우리 배교자가 돌아와서, 그 집에는 우리가 들은 대로 아히 모라토라는 바로 그 무어인이 산다고 알려 주었소.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부자인데, 외동딸 하나가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고, 온 도시가 그 딸을 바르바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친다고 했소. 그곳에 온 총독들 여럿이 아내로 달라고 청했지만 딸은 한 번도 혼인하려 하지 않았으며, 전에 그리스도교도 여자 포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까지 그는 알아 왔소. 이 모든 것이 종이에 적힌 것과 들어맞았소. 우리는 곧 배교자와 함께, 무어 여자를 빼내 우리 모두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갈 방도를 의논했소. 결국 그때로서는 소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리아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그 여자의 두 번째 소식을 기다리기로 했소. 그 모든 어려움을 풀 길을 열어 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정하고 나자 배교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목숨을 잃든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든지 하겠다고 했소.

"나흘 동안 바뇨에 사람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나흘 동안 장대가 나타나지 않았소. 나흘이 지나 바뇨가 여느 때처럼 비자, 장대가 아이를 밴 듯 불룩한 천을 달고 나타나 아주 복된 해산을 약속했소. 장대와 천이 내게로 기울었고, 나는 그 안에서 다른 종이 한 장과 금화 1백 에스쿠도를 찾았소. 다른 돈은 없었소. 배교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움막 안에서 그에게 종이를 읽게 했는데, 그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소.

"'나의 나리, 나는 우리가 에스파냐로 갈 방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소. 렐라 마리엔께 여쭈었지만 렐라 마리엔도 말씀해 주지 않았소.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오. 내가 이 창으로 금화를 아주 많이 드릴 테니, 그것으로 당신과 당신 벗들의 몸값을 치르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한 척 사 가지고 나머지를 데리러 돌아오게 하시오. 나는 바닷가 바바손 문 곁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정원에 있을 것이오. 이번 여름 내내 아버지와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하오. 거기서 밤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빼내 배로 데려가시오. 그리고 그대는 꼭 내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리엔께 그대를 벌하시라고 빌겠다. 배를 가지러 갈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겠거든 그대가 몸값을 치르고 가라. 그대는 기사이고 그리스도교도이니 누구보다 잘 돌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정원을 꼭 알아 두어라. 그대가 그 근처를 거닐면 바뇨가 비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많이 주겠다. 알라께서 그대를 지켜 주시기를, 나의 나리.'

"두 번째 종이에 적히고 담긴 말은 이러했소. 그것을 보자 모두 저마다 자기가 몸값을 치르고 나가겠다고 나서며, 반드시 가서 어김없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소. 나도 같은 것을 자청했소. 그런데 배교자가 이 모든 것에 반대하고 나섰소. 모두 함께 나가기 전에는 누구 하나 자유의 몸이 되어 나가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며 버텼소.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포로 시절에 한 약속을 얼마나 지키지 않는지 경험으로 보아 왔기 때문이오. 지체 높은 포로들이 여러 번 그 방도를 써서, 한 사람의 몸값을 치러 배를 무장할 돈을 들려 발렌시아나 마요르카로 보내며 자기들을 데리러 오게 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소. 얻은 자유와 그것을 다시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의무를 기억에서 지워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말이 참임을 보이려고, 거의 그 무렵 그리스도교도 기사 몇 사람에게 일어난 일

하나를 짧게 들려주었소. 걸음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땅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가장 기이한 일이었소.

"결국 그가 내놓은 방도는 이러했소. 그리스도교도의 몸값으로 줄 돈을 자기에게 주면, 테투안과 그 해안을 오가는 장사꾼이 되겠다는 핑계로 바로 이 알제에서 배를 사겠다고 했소. 자기가 배 임자가 되면 우리를 바뇨에서 빼내 모두 배에 태울 꾀는 쉽게 낼 수 있으리라 했소. 더구나 무어 여자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의 몸값을 치를 돈을 준다면, 자유의 몸이 된 다음에는 한낮에 배에 오르는 것조차 아주 쉬운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어인들이 해적질하러 나가는 큰 배가 아니면 어떤 배교자도 배를 사거나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었소. 배를 사는 자가, 특히 에스파냐 사람이면,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달아나려는 것 말고는 배를 원할 까닭이 없다고 의심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는 타가리노 무어인 하나를 배와 장사 이문의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 걸림돌을 풀겠다고 했소. 그 그늘 밑에서 자기가 배 임자가 되면 나머지 일은 다 된 셈이라는 계산이었소.

"나와 동료들은 무어 여자가 말한 대로 마요르카로 배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는 편이 더 낫다고 여겼지만, 감히 그의 말에 반대하지 못했소. 그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밀고하고 소라이다와 꾸미는 일까지 드러내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오. 소라이다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두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소.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과 배교자의 손에 우리를 맡기기로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소라이다에게 답장을 보냈소. 그 여자가 권하는 대로 모두 하겠다고, 렐라 마리엔께서 일러 주시기라도 한 듯 아주 잘 짚어 주었다고, 이 일을 미룰지 곧 실행할지는 오직 그 여자에게 달렸다고 썼소. 나는 다시 한번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소. 그러자 바뇨가 마침 빈 다른 날, 그 여자는 장대와 천으로

여러 번에 걸쳐 금화 2천 에스쿠도를 주었고 종이도 한 장 보내왔소. 거기에는 첫 주마, 곧 금요일에 아버지의 정원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돈을 더 주겠다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알려 달라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적혀 있었소. 아버지에게는 돈이 하도 많아 없어져도 모를 테고, 더구나 열쇠는 모두 자기 손에 있다고 했소.

"우리는 곧 배교자에게 배를 살 돈으로 5백 에스쿠도를 주었소. 나는 8백 에스쿠도로 몸값을 치렀소. 마침 알제에 와 있던 발렌시아 상인에게 돈을 맡겼더니, 그는 발렌시아에서 오는 첫 배가 닿으면 몸값을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그 말을 담보로 나를 왕에게서 빼내 주었소. 돈을 곧바로 내주었다가는, 내 몸값이 알제에 와 있은 지 오래인데 상인이 제 잇속 때문에 숨겨 왔다는 의심을 왕에게 줄 터였으니까. 요컨대 내 주인은 어찌나 의심이 많은지 나는 그 돈을 당장 내놓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소. 아름다운 소라이다가 정원으로 가기로 한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에, 그 여자는 우리에게 1천 에스쿠도를 더 주며 떠난다는 것을 알려 왔소. 그리고 내가 몸값을 치르면 곧 아버지의 정원을 알아 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서 자기를 만날 기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소. 나는 짧은 말로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그 포로 여자가 가르쳐 준 모든 기도로 우리를 렐라 마리엔께 잘 부탁드리라고 일렀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뇨에서 나가기 쉽게 하려고 우리 동료 셋의 몸값도 치르기로 했소. 돈이 있는데 나만 풀려나고 자기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이 들고일어나, 악마의 꾐에 넘어가 소라이다에게 해가 될 짓을 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래도 일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몸값을 치른 것과 같은 절차로 그들의 몸값을 치르게 했소. 상인이 틀림없이 안전하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돈을 모두

그에게 맡겼는데, 위험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우리가 꾸미는 일과 비밀을 끝내 털어놓지 않았소.

---

1.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자신. 세르반테스는 1575년부터 1580년까지 알제에서 포로로 지내며 네 번이나 탈출을 꾀했으나, 알제의 왕은 끝내 그를 벌하지 않았다.

제41장 포로가 아직도 자기 이야기를 이어 간다

"보름도 지나지 않아 우리 배교자는 서른 명 넘게 탈 수 있는 아주 좋은 배 한 척을 사 두었소. 그리고 제 일을 확실히 해 두고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알제에서 오랑 쪽으로 30레과 떨어진 사르헬이라는 곳으로 장삿길을 한 번 다녀오려 했고, 실제로 다녀왔소. 그곳은 말린 무화과 거래가 많은 곳이오. 그는 앞서 말한 타가리노와 함께 두세 번 이 길을 오갔소. 바르바리에서는 아라곤의 무어인을 타가리노라 부르고 그라나다의 무어인을 무데하르라 부르며, 페스 왕국에서는 무데하르를 엘체라고 부르는데, 그 왕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부리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오.

"그런데 그는 배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소라이다가 기다리는 정원에서 쇠뇌 두 바탕 거리도 안 되는 작은 만에 닻을 내렸소. 그리고 거기서 일부러 노 젓는 무어인 젊은이들과 함께 살라를 드리기도 하고, 정말로 하려는 일을 장난 삼아 미리 연습해 보기도 했소. 그렇게 해서 소라이다의 정원에 가서 과일을 청하면, 그 아버지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과일을 내주었소. 나중에 그가 내게 한 말로는, 소라이다에게 말을 걸어 자기가 내 지시로 그 여자를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데려갈 사람이니 마음 놓고 안심하라고 일러 주고 싶었지만 끝내 그럴 수가 없었다 하오. 무어 여자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시키지 않는 한 어떤 무어인이나 튀르크 사람에게도 얼굴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오. 그리스도교도 포로와는 오히려 마땅한 정도를 넘어설 만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말을 나누지만. 나로서는 그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면 오히려 마음이 쓰였을 것이오. 제 일이 배교자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알면 그 여자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르게 정하시어 우리 배교자의 좋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소. 그는 사르헬을 아주 안전하게 오가고, 마음 내키는 때에 마음 내키는 곳에 마음대로 닻을 내리며, 동업자 타가리노도 제 뜻대로만 움직이고, 나는 이미 몸값을 치렀으니 이제 노 저을 그리스도교도 몇 사람을 구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을 알자, 몸값을 치른 이들 말고 누구를 데려갈지 정해서, 우리가 떠나기로 정한 첫 금요일에 맞추어 미리 말해 두라고 내게 일렀소. 그래서 나는 에스파냐 사람 열두 명에게 말을 걸었소. 모두 노를 잘 젓는 용감한 사내들이었고, 도시를 가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들이었소. 그 무렵 그만한 사람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소. 해적선 스무 척이 나가 있어 노 저을 사람들을 모두 데려갔기 때문이오. 이들도, 주인이 조선소에서 소형 갤리선 한 척을 마무리하느라 그해 여름 해적질을 나가지 않고 남지 않았더라면 찾지 못했을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첫 금요일 오후에 하나씩 눈에 띄지 않게 빠져나와 아히 모라토의 정원 쪽으로 가서 내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만 했소. 저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일러 두면서, 거기서 다른 그리스도교도들을 보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소.

"이 일을 마치고 나니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것이 내게 가장 요긴한 일이었소. 곧 일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소라이다에게 알려, 그리스도교도의 배가 돌아오리라고 그 여자가 짐작하는 때보다 앞서 우리가 느닷없이 들이닥치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미리 채비를 갖추고 마음을 놓게 하는 일이었소. 그래서 나는 정원에 가서 그 여자와 말을 나눌 수 있을지 보기로 마음먹었소. 떠나기 하루 전 나는 풀을 좀

뜯는다는 핑계로 그곳에 갔는데, 처음 마주친 사람이 그 여자의 아버지였소. 온 바르바리에서, 아니 콘스탄티노플에서까지 포로와 무어인들 사이에 통하는 말이 있소. 무어 말도 카스티야 말도 아니고 다른 어느 나라 말도 아니며, 모든 말이 뒤섞여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오. 그는 바로 그런 말로 자기 정원에서 무엇을 찾느냐고, 누구의 노예냐고 물었소. 나는 아르나우테 마미의 노예라고 대답했소. 그가 아르나우테 마미와 아주 가까운 벗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 온갖 풀을 찾는다고 했소. 그러자 그는 이어서 몸값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주인이 나를 얼마에 내놓으려 하느냐고 물었소. 이런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데, 정원 안 집에서 아름다운 소라이다가 나왔소.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보아 왔소. 앞서 말했듯 무어 여자들은 그리스도교도에게 모습을 보이는 것을 조금도 수줍어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으니, 그 여자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곳으로 거리낌 없이 다가왔소. 오히려 아버지는 딸이 천천히 오는 것을 보자마자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했소.

"내가 사랑하는 소라이다가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난 모습, 그 많은 아름다움과 기품과 화려하고 값진 꾸밈새를 지금 다 말하려면 끝이 없을 것이오. 다만 그 더없이 아름다운 목과 귀와 머리칼에 드리운 진주가 머리에 난 머리칼보다 많았다고만 말하겠소. 그 여자는 자기네 풍습대로 발목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순금으로 된 카르카헤를 두 개 차고 있었소(무어 말로 발목 고리, 곧 발찌를 그렇게 불렀소). 다이아몬드가 어찌나 많이 박혀 있었던지, 나중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그것을 1만 도블라로 쳤다 하고, 손목에 찬 팔찌도 그만한 값이 나갔다 하오. 진주는 아주 많고 아주 좋은 것이었소. 무어 여자들의 가장 큰 멋과 자랑은 값진 진주와 잔진주로 꾸미는 것이어서, 무어인들 사이에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 진주와 잔진주가 많소. 소라이다의

아버지는 알제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고, 에스파냐 돈으로 20만 에스쿠도가 넘는 재산을 가졌다는 소문도 났는데, 지금은 내 아씨인 이 여자가 그때는 그 모든 것의 아씨였소. 그 모든 꾸밈새를 한 그때 그 여자가 아름다웠는지 아닌지는, 그 숱한 고생을 겪은 뒤에도 남아 있는 자취를 보면 좋은 시절에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오. 알다시피 어떤 여자들의 아름다움에는 날과 철이 있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려면 여러 계기가 필요하고, 마음의 정념이 그 아름다움을 돋우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대개는 망가뜨리고 말지만.

"요컨대 그때 그 여자는 더할 나위 없이 차려입고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소. 적어도 내게는 그때까지 본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보였소. 그리고 그 여자가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니, 내 기쁨과 내 구원을 위해 땅에 내려온 하늘의 여신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소. 그 여자가 다가오자 아버지는 자기네 말로, 내가 그의 벗 아르나우테 마미의 포로이고 샐러드 거리를 찾으러 왔다고 일러 주었소. 그 여자는 말을 받아, 앞서 말한 그 뒤섞인 말로 내가 기사인지, 왜 몸값을 치르지 않는지 물었소. 나는 이미 몸값을 치렀으며, 주인이 나를 1천5백 솔타니에 내주었으니 그 값을 보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쳐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소.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했소. '정말이지 그대가 우리 아버지 것이었다면 그 두 배를 준대도 내주지 말라고 했을 거다. 그대들 그리스도교도는 하는 말마다 늘 거짓말을 하고, 무어인을 속이려고 가난한 척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소, 아씨.' 내가 대답했소. '그러나 정말이지 나는 주인에게 참되게 굴었고, 지금도 그러며, 앞으로도 세상 누구에게나 그럴 것이오.' '그럼 언제 떠나느냐?' 소라이다가 말했소. '내일일 것 같소.' 내가 말했소. '여기 프랑스 배가 한 척 있는데 내일 돛을 올리니 그 배로 떠날 생각이오.' '에스파냐 배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배로 가는 게 낫지 않으냐?' 소라이다가 되받았소. '그대들과 벗도 아닌 프랑스 배로 가느니 말이다.' '아니오.' 내가 대답했소. '에스파냐 배가 벌써 온다는 소식이 참이라면 그래도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내일 떠나는 쪽이 더 확실하오. 내 고향에 가서 아끼는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하도 커서, 다른 기회가 늦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오.' '그대는 틀림없이 고향에 아내가 있구나.' 소라이다가 말했소. '그래서 아내를 보러 가고 싶은 거지.' '나는 장가들지 않았소.' 내가 대답했소. '다만 그곳에 가면 혼인하기로 약속해 두었소.' '그 약속을 한 아씨는 예쁘냐?' 소라이다가 말했소. '어찌나 예쁜지' 내가 대답했소. '그 사람을 치켜세우며 참말을 하자면, 그대를 아주 많이 닮았소.' 이 말에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소. '왈라(알라께 맹세코), 그리스도교도야, 내 딸을 닮았다면 정말 예쁘겠구나. 내 딸은 이 나라 전체에서 가장 예쁘니까. 못 믿겠거든 잘 보아라. 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게다.' 이런 말과 이야기의 대부분은 소라이다의 아버지가 통역해 주었소. 그가 그 말에 더 능했으니까. 소라이다도 앞서 말한 그곳의 잡탕 말을 하기는 했지만, 말보다는 손짓으로 제 뜻을 더 많이 드러냈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무어인 하나가 달려와 큰 소리로, 튀르크 사람 넷이 정원 울타리인지 담인지를 넘어 들어와 덜 익은 과일을 따고 있다고 외쳤소. 노인은 깜짝 놀랐고 소라이다도 그랬소. 무어인들이 튀르크 사람을, 특히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흔하고 거의 타고난 일이오. 튀르크 병사들은 어찌나 거만하고 자기들에게 매인 무어인들을 어찌나 함부로 부리는지, 제 노예보다 더 모질게 다루니까. 아무튼 아버지가 소라이다에게 말했소. '얘야, 내가 가서 이 개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라. 그리고 그리스도교도야, 너는 네 풀을 찾아서 잘 가거라. 알라께서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내가 머리를 숙이자, 그는 나를 소라이다와 단둘이 남겨 두고 튀르크 사람들을 찾으러 갔소. 소라이다는 아버지가 시킨 곳으로 가려는 기색을 보였소. 그러나 아버지가 정원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자마자, 그 여자는 내게 돌아서서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말했소. '아메시, 그리스도교도, 아메시?' 「 가느냐, 그리스도교도, 가느냐? 」 라는 말이오. 나는 그 여자에게 대답했소. '그렇소, 아씨. 하지만 결코 그대 없이 가지는 않소. 첫 주마에 나를 기다리시오. 우리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시오.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교도의 땅으로 갈 것이오.'

"내가 이 말을 어찌나 알아듣기 쉽게 했던지, 그 여자는 우리가 주고받은 말을 모두 아주 잘 알아들었소. 그러고는 한 팔로 내 목을 감고 기운 빠진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소. 그런데 하늘이 다르게 정하지 않았더라면 아주 나쁜 쪽으로 흘렀을지도 모를 운이 끼어들었소. 우리 둘이 지금 이야기한 그 모습 그 자세로, 그러니까 한 팔로 목을 감은 채 걸어가는데, 튀르크 사람들을 쫓아내고 돌아오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가 가는 꼴을 보았고, 우리도 그가 우리를 본 것을 알았소. 그러나 눈치 빠르고 슬기로운 소라이다는 내 목에서 팔을 풀려 하지 않았소. 오히려 내게 더 바싹 다가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무릎을 조금 꺾으며 기절하는 표시를 분명하게 내보였고, 나도 마지못해 그 여자를 붙들고 있는 척했소. 아버지는 우리 있는 곳으로 달려와 딸이 그런 꼴인 것을 보고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소. 그러나 딸이 대답하지 않자 아버지가 말했소. '이 개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서 틀림없이 기절했구나.' 그러고는 딸을 내 가슴에서 떼어 제 가슴에 안았소.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아직 눈물도 마르지 않은 눈으로 다시 말했소. '아메시, 그리스도교도, 아메시.' 「가라, 그리스도교도, 가라」라는 말이오. 이에 아버지가 대답했소. '얘야, 그리스도교도가 가든 말든 상관없다. 그

사람은 너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고, 튀르크 놈들은 이미 갔다. 아무것도 놀랄 것 없다. 너를 언짢게 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말했듯 튀르크 놈들은 내가 부탁하니 들어온 데로 돌아갔다.' '나리 말씀대로 그놈들이 아씨를 놀라게 했구려.'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소. '하지만 아씨가 나더러 가라고 하니 아씨를 언짢게 하고 싶지 않소. 평안히 계시오. 허락해 주신다면 필요할 때 이 정원에 다시 풀을 뜯으러 오겠소. 내 주인 말이, 샐러드 거리로는 이 정원만 한 데가 없다 하니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다시 와도 된다.' 아히 모라토가 대답했소. '내 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너나 다른 그리스도교도가 언짢게 해서가 아니다. 튀르크 놈들더러 가라고 한다는 것이 너더러 가라고 한 게지. 아니면 네가 풀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그랬거나.'

"이 말에 나는 곧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했소. 그 여자는 넋이 빠져나가는 듯한 얼굴로 아버지와 함께 갔고, 나는 풀을 찾는다는 핑계로 정원을 마음껏 샅샅이 돌아보았소. 드나드는 길과 집의 튼튼함과, 우리 일을 쉽게 해 줄 형편이 어떤지 잘 살펴 두었소. 그렇게 하고 돌아와 배교자와 동료들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렸소. 그리고 운이 아름답고 고운 소라이다를 통해 내게 내밀어 준 복을 놀랄 일 없이 누릴 때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소.

"마침내 시간이 흘러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날, 그 기한이 다가왔소. 우리는 모두 슬기롭게 따지고 오래 궁리하여 여러 번 정해 둔 순서와 의견을 따랐고, 바라던 대로 일이 잘 풀렸소. 내가 정원에서 소라이다와 이야기한 날 다음 금요일, 해가 질 무렵 우리 배교자는 더없이 아름다운 소라이다가 있는 곳 거의 맞은편에 배를 대고 닻을 내렸소. 노를 저을 그리스도교도들은 이미 채비를 마치고 그 일대 여기저기에 숨어 있었소. 모두 마음 졸이며 들떠서 나를 기다렸고, 눈앞에 있는 배를 당장이라도 덮치고 싶어 했소. 그들은 배교자와 짜 놓은 일을 몰랐고, 배 안에 있는

무어인들의 목숨을 빼앗아 팔심으로 자유를 얻어 내야 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오.

"그런데 나와 동료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숨어 있던 다른 이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다가왔소. 그때는 이미 성문이 닫혔고 그 들판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소. 다 모이자 우리는 먼저 소라이다를 데리러 갈지, 배에서 노를 젓는 바가리노 무어인들부터 제압할지 망설였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배교자가 와서, 무엇을 꾸물거리느냐고, 이제 때가 되었고 자기 무어인들은 모두 마음을 놓고 있으며 대부분 자고 있다고 했소.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는지 말하자 그는, 무엇보다 먼저 배를 제압해야 하는데 그건 아주 쉽고 아무 위험 없이 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소라이다를 데리러 가면 된다는 의견이었소. 우리 모두 그 말이 옳다고 여겨 더 지체하지 않고 그를 앞세워 배에 이르렀소. 그는 먼저 배 안으로 뛰어들어 언월도를 빼 들고 무어 말로 말했소. '목숨을 잃고 싶지 않거든 아무도 여기서 꼼짝하지 마라.' 이때는 이미 그리스도교도들이 거의 다 배에 올라 있었소. 겁 많은 무어인들은 자기네 선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자 얼이 빠졌고, 누구 하나 무기에 손을 대지 않았소. 무기라고는 거의, 아니 아예 없기도 했지만.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스도교도들에게 두 손을 묶였소. 그리스도교도들은 아주 재빨리 그들을 묶으며,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면 당장 모두 칼로 베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소.

"그 일을 마치자 우리 편 절반이 그들을 지키러 남고, 남은 우리는 이번에도 배교자를 앞세워 아히 모라토의 정원으로 갔소. 다행히 문을 열려고 다가가니 마치 잠겨 있지 않았던 것처럼 아주 쉽게 열렸소.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집에 이르렀소. 더없이 아름다운 소라이다는 창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기척이 나자 낮은 목소리로 우리가 니사라니냐고 물었소.

우리가 그리스도교도냐고 말하는 것, 아니 묻는 말이었소. 나는 그렇다고, 내려오라고 대답했소. 나를 알아보자 그 여자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 한마디 없이 순식간에 내려와 문을 열었는데, 모두 앞에 드러난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차려입었던지 나로서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소.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나는 그 손을 잡고 입 맞추기 시작했고, 배교자와 내 두 동료도 그렇게 했소. 사정을 모르는 다른 이들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으니, 마치 우리가 그 여자에게 고마움을 드리고 우리 자유의 아씨로 받드는 것만 같았소. 배교자는 무어 말로 아버지가 정원에 있느냐고 물었소. 그 여자는 있다고, 자고 있다고 대답했소. '그럼 깨워서' 배교자가 되받았소. '이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값진 것들과 함께 우리가 데려가야겠소.' '안 돼.' 그 여자가 말했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에는 내가 가져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로도 너희 모두 넉넉하고 흡족해질 만큼 많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곧 돌아올 테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소. 내가 배교자에게 그 여자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묻자 그가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어떤 일에서도 소라이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에게 말했소. 그 여자가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금화 에스쿠도가 가득 든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오는 참에, 불운하게도 그사이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정원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소. 그는 창으로 내다보더니 곧 정원에 있는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교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크고 사납게 소리소리 지르며 아랍어로 외치기 시작했소. '그리스도교도다, 그리스도교도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외침에 우리는 모두 몹시 두렵고 어쩔 줄 모르게 되었소. 그러나 배교자는 우리가 처한 위험을 보고, 들키기 전에 이 일을 해치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아주 재빨리 아히 모라토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고, 우리 가운데 몇이 그와 함께 갔소. 나는 기절한 듯 내 품에 쓰러진 소라이다를 감히 내버려 둘 수 없었소. 요컨대 올라간 이들은 어찌나 솜씨 좋게 해냈던지 순식간에 아히 모라토를 데리고 내려왔소. 두 손을 묶고 입에는 수건을 물려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는, 말을 하면 목숨을 잃으리라고 으름장을 놓았소. 딸은 아버지를 보자 보지 않으려고 두 눈을 가렸고, 아버지는 딸이 얼마나 제 뜻으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모른 채 아연했소. 그러나 이제는 발이 더 필요한 때라, 우리는 서둘러 재빨리 배에 올랐소. 배에 남아 있던 이들은 우리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겼나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었소.

"밤이 겨우 두 시간쯤 지났을 때 우리는 모두 배에 올라 있었소. 배에서 소라이다의 아버지의 손을 묶은 끈과 입에 물린 수건을 풀어 주었지만, 배교자는 다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목숨을 빼앗겠다고 일렀소. 그는 거기서 딸을 보자 몹시 애처롭게 한숨짓기 시작했고, 내가 딸을 꼭 끌어안고 있는데 딸이 뿌리치지도 불평하지도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자 더욱 그랬소. 그래도 배교자가 퍼붓는 숱한 으름장이 실제로 벌어질까 두려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소. 소라이다는 이제 배에 오른 것을, 우리가 노를 물에 담그려는 것을, 거기 아버지와 다른 무어인들이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배교자에게 내게 말을 전해 달라고 했소. 그 무어인들을 풀어 주고 아버지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토록 자기를 아껴 준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이오. 배교자가 내게 그 말을 전했고 나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소. 그러나 그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소. 그들을 거기 남겨 두면 곧 온 땅에 알려 도시를 들끓게 할 테고, 쾌속선 몇 척을 몰고 우리를 찾아 나서 뭍과 바다를 막을 테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될 테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교도의 첫 땅에 닿거든 그들을 풀어

주는 것뿐이라는 말이었소. 우리는 모두 이 의견에 따랐고,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당장 하지 않는 까닭을 일러 주자 소라이다도 납득했소. 그러자 곧 우리 용감한 노잡이들은 저마다 기쁨에 찬 침묵 속에 신이 나서 부지런히 노를 잡았고,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몸을 맡기며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교도의 땅인 마요르카 섬들을 향해 배를 몰기 시작했소.

"그러나 북풍이 조금 불고 바다가 좀 거칠어 마요르카 뱃길을 따라갈 수 없었소. 그래서 몹시 언짢았지만 어쩔 수 없이 뭍을 따라 오랑 쪽으로 가야 했소. 그 해안에서 알제로부터 60마일 떨어진 사르헬 마을에 들키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소. 또 그 근방에서 테투안에서 늘 장삿짐을 싣고 오는 소형 갤리선을 만나지 않을까도 두려웠소. 그래도 우리는 저마다, 그리고 다 함께, 해적질하는 배가 아니라 장삿배를 만난다면 우리가 망하기는커녕 더 안전하게 뱃길을 마칠 배를 빼앗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소. 배가 가는 동안 소라이다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내 두 손 사이에 머리를 묻고 있었고, 렐라 마리엔께 우리를 도와 달라고 부르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소.

"족히 30마일은 나아갔을 무렵 날이 밝았는데, 우리는 뭍에서 화승총 세 방 거리쯤 떨어져 있었소. 뭍은 온통 황량해서 우리를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소. 그래도 우리는 팔심으로 노를 저어, 이제 좀 잔잔해진 바다로 조금 나아갔소. 거의 2레과쯤 나아가자 무언가 먹는 동안 교대로 노를 젓기로 했소. 배에는 먹을 것이 넉넉히 실려 있었으니까. 그러나 노 젓는 이들은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니 노를 젓지 않는 사람들이 먹여 달라고,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노를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했소. 그렇게 하는데 순풍이 불기 시작해, 우리는 곧 돛을 올리고 노를 놓았으며, 다른 뱃길로 갈 수 없었으므로 오랑으로 뱃머리를 돌렸소. 모든 일이 아주 재빨리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우리는 돛을 달고 한

시간에 8마일이 넘는 빠르기로 나아갔소. 해적선을 만날까 하는 것 말고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소.

"우리는 바가리노 무어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교자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며 첫 기회에 풀어 줄 것이라고 그들을 달랬소. 소라이다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소. '오, 그리스도교도들이여, 그대들의 너그러움과 좋은 처신이라면 다른 무엇이든 바라고 믿을 수 있겠소. 그러나 나를 풀어 준다는 것만은, 그런 것을 곧이들을 만큼 나를 어리석게 여기지 마시오. 그대들은 이토록 너그럽게 돌려주려고 내 자유를 빼앗는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닐 테니까. 더구나 내가 누구인지, 나를 풀어 주면 그대들에게 무슨 이득이 돌아갈지 알면서 말이오. 그 이득에 값을 매기고 싶다면, 나와 이 불행한 내 딸을 위해, 아니면 딸 하나만이라도 위해, 그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금 여기서 내놓겠소. 딸은 내 영혼의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가 어찌나 서럽게 울기 시작했던지 우리 모두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소라이다도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소.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자 소라이다는 마음이 여려져 내 발치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끌어안으러 갔고,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이 어찌나 애처롭게 울었던지 거기 있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함께 울었소.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잔치 옷차림을 하고 그토록 많은 보석을 지닌 것을 보고 자기네 말로 말했소.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제 해 질 무렵, 우리가 이런 끔찍한 불행을 당하기 전에는 늘 입던 집안 옷차림이었는데, 지금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었고 차려입고 꾸밀 만한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 운이 가장 좋았을 때 내가 해 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은 꼴이라니. 이 물음에 대답해라. 이게 지금 내가 당한 불행보다 더 나를 얼떨떨하고 놀라게 하는구나.'

"무어인이 딸에게 하는 말을 배교자가 모두 우리에게 풀어 주었는데, 딸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소. 그러나 그는 배 한쪽에 딸이 늘 보석을 넣어 두던 작은 상자가 있는 것을 보자 더욱 어리둥절해졌소. 그 상자를 정원으로 가져오지 않고 알제에 두고 온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그 상자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으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었소. 그러자 배교자가 소라이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대답했소. '나리, 따님 소라이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묻느라 애쓰지 마시오. 내가 한 가지만 대답하면 그 모든 물음이 다 풀릴 테니까. 알아 두시오. 따님은 그리스도교도요. 우리 사슬을 끊은 줄칼이요, 우리 포로 신세에 찾아온 자유가 바로 따님이오. 따님은 제 뜻으로 여기 와 있소. 내가 짐작하기로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괴로움에서 영광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소.' '이자 말이 참이냐, 얘야?' 무어인이 말했소. '그래.' 소라이다가 대답했소. '그러니까 정말로' 노인이 되받았소. '네가 그리스도교도이고, 제 아비를 원수들 손에 넘긴 게 너란 말이냐?' 그러자 소라이다가 대답했소. '그리스도교도인 건 나야. 하지만 아버지를 이 지경에 빠뜨린 건 내가 아니야. 아버지를 버리거나 아버지한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 그저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 네가 너 자신에게 한 좋은 일이란 게 뭐냐, 얘야?' '그건' 딸이 대답했소. '렐라 마리엔께 여쭈어 봐. 렐라 마리엔이 나보다 더 잘 말해 주실 거야.'

"무어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빨리 바다로 거꾸로 몸을 던졌소.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긴 옷이 그를 물 위에 잠시 붙들어 주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빠져 죽었을 것이오. 소라이다가 그를 건져 내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곧 달려들어 알말라파를 붙잡고 반쯤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그를 끌어올렸소. 소라이다는 이 일로 어찌나 마음 아파했던지, 아버지가 이미 죽기라도 한 듯 그 위에 엎드려

애달프고 서럽게 울었소. 우리는 그를 엎어 놓았고, 그는 물을 많이 토하더니 두 시간 뒤에 정신이 들었소. 그사이 바람이 바뀌어 우리는 뭍 쪽으로 돌아가야 했고, 뭍에 부딪치지 않으려고 힘껏 노를 저어야 했소.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작은 곶 곁의 후미에 닿았는데, 무어인들은 그 곶을 카바 루미아의 곶이라 부르오. 우리말로 '나쁜 그리스도교도 여자'라는 뜻이오. 무어인들 사이에는 에스파냐를 잃게 한 카바가 그곳에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소.[1] 그들 말로 카바는 나쁜 여자, 루미아는 그리스도교도 여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을 때 거기 닻을 내리는 것조차 불길한 징조로 여기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면 결코 닻을 내리지 않소. 그러나 바다가 그토록 거칠던 때에 우리에게 그곳은 나쁜 여자의 은신처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 줄 안전한 항구였소.

"우리는 뭍에 보초를 세우고 노를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았소. 배교자가 마련해 둔 것을 먹고, 이토록 복된 시작을 무사히 끝맺도록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하느님과 성모님께 빌었소. 소라이다가 간청하여, 그 여자의 아버지와 거기 묶여 온 다른 무어인들을 모두 뭍에 내려 주기로 했소. 아버지가 묶여 있고 제 고향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에는 그 여자의 기운이 모자랐고, 그 여린 속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떠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소.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거기 남겨 두어도 위험할 것이 없었소. 우리 기도는 하늘이 들어주지 않을 만큼 헛되지 않았소. 곧 바람이 우리 편으로 바뀌고 바다가 잔잔해져, 시작한 뱃길을 기쁘게 이어 가라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어인들을 풀어 하나씩 뭍에 내려 주었는데, 그들은 어리둥절해했소. 그러나 이제 제정신이 다 돌아온 소라이다의 아버지를 내려 주려 하자 그가 말했소. '그리스도교도들이여, 이 못된 계집이 왜 그대들이 나를 풀어 주는 것을 반기는지 아시오? 나를 가엾게

여겨서라고 생각하시오? 천만에. 제 못된 욕망을 실행하려 할 때 내가 있으면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오. 그리고 이 애가 종교를 바꾼 것이 그대들의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대들 땅에서는 우리 땅에서보다 음탕한 짓을 더 자유롭게 하는 줄 알아서요.' 그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나와 다른 그리스도교도 하나가 그의 두 팔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는 소라이다에게 돌아서서 말했소. '오, 이 파렴치한 계집, 꾐에 넘어간 철부지야! 눈멀고 정신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 개들, 우리의 타고난 원수들 손에 이끌려? 내가 너를 낳은 그 시각은 저주받아라, 너를 길러 낸 그 귀여움과 호사도 저주받아라!' 그러나 그가 금방 그칠 기색이 아니어서 나는 서둘러 그를 뭍에 내려놓았는데, 그는 거기서 큰 소리로 저주와 탄식을 이어 가며, 무함마드에게 알라께 빌어 우리를 멸하고 어지럽히고 끝장내 달라고 해 달라고 빌었소. 우리가 돛을 올려 그의 말이 더는 들리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그가 하는 짓이 보였소.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칼을 잡아 뜯으며 땅바닥을 뒹굴었소. 그러나 한 번은 어찌나 목청을 돋우었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소. '돌아오너라, 사랑하는 딸아, 뭍으로 돌아오너라. 다 용서하마. 그 돈은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라, 이미 그들 것이다. 그리고 이 슬픈 아비를 달래러 돌아오너라. 네가 이 아비를 버리면 이 아비는 이 황량한 모래밭에서 목숨을 버릴 게다!' 소라이다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며 마음 아파하고 울었지만, 아버지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말했소. '알라께서 바라시기를,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교도가 되게 하신 렐라 마리엔께서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 주시기를. 알라께서는 잘 아셔. 나는 내가 한 것 말고는 달리 할 수가 없었고, 이 그리스도교도들은 내 뜻에 아무 빚도 없어. 이 사람들과 함께 오지 않고 집에 남고 싶었다 해도 그럴 수가 없었을 거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쁘다고

여기시지만 나한테는 그만큼 좋아 보이는 이 일을 해내라고 내 영혼이 그토록 나를 재촉했으니까.' 그 여자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았고, 우리도 이제 그를 볼 수 없었소. 그래서 나는 소라이다를 달래고, 우리는 모두 뱃길에 힘을 쏟았소. 바람까지 우리 뱃길을 거들어 주니, 이튿날 새벽이면 에스파냐 해안에 닿으리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소.

"그러나 좋은 일은 그것을 흐리거나 놀라게 하는 어떤 나쁜 일과 함께 오거나 뒤따르지 않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오는 법이 거의, 아니 아예 없으니, 우리 운이, 아니 어쩌면 그 무어인이 딸에게 퍼부은 저주가(어느 아버지의 저주든 늘 두려워해야 하는 법이오) 일을 이렇게 몰아갔소. 우리가 이미 먼바다로 나가 밤이 거의 세 시간쯤 지났을 때, 순풍이 노를 쓸 수고를 덜어 주어 노를 묶어 두고 돛을 위에서 아래까지 활짝 펴고 가는데, 환히 빛나는 달빛 아래 가까이에 돛을 모두 펼친 가로돛 범선 한 척이 키를 조금 바람 쪽으로 틀고 우리 앞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보였소. 어찌나 가까웠던지 부딪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돛을 내려야 했고, 저쪽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키를 힘껏 돌렸소.

"그들은 뱃전에 나와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오느냐고 물었소. 그러나 프랑스 말로 묻기에 우리 배교자가 말했소. '아무도 대답하지 마시오. 저자들은 틀림없이 닥치는 대로 털어 가는 프랑스 해적들이오.' 이 말을 듣고 아무도 한마디 대답하지 않았소. 조금 앞으로 지나가 그 배가 바람 아래쪽에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느닷없이 대포 두 방을 쏘았소. 보아하니 둘 다 사슬탄이었는데, 한 방으로 우리 돛대를 한가운데서 끊어 돛과 함께 바다에 떨어뜨렸고, 곧이어 쏜 다른 한 방은 우리 배 한가운데 맞아 배를 활짝 갈라놓았소. 다른 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자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살려 달라고,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 받아 달라고 범선 사람들에게 빌었소. 그러자

그들은 돛을 내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고, 화승총에 불붙인 화승까지 갖추고 잘 무장한 프랑스 사람 열두어 명이 거기 타고 우리 배 곁으로 왔소.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 배가 얼마나 가라앉고 있는지 보고 우리를 거두어 주며, 대답하지 않는 무례를 저질렀으니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 했소. 우리 배교자는 소라이다의 보물 상자를 집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바다에 던져 버렸소. 결국 우리는 모두 프랑스 사람들 배로 옮겨 탔는데, 그들은 우리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캐묻고 나서 철천지원수를 대하듯 우리가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았고, 소라이다에게서는 발에 찬 카르카헤까지 벗겨 갔소.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소라이다에게 주는 괴로움보다, 그들이 더없이 값지고 귀한 보석을 빼앗는 데서 나아가 가장 값지고 그 여자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석까지 빼앗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괴로웠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욕심은 돈에서 그치고, 돈에 대한 그들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는 법이 없소. 그때 그 탐욕이 어찌나 심했던지, 우리 포로 옷도 쓸모가 있었다면 벗겨 갔을 것이오. 그들 사이에는 우리를 모두 돛에 싸서 바다에 던지자는 의견도 있었소. 브르타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에스파냐의 몇몇 항구에서 장사를 할 작정이었는데, 우리를 산 채로 데려가면 도둑질이 드러나 벌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소라이다를 털어 간 선장이, 자기는 얻은 전리품으로 만족하며 에스파냐의 어느 항구에도 들르지 않고 밤에, 아니면 어떻게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떠나온 라로셸로 돌아가겠다고 했소.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배의 거룻배와 우리에게 남은 짧은 뱃길에 필요한 것을 모두 주기로 뜻을 모았고, 이튿날 에스파냐 땅이 보이는 곳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소. 그 땅을 보자 우리가 겪은 괴로움과 가난은 마치 우리에게 일어난 적이 없었던 듯 깡그리 잊혔소. 잃었던 자유를 되찾는 기쁨이란 그토록 큰 것이오.

"그들이 우리를 거룻배에 태운 것은 한낮 무렵이었을 것이오. 물 두 통과 건빵을 조금 주었소. 그리고 선장은 무슨 자비심이 동했는지 모르겠으나, 더없이 아름다운 소라이다가 배에 오를 때 금화 40에스쿠도쯤을 주었고,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옷만은 병사들이 벗겨 가지 못하게 했소. 우리는 거룻배에 오르며 그들이 베푼 은혜에 감사했고, 원망보다 고마움을 더 내보였소. 그들은 해협 쪽 뱃길을 따라 멀어져 갔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땅 말고는 다른 북극성을 보지 않고 어찌나 서둘러 노를 저었던지, 해 질 무렵에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 밤이 깊기 전에 닿을 수 있겠다 싶었소. 그러나 그날 밤은 달이 뜨지 않고 하늘이 어두웠으며,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도 몰랐으므로 뭍에 배를 대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았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는, 바위투성이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뭍에 대자고 했소. 바르바리에서 해 질 녘에 떠나 에스파냐 해안에서 날이 새고, 흔히 사람을 잡아다가 제 집에 돌아가 잠드는 테투안 해적선들이 그 근방에 다닐지 모르니, 그렇게 하면 그 마땅한 두려움을 덜 수 있으리라 여겼으니까. 그러나 엇갈린 의견 가운데 결국 조금씩 다가가다가 바다가 잔잔해지면 내릴 수 있는 곳에 내리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소.

"그대로 했고, 자정이 조금 못 되었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높은 산기슭에 닿았소. 산이 바다에 바짝 붙어 있지는 않아 편히 내릴 만한 땅이 조금 있었소. 우리는 모래밭에 배를 대고 뭍에 올라 땅에 입 맞추었고, 더없이 기쁜 눈물을 흘리며 모두 우리 주 하느님께 그 비할 데 없는 은혜에 감사드렸소. 거룻배에서 먹을 것을 꺼내고 배를 뭍으로 끌어올린 다음, 산을 한참 올라갔소. 거기까지 와서도 아직 가슴을 놓을 수 없었고, 우리를 떠받치는 땅이 그리스도교도의 땅이라는 것을 다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오. 내 생각에 날은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늦게 밝았소. 우리는 산을 끝까지 올라가 거기서 어떤 마을이나 양치기

오두막이라도 보이는지 살폈소. 그러나 아무리 멀리 눈을 뻗어도 마을도 사람도 오솔길도 길도 보이지 않았소. 그래도 우리는 땅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소. 곧 그 땅에 관해 알려 줄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여겼으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괴롭게 한 것은 소라이다가 그 험한 곳을 걸어서 가는 모습이었소. 몇 번 그 여자를 어깨에 업기도 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제가 쉬는 편안함보다 내가 지치는 괴로움이 더 컸기에 다시는 내가 그 수고를 하지 못하게 했소. 그 여자는 아주 참을성 있게, 기쁜 기색을 보이며 줄곧 내 손을 잡고 걸었소. 그렇게 4분의 1레과가 조금 못 되게 걸었을 즈음 작은 방울 소리가 들려왔는데, 근처에 가축이 있다는 분명한 표시였소. 모두 누가 보이는지 눈여겨 살피다가, 코르크참나무 밑에서 아주 한가롭고 태평하게 칼로 막대기를 깎고 있는 젊은 양치기 하나를 보았소. 우리가 소리쳐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고 날쌔게 일어섰소. 나중에 알고 보니 맨 먼저 그의 눈에 띈 것이 배교자와 소라이다였는데, 그들이 무어인 옷차림인 것을 보고는 바르바리 사람들이 모두 들이닥친 줄 알았다 하오. 그는 놀랄 만큼 날쌔게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며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크게 외쳐 댔소. '무어인이다, 무어인들이 쳐들어왔다! 무어인이다, 무어인이다!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들어라!'

"이 외침에 우리는 모두 어쩔 줄 몰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소. 그러나 양치기의 외침이 온 땅을 들끓게 할 테고 해안 기병대가 곧 무슨 일인지 보러 오리라는 생각에, 배교자가 튀르크 옷을 벗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곧 내준 질레쿠엘코, 곧 포로들이 입는 웃옷을 입기로 했소. 옷을 내준 사람은 속옷 바람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느님께 몸을 맡기고, 우리는 양치기가 간 바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해안 기병대가 언제 덮칠지 줄곧 기다렸소. 우리 생각은 틀리지 않았소.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덤불을 빠져나와 평지에 이르렀을 때, 말 탄 사람 쉰 명쯤이 고삐를 반쯤 늦추고

아주 날쌔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소. 그들을 보자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소. 그러나 그들은 다가와서 찾던 무어인 대신 그 많은 가련한 그리스도교도를 보고 어리둥절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양치기가 무기를 들라고 소리친 것이 혹시 우리 때문이냐고 물었소. '그렇소.' 내가 말했소. 그리고 내 사정과 우리가 어디서 왔고 누구인지 말하기 시작하려는데, 우리와 함께 온 그리스도교도 하나가 우리에게 물은 기병을 알아보고는 내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말했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내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벨레스말라가요. 포로로 지낸 세월이 내 기억을 앗아 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 나리, 당신은 내 숙부 페드로 데 부스타만테시오.' 그 그리스도교도 포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기병은 말에서 뛰어내려 젊은이를 끌어안으러 와서 말했소. '내 영혼이요 내 목숨인 조카야, 이제 알아보겠다. 나도, 네 어머니인 내 누이도, 아직 살아 있는 네 식구들도 모두 네가 죽은 줄 알고 울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살려 두시어 너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네가 알제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네 옷차림과 이 일행 모두의 옷차림을 보니 기적처럼 자유를 얻은 모양이로구나.' '그렇소.' 젊은이가 대답했소. '모두 이야기해 드릴 시간은 넉넉하오.'

"기병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교도 포로라는 것을 알자 말에서 내려, 저마다 자기 말을 내주며 1레과 반 떨어진 벨레스말라가 시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했소. 몇은 우리가 거룻배를 둔 곳을 듣고 배를 시로 가져가려고 되돌아갔고, 다른 이들은 우리를 말 엉덩이에 태웠소. 소라이다는 그 그리스도교도의 숙부의 말 엉덩이에 탔소. 먼저 달려간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터라 온 고을 사람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왔소. 풀려난 포로나 붙잡힌 무어인을 보고 놀라지는 않았소. 그 해안 사람들은 모두 그런 이들을 보는 데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라이다의 아름다움에 놀랐소. 그때 그 여자는 마침 가장 아름다울 때였소. 길을 오느라 지치기도 했고, 이제 그리스도교도의 땅에 와서 잘못될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기쁨도 있어 얼굴에 그런 빛이 돌았으니, 그때 애정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감히 말하건대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었소. 적어도 내가 본 사람 가운데는.

"우리는 곧장 성당으로 가서 받은 은혜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렸소. 소라이다는 성당에 들어서자 거기 렐라 마리엔을 닮은 얼굴들이 있다고 했소. 우리는 그것이 성모님의 상이라고 일러 주었고, 배교자가 될 수 있는 대로 그 뜻을 깨우쳐 주어, 그 상 하나하나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넸던 바로 그 렐라 마리엔이기라도 한 듯 공경하게 했소. 지성이 좋고 타고난 성품이 막힘없고 밝은 그 여자는 상에 관해 들은 것을 곧 모두 알아들었소. 거기서 사람들은 우리를 고을의 여러 집으로 나누어 데려갔소. 그러나 배교자와 소라이다와 나는 우리와 함께 온 그리스도교도가 제 부모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은 재산이 그럭저럭 넉넉했고, 우리를 제 아들만큼이나 정성껏 대접해 주었소.

"우리는 벨레스에서 엿새를 지냈소. 엿새가 지나자 배교자는 필요한 증언을 모두 갖추어, 거룩한 종교 재판소를 거쳐 교회의 더없이 거룩한 품으로 돌아가려고 그라나다로 떠났소. 풀려난 다른 그리스도교도들도 저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소. 남은 것은 소라이다와 나 둘뿐이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프랑스 선장이 친절을 베풀어 소라이다에게 준 에스쿠도뿐이었소. 그 돈으로 나는 그 여자가 타고 온 이 짐승을 샀소.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요 종자로서 그 여자를 섬기며,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동생들 가운데 누가 나보다 나은 운을 만났는지 알아보러 가는 길이오. 하늘이 나를 소라이다의 길동무로 삼아 주셨으니, 아무리 좋은 운이라도 이보다 더 귀히 여길 운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오. 소라이다가 가난이 몰고 오는 고생을

견디는 참을성과 어서 그리스도교도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찌나 크고 갸륵한지, 나는 감탄하며 평생 그 여자를 섬기고 싶어지오. 그러나 내가 그 여자의 사람이 되고 그 여자가 내 사람이 되는 이 기쁨도, 내 고향에 그 여자를 들일 구석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지, 세월과 죽음이 아버지와 동생들의 재산과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그들이 없다면 나를 알아볼 사람 하나 찾기도 어렵지 않을지 몰라 흐려지고 무너지오. 여러분, 내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요. 이 이야기가 즐겁고 진기한지는 여러분의 훌륭한 판단에 맡기겠소. 나로서는 더 짧게 이야기했으면 좋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소. 여러분을 지루하게 할까 두려워 자잘한 사정을 네 가지도 넘게 혀끝에서 거두어들였지만 말이오."

---

1. 에스파냐 전설에서 서고트 왕 로드리고에게 몸을 더럽힌 훌리안 백작의 딸 플로린다. 아버지가 앙갚음하려고 무어인을 끌어들여 711년 에스파냐가 정복되었다고 한다.

제42장 객줏집에서 더 일어난 일과 알아 둘 만한 다른 많은 일들을 다룬다

이렇게 말하고 포로가 입을 다물자 돈 페르난도가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대위님, 이 기이한 일을 들려준 솜씨가 일 그 자체의 새로움과 기이함에 견줄 만하오. 모든 것이 진기하고 드물며,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숨죽이게 하는 곡절로 가득하오. 듣는 동안 우리가 얻은 즐거움이 어찌나 컸던지,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해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돈 페르난도와 다른 이들은 모두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그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고 진심이었던지 대위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다. 특히 돈 페르난도는, 자기와 함께 돌아가겠다면 후작인 형에게 소라이다의 세례 대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도 힘을 써서 그가 제 신분에 걸맞은 위엄과 넉넉함을 갖추고 고향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포로는 그 모든 호의에 더없이 정중하게 감사했지만, 그 너그러운 제안은 하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밤이 다가왔는데, 날이 저물 무렵 말 탄 사람 몇을 거느린 마차 한 대가 객줏집에 닿았다. 그들이 묵을 곳을 청하자 객줏집 안주인은 객줏집 어디에도 한 뼘 빈자리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 해도" 들어온 말 탄 사람 하나가 말했다. "여기 오신 청문관 나리께 드릴 자리는 있어야 하오."

그 직함을 듣자 안주인은 당황하여 말했다.

"나리, 실은 침대가 없어서 그래요. 청문관 나리께서 침대를 가지고 오셨다면, 틀림없이 가지고 오셨겠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저하고 제 남편이 나리를 모시려고 우리 방을 비워 드릴게요."

"그럼 됐소." 종자가 말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마차에서 사내 하나가 내려 있었는데, 옷차림만 보아도 그의 직무와 직위를 곧 알 수 있었다. 소매에 주름을 잡은 긴 옷을 입은 것이, 하인이 말한 대로 청문관이었다. 그는 열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가씨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길 떠나는 옷차림을 한 그 아가씨가 어찌나 맵시 있고 아름답고 늠름했던지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모두 감탄했다. 객줏집에 있던 도로테아와 루스신다와 소라이다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 아가씨만 한 아름다움은 다시 찾기 어려우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청문관과 아가씨가 들어설 때 마침 돈키호테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청문관을 보자마자 말했다.

"그대는 마음 놓고 이 성에 들어와 편히 쉬어도 좋소. 이곳이 비좁고 갖춘 것이 없기는 하나, 무예와 학문에 자리를 내주지 않을 비좁음이나 불편은 세상에 없소. 더구나 무예와 학문이 아리따움을 길잡이이자 앞장으로 삼고 온다면 말이오. 그대의 학문이 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앞세우고 온 것처럼. 이 아가씨를 맞아들이려면 성들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낼 뿐 아니라, 바위들이 비켜서고 산들이 갈라지고 낮아져야 마땅하오. 다시 말하노라. 그대는 이 낙원으로 들어오시오. 여기서 그대가 데려온 하늘을 함께할 별들과 해들을 보게 될 것이오. 여기서 무예는 그 절정에, 아름다움은 그 극치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오."

청문관은 돈키호테의 연설에 놀라 그를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의 말 못지않게 그의 생김새에도 놀랐다. 대답할 말을 하나도 찾지 못한 채 있는데, 새 손님들 소식과 아가씨가 아름답다는 객줏집 안주인의 말을

듣고 아가씨를 보고 맞아들이러 나온 루스신다와 도로테아와 소라이다가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다시금 놀랐다. 그러나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신부가 더 수수하고 정중하게 그를 맞아들였다. 아무튼 청문관 나리는 보는 것에도 듣는 것에도 어리둥절한 채 들어섰고, 객줏집의 미인들은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반갑게 맞이했다.

요컨대 청문관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체 높은 이들임을 잘 알아보았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생김새와 얼굴과 풍채만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서로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객줏집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따져 본 끝에, 이미 정해 두었던 대로 여자들은 모두 앞서 말한 다락방으로 들어가고 남자들은 그들을 지키듯 밖에 남기로 했다. 그래서 청문관도 그 아가씨, 곧 자기 딸이 그 아씨들과 함께 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했고, 딸도 아주 기꺼이 따랐다. 그들은 객줏집 주인의 좁은 침대 일부와 청문관이 가져온 침대의 절반으로, 그날 밤 생각보다 편히 지냈다.

포로는 청문관을 본 순간부터 가슴이 마구 뛰며 저 사람이 자기 동생이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온 하인 하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느 고장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하인은 그가 석사 후안 페레스 데 비에드마이며, 레온 산악 지방의 한 마을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말과 제 눈으로 본 것으로 그는 저 사람이 아버지의 충고대로 학문의 길을 따른 자기 동생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고 기뻐서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신부를 따로 불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 청문관이 틀림없이 자기 동생이라고 했다. 하인은 또, 그가 멕시코 고등 법원 청문관으로 임명되어 인디아스로 가는 길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그의 딸인데, 딸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고, 딸과 함께 집에 남은 지참금 덕에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세 사람에게, 어떻게

자기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밝히기 전에 동생이 가난한 자기를 보고 부끄러워할지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 줄지 먼저 알아볼 방도가 없는지 의논했다.

"그 시험은 나한테 맡겨 주시오." 신부가 말했다. "더구나 대위, 그대가 아주 반갑게 맞아들여지리라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것도 없소. 그대 동생의 훌륭한 풍채에 드러난 기품과 사려를 보면, 거만하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같지도 않고, 운명이 몰고 온 일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사람 같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대위가 말했다. "느닷없이 말고 에둘러서 나를 알리고 싶소."

"이미 말했잖소." 신부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 흡족하게 내가 꾸며 보겠소."

그러는 사이 저녁이 차려져, 포로와 아씨들 말고는 모두 식탁에 앉았다. 포로와 아씨들은 자기들 방에서 따로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반쯤 먹었을 때 신부가 말했다.

"청문관 나리, 내가 여러 해 포로로 지낸 콘스탄티노플에서 나리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료가 하나 있었소. 그 동료는 에스파냐 보병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용감한 병사이자 대위였지만, 굳세고 용맹한 만큼이나 운이 없었소."

"그 대위의 이름이 무엇이었소, 신부님?" 청문관이 물었다.

"그의 이름은" 신부가 대답했다. "루이 페레스 데 비에드마였고, 레온 산악 지방의 한 마을 출신이었소. 그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 하나를 내게 들려주었는데, 그처럼 참된 사람이 들려준 것이 아니었다면 겨울날 노파들이 난롯가에서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로나 여겼을 것이오. 그의 말로는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카토의 충고보다 나은 충고를 몇 가지 해 주었다 하오.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를 고른 그 사람이 어찌나 잘 풀렸던지, 몇

해 안 되어 그 용맹과 기개로, 오로지 제 높은 덕의 팔 하나로 보병대위에 올랐고, 머지않아 연대장이 될 길에 들어서 그런 평판까지 얻었다는 것이오. 그러나 운명이 그를 거슬렀소. 좋은 운을 바라고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이가 자유를 되찾은 더없이 복된 그 원정에서 자유를 잃으며 운도 잃었으니까. 레판토 해전이었소. 나는 골레타에서 자유를 잃었고, 그 뒤로 여러 곡절을 거쳐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료가 되었소. 그는 거기서 알제로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일어난 가장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를 겪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여기서부터 신부는 이야기를 이어 가며 그의 형이 소라이다와 겪은 일을 간추려 짧게 들려주었다. 청문관은 그 모든 이야기에 어찌나 귀를 기울였던지, 그때만큼 '듣는 벼슬'이라는 청문관의 이름값을 한 적이 없었다. 신부는 프랑스 사람들이 배에 탄 그리스도교도들을 털어 간 대목, 그리고 자기 동료와 아름다운 무어 여자가 빠진 가난과 궁핍까지만 이야기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에스파냐에 닿았는지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로 데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대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부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고, 동생의 몸짓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다. 동생은 신부가 이야기를 다 마친 것을 보자 크게 한숨을 쉬고 눈에 눈물이 그득 고여 말했다.

"오, 신부님, 신부님이 들려주신 이 소식이 무엇인지, 이 소식이 나와 얼마나 깊이 닿아 있는지 아신다면! 그래서 나는 내 분별과 조심성을 거슬러 눈에서 흘러나오는 이 눈물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소. 말씀하신 그 용맹한 대위는 내 맏형이오. 형은 나나 다른 막냇동생보다 굳세고 뜻이 높아서, 우리 아버지가 내놓은 세 길 가운데 하나인 명예롭고 값진 전쟁의 길을 골랐소. 신부님 생각에는 옛날이야기 같다던 그 이야기에서 신부님 동료가 말한 그대로요. 나는 학문의 길을

따랐는데, 하느님과 내 부지런함 덕분에 학문에서 지금 보시는 자리에 올랐소. 막냇동생은 페루에 있는데, 아버지와 내게 보낸 것으로 제가 가져간 몫을 넉넉히 갚고도 남을 만큼 부자요. 아버지 손에 타고난 너그러움을 마음껏 채울 만큼을 쥐여 드렸고, 나 또한 그 덕에 공부하는 동안 더 품위 있고 의젓하게 지내며 지금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소.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지만, 맏아들 소식을 알고 싶어 애태우다 돌아가시게 생겼소. 그리고 맏아들의 두 눈이 살아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이 당신 눈을 감기지 않게 해 달라고 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시오. 그토록 사려 깊은 형이, 그 숱한 고생과 괴로움 속에서, 또는 잘 풀릴 때에도 아버지께 제 소식을 알리는 일을 어찌 소홀히 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오. 아버지나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알았더라면, 몸값을 얻으려고 갈대 장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형을 풀어 주었을지, 아니면 제 도둑질을 감추려고 죽였을지 하는 생각이오. 이 모든 일로 나는 처음 길을 떠날 때의 그 기쁨이 아니라 온통 시름과 슬픔에 잠겨 길을 가게 될 것이오. 오, 착한 내 형님, 지금 형님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려 준다면! 내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형님을 찾아가 고생에서 건져 낼 텐데! 오, 형님이 바르바리의 가장 깊숙한 지하 감옥에 있다 해도 살아 있다는 소식을 우리 늙은 아버지께 누가 전해 드린다면! 아버지의 재산과 동생의 재산과 내 재산이 형님을 거기서 꺼내 줄 텐데! 오, 아름답고 너그러운 소라이다여, 그대가 한 형제에게 베푼 은혜를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대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그토록 기쁘게 할 그 혼례에 누가 함께할 수 있을까!"

청문관은 형의 소식을 듣고 깊은 연민에 차서 이런 말과 비슷한 말들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기색을 보였다.

신부는 자기 뜻과 대위의 바람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보자 모두를 더 오래 슬프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 소라이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손을 잡았고, 루스신다와 도로테아와 청문관의 딸이 그 뒤를 따라 나왔다. 대위는 신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는 다른 손으로 대위의 손도 잡고 두 사람을 데리고 청문관과 다른 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청문관 나리, 눈물을 거두시오. 바랄 수 있는 모든 복으로 나리의 바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오. 나리 앞에 나리의 착한 형님과 착한 형수님이 있으니 말이오. 여기 보시는 이 사람이 비에드마 대위이고, 이 사람이 그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푼 아름다운 무어 여자요. 내가 말한 프랑스 사람들이 이들을 보시는 대로 궁색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나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 주시오."

대위가 동생을 끌어안으려 달려가자, 동생은 조금 떨어져서 그를 보려고 그의 가슴에 두 손을 얹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알아보자 어찌나 꼭 끌어안고 어찌나 애틋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함께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형제가 서로 나눈 말과 내보인 마음은 글로 쓰기는커녕 상상하기도 어려우리라. 거기서 그들은 짧은 말로 서로 겪은 일을 알렸고, 거기서 두 형제의 좋은 우애가 오롯이 드러났으며, 거기서 청문관은 소라이다를 끌어안았고, 거기서 그 여자에게 제 재산을 내주겠다고 했고, 거기서 제 딸에게 그 여자를 끌어안게 했으며, 거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교도 처녀와 더없이 아름다운 무어 여자가 모두의 눈물을 새로이 자아냈다.

거기서 돈키호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기이한 일들을 눈여겨보며 그 모두를 편력 기사도의 환상 탓으로 돌렸다. 거기서 그들은, 대위와 소라이다가 동생과 함께 세비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그를 찾아내고 그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대로 와서

소라이다의 혼례와 세례에 참석하게 하기로 의논을 모았다. 청문관은 가던 길을 그만둘 수 없었는데, 한 달 뒤에 세비야에서 누에바 에스파냐로 선단이 떠난다는 소식이 있어 그 배를 놓치면 몹시 곤란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두 포로의 일이 잘 풀린 것을 흐뭇해하고 기뻐했다. 그리고 밤이 이미 제 길의 거의 3분의 2를 지났으므로, 그들은 잠자리에 들어 남은 밤 동안 쉬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그 성 안에 갇힌 아름다움이라는 큰 보물을 탐내 어떤 거인이나 다른 떠돌이 비겁한 놈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그를 아는 이들이 그에게 고마워하며 청문관에게 돈키호테의 기이한 기질을 들려주자, 청문관은 적잖이 재미있어했다.

산초 판사만은 잠자리에 드는 것이 늦어지자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만이 당나귀 마구를 깔고 누워 누구보다 편히 잤는데, 그 마구가 나중에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게 했는지는 뒤에서 이야기하겠다.

아씨들은 제 방에 들고, 다른 이들은 저마다 그나마 덜 불편하게 자리를 잡자, 돈키호테는 약속한 대로 성의 보초를 서러 객줏집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동트기 얼마 전, 어찌나 곱고 가락이 맞는 목소리 하나가 아씨들의 귀에 들려왔던지 그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깨어 있던 도로테아가 그랬는데, 그 곁에서는 도냐 클라라 데 비에드마가 자고 있었다. 청문관의 딸 이름이 그러했다. 누가 그토록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는데, 어떤 악기도 곁들이지 않은 목소리 하나뿐이었다. 때로는 마당에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마구간에서 부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어리둥절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카르데니오가 방문 앞으로 와서 말했다.

"잠들지 않은 분은 들어 보시오. 노새 모는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로 사람을 홀리고 있소."

"벌써 듣고 있소, 나리."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그러자 카르데니오는 돌아갔고, 도로테아가 온 정신을 기울여 들어 보니 부르는 노래는 이러했다.

제43장 노새 모는 젊은이의 즐거운 이야기와 객줏집에서 일어난 다른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한다

"나는 사랑의 뱃사람,
그 깊은 바다 위를
어느 항구에도 닿으리란
희망 없이 떠도네.
나는 별 하나를 따라가네,
멀리서 바라보는 별,
팔리누루스가 본 어떤 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별.
그 별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몰라
나는 갈피 없이 노 저어 가네.
넋은 그 별을 바라보는 데 쏠려
애태우면서도 넋을 놓고서.
주제넘은 조심스러움,
세상 법도에 어긋난 정숙함,
그것이 그 별을 가리는 구름,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할 때.
오, 밝고 빛나는 별이여,
그 불빛에 나는 애가 타네.
네가 내게서 모습을 감추는 순간,
그 순간이 내 죽음의 순간이리라."

노래하는 이가 여기에 이르자, 도로테아는 클라라가 이토록 좋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클라라를 이리저리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깨워서 미안해, 얘. 네가 평생 들어 본 가운데 가장 좋은 목소리일지도 모르는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

클라라는 잠에 흠뻑 취한 채 깨어나 처음에는 도로테아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다시 묻자 도로테아가 다시 말해 주었고, 그제야 클라라는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노래하는 이가 이어 부르는 노래를 두 줄도 채 듣기 전에, 클라라는 무슨 지독한 학질에라도 걸린 듯 기이하게 떨기 시작하더니 테오도라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아, 제 영혼이요 목숨인 아씨, 왜 저를 깨우셨어요? 지금 운명이 제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제 눈과 귀를 닫아 두어 저 불행한 노래꾼을 보지도 듣지도 않게 하는 거였는데요."

"무슨 소리니, 얘? 노래하는 사람은 노새 모는 젊은이라던데."

"노새꾼이 아니라 여러 고을의 주인이에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제 마음에도 그토록 굳게 자리를 차지한 주인이라, 그 사람이 떠나려 하지 않는 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도로테아는 그 소녀의 절절한 말에 놀랐다. 그 어린 나이에 기대할 만한 슬기를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말했다.

"클라라 아가씨,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좀 더 분명히 말해 보세요. 마음이니 고을이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가씨를 그토록 들썩이게 하는 저 노래꾼 목소리는 또 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씀 마세요. 아가씨가 놀란 걸 달래 주느라 노래 듣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새 노랫말과 새 가락으로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클라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두 귀를 막았는데, 도로테아는 이것에도 놀랐다. 도로테아가 노래에 귀를 기울이자 노래는 이렇게 이어졌다.

"나의 달콤한 희망이여,
불가능과 덤불을 헤치며
네가 몸소 지어내고 닦아 놓은
그 길을 굳게 따라가는 희망이여,
걸음마다 네 죽음의 걸음 곁에
서 있는 너를 보고도 기죽지 마라.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리,
명예로운 개선도 어떤 승리도.
행복할 수도 없으리,
운명에 맞서지 않고
힘없이 넋을 놓은 채
부드러운 안일에 온 감각을 내맡기는 자는.
사랑이 제 영광을 비싸게
파는 것은 마땅한 이치요 바른 거래이니,
제 기쁨으로 순도를 가늠한 것보다
더 값진 보물은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분명한 일은,
적게 들인 것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사랑의 끈기는
때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내니,
나 비록 내 끈기로
사랑의 가장 어려운 길을 따라가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않으리,
땅에서 하늘에 닿지 못할까 봐."

여기서 목소리는 끝이 났고, 클라라는 새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도로테아의 궁금증에 불을 지펴, 그토록 부드러운 노래와 그토록 슬픈 울음의 까닭을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아까 하려던 말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클라라는 루스신다가 들을까 두려워 도로테아를 꼭 끌어안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로테아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말했다.

"아씨, 저 노래하는 사람은 아라곤 왕국 태생의 어느 기사의 아들이에요. 그 기사는 두 고을의 주인인데, 궁정이 있는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 집 맞은편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겨울이면 창에 천을 치고 여름이면 격자 창살을 달아 두셨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러 다니던 그 젊은 기사가 저를 보았어요. 성당에서였는지 다른 데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 집 창에서 손짓과 눈물로 어찌나 그 마음을 알려 왔던지,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무얼 바라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을 믿게 되었고 좋아하게까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보낸 손짓 가운데는 한 손을 다른 손에 맞잡아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저와 혼인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아주 기쁘겠다 싶었지만, 어머니도 없이 혼자라서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두고 다른 호의는 베풀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집에 안 계시고 그 사람 아버지도 집에 없을 때 천이나 격자 창살을 조금 들어 올려 제 모습을 다 보여 준 것 말고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미쳐 버릴 것 같은 기색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떠나실 때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알려 준 건 아니에요. 한 번도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그 일로 마음이 아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날 눈으로나마 작별을 하려 해도 끝내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여기서 하루 길 떨어진 마을의 어느 숙소에 들어서다가 여관 문간에서 노새 모는 젊은이 옷차림을 한 그 사람을 보았어요. 어찌나 감쪽같던지, 제 마음에 그 사람 모습을 그토록 또렷이 새겨 두지 않았더라면 알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 놀랐고 기뻤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몰래 저를 보았어요. 길에서든 우리가 묵는 숙소에서든 제 앞을 지나갈 때면 늘 아버지 눈을 피해 숨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를 사랑해서 그토록 고생하며 걸어서 따라온다는 걸 생각하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발을 딛는 곳마다 제 눈길이 따라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오는지, 어떻게 아버지 곁을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버지는 그 사람을 끔찍이 아끼거든요. 다른 상속자도 없고, 아씨도 그 사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모두 자기 머리로 지어낸 거래요. 아주 대단한 학생이고 시인이라고 들었어요. 또 있어요. 그 사람을 보거나 노래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리고 깜짝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 마음을 눈치채실까 봐 무서워서요. 저는 평생 그 사람과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씨, 아씨를 그토록 흐뭇하게 한 목소리의 주인인 저 노래꾼에 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새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고을의 주인이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더 말하지 마세요, 도냐 클라라 아가씨." 그때 도로테아가 말하며 클라라에게 천 번은 입을 맞추었다. "더 말하지 마세요, 정말요. 새날이 밝기를 기다리세요. 하느님께 바라건대 제가 아가씨 일을 잘 이끌어서, 이토록 바른 시작에 걸맞은 행복한 끝을 맺게 해 드릴게요."

"아, 아씨!" 도냐 클라라가 말했다. "무슨 끝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아버지는 그토록 지체 높고 부자라서 저 같은 건 그 아들의 하녀도 못 된다고 여기실 텐데, 아내라니요. 그렇다고 아버지 몰래 혼인하는 건 세상을 다 준대도 못 해요. 그저 저 젊은이가 돌아가서 저를 내버려

두기만 바랄 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가 갈 먼 길을 가다 보면 지금 품은 이 괴로움이 덜어질지도 모르죠. 제가 생각해 낸 이 방법이 별로 소용없으리라는 것도 알지만요. 이게 무슨 귀신 같은 일인지, 이 사랑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리고 그 사람도 이렇게 어린데요. 정말이지 우리는 같은 나이일 거예요. 저는 열여섯 살도 아직 안 찼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번 성 미카엘 축일이면 찬대요."

도냐 클라라가 꼭 어린애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도로테아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아가씨, 남은 밤이 얼마 안 될 테니 좀 쉬어요. 하느님께서 날을 밝혀 주시면 일이 잘 풀릴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제 손재주가 형편없는 거고요."

이 말에 두 사람은 잠잠해졌고, 객줏집은 온통 깊은 정적에 잠겼다. 다만 객줏집 주인의 딸과 그 집 하녀 마리토르네스만은 자지 않았다. 두 여자는 돈키호테가 앓는 그 기질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무장을 갖추고 말에 올라 객줏집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므로, 그에게 무슨 장난을 치든지 적어도 그의 헛소리를 들으며 시간이나 좀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객줏집에는 들판 쪽으로 난 창이 하나도 없고, 밖에서 짚을 던져 넣는 건초 헛간의 구멍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반쯤 아가씨인 두 여자가 이 구멍으로 가서 보니, 돈키호테는 말에 올라 긴 창에 몸을 기댄 채 이따금 애처롭고 깊은 한숨을 쉬는데, 한숨마다 넋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

"오, 나의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모든 아름다움의 극치요, 슬기의 끝이자 마무리요, 가장 빼어난 맵시의 문서고요, 정숙함의

곳간이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롭고 정숙하고 즐거운 것의 이데아여!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고? 혹시 오직 그대를 섬기려고 스스로 그토록 숱한 위험에 몸을 던진, 그대에게 사로잡힌 이 기사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고? 오, 세 얼굴을 지닌 등불이여, 네가 아씨의 소식을 내게 전해 다오! 어쩌면 너는 지금 아씨의 얼굴을 시샘하며 아씨를 바라보고 있으리라. 아씨는 화려한 궁전의 어느 회랑을 거닐거나 어느 발코니에 가슴을 기대고서, 정숙함과 위엄을 지키면서 시름에 겨운 내 마음이 아씨 때문에 겪는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지, 내 괴로움에 어떤 영광을, 내 근심에 어떤 평안을, 마침내 내 죽음에 어떤 삶을, 내 섬김에 어떤 상을 내릴지 궁리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너 해야, 내 아씨를 보러 일찍 나서려고 벌써 서둘러 네 말들에 안장을 얹고 있을 해야, 아씨를 보거든 부디 나를 대신해 인사를 전해 다오. 그러나 아씨를 보고 인사할 때 그 얼굴에 입을 맞추지는 마라. 그랬다가는 테살리아 들판인지 페네이오스 강가인지에서 너를 그토록 땀 흘리며 달리게 한 그 날랜 배은망덕한 여인을 두고 네가 품었던 질투보다 더한 질투를 내가 너에게 품게 되리라.[1] 질투와 사랑에 사로잡혀 그때 네가 어디를 달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만."

돈키호테가 그 애처로운 말을 여기까지 늘어놓았을 때, 객줏집 주인의 딸이 쉿쉿 소리를 내며 그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리, 괜찮으시면 이리 좀 와 보세요."

그 손짓과 목소리에 돈키호테가 고개를 돌려 보니, 그때 한창 밝게 빛나던 달빛 아래 그 구멍에서 누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 구멍이 창으로, 그것도 그가 상상하는 이 객줏집처럼 화려한 성이라면 마땅히 갖추었을 황금 창살이 달린 창으로 보였다. 그러자 곧바로 그 미친 상상 속에, 지난번처럼 이 성 안주인의 딸인 아리따운 아가씨가 사랑에 못 이겨 다시 자기를 꾀러 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런

생각에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구멍으로 다가갔고, 두 처녀를 보자 말했다.

"아리따운 아씨, 그대의 큰 값어치와 기품에 걸맞게 보답할 수 없는 곳에 그대가 사랑의 마음을 두었으니 가엾구려. 이 일로 이 비참한 편력 기사를 탓하지 마시오. 그의 눈이 그 여인을 본 순간 그 여인을 제 영혼의 절대적인 아씨로 삼게 한 그 여인 말고는, 사랑이 그를 묶어 누구에게도 제 뜻을 바칠 수 없게 했으니까. 용서하시오, 착한 아씨, 그대 방으로 물러가시오. 그대의 바람을 더 드러내어 내가 더 배은망덕하게 보이게 하지 마시오. 그대가 내게 품은 사랑을 채워 줄 것이 사랑 그 자체 말고 내게 있다면 청하시오. 저 멀리 있는 나의 달콤한 원수에게 걸고 맹세하노라. 그대가 뱀으로 된 메두사의 머리칼 한 타래를, 아니면 유리병에 가둔 햇살 그 자체를 청한다 해도 당장 드리리라."

"아씨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기사 나리." 그때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시녀 부인이여, 그대의 아씨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리의 그 아름다운 손 하나만요."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이 구멍까지 오게 한 크나큰 그리움을 그 손으로 풀어 보시려고요. 명예까지 걸고 오셨거든요. 아버님께서 눈치라도 채셨다면 아씨 몸에서 가장 작게 썰려 나갈 조각이 귀였을 거예요."

"그런 꼴을 어디 한번 보고 싶구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실 것이오. 사랑에 빠진 딸의 연약한 몸에 손을 댄 탓에 세상 어느 아버지보다 비참한 최후를 맞고 싶지 않다면 말이오."

마리토르네스는 돈키호테가 틀림없이 청한 손을 내주리라 여겨, 무엇을 할지 속으로 궁리하고는 구멍에서 내려와 마구간으로 갔다. 거기서 산초 판사의 당나귀 고삐를 집어 들고 아주 재빨리 구멍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돈키호테는 사랑에 다친 아가씨가 있으리라 상상하는 창살 달린 창에 닿으려고 로시난테의 안장 위에 올라서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받으시오, 아씨, 이 손을. 아니, 더 잘 말하자면 세상 악당들의 이 형리를. 받으시오, 이 손을, 내 말하노라. 어떤 여인의 손도, 내 온몸을 온전히 차지한 그 여인의 손조차 닿은 적 없는 손이오. 입 맞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줄의 짜임새와 근육의 얽힘과 핏줄의 굵고 넓음을 보라고 드리는 것이오. 그것을 보면 이런 손을 지닌 팔의 힘이 어떠할지 짐작하리라."

"이제 보게 되겠죠."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고삐에 올가미를 지어 그의 손목에 건 다음, 구멍에서 내려와 남은 끝을 건초 헛간 문빗장에 아주 단단히 묶었다. 손목에 닿는 밧줄이 거친 것을 느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는 내 손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강판에 가는 것 같구려. 그렇게 모질게 다루지 마시오. 내 마음이 그대에게 저지르는 잘못은 이 손의 탓이 아니니, 이렇게 작은 데다 그대 노여움을 통째로 앙갚음하는 것은 옳지 않소. 잘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고약하게 앙갚음하지 않는 법이오."

그러나 돈키호테의 이 모든 말을 이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리토르네스는 그를 묶자마자 다른 처녀와 함께 우스워 죽겠다며 가 버렸고, 그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게 묶인 채 남았다.

앞서 말했듯 그는 로시난테 위에 선 채 팔을 통째로 구멍에 들이밀고 손목이 문빗장에 묶여 있었으므로, 로시난테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켜서기라도 하면 팔에 매달리게 될까 봐 몹시 두렵고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감히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하기야 로시난테의 참을성과 얌전함으로 보아서는 백 년이라도 꼼짝하지 않고 서 있으리라고 기대할 만했다.

요컨대 돈키호테는 자기가 묶이고 아씨들이 이미 가 버린 것을 보자, 지난번 바로 이 성에서 그 마법에 걸린 무어인, 곧 노새꾼에게 두들겨 맞았을 때처럼 이 모든 일이 마법의 소행이리라는 상상에 빠졌다. 그리고 처음에 그 성에서 그토록 혼쭐이 났는데도 두 번째로 감히 들어온 자기의 분별없음과 생각 없음을 속으로 저주했다. 어떤 모험을 시도했다가 잘 끝내지 못하면 그 모험은 자기를 위해 남겨 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이니 두 번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편력 기사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풀려날 수 있을까 하고 팔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어찌나 단단히 묶였던지 아무리 애써도 헛일이었다. 물론 로시난테가 움직이지 않게 조심조심 당기기는 했다. 안장에 앉고 싶어도 그대로 서 있거나 손을 뽑아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그는 어떤 마법도 당해 내지 못하던 아마디스의 칼을 아쉬워했고, 거기서 제 운명을 저주했으며,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 마법에 걸려 있는 동안 세상이 자기를 얼마나 아쉬워할지 부풀려 생각했다. 그는 틀림없이 마법에 걸렸다고 믿었으니까. 거기서 그는 사랑하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다시 떠올렸고, 거기서 착한 종자 산초 판사를 불렀는데, 산초는 당나귀 길마 위에 누워 잠에 파묻힌 채 그 순간에는 저를 낳은 어머니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거기서 그는 현자 리르간데오와 알키페를 불러 도와 달라고 했고, 거기서 좋은 벗 우르간다에게 구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아침을 맞았는데, 어찌나 절망하고 어쩔 줄 몰랐던지 황소처럼 울부짖었다.

마법에 걸렸다고 여겼으므로 그 시름이 영원하리라 생각했기에, 날이 밝는다고 시름이 풀리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로시난테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니 더욱 그렇게 믿게 되었다. 그는 별들의 그 나쁜 기운이 지나가거나 더 지혜로운 다른 마법사가 마법을 풀어 줄 때까지, 자기와 말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어야 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크게 빗나갔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마자, 말안장 앞머리에 엽총을 얹은 채 아주 잘 차려입고 채비를 갖춘 말 탄 사내 넷이 객줏집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닫혀 있던 객줏집 문을 쾅쾅 세게 두드렸다. 그때까지도 보초 서기를 그만두지 않은 자리에서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거만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사들이든 종자들이든, 그대들이 누구든 이 성의 문을 두드릴 까닭이 없소. 이런 시각이면 안에 있는 이들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해가 온 땅에 퍼질 때까지 요새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관례임이 너무도 분명하오. 물러나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시오. 그때 그대들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보리라."

"무슨 놈의 요새니 성이니 하기에 우리더러 그런 격식을 지키라는 거요?" 하나가 말했다. "당신이 객줏집 주인이라면 문을 열라고 하시오. 우리는 말에게 보리나 먹이고 바로 갈 길을 갈 나그네요. 바쁘단 말이오."

"기사들이여, 그대들 보기에 내가 객줏집 주인 꼴로 보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꼴인지는 모르겠소."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다만 이 객줏집을 성이라 부르니 헛소리를 한다는 것은 알겠소."

"성이오."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그것도 이 지방 전체에서 손꼽히는 성이오. 안에는 손에 왕홀을 쥐고 머리에 왕관을 썼던 이들이 있소."

"거꾸로였으면 더 좋겠소." 나그네가 말했다. "머리에 왕홀을 쓰고 손에 왕관을 쥐고. 혹시 모르니, 안에 배우 패거리라도 묵고 있겠지. 당신이 말하는 그런 왕관이니 왕홀이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주 지니는 물건이니까. 이렇게 작고 이렇게 조용한 객줏집에 왕관과 왕홀에 걸맞은 사람들이 묵는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대는 세상을 잘 모르는구려."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편력 기사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니 말이오."

묻던 사내와 함께 온 동료들은 그가 돈키호테와 주고받는 문답에 지쳐 다시 사납게 문을 두드렸다. 어찌나 세게 두드렸던지 객줏집 주인이 잠에서 깼고, 객줏집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깼다. 그래서 주인은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물으러 일어났다.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던 네 사람이 타고 온 말 가운데 한 마리가 로시난테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로시난테는 귀를 축 늘어뜨린 채 시무룩하고 슬프게, 몸을 쭉 뻗은 제 주인을 꼼짝 않고 떠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로 깎은 듯 보여도 결국은 살로 된 몸이라, 저를 어루만지러 온 말에게 마음이 동해 냄새를 맡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로시난테가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모은 채 서 있던 돈키호테의 두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안장에서 미끄러져 팔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 일로 어찌나 아팠던지 그는 손목이 잘리거나 팔이 뽑혀 나가는 줄 알았다. 그는 땅에 아주 가깝게 매달려 발끝으로 땅에 입 맞출 듯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혔다. 발바닥을 땅에 대려면 아주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된다는 것을 느끼자, 땅에 닿으려고 할 수 있는 한 애쓰며 몸을 뻗었기 때문이다. 꼭 도르래 고문에 매달려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이들 같았다. 그들은 조금만 더 몸을 뻗으면 땅에 닿으리라는 헛된 희망에 속아 애써 몸을 뻗다가 스스로 고통을 키운다.

1. 해(아폴론)가 사랑하여 쫓아다닌 요정 다프네. 테살리아의 강의 신 페네이오스의 딸로, 쫓기다 월계수로 변했다.

제44장 객줏집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이어 간다

아무튼 돈키호테가 어찌나 고함을 질러 댔던지, 객줏집 주인이 깜짝 놀라 서둘러 객줏집 문을 열고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보러 나왔고, 밖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마리토르네스는 그 고함 소리에 이미 잠이 깨어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는, 건초 헛간으로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돈키호테를 매달고 있던 고삐를 풀어 주었다. 돈키호테는 곧장 객줏집 주인과 길손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이 다가가 무슨 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묻자, 그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손목에서 끈을 풀고 벌떡 일어나 로시난테에 올라타더니,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 긴 창을 꼬나든 채 들판을 넉넉히 물러났다가 반쯤 달려 되돌아오며 말했다.

"나의 아씨 미코미코나 공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마땅한 까닭이 있어 마법에 걸렸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이든 나는 그자의 말을 거짓이라 하고, 그자를 꾸짖으며, 일대일 결투를 청하노라."

새로 온 길손들은 돈키호테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객줏집 주인이 저 사람은 돈키호테라는 사람인데 제정신이 아니니 상관할 것 없다고 일러 주어 그 놀라움을 거두어 주었다.

그들은 객줏집 주인에게 혹시 열다섯 살쯤 된 소년 하나가 노새꾼 차림으로 이 객줏집에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이러이러한 생김새를 댔는데, 그것은 도냐 클라라의 연인의 생김새와 똑같았다. 주인은

객줏집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들이 묻는 사람을 눈여겨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가 청문관이 타고 온 마차를 보더니 말했다.

"틀림없이 여기 있을 거요. 그 애가 뒤따라간다는 마차가 바로 이거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는 문에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찾아봅시다. 아니, 하나는 객줏집을 빙 둘러 지키는 게 좋겠소. 마당 담을 넘어 달아나지 못하게 말이오."

"그렇게 합시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그래서 둘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문에 남고, 또 하나는 객줏집 둘레를 돌러 갔다. 객줏집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부산을 떠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들이 생김새를 일러 준 그 젊은이를 찾는 것이리라고는 굳게 믿었다.

그 무렵에는 이미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그 때문에, 또 돈키호테가 낸 소란 때문에 모두 깨어 일어나고 있었는데, 특히 도냐 클라라와 도로테아가 그러했다. 한 사람은 연인이 그토록 가까이 있어 가슴이 떨려서, 또 한 사람은 그 젊은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둘 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네 길손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도전에 대답하지도 않는 것을 보자 분하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 편력 기사가 약속한 일을 끝낼 때까지 다른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말과 믿음을 걸었더라도 다른 일을 떠맡아 벌여도 된다는 조항을 자기 기사도의 규율에서 찾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그들 모두에게 덤벼들어 싫든 좋든 대답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코미코나를 그 왕국에 앉혀 드릴 때까지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은 마땅치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여겼으므로, 그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길손들의 부산한 수색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찾던 젊은이를 찾아냈다. 젊은이는

노새꾼 하나 곁에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를 찾으리라고는, 하물며 찾아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였다. 사내는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돈 루이스 도련님, 입고 계신 옷이 도련님 신분에 참 잘도 어울리십니다. 제가 도련님을 찾아낸 이 잠자리도 어머님께서 도련님을 키우신 그 귀한 대접에 참 잘도 맞고요."

젊은이는 졸린 눈을 비비고 자기를 붙잡은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곧 아버지의 하인임을 알아보았다. 어찌나 놀랐던지 그는 한참 동안 말 한마디 찾지도 하지도 못했다. 하인은 말을 이었다.

"이제 다른 수는 없습니다, 돈 루이스 도련님. 꾹 참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수밖에요. 도련님 아버님이자 제 주인 나리께서 저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도련님이 안 계셔서 겪으시는 그 괴로움으로는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길로, 이런 차림을 하고 온 걸 어떻게 아셨느냐?" 돈 루이스가 말했다.

"도련님께서 속내를 털어놓으신 어떤 학생이 일러바쳤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도련님이 없어진 걸 아시자마자 아버님께서 얼마나 애통해하시는지 보고 딱한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인 넷을 보내 도련님을 찾게 하셨고, 저희는 모두 이렇게 도련님을 모시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도련님을 그토록 아끼시는 그 눈앞으로 모셔 가게 되었으니, 일이 이렇게 잘 풀린 것이 저희는 상상도 못 하실 만큼 기쁩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대로, 아니면 하늘이 정하는 대로 될 거다." 돈 루이스가 대답했다.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 것 말고 도련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하늘이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 말을 돈 루이스 곁에 누워 있던 노새꾼이 모두 들었다. 그는 거기서 일어나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이미 옷을 갖춰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렸다. 그 사내가 그 소년에게 「돈」을 붙여 부르더라는 것, 둘이 주고받은 말, 사내는 소년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 하는데 소년은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러 주었다. 이 말에다 하늘이 그 소년에게 내려 준 고운 목소리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것까지 겹쳐, 모두들 그가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고, 누가 그에게 억지를 부리려 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소년이 아직도 하인과 이야기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쪽으로 갔다.

그때 도로테아가 자기 방에서 나왔고, 그 뒤로 도냐 클라라가 몹시 허둥대며 따라 나왔다. 도로테아는 카르데니오를 한쪽으로 불러 노래꾼과 도냐 클라라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고, 카르데니오도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보낸 하인들이 그를 찾으러 와서 벌어진 일을 도로테아에게 말해 주었다. 그런데 그 말을 아주 낮은 소리로 하지 않았으므로 클라라도 듣고 말았다. 클라라는 어찌나 넋이 나갔던지, 도로테아가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땅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카르데니오는 도로테아에게 방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자기가 모든 일을 잘 수습해 보겠다고 했고, 두 여인은 그렇게 했다.

돈 루이스를 찾으러 온 네 사람은 이미 모두 객줏집 안에 들어와 그를 에워싸고,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돌아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돈 루이스는 목숨과 명예와 영혼이 걸린 일을 끝낼 때까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하인들은 그를 다그치며, 그를 두고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데려가겠다고 을러댔다.

"너희는 그렇게 못 한다." 돈 루이스가 맞받았다. "나를 죽여서 데려간다면 모를까. 하지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데려가든, 목숨 없는 몸을 데려가는 셈일 거다."

그 무렵에는 객줏집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실랑이에 몰려와 있었다. 특히 카르데니오와 돈 페르난도와 그 동료들, 청문관, 신부, 이발사, 그리고 이제 더는 성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긴 돈키호테가 와 있었다. 카르데니오는 그 젊은이의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데려가려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저 소년을 그 뜻을 거슬러 데려가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분 아버님의 목숨을 살려 드리려는 겁니다." 네 사람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이 젊은 나리가 집을 나가 버린 탓에 아버님께서 목숨을 잃으실 지경이거든요."

이 말에 돈 루이스가 말했다.

"여기서 내 일을 이러쿵저러쿵할 까닭은 없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니, 마음이 내키면 돌아갈 것이고, 내키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누구도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한다."

"도련님께 억지를 쓰는 건 이치가 할 일입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이치가 도련님께 통하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통해서, 저희가 하러 온 일이자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줄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뿌리부터 알아봅시다." 그때 청문관이 말했다.

그러자 그 사내는 이웃집 사람이라 청문관을 알아보고 대답했다.

"청문관 나리, 이 젊은 나리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나리 이웃집 아드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분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하고 아버지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제야 청문관은 그를 더 찬찬히 들여다보고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돈 루이스 군,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인가? 무슨 대단한 까닭이 있기에 이런 꼴로, 자네 신분에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차림을 하고 왔단 말인가?"

젊은이는 눈에 눈물이 고여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청문관은 네 사람에게 진정하라고,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돈 루이스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 어쩌다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청문관이 이것저것 묻는 사이에 객줏집 문간에서 큰 소리가 났다. 까닭은 이러했다. 그날 밤 객줏집에 묵은 손님 둘이, 모두들 네 사람이 무엇을 찾는지 알아내느라 정신이 팔린 것을 보고 셈도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남의 일보다 제 장사에 더 마음을 쓰는 객줏집 주인이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붙잡고 셈을 치르라고 하면서 그 고약한 속셈을 어찌나 험한 말로 나무랐던지, 그들은 주먹으로 대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들이 주인을 어찌나 두들겨 대기 시작했던지 가엾은 객줏집 주인은 고함을 지르며 도와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 객줏집 안주인과 딸이 둘러보니 그를 도울 만큼 한가한 사람이라고는 돈키호테밖에 없었다. 안주인의 딸이 그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하느님께서 나리께 주신 그 힘을 걸고 부탁드려요.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나쁜 놈 둘이 아버지를 방앗간 곡식 빻듯 두들기고 있어요."

이 말에 돈키호테는 아주 느릿느릿,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리따운 아가씨여, 지금은 그대의 청을 들어줄 수 없소. 내 말로 약속한 모험 하나를 끝맺을 때까지는 다른 모험에 끼어드는 것이 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대를 섬기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말하리다. 달려가서 그대 아버지께 그 싸움을 될 수 있는 한 잘 버티고 결코 지지 말라고 전하시오. 그동안 나는 미코미코나 공주께

그분을 시름에서 구해도 좋다는 허락을 청하겠소. 공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시름에서 그분을 꼭 건져 내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오."

"아이고, 내 팔자야!" 곁에 서 있던 마리토르네스가 말했다.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허락을 받아 내기도 전에 우리 주인 나리는 벌써 저세상에 가 계실 거예요."

"부인, 내가 말한 그 허락만 받게 해 주시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허락만 받는다면 그가 저세상에 가 있든 말든 상관없소. 그 세상이 아무리 거슬러도 거기서 끌어내 올 테니 말이오. 아니면 적어도 그를 그리로 보낸 자들에게 앙갚음을 해 드려, 그대들이 넉넉히 흡족하게 하리다."

그러고는 더 말없이 도로테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사답고 편력 기사다운 말로, 공주의 위대하심께서 크나큰 곤경에 빠진 이 성의 성주를 돕고 구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청했다. 공주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는 곧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객줏집 문간으로 달려갔다. 거기서는 손님 둘이 아직도 객줏집 주인을 험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다르자마자 우뚝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리토르네스와 안주인이 왜 멈춰 서 있느냐고, 어서 자기네 주인이자 남편을 도우라고 다그쳤는데도 그러했다.

"내가 멈춘 것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종자 따위를 상대로 칼을 빼는 것이 내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내 종자 산초를 이리 불러 주시오. 이 방어와 앙갚음은 그가 맡을 일이고 그에게 걸린 일이오."

이 일이 객줏집 문간에서 벌어지는 동안 거기서는 주먹질과 따귀가 한창이었고, 모두 객줏집 주인에게는 손해, 마리토르네스와 안주인과 딸에게는 분통이었다. 세 여자는 돈키호테의 비겁함과, 자기네 남편이자 주인이자 아버지가 당하는 험한 꼴을 보며 애를 태웠다.

그러나 그는 여기 내버려 두자. 그를 구해 줄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테고, 없다면 제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에 덤비는 자는 참고 입 다물면 그만이다. 그리고 쉰 걸음 뒤로 돌아가, 우리가 한쪽에 남겨 둔 돈 루이스가 청문관에게 무엇이라 대답했는지 보자. 청문관은 그에게 왜 걸어서, 그것도 그렇게 천한 차림으로 왔느냐고 묻고 있었다. 젊은이는 무슨 큰 슬픔이 가슴을 죄어 오는 표시인 듯 청문관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다.

"나리,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이 원하시고 저희가 이웃으로 산 덕분에 나리의 따님이자 제 아씨인 도냐 클라라 아씨를 처음 뵌 그 순간부터, 저는 그분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 참된 주인이시자 아버님이신 나리의 뜻이 막지 않으신다면, 바로 오늘 그분은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아버지 집을 떠났고, 그분 때문에 이런 차림을 하고서, 화살이 과녁으로 가듯, 뱃사람이 북극성을 따르듯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나섰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제 눈이 우는 것을 몇 번 보시고 짐작하실 수 있었던 것 말고는 제 마음을 모르십니다. 나리, 나리께서는 제 부모님의 재산과 가문을 아시고, 제가 그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도 아십니다. 이만하면 모험을 거시고 저를 모든 면에서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겠다 싶으시면, 지금 당장 저를 아들로 받아 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다른 속셈에 끌려 제가 스스로 찾아낸 이 복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더라도, 일을 뒤집고 바꾸는 힘은 사람의 뜻보다 세월이 더 센 법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청문관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돈 루이스가 자기 생각을 털어놓은 그 태도와 슬기에도 놀랐고, 이렇게 갑작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일에 어떤 길을 잡아야 할지 모를 처지가 된

것에도 놀랐다. 그래서 그는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인들을 붙잡아 두어 그날은 그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라고만 일렀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궁리할 시간을 벌려는 뜻이었다. 돈 루이스는 억지로 청문관의 손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손을 적시기까지 했는데, 청문관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리석 같은 마음이라도 녹일 만한 모습이었다. 청문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 혼사가 딸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미 알아보았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돈 루이스 아버지의 뜻을 얻어 이 혼사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위를 얻어 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손님들은 이미 객줏집 주인과 화해한 뒤였다. 위협보다는 돈키호테의 설득과 좋은 말 덕분에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치렀던 것이다.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청문관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 주인이 마음을 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잠들지 않는 악마가 일을 꾸며, 돈키호테가 맘브리노의 투구를 빼앗고 산초 판사가 당나귀 마구를 빼앗아 제 것과 바꿔 단 그 이발사가 바로 그 순간 객줏집에 들어왔다. 그 이발사는 당나귀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다가 산초 판사가 길마의 무엇인가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길마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대뜸 산초에게 덤벼들며 말했다.

"아하, 도둑 나리, 여기서 딱 잡았네! 내 대야하고 길마하고, 자네가 훔쳐 간 내 마구를 몽땅 내놓게!"

산초는 난데없이 덮쳐 오는 사람이 욕설을 퍼붓는 것을 듣자, 한 손으로 길마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이발사에게 주먹을 한 대 먹여 이를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그래도 이발사는 길마를 움켜쥔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어찌나 목청을 높였던지 객줏집 사람들이 모두 그 소란과 싸움에 몰려왔다. 그는 외쳤다.

"임금님 이름으로 도와주시오, 법은 어디 있소! 내 물건을 찾으려는데 이 노상강도 도둑놈이 나를 죽이려 들어요!"

"거짓말 마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나는 노상강도가 아니오.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 정당한 싸움에서 이 전리품을 얻으셨소."

돈키호테는 이미 그 앞에 와 있었다. 그는 자기 종자가 얼마나 잘 막고 잘 치는지 보고 몹시 흐뭇했고, 그때부터 그를 쓸 만한 사내로 여기게 되었으며, 기회가 오는 대로 그를 기사로 서임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기사도의 규율이 그에게라면 헛되이 쓰이지 않으리라 여겼기 때문이다.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이발사는 여러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도 있었다.

"여러분, 이 길마는 제가 하느님께 죽음을 빚진 것만큼이나 틀림없는 제 것입니다요. 제가 낳기라도 한 것처럼 잘 압니다. 저기 마구간에 제 당나귀가 있으니 그놈이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게 해 줄 겁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그놈한테 얹어 보시고, 딱 맞지 않으면 저를 파렴치한으로 치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그 길마를 빼앗긴 바로 그날,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놋대야도 빼앗겼는데, 1에스쿠도는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돈키호테는 대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떼어 놓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모두 볼 수 있게 길마를 땅에 내려놓게 한 다음 말했다.

"여러분, 이 착한 종자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똑똑히, 환히 보시오. 맘브리노의 투구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대야라고 부르니 말이오. 나는 그것을 정당한 싸움에서 이자에게서 빼앗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차지하여 그 주인이 되었소. 길마 일에는 끼어들지 않겠소. 다만 그 일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종자 산초가 이 겁쟁이 패자의 말에서 마구를 벗겨 제 짐승을 꾸미게 해

달라고 내게 허락을 청했고, 내가 허락하자 그가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뿐이오. 그것이 말 마구에서 당나귀 길마로 바뀐 데에는 흔한 까닭밖에 댈 것이 없소. 기사도의 일에서는 그런 둔갑이 곧잘 일어난다는 것이오. 그 증거로, 얘야 산초, 달려가서 이 사람이 대야라고 하는 그 투구를 이리 가져오너라."

"맙소사, 나리."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장에 나리 말씀 말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말리노의 투구가 대야인 건 이 사람 마구가 길마인 것만큼이나 확실하네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이 성의 모든 일이 마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라."

산초는 대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져왔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 두 손에 받아 들고 말했다.

"여러분, 보시오. 이 종자가 무슨 낯으로 이것이 대야이지 내가 말한 투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 내가 몸담은 기사도를 걸고 맹세하거니와, 이 투구는 내가 그자에게서 빼앗은 바로 그것이며, 무엇 하나 보태지도 덜지도 않았소."

"그건 틀림없어요." 그때 산초가 말했다. "주인 나리께서 이걸 얻으신 뒤로 지금까지 이걸 쓰고 싸우신 건 딱 한 번뿐이거든요. 사슬에 묶인 그 불운한 사람들을 풀어 주실 때요. 이 대야투구가 없었더라면 그때 무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판에 돌이 꽤나 날아왔으니까요."

제45장 맘브리노의 투구와 길마를 둘러싼 의문이 마침내 판가름 나고 정말로 일어난 다른 모험들

"여러분,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발사가 말했다. "이게 대야가 아니라 투구라고 아직도 우기니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자가 기사라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종자라면 천 번이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겠소."

그 자리에 줄곧 함께 있던 우리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기질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엉뚱한 생각을 부추기고 장난을 더 밀고 나가 모두를 웃게 하려고 다른 이발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발사 양반, 아니 당신이 누구든, 알아 두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발사 면허장을 받은 지 스무 해도 넘었으며, 이발도구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 아오. 그뿐 아니라 젊었을 때 한동안 병사로 지낸 적도 있어서, 투구가 무엇이고 철모가 무엇이고 얼굴 가리개 달린 투구가 무엇인지, 그 밖에 군대에 딸린 것들, 아니 병사들이 쓰는 갖가지 무구에 딸린 것들도 잘 아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고 언제나 더 나은 분별에 맡기겠지만,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물건, 이 착한 나리가 손에 들고 계신 이것은 이발사의 대야가 아닐 뿐 아니라, 흰 것이 검은 것과 멀고 참이 거짓과 먼 만큼이나 대야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겠소. 또 이것이 투구이기는 해도 온전한 투구는 아니라고 말하겠소."

"물론 아니지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절반이 없으니까. 바로 턱 가리개 말이오."

"그렇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는 벗 이발사의 속셈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카르데니오와 돈 페르난도와 그 동료들도 같은 말로 맞장구를 쳤다. 청문관도 돈 루이스 일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지만 않았다면 제 몫으로 그 장난을 거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던 일이 진지한 일이라 넋이 나가 있어서 그런 우스갯소리에는 거의, 아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고 맙소사!" 그때 놀림감이 된 이발사가 말했다.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 다들 이게 대야가 아니라 투구라고 하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요? 아무리 슬기로운 대학이라도 대학 하나를 통째로 놀라게 할 일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 대야가 투구라면, 이 나리 말씀대로 이 길마도 말 마구일 테지요."

"내 눈에는 길마로 보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그 일에는 끼어들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소."

"길마냐 마구냐 하는 것은" 신부가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말씀 한마디에 달렸소. 이런 기사도 일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나도 모두 이분께 한 수 접으니까."

"하느님께 맹세코, 여러분"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성에 두 번 묵는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찌나 많고 어찌나 기이했던지, 이 성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을 물어 오든 나는 감히 어떤 것도 단언하지 못하겠소. 이 성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두 마법으로 돌아간다고 여기기 때문이오. 처음 왔을 때는 이 성에 사는 마법에 걸린 무어인 하나가 나를 몹시 괴롭혔고, 산초도 그자의 다른 졸개들에게 험한 꼴을 당했소. 그리고 간밤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불운에 빠졌는지도 모른 채 이 팔에

두 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었소. 그러니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에 내가 지금 의견을 내놓는다면 경솔한 판단을 하는 셈이 될 것이오. 이것이 투구가 아니라 대야라고들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했소. 그러나 그것이 길마인지 마구인지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마지막 판결을 내리지 못하겠으니, 그저 여러분의 좋은 판단에 맡기겠소. 여러분은 나처럼 기사 서임을 받은 몸이 아니니 아마 이곳의 마법이 여러분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분별은 자유로울 것이며, 이 성의 일들을 내 눈에 보이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참되게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오."

"틀림없습니다." 이 말에 돈 페르난도가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 오늘 아주 잘 말씀하셨소. 이 사건의 판정은 우리 몫이오. 그리고 더 든든한 근거를 갖추도록, 내가 이분들의 표를 몰래 받아 그 결과를 빠짐없이 똑똑히 알려 드리겠소."

돈키호테의 기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없이 우스운 거리였다. 그러나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짓으로 보였다. 특히 돈 루이스의 하인 넷이 그러했고, 돈 루이스도 꼭 그러했으며, 마침 객줏집에 막 도착한 다른 길손 셋도 그러했는데, 이들은 순찰대원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순찰대원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애가 탄 사람은 이발사였다. 바로 제 눈앞에서 제 대야가 맘브리노의 투구로 둔갑했고, 제 길마도 틀림없이 값진 말 마구로 둔갑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쪽 사람들도 저쪽 사람들도, 돈 페르난도가 이 사람 저 사람의 표를 받으러 다니며, 그토록 다툼의 씨가 된 그 보물이 길마인지 마구인지 몰래 밝히라고 귀엣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돈키호테를 아는 사람들의 표를 다 받고 나자 돈 페르난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실은 말일세, 이 사람아, 나는 이렇게 많은 의견을 받는 데 벌써 지쳤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이것이 당나귀 길마라고 하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이건 말 마구, 그것도 좋은 혈통의 말에 얹는 마구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말일세. 그러니 자네는 참는 수밖에 없겠네. 자네와 자네 당나귀에게는 안됐지만, 이건 마구이지 길마가 아니고, 자네는 자네 쪽 주장을 아주 서툴게 펴고 아주 서툴게 증명했네."

"여러분이 모두 잘못 아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천국에 못 가도 좋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발사가 말했다. "제 눈에 이게 마구가 아니라 길마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제 영혼이 하느님 앞에 떳떳하게 보이기를 빕니다. 하지만 법은 임금님 원하시는 데로 간다더니…… 그다음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죄 말고는 아침에 입에 댄 것도 없거든요."

이발사가 하는 어리석은 소리는 돈키호테의 터무니없는 소리 못지않게 웃음을 자아냈다. 돈키호테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할 일은 없소. 저마다 제 것을 가져가면 되오. 하느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는 성 베드로께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네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이게 지독한 장난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아니 그렇게 보이는 분들처럼 분별이 좋은 분들이 감히 이건 대야가 아니고 저건 길마가 아니라고 말하고 주장한다는 걸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참된 사실 자체와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과 이렇게 정반대되는 일을 우기시는 데는 무슨 곡절이 없지 않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맹세코," 하고 그는 맹세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모두

달려들어도, 이게 이발사의 대야가 아니고 저게 당나귀 길마가 아니라는 걸 저한테 믿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암탕나귀 길마일 수도 있겠지요." 신부가 말했다.

"그게 그거지요." 하인이 말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길마냐 아니냐니까요."

들어와 있던 순찰대원 가운데 하나가 그 싸움과 시비를 다 듣고 있다가 이 말을 듣자, 화가 나고 부아가 치밀어 말했다.

"그게 길마인 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만큼이나 확실하오. 다른 소리를 했거나 할 놈은 포도주에 절어 있는 게 틀림없소."

"그대는 비열한 상놈답게 거짓말을 하는구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긴 창을 쳐들어 순찰대원의 머리에 내리치려 했는데, 그 기세로 보아 순찰대원이 몸을 피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쭉 뻗고 말았을 것이다. 긴 창은 땅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다른 순찰대원들은 제 동료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자 성스러운 형제단을 도우라고 목청을 높였다.

순찰대에 속한 객줏집 주인은 당장 안으로 들어가 지휘봉과 칼을 들고 와서 동료들 곁에 섰다.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소란 통에 그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돈 루이스를 에워쌌다. 이발사는 집 안이 발칵 뒤집힌 것을 보자 다시 제 길마를 움켜쥐었고, 산초도 그렇게 했다. 돈키호테는 칼자루에 손을 얹고 순찰대원들에게 덤벼들었다. 돈 루이스는 하인들에게 자기는 내버려 두고 돈키호테와 카르데니오와 돈 페르난도를 도우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모두 돈키호테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부는 소리치고, 안주인은 고함을 지르고, 그 딸은 괴로워하고, 마리토르네스는 울고, 도로테아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루스신다는 넋을 놓고, 도냐 클라라는 정신을 잃었다. 이발사는 산초를 두들기고 산초는 이발사를 짓찧었다. 돈 루이스는 하인 하나가 달아나지

못하게 감히 그의 팔을 붙잡자 주먹을 한 대 먹여 이를 피투성이로 만들었고, 청문관은 돈 루이스를 감쌌다. 돈 페르난도는 순찰대원 하나를 발밑에 깔고 실컷 그 몸을 발로 재고 있었다. 객줏집 주인은 다시 목청을 돋워 성스러운 형제단을 도우라고 외쳤다. 그리하여 온 객줏집이 울음과 외침과 고함, 혼란과 두려움과 놀람, 불운과 칼부림, 주먹질과 몽둥이질과 발길질, 그리고 피 흘림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혼돈이요 뒤범벅이요 미궁 같은 일들 한가운데서, 돈키호테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아그라만테 진영의 불화[1]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푹 빠져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객줏집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멈추시오! 모두 칼을 꽂으시오! 모두 진정하시오! 모두 목숨을 건지고 싶거든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 멈추었고, 그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 성은 마법에 걸려 있고 어떤 악마의 무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그것을 확인하는 뜻에서, 아그라만테 진영의 불화가 어떻게 이리로 옮겨 와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기 바라오. 보시오, 저쪽에서는 칼을 두고, 이쪽에서는 말을 두고, 저기서는 독수리 문장을 두고, 여기서는 투구를 두고 싸우고 있소. 우리 모두 싸우고 있고, 우리 모두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청문관 나리, 그리고 신부님, 이리 오셔서 한 분은 아그라만테 왕이 되고 다른 한 분은 소브리노 왕이 되어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오.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코, 여기 있는 우리처럼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찮은 까닭으로 서로 죽이는 것은 크나큰 망나니짓이오."

순찰대원들은 돈키호테의 말투를 알아듣지 못했고,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그 동료들에게 험하게 당하고 있었으므로 진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발사는 진정했다. 싸움 통에 수염도 길마도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산초는 착한 하인답게 주인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따랐다. 돈 루이스의 하인 넷도 가만있지 않아 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잠자코 있었다. 객줏집 주인만이 걸핏하면 자기 객줏집을 소란에 빠뜨리는 저 미친 자의 행패를 벌해야 한다고 우겼다. 마침내 그 소동은 그럭저럭 가라앉았고, 돈키호테의 상상 속에서 길마는 최후 심판의 날까지 마구로, 대야는 투구로, 객줏집은 성으로 남았다.

그렇게 마음들이 가라앉고 청문관과 신부의 설득으로 모두 화해하자, 돈 루이스의 하인들은 다시 그에게 당장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졸랐다. 돈 루이스가 그들과 말을 맞추는 동안, 청문관은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신부에게 돈 루이스가 한 말을 들려주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결국 돈 페르난도가 돈 루이스의 하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돈 루이스를 안달루시아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기로 정해졌다. 그곳에서 돈 페르난도의 형인 후작이 돈 루이스를 그 됨됨이에 걸맞게 대접해 줄 터였다. 그렇게 하기로 한 까닭은, 이번에는 몸이 갈가리 찢기더라도 아버지 눈앞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돈 루이스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돈 페르난도의 신분과 돈 루이스의 뜻을 알게 되자, 셋은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고 하나는 남아서 돈 루이스를 모시되, 다른 셋이 그를 데리러 돌아오거나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지 알게 될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저희끼리 정했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싸움판은 아그라만테의 권위와 소브리노 왕의 지혜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화합의 원수요 평화의 적수인 그자는 자기가 업신여김과 놀림을 당하고, 그들 모두를 그토록 갈피 없는 미궁에 빠뜨려 놓고도 거둔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을 보자, 새로운 싸움과 소란을 되살려 다시 한번 솜씨를 부려 보기로 마음먹었다.

일은 이러했다. 순찰대원들은 자기들과 싸운 사람들의 신분을 얼핏 듣고 나서 진정했고, 싸움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이 가장 험한 꼴을 당하리라 여겨 싸움판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돈 페르난도에게 짓밟히고 발길질당한 바로 그 사내의 머리에, 범죄자 몇을 잡으려고 지니고 다니던 체포 영장 가운데 돈키호테를 잡으라는 영장도 하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성스러운 형제단은 돈키호테가 갤리선 죄수들을 풀어 준 일로 그를 잡으라고 명령했는데, 산초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도 까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자기가 지닌 돈키호테의 인상착의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품에서 양피지 한 장을 꺼냈고, 찾던 것이 나왔다. 그는 읽는 솜씨가 좋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한 낱말을 읽을 때마다 돈키호테에게 눈길을 주며 영장에 적힌 인상착의를 돈키호테의 얼굴과 맞추어 보았다. 그리고 그가 틀림없이 영장에 적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확인을 마치기가 무섭게 그는 양피지를 거두어 왼손에 영장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돈키호테의 멱살을 숨도 못 쉴 만큼 세게 움켜잡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성스러운 형제단을 도우시오!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 줄 테니 이 영장을 읽어 보시오. 이 노상강도를 잡으라고 적혀 있소."

신부가 영장을 받아 들고 보니, 순찰대원이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고 인상착의도 돈키호테와 맞아떨어졌다. 돈키호테는 그 비천한 흉악한 놈에게 험한 꼴을 당하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온몸의 뼈마디가 우두둑거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두 손으로 순찰대원의 목을 움켜쥐었는데, 동료들이 구해 주지 않았더라면 순찰대원은 돈키호테가 손을 놓기 전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놓았을 것이다. 객줏집 주인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편을 들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곧 달려가 그들을 거들었다. 안주인은 남편이 또 싸움에

휘말린 것을 보자 또 목청을 높였고, 마리토르네스와 딸이 곧 그 가락을 받아 하늘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외쳤다. 산초는 벌어지는 일을 보며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코, 주인 나리께서 이 성의 마법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한 시간도 조용히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돈 페르난도가 순찰대원과 돈키호테를 떼어 놓았다. 하나는 상대의 웃옷 깃을, 다른 하나는 상대의 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는데, 돈 페르난도가 그 손들을 비틀어 풀어 주자 둘 다 고마워했다. 그렇다고 순찰대원들이 죄인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꽁꽁 묶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넘겨주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그래야 임금님과 성스러운 형제단을 섬기는 일이 된다면서, 그들은 그 형제단의 이름으로 그 강도, 그 오솔길과 큰길의 노상강도를 잡는 일을 도와 달라고 다시 청했다. 돈키호테는 이런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이리 오너라, 상스럽고 천하게 태어난 무리야. 사슬에 묶인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이들을 풀어 주고, 가련한 이들을 돕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키고, 궁핍한 이들을 구하는 것을 너희는 노상강도 짓이라 부르느냐? 아, 파렴치한 무리여, 너희의 낮고 천한 분별로는 하늘이 편력 기사도에 깃든 가치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어떤 편력 기사의 몸은 고사하고 그 그림자조차 우러르지 않는 너희의 죄와 무지를 깨닫게 해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리 오너라, 순찰대원이 아니라 떼도둑들아, 성스러운 형제단의 허가를 받은 노상강도들아. 말해 보아라. 나 같은 기사를 잡으라는 체포 영장에 서명한 무지한 자가 누구냐? 편력 기사는 모든 재판 관할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들의 법은 그들의 칼이요, 그들의 특권은 그들의 기백이요, 그들의 칙령은 그들의 뜻이라는 것을 모른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거니와, 편력 기사가 기사

서임을 받고 기사도의 혹독한 업에 몸을 바치는 날 얻는 것만큼 많은 특전과 면제를 담은 시골 귀족 신분 증서는 없다는 것을 모르는 그 얼간이가 누구였느냐? 어느 편력 기사가 인두세나 거래세나 왕비 신발세나 화폐세나 통행세나 나룻삯을 낸 적이 있느냐? 어느 재봉사가 그에게 옷을 지어 주고 삯을 받아 간 적이 있느냐? 어느 성주가 그를 성에 맞아들이고 밥값을 치르게 한 적이 있느냐? 어느 임금이 그를 제 식탁에 앉히지 않았느냐? 어느 아가씨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의 뜻대로 순순히 몸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앞을 막아서는 순찰대원 사백 명에게 혼자서 몽둥이 사백 대를 안길 기백이 없는 편력 기사가 이 세상에 있었고, 있고, 또 있겠느냐?"

---

1.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 제27곡에서, 파리를 에워싼 무어인 왕 아그라만테의 진영에 칼(두린다나)·말·독수리 문장 따위를 두고 다툼이 잇달아 벌어지자 아그라만테 왕과 소브리노 왕이 나서서 말린다.

제46장 순찰대원들의 놀라운 모험과 우리 착한 기사 돈키호테의 대단한 맹렬함

돈키호테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신부는 순찰대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그것은 그가 하는 짓과 말을 보면 그들도 알 것이고, 그를 잡아서 데려가 보았자 곧 미친 사람이라고 풀어 줄 수밖에 없을 테니 이 일을 더 끌고 나갈 까닭이 없다고 했다. 이에 영장을 가진 사내는 돈키호테가 미쳤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윗사람이 시킨 일을 할 뿐이며, 일단 잡아넣기만 하면 그 뒤에 삼백 번을 풀어 주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신부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대들이 그를 데려가지 못할 것이오. 내가 보기에는 그도 끌려가 주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신부가 그들에게 어찌나 말을 잘하고 돈키호테가 어찌나 미친 짓을 잘해 보였던지, 순찰대원들이 돈키호테의 모자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돈키호테보다 더 미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그러지기로 했고, 아직도 앙심을 품고 다툼을 벌이던 이발사와 산초 판사 사이에 화해를 붙이는 중재자 노릇까지 하기로 했다. 마침내 그들은 법을 맡은 사람답게 그 소송을 중재하고 판정을 내렸는데, 양쪽 모두 아주 흡족하지는 않아도 얼마쯤은 만족할 만한 판정이었다. 길마는 서로 바꾸되 뱃대끈과 굴레는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맘브리노의 투구 일은, 신부가 돈키호테가 알아채지 못하게 몰래 대야값으로 8레알을 이발사에게 주었고, 이발사는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에다

이제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멘, 속았다고 따지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적어 증서로 써 주었다.

이렇게 해서 가장 크고 가장 무게 있는 이 두 다툼이 가라앉자, 이제 돈 루이스의 하인 셋이 돌아가는 데 만족하고 하나는 남아서 돈 페르난도가 돈 루이스를 데려가려는 곳까지 그를 모시는 일만 남았다. 좋은 운과 더 좋은 행운이 객줏집의 연인들과 용사들을 위해 이미 창을 부러뜨리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시작했으므로, 행운은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 모든 것을 좋게 끝맺어 주려 했다. 하인들이 돈 루이스가 바라는 대로 다 따르기로 했던 것이다. 도냐 클라라는 이 일에 어찌나 기뻐했던지, 그때 그 얼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의 기쁨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소라이다는 자기가 본 일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얼굴빛, 특히 자기의 에스파냐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살피는 대로 얼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소라이다는 늘 그에게 눈길을 두고 마음을 걸어 두고 있었다. 객줏집 주인은 신부가 이발사에게 준 선물과 보상을 놓치지 않고 보았으므로, 돈키호테의 숙박비에다 망가진 가죽 부대 값과 없어진 포도주 값까지 내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푼까지 받기 전에는 로시난테도 산초의 당나귀도 객줏집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맹세했다. 신부가 그 일을 모두 달랬고, 값은 돈 페르난도가 치렀다. 청문관도 기꺼이 치르겠다고 나섰지만 그렇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두가 어찌나 평화롭고 고요해졌던지, 객줏집은 이제 돈키호테가 말한 아그라만테 진영의 불화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 시대의 평화와 고요 그 자체 같았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신부의 선한 뜻과 뛰어난 말솜씨, 그리고 돈 페르난도의 비길 데 없는 너그러움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다.

돈키호테는 종자의 다툼에서도 자기의 다툼에서도 그토록 많은 싸움에서 풀려나 홀가분해지자, 시작한 여행을 계속하여 자기가 부름받고 뽑힌 그 큰 모험을 끝맺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그래서 굳게 마음먹고 도로테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도로테아는 그가 일어서기 전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 말을 따르려고 일어서서 말했다.

"아리따운 아씨여,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라는 것이 흔한 속담이요, 수많은 무거운 일에서 경험이 보여 주었듯, 소송하는 이가 애를 쓰면 판가름 나지 않은 송사도 좋게 끝나는 법이오. 그러나 이 진리가 무엇보다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전쟁의 일이니, 거기서는 날쌔고 재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적의 궁리를 앞질러, 상대가 방비를 갖추기도 전에 승리를 거두오. 드높고 귀하신 아씨여,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에 머무는 것이 이제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그 해를 뼈저리게 깨달을 만큼 우리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오. 그대의 원수인 그 거인이 숨은 첩자들과 부지런한 정탐꾼들을 통해 내가 그를 쳐부수러 간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시간이 틈을 주면, 내 부지런함도 지칠 줄 모르는 내 팔의 힘도 소용이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나 요새에 틀어박혀 방비를 굳힐지도 모르오. 그러니 나의 아씨여, 내가 말했듯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그자의 꾀를 앞지르고, 행운을 빌며 곧 떠납시다. 그대의 위대하심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운을 누리시는 것은 내가 그대의 원수와 맞닥뜨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에만 달려 있소."

돈키호테는 입을 다물고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아리따운 공주의 대답을 기다렸다. 공주는 귀부인다운 몸가짐으로 돈키호테의 말투에 맞추어 이렇게 대답했다.

"기사님, 저의 크나큰 시름에 저를 도우려 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나이다. 고아와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본분인 기사다우시나이다. 하늘이 그대의 바람과 저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어, 세상에 은혜를 아는 여인도 있음을 그대가 보시게 되기를 비나이다. 떠나는 일은 곧 그리하소서. 저는 그대의 뜻 말고는 다른 뜻이 없나이다. 그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대 뜻대로 저를 처분하소서. 한번 제 몸의 방비를 그대에게 맡기고 제 영지를 되찾는 일을 그대 손에 맡긴 몸이니, 그대의 지혜가 명하시는 것을 거스르려 하지 않으리이다."

"하느님 뜻대로 하리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귀부인께서 이렇게 내게 몸을 낮추시니, 그분을 일으켜 물려받으신 왕좌에 앉혀 드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소. 곧 떠납시다. 늦어지는 데 위험이 있다는 흔한 말이 내 바람에도, 내 길에도 박차를 가하오. 하늘이 지어낸 것 가운데도, 지옥이 본 것 가운데도 나를 놀라게 하거나 겁먹게 할 자는 없으니, 산초,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네 당나귀와 여왕님의 말에도 마구를 갖추어라. 그리고 성주와 이분들께 작별을 고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자."

그 자리에 줄곧 있던 산초가 고개를 이리저리 저으며 말했다.

"아이고 나리, 나리, 그 조그만 마을에는 소문난 것보다 더 고약한 일이 있다더니, 점잖은 머릿수건 쓰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어느 마을에, 아니 세상의 어느 도시에 내 체면을 깎을 만한 소문이 날 고약한 일이 있겠느냐, 이 촌놈아?"

"나리께서 화를 내시면" 산초가 대답했다. "입을 다물겠어요. 착한 종자로서, 착한 하인이 주인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말씀을 그만두고요."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네 말이 나를 겁주려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네가 겁을 낸다면 너는 네 됨됨이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겁을 내지 않는다면 나는 내 됨됨이대로 하는 것이니라."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느님 용서하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저 위대한 미코미콘 왕국의 여왕이라는 이 아씨는 틀림없이, 확실히, 우리 어머니만큼도 여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말대로 그런 분이라면, 여기 둘러앉은 사람 가운데 누구하고 고개만 돌리면, 모퉁이만 돌면 주둥이를 맞대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요."

도로테아는 산초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실제로 그 남편 돈 페르난도가 남들 눈을 피해 이따금 제 바람에 걸맞은 상의 일부를 입술로 거두어 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산초가 그것을 보았고, 그런 거리낌 없는 짓은 그토록 큰 왕국의 여왕보다는 궁정 여자에게 어울린다고 여겼다). 도로테아는 산초에게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가 하던 말을 이어 가게 내버려 두었고, 산초는 말을 이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나리, 우리가 큰길이며 오솔길을 헤매고 고약한 밤이며 더 고약한 낮을 보낸 끝에, 이 객줏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와서 우리 고생의 열매를 따 간다면, 제가 서둘러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당나귀에 길마를 얹고 여왕님 말을 꾸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화냥년은 저마다 제 실이나 잣고, 우리는 밥이나 먹자는 거죠."

아, 하느님 맙소사, 종자의 막돼먹은 말을 듣고 돈키호테가 얼마나 크게 노했던가! 그 노여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는 숨 가쁘게 더듬거리는 혀로 두 눈에서 시뻘건 불을 뿜으며 말했다.

"오, 이 악당 같은 촌놈아, 버릇없고, 막돼먹고, 무식하고, 말주변 없고, 입버릇 고약하고, 건방지고, 뒷말 잘하고, 욕 잘하는 놈아! 감히 내 앞에서, 그리고 이 고명하신 귀부인들 앞에서 그런 말을 지껄였느냐? 감히 그 뒤죽박죽인 머릿속에 그런 음탕하고 방자한 생각을 품었느냐?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이 자연의 괴물아, 거짓말 곳간아, 속임수 벽장아,

못된 짓을 쟁여 둔 움 창고야, 악행을 지어내는 놈아, 헛소리를 퍼뜨리는 놈아, 왕족께 바쳐야 할 예의의 원수야! 꺼져라. 내 노여움의 벌을 받기 싫거든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볼을 부풀리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오른발로 땅바닥을 쾅 굴렀다. 모두 그의 오장육부에 가득 찬 노여움의 표시였다. 그 말과 성난 몸짓에 산초는 어찌나 움츠러들고 겁에 질렸던지, 그 순간 발밑에서 땅이 갈라져 자기를 삼켜 버렸으면 좋겠다고 여겼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등을 돌리고 노한 주인 앞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기질을 이미 잘 알게 된 슬기로운 도로테아가 그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고 말했다.

"슬픈 얼굴의 기사님, 그대의 착한 종자가 한 어리석은 말에 노여워 마소서. 아마 그가 까닭 없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의 좋은 분별과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양심으로 보아 누구에게 거짓 증언을 하리라고 의심할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은, 기사님, 그대 말씀대로 이 성에서는 모든 일이 마법으로 돌아가고 일어나니, 산초가 제 정절을 그토록 욕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 악마 같은 길을 통해 보았을 수 있다는 것이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께 맹세하노라."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의 위대하심께서 바로 맞히셨소. 이 죄 많은 산초 앞에 무슨 고약한 헛것이 나타나, 마법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을 것을 그에게 보게 한 것이오. 이 불쌍한 녀석이 착하고 순진하여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그렇고말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돈 페르난도가 말했다. "그러니 돈키호테 나리, 그런 헛것들이 그를 아예 미치게 만들기 전에

그를 용서하시고, 처음과 같이(sicut erat in principio) 나리의 은총의 품으로 다시 거두어 주셔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용서하겠다고 대답했다. 신부가 산초를 데리러 갔고, 산초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와서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손을 청했다. 주인은 손을 내주어 입을 맞추게 한 다음, 그에게 축복을 내리며 말했다.

"얘야 산초, 이 성의 모든 일이 마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여러 번 네게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이제야 너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산초가 말했다. "담요 일만 빼고요. 그건 정말로 보통 길로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믿지 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그때 네 원수를 갚아 주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갚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네가 당한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모두들 그 담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객줏집 주인이 산초 판사의 공중 비행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모두들 적잖이 웃었고, 주인이 마법이었다고 다시 다독여 주지 않았더라면 산초도 그 못지않게 무안해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산초의 어리석음이, 주인이 믿고 우기듯 꿈에서 보거나 머리로 지어낸 유령들이 아니라 살과 뼈를 지닌 사람들에게 담요에 헹가래 쳐진 일이 아무 속임수도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확실한 사실임을 믿지 않을 만큼 커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이름난 일행이 모두 객줏집에 머문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여긴 그들은, 미코미코나 여왕을 해방한다는 핑계로 도로테아와 돈 페르난도가 돈키호테와 함께 그의 마을까지 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신부와 이발사가 바라던 대로 그를 데려가 고향에서 그 광기를 고쳐 보게 할 방도를 세웠다. 그들이 정한 방도는 이러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소달구지꾼 하나와 흥정하여 돈키호테를 이렇게 싣고

가게 하기로 했다. 먼저 나무 막대를 격자로 엮어 우리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돈키호테가 넉넉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런 다음 돈 페르난도와 그 동료들이 돈 루이스의 하인들, 순찰대원들, 객줏집 주인과 함께 모두 신부의 지시와 생각대로 얼굴을 가리고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변장하여, 돈키호테에게 그 성에서 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이게 했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그가 지난번 싸움들에서 지친 몸을 쉬며 자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마음 놓고 자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단단히 붙잡고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눈앞에 늘어선 그 괴상한 얼굴들을 보며 놀라고 어리둥절해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곧 그칠 줄 모르는 자기의 엉뚱한 상상이 보여 주는 대로 생각하여, 그 모든 형상이 마법에 걸린 그 성의 유령들이고, 꼼짝도 못하고 몸을 지킬 수도 없으니 자기는 이미 마법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모든 일이 이 계략을 꾸민 신부가 생각한 그대로 들어맞았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산초만이 제정신에 제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주인과 같은 병에 걸리기까지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 변장한 형상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인을 덮쳐 사로잡은 이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 때까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주인도 자기 불운의 끝을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끝은 이러했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로 가져와 그를 안에 가두고, 두 번 힘껏 잡아당겨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나무 막대에 단단히 못을 박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우리를 어깨에 메었다. 그들이 방을 나서자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발사가, 길마의 이발사가 아니라 다른

이발사가 낼 수 있는 한껏 지어낸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오, 슬픈 얼굴의 기사여, 네가 갇혀 가는 이 옥살이를 괴로워하지 말지어다. 너의 크나큰 용기가 너를 들여보낸 그 모험을 더 빨리 끝내려면 이래야 하느니라. 그 모험은 사나운 라만차의 얼룩 사자가 흰 토보소 비둘기와 한 몸으로 누울 때 끝나리라. 그 높은 목덜미들을 부드러운 혼인스러운 멍에에 숙인 뒤의 일이니라. 그 전대미문의 짝에게서 용맹한 새끼 사자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리라. 그들은 용감한 아비의 날뛰는 발톱을 본받으리라. 그리고 이 일은 달아나는 요정을 쫓는 이가 그 빠르고 타고난 걸음으로 빛나는 별자리들을 두 차례 찾아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 오, 허리에 칼을 차고, 얼굴에 수염을 달고, 코에 냄새 맡는 힘을 지닌 이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종하는 종자여, 편력 기사도의 꽃이 바로 네 눈앞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서러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을 빚으신 분이 기뻐하신다면, 너는 머지않아 너 자신도 몰라볼 만큼 높이, 드높이 오르리라. 너의 착한 주인이 너에게 한 약속은 헛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현자 멘티로니아나(거짓말쟁이)를 대신하여 너에게 다짐하노라. 너의 삯은 치러지리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게 되리라. 그러니 용감하고 마법에 걸린 기사의 발자취를 따르라. 너희 둘이 멈출 곳까지 네가 따라가야 하느니라. 그리고 다른 말은 내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잘 있거라. 나는 내가 아는 곳으로 돌아가노라."

예언을 마칠 무렵 그는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가 다시 낮추었는데, 그 가락이 어찌나 애틋했던지 그 장난을 아는 사람들조차 지금 듣는 것이 참말이라고 믿을 뻔했다.

돈키호테는 들은 예언에 위안을 얻었다. 그는 곧 그 예언의 뜻을 하나하나 다 헤아렸고,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와

거룩하고 마땅한 혼인으로 맺어질 것을 약속하는 말이며, 그 복된 배에서 새끼 사자들, 곧 자기의 자식들이 나와 라만차의 영원한 영광이 되리라는 뜻임을 알았다. 그는 이것을 굳고 단단히 믿고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 너, 네가 누구이든, 내게 이토록 좋은 일을 예언해 준 이여, 내 일을 맡아 보는 현명한 마법사에게 나를 대신하여 청해 다오. 여기서 내게 해 준 것처럼 기쁘고 비길 데 없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지금 나를 데려가는 이 옥 속에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내 감옥의 괴로움을 영광으로, 나를 두른 이 쇠사슬을 위안으로 여기리라. 그리고 나를 눕힌 이 잠자리를 험한 싸움터가 아니라 부드러운 침상이요 복된 신방으로 여기리라. 그리고 내 종자 산초 판사를 위로하는 일로 말하자면, 나는 그의 착함과 좋은 행실을 믿으니, 그는 좋은 운에서도 나쁜 운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 설령 그의 운이 박하든 내 운이 박하든, 내가 그에게 약속한 섬이나 그에 맞먹는 다른 것을 줄 수 없게 되더라도, 적어도 그의 삯은 떼이지 않으리라. 이미 써 둔 내 유언장에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을 밝혀 두었으니 말이다. 그의 많고 훌륭한 섬김에 걸맞게가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적어 두었지만."

산초 판사는 아주 공손하게 그에게 몸을 굽혀 두 손에 입을 맞추었다. 두 손이 다 묶여 있었으므로 한 손에만 입을 맞출 수는 없었다.

그런 다음 그 헛것들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서 소달구지에 실었다.

제47장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마법에 걸린 기이한 경위와 다른 이름난 사건들

돈키호테는 그렇게 우리에 갇혀 달구지 위에 실린 자기를 보자 말했다.

"나는 편력 기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그것도 아주 무게 있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소. 그러나 마법에 걸린 기사들을 이렇게, 이 게으르고 굼뜬 짐승들이 약속하는 이런 느린 걸음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는 읽어 본 적도,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소. 언제나 그들은 거무스름하고 어두운 구름에 싸이거나, 불 수레를 타거나, 히포그리프나 그 비슷한 짐승을 타고서 기이하게 날쌔게 하늘을 날아가곤 하오. 그런데 지금 나를 소달구지에 실어 간다니, 하느님 맙소사, 이것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오! 그러나 아마 요즘 우리 시대의 기사도와 마법은 옛사람들이 따르던 길과는 다른 길을 따르는 모양이오. 또 이럴 수도 있소. 나는 세상에 새로 나온 기사이고, 잊힌 모험 기사도의 업을 처음으로 되살린 사람이니, 마법도 새로운 갈래가 지어지고 마법에 걸린 사람을 데려가는 방법도 새로 생겨났을지 모르오. 얘야 산초,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산초가 대답했다. "편력 기사들의 글을 나리만큼 많이 읽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 이 헛것들이 그다지 가톨릭 신자답지는 않다는 것만은 감히 단언하고 맹세할 수 있어요."

"가톨릭 신자답다고? 천만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모두 악마들이 헛된 몸을 빌려 쓰고 와서 이런 짓을 하고 나를 이런 꼴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가톨릭 신자다울 수 있겠느냐? 이 진실을 보고 싶거든 그것들을 만지고 더듬어 보아라. 그것들의 몸은 공기로만 되어 있고, 겉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 맹세코,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저는 벌써 그것들을 만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이 악마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제가 듣던 악마들의 성질하고는 아주 다른 성질이 있어요. 소문으로는 악마들은 모두 유황 냄새나 다른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는데, 이놈은 반 레과 밖에서도 용연향 냄새가 나거든요."

산초는 돈 페르난도를 두고 이 말을 했다. 그는 지체 높은 나리였으므로 산초가 말한 그런 냄새를 풍겼을 것이다.

"그런 일에 놀라지 마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너에게 일러 주거니와, 악마들은 아는 것이 많으니, 냄새를 지니고 다닌다 해도 그들 자신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한다. 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냄새를 풍긴다 해도 좋은 냄새는 풍길 수 없고, 고약하고 구린 냄새만 풍긴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 지옥을 함께 지니고 다니고, 괴로움 속에서 어떤 위안도 얻을 수 없는데, 좋은 냄새란 즐겁고 흐뭇하게 해 주는 것이니, 그들이 좋은 냄새를 풍길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 네가 말하는 그 악마에게서 용연향 냄새가 난다고 여겨진다면, 네가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그자가 너로 하여금 자기를 악마로 여기지 않게 하여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는 산초가 이미 바짝 뒤쫓고 있는 그들의 꾀를 아주 알아채고 말까 봐 걱정이 되어 떠나는 일을 서두르기로 했다. 그래서 객줏집

주인을 한쪽으로 불러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산초의 당나귀에 길마를 얹으라고 일렀고, 주인은 아주 재빨리 그렇게 했다.

그 무렵 신부는 이미 순찰대원들과 흥정하여 날마다 얼마씩 주기로 하고 자기 마을까지 동행하게 해 두었다. 카르데니오는 로시난테의 안장머리 한쪽에는 가죽 방패를, 다른 쪽에는 대야를 매달았다. 그리고 손짓으로 산초에게 당나귀에 올라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으라고 했고, 달구지 양옆에는 순찰대원 둘을 총을 든 채 세웠다. 그러나 달구지가 움직이기 전에 객줏집 안주인과 그 딸과 마리토르네스가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다. 그들은 그의 불운이 가슴 아파 우는 시늉을 했고,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말했다.

"울지 마시오, 나의 착한 부인들이여. 이 모든 불운은 내가 업으로 삼은 일을 업으로 삼은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오. 이런 재앙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이름난 편력 기사로 여기지 않을 것이오. 이름도 명성도 별로 없는 기사들에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 세상에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오. 용맹한 기사들에게는 일어나오. 그들의 덕과 용기를 시샘하는 군주들과 다른 기사들이 많아서 고약한 길로 착한 이들을 없애려 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그래도 덕이란 워낙 힘이 세어서, 그 처음 지어낸 조로아스터가 알던 강령술을 다 동원하더라도 덕은 홀로 모든 위기에서 이겨 내고, 해가 하늘에서 빛을 내듯 세상에 빛을 내리라. 아리따운 귀부인들이여, 혹시 내가 무심하여 그대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용서하시오. 일부러 알면서 누구에게 몹쓸 짓을 한 적은 결코 없소. 그리고 어떤 못된 마법사가 나를 가두어 놓은 이 옥에서 나를 꺼내 주시도록 하느님께 빌어 주시오. 이 옥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그대들이 이 성에서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걸맞게 갚고 받들고 보답하리라."

성의 귀부인들이 돈키호테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신부와 이발사는 돈 페르난도와 그 동료들, 대위와 그 아우, 그리고 기쁨에 찬 모든 아씨들, 특히 도로테아와 루스신다에게 작별을 고했다. 모두 서로 끌어안으며,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알리자고 약속을 나누었다. 돈 페르난도는 신부에게 돈키호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며 편지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일러 주었고,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다짐했다. 그리고 자기도 신부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알려 주기로 했다. 자기 혼례며 소라이다의 세례며, 돈 루이스의 일이며 루스신다가 집으로 돌아간 일까지 말이다. 신부도 부탁받은 일은 무엇이든 꼬박꼬박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다시 서로 끌어안았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고받았다.

객줏집 주인이 신부에게 다가와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주제넘은 호기심』 이야기가 나온 그 가방의 안감 속에서 찾아낸 것인데, 주인이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으니 모두 가져가시라면서, 자기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필요 없다고 했다. 신부는 고맙다고 하고 곧 펼쳐 보았는데, 글머리에 『린코네테와 코르타디요』 이야기[1]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책이리라 여겼고, 『주제넘은 호기심』이 좋았으니 이것도 좋으리라고 짐작했다. 모두 같은 작가가 쓴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틈이 나면 읽을 생각으로 그것을 간직했다.

그는 말에 올랐고, 벗 이발사도 말에 올랐다. 둘은 돈키호테가 금세 알아보지 못하도록 복면을 쓰고 달구지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는 차례는 이러했다. 맨 앞에는 주인이 모는 달구지가 가고, 그 양옆에는 앞서 말한 대로 순찰대원들이 총을 들고 갔다. 그 뒤로 산초 판사가 당나귀를 타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고 따랐다. 그리고 맨 뒤에는 신부와 이발사가 튼튼한 노새를 타고 갔는데, 앞서 말한 대로 얼굴을 가린 채 점잖고 의젓한 몸가짐으로 소들의 느린 걸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나아갔다. 돈키호테는 손이 묶이고 다리를 뻗은 채 우리 안에 앉아 창살에 기대어 있었는데, 살로 된 사람이 아니라 돌로 된 조각상인 것처럼 잠자코 참고 있었다.

이렇게 느릿느릿 말없이 2레과쯤 가자 골짜기 하나에 이르렀다. 소달구지꾼은 그곳이 쉬면서 소들에게 풀을 먹이기 좋은 자리라고 여겼다. 그가 신부와 의논하자, 이발사는 조금 더 가자는 의견을 냈다. 가까이 보이는 언덕 너머에, 그들이 멈추려는 이 골짜기보다 풀이 더 많고 훨씬 좋은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발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그들은 다시 길을 이어 갔다.

그때 신부가 고개를 돌려 보니, 등 뒤로 차림새가 훌륭하고 잘 갖춘 기마 남자 예닐곱 명이 오고 있었다. 그들은 금세 신부 일행을 따라잡았는데, 소들처럼 느긋하고 굼뜨게 가는 것이 아니라 참사회원들이 타는 노새를 탄 사람처럼, 1레과도 안 되는 거리에 보이는 객줏집에 어서 가서 한낮의 낮잠을 자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지런한 이들이 게으른 이들을 따라잡자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일행 가운데 하나, 알고 보니 톨레도의 참사회원이고 함께 오는 다른 이들의 주인인 사람이, 달구지와 순찰대원들과 산초와 로시난테와 신부와 이발사의 질서 정연한 행렬을 보고, 게다가 우리에 갇혀 사로잡힌 돈키호테를 보자, 저 사람을 저렇게 데려가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하기야 그는 순찰대원들의 휘장을 보고 그가 어떤 흉악한 노상강도이거나 성스러운 형제단이 벌을 내려야 할 다른 범죄자이리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질문을 받은 순찰대원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리, 이 기사가 왜 이렇게 가는지는 이분한테 직접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저희는 모릅니다."

돈키호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기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편력 기사도에 밝고 익숙하신 분들이오? 그렇다면 내 불운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겠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애써 이야기할 까닭이 없소."

그 무렵 신부와 이발사는 길손들이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계략이 들통나지 않게 대답하려고 이미 그 곁에 와 있었다.

참사회원은 돈키호테의 말에 대답했다.

"참말이지, 형씨, 나는 『비얄판도의 논리학 요강』보다 기사 소설을 더 잘 아오. 그러니 그것만이 문제라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내게 털어놓아도 좋소."

"하느님 뜻대로 하리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렇다면 기사여, 내가 못된 마법사들의 시샘과 속임수로 마법에 걸려 이 우리에 실려 간다는 것을 아시오. 덕은 착한 이들에게 사랑받기보다 악한 이들에게 박해받는 법이오. 나는 편력 기사요. 그것도 명성의 여신이 영원히 기억에 새겨 두려고 그 이름을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시샘 그 자체와, 페르시아가 길러 낸 마고스들, 인도가 길러 낸 브라만들, 에티오피아가 길러 낸 나체 현자들이 아무리 거슬러도, 불멸의 신전에 이름을 올려 다가올 세대에 본보기와 귀감이 될 그런 기사요. 편력 기사들이 무예의 영예로운 꼭대기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거기서 자기들이 따라야 할 발자취를 보게 될 것이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께서 참말을 하시오." 그때 신부가 말했다. "이분은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덕을 못마땅해하고 용기를 언짢아하는 자들의 못된 속셈 때문에 마법에 걸려 이 달구지에 실려 가시는 것이오. 나리, 이분이 바로 슬픈 얼굴의 기사요. 언젠가 그 이름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소만, 시샘이 그 용맹한 무훈과 큰 업적을

흐리려고 아무리 애쓰고 악의가 그것을 감추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무훈과 업적은 단단한 청동과 영원한 대리석에 새겨질 것이오."

참사회원은 갇힌 사람과 풀려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듣자, 어찌나 놀랐던지 성호를 그을 뻔했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놀랐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가와 있던 산초 판사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며 말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저를 좋게 보시든 나쁘게 보시든,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가 마법에 걸렸다는 건 우리 어머니가 마법에 걸렸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돼요. 나리는 정신이 멀쩡하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볼일도 보시거든요. 우리에 갇히기 전 어제도 그러셨던 것처럼요.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저한테 나리가 마법에 걸렸다고 믿게 하려 하세요? 저는 마법에 걸린 사람은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누가 말리지 않으면 소송 대리인 서른 명보다 더 말을 많이 하실걸요."

그러고는 신부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신부님,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못 알아볼 줄 아셨어요? 이 새로 나온 마법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제가 꿰뚫어 보고 알아채지 못할 줄 아세요? 얼굴을 아무리 가리셔도 저는 신부님을 알아보고, 속임수를 아무리 감추셔도 저는 다 알아들어요. 하기야 시샘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덕이 살 수 없고, 인색한 곳에서는 너그러움이 살 수 없는 법이죠. 악마나 물어 가라죠! 신부님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주인 나리는 미코미코나 공주님하고 혼인하셨을 테고, 저는 적어도 백작은 되었을 거예요. 슬픈 얼굴의 기사이신 우리 주인 나리의 착하심으로 보나 제 섬김의 크기로 보나 그것 말고 다른 걸 바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맞네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방앗간 바퀴보다 더 빨리 돌고, 어제 꼭대기에 올라앉았던 사람이 오늘은 바닥에 나뒹군다더니요. 제 자식들하고 마누라가 가여워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섬이나 왕국의 통치자나 부왕이 되어 문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마땅히 기대했을 텐데, 마부가 되어 들어오는 걸 보게 생겼으니까요. 신부님,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는 건 그저 신부님께서 우리 주인 나리가 당하시는 험한 대접을 양심에 비추어 보시라고 간곡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세상에서 우리 주인을 이렇게 가둔 일을 따지시고, 돈키호테 나리가 갇혀 있는 동안 베풀지 못하시는 그 모든 도움과 선행을 신부님 몫으로 셈하시지 않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등잔들 좀 손봐야겠군!" 그때 이발사가 말했다. "산초, 자네도 자네 주인과 한패인가? 하느님 맙소사, 자네도 주인과 함께 우리에 들어가 짝이 되어 주고 주인처럼 마법에 걸려야겠네. 자네도 주인의 기질과 기사도에 물들었으니 말일세. 자네는 하필 재수 없는 때에 그 사람 약속을 배었고, 그토록 바라는 섬은 하필 고약한 시각에 자네 머릿속에 들어갔네."

"저는 누구 아이도 배지 않았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임금님이 와도 아이를 배도록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해도 저는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누구한테 진 빚도 없어요. 제가 섬을 바란다지만, 남들은 더 고약한 걸 바라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제 행실의 자식이고, 사람인 이상 저도 교황이 될 수 있는데 섬 하나 다스리는 통치자쯤이야 못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주인 나리께서 섬을 하도 많이 얻으셔서 나눠 줄 사람이 모자랄 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발사 나리, 말씀 조심하세요. 세상일이 다 수염 깎는 일은 아니고, 같은 페드로라도 페드로 나름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다 서로 아는 사이라서예요. 저한테 가짜 주사위를 던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주인 나리가 마법에 걸린 일은 하느님이 진실을 아시겠죠.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둬요. 휘저을수록 더 고약해지니까요."

이발사는 산초에게 대꾸하려 하지 않았다. 산초가 순진한 말로 자기와 신부가 그토록 감추려 애쓰는 것을 드러낼까 봐서였다. 같은 걱정 때문에 신부는 우리에 갇힌 사람의 비밀과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참사회원에게 조금 앞서가자고 했다. 참사회원은 그렇게 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신부와 앞으로 나아가며, 신부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돈키호테의 됨됨이와 생활과 광기와 버릇을 귀 기울여 들었다. 신부는 그의 헛된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그를 이 우리에 넣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흐름을 짧게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의 광기를 고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그를 고향으로 데려가는 중이라는 계획도 들려주었다. 하인들과 참사회원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놀랐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참사회원이 말했다.

"참으로, 신부님, 내가 따져 보기로는 기사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은 나라에 해롭소. 나도 한가하고 그릇된 재미에 끌려 인쇄된 기사 소설 대부분의 첫머리는 거의 다 읽어 보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낸 것은 하나도 없소. 많든 적든 모두 똑같은 것이어서, 이 책이 저 책보다 나을 것도 없고 그 책이 또 다른 책보다 나을 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런 갈래의 글과 짜임은 밀레토스 이야기라고 부르는 꾸민 이야기들의 갈래에 드오. 그것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오로지 즐겁게 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가르치는 데는 마음을 쓰지 않소. 즐겁게 하면서 함께 가르치는 교훈 우화와는 정반대요. 그리고 그런 책들의 으뜸가는 목적이 즐겁게 하는 데 있다 해도, 그토록 많고 그토록 엄청난 터무니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소. 영혼 속에 생겨나는 즐거움은

눈이나 상상이 그 앞에 내놓는 것들에서 영혼이 보거나 바라보는 아름다움과 어울림에서 나와야 하고, 그 자체에 추함과 흐트러짐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아무런 흡족함도 줄 수 없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열여섯 살 난 젊은이가 탑만 한 거인에게 칼을 한 번 휘둘러 마치 설탕 과자로 만든 것처럼 두 동강을 내는 책이나 이야기에서 무슨 아름다움이,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사이에 무슨 균형이 있을 수 있겠소? 또 싸움을 그려 보이려 할 때, 적의 편에 백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해 놓고도 책의 주인공이 그들과 맞서기만 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 기사가 오로지 제 억센 팔의 용기만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소? 또 어느 여왕이나 제위를 이을 황녀가 이름도 모르는 편력 기사의 품에 그토록 쉽사리 안기는 것은 무엇이라 해야 하겠소? 기사들로 가득 찬 큰 탑이 순풍을 받은 배처럼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 오늘 밤에는 롬바르디아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는 인디아스의 사제왕 요한의 땅이나, 프톨레마이오스도 찾아내지 못하고 마르코 폴로도 보지 못한 다른 땅에서 날이 밝는다는 이야기를 읽고 흡족해할 재주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야만스럽고 거친 재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리고 이런 책을 짓는 이들은 그것을 거짓 이야기로 쓰는 것이니 섬세함이나 진실을 따질 까닭이 없다고 누가 내게 대답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소. 거짓은 참말처럼 보일수록 더 훌륭하고, 미심쩍으면서도 있을 법한 데가 많을수록 더 즐거움을 준다고. 꾸며 낸 거짓 이야기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분별과 짝을 이루어야 하오. 불가능한 것을 손쉬워 보이게 하고, 엄청난 것을 고르게 다듬고, 마음을 붙들어 놓아서, 놀라게 하고, 넋을 빼놓고,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하여,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발맞추어 가도록 써야 하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럴듯함과 본뜨기를 멀리하는 사람은 해낼 수 없소. 글의 완성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오. 나는 기사 소설 가운데 팔다리를

모두 갖춘 온전한 이야기의 몸을 이루어, 가운데가 처음과 맞고 끝이 처음과 가운데와 맞는 책을 하나도 보지 못했소. 오히려 팔다리를 하도 많이 붙여 지어서, 균형 잡힌 형상을 빚기보다는 키마이라나 괴물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오. 그뿐 아니라 그런 책들은 문체는 딱딱하고, 무훈은 믿을 수 없고, 사랑은 음탕하고, 예절은 버릇없고, 싸움은 길고, 말은 어리석고, 여행은 터무니없으며,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솜씨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쓸모없는 족속처럼 그리스도교 나라에서 쫓겨나 마땅하오."

신부는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고, 분별이 좋은 사람이며 하는 말이 모두 옳다고 여겼다. 그래서 자기도 같은 생각이고 기사 소설을 미워하여 돈키호테의 책을, 그것도 아주 많은 책을 다 태워 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두고 벌인 검열 이야기와, 어떤 책을 불에 넣는 벌을 내리고 어떤 책을 살려 두었는지를 들려주었다. 참사회원은 그 이야기에 적잖이 웃더니, 그런 책들을 두고 그렇게 나쁜 말을 다 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점을 하나 찾았다고 했다. 바로 좋은 재주가 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거리를 내준다는 점이었다. 그런 책들은 펜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달릴 수 있는 길고 너른 들판을 내주어, 난파와 폭풍과 맞부딪침과 싸움을 그려 낼 수 있게 한다. 용맹한 장수를 그려, 그런 장수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게 하고, 적의 꾀를 미리 막는 데는 지혜롭게, 병사들을 설득하거나 말리는 데는 말 잘하는 연설가로, 의논할 때는 노련하게, 결정한 일에는 재빠르게, 버틸 때나 덤빌 때나 똑같이 용감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어떤 때는 가슴 아픈 비극을, 어떤 때는 즐겁고 뜻밖의 일을 그리고, 저기서는 더없이 아름답고 정숙하고 슬기롭고 조신한 귀부인을, 여기서는 용감하고 예의 바른 그리스도교도 기사를, 저쪽에서는 터무니없이 허풍 떠는 야만인을, 이쪽에서는 예의 바르고 용맹하고 사려 깊은 군주를 그리며, 가신들의 착함과 충성,

영주들의 너그러움과 은혜를 보여 줄 수 있다. 작가는 때로는 점성가로, 때로는 뛰어난 지리학자로, 때로는 음악가로, 때로는 나랏일에 밝은 사람으로 솜씨를 보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강령술사로 솜씨를 보일 기회가 올 때도 있을 것이다. 율리시스의 꾀, 아이네이아스의 경건함, 아킬레우스의 용기, 헥토르의 불운, 시논의 배신, 에우리알로스의 우정, 알렉산드로스의 너그러움, 카이사르의 용맹, 트라야누스의 관대함과 진실함, 조피로스의 충성, 카토의 지혜를 보여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름난 사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실을 때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고 참사회원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부드러운 문체와 재치 있는 창안으로, 될 수 있는 한 진실에 가깝게 해낸다면, 틀림없이 갖가지 아름다운 매듭으로 짠 천을 지어 낼 것이고, 그 천은 다 짜고 나면 더없이 완전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앞서 말했듯 글이 바라는 가장 좋은 목적, 곧 가르치면서 함께 즐겁게 하는 목적을 이룰 것이오. 이런 책들의 얽매이지 않은 글은 작가가 서사시인으로, 서정시인으로, 비극 작가로, 희극 작가로, 시와 웅변이라는 더없이 달콤하고 즐거운 학문이 품은 모든 자질을 갖추고 솜씨를 보일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오. 서사시는 운문으로뿐 아니라 산문으로도 쓸 수 있으니 말이오."

---

1. 세르반테스 자신의 단편 소설. 세비야 뒷골목의 두 소년 건달 이야기로, 뒷날(1613) 『모범 소설집』에 실렸다.

제48장 참사회원이 기사 소설 이야기를 이어 가고 그의 재주에 걸맞은 다른 이야기도 한다

"참사회원 나리, 말씀하신 그대로요." 신부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책을 지은 이들이 더 나무람을 받아 마땅하오. 그들은 좋은 사리도, 길잡이로 삼을 기법과 규칙도 전혀 돌보지 않았소. 그것을 따랐더라면, 그리스와 라틴 시의 두 왕자가 운문으로 이름을 떨쳤듯 그들도 산문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적어도 나는" 참사회원이 맞받았다. "내가 말한 요점을 모두 지키며 기사 소설을 한 권 써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소. 그리고 사실대로 털어놓자면 벌써 백 장 넘게 써 두었소. 그것이 내 기대에 맞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읽을거리를 좋아하는 박식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만 찾는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보였는데, 모두에게서 흐뭇한 칭찬을 받았소. 그런데도 나는 더 써 나가지 않았소. 그것이 내 직분과는 거리가 먼 일 같기도 했고, 어리석은 자들의 수가 슬기로운 자들의 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오. 어리석은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사느니 슬기로운 적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편이 낫다 해도, 그런 책을 읽는 이들은 대개 허영에 들뜬 무리이니, 나는 그들의 갈피 없는 판단에 나를 내맡기고 싶지 않소. 그러나 그 책을 내 손에서, 아니 머릿속에서까지 끝맺을 생각을 가장 크게 앗아 간 것은 요즘 무대에 올리는 연극들을 보고 나 혼자 따져 본 이치였소.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지금 유행하는

연극들은 꾸민 것이든 역사를 다룬 것이든 모두, 아니 거의 다 누구나 아는 터무니없는 소리요 머리도 꼬리도 없는 것들인데도 대중은 그것을 즐겨 듣고,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면서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칭찬한다. 그리고 그것을 짓는 작가들도 그것을 공연하는 배우들도 대중이 그렇게 원하니 그래야지 달리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짜임새가 있고 기법이 요구하는 대로 줄거리를 따르는 연극은 그것을 알아듣는 슬기로운 몇 사람에게나 쓸모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그 솜씨를 알아듣지 못한 채 쫄쫄 굶고 마니, 적은 이들에게서 평판을 얻느니 많은 이들에게서 밥벌이를 하는 편이 자기들에게 낫다고 한다. 그렇다면 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규범을 지키느라 눈썹을 태우며 밤을 새운 끝에, 나는 길모퉁이 재봉사, 공으로 바느질해 주고 실까지 제 것을 대는 그 재봉사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몇 번이나 배우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터무니없는 연극보다 기법을 따르는 연극을 공연해야 사람을 더 많이 끌고 명성도 더 많이 얻을 것이라고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그들은 제 생각에 어찌나 매달리고 푹 박혀 있는지 어떤 이치도 증거도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지 못하오. 어느 날 그런 고집쟁이 하나에게 이렇게 말한 일이 생각나오. '말해 보시오. 몇 해 전에 이 나라의 이름난 시인 하나가 지은 비극 세 편이 에스파냐에서 공연되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을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대중이나 뽑힌 이들이나 모두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넋을 빼놓았으며, 그 세 편만으로 그 뒤로 지금까지 나온 가장 좋은 연극 서른 편보다 더 많은 돈을 배우들에게 벌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오?' 내가 말하는 그 극단 우두머리가 대답했소. '틀림없이 『이사벨라』와 『필리스』와 『알레한드라』[1]를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그에게 되받았소. '바로 그 작품들을 말하는 것이오. 그 작품들이 기법의 규범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그 본래 모습을

잃거나 온 세상을 즐겁게 하지 못한 일이 있는지 보시오. 그러니 잘못은 터무니없는 것을 달라는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공연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있소. 그렇소, 『 앙갚음당한 배은망덕 』 도 터무니없지 않았고, 『누만시아』에도 그런 데가 없었으며, 『사랑에 빠진 상인』에서도 그런 데는 찾아볼 수 없었고, 『호의를 베푼 적』에는 더더욱 없었소. 슬기로운 시인 몇이 제 이름과 명성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공연한 이들의 벌이를 위해 지은 다른 몇몇 작품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 말에 다른 말도 덧붙였고, 내가 보기에 그를 얼마간 어리둥절하게는 만들었으나, 그 그릇된 생각에서 끌어낼 만큼 흡족하게 하거나 설복하지는 못했소."

"참사회원 나리, 바로 그 문제를 건드리셨구려." 그때 신부가 말했다. "그 말씀이 요즘 유행하는 연극에 품고 있던 내 묵은 앙심을 일깨웠소. 그 앙심은 내가 기사 소설에 품은 앙심과 맞먹을 정도요. 툴리우스(키케로)의 말대로라면 연극은 사람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요, 풍속의 본보기요, 진실의 그림이어야 하는데, 요즘 무대에 오르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요, 어리석음의 본보기요, 음탕함의 그림이기 때문이오.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에서, 제1막 첫 장면에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나왔다가 둘째 장면에서는 벌써 수염 난 사내가 되어 나오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무엇이겠소? 용감한 늙은이와 겁쟁이 젊은이, 말 잘하는 하인, 충고하는 시동, 막노동꾼 같은 임금, 설거지꾼 같은 공주를 그려 보이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이 무엇이겠소? 그들이 공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날 수 있었던 때를 지키는 문제는 또 무어라 하겠소? 나는 제1막이 유럽에서 시작하고, 제2막은 아시아에서, 제3막은 아프리카에서 끝나는 연극을 보았소. 넉 막짜리였다면 넷째 막은 아메리카에서 끝났을 테니, 세상의 네 대륙 모두에서 공연한 셈이 되었을 것이오. 그리고 본뜨기가 연극이

지녀야 할 으뜸가는 것이라면, 피핀 왕과 샤를마뉴 시대에 일어난 일을 꾸며 보이면서 그 연극의 주인공 노릇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헤라클리우스 황제의 일을 갖다 붙이고, 고드프루아 드 부용처럼 성지를 되찾은 사람의 일까지 갖다 붙인다면, 웬만한 분별을 지닌 사람이라도 어떻게 흡족해할 수 있겠소? 한 일과 다른 일 사이에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이 놓여 있는데 말이오. 꾸며 낸 일 위에 연극을 세우면서 역사의 진실을 갖다 붙이고, 다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의 조각들을 섞어 넣는데, 그것도 그럴듯한 짜임새로가 아니라 도무지 봐줄 수 없는 뻔한 잘못으로 그렇게 하니 말이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나머지는 쓸데없이 별미나 찾는 짓이라고 말하는 무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오. 성인극으로 넘어가면 또 어떻소! 그 안에서 거짓 기적을 얼마나 많이 꾸며 내고, 얼마나 많은 미심쩍고 잘못 알아들은 일들을 늘어놓으며, 한 성인의 기적을 다른 성인에게 갖다 붙이는지 모르오! 세속극에서도 그들은 감히 기적을 만들어 내는데, 그저 그 자리에 그런 기적과, 그들 말로 '눈속임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다는 것 말고는 아무 거리낌도 헤아림도 없소. 무식한 사람들이 놀라서 연극을 보러 오게 하려는 것이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해치고 역사를 깎아내리며, 에스파냐 사람들의 재주에까지 먹칠을 하오. 연극의 법칙을 아주 꼼꼼하게 지키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짓는 연극의 엉터리와 터무니없음을 보고 우리를 야만스럽고 무식한 족속으로 여기기 때문이오. 그리고 이에 대한 핑계로, 질서가 잘 잡힌 나라들이 공공 연극을 허락하는 으뜸가는 뜻은 점잖은 놀이로 백성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한가함이 낳기 쉬운 고약한 기분을 딴 데로 돌리려는 데 있으며, 그 뜻은 좋은 연극으로든 나쁜 연극으로든 이루어지니, 법을 만들 것도, 짓는 이와 공연하는 이를 다잡아 마땅히 지어야 할 대로 짓게 할 것도 없다, 앞서 말했듯 어떤

연극으로든 바라는 바는 이루어지니까, 하고 말해 보아야 넉넉한 핑계가 되지는 못하오.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소. 그 목적은 좋지 못한 연극보다 좋은 연극으로 비길 데 없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고. 솜씨 있고 짜임새 있는 연극을 듣고 나면, 듣는 사람은 우스갯소리에 즐거워지고, 진지한 대목에서 깨우치고, 사건에 놀라고, 대사에서 슬기를 얻고, 속임수를 보며 조심성을 배우고, 본보기에서 영리해지고, 악덕에 노하고, 덕에 반하여 극장을 나설 것이기 때문이오. 좋은 연극은 듣는 사람이 아무리 촌스럽고 둔하다 해도 그 마음에 이 모든 감정을 일깨워야 하오. 그리고 이 모든 자질을 지닌 연극이 그것이 없는 연극보다, 요즘 늘 무대에 오르는 것들이 대개 그렇듯 그것이 없는 연극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을 수는 도무지 없고말고요. 이 잘못은 그것을 짓는 시인들 탓이 아니오. 그들 가운데는 자기가 어디서 잘못하는지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없이 잘 아는 이들도 있소. 그러나 연극이 팔리는 상품이 되어 버렸으니, 배우들이 그런 꼴이 아니면 사들이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말하고, 그 말은 참말이오. 그래서 시인은 제 작품에 돈을 치를 배우가 요구하는 대로 맞추려 애쓰오. 이것이 참말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더없이 복된 재주 하나[2]가 지은 수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극을 보면 알 수 있소. 그 연극들은 그토록 멋지고 그토록 재치 있고 그토록 우아한 운문에 그토록 좋은 대사와 그토록 무게 있는 경구를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말솜씨와 높은 문체로 그토록 가득 차 있어서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오. 그런데 배우들의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몇 작품은 다다랐지만 모든 작품이 마땅히 다다라야 할 완전함에 다다르지는 못했소. 또 어떤 이들은 제가 하는 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어서,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이 벌을 받을까 두려워 달아나 숨어야 하오. 실제로 몇몇 임금을 해치고 몇몇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공연했다고 벌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소. 그리고 궁정에 분별 있고 슬기로운 사람 하나를 두어, 공연하기 전에 모든 연극을 검열하게 한다면(궁정에서 하는 연극만이 아니라 에스파냐에서 공연하려는 모든 연극을), 이 모든 폐단도, 내가 말하지 않은 다른 많은 폐단도 사라질 것이오. 그의 승인과 도장과 서명 없이는 어느 고을의 관리도 어떤 연극도 공연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이오. 그렇게 하면 배우들은 연극을 궁정으로 보내는 데 마음을 쓸 것이고 마음 놓고 공연할 수 있을 것이며, 연극을 짓는 이들은 제 작품이 그것을 아는 사람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 제가 하는 일을 더 조심스럽게, 더 공들여 살필 것이오. 그렇게 해서 좋은 연극이 지어지고, 연극에서 바라는 것이 더없이 복되게 이루어질 것이오. 백성의 즐거움도, 에스파냐 재주꾼들의 평판도, 배우들의 이익과 안전도, 그들을 벌하는 수고를 덜어 주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바로 그 사람에게 새로 지어지는 기사 소설도 검열하는 일을 맡긴다면, 틀림없이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함을 갖춘 책도 몇 권 나올 것이오. 그 책들은 우리 말을 웅변이라는 즐겁고 값진 보물로 넉넉하게 하고, 새로 나오는 책들의 빛 아래 옛 책들이 빛을 잃게 하며, 한가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바쁜 사람들에게도 점잖은 소일거리가 될 것이오. 활을 늘 당겨 둘 수는 없는 법이고,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연약함은 어떤 정당한 놀이 없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오."

참사회원과 신부가 이야기를 이 대목까지 나누었을 때, 이발사가 앞서가다가 그들에게 와서 신부에게 말했다.

"석사 나리, 우리가 낮잠을 자는 동안 소들이 시원하고 넉넉한 풀을 뜯기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바로 여기예요."

"내가 보기에도 그렇네." 신부가 대답했다.

그리고 신부가 참사회원에게 자기가 하려는 일을 말하자, 참사회원도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골짜기의 경치에 끌려 그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졌다. 그는 그 골짜기도 즐기고, 이미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신부와의 이야기도 즐기고, 돈키호테의 무훈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하인 몇에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객줏집에 가서 모두가 먹을 만한 것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날 오후는 그곳에서 낮잠을 자며 쉬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이미 객줏집에 가 있을 식량실은 짐 노새에 넉넉한 먹을거리가 실려 있으니 객줏집에서는 보리 말고는 가져올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참사회원이 말했다. "탈것들은 모두 그리로 데려가고, 짐 노새는 이리로 돌려오게."

그러는 동안, 산초는 미심쩍게 여기는 신부와 이발사가 줄곧 곁에 붙어 있지 않아 주인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되자, 주인이 실려 가는 우리로 다가가 말했다.

"나리, 제 양심의 짐을 덜려고 나리께서 마법에 걸리신 일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을 가리고 여기 오는 저 두 사람은 우리 마을 신부님하고 이발사예요. 나리께서 이름난 공을 세우시는 데 자기들을 앞지르시니까 순전히 그게 샘이 나서 나리를 이렇게 데려갈 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참말이라면, 나리는 마법에 걸리신 게 아니라 속아서 얼이 빠지신 거죠. 그 증거로 나리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나리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시면, 이 속임수를 손으로 만지듯 아시게 될 거고, 나리께서 마법에 걸리신 게 아니라 정신이 뒤집히셨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아라, 얘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마음이 흡족하도록 다 대답해 주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기 오가는 이들이 우리 고향 사람이요 아는 사람인 신부와 이발사라고 하는데,

그들 자신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 그들이라고는 결코 믿지 마라. 네가 믿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네 말대로 그들이 그 사람들과 닮았다면, 나를 마법에 건 자들이 그런 겉모습과 생김새를 빌려 쓴 것이 틀림없다. 마법사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모습이나 쉽게 빌려 쓰니, 우리 벗들의 모습을 빌려 써서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테세우스의 밧줄을 쥐고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상의 미궁에 너를 빠뜨리려 한 것이다. 또 내 분별을 흔들어, 이 해가 어디서 오는지 내가 짐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한쪽으로는 네가 우리 마을 이발사와 신부가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고, 다른 쪽으로는 내가 우리에 갇혀 있는데, 초자연의 힘이 아니고서야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우리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거나 생각하겠느냐? 내가 마법에 걸린 이 방식은 마법에 걸린 편력 기사들을 다룬 모든 이야기에서 내가 읽은 어떤 방식보다도 더하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으냐? 그러니 그들이 네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믿는 일은 마음 놓고 그만두어도 된다. 그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내가 튀르크 사람이라는 것만큼이나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게 무엇을 묻고 싶다는 일로 말하자면, 말해 보아라. 여기서부터 내일까지 묻는다 해도 대답해 주마."

"아이고 성모님!" 산초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리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굳고 골이 비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순 참말이고, 나리께서 이렇게 갇히고 불운을 겪으시는 데는 마법보다 못된 속셈이 더 크게 끼어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나리께서 마법에 걸리시지 않았다는 걸 똑똑히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니 말씀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리를 이 풍파에서 건져 주시고, 나리께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우리 둘시네아 아씨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빌면서 여쭙는데요……."

"그만 빌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아라. 꼬박꼬박 대답해 주겠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산초가 맞받았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나리께서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마시고, 편력 기사라는 이름 아래 무예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 나리께서 업으로 삼으시듯 업으로 삼는 분들이 모두 말하리라 기대되고 또 실제로 말하는 그런 참말로 온전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어서 물어보아라. 산초, 정말이지 그렇게 인사말이며 비는 말이며 다짐이며 늘어놓으니 나를 지치게 하는구나."

"우리 주인의 착하심과 참되심은 제가 굳게 믿어요. 그러니 우리 이야기에 꼭 필요해서 여쭙는 건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리께서 우리에 갇히시고, 나리 생각으로는 이 우리 안에서 마법에 걸리신 뒤로, 흔히 하는 말로 큰일이나 작은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큰일이니 작은일이니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산초. 내가 똑바로 대답하기를 바란다면 더 알아듣게 말해 보아라."

"나리께서 작은일 큰일 본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고요? 학교에서 젖 뗄 때부터 애들이 배우는 말인데요. 그럼 아세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느냐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야 알아듣겠다, 산초! 여러 번 그랬지. 바로 지금도 그렇다. 이 위험에서 나를 꺼내 다오. 모든 게 깨끗하지만은 않구나!"

---

1. 『이사벨라』『필리스』『알레한드라』는 루페르시오 레오나르도 데 아르헨솔라의 비극이다. 뒤에 드는 『앙갚음당한 배은망덕』은 로페 데 베가, 『누만시아』는

세르반테스 자신, 『사랑에 빠진 상인』은 가스파르 데 아길라르, 『호의를 베푼 적』은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작품이다.

2. 로페 데 베가(1562~1635)를 가리킨다.

제49장 산초 판사가 주인 돈키호테와 나눈 슬기로운 대화를 다룬다

"아하!" 산초가 말했다. "딱 걸리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제 영혼만큼, 제 목숨만큼 알고 싶던 거예요. 자, 나리, 누가 몸이 안 좋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개는 무슨 일인지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물어보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안 하니, 꼭 마법에 걸린 것 같네.' 이 말을 부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 타고난 일도 안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거라는 결론이 나오죠. 나리처럼 그런 마음이 드시고, 주면 마시고, 있으면 먹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말이 맞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마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법이 저 마법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라도 지금은 마법에 걸린 이들이 내가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시대의 관례를 거슬러 따지거나 결론을 끌어낼 일은 없다. 나는 내가 마법에 걸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며, 내 양심이 편하려면 그것으로 족하다. 만일 내가 마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게으르고 비겁하게 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도움과 보호가 몹시, 다급하게 필요할 궁핍하고 가난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떼어먹는 셈이니, 내 양심에 큰 가책이 될 것이다."

"그래도요" 산초가 맞받았다. "더 확실하고 흡족하시도록 나리께서 이 감옥에서 나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일은 제가 힘닿는 데까지 거들어 드리고, 아예 꺼내 드리기까지 하겠다고 맹세할게요. 그리고 나리의 착한 로시난테에도 다시 올라 보세요. 그놈도 저렇게 시무룩하고 서글픈 걸 보니 마법에 걸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모험을 찾아 운을 시험해 봐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 넉넉하니까요. 혹시 나리께서 그렇게 불운하시거나 제가 그렇게 어리숙해서 제 말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착하고 충실한 종자의 법도를 걸고 약속하는데, 저도 나리와 함께 그 우리에 들어가 갇힐게요."

"네 말대로 하겠다, 아우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내 자유를 이룰 틈이 보이거든, 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하나 네 말을 따르마. 그러나 산초, 너는 내 불운을 두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편력 기사와 고생스럽게 편력하는 종자는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이미 말에서 내린 신부와 참사회원과 이발사가 기다리는 곳에 다다랐다. 소달구지꾼은 곧 달구지에서 소들의 멍에를 풀고, 푸르고 아늑한 그곳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그곳의 시원함은 돈키호테처럼 마법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 종자처럼 눈치 빠르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산초는 신부에게, 나오게 해 주지 않으면 그 감옥이 자기 주인 같은 기사의 체면에 맞을 만큼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할 테니 주인을 잠깐 우리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청했다. 신부는 그 말을 알아듣고, 주인이 풀려나자마자 제 버릇대로 굴다가 아무도 다시는 찾지 못할 곳으로 가 버릴까 겁나지만 않는다면 그 청을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달아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증해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소." 참사회원이 말했다. "더구나 이분이 우리가 원할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기사로서 약속해 준다면 말이오."

"약속하오." 줄곧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게다가 나처럼 마법에 걸린 사람은 제 몸을 제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소. 그를 마법에 건 자가 그를 삼백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꼼짝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달아났다 해도 공중에 띄워 도로 데려올 테니 말이오." 그리고 사정이 이러하니 자기를 풀어 주어도 좋고, 더구나 그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했다. 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멀찍이 물러나지 않는 한 그들의 코를 괴롭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참사회원은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묶여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그의 신의와 약속을 믿고 그를 우리에서 꺼내 주었다. 그는 우리 밖에 나온 것을 끝없이, 몹시 기뻐했다. 그는 맨 먼저 온몸을 쭉 폈다. 그다음에 로시난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엉덩이를 두 번 툭툭 치며 말했다.

"말들의 꽃이요 거울인 너여, 나는 하느님과 그 거룩하신 어머니께 아직 희망을 건다. 머지않아 우리 둘이 바라던 대로 만나게 되리라. 너는 네 주인을 등에 태우고, 나는 네 위에 올라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그 업을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갔고, 거기서 한결 홀가분해져서, 종자가 시키는 일을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돌아왔다.

참사회원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엄청난 광기가 얼마나 기이한지 놀라워했다. 그는 말하고 대답하는 것마다 더없이 좋은 분별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고, 앞서 여러 번 말했듯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등자를 놓쳐 버리듯 정신을 놓았다. 그래서 참사회원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모두 푸른 풀밭에 앉아 자기 식량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에게 말했다.

"시골 귀족 나리, 기사 소설을 읽는 쓰디쓰고 한가한 독서가 나리를 그토록 사로잡아, 나리의 분별을 뒤집어 놓고 나리가 마법에 걸려 간다고, 그 밖에도 거짓이 참과 먼 것만큼이나 참과는 거리가 먼 그런 따위의 일들을 믿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오? 그리고 사람의 분별로 어떻게, 세상에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마디스들과 그 수많은 이름난 기사들의 무리, 그 많은 트라피손다 황제들, 그 많은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들, 그 많은 여자용 말과 그 많은 편력하는 아가씨들, 그 많은 큰 뱀과 그 많은 엔드리아고 괴물과 그 많은 거인, 그 많은 전대미문의 모험과 그 많은 갈래의 마법, 그 많은 싸움과 그 많은 터무니없는 맞부딪침, 그 많은 화려한 옷차림, 사랑에 빠진 그 많은 공주와 백작이 된 그 많은 종자, 그 많은 익살맞은 난쟁이, 그 많은 쪽지와 그 많은 사랑 고백, 그 많은 용감한 여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 소설에 담긴 그토록 많고 그토록 터무니없는 일들이 정말로 있었다고 믿을 수 있겠소? 나로 말하자면, 그런 책을 읽을 때 그것이 모두 거짓이요 경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얼마쯤 즐겁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책이라도 벽에 내던지고, 가까이나 눈앞에 불이 있었다면 불 속에 던졌을 것이오.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오. 거짓되고 속임수투성이이며 보통 사람의 본성이 요구하는 이치에서 벗어나 있고, 새로운 종파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어내며, 무식한 대중이 그 안에 담긴 숱한 어리석은 소리를 믿고 참으로 여기게 하는 빌미를 주니 말이오. 게다가 그것들은 어찌나 대담한지, 나리에게 한 짓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슬기롭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시골 귀족들의 재주까지 감히 흐트러뜨리오. 나리를 우리에 가두고, 사자나 호랑이를 이 마을 저 마을 끌고 다니며 구경시켜 돈을 버는 사람처럼 소달구지에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으니 말이오. 자, 돈키호테 나리,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시고 분별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하늘이 나리께 기꺼이 내려주신 그 넉넉한 분별을 쓸 줄 아셔서, 나리 재주의 더없이 복된 재능을 양심에 보탬이 되고 명예를 더해 줄 다른 책을 읽는 데 쓰시오. 그래도 타고난 기질에 끌려 무훈과 기사도의 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성경의 판관기를 읽으시오. 거기서 웅장한 진실과, 용감한 만큼 참된 일들을 찾으실 것이오. 루시타니아에는 비리아투스가 있었고, 로마에는 카이사르가,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 그리스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카스티야에는 페르난 곤살레스 백작이, 발렌시아에는 시드가, 안달루시아에는 곤살로 페르난데스가, 에스트레마두라에는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가, 헤레스에는 가르시 페레스 데 바르가스가, 톨레도에는 가르실라소가, 세비야에는 돈 마누엘 데 레온이 있었소. 그들의 용맹한 행적을 읽으면 그것을 읽는 가장 높은 재주꾼들도 즐겁고, 배우고, 기쁘고, 놀랄 수 있소. 나의 돈키호테 나리, 바로 이것이야말로 나리의 좋은 분별에 걸맞은 독서일 것이오. 거기서 나리는 역사에 해박해지고, 덕을 사랑하게 되고, 착함을 배우고, 품행이 나아지고, 무모하지 않게 용감해지고, 비겁하지 않게 대담해질 것이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고, 나리에게 이롭고, 라만차의 명성이 될 것이오. 내가 듣기로 나리는 라만차에서 나시고 그곳에 뿌리를 두셨다니 말이오."

돈키호테는 참사회원의 말을 더없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친 것을 보자,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시골 귀족 나리, 내가 보기에 나리의 말씀은 세상에 편력 기사란 있은 적이 없고, 기사 소설은 모두 거짓되고 엉터리이며 나라에 해롭고 쓸모없다는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시려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읽은 것은 잘못이고, 믿은 것은 더 잘못이며, 그 책들이 가르치는 편력 기사도라는 더없이 혹독한 업을 따르겠다고 나서서

그것을 본뜬 것은 더더욱 잘못이라는 것이고, 가울라의 아마디스든 그리스의 아마디스든 아마디스들도, 글에 가득한 다른 기사들도 모두 세상에 있은 적이 없다고 내게 부정하시는 것 같소."

"나리가 늘어놓으신 그대로 한 자 한 자 다 맞소." 그때 참사회원이 말했다.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리는 또 그런 책들이 내 분별을 뒤집어 놓고 나를 우리에 가두었으니 내게 큰 해를 끼쳤다고 덧붙이셨소. 그리고 내가 행실을 고치고 읽을거리를 바꾸어, 더 참되고 더 잘 즐겁게 하고 가르치는 다른 책을 읽는 편이 낫겠다고 하셨소."

"그렇소." 참사회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내 셈으로는 분별을 잃고 마법에 걸린 쪽은 나리라고 보오. 세상이 그토록 받아들이고 그토록 참되다고 여기는 것을 두고 그토록 많은 신성 모독을 늘어놓으셨으니 말이오. 나리처럼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나리가 책을 읽다가 짜증이 나면 그 책에 내린다는 바로 그 벌을 받아 마땅하오. 아마디스가 세상에 없었다고, 이야기책에 가득한 다른 모험 기사들도 모두 없었다고 누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은, 해가 빛나지 않고 얼음이 차지 않으며 땅이 떠받치지 않는다고 설득하려는 것과 같소. 공주 플로리페스와 부르고뉴의 기의 일, 샤를마뉴 시대에 일어난 피에라브라스와 만티블레 다리의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재주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맹세코 그것은 지금이 낮인 것만큼이나 참말이오. 그것이 거짓이라면, 헥토르도 아킬레우스도 트로이 전쟁도 없었고, 프랑스의 열두 대등 기사도 없었으며, 잉갈라테라의 아르투스 왕도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오. 그 왕은 지금도 까마귀로 변해 돌아다니고, 그 왕국에서는 이제나저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소. 그러고 보면 그들은 가리노 메스키노

이야기도, 성배 탐색 이야기도 거짓이라고, 돈 트리스탄과 이세오 왕비의 사랑도, 히네브라와 란사로테의 사랑처럼 지어낸 것이라고 감히 말하겠구려. 대브리튼이 가졌던 가장 훌륭한 술 따르는 시녀 킨타뇨나 시녀 부인을 보았던 것을 거의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도 말이오. 이것이 어찌나 참말인지, 나는 우리 친할머니가 점잖은 머릿수건을 쓴 시녀 부인을 볼 때마다 내게 '얘야, 저 부인은 킨타뇨나 시녀 부인을 닮았구나' 하던 것을 기억하오. 그러니 할머니는 그 부인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초상화라도 보았을 것이 틀림없다고 나는 따지오. 그러면 피에레스와 어여쁜 마갈로나의 이야기가 참말이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소? 용감한 피에레스가 타고 하늘을 날던 나무 말을 돌리던 나무못이 오늘날까지도 왕실 무기고에 있으니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짐수레 끌채보다 조금 더 크오. 그리고 그 나무못 옆에는 바비에카의 안장이 있고, 론세스바예스에는 큰 들보만 한 롤단의 뿔나팔이 있소. 그러니 열두 대등 기사가 있었고, 피에레스가 있었고, 시드들이 있었고, 그 밖에 비슷한 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사들, / 모험을 찾아 떠나는 기사들 말이오. 그렇지 않다면, 용감한 루시타니아 사람 후안 데 메를로가 편력 기사가 아니었다고도 말해 보시오. 그는 부르고뉴로 가서 아라스에서 피에르 경이라 불리던 이름난 샤르니 영주와 겨루었고, 그 뒤 바젤에서 하인리히 폰 람슈타인 경과 겨루어 두 번 다 이기고 영예로운 명성을 가득 얻었소. 용감한 에스파냐 사람 페드로 바르바와 구티에레 키하다(나는 그 가문의 남계 직계 자손이오)가 부르고뉴에서 생폴 백작의 아들들을 이기며 끝낸 모험과 결투도 거짓이라고 해 보시오. 돈 페르난도 데 게바라가 모험을 찾아 독일로 가서 오스트리아 공작 집안의 기사 게오르크 경과 겨룬 일도 없었다고 부정해 보시오. '길목'의 수에로 데 키뇨네스가 벌인 마상 시합도, 루이스 데 팔세스 경이 카스티야 기사 돈 곤살로 데 구스만에

맞서 벌인 결투도 장난이었다고 말해 보시오. 그 밖에도 이 나라와 외국의 그리스도교도 기사들이 세운 다른 많은 무훈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찌나 확실하고 참된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이치도 좋은 사리도 모두 모자란 자일 것이오."[1]

참사회원은 돈키호테가 참과 거짓을 뒤섞는 것을 듣고, 그가 자기 편력 기사도의 행적에 얽히고 닿아 있는 그 모든 일을 그토록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그에게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 나리가 하신 말씀 가운데 얼마는, 특히 에스파냐의 편력 기사들에 관한 말씀은 참말임을 부정할 수 없소. 그리고 프랑스의 열두 대등 기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겠소. 그러나 투르핀 대주교가 그들에 대해 쓴 그 모든 일을 그들이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소. 사실은 그들이 프랑스 왕들이 뽑은 기사들이었고, 모두가 용기와 신분과 용맹이 대등하다 해서 대등 기사(pares)라고 불렸다는 것이오. 적어도 대등하지 않았다면 대등했어야 마땅했소. 그것은 요즘 있는 산티아고 기사단이나 칼라트라바 기사단 같은 수도 기사단 비슷한 것이었소. 그 단원은 용맹하고 용감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기사라고, 또는 그래야 한다고 여겨지듯이 말이오. 그리고 지금 산후안 기사니 알칸타라 기사니 하듯, 그 시절에는 열두 대등 기사의 기사라고 했소. 이 무인 수도회에 뽑힌 이들이 모두 열두 명의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오. 시드가 있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훈을 세웠다는 데는 아주 큰 의심이 있다고 나는 보오. 그리고 나리가 말씀하신 피에레스 백작의 나무못, 그것이 왕실 무기고의 바비에카 안장 옆에 있다는 일은 내 죄를 고백하겠소. 내가 어찌나 무식하거나 눈이 어두운지, 안장은 보았는데 나무못은 알아보지 못했소. 나리 말씀대로 그렇게 큰데도 말이오."

"틀림없이 거기 있소."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게다가 녹이 슬지 않도록 소가죽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들 하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참사회원이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성품을 걸고 말하건대, 그것을 본 기억은 없소. 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그렇다고 그 많은 아마디스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많은 기사 무리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오. 그리고 나리처럼 그토록 명예롭고 그토록 좋은 자질을 갖추고 그토록 좋은 분별을 타고난 분이, 터무니없는 기사 소설에 적힌 그토록 많고 그토록 기이한 미친 소리를 참말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소."

---

1. 후안 데 메를로, 페드로 바르바, 구티에레 키하다, 페르난도 데 게바라, 수에로 데 키뇨네스(1434년 오르비고 다리 「명예로운 길목」 시합) 등은 15세기에 실제로 국내외에서 마상 시합과 결투를 벌인 기사들이다. 돈키호테는 이 실존 기사들을 기사 소설의 인물과 한데 섞어 늘어놓는다.

제50장 돈키호테와 참사회원이 벌인 슬기로운 논쟁과 다른 일들

"그거 좋은 말씀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임금님들의 허가를 받고 검토를 맡은 이들의 승인을 얻어 인쇄되었으며, 높은 이도 낮은 이도, 가난한 이도 부자도, 배운 이도 못 배운 이도, 평민도 기사도, 그러니까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있든 온갖 사람이 즐겨 읽고 칭송하는 책들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더구나 그토록 참다운 모습을 띠고서, 그 기사가 아니면 그 기사들이 한 일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향과 친척과 나이와 장소와 무훈을 하나하나, 하루하루 들려주는데도 말이오. 나리, 입을 다무시오. 그런 신성 모독은 하지 마시오(그리고 이 일에서 나는 나리께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권하는 것이니 믿어 주시오). 그 대신 그 책들을 읽어 보시오. 그 이야기를 읽으며 얼마나 즐거워지는지 알게 될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시오. 이를테면 이런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겠소?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송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큰 호수가 나타나고, 그 속을 수많은 큰 뱀과 독사와 도마뱀과 그 밖의 온갖 사납고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헤엄치며 이리저리 오가는데, 호수 한가운데서 더없이 구슬픈 목소리가 들려와 이렇게 말하오. '기사여, 그대가 누구이든, 이 무시무시한 호수를 바라보는 그대여, 이 검은 물 밑에 숨겨진 보물을 얻고 싶거든 그대의 억센 가슴의 용기를 보이고, 이 검고 불타는 물 한가운데로 몸을 던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검디검은 물 밑에 놓인 일곱 요정의 일곱 성이

품고 간직한 드높은 경이를 볼 자격이 없으리라.' 그런데 그 기사가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다 듣기가 무섭게, 저 자신과 더 셈해 볼 것도 없이, 자기가 뛰어드는 위험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 무거운 갑옷을 벗지도 않은 채, 하느님과 자기 아씨께 몸을 맡기고 그 끓어오르는 호수 한가운데로 몸을 던지오. 그리고 어디서 멈출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엘리시온 들판도 견줄 수 없는 꽃핀 들판 한가운데 와 있는 것이오. 거기서는 하늘이 더 맑아 보이고 해는 새로운 밝음으로 빛나는 것 같소. 그의 눈앞에는 푸르고 무성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아늑한 숲이 펼쳐지는데, 그 푸르름이 눈을 기쁘게 하고, 얽힌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작고 셀 수 없이 많은 알록달록한 새들의 달콤하고 배우지 않은 노래가 귀를 즐겁게 하오. 여기서는 시냇물이 눈에 띄는데, 녹은 수정 같은 그 시원한 물은 체로 친 금과 순수한 진주를 닮은 고운 모래와 하얀 조약돌 위를 흐르오. 저기서는 얼룩무늬 벽옥과 매끈한 대리석으로 지은 정교한 샘이 보이고, 이쪽에서는 동굴풍으로 꾸민 다른 샘이 보이는데, 거기서는 작은 조개껍데기들과 희고 누런 꼬불꼬불한 달팽이 집들이 질서 있게 흐트러져 놓이고, 그 사이에 빛나는 수정 조각과 가짜 에메랄드가 섞여 갖가지 무늬를 이루니, 자연을 본뜬 솜씨가 그곳에서는 자연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오. 저쪽에서는 느닷없이 튼튼한 성이나 화려한 궁전이 나타나는데, 그 성벽은 순금 덩어리요, 성가퀴는 다이아몬드요, 문은 히아신스석이오. 요컨대 그것은 어찌나 놀랍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이룬 재료가 다이아몬드와 홍옥과 루비와 진주와 금과 에메랄드 못지않은데도 그 솜씨가 더 값지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이보다 더 볼 것이 있겠소? 성문에서 아가씨들이 여럿 나오는 것을 보는 것 말이오. 그 화사하고 눈부신 옷차림은 이야기책이 들려주는 대로 내가 지금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아가씨가 끓는 호수에 몸을 던진 그 대담한 기사의 손을 잡고, 말 한마디 없이 그를 그 화려한 궁전이나 성 안으로 데려가, 어머니가 낳아 준 그대로 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향기로운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아주 얇은 비단으로 지은, 온통 향내 나는 속옷을 입히오. 그러면 다른 아가씨가 와서 그의 어깨에 망토를 걸쳐 주는데, 그 망토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도시 하나 값은 나가고 그보다 더 나간다고들 하오. 그 모든 일 다음에 그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데, 거기 차려진 식탁이 어찌나 가지런한지 그가 넋을 잃고 놀란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어떻소? 그가 용연향과 향기로운 꽃을 우려낸 물로 손을 씻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떻소? 상아 의자에 그를 앉히는 것은 어떻소? 아가씨들이 모두 놀랍도록 말없이 그의 시중을 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떻소? 갖가지 음식을 어찌나 맛있게 차려 내 오는지 식욕이 어느 쪽으로 손을 뻗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어떻소? 그가 먹는 동안, 누가 부르는지도 어디서 울리는지도 모르는 음악을 듣는 것은 어떻겠소?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식탁이 치워진 뒤, 기사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아마 관습대로 이를 쑤시고 있을 때, 느닷없이 방문으로 앞의 어떤 아가씨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와 기사 곁에 앉아서, 이것이 무슨 성이며 자기가 어떻게 이 성에서 마법에 걸려 있는지를 들려주기 시작하고, 그 밖에도 기사의 넋을 빼놓고 그의 이야기를 읽어 가는 독자들을 놀라게 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어떻겠소? 이 이야기를 더 늘어놓고 싶지는 않소. 여기서 어떤 편력 기사의 이야기든 어느 대목을 읽든 그것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나리, 내 말을 믿고, 아까도 말했듯 이 책들을 읽어 보시오. 나리에게 우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 주고, 혹시 성미가 고약하다면 그것을 나아지게 해 줄 것이오. 나로 말하자면, 편력 기사가 된 뒤로 나는 용감하고, 예의

바르고, 너그럽고, 교양 있고, 아낌없고, 정중하고, 대담하고, 온화하고, 참을성 있고, 고생과 옥살이와 마법을 견디는 사람이 되었소.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우리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늘이 도우시고 운명이 거스르지 않는다면, 내 팔의 용기로 며칠 안에 어느 왕국의 임금이 되어 내 가슴에 품은 고마움과 너그러움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맹세코, 나리,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더없이 너그러운 덕을 지녔어도 누구에게도 그 덕을 보여 줄 수 없게 되어 있소. 그리고 바람에만 머무는 고마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오. 그래서 나는 운명이 어서 나를 황제로 만들어 줄 기회를 내주어, 벗들에게, 특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이 불쌍한 내 종자 산초 판사에게 좋은 일을 하여 내 마음을 보여 주고 싶소. 오래전부터 그에게 약속해 온 백작령을 주고 싶은데, 다만 그가 자기 영지를 다스릴 재주가 없을까 그것이 걱정이오."

산초는 주인의 이 마지막 말을 얼추 들었고, 주인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제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백작령을 저한테 주시도록 애써 주세요. 그걸 다스릴 재주가 저한테 모자라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모자란다 해도, 세상에는 영주들의 영지를 빌려서 해마다 얼마씩 바치고 다스리는 일을 맡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영주는 받는 소작료를 누리면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마음 쓰지 않고 다리 쭉 뻗고 지내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고 곧장 다 손을 떼고 공작처럼 제 소작료를 누릴 거예요. 나머지는 저들이 알아서 하라죠."

"그건, 아우 산초" 참사회원이 말했다. "소작료를 누리는 일에서나 그렇지. 그러나 재판을 하는 일은 영지의 주인이 돌보아야 하고, 거기서 재주와 좋은 판단, 무엇보다 바르게 하려는 좋은 뜻이 필요하오. 처음에 이것이 모자라면 중간도 끝도 늘 어긋나기 마련이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슬기로운 자의 나쁜 바람을 돕지 않으시는 만큼 단순한 자의 좋은 바람은 도와주시곤 하오."

"저는 그런 철학은 몰라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다만 아는 건, 백작령만 얼른 손에 넣으면 그걸 다스리는 것도 금방 할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남들만큼 영혼이 있고, 누구보다도 몸집이 있으니, 저도 남들이 제 영지의 임금이듯 제 영지의 임금이 될 거고요. 임금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 좋을 대로 할 거고, 제 좋을 대로 하면 흡족할 거고, 사람이 흡족하면 더 바랄 게 없고, 더 바랄 게 없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 영지야 오너라, 장님이 다른 장님한테 말했듯이 잘 가게, 또 보세, 하는 거예요."

"산초, 네 말처럼 그건 나쁜 철학이 아니다. 그래도 이 백작령 문제에는 할 말이 많지."

이 말에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나는 더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소. 나는 그저 위대한 가울라의 아마디스가 보여 준 본보기를 길잡이로 삼을 뿐이오. 그는 자기 종자를 굳은 섬의 백작으로 삼았소. 그러니 나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초 판사를 백작으로 삼을 수 있소. 그는 편력 기사가 거느린 종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종자의 하나이니 말이오."

참사회원은 돈키호테가 늘어놓은 짜임새 있는 터무니없는 소리에 놀랐다. 그가 호수의 기사의 모험을 그려 보인 솜씨에도, 그가 읽은 책들의 꾸며 낸 거짓말이 그에게 남긴 자국에도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약속한 백작령을 그토록 애타게 얻고 싶어 하는 산초의 어리석음에 놀랐다.

그 무렵 식량 실은 짐 노새를 데리러 객줏집에 갔던 참사회원의 하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양탄자 한 장과 풀밭의 푸른 풀을 식탁 삼아 나무 그늘에 앉아 그곳에서 먹었다. 앞서 말했듯 소달구지꾼이 그

자리의 좋은 풀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한창 먹고 있을 때, 느닷없이 가까이 있는 가시덤불과 우거진 숲 사이에서 요란한 소리와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덤불 사이에서 온몸이 검고 희고 누런 얼룩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양 한 마리가 뛰어나왔다. 그 뒤로 산양치기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는데, 산양이 멈추거나 무리로 돌아가도록 산양치기들이 흔히 쓰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달아나던 산양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사람들 쪽으로 오더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듯 거기서 멈추었다. 산양치기가 다가와 산양의 뿔을 붙잡고, 마치 산양이 사리를 따지고 알아들을 수 있기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이 들뜬 것, 들뜬 것, 얼룩이야, 얼룩이야, 요새 왜 그렇게 절뚝거리며 다니나! 무슨 늑대가 자네를 놀라게 했나,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말해 주지 않겠나, 이쁜이야? 하기야 자네가 암컷이라 가만있지 못하는 것 말고 무슨 까닭이 있겠나. 자네 성미도, 자네가 본뜨는 그 모든 암컷의 성미도 고약하기 짝이 없네! 돌아가세, 돌아가세, 동무야.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서나 동무들 곁에서나 더 안전할 걸세. 동무들을 지키고 이끌어야 할 자네가 그렇게 길잡이도 없이 길을 잃고 다니면, 동무들은 어떻게 되겠나?"

산양치기의 말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특히 참사회원이 즐거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형씨, 제발 좀 진정하고, 그 산양을 그렇게 서둘러 무리로 돌려보내려 애쓰지 마시오. 형씨 말대로 그것이 암컷이라면, 형씨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제 타고난 본능을 따를 것이오. 이것 한 입 드시고 한 모금 마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을 테고, 그동안 산양도 쉴 것이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칼끝으로 차게 식은 토끼 등심을 건네는 것이 한꺼번이었다. 산양치기는 그것을 받으며 고마워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진정하더니 말했다.

"제가 이 짐승한테 그렇게 정색하고 말을 했다고 해서 나리들께서 저를 얼간이로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놈한테 한 말에는 곡절이 없지 않거든요. 저는 시골뜨기지만,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짐승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를 만큼 시골뜨기는 아닙죠."

"그건 내가 잘 믿소." 신부가 말했다. "산은 학자를 길러 내고 양치기의 오두막은 철학자를 품고 있다는 것을 나는 겪어 보아서 이미 알고 있소."

"나리, 적어도" 산양치기가 맞받았다. "호되게 데어 본 사람들은 품고 있지요. 그리고 이 참말을 믿으시고 손으로 만지듯 아시도록, 청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나리들께서 언짢지 않으시고 잠깐 귀 기울여 들어 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 나리께서(그는 신부를 가리켰다) 하신 말씀과 제 말을 뒷받침할 참말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일에 기사도 모험의 그림자 같은 무엇이 어려 있는 것을 보니, 나로서는 기꺼이 그대의 이야기를 듣겠소, 형씨.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러실 것이오. 슬기로운 데가 많고, 감각을 붙들어 놓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신기한 새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 말이오. 틀림없이 그대의 이야기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니 벗이여, 시작하시오. 우리 모두 듣겠소."

"저는 빼 주세요." 산초가 말했다. "저는 이 고기만두를 들고 저 개울가로 갈 거예요. 거기서 사흘 치를 실컷 먹어 둘 생각이거든요. 돈키호테 나리께서 그러시는데, 편력 기사의 종자는 먹을 기회가 생기면 더는 못 먹을 때까지 먹어 둬야 한대요. 우연히 얼마나 얽히고설킨 숲에 들어가게 될지 모르는데, 엿새가 지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니까요. 그럴 때 배를 채워 두지 않았거나 자루를 넉넉히 채워

두지 않았으면, 흔히 그러듯 거기서 말라비틀어진 미라가 되고 말 테니까요."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나는 이미 배가 부르고, 이제 영혼에 양식을 주기만 하면 된다. 이 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모두 우리 영혼에 그렇게 양식을 줍시다." 참사회원이 말했다.

그러고는 곧 산양치기에게 약속한 이야기를 시작해 달라고 청했다. 산양치기는 뿔을 잡고 있던 산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두 번 툭툭 치며 말했다.

"내 곁에 누워 있게, 얼룩이야. 우리 우리로 돌아갈 시간은 아직 넉넉하네."

산양은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았다. 주인이 앉자 산양도 아주 얌전히 그 곁에 몸을 누이고,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듯한 낯을 했기 때문이다. 산양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51장 돈키호테를 데려가던 이들 모두에게 산양치기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룬다

"이 골짜기에서 3레과 떨어진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작기는 해도 이 근방 일대에서 손꼽히게 부유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아주 점잖은 농부 하나가 살았는데, 어찌나 점잖았던지, 부자이면 점잖은 대접을 받기 마련이지만 그는 가진 재산보다 지닌 덕 때문에 더 점잖은 사람으로 여겨졌지요. 그러나 그 자신이 말하기로 그를 더없이 복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딸 하나였습니다. 그 딸은 어찌나 빼어나게 아름답고, 보기 드물게 슬기롭고, 맵시 있고, 덕스러웠던지, 그 처녀를 알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과 자연이 그 처녀에게 내려 준 빼어난 자질에 놀라곤 했어요. 어려서도 예뻤고 자라면서 갈수록 더 고와지더니, 열여섯 살이 되자 더없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소문은 이웃 마을들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웃 마을들에만 퍼졌다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먼 도시들에까지 퍼지고, 임금님들의 궁정에까지, 온갖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기 드문 것을 보러 오듯, 기적을 행하는 성상을 보러 오듯 사방에서 그 처녀를 보러 왔으니까요. 아버지는 딸을 지켰고 딸도 제 몸을 지켰습니다. 처녀를 지키는 데는 제 몸가짐을 삼가는 것보다 나은 자물쇠도 파수꾼도 빗장도 없는 법이니까요.

"아버지의 재산과 딸의 아름다움에 끌려 마을 사람이며 바깥사람이며 많은 이들이 그 처녀를 아내로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토록 값진 보석을 처분할 사람답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성가시게 졸라 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딸을 맡겨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지요. 그런 좋은 바람을 품은 많은 사람 가운데 저도 하나였는데, 저는 일이 잘 풀리리라는 크고 많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저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피가 깨끗하고, 한창 나이에, 재산은 아주 넉넉하고, 재주도 그 못지않게 갖추었으니까요. 같은 마을의 다른 사람 하나도 이 모든 자질을 똑같이 갖추고 그 처녀를 청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저울에 올려진 채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딸을 우리 둘 가운데 누구에게 주어도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갈피 없는 데서 벗어나려고 그는 레안드라에게 그 일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레안드라란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그 부잣집 처녀의 이름이에요. 우리 둘이 대등하니 사랑하는 딸의 뜻에 맡겨 마음대로 고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거지요. 자식을 혼인시키려는 모든 아버지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천하고 나쁜 것들 가운데서 고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내놓고 그 좋은 것들 가운데서 제 뜻대로 고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레안드라가 어떤 뜻을 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아는 건, 아버지가 딸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말로 우리 둘을 다 붙잡아 두었다는 것뿐이지요. 그 말은 아버지를 얽매지도 않았고 우리를 놓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 맞수의 이름은 안셀모이고 제 이름은 에우헤니오입니다. 이 비극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극의 끝은 아직 매달려 있지만, 불행하게 끝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지요.

"그 무렵 우리 마을에 비센테 데 라 로사라는 자가 왔습니다. 같은 마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이 비센테는 이탈리아며 다른 여러 곳에서 병사 노릇을 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는 열두 살쯤 된

소년이었을 때, 마침 제 부대를 거느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대위 하나가 우리 마을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두 해가 지나 젊은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병사 차림을 하고 천 가지 빛깔로 알록달록 꾸미고, 유리 장신구 천 개와 가는 쇠사슬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요. 오늘은 이 옷으로, 내일은 저 옷으로 멋을 부렸지만, 모두 얄팍하고 울긋불긋하고 가볍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본래 심술궂은 데다 한가하면 심술 그 자체가 되는지라, 그것을 눈여겨보고 그의 옷이며 장신구를 하나하나 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옷은 빛깔이 다른 세 벌에 대님과 긴 양말이 딸린 것뿐이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어찌나 이리저리 바꾸어 짜 맞추어 입었던지, 누가 세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가 옷을 열 벌도 넘게, 깃털 장식을 스무 개도 넘게 내보였다고 맹세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옷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 게 쓸데없는 군소리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옷들이 이 이야기에서 큰 몫을 하거든요.

"그는 우리 마을 광장의 큰 포플러 나무 아래 있는 돌 의자에 앉곤 했는데, 거기서 그가 들려주는 무훈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입을 떡 벌리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보지 않은 땅이 없고 그가 끼지 않은 싸움이 없었어요. 그가 죽인 무어인이 모로코와 튀니스에 사는 무어인보다 더 많았고, 그가 벌인 일대일 결투는, 그의 말로는, 간테와 루나, 디에고 가르시아 데 파레데스, 그 밖에 그가 이름을 대는 다른 천 명보다 더 많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 자국도 보여 주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 싸움과 전투에서 맞은 화승총 자국이라고 우리더러 믿으라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듣도 보도 못한 거만함으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도, 자기를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도 '자네'라고 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제

팔이요, 제 가문은 제 행실이며, 병사인 이상 임금님께도 빚진 게 없다고 했지요. 이 거만함에다 그는 음악도 조금 할 줄 알아서 기타를 줄을 긁어 퉁기며 쳤는데, 어떤 이들은 그가 기타를 말하게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인의 재주도 있어서 마을에서 무슨 하찮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글로 쓰면 1레과 반이나 되는 로맨스를 지어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려 보인 이 병사, 이 비센테 데 라 로사, 이 허세꾼, 이 멋쟁이, 이 음악가, 이 시인을 레안드라는 광장 쪽으로 난 자기 집 창문에서 여러 번 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옷의 번쩍이는 겉치레가 처녀를 반하게 했고, 그가 지은 로맨스마다 스무 벌씩 베껴 퍼뜨렸으니 그 로맨스들이 처녀를 홀렸고, 그가 제 입으로 늘어놓은 무훈이 처녀의 귀에 들어갔고, 마침내, 악마가 그렇게 꾸며 놓았던 게 틀림없는데, 그가 처녀에게 구애할 생각을 품기도 전에 처녀가 그에게 반해 버렸어요. 사랑의 일에서는 귀부인 쪽에서 바라는 일만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법이라, 레안드라와 비센테는 쉽사리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구혼자 가운데 누가 그 처녀의 바람을 눈치채기도 전에, 처녀는 이미 그 바람을 이루고 말았지요.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어머니는 없었으니까요, 그 병사와 함께 마을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병사는 자기가 해냈다고 떠벌린 그 많은 일 어느 것보다도 이 일에서 더 큰 개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그 일은 온 마을을, 아니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었고, 안셀모는 아연실색했고, 아버지는 슬퍼했고, 친척들은 수치스러워했고, 관리들은 부산을 떨었고, 순찰대원들은 채비를 갖추었지요. 길이란 길은 다 막고 숲이며 온갖 데를 샅샅이 뒤졌는데, 사흘 만에 변덕쟁이 레안드라를 어느 산의

동굴에서 찾아냈습니다. 속옷 바람이었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많은 돈과 더없이 값진 보석은 다 없어진 채였어요. 사람들은 그 처녀를 상심한 아버지 앞으로 데려오고 그 불운을 물었습니다. 처녀는 다그치지도 않았는데 털어놓았어요. 비센테 데 라 로카가 자기를 속였고,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걸고 아버지 집을 떠나자고 꾀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흥청거리는 도시, 나폴리로 데려가겠다고 했다지요. 그리고 처녀는 생각이 짧았던 데다 더 고약하게 속아서 그 말을 믿었고, 아버지 것을 훔쳐서 집에서 없어진 바로 그날 밤에 그에게 몸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녀를 험한 산으로 데려가 사람들이 찾아낸 그 동굴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처녀는 또 그 병사가 자기의 정절은 빼앗지 않은 채 가진 것을 몽땅 빼앗고 자기를 그 동굴에 버려둔 채 떠나 버렸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이 다시 모두를 놀라게 했지요.

"그 젊은이가 그렇게 절제했다는 건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웠지만, 처녀가 어찌나 진지하게 우겼던지 그 말에 힘입어 상심한 아버지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빼앗긴 재산은 셈에 넣지도 않았어요. 한번 잃으면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남기지 않는 그 보석을 지닌 채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레안드라가 나타난 바로 그날, 아버지는 딸을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어느 읍의 수녀원에 가둬 버린 거지요. 딸이 뒤집어쓴 나쁜 평판을 세월이 얼마쯤 닳게 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레안드라의 어린 나이가 그 허물의 핑계가 되어 주었어요. 적어도 그 처녀가 착하든 나쁘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랬지요. 그러나 그 처녀의 슬기와 넉넉한 분별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죄를 무지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 처녀의 방자함과, 대개 분별없고 흐트러지기 쉬운 여자들의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렸습니다.

"레안드라가 갇히자 안셀모의 눈은 멀어 버렸습니다. 적어도 즐거움을 주는 무엇 하나 바라볼 것이 없어졌지요. 제 눈은 어둠 속에 갇혀, 즐거운 무엇으로도 이끌어 줄 빛이 없었습니다. 레안드라가 없으니 우리의 슬픔은 커지고 참을성은 줄어들었고, 우리는 그 병사의 멋 부림을 저주하고 레안드라 아버지의 허술한 단속을 미워했어요. 마침내 안셀모와 저는 마을을 떠나 이 골짜기로 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 것인 양 떼를 많이 치고, 저는 역시 제 것인 산양 떼를 많이 치면서 나무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정념을 풀어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레안드라를 함께 노래하며 칭송하거나 헐뜯기도 하고, 홀로 한숨지으며 홀로 하늘에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하면서요.

"우리를 본떠서 레안드라의 다른 구혼자들도 많이들 이 험한 산으로 와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양치기와 우리가 그득해서 이곳이 목가의 아르카디아로 바뀌어 버린 것 같고, 아름다운 레안드라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은 처녀를 저주하며 변덕쟁이요 바람둥이요 몸가짐이 헤프다고 하고, 저 사람은 쉽고 가볍다고 나무랍니다. 어떤 이는 그 처녀를 풀어 주고 용서하고, 어떤 이는 단죄하고 헐뜯지요. 하나는 그 아름다움을 기리고, 다른 하나는 그 성미를 욕하고, 요컨대 모두가 처녀를 욕보이면서 모두가 처녀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광기가 어찌나 지나친지, 그 처녀와 말 한마디 나눠 본 적도 없으면서 쌀쌀맞게 군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처녀가 누구에게도 일으킨 적 없는 질투라는 미칠 듯한 병을 앓으며 한탄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 처녀의 바람보다 그 죄가 먼저 알려졌으니까요. 바위 틈이든 개울가든 나무 그늘이든, 제 불운을 바람에 들려주는 양치기가 차지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메아리는 소리가 울릴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레안드라의 이름을 되풀이합니다. 레안드라 하고 산들이 울리고, 레안드라 하고 개울들이

속삭이고, 레안드라는 희망 없이 바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를 넋 빠지게, 홀린 듯이 붙잡아 두고 있어요. 이 터무니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분별이 없으면서도 가장 분별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제 맞수 안셀모입니다. 그는 하소연할 다른 일이 그토록 많은데도 오로지 그 처녀가 곁에 없다는 것만 하소연하지요. 그리고 기막히게 잘 켜는 라벨 소리에 맞추어, 그 좋은 분별이 드러나는 시를 지어 노래로 하소연합니다. 저는 다른 길, 더 쉬운 길, 제가 보기에 가장 옳은 길을 따릅니다. 여자들의 경박함과 변덕과 두 얼굴과 죽어 버린 약속과 깨진 믿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과 속셈을 어디에 둘지 가릴 줄 모르는 그 얄팍한 분별을 욕하는 거지요. 나리들,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산양한테 그런 말과 소리를 늘어놓은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놈은 제 짐승 가운데 가장 좋은 놈이지만 암컷이라서 저는 이놈을 하찮게 여깁죠. 이게 제가 들려 드리겠다고 약속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늘어놓는 데 장황했다면, 나리들을 대접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이 근처에 제 움막이 있는데, 거기 갓 짠 젖과 더없이 맛있는 치즈, 그리고 보기에도 맛보기에도 좋은 잘 익은 갖가지 과일이 있거든요."

제52장 돈키호테가 산양치기와 벌인 싸움과 채찍 고행자들과의 희한한 모험, 그는 땀 흘려 이 모험을 훌륭히 끝냈다

산양치기의 이야기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했다. 특히 참사회원이 즐거워했는데, 그는 산양치기가 이야기하는 솜씨가 시골 산양치기와는 거리가 멀고 슬기로운 궁정 사람에 가까운 것을 남다른 호기심으로 눈여겨보았다. 그래서 산은 학자를 길러 낸다고 한 신부의 말이 참 옳았다고 했다. 모두들 에우헤니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지만, 이 일에서 가장 너그러움을 보인 사람은 돈키호테였다. 그는 산양치기에게 말했다.

"참으로, 산양치기 형씨, 내가 어떤 모험이든 시작할 수 있는 처지라면, 형씨의 일이 잘되도록 당장 당장 길을 나서겠소. 레안드라는 틀림없이 제 뜻을 거슬러 수녀원에 갇혀 있을 테니, 수녀원장과 그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모두 거슬러도 그 처녀를 수녀원에서 꺼내 형씨 손에 넘겨, 형씨가 마음 내키는 대로 뜻대로 하게 하겠소. 다만 어떤 아가씨에게도 몹쓸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명하는 기사도의 법은 지켜야 하오. 그래도 나는 우리 주 하느님께 희망을 거니, 고약한 마법사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해도 더 좋은 뜻을 품은 다른 마법사의 힘이 그보다 더 세지 못할 리는 없을 것이오. 그때가 되면 내 업이 내게

지우는 대로 형씨에게 내 힘과 도움을 약속하오. 내 업이란 바로 의지할 데 없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이니 말이오."

산양치기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몰골과 생김새가 그토록 볼품없는 것을 보자 놀라서, 곁에 있던 이발사에게 물었다.

"나리, 저렇게 생기고 저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겠나." 이발사가 대답했다. "억울한 일을 풀어 주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는 이, 아가씨들의 보호자요 거인들의 두려움이요 싸움마다 이기는 이, 바로 그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 말고 누구겠나?"

"그 말씀을 들으니" 산양치기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이 사람이 한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다 했다는 편력 기사들의 책에서 읽는 이야기 같네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리께서 농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양반 머릿속 방들이 텅 비었든가 둘 중 하나겠습죠."

"그대야말로 엄청난 악당이오."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비어 있고 모자란 건 그대요. 나는 그대를 낳은 그 지독한 화냥년이 차 있던 것보다도 더 꽉 차 있소."

그러면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곁에 있던 빵 한 덩이를 집어 들어 산양치기의 얼굴 한복판에 어찌나 사납게 내던졌던지 코를 납작하게 짓찧어 놓았다. 그러나 농을 받아넘길 줄 모르는 산양치기는 자기가 정말로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자, 양탄자도 식탁보도, 식사하던 그 모든 사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키호테에게 덤벼들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잡았으니, 그 순간 산초 판사가 와서 등 뒤에서 그를 붙잡아 식탁 위로 내동댕이치지 않았더라면 서슴없이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을 것이다. 산양치기가 식탁 위에 나동그라지면서 접시가 깨지고 잔이 부서지고 그 위에 있던 것이 모두 쏟아지고 흩어졌다. 돈키호테는 풀려나자 산양치기 위에 올라타려고 달려들었다. 산양치기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산초의 발길질에 흠씬 짓밟힌 채

엉금엉금 기어 다니며, 무슨 피비린내 나는 앙갚음이라도 하려고 식탁의 칼을 찾았다. 그러나 참사회원과 신부가 그것을 막았다. 그런데 이발사가 수를 써서 산양치기가 돈키호테를 깔고 앉게 만들었고, 산양치기는 그 위로 주먹을 어찌나 비 오듯 퍼부었던지 가엾은 기사의 얼굴에서도 산양치기 자신의 얼굴 못지않게 피가 비 오듯 흘렀다.

참사회원과 신부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순찰대원들은 좋아서 껑충껑충 뛰었으며, 이쪽저쪽 모두가 개들이 서로 엉겨 싸울 때 하듯 부추겨 댔다. 산초 판사만이 애를 태웠는데, 주인을 돕지 못하게 막는 참사회원의 하인 하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로 쥐어뜯는 그 두 싸움꾼 말고는 모두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나팔 소리 하나를 들었다. 어찌나 구슬픈 소리였던지 그들은 소리가 나는 듯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 들뜬 사람은 돈키호테였다. 그는 몹시 마음에 들지 않게도 산양치기 밑에 깔려 웬만큼 넘게 두들겨 맞은 채였는데, 산양치기에게 말했다.

"악마 형제야, 내 힘을 꺾어 누를 만한 용기와 힘을 지녔으니 너는 악마일 수밖에 없다. 너에게 청하노라. 딱 한 시간만 휴전하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저 나팔의 구슬픈 소리가 나를 어떤 새 모험으로 부르는 것 같구나."

산양치기는 두들기고 두들겨 맞는 데 이미 지쳐 있었으므로 곧 그를 놓아주었다. 돈키호테는 일어서서 그 역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느닷없이 언덕 위에서 채찍 고행자들처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정은 이러했다. 그해에는 구름이 땅에 이슬을 내려 주지 않아서, 그 지방의 모든 마을에서 하느님께 자비의 손을 펴시어 비를 내려 주십사 빌며 행렬과 기도회와 채찍 고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근처 마을

사람들이 그 골짜기 언덕에 있는 신심 깊은 은자의 암자로 행렬을 지어 가는 길이었다.

돈키호테는 채찍 고행자들의 기이한 옷차림을 보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을 텐데도 그 일은 떠올리지 못한 채, 이것이 모험거리이며 편력 기사인 자기 혼자 거기 덤벼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상복 같은 검은 천을 씌워 메고 오는 성상 하나를, 그 비겁하고 무례한 흉악한 놈들이 억지로 끌고 가는 어느 지체 높은 귀부인이라고 여기자 그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그는 아주 날쌔게 풀을 뜯고 있던 로시난테에게 달려가 안장머리에서 재갈과 가죽 방패를 벗겨 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산초에게 칼을 달라고 하여 로시난테에 올라 가죽 방패를 팔에 끼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용맹한 일행이여, 편력 기사도의 규율을 업으로 삼는 기사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리라. 다시 말하거니와, 저기 사로잡혀 끌려가는 저 착한 귀부인을 풀어 주는 것을 보면, 편력 기사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 아닌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박차가 없었으므로 두 허벅지로 로시난테를 죄고 힘껏 구보로 몰아 채찍 고행자들과 맞붙으러 나아갔다. 구보라고 하는 것은, 로시난테가 전속력으로 내달렸다는 대목은 이 참된 이야기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부와 참사회원과 이발사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산초가 외치는 소리도 그를 붙잡지 못했다. 산초는 이렇게 외쳤다.

"어디 가세요, 돈키호테 나리? 가슴속에 무슨 악마들이 들어앉았기에 우리 가톨릭 신앙을 거슬러 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건 채찍 고행자들의 행렬이고, 받침대에 모시고 가는 저 아씨는 티 없으신 성모님의 더없이 거룩한 성상이라고요. 나리, 무얼 하시는지

보세요. 이번만큼은 나리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산초는 헛되이 애를 썼다. 주인은 그 흰 천 뒤집어쓴 이들에게 다가가 상복 입은 귀부인을 풀어 주는 데 어찌나 정신이 팔려 있었던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설령 들었다 해도 임금님이 명령한들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행렬에 다다랐고, 이미 좀 쉬고 싶어 하던 로시난테를 멈춰 세운 다음 흐트러지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착하지 못한 자들이라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듯한 너희는, 내가 하려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맨 먼저 걸음을 멈춘 것은 성상을 메고 가던 이들이었다. 그리고 연도를 부르던 성직자 넷 가운데 하나가 돈키호테의 기이한 생김새와 로시난테의 앙상함, 그 밖에 돈키호테에게서 눈여겨보고 알아챈 우스운 모습들을 보고 그에게 대답했다.

"형제님, 우리에게 할 말이 있거든 어서 하시오. 이 형제들은 지금 제 살을 찢고 있으니, 두 마디로 할 수 있을 만큼 짧은 말이 아니라면 무슨 말을 들으려고 멈춰 설 수도 없고 멈춰 서는 것이 옳지도 않소."

"한 마디로 말하리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것은 이러하다. 그 아름다운 귀부인을 당장 풀어 줄지어다. 그 눈물과 슬픈 얼굴을 보면 너희가 그분을 그 뜻을 거슬러 끌고 가며 무슨 뻔한 몹쓸 짓을 저질렀음이 뚜렷하도다.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풀어 주려고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분께 마땅히 누려야 할 바라던 자유를 돌려드리지 않고서는 너희가 한 걸음도 더 나아가게 두지 않으리라."

이 말을 듣자 들은 사람들은 모두 돈키호테가 어떤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고 알아채고 실컷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돈키호테의 분노에 화약을 부은 격이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칼을 빼 들고 성상 가마에 덤벼들었다. 가마를 메고 가던 이들 가운데 하나가 짐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쉴 때 가마를 받치는 받침 막대인지 지팡이인지를 휘두르며 돈키호테에게 맞섰다. 그는 돈키호테가 내리친 칼을 그 막대로 받았는데, 막대가 두 동강이 났다. 그는 손에 남은 마지막 3분의 1 토막으로, 칼을 든 쪽 어깨 위를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가죽 방패로는 그 천한 힘을 막아 낼 수 없었고, 가엾은 돈키호테는 아주 험한 꼴로 땅바닥에 나가떨어졌다.

헐떡거리며 뒤쫓아 오던 산초 판사는 주인이 쓰러진 것을 보자, 주인을 두들긴 사내에게,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마법에 걸린 가엾은 기사이니 한 대도 더 치지 말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촌사람을 멈추게 한 것은 산초의 외침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손도 발도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본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를 죽였다고 여기고 서둘러 겉옷을 허리춤까지 걷어 올리더니 사슴처럼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때 돈키호테의 일행이 모두 그가 있는 곳으로 왔다. 행렬 사람들은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들과 함께 순찰대원들이 쇠뇌를 들고 오는 것을 보자, 무슨 험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성상 둘레로 모두 몰려들었다. 그리고 고깔 두건을 치켜올리고 채찍을 움켜쥐었으며, 성직자들은 촛대를 움켜쥐고, 할 수만 있다면 덤비는 이들을 막아 내고 오히려 치기까지 할 각오로 공격을 기다렸다. 그러나 운은 생각보다 일을 잘 풀어 주었다. 산초는 주인이 죽었다고 믿고 그 몸 위에 엎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구슬프면서도 우스운 통곡을 늘어놓았을 뿐 다른 짓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렬에 함께 온 다른 신부 하나가 우리 신부를 알아보았고, 그렇게 서로 알아본 덕분에 두 무리가 품었던 두려움이 가라앉았다. 우리 신부는 다른 신부에게 돈키호테가 누구인지 두 마디로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신부와 채찍 고행자 무리가 모두 가엾은 기사가 죽었는지 보러 갔고, 산초 판사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을 들었다.

"오, 기사도의 꽃이여, 몽둥이 한 방에 그토록 알차게 보낸 세월의 길을 끝내 버렸구나! 오, 네 가문의 자랑이요, 온 라만차의, 아니 온 세상의 명예요 영광이여. 네가 없으면 세상은 못된 짓을 하고도 벌받을 걱정 없는 악당들로 가득 차겠구나! 오, 세상의 어떤 알렉산드로스보다 너그러운 이여, 고작 여덟 달 섬긴 나에게 바다가 두르고 감싼 가장 좋은 섬을 주기로 했으니! 오, 오만한 자에게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거만한 이여, 위험에 덤비는 이요, 모욕을 참는 이요, 까닭 없이 사랑에 빠진 이요, 착한 이들을 본뜨는 이요, 악한 이들의 채찍이요, 비천한 자들의 원수요,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은 편력 기사여!"

산초의 외침과 신음에 돈키호테가 되살아났다. 그가 맨 처음 한 말은 이러했다.

"더없이 달콤한 둘시네아여, 그대와 떨어져 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비참함에도 매여 있소. 산초, 내 벗아, 마법에 걸린 수레에 오르게 나를 좀 도와 다오. 이 어깨가 다 부서져서 이제는 로시난테의 안장을 누르고 앉아 있을 형편이 아니구나."

"기꺼이 그렇게 해 드릴게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리 잘되기를 바라는 이분들과 함께 제 마을로 돌아가요. 거기서 우리한테 더 이롭고 더 이름을 날릴 다음 출정을 채비하자고요."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흐르는 별들의 나쁜 기운이 지나가게 두는 것이 큰 지혜일 것이다."

참사회원과 신부와 이발사는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산초 판사의 순진한 말에 크게 즐거워하면서 돈키호테를 전처럼 달구지에 앉혔다. 행렬은 다시 줄을 지어 제 길을

이어 갔고, 산양치기는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다. 순찰대원들은 더 따라가려 하지 않았고, 신부는 그들에게 줄 삯을 치렀다. 참사회원은 신부에게 돈키호테가 광기에서 낫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 뒤의 일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으로 작별을 고하고 제 길을 이어 갔다. 마침내 모두 흩어지고 갈라져서, 신부와 이발사와 돈키호테와 판사, 그리고 자기가 본 모든 일에 주인만큼이나 참을성 있게 견딘 착한 로시난테만 남았다.

소달구지꾼은 소들에게 멍에를 메우고 돈키호테를 건초 다발 위에 앉힌 다음, 늘 하던 대로 느긋하게 신부가 바라는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엿새 만에 돈키호테의 마을에 다다랐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선 것은 한낮이었는데, 마침 일요일이라 사람들이 모두 광장에 나와 있었고, 돈키호테의 달구지가 그 광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모두들 달구지에 무엇이 실려 오는지 보러 몰려들었다가 자기네 고향 사람을 알아보고는 놀라 어리둥절했다. 소년 하나가 그의 가정부와 조카딸에게 달려가, 그들의 삼촌이자 주인이 여위고 누렇게 떠서 소달구지에 실린 건초 더미 위에 누워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두 착한 여인이 지르는 비명과 제 뺨을 치는 손찌검과 그 저주받은 기사 소설에 새로 퍼붓는 저주를 듣는 것은 가엾은 일이었다. 그 모든 것은 돈키호테가 제 집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다시 되풀이되었다.

돈키호테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산초 판사의 아내가 달려왔다. 그 여자는 남편이 종자로서 돈키호테를 섬기며 따라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산초를 보자마자 맨 먼저 당나귀는 성하게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주인보다 더 성하게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아내가 맞받았다.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런데 여보, 이제 말해 보오. 종자 노릇을

해서 무슨 좋은 걸 얻어 왔소? 나한테는 무슨 사보야 치마를 사 왔소? 애들한테는 무슨 꼬마 신발을 사 왔소?"

"그런 건 하나도 안 가져왔어, 여보." 산초가 말했다. "대신 더 중하고 더 대단한 다른 걸 가져왔지."

"그거참 반갑구려." 아내가 대답했다. "여보, 그 더 대단하고 더 중한 것들을 보여 주오. 보고 싶소. 당신이 없는 그 몇백 년 동안 그토록 슬프고 서러웠던 이 가슴이 좀 기뻐지게 말이오."

"집에 가서 보여 주겠소, 여보." 판사가 말했다. "지금은 그걸로 만족하구려. 하느님 뜻으로 우리가 다시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면, 당신은 머지않아 내가 백작이 되거나 섬의 통치자가 되는 걸 보게 될 거요. 그것도 이 근방에 흔한 섬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섬의 통치자 말이오."

"하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비오, 영감. 우리한테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말해 보오. 그 섬이란 게 뭐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꿀은 당나귀 주둥이에 맞는 게 아니야." 산초가 대답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여편네야. 네 가신들이 모두 너를 '마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 깜짝 놀랄걸."

"산초, 마님이니 섬이니 가신이니 하는 게 다 무슨 소리요?" 후아나 판사가 대답했다. 산초의 아내는 그렇게 불렸는데, 두 사람이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라만차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기 때문이다.

"후아나, 그걸 다 그렇게 서둘러 알려고 안달하지 마. 내가 참말을 한다는 것만 알면 됐으니 입이나 꿰매고 있어. 다만 지나가는 말로 이것만은 말해 줄 수 있지. 모험을 찾아다니는 편력 기사의 점잖은 종자가 되는 것만큼 세상에 신나는 일은 없다는 거야. 하기야 찾아내는

모험이 대개 사람이 바라는 만큼 마음에 들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건 사실이지. 백 개를 만나면 아흔아홉 개는 엇나가고 비뚤어지기 마련이거든. 겪어 봐서 알아. 어떤 모험에서는 담요에 헹가래를 쳐지고 나왔고, 어떤 모험에서는 흠씬 두들겨 맞고 나왔으니까. 그래도 산을 넘고, 숲을 뒤지고, 바위를 밟고, 성들을 찾아가고, 객줏집에 묵으며 마음껏 먹고 마시고, 1마라베디도, 악마한테나 줘 버려라, 안 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는 건 참 근사한 일이야."

산초 판사와 그 아내 후아나 판사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돈키호테의 가정부와 조카딸은 그를 맞아들여 옷을 벗기고 그의 옛 침대에 눕혔다. 그는 흘겨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 신부는 조카딸에게 삼촌을 잘 보살피라고 단단히 이르고, 그가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두 사람이 늘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어떤 수고가 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두 여인은 다시 하늘에 대고 비명을 질렀다. 다시 기사 소설에 저주가 퍼부어졌고, 그 많은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어낸 작가들을 하늘이 깊은 구렁 한복판에 처박아 주시라고 빌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바로 그 순간 주인이자 삼촌을 잃게 되리라는 생각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은 그들이 짐작한 대로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작가는 돈키호테가 세 번째 출정에서 한 일들을 호기심을 품고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적어도 믿을 만한 글로는 그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라만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소문으로 남은 바로는, 돈키호테는 세 번째로 집을 나섰을 때 사라고사로 가서 그 도시에서 열린 이름난 마상 시합에 나갔고, 거기서 그의 용기와 좋은 분별에 걸맞은 일들을 겪었다고 한다. 작가는 그의 끝과 마지막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고, 행운이 그에게 어느 늙은 의사를

만나게 해 주지 않았더라면 끝내 알아내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의사는 납 상자 하나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의 말로는 고쳐 짓던 옛 은자의 암자의 허물어진 주춧돌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 상자 안에서는 고딕 글자로, 그러나 카스티야 말 운문으로 적은 양피지 몇 장이 나왔다. 거기에는 그의 많은 무훈이 담겨 있었고,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아름다움과 로시난테의 생김새와 산초 판사의 충성과 돈키호테 자신의 무덤에 대한 소식이, 그의 생애와 품행을 기리는 여러 비문과 찬사와 함께 실려 있었다.

그리고 읽어 내어 깨끗이 옮겨 적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새롭고 일찍이 보지 못한 이야기의 믿을 만한 작가가 여기 싣는 것들이다.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라만차의 모든 문서고를 뒤지고 찾아 헤매느라 든 엄청난 수고의 보답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이들에게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세상에서 그토록 행세하는 기사 소설에 슬기로운 이들이 흔히 보내는 것과 같은 믿음을 이 이야기에도 보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것이면 그는 충분히 보답받고 흡족하다고 여길 것이며, 이만큼 참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만큼 창의롭고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 내놓을 기운을 얻을 것이다.

납 상자에서 나온 양피지에 맨 처음 적혀 있던 말은 이러했다.

라만차의 한 고을
아르가마시야의 학자들이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삶과 죽음을 두고,

이것을 썼다(Hoc scripserunt):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모니콩고(콩고 왕)가
돈키호테의 무덤에

비문

이아손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전리품으로
라만차를 꾸민 그 덜렁이 벼락 머리,
넓었으면 좋았을 자리에서
뾰족했던 바람개비 같은 그 분별,
힘을 그토록 넓게 뻗친 그 팔,
카타이에서 가에타까지 닿은 그 팔,
청동 판에 시를 새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기로운 시의 여신,
아마디스들을 꽁무니에 떨어뜨리고
갈라오르들을 아주 하찮게 여긴 이,
제 사랑과 늠름함에 기대어
벨리아니스들의 입을 다물게 한 이,
로시난테를 타고 떠돌아다닌 그 사람이
이 차가운 돌 아래 누워 있도다.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파니아과도(식객)가 지은 시,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기리며(In laudem Dulcineae del Toboso)
소네트

그대들이 보는 이 여인, 순대 같은 얼굴에
가슴이 높고 몸짓이 씩씩한 이 여인은
토보소의 여왕 둘시네아,
위대한 키호테가 마음을 바친 여인이로다.
그는 이 여인을 위해 검은 큰 산맥의
이쪽저쪽을 밟고, 이름난
몬티엘 들판을 지나 풀 무성한
아란후에스 벌판까지 지친 다리로 걸어갔도다.
로시난테의 탓이로다, 오, 모진 운명의 별이여!
이 라만차의 아씨와 이 지지 않는
편력 기사가 꽃다운 나이에,
여인은 죽어 아름답기를 그쳤고,
사내는 대리석에 이름이 새겨졌으나
사랑과 노여움과 속임수에서 달아나지 못했도다.

아르가마시야의 더없이 슬기로운 학자 카프리초소(변덕쟁이)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말 로시난테를 기리며

소네트

마르스가 피 묻은 발바닥으로 짓밟는
오만한 다이아몬드 왕좌 위에서,
미친 듯이, 라만차 사람이 제 깃발을
보기 드문 기운으로 펄럭이도다.
그는 무기와 날 선 강철을 걸어 두고,
그것으로 부수고, 쓸어버리고, 쪼개고, 가르도다.
새로운 무훈이로다! 그러나 기예는
새 용사를 위해 새 문체를 지어내도다.
가울라가 제 아마디스를 자랑한다면,
그 용감한 후손들 덕에 그리스가
천 번 이기고 그 명성을 넓혔다면,
오늘은 벨로나가 다스리는 전당이
키호테에게 관을 씌우고, 그리스보다도
가울라보다도 드높은 라만차가 그를 자랑하도다.
망각은 결코 그의 영광을 더럽히지 못하리라,
로시난테마저 늠름하기로는
브리야도로와 바야르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로다.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부를라도르(놀림꾼)가
산초 판사에게

소네트

그대들이 보는 이는 훌륭한 산초 판사,
작은 몸에 큰 넋이 깃들었던 사람이로다.
이 땅 위에 그만큼 꾸밈없고 순박하며
속임수를 모르는 종자는 다시 없었도다.
그는 하마터면 백작이 될 뻔했고,
정말로 되었으리라, 이 비루하고 인색하고
옹졸한 세상의 심술과 앙심만 아니었다면.
당나귀 한 마리조차 가만두지 못하는 세상이로다.
당나귀를 타고(이런 말을 용서하시라)
이 온순한 종자는 로시난테 곁에서
떠도는 주인을 늘 모시고 다녔도다.
편안함과 마음의 소원을 약속하며
뭇사람을 꾀는 헛된 희망들이여,
너희는 언제나 그림자와 꿈과 연기로 끝나는구나.[1]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카치디아블로(꼬마 악마)가
돈키호테의 무덤에

비문

여기 그 기사가 누워 있도다.
흠씬 두들겨 맞고 편력도 고약했던 기사,
로시난테가 그를 태우고
이 길 저 길 다녔도다.
얼간이 산초 판사도
그 곁에 함께 누워 있으니,
종자의 일을 겪은 이 가운데
가장 충실한 종자로다.

아르가마시야의 학자 티키톡(똑딱이)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무덤에

비문

여기 둘시네아가 쉬고 있도다.
살집은 통통했으나
무시무시하고 흉한 죽음이
그 여인을 흙과 재로 만들었도다.
순종 혈통 집안에서 났고
귀부인 같은 티도 있었으니,
위대한 키호테의 불꽃이었고
제 마을의 영광이었도다.

읽어 낼 수 있었던 시는 이것들이었다. 나머지는 글자가 좀먹어 있어서, 짐작으로 풀어 달라고 한 학자에게 맡겼다. 그 학자는 숱한 밤을 새우고 숱한 수고를 들여 그 일을 해냈으며, 돈키호테의 세 번째 출정을 바라면서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뜻을 품고 있다고 한다.

아마 다른 이가 더 나은 채로 노래하리라(Forsi altro canterà con miglior plectio).

끝(Finis)

---

1. 이 소네트 열네 행은 저본으로 삼은 스페인어 전자 텍스트에 빠져 있다(제목과 「소네트」 한 줄만 있다). 1605년판에는 실려 있으므로, 존 오름스비의 1885년 영역본에서 옮겨 채웠다. 이 책에서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역본을 거쳐 옮긴 곳은 이 열네 행뿐이다.

제2부

기발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

정가 증명

나 에르난도 데 바예호는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궁정 서기로서 평의회에 상주하는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이며, 다음을 증명한다. 평의회 의원들께서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가 지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책, 곧 폐하의 허가를 받아 인쇄된 책을 살펴보시고, 제본하지 않은 전지 한 장에 4마라베디씩으로 값을 매기셨다. 책은 전지 73장이므로 이 비율로 셈하면 모두 292마라베디가 된다. 의원들께서는 이 정가 증명을 책마다 첫머리에 실어, 이 책을 얼마에 청하고 받아야 하는지 누구나 알고 깨닫게 하되 어떤 경우에도 그 값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이는 이 일에 관하여 내려진 원본 결정과 명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며, 그 원본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한다. 그리고 평의회 의원들의 명령과 미겔 데 세르반테스 측의 청원에 따라, 1615년 10월 21일 마드리드에서 이 증서를 발급한다.

에르난도 데 바예호.

오식 증명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가 지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제목의 이 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안에 원본과 어긋나서 지적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1615년 10월 21일 마드리드에서 발급한다.

석사 프란시스코 무르시아 데 라 야나.

인가

인가

평의회 의원들의 위임과 명령에 따라 나는 이 청원서에 담긴 책을 살펴보게 하였다. 신앙이나 선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허락할 만한 즐거움이 가득하며 도덕 철학이 많이 섞인 책이다. 그러므로 인쇄 허가를 내주어도 좋다. 1615년 11월 5일 마드리드에서.

박사 구티에레 데 세티나.

인가

평의회 의원들의 위임과 명령에 따라 나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가 지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거룩한 가톨릭 신앙이나 선한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점잖은 휴양과 즐거운 기분 전환거리가 많은데, 옛사람들은 이런 것을 저마다의 나라에 이롭다고 판단하였다. 엄격하기로 이름난 라케다이몬 사람들의 나라에서도 웃음의 신상을 세웠고, 테살리아 사람들은 웃음에 축제를 바쳤다. 이는 보시우스가 『교회의 표징에 관하여』 제2권 제10장에서 인용한 파우사니아스가 전하는 바와 같다. 그렇게 해서 시든 마음과 우울한 정신에 기운을 불어넣었으니, 툴리우스도 『법률론』 제1권에서 이를 떠올렸고, 시인도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대의 근심 사이사이에 이따금 기쁨을 끼워 넣어라(Interpone tuis interdum gaudia curis).

저자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진지함에 익살을, 달콤함에 유익함을, 교훈에 재담을 섞고, 재치라는 미끼 속에 꾸짖음이라는 낚싯바늘을 감추었다. 그러면서 기사 소설을 몰아내려는 적절한 목표를 이루어 가니, 부지런히 솜씨 좋게 이 나라들에서 그 전염병을 씻어 내는 셈이다. 이 책은 그의 큰 재주에 몹시 걸맞은 작품이요, 우리 나라의 영예와 광채이며, 다른 나라들에는 감탄과 시샘의

대상이다. 이것이 나의 소견이다. 다만 더 나은 판단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1615년 3월 17일 마드리드에서.

석사 호세프 데 발디비엘소.

인가

폐하의 궁정이 있는 이 마드리드 시의 총대리 구티에레 데 세티나 박사의 위임에 따라, 나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가 지은 『기발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이 책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열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좋은 본보기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위나 도덕적 덕목과 어긋나는 것도 이 책에서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학식과 유익함이 많다. 허황되고 거짓된 기사 소설은 그 전염이 마땅한 정도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책은 그것을 뿌리 뽑으려는 목표를 꾸준히 잘 지켜 나가고, 카스티야 말을 짜증스럽고 꾸민 티 나는 겉치레로 더럽히지 않고 담백하게 쓴다. 겉치레는 분별 있는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악습이다. 또 날카로운 이야기로 두루 악습을 건드려 바로잡으면서도 그리스도교의 꾸짖음이 지켜야 할 법도를 매우 슬기롭게 지키므로, 이 책이 고치려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약의 달고 맛있는 맛에 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나 역겨움도 없이, 자기 악습을 미워하게 하는 유익한 약을 즐겁게 마셔 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즐거우면서도 꾸지람을 들은 처지가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루기 가장 어려운 일이다. 유익한 것과 달콤한 것을 알맞게 누그러뜨리고 섞을 줄 몰라서 애써 쓴 성가신 글을 송두리째 땅에 내던진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디오게네스의 철학과 학식은 흉내 내지 못하면서, 무엄하게도, 방종하고 앞뒤 분간 없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냉소만 흉내 내려 한다. 그들은 험담에 몸을 맡기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자기가 건드리는 악습을 매섭게 꾸짖을 거리로 삼으며, 어쩌면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악습의 길을 열어 주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들은 꾸짖는 사람은 못 되고 기껏해야 그 악습의 스승이 되고 만다. 그들은 사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백성 사이에서는 그들의 글을 받아들일 신용을 잃는다. 신용이란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말이다. 그들이 성급하고 경솔하게 바로잡으려던 악습은 전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남는다. 모든 종기가 한꺼번에 처방이나 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종기는 부드럽고 순한 약을 훨씬 잘 받아들이고, 신중하고 학식 있는 의사는 그런 약을 써서 종기를 삭게 하는 목적을 이룬다. 그렇게 얻는 결말이 쇠붙이로 엄하게 다스려 얻는 결말보다 나을 때가

많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글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 품위와 단정함, 이야기의 부드럽고 순함 때문에 에스파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플랑드르가 두루 갈채를 보내며 받아들인 책들이니, 사람들은 그 저자를 기적처럼 보고 싶어 한다. 나는 진실로 증언한다. 올해 1615년 2월 25일, 나의 주인이신 톨레도 추기경 대주교 돈 베르나르도 데 산도발 이 로하스 각하께서 프랑스 대사의 방문에 답례하러 가셨다. 대사는 프랑스 왕자들과 에스파냐 왕자들의 혼인에 관한 일을 협의하러 와서 각하를 찾아뵌 바 있었다. 그때 대사를 수행해 온 많은 프랑스 기사들이, 예의 바른 만큼 학식도 있고 좋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는데, 나와 추기경 각하의 다른 사제들에게 다가와 어떤 재주 있는 책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다 마침 내가 검열하고 있던 이 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은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입을 모아 칭찬하기 시작하며, 프랑스에서도 그 이웃 나라들에서도 그의 작품을 얼마나 높이 치는지 힘주어 말하였다. 『라 갈라테아』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제1부를 거의 외울 정도였고, 『모범 소설집』도 그러하였다. 칭찬이 하도 대단해서 나는 그 작품들의 저자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나섰고, 그들은 간절히 바라는 기색을 천 가지로 드러내며 고마워하였다. 그들은 그의 나이와 직업, 신분과 재산을 아주 자세히 물었다. 나는 그가 늙었고, 병사였으며, 시골 귀족이고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말로 대답하였다. '아니, 그런 사람을 에스파냐는 나라의 금고로 부자가 되게 하고 먹여 살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 기사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이 생각을 받아 아주 날카롭게 말하였다. '가난이 그에게 글을 쓰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결코 넉넉해지지 않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그래야 그는 가난하더라도 그의 작품으로 온 세상을 부자로 만들 테니까요.' 검열서치고는 좀 길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누군가는 이 글이 아첨하는 찬사의 경계에 닿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짧게 말한 것의 진실이 비평가에게서는 의심을, 내게서는 걱정을 지워 준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아첨꾼의 부리를 채워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아첨꾼은 다정한 척 거짓으로 장난처럼 말하지만, 보수만은 진짜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1615년 2월 27일 마드리드에서.

석사 마르케스 토레스.

특허장

그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측이 짐에게 아뢰기를, 그대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를 지어 이를 바친다 하였노라. 그리고 그 책이 즐겁고 점잖은 이야기책이며 그대가 많은 수고와 공부를 들였으므로, 그 책을 인쇄할 허가와 20년 동안의 특허를, 또는 짐의 뜻에 맞는 만큼의 특허를 내려 달라고 짐에게 간청하였노라. 짐의 평의회가 이를 살펴본즉 그 책이 이 일에 관하여 짐이 반포한 칙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그 사유로 짐이 이 칙서를 내려야 한다고 의결하였고 짐도 이를 가상히 여겼노라. 이 칙서로써 그대에게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니, 이 칙서의 날짜로부터 셈하여 꼭 10년 동안, 그대 또는 그대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그 밖에는 누구도 아니고, 위에서 말한 책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노라. 또한 이 칙서로써 그대가 지명하는 짐의 여러 왕국의 인쇄업자 누구에게든 허가와 권한을 내리노니, 그 기간 동안 짐의 평의회가 살펴본 원본, 곧 끝에 짐의 궁정 서기이자 평의회에 상주하는 서기 가운데 한 사람인 에르난도 데 바예호가 수결하고 서명한 원본에 따라 그 책을 인쇄할 수 있노라. 다만 팔기 전에 먼저 인쇄본을 원본과 함께 평의회 의원들 앞에 가져와 인쇄본이 원본과 맞는지 확인을 받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짐이 임명한 교정자가 원본에 비추어 인쇄본을 살피고 바로잡았다는 공증 증서를 가져올지어다. 또한 그 책을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그 책이 먼저 짐의 평의회에서 교정과 값 매김을 마치기 전에는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하지 말 것이며, 교정과 값 매김을 위하여 원본과 함께 저자나 비용을 대는 사람에게 단 한 권만 넘기고 그 밖의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지어다. 그 일을 마친 뒤에야,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렇게 한 뒤에야, 첫머리와 첫 전지를 인쇄할 수 있으며, 거기에 곧바로 이 칙서와 인가서와 정가 증명과 오식 목록을 실을지어다. 그 책이 앞에서 말한 꼴을 갖추기 전에는 그대도 다른 누구도 그 책을 팔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이 일에 관하여 정한 칙령과 짐의 여러 왕국의 법에 담긴 벌을 받으리라. 또한 그 기간 동안 누구도 그대의 허가 없이 그 책을 인쇄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노라. 이를 어기고 인쇄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가지고 있던 그 책과

활자와 기구를 모두 잃을 것이요, 어길 때마다 5만 마라베디의 벌금을 물리라. 그 벌금은 3분의 1을 짐의 국고에, 3분의 1을 판결한 재판관에게, 나머지 3분의 1을 고발한 사람에게 돌리라. 또한 짐의 평의회 의원들, 짐의 여러 고등 법원의 원장과 청문관들, 짐의 왕궁과 궁정과 대법원의 촌장과 경관들, 그리고 짐의 여러 왕국과 영지의 모든 도시와 읍과 마을의 다른 모든 재판관에게, 저마다 제 관할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그 자리에 오를 사람이든, 명하노니, 짐이 그대에게 베푸는 이 칙서와 은혜를 지키고 이행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스르거나 넘어서지 말지어다. 이를 어기면 짐의 은총을 잃고 짐의 국고에 1만 마라베디를 물리라. 1615년 3월 30일 마드리드에서 내리노라.

짐, 국왕.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명으로.

페드로 데 콘트레라스.

독자에게 드리는 서문

맙소사, 고귀한 독자여, 아니 평민 독자여, 자네는 지금 이 서문을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는가. 두 번째 돈키호테를 쓴 작자, 그러니까 토르데시야스에서 잉태되어 타라고나에서 태어났다는 그자에게 내가 앙갚음하고 시비를 걸고 욕을 퍼부은 글이 여기 있으리라 믿고서 말일세!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즐거움은 주지 못하겠네. 모욕은 아무리 온순한 가슴에도 분노를 일깨우는 법이지만, 내 가슴만은 이 법칙의 예외가 될 테니까. 자네는 내가 그자를 당나귀니 얼간이니 건방진 놈이니 하고 불러 주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네. 제 죄가 제 벌이 될 테니, 제 빵은 제가 먹으라 하고 알아서 하라지. 다만 내가 아무래도 서운함을 누를 수 없는 것은, 그자가 나를 늙은이에 외팔이라고 손가락질한 일이네. 마치 세월이 내 위로 흘러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었다는 듯이, 아니면 내 손이 어느 선술집 싸움에서 못 쓰게 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일세. 내 손은 지나간 세기와 지금 세기가 본 적 없고 앞으로 올 세기도 다시 보기를 바랄 수 없는, 가장 드높은 싸움터에서 잃은 것이네. 내 상처가 보는 사람의 눈에 빛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 상처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귀히 여겨 주네. 병사는 도망쳐서 살아남느니 싸움터에서 죽는 편이 더 훌륭해 보이는 법이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누가 불가능한 일을 내게 내놓고 손쉽게 이루어 준다 해도, 그 놀라운 싸움에 끼지 못한 채 상처 없이 멀쩡한 몸이 되느니

차라리 그 싸움에 끼었던 몸이 되기를 택하겠네. 병사가 얼굴과 가슴에 지닌 상처는 다른 이들을 명예의 하늘로, 정당한 칭찬을 바라는 하늘로 이끄는 별이라네. 그리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글은 흰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쓰는 것이고, 지성은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 마련이라는 점이네.

그자가 나를 시샘이 많다고 하고, 내가 무식하기라도 한 듯이 시샘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것도 서운하네. 사실을 말하자면, 시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거룩하고 고귀하고 선한 뜻을 품은 시샘밖에 모르네. 일이 이러하니, 실제로 이러하거니와, 내가 어느 사제를 괴롭힐 까닭이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그 사제가 덤으로 종교 재판소의 관리이기까지 하다면 더욱 그렇지.[1] 그자가 그 말을 정말로 그 사람을 두고 한 것이라면, 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안 것이네. 나는 그 사람의 재주를 우러르고, 그 사람의 작품과 끊임없이 덕스럽게 일하는 모습에 감탄하니까. 그래도 아무튼 이 저자 양반이 내 소설들을 두고 모범적이라기보다 풍자적이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말해 준 것은 고맙게 여기네. 이것저것 다 들어 있지 않다면 좋은 작품일 수도 없었을 테니까.

자네는 내가 몹시 몸을 사리고 내 겸손의 울타리 안에 너무 얌전히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 같군. 괴로운 사람에게 괴로움을 더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이 양반의 괴로움이 틀림없이 크리라는 것도 아니까 그런다고 말일세. 그 양반은 탁 트인 들판과 맑은 하늘 아래 감히 나서지 못하고, 마치 대역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제 이름을 감추고 제 고향을 꾸며 대니 말일세.[2] 혹시 자네가 그자를 알게 되거든 내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게. 나는 모욕당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악마의 유혹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유혹 하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자기가 책을 써서 찍어 낼 수 있다고, 그 책으로 돈만큼 명성을 얻고

명성만큼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를 확인시켜 주려면, 자네의 멋진 재치와 말솜씨로 그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바라네.

"세비야에 미치광이 하나가 있었는데, 세상의 어떤 미치광이도 빠져든 적 없는 더없이 우스운 헛짓과 고집에 빠졌다네. 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깎은 갈대 대롱을 하나 만들어 두고, 길에서든 어디서든 개를 붙잡으면 한 발로는 개의 뒷발 하나를 밟고 다른 뒷발은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될 수 있는 대로 솜씨 좋게 그 대롱을 알 만한 자리에 끼워 넣고 바람을 불어넣어 개를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었지. 그렇게 해 놓고는 개 배를 두어 번 토닥토닥 두드리고 놓아주면서, 언제나 구경꾼이 많았는데, 그 구경꾼들에게 말했다네. '여러분, 개 한 마리 부풀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나리, 책 한 권 만드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자 마음에 들지 않거든, 독자 벗이여, 이 이야기를 해 주게. 이것도 미치광이와 개 이야기라네.

"코르도바에 또 다른 미치광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 위에 대리석 판 조각이나 그리 가볍지 않은 돌덩이를 이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네. 그러다 방심한 개를 만나면 바짝 다가가 그 무게를 개 위에 곧장 떨어뜨렸지. 개는 약이 올라 짖고 울부짖으며 길을 세 개나 지나도록 멈추지 않고 달아났다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짐을 떨어뜨린 개들 가운데 한 마리가 어느 모자 장수의 개였는데, 주인이 몹시 아끼는 개였지. 돌이 내려와 개 머리를 쳤고, 얻어맞은 개는 비명을 질렀고, 주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자를 움켜쥐고 미치광이에게 달려들어 성한 뼈가 하나도 남지 않게 두들겼다네. 그리고 한 대 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 '이 도둑놈의 개 같은 놈아, 내 사냥개한테? 이 잔인한 놈아, 내 개가 사냥개인 걸 못 봤느냐?' 그렇게 사냥개라는 이름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미치광이를 곤죽으로 만들어 돌려보냈다네. 미치광이는 혼이 나서 물러났고, 한 달이 넘도록 광장에 나오지 않았지. 그 기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제 발명품을 들고, 더 무거운 짐을 이고 돌아왔다네. 개가 있는 데로 다가가서는 개를 뚫어지게 아주 잘 살펴보고, 돌을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고 떨어뜨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말했지. '이건 사냥개다. 조심!' 결국 그 사람은 마주치는 개마다, 덩치 큰 투견이든 조그만 똥개든, 모두 사냥개라고 하며 다시는 돌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네."

어쩌면 이 역사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네. 다시는 제 재주의 짐을 책 속에 떨어뜨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런 책은 나쁘면 바위보다 더 딱딱한 법이니까.

그리고 그자가 제 책으로 내 벌이를 빼앗아 가겠다고 나를 을러댄 일에 대해서도, 나는 눈곱만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일러 주게. 이름난 막간극 『라 페렌덴가』에 맞추어 이렇게 대답하겠네. 나의 주인이신 24인 의원 나리께서 오래 사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두와 함께하시기를.[3] 위대한 레모스 백작께서 오래 사시기를. 널리 알려진 그분의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마음과 너그러움이 내 보잘것없는 운명이 내리치는 온갖 타격을 막고 나를 버티게 해 주신다네. 그리고 톨레도의 대주교 각하, 돈 베르나르도 데 산도발 이 로하스 님의 지극한 자비가 내게 오래 머물기를. 그러면 세상에 인쇄소가 하나도 없어도 좋고, 『밍고 레불고의 노래』에 든 글자보다 더 많은 책이 나를 치려고 찍혀 나와도 좋네. 이 두 분 군주께서는 내가 아첨하거나 다른 어떤 갈채를 보내며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오로지 그분들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보는 일을 맡아 주셨네. 그래서 나는 운명이 보통 길로 나를 그 꼭대기에 올려놓았을 때보다 더 복되고 더 부유하다고 여기네. 명예는 가난한 사람도 지닐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은 지닐 수

없네. 가난은 고귀함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어둡게 할 수는 없네. 덕이 제 빛을 조금이라도 낸다면, 비록 궁핍의 걸림돌과 틈새를 뚫고 새어 나오는 빛일지라도, 높고 고귀한 정신을 지닌 이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귀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 자연히 돌보아 주게 되는 법이네.

그자에게는 더 말하지 말게. 나도 자네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네. 다만 이것만은 일러 두고 싶네. 내가 자네에게 내놓는 이 『돈키호테』 제2부는 제1부와 같은 장인이 같은 천으로 마름질한 것이고, 여기서 나는 자네에게 돈키호테를 끝까지 늘여서, 마침내 죽어서 묻힌 모습으로 내놓는다는 것을 헤아려 주게. 아무도 감히 그에게 새로운 누명을 씌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네. 지난번 누명들로 충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가 이토록 분별 있는 광기들을 세상에 알렸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 광기 속으로 새삼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흔하면 귀히 여겨지지 않고, 나쁜 것이라도 귀하면 얼마쯤은 값을 쳐주는 법이니까. 깜빡 잊을 뻔했네. 『페르실레스』를 기다려 주게. 이제 거의 다 써 가네. 『라 갈라테아』 제2부도 기다려 주게.

---

1. 세르반테스와 사이가 틀어진 극작가 로페 데 베가(1562~1635)를 가리킨다. 로페는 1614년에 사제가 되었고 종교 재판소의 관리 직함도 지니고 있었다.

2. 1614년 타라고나에서 「알론소 페르난데스 데 아베야네다」라는 이름으로 나온 가짜 속편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의 저자. 책에는 저자가 토르데시야스 사람이라고 적혀 있으나 정체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3. 『라 페렌덴가』는 전하지 않는 막간극이다. 「24인 의원」은 세비야·코르도바 같은 안달루시아 도시의 시 의원을 부르던 이름이다.

헌사

지난날 각하께 제 희극들을, 무대에 오르기보다 먼저 인쇄된 그 작품들을 보내 드리면서, 제 기억이 맞다면, 돈키호테가 각하의 손에 입맞추러 가려고 박차를 신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건대, 그는 박차를 다 신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곳에 닿는다면 저는 각하께 얼마간 봉사를 해 드린 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부라는 이름으로 변장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 다른 돈키호테가 일으킨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씻어 내도록 그를 보내 달라고 끝없이 많은 곳에서 저를 몹시 재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장 간절히 바란 이는 중국의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한 달쯤 전에 황제께서는 중국 말로 쓴 편지를 전령 편에 보내시어 그를 보내 달라고, 더 바르게 말하자면 간청하셨습니다. 카스티야 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거기서 읽힐 책은 돈키호테 이야기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저더러 그 학교의 학장이 되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령에게 황제 폐하께서 저를 위해 여비라도 좀 들려 보내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보게, 자네는 하루 열 레과씩이든 스무 레과씩이든, 자네가 명받고 온 걸음대로 자네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도 좋네.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날 만큼 건강하지 못하네. 게다가 병든 데다 돈도 한 푼 없네. 황제라면 황제, 군주라면 군주를 대자면, 나에게는 나폴리에 위대한 레모스 백작이 계시네.

그분은 학교니 학장 자리니 하는 그 많은 자잘한 직함 없이도 나를 먹여 살리고 감싸 주시며, 내가 바랄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를 돌려보냈고, 이렇게 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 페르실레스와 시히스문다의 고난 』 을 각하께 바치면서 말입니다.[1]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Deo volente) 넉 달 안에 끝낼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 지은 책 가운데 가장 나쁜 책이 되거나 가장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오락을 위한 책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책이라고 한 말은 거두겠습니다. 제 벗들의 의견으로는 이 책이 다다를 수 있는 좋음의 끝에 이를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각하께서 모두가 바라는 대로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빕니다. 그때쯤이면 페르실레스는 각하의 손에 입 맞출 채비를 마쳤을 것이고, 저는 각하의 발에 입 맞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종이니까요. 1615년 10월 마지막 날 마드리드에서.

각하의 종,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

1. 세르반테스의 마지막 작품. 그는 1616년 4월에 세상을 떠났고, 이 책은 이듬해인 1617년에 나왔다.

제1장 신부와 이발사가 돈키호테와 그의 병을 두고 나눈 이야기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 이야기의 제2부, 곧 돈키호테의 세 번째 출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부와 이발사는 지난 일들을 새삼 일깨워 그의 머릿속에 되살리지 않으려고 거의 한 달 동안 그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의 조카딸과 가정부를 찾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그를 잘 보살피고, 심장과 뇌에 좋고 기운을 북돋우는 음식을 먹이라고 당부했다. 이치를 따져 보면 그의 불운이 모두 거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두 여자는 할 수 있는 한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겠다고 말하면서, 주인이 시시각각 온전한 정신을 되찾아 가는 낌새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이토록 위대하면서도 꼼꼼한 이 이야기의 제1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를 마법에 걸린 사람으로 만들어 소달구지에 실어 데려온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여겨,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가 나았으리라고는 거의 믿지 않으면서도 그를 찾아가 나아진 정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 그토록 여린 상처의 꿰맨 자리가 터질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편력 기사도에 관해서는 어떤 점도 건드리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마침내 그들이 찾아가 보니 그는 녹색 모직 조끼를 입고 톨레도산 붉은 모자를 쓴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찌나 바싹 마르고 쪼그라들었는지 꼭 미라의 살로 빚어 놓은 것 같았다. 그는 두 사람을

무척 반갑게 맞았고, 두 사람이 건강을 묻자 자기 몸과 건강에 대해 아주 분별 있게, 아주 우아한 말로 이야기했다.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이른바 국가 경영과 통치 방식을 논하게 되었다. 이 폐단은 고치고 저 폐단은 꾸짖고, 이 풍습은 바로잡고 저 풍습은 몰아내며, 셋이 저마다 새로운 입법자, 현대의 리쿠르고스나 갓 나온 솔론이 되었다. 그들이 나라를 어찌나 새롭게 뜯어고쳤던지 마치 나라를 대장간 화덕에 넣었다가 넣은 것과 전혀 다른 나라를 꺼낸 것 같았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다룬 모든 문제에 대해 어찌나 분별 있게 말했던지, 두 시험관은 그가 완전히 나아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의심 없이 믿었다.

조카딸과 가정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인이 그토록 정신이 맑은 것을 보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신부는 기사도에 관한 일은 건드리지 않겠다던 처음 뜻을 바꾸어, 돈키호테가 나은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철저히 시험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궁정에서 들려온 소식 몇 가지를 꺼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튀르크 황제가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데 그 속셈이 무엇인지, 그토록 큰 먹구름이 어디에 쏟아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우리를 무기 들게 만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온 그리스도교 세계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폐하께서도 나폴리와 시칠리아 해안과 몰타섬에 방비를 갖추게 하셨다는 소식이었다.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폐하께서 적이 방심한 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미리 영토에 방비를 갖추신 것은 더없이 신중한 무인다운 처사요. 그러나 내 조언을 받아들이신다면, 나는 폐하께 한 가지 대비책을 쓰시라고 권하겠소. 폐하께서는 지금 이 시각 그런 대비책은 생각조차 못 하고 계실 것이오."

신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느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가엾은 돈키호테야. 네가 광기의 높은 꼭대기에서 어리석음의 깊은 구렁으로 곤두박질치는 것 같구나!"

그러나 이발사도 이미 신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돈키호테에게 마땅히 써야 한다는 그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어쩌면 군주들에게 흔히 바치는 수많은 쓸데없는 진언 목록에 올릴 만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면도쟁이 양반, 내 진언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 있는 것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발사가 맞받았다. "폐하께 올리는 계책들은 모두, 아니 거의 다, 이룰 수 없거나 터무니없거나 임금님이나 나라에 해가 되는 것들이라는 걸 경험이 보여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내 계책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룰 수 없는 것도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오. 어떤 계책가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정당하고, 가장 솜씨 있고 간단한 것이오."

"그럼 어서 말씀해 보시오, 돈키호테 나리." 신부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지금 그것을 말했다가"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일 아침이면 그 말이 평의회 의원 나리들의 귀에 들어가 있고, 내 수고의 감사와 상은 남이 가져가는 꼴은 보고 싶지 않소."

"저로 말하자면" 이발사가 말했다. "여기서도 하느님 앞에서도 맹세하는데,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왕한테도 졸개한테도, 이 땅의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맹세는 그 신부의 로맨스에서 배운 것인데, 그 신부는 미사 서문 기도 중에 임금님께 금화 백 도블라와 잘 걷는 노새를 훔쳐 간 도둑을 일러바쳤다지요."

"그런 이야기는 모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그 맹세가 좋은 맹세라는 것은 아오. 이발사 양반이 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

믿겠소."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신부가 말했다. "내가 보증하고 이 사람 편에 서겠소. 이 일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벙어리보다 더 말이 없을 것이오. 그러지 않으면 판결받고 선고받은 대로 값을 치르겠소."

"그럼 신부님은 누가 보증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직분이 보증하오." 신부가 대답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내 직분이니까."

"원, 세상에!"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폐하께서 공개 포고를 내리시어 에스파냐를 떠도는 편력 기사들을 모두 정한 날에 궁정으로 모이게 하시면 그만 아니겠소? 고작 여섯 명밖에 오지 않는다 해도, 그 가운데 혼자서 튀르크 황제의 권세를 모조리 무너뜨리기에 넉넉한 기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소. 두 분은 정신 차려 내 말을 따라와 보시오. 편력 기사 한 사람이 20만 명의 군대를, 그들이 모두 목이 하나뿐이거나 설탕 과자로 빚어진 것처럼 쳐부순 것이 무슨 새로운 일이오?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시오. 이런 경이로운 일로 가득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소? 이름난 돈 벨리아니스나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셀 수 없는 혈통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남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원통하게도, 오늘날 살아 있지 않다니!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오늘 살아서 튀르크 황제와 맞선다면, 맹세코 나는 튀르크 황제의 벌이를 떠맡지 않겠소!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살피시어, 지난날의 편력 기사들만큼 용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개에서는 그들에게 뒤지지 않을 누군가를 내려 주실 것이오. 하느님은 내 뜻을 아시니, 더는 말하지 않겠소."

"아이고!" 이때 조카딸이 말했다. "우리 삼촌이 또 편력 기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제 목을 내놓겠어요!"

그 말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편력 기사로 죽을 것이다. 튀르크 황제야 내려오든 올라가든 제가 원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하라지. 다시 말하지만 하느님은 내 뜻을 아신다."

이때 이발사가 말했다.

"두 분께 청하오니, 세비야에서 있었던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에 틀로 찍어 낸 듯이 들어맞으니 꼭 하고 싶어서요."

돈키호테가 허락하자 신부와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고, 이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비야의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친척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거기에 넣어 둔 사람이었소. 오수나 대학에서 교회법 학위를 딴 사람이었지만, 여러 사람의 말로는 살라망카 대학에서 학위를 땄다 해도 미치광이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하오. 이 학위 받은 양반이 몇 해 동안 갇혀 지내더니 자기가 제정신이고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다고 믿게 되었소. 그런 생각으로 그는 대주교께 편지를 써서, 아주 조리 있는 말로 간곡히 청했소. 하느님의 자비로 잃었던 정신을 이미 되찾았으니 지금 살고 있는 이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를 꺼내 주라고 명해 주십사 하고 말이오. 그런데 친척들이 자기 재산의 몫을 누리려고 자기를 여기 가두어 두고, 진실을 무시한 채 죽을 때까지 미치광이로 두려 한다고 했소.

"대주교께서는 조리 있고 분별 있는 편지를 여러 통 받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사제 한 사람에게 명하여 그 석사가 써 보낸 말이 참말인지 병원장에게 알아보고, 그 미치광이와도 이야기해 보고, 정신이 온전해 보이거든 꺼내서 풀어 주라고 하셨소. 사제가 그렇게 했더니 병원장은 그 사람이 아직 미쳐 있다고 말했소. 여러 번 아주 분별 있는 사람처럼 말하기는 하지만 끝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도 많이 쏟아 내서, 그

수로 보나 크기로 보나 앞서 한 분별 있는 말들과 맞먹는다고 했소. 이야기를 나눠 보면 시험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지요. 사제는 시험해 보고 싶어서 미치광이와 마주 앉아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동안 미치광이는 한 번도 비뚤어지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않았소. 오히려 하도 신중하게 말해서 사제는 그 미치광이가 제정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소. 미치광이가 사제에게 한 여러 말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었소. 친척들이 자기를 아직 미쳤고 가끔 정신이 맑을 뿐이라고 말해 달라며 병원장에게 선물을 대 주는데, 병원장은 그 선물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했소. 그리고 자기 불행에서 가장 큰 원수는 자기의 많은 재산이라고, 원수들이 그 재산을 누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려놓으신 은총을 속임수로 몰고 의심한다고 털어놓았소. 결국 그 사람은 병원장은 의심스럽게, 친척들은 탐욕스럽고 몰인정하게, 자기 자신은 아주 분별 있게 보이도록 말을 해냈소. 그래서 사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대주교께서 직접 보시고 그 일의 진상을 손으로 만져 보시게 하기로 마음먹었소.

"그 착한 사제는 이렇게 굳게 믿고서, 석사가 그곳에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을 내주게 하라고 병원장에게 청했소. 병원장은 다시 한번, 그 석사는 틀림없이 아직 미쳐 있으니 하는 일을 잘 생각하라고 말했소. 그를 데려가지 말라고 병원장이 아무리 미리 일러 주고 경고해도 사제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소. 대주교의 명령인 것을 보고 병원장은 따랐지요. 석사에게 그의 옷을 입혔는데, 새것이고 점잖은 옷이었소. 석사는 제정신인 사람의 옷을 입고 미치광이의 옷을 벗은 제 모습을 보자, 동료 미치광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게 해 달라고 사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청했소. 사제는 자기도 함께 가서 병원에 있는 미치광이들을 보고 싶다고 했소. 그래서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몇도 따라갔소. 석사는 사납게 날뛰는

미치광이가, 그때는 가라앉아 조용했지만, 갇혀 있는 우리 앞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소. '형제여, 내게 시킬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나는 집으로 가오. 하느님께서 그 끝없는 선하심과 자비로, 내가 그럴 자격도 없는데, 내 정신을 돌려주셨소. 이제 나는 다 나았고 제정신이오. 하느님의 권능 앞에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큰 희망을 품고 믿으시오. 나를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셨으니, 당신도 그분을 믿으면 당신 역시 돌려놓아 주실 것이오. 내가 먹을 것을 좀 보내 드리도록 신경 쓰겠으니 꼭 드시오. 겪어 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우리의 광기는 모두 위는 비고 머리는 바람으로 가득 찬 데서 생긴다고 나는 생각하오. 힘을 내시오, 힘을 내. 불행 속에서 기운을 잃으면 건강이 줄고 죽음이 다가오는 법이오.'

"석사가 하는 이 말을 그 사나운 미치광이의 우리 맞은편 다른 우리에 있던 또 다른 미치광이가 다 듣고 있었소. 그는 벌거숭이로 누워 있던 낡은 거적에서 일어나더니, 다 낫고 제정신이 되어 나가는 놈이 누구냐고 큰 소리로 물었소. 석사가 대답했소. '형제여, 나가는 사람은 나요. 이제 여기 더 있을 까닭이 없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늘에 끝없이 감사드리오.' '석사,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하게. 악마에게 속지 말게.' 미치광이가 맞받았소. '발을 멈추고 자네 집, 이곳에 얌전히 있게. 그러면 되돌아오는 수고를 덜 걸세.' '나는 내가 나은 걸 아오.' 석사가 맞받았소. '다시 순례를 돌 일은 없을 것이오.' '자네가 나아?' 미치광이가 말했소. '좋아, 두고 보면 알겠지. 잘 가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위엄을 대신하는 유피테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네만, 오늘 세비야가 자네를 이 집에서 꺼내 주고 제정신이라고 여기는 이 죄 하나만으로도, 나는 세비야에 벌을 내려 영원무궁토록 그 벌이 기억되게 하겠네, 아멘. 이 모자란 석사 녀석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말했듯이 나는 천둥 치는 유피테르요, 세상을

을러대고 부술 수 있고 늘 그렇게 하는, 불타는 벼락을 손에 쥐고 있는 몸이다. 그러나 나는 이 무지한 백성을 단 한 가지로만 벌하겠다. 이 협박을 한 오늘 이 날 이 시각부터 셈하여 꼬박 3년 동안 이 도시와 그 둘레 모든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네가 풀려나고, 네가 낫고, 네가 제정신이고, 나는 미치광이고, 나는 병들고, 나는 묶여 있다고……? 내가 비를 내릴 생각은 목을 매달 생각만큼도 없다.'

"구경꾼들은 미치광이의 고함과 말에 귀를 기울였소. 그러나 우리의 석사는 우리의 사제에게 돌아서서 그의 두 손을 잡고 말했소. '나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미치광이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자가 유피테르라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면, 물의 아버지이자 물의 신인 넵투누스인 제가 마음 내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겠습니다.' 이 말에 사제가 대답했소. '그래도 넵투누스 나리, 유피테르 나리를 성나게 하는 건 좋지 않겠소. 나리는 댁에 그대로 계시오. 다음에 형편이 더 좋고 틈이 더 날 때 다시 모시러 오겠소.' 병원장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웃었고, 그 웃음에 사제는 얼굴이 반쯤 붉어졌소. 사람들은 석사의 옷을 벗겼고, 석사는 병원에 남았고, 이야기는 끝났소."

"그래, 이것이 그 이야기란 말이오, 이발사 양반?"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기에 틀로 찍어 낸 듯이 들어맞아서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던 이야기가? 아, 면도꾼 양반, 면도꾼 양반, 체 그물 너머로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눈이 먼 사람이오! 재주와 재주를, 용기와 용기를,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을, 가문과 가문을 견주는 비교는 언제나 미움을 사고 달갑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정말 모른단 말이오? 이발사 양반, 나는 물의 신 넵투누스도 아니고, 분별 있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분별 있다고 여겨지려 애쓰지도 않소. 나는 다만 편력 기사도가 위세를 떨치던 그 더없이 복된 시대를 되살리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세상에 깨우쳐 주려고 애쓸 뿐이오. 그러나 타락한 우리 시대는,

편력 기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아가씨들을 감싸고, 고아와 어린것들을 돕고, 오만한 자를 벌하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는 일을 떠맡아 제 어깨에 짊어지던 시대가 누린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소. 요즘 기사들은 대부분 몸을 감싸는 쇠사슬 갑옷보다 걸치고 다니는 다마스크 비단과 금란과 다른 값비싼 천이 버석거리는 소리를 더 내오.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갖추고 하늘의 모진 날씨를 고스란히 맞으며 들판에서 자는 기사가 없소. 편력 기사들이 하던 것처럼 등자에서 발을 빼지도 않고 창에 기댄 채, 흔히 하는 말로 잠의 목만 살짝 베는 기사도 이제는 없소. 이 숲을 나와 저 산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대개는 사납고 거친 바다의 메마르고 황량한 바닷가를 밟고, 그 물가에서 노도 돛도 돛대도 밧줄도 없는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하면 겁 없는 마음으로 거기에 몸을 던져, 한번은 하늘로 들어 올리고 한번은 구렁으로 끌어내리는 깊은 바다의 무자비한 물결에 몸을 맡기는 기사도 이제는 하나도 없소. 그 기사는 이겨 낼 수 없는 폭풍에 가슴을 내밀고 버티다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배를 탄 곳에서 3천 레과도 더 떨어진 곳에 와 있게 되고, 멀고 낯선 땅에 뛰어내리면 양피지가 아니라 청동에 새겨 마땅한 일들을 겪게 되오. 그러나 이제는 게으름이 부지런함을, 빈둥거림이 일을, 악덕이 덕을, 오만이 용기를, 무예의 이론이 실전을 이기고 있소. 그 실전은 오직 황금시대와 편력 기사들 속에서만 살아 있었고 빛났소.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시오. 이름난 가울라의 아마디스보다 더 정숙하고 더 용맹한 이가 누구요? 잉갈라테라의 팔메린보다 더 분별 있는 이가 누구요? 백기사 티란테보다 더 붙임성 있고 다루기 쉬운 이가 누구요? 그리스의 리수아르테보다 더 멋진 이가 누구요? 돈 벨리아니스보다 더 많이 베이고 더 많이 벤 이가 누구요? 가울라의 페리온보다 더 겁 없는 이가, 이르카니아의 펠릭스마르테보다 더 위험에 뛰어드는 이가, 에스플란디안보다 더 진실한 이가 누구요?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보다 더 무모한 이가 누구요? 로다몬테보다 더 사나운 이가 누구요? 소브리노 왕보다 더 신중한 이가 누구요? 레이날도스보다 더 대담한 이가 누구요? 롤단보다 더 무적인 이가 누구요? 그리고 투르핀이 그의 『우주지』에서 말한 대로 오늘날 페라라 공작들의 조상이 된 루헤로보다 더 늠름하고 더 예의 바른 이가 누구요? 신부님, 이 기사들과 내가 더 댈 수 있는 다른 많은 기사들은 모두 편력 기사였고, 기사도의 빛이요 영광이었소. 내 계책에 쓰일 기사들이 바로 이런 기사들이나 이와 같은 기사들이었으면 좋겠소. 그렇게만 되면 폐하께서는 훌륭히 섬김을 받으시고 많은 비용을 아끼실 것이요, 튀르크 황제는 제 수염이나 쥐어뜯고 있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런 까닭에, 사제가 나를 꺼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내 집에 남아 있지는 않겠소. 이발사 양반 말처럼 그 양반의 유피테르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여기 내가 있으니 내 마음 내킬 때 비를 내리겠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야 양반이 내가 그 뜻을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오."

"참말이지, 돈키호테 나리." 이발사가 말했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 뜻이 선했던 만큼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나리께서 언짢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언짢아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하오."

이 말에 신부가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돈키호테 나리가 한 말 때문에 생겨나 내 양심을 갉아먹고 긁어 대는 의문 하나를 품은 채로 남고 싶지는 않소."

"신부님은 그보다 더한 일에도 허락을 받을 만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그 의문을 말씀하시오. 양심에 의문을 품고 지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니" 신부가 대답했다. "말하겠소. 내 의문은 이것이오. 돈키호테 나리, 나리가 늘어놓은 그 편력 기사 무리가 정말로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피와 살을 지닌 사람들이었다고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소. 오히려 나는 그것이 모두 지어낸 이야기요, 꾸며 낸 이야기요, 거짓말이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더 바르게 말하자면 반쯤 잠든 사람들이 늘어놓은 꿈이라고 생각하오."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 기사들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빠진 잘못이지. 나는 여러 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여러 기회에, 거의 누구나 빠져 있는 이 착각을 진실의 빛 아래로 끌어내려고 애썼소. 어떤 때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때는 이루었는데, 그 뜻을 진실의 어깨 위에 떠받쳐서였소. 그 진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는 가울라의 아마디스를 내 두 눈으로 보았다고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요.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희었으며, 수염은 검기는 해도 잘 다듬었고, 눈빛은 부드러운 듯 엄했고, 말수가 적고, 더디 성내고 금세 노여움을 풀었소. 내가 아마디스를 그려 낸 것처럼, 내 생각에는 세상의 이야기들 속을 편력하는 모든 편력 기사를 그려 내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이오.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대로였다고 나는 확신하므로, 그들이 해낸 무훈과 그들이 지녔던 성품을 보면 올바른 철학으로 그들의 생김새와 낯빛과 키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나리가 보기에 거인 모르간테는 얼마나 컸을 것 같습니까, 돈키호테 나리?" 이발사가 물었다.

"거인에 관해서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에 거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견이 갈리오. 그러나 진실에서 티끌만큼도 어긋날 수 없는 성경이 블레셋의 거한 골리앗 이야기를 들려주며 거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오. 골리앗은 키가 일곱 규빗 반이었다니 엄청나게 큰 몸집이오.

또 시칠리아섬에서는 정강이뼈와 어깨뼈가 어찌나 큰 것이 나왔는지, 그 크기를 보면 그 주인들이 거인이었고 큰 탑만큼 컸다는 것이 드러나오. 기하학이 이 진실을 의심에서 건져 내오. 그래도 모르간테가 얼마나 컸는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소. 다만 그리 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오. 그의 무훈을 낱낱이 적은 이야기에서 그가 지붕 밑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는 대목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품게 되었소. 그가 들어갈 만한 집을 찾았다면 그의 몸집이 엄청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오."

"그렇군요." 신부가 말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그토록 엄청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들도 모두 편력 기사였으니 몬탈반의 레이날도스와 돈 롤단과 프랑스의 나머지 열두 대등 기사들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레이날도스에 대해서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감히 말하건대, 얼굴은 넓고 낯빛은 붉었으며, 눈은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조금 튀어나왔고, 지나치게 까다롭고 성미가 급했으며, 도둑과 막돼먹은 무리와 잘 어울렸소. 롤단, 또는 로톨란도, 또는 오를란도, 이야기들이 이 모든 이름으로 그를 부르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장담하오. 키는 중간쯤이고 어깨가 넓고 다리가 조금 휘었으며,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수염은 불그스름했고, 몸에 털이 많고 눈빛이 위협적이었소. 말수는 적었지만 아주 점잖고 예의 발랐소."

"롤단이 나리 말씀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다면" 신부가 맞받았다. "아름다운 앙헬리카 아씨가 그를 업신여기고 버린 것도 놀랄 일이 아니오. 앙헬리카가 몸을 맡긴 그 수염이 막 나기 시작한 무어 젊은이에게는 멋과 기개와 매력이 있었을 테니까. 롤단의 거칢보다 메도로의 부드러움을 사랑했으니 그 아씨는 슬기롭게 처신한 셈이오."

"그 앙헬리카는, 신부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방탕하고 싸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조금 변덕스러운 아가씨였소. 그 아가씨는 아름답다는 명성만큼이나 세상을 제 엉뚱한 짓으로 가득 채워 놓았소. 천 명의 귀인, 천 명의 용사, 천 명의 현자를 업신여기고, 턱이 반질반질한 어린 시동 하나로 만족했소. 그 시동에게는 친구에게 지킨 우정 덕에 얻은 고마운 사람이라는 이름 말고는 다른 재산도 이름도 없었소. 그 아가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위대한 시인, 이름난 아리오스토는 이 아씨가 그 천한 몸 맡김 뒤에 겪은 일을 감히 노래하지 못해서인지, 노래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마 그리 정숙한 일들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며 그 아씨를 내버려 두었소.

그리고 그 여인이 어찌하여 카타이의 왕홀을 받았는지는
아마 다른 이가 더 나은 채로 노래하리라.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예언이었소. 시인들은 바테스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예언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오. 이 진실은 분명히 드러나오. 그 뒤로 이름난 안달루시아 시인 하나가 그 아씨의 눈물을 울며 노래했고, 또 다른 이름나고 비할 데 없는 카스티야 시인이 그 아씨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기 때문이오."[1]

"말씀해 보십시오, 돈키호테 나리." 이때 이발사가 말했다. "그 앙헬리카 아씨를 칭송한 시인은 그토록 많은데, 그 아씨를 두고 풍자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크리판테나 롤단이 시인이었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아가씨를 벌써 비누칠하듯 박박 문질러 놓았으리라고 나는 굳게 믿소. 지어낸 귀부인들에게, 아니 실은 자기 마음의 귀부인으로 고른 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시인들이 풍자시와 비방문으로 앙갚음하는 것은 시인들의 본성이요 버릇이니까. 그런 앙갚음은

정말이지 너그러운 가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뒤집어 놓은 앙헬리카 아씨를 헐뜯는 시는 지금까지 내 귀에 들어온 적이 없소."

"기적이로군요!" 신부가 말했다.

그때 이미 이야기 자리를 떠나 있던 가정부와 조카딸이 안뜰에서 크게 소리치는 것이 들렸고, 모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

1. 안달루시아 시인은 루이스 바라오나 데 소토(1548~1595, 『앙헬리카의 눈물』), 카스티야 시인은 로페 데 베가(『앙헬리카의 아름다움』, 1602)다.

제2장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와 벌인 유명한 말다툼과 다른 우스운 일들을 다룬다

이야기는 전한다. 돈키호테와 신부와 이발사가 들은 고함은,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를 보러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문을 막아선 조카딸과 가정부가 산초에게 이렇게 질러 대던 소리였다.

"이 떠돌이 짐승 같은 놈이 이 집에 무슨 볼일이야? 자네 집으로 가게, 이 사람아. 우리 주인 나리를 꾀어내고 홀려서 저 험한 벽지로 끌고 다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네야."

이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이 사탄의 가정부야, 꾐에 넘어가고 홀리고 저 험한 벽지로 끌려다닌 건 나지 네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이 세상 저 세상으로 끌고 다녔다고. 너희는 셈을 절반이나 틀렸어. 그분이 섬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속임수로 나를 집에서 꾀어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섬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섬 같은 거 먹다가 체해 죽어라, 이 망할 놈의 산초야." 조카딸이 대답했다. "그런데 섬이 뭔데? 먹는 거야? 너 같은 먹보에 걸신들린 놈이니 그렇겠지?"

"먹는 게 아니야." 산초가 맞받았다. "다스리고 거느리는 거야. 도시 네 개보다, 궁정 촌장 넷보다 더 나은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가정부가 말했다. "자네는 여기 못 들어오네, 이 못된 짓 자루에 심술 포대야. 가서 자네 집이나 다스리고 자네 손바닥만 한

밭뙈기나 갈게. 섬이니 섬놈이니 하는 건 그만 바라고."

신부와 이발사는 세 사람의 대거리를 들으며 무척 즐거워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산초가 입을 열고 속을 털어 심술궂은 헛소리를 한 무더기 쏟아 놓고 자기 체면에 좋지 않을 대목까지 건드릴까 두려워서 그를 불러들였고, 두 여자에게는 입을 다물고 그를 들여보내라고 했다. 산초가 들어가자 신부와 이발사는, 그가 엉뚱한 생각에 얼마나 단단히 박혀 있고 그 고약한 편력 기사도의 어리석음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는지 보고 나서 그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 가신 채 돈키호테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래서 신부가 이발사에게 말했다.

"두고 보게, 여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 시골 귀족이 또 매처럼 강가로 날아오를 걸세."

"나도 그건 의심하지 않네."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는 기사의 광기보다 종자의 어리석음이 더 놀랍네. 그 섬 이야기를 어찌나 굳게 믿는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깨우침을 다 들이대도 그 머리통에서 그 생각을 빼내지 못할 걸세."

"하느님께서 저들을 고쳐 주시기를."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보세. 그런 기사와 그런 종자가 벌이는 이 헛소리 덩어리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게 될 테니까. 꼭 둘을 한 거푸집에 부어 빚어 낸 것 같네. 주인의 광기도 하인의 어리석음 없이는 동전 한 닢 값어치도 없었을 걸세."

"그렇네." 이발사가 말했다. "지금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참 알고 싶군."

"장담하건대" 신부가 대답했다. "조카딸이나 가정부가 나중에 우리한테 들려줄 걸세. 그 이야기를 엿듣지 않고 배길 성미들이 아니니까."

그사이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둘만 있게 되자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초, 내가 너를 네 집구석에서 끌어낸 사람이라고 네가 말했고 지금도 말하니 몹시 서운하구나. 나도 내 집에 눌러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우리는 함께 나섰고, 함께 갔고, 함께 떠돌았다. 같은 운수, 같은 팔자가 우리 둘에게 닥쳤다. 네가 한 번 담요에 헹가래 쳐졌다면 나는 백 번 두들겨 맞았다. 내가 너보다 앞선 것은 그것뿐이다."

"그건 당연한 이치였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 말씀대로라면 불운은 종자보다 편력 기사한테 더 딸려 있는 거니까요."

"네가 잘못 알았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 '머리가 아프면(quando caput dolet)……' 운운."

"저는 제 나라 말밖에 몰라요." 산초가 대답했다.

"내 말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의 지체가 다 아프다는 뜻이다. 그러니 나는 네 주인이요 나리이니 네 머리이고, 너는 내 하인이니 내 지체다. 이런 까닭으로 내게 닥쳤거나 닥칠 아픔은 너도 아파해야 하고, 네 아픔은 나도 아파해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그런데 지체인 제가 담요에 헹가래 쳐질 때, 제 머리는 울타리 뒤에 서서 제가 하늘을 나는 꼴을 구경만 하면서 아무 아픔도 느끼지 않았어요. 지체가 머리의 아픔을 아파해야 한다면, 머리도 지체의 아픔을 아파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럼 산초, 네가 헹가래 쳐질 때 내가 아파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할 생각이면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그때 내가 마음으로 느낀 아픔이 네가 몸으로 느낀 아픔보다 더 컸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일을 접어 두자. 이것을 따져 보고 제자리에 놓을 때가 따로 있을 테니까. 그보다 말해 보아라, 산초, 내 벗아. 이

마을에서는 나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시골 귀족들은 어떻게 보고, 기사들은 어떻게 보느냐? 내 용기를 두고, 내 무훈을 두고, 내 예절을 두고 뭐라고들 하느냐? 이미 잊힌 기사도를 되살려 세상에 돌려놓겠다고 내가 떠맡은 일을 두고는 무슨 말이 오가느냐? 요컨대 산초, 이 일에 관해 네 귀에 들어온 것을 내게 말해다오. 좋은 것에는 하나도 보태지 말고 나쁜 것에서는 하나도 빼지 말고 말해야 한다.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주군에게 진실을 제 모습 제 생김새 그대로 말하고, 아첨으로 부풀리거나 다른 헛된 체면으로 줄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알아 두어라, 산초. 아첨의 옷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진실이 군주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다른 시대들이 우리 시대보다 더 쇠의 시대로 여겨질 것이다. 내가 알기로 지금 있는 시대들 가운데 우리 시대는 황금의 시대다. 이 일깨움을 새겨들어서, 내가 물은 것에 관해 네가 아는 일들의 진실을 분별 있게, 좋은 뜻으로 내 귀에 들려다오."

"그렇게 하고말고요, 주인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나리께서 제가 하는 말에 화를 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 귀에 들어온 그 옷 말고 다른 옷은 입히지 말고 벌거벗은 그대로 말하라고 하시니까요."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거리낌 없이, 에두르지 말고 말해도 된다."

"그럼 첫째로 말씀드릴 건" 산초가 말했다. "백성들은 나리를 엄청난 미치광이로 여기고, 저를 그에 못지않은 얼간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시골 귀족들은, 나리께서 시골 귀족 신분의 테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름 앞에 '돈'을 갖다 붙이고, 포도나무 네 그루에 소 두 겨리 갈 땅뙈기에, 앞뒤로 누더기 한 조각씩 걸치고서 기사가 되겠다고 덤벼들었다고 해요. 기사들은 시골 귀족들이 자기들한테 맞서는 게 싫다고 해요. 특히 구두에 검댕을 칠해 광을 내고 검은 양말 올 나간

데를 초록 명주실로 꿰매 신는, 종자 노릇이나 할 그런 시골 귀족들 말이에요."

"그건"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늘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고 기운 옷은 입은 적이 없다. 해진 옷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세월 탓이라기보다 무기 탓이다."

"나리의 용기와 예절과 무훈과 떠맡으신 일에 관해서는" 산초가 이어서 말했다.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지만 재미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감하지만 운이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주제넘다'고 해요. 이런 식의 말이 하도 많이 오가서 나리도 저도 성한 뼈가 하나도 안 남을 지경이에요."

"보아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덕이 높은 곳에 이르면 어디서든 박해를 받는다. 지난날의 이름난 위인들 가운데 악의에 찬 중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다. 더없이 용맹하고 더없이 신중하고 더없이 용감한 장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야심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옷차림도 행실도 조금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훈으로 대왕이라는 이름을 얻은 알렉산드로스는 얼마간 술꾼 기질이 있었다고들 한다. 수많은 과업을 이룬 헤라클레스는 음탕하고 나약했다고 전한다. 가울라의 아마디스의 아우 돈 갈라오르는 지나치다 못해 너무 여자를 밝혔다는 뒷말이 있고, 그의 형은 울보였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오 산초여, 착한 사람들이 받는 그 숱한 중상 사이에 내가 받는 중상쯤은 끼어 지나갈 수 있다. 네가 말한 것보다 더하지만 않다면 말이다."

"바로 거기가 급소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몸뚱이를 걸고 말하는데!" 산초가 맞받았다.

"그럼 더 있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아직 꼬리 가죽은 벗기지도 않았어요." 산초가 말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과자에 꽃빵이에요. 그런데 나리께서 나리를 두고 하는 뒷소리를 다 알고 싶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말해 줄 사람을 당장 이리 데려오겠어요. 어젯밤에 바르톨로메 카라스코네 아들이 살라망카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사가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제가 잘 돌아왔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나리 이야기가 벌써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라는 제목으로 책이 되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제 이름도 산초 판사라고 제 이름 그대로 나오고,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도 나오고, 우리 둘만 있을 때 있었던 다른 일들까지 나온대요. 그걸 쓴 역사가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 수 있었는지 놀라서 성호를 그었다니까요."

"장담하건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쓴 작가는 틀림없이 마법사인 현자일 게다. 그런 이들에게는 쓰고 싶은 것이 하나도 숨겨지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지요!" 산초가 말했다. "현자에 마법사라니!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 이름이 그거예요, 그 이야기를 쓴 작가 이름이 시데 아메테 베렌헤나(가지)라고 하던데요!"

"그건 무어인 이름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무어 사람들은 대개 가지를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산초, 너는 그 시데라는 사람의 성을 잘못 안 게 틀림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시데라는 말은 아랍어로 나리라는 뜻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런데 나리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을 이리 데려오겠어요. 날아가듯 가서 데려올게요."

"그래 주면 정말 고맙겠다,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말을 듣고 나니 궁금해 견딜 수가 없구나. 다 알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나지 않을 게다."

"그럼 데리러 갑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는 주인을 두고 학사를 찾으러 나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사와 함께 돌아왔고, 세 사람 사이에 몹시 우스운 대화가 오갔다.

제3장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나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돈키호테는 산초가 말한 대로라면 책에 실린 자기 소식을 들려줄 학사 카라스코를 기다리며 몹시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죽인 적들의 피가 아직 칼날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의 드높은 기사도 행적이 인쇄되어 돌아다니기를 바란다니, 그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어떤 현자가, 벗이든 적이든, 마법의 힘으로 그 행적을 인쇄에 부쳤으리라고 상상했다. 벗이라면 그 행적을 드높여 편력 기사의 가장 빼어난 행적들 위로 올려놓으려 했을 것이고, 적이라면 그 행적을 깎아내려 어느 천한 종자에 관해 쓰인 가장 천한 행적들 밑에 두려 했을 것이다. 물론 종자의 무훈이 글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말이다,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있다면, 편력 기사의 이야기이니만큼 틀림없이 장중하고, 드높고, 빼어나고, 웅장하고, 참된 이야기일 터였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위안이 되었으나, 시데라는 그 이름으로 보아 작가가 무어인이라는 생각이 들자 다시 마음이 어두워졌다. 무어인들이란 모두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허풍선이라서 그들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작가가 자기의 사랑을 상스럽게 다루어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정숙함을 깎아내리고 해치지나 않았을까 두려워하면서, 작가가 자기의 충실함을, 여왕들과 황후들과 온갖 신분의 아가씨들을 물리치고 타고난 충동의

기세를 억눌러 가며 늘 아씨에게 지켜 온 그 품위를 밝혀 주었기를 바랐다. 이렇게 이런저런 숱한 상상에 휩싸이고 뒤엉켜 있는 그를 산초와 카라스코가 찾아왔고, 돈키호테는 아주 정중하게 카라스코를 맞았다.

학사는 이름은 삼손이었지만 몸집은 그리 크지 않은 대신 엄청난 익살꾼이었고, 낯빛은 해쓱했으나 머리는 아주 좋았다. 나이는 스물네 살쯤 되었을까, 얼굴은 동그랗고 코는 납작하고 입은 컸는데, 모두가 짓궂은 성미에 재담과 장난을 좋아한다는 표시였다. 그는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그것을 드러내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위대하신 나리, 손을 주시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비록 하급 성품 넷밖에 받지 못했지만 내가 걸친 이 성 베드로의 옷을 걸고 말하는데, 나리는 온 둥근 땅 위에 일찍이 있었던, 아니 앞으로 있을 편력 기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름난 분 가운데 한 분이오. 나리의 위업을 담은 이야기를 써서 남긴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에게 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아랍어에서 우리 카스티야 말로 옮기게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준 그 호기심 많은 분에게도 거듭 복이 있기를 비오."

돈키호테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쓴 사람이 무어인이요 현자라는 것이 참말이오?"

"참말이고말고요, 나리." 삼손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오늘 현재 그 이야기책이 1만 2천 부 넘게 인쇄되었소. 못 믿겠거든 그 책을 찍어 낸 포르투갈과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에 물어보시오. 안트베르펜에서도 찍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내가 짐작하기로는 그 책이 옮겨지지 않는 나라도 말도 없게 될 것이오."

"덕 있고 뛰어난 사람에게"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 가운데 하나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이름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인쇄되어 책으로 나와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오. 좋은 이름이라고 한 것은, 그 반대라면 어떤 죽음도 그만큼 괴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오."

"좋은 평판과 좋은 이름을 따지자면" 학사가 말했다. "모든 편력 기사 가운데 나리 혼자 승리의 종려 잎을 차지하시오. 무어인은 자기 말로, 그리스도교도는 자기 말로, 나리의 늠름함, 위험에 뛰어드는 큰 기개, 역경 속의 인내, 불운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마음, 나리와 나의 아씨 도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사이의 그토록 플라톤적인 사랑에서 보이는 정숙함과 절제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 보여 주려고 애썼으니까."

"저는" 이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우리 둘시네아 아씨를 '도냐'를 붙여 부르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라고만 했지요. 그것만 봐도 그 이야기는 벌써 틀렸네요."

"그건 대단한 흠이 아닐세."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그렇소, 대단한 흠이 아니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해 보시오, 학사 나리. 그 이야기에서 내 무훈 가운데 가장 칭송받는 것은 어느 것이오?"

"그건" 학사가 대답했다. "입맛이 저마다 다르듯 의견도 저마다 다르오. 어떤 사람들은 나리께서 브리아레오스요 거인으로 보셨던 풍차 모험을 꼽고, 어떤 사람들은 축융 방아 모험을 꼽소. 이 사람은 나중에 두 양 떼로 드러난 두 군대의 묘사를 꼽고, 저 사람은 세고비아로 묻으러 가던 시체 모험을 높이 치오. 누구는 갤리선 죄수들을 풀어 준 모험이 무엇보다 낫다 하고, 누구는 용맹한 비스카야 사람과의 싸움이 딸린 두 베네딕도회 거인 모험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하오."

"말씀해 보세요, 학사 나리." 이때 산초가 말했다. "거기에 양구에스 사람들 모험도 들어 있나요? 우리 착한 로시난테가 바다 한가운데서 뚱딴지를 찾는 꼴이 되었던 그 모험 말이에요."

"그 현자는" 삼손이 대답했다. "잉크병에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았네.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적어 두었지. 착한 산초가 담요 위에서 껑충껑충 재주넘은 일까지 말일세."

"담요 위에서 재주를 넘은 게 아니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공중에서는 넘었지요. 그것도 제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이요."

"내 생각으로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상에 오르막 내리막이 없는 인간의 이야기는 없소. 기사도를 다루는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지요. 기사도 이야기가 좋은 일로만 가득할 수는 결코 없는 법이니까."

"그래도" 학사가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읽은 사람 가운데 몇몇은 여러 차례 맞붙을 때마다 돈키호테 나리가 얻어맞은 그 수많은 몽둥이질 가운데 몇 대쯤은 작가들이 깜빡 잊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고 하오."

"거기에 이야기의 진실이 있는 거지요." 산초가 말했다.

"공정함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은 입을 다물어 줄 수 있었을 것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야기의 진실을 바꾸지도 흔들지도 않는 행동이 이야기 주인공을 깎아내리는 일이 된다면 굳이 쓸 까닭이 없으니까. 맹세코, 아이네이아스는 베르길리우스가 그린 만큼 경건하지 않았고, 율리시스도 호메로스가 묘사한 만큼 신중하지는 않았소."

"그렇소." 삼손이 맞받았다. "그러나 시인으로서 쓰는 것과 역사가로서 쓰는 것은 다른 일이오. 시인은 일을 있었던 그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했던 대로 이야기하거나 노래할 수 있소. 그러나 역사가는 일을 마땅히 있어야 했던 대로가 아니라 있었던 그대로, 진실에 아무것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써야 하오."

"그 무어인 양반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가 맞은 몽둥이질 사이에 제가 맞은 것도 틀림없이 들어 있겠네요. 나리 등짝 치수를 잴 때마다 제 온몸 치수를 쟀으니까요. 그래도 놀랄 일은 아니지요. 우리 주인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아프면 지체도 함께 아파야 하니까요."

"자네는 익살꾼일세,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맹세코, 자네는 기억하고 싶을 때는 기억력이 모자라지 않는군."

"제가 얻어맞은 몽둥이찜질을 잊고 싶어도" 산초가 말했다. "아직도 갈비뼈에 시퍼렇게 남아 있는 멍들이 허락하지 않을걸요."

"입 다물게,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학사 나리의 말을 끊지 말게. 학사 나리, 그 이야기에서 나에 관해 뭐라고 하는지 계속 말해 주시오."

"저에 관해서도요." 산초가 말했다. "저도 그 이야기의 주요 등정인물 가운데 하나라고들 하니까요."

"등정인물이 아니라 등장인물일세, 산초, 내 친구." 삼손이 말했다.

"말 트집쟁이가 또 하나 생겼네?" 산초가 말했다. "그런 걸 다 따지다간 평생 가도 이야기를 못 끝내겠어요."

"산초, 자네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인물이 아니라면 하느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학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그럴듯한 인물보다 자네가 하는 말을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네. 물론 여기 계신 돈키호테 나리께서 약속하신 그 섬의 통치가 참말일 수 있다고 믿다니 자네가 너무 쉽게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일세."

"아직 담장 위에 해가 남아 있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가 나이를 더 먹어 갈수록, 세월이 주는 경험이 쌓이면 지금보다 통치자가 되기에 더 알맞고 더 능해질 것이오."

"맙소사, 나리." 산초가 말했다. "지금 제 나이로 다스리지 못할 섬이라면 므두셀라 나이가 되어도 다스리지 못할걸요. 탈은 그 섬이 어디서 꾸물대고 있는지 모르는 데 있지, 저한테 그 섬을 다스릴 머리가 모자란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께 맡기게,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이고, 어쩌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될 걸세. 하느님의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 말이 맞소." 삼손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산초에게는 다스릴 섬이 하나는커녕 천 개라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오."

"저는 여기저기서 통치자들을 봤는데요." 산초가 말했다. "제가 보기엔 제 신발 밑창에도 못 미치는 자들인데도 각하라고 불리고 은그릇으로 시중을 받더라고요."

"그건 섬의 통치자가 아니라" 삼손이 맞받았다. "다른, 다루기 쉬운 자리의 통치자들일세. 섬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어도 문법은 알아야 하네."

"'문'이라면야 드나들 줄은 아니까 그럭저럭 잘 지내겠지만" 산초가 말했다. "'법'은 알지도 못하니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통치 이야기는 하느님 손에 맡겨 두고요, 하느님께서 저를 가장 잘 부리실 수 있는 데로 보내 주시겠지요. 학사 삼손 카라스코 나리, 제 말은요, 그 이야기를 쓴 작가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거슬리지 않게 써 줘서 한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착한 종자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만약 작가가 저같이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면, 귀머거리들까지 우리 고함을 들었을 거예요."

"그건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겠지." 삼손이 대답했다.

"기적이든 아니든" 산초가 말했다. "누구든 잉간들 얘기를 하거나 쓸 때는 말조심을 해야지, 대갈통에 맨 먼저 떠오르는 걸 되는대로

늘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꼽는 흠 가운데 하나는" 학사가 말했다. "작가가 그 안에 『주제넘은 호기심』이라는 소설을 하나 끼워 넣었다는 것이오. 그 소설이 나쁘거나 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맞지 않고 돈키호테 나리의 이야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서요."

"내기해도 좋아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 개자식이 양배추랑 바구니를 뒤섞어 놨겠죠."

"이제 말하겠는데"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이야기를 쓴 작가는 현자가 아니라 어느 무식한 수다쟁이요. 아무 분별도 없이 손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쓰기 시작한 것이오. 우베다의 화가 오르바네하처럼 말이오. 그 화가는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되는 대로요' 하고 대답했다지요. 어떤 때는 수탉을 그렸는데, 하도 닮지 않아서 그 옆에 고딕 글자로 '이것은 수탉이다'라고 써 넣어야 했다오. 내 이야기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오. 알아들으려면 주석이 있어야 하겠지."

"그렇지 않소." 삼손이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하도 쉬워서 어려운 대목이 하나도 없소. 아이들은 손때를 묻히고, 젊은이들은 읽고, 어른들은 알아듣고, 노인들은 칭송하오. 그러니까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어찌나 닳도록 읽고 많이 읽어서 훤히 아는지, 비쩍 마른 말 한 마리만 보았다 하면 '저기 로시난테가 간다' 하고들 말하오. 그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이들은 시동들이오. 어느 나리 댁 대기실에든 『돈키호테』 한 권쯤은 다 있소. 어떤 시동이 내려놓으면 다른 시동이 집어 들고, 이쪽 시동들은 달려들고 저쪽 시동들은 달라고 조르오. 요컨대 그 이야기는 이제까지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가장 해롭지 않은 오락거리요.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정숙하지 못한 낱말 하나, 가톨릭에 어긋나는 생각 하나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달리 썼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쓴 셈이 될 것이오. 거짓을 이용하는 역사가들은 가짜 돈을 만드는 자들처럼 화형에 처해야 마땅하오. 그런데 내 이야기만 해도 쓸 거리가 그토록 많은데 작가가 무엇 때문에 남의 소설과 이야기를 끌어다 썼는지 모르겠소. 틀림없이 '짚이든 건초든……' 운운하는 속담을 따랐겠지. 정말이지 내 생각과 한숨과 눈물과 착한 바람과 덤벼든 일들만 드러내 보여도 토스타도의 전집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책보다 더 큰 책 한 권, 아니면 그만큼 큰 책 한 권은 만들 수 있었을 것이오.[1]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오, 학사 나리. 이야기든 책이든 어떤 종류이든 지으려면 큰 판단력과 무르익은 지성이 있어야 하오. 재담을 말하고 익살을 쓰는 것은 큰 재주를 지닌 이들의 몫이오. 희극에서 가장 슬기로운 인물은 바보 역이오. 단순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사람이 정말 바보여서는 안 되니까. 이야기란 거룩한 것과 같소. 참되어야 하기 때문이오. 진실이 있는 곳에, 진실인 한에서는, 하느님이 계시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튀김 과자라도 굽듯이 책을 지어 마구 내던지고 있소."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학사가 말했다.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책은 없소."

"그건 의심할 나위가 없소."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나 제 글로 마땅히 큰 명성을 얻고 누리던 사람들이 그 글을 인쇄에 부치자마자 명성을 몽땅 잃거나 얼마쯤 깎이는 일이 자주 있소."

"그 까닭은" 삼손이 말했다. "인쇄된 작품은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니 흠이 쉽게 눈에 띄고, 지은 사람의 명성이 클수록 더 꼼꼼히 뒤지기 때문이오. 재주로 이름난 사람들, 위대한 시인들, 빛나는 역사가들은 늘, 아니 대개는, 남의 글을 심판하는 것을 낙으로, 유별난 오락으로 삼으면서 자기 글은 하나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는 자들에게 시샘을 받소."

"그건 놀랄 일이 아니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설교단에 서는 데는 쓸모가 없으면서 설교하는 이들의 모자란 점이나 지나친 점을 알아보는 데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많으니까."

"모두 그 말씀대로요, 돈키호테 나리." 카라스코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검열자들이 더 자비롭고 덜 까다로웠으면 좋겠소. 자기들이 헐뜯는 작품의 그 더없이 맑은 햇빛 속 티끌 같은 것에 매달리지 말고 말이오. 훌륭한 호메로스도 때로는 존다지만(aliquando bonus dormitat Homerus), 그가 자기 작품의 빛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늘 없이 내놓으려고 얼마나 오래 깨어 있었는지 헤아려 주어야 하오. 어쩌면 그들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이 사마귀일 수도 있소. 사마귀는 때로 그것이 난 얼굴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하는데, 책을 인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위험을 무릅쓰는 셈이오. 읽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책을 짓는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를 다룬 책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만족시킨 사람이 몇 안 될 것이오."

"오히려 그 반대요. 어리석은 자의 수는 끝이 없다고 하듯이(stultorum infinitus est numerus), 그 이야기를 즐긴 사람도 끝이 없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작가의 기억력에 흠을 잡고 탓하기도 하오. 산초의 잿빛 당나귀를 훔친 도둑이 누구였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요. 거기서는 그 일이 밝혀지지 않고, 쓰인 것으로 보아 당나귀를 도둑맞았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는데, 조금 뒤에 보면 그 당나귀가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산초가 바로 그 당나귀를 타고 있다는 거요. 또 산초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가방 속에서 찾은 그 에스쿠도 금화 백 닢을 어떻게 했는지 적는 것을 잊었다고들 하오. 그 뒤로 다시는 그 금화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산초가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소. 그것이 이 작품에서 빠진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요."

산초가 대답했다.

"삼손 나리, 저는 지금 셈이니 이야기니 따지고 앉아 있을 형편이 아니에요. 속이 허해서 맥이 다 풀렸거든요. 묵은 술 두어 모금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성녀 루치아의 가시처럼 비쩍 말라 버릴 거예요. 술은 집에 있고, 우리 '여보'도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다시 와서, 당나귀를 잃어버린 일이든 금화 백 닢을 쓴 일이든 나리와 온 세상 사람들이 묻고 싶은 걸 다 풀어 드릴게요."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다른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집으로 가 버렸다.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남아서 자기와 함께 고행을 하자고, 곧 소박한 밥상을 함께 들자고 청하고 또 청하자, 학사는 그 판돈을 받았다. 학사가 남자 평소 밥상에 어린 비둘기 한 쌍이 더해졌고, 식탁에서는 기사도 이야기가 오갔고, 카라스코는 돈키호테의 비위를 맞춰 주었다. 잔치가 끝나자 그들은 낮잠을 잤고, 산초가 돌아오자 앞서 나누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

1. 알론소 토스타도(1400?~1455). 아빌라의 주교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서 「토스타도보다 많이 썼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제4장 산초 판사가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의문과 물음에 답하고 알아 두고 이야기할 만한 다른 일들

산초는 돈키호테의 집으로 돌아와 앞서 나누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말했다.

"누가, 어떻게, 언제 제 당나귀를 훔쳐 갔는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삼손 나리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답하자면 이래요. 갤리선 죄수들의 운이라고는 없는 모험과 세고비아로 메고 가던 죽은 사람 모험을 겪은 뒤, 성스러운 형제단을 피해 시에라 모레나로 들어간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주인 나리와 저는 앞서 치른 싸움질로 녹초가 되고 두들겨 맞아 지친 몸으로 어느 덤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인 나리는 창에 기댄 채로, 저는 잿빛 당나귀 위에 앉은 채로, 깃털 요 네 겹 위에서 자듯이 잠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어찌나 깊이 곯아떨어졌던지, 그게 누구였든 그놈은 다가와서 길마 네 귀퉁이에 말뚝 네 개를 받쳐 놓고 저를 그 위에 걸쳐 둘 여유가 있었지요. 그렇게 저를 길마 위에 올라탄 채로 남겨 두고, 제가 눈치도 못 채는 사이에 제 밑에서 잿빛 당나귀를 빼내 갔어요."

"그건 쉬운 일이요, 새로운 사건도 아니다. 사크리판테도 알브라카 포위전 때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 이름난 도둑 브루넬로가 바로 그 꾀를 써서 그의 다리 사이에서 말을 빼내 갔지."

"날이 밝아서" 산초가 이어서 말했다. "제가 몸을 부르르 떨자마자 말뚝이 빠지는 바람에 땅바닥에 철퍼덕 떨어졌어요. 당나귀를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눈물이 솟구쳐서 저는 한바탕 넋두리를 늘어놓았는데, 우리 이야기를 쓴 작가가 그걸 싣지 않았다면 좋은 건 하나도 싣지 않은 셈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미코미코나 공주 마님과 함께 오다가 제 당나귀를 알아봤어요. 그 위에 집시 옷을 입고 타고 오던 놈이 바로 히네스 데 파사몬테, 주인 나리와 제가 쇠사슬에서 풀어 준 그 거짓말쟁이에 엄청난 악당이었어요."

"잘못은 거기 있는 게 아닐세." 삼손이 맞받았다. "당나귀가 나타나기도 전에 작가가 산초가 바로 그 잿빛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적었다는 데 있지."

"그거라면" 산초가 말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역사가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인쇄공이 실수했겠지요."

"틀림없이 그렇겠지." 삼손이 말했다. "그런데 그 에스쿠도 금화 백 닢은 어떻게 됐나? 녹아 없어졌나?"

산초가 대답했다.

"제 몸과 마누라와 자식들을 위해 썼어요. 제가 주인 돈키호테 나리를 섬기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길을 마누라가 참고 견딘 것도 그 돈 덕분이에요. 그토록 오래 집을 비웠다가 블랑카 한 닢 없이 당나귀도 없이 집에 돌아갔다면 시커먼 불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에 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 제가 있어요. 임금님이 친히 오셔도 대답할 테니까요. 제가 돈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남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 여행에서 제가 얻어맞은 몽둥이질을 돈으로 쳐서 갚아야 한다면, 한 대에 4마라베디씩만 쳐도 에스쿠도 백 닢이 더 있어야 절반이나 갚을까 말까 할걸요. 저마다 제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지,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며 남을 심판하려 들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하느님이 만드신 대로고, 그보다 못한 때도 많으니까요."

"내가 신경 써서" 카라스코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쓴 작가에게, 다시 인쇄할 때는 착한 산초가 한 이 말을 잊지 말라고 일러 두겠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보다 한 뼘은 더 높아질 걸세."

"그 전설에 고칠 것이 또 있소, 학사 나리?" 돈키호테가 물었다.

"틀림없이 있겠지요." 학사가 대답했다. "그러나 방금 말한 것들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오."

"그럼 혹시" 돈키호테가 말했다. "작가가 제2부를 약속했소?"

"약속은 했소." 삼손이 대답했다. "그러나 아직 찾지 못했고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소. 그런 까닭도 있고, 어떤 이들은 '두 번째 부치고 좋았던 적은 없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돈키호테 일은 쓰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니, 제2부는 없으리라고들 하오. 그래도 침울하기보다 명랑한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하오. '돈키호테 짓을 더 보여 다오. 돈키호테는 덤벼들고 산초 판사는 떠들라지. 무엇이 되든 그것이면 우리는 만족한다.'"

"그래서 작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작가는" 삼손이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각별히 애써 찾고 있으니 찾기만 하면 곧바로 인쇄에 부치겠다고 하오. 다른 어떤 칭찬보다 그 책을 내서 생기는 이익에 더 끌려서 말이오."

그 말에 산초가 말했다.

"작가가 돈하고 이익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해내면 기적이겠네요. 명절 전날 재봉사처럼 후닥닥 후닥닥 바느질만 해 댈 테고, 서둘러 만든 물건은 마땅히 갖춰야 할 완벽함을 갖추고 끝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 무어 양반인지 뭔지는 제가 하는 일이나 잘 살피라지요. 저와 주인 나리가 모험이며 온갖 사건거리를 손에 한가득

쥐여 줄 테니, 제2부만이 아니라 백 부라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양반은 틀림없이 우리가 여기 짚더미 위에서 졸고 있는 줄 아나 봐요. 편자 박을 때 우리 발을 붙잡아 보라지요, 우리가 어느 발을 저는지 보게 될 테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인 나리께서 제 조언을 들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그 들판에 나가 착한 편력 기사들의 관례와 풍습대로 억울한 일을 풀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산초가 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로시난테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고, 돈키호테는 그 울음소리를 더없이 길한 징조로 받아들여 사나흘 뒤에 다시 출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뜻을 학사에게 털어놓으며 어느 쪽으로 길을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학사는 아라곤 왕국의 사라고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면서, 며칠 뒤 그곳에서 성 게오르기오 축일을 맞아 더없이 성대한 마상 창 시합이 열릴 텐데 거기서 아라곤의 모든 기사를 누르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온 세상의 기사들을 누르고 명성을 얻는 셈이 되리라고 했다. 학사는 그의 결심이 더없이 명예롭고 더없이 용감하다고 칭찬하고는, 그의 목숨은 그의 것이 아니라 불행할 때 그가 감싸 주고 도와주어야 할 모든 사람의 것이니 위험에 뛰어들 때는 좀 더 조심하라고 일렀다.

"제가 질색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삼손 나리." 이때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는 무장한 사내 백 명한테도 군것질 좋아하는 아이가 덜 익은 멜론 여섯 개에 달려들듯이 덤벼드신다니까요. 세상에, 학사 나리! 그래요, 덤벼들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요, 늘 '산티아고, 쳐라, 에스파냐!'만 외칠 수는 없지요. 게다가 저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바로 우리 주인 나리한테서 들은 것 같은데, 비겁과 무모라는 두 끝 사이 한가운데에 용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맞는다면, 저는 나리께서 까닭 없이 달아나시는 것도, 지나침이 다른 걸 요구할 때 덤벼드시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주인 나리께 일러 두는데요, 저를 데려가시려면 싸움은 모두 나리 혼자 하시고, 저는 나리의 몸을 깨끗이 챙기고 편히 모시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이어야 해요. 그 일이라면 나리 앞에서 물을 뿌려 가며 춤이라도 추겠어요. 하지만 도끼 들고 철모 쓴 흉악한 촌놈들이 상대라 해도 제가 칼에 손을 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삼손 나리, 저는 용감하다는 명성을 얻을 생각은 없어요. 편력 기사를 섬긴 종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충직한 종자라는 명성을 얻고 싶을 뿐이지요. 그리고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 제가 바친 많은 좋은 봉사에 보답하시느라, 나리 말씀대로라면 여기저기서 맞닥뜨리게 될 그 많은 섬 가운데 하나를 저한테 주고 싶으시다면 고맙게 받겠어요. 안 주시면 그만이고요. 저도 태어난 몸이니 제 팔자가 있겠지요. 사람은 하느님 말고 남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게다가 통치자 아닌 몸으로 먹는 빵이 통치자로서 먹는 빵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맛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통치 자리에서 악마가 저한테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어금니가 다 나가게 하려고 무슨 덫을 놓아 두었을지 제가 어찌 알겠어요? 산초로 태어났으니 산초로 죽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하늘이 순순히, 크게 애쓰지 않고 큰 위험 없이 무슨 섬이나 그 비슷한 걸 내려 주신다면, 그걸 마다할 만큼 바보는 아니에요. '송아지를 주거든 고삐 들고 달려가라', 그리고 '복이 오거든 집 안에 들여라'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우 산초, 자네는 대학 교수처럼 말했네." 카라스코가 말했다. "그래도 하느님과 돈키호테 나리를 믿게. 돈키호테 나리는 자네에게 섬은커녕 왕국을 주실 걸세."

"많으나 적으나 그게 그거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카라스코 나리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주인 나리께서 저한테 왕국을 주신다 해도 구멍 난 자루에 던져 넣는 꼴은 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맥을 짚어 봤는데, 왕국을 거느리고 섬을 다스릴 만큼 튼튼하더라고요. 이건 전에도 여러 번 주인 나리께 말씀드렸어요."

"조심하게, 산초." 삼손이 말했다. "벼슬은 사람의 버릇을 바꾸는 법이니, 통치자가 되고 나면 자네를 낳아 준 어머니도 몰라볼지 모르네."

"그런 건" 산초가 대답했다. "아욱밭에서 태어난 천것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저처럼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름기가 손가락 네 마디 두께로 영혼을 덮고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요, 어디 제 성미를 건드려 보시지요, 제가 누구한테 배은망덕하게 굴 줄 아는지!"

"하느님께서 그리 해 주시기를." 돈키호테가 말했다. "통치 자리가 오면 알게 되겠지. 벌써 그 자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구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학사에게, 시인이라면 자기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에게 고하려는 작별을 노래하는 시를 지어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각 행의 첫머리에 아씨 이름의 글자를 하나씩 넣어서, 시를 다 지은 뒤 첫 글자들을 이으면 「Dulcinea del Toboso(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읽히게 해 달라고 일렀다.

학사는 자기가 에스파냐에 있는 이름난 시인들, 셋 반밖에 안 된다는 그 시인들 축에는 끼지 못하지만 그런 시를 지어 보겠노라고 대답했다. 다만 짓는 데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이름을 이루는 글자가 열일곱 개라서, 4행짜리 카스티야 시 네 연을 지으면 한 글자가 남고, 데시마나 레돈디야라고 부르는 5행짜리로 지으면 세 글자가 모자랐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글자 하나를 솜씨 있게 흡수해서, 4행짜리 네 연 안에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게 해 보겠다고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름이 거기에 뚜렷하고 환히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시가 자기를 위해 지은 것이라고 믿을 여자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출발은 여드레 뒤로 정했다. 돈키호테는 신부와 니콜라스 선생, 그리고 조카딸과 가정부가 자기의 명예롭고 용감한 결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비밀로 해 달라고, 특히 그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학사에게 당부했다. 카라스코는 모든 것을 약속하고는, 형편이 닿는 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겪은 일을 모두 알려 달라고 돈키호테에게 당부하며 작별을 고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고, 산초는 길 떠날 채비를 하러 갔다.

제5장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가 나눈 슬기롭고 우스운 이야기와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이 이야기를 옮긴 사람은 이 제5장을 옮기는 데 이르러, 이 장은 위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 산초 판사는 그의 짧은 재주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말투로 말하고, 너무나 미묘한 말을 해서 그가 그런 것을 알았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직분에 마땅한 일을 다하려고 옮기기를 그만두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렇게 이어 갔다.)

산초가 어찌나 신나고 즐거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던지, 아내는 화살이 닿을 만큼 먼 데서도 그의 기쁨을 알아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소, 영감, 그렇게 신이 나서 오다니?"

그 말에 그가 대답했다.

"여보,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겉으로 보이는 만큼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소."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려, 영감." 아내가 맞받았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내가 비록 미련하긴 해도, 기쁘지 않은 걸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소."

"들어 보오,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기쁜 건,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를 다시 섬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오. 그분은 세 번째로 모험을 찾으러 나서려 하시고,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나설 거요. 내 궁한 형편이 그러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미 써 버린 에스쿠도 백 닢 같은 걸 또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바람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물론 당신과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하니 슬프기도 하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험한 비탈길이며 갈림길로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 집에서 먹고살게 해 주신다면, 그분은 그저 원하시기만 하면 큰 수고 없이 그리하실 수 있으니, 내 기쁨은 틀림없이 더 단단하고 더 쓸모 있을 거요. 지금 내 기쁨에는 당신을 두고 떠나는 슬픔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기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내 말이 옳았소."

"이봐요, 영감." 테레사가 맞받았다. "영감은 편력 기사의 지체가 된 뒤로 말을 어찌나 빙빙 돌려서 하는지 알아들을 사람이 없구려."

"하느님께서 알아들으시면 그만이오, 여보." 산초가 대답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아들으시는 분이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여보, 사흘 동안 잿빛 당나귀를 잘 돌봐서 언제든 싸우러 나갈 수 있게 해 두오. 여물을 갑절로 주고, 길마와 다른 마구들을 잘 손봐 두오. 우리는 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한 바퀴 돌러 가는 거요. 거인들이며 괴룡들이며 괴물들과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휘파람 소리, 으르렁 소리, 울부짖는 소리, 고함 소리를 듣게 될 거요. 그래도 양구에스 사람들과 마법에 걸린 무어인들과 상대할 일만 없다면 그런 건 다 라벤더 꽃 같은 거지."

"그야 그렇겠지요, 영감." 테레사가 맞받았다. "편력하는 종자들이 빵을 공짜로 먹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숱한 험한 운수에서 영감을 어서 건져 주시기를 빌고 있겠소."

"여보, 말하지만" 산초가 대답했다. "머지않아 내가 섬의 통치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쓰러져 죽을 거요."

"그건 안 되오, 영감." 테레사가 말했다. "암탉은 혓바닥에 병이 들었어도 살아 있는 게 낫다고, 영감은 살고, 세상의 통치 자리는 몽땅 악마나 가져가라지요. 영감은 통치 자리 없이 어미 배 속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통치 자리 없이 살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통치 자리 없이 무덤으로 가거나 실려 갈 거요. 세상에는 통치 자리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다고 살기를 그만두거나 사람 축에 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념은 시장기인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모자라는 법이 없으니 늘 맛있게 먹지요. 그런데 이봐요, 영감. 혹시라도 무슨 통치 자리를 얻게 되거든 나와 영감 자식들을 잊지 마시오. 산치코가 벌써 꼭 열다섯 살이 되었으니, 그 애 숙부인 수도원장님이 그 애를 성직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면 학교에 보내는 게 옳소. 그리고 영감 딸 마리 산차도 우리가 시집보낸다고 죽지는 않을 거요. 내가 눈치를 보니 그 애는 영감이 통치 자리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남편을 바라고 있소. 아무튼, 아무튼 딸은 첩살이를 잘하는 것보다 시집을 잘못 가는 게 보기에 나은 법이오."

"맹세코"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나한테 통치 자리 비슷한 거라도 하나 주시면, 여보, 마리 산차를 아주 높은 데로 시집보내서 사람들이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고는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겠소."

"그건 안 되오, 영감." 테레사가 대답했다. "그 애와 처지가 같은 사람한테 시집보내시오. 그게 가장 옳은 일이오. 나막신 신던 애한테 굽 높은 덧신을 신기고, 거친 갈색 무명 치마 입던 애한테 버팀살 치마와 비단 사보야 치마를 입히고, '마리카'니 '너'니 하던 애를 '도냐 아무개'니 '마님'이니 하는 자리에 앉혀 놓으면, 그 애는 어쩔 줄을 몰라서 걸음마다 천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거칠고 굵은 천의 올이 다 드러나고 말 거요."

"입 다물어, 이 바보야." 산초가 말했다. "두세 해만 그렇게 지내 보면 다 돼. 그다음엔 마님다운 품위와 점잖음이 틀에 찍어 낸 듯이 딱 맞게 붙을 거라고. 안 붙으면 또 어때? 마님이 되기만 하면 그만이지, 무슨 일이 오든 오라지."

"영감, 영감 분수를 재 보시오." 테레사가 대답했다. "더 높이 오르려고 하지 마시오. '이웃집 아들은 코를 닦아 주고 네 집에 들여라' 하는 속담을 생각해 보시오. 정말이지, 우리 마리아를 백작 나부랭이나 기사 나부랭이한테 시집보냈다가, 그자가 마음 내킬 때마다 우리 애를 상것이니 흙덩이 부수는 농투성이와 실 잣는 아낙의 딸이니 하고 부르며 호되게 몰아세우면 참 꼴좋겠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오, 영감! 내가 그러려고 딸을 키운 줄 아시오! 영감은 돈이나 벌어 오시오, 영감. 시집보내는 일은 나한테 맡기고. 후안 토초네 아들 로페 토초가 있잖소. 통통하고 튼튼한 젊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애를 싫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아오. 우리와 처지가 같은 그 사람한테 시집가면 그 애는 잘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애를 늘 곁에 두고 볼 수 있소. 부모 자식, 손주 사위 모두 한 식구가 되어 우리 모두 사이에 평화와 하느님의 복이 깃들 거요. 영감이 그 애를 그런 궁정이며 큰 궁전에다 시집보내지는 마시오. 거기서는 아무도 그 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애도 자기 자신을 모를 테니까."

"이리 와, 이 짐승 같은 바라바의 마누라야." 산초가 맞받았다. "너는 왜 지금 아무 까닭도 없이, 나한테 '각하'라고 불릴 손주를 낳아 줄 사람한테 내 딸을 시집보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야? 이봐, 테레사. 나는 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 복이 올 때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지나가 버려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복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문을 닫아 버리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한테 불어오는 이 순풍에 몸을 맡기자고."

(이런 말투 때문에, 그리고 산초가 아래에서 하는 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옮긴 사람은 이 장을 위작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 짐승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산초가 이어서 말했다. "우리를 진흙탕에서 건져 줄 쓸 만한 통치 자리에 이 몸을 던지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리 산차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시집가라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도냐 테레사 판사라고 부르고, 마을의 시골 귀족 마님들이 아무리 샘이 나고 약이 올라도 너는 성당에서 양탄자와 방석과 휘장 위에 앉게 될 거야. 그래, 벽걸이 천에 그린 그림처럼 늘지도 줄지도 않고 늘 그대로 있어 보라지! 이 얘기는 그만하자. 네가 뭐라고 하든 산치카는 백작 부인이 될 테니까."

"영감 말하는 것 좀 보시오." 테레사가 대답했다. "그래도 나는 우리 딸의 이 백작 부인 자리가 그 애를 망칠까 겁이 나오. 영감 마음대로 하시오. 공작 부인을 만들든 공주를 만들든. 하지만 말해 두는데, 그건 내 뜻도 내 허락도 아니오. 영감, 나는 늘 처지가 걸맞은 걸 좋아했고, 밑도 끝도 없이 거들먹거리는 꼴은 못 보오. 세례 때 나는 테레사라는 이름을 받았소. 덧붙임도 꾸밈도 '돈'이니 '도냐'니 하는 장식도 없는 깔끔하고 수수한 이름이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카스카호였고, 나는 영감 마누라라서 테레사 판사라고 불리지만, 이치대로라면 테레사 카스카호라고 불려야 하오. 그래도 임금님은 법이 원하는 데로 간다더니, 나는 이 이름으로 만족하오. 무거워서 지고 다니지도 못할 '도냐'를 그 위에 얹지 않아도 되오. 그리고 내가 백작 부인 차림이나 통치자 마님 차림으로 다니는 걸 보는 사람들한테 말거리를 주고 싶지 않소. 그랬다간 당장 이렇게들 말할 거요. '저 돼지 같은 계집이 거들먹거리며 가는 것 좀 봐! 어제만 해도 삼 부스러기 뭉치에서 실을 뽑느라 쉴 틈이 없었고, 망토 대신 치맛자락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미사에 가더니, 오늘은 버팀살 치마에 브로치를 달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네. 우리가 저를 모르는 줄 아나.' 하느님께서 내 일곱 감각, 아니 다섯 감각, 아니면 내가 가진 감각이 몇 개든 그걸 지켜 주신다면, 나는 그런 곤욕을 치를 빌미를 주지 않을 생각이오. 영감, 영감은 통치든 섬놈이든 되러 가서 실컷 거들먹거리시오. 우리 어머니 저승 복을 걸고 말하는데, 내 딸도 나도 우리 마을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을 거요. 정숙한 여자는 다리가 부러진 듯 집에 있고, 얌전한 처녀는 일하는 것이 잔치라오. 영감은 영감의 돈키호테 나리랑 모험을 하러 가시오. 우리는 우리 험한 운수나 겪게 내버려 두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께서 나아지게 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 양반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 소리는 들어 본 적 없는데, 누가 그 양반한테 '돈'을 붙여 줬는지 정말 모르겠소."

"이제 보니" 산초가 맞받았다. "네 몸에 무슨 귀신이 붙었구나. 아이고 맙소사, 이 여편네야, 머리도 꼬리도 없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줄줄이 꿰어 늘어놓는 거야! 카스카호며 브로치며 속담이며 거들먹거리는 거며, 그게 내 말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리 와, 이 얼간이에 무식쟁이야.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복을 피해 달아나니 그렇게 불러도 되겠지. 내 딸이 탑에서 뛰어내려야 한다거나, 도냐 우라카 공주가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저 세상 떠돌아다녀야 한다고 내가 말했다면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옳지. 하지만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손바닥 두 번 뒤집을 새도 없이 그 애 등에 '도냐'와 '마님'을 척 얹어 주고, 그루터기 밭에서 끌어내 차양 아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모로코의 알모아다 왕가 혈통에 무어인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로드 방석(almohada)이 깔린 단상에 앉혀 주겠다는데, 너는 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거야?"

"왜인지 아시오, 영감?" 테레사가 대답했다. "'너를 덮어 주는 것이 너를 드러낸다'는 속담 때문이오. 가난한 사람은 누구나 휙 훑어보고

지나가지만, 부자한테는 눈길이 머무오. 그리고 그 부자가 한때 가난했다면 그때부터 수군거림과 욕설이 시작되고, 헐뜯는 사람들은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거리 저 거리에 벌 떼처럼 무더기로 있소."

"이봐,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들어 봐. 평생 한 번도 못 들어 본 말일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하려는 말은 모두 지난 사순절에 이 마을에서 설교하신 신부님의 금언이야. 그분은,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눈이 지금 보고 있는 눈앞의 모든 것이 지나간 일들보다 훨씬 더 잘, 훨씬 더 세차게 우리 기억 속에 나타나고 머물고 자리를 지킨다고 하셨어."

(산초가 여기서 늘어놓는 이 말들이, 산초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 장을 위작으로 여긴다고 옮긴이가 말하는 두 번째 까닭이다. 산초는 이렇게 이어 갔다.)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값비싼 옷으로 꾸미고 하인들을 거느린 사람을 보면, 그 순간 기억이 우리가 그 사람의 천한 처지를 보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러고 싶어진다는 거야. 그 치욕은 가난에서 온 것이든 가문에서 온 것이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지금은 없고, 지금 있는 건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운명이 천한 처지라는 밑그림에서 끌어내 높은 번영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사람이, 신부님이 바로 이런 말로 하셨어, 예의 바르고 너그럽고 누구에게나 공손하며, 대대로 귀족인 사람들과 맞서 다투지 않는다면, 테레사, 그 사람이 예전에 어땠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지금의 그 사람을 우러를 거라고 굳게 믿어도 돼. 시샘하는 자들만 빼고 말이야. 어떤 좋은 운수도 그자들한테서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나는 영감 말을 모르겠소." 테레사가 맞받았다. "영감 마음대로 하시오. 그 연설이며 수사학으로 더는 내 머리를 깨뜨리지 마시오. 그리고 영감이 말한 대로 하기로 작당하셨다면……"

"작당이 아니라 작정이라고 해야지, 여편네야." 산초가 말했다.

"나랑 말다툼하려 들지 마시오, 영감." 테레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지, 그 이상 꾸밀 생각은 없소. 내 말은, 영감이 기어이 통치 자리를 얻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영감 아들 산초를 데려가서 지금부터 통치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요. 자식이 아비의 일을 물려받고 배우는 건 좋은 일이니까."

"통치 자리를 얻기만 하면" 산초가 말했다. "역마로 그 애를 데려오게 사람을 보내고, 너한테는 돈을 보내 줄게. 돈은 모자라지 않을 거야. 통치자가 돈이 없을 때 빌려줄 사람은 늘 있거든. 그리고 그 애한테 옷을 잘 입혀서, 지금의 그 애는 감추고 앞으로 될 그 애처럼 보이게 해."

"영감은 돈이나 보내시오." 테레사가 말했다. "그러면 내가 그 애를 야자 순처럼 말쑥하게 입혀 놓을 테니."

"그러니까 결국" 산초가 말했다. "우리 딸이 백작 부인이 된다는 데는 뜻이 맞은 거지."

"그 애가 백작 부인이 된 걸 보는 날" 테레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날 그 애를 묻는 셈 치겠소.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영감 좋을 대로 하시오. 우리 여자들은 남편이 아무리 멍청이라도 남편 말을 따라야 하는 이 짐을 지고 태어나니까."

그러고는 산치카가 벌써 죽어 땅에 묻힌 것을 보기라도 한 듯 정말로 울기 시작했다. 산초는 딸을 백작 부인으로 만들어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만들겠다며 아내를 달랬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자 떠날 채비를 하러 다시 돈키호테를 만나러 갔다.

제6장 돈키호테가 조카딸과 가정부와 겪은 일,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카스카호가 앞에서 말한 그 주제넘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돈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았다. 두 여자는 천 가지 낌새로 보아 삼촌이자 주인이 세 번째로 집을 뛰쳐나가, 그들이 보기에는 고약하기 짝이 없는 그 편력 기사도를 다시 하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서, 할 수 있는 온갖 수를 다 써서 그 몹쓸 생각을 버리게 하려 애썼지만, 모두 사막에서 설교하고 식은 쇠를 두드리는 격이었다. 그래도 그와 나눈 숱한 말 가운데 가정부가 이런 말을 했다.

"정말이지, 주인 나리, 나리께서 발을 땅에 단단히 붙이고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사람들이 모험이라고 부르는 것, 제 말로는 재앙인 그것을 찾아서 떠도는 혼령처럼 산이며 골짜기를 돌아다니기를 그만두지 않으시면, 저는 하느님과 임금님께 목청껏 소리 높여 하소연해서 손을 써 주십사 할 거예요."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주머니, 하느님께서 자네 하소연에 무어라 답하실지 나는 모르네. 폐하께서 무어라 답하실지도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내가 임금이라면 날마다 올라오는 그 끝없이 많은 쓸데없는 청원서에 일일이 답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뿐일세. 임금들이 지는 숱한 수고 가운데 가장 큰 수고 하나가 누구의 말이든 듣고 누구에게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 나는 내 일로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네."

그 말에 가정부가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나리. 폐하의 궁정에는 기사가 없나요?"

"있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도 많이 있네. 군주의 위대함을 꾸미고 임금의 위엄을 드러내려면 마땅히 있어야 하지."

"그럼 나리께서는" 가정부가 맞받았다. "궁정에 계시면서 발 한 번 옮기지 않고 임금님이자 주군을 섬기는 기사들 가운데 한 분이 되시면 안 되나요?"

"이보게, 아주머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모든 기사가 궁정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모든 궁정 사람이 편력 기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네.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있어야 하는 법이지. 우리가 모두 기사이기는 해도 서로 아주 다르네. 궁정 사람들은 제 방에서도, 궁정 문지방에서도 한 발짝 나가지 않고 지도 한 장 들여다보며 온 세상을 거닐지. 블랑카 한 닢 들지 않고, 더위도 추위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겪지 않고 말일세. 그러나 우리 참된 편력 기사들은 햇볕 아래, 추위 속에, 바람 속에, 하늘의 모진 날씨 속에, 밤이나 낮이나, 걸어서나 말을 타고서나, 제 발로 온 땅을 재고 다니네. 그리고 우리는 그림 속의 적이 아니라 생긴 그대로의 적을 알고, 어떤 고비에서든 어떤 경우에든 그들에게 덤벼드네. 자질구레한 일이나 결투의 법도 따위는 따지지 않지. 상대의 창이나 칼이 더 짧은지 아닌지, 몸에 성유물이나 무슨 숨긴 속임수를 지녔는지, 햇빛을 공평하게 갈라 나누어야 하는지 아닌지, 사람과 사람이 따로 겨루는 결투에서 쓰는 그런 갖가지 격식을 말일세. 자네는 그런 걸 모르지만 나는 아네. 그리고 이것도 알아 두게. 착한 편력 기사는 머리가 구름에 닿을 뿐 아니라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인을 열이나 보아도, 저마다 엄청나게 큰 탑 두 개를 다리로 삼고,

팔은 크고 튼튼한 배의 돛대 같고, 눈알 하나하나가 큰 방앗돌만 하고 유리 굽는 가마보다 더 이글거린다 해도, 결코 겁을 먹어서는 안 되네. 오히려 늠름한 몸가짐과 겁 없는 마음으로 덤벼들어 들이쳐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기고 쳐부수어야 하네. 그 거인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다는 어떤 물고기의 껍데기로 무장하고, 칼 대신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든 날 선 단검이나 끝에 강철 가시를 박은 쇠 철퇴를 들고 온다 해도 말일세. 나는 그런 걸 두 번도 넘게 보았네. 아주머니, 내가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기사와 기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자네가 알게 하려는 것일세.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니 더 바르게 말하자면 첫 번째 부류인 편력 기사들을 더 귀히 여기지 않는 군주가 없어야 마땅하네. 그들의 이야기에서 읽는 바로는, 그들 가운데에는 한 왕국만이 아니라 여러 왕국을 구원한 이도 있었으니까."

"아, 삼촌!" 이때 조카딸이 말했다. "편력 기사에 관해 하시는 말씀은 모두 꾸며 낸 이야기고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 이야기책들은 불태우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죄인 옷을 입히든지 무슨 표시를 해서 수치스럽고 좋은 풍속을 망치는 책이라는 걸 알아보게 해야 마땅해요."

"나를 먹여 살리시는 하느님을 걸고 말하는데"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내 친누이의 딸, 내 친조카가 아니었다면, 네가 한 그 불경한 말에 대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만한 벌을 내렸을 것이다. 레이스 실패 열두 개도 제대로 놀릴 줄 모르는 계집아이가 어찌 감히 편력 기사들의 이야기에 혀를 대고 흠을 잡는단 말이냐? 아마디스 나리께서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무어라 하셨겠느냐? 그래도 그분이라면 틀림없이 너를 용서하셨을 게다. 그분은 그 시대에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고, 게다가 아가씨들을 크게 감싸 주시던 분이었으니까. 그러나 다른 기사가 네 말을 들었다면 네게 좋을 게 없었을 게다. 모든 기사가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것은 아니고, 비겁한 놈들과 버릇없는 놈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모두 온전한 기사인 것도 아니다. 금으로 된 기사도 있고 연금술로 빚은 가짜 금으로 된 기사도 있어서, 모두 기사처럼 보이기는 해도 모두가 진실의 시금석에 견뎌 내지는 못한다. 기사처럼 보이려고 몸이 터질 듯 애쓰는 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천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죽을 듯 애쓰는 것 같은 지체 높은 기사들도 있다. 앞의 사람들은 야심이나 덕으로 올라서고, 뒤의 사람들은 나약함이나 악덕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니 이름은 그토록 비슷하고 행동은 그토록 동떨어진 이 두 부류의 기사를 가려내려면 분별 있는 앎을 써야 한다."

"아이고 맙소사!" 조카딸이 말했다. "삼촌은 그렇게 많이 아셔서, 필요하면 설교단에 올라가 거리마다 다니며 설교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눈이 멀고 누구나 다 아는 얼빠진 생각에 빠지셨어요? 늙으셨는데 용감하다고 여기시고, 병드셨는데 힘이 있다고 여기시고, 나이 때문에 허리가 굽으셨는데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는다고 여기시고, 무엇보다 기사가 아니신데 기사라고 여기시다니요! 시골 귀족은 기사가 될 수 있어도 가난뱅이는 기사가 못 되는데요!"

"얘야, 네 말이 아주 옳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가문에 관해서라면 네가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만, 거룩한 일과 인간의 일을 뒤섞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다. 들어 보게, 자네들. 귀 기울여 잘 듣게. 세상에 있는 가문은 모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네. 첫째는 처음은 보잘것없었으나 차츰 뻗어 나가고 넓어져 마침내 더없이 위대해진 가문이네. 둘째는 처음부터 위대했고 그 위대함을 지켜 왔으며 처음 시작한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이어 가는 가문이네. 셋째는 처음은 위대했으나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해진 가문이네. 시작의 위대함이 줄고 줄어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 버렸으니,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그 밑동이나 받침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네. 넷째는,

그리고 이런 가문이 가장 많은데, 처음도 좋지 않았고 중간도 그저 그렇지 못했으니 끝도 그러할 가문, 곧 평민과 보통 사람들의 가문처럼 이름 없는 가문이네. 처음은 보잘것없었으나 지금 누리는 위대함에까지 오른 첫째 가문의 본보기로는 오스만 가문을 들 수 있네. 보잘것없고 천한 양치기 하나가 그 가문을 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꼭대기에 올라 있으니까. 처음부터 위대했고 그것을 늘리지 않은 채 지켜 온 둘째 가문의 본보기는 대를 이어 군주가 된 많은 군주들이네. 그들은 위대함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제 영토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머물며 그것을 지키고 있네. 위대하게 시작해서 끝이 뾰족해진 가문의 본보기는 수천 가지가 있네.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와 프톨레마이오스, 로마의 카이사르들, 그리고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된다면 셀 수 없는 군주와 왕과 영주의 무리, 메디아 사람, 아시리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 그리스 사람, 야만인들, 이 모든 가문과 영지가 그것을 연 사람들과 함께 뾰족한 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 버렸으니까. 지금 그들의 후손을 하나라도 찾아내기란 불가능할 것이고, 설령 찾아낸다 해도 천하고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을 걸세. 평민 가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사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 쓰일 뿐, 그 위대함이 다른 명성이나 칭송을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밖에는. 내가 한 이 모든 말에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가문들 사이에는 큰 혼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들이 덕으로, 부와 너그러움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가문만이 위대하고 빛나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네. 덕과 부와 너그러움이라고 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악하면 큰 악인이 될 것이고 부자가 너그럽지 못하면 인색한 거지가 될 것이기 때문일세. 부를 가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쓸 줄 아는 것이네. 가난한 기사에게는 자기가 기사임을 보여 줄 길이 덕밖에 남아 있지 않네.

상냥하고, 예절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고, 남을 기꺼이 돕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무엇보다 자비로워야 하네. 즐거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2마라베디를 주는 사람은 종을 울려 가며 적선하는 사람만큼 너그러워 보일 것이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덕으로 몸을 꾸민 그를 보는 사람은, 비록 그를 모르더라도 그가 좋은 혈통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걸세. 그렇지 않다면 기적일 테지. 칭찬은 언제나 덕이 받는 상이었고, 덕 있는 사람은 칭찬받지 않을 수 없네. 얘들아,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데 이르는 길은 둘이 있네. 하나는 학문의 길이고, 또 하나는 무예의 길이네. 나는 학문보다 무예를 더 많이 지녔고, 무예에 끌리는 것으로 보아 군신 마르스의 별 아래 태어났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온 세상이 막아도 나는 그 길로 가야 하네. 하늘이 원하고 운명이 정하고 이성이 요구하며 무엇보다 내 의지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도록 나를 설득하려고 자네들이 애써 봐야 헛수고일세. 나는 편력 기사도에 딸린 셀 수 없는 수고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얻는 끝없는 복도 알고 있네. 덕의 오솔길은 몹시 좁고 악덕의 길은 넓고 훤하다는 것을 아네. 그리고 그 두 길의 끝과 다다르는 곳이 다르다는 것도 아네. 길고 넓은 악덕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고, 좁고 고된 덕의 길은 생명으로 끝나기 때문이네. 그것도 끝나 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끝이 없을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카스티야 시인이 말한 대로, 나는 이것을 아네.[1]

이 험한 길들을 거쳐야 오르리라
불멸의 높은 자리에,
거기서 내려선 이는 다시는 오르지 못하는 그곳에."

"아이고, 내 팔자야." 조카딸이 말했다. "우리 삼촌은 시인이기까지 하시네! 모르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으셔. 미장이가 되고 싶으셨다면 새장처럼 집을 지으실 줄도 아셨을 거라고 내기해도 좋아요."

"얘야, 약속하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기사도의 생각들이 내 모든 감각을 끌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손에서 나오지 못할 정교한 물건도 하나도 없을 게다. 특히 새장과 이쑤시개라면 말이다."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고 묻자 산초 판사가 자기라고 대답했다. 가정부는 그를 어찌나 미워했던지 그인 줄 알아보자마자 보지 않으려고 숨으러 달려갔다. 조카딸이 문을 열어 주자 주인 돈키호테가 두 팔을 벌리고 나가 그를 맞았고, 두 사람은 그의 방에 틀어박혀 또 한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

1.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1501?~1536). 이 세 행은 그의 「비가 제1편」에서 따왔다.

제7장 돈키호테가 종자와 나눈 일과 아주 유명한 다른 일들

가정부는 산초 판사가 주인과 함께 방에 틀어박히는 것을 보자마자 둘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눈치챘고, 그 의논에서 세 번째 출정을 하기로 결정이 나리라 짐작하고는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서 망토를 걸치고 학사 삼손 카라스코를 찾으러 나섰다. 말솜씨가 좋고 주인과 새로 사귄 벗이니, 그가 주인을 설득해 그 엉뚱한 뜻을 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가정부는 자기 집 안뜰을 거닐고 있는 학사를 찾아내자, 땀을 흘리며 근심에 찬 얼굴로 그의 발아래 털썩 주저앉았다. 그토록 괴롭고 놀란 기색을 보고 카라스코가 말했다.

"무슨 일이오, 아주머니? 무슨 일이 생겼기에 넋이라도 빠져나갈 것 같은 얼굴이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삼손 나리. 다만 우리 주인 나리가 나가세요. 틀림없이 나가신다고요!"

"그분이 어디로 나가신다는 거요, 아주머니?" 삼손이 물었다. "몸 어디가 터지기라도 했소?"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부가 대답했다. "광기의 문으로 나가신다고요. 제 말은요, 내 영혼 같은 학사 나리, 그분이 또 나가시려 한다는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분이 모험이라고 부르는 걸 찾아서 세상을 돌아다니시겠다는데, 저는 그분이 어째서 그걸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몽둥이찜질에 녹초가 되어 당나귀 등에 가로 걸쳐 실려 오셨어요. 두 번째는 소달구지에 실린 우리 안에 갇혀 오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마법에 걸렸다고 여기셨지요. 가엾게도 어찌나 몰골이 엉망이었던지 그분을 낳은 어머니도 몰라보셨을 거예요. 바싹 마르고 누렇게 뜨고, 눈은 머릿속 맨 끝 다락방까지 움푹 꺼져 있었어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게 하려고 제가 달걀을 6백 개도 넘게 썼어요. 하느님도 온 세상도 다 아시고, 제 암탉들도 아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믿소." 학사가 대답했다. "그 암탉들은 하도 착하고 살찌고 잘 자라서, 배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저것이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아주머니, 결국 다른 일은 없는 거요? 돈키호테 나리가 하려 한다고 아주머니가 겁내는 그 일 말고 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소?"

"네, 나리." 가정부가 대답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오." 학사가 대답했다. "편히 댁으로 돌아가서, 아침 먹을 따뜻한 걸 좀 차려 두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성녀 아폴로니아의 기도를 아시거든 그 기도를 바치시오. 나도 곧 그리로 갈 테니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오."

"아이고, 내 신세야!" 가정부가 맞받았다. "성녀 아폴로니아의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건 우리 주인 나리가 어금니를 앓으실 때나 바치는 기도지, 그분은 머리통을 앓으시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아오, 아주머니. 어서 가시고 나와 말다툼하려 들지 마시오. 내가 살라망카에서 학사가 된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소. 학사보다 더 학사다운 일은 없소."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가정부는 돌아갔고, 학사는 곧바로 신부를 찾아가 때가 되면 이야기할 일을 그와 의논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방에 틀어박혀 있던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아주 꼼꼼하고 참되게 전한다.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제가 벌써 마누라를 납작시켜 놓았어요. 나리께서 저를 데려가시려는 데라면 어디든 나리와 함께 가게 해 주라고요."

"'납작'이 아니라 '납득'이라고 해야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한두 번 나리께 부탁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말뜻을 알아들으시거든 제 낱말을 고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시겠거든 '산초야, 아니 악마야, 네 말을 모르겠다' 하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제 뜻을 밝히지 못하면 그때 고쳐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워낙 고분한 놈이라서……"

"네 말을 모르겠구나, 산초." 돈키호테가 곧바로 말했다. "고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고분하다는 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모르겠구나."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알아듣지 못하시겠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더는 몰라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하시기를."

"그래, 그래, 알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고분고분하고 순하고 다루기 쉬워서 내가 하는 말은 받아들이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이로구나."

"내기해도 좋아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는 애시당초 제 속을 다 꿰뚫고 알아들으셨으면서, 제가 엉터리 소리를 또 2백 개쯤 늘어놓는 걸 들으시려고 일부러 저를 헷갈리게 하신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래서 결국 테레사는 뭐라고 하더냐?"

"테레사는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하고 제 손가락을 단단히 묶어 두라고 하더군요. 문서가 말하게 하고 수염은 입 다물게 하라고요. 미리 셈을 정해 둔 사람은 뒤에 다투지 않는 법이고, '주마' 두 번보다 '받아라' 한 번이 나으니까요. 저는 여자의 조언은 하찮지만 그걸 듣지 않는 놈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말해 보게, 산초, 내 벗이여. 어서 계속하게. 오늘은 진주 같은 말만 하는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산초가 맞받았다. "나리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죽을 몸이고,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고, 어린 양도 늙은 숫양만큼 빨리 가고,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느님께서 주시려는 것보다 더 많은 목숨의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요. 죽음은 귀머거리라서 우리 목숨의 문을 두드리러 올 때는 늘 서둘러 오고, 애원도 힘도 왕홀도 주교관도 그걸 멈추게 하지 못하니까요. 누구나 다 아는 소문이 그렇고, 설교단마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두 맞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구나."

"제가 하려는 말은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를 섬기는 동안 다달이 얼마를 주실지 정해진 품삯을 매겨 주시고, 그 품삯을 나리 재산에서 치러 주십사 하는 거예요. 늦게 오거나 나쁘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은혜만 바라고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느님께서는 제 것으로 저를 도와주시기를. 아무튼 적든 많든 제가 얼마를 버는지 알고 싶어요. 암탉은 알 하나 위에 알을 낳고, 작은 것이 많이 모이면 큰 것이 되고, 뭐라도 버는 동안에는 잃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그럴 리도 없고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나리께서 약속하신 그 섬을 저한테 주시게 되면, 저도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고 일을 그렇게 빡빡하게 따지는 놈도

아니니까, 그 섬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고 제 품삯에서 고양이 비율대로 깎으시면 돼요."[1]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때로는 고양이도 쥐만큼 좋은 법이다."

"알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고양이가 아니라 쥐라고 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리께서 제 말을 알아들으셨으니까요."

"알아듣고말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생각의 맨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았고, 네가 그 셀 수 없는 속담의 화살로 어느 과녁을 겨누는지도 안다. 이봐라, 산초. 편력 기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라도, 그들이 다달이 또는 해마다 얼마를 받곤 했는지 작은 틈으로나마 드러내 보여 주는 본보기를 찾았다면 나도 기꺼이 네게 품삯을 매겨 주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아니 거의 다 읽었는데, 어떤 편력 기사가 종자에게 정해진 품삯을 매겨 주었다는 대목을 읽은 기억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종자들이 모두 은혜를 바라고 섬겼고, 주인의 운이 잘 풀리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섬이나 그에 맞먹는 무언가를 상으로 받았으며, 적어도 작위와 영지는 얻었다는 것뿐이다. 이런 희망과 덤을 바라고 자네가, 산초, 다시 나를 섬기고 싶다면 좋은 일일세. 내가 편력 기사도의 옛 관습을 그 테두리와 돌쩌귀에서 빼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네. 그러니 산초, 자네 집으로 돌아가서 자네의 테레사에게 내 뜻을 밝히게. 그 여자가 좋다 하고 자네도 좋다면 나와 함께 은혜를 바라고 지내세. 그러면 좋고말고(bene quidem).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벗일세. 비둘기장에 모이가 모자라지 않으면 비둘기도 모자라지 않는 법이니까. 그리고 알아 두게, 얘야. 하찮은 소유보다 좋은 희망이 낫고, 나쁜 품삯보다 좋은 불평이 낫다네. 산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도 자네처럼 속담을 빗발치듯 던질 줄 안다는 것을 알려 주려는 걸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겠네. 나와 함께 은혜를 바라고 와서 내가 겪는 운명을 함께 겪고 싶지 않다면,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하시고 자네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비네. 내게는 자네보다 더 고분고분하고 더 부지런하며 자네만큼 주제넘지도 수다스럽지도 않은 종자들이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세상의 재물을 다 준대도 주인이 자기 없이는 떠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기에, 주인의 굳은 결심을 듣자 산초는 하늘이 흐려지고 가슴의 날개가 축 처졌다. 그가 그렇게 얼떨떨하여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가 무슨 말로 주인을 설득해 다시 모험을 찾아 나서지 않게 하는지 듣고 싶어서 삼손 카라스코와 조카딸이 들어왔다. 이름난 익살꾼 삼손은 다가가 처음처럼 그를 끌어안고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오, 편력 기사도의 꽃이여! 오, 무예의 눈부신 빛이여! 오, 에스파냐 겨레의 명예요 거울이여! 전능하신 하느님께, 문서에 더 길게 적힌 그대로, 비노라. 그대의 세 번째 출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나 자들은 제 바람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악하게 바라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말지어다."

그리고 가정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아주머니는 이제 성녀 아폴로니아의 기도를 더 바치지 않아도 되오. 돈키호테 나리가 다시 그 드높고 새로운 뜻을 펼치는 것은 하늘의 천구들이 똑똑히 정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리고 이 기사에게 그 용맹한 팔의 힘과 더없이 용감한 기개의 선함을 더는 움츠려 묶어 두지 말라고 알리고 권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양심에 큰 짐을 지는 셈이 될 것이오. 그가 늦장을 부리면 비뚤어진 일들의 바로잡힐 권리, 고아들의 보호, 아가씨들의 명예, 과부들의 도움, 유부녀들의 의지처, 그리고 편력 기사도에 닿아 있고 걸려 있고 매여 있고 딸려 있는 이런 갖가지 것들을 가로채는 셈이니까. 자, 아름답고 용감한 나의 돈키호테

나리, 내일보다는 오늘, 나리와 나리의 위대하심께서 길을 떠나시오. 그 일을 해내는 데 무엇이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 내가 있으니 내 몸과 재산으로 채우겠소. 그리고 그대의 너그러우심을 종자로 섬겨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더없는 복으로 여기겠소!"

이때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산초, 종자라면 남아돌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보아라, 누가 종자가 되겠다고 나서는지. 바로 들어 보지도 못한 학사 삼손 카라스코, 살라망카 학당 안뜰의 영원한 익살꾼이요 흥을 돋우는 이, 몸이 건강하고 팔다리가 날래고 입이 무겁고, 더위도 추위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잘 견디며, 편력 기사의 종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내 마음을 채우자고 내가 학문의 기둥이요 지식의 그릇을 넘어뜨려 부수고, 훌륭하고 자유로운 학예의 우뚝한 종려나무를 베어 넘기는 일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새로운 삼손은 고향에 남아 고향을 빛내고, 아울러 늙은 부모님의 흰머리도 빛내 드리라지. 산초가 황송하게도 나와 함께 가 주실 마음이 없으니, 나는 어떤 종자라도 만족하겠다."

"황송하게도 따라가겠어요." 산초는 마음이 누그러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주인 나리, 저를 두고 빵을 다 먹고 나니 동무도 흩어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배은망덕한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그 후손인 판사 집안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온 세상이, 특히 우리 마을이 다 알아요. 게다가 저는 나리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시려는 마음을 숱한 좋은 일과 그보다 더 많은 좋은 말씀으로 이미 알고 꿰뚫고 있어요. 제가 품삯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셈을 따진 건 마누라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마누라는 무얼 하자고 우기기 시작하면, 통 테를 조이는 망치도 마누라가 제 뜻대로 하라고 조이는 것만큼 세게 조이지는 못해요.

그래도 결국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지요. 저는 어디서나 남자이고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 누가 언짢아하든 집에서도 남자이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이에요. 나리께서 유언장과 그 추가서를 철퇴할 수 없게 작성해 두시고, 곧장 길을 떠나는 거예요. 삼손 나리의 영혼이 괴로워하시면 안 되니까요. 나리를 설득해서 세 번째로 세상에 나서게 하라고 양심이 등을 떠민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나간 시대와 지금 시대에 편력 기사들을 섬긴 어떤 종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잘, 충실하고 올곧게 나리를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나서겠어요."

학사는 산초 판사의 말솜씨와 말투를 듣고 놀랐다. 그의 주인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기는 했지만 산초가 거기 그려진 만큼 우스운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가 유언장과 그 추가서를 철회할 수 없게 하라는 말 대신 철퇴할 수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니, 그에 관해 읽은 것을 모두 믿게 되었고,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엄숙한 얼간이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주인과 하인이 이토록 미친 두 사람은 세상에 다시없으리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돈키호테와 산초는 서로 끌어안고 다시 벗이 되었고, 그 무렵 그들의 신탁 노릇을 하던 위대한 카라스코의 의견과 동의에 따라 사흘 뒤에 떠나기로 정했다. 그동안 여행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돈키호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쓰고 가야 한다고 한 얼굴 가리개 달린 투구도 구하기로 했다. 삼손은 그런 투구를 가진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자기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투구를 구해 주겠다고 나섰다. 다만 그 투구는 매끈한 강철이 맑고 깨끗하기보다 녹과 곰팡이로 거무죽죽했다.

가정부와 조카딸 두 여자가 학사에게 퍼부은 저주는 셀 수도 없었다. 두 여자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을 할퀴며, 그 무렵 흔하던 곡하는 여자들처럼 주인의 출발을 마치 그의 죽음인 양 울며 슬퍼했다. 삼손이 그를 다시 떠나도록 부추긴 꿍꿍이는 이 이야기가 뒤에 들려줄 일을 하려는 데 있었고, 그것은 모두 그가 미리 이 일을 의논해 둔 신부와 이발사의 조언을 따른 일이었다.

결국 그 사흘 동안 돈키호테와 산초는 저마다 필요하다고 여긴 것을 갖추었다. 그리고 산초는 아내를, 돈키호테는 조카딸과 가정부를 달래 놓은 다음, 해 질 무렵 아무도 모르게, 마을에서 반 레과쯤 배웅해 주겠다고 나선 학사만 보는 가운데 토보소로 가는 길에 올랐다. 돈키호테는 그의 착한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는 안장 자루에 먹을거리를 채우고 지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쓰라고 돈키호테가 준 돈을 넣은 채 오래된 잿빛 당나귀를 탔다. 삼손은 그를 끌어안고, 우정의 법도가 요구하는 대로 좋은 운수면 함께 기뻐하고 나쁜 운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 달라고 간청했다. 돈키호테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삼손은 마을로 발길을 돌렸고, 두 사람은 위대한 도시 토보소로 발길을 잡았다.

---

1. 「비율대로」를 뜻하는 에스파냐어 「라타 포르 칸티다드(rata por cantidad)」의 「라타」에는 「쥐」라는 뜻도 있다. 산초는 이를 「가타(gata, 암고양이)」로 잘못 말했다.

제8장 돈키호테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만나러 가다가 겪은 일을 이야기한다

"전능하신 알라께 찬미를!"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 제8장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알라께 찬미를!" 그는 세 번 되풀이한다. 그리고 이렇게 찬미하는 것은 이제 돈키호테와 산초를 들판에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그의 즐거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바로 이 대목부터 돈키호테와 그 종자의 무훈과 익살이 시작된다고 여겨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독자들에게 기발한 시골 귀족의 지난 기사도 행적은 잊고, 앞으로 올 행적에 눈을 두라고 권한다. 지난 행적이 몬티엘 들판에서 시작되었듯이 앞으로 올 행적은 지금 토보소로 가는 길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가 약속하는 것이 그토록 많은 데 견주면 그가 청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이어 간다.

돈키호테와 산초만 남게 되었다. 삼손이 멀어지자마자 로시난테가 울기 시작하고 잿빛 당나귀가 한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기사와 종자는 둘 다 그것을 좋은 표시요 더없이 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잿빛 당나귀의 한숨과 울음이 비쩍 마른 말의 울음보다 더 많았는데, 산초는 거기서 자기 운수가 주인의 운수를 넘어서 그 위에 올라서리라고 짐작했다. 그가 아는 무슨 점성술에 근거했는지는 이야기가 밝히지 않으니 모르겠다. 다만 발이 걸리거나 넘어져서 얻는 것이라고는 해진 신발이나 부러진 갈비뼈밖에 없으니, 그가 발이 걸리거나 넘어질 때마다 집을 나서지 말았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들었다. 그는 바보이기는 했지만 이 점에서는 그리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산초, 내 벗아, 밤이 점점 빨리 다가오는구나. 날이 밝을 때 토보소를 보려면 이렇게 어두워서는 안 되는데 말이다. 나는 다른 모험에 뛰어들기 전에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거기서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의 축복과 너그러운 허락을 받을 것이다. 그 허락만 받으면 어떤 위험한 모험이라도 끝내고 훌륭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또 확신한다. 이 세상에서 편력 기사를 가장 용감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귀부인에게 은총을 받는 일이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리께서 아씨와 말씀을 나누시거나 만나시기는, 적어도 아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만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씨가 마당 담장 너머로 축복을 던져 주신다면 모를까요. 제가 처음 아씨를 뵌 게 거기였거든요. 나리께서 시에라 모레나 한복판에서 벌이고 계시던 어리석은 짓과 미친 짓 소식을 담은 편지를 가져갔을 때 말이에요."

"산초, 그것이 너한테는 마당 담장으로 보였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무리 칭송해도 모자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네가 본 그곳이? 그건 틀림없이 부유한 왕궁의 회랑이나 복도나 주랑, 아니 뭐라고 부르든 그런 것이었을 게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담장으로 보였어요. 제 기억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면요."

"아무튼 그리로 가자,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내가 아씨를 뵐 수만 있다면 담장 너머든 창 너머든, 틈새로든 정원 철책 사이로든 상관없다. 아씨의 아름다움이라는 해에서 나오는 빛줄기 하나라도 내 눈에 닿으면 내 지성을 밝히고 내 가슴을 굳세게 해 줄 테니, 나는 분별에서도 용기에서도 둘도 없고 견줄 데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이지,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그 해를 봤을 때는 빛줄기를 내뿜을 만큼 그리 밝지 않았어요. 아마 아씨가 제가 말씀드린 그 밀을 키질하고 계셔서, 거기서 나는 먼지가 구름처럼 얼굴을 가려 어두워졌나 봐요."

"산초, 너는 아직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의 아씨 둘시네아가 밀을 키질했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우겨 대는구나! 그건 지체 높은 분들이 하는 일, 하셔야 할 일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분들은 화살이 닿을 만큼 먼 데서도 그 높은 신분이 드러나는 다른 일과 즐거움을 위해 태어나고 보살핌을 받는 분들이다……! 오 산초여, 너는 우리 시인의 그 시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 시인은 사랑스러운 타호강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와 푸른 풀밭에 앉아, 그 재주 있는 시인이 거기서 묘사하는 그 값진 천을 짜던 네 요정이 그들의 수정 궁전에서 하던 일을 그려 보여 준다. 그 천은 모두 금실과 명주실과 진주로 엮고 짠 것이었지. 네가 아씨를 보았을 때 아씨가 하시던 일도 틀림없이 그런 일이었을 게다. 다만 어떤 못된 마법사가 내 일에 시샘을 품고, 내게 기쁨을 줄 일이라면 모두 본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뒤집어 놓는 게다. 그러니 사람들 말로 인쇄되어 돌아다닌다는 내 무훈 이야기도, 혹시 그 작가가 나와 원수인 현자라면, 이것을 저것으로 바꾸어 놓고, 진실 하나에 거짓 천 개를 섞고, 참된 이야기가 이어 가야 할 줄거리에서 벗어나 다른 일들을 늘어놓으며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두렵구나. 아, 시샘이여, 끝없는 악의 뿌리요 덕을 갉아먹는 좀벌레여! 산초, 다른 악덕은 모두 무언지 모를 즐거움을 함께 가져오지만, 시샘이라는 악덕은 언짢음과 원한과 분노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카라스코 학사가 우리에 관해 보았다고 한 그 전설인지 이야기인지에서 제 체면은 틀림없이 '이리 온, 돼지야' 하는 소리에 뱃대끈에 묶여서, 흔히 하는

말로 질질 끌려 이리저리 길바닥을 쓸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저는 어떤 마법사 험담도 한 적이 없고, 남이 시샘할 만큼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좀 짓궂고 악당 기질도 얼마쯤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늘 타고난 대로고 결코 꾸민 적 없는 제 단순함이라는 큰 망토가 그걸 다 덮고 가려 주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늘 그렇듯이 하느님과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니고 믿는 모든 것을 굳고 참되게 믿고, 지금도 그렇듯이 유대인들의 철천지원수니까, 역사가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글에서 잘 대해 줘야 마땅해요.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라지요. 벌거벗고 태어나 지금도 벌거벗은 몸이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어요. 책에 실려서 이 손 저 손으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저를 두고 무슨 말을 하든 무화과 한 알만큼도 상관없어요."

"산초, 그 말을 들으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요즘 어느 이름난 시인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그 시인은 궁정의 귀부인들을 모두 겨냥한 짓궂은 풍자시를 지었는데, 귀부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여자 하나는 그 시에 넣지도 이름을 대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 명단에 자기가 없는 것을 보고 시인에게 따지면서, 자기한테서 무엇을 보았기에 다른 여자들 축에 넣지 않았느냐고, 풍자시를 늘려서 늘린 데에 자기를 넣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무엇 하러 태어났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다. 시인은 그렇게 했고, 시녀 부인들도 입에 담지 못할 꼴로 그 여자를 시에 올려놓았다. 그 여자는 오명일망정 이름이 난 것을 보고 흡족해했다. 그 이름난 디아나 신전, 세계 일곱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그 신전에 오로지 앞으로 올 시대에 제 이름을 살려 두려고 불을 질러 태워 버린 양치기 이야기도 이와 통한다. 그자가 바라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그자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말로도 글로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그자 이름이 헤로스트라토스였다는 것이 알려졌다. 위대한 황제 카를로스 5세가 로마에서 어느 기사와 겪은 일도 여기에 들어맞는다. 황제는 그 이름난 로톤다 신전을 보고 싶어 했다. 옛날에는 모든 신의 신전이라 불렸고, 지금은 더 나은 이름으로 모든 성인의 성당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교도들이 로마에 세운 건물 가운데 가장 온전히 남은 건물이고, 그것을 세운 이들의 웅대함과 장엄함을 가장 잘 간직한 건물이다. 오렌지 반쪽 모양으로 생겼고, 엄청나게 크고, 아주 밝다. 그런데 그 빛은 꼭대기에 난 창 하나, 더 바르게 말하자면 둥근 천창 하나로만 들어온다. 황제가 그 천창에서 건물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로마 기사 하나가 곁에 서서 그 거대한 구조물과 기억할 만한 건축의 정교함과 섬세함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천창에서 물러나더니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신 폐하, 폐하를 끌어안고 저 천창에서 뛰어내려 세상에 제 영원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천 번이나 들었습니다.' 황제가 대답했다. '그 몹쓸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고맙게 여기네. 앞으로는 내가 자네에게 다시 충성을 시험할 기회를 주지 않겠네. 그러니 명하네. 다시는 내게 말을 걸지도 말고 내가 있는 곳에 있지도 말게.'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산초, 요컨대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은 엄청나게 힘이 세다. 무엇이 호라티우스를 완전 무장한 채로 다리 아래 깊은 테베레강으로 뛰어들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무키우스의 팔과 손을 불태웠느냐? 무엇이 쿠르티우스를 로마 한복판에 나타난 불타는 깊은 구렁 속으로 몸을 던지게 했느냐? 무엇이 온갖 흉한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카이사르에게 루비콘강을 건너게 했느냐? 그리고 더 가까운 본보기를 들자면, 무엇이 신세계에서 이름처럼 더없이 정중한(cortés) 코르테스가 이끄는 용감한 에스파냐 사람들의 배에 구멍을 뚫어 그들을 뭍에 고립시켰느냐? 이 모든 위업과 다른 갖가지 큰 위업은 명성이 한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 할 일이다. 사람들은 이름난 행적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불멸의 상이자 그 일부로서 명성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도이며 가톨릭 신자이며 편력 기사인 사람들은, 덧없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얻는 명성의 허영보다 하늘나라 천상의 영역에서 영원한 앞으로 올 세상의 영광을 더 바라보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명성은 아무리 오래간다 해도 끝이 정해진 이 세상과 함께 끝나고 말 테니까. 그러니, 오 산초여, 우리의 행적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정해 준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인들 속에서 교만을 죽이고, 너그러움과 착한 마음으로 시샘을 죽이고, 차분한 몸가짐과 고요한 마음으로 분노를 죽이고, 우리가 먹는 적은 양식과 우리가 지새우는 많은 밤으로 탐식과 잠을 죽이고, 우리 마음의 귀부인으로 삼은 이들에게 지키는 충절로 음욕과 방탕을 죽이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를 그리스도교도에 더해 이름난 기사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 줄 기회를 찾음으로써 게으름을 죽여야 한다. 산초, 좋은 명성이 가져다주는 칭송의 극치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나리께서 하신 말씀은 다 잘 알아들었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지금 막 떠오른 의문 하나를 나리께서 해장해 주셨으면 해요."

"'해장'이 아니라 '해소'라고 해야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어서 말해 보아라. 아는 대로 대답해 주마."

"말씀해 보세요, 나리." 산초가 이어서 말했다. "그 율리오(칠월)니 아고스토(팔월)니 하는 양반들, 그리고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 무훈 높은 기사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나요?"

"이교도들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지옥에 있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착한 그리스도교도였다면 연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다."

"좋아요." 산초가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알아보자고요. 그 대단한 양반들의 몸이 누워 있는 무덤 앞에는 은 등잔이 켜져 있나요? 아니면 그 경당 벽이 목발이며 수의며 머리채며 밀랍으로 만든 다리며 눈으로 꾸며져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무엇으로 꾸며져 있나요?"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교도들의 무덤은 대개 화려한 신전이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골은 엄청나게 큰 돌 피라미드 위에 놓였는데, 오늘날 로마에서는 그것을 '성 베드로의 바늘'이라고 부른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괜찮은 마을 하나만 한 성을 무덤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드리아누스의 묘(Moles Hadriani)'라고 불렀고 지금은 로마의 산탄젤로성이다. 아르테미시아 왕비는 남편 마우솔로스를 세계 일곱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던 무덤에 묻었다. 그러나 이 무덤들도, 이교도들이 지닌 다른 많은 무덤도 그 안에 묻힌 이들이 성인임을 보여 주는 수의나 다른 봉헌물이나 표시로 꾸며지지는 않았다."

"제가 말하려는 게 그거예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럼 이제 말씀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거인을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일인가요?"

"답은 뻔하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쪽이 더 큰일이다."

"딱 걸리셨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바로 세우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그 무덤 앞에는 등잔이 타오르고, 그 경당에는 무릎 꿇고 그 성유물을 경배하는 신심 깊은 사람들이 가득한 분의 명성이, 이 세상에서든 저세상에서든,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이교도 황제와 편력 기사들이 남겼고 앞으로 남길 명성보다 더 나은 명성이겠지요."

"그 진실도 인정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이런 명성, 이런 은총, 사람들 말로 이런 특권을" 산초가 대답했다. "성인들의 몸과 성유물이 지니고 있거든요. 우리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서 등잔이며 초며 수의며 목발이며 그림이며 머리채며 눈이며 다리를 거느리고, 그것으로 신심을 키우고 그분들의 그리스도교다운 명성을 드높이지요. 임금님들은 성인들의 몸이나 성유물을 어깨에 메고 다니시고, 그 뼛조각에 입을 맞추시고, 그것으로 기도실과 가장 귀한 제단을 꾸미고 값지게 하시지요……"

"산초, 네가 한 그 모든 말에서 내가 무엇을 끌어내기를 바라는 게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말은요" 산초가 말했다. "우리도 성인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명성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나리.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얼마 안 된 일이니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맨발의 꼬마 수사 둘을 시성인지 시복인지 했는데, 그 수사들이 몸을 졸라매고 괴롭히던 쇠사슬에 입을 맞추고 손을 대는 걸 지금은 큰 복으로 여긴대요. 그 쇠사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비는 우리 임금님 무기고에 있는 롤단의 칼보다 더 큰 공경을 받는대요. 그러니까 주인 나리, 용감한 편력 기사보다는 어느 수도회든 보잘것없는 꼬마 수사가 되는 게 나아요. 거인한테든 괴물한테든 괴룡한테든 창으로 2천 번 찌르는 것보다 채찍 고행 스물네 번이 하느님께 더 통하니까요."

"모두 그 말대로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수사가 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시는 길은 여럿이다. 기사도도 하나의 수도회다. 영광 속에는 성인이 된 기사들도 있다."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하늘에는 편력 기사보다 수사가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기사보다 수도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편력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산초가 말했다.

"많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기사라는 이름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다."

이런 이야기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 밤과 이튿날이 지나갔는데, 이야기할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돈키호테는 적잖이 서운했다. 마침내 그다음 날 해 질 무렵, 그들은 위대한 도시 토보소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는 기운이 솟았지만, 산초는 둘시네아의 집을 몰랐고 주인이 그 아씨를 본 적이 없듯이 그도 평생 그 아씨를 본 적이 없었기에 기운이 빠졌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아씨를 보게 되어서, 또 한 사람은 아씨를 본 적이 없어서 둘 다 마음이 들떠 술렁였고, 산초는 주인이 자기를 토보소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밤이 깊으면 도시로 들어가기로 했고, 그 시각이 될 때까지 토보소 가까이 있던 털가시나무 숲에 머물렀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자 그들은 도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다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제9장 여기서 보게 될 일을 이야기한다

한밤중이 꼭 되었을까, 조금 이르거나 늦었을까 할 무렵, 돈키호테와 산초는 숲을 떠나 토보소로 들어갔다. 흔히 하는 말로 주민들이 모두 다리를 쭉 뻗고 자며 쉬고 있어서 마을은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밤은 어슴푸레 밝았는데, 산초는 그 어둠을 핑계 삼아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얼버무릴 수 있도록 차라리 칠흑 같은 밤이었으면 했다. 온 마을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개 짖는 소리뿐이었고, 그 소리가 돈키호테의 귀를 먹먹하게 울리고 산초의 가슴을 어지럽혔다. 이따금 당나귀가 울고 돼지가 꿀꿀대고 고양이가 야옹거렸는데, 저마다 다른 그 소리들이 밤의 고요 속에서 더 크게 울리자 사랑에 빠진 기사는 그 모든 것을 흉한 징조로 여겼다. 그래도 그는 산초에게 말했다.

"얘야 산초, 둘시네아의 궁전으로 길을 안내해라. 어쩌면 아씨께서 깨어 계실지도 모르겠다."

"해님 맙소사, 무슨 궁전으로 안내하라는 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씨 마님을 뵌 곳은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아씨께서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성안의 어느 작은 별채에 물러나 계셨던 게로구나. 지체 높은 귀부인들과 공주들이 흔히 그러듯 시녀들과 오붓하게 쉬시면서 말이다."

"나리" 산초가 말했다. "제가 싫다는데도 나리께서 둘시네아 아씨 댁이 성이라고 하시니 그렇다 치고요, 이 시각에 문이 열려 있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문을 열어 주게 문고리를 쾅쾅 두드려서 온

동네를 들쑤셔 놓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첩을 둔 사내들이 아무리 늦은 시각이라도 아무 때나 가서 두드리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정부 집에라도 찾아가는 건가요?"

"먼저 그 성부터 꼭 찾아내자."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해 주마, 산초. 그리고 보아라, 산초. 내 눈이 어둡지 않다면 여기서 보이는 저 크고 거무스름한 그림자는 둘시네아의 궁전이 드리운 것이 틀림없다."

"그럼 나리께서 앞장서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봐야, 지금이 대낮이라는 걸 믿는 만큼 믿겠지만요."

돈키호테가 앞장서서 2백 걸음쯤 가자 그림자를 드리운 덩어리에 이르렀는데, 큰 탑 하나가 보였고, 그는 곧 그 건물이 성이 아니라 마을의 본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말했다.

"성당에 맞닥뜨렸구나, 산초."

"저도 보여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 우리 무덤에 맞닥뜨리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시각에 묘지를 돌아다니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게다가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아씨 댁은 막다른 골목에 있을 거라고 나리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의 저주나 받아라, 이 얼간이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성이나 왕궁이 막다른 골목에 지어져 있는 걸 대체 어디서 봤단 말이냐?"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고장마다 풍습이 있는 법이에요. 여기 토보소에서는 궁전이며 큰 건물을 골목에 짓는 게 풍습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제발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거리며 골목을 찾아보게 해 주세요. 어느 구석에서 그 성에 맞닥뜨릴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쩔쩔매게 하고 헤매게 하는 그 성은 개한테나 뜯어 먹혀 버려라."

"산초, 내 아씨의 일에 대해서는 공손하게 말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잔치는 사이좋게 치르자꾸나. 두레박 따라 밧줄까지 던지지는 말자."

"참을게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리께서 우리 아씨 댁을 딱 한 번 본 제가 그 집을 늘 알아서 한밤중에 찾아내기를 바라시니,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디란 말씀이에요? 수천 번은 보셨을 나리께서도 못 찾으시면서요."

"너는 나를 절망하게 만들 게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리 오너라, 이 이단자야. 내가 평생 한 번도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를 본 적이 없고, 그분의 궁전 문지방을 넘어 본 적도 없고, 다만 아름답고 슬기롭다는 그분의 큰 명성을 듣고 소문만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천 번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야 듣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말씀드리는데, 나리께서도 못 보셨고 저도 못 봤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적어도 너는, 내가 너 편에 보낸 편지의 답장을 가져왔을 때 아씨께서 밀을 키질하고 계신 걸 보았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건 믿지 마세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씨를 뵌 것도, 가져온 답장도 소문으로 들은 거였다는 걸 알려 드릴게요. 제가 둘시네아 아씨가 누군지 아는 건 하늘에 주먹질하는 것만큼이나 어림없는 일이니까요."

"산초,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농담할 때가 있고 농담이 어울리지 않고 꼴사나운 때가 있다. 내가 내 영혼의 아씨를 본 적도 말을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해서, 너까지 아씨와 말을 나눈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알다시피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데 말이다."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노새 두 마리를 끌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였는데, 땅바닥에 끌리는 쟁기 소리로 보아 날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가는 농사꾼인 듯했고, 사실이 그러했다. 농사꾼은 오면서 그 유명한 로맨스를 부르고 있었다.

프랑스 놈들아, 너희는 혼쭐이 났지
그 론세스바예스 싸움에서.

"오늘 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산초, 내 목을 내놓겠다." 돈키호테가 그 노래를 듣자마자 말했다. "저 촌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며 오는지 들리지 않느냐?"

"들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론세스바예스 사냥이 우리 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칼라이노스의 로맨스를 부른다 해도 우리 일이 잘되든 못되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는 사이 농사꾼이 다가왔고, 돈키호테가 그에게 물었다.

"좋은 친구여,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운수를 주시기를. 비할 데 없는 공주 도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궁전이 이 근처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줄 수 있겠소?"

"나리" 젊은이가 대답했다. "저는 타지 사람이고, 이 마을에 와서 어느 부자 농사꾼 밑에서 들일을 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저 맞은편 집에 이 마을 본당 신부님과 성당지기가 사시는데, 두 분 다, 아니 둘 중 어느 분이라도, 그 공주 마님에 관해 나리께 알려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토보소 주민 명부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마을 어디에도 공주는 안 사세요. 지체 높은 마님들은 많아요. 저마다 자기 집에서는 공주일 수 있는 마님들이지요."

"그렇다면 그 마님들 가운데"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자네한테 묻는 그분이 계실 걸세, 젊은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벌써 동이 트네요."

젊은이가 노새를 몰고 가 버려 더는 묻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산초는 주인이 얼떨떨해서 몹시 언짢아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리, 벌써 날이 빠르게 밝아 오고 있어요. 해가 거리에서 우리를 맞게 두는 건 현명하지 못해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나리께서는 이 근처 어느 숲에 숨어 계시고, 저는 낮에 다시 와서 이 마을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아씨의 집이든 성이든 궁전이든 찾아볼게요. 그걸 못 찾으면 저는 정말 운이 지지리도 없는 놈이겠지요. 찾으면 아씨께 말씀드리고, 나리께서 어디서 어떻게 아씨의 명예와 이름에 흠이 가지 않게 아씨를 뵐 방도를 내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말씀드릴게요."

"산초, 너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짧은 말의 테두리 안에 금언 천 개를 담아 말했구나. 네가 지금 내게 준 조언이 마음에 들어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마. 가자, 얘야. 내가 숨을 곳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너는 네 말대로 다시 와서 나의 아씨를 찾아뵙고 말씀을 나누어라. 아씨의 슬기와 예절로 보아 나는 기적보다 더한 은총을 기대한다."

산초는 둘시네아에게서 받아 왔다며 시에라 모레나로 가져간 답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아내지 못하도록 주인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고, 그래서 서둘러 길을 떠나게 하여 그들은 곧 길을 나섰다. 마을에서 2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숲 하나를 찾아냈고, 산초가 둘시네아에게 말을 전하러 도시로 돌아가는 동안 돈키호테는 그 숲에 숨었는데, 산초가 그 심부름을 하는 동안 새로이 귀를 기울이고 새로이 믿어 주어야 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

제10장 산초가 둘시네아 아씨를 마법에 걸려고 꾸민 꾀와 참말이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다른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작가는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일을 이야기할 대목에 이르자, 사람들이 믿어 주지 않을까 두려워 그냥 입을 다물고 지나가고 싶었다고 말한다. 돈키호테의 광기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광기의 끝과 경계에 이르렀고, 가장 큰 광기보다도 화살이 두 번 날아갈 거리만큼 더 나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작가는 그런 두려움과 망설임을 안고서도,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에 진실을 티끌만큼도 보태거나 빼지 않은 채 돈키호테가 한 그대로 그 광기를 써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 진실은 가늘어질지언정 끊어지지 않으며, 물 위의 기름처럼 늘 거짓 위에 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이야기를 이어 가며 이렇게 말한다. 돈키호테는 위대한 토보소 곁의 숲, 털가시나무 숲이라고도 밀림이라고도 할 그곳에 몸을 숨기자마자 산초에게 도시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그리고 먼저 자기를 대신해 아씨에게 말씀을 올려, 사로잡힌 그 기사에게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그리고 황송하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어 그 축복으로 자기가 뛰어드는 모든 일과 어려운 과업에서 더없이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청하기 전에는 자기 앞에 돌아오지 말라고 일렀다.

산초는 명령받은 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처음에 가져왔던 것만큼 좋은 답을 가져오겠다고 맡아 나섰다.

"가거라, 얘야."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네가 찾아가는 아름다움의 해, 그 빛 앞에 서더라도 허둥대지 마라. 세상의 모든 종자 가운데 너는 복되도다! 잘 기억해 두고, 아씨께서 너를 어떻게 맞으시는지 하나도 잊지 마라. 네가 내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아씨의 낯빛이 바뀌는지, 내 이름을 들으시고 마음이 들썩이며 허둥대시는지, 혹시 위엄을 갖춘 화려한 단상에 앉아 계시면 방석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는지 보아라. 서 계시면 한 발로 섰다가 다른 발로 섰다가 하시는지 살펴보아라. 네게 주시는 답을 두세 번 되풀이하시는지, 부드럽던 답이 매몰차게 바뀌고 쌀쌀하던 답이 다정하게 바뀌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도 손을 들어 매만지시는지 보아라. 요컨대, 얘야, 아씨의 모든 행동과 몸짓을 지켜보아라. 네가 그것을 있었던 그대로 내게 들려주면, 내 사랑의 일에 관해 아씨께서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신 것을 내가 알아낼 테니까. 산초, 네가 모른다면 알아 두어라.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사랑이 화제가 될 때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과 몸짓이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의 소식을 가져오는 더없이 확실한 전령이니라. 가거라, 내 벗아. 내 운수보다 더 나은 운수가 너를 이끌어 주기를, 그리고 네가 나를 남겨 두고 가는 이 쓰라린 외로움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안고 돌아오기를."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산초가 말했다. "주인 나리, 그 조그만 가슴 좀 펴세요. 지금쯤 개암만 하게 오그라들었겠네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좋은 마음은 나쁜 운수를 꺾는다고, 그리고 베이컨이 없는 곳엔 걸어 둘 말뚝도 없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데서 토끼가 튀어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지난밤에는 아씨의

궁전이니 성이니 하는 걸 찾지 못했지만, 날이 밝은 지금은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낼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찾기만 하면 아씨와의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정말이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내가 바라는 일에 더 나은 운수를 주시기를 비는 만큼, 너는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에 꼭 들어맞는 속담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말하자 산초는 돌아서서 잿빛 당나귀를 몰아 떠났고, 돈키호테는 말 위에 앉은 채 등자와 창에 몸을 기대고 쉬면서 슬프고 어지러운 상상에 잠겼다. 그는 거기 남겨 두고 우리는 산초 판사를 따라가 보자. 산초도 남은 주인 못지않게 어지럽고 생각에 잠긴 채 주인 곁을 떠났는데, 어찌나 그랬던지 숲을 벗어나자마자 고개를 돌려 돈키호테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당나귀에서 내려 나무 밑동에 앉아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디 좀 알아봅시다, 아우 산초, 나리께서는 어디로 가시오? 잃어버린 당나귀라도 찾으러 가시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얼 찾으러 가시오?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하자면, 공주님 한 분을, 그리고 그분 안에 계신 아름다움의 해와 온 하늘을 찾으러 가요.' 그럼 산초, 그대가 말하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생각이오? '어디서냐고요? 위대한 도시 토보소에서요.' 좋소. 그럼 누구 심부름으로 그분을 찾으러 가시오?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목마른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배고픈 이에게 마실 것을 주는 이름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의 심부름으로요.' 다 좋소. 그런데 산초, 그분 집은 아시오? '우리 주인 나리 말씀으로는 왕궁이나 웅장한 성일 거래요.' 그럼 혹시 언젠가 그분을 본 적은 있소? '저도 우리 주인 나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가 토보소 사람들의 공주님들을 꾀어내고 귀부인들을 들쑤셔 놓으려고 여기 와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게 되어, 몰려와서 몽둥이로 그대 갈비뼈를

흠씬 두들기고 성한 뼈를 하나도 남겨 두지 않는다면, 그게 옳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정말이지, 제가 심부름하는 몸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야 그럴 만도 하지요. 친구여, 심부름꾼인 그대에게는 허물이 없느니라,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걸 믿지 마시오, 산초. 라만차 사람들은 정직한 만큼 성미도 급해서 누가 간지럽히는 걸 참지 않소. 맹세코, 그 사람들이 그대 냄새를 맡으면 험한 꼴을 당할 거요. '저리 꺼져라! 벼락은 딴 데나 떨어져라! 남 좋으라고 내가 고양이한테서 발 세 개를 찾으러 다녀야 하다니! 게다가 토보소에서 둘시네아를 찾는 건 라벤나에서 마리카를 찾거나 살라망카에서 학사를 찾는 격이에요. 악마가, 다른 누구도 아닌 악마가 나를 이 일에 끌어들였어!'"

산초는 혼자 이렇게 독백을 늘어놓았고, 거기서 얻은 결론으로 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 좋아. 무슨 일이든 고칠 방도가 있지. 죽음만 빼고 말이야. 죽음의 멍에 밑은 싫든 좋든 목숨이 다할 때 누구나 지나가야 하니까. 우리 주인 나리는 천 가지 낌새로 보아 밧줄로 묶어 둬야 할 미치광이야. 나도 그분한테 뒤지지 않아. 그분을 따라다니고 섬기니 그분보다 더 얼간이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 보라, 네가 누군지 말해 주마' 하는 속담하고 '누구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풀을 뜯느냐다' 하는 속담이 맞는다면 말이야. 그러니 그분은 미치광이고, 그것도 대개는 이것을 저것으로 여기고 흰 것을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 하는 광기에 빠진 미치광이니까, 풍차를 거인이라 하고 수사들의 노새를 단봉낙타라 하고 양 떼를 적의 군대라 하고 그런 식의 다른 많은 것을 말할 때 드러났듯이, 여기서 맨 처음 마주치는 농사꾼 아낙을 둘시네아 아씨라고 믿게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그분이 안 믿으면 내가 맹세하고, 그분이 맹세하면 내가 또 맹세하고, 그분이 우기면 내가 더 우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말을 늘 과녁 위에 꽂아 둬야지. 어쩌면 이렇게 버티다 보면, 내가 그런 심부름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소식을 가져오는지 보시고 다시는 그런 심부름을 보내지 않으실지도 몰라. 아니면 내 짐작대로, 그분 말씀대로 그분을 미워한다는 그 못된 마법사 가운데 하나가 그분을 해코지하고 골탕 먹이려고 아씨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자 산초 판사는 마음이 놓여 일이 다 잘 끝난 것으로 여겼고, 돈키호테가 토보소에 다녀올 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여기도록 저녁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모든 일이 어찌나 잘 풀렸던지, 잿빛 당나귀에 오르려고 일어서는데 토보소 쪽에서 그가 있는 쪽으로 농사꾼 아낙 셋이 새끼 당나귀 세 마리인지 암새끼 당나귀 세 마리인지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다. 작가가 그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시골 아낙들이 흔히 타는 짐승이니 암탕나귀였다고 보는 편이 더 그럴듯한데,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니 그것을 따지느라 머뭇거릴 까닭은 없다. 요컨대 산초는 농사꾼 아낙들을 보자마자 부리나케 주인 돈키호테를 찾으러 돌아갔고, 가 보니 주인은 한숨을 쉬며 사랑의 넋두리를 천 가지나 늘어놓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를 보자 말했다.

"어떻게 되었느냐, 산초, 내 벗아? 오늘을 흰 돌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 검은 돌로 표시해야 하겠느냐?"

"차라리" 산초가 대답했다. "대학 교수 자리 게시문처럼 붉은 흙으로 표시하시는 게 좋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잘 보이게요."

"그렇다면"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게로구나."

"좋다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탁 트인 데로 나가서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뵙기만 하시면 돼요. 아씨께서 시녀 두 분과 함께 나리를 뵈러 오고 계시거든요."

"오, 거룩하신 하느님! 무슨 말이냐,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를 속이지 마라. 거짓 기쁨으로 내 참된 슬픔을 달래려 들지 마라."

"나리를 속여서 제가 무슨 득을 보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게다가 제 말이 참말인지 금세 드러날 텐데요. 박차를 가하세요, 나리, 어서 오세요. 우리 아씨이신 공주님이 차려입고 꾸미신 채로, 그러니까 그분다운 모습으로 오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시녀들도 아씨도 모두 금빛 불덩이고, 모두 진주 이삭이고, 모두 다이아몬드고, 모두 루비고, 모두 열 겹도 넘는 금란을 걸쳤어요. 머리카락은 등에 풀어 늘어뜨렸는데, 꼭 바람과 장난치는 햇살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 분 모두 볼 만한 얼룩 조롱말 세 마리를 타고 오세요."

"조랑말이라고 해야겠지, 산초."

"조롱말이나 조랑말이나" 산초가 대답했다. "그게 그거지요. 아무튼 무얼 타고 오시든 그분들은 바랄 수 있는 가장 멋진 마님들이에요. 특히 우리 아씨 둘시네아 공주님은 넋이 다 빠질 지경이에요."

"가자, 얘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뜻밖이면서도 좋은 이 소식 값으로, 내가 처음 겪는 모험에서 얻는 가장 좋은 전리품을 네게 주마.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으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마을 공동 목초지에서 새끼를 낳을 내 암말 세 마리가 올해 낳는 망아지들을 주마."

"망아지로 할게요." 산초가 대답했다. "첫 모험의 전리품이 좋을지는 그리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그들은 숲을 나섰고, 가까이 다가온 세 촌 아낙이 눈에 들어왔다. 돈키호테는 토보소로 가는 길을 끝까지 눈으로 훑었지만 농사꾼 아낙 셋밖에 보이지 않자 몹시 당황해서, 아씨 일행을 도시 밖에 두고 왔느냐고 산초에게 물었다.

"도시 밖이라니요?" 산초가 대답했다. "혹시 나리 눈은 뒤통수에 달렸어요? 여기 오시는 이분들이, 한낮의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시는 이분들이 안 보이세요?"

"산초, 내 눈에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당나귀 세 마리를 탄 농사꾼 아낙 셋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 이제 저를 악마한테서 건져 주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눈송이처럼 하얀 조랑말 세 마리, 아니 뭐라고 부르든 그것들이 나리 눈에 당나귀로 보이신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살아 계신 주님을 걸고 말하는데, 그게 참말이라면 이 수염을 다 뽑겠어요!"

"그러니까 산초, 내 벗아, 말하지만"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것들이 수탕나귀나 암탕나귀라는 건 내가 돈키호테이고 네가 산초 판사인 것만큼이나 참말이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조용히 하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그 눈이나 똑바로 뜨세요. 그리고 와서 나리 마음의 귀부인께 절을 올리세요. 벌써 가까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세 촌 아낙을 맞으러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잿빛 당나귀에서 내려 세 농사꾼 아낙 가운데 한 사람이 탄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두 무릎을 땅에 꿇고서 말했다.

"아름다움의 여왕이시며 공주이시며 공작 부인이시여, 드높으신 위엄과 위대하심으로 그대의 사로잡힌 기사를 너그러운 마음과 은총으로 받아 주소서. 그 기사는 그대의 장엄한 모습 앞에 선 자기를 보고, 넋이 나가고 맥이 끊긴 채 저기 대리석처럼 굳어 있나이다. 저는 그분의 종자 산초 판사이고, 그분은 고생에 지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리는 분이시나이다."

이때 돈키호테는 벌써 산초 곁에 무릎을 꿇고서, 산초가 여왕이요 아씨라고 부르는 여자를 휘둥그레진 눈과 흐려진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보이는 것은 얼굴이 동그랗고 코가 납작해서 그리 예쁘지도 않은 시골 처녀 하나뿐이었기에, 그는 얼떨떨하고 놀라서 감히 입술을 떼지도 못했다. 농사꾼 아낙들도 생김새가 그토록 다른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동무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다 길이 막힌 그 아낙이 잔뜩 뿌루퉁하고 짜증 난 얼굴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재수 없게 이게 뭐예요, 길에서 비켜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 줘요. 바쁘단 말이에요."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오, 토보소의 공주시며 온 토보소의 아씨시여! 편력 기사도의 기둥이요 버팀목이신 분이 그대의 숭고하신 모습 앞에 무릎 꿇은 것을 보시고도, 어찌 그대의 너그러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시나이까?"

이 말을 듣자 다른 두 아낙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워워, 우리 시아버지네 암탕나귀야, 털이나 빗겨 주랴! 저 도련님들이 이제 시골 아낙들을 놀려 먹으려고 오는 꼴 좀 봐. 우리는 자기들처럼 놀려 줄 줄 모르는 줄 아나 봐! 갈 길이나 가세요. 우리도 우리 길 가게 내버려 두면 몸에 좋을 거예요."

"일어나거라, 산초."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불행에 물리지도 않는 운명의 여신이, 이 살 속에 깃든 가련한 내 영혼에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 버린 것이 이제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대, 오 바랄 수 있는 귀함의 극치여,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우아함의 끝이여, 그대를 우러르는 이 괴로운 가슴의 유일한 위안이여! 사악한 마법사가 나를 쫓아다니며 내 눈에 구름과 백내장을 씌워, 오직 내 눈에만, 다른 이들의 눈에는 아니게, 그대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얼굴을 가난한

농사꾼 아낙의 얼굴로 바꾸고 둔갑시켜 놓았구려. 혹시 그자가 그대 눈에 내가 역겨워 보이도록 내 얼굴마저 어떤 괴물의 얼굴로 바꾸어 놓지 않았다면 말이오. 그래도 나를 부드럽고 다정하게 바라보기를 그치지 마소서. 그대의 일그러진 아름다움 앞에 내가 이렇게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을 보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겸손하게 그대를 우러르는지 헤아려 주소서."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시네!" 아낙이 대답했다. "내가 간지러운 수작을 듣기 좋아하는 줄 아나! 비켜요. 가게 해 주면 고맙다고 할게요."

산초는 비켜서서 아낙을 보내 주었다. 제 꾀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 몹시 흐뭇했다.

둘시네아 노릇을 한 아낙은 풀려나자마자 막대 끝에 박아 들고 다니던 송곳으로 제 조롱말을 찌르며 풀밭을 가로질러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암탕나귀가 여느 때보다 더 아프게 파고드는 송곳 끝을 느끼고는 껑충껑충 날뛰기 시작해서 둘시네아 아씨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고 아씨를 일으켜 세우러 달려갔고, 산초는 새끼 암탕나귀의 배 밑까지 미끄러져 내려간 길마를 바로잡고 뱃대끈을 졸라매러 달려갔다. 길마가 제자리를 잡자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아씨를 두 팔로 안아 당나귀 위에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아씨는 땅에서 일어나 그 수고를 덜어 주었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짧게 달려와 새끼 암탕나귀의 엉덩이에 두 손을 짚고서 매보다 날랜 몸으로 길마 위에 훌쩍 올라앉았고, 사내처럼 걸터앉은 채로 있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성 로케를 걸고 말하는데, 우리 아씨께서는 새매보다 날래시네요! 짧은 등자를 달고 말 타는 법을 코르도바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 가운데 가장 솜씨 좋은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어요! 안장 뒤 턱을

한달음에 넘으시고, 박차도 없이 조랑말을 얼룩말처럼 달리게 하시네요. 시녀들도 아씨한테 뒤지지 않아요. 모두 바람처럼 달려요."

정말 그러했다. 둘시네아가 올라앉은 것을 보자 모두 그 뒤를 따라 당나귀를 찌르며 내달려, 반 레과가 넘도록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눈으로 그들을 좇다가 그들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자 산초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

"산초, 내가 마법사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알겠느냐? 그리고 그자들의 악의와 내게 품은 원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아라. 나의 아씨를 본래 모습대로 뵙는 기쁨마저 내게서 빼앗으려 했으니 말이다. 정녕 나는 불운한 이들의 본보기가 되려고, 나쁜 운명의 화살이 겨누고 날아와 꽂히는 과녁이요 표적이 되려고 태어났다. 그리고 산초, 이것도 알아 두어라. 이 배신자들은 나의 둘시네아를 바꾸고 둔갑시킨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저 촌 아낙처럼 천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바꾸고 둔갑시켰고, 아울러 지체 높은 귀부인들에게 본디 속한 것, 늘 용연향과 꽃들 사이에서 지내시기에 지니시는 좋은 향기마저 빼앗아 버렸다. 산초, 내가 네 말대로라면 조랑말이지만 내 눈에는 암탕나귀로 보인 그 짐승 위에 둘시네아를 올려 드리려고 다가갔을 때, 생마늘 냄새가 확 풍겨 와서 머리가 핑 돌고 영혼까지 독이 퍼지는 것 같았다는 것을 알려 주마."

"오, 이 불한당들아!" 이때 산초가 소리쳤다. "오, 재수 없고 심보 고약한 마법사들아, 너희 모두가 꼬챙이에 꿴 정어리처럼 아가미를 꿰인 꼴을 봤으면 좋겠다! 너희는 아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 짓은 더 많구나. 이 악당들아, 우리 아씨의 진주 같은 눈을 코르크참나무 벌레혹으로 바꾸고, 순금 같은 머리카락을 붉은 황소 꼬리털로 바꾸고, 결국 고운 생김새를 모두 흉한 생김새로 바꾸어 놓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야지, 향기까지 건드리지는 말았어야지. 그 향기로나마 그 흉한

껍데기 밑에 감추어진 걸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하긴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아씨의 못생긴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아름다운 모습만 봤어요. 그 아름다움을 한층 더 값지게 해 준 건 오른쪽 입술 위에 난 점이었는데, 콧수염처럼 생긴 그 점에 금실 같은 금빛 털이 일고여덟 가닥, 한 뼘도 넘게 나 있었어요."

"그 점에 맞추어" 돈키호테가 말했다. "얼굴의 점과 몸의 점이 서로 짝을 이루는 이치로 보면, 둘시네아는 얼굴에 점이 난 쪽 허벅지 판판한 데에 또 하나의 점이 있을 게다. 그런데 네가 말한 만큼 길다면 점에 난 털로는 너무 길구나."

"그런데 나리께 말씀드리지만" 산초가 대답했다. "거기 꼭 타고난 것처럼 잘 어울렸어요."

"그렇겠지,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자연은 둘시네아에게 완벽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두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네가 말한 그런 점이 백 개 있다 해도, 아씨에게 그것은 점(lunar)이 아니라 빛나는 달(luna)과 별일 게다. 그런데 말해 보아라, 산초. 내 눈에 길마로 보였던 것, 네가 바로잡아 드린 그것은 평안장이었느냐, 여자용 안락안장이었느냐?"

"그건" 산초가 대답했다. "짧은 등자를 단 안장이었어요. 거기 들판용 안장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어찌나 값진지 왕국 절반 값어치는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 다시 말하고, 천 번이라도 말하겠다. 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운한 사람이다."

익살꾼 산초는 그토록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주인의 얼빠진 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감추느라 몹시 애를 먹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다른 많은 말을 주고받은 뒤 다시 짐승에 올라, 그 이름난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성대한 축제에 맞추어 닿을 생각으로 사라고사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러나 거기 닿기 전에, 앞으로 보게 될 대로, 많고 크고 새로워서 글로 쓰이고 읽힐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제11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죽음의 궁정」을 실은 수레, 아니 짐수레와 마주친 기이한 모험

돈키호테는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나아갔다. 마법사들이 자기 아씨 둘시네아를 촌 아낙의 흉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은 고약한 장난을 곱씹었지만, 어떻게 하면 아씨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생각에 어찌나 넋이 나갔던지 그는 저도 모르게 로시난테의 고삐를 놓아 버렸고, 로시난테는 제게 주어진 자유를 느끼고는 걸음마다 멈춰 서서 그 들판에 지천으로 난 푸른 풀을 뜯었다. 넋을 놓고 있던 그를 정신 차리게 한 것은 산초 판사였다. 산초가 말했다.

"나리, 슬픔은 짐승을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슬픔을 너무 깊이 느끼면 짐승이 되고 말아요. 나리,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로시난테 고삐를 잡으시고, 기운을 내서 눈을 번쩍 뜨시고, 편력 기사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 늠름함을 보여 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이렇게 맥이 빠지시다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둘시네아란 둘시네아는 사탄이 몽땅 잡아가라지요. 편력 기사 한 사람의 몸 성한 것이 이 땅의 온갖 마법과 둔갑보다 더 값지니까요."

"잠자코 있거라, 산초." 돈키호테가 그리 기운 없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자코 있으라니까. 마법에 걸리신 그 아씨를 두고 그런

불경한 말을 하지 마라. 아씨가 불운과 불행을 겪으시는 것은 오로지 내 탓이다. 악한 자들이 나를 시기하는 데서 아씨의 불운이 생겨났으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예전에 그분을 본 사람이 지금 그분을 본다면, 울지 않을 가슴이 어디 있겠어요?"

"너야 그렇게 말할 만하지,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너는 아씨의 아름다움을 흠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았으니까. 마법은 네 눈을 흐리거나 아씨의 아름다움을 네게서 가리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그 독기는 오직 나와 내 두 눈만을 겨누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산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너는 아씨의 아름다움을 잘못 그려 보였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너는 아씨의 눈이 진주 같다고 했는데, 진주 같아 보이는 눈은 귀부인의 눈이라기보다 도미의 눈이다. 내가 믿기로는 둘시네아의 눈은 푸른 에메랄드 같아야 하고, 길게 째져 있어야 하며, 눈썹 노릇을 하는 하늘의 무지개 두 개가 그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 그 진주는 눈에서 떼어 이로 옮겨라. 산초, 너는 틀림없이 눈을 이로 알고 헷갈린 것이다."

"다 그럴 수 있죠."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아씨의 못생김에 마음이 어지러우셨듯이 저도 아씨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어지러웠거든요. 그래도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기로 해요. 이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사는 이 고약한 세상, 악과 속임수와 못된 짓이 섞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찾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주인 나리, 다른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나리께서 어느 거인이나 다른 기사를 이기시고 둘시네아 아씨의 아름다우신 몸 앞에 가서 엎드리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이 가엾은 거인이나 가엾고 처량하게 진 기사가 아씨를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간이 꼴을 하고 아씨를 찾아 토보소를 헤매는 게 눈에 선해요. 길 한복판에서

아씨를 만나도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만큼이나 아씨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산초, 어쩌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법이 거기까지 미쳐서, 내가 이겨 아씨께 보낸 거인과 기사들에게서 둘시네아를 알아볼 눈마저 빼앗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 이겨서 아씨께 보내는 자들 가운데 한둘에게, 그 일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내게 돌아와 알리라고 명령해서, 그자들이 아씨를 보는지 못 보는지 시험해 보자꾸나."

"나리, 제 말씀은요" 산초가 맞받았다. "나리 말씀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꾀를 쓰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걸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아씨가 나리 한 분에게만 모습을 감추시는 거라면, 그 불운은 아씨보다는 나리 몫일 거예요. 하지만 둘시네아 아씨께서 몸 성하고 마음 편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 모험을 찾으며 되는대로 잘 꾸려 가면서 세월이 제 할 일을 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이런 병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병에도 세월이 가장 좋은 의사니까요."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에게 대답하려 했으나,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갖가지 희한한 인물과 형상을 가득 실은 짐수레 하나가 길을 가로질러 나타나는 바람에 대답하지 못했다. 노새를 몰며 수레꾼 노릇을 하는 것은 흉측한 악마였다. 수레는 차일도 거적 지붕도 없이 하늘에 훤히 드러난 채로 오고 있었다. 돈키호테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형상은 사람 얼굴을 한 죽음 그 자체였다. 그 곁에는 크고 알록달록하게 칠한 날개를 단 천사가 있었고, 한쪽에는 금으로 보이는 왕관을 머리에 쓴 황제가 있었으며, 죽음의 발치에는 쿠피도라고 부르는 신이 눈가리개는 하지 않았지만 활과 화살통과 화살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 철모나 투구 대신 갖가지 빛깔의 깃털을 가득 꽂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옷차림도 얼굴도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느닷없이 보게 되자 돈키호테는 얼마간 마음이 어지러웠고 산초는 가슴에 겁이 들어찼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무슨 새롭고 위험한 모험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믿고 곧 기뻐했고, 그 생각에 어떤 위험에든 덤벼들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짐수레 앞을 가로막아 서서 높고 위협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레꾼이든 마부든 악마든, 네가 무엇이든 간에, 네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네 마차에 싣고 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체 말고 말하라. 그것은 흔히 쓰는 짐수레라기보다 카론의 나룻배처럼 보이는구나."

그러자 악마가 수레를 멈추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나리, 저희는 앙굴로 엘 말로 극단의 배우들입니다. 오늘이 성체 축일 팔일 축제 기간이라 오늘 아침 저 언덕 너머에 있는 마을에서 종교극 「죽음의 궁정」을 공연했고, 오늘 오후에는 여기서 보이는 저 마을에서 공연을 해야 합니다.[1] 거리가 하도 가까워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입는 수고를 덜려고, 공연하던 옷을 입은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 젊은이는 죽음 역을 맡았고, 저 사람은 천사, 극단 우두머리의 아내인 저 여자는 왕비, 저 사람은 병사, 저이는 황제 역이고, 저는 악마 역입니다. 저는 이 극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이 극단에서 주역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에 관해 나리께서 그 밖에 또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악마라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편력 기사의 믿음을 걸고 말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수레를 보자마자 나는 무슨 큰 모험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소. 이제 보니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면 손으로 만져 보아야 하는구려. 잘들 가시오, 착한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잔치를 벌이시오. 그리고 내가 그대들에게 쓸모가 될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분부하시오. 기꺼운 마음으로 해

드리겠소. 나는 어려서부터 가면극을 좋아했고, 젊은 시절에는 유랑 극단만 보면 눈이 그리로 쏠렸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운명의 장난으로 극단 사람 하나가 그리로 왔다. 그는 방울을 잔뜩 단 어릿광대 옷을 입고 막대 끝에 부풀린 소 오줌보 세 개를 매달고 있었는데,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돈키호테에게 다가오더니 막대를 휘두르며 오줌보로 땅을 두드리고 방울을 울리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그 고약한 꼴에 로시난테가 어찌나 놀랐던지 재갈을 이빨로 물고는 들판으로 내달렸는데, 돈키호테는 말을 붙잡아 세울 힘이 없었고 그 말이 달리는 품은 그 뼈대가 일찍이 약속한 적 없는 날램이었다. 주인이 말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서 뛰어내려 부리나케 도우러 갔다. 그러나 산초가 다다랐을 때 주인은 이미 땅바닥에 나뒹굴어 있었고, 그 곁에는 주인과 함께 쓰러진 로시난테가 있었다. 로시난테가 기운을 뽐내고 대담하게 굴면 늘 맞는 끝이요 다다르는 자리였다.

그런데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달려가느라 제 짐승을 내버려 두자마자, 오줌보를 든 춤꾼 악마가 잿빛 당나귀 위로 뛰어올라 오줌보로 두들겼다. 매 맞는 아픔보다 겁과 소리 때문에 당나귀는 잔치를 벌이려는 마을 쪽으로 들판을 날듯이 내달렸다. 산초는 제 잿빛 당나귀가 달아나는 것과 주인이 떨어진 것을 번갈아 보며 두 가지 급한 일 가운데 어느 쪽부터 달려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결국 착한 종자요 착한 하인답게, 당나귀를 아끼는 마음보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겼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줌보가 허공으로 쳐들렸다가 잿빛 당나귀의 엉덩이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에게는 애간장이 타고 죽을 만큼 놀라는 일이었고, 그 매가 제 당나귀 꼬리털 한 올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제 눈동자에 떨어지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괴로움 속에서 그는 돈키호테가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주인은 자기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한 꼴이 되어 있었다. 산초는 주인을 로시난테 위에 올려 앉히며 말했다.

"나리, 악마가 잿빛 당나귀를 데려갔어요."

"무슨 악마 말이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오줌보 든 놈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되찾아 오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놈이 당나귀를 끌고 지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감옥에 틀어박힌다 해도 말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산초. 짐수레는 천천히 가니, 그 수레의 노새들로 잿빛 당나귀를 잃은 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애쓰실 것 없어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세요. 제가 보기엔 악마가 벌써 잿빛 당나귀를 놓아줬고, 당나귀는 제 살던 데로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그러했다. 악마는 돈키호테와 로시난테를 흉내라도 내듯 잿빛 당나귀와 함께 넘어지자 걸어서 마을로 가 버렸고, 당나귀는 제 주인에게 돌아왔다.

"그래도"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악마의 무례함을 짐수레에 탄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벌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황제라 해도 말이다."

"나리, 그런 생각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리고 제 충고를 들으세요. 광대들하고는 절대로 시비를 붙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귀여움을 받는 족속이거든요. 저는 살인을 두 건이나 저질러 갇혔던 배우가 소송비 한 푼 물지 않고 풀려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나리, 알아 두세요. 그 사람들은 쾌활하고 즐거움을 주는 족속이라 다들 그 사람들 편을 들어 주고, 다들 감싸 주고 도와주고 아껴 줘요. 왕실 허가를 받은 정식 극단 사람들이면 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다들, 아니 거의 다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꼭 왕자님들 같거든요."

"그래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온 인류가 그놈 편을 든다 해도, 그 광대 악마가 큰소리치며 가 버리게 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이미 마을 가까이에 이른 짐수레 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목청껏 외치며 갔다.

"멈추어라, 게 섰거라, 흥겹고 신바람 난 무리여. 편력 기사들의 종자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와 짐승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똑똑히 깨우쳐 주리라."

돈키호테의 외침이 어찌나 컸던지 짐수레에 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다. 그들은 말을 들어 보고 말하는 자의 속셈을 짐작하고는 순식간에 죽음이 짐수레에서 뛰어내렸고, 그 뒤를 이어 황제와 수레꾼 악마와 천사가 뛰어내렸으며, 왕비도 쿠피도 신도 남지 않았다. 모두 돌멩이를 잔뜩 집어 들고 한 줄로 늘어서서, 자갈 끝으로 돈키호테를 맞이할 채비를 했다. 돈키호테는 그들이 그토록 늠름한 진을 치고 팔을 쳐들어 돌을 힘껏 던질 기세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당겨 멈추었고, 제 몸이 덜 위험하게 어떻게 덤벼들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멈춰 있는 사이에 산초가 다가왔다. 산초는 주인이 그 잘 짜인 진으로 덤벼들 기세인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런 일을 꾀하는 건 미친 짓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주인 나리, 생각해 보세요. 냇가 자갈로 끓인 수프를 모자가 날아가도록 퍼부어 대는 데는, 청동 종 속에 몸을 밀어 넣고 틀어박히는 것 말고는 그걸 막아 낼 방어 무기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해요. 죽음이 있고, 황제들이 몸소 싸우고,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가 다 거들어 주는 군대에 사람 혼자 덤벼드는 건 용기라기보다 무모한 짓이에요. 이 생각으로도 가만히 계실 마음이 안 드신다면, 이건 확실히 알아 두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저기 있는 놈들이 다 임금이니 왕자니 황제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편력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네가 이미 굳힌 내 뜻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꾸어야 마땅한 바로 그 점을 짚었구나.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나는 기사로 서임받지 않은 자에게 칼을 뽑을 수도 없고 뽑아서도 안 된다. 산초, 네 잿빛 당나귀가 당한 모욕을 앙갚음하고 싶거든 그건 네 몫이다. 나는 여기서 소리쳐 너를 돕고 이로운 가르침을 일러 주마."

"나리, 누구한테든" 산초가 대답했다. "앙갚음할 까닭이 없어요. 모욕을 앙갚음하는 건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저는 제 당나귀를 잘 달래서, 그 녀석이 받은 모욕을 제 뜻에 맡기게 할 거예요. 제 뜻은 하늘이 주시는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평화롭게 사는 거고요."

"그것이 네 결심이라면"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착한 산초, 슬기로운 산초,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산초, 진실한 산초야, 이 허깨비들은 내버려 두고 더 낫고 더 값진 모험을 찾으러 돌아가자꾸나. 내가 보기에 이 땅은 많은, 그것도 아주 기적 같은 모험이 모자라지 않을 땅이니라."

그는 곧 고삐를 돌렸고, 산초는 잿빛 당나귀를 데리러 갔으며, 죽음은 날아다니는 제 무리를 모두 거느리고 짐수레로 돌아가 길을 이어 갔다.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한 이로운 충고 덕분에 죽음의 짐수레라는 무시무시한 모험은 이렇게 다행스럽게 끝났다. 그런데 이튿날 돈키호테에게는 사랑에 빠진 편력 기사와 얽힌 또 다른 모험이 일어났으니, 앞의 것 못지않게 마음을 졸이게 하는 모험이었다.

---

1. 성체 축일(목요일) 뒤 여드레 동안 에스파냐 곳곳에서 수레에 무대를 꾸며 성체 신비를 다룬 단막 종교극(아우토 사크라멘탈)을 공연했다. 「죽음의 궁정」은 16세기

중엽에 나온 이런 종교극이고, 앙굴로 엘 말로는 세르반테스 시대에 실제로 이름이 알려진 극단 우두머리다.

제12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용감한 거울의 기사와 마주친 기이한 모험

죽음과 맞닥뜨린 날의 다음 밤을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는 높고 그늘진 나무들 밑에서 보냈고,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설득되어 잿빛 당나귀에 실어 온 먹을거리를 먹었는데, 저녁을 먹는 동안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제가 만약 나리께서 맨 처음 끝내시는 모험의 전리품을 기쁜 소식의 상으로 골랐더라면, 세 암말의 새끼들 대신에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바보 꼴이 됐겠어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손안의 새 한 마리가 낫다니까요."

"그렇지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내가 바라던 대로 덤벼들게 네가 놔두었더라면, 적어도 황후의 금관과 쿠피도의 알록달록한 날개는 네 전리품으로 돌아갔을 게다. 내가 그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네 손에 쥐여 주었을 테니까."

"광대 황제들의 왕홀이나 왕관이"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순금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금박 쪼가리나 양철 조각이죠."

"그건 맞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연극의 의상이 진짜일 까닭이 없고, 연극 자체가 그렇듯이 꾸며 낸 것이요 겉모습뿐이어야 옳으니까. 그런데 산초, 나는 네가 그 연극을 좋게 여기고 아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연극을 공연하는 사람들과 연극을 짓는 사람들도 말이다. 그들은 모두 나라에 큰 이로움을 주는 도구이고,

걸음마다 우리 앞에 거울을 세워 주어 그 속에서 사람의 삶이 하는 일들이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될 것인지를 연극과 배우들만큼 생생하게 보여 주는 비유는 없다. 아니라면 말해 보아라. 너는 임금과 황제와 교황, 기사와 귀부인과 그 밖의 갖가지 인물들이 나오는 연극을 본 적이 없느냐? 하나는 건달 노릇을 하고, 하나는 사기꾼, 이 사람은 장사꾼, 저 사람은 병사, 또 하나는 슬기로운 바보, 또 하나는 바보 같은 연인 노릇을 한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의상을 벗으면 배우들은 모두 똑같아진다."

"네, 본 적 있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세상이라는 연극과 그 살림살이에서도 일어난다. 거기서 어떤 이는 황제 노릇을 하고 어떤 이는 교황 노릇을 하며, 결국 연극에 나올 수 있는 온갖 인물 노릇을 다 한다. 그러나 끝에 이르면, 곧 목숨이 다하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던 옷을 모두에게서 벗겨 내고, 그들은 무덤 속에서 똑같아진다."

"멋진 비유네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이런저런 데서 들어 보지 못했을 만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체스 놀이 비유도 그렇잖아요. 놀이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말마다 제 몫의 일이 따로 있지만, 놀이가 끝나면 다 섞이고 모이고 뒤엉켜서 자루 하나에 쓸어 넣어지니까요. 그게 꼭 목숨을 무덤에 쓸어 넣는 것과 같지요."

"산초, 너는 날이 갈수록" 돈키호테가 말했다. "덜 어리석어지고 더 슬기로워지는구나."

"그럼요, 나리의 슬기가 조금은 제게 묻어 오기 마련이죠." 산초가 대답했다. "본디 메마르고 거친 땅도 거름을 주고 갈아 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제 말은요, 나리와 나눈 이야기가 제 메마른 머리라는 거친 땅 위에 떨어진 거름이었고, 제가 나리를 모시고 함께 지낸 세월이 그 땅을 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복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나리께서 제 바싹 마른 머리에 가꾸어 주신 좋은 가르침의 오솔길에서 벗어나거나 미끄러지지 않을 그런 열매를 말이에요."

돈키호테는 산초의 점잔 빼는 말투에 웃으면서도, 그가 사람이 나아졌다고 한 말이 참말 같다고 여겼다. 산초는 이따금 돈키호테가 놀랄 만큼 말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산초가 시험이라도 치르듯 궁정 사람처럼 말하려 들 때면 언제나, 아니 거의 언제나 제 단순함의 산꼭대기에서 무지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말을 끝냈고, 그가 가장 우아하고 기억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속담을 끌어올 때였다. 그 속담이 지금 하는 이야기에 꼭 맞든 안 맞든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어 오면서 이미 보았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밤이 깊었다. 산초는 잠이 오면 늘 하던 말대로 눈의 수문을 내리고 싶어져서, 잿빛 당나귀의 짐을 풀어 주고 마음껏 풀을 뜯게 했다. 로시난테의 안장은 벗기지 않았는데, 들판을 떠돌거나 지붕 밑에서 자지 않는 동안에는 로시난테의 마구를 풀지 말라는 것이 주인의 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재갈을 벗겨 안장 앞턱에 걸어 두는 것은 편력 기사들이 예로부터 세우고 지켜 온 관습이지만, 말에게서 안장을 벗기다니? 어림없는 일이었다! 산초는 그대로 했고, 로시난테에게도 잿빛 당나귀와 똑같은 자유를 주었다. 잿빛 당나귀와 로시난테의 우정은 어찌나 남다르고 끈끈했던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 참된 이야기의 작가가 그 우정을 다룬 장을 따로 몇 장 썼다고 한다. 그러나 그토록 영웅적인 이야기에 걸맞은 품위와 체통을 지키려고 그 장들을 이 이야기에 싣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작가는 가끔 이 결심을 깜빡 잊고 이렇게 쓴다. 두 짐승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몸을 긁어 주러 다가갔고, 그러다 지치고 흡족해지면 로시난테가 잿빛 당나귀의 목 위로 제 목을 가로 걸쳤는데(반대쪽으로 반 바라도 넘게 삐져나왔다), 그렇게 둘이 땅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사흘씩, 적어도 사람들이 놔두는 동안 내내, 아니면 배고픔에 못 이겨 먹이를 찾으러 나서지 않는 동안 내내 그대로 서 있곤 했다고 한다.

내 말은 이렇다. 작가가 두 짐승의 우정을 니소스와 에우리알로스, 필라데스와 오레스테스의 우정에 견주었다고 써 두었다고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두 순한 짐승의 우정이 얼마나 굳건했을지를 보고 온 세상이 감탄할 만했고, 서로 우정을 지킬 줄 그토록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만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생겼다.

벗에게 벗이란 없다네.
놀이 갈대가 창으로 바뀌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노래했다.

벗과 벗 사이에도 빈대가, 운운.

작가가 이 짐승들의 우정을 사람의 우정에 견주었다고 해서 길을 좀 벗어났다고 여기는 이는 없기 바란다. 사람들은 짐승들에게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황새에게서는 관장을, 개에게서는 토하기와 은혜 갚기를, 두루미에게서는 깨어 지키기를, 개미에게서는 앞날 대비를, 코끼리에게서는 정숙을, 그리고 말에게서는 충성을 배웠다.

마침내 산초는 코르크참나무 밑동에서 잠이 들었고, 돈키호테는 튼튼한 털가시나무 밑동에서 꾸벅꾸벅 졸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나는 소리에 돈키호테는 잠이 깼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살피고 귀를 기울였다. 보니 말을 탄 사내 둘이었는데, 하나가 안장에서 미끄러지듯 내리더니 다른 하나에게 말했다.

"내려라, 벗아. 말들의 재갈을 벗겨 주어라. 내가 보기에 이곳에는 말들이 먹을 풀도 넉넉하고, 내 사랑의 생각들에 필요한 고요와 외로움도 넉넉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땅바닥에 몸을 눕히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그가 털썩 몸을 던지자 걸치고 온 갑옷이 소리를 냈는데, 돈키호테는 그것을 뚜렷한 표지로 삼아 그가 편력 기사임이 틀림없다고 알아차렸다. 그는 자고 있는 산초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고 적잖이 애를 써서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 산초, 모험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좋은 모험을 주시기를."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주인 나리, 그 모험 마님께서는 어디 계신대요?"

"어디냐고,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눈을 돌려 보아라. 저기 편력 기사 하나가 누워 있는 게 보일 게다. 내가 짐작하기로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은 모양이다. 말에서 몸을 던지듯 내려 땅바닥에 드러눕는데 얼마간 절망한 기색이 보였고, 쓰러질 때 갑옷이 삐걱거렸거든."

"그런데 나리께서는 어디를 보고" 산초가 말했다. "그게 모험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온전한 모험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모험의 시작이라는 거지. 모험이란 이렇게 시작되는 법이니까. 그런데 들어 보아라. 보아하니 류트인지 비우엘라인지 줄을 고르고 있구나. 침을 뱉고 목을 가다듬는 것을 보니 무슨 노래를 부를 채비를 하는 게 틀림없다."

"정말 그러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사랑에 빠진 기사인가 봐요."

"편력 기사치고 사랑에 빠지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들어 보자. 노래를 부른다면 실 끝을 보고 그의 생각의

실타래를 알아낼 수 있을 게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혀가 말하는 법이니라."

산초는 주인에게 대꾸하려 했으나,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숲의 기사의 목소리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이 넋을 잃고 듣고 있자니, 그가 부른 것은 이런 소네트였다.

"아씨여, 내가 따를 길 하나를 정해 주소서,
그대 뜻에 꼭 맞추어 마름질한 길을.
내 뜻은 그 길을 그토록 받들어
한 치도 그 길에서 어긋나지 않으리라.
내 괴로움을 입 다물고 삼키다가
죽기를 바라신다면, 나를 이미 끝난 몸으로 셈하소서.
그 괴로움을 전에 없던 모양으로
아뢰기를 바라신다면, 사랑 자신이 말하게 하리라.
나는 서로 맞선 것을 견디도록 지어졌으니
무른 밀랍이요 또 단단한 다이아몬드로다.
사랑의 법도에 내 영혼을 맞추노라.
무르든 굳세든 있는 그대로 이 가슴을 바치니,
마음 내키는 대로 새기시든 찍으시든 하소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기로 맹세하노라."

숲의 기사는 가슴 깊은 데서 끌어 올린 듯한 「아!」 소리와 함께 노래를 끝냈고, 조금 뒤에 괴롭고 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무정한 여인이여! 더없이 고귀한 반달리아의 카실데아여, 그대의 포로인 이 기사가 끝없는 떠돌이 길과 거칠고 모진 고난 속에서 닳아 없어지고 끝나도록 그대가 내버려 두다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나바라의 기사들, 레온의 기사들, 타르테소스의 기사들, 카스티야의 기사들, 그리고 마침내 라만차의

기사들까지 모두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정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으로도 아직 모자란단 말이오?"

"그건 아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라만차 사람인데 그런 것을 인정한 적이 없고, 내 아씨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해치는 일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산초, 너도 보다시피 이 기사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들어 보자. 어쩌면 더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그럴 거예요." 산초가 맞받았다. "한 달 내리 넋두리를 늘어놓을 기세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숲의 기사는 가까이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를 얼핏 듣고는 더 한탄을 늘어놓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낭랑하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오? 혹시 흡족한 이들의 무리요, 아니면 괴로운 이들의 무리요?"

"괴로운 이들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게 오시오." 숲의 기사가 대답했다. "슬픔 그 자체, 괴로움 그 자체에 다가온다고 여기시오."

돈키호테는 그토록 다정하고 점잖은 대답을 듣고 그에게 다가갔고, 산초도 똑같이 했다.

넋두리하던 기사는 돈키호테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여기 앉으시오, 기사 나리. 그대가 기사이고 편력 기사도를 업으로 삼는 이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기에는, 외로움과 밤이슬이 벗이 되어 주는 이곳에서 그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이곳이야말로 편력 기사들의 타고난 잠자리요 제격인 거처니까."

이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기사요. 그것도 그대가 말하는 그 업을 지닌 기사요. 내 영혼에는 슬픔과 불운과 불행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지만, 그렇다고 남의 불행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내 영혼에서 달아나지는 않았소. 그대가 조금 전에 읊은 것을 듣고, 그대의 불행은 사랑의 불행, 그러니까 그대가 한탄 속에서 이름을 부른 그 아름답고 무정한 여인에게 품은 사랑에서 온 불행이라고 짐작했소."

이런 말이 오갈 때 두 사람은 이미 딱딱한 땅바닥에 나란히 앉아, 동이 트자마자 서로 머리통을 터뜨릴 사이가 아니라는 듯이 사이좋게 어울리고 있었다.

"기사 나리, 혹시" 숲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물었다. "사랑에 빠지셨소?"

"혹시가 아니라 불행히도 그렇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제자리를 잘 찾은 생각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불행이라기보다 은총으로 여겨야 마땅하오."

"그것은 맞는 말이오." 숲의 기사가 맞받았다. "업신여김이 우리의 이성과 분별을 어지럽히지만 않는다면 말이오. 업신여김이 쌓이면 앙갚음처럼 보이니까."

"나는 내 아씨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럼요, 없고말고요." 바로 곁에 있던 산초가 말했다. "우리 아씨는 순한 어린 암양 같으시거든요. 돼지기름보다 더 말랑하세요."

"이 사람이 그대의 종자요?" 숲의 기사가 물었다.

"그렇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주인이 말하는 자리에서 감히 입을 여는 종자는" 숲의 기사가 맞받았다. "본 적이 없소. 적어도 저기 있는 내 종자는 제 아비만큼이나

다 큰 녀석인데도, 내가 말하는 자리에서 입술 한 번 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맹세코" 산초가 말했다. "저는 말을 했고요, 누구 못지않게 아주……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긴 여기서 그만두죠. 휘저을수록 더 고약해지는 법이니까요."

숲의 종자가 산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우리 둘은 종자답게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할 수 있는 데로 갑시다. 우리 주인 나리들은 여기 두고, 서로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뿔을 맞대게 놔둡시다. 틀림없이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날이 밝고 말걸요."

"좋아요." 산초가 말했다. "그럼 제가 누군지 형씨한테 말해 드리죠. 제가 가장 말 많은 종자들하고 한 축에 낄 수 있는지 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두 종자는 자리를 옮겼다. 그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는 그 주인들 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진지했던 만큼이나 우스웠다.

제13장 숲의 기사 모험이 이어지고 두 종자가 나눈 슬기롭고 새롭고 부드러운 대화

기사들과 종자들은 따로 갈라져서, 종자들은 저마다 살아온 이야기를, 기사들은 저마다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먼저 젊은 종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다음에 주인들의 이야기를 이어 가니, 주인들에게서 조금 떨어지자 숲의 종자가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리, 우리처럼 편력 기사의 종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보내고 사는 삶은 참 고달픈 삶이에요. 정말이지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지요.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 첫 조상들에게 내리신 저주 가운데 하나고요."

"몸이 꽁꽁 얼어야 빵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죠." 산초가 덧붙였다. "편력 기사도의 가엾은 종자들보다 더 덥고 더 추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먹기라도 하면 그나마 덜 고약하죠. 빵이 있으면 시름도 덜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나 이틀씩 아침밥도 못 먹고 지나가요. 불어오는 바람이나 먹는다면 모를까."

"그건 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숲의 종자가 말했다. "상을 받으리라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종자가 모시는 편력 기사가 아주 지독하게 운이 나쁘지만 않다면, 적어도 몇 판 지나지 않아 어느 섬을 다스리는 멋진 자리나 보기 좋은 백작령 하나를 상으로 받게 될 테니까요."

"저는" 산초가 맞받았다. "어느 섬 하나 다스리는 자리면 족하다고 벌써 주인 나리께 말씀드렸어요. 주인 나리는 아주 너그럽고 후한 분이라 여러 번 이런저런 때에 그걸 약속해 주셨고요."

"저는" 숲의 종자가 말했다. "참사회원 자리 하나면 제 섬김에 대한 상으로 만족할 거예요. 주인 나리께서 벌써 그걸 주라고 분부해 두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자리로요!"

"형씨네 주인 나리는" 산초가 말했다. "성직자풍 기사인가 보네요. 그러니 착한 종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인 나리는 그냥 평신도예요. 하기야 슬기로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속셈이 고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인 나리께 대주교가 되도록 애써 보라고 권하려던 때가 기억나긴 해요. 그런데 주인 나리는 황제 말고는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혹시 나리께서 교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어쩌나 하고 벌벌 떨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성직록을 받을 만한 깜냥이 못 되거든요. 형씨한테 알려 드리는데, 저는 겉보기엔 사람이지만 교회 일에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정말 형씨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숲의 종자가 말했다. "섬을 다스리는 자리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비뚤어진 자리도 있고, 가난한 자리도 있고, 우울한 자리도 있어요. 결국 가장 반듯하고 잘 짜인 자리라도 무거운 근심과 성가신 일들을 짊어지고 오는데, 그걸 제 어깨에 지는 건 그 자리를 뽑은 불운한 사람이에요. 이 저주받은 종살이를 업으로 삼은 우리는 차라리 집으로 물러나 거기서 더 편한 일, 말하자면 사냥이나 낚시를 하며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제 마을에서 소일할 비쩍 마른 말 한 마리, 사냥개 두어 마리, 낚싯대 하나 없을 만큼 가난한 종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런 건 하나도 모자라지 않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비쩍 마른 말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주인 나리 말보다 두 배는 값나가는

당나귀가 있거든요. 그 당나귀를 그 말하고 바꾼다면, 그 위에 보리를 네 파네가나 얹어 준다 해도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제게 재수 없는 명절을, 그것도 맨 먼저 오는 명절로 주시라지요. 형씨는 제 잿빛 당나귀 값어치를 우습게 여기시겠지만요. 잿빛이 제 당나귀의 털빛이거든요. 사냥개야 모자랄 리가 없죠. 우리 마을엔 남아돌 만큼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냥은 남의 돈으로 할 때가 가장 재미있는 법이고요."

"참말로 정말로"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종자 나리, 저는 이 기사들의 이런 술주정 같은 짓에서 손을 떼고 제 마을로 물러나 제 어린것들을 기르기로 마음먹고 작정했어요. 동방의 진주 같은 아이가 셋 있거든요."

"저는 둘 있어요." 산초가 말했다. "교황님 앞에 몸소 내놓아도 될 만한 애들이죠. 특히 딸아이 하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백작 부인으로 기르고 있어요. 그 애 어미는 싫어하지만요."

"백작 부인으로 자라고 있는 그 아가씨는 몇 살인데요?" 숲의 종자가 물었다.

"열다섯 살, 두 살쯤 더하거나 빼거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창처럼 키가 크고, 4월 아침처럼 싱싱하고, 짐꾼만큼 힘이 세요."

"그만한 자질이면"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백작 부인뿐 아니라 푸른 숲의 요정도 되겠네요. 오, 화냥년의 딸, 화냥년 같으니, 그 계집 기운 한번 대단하겠는데요!"

이 말에 산초가 조금 뿌루퉁해져서 대답했다.

"그 애는 화냥년이 아니고, 그 애 어미도 화냥년이 아니었고, 하느님이 원하시면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둘 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 좀 점잖게 하세요. 예의 그 자체인 편력 기사들 틈에서 자란 분 치고는 그런 말은 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네요."

"오, 종자 나리, 칭찬하는 말을" 숲의 종자가 맞받았다.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투우장에서 어느 기사가 소에게 창을 멋지게

꽃거나 누가 무슨 일을 잘 해내면 사람들이 흔히 '오, 화냥년의 자식, 참 잘도 해냈다!' 하고 말하는 걸 모르세요? 그런 자리에서는 욕처럼 보이는 그 말이 대단한 칭찬이에요. 나리, 부모가 그런 찬사를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는 아들딸이라면 차라리 내치시오."

"그래요, 내치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형씨는 저와 제 자식들과 제 마누라한테 화냥년 소리를 한 무더기 퍼부어도 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 하는 말은 다 그런 찬사를 받을 만큼 대단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시 보려고 저는 하느님께 저를 대죄에서 건져 주십사 빌어요. 이 위험한 종자 노릇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같은 일일 테고요. 저는 이 노릇에 두 번째로 빠져들었는데, 어느 날 시에라 모레나 한복판에서 주운 두카도 금화 백 닢이 든 돈주머니에 맛을 들이고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마가 제 눈앞에 여기, 저기, 아니 여기 말고 저기에 도블론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내밀어 보이는데, 걸음마다 그걸 손으로 만지고, 끌어안고, 집으로 가져가고, 이자 놓고, 연금을 세우고, 왕자처럼 사는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기사라기보다 미치광이에 가깝다는 걸 제가 잘 아는 이 얼간이 주인 밑에서 겪는 고생이 다 쉽고 견딜 만해져요."

"그래서"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욕심이 자루를 찢는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미치광이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우리 주인보다 더한 미치광이는 없어요. '남 걱정이 당나귀를 죽인다'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기사가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게 해 주겠다고 스스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찾고 나면 오히려 제 주둥이를 칠지도 모를 것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사랑에 빠진 분인가요?"

"그래요." 숲의 종자가 말했다. "반달리아의 카실데아라는 아씨한테요. 온 세상을 뒤져도 없을 만큼 날것처럼 모질고 바싹 구운

것처럼 매정한 아씨예요. 그런데 그 아씨가 저는 발이 모짊 쪽 발만은 아니에요. 더 큰 속임수들이 그 아씨 뱃속에서 꿀꿀거리고 있으니까요. 몇 시간 안 가서 그게 드러날 거예요."

"아무리 평평한 길이라도" 산초가 맞받았다. "걸려 넘어질 돌부리나 패인 웅덩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에요. 남의 집에서도 잠두를 삶지만 우리 집에선 가마솥째 삶는다고요. 광기는 분별보다 길동무와 식객을 더 많이 거느리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흔히들 하는 말대로 고생할 때 길동무가 있으면 그 고생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형씨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네요. 형씨도 우리 주인만큼 바보인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바보지만 용감하지요."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바보이거나 용감한 것보다 더 교활하고요."

"그건 우리 주인이 아니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말은, 우리 주인한테는 교활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항아리 같은 영혼을 지니셨죠. 누구한테도 해코지할 줄 모르고 모두한테 잘해 줄 줄만 알고, 못된 마음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어요. 어린애라도 한낮에 지금이 밤이라고 믿게 할 수 있을걸요. 이렇게 순진한 분이라 저는 제 염통 속살처럼 그분을 아끼고, 그분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셔도 그분을 떠날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형씨, 아니 나리" 숲의 종자가 말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발을 잘 맞춰 물러나서 제 살던 데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모험을 찾는 사람들이 늘 좋은 모험을 찾는 건 아니니까요."

산초가 보기에 끈끈하고 좀 마른 침 같은 것을 자꾸 뱉어 대자, 인정 많은 숲의 종자는 그것을 보고 알아채고는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나 봐요. 그런데 저한테 혀 떼어 내는 약이 있어요. 제 말 안장 앞턱에 매달아 두었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더니 조금 뒤에 커다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와 길이가 반 바라나 되는 고기 파이 하나를 들고 돌아왔는데, 과장이 아닌 것이 그것은 흰 토끼 고기 파이였는데 어찌나 컸던지 산초는 손을 대보고 새끼 염소가 아니라 다 큰 숫염소 고기인 줄 알았다. 그것을 보고 산초가 말했다.

"아니, 나리, 형씨는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그럼 뭘 생각하셨어요?" 상대가 대답했다. "제가 혹시 물이나 양털만 지고 다니는 하찮은 종자인 줄 아세요? 제 말 엉덩이에는 장군이 길을 떠날 때 챙기는 것보다 더 나은 먹을거리가 실려 있어요."

산초는 권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먹었고, 어둠 속에서 고삐 매듭만 한 덩어리를 꿀꺽꿀꺽 삼키며 그가 말했다.

"형씨야말로 충직하고 미덥고, 빈틈없이 잘 돌아가고, 통 크고 대단한 종자네요. 이 잔칫상만 봐도 알겠어요. 마법으로 여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해도 적어도 그렇게 보이네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쩨쩨하고 불운해서 안장 자루에 치즈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어찌나 딱딱한지 거인의 머리통이라도 깨뜨릴 수 있을 정도고, 그 곁에는 쥐엄나무 열매 네 다스와 개암과 호두가 그만큼 있을 뿐이에요. 다 우리 주인의 쪼들리는 살림, 그리고 편력 기사는 말린 과일과 들풀 말고는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주인의 생각과 그분이 지키는 규율 덕분이죠."

"맹세코 형씨" 숲의 종자가 맞받았다. "제 배는 엉겅퀴 줄기나 돌배나 산속 풀뿌리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 주인 나리들이야 그 생각이며 기사도 법도며 알아서들 하시라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분부하신 것을 잡수시라죠. 저는 찬 음식 그릇을 지니고 다니고, 혹시

모르니까 이 가죽 부대를 안장 앞턱에 매달고 다녀요. 이 부대는 저를 어찌나 따르는지, 또 저는 이걸 어찌나 아끼는지, 천 번 입 맞추고 천 번 끌어안지 않고 지나가는 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부대를 산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산초는 그것을 쳐들어 입에 대고는 한 시간의 4분의 1 동안 별들을 바라보았고, 다 마시고 나자 고개를 한쪽으로 툭 떨구며 크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오, 이 화냥년 자식 같은 놈, 어쩌면 이렇게 진국이냐!"

"이것 보시오." 산초가 내뱉은 「화냥년 자식」 소리를 듣고 숲의 종자가 말했다. "그대도 이 포도주를 화냥년 자식이라고 부르며 칭찬하지 않았소?"

"제 말은요" 산초가 대답했다. "칭찬하려는 뜻으로 그러는 거라면 누구를 화냥년 자식이라고 불러도 욕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리, 나리께서 가장 아끼는 것의 목숨을 걸고 말해 보세요. 이 포도주, 시우다드 레알 거죠?"

"대단한 술 감별꾼이오!"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정말 다른 데 것이 아니고, 해묵은 지도 몇 해 되었소."

"제가 누군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 정도는 우습게 알지 마시오. 제가 그걸 알아맞히지 못할 줄 알았소? 종자 나리, 포도주를 가려내는 일에서 제가 어떤 포도주든 냄새만 맡게 해 주면 그 고장, 그 집안, 그 맛, 얼마나 오래갈지, 앞으로 맛이 어떻게 바뀔지, 포도주에 딸린 온갖 사정을 다 알아맞힐 만큼 크고 타고난 육감을 지녔다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놀랄 것 없어요. 우리 집안 아버지 쪽에 오랜 세월 라만차가 알았던 가장 뛰어난 술 감별꾼이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그 증거로 그 두 사람한테 있었던 일을 이제 말씀드리죠. 누가 그 두 사람에게 어느 술통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고, 그 포도주의 상태와 품질과 좋고 나쁨이 어떤지 의견을 물었대요. 한 사람은 혀끝으로 맛을

보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코에 갖다 대기만 했어요. 첫 사람은 그 포도주에서 쇠 맛이 난다고 했고, 둘째 사람은 그보다 염소 가죽 맛이 난다고 했지요. 주인은 술통이 깨끗하고 그 포도주에는 쇠 맛이나 염소 가죽 맛이 밸 만한 것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름난 두 감별꾼은 제 말을 굽히지 않았대요. 세월이 흘러 그 포도주가 팔렸고, 술통을 씻다가 그 안에서 염소 가죽 끈에 매달린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대요. 그러니 이런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이런 일에 의견을 내놓을 만한지 형씨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숲의 종자가 말했다. "모험이나 찾아다니는 짓은 그만두자는 거예요. 큰 빵이 있으니 과자는 찾지 말고, 우리 오두막으로 돌아갑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거기서 우리를 찾아내실 테니까요."

"우리 주인이 사라고사에 닿을 때까지는 모시겠어요. 그다음엔 우리 모두 서로 알아서 하게 되겠지요."

마침내 두 착한 종자는 어찌나 많이 이야기하고 어찌나 많이 마셨던지, 잠이 와서 그들의 혀를 묶고 목마름을 달래 주어야 했는데, 목마름을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둘은 거의 비어 버린 가죽 부대를 함께 붙든 채, 반쯤 씹다 만 음식을 입에 문 채 잠이 들었다. 그들은 잠시 그대로 두고, 숲의 기사가 슬픈 얼굴의 기사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기로 하자.

제14장 숲의 기사 모험이 이어진다

이야기는 돈키호테와 수풀의 기사가 주고받은 많은 말 가운데 숲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요컨대 기사 나리, 알아 두시기 바라오. 나의 운명, 아니 더 바르게 말하면 나의 선택이 나를 이끌어 비할 데 없는 반달리아의 카실데아를 사랑하게 했소. 그 아씨를 비할 데 없다고 부르는 것은, 몸의 늠름함에서나 신분과 아름다움의 드높음에서나 견줄 이가 없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카실데아는 나의 착한 생각과 정중한 소망에 대한 갚음으로, 헤라클레스의 계모가 그랬듯이 나를 수많은 갖가지 위험에 내몰았소. 위험 하나가 끝날 때마다 다음 위험이 끝나면 내 희망도 끝에 이르리라고 약속하면서 말이오. 그러나 내 고생은 이렇게 사슬처럼 이어져서 이제는 셀 수도 없고, 내 착한 소망을 이루어 줄 마지막 고생이 무엇일지 나도 모르겠소. 한번은 세비야의 그 이름난 거인 여자, 히랄다라는 여자에게 결투를 걸러 가라고 명령했소. 그 여자는 청동으로 지은 듯 용감하고 힘이 센데,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변덕스러운 여자요. 나는 가서 보고 이겼소. 그리고 그 여자를 한 주가 넘도록 꼼짝 못 하게 붙들어 두었으니, 그동안 북풍밖에 불지 않았기 때문이오. 또 한번은 용맹한 기산도의 황소들, 그 오래된 돌들을 들어 무게를 달아 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은 기사보다는 짐꾼들에게나 맡길 일이었소. 또 한번은 카브라의 깊은 구덩이로 몸을 던져 뛰어들라고 명령했소.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위험이었는데, 그 어두운 밑바닥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 오라는 것이었소.[1] 나는 히랄다를 멈춰 세웠고, 기산도의 황소들을 달아 보았고,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 그 심연에 감추어진 것을 밝은 데로 끌어냈소. 그런데도 내 희망은 죽고 또 죽었고, 아씨의 분부와 업신여김은 살고 또 살아 있소. 결국 아씨는 마지막으로, 에스파냐의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떠도는 모든 편력 기사들에게, 지금 살아 있는 모든 여인 가운데 아씨 한 분만이 아름다움에서 가장 뛰어나고 나는 온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사랑을 잘하는 기사라고 인정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소. 그 일을 하느라 나는 벌써 에스파냐의 대부분을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감히 내 말을 거스른 기사를 많이 이겼소.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이름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일대일 결투에서 이기고 그에게 그의 둘시네아보다 나의 카실데아가 더 아름답다고 인정하게 만든 일이오. 이 한 번의 승리로 나는 세상의 모든 기사를 이긴 셈이라고 여기오. 내가 말하는 그 돈키호테가 그들을 모두 이겼는데 내가 그를 이겼으니, 그의 영광과 명성과 명예가 내 몸으로 옮겨 왔기 때문이오.

"진 자가 이름 높을수록
이긴 자는 그만큼 더 영예롭도다.

"그러니 앞서 말한 돈키호테의 셀 수 없는 무훈은 이제 내 몫으로 넘어와 내 것이 되었소."

돈키호테는 숲의 기사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천 번이나 들었고, '거짓말이오'라는 말이 벌써 혀끝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짓말을 숲의 기사 제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려고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눌렀고,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다.

"기사 나리, 나리께서 에스파냐의 편력 기사들, 아니 온 세상의 편력 기사들 대부분을 이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러나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이기셨다는 것은 의심스럽소. 그를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소. 그를 닮은 사람은 드물지만 말이오."

"어째서 아니라는 거요?" 숲의 기사가 맞받았다. "우리를 덮은 하늘을 걸고 말하오. 나는 돈키호테와 싸워서 그를 이기고 항복을 받았소.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마르고, 팔다리가 길쭉하고 바싹 말랐으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코는 매부리처럼 조금 굽었고, 크고 검은 콧수염이 아래로 처져 있소. 그는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이름으로 싸움터를 누비고, 산초 판사라는 농사꾼을 종자로 데리고 다니며, 로시난테라는 이름난 말의 등을 누르고 그 고삐를 잡고 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때 알돈사 로렌소라 불리던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여인을 마음의 아씨로 모시고 있소. 내 아씨가 이름은 카실다이고 안달루시아 사람이라 내가 반달리아의 카실데아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요. 이 모든 표지로도 내 말이 참임을 믿게 하는 데 모자란다면, 여기 내 칼이 있소. 이 칼은 불신 그 자체에게도 믿음을 줄 것이오."

"진정하시오, 기사 나리."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말을 들으시오.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그대가 말하는 그 돈키호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벗이라는 것이오. 그 정도가 어떠냐 하면, 그를 나 자신과 다름없이 여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요. 그런데 그대가 그에 관해 말해 준 표지가 그토록 정확하고 틀림없으니, 그대가 이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소. 한편 나는 그것이 그 사람일 수 없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소. 다만 그에게는 마법사 원수가 많고 그 가운데 하나는 늘 그를 쫓아다니니, 그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의 모습을 하고 일부러 져 주어서, 그의 드높은 기사도가 이 땅의 알려진 온 세상에서 그에게 얻어 주고 쌓아 준 명성을 가로채려 한 것이라면 모를까. 이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이것도 알려 드리겠소. 그의 원수인 그 마법사들이 바로 이틀 전에 아름다운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모습과 몸을 천하고 비루한 촌 아낙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같은 수로 돈키호테도 바꾸어 놓았을 것이오. 이 모든 것으로도 내가 말하는 이 진실을 그대가 온전히 깨닫기에 모자란다면, 여기 바로 그 돈키호테가 있소. 그가 걸어서든 말을 타서든 그대 마음에 드는 대로 무기를 들고 이 진실을 지켜 낼 것이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벌떡 일어나 칼자루를 움켜쥐고, 숲의 기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기다렸다. 숲의 기사는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셈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담보 잡히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오. 돈키호테 나리, 둔갑한 그대를 한 번 이길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래 모습의 그대에게서 항복을 받으리라는 희망도 품을 만하오. 그러나 기사들이 노상강도나 건달처럼 어둠 속에서 무훈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으니, 해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날이 밝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결투의 조건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뜻에 맡겨져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시다. 다만 그 명령이 기사에게 걸맞은 것이어야 하오."

"그 조건과 약정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종자들은 잠이 덮쳤을 때 모습 그대로 코를 골고 있었다. 기사들은 종자들을 깨워 말들을 채비해 두라고 명령했다. 해가 뜨면 둘이서 피비린내 나는 일대일의, 그리고 엇갈린 결투를 벌일 참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고 산초는 어안이 벙벙하고 넋이 나갔고, 숲의 종자에게서 그 주인의 용맹한 무훈들을 들은 터라 제 주인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두 종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짐승들을 찾으러 갔는데, 세 마리 말과 잿빛 당나귀는 벌써 서로 냄새를 맡고는 모두 한데 모여 있었다.

가는 길에 숲의 종자가 산초에게 말했다.

"형씨, 알아 두세요. 안달루시아의 싸움꾼들은 무슨 싸움에서 대부 노릇을 맡으면, 자기가 맡은 사람이 싸우는 동안 손 놓고 빈둥거리지 않는 게 관습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건, 우리 주인들이 싸우는 동안 우리도 싸워서 서로 박살을 내야 한다는 걸 미리 알아 두시라는 거예요."

"종자 나리, 그 관습은" 산초가 대답했다. "형씨가 말하는 그 건달이나 싸움꾼들 사이에서는 통하고 지나갈지 몰라도, 편력 기사들의 종자들 사이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적어도 저는 우리 주인한테서 그런 관습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인은 편력 기사도의 법령을 모조리 외우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주인들이 싸우는 동안 종자들도 싸워야 한다는 게 참말이고 분명한 법령이라 쳐도, 저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런 온순한 종자한테 매겨진 벌금을 물겠어요. 장담하는데 밀초 두 리브라를 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 몇 리브라를 물겠어요. 벌써 둘로 쪼개졌다고 셈하고 있는 제 머리를 치료하느라 들 붕대 실값보다 그게 덜 들 테니까요. 또 있어요. 저는 칼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평생 칼을 차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라면 내가 좋은 방법을 알아요." 숲의 종자가 말했다. "내가 크기가 똑같은 베 자루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하나를 잡고 내가 하나를 잡아서 똑같은 무기로 자루 싸움을 합시다."

"그런 거라면 좋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 싸움이라면 다치기는커녕 서로 먼지나 털어 주겠네요."

"그렇게는 안 되죠." 상대가 맞받았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자루 속에 매끈하고 고운 자갈을 반 다스씩 넣어야 하거든요. 이쪽 무게나 저쪽 무게나 똑같게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우리 아버지의 몸을 걸고 말하는데" 산초가 대답했다. "머리통이 으스러지고 뼈가 헤나 가루처럼 바스러지지 않게 자루에 무슨 담비 털가죽이나 빗질한 솜뭉치라도 넣는 줄 아시오! 그렇지만 비단 고치로 채운다 해도, 나리, 알아 두세요. 저는 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인들이나 싸우라지요. 그러고 알아서들 하라지요. 우리는 마시고 살자고요. 세월이 알아서 우리 목숨을 거두어 갈 테니, 제철이 와서 다 익어 떨어지기도 전에 목숨이 끝나 버리게 할 입맛 돋우개를 찾아다닐 것 없어요."

"그래도" 숲의 종자가 맞받았다. "적어도 반 시간은 싸워야 해요."

"그건 안 돼요." 산초가 대답했다. "함께 먹고 마신 사람하고 아무리 작은 다툼이라도 벌일 만큼 저는 무례하지도 배은망덕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화도 나지 않고 성도 나지 않았는데, 대체 어느 귀신이 맨송맨송하게 싸움을 하겠어요?"

"그거라면" 숲의 종자가 말했다. "내가 넉넉한 방법을 내놓지요.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형씨한테 살그머니 다가가서 따귀를 서너 대 때려 형씨를 내 발치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씨가 겨울잠쥐보다 더 잠에 취해 있어도 화가 깨어날 거예요."

"그 패를 떼는 수라면" 산초가 대답했다. "저도 그 못지않은 수를 알아요. 제가 몽둥이를 하나 집어 들고, 형씨가 제 화를 깨우러 오기 전에 형씨의 화를 몽둥이찜질로 재워 버리는 거예요. 저세상에서가 아니면 깨어나지 못하게요. 저세상에서는 제가 누구한테 얼굴을 만지작거리게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지요. 그러니 저마다

제 화살이나 잘 살피라죠. 하기야 저마다 제 화를 재워 두는 게 가장 옳겠지만요. 아무도 남의 속은 모르는 법이고, 양털 깎으러 왔다가 제 털 깎이고 돌아가는 사람도 흔하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평화를 축복하시고 싸움을 저주하셨어요. 몰리고 갇히고 쫓긴 고양이도 사자로 바뀌는데, 사람인 저야 무엇으로 바뀔지 하느님이나 아시겠지요. 그러니 종자 나리, 지금부터 분명히 알려 드리는데, 우리 다툼에서 생기는 온갖 해와 손해는 다 형씨 책임이에요."

"좋아요." 숲의 종자가 맞받았다. "하느님께서 날을 밝혀 주시면 잘되겠지요."

이러는 사이에 벌써 온갖 빛깔의 작은 새들이 나무마다 수없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갖가지 즐거운 노래로 싱그러운 새벽에게 축하를 건네며 인사하는 듯했다. 새벽은 벌써 동녘의 문과 발코니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드러내며 머리카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물방울 진주를 털어 내고 있었고, 풀들은 그 부드러운 이슬에 몸을 적시며 저마다 희고 잔 진주알을 돋아나게 하고 비처럼 흩뿌리는 듯했다. 새벽이 오자 버드나무는 맛있는 만나를 방울방울 떨구었고, 샘들은 웃고, 시냇물은 속삭이고, 숲은 기뻐하고, 풀밭은 풍요로워졌다. 그런데 날이 밝아 사물을 보고 가려낼 수 있게 되자마자 산초 판사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숲의 종자의 코였다. 그 코는 어찌나 컸던지 거의 온몸에 그늘을 드리울 정도였다. 실제로 이야기에 따르면 그 코는 너무나 커다랗고, 가운데가 굽었으며, 온통 사마귀투성이에, 가지처럼 검붉은 빛깔이었고, 입보다 손가락 두 마디나 더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크기와 빛깔과 사마귀와 굽은 모양이 그의 얼굴을 어찌나 흉하게 만들었던지, 산초는 그를 보자마자 경기 들린 아이처럼 손발을 버둥거리기 시작했고, 그 괴물과 싸우려고 화를 깨우느니 차라리 따귀를 이백 대 맞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돈키호테는 상대를 바라보았는데, 상대는 벌써 투구를 쓰고 얼굴 가리개를 내려 두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가 팔다리가 굵고 키는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보았다. 그는 갑옷 위에 겉옷인지 망토인지를 걸쳤는데, 보아하니 아주 고운 금실로 짠 천이었고, 그 위에 반짝이는 거울 조각을 작은 달 모양으로 수없이 박아 놓아서 그를 몹시 멋지고 눈부시게 보이게 했다. 투구 위로는 초록과 노랑과 하양 깃털이 잔뜩 나부꼈고, 나무에 기대 세워 둔 창은 엄청나게 길고 굵었으며, 쇠를 벼린 창날이 한 뼘도 넘었다.

돈키호테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본 뒤, 보고 살핀 것으로 미루어 앞서 말한 기사가 대단한 힘을 지녔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산초 판사처럼 겁을 먹지는 않았다. 오히려 늠름하고 대담하게 거울의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대의 예의를 다 닳게 하지만 않았다면, 그 예의에 기대어 청하오. 얼굴 가리개를 조금만 들어 주시오. 그대 얼굴의 늠름함이 그대 몸가짐의 늠름함에 어울리는지 보고 싶소."

"기사 나리, 그대가 이 일에서 지든 이기든" 거울의 기사가 대답했다. "나를 볼 시간과 여유는 넘치도록 남을 것이오. 지금 그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대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요구를 그대에게 인정하게 하지도 않은 채 얼굴 가리개를 드느라 시간을 끈다면 아름다운 반달리아의 카실데아에게 큰 모욕이 되리라 여기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말에 오르는 동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가 이겼다고 한 그 돈키호테가 나인지 아닌지는 말해 줄 수 있겠지요."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하노라." 거울의 기사가 말했다. "그대는 달걀이 달걀을 닮듯 내가 이긴 바로 그 기사를 닮았소. 그러나 그대

말대로 마법사들이 그를 쫓아다닌다니, 그대가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감히 단언하지 못하겠소."

"그것이면 충분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대가 잘못 알고 있음을 내가 믿기에는. 그러나 그대를 그 잘못에서 아주 건져 내려면 말을 데려오게 합시다. 하느님과 내 아씨와 내 팔이 나를 도우신다면, 그대가 얼굴 가리개를 드는 데 걸릴 시간보다도 짧은 사이에 나는 그대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대는 내가 그대가 생각하는 그 패배한 돈키호테가 아님을 보게 될 것이오."

이렇게 말을 줄이고 그들은 말에 올랐다. 돈키호테는 상대에게 다시 맞부딪쳐 나아가려고 알맞은 거리만큼 들판을 물러나려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렸고, 거울의 기사도 똑같이 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스무 걸음도 떨어지기 전에 거울의 기사가 그를 불렀고, 두 사람이 서로 반쯤 다가서자 거울의 기사가 말했다.

"기사 나리,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 결투의 조건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임을 명심하시오."

"알고 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다만 진 사람에게 지우고 명령하는 일은 기사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하오."

"그렇게 알고 있소." 거울의 기사가 대답했다.

이때 그 종자의 괴상한 코가 돈키호테의 눈에 띄었는데, 돈키호테도 산초 못지않게 그 코를 보고 놀라서, 그를 무슨 괴물이거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다. 산초는 주인이 내달릴 거리를 잡으러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코쟁이와 단둘이 남고 싶지 않았다. 그 코로 제 코를 한 번 툭 치기만 해도, 맞아서든 겁이 나서든 땅바닥에 뻗어 버려 제 싸움은 끝장이 나리라고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로시난테의 등자 끈을 붙들고 주인을 따라갔고, 이제 주인이 돌아설 때가 되었다 싶자 말했다.

"주인 나리, 나리께서 다시 맞부딪치러 가시기 전에 제발 저를 저 코르크참나무 위로 올려 주세요. 거기서라면 나리께서 이 기사와 벌이실 멋진 맞부딪침을 땅바닥에서보다 더 실컷, 더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산초, 내 생각에는 오히려" 돈키호테가 말했다. "투우를 위험 없이 구경하려고 관람대에 기어오르려는 것 같구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 종자의 터무니없는 코 때문에 저는 넋이 나가고 겁에 질려서 그 곁에 있을 엄두가 안 나요."

"그 코가 어찌나 대단한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라도 놀랐을 게다. 그러니 이리 오너라. 네가 말하는 데로 올려 주마."

돈키호테가 산초를 코르크참나무 위로 올려 주느라 지체하는 사이에, 거울의 기사는 들판에서 필요하다 싶은 만큼 거리를 잡았다. 그리고 돈키호테도 그렇게 했으리라 믿고는, 나팔 소리나 다른 신호도 기다리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그 말은 로시난테보다 더 날래지도 더 잘생기지도 않았다) 있는 힘껏, 그래 봐야 어중간한 속보로 적을 향해 맞부딪치러 나아갔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산초를 올려 주느라 바쁜 것을 보고는 고삐를 당겨 달리던 길 한가운데에 멈춰 섰는데, 말은 그 일을 몹시 고마워했다. 이미 꼼짝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적이 벌써 날듯이 달려오는 줄 알고 로시난테의 홀쭉한 옆구리에 박차를 힘껏 들이대어 어찌나 몰아쳤던지, 이야기에 따르면 로시난테가 조금이라도 달렸다고 알려진 것은 이때 한 번뿐이었고 다른 때는 언제나 그냥 대놓고 속보였다고 한다. 이 전에 없던 기세로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가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거울의 기사는 박차를 단추께까지 말에 박아 넣고 있었지만 달리기를 멈춘 그 자리에서 말을 손가락 한 마디만큼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좋은 때, 이 좋은 기회에 돈키호테는 말에 발이 묶이고 창 때문에 쩔쩔매는 상대를 만났다. 상대는 창을 창받이에 끼우는 데 끝내 손이 서툴렀는지, 아니면 그럴 겨를이 없었는지 창을 끼우지 못하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아무 위험도 없이 거울의 기사에게 어찌나 세게 부딪쳤던지, 상대는 싫든 좋든 말 엉덩이 너머로 땅에 떨어졌고,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죽은 듯한 기색을 보일 만큼 크게 나동그라졌다.

산초는 그가 떨어진 것을 보자마자 코르크참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주인이 있는 곳으로 부리나케 달려왔다. 주인은 로시난테에서 내려 거울의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그가 죽었는지 보려고, 그리고 혹시 살아 있다면 바람이라도 쐬게 하려고 투구 끈을 풀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가 본 것을 듣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경이와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누가 말할 수 있으랴?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본 것은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바로 그 얼굴, 같은 모습, 같은 생김새, 같은 인상, 같은 형상, 같은 겉모양이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달려오너라, 산초.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을 와서 보거라! 서둘러라, 얘야. 마법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요술쟁이들과 마법사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산초가 다가와 학사 카라스코의 얼굴을 보고는 성호를 천 번이나 긋고 또 그만큼 십자를 그었다. 그동안 내내 쓰러진 기사는 살아 있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주인 나리, 제 생각엔 혹시 모르니까 나리께서 학사 삼손 카라스코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입에 칼을 푹 찔러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 안에 든 나리의 원수 마법사 하나를 죽이시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나쁜 말은 아니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원수는 적을수록 좋으니라."

그가 산초의 귀띔과 충고를 실행하려고 칼을 뽑아 드는데, 거울의 기사의 종자가 다가왔다. 그토록 흉하게 보이게 했던 코는 이미 없었다. 종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무슨 짓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나리 발치에 있는 사람은 나리의 벗인 학사 삼손 카라스코이고, 저는 그분의 종자예요."

산초는 처음의 그 흉한 모습이 사라진 그를 보고 말했다.

"그럼 코는요?"

그 말에 그가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주머니 속에."

그러고는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앞서 그려 보인 그 모양으로 만든 반죽과 칠로 된 가면 코를 꺼냈다. 산초는 그를 보고 또 보다가 놀란 목소리로 크게 말했다.

"성모 마리아님, 아이고 맙소사! 이 사람은 내 이웃이자 친구인 토메 세시알이 아닌가?"

"그렇고말고!" 이제 코가 떨어진 종자가 대답했다. "내가 토메 세시알일세, 내 벗 산초 판사. 내가 어떤 곡절과 속임수와 꿍꿍이를 거쳐 여기 오게 되었는지는 곧 말해 주겠네. 그러니 그동안 자네 주인 나리께 발치에 있는 거울의 기사를 건드리지도, 함부로 다루지도, 다치게 하지도, 죽이지도 마시라고 빌고 또 빌게.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마을 사람인 학사 삼손 카라스코, 그 무모하고 생각 짧은 분이니까."

이러는 사이에 거울의 기사가 정신이 들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 위에 칼끝을 들이대고 말했다.

"기사여,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그대의 반달리아의 카실데아보다 아름다움에서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는 죽은

목숨이오. 게다가 이 결투와 낙마에서 살아남는다면, 토보소 도시로 가서 내 이름으로 아씨 앞에 나아가 아씨가 그대를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하오. 그리고 아씨가 그대를 그대 뜻대로 하게 놓아주시면, 마찬가지로 다시 나를 찾아와 아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야 하오. 내 무훈의 자취가 길잡이가 되어 그대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것이오. 이 조건들은 우리가 결투 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편력 기사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소."

"인정하오." 쓰러진 기사가 말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실밥 터지고 더러운 신발 한 짝이 카실데아의, 깨끗하긴 해도 빗질이 안 된 수염보다 더 값지오. 그리고 그 아씨 앞에 갔다가 그대 앞으로 돌아와서, 그대가 내게 요구하는 일을 빠짐없이 자세히 알려 드리겠다고 약속하오."

"그리고 이것도 인정하고 믿어야 하오."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그대가 이긴 기사는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아니었고 그일 수도 없었으며, 그를 닮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나도, 그대가 학사 삼손 카라스코처럼 보이지만 그가 아니라 그를 닮은 다른 사람이고, 내 원수들이 내 분노의 기세를 멈추고 누그러뜨리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승리의 영광을 부드럽게 누리게 하려고 그의 모습을 한 그대를 여기 내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인정하고 믿소."

"그대가 믿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대로 나도 모두 인정하고 판단하고 느끼오." 허리가 꺾인 기사가 대답했다. "부탁하오, 일어나게 해 주시오. 떨어지며 부딪친 데가 허락한다면 말이오. 몹시 험하게 다쳤소."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토메 세시알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산초는 토메 세시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대답은 그가 정말로 자기가 말한 그 토메 세시알이라는 뚜렷한 표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마법사들이 거울의 기사의 모습을 학사 카라스코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한 주인의 말이 산초의 머리에 단단히 박혀서,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진실을 믿지 못하게 했다. 결국 주인과 하인은 이렇게 속아 넘어간 채로 있었고, 거울의 기사와 그의 종자는 뿌루퉁하고 고약한 꼴로 돈키호테와 산초를 떠났다. 기사의 갈비뼈에 고약을 붙이고 부목을 댈 만한 곳을 찾을 생각이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사라고사로 가는 길을 이어 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들을 두고, 거울의 기사와 그의 코쟁이 종자가 누구였는지 알려 주려 한다.

---

1. 히랄다는 세비야 대성당 종탑 꼭대기에 선 청동 여신상으로, 바람개비 노릇을 해서 바람 따라 돈다. 기산도의 황소들은 아빌라 근처 기산도에 있는 고대의 돌 짐승상들이고, 카브라의 구덩이는 코르도바 남쪽 카브라 근처에 있는 깊은 동굴이다.

제15장 거울의 기사와 그의 종자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알린다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를 자기가 상상한 대로 그토록 용감한 기사라고 여기고 그런 기사를 이겼다는 것이 더없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우쭐해서 길을 갔다. 그는 그 기사의 기사다운 약속에 기대어, 자기 아씨의 마법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기를 기대했다. 진 기사는 기사가 아니게 되는 벌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돌아와서 아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키호테의 생각 다르고 거울의 기사의 생각 달랐으니, 앞서 말했듯이 거울의 기사가 그때 생각한 것은 고약을 붙일 곳을 찾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돈키호테에게 그만두었던 기사도를 다시 이어 가라고 권한 것은, 그보다 먼저 신부와 이발사와 쑥덕공론을 벌여 돈키호테가 잘못 찾아 나선 모험들에 들쑤셔지지 않고 집에서 얌전하고 조용히 지내게 할 방법이 무엇일지 의논했기 때문이었다. 그 의논에서 모두의 찬성과 카라스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나온 결론은 이러했다. 돈키호테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떠나게 내버려 두고, 삼손이 편력 기사가 되어 길에서 그를 맞닥뜨려 결투를 벌인다. 싸울 거리는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그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로 여겼다. 그리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약정과 합의를 해 둔다. 그렇게 돈키호테를 이기고 나면 학사 기사가 그에게 마을의 집으로 돌아가 두 해 동안, 또는 자기가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한다. 진 돈키호테는 기사도의 법을 거스르거나 어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틀림없이 지킬 것이 뻔했고, 그렇게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그의 헛된 생각들이 잊히거나, 그의 광기에 알맞은 약을 찾을 틈이 생길 수도 있었다.

카라스코는 그 일을 받아들였고, 산초 판사의 친구이자 이웃인 토메 세시알이 종자 노릇을 하겠다고 나섰다. 쾌활하고 머리가 가벼운 사람이었다. 삼손은 앞서 말한 대로 무장했고, 토메 세시알은 서로 마주쳤을 때 친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제 타고난 코 위에 앞서 말한 가면 코를 덧붙였다. 그렇게 그들은 돈키호테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하마터면 죽음의 수레 모험 자리에 함께 있을 뻔했다. 그리고 마침내 숲에서 그들을 만났고, 거기서 사려 깊은 독자가 이미 읽은 모든 일이 일어났다. 돈키호테가 학사는 학사가 아니라고 스스로 믿어 버린 그 엉뚱한 생각이 아니었더라면, 학사 나리는 새가 있을 줄 알았던 곳에서 둥지조차 찾지 못했으니 석사 학위를 받을 길이 영영 막혔을 것이다.

토메 세시알은 바라던 일이 얼마나 엉망으로 틀어졌는지, 그들의 길이 얼마나 고약한 데서 끝났는지 보고 학사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삼손 카라스코 나리, 우리는 당해도 싸요. 일이란 생각하고 덤벼들기는 쉬워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대개 어려운 법이죠. 돈키호테는 미쳤고 우리는 멀쩡한데, 그분은 몸 성히 웃으며 가시고 나리는 두들겨 맞고 시무룩하게 남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알아보자고요. 누가 더 미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미친 사람이에요, 제 뜻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이 말에 삼손이 대답했다.

"그 두 미치광이의 차이는 이렇네. 억지로 미친 사람은 언제까지나 미친 채로 있겠지만, 제 뜻으로 미친 사람은 원할 때 미치기를 그만둘 수

있다는 걸세."

"그렇다면" 토메 세시알이 말했다. "저는 나리의 종자가 되려고 했을 때 제 뜻으로 미쳤으니, 같은 제 뜻으로 미치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게 자네한테 맞는 일이지." 삼손이 대답했다. "나는 돈키호테를 몽둥이로 흠씬 두들겨 놓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니, 내가 돌아가리라고 생각하는 건 쓸데없는 생각일세. 이제 나를 그를 찾아 나서게 하는 것은 그가 정신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이야. 갈비뼈가 이토록 쑤시니 더 자비로운 생각은 할 수가 없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어느 마을에 다다랐는데, 다행히 접골사를 만나 불운한 삼손은 그에게 치료를 받았다. 토메 세시알은 그를 두고 돌아갔고, 삼손은 남아서 앙갚음을 궁리했다. 이야기는 때가 되면 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돈키호테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제16장 돈키호테가 라만차의 슬기로운 신사와 겪은 일

앞서 말한 그 기쁨과 흐뭇함과 우쭐함을 안고 돈키호테는 길을 이어 갔다. 지난번 승리로 그는 자기가 이 시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편력 기사라고 여겼고,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험은 모두 이미 끝냈고 다행스럽게 마무리했다고 셈했으며, 마법이니 마법사니 하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 기사도를 행하는 동안 얻어맞은 셀 수 없는 몽둥이찜질도, 이를 절반이나 부러뜨린 돌팔매도, 갤리선 죄수들의 배은망덕도, 양구에스 사람들의 무례함과 소나기처럼 쏟아진 말뚝 세례도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씨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 재주나 수나 방도를 찾아낸다면, 지난 세기의 가장 운 좋은 편력 기사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행운도 부럽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가 이런 상상에 온통 사로잡혀 가고 있을 때 산초가 말했다.

"나리,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제 눈앞에 제 친구 토메 세시알의 그 터무니없이 큰, 치수를 넘는 코가 어른거려요."

"그런데 산초, 너는 혹시 거울의 기사가 학사 카라스코였고 그의 종자가 네 친구 토메 세시알이었다고 믿느냐?"

"그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그 사람이 제 집이며 마누라며 자식들에 대해 일러 준 표지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일러 줄 수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코를 떼고

나니 얼굴이 토메 세시알의 얼굴 그대로였어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바로 우리 집 담 하나 건너에서 여러 번 본 그 얼굴 말이에요. 말소리도 똑같았고요."

"이치를 따져 보자, 산초."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이리 와 보아라.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치는 무기와 막는 무기로 무장하고 편력 기사가 되어 나와 싸우러 왔다는 게 무슨 생각으로 말이 되겠느냐? 내가 혹시 그의 원수였느냐? 내가 그에게 나를 미워할 빌미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그의 연적이냐, 아니면 그가 무예를 업으로 삼아서 내가 무예로 얻은 명성을 시샘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그럼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 기사가, 누구였든 간에, 학사 카라스코를 그렇게 쏙 빼닮고, 그 종자는 제 친구 토메 세시알을 그렇게 빼닮은 걸 두고는 뭐라고 해야 해요? 나리 말씀대로 그게 마법이라면, 세상에 그 둘 말고 닮을 만한 사람이 둘도 없었대요?"

"모두가 나를 쫓아다니는 사악한 마법사들의 술수요 꾀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자들은 내가 싸움에서 이기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진 기사가 내 벗인 학사의 얼굴을 보이도록 손을 써 두었다. 내가 그에게 품은 우정이 내 칼날과 내 팔의 매서움 사이에 끼어들어 내 마음의 정당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속임수와 거짓으로 내 목숨을 빼앗으려던 자가 제 목숨을 건지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 증거로, 오, 산초, 너도 거짓말을 하거나 속지 못하게 할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마법사들에게는 얼굴을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바꾸어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우냐. 이틀도 안 된 일인데, 너는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의 아름다움과 늠름함을 흠 하나 없이 본래 모습 그대로 제 눈으로 보았고, 나는 눈에 백태가 끼고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투박한 농사꾼 아낙의 추하고 천한 모습으로 보았다. 게다가 그토록 고약한 둔갑을 감히 저지른 그

사악한 마법사라면, 내 손에서 승리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삼손 카라스코와 네 친구로 둔갑시키는 일쯤은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해도 나는 위안을 얻는다. 결국 어떤 모습이었든 나는 내 원수를 이긴 승자로 남았으니까."

"하느님께서 모든 일의 진실을 아시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산초는 둘시네아의 둔갑이 자기가 꾸민 꾀요 속임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인의 허황한 생각이 흡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다가 제 속임수가 들통날까 봐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그들 뒤에서 같은 길을 따라오던 사내 하나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얼룩 회색 암말을 타고, 황갈색 벨벳 조각을 덧댄 고운 초록 모직 외투를 입고, 같은 벨벳으로 지은 사냥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암말의 마구는 들판용 짧은 등자 마구였는데, 이것도 자줏빛과 초록빛이었다. 초록과 금빛으로 된 넓은 칼띠에 무어식 언월도를 매달고 있었고, 반장화도 칼띠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이었다. 박차는 금도금이 아니라 초록 칠을 한 것이었는데, 어찌나 매끈하게 윤이 났던지 옷 전체와 어우러져 순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보기 좋았다. 그 나그네는 그들에게 다가오자 공손하게 인사하고 암말에 박차를 가해 앞질러 가려 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멋쟁이 나리, 혹시 나리께서 우리와 같은 길을 가시고 서두를 일이 없으시다면,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소."

"사실" 암말을 탄 사내가 대답했다. "제 암말과 함께 있으면 그 말이 날뛸까 봐 걱정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앞질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괜찮아요, 나리." 이때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의 암말 고삐를 늦추셔도 괜찮아요. 우리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얌전하고 점잖은 말이거든요. 이런 일에서 한 번도 못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제멋대로 그런 짓을 했다가 주인 나리와 제가 일곱 곱절로 갚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면 걸음을 멈추셔도 돼요. 그 암말을 두 접시 사이에 담아 대령한대도 우리 말은 틀림없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나그네는 고삐를 당겨 멈추고 돈키호테의 풍채와 얼굴을 보고 놀랐다. 돈키호테는 투구를 쓰지 않았는데, 산초가 그것을 잿빛 당나귀의 길마 앞턱에 짐 보따리처럼 매달고 다녔기 때문이다. 초록 옷의 사내가 돈키호테를 유심히 보았다면, 돈키호테는 초록 옷의 사내를 그보다 훨씬 더 유심히 보았다. 그가 반듯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나이는 쉰쯤 되어 보였고, 흰머리는 몇 가닥 안 되었으며, 얼굴은 매부리코였고, 눈빛은 쾌활하면서도 진지했다. 결국 옷차림과 풍채로 보아 그는 좋은 자질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초록 옷의 사내가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보고 판단하기로는, 이런 차림새나 이런 생김새의 사람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돈키호테가 탄 말의 길쭉함, 그의 몸집의 큼직함, 그의 얼굴의 여윔과 누런 빛, 그의 갑옷, 그의 몸짓과 몸가짐에 놀랐다. 그 고장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볼 수 없던 모습이요 꼴이었다. 돈키호테는 나그네가 자기를 그토록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잘 알아차렸고, 그가 넋을 놓고 있는 데서 그의 바람을 읽었다. 그는 몹시 예의 바르고 모두를 기쁘게 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상대가 무엇을 묻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말했다.

"나리께서 내게서 보신 이 모습이 하도 새롭고 흔히 보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니, 나리께서 놀라셨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소.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듯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리도 놀라기를 그치실 것이오. 나는 기사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사들,
모험을 찾아 떠나는 기사들 말이오.

"나는 고향을 떠났고, 재산을 저당 잡혔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운명의 여신의 품에 몸을 맡겼소. 여신이 가장 좋다고 여기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도록 말이오. 나는 이미 죽어 버린 편력 기사도를 되살리고 싶었소. 여러 날 동안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이쪽에서 굴러떨어지고 저쪽에서 일어서며, 나는 과부들을 돕고 아가씨들을 지키고 유부녀와 고아와 피후견인을 보살피면서 내 바람의 큰 부분을 이루었소. 그것이 편력 기사들의 본래 타고난 소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용맹하고 수많고 그리스도교도다운 무훈 덕분에 이미 세상의 거의 모든, 아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쇄된 책에 실릴 만한 사람이 되었소. 내 이야기는 3만 권이 찍혔고, 하늘이 막지 않는다면 3만의 수천 배는 찍혀 나올 기세요. 결국 모든 것을 몇 마디로, 아니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리오. 제 입으로 하는 칭찬은 사람을 천하게 만들지만, 나는 이따금 내 칭찬을 내 입으로 할 수밖에 없소. 그것을 대신 말해 줄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말이오. 그러니 신사 나리, 내가 누구이고 무슨 업을 하는지 이제 아셨으니, 앞으로는 이 말도, 이 창도, 이 방패도, 이 종자도, 이 갑옷을 다 합친 것도, 내 얼굴의 누런 빛도, 내 깡마른 몸도 나리를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말하고 돈키호테는 입을 다물었다. 초록 옷의 사내는 대답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아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한참 뒤에 그가 말했다.

"기사 나리, 나리께서는 제가 넋을 놓은 것을 보고 제 바람을 잘 알아맞히셨습니다. 그러나 나리를 뵙고 제가 느낀 놀라움을 거두어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나리 말씀대로 나리가 누구인지 알면 그 놀라움이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고 나니 더 어리둥절하고 놀랍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편력 기사가 있고, 참된 기사도를 다룬 이야기가 인쇄되어 나와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과부를 돕고 아가씨를 지키고 유부녀의 명예를 받들고 고아를 보살피는 사람이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고, 제 눈으로 나리에게서 보지 않았더라면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찬미를! 나리께서 인쇄되었다고 하시는 나리의 드높고 참된 기사도 이야기 덕분에, 세상에 가득하던 꾸며 낸 편력 기사들의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은 잊혔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풍속을 크게 해치고 좋은 역사책들을 망치고 그 믿음을 떨어뜨렸으니까요."

"편력 기사들의 이야기가 꾸며 낸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할 말이 많소."

"아니,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초록 사내가 대답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의심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 둡시다. 우리 길이 길어진다면, 그것들이 참되지 않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려 가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느님께 기대어 나리께 깨우쳐 드리고 싶소."

돈키호테의 이 마지막 말에서 나그네는 그가 얼빠진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낌새를 챘고, 다른 말로 그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돈키호테는 자기가 자기의 처지와 삶을 털어놓았으니 그도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 달라고 청했다. 이 말에 초록 외투의 기사가 대답했다.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저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갈 마을 태생의 시골 귀족입니다. 보통보다는 넉넉한 재산이 있고, 이름은 돈 디에고 데 미란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벗들과 함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소일거리는 사냥과 낚시지만, 매나 사냥개는 기르지 않고 길들인 미끼 자고새나 겁 없는 흰족제비 정도를 둡니다. 책은 여섯 다스쯤 있는데, 에스파냐 말로 된 것도 있고 라틴어로 된 것도 있으며, 역사책도 있고 신앙 서적도 있습니다. 기사 소설은 아직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앙 서적보다 세속의 책을 더 자주 넘겨 보는데, 점잖은 오락이 되고 말씨로 즐거움을 주며 지어낸 이야기로 놀라게 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라면 말입니다. 하기야 에스파냐에는 그런 책이 아주 드물지요. 이따금 이웃과 벗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자주 초대합니다. 제 잔치는 깔끔하고 정갈하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험담을 좋아하지 않고 제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의 삶을 캐고 들지 않고, 남이 하는 일을 살쾡이처럼 엿보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미사에 가고, 제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되 선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위선과 허영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들은 아무리 조심하는 마음이라도 슬그머니 사로잡는 원수들이니까요. 사이가 틀어진 줄 아는 사람들은 화해시키려고 애쓰고, 성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주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를 늘 믿습니다."

산초는 그 시골 귀족이 털어놓는 삶과 소일거리 이야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착하고 거룩한 삶이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기적을 행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자 잿빛 당나귀에서 훌쩍 뛰어내려, 허둥지둥 그의 오른쪽 등자를 붙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다. 그것을 보고 시골 귀족이 물었다.

"여보게, 무얼 하는 겐가? 이게 무슨 입맞춤인가?"

"입 맞추게 해 주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평생 처음 본, 짧은 등자로 말 타신 성인이 나리 같거든요."

"나는 성인이 아닐세." 시골 귀족이 대답했다. "큰 죄인이지. 자네야말로 착한 사람이 틀림없네. 자네의 순박함이 그걸 보여 주니까."

산초는 다시 길마 위로 돌아갔다. 그는 주인의 깊은 우울 속에서 웃음을 끌어냈고, 돈 디에고를 새삼 놀라게 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자식이 몇이냐고 물었고, 참된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옛 철학자들이 지고의 선으로 꼽은 것 가운데 하나가 타고난 복과 재물의 복, 벗이 많은 것, 그리고 훌륭한 자식이 많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저는" 시골 귀족이 대답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애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가 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만큼 착하지 않아서입니다. 나이는 열여덟쯤 됩니다. 그 가운데 여섯 해를 살라망카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며 보냈지요. 그런데 다른 학문을 공부하게 하려 했더니, 시라는 학문, 그것을 학문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만, 거기에 어찌나 푹 빠져 있는지 제가 공부했으면 하는 법학도, 모든 학문의 여왕인 신학도 도무지 거들떠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애가 제 가문의 면류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임금님들께서 덕 있고 훌륭한 학문에 높은 상을 내리시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덕 없는 학문은 거름 더미 속의 진주니까요. 그 애는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의 어느 시행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마르티알리스가 어느 풍자시에서 외설스러웠는지 아닌지, 베르길리우스의 이런저런 시행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저렇게 읽어야 하는지 따지느라 하루를 다 보냅니다. 결국 그 애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앞서 말한 시인들의 책, 그리고 호라티우스, 페르시우스, 유베날리스, 티불루스의 책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에스파냐 말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쳐주지 않지요. 그렇게 에스파냐 말로 쓴 시를 싫어하는 티를 내면서도, 지금은

살라망카에서 보내온 네 행짜리 시에 글로사, 곧 풀이시를 짓느라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 겨루기에 낼 시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리, 자식은 부모의 오장육부 한 조각이오. 그러니 착하든 못됐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오. 부모가 할 일은 어려서부터 자식을 덕과 좋은 가르침과 착하고 그리스도교도다운 풍속의 길로 이끌어서, 자식이 자라서 부모의 노년을 받치는 지팡이가 되고 후손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오. 이 학문을 공부하라, 저 학문을 공부하라 억지로 시키는 것은 옳다고 여기지 않소. 설득하는 것은 해롭지 않겠지만 말이오. 그리고 밥벌이를 위해(pane lucrando) 공부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걱정을 덜어 줄 부모를 내려 준 운 좋은 학생이라면, 나는 그 학생이 가장 마음이 끌리는 학문을 따르게 내버려 두라고 하겠소. 시라는 학문은 쓸모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지만, 그것을 지닌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학문은 아니오. 시골 귀족 나리, 내 생각에 시는 어리고 여리며 더없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같소. 다른 많은 아가씨들, 곧 다른 모든 학문이 그 아가씨를 풍요롭게 하고 다듬고 꾸미는 일을 맡고 있소. 그 아가씨는 그 모든 학문을 부려야 하고, 모든 학문은 그 아가씨에게서 권위를 얻어야 하오. 그러나 이 아가씨는 함부로 주무르거나 거리로 끌고 다니거나 광장 모퉁이나 궁궐 구석구석에 드러내 놓기를 바라지 않소. 이 아가씨는 놀라운 힘을 지닌 연금술로 빚어져서, 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순금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오. 그를 지닌 사람은 그를 단단히 붙들어서 천박한 풍자시나 몰염치한 소네트로 흘러가게 두지 말아야 하오. 영웅 서사시나 비통한 비극이나 즐겁고 잘 짜인 희극이라면 모를까, 결코 팔아넘길 것이 되어서도 안 되오. 그 아가씨가 감춘 보물을 알아볼 줄도 귀히 여길 줄도 모르는 광대들이나 무지한 무리가 그를 다루게 두어서도

안 되오. 그리고 나리, 내가 여기서 무지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 천하고 낮은 백성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족이든 왕자든 무지한 무리의 축에 들 수 있고 또 들어야 마땅하오. 그러니 내가 말한 그런 조건을 갖추어 시를 다루고 지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명한 나라에서 이름이 나고 귀히 여겨질 것이오. 그리고 나리께서 아드님이 에스파냐 말로 쓴 시를 별로 쳐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은 그다지 옳은 생각이 아니오. 그 까닭은 이렇소. 위대한 호메로스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니 라틴어로 쓰지 않았고, 베르길리우스는 라틴 사람이었으니 그리스어로 쓰지 않았소. 요컨대 옛 시인들은 모두 젖과 함께 빨아들인 말로 썼고, 제 생각의 드높음을 밝히려고 남의 나라 말을 찾아 나서지 않았소. 사정이 이러하니, 이 관습이 모든 나라에 퍼져서 독일 시인이 제 나라 말로 쓴다고 업신여겨지지 않고, 카스티야 시인도, 심지어 비스카야 시인도 제 말로 쓴다고 업신여겨지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오. 그러나 나리, 내가 짐작하기로 아드님은 에스파냐 말로 쓴 시와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충동을 꾸며 주고 일깨우고 도와줄 다른 말도 다른 학문도 모르는 채 그저 에스파냐 말로만 시를 쓰는 시인들과 사이가 나쁜 것이오. 그런데 이 점에서도 잘못이 있을 수 있소. 참된 견해에 따르면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오. 타고난 시인은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시인으로 나온다는 말이오. 하늘이 준 그 기질로, 더 공부하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시를 지으니, '우리 안에 신이 계시다(est Deus in nobis)……' 운운한 사람의 말을 참말로 만드는 것이오.[1] 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교의 도움을 받는 타고난 시인은 기교만 알아서 시인이 되려는 시인보다 훨씬 나을 것이고 그를 앞지르리라는 것이오. 기교는 자연을 앞지르지 못하고 자연을 완전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오. 그러니 자연과 기교가, 기교와 자연이 어우러지면 더없이 완전한 시인이 나올

것이오. 시골 귀족 나리, 그러니 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이오. 나리께서는 아드님이 제 별이 부르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오. 아드님은 틀림없이 훌륭한 학생일 테고, 이미 학문의 첫 계단인 말의 계단을 다행스럽게 올랐으니, 그 말을 딛고 스스로 인간 학문의 꼭대기에 오를 것이오. 인간의 학문은 망토와 칼을 찬 신사에게 참 잘 어울려서, 주교에게 주교관이, 노련한 법률가에게 법복이 그러하듯 그를 꾸며 주고 명예롭게 하고 드높여 주오. 아드님이 남의 명예를 해치는 풍자시를 짓거든 나리께서 꾸짖고 벌하고 그 시를 찢어 버리시오. 그러나 호라티우스가 그토록 우아하게 했듯이 악덕을 두루 나무라는 호라티우스풍 풍자시를 짓거든 칭찬해 주시오. 시인이 시샘을 꾸짖는 글을 쓰고 시샘하는 자들을 시로 헐뜯는 것은, 다른 악덕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짚어 가리키지만 않는다면 허락된 일이니까. 그러나 고약한 말 한마디를 하려고 폰토스의 섬들로 귀양 갈 위험도 무릅쓰는 시인들이 있소. 시인이 품행이 깨끗하면 그의 시도 깨끗할 것이오. 펜은 영혼의 혀요. 영혼에서 어떤 생각이 잉태되느냐에 따라 그 글도 그러할 것이오. 그리고 임금과 왕자들은 시라는 기적 같은 학문이 사려 깊고 덕 있고 진중한 사람들에게 깃든 것을 보면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귀히 여기고 재물을 내리며, 벼락도 해치지 못하는 나무의 잎으로 관을 씌워 주기까지 하오. 그런 관으로 관자놀이가 명예롭게 꾸며진 이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표시로 말이오."

초록 외투의 기사는 돈키호테의 이야기에 몹시 놀랐고, 그를 얼빠진 사람으로 여기던 생각을 차츰 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창일 때 산초는 그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길에서 벗어나 곁에서 양젖을 짜던 양치기들에게 우유를 좀 얻으러 갔다. 시골 귀족이 돈키호테의 슬기와 훌륭한 언변에 더없이 흡족해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으려던 참에, 돈키호테는 고개를 들어 그들이 가는 길로 왕실 깃발을

가득 단 수레 하나가 오는 것을 보았다. 무슨 새 모험이 틀림없다고 믿은 그는 큰 소리로 산초를 불러 투구를 가져오라고 했다. 산초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자 양치기들을 두고 잿빛 당나귀를 부리나케 몰아 주인이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 주인에게는 무시무시하고 터무니없는 모험이 일어났다.

---

1. 오비디우스의 『행사력』에 나오는 구절이다. 뒤에 나오는 「폰토스의 섬들」로 귀양 간 시인도 오비디우스로, 그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노여움을 사 흑해 기슭 토미스로 쫓겨났다.

제17장 돈키호테의 전대미문의 용기가 다다랐고 다다를 수 있었던 마지막 극점이 드러나고 사자 모험이 다행히 끝난다

이야기에 따르면, 돈키호테가 투구를 가져오라고 산초에게 소리쳤을 때 산초는 양치기들이 파는 응유 치즈를 사고 있었다. 주인이 몹시 서두르는 바람에 몰려서 그는 치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에 담아 가야 할지 몰랐는데, 이미 값을 치렀으니 버릴 수도 없어서 주인의 투구에 넣기로 하고는 그렇게 잘 챙겨 들고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지 보러 돌아왔다. 산초가 다다르자 주인이 말했다.

"벗아, 그 투구를 이리 다오. 내가 모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기 보이는 것이 내게 무기를 들라고 요구할, 아니 이미 요구하고 있는 모험이든지 둘 중 하나다."

이 말을 들은 초록 외투의 기사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작은 깃발을 두세 개 단 수레 하나가 그들 쪽으로 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깃발들을 보니 그 수레는 국왕 폐하의 돈을 싣고 가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돈키호테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모험 또 모험이리라고 언제나 믿고 생각했으므로 그 말을 곧이듣지 않고 시골 귀족에게 대답했다.

"미리 대비한 사람은 반쯤 싸운 셈이오. 내가 대비해서 잃을 것은 하나도 없소. 나는 내게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고, 그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내게 덤벼들지 모르니까."

그러고는 산초에게 돌아서서 투구를 달라고 했다. 산초는 응유 치즈를 꺼낼 겨를이 없어서 투구를 있는 그대로 건넬 수밖에 없었고, 돈키호테는 투구를 받아 들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채지도 못한 채 부리나케 머리에 눌러썼다. 그러자 응유 치즈가 짓눌리고 짜이면서 유청이 돈키호테의 온 얼굴과 수염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깜짝 놀라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이게 무엇이냐? 머리통이 물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골이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구나. 땀을 흘리는 거라면, 정말이지 겁이 나서 흘리는 땀은 아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려는 모험이 무시무시한 모험임이 틀림없는 게다. 닦을 것이 있거든 다오. 땀이 줄줄 흘러 눈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산초는 잠자코 천 조각을 하나 건넸고, 그러면서 주인이 사정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돈키호테는 얼굴을 닦고 나서, 자기 생각에 머리를 서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투구를 벗었다. 그리고 투구 안에 든 그 하얀 죽 같은 것을 보고 코에 갖다 대어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나의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목숨을 걸고 말하건대, 네가 여기 넣은 것은 응유 치즈로구나. 이 배신자, 이 악당, 이 버릇없는 종자 놈아."

이 말에 산초는 몹시 태연하게 시치미를 떼고 대답했다.

"응유 치즈라면 나리, 저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 악마나 먹으라지요. 거기 그걸 넣은 건 악마가 틀림없으니까요. 제가 나리 투구를 더럽힐 만큼 대담할 리가 있어요? 대담한 놈을 잘도 찾으셨네요! 맹세코 나리, 하느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생각해 보면, 저도 나리가

빚어 놓으신 사람이고 나리의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까 저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이 있나 봐요. 그놈들이 나리의 참을성을 건드려 노여움을 사게 하려고, 그래서 나리가 늘 하시듯 제 갈비뼈를 두들기시게 하려고 거기 그 더러운 걸 넣어 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이지 이번에는 그놈들이 헛발을 디뎠어요. 저는 우리 나리의 훌륭한 분별을 믿거든요. 저한테는 응유 치즈도 우유도 그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있다 해도 투구에 넣느니 제 배 속에 넣었으리라는 걸 헤아리셨을 테니까요."

"다 그럴 수 있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시골 귀족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모든 것에 놀랐는데, 특히 돈키호테가 머리와 얼굴과 수염과 투구를 닦은 뒤 투구를 눌러쓰고는 등자에 발을 단단히 딛고 칼을 매만지고 창을 움켜쥐며 이렇게 말할 때 그러했다.

"자, 올 테면 오라지. 나는 사탄이 몸소 온다 해도 맞붙을 각오로 여기 있노라."

이때 깃발 단 수레가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노새 위에 탄 수레꾼과 앞자리에 앉은 사내 하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돈키호테가 그 앞을 가로막고 말했다.

"형제들이여, 어디로 가시오? 이것은 무슨 수레이며, 여기 무엇을 싣고 가며, 이 깃발들은 무슨 깃발이오?"

이 말에 수레꾼이 대답했다.

"수레는 제 것이고, 실린 것은 우리 안에 든 사나운 사자 두 마리예요. 오란 총독이 국왕 폐하께 바치는 선물로 궁정에 보내는 거죠. 깃발은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것이고요. 여기 폐하의 물건이 간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그 사자들이 크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어찌나 큰지" 수레 문 곁에 탄 사내가 대답했다. "아프리카에서 에스파냐로 이보다 더 큰 사자도, 이만큼 큰 사자도 건너온 적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사자지기라서 다른 사자들도 데려왔지만, 이런 놈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암컷과 수컷인데, 수컷은 이 앞쪽 우리에, 암컷은 뒤쪽 우리에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 나리, 비켜 주세요. 먹이를 줄 곳에 얼른 닿아야 하거든요."

이 말에 돈키호테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새끼 사자를? 나한테 새끼 사자를, 그것도 이 시각에? 하느님께 맹세코, 그것들을 이리로 보내는 그 나리들은 내가 사자를 보고 겁낼 사람인지 아닌지 보게 될 것이오! 착한 양반, 내리시오. 그대가 사자지기라니, 그 우리를 열고 그 짐승들을 내게 내보내시오. 그것들을 내게 보낸 마법사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언짢아해도, 이 들판 한가운데서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누구인지 그 짐승들에게 똑똑히 알려 주리라."

"옳거니!" 이때 시골 귀족이 속으로 말했다. "우리 착한 기사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표시를 내셨구나. 응유 치즈가 틀림없이 머리통을 물렁하게 하고 골을 푹 익혀 놓았나 보다."

이때 산초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리,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도,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 이 사자들하고 맞붙지 않도록 어떻게 좀 해 주세요. 맞붙으셨다간 여기서 우리 모두 갈가리 찢길 거예요."

"아니, 자네 주인이 그렇게 미쳤단 말인가?" 시골 귀족이 대답했다. "그토록 사나운 짐승들과 맞붙으리라고 자네가 겁내고 믿을 만큼?"

"미친 게 아니라" 산초가 대답했다. "대담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담하게 굴지 못하게 내가 해 보겠네." 시골 귀족이 맞받았다.

그러고는 사자지기에게 우리를 열라고 다그치고 있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말했다.

"기사 나리, 편력 기사들은 무사히 빠져나오리라는 희망을 주는 모험에 덤벼야지, 그 희망을 아예 빼앗는 모험에 덤벼서는 안 됩니다. 무모함의 영토로 들어선 용기는 굳셈보다 광기에 더 가까우니까요. 더구나 이 사자들은 나리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럴 꿈도 꾸지 않습니다. 국왕 폐하께 바치는 선물로 가는 길이니, 그것들을 붙잡아 두거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시골 귀족 나리, 나리는 가서"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길들인 미끼 자고새와 겁 없는 흰족제비나 돌보시오. 그리고 저마다 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것이 내 일이오. 이 사자 나리들이 나를 치러 오는지 아닌지는 내가 아오."

그러고는 사자지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맹세코, 이 악당 양반아, 당장 당장 우리를 열지 않으면 이 창으로 그대를 수레에 꿰매 버리겠소!"

무장한 그 망상이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수레꾼이 말했다.

"주인 나리,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사자들이 칼집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제가 노새들을 풀어 데리고 몸을 피하게 해 주세요. 노새들이 죽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 끝장이에요. 이 수레와 이 노새들 말고는 아무 재산도 없거든요."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려서 노새를 풀고 네 마음대로 하거라. 곧 네가 헛수고를 했고 그런 수고는 덜어도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게다."

수레꾼은 내려서 부리나케 노새를 끌러 냈고, 사자지기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증인이 되어 주세요. 저는 제 뜻을 거슬러 억지로 우리를 열고 사자를 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리께 분명히 말해 두는데, 이 짐승들이 저지르는 온갖 해와 손해는 다 이 나리 책임이에요. 제 품삯과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나리들, 제가 열기 전에 몸을 피하세요. 저야 이놈들이 저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요."

시골 귀족은 그런 터무니없는 짓에 덤비는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말라고 다시 설득했다. 이 말에 돈키호테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안다고 대답했고, 시골 귀족은 잘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맞섰다.

"그렇다면 나리"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나리께서 보시기에 비극이 될 이 일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얼룩 회색 말에 박차를 가해 몸을 피하시오."

이 말을 들은 산초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인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고 빌었다. 그 일에 견주면 풍차 모험도, 무시무시했던 축융 방아 모험도, 아니 주인이 평생 덤벼든 모든 무훈이 다 과자에 꽃빵이었다.

"나리, 보세요." 산초가 말했다. "여기는 마법이고 그 비슷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창살과 틈새로 진짜 사자 발톱 하나를 봤는데, 그걸 보니 그 발톱 주인인 사자는 산보다 더 커요."

"겁이 나니 적어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사자가 세상의 절반보다 더 커 보이기는 하겠지. 물러나거라, 산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가 여기서 죽거든, 우리가 오래전에 맺은 약속을 알고 있겠지. 둘시네아에게 달려가거라. 더는 말하지 않겠다."

그는 이 말에 다른 말들을 보태어, 그 미친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모두에게서 거두어 버렸다. 초록 외투의 기사는 그를 막고 싶었으나 무기가 대등하지 않음을 알았고, 미치광이와 맞붙는 것이 슬기로운 일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에 돈키호테는 영락없는

미치광이였다. 돈키호테가 다시 사자지기를 다그치고 위협을 되풀이하자, 시골 귀족은 암말에,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 수레꾼은 노새에 박차를 가하거나 채찍질을 했고, 모두들 사자가 바구니에서 풀려나기 전에 수레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지려고 애썼다.

산초는 이번에야말로 주인이 사자 발톱에 걸려 틀림없이 죽으리라 믿고 주인의 죽음을 울었다. 그는 제 운수를 저주하며, 다시 주인을 모시겠다는 생각이 든 그 시각을 재수 없는 시각이라 불렀다. 그러나 울고 한탄한다고 해서 수레에서 멀어지도록 잿빛 당나귀를 두들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달아나던 이들이 이미 멀찍이 떨어진 것을 보자 사자지기는 앞서 요구하고 통고했던 것을 돈키호테에게 다시 요구하고 통고했다. 돈키호테는 다 들었으니 더는 통고하고 요구하느라 애쓰지 말라고, 그래 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니 어서 서두르라고 대답했다.

사자지기가 첫째 우리를 여는 동안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싸우는 것보다 걸어서 싸우는 편이 좋을지 따져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로시난테가 사자를 보면 겁을 먹으리라 염려되어 걸어서 싸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내던지고 방패를 팔에 끼고 칼을 뽑아 들고는, 한 걸음 한 걸음, 놀라운 대담함과 용감한 마음으로 수레 앞에 가서 섰다. 그러면서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다음에는 자기 아씨 둘시네아께 몸을 맡겼다.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이 대목에 이르러 이 참된 이야기의 작가가 이렇게 외치며 말한다는 점이다. "오, 굳세고, 어떤 과장으로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용기 있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세상의 모든 용사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여, 에스파냐 기사들의 영광이요 명예였던 돈 마누엘 데 레온의 두 번째이자 새로운 화신이여! 나는 어떤 말로 이토록 무시무시한 무훈을 이야기하랴. 어떤 이치로 이것을 앞으로 올 세기들이 믿게 하랴. 과장 위의 과장이라 한들, 너에게 어울리고

들어맞지 않을 칭찬이 어디 있으랴. 너는 걸어서, 너는 홀로, 너는 겁 없이, 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직 칼 한 자루를, 그것도 강아지 표시가 찍힌 잘 드는 칼도 아닌 칼 한 자루를 들고, 그리 반짝이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쇠 방패 하나를 들고, 아프리카의 밀림이 일찍이 길러 낸 가장 사나운 사자 두 마리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구나. 용맹한 라만차 사람이여, 너의 행적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나는 그것을 기릴 말이 모자라 여기서 그냥 그대로 두련다."[1]

작가의 앞서 말한 외침은 여기서 그치고, 작가는 이야기의 실을 다시 이어 나아가며 이렇게 말한다. 사자지기는 돈키호테가 이미 자세를 갖춘 것을 보았고, 성나고 대담한 기사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면 수사자를 풀어 주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앞서 말했듯이 사자가 든 첫째 우리를 활짝 열었는데, 사자는 엄청나게 크고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몰골이었다. 사자는 맨 먼저 누워 있던 우리 안에서 몸을 뒤척이고 발톱을 뻗으며 온몸을 쭉 폈다. 그다음에 입을 벌려 아주 느릿느릿 하품을 했고, 거의 두 뼘이나 되는 혀를 밖으로 내밀어 눈의 먼지를 털어 내고 얼굴을 씻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우리 밖으로 내밀고 숯불 같은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길과 몸짓은 무모함 그 자체에도 두려움을 안길 만했다. 오직 돈키호테만이 그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사자가 어서 수레에서 뛰어내려 자기와 맞붙기를, 그래서 그 두 손으로 사자를 갈가리 찢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의 일찍이 본 적 없는 광기의 극점이 여기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자는 오만하기보다 점잖아서, 어린애 장난이나 허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쪽저쪽을 둘러본 뒤 돌아서서 돈키호테에게 엉덩이를 보이고는 아주 느긋하고 태평하게 다시 우리 안에 드러누웠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사자지기에게 사자를 몽둥이로 때리고 약을 올려 밖으로 내몰라고 명령했다.

"그건 못 해요." 사자지기가 대답했다. "제가 약을 올리면 그놈이 맨 먼저 갈가리 찢을 사람은 바로 저일 테니까요. 기사 나리, 이미 하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용기라는 점에서는 그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운을 시험하려 들지 마세요. 사자는 문이 열려 있으니 나오든 말든 그놈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으니 오늘 하루 내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넉넉히 드러났어요. 제가 아는 한 아무리 용맹한 싸움꾼이라도 적에게 결투를 걸고 들판에서 적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무는 없어요.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치욕은 상대 몫이고, 기다린 사람이 승리의 관을 얻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벗아, 문을 닫아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본 그대로, 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꼴로 증언해 다오. 곧 네가 사자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내가 사자를 기다렸으며, 사자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다시 기다렸는데 사자는 또다시 나오지 않고 다시 드러누웠다. 나는 더 할 것이 없다. 마법은 썩 물러가라. 하느님께서 이치와 진실과 참된 기사도를 도우시기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을 닫아라. 그동안 나는 달아나 자리를 비운 이들에게 손짓을 해서, 이 무훈을 네 입으로 듣게 하겠다."

사자지기는 그렇게 했다. 돈키호테는 쏟아진 응유 치즈 비에서 얼굴을 닦았던 천을 창끝에 매달고, 시골 귀족을 앞세우고 한 무리가 되어 줄곧 달아나면서도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던 이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는 그 하얀 천의 신호를 알아보고 말했다.

"우리 나리께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모두 걸음을 멈추었고, 손짓하는 사람이 돈키호테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려움을 얼마간 덜고는 자기들을 부르는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데까지 조금씩 다가왔다. 마침내 그들이 수레로 돌아오자 돈키호테가 수레꾼에게 말했다.

"형제여, 다시 노새를 매고 길을 이어 가시오. 그리고 산초, 너는 이 사람과 사자지기가 나 때문에 지체한 대가로 둘에게 에스쿠도 금화 두 닢을 주어라."

"기꺼이 드리죠."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자 사자지기가 싸움의 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할 줄 아는 한 돈키호테의 용기를 부풀려서, 사자가 돈키호테를 보고 겁을 먹어 우리 문이 한참 동안 열려 있었는데도 나오려 하지 않았고 감히 나오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사 나리가 바란 대로 사자를 약 올려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자기가 말하자, 기사 나리가 싫어도 할 수 없이, 온 뜻을 거슬러 문을 닫게 허락했다고 말했다.

"산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참된 용기 앞에서 힘을 쓰는 마법이 있느냐? 마법사들이 내게서 행운은 빼앗을 수 있겠지만, 굳센 힘과 용기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할 게다."

산초는 금화를 주었고, 수레꾼은 노새를 맸으며, 사자지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돈키호테의 손에 입을 맞추고, 궁정에 가거든 그 용맹한 무훈을 임금님께 몸소 아뢰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혹시 폐하께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고 물으시거든, 사자의 기사라고 아뢰시오. 지금까지 지녀 온 슬픈 얼굴의 기사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이 이름으로 바꾸고, 갈고, 돌리고, 고치고 싶소. 이 일에서 나는 편력 기사들의 옛 관습을 따르는 것이오. 그들은 원할 때나 알맞을 때면 이름을 바꾸었으니까."

수레는 제 길을 갔고, 돈키호테와 산초와 초록 외투의 사내는 저희 길을 이어 갔다.

그동안 내내 돈 디에고 데 미란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돈키호테의 행동과 말을 지켜보고 새겨 두는 데 온 정신을 쏟았는데, 그가 보기에 돈키호테는 제정신인 미치광이요, 제정신 쪽으로 기우는 미치광이였다. 그의 이야기 제1부는 아직 돈 디에고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읽었더라면 돈키호테의 행동과 말이 자아내는 놀라움은 그쳤을 것이다. 그의 광기가 어떤 종류인지 이미 알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것을 몰랐으므로, 그는 돈키호테를 제정신인 사람으로 여기다가 또 미치광이로 여겼다. 그가 하는 말은 조리 있고 우아하고 훌륭했지만, 그가 하는 짓은 터무니없고 무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응유 치즈가 가득한 투구를 쓰고는 마법사들이 머리통을 물렁하게 만든다고 믿는 것보다 더한 광기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억지로 사자와 싸우려 드는 것보다 더 큰 무모함과 터무니없는 짓이 어디 있을까?"

돈키호테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를 이런 상상과 혼잣말에서 끌어냈다.

"돈 디에고 데 미란다 나리, 나리께서 속으로 나를 터무니없는 미치광이로 여기고 계시리라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소? 그렇다 해도 대단한 일은 아니오. 내 행동은 다른 것을 증언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는 해도 나리께서 이것만은 알아 두셨으면 하오. 나는 나리께 보였음직한 만큼 그렇게 미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소. 늠름한 기사가 임금의 눈앞에서 큰 광장 한가운데에 나가 사나운 황소에게 창을 멋지게 꽂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이오.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귀부인들 앞에서 즐거운 마상 시합을 벌이며 울타리를 따라 내달리는 것도 보기 좋은 일이오. 무예 훈련으로든 그렇게 보이는 일로든 군주의 궁정을 즐겁고 흥겹게

하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궁정을 명예롭게 하는 모든 기사들도 보기 좋소. 그러나 이 모든 이들보다 더 보기 좋은 것은 편력 기사요. 오직 영광스럽고 오래 남을 명성을 얻으려고, 위험한 모험을 찾아 사막과 외딴 땅과 갈림길과 밀림과 산을 누비며 그 모험을 행복하고 운 좋게 마무리하려는 편력 기사 말이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외딴 들판에서 과부를 돕는 편력 기사가 도시에서 아가씨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는 궁정 기사보다 더 보기 좋소. 기사들에게는 저마다 저만의 일이 있소. 궁정 기사는 귀부인들을 섬기고, 시종들에게 제복을 입혀 임금의 궁정에 위엄을 더하고, 푸짐한 식탁으로 가난한 기사들을 먹여 살리고, 마상 시합을 마련하고, 무술 대회를 열고, 크고 너그럽고 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처신해야 하오. 그렇게 해서 제 마땅한 의무를 다하게 되오. 그러나 편력 기사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고, 가장 얽히고설킨 미궁으로 들어가고, 걸음마다 불가능한 일에 덤비고, 한여름에는 사람 없는 황야에서 불타는 햇살을, 겨울에는 바람과 얼음의 모진 매서움을 견디어야 하오. 사자에게 놀라서도, 괴물에게 겁먹어서도, 엔드리아고 괴물에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오. 이것들을 찾아다니고, 저것들에게 덤비고, 그 모두를 이기는 것이 그의 으뜸가는 참된 일이기 때문이오. 그런데 나는 편력 기사의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운명을 타고났으니, 내가 보기에 내 일의 관할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덤비지 않을 수 없소. 그러니 방금 내가 덤빈 그 사자들에게 덤비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일이었소. 그것이 터무니없는 무모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오. 나는 용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소. 용기란 비겁과 무모라는 두 악덕의 극단 사이에 놓인 덕이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 비겁한 쪽으로 내려가 그 언저리에 닿는 것보다는 무모한 쪽으로 올라가 그 언저리에 닿는 편이 덜 나쁘오. 헤픈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가 인색한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보다

쉽듯이, 무모한 사람이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기가 비겁한 사람이 참된 용기에 오르기보다 쉽기 때문이오. 그리고 돈 디에고 나리, 모험에 덤비는 일에서는 나를 믿으시오. 패가 모자라서 지기보다는 남아서 지는 편이 낫소. 듣는 사람들 귀에는 '아무개 기사는 무모하고 대담하다'는 말이 '아무개 기사는 소심하고 비겁하다'는 말보다 더 듣기 좋으니까."

"돈키호테 나리, 제 말씀은" 돈 디에고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모두 이성 그 자체의 저울 바늘에 맞추어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편력 기사도의 법령과 법도가 사라진다 해도 나리의 가슴속에서, 마치 그것을 간직한 창고요 문서고에서처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무니 서두릅시다. 제 마을, 제 집으로 가시지요. 거기서 지난 수고를 푸시면 됩니다. 몸의 수고가 아니었다 해도 마음의 수고였을 테니까요. 마음의 수고는 이따금 몸의 피로로 넘쳐 오기도 하지요."

"그 제안은 큰 호의요 은혜로 받겠소, 돈 디에고 나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보다 더 박차를 가해 가니, 오후 두 시쯤 되었을 때 그들은 돈키호테가 초록 외투의 기사라고 부르던 돈 디에고의 마을과 집에 다다랐다.

---

1. 돈 마누엘 데 레온은 가톨릭 공동 왕 시대의 기사로, 한 귀부인이 일부러 사자 우리에 떨어뜨린 장갑을 들어 왔다는 이야기로 이름났다. 「강아지 표시」는 톨레도의 이름난 칼장이가 칼날에 찍던 작은 개 모양의 표지다.

제18장 돈키호테가 초록 외투의 기사의 성, 아니 집에서 겪은 일과 다른 엉뚱한 일들

돈키호테가 보니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집은 시골집답게 널찍했다. 그런데도 거친 돌에 새긴 것이긴 했지만 큰길 쪽 대문 위에는 문장이 걸려 있었고, 안뜰에는 술 곳간이, 현관 밑에는 지하 저장고가 있었으며, 둘레에는 커다란 항아리가 잔뜩 놓여 있었다. 그 항아리들이 토보소에서 만든 것이었으므로 그는 마법에 걸려 둔갑한 둘시네아의 기억이 새삼 떠올랐고, 한숨을 쉬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누구 앞에 있는지도 살피지 않고 말했다.

"오, 내 불행으로 찾아낸 달콤한 정표들이여,

"하느님이 원하실 때는 달콤하고 즐겁던 것들이여!

"오, 토보소의 항아리들이여, 내 가장 큰 쓰라림의 달콤한 정표를 내 기억에 되살려 주는구나!"

이 말을 들은 것은 돈 디에고의 아들인 학생 시인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손님을 맞으러 나와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들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아주 정중하게 부인에게 다가가 손에 입을 맞추게 해 달라고 청했고, 돈 디에고가 말했다.

"부인, 늘 하던 그 상냥함으로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를 맞아 주시오. 지금 당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오. 편력 기사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슬기로운 분이오."

부인은 이름이 도냐 크리스티나였는데, 깊은 정과 정중함을 드러내며 그를 맞았고, 돈키호테는 아주 슬기롭고 점잖은 말로 부인에게 자신을 바쳤다. 학생과도 거의 같은 인사를 나누었고, 돈키호테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를 슬기롭고 재치 있는 젊은이로 여겼다.

여기서 작가는 돈 디에고의 집에 딸린 온갖 것을 그려 보이며 부유한 농사꾼 신사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려 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옮긴 사람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말없이 넘어가는 편이 좋겠다고 여겼다. 그것들이 이 이야기의 주된 목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는 지루한 곁가지보다 진실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어느 방으로 들였고, 산초가 그의 갑옷을 벗겼다. 돈키호테는 통 넓은 반바지에 샤미 가죽 조끼 차림이 되었는데, 모두 갑옷의 때로 번들번들했다. 깃은 풀도 먹이지 않고 레이스도 달지 않은 학생풍의 넓은 깃이었고, 반장화는 대추야자 빛깔, 구두에는 밀랍을 먹인 차림이었다. 그는 바다표범 가죽 칼띠에 매단 좋은 칼을 찼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콩팥 병을 앓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갈색 모직으로 지은 짧은 망토를 걸쳤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그는 물을 다섯 들통인지 여섯 들통인지 써서(들통 수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 엇갈린다) 머리와 얼굴을 씻었는데, 그래도 물은 여전히 유청 빛깔이었다. 산초의 군것질 욕심과, 주인을 그토록 하얗게 만든 그 시커먼 응유 치즈를 산 덕분이었다. 앞서 말한 차림으로 돈키호테는 멋지고 늠름하게 다른 방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상을 차리는 동안 그의 말동무가 되어 주려고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귀한 손님이 왔으니 도냐 크리스티나 부인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할 줄도 알고 대접할 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돈키호테가 갑옷을 벗는 동안, 돈 디에고의 아들, 이름이 돈 로렌소인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틈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집에 데려오신 이 기사를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이름도, 생김새도, 편력 기사라고 하는 것도 어머니와 저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얘야, 무엇이라고 말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돈 디에고가 대답했다.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치광이나 할 짓을 하는 것도 보았고, 그 행동을 지우고 없애 버릴 만큼 슬기로운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는 것뿐이다. 네가 그분과 이야기해 보고 그분이 아는 것의 맥을 짚어 보아라. 너는 슬기로우니, 그분이 슬기로운지 어리석은지 가장 이치에 맞는 쪽으로 판단해 보아라. 하기야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분을 제정신인 사람이라기보다 미치광이로 여긴다."

그리하여 돈 로렌소는 앞서 말했듯이 돈키호테의 말동무가 되어 주러 갔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여러 이야기 가운데 돈키호테가 돈 로렌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리의 아버님이신 돈 디에고 데 미란다 나리께서 나리가 지닌 드문 재능과 섬세한 재치를 내게 알려 주셨소. 무엇보다 나리가 위대한 시인이라고 하셨소."

"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돈 로렌소가 대답했다. "하지만 위대하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시를 좀 좋아하고 훌륭한 시인들의 시를 즐겨 읽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위대한 시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겸손이 나쁘지 않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오만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인은 없으니까."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돈 로렌소가 대답했다. "위대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인도 있을 것입니다."

"드물겠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해 보시오. 나리 아버님 말씀으로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시 때문에 좀 들뜨고 생각에 잠겨 있다던데, 무슨 시요? 글로사라면 나도 글로사라는 것을 좀 아니까 그 시를 알면 기쁘겠소. 그리고 시 겨루기에 낼 시라면 둘째 상을 받도록 애쓰시오. 첫째 상은 언제나 연줄이나 높은 신분이 가져가고, 둘째 상은 순전히 공정함이 가져가니까. 그러니 셋째 상이 둘째가 되고, 이 셈으로 치면 첫째 상은 셋째가 되는 셈이오. 대학에서 학위를 주는 방식과 같지요. 그렇기는 해도 첫째라는 이름은 대단한 것이오."

"지금까지는" 돈 로렌소가 속으로 말했다. "당신을 미치광이라고 판단할 수 없겠는걸. 더 가 보자."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나리께서는 학교를 다니신 것 같은데, 어떤 학문을 들으셨습니까?"

"편력 기사도라는 학문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시라는 학문만큼 훌륭하고, 오히려 손가락 두 마디만큼 더 훌륭하오."

"그게 무슨 학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돈 로렌소가 맞받았다.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아니 거의 모든 학문을 그 안에 품은 학문이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 학문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법률가여야 하오. 저마다에게 제 것과 제게 맞는 것을 주려면 분배의 정의와 교환의 정의의 법을 알아야 하니까. 신학자여야 하오.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법을 어디서든 요구받으면 그 까닭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밝힐 줄 알아야 하니까. 의사여야 하고, 무엇보다 약초를 알아야 하오. 사람 없는 외딴 땅과 사막 한가운데서 상처를 낫게 하는 힘을 지닌 풀을 알아보아야 하니까. 편력 기사가 걸핏하면 자기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오. 점성가여야 하오. 별을 보고 밤이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자기가 세상의 어느 쪽 어느 지대에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수학을 알아야 하오. 걸음마다 수학이 필요한 일이 생길 테니까. 그리고 신학적 덕과 기본 덕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따로 치고, 더 자잘한 데로 내려가서 말하면, 물고기 니콜라스, 또는 니콜라오가 헤엄쳤다고 하는 것처럼 헤엄칠 줄 알아야 하오.[1] 말에 편자를 박고 안장과 재갈을 손볼 줄도 알아야 하오. 그리고 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느님과 자기 귀부인에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은 정결하고, 말은 정숙하고, 행동은 너그럽고, 행실은 용감하고, 고난은 잘 견디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자비로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오. 진실을 지키다 목숨을 잃는다 해도 말이오. 이 모든 크고 작은 자질로 훌륭한 편력 기사가 이루어지오. 그러니 돈 로렌소 나리, 그것을 공부하고 업으로 삼는 기사가 배우는 것이 코흘리개 학문인지, 그리고 학당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거드름 피우는 학문과 견줄 만한지 보시오."

"그것이 그렇다면" 돈 로렌소가 맞받았다. "그 학문이 모든 학문보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이라니, 무슨 말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 말씀은요" 돈 로렌소가 말했다. "그토록 많은 덕을 갖춘 편력 기사가 옛날에 있었는지, 지금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하는 말을 나는 여러 번 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세상에 편력 기사가 있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오. 그리고 하늘이 기적으로 그들에게 편력 기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진실을 깨우쳐 주지 않는 한, 경험이 여러 번 내게 보여 주었듯이 어떤 수고를 들여도 헛일이 되리라 여기니, 지금은 나리를 많은 이들과 함께 빠진 그 잘못에서 건져 내느라 지체하고 싶지 않소. 내가 할 생각은

하늘에 비는 것이오. 하늘이 나리를 그 잘못에서 건져 주고, 지난 세기에 편력 기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이롭고 얼마나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있다면 얼마나 쓸모 있을지를 깨우쳐 주기를 말이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게으름과 빈둥거림과 식탐과 호사가 판을 치고 있소."

"우리 손님이 고삐가 풀려 달아나 버렸군." 이때 돈 로렌소가 속으로 말했다. "그래도 그는 멋들어진 미치광이야.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내가 맥없는 얼간이겠지."

점심을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두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냈다. 돈 디에고는 아들에게 손님의 재주에서 무엇을 깨끗이 가려냈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아들이 대답했다.

"세상의 의사와 솜씨 좋은 필경사가 다 덤벼도 그분을 광기의 초고에서 깨끗이 옮겨 적어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분은 맑은 틈이 가득한, 얼룩덜룩한 미치광이예요."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음식은 돈 디에고가 길에서 자기가 손님들에게 늘 내놓는다고 말한 그대로 정갈하고 푸짐하고 맛있었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무엇보다 흐뭇해한 것은 온 집 안에 흐르는 놀라운 고요였는데, 꼭 카르투시오회 수도원 같았다. 식탁보를 걷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손 씻을 물이 돌고 나자, 돈키호테는 돈 로렌소에게 시 겨루기에 낼 시를 읊어 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돈 로렌소는 읊어 달라고 청하면 마다하고 청하지 않으면 토해 내듯 쏟아 내는 그런 시인들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제 글로사를 읊겠습니다. 아무 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재주를 갈고닦으려고 지은 것이니까요."

"슬기로운 벗 하나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시에 글로사를 붙이느라 애쓸 것은 없다는 생각이었소. 그가 말하는 까닭은 이러했소. 글로사는 결코 본시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 풀이하는 시가

바라는 뜻과 의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오. 게다가 글로사의 규칙은 너무나 빡빡해서, 물음표도, '말했다'도 '말하리라'도,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것도, 뜻을 바꾸는 것도 허락하지 않소. 그 밖에도 글로사를 짓는 사람들을 옭아매는 여러 굴레와 속박이 있는데, 나리도 아시겠지요."

"정말이지 돈키호테 나리" 돈 로렌소가 말했다. "나리의 말꼬리를 줄줄이 틀린 라틴어 잡듯 잡아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군요. 뱀장어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가시니까요."

"나리가 하시는 말씀이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미끄러져 빠져나간다는 말로 뜻하시는 것을 모르겠소."

"곧 알아들으시게 해 드리겠습니다." 돈 로렌소가 대답했다. "지금은 풀이할 본시와 글로사를 잘 들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나의 '였다'가 '이다'로 돌아온다면,
'이리라'를 더 기다릴 것 없이,
아니면 이제 그때가 온다면,
뒤에 올 것의 그때가……!

글로사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듯
지나가 버렸네, 내게 주었던 복이,
한때는 인색하지 않던 운명의 여신이.
그리고 다시는 돌려주지 않았네,
넉넉히도, 정해진 몫만큼도.
벌써 몇 세기째 그대는 보고 있구나,
운명의 여신이여, 그대 발아래 엎드린 나를.
나를 다시 운 좋은 자로 돌려 다오.
내 삶은 행복해지리라,
나의 '였다'가 '이다'로 돌아온다면.
다른 기쁨도 영광도 바라지 않네,
다른 종려잎도 승리도,
다른 개선도 다른 승전도,
오직 그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
내 기억 속에서 괴로움이 된 그 기쁨으로.
그대가 나를 그리로 돌려보낸다면,
운명의 여신이여, 누그러지리라,
내 불길의 모든 매서움이.
더구나 이 복이 당장 온다면,
'이리라'를 더 기다릴 것 없이.
나는 불가능한 것을 청하네.
한 번 있고 난 시간을
다시 있게 하는 힘은
땅 위에 없으니,
그토록 멀리 미친 힘은 없으니.
시간은 달리고, 날고, 가네,
가볍게,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러니 틀린 것이리라, 청하는 이는,

시간이 이제 가 버리기를,
아니면 시간이 이제 돌아오기를.
나는 갈피 못 잡는 삶을 사네,
바라다가 또 두려워하다가.
그것은 뻔히 아는 죽음이니,
차라리 죽으면서
괴로움의 출구를 찾는 편이 훨씬 낫겠네.
내게는 끝내는 것이
이로우련만, 그렇지 않구나.
더 나은 생각으로 헤아려 보니
내게 삶을 주는 것은 두려움이니,
뒤에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돈 로렌소가 글로사를 다 읊자 돈키호테가 벌떡 일어나더니, 외침처럼 들리는 높은 목소리로 돈 로렌소의 오른손을 잡고 말했다.

"하늘이 가장 높은 곳에 살아 계시니 맹세하오, 너그러운 젊은이여. 그대는 온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이오. 어느 시인이, 하느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를, 말했듯이 키프로스나 가에타에서가 아니라, 아테네의 학당들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 학당에서, 그리고 지금 살아 있는 파리와 볼로냐와 살라망카의 학당에서 월계관을 받아 마땅하오! 하늘이시여, 그대에게서 첫째 상을 빼앗는 심판관들은 포이보스가 활로 쏘아 맞히고, 무사이 여신들이 결코 그들 집 문턱을 넘지 않게 하소서. 나리, 괜찮다면 좀 더 긴 시를 몇 편 들려주시오. 그대의 놀라운 재주의 맥을 온전히 짚어 보고 싶소."

돈 로렌소가 돈키호테를 미치광이로 여기면서도 그의 칭찬을 듣고 기뻐했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은가? 오, 아첨의 힘이여, 너는 어디까지 뻗어 가며, 너의 달콤한 관할의 경계는 얼마나 넓은가! 돈 로렌소가 이

진실을 증명했다. 그는 돈키호테의 청과 바람을 들어주어,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우화, 또는 이야기를 노래한 이 소네트를 읊었다.

소네트

아름다운 처녀가 담벼락을 뚫네,
피라모스의 늠름한 가슴을 열었던 그 처녀가.
사랑의 신이 키프로스를 떠나 곧장 가네,
그 좁고도 놀라운 틈을 보러.
거기서는 침묵이 말하네, 목소리는 감히
그토록 좁디좁은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그러나 영혼들은 들어가네, 사랑은 실로
가장 어려운 일도 쉽게 만들곤 하니.
욕망은 박자를 벗어났고, 경솔한
처녀의 걸음은 제 즐거움을 좇아
제 죽음을 부르네. 보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두 사람을 한순간에, 오 기이한 일이여,
죽이고, 덮어 주고, 되살리네,
칼 하나가, 무덤 하나가, 기억 하나가.

"하느님께 찬미를!" 돈 로렌소의 소네트를 듣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다 닳아 없어진 시인이 셀 수 없이 많은 가운데서, 나리처럼 다 닦아 이룬 시인을 보았구려. 나리, 이 소네트의 솜씨가 내게 그렇게 일러 주오."

돈키호테는 돈 디에고의 집에서 나흘 동안 더없는 대접을 받으며 지냈다. 나흘이 지나자 그는 떠나게 해 달라고 청하며, 그 집에서 받은 은혜와 극진한 대접에 감사하지만 편력 기사들이 오랜 시간을 빈둥거림과 호사에 내맡기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니 제 소임을 다하러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 고장에는 모험이 넘쳐 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모험을 찾으며, 그의 곧은 행로의 목적지인 사라고사 마상 시합 날이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그보다 먼저 그 근방에서 그토록 많은 놀라운 일들이 전해지는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가 보고, 흔히 루이데라라고 부르는 일곱 늪의 근원과 참된 샘도 알아보고 캐 보겠다고 덧붙였다.

돈 디에고와 그의 아들은 그의 명예로운 결심을 칭찬하고, 자기 집과 재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될 수 있는 한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의 인품의 훌륭함과 그의 명예로운 업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다.

마침내 그가 떠나는 날이 왔다. 돈키호테에게는 즐거운 날이었지만 산초 판사에게는 그만큼 슬프고 불길한 날이었다. 산초는 돈 디에고 집의 넉넉함 속에서 아주 잘 지냈으므로, 숲과 외딴 땅에서 늘 겪는 배고픔과 변변찮게 채운 안장 자루의 궁색함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래도 그는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들로 안장 자루를 가득가득 채웠다. 작별할 때 돈키호테가 돈 로렌소에게 말했다.

"전에 나리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소. 나리께서 명성의 신전의 다다를 수 없는 꼭대기에 이르는 데 길과 수고를 덜고 싶으시다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요. 좀 좁은 시의 오솔길을 한쪽으로 제쳐 두고, 더없이 좁은 편력 기사도의 오솔길을 택하시오. 그 길이면 지푸라기 하나 집어 주는 사이에 나리를 황제로 만들어 드리기에 넉넉하오."

이 말로 돈키호테는 제 광기의 소송 기록을 마무리 지었고, 다음에 덧붙인 말로 더욱 그렇게 했다.

"하느님께서 아시지만, 나는 돈 로렌소 나리를 데려가고 싶소. 복종하는 자는 용서하고 오만한 자는 짓밟고 걷어차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요. 그것은 내가 업으로 삼는 일에 딸린 덕이오. 그러나

나리의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 없고 나리의 훌륭한 공부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 나리께 이것 하나만 일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소. 시인으로서 나리는 자기 생각보다 남의 의견을 길잡이로 삼으면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것이오. 제 자식이 못나 보이는 아비 어미는 없는데, 머리로 낳은 자식이라면 이 착각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오."

아버지와 아들은 슬기롭다가도 터무니없어지는 돈키호테의 뒤섞인 말에, 그리고 자기 소망의 목표요 과녁으로 여기는 불운한 모험을 찾아 나서는 일에 그가 온통 매달리는 그 고집과 끈기에 다시 놀랐다. 제안과 인사가 거듭 오갔고, 성의 안주인의 정다운 허락을 받아 돈키호테와 산초는 로시난테와 잿빛 당나귀에 올라 길을 떠났다.

---

1. 물고기 니콜라스(이탈리아어로 페세 콜라)는 시칠리아 전설 속 인물로,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오래 헤엄치며 살았다고 한다.

제19장 사랑에 빠진 양치기의 모험과 정말로 우스운 다른 일들을 이야기한다

돈키호테가 돈 디에고의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 성직자 같기도 하고 학생 같기도 한 사람 둘과 농사꾼 둘이 당나귀 네 마리에 올라타고 오는 것과 마주쳤다. 학생 하나는 초록 거친 베에 싼 것을 여행 가방처럼 지니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흰 고급 모직 조금과 거친 능직 양말 두 켤레였다. 다른 학생은 칼끝에 가죽 덮개까지 씌운 새 연습용 검은 칼 두 자루 말고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다. 농사꾼들은 다른 물건들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어느 큰 고을에서 사서 자기 마을로 가져가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도 농사꾼들도 돈키호테를 처음 보는 사람이 모두 빠지는 그 놀라움에 똑같이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그토록 동떨어진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돈키호테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자기가 가는 길과 같다는 것을 알고는 함께 가자고 청하면서, 그들의 암탕나귀가 자기 말보다 빨리 걸으니 걸음을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는 몇 마디로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소임과 업을 지녔는지, 곧 세상 곳곳으로 모험을 찾아다니는 편력 기사라고 말하고, 자기 본래 이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이고 별호는 사자의 기사라고 일러 주었다. 이 모든 말이 농사꾼들에게는 그리스 말이나 은어로 들렸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학생들은 곧 돈키호테의 머리가

허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도 그들은 놀라움과 존경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모험을 찾는 분들이 대개 그렇듯 나리께서 정해 둔 길이 없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라만차에서, 아니 그 둘레 여러 레과 안에서 오늘날까지 치른 혼례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호화로운 혼례 하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대단하게 말하니 어느 왕자의 혼례냐고 물었다.

"그게 아니라" 학생이 대답했다. "농사꾼 총각과 농사꾼 처녀의 혼례입니다. 신랑은 이 고장 전체에서 가장 부자이고, 신부는 사람들이 일찍이 본 가운데 가장 아름답습니다. 혼례를 치를 채비가 남다르고 새롭습니다. 신부의 마을 곁에 있는 풀밭에서 치를 예정인데, 신부는 다들 아름다운 키테리아라고 부르고 신랑은 부자 카마초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열여덟 살이고 신랑은 스물두 살이니 둘이 꼭 맞는 짝이지요. 하기야 세상 온갖 집안의 내력을 다 외우고 있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 말로는 아름다운 키테리아의 집안이 카마초의 집안보다 낫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갈라진 틈을 수없이 땜질할 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카마초는 씀씀이가 후해서, 풀밭 위를 온통 나뭇가지로 덮어씌우기로 마음먹었는데, 해가 땅을 덮은 푸른 풀을 찾아가려고 해도 애를 먹을 정도입니다. 칼춤이며 작은 방울춤이며 춤판도 미리 마련해 두었는데, 그 마을에는 방울을 기막히게 울리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발 구르는 춤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끌어모은 춤꾼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도, 제가 말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도 이 혼례를 기억할 만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절망한 바실리오가 이 혼례에서 저지르리라고 제가 짐작하는 일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바실리오는 키테리아와 같은 마을에 사는 젊은 목동인데,

그의 집은 키테리아 부모의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신은 그것을 빌미로 이미 잊힌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사랑을 세상에 되살려 냈지요. 바실리오는 아주 어릴 적부터 키테리아를 사랑했고, 키테리아도 숱한 정숙한 호의로 그의 마음에 화답해 와서, 마을에서는 두 아이 바실리오와 키테리아의 사랑을 재밋거리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자 키테리아의 아버지는 바실리오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드나드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걱정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딸을 부자 카마초에게 시집보내기로 정했지요. 바실리오에게 시집보내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실리오는 타고난 복은 많아도 재물 복은 그만큼 없었으니까요. 시샘 없이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아는 가장 날랜 젊은이입니다. 쇠막대 던지기의 명수이고, 씨름도 빼어나며, 공놀이도 대단합니다. 사슴처럼 달리고, 산양보다 높이 뛰고, 나무 핀 넘어뜨리기는 마법이라도 부리듯 합니다. 종다리처럼 노래하고, 기타를 치면 기타가 말을 하게 만들지요. 무엇보다 칼을 다루는 솜씨가 누구 못지않습니다."

"그 재주 하나만으로도"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젊은이는 아름다운 키테리아와 혼인할 만할 뿐 아니라, 히네브라 왕비가 오늘날 살아 있다면 란사로테와 그것을 막으려는 모든 이들이 싫어하든 말든 그 왕비와도 혼인할 만하오."

"우리 마누라가 들으면 펄쩍 뛸 소리네요!" 그때까지 잠자코 듣기만 하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우리 마누라는 '양은 저마다 제 짝과'라는 속담을 붙들고, 사람은 저마다 제 처지에 맞는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벌써 정이 들기 시작한 그 착한 바실리오가 그 키테리아 아씨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혼인을 막는 자들은 복 받고 편히 잠들기를…… 아니, 거꾸로 말하려던 참이에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혼인해야 한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부모가 자식을 마땅한 사람과 마땅한 때에 혼인시킬 선택권과 관할권을 빼앗기게 될 게다. 딸들의 뜻대로 남편을 고르게 맡겨 둔다면, 어떤 딸은 아버지의 하인을 고를 테고, 어떤 딸은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 눈에 멋지고 의젓해 보인 사내를 고를 게다. 그자가 막돼먹은 칼잡이라 해도 말이다. 사랑과 끌림은 신분을 고르는 데 꼭 필요한 분별의 눈을 쉽게 멀게 하고, 혼인이라는 신분은 잘못 고를 위험이 아주 크니, 올바로 고르려면 신중함과 하늘의 각별한 은총이 있어야 한다. 누가 먼 길을 떠나려 할 때, 그가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갈 믿을 만하고 온순한 길동무를 찾는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종착지까지 평생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하듯 잠자리에서도, 밥상에서도, 어디서나 함께할 길동무라면 말이다. 제 아내라는 길동무는 한번 사면 물리거나 바꾸거나 맞바꿀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목숨이 이어지는 동안 이어지는, 떼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번 목에 걸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되는 올가미여서, 죽음의 낫이 끊어 주지 않으면 풀 길이 없다. 석사 나리께서 바실리오 이야기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남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두고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게다."

이 말에 학사, 아니 돈키호테가 부른 대로라면 석사인 그 학생이 대답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뿐입니다. 바실리오는 아름다운 키테리아가 부자 카마초와 혼인한다는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웃는 것도, 조리 있는 말을 하는 것도 누구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늘 시름에 잠겨 서글픈

얼굴로 혼잣말을 하며 다니니, 정신이 돌아 버렸다는 틀림없고 뚜렷한 표시를 보이는 셈이지요. 적게 먹고 적게 자는데, 먹는 것은 과일이고, 자는 곳은, 잠을 자기나 한다면, 들판의 딱딱한 땅바닥 위입니다. 꼭 들짐승처럼요. 이따금 하늘을 쳐다보다가 또 어떤 때는 땅바닥에 눈을 박고 있는데, 어찌나 넋이 나가 있는지 바람에 옷자락만 나부끼는, 옷 입힌 석상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결국 그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기색이 어찌나 뚜렷한지, 그를 아는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키테리아가 내일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에게 사형 선고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느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시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상처를 주시는 하느님이 약도 주시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많은데, 한 시간 만에, 아니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비가 오면서 해가 나는 것도 봤어요. 밤에 멀쩡하게 잠자리에 든 사람이 이튿날 꼼짝도 못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운명의 수레바퀴에 못을 박아 두었다고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고말고요. 여자의 '네'와 '아니요' 사이에는 저는 바늘 끝 하나 넣을 엄두도 안 나요. 들어갈 틈이 없을 테니까요. 키테리아가 진심으로 기꺼이 바실리오를 좋아한다는 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는 바실리오에게 행운을 한 자루 안겨 주겠어요. 제가 듣기로 사랑은 구리를 금으로, 가난을 부로, 눈곱을 진주로 보이게 하는 안경을 끼고 본다니까요."

"이 저주받을 산초야,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게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속담과 이야기를 꿰기 시작하면 유다나 몸소 와서 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겠구나. 말해 보아라, 이 짐승아. 네가 못이니 수레바퀴니, 그 밖에 무엇 하나라도 아는 게 있느냐?"

"아이고!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산초가 대답했다. "제 격언이 헛소리로 여겨지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말을 알아듣고, 제가 한 말에 바보 같은 소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인 나리, 나리는 언제나 제 말에, 아니 제 행동에까지 검철관 노릇을 하세요."

"검찰관이라고 해야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검철관이 아니라. 이 좋은 말을 비틀어 대는 녀석아, 하느님께서 너를 혼내 주시기를."

"저한테 트집 잡지 마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궁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살라망카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으니, 제 낱말에 글자를 하나 보탰는지 뺐는지 알 턱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이고 맙소사, 사야고 촌사람한테 톨레도 사람처럼 말하라고 할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톨레도 사람 가운데도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는 데는 별로 날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석사가 말했다. "무두질 거리나 소코도베르 광장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성당 회랑을 거의 하루 내내 거니는 사람들만큼 말을 잘할 수가 없지요. 모두 톨레도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순수하고 제대로 되고 우아하고 맑은 말은, 마할라온다에서 태어났다 해도 슬기로운 궁정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슬기롭다고 한 것은 그렇지 못한 궁정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슬기야말로 좋은 말의 문법이고, 거기에 쓰임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 죄 탓에 살라망카에서 교회법을 공부했고, 제 생각을 맑고 평이하고 뜻이 분명한 말로 말하는 것을 조금은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네가 혀 놀리는 것보다 그 지니고 다니는 검은 칼 휘두르는 솜씨를 더 뽐내지만 않았다면" 다른 학생이 말했다. "자네는 석사 시험에서 꼴찌를 한 것처럼 일등을 했을 걸세."

"이것 보게, 학사." 석사가 대답했다. "자네는 칼 솜씨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니, 그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네."

"나한테 그건 생각이 아니라 못 박힌 진실일세." 코르추엘로가 맞받았다. "경험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면, 자네한테 칼이 있고, 마침 좋은 기회고, 나한테는 맥박과 힘이 있네. 거기에 적잖은 내 배짱까지 보태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자네가 인정하게 될 걸세. 내려서 자네의 발 놀림이니 원이니 각이니 학문이니 하는 걸 써 보게. 나는 내 새롭고 투박한 솜씨로 자네가 대낮에 별을 보게 해 줄 생각이니까. 하느님 다음으로 내가 믿는 그 솜씨 앞에서 나를 등 돌려 달아나게 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땅바닥에 나뒹굴게 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네."

"등을 돌리느냐 마느냐 하는 데는 끼어들지 않겠네." 칼 솜씨 좋은 석사가 대답했다. "다만 자네가 처음 발을 딛는 바로 그 자리에 자네 무덤을 파게 될지도 모르지. 내 말은, 자네가 업신여기는 그 칼 솜씨 때문에 거기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세."

"이제 보면 알겠지." 코르추엘로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제 당나귀에서 내려, 석사가 자기 당나귀에 싣고 가던 칼 가운데 하나를 사납게 뽑아 들었다.

"그렇게는 안 되오."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이 칼싸움의 사범이 되고, 여러 번 판가름 나지 않은 이 문제의 심판관이 되겠소."

그러고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창을 움켜쥐고 길 한가운데에 섰다. 마침 그때 석사는 몸가짐도 멋지게, 발도 박자에 맞추어 코르추엘로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코르추엘로는 흔히 하는 말로 눈에서 불을 뿜으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일행의 다른 두 농사꾼은 암탕나귀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 죽음의 비극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었다. 코르추엘로가 휘두르는 내려베기, 찌르기, 올려베기, 되베기, 두 손 내려치기는 셀 수가 없었고, 간보다 더 촘촘하고 우박보다 더 잘게 쏟아졌다. 그는 성난 사자처럼 덤벼들었지만, 그때마다 석사의 칼끝 가죽 덮개가 그의 입을

틀어막으며 맞받아 나와서 그 사나운 기세 한가운데서 그를 멈춰 세웠고, 그 덮개에 성유물처럼 입을 맞추게 했다. 다만 성유물에 마땅히, 그리고 흔히 하듯이 그토록 경건하게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

마침내 석사는 코르추엘로가 입고 있던 반 법의의 단추를 찌르기로 하나하나 다 세어 놓았고, 그 자락을 문어 다리처럼 갈가리 찢어 놓았다. 모자는 두 번이나 떨어뜨렸고, 그를 어찌나 지치게 했던지 코르추엘로는 분하고 화나고 약이 올라 칼자루를 움켜쥐고는 칼을 허공으로 힘껏 내던졌다. 구경하던 농사꾼 하나는 공증인이었는데, 그 칼을 주우러 갔다가 나중에 칼이 그에게서 거의 4분의 3레과나 날아갔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힘이 기술에 진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보게 하는 데 쓰이고 또 쓰여 왔다.

코르추엘로가 지쳐서 주저앉자 산초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맹세코 학사 나리, 제 충고를 들으시려거든 앞으로는 아무한테도 칼싸움을 걸지 마시고, 씨름이나 쇠막대 던지기를 거세요. 나리는 그럴 나이고 힘도 있으니까요. 칼 솜씨 좋다는 이런 사람들은 칼끝을 바늘귀에 꿰어 넣는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만족하네." 코르추엘로가 대답했다. "내 암탕나귀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을 차렸고, 내가 그토록 멀리 있던 진실을 경험이 보여 주었으니까."

그러고는 일어나서 석사를 끌어안았고, 둘은 전보다 더 친한 벗이 되었다. 칼을 주우러 간 공증인은 한참 걸릴 것 같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모두가 사는 키테리아의 마을에 일찍 닿으려고 길을 이어 가기로 했다.

남은 길을 가는 동안 석사는 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했는데, 증명하는 이치와 수학의 도형과 증명을 어찌나 많이

늘어놓았던지 모두가 그 학문의 훌륭함을 깨달았고, 코르추엘로는 제 고집을 꺾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을에 닿기 전에 모두의 눈에는 마을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펼쳐진 것처럼 보였다. 또 피리, 작은북, 프살테리움, 목동 피리, 탬버린, 딸랑이 같은 갖가지 악기의 어우러진 부드러운 소리도 들렸다. 가까이 가 보니 마을 어귀에 손으로 엮어 세운 나뭇가지 그늘막의 나무마다 등불이 가득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는 나뭇잎을 흔들 힘도 없을 만큼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악사들은 혼례의 흥을 돋우는 이들로, 그 아늑한 곳을 여러 패로 나뉘어 돌아다니며 어떤 이들은 춤추고, 어떤 이들은 노래하고, 어떤 이들은 앞서 말한 갖가지 악기를 연주했다. 정말이지 그 풀밭 곳곳으로 즐거움이 뛰어다니고 기쁨이 깡충거리는 것만 같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튿날 그곳에서 벌어질 공연과 춤을 편히 볼 수 있는 관람대를 세우느라 바빴다. 그곳은 부자 카마초의 혼례와 바실리오의 장례를 치르려고 마련한 자리였다. 농사꾼도 학사도 마을로 들어가자고 청했지만 돈키호테는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편력 기사들은 금빛 지붕 밑이라 해도 마을에서보다 들판과 숲에서 자는 것이 관습이라는, 자기가 보기에 더없이 넉넉한 핑계를 댔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산초는 돈 디에고의 성, 아니 집에서 누린 좋은 잠자리가 떠올라 몹시 내키지 않았다.

제20장 부자 카마초의 혼례와 가난한 바실리오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흰 새벽이 물러나 빛나는 포이보스가 뜨거운 햇살의 열기로 제 금빛 머리카락의 물방울 진주를 말리게 되자마자, 돈키호테는 팔다리의 게으름을 떨쳐 내고 일어나 아직도 코를 골고 있는 종자 산초를 불렀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그를 깨우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오,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복된 너여. 너는 시샘하지도 시샘받지도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자고, 마법사들이 너를 쫓아다니지도 마법이 너를 놀라게 하지도 않는구나. 자거라. 다시 말하지만, 백 번이라도 말하겠다. 네 아씨를 향한 질투가 너를 늘 깨어 있게 하지도 않고, 갚아야 할 빚을 갚을 궁리나 너와 네 작고 쪼들리는 식구가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 궁리가 너를 잠 못 들게 하지도 않는다. 야망이 너를 들쑤시지도 않고 세상의 헛된 영화가 너를 지치게 하지도 않는다. 네 바람의 끝은 네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생각 너머로 뻗어 가지 않으니까. 네 몸에 대한 걱정은 내 어깨 위에 얹어 두었지. 그것은 자연과 관습이 주인들에게 지운 무게요 짐이다. 하인은 자고 주인은 깨어서, 어떻게 하인을 먹여 살리고 형편을 낫게 해 주고 은혜를 베풀지 궁리한다. 하늘이 청동처럼 굳어 땅에 알맞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는 괴로움은 하인을 괴롭히지 않고 주인을 괴롭힌다. 기름지고 넉넉한 때 자기를 섬긴 사람을, 메마르고 굶주린 때에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 모든 말에 산초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돈키호테가 창 자루 끝으로 그를 깨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깨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졸리고 굼뜬 몸으로 깨어나 사방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다.

"제가 잘못 알지 않았다면, 이 나뭇가지 그늘막 쪽에서 골풀이나 백리향 냄새보다는 구운 베이컨 냄새가 훨씬 더 풍겨 와요. 이런 냄새로 시작하는 혼례라면, 정말이지 넉넉하고 푸짐한 혼례일 게 틀림없어요."

"그만해라, 이 먹보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자. 업신여김을 당한 바실리오가 어떻게 하는지 보러 이 혼례를 구경하러 가자꾸나."

"그 사람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가난하지만 않았더라면 키테리아와 혼인했겠지요. 동전 한 닢 가지고 구름 위로 솟으려 하다니, 그게 될 말이에요? 맹세코 나리, 제 생각엔 가난한 사람은 찾아낸 것에 만족해야지 바다 한가운데서 뚱딴지를 찾아서는 안 돼요. 카마초는 바실리오를 레알 은화로 둘둘 말아 버릴 수도 있다는 데 제 팔 하나를 걸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사실이겠지만요, 카마초가 주었고 또 줄 수 있는 나들이옷과 보석을 마다하고 바실리오의 쇠막대 던지기와 검은 칼 놀음을 고른다면 키테리아는 아주 바보일 거예요. 쇠막대를 잘 던졌다고, 칼 솜씨가 멋지다고 선술집에서 포도주 한 잔이라도 주나요? 팔리지 않는 재주와 솜씨는 디를로스 백작이 가졌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솜씨가 돈 많은 사람한테 붙으면, 제 삶이 그 솜씨만큼만 보기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터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인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터요 주춧돌은 돈이거든요."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도, 산초"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연설을 끝내거라. 걸음마다 시작하는 연설을 계속하게 놔두면, 너는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남지 않을 게다. 몽땅 말하는 데 써 버릴 테니까."

"나리께서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산초가 맞받았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가 맺은 약정의 조항들을 기억하셔야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웃을 해치거나 나리의 권위를 거스르지만 않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그 조항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초, 나는 그런 조항이 기억나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입을 다물고 따라오너라. 어젯밤 우리가 들은 악기들이 벌써 다시 골짜기들을 흥겹게 하고 있구나. 혼례는 틀림없이 오후의 더위 속이 아니라 아침의 서늘함 속에서 치를 게다."

산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잿빛 당나귀에 길마를 얹고 둘은 짐승에 올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뭇가지 그늘막 안으로 들어갔다.

산초의 눈에 맨 먼저 들어온 것은 느릅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깎은 꼬챙이에 통째로 꿰인 어린 황소였다. 그것을 구울 불에서는 작은 산만 한 장작더미가 타고 있었고, 모닥불 둘레에 놓인 솥 여섯 개는 다른 솥들처럼 흔한 거푸집에 부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마다 푸줏간 하나 몫의 고기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항아리를 반으로 자른 것 여섯 개였으므로, 그 안에 숫양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감추어도 마치 새끼 비둘기를 넣은 듯 눈에 띄지도 않았다. 솥에 묻으려고 나무마다 매달아 둔 가죽 벗긴 산토끼와 털 뽑은 닭은 셀 수가 없었고, 바람에 식히려고 나무에 매달아 둔 갖가지 새와 사냥감은 끝이 없었다.

산초가 세어 보니 저마다 두 아로바가 넘게 드는 가죽 술 부대가 예순 개가 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좋은 포도주로 가득 차 있었다. 타작마당에 밀 더미가 쌓이듯 새하얀 빵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치즈는 벽돌을 엇갈려 쌓듯 쌓아 올려 성벽을 이루었으며, 염색 집 솥보다 더 큰 기름 가마솥 두 개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튀겼는데, 커다란

주걱 두 개로 튀긴 것을 건져 바로 곁에 마련해 둔 다른 꿀 가마솥에 퐁당 담갔다.

요리하는 남녀는 쉰 명이 넘었는데, 모두 깔끔하고 모두 부지런하고 모두 흐뭇한 얼굴이었다. 어린 황소의 커다란 배 속에는 작고 연한 새끼 돼지 열두 마리가 들어 있었는데, 배를 위로 꿰매어 고기에 맛을 내고 연하게 하는 데 썼다. 갖가지 향신료는 리브라 단위가 아니라 아로바 단위로 사들인 것 같았고, 모두 커다란 궤짝 하나에 훤히 드러나 있었다. 결국 혼례 채비는 시골풍이었지만 군대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푸짐했다.

산초 판사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마음이 끌렸다. 먼저 그의 욕망을 사로잡아 항복시킨 것은 솥들이었는데, 그는 거기서 작은 냄비 하나만큼 덜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다음으로는 가죽 술 부대가 그의 마음을 끌었고, 마지막으로는 프라이팬에 튀긴 과자들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토록 배불뚝이인 가마솥을 프라이팬이라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도 없고 달리 어찌할 도리도 없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요리사 하나에게 다가가, 정중하면서도 배고픈 말로 빵 껍질 하나를 저 솥 가운데 하나에 적셔 먹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 말에 요리사가 대답했다.

"형씨, 부자 카마초 덕분에 오늘은 배고픔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날이 아니라네. 내려서 그 근처에 국자가 있나 보고, 닭 한두 마리 건져 내게. 맛있게 들게."

"국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기다리게." 요리사가 말했다. "아이고, 내 죄야! 자네는 어지간히 까다롭고 숫기 없는 사람인가 보군!"

이렇게 말하며 그는 들통 하나를 집어 반쪽 항아리 솥에 쑥 집어넣더니 닭 세 마리와 거위 두 마리를 건져 올려 산초에게 말했다.

"먹게, 벗님. 점심때가 올 때까지 이 거품으로 아침이나 들게."

"이걸 담을 데가 없는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국자고 뭐고 다 가져가게." 요리사가 말했다. "카마초의 재산과 흐뭇함이 무엇이든 다 채워 주니까."

산초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돈키호테는 나뭇가지 그늘막 한쪽으로 농사꾼 열두 명이 더없이 아름다운 암말 열두 마리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암말들은 값지고 눈부신 들판용 마구를 갖추고 가슴걸이에 방울을 잔뜩 달았으며, 농사꾼들은 모두 흥겨운 잔치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무리를 지어 풀밭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달리며, 흥겨운 함성과 고함을 지르며 외쳤다.

"카마초와 키테리아 만세! 신랑은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 부자이고,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가 속으로 말했다.

"이자들은 나의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보지 못한 게 틀림없구나. 보았다면 저희 키테리아를 칭찬하는 데 손을 거두었을 텐데."

얼마 뒤 나뭇가지 그늘막 여러 곳으로 갖가지 춤패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칼춤 패가 있었다. 늠름한 생김새에 기운찬 젊은 목동 스물네 명이었는데, 모두 얇고 새하얀 아마포 옷을 입고 고운 비단실로 여러 빛깔 수를 놓은 머릿수건을 쓰고 있었다. 암말을 탄 사람 하나가 그 춤패를 이끄는 날랜 젊은이에게 춤꾼 가운데 다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금까지는 하느님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모두 멀쩡해요."

그러고는 곧 다른 동료들과 얽히기 시작했는데, 어찌나 여러 번 돌고 어찌나 솜씨가 좋던지, 돈키호테는 이런 춤을 보는 데 익숙했지만 그토록 훌륭해 보인 춤은 하나도 없었다.

더없이 아름다운 아가씨들로 이루어진 다른 춤패도 그의 눈에 훌륭해 보였다. 아가씨들은 어찌나 어렸던지 열네 살 아래도 없고 열여덟 살이 된 이도 없어 보였는데, 모두 초록 고운 모직 옷을 입었고, 머리카락은 일부는 땋고 일부는 풀어 내렸는데, 모두 어찌나 금빛인지 햇살과 겨룰 만했고, 그 위에는 재스민, 장미, 맨드라미, 인동덩굴로 엮은 화관을 쓰고 있었다. 이 춤패를 이끄는 이는 덕망 있어 보이는 노인과 나이 지긋한 부인이었는데, 나이로 보아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날래고 몸이 가벼웠다. 사모라 백파이프가 그들에게 가락을 맞춰 주었고, 아가씨들은 얼굴과 눈에는 정숙함을, 발에는 날램을 싣고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춤꾼들임을 보여 주었다.

그 뒤에는 공들여 꾸민 춤, 대사가 있는 춤이라고 부르는 춤패가 들어왔다. 두 줄로 나뉜 여덟 요정의 춤이었는데, 한 줄은 쿠피도 신이 이끌고 다른 한 줄은 이익의 신이 이끌었다. 쿠피도는 날개와 활과 화살통과 화살로 꾸몄고, 이익의 신은 금과 비단으로 된 화려한 갖가지 빛깔 옷을 입었다. 사랑을 따르는 요정들은 등에 흰 양피지에 큰 글자로 쓴 이름을 달고 있었다. 첫째 요정의 이름은 시, 둘째는 슬기, 셋째는 좋은 가문, 넷째는 용기였다. 이익을 따르는 요정들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 첫째 요정의 이름은 너그러움, 둘째는 선물, 셋째는 보물, 넷째는 평온한 소유였다. 모두의 앞에는 나무로 만든 성 하나가 왔는데, 담쟁이와 초록으로 물들인 삼으로 온몸을 덮은 야만인 넷이 그것을 끌었는데, 그 야만인들이 어찌나 진짜 같았던지 하마터면 산초가 놀랄 뻔했다. 성의 정면과 네 벽면에는 모두 「삼가는 정절의 성」이라고 쓰여 있었다. 북과 피리를 능숙하게 다루는 악사 넷이 그들에게 가락을 맞춰 주었다.

쿠피도가 춤을 시작했다. 그는 두 번 춤사위를 바꾸고는 눈을 들어 성가퀴 사이에 선 아가씨를 향해 활을 겨누고 그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힘센 신이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드넓게 물결치는 바다에서도,
심연이 그 무시무시한
구렁 속에 품은 모든 것에서도.
두려움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 해도 그러하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에서
나는 명하고, 빼앗고, 놓고, 금한다."

노래를 마치자 그는 성 위로 화살 하나를 쏘아 올리고 제자리로 물러났다. 이어서 이익의 신이 나와 다시 두 번 춤사위를 바꾸었다. 작은북들이 잠잠해지자 그가 말했다.

"나는 사랑보다 힘센 자,
사랑을 이끄는 것도 나로다.
하늘이 땅 위에 기르는
가장 좋은 혈통이 나로다,
가장 이름나고 가장 큰 혈통이.
나는 이익, 나를 두고
바르게 처신하는 이는 드물고,
나 없이 처신하는 것은 큰 기적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너에게 바친다,
이제도 영원히, 아멘."

이익의 신이 물러나자 시가 앞으로 나섰다. 시는 다른 이들처럼 춤사위를 마친 뒤 성의 아가씨에게 눈을 맞추고 말했다.

"더없이 달콤한 생각에 담아,
더없이 달콤한 시가,
드높고 진중하고 슬기로운 생각에 담아,
아씨여, 그대에게 영혼을 보낸다,
천 편의 소네트에 감싸서.
혹시 나의 이 고집이
그대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많은 여인이
시샘하는 그대의 운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 올려지리라,
달의 테두리 너머로."

시가 물러나자 이익의 편에서 너그러움이 나와 춤사위를 마친 뒤 말했다.

"너그러움이라 부르는 것은
극단을 피하는 베풂이니,
한쪽 극단은 헤픔이요,
다른 쪽은 미지근하고 맥없는 뜻을
드러내는 그 반대로다.
그러나 나는 그대를 드높이려고
오늘부터 헤픈 이가 되리라.
그것은 악덕이지만 명예로운 악덕,
사랑에 빠진 가슴의 악덕이니,
그 가슴은 베풂에서 드러나는 법."

이렇게 두 패의 인물들이 모두 나왔다가 물러났고, 저마다 춤사위를 펼치고 제 시를 읊었다. 우아한 시도 있고 우스꽝스러운 시도 있었는데, 돈키호테는(그는 기억력이 대단했다) 앞서 말한 시들만 외워 두었다. 그다음에 모두 한데 섞여 멋지고 거침없는 몸놀림으로 고리를 지었다 풀었다 했다. 사랑의 신은 성 앞을 지날 때마다 화살을 높이 쏘아 올렸지만, 이익의 신은 성에 대고 금칠한 저금 항아리를 깨뜨렸다.

마침내 한참 동안 춤을 춘 뒤 이익의 신이 큰 얼룩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돈이 가득 든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돈주머니를 꺼내 성에 내던지자, 그 충격에 판자들이 빠져 무너지면서 아가씨는 아무것도 가리지 못한 채 무방비로 드러났다. 이익의 신이 제 편 인물들과 함께 다가가 아가씨의 목에 커다란 금사슬을 걸고는 아가씨를 붙잡아 항복시키고 포로로 삼는 시늉을 했다. 그것을 본 사랑의 신과 그 편 인물들은 아가씨를 빼앗아 오려는 몸짓을 했는데, 그 몸짓은 모두 작은북 가락에 맞추어 가지런히 춤추며 이루어졌다. 야만인들이 그들을 화해시키고는 아주 재빨리 성의 판자들을 다시 맞추어 세웠으며, 아가씨는 새로 시작하듯 다시 성 안에 틀어박혔고, 이렇게 해서 춤은 구경꾼들의 큰 흐뭇함 속에 끝났다.

돈키호테는 요정 하나에게 누가 그 춤을 짓고 짜 맞추었느냐고 물었다. 요정은 그 마을의 성직록을 받는 사제 한 분인데 그런 고안에 재간이 좋은 분이라고 대답했다.

"내기를 해도 좋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학사인지 성직록 사제인지 하는 분은 바실리오보다 카마초와 더 친한 사람이고, 저녁 기도보다 풍자에 더 능한 사람임이 틀림없소. 바실리오의 재주와 카마초의 재산을 춤에 기막히게 끼워 넣었구려!"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 싸움닭은 임금님이에요. 저는 카마초 편이에요."

"결국"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는 '이기는 놈 만세!'를 외치는 그런 천한 놈인 게 뻔하구나."

"제가 어떤 놈인지는 몰라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바실리오의 솥에서는 제가 카마초의 솥에서 건진 이것만큼 멋들어진 거품을 결코 건지지 못하리라는 건 잘 알아요."

그러고는 거위와 닭이 가득 든 들통을 주인에게 보여 주더니, 한 마리를 집어 들고 아주 맛깔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먹기 시작하며 말했다.

"바실리오의 재주 앞에서 보란 듯이 먹겠어요! 가진 만큼 값어치가 있고, 값어치만큼 가지는 법이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는 가문이 딱 둘뿐이에요. 가진 집안과 못 가진 집안이죠. 우리 할머니는 가진 집안 편이었지만요. 주인 돈키호테 나리, 요즘 세상에서는 아는 것보다 가진 것의 맥을 먼저 짚어요. 금을 뒤집어쓴 당나귀가 길마를 얹은 말보다 보기 좋다니까요.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저는 카마초 편이에요. 그 사람 솥에서는 거위와 닭, 산토끼와 집토끼가 푸짐한 거품으로 떠오르니까요. 바실리오의 솥에서 떠오를 거라곤, 잘해야, 아니 잘못하면 더더욱, 멀건 국물이겠죠."

"연설은 다 끝났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끝냈다고 쳐야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언짢아하시는 게 보이니까요. 그게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사흘 치 일감이 마름질되어 있었을 텐데요."

"산초,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벙어리가 되는 꼴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흙을 씹고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적어도 심판 날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을 만큼 벙어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침묵은 네가 평생 해 왔고 지금 하고 앞으로 할 말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게다. 게다가 내가 죽는 날이 네가 죽는 날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 아주 맞으니, 나는 네가 벙어리가 된 꼴을 결코 보지 못할 것 같구나. 네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잘 때조차도 말이다. 내가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맹세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살 없는 그 여자, 아니 죽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 여자는 어린 양도 늙은 숫양도 가리지 않고 먹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당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죽음은 임금님들의 높은 탑도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한 오두막도 똑같은 발로 밟는대요. 이 마님은 까다롭기보다 힘이 세요. 조금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먹고 무슨 일이든 해치우고, 온갖 종류의 사람이며 나이며 지위로 제 안장 자루를 채워요. 낮잠 자는 일꾼 같은 낫질꾼이 아니라 때를 가리지 않고 베어 들이는데, 마른 풀이든 푸른 풀이든 가리지 않고 베어요. 그리고 씹는 게 아니라 앞에 놓이는 건 무엇이든 꿀떡꿀떡 삼키는 것 같아요. 결코 배부를 줄 모르는 개 같은 허기가 있으니까요. 배도 없는데, 마치 수종에 걸린 듯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만 들이켜고 싶어 목말라하는 것 같아요. 찬물 한 단지를 들이켜듯이요."

"그만해라, 산초."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좋을 때 그만두고 굴러떨어지지 마라. 정말이지 네가 투박한 말로 죽음에 대해 한 이야기는 훌륭한 설교자나 할 법한 말이다. 산초, 네게 말하지만, 네가 지닌 좋은 천성과 슬기라면 강론대 하나를 손에 들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멋진 설교를 할 수 있을 게다……"

"잘 사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법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다른 싱학은 몰라요."

"그런 건 필요도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느님보다 도마뱀을 더 무서워하는 네가 어떻게 그토록 많이 아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도 짐작할 수도 없구나."

"나리, 나리는 나리의 기사도나 판단하시고" 산초가 대답했다. "남의 두려움이나 용기를 판단하는 데는 끼어들지 마세요. 저도 이웃집 자식 누구나처럼 하느님을 아주 잘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리, 이 거품이나 해치우게 놔두세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말이고, 저세상에서 그 셈을 치르라고 할 테니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다시 들통에 덤벼들었는데, 어찌나 기운차게 먹던지 돈키호테의 식욕까지 깨웠다. 뒤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돈키호테도 틀림없이 그를 거들었을 것이다.

제21장 카마초의 혼례가 이어지고 재미있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앞 장에서 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커다란 외침과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암말을 탄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는데, 그들은 신랑 신부를 맞으러 함성을 지르며 멀리까지 내달리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온갖 악기와 볼거리에 둘러싸여, 본당 신부와 양가 친척과 이웃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오고 있었는데, 다들 잔치옷 차림이었다. 산초는 신부를 보자 말했다.

"맹세코 시골 처녀 옷차림이 아니라 멋쟁이 궁정 아씨 차림이네요. 이거 원, 제 눈에 보이기로는 목에 걸어야 할 메달은 값진 산호고, 쿠엔카산 초록 모직은 서른 올짜리 벨벳이에요! 게다가 옷단 장식은 하얀 아마포 띠인 줄 알았더니, 내 목을 걸고 말하지만 공단이에요! 저 손 좀 보세요, 흑옥 가락지를 낀 줄 알았는데, 이게 금가락지가 아니면 제가 평생 잘되지 말라지요. 그것도 순금 중의 순금에다 응유처럼 하얀 징주를 박았는데, 한 알 한 알이 눈알 하나 값은 나가겠어요. 아이고, 화냥년 같으니, 머리카락은 또 어떻고요. 가발이 아니라면 평생 저보다 길고 저보다 금빛 나는 머리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저 기운하고 몸매에 흠을 잡아 보시고, 대추야자 송이를 주렁주렁 달고 흔들리는 야자나무에 견주지 말아 보시라지요. 머리카락이며 목에 늘어뜨린 장신구들이 꼭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영혼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 아가씨는 정말 옹골찬 처녀예요. 플랑드르의 모래톱[1]도 거뜬히 건너갈 만하다고요."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의 투박한 칭찬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보기에도, 자기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빼면 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아름다운 키테리아는 얼굴빛이 조금 창백했는데, 아마 혼례 날을 앞두고 몸단장을 하느라 신부라면 누구나 으레 뒤척이며 보내는 그 고단한 밤 탓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풀밭 한쪽에 양탄자와 나뭇가지로 꾸며 놓은 단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혼인 서약을 하고 거기서 춤과 볼거리를 구경할 참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막 다다랐을 때 그들 등 뒤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왔고, 그 가운데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생각은 없고 서두르기만 하는 사람들이여."

그 외침과 말에 모두 고개를 돌렸다. 보니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검은 겉옷을 입은 듯한 사내였는데, 겉옷에는 진홍빛 천 조각이 불꽃 모양으로 덧대어져 있었다. 곧 알게 되었지만 그는 불길한 사이프러스 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모두 그가 늠름한 바실리오임을 알아보았다. 사람들은 하필 이런 때에 그가 나타났으니 무슨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의 외침과 말이 어디에 가서 닿을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마침내 그는 지치고 숨이 턱에 닿은 채 다가와 신랑 신부 앞에 섰다. 그러고는 끝에 쇠촉을 박은 지팡이를 땅에 꽂더니, 얼굴빛이 변한 채 키테리아에게 눈을 박고서 떨리고 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은혜를 모르는 키테리아, 너도 잘 알 것이다. 우리가 믿는 거룩한 율법에 따르면, 내가 살아 있는 한 너는 남편을 맞을 수 없다. 또 너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세월과 내 부지런함이 내 살림 형편을 낫게 해 주기를 기다리느라, 나는 네 명예에 걸맞은 예절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너는 내 진실한 마음에 진 모든 의리를 등 뒤로 내던지고, 내 것을 다른 사내의 것으로 만들려 한다. 그 사내에게는

재산이 그저 좋은 운수일 뿐 아니라 더없이 좋은 행운까지 되어 주는구나. 그가 그 행운을 가득 누리도록, 그가 그럴 만하다고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그것을 주려 하시니, 그 행운을 가로막을 수 있는 불가능을, 아니 걸림돌을 내 손으로 없애 주겠다. 나 자신을 그 한가운데서 치워 버려서. 살아라, 살아라, 부자 카마초는 배은망덕한 키테리아와 함께 길고 복된 세월을! 그리고 죽어라, 죽어라, 가난한 바실리오는. 가난이 그의 행복의 날개를 꺾고 그를 무덤에 눕혔으니!"

이렇게 말하며 그는 땅에 꽂아 둔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지팡이 절반은 땅에 박힌 채 남았고, 그것이 안에 숨겨 둔 중간 길이의 가는 칼을 감싼 칼집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손잡이라 부를 만한 쪽을 땅에 대고, 가볍고 거리낌 없이, 작정한 듯 그 위로 몸을 던졌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피 묻은 칼끝이 쇠 칼날 절반과 함께 등 뒤로 비죽 나왔고, 가엾은 사내는 제 무기에 꿰뚫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졌다.

친구들이 곧 달려와 그의 비참하고 딱한 불행을 가슴 아파하며 그를 거들었다. 돈키호테도 로시난테를 두고 달려가 그를 거들며 품에 안아 보니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칼을 뽑아내려 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본당 신부는 고해를 듣기 전에는 뽑지 말자고 했다. 칼을 뽑는 것과 숨이 끊어지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실리오가 조금 정신을 차리더니 괴롭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잔인한 키테리아, 이 마지막 어쩔 수 없는 고비에 네가 아내로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한다면, 내 무모한 짓에도 변명할 거리가 있다고 여기겠다. 그 덕에 너의 사람이 되는 복을 얻었으니 말이다."

그 말을 들은 본당 신부는 육신의 즐거움보다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죄와 그 절망에 찬 결심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빌라고 그에게 일렀다. 그러자 바실리오는 키테리아가 먼저 아내가 되겠다며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고해를 하지 않겠다고 대꾸했다. 그 기쁨이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고해할 기운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다친 사내의 청을 듣자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나섰다. 바실리오가 청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들어주기도 아주 쉬운 일이며, 카마초 나리는 용감한 바실리오의 과부가 된 키테리아 아씨를 맞아들여도 그 아버지 곁에서 맞아들이는 것만큼 명예로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네' 한 마디면 되오. 그 말은 입 밖에 내는 것 말고는 아무 효력도 없을 것이오. 이 혼례의 신방은 무덤이 될 테니 말이오."

카마초는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으나, 그 모든 일에 어리둥절하고 갈피를 못 잡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바실리오의 친구들이, 그가 절망한 채 이승을 떠나 영혼을 잃지 않도록 키테리아가 아내로서 손을 내밀게 허락해 달라고 어찌나 소리 높여 졸라 대던지, 카마초는 마음이 움직여, 아니 억지로 떠밀려, 키테리아가 손을 내밀고 싶다면 자기도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잠깐 미뤄질 뿐이었다.

그러자 모두 키테리아에게 몰려가, 어떤 이는 간청으로, 어떤 이는 눈물로, 어떤 이는 그럴듯한 이치로 가엾은 바실리오에게 손을 내밀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대리석보다 굳고 조각상보다 무표정한 키테리아는 한 마디도 대답할 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 듯 보였다. 바실리오의 넋이 벌써 이 사이에 걸려 있어 망설이며 결정을 미룰 틈이

없으니 어서 마음을 정하라고 본당 신부가 일러 주지 않았더라면, 키테리아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제야 아름다운 키테리아는 한 마디 대꾸도 없이, 당황한 채 슬프고 괴로운 얼굴로 바실리오가 누운 곳으로 다가갔다. 바실리오는 벌써 눈이 뒤집히고 숨은 짧고 가빴으며, 이 사이로 키테리아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라 이교도처럼 죽어 갈 기색을 보였다. 마침내 다가간 키테리아는 무릎을 꿇고, 말이 아니라 손짓으로 손을 달라고 했다. 바실리오는 눈을 부릅뜨고 키테리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 키테리아, 네 연민이 내 목숨을 마저 끊어 놓을 칼이 될 때가 되어서야 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나에게는 네가 나를 네 사람으로 골라 주는 영광을 감당할 힘도, 죽음의 무시무시한 그림자로 이렇게 빨리 내 눈을 덮어 오는 고통을 멈출 힘도 없다. 내가 너에게 비는 것은, 오, 나의 숙명의 별이여, 네가 달라고 하고 또 주려고 하는 그 손이 그저 예의 치레도 아니고 나를 또 속이려는 것도 아니기를, 네 뜻을 억지로 꺾지 않고 정당한 남편에게 주듯 내게 넘겨주고 내준다고 털어놓고 말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고비에 나를 속이거나, 너에게 그토록 진실하게 대해 온 사람에게 거짓 꾸밈을 쓰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이사이 그는 정신을 잃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 기절이 그의 넋을 데려가 버리리라 생각했다. 키테리아는 더없이 정숙하고 수줍은 모습으로 오른손으로 바실리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떤 힘도 내 뜻을 꺾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가장 자유로운 뜻으로 너에게 정당한 아내의 손을 주고, 네 손을 받는다. 네가 성급한 생각으로 빠져든 이 재앙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네 자유로운 뜻으로 나에게 손을 주는 것이라면."

"그래, 준다." 바실리오가 대답했다. "흔들리지도 휘둘리지도 않고, 하늘이 내게 주시려 한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 나는 너의 남편으로 나를 주고 맡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내로." 키테리아가 대답했다. "네가 오래오래 살든, 내 품에서 무덤으로 실려 가든."

"저렇게 크게 다친 젊은이치고는" 그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말이 너무 많네요. 사랑 타령은 그만두고 제 영혼이나 돌보라고 하세요. 제가 보기엔 저 사람 넋은 이 사이보다 혀끝에 더 걸려 있는 것 같거든요."

바실리오와 키테리아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자, 마음 여린 본당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고 새신랑의 영혼에 좋은 안식을 주시라고 하늘에 빌었다. 그런데 새신랑은 축복을 받자마자 날래게 벌떡 일어서더니, 보도 듣도 못한 태연함으로 제 몸이 칼집 노릇을 하던 그 칼을 쑥 뽑아냈다.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그 가운데 호기심보다 순진함이 앞서는 몇몇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나 바실리오가 받아쳤다.

"'기적이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꾀다, 꾀!"

본당 신부는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하여 두 손으로 상처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칼날이 바실리오의 살과 갈비뼈가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감쪽같이 대 둔, 피를 가득 채운 속 빈 쇠 대롱을 꿰뚫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피가 굳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 두었다고 한다.

결국 본당 신부와 카마초를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속고 놀림당했다고 여겼다. 신부가 된 키테리아는 그 장난이 언짢은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혼인은 속임수로 이루어졌으니

무효라는 말이 들려오자 자기가 그것을 새로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것을 보고 모두 그 일이 두 사람의 합의와 공모로 꾸며졌다고 짐작했다. 카마초와 그의 편 사람들은 너무나 창피해서 앙갚음을 손에 맡기기로 하고, 숱한 칼을 뽑아 들고 바실리오에게 덤벼들었는데, 순식간에 바실리오 편에서도 거의 그만큼 많은 칼이 뽑혀 나왔다. 돈키호테는 말을 탄 채 앞장서서, 창을 팔에 걸치고 방패로 몸을 잘 가린 채 모두에게 길을 비키게 했다. 그런 몹쓸 짓거리가 마음에 들거나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산초는, 맛있는 거품을 건져 냈던 항아리 솥들 곁으로 피신했다. 그곳이야말로 누구도 함부로 범하지 못할 성역 같았던 것이다. 돈키호테는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추시오, 여러분, 멈추시오. 사랑이 우리에게 입히는 상처를 두고 앙갚음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리고 사랑과 전쟁은 같은 것임을 명심하시오. 전쟁에서 적을 이기려고 계략과 술책을 쓰는 것이 정당하고 흔한 일이듯, 사랑의 다툼과 겨룸에서도 바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꾸미는 속임수와 계교는, 사랑하는 이를 깎아내리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한 옳은 것으로 여겨지오. 키테리아는 바실리오의 것이었고 바실리오는 키테리아의 것이었소. 하늘의 정당하고 너그러운 뜻으로 말이오. 카마초는 부자이니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마음 내키는 대로 제 즐거움을 살 수 있을 것이오. 바실리오에게는 이 양 한 마리밖에 없으니, 아무리 힘센 자라도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되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둘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 것이니, 그러려는 자는 먼저 이 창끝을 지나야 할 것이오."

그러면서 그가 창을 어찌나 세차고 능숙하게 휘둘렀던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한편 키테리아의 냉대가 카마초의 머릿속에 어찌나 깊이 박혔던지, 카마초는 한순간에 키테리아를 기억에서 지워 버렸다. 그래서 신중하고 선량한 사람이던 본당 신부의 설득이 그에게

먹혀들었고, 카마초와 그의 패거리는 그 설득에 누그러져 잠잠해졌다. 그 표시로 그들은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바실리오의 꾀보다 키테리아의 가벼움을 더 탓했다. 카마초는 키테리아가 처녀일 때 바실리오를 사랑했다면 결혼한 뒤에도 그를 사랑할 터이니, 하늘이 키테리아를 자기에게 주신 것보다 빼앗아 가신 것을 두고 더 감사해야 한다고 곰곰이 따져 보았다.

이렇게 카마초와 그의 무리가 마음을 달래고 누그러지자 바실리오 쪽 사람들도 모두 잠잠해졌다. 부자 카마초는 그 장난이 아무렇지도 않고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정말로 혼례를 올린 것처럼 잔치를 이어 가게 했다. 그러나 바실리오도 그의 아내도 그 무리도 거기에 함께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바실리오의 마을로 떠났다. 부자에게 아첨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듯이, 덕 있고 슬기로운 가난한 이들에게도 따르고 받들고 지켜 주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용기 있고 가슴에 털 난 사내로 여겨 함께 데려갔다. 오직 산초만 마음이 캄캄해졌다. 밤까지 이어진 카마초의 호화로운 잔치와 축제를 기다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치고 서글픈 얼굴로, 바실리오 무리와 함께 가는 주인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는 이집트의 고기 가마를 뒤에 남겨 두었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을 품고 갔으니, 들통에 담아 가던, 이제 거의 다 먹어 치워 바닥이 난 거품이 그가 잃어버린 복의 영광과 풍요를 눈앞에 그려 보였다. 그리하여 그는 시름에 잠기고 생각에 겨워, 배는 고프지 않았으나 잿빛 당나귀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로시난테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

1. 플랑드르 앞바다의 모래톱은 배가 지나기 어렵기로 이름났다. 「플랑드르의 모래톱을 건널 만하다」는 어떤 어려움이든 거뜬히 이겨 낼 만하다는 당시의 관용

표현이다.

제22장 라만차 한복판에 있는 몬테시노스 동굴의 큰 모험을 이야기한다, 라만차의 용맹한 돈키호테가 이 모험을 훌륭히 마무리했다

신혼부부가 돈키호테에게 베푼 대접은 크고도 푸짐했다. 그가 자기들 편을 들어 보여 준 모습에 은혜를 입었다고 여긴 그들은 그의 용기와 나란히 그의 슬기도 높이 쳐서, 무예로는 시드요 말솜씨로는 키케로라고 여겼다. 착한 산초는 신랑 신부 덕에 사흘 동안 실컷 먹고 마시며 흥겹게 지냈는데, 그들에게서 알게 된 바로는 거짓으로 칼에 찔린 그 일은 아름다운 키테리아와 미리 짜고 한 계략이 아니라, 일이 실제로 벌어진 그대로 되기를 바란 바실리오 혼자의 꾀였다고 한다. 하기야 그는 꼭 필요한 때에 친구 몇이 자기 뜻을 거들고 속임수를 뒷받침해 주도록 그들에게는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털어놓았다.

"덕스러운 목적을 겨냥한 것은 속임수라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혼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사랑에게 가장 큰 적은 굶주림과 끝없는 궁핍임을 알아 두라고 일렀다. 사랑은 온통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인데, 사랑하는 이가 사랑받는 이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며, 바로 그때 궁핍과 가난이 드러내 놓고 맞서는 원수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하는 뜻은, 바실리오 나리가 자기가 아는 그

재주들을 부리는 일을 그만두었으면 해서라고 했다. 그 재주가 이름은 안겨 주어도 돈은 안겨 주지 않으니, 신중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는 정당하고 근면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라고 했다.

"명예로운 가난뱅이는, 가난뱅이가 명예로울 수 있다면 말이오만, 아름다운 아내를 두면 보물을 지닌 셈이오. 그 아내를 빼앗기면 명예를 빼앗기고 명예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오. 남편이 가난한데도 아름답고 정숙한 아내는 승리와 개선의 월계관과 종려 가지로 관을 씌워 줄 만하오. 아름다움은 그것만으로도 바라보고 알게 되는 모든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니, 맛있는 미끼를 본 듯 왕독수리와 높이 나는 새들이 그리로 내려앉소.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에 궁핍과 쪼들림까지 겹치면 까마귀와 솔개와 다른 맹금들도 덤벼드오. 그 숱한 습격에도 꿋꿋한 아내라면 남편의 면류관이라 불릴 만하오. 이보시오, 슬기로운 바실리오."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누구였는지 모를 어느 현인은 온 세상에 착한 여자는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면서 저마다 그 하나뿐인 착한 여자가 바로 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믿으라고, 그러면 흡족하게 살 것이라고 충고했다오. 나는 혼인하지 않았고 지금껏 혼인할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소. 그렇기는 하나 누가 내게 청한다면, 혼인하고 싶은 여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감히 충고해 줄 수는 있을 것이오. 먼저 재산보다 평판을 더 보라고 충고하겠소. 착한 여자는 그저 착하기만 해서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착해 보여야 얻기 때문이오. 여자의 명예에는 남몰래 저지르는 나쁜 짓보다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리낌 없음과 방자함이 훨씬 더 해를 끼치는 법이오. 착한 여자를 집에 들이면 그 착함을 지키기도 쉽고 더 낫게 만들기도 쉬울 것이오. 하지만 못된 여자를 들이면 그 버릇을 고치느라 고생깨나 할 것이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넘어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말이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오. 다만 어렵다고 보는 것이오."

산초는 이 말을 죄다 듣고 있다가 혼잣말을 했다.

"우리 주인 나리는 내가 알맹이 있고 속이 찬 말을 하면, 내가 설교단을 손에 들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멋진 말을 설교해도 되겠다고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나리야말로 금언을 줄줄이 꿰고 충고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설교단 하나를 손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마다 두 개씩 끼고 이 광장 저 광장을 입이 원하는 대로 실컷 돌아다녀도 되겠단 말이지. 편력 기사라는 양반이 별걸 다 아시네, 악마나 물어 가라지! 난 진심으로 나리가 기사도에 관한 것만 아는 줄 알았는데, 쪼아 보지 않는 데가 없고 제 숟가락을 들이밀지 않는 데가 없으니."

산초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주인이 얼핏 듣고 물었다.

"무얼 중얼거리느냐, 산초?"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중얼거리지 않았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냥 속으로, 나리가 방금 하신 말씀을 장가들기 전에 들었더라면 좋았겠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라면 지금쯤 '풀려난 소가 제 몸을 잘 핥는다'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너의 테레사가 그렇게 못됐느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주 못된 건 아니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아주 착한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바라는 만큼 착하지는 않아요."

"잘못하는구나,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아내를 험담하다니. 어쨌든 그 사람은 네 자식들의 어미가 아니냐."

"서로 빚진 건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마누라도 내키면 제 험담을 하니까요. 특히 질투가 날 때는요. 그럴 땐 사탄이라도 그 꼴을 참아 내야 할걸요."

마침내 그들은 신혼부부와 사흘을 함께 지내며 임금처럼 대접받고 시중을 받았다. 돈키호테는 칼 솜씨 좋은 석사에게 몬테시노스 동굴로 데려다줄 길잡이를 하나 붙여 달라고 부탁했다. 그 동굴에 꼭 들어가서, 그 근방 어디서나 떠도는 그곳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말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석사는 자기 사촌을 붙여 주겠다면서, 그는 이름난 학생이고 기사 소설 읽기를 아주 좋아해서 기꺼이 그 동굴 어귀까지 데려다주고, 온 라만차에, 아니 온 에스파냐에 이름난 루이데라 늪들도 보여 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쇄할 책을 지어 왕족에게 바칠 줄도 아는 젊은이라서 함께 가면 아주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사촌이 새끼를 밴 암탕나귀를 끌고 왔는데, 길마에는 알록달록한 깔개인지 삼베 천인지가 덮여 있었다. 산초는 로시난테에 안장을 얹고 잿빛 당나귀를 채비하고 자루들을 채웠는데, 사촌의 자루들도 마찬가지로 넉넉히 채워져 함께 따라갔다. 그들은 하느님께 몸을 맡기고 모두와 작별한 뒤, 이름난 몬테시노스 동굴 쪽으로 길을 잡아 떠났다.

길을 가며 돈키호테는 사촌에게 그가 하는 일과 직업과 공부가 어떤 종류이고 어떤 성격의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사촌은 자기 직업은 인문학자이고, 하는 일과 공부는 인쇄에 부칠 책을 짓는 것인데, 그 책들은 모두 나라에 크게 이로우면서도 재미도 그에 못지않다고 대답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복의 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제복 칠백세 가지를 그 빛깔과 표어와 머리글자 문양까지 곁들여 그려 놓았으니, 궁정의 기사들이 축제와 잔치 때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거나 흔히 하는 말처럼 제 뜻과 바람에 맞는 것을 짜내느라 골을 증류하지 않아도, 그 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쓸 수 있다고 했다.

"질투하는 사람, 퇴짜 맞은 사람, 잊힌 사람, 멀리 떠난 사람에게 저마다 어울리는 제복을 주니, 죄를 덮기보다 몸에 꼭 맞을 겁니다. 또

다른 책도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변신 이야기』, 곧 『에스파냐의 오비디우스』 라고 부를 작정이고, 새롭고 진귀한 착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책에서 저는 오비디우스를 우스개로 흉내 내어, 세비야의 히랄다와 막달레나의 천사가 누구였는지, 코르도바의 베싱게라 수로가 누구였는지, 기산도의 황소들, 시에라 모레나, 마드리드의 레가니토스 샘과 라바피에스 샘이 누구였는지를 그려 보입니다. 피오호 샘과 카뇨 도라도 샘과 프리오라 샘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게다가 이 모든 것에 우의와 은유와 전의를 곁들였으니 읽는 이를 즐겁게 하고 넋을 빼놓고 가르치기까지 한꺼번에 합니다. 또 한 권은 『비르질리오 폴리도로 보유』[1]라고 부르는데, 사물의 발명을 다룬 것으로 대단한 학식과 공부가 든 책입니다. 폴리도로가 빠뜨리고 말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제가 밝혀내 고상한 문체로 풀어 놓았거든요. 비르질리오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코감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프랑스 병을 고치려고 처음으로 수은 고약을 바른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을 잊었는데, 저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밝히고 스물다섯 명이 넘는 저자를 들어 뒷받침합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보시기에 제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책이 온 세상에 쓸모가 있을지 헤아려 보십시오."

사촌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산초가 그에게 말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나리. 하느님께서 나리 책 찍는 일에 좋은 행운을 주시기를 빌면서 여쭙는데요. 모르는 게 없으시니 틀림없이 아실 테지만, 세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긁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 조상 아담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겠지요." 사촌이 대답했다. "아담에게 머리와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리고 그가 세상 첫 사람이었다면, 언젠가 한 번은 머리를 긁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이제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중제비를 넘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정말이지, 형씨." 사촌이 대답했다. "그건 지금 당장은 딱 잘라 말하지 못하겠네. 공부를 좀 해 봐야겠어. 내 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공부해 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면 만족스럽게 대답해 주겠네. 이번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테니까."

"그럼 보세요, 나리." 산초가 받았다. "그 일로 애쓰실 것 없어요. 제가 여쭌 것의 답을 방금 깨달았거든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중제비를 넘은 건 루시퍼예요.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아니 내던져졌을 때 데굴데굴 공중제비를 넘으며 저 깊은 구렁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자네 말이 맞네, 친구." 사촌이 말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물음도 대답도 네 것이 아니구나, 산초. 누가 하는 말을 들었겠지."

"가만 계세요, 나리." 산초가 받았다. "맹세코 제가 묻고 대답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내일까지 가도 끝이 안 날걸요. 그렇다니까요, 바보 같은 걸 묻고 엉터리 대답을 하는 데 이웃 도움을 빌리러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너는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했구나,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알아보고 캐내 봤자 지성에도 기억에도 동전 한 닢 값어치도 없는 일을 알아내고 캐내느라 지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 말이다."

이런 이야기와 다른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날이 지나갔고, 밤이 되자 그들은 작은 마을에 묵었다. 사촌은 돈키호테에게 그곳에서 몬테시노스 동굴까지는 2레과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면 몸을 묶고 그 깊은 곳까지 매달려 내려갈 밧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지옥 밑바닥에 닿는 한이 있어도 그 끝이 어디인지 보고야 말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백 길이나 되는 밧줄을 샀고, 이튿날 오후 두 시에 동굴에 이르렀다. 동굴 어귀는 널찍하고 넓었으나, 가시덤불과 야생 무화과나무, 들장미와 잡초가 어찌나 빽빽하고 얽혀 있던지 입구를 아주 막고 가리고 있었다. 동굴을 보자 사촌과 산초와 돈키호테는 말과 나귀에서 내렸고, 두 사람은 곧 돈키호테를 밧줄로 아주 단단히 묶었는데, 그들이 그를 둘러 감고 동여매는 동안 산초가 말했다.

"나리, 주인 나리,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산 채로 무덤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물에 매달아 식히는 술병 꼴이 될 데로 가지 마세요. 그렇다니까요, 지하 감옥보다 더 고약할 게 뻔한 이 구멍을 뒤지고 다니는 일은 나리께 어울리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묶기나 하고 잠자코 있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런 일은, 산초, 내 벗아, 나를 위해 남겨 둔 것이니라."

그러자 길잡이가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돈키호테 나리.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시고 눈을 백 개쯤 떠서 살펴 주십시오. 어쩌면 제 『변신』 책에 넣을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소고는 잘 칠 줄 아는 사람 손에 들려 있네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이 말을 마치고 돈키호테를 다 묶고 나자(갑옷 위가 아니라 갑옷 받쳐 입는 속옷 위에 묶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작은 방울 하나를 마련해 이 밧줄에 내 곁에 매달아 두었더라면, 그 소리로 내가 아직 내려가고 있고 살아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을.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하느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하늘에 기도를 올려, 보아하니 위험하고 새로운 이 모험에서 자기를 도와 좋은 결말을 주시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말했다.

"오, 내 모든 행동과 움직임의 주인이시여, 더없이 빛나고 견줄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그대의 이 행복한 연인이 올리는 기도와 간청이 그대 귀에 닿을 수 있다면, 전대미문의 그대 아름다움을 걸고 비오니 들어 주소서. 이 간청은 다름이 아니라, 이토록 그대의 은총과 보호가 절실한 지금 그것을 제게 거두지 마시라는 것뿐이나이다. 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심연으로 몸을 던지고, 빠지고, 가라앉으려 하나이다. 오직 그대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덤벼들어 끝내지 못할 불가능은 없음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구렁으로 다가갔다. 보니 팔 힘으로 헤치거나 칼로 베어 내지 않고서는 매달려 내려갈 수도, 들어갈 자리를 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 들고 동굴 어귀를 덮은 잡목들을 베어 쓰러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와 요란함에 놀라 엄청나게 큰 까마귀와 갈까마귀가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찌나 빽빽하고 어찌나 급하게 나오던지 돈키호테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그가 가톨릭 신자인 만큼이나 징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나쁜 징조로 여겨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그만두었을 것이다.

마침내 일어선 그는 까마귀도, 까마귀들 틈에 섞여 함께 나온 박쥐 같은 다른 밤새도 더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사촌과 산초가 밧줄을 풀어 주는 대로 그 무시무시한 동굴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그가 들어갈 때 산초는 그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의 머리 위로 성호를 천 번이나 그으며 말했다.

"하느님과 프랑스 바위산의 성모님과 가에타의 삼위일체[2]께서 그대를 이끄시기를, 편력 기사들의 꽃이요 크림이요 거품이여! 가는구나,

세상의 용사여, 강철 심장이여, 청동 팔이여!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그대를 이끄시어, 그대가 찾는 이 어둠 속에 묻히려고 떠나는 이승의 빛으로 자유롭고 성하고 탈 없이 돌려보내 주시기를!"

사촌도 거의 똑같은 기도와 간청을 올렸다.

돈키호테는 밧줄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소리치며 내려갔고, 그들은 조금씩 밧줄을 내주었다. 동굴을 타고 울려 나오던 외침이 더는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백 길 밧줄을 벌써 다 내려보낸 뒤였다. 더 내줄 줄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돈키호테를 다시 끌어올리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래도 반 시간쯤 기다렸다가 다시 밧줄을 감아올리니 아주 쉽게, 아무 무게도 없이 올라왔고, 그 바람에 그들은 돈키호테가 안에 남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은 산초는 서럽게 울면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부랴부랴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그들 짐작으로 여든 길이 조금 넘게 감아올렸을 무렵 무게가 느껴졌고,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마침내 열 길이 남았을 때 돈키호테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고, 산초가 그에게 외쳤다.

"잘 돌아오셨어요, 주인 나리. 저희는 나리께서 아예 거기 눌러앉아 대를 이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돈키호테는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를 완전히 끌어낸 그들은 그가 잠든 듯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땅에 눕히고 밧줄을 풀었는데도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흔들고 들썩이자 한참 만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마치 무겁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기지개를 켜더니, 놀란 듯 이쪽저쪽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용서하시기를, 벗들이여. 그대들은 이제껏 어떤 사람도 본 적 없고 겪은 적 없는 가장 달콤하고 즐거운 삶과 광경에서 나를 끌어내고 말았소. 이제야 비로소 알았소. 이승의 모든 기쁨은

그림자와 꿈처럼 지나가거나 들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오, 불행한 몬테시노스여! 오, 몹시 다친 두란다르테여! 오, 박복한 벨레르마여! 오, 눈물 흘리는 과디아나여, 그리고 너희 불운한 루이데라의 딸들이여, 너희 아름다운 눈이 흘린 눈물을 너희 물에 비추어 보이는구나!"

사촌과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는 그 말을 한없는 고통과 함께 뱃속 깊은 데서 끌어내는 듯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 주고, 그 지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간청했다.

"지옥이라 하였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곧 알게 되겠지만 그곳은 그런 이름을 들을 곳이 아니오."

그는 몹시 배가 고프니 무얼 좀 먹게 해 달라고 했다. 그들은 사촌의 삼베 천을 푸른 풀밭에 펼치고 자루 속 찬장으로 달려가, 셋이 정답고 오붓하게 둘러앉아 새참과 저녁을 한꺼번에 먹었다. 삼베 천을 걷고 나자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무도 일어나지 마시오. 그리고 젊은이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오."

---

1. 이탈리아 출신 인문학자 폴리도로 비르질리오(Polidoro Virgilio, 1470?~1555, 영어 이름 폴리도어 버질)는 온갖 사물과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을 밝힌 『사물의 발명자들에 관하여』를 썼다. 이 책은 에스파냐어로도 옮겨져 널리 읽혔다.

2. 프랑스 바위산(Peña de Francia)은 살라망카 남쪽 산꼭대기의 성모 성지이고, 가에타의 삼위일체는 이탈리아 가에타 앞바다 바위산에 있던 삼위일체 성당이다. 둘 다 당시 순례지로 이름났다.

제23장 비범한 돈키호테가 깊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았다고 이야기한 놀라운 일들, 너무나 있을 수 없고 엄청나서 이 모험은 꾸며 낸 것으로 여겨진다

오후 네 시쯤 되었을까, 해가 구름에 가려 빛은 희미하고 볕은 누그러졌으므로, 돈키호테는 덥지도 괴롭지도 않게 더없이 빛나는 두 청중에게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본 것을 들려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지하 감옥의 깊이로 열두 길이나 열네 길쯤 되는 곳, 오른편에 노새를 맨 큰 수레 한 대가 넉넉히 들어갈 만한 움푹한 빈터가 있소. 저 멀리 땅거죽에 뚫린 틈인지 구멍인지로 희미한 빛이 그리로 스며드오. 나는 밧줄에 매달려 정해진 길도 없이 그 캄캄한 곳을 내려가다가 지치고 시무룩해졌을 무렵 그 빈터를 보았소.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 좀 쉬기로 마음먹었지요. 내가 말할 때까지 밧줄을 더 내리지 말라고 그대들에게 소리쳤으나, 그대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소. 나는 그대들이 내려보내는 밧줄을 거두어 똬리처럼, 아니 무더기처럼 감아 놓고 그 위에 앉아, 붙잡아 줄 사람도 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려면 어찌해야 할지 깊이 생각에 잠겼소. 그렇게 생각에 잠겨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갑자기 바라지도 않은 아주 깊은 잠이 나를 덮쳤소. 그러다가 전혀 뜻하지 않은 때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 보니,

나는 자연이 길러 낼 수 있고 사람의 가장 슬기로운 상상력이 그려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상쾌하고 즐거운 풀밭 한가운데 있었소. 눈을 비비고 닦아 보니 잠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 있었소. 그래도 나는 머리와 가슴을 더듬어 보았소. 거기 있는 것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헛되고 거짓된 허깨비인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손에 닿는 감촉과 느낌과 속으로 차근차근 따져 본 생각이,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바로 나임을 확인해 주었소. 곧이어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인지 성채인지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성벽과 벽은 투명하고 맑은 수정으로 지은 듯했소. 그 커다란 문 두 짝이 열리더니 거기서 존경스러운 노인 하나가 나와 내 쪽으로 다가왔소. 노인은 땅에 질질 끌리는 자줏빛 모직 두건 망토를 입고, 어깨와 가슴에는 초록 공단으로 된 학생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검은 밀라노 모자를 썼으며, 새하얀 수염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소. 무기는 하나도 들지 않았고, 손에 묵주 하나만 쥐고 있었는데, 그 알이 웬만한 호두보다 크고 열 알마다 끼운 큰 알은 웬만한 타조 알만 했소. 그의 풍채와 걸음걸이, 위엄, 그리고 더없이 넉넉한 모습이 하나하나도 그렇고 다 함께도 그렇고 나를 넋 잃고 감탄하게 했소. 그는 내게 다가오더니 맨 먼저 나를 꼭 껴안고 나서 이렇게 말했소. '용맹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이 적막한 곳에 마법에 걸려 있는 우리는 오랜 세월 그대를 보기를 기다려 왔노라. 그대가 들어온 이 깊은 동굴, 몬테시노스 동굴이라 불리는 이곳이 무엇을 품고 감추고 있는지 그대가 세상에 알리게 하려 함이니, 이는 오직 그대의 무적의 심장과 놀라운 용기가 덤벼들도록 남겨 둔 무훈이니라. 나와 함께 가자, 더없이 빛나는 기사여. 이 투명한 성채가 숨기고 있는 경이를 보여 주고자 하노라. 나는 이 성채의 성주요 영원한 수문장이니, 이 동굴이 이름을 따온 바로 그 몬테시노스이기 때문이니라.' 그가 몬테시노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이 위 세상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참말이었는지 물었소. 그의 큰 벗 두란다르테가 숨을 거둘 때 분부한 대로, 그가 작은 단검으로 두란다르테의 가슴 한복판에서 심장을 꺼내 벨레르마 아씨에게 가져갔다는 이야기 말이오. 그는 다 참말인데 단검만은 아니라고 대답했소. 그것은 단검도 아니었고 작지도 않았으며, 송곳보다 날카로운 뾰족한 비수였다는 것이오."

"그 비수는" 그때 산초가 말했다. "틀림없이 세비야 사람 라몬 데 오세스가 만든 것이었겠네요."

"모르겠다."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그 칼장이의 것은 아니었을 게다. 라몬 데 오세스는 어제 사람이고, 이 불행이 일어난 론세스바예스 일은 여러 해 전 일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따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이야기의 진실이나 앞뒤 맥락을 흐리거나 바꾸지도 않느니라."

"그렇지요." 사촌이 대답했다. "계속하십시오, 돈키호테 나리.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도 그에 못지않은 즐거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말하겠는데, 존경스러운 몬테시노스는 나를 수정 궁전 안으로 데려갔소. 거기 온통 설화석고로 된 몹시 서늘한 아래층 방에 솜씨 좋게 지은 대리석 무덤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기사 하나가 길게 누워 있는 것이 보였소. 다른 무덤에 흔히 있는 청동이나 대리석이나 벽옥으로 만든 기사가 아니라, 순전한 살과 순전한 뼈로 된 기사였소. 그는 오른손을 심장 쪽 옆구리에 얹고 있었는데(내가 보기에 그 손은 털이 좀 나고 힘줄이 불거져 있어 임자가 힘이 아주 세다는 표시였소), 내가 무덤 위의 기사를 넋 놓고 바라보는 것을 본 몬테시노스는 내가 무얼 묻기도 전에 말했소. '이 사람이 내 벗 두란다르테로다. 그의 시대에 사랑에 빠진 용감한 기사들의 꽃이요 거울이니라. 사람들이 악마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저 프랑스 마법사

메를린이 나와 다른 많은 남녀를 그리했듯이 그를 여기 마법에 묶어 두었노라. 그러나 내가 믿기로 메를린은 악마의 아들이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악마보다 한 수 더 알았을 따름이니라. 그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마법에 걸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세월이 흐르면 밝혀지리라. 내 짐작으로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으니라. 내가 놀라는 것은, 지금이 낮인 것만큼이나 확실히 두란다르테가 내 품에서 생을 마쳤고, 그가 죽은 뒤 내 손으로 그의 심장을 꺼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이니라. 정말이지 그 심장은 두 파운드는 나갔을 것이니, 자연학자들에 따르면 심장이 큰 사람이 심장이 작은 사람보다 더 큰 용기를 타고난다 하느니라. 사정이 이러하고 이 기사가 참으로 죽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그가 살아 있는 사람처럼 이따금 탄식하고 한숨을 쉬는고?' 이 말이 끝나자 가엾은 두란다르테가 큰 소리로 외쳤소.

"'오, 나의 사촌 몬테시노스여!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청한 것은,
내가 죽거든,
내 넋이 뽑혀 나가거든,
내 심장을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소,
벨레르마가 있는 곳으로,
내 가슴에서 꺼내어서,
비수로든 단검으로든.'

"그 말을 들은 존경스러운 몬테시노스는 가엾은 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소. '두란다르테 나리, 더없이 사랑하는 나의 사촌이여, 우리가 패한 그 불길한 날에 그대가 분부한 대로 나는 이미 다 하였소. 그대 가슴에 한 점도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심장을 꺼냈고, 레이스 달린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았고, 먼저 그대를 땅의 품에 묻은 다음 그것을 품고 프랑스로 내달렸소. 그때 흘린 눈물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대 뱃속을 뒤지느라 내 손에 묻은 피를 그 눈물로 씻어 내고 닦아 낼 수 있었소.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대자면, 내 영혼의 사촌이여, 론세스바예스를 떠나 처음 닿은 마을에서 그대 심장에 소금을 조금 뿌렸소. 냄새가 나지 않고, 싱싱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말린 고기처럼이라도 되어 벨레르마 아씨 앞에 가도록 말이오. 그 벨레르마 아씨를, 그대와 나와 그대의 종자 과디아나와 시녀 부인 루이데라와 그 일곱 딸과 두 조카딸과 그대가 알던 다른 많은 벗들과 함께, 현자 메를린이 여러 해 전부터 여기에 마법으로 묶어 두고 있소. 그 세월이 오백 년이 넘었건만 우리 가운데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다만 루이데라와 그 딸들과 조카딸들만 여기 없으니, 그들이 울고 있자 메를린이 가엾게 여겼던지 그들을 그 수만큼의 늪으로 바꾸어 놓았소. 지금 산 사람들의 세상, 라만차 지방에서는 그 늪들을 루이데라 늪이라 부르는데, 일곱은 에스파냐 왕들의 것이고 두 조카딸은 산 후안이라 불리는 더없이 거룩한 기사단 기사들의 것이오. 그대의 종자 과디아나도 그대의 불행을 슬피 울다가 제 이름과 같은 강으로 바뀌었소. 그 강은 땅 위로 올라와 다른 하늘의 해를 보자 그대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 땅속 깊이 숨어들었소. 그러나 타고난 물길로 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 이따금 솟아올라 해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모습을 드러낸다오. 앞서 말한 늪들이 그 강에 제 물을 대어 주고, 그 물과 흘러드는 다른 많은 물을 받아 그 강은 크고 의젓하게 포르투갈로 들어가오. 그래도 그 강은 어디로 흐르든 슬픔과 시름을 드러내어, 제 물에 맛있고 귀한 물고기가 아니라 거칠고 맛없는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자랑으로 아니, 황금빛 타호강의 물고기와는 아주 다르다오. 오, 나의 사촌이여, 지금 하는 이 말을 나는 그대에게 여러 번 했소. 그런데 그대가 대답하지 않으니,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듣지 못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는 하느님만이 아시오. 이제

그대에게 소식을 하나 전하려 하오. 그대의 고통을 덜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더하지는 않을 소식이오. 알아 두시오, 그리고 눈을 떠 보면 보일 것이오, 현자 메를린이 그토록 많은 것을 예언한 저 위대한 기사가 지금 그대 앞에 있소. 저 라만차의 돈키호테 말이오. 이미 잊힌 편력 기사도를 지난 세기들보다 더 훌륭하게 오늘 다시 살려 낸 바로 그 사람이니, 그의 손과 도움으로 우리가 마법에서 풀려날 수도 있을 것이오. 큰 무훈은 큰 사람을 위해 남겨 두는 법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가엾은 두란다르테가 기운 없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오, 사촌이여, 참고 패를 다시 섞을 수밖에.' 그러고는 모로 돌아눕더니 다시 늘 하던 대로 입을 다물고 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소. 그때 큰 울부짖음과 통곡이 깊은 신음과 괴로운 흐느낌에 섞여 들려왔소. 고개를 돌려 수정 벽 너머를 보니 다른 방으로 행렬 하나가 지나가는데, 더없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모두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튀르크 사람들처럼 하얀 터번을 두르고 있었소. 그 두 줄 맨 끝에 귀부인 하나가 오고 있었는데, 그 위엄으로 보아 귀부인다웠소. 그 부인도 검은 옷을 입고, 땅에 입을 맞출 만큼 길게 늘어진 하얀 머릿수건을 쓰고 있었소. 그 터번은 다른 이들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보다 두 배는 컸소. 눈썹은 하나로 붙었고 코는 좀 납작했으며, 입은 컸지만 입술은 붉었소. 이따금 드러나는 이는 껍질 벗긴 아몬드처럼 희었지만 성기고 고르지 못했소. 부인은 손에 얇은 아마포를 들고 있었고, 내가 알아볼 수 있었던 바로는 그 안에 심장이 하나 있었는데, 어찌나 바싹 말랐던지 미라의 살 같았소. 몬테시노스가 내게 말하기를, 그 행렬의 사람들은 모두 두란다르테와 벨레르마의 하인들로서 두 주인과 함께 거기 마법에 걸려 있으며, 아마포에 싼 심장을 손에 든 마지막 부인이 벨레르마 아씨라고 했소. 그 부인은 일주일에 나흘씩 아가씨들과 함께 그 행렬을 지어, 사촌의 시신과 그

가엾은 심장 위에서 애가를 부른다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운다고 했소. 그리고 부인이 좀 못생겨 보이거나 소문만큼 아름답지 않아 보였다면, 그것은 그 마법에 걸려 보내는 괴로운 밤과 더 괴로운 낮 때문이니, 그 커다란 눈 밑 그늘과 핼쑥한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소. '그 누런 얼굴빛과 눈 밑 그늘은 여자들에게 흔한 달거리 탓이 아니오. 벌써 여러 달, 아니 여러 해째 그것은 부인에게 찾아오지도 그 문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으니 말이오. 그것은 부인이 늘 손에 들고 있는 심장 때문에 그 가슴이 느끼는 고통 탓이니, 그 심장이 일찍 죽은 연인의 불행을 새롭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오. 그렇지만 않았다면, 이 근방 어디서나, 아니 온 세상에서 그토록 칭송받는 위대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도 아름다움과 맵시와 기품에서 이 부인을 따라잡기 어려웠을 것이오.' '거기까지만 하시오!' 그때 내가 말했소. '몬테시노스 나리, 이야기는 마땅히 해야 할 대로만 하시오. 비교는 모두 미움을 사는 법임을 나리도 아실 터이니, 누구를 누구와 견줄 까닭이 없소. 견줄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그분 그대로이고, 도냐 벨레르마 아씨는 그분 그대로이며 지난날의 그분 그대로이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소. '돈키호테 나리,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고, 둘시네아 아씨가 벨레르마 아씨를 따라잡기 어려웠으리라고 한 말은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오. 무슨 낌새로든 나리께서 그분의 기사라는 것을 눈치챘으니, 그분을 하늘 말고 다른 무엇과 견주기 전에 혀를 깨물었어야 했소.' 위대한 몬테시노스가 그렇게 사과하자, 내 아씨를 벨레르마와 견주는 말을 듣고 놀랐던 내 마음도 가라앉았소."

"그런데 저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왜 그 늙다리 위에 올라타서 발길질로 뼈를 죄다 바스러뜨리고 수염을 한 올도 남김없이 뽑아 버리지 않으셨는지 그게 신기하네요."

"아니다,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노인을 공경해야 하느니라. 기사가 아니라도 그러한데, 기사이면서 마법에 걸려 있는 노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둘이 주고받은 다른 많은 물음과 대답에서 우리가 서로 빚진 것 없이 갚았다는 것은 내가 잘 안다."

이때 사촌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저 아래 계셨던 그 짧은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시고 대답하셨는지요."

"내가 내려간 지 얼마나 되었소?" 돈키호테가 물었다.

"한 시간 남짓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받았다. "나는 거기서 밤이 되고 날이 밝고, 다시 밤이 되고 날이 밝기를 세 번이나 했으니, 내 셈으로는 사흘을 우리 눈에서 멀리 감추어진 그곳에 있었다."

"주인 나리 말씀이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 일어난 일은 모두 마법으로 된 것이니, 우리한테 한 시간으로 보이는 것이 거기서는 밤낮 사흘로 보일지도 모르지요."

"그럴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리, 그동안 내내 무얼 좀 드셨습니까?" 사촌이 물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소."

"그러면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먹나요?" 사촌이 말했다.

"먹지 않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큰 뒤도 보지 않소. 다만 손톱과 수염과 머리카락은 자란다는 말이 있소."

"그럼 혹시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잠은 자나요, 나리?" 산초가 물었다.

"자지 않는다, 정말로."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적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낸 사흘 동안 아무도 눈을 붙이지 않았고, 나도 그랬다."

"여기에 그 속담이 꼭 들어맞네요." 산초가 말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 말해 보라, 네가 누군지 말해 주마.' 나리께서 굶고 잠 안 자는 마법 걸린 사람들과 어울리셨으니, 그들과 어울리시는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신 게 무슨 대수겠어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주인 나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나리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하나라도 믿는다면, 하느님이 저를 데려가시라지요. 아니, 악마라고 말할 뻔했네요."

"어째서 안 믿소?" 사촌이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가 있겠소? 하시려 해도 그렇게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꾸며 낼 틈이 없으셨는데."

"저는 주인 나리가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돈키호테가 그에게 물었다.

"제 생각엔" 산초가 대답했다. "그 메를린인지, 나리께서 저 아래에서 보고 얘기를 나누셨다는 그 무리를 죄다 마법에 건 마법사들인지가, 나리께서 저희한테 들려주신 그 엄청난 이야기며 아직 들려주실 이야기를 몽땅 나리 골통인지 기억인지에 쑤셔 넣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산초." 돈키호테가 받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내 두 눈으로 보았고 내 두 손으로 만져 보았느니라. 그런데 몬테시노스가 내게 보여 준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일과 경이 가운데, 이 자리에 다 어울리지는 않으니 길을 가며 천천히 때를 보아 들려주겠지만, 그가 내게 시골 처녀 셋을 보여 주었다고 하면 너는 무어라 하겠느냐? 그 처녀들은 그 더없이 상쾌한 들판을 산양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나는 하나는 견줄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이고 다른 둘은 우리가 토보소를 떠날 때 말을 건넸던, 아씨와 함께 오던 바로 그 시골 처녀들임을 알아보았다. 몬테시노스에게 저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구나. 다만 며칠 전에 그 풀밭에 나타난, 마법에 걸린 어느 높은 귀부인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난 세기와 지금 세기의 다른 많은 귀부인들이 저마다 기이한 여러 모습으로 마법에 걸려 있으니 이 일에 놀랄 것 없다고 했다. 그 가운데 그가 아는 이로는 히네브라 왕비와 그 시녀 부인 킨타뇨나가 있는데, 란사로테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브리타니아에서 왔을 때처럼 말이다."

주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자 산초 판사는 정신이 나가거나 웃다가 죽는 줄 알았다.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렸다는 것이 거짓이고, 자기가 바로 그 마법을 건 사람이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낸 장본인이라는 진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므로, 주인이 정신이 나갔고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고약한 때에, 더 고약한 철에, 불길한 날에 나리께서는 저세상으로 내려가셨군요, 사랑하는 주인 나리. 그리고 몹쓸 때에 몬테시노스 나리를 만나셔서 그 양반이 나리를 이 꼴로 돌려보냈네요. 나리께서는 여기 위에서,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 멀쩡한 정신으로 걸핏하면 금언을 말씀하시고 충고를 해 주시며 잘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고 계시니."

"너를 잘 아니까,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저도 나리 말씀에 신경 안 써요." 산초가 받았다.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아니면 나리께서 말씀을 바로잡고 고치지 않으시면 드리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저를 다치게 하시든 죽이시든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 화해했으니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아씨 마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을 건네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아씨는 무어라 대답하셨어요?"

"알아본 것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그분을 내게 보여 주었을 때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서였다. 말을 건넸으나 그분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등을 돌리고 어찌나 급히 달아나던지 화살도 따라잡지 못했을 게다. 쫓아가려 했고 정말 쫓아갔을 텐데, 몬테시노스가 헛수고일 테니 애쓰지 말라고, 게다가 내가 그 구렁에서 다시 나가야 할 때가 다가온다고 충고하지 않았더라면 말이다. 그는 또 세월이 흐르면 그와 벨레르마와 두란다르테가 거기 있는 모든 이와 함께 어떻게 마법에서 풀려나게 될지 내게 알려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서 보고 눈여겨본 것 가운데 내게 가장 괴로웠던 일은 이것이다. 몬테시노스가 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박복한 둘시네아의 두 동무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오는 것도 못 본 사이에 옆으로 다가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구나. '제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께서 나리의 손에 입을 맞추시며, 나리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려 주십사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몹시 궁하시어, 여기 제가 가져온 이 무명 새 속치마를 잡고 반 다스 레알이나, 아니면 나리께 있는 만큼만이라도 빌려주시기를 될 수 있는 한 간곡히 청하십니다. 아주 빨리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전갈에 나는 어리둥절하고 놀라서 몬테시노스 나리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몬테시노스 나리, 마법에 걸린 높은 분들도 궁핍에 시달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 말을 믿으시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궁핍이라 부르는 이것은 어디서나 쓰이고, 어디에나 퍼지고, 누구에게나 미치니, 마법에 걸린 이들조차 봐주지 않소.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가 그

6레알을 빌려 달라고 사람을 보냈고, 보아하니 담보도 괜찮으니 주는 수밖에 없소. 틀림없이 무슨 큰 곤경에 빠져 계실 것이오.' '담보는 받지 않겠소.' 내가 대답했다. '청하는 것을 다 드리지도 못하겠소. 내게는 4레알밖에 없으니 말이오.' 그러고는 그 4레알을 주었다(산초, 그건 네가 지난번에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하라고 준 그 돈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 벗이여, 그대 아씨께 전해 주시오. 나는 아씨의 고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그것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푸카르[1]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씨의 고운 모습을 뵙지 못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니 나는 성할 수도 없고 성해서도 안 된다고 알려 드리시오. 또 아씨께서 이 사로잡힌 종이요 지친 기사에게 모습을 보이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될 수 있는 한 간곡히 청한다고도. 또 이렇게 전해 주시오. 아씨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맹세와 서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리라고. 만토바 후작이 산속 한가운데서 숨을 거두려는 조카 발도비노스를 발견하고 그 원수를 갚겠다며 한 맹세처럼, 원수를 갚을 때까지 식탁보 깐 상에서 빵을 먹지 않고 거기 덧붙인 다른 자잘한 것들도 지키겠다는 맹세 말이오. 나도 그처럼 아씨를 마법에서 풀어 드릴 때까지 쉬지 않고,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보다 더 꼼꼼하게 세상의 일곱 부분을 돌아다니겠다고 맹세하리다.' '그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나리께서는 제 아씨께 빚지고 계십니다.' 아가씨가 내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4레알을 받아 들더니, 내게 절을 하는 대신 공중으로 두 바라나 껑충 뛰어올랐다."

"오, 거룩하신 하느님!" 그때 산초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마법사들과 마법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세서 주인 나리의 멀쩡한 정신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광기로 바꿔 놓을 수가 있나요? 아이고, 나리, 나리,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도 나리 자신을 잘

돌보시고 나리 명예를 지키세요. 나리 정신을 모자라고 망가지게 만든 그 허튼소리들을 믿지 마시고요!"

"네가 나를 아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게다가 너는 세상일을 겪어 보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은 다 불가능해 보이는 게지.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세월이 흐르면, 내가 저 아래에서 본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들려주마.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도 믿게 될 것이다. 그 진실은 반박도 시비도 허락하지 않느니라."

---

1. 푸카르(Fúcar)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은행가 집안 푸거(Fugger) 가문을 에스파냐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다. 에스파냐 왕실에 큰돈을 빌려주어 「엄청난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다. 바로 뒤의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1392~1449)는 세상의 일곱 부분을 두루 돌아다녔다는 여행기로 이름난 인물이다.

제24장 이 위대한 이야기를 참되게 이해하는 데 쓸데없으면서도 꼭 필요한 자잘한 일 천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위대한 이야기를 그 첫 작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원본에서 옮긴 사람은 말한다. 몬테시노스 동굴 모험의 장에 이르니 그 여백에 바로 그 아메테의 손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고.

"'나는 앞 장에 적힌 일이 모두 용맹한 돈키호테에게 한 치 어김없이 일어났다고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까닭은 이렇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험은 모두 있을 법하고 그럴듯했지만, 이 동굴 모험만큼은 이치에 맞는 테두리를 너무나 벗어나 있어서 참말로 여길 실마리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돈키호테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는 당대에 가장 진실한 시골 귀족이요 가장 고귀한 기사였으니, 화살을 쏘아 몸을 꿰뚫는다 해도 거짓말 한 마디 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앞서 말한 그 모든 사정을 낱낱이 들어 그 이야기를 했고, 그토록 짧은 사이에 그토록 엄청난 헛소리를 지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니 이 모험이 꾸며 낸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내 탓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이라고도 참이라고도 단정하지 않고 이 모험을 적어 둔다. 독자여, 너는 신중하니 네가 보기에 옳은 대로 판단하라. 나는 이 이상은 해야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다만 확실하다고들 여기는 바로는, 그가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을 무렵

이 이야기를 거두어들이며, 자기가 읽은 이야기책 속 모험들과 잘 어울리고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지어냈노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어 간다.

사촌은 산초 판사의 당돌함에도, 그 주인의 참을성에도 놀랐다. 그리고 비록 마법에 걸렸다 해도 자기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보았다는 기쁨 때문에 돈키호테가 그때 그토록 너그러운 성미를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산초가 그에게 한 말과 이야기는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맞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촌이 보기에 산초는 정말로 제 주인에게 좀 무엄하게 굴었던 것이다. 사촌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나리와 함께한 이번 길은 더없이 보람 있게 쓴 것으로 칩니다. 이 길에서 네 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리를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큰 복으로 여깁니다. 둘째, 이 몬테시노스 동굴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과디아나와 루이데라 늪들이 어떻게 모습을 바꾸었는지 알게 되었으니,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에스파냐의 오비디우스』에 쓸모가 있겠습니다. 셋째, 카드놀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몬테시노스가 그토록 오래 두란다르테에게 말을 건넨 끝에 두란다르테가 깨어나 '참고 패를 다시 섞을 수밖에'라고 했다고 나리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카를로마뉴 황제 시대에는 카드놀이가 벌써 쓰였던 겁니다. 그런 말과 말투는 마법에 걸린 채로 배웠을 리가 없고, 마법에 걸리기 전에 프랑스에서, 앞서 말한 카를로마뉴 황제 시대에 배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제가 짓고 있는 다른 책, 곧 고대의 것들의 발명을 다룬 『비르질리오 폴리도로 보유』에 안성맞춤입니다. 폴리도로는 제 책에 카드놀이의 발명을 넣을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것을 넣으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될 겁니다. 더구나 두란다르테 나리처럼

무게 있고 진실한 저자를 끌어 대니까요. 넷째,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과디아나강의 발원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그대 책들을 찍어도 좋다는 허가가 나온다면, 나는 그럴지 의심스럽소만, 그 책들을 누구에게 바칠 생각인지 알고 싶구려."

"에스파냐에는 책을 바칠 만한 귀족과 대귀족이 있지요." 사촌이 말했다.

"많지는 않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분들이 그럴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자들의 수고와 예의에 마땅히 갚아야 할 듯한 보답을 떠맡지 않으려고 헌정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오. 내가 아는 왕족 한 분은 다른 이들의 모자람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뛰어나시니, 내가 감히 그 장점을 늘어놓는다면 너그러운 가슴 네댓 개쯤에는 시샘을 일깨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적당한 때로 미뤄 두고, 오늘 밤 묵을 곳이나 찾으러 갑시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사촌이 대답했다. "은자 한 사람이 사는 암자가 있습니다. 군인이었다고들 하는데,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아주 슬기로운 데다 자비롭다는 평판이 나 있습니다. 암자 곁에 제 돈을 들여 지은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작아도 손님을 맞을 만은 합니다."

"그 은자라는 분, 혹시 암탉은 치나요?" 산초가 물었다.

"암탉 없는 은자는 드물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요즘 은자들은 종려 잎을 몸에 걸치고 흙에서 캔 뿌리를 먹던 저 이집트 사막의 은자들과는 다르니 말이다. 그렇다고 옛 은자들을 좋게 말한다 해서 요즘 은자들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는 마라. 다만 요즘 은자들의 고행은 그 시절의 엄격함과 고됨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들을 착하다고 판단하느니라. 아무리 일이 흐리멍덩하게 돌아가도,

착한 척 꾸미는 위선자는 드러내 놓고 죄짓는 자보다 해를 덜 끼치는 법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 쪽으로 걸어서 오는 사내 하나가 보였다. 그는 창과 미늘창을 실은 노새를 막대기로 두들기며 서둘러 오더니, 그들에게 다다르자 인사를 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착한 양반, 잠깐 멈추시오. 그 노새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서둘러 가는 듯하구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리." 사내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싣고 가는 이 무기들은 내일 쓰일 것이라서, 저는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도 이것을 무엇에 쓰려고 싣고 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는 오늘 밤 암자 위쪽에 있는 객줏집에 묵을 생각이니, 같은 길을 가신다면 거기서 저를 만나실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 드리지요. 그럼 다시 한번 안녕히."

그러고는 어찌나 노새를 몰아치던지, 돈키호테는 그가 들려주겠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볼 틈도 없었다. 돈키호테는 호기심이 좀 많은 데다 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으므로, 사촌이 묵어 가기를 바란 암자에는 들르지 말고 당장 떠나 객줏집에 가서 밤을 지내자고 일렀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셋은 말과 나귀에 올라 객줏집으로 가는 곧은 길을 따라갔다. 객줏집에는 해가 지기 조금 전에 닿았다. 사촌이 돈키호테에게 암자에 들러 한잔 마시고 가자고 했다. 산초 판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잿빛 당나귀를 암자 쪽으로 돌렸고, 돈키호테와 사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산초의 불운이 그렇게 정해 놓았던지 은자는 집에 없었다. 암자에서 만난 부은자 노릇 하는 여자 하나가 그렇게 일러 주었다. 비싼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인께서 그런 것은 두지 않지만 값싼 물이라면 기꺼이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물이 마시고 싶었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길에 우물이 얼마든지 있으니 거기서 갈증을 풀었을 거예요. 아, 카마초의 혼례여, 돈 디에고 댁의 풍성함이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해야 하려나!"

그리하여 그들은 암자를 떠나 객줏집 쪽으로 박차를 가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그리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는 젊은이 하나를 만났고, 금세 그를 따라잡았다. 젊은이는 칼을 어깨에 메고 그 칼에 보퉁이인지 꾸러미인지를 걸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옷가지 같았다. 짐작건대 바지인지 통 넓은 반바지인지와 짧은 망토와 셔츠 몇 벌이었을 것이다. 그는 공단 무늬가 군데군데 아른거리는 벨벳 윗옷을 입고 셔츠를 밖으로 내놓고 있었으며, 비단 양말에 궁정 유행대로 코가 네모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이는 열여덟이나 열아홉쯤이었을까, 얼굴은 명랑하고 몸놀림은 날래 보였다. 그는 길의 고단함을 달래려고 세기디야를 부르며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따라잡았을 때 마침 한 곡을 다 부른 참이었다. 사촌이 그것을 외워 두었는데, 이런 노래였다고 한다.

전쟁터로 나를 데려가네
나의 궁핍이.
돈이 있다면야
정말이지 안 갈 텐데.

맨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돈키호테였다.

"아주 가벼운 차림으로 가시는구려, 멋쟁이 나리. 그래, 어디로 가시오? 말해 주고 싶다면 우리도 좀 압시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가는 것은 더위와 가난 탓이고, 가는 곳은 전쟁터입니다."

"가난이라니 어째서 그렇소?" 돈키호테가 물었다. "더위 탓이라면 그럴 만도 하오만."

"나리" 젊은이가 받았다. "이 보퉁이에는 이 윗옷과 짝을 이루는 벨벳 반바지가 들어 있습니다. 길에서 그것을 입어 닳게 하면 도시에서 그것으로 체면을 차릴 수 없을 테고, 다른 것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바람도 쐴 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12레과도 안 되는 곳에 보병 중대 몇이 있다는데, 거기까지 가서 입대할 작정입니다. 거기서부터 배 타는 곳까지는 짐수레가 모자라지 않을 테고, 배는 카르타헤나에서 탄다고들 합니다. 저는 궁정의 빈털터리를 섬기느니 차라리 임금님을 주인이자 나리로 모시고 전쟁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덤으로 받는 봉급은 있소?" 사촌이 물었다.

"제가 에스파냐의 대귀족이나 어느 높은 분을 섬겼더라면" 젊은이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훌륭한 분을 섬기면 그런 좋은 점이 있거든요. 하인 식당에서 나와 기수나 대위가 되기도 하고,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불운한 저는 늘 강가나 훑고 다니는 하찮은 사람들과 굴러온 뜨내기들만 섬겼습니다. 끼니 값과 급료가 어찌나 쥐꼬리만 하고 깎이고 깎였던지, 옷깃 하나 풀 먹이는 값을 치르면 반이 날아갔지요. 떠돌이 시동이 웬만한 행운이라도 얻는다면 기적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말해 보시오, 벗이여, 제발." 돈키호테가 물었다. "섬긴 그 여러 해 동안 제복 한 벌 얻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두 벌 받았습니다." 시동이 대답했다. "그런데 수도회에 들어갔다가 서원하기 전에 나오는 사람이 수도복을 빼앗기고 제 옷을 돌려받듯이, 제 주인들은 저한테 제 옷을 돌려주었습니다. 궁정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저 겉치레로 내주었던 제복을 거두어 갔거든요."

"이탈리아 사람 말로 대단한 스필로르체리아(spilorcheria, 인색함)로군."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대가 품은 그 훌륭한 뜻을 안고 궁정을 떠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세상에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다음으로 제 임금이요 타고난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이로운 일은 없기 때문이오. 특히 무예로 섬기는 것이 그러하니,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무예로는 학문으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더 많은 명예를 얻소. 학문이 무예보다 장자 상속 재산을 더 많이 세웠다 해도, 무예로 일어선 집안은 학문으로 일어선 집안보다 무언지 모를 무엇인가를 더 지니고 있고, 거기서 보이는 무언지 알 만한 빛이 있어 모두를 앞지르오. 그리고 지금 그대에게 하려는 말을 기억해 두시오. 그대가 고생할 때 큰 도움과 위안이 될 것이오. 그대에게 닥칠지 모를 불운한 일들은 생각하지 마시오.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훌륭하다면 무엇보다 좋은 것이 죽는 일이오. 저 용맹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가장 좋은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생각지 못한 죽음, 갑자기 오고 미리 알지 못한 죽음이라고 대답했소. 그는 참된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로서 대답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느끼는 괴로움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옳은 말을 했소. 그대들이 첫 교전과 싸움에서 죽는다 해도, 대포 한 방에 맞든 땅굴 화약에 날아가든 그것이 무슨 대수겠소? 모두 죽는 것이고, 그것으로 일은 끝이오. 테렌티우스에 따르면 병사는 달아나 살아남기보다 싸움터에서 죽는 편이 더 훌륭해 보이는 법이오. 그리고 훌륭한 병사는 자기 대장과 자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만큼 명성을 얻소. 그리고 명심하시오, 젊은이. 병사에게는 사향 냄새보다 화약 냄새가 어울리는 법이오. 또 이 명예로운 일을 하는 동안 늙음이 그대를 붙잡는다면, 비록 상처투성이에 팔다리를 못 쓰거나 절름발이가 되었다 해도 적어도 명예

없이 그대를 붙잡지는 못할 것이며, 그 명예는 가난도 깎아 내지 못할 것이오. 더구나 지금 늙고 몸이 성치 못한 병사들을 먹여 살리고 돌볼 방도가 마련되고 있으니 더욱 그렇소. 흑인 노예들이 늙어서 더는 일을 못 하게 되면 풀어 주어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을 그 병사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오. 그런 사람들은 자유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노예들을 집에서 내쫓아 굶주림의 노예로 만드니, 그 노예들은 죽어서야 그 굶주림에서 풀려날 생각을 할 수 있을 뿐이오. 지금은 더 말하지 않겠소. 다만 객줏집까지 내 말 엉덩이에 올라타시오. 거기서 나와 함께 저녁을 들고, 아침에 길을 이어 가시오. 하느님께서 그대가 바라는 것에 걸맞게 좋은 길을 주시기를."

시동은 말 엉덩이에 타라는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객줏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권유는 받아들였다. 그때 산초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이고 맙소사, 이런 주인 나리가 다 있나! 방금 여기서 하신 것처럼 그토록 대단하고 그토록 많고 그토록 좋은 말씀을 하실 줄 아는 분이,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그런 있을 수도 없는 헛소리들을 보았다고 하실 수가 있나? 어디 두고 보면 알겠지."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 그들은 객줏집에 다다랐다. 주인이 여느 때처럼 그것을 성으로 여기지 않고 참된 객줏집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산초는 적잖이 기뻤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돈키호테는 객줏집 주인에게 창과 미늘창을 실은 사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주인은 그 사내가 마구간에서 노새를 매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촌과 산초도 자기들 나귀를 매었는데, 로시난테에게는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구유와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다.

제25장 당나귀 울음 모험과 인형극꾼의 우스운 모험을 꺼내 놓고 점치는 원숭이의 기억할 만한 점괘를 곁들인다

흔히 하는 말로, 돈키호테는 무기를 싣고 가던 사내가 약속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알기 전까지는 빵이 익기를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애가 탔다. 그는 객줏집 주인이 일러 준 곳으로 사내를 찾아가 만나서는, 길에서 물었던 일에 관해 나중에 하겠다던 이야기를 어떻게든 지금 당장 해 달라고 졸랐다. 사내가 대답했다.

"제 놀라운 이야기는 좀 더 느긋하게, 서서가 아니라 앉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나리, 착하신 분, 우선 제 짐승을 다 돌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리께서 감탄하실 이야기를 들려 드리지요."

"그 때문이라면 걱정 마시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무엇이든 거들겠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여, 보리를 까불러 주고 구유를 닦아 주었다. 그 겸손함에 감동한 사내는 돈키호테가 청한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기로 하고, 돌 걸상에 앉았다. 돈키호테도 그 곁에 앉았고, 사촌과 시동과 산초 판사와 객줏집 주인이 원로원이자 청중 노릇을 하는 가운데, 사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객줏집에서 4레과 반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그 마을 의원 한 사람이 당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부리던 계집아이가 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쓴 탓이었는데, 그 사연은 말하자면 깁니다. 그 의원은 당나귀를 찾으려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소문대로라면, 당나귀가 없어진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당나귀 잃은 그 의원이 광장에 있는데 같은 마을의 다른 의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기쁜 소식의 상을 주게. 자네 당나귀가 나타났네.' '주고말고, 넉넉히 주겠네, 여보게.' 다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좀 알아보세.' '산에서였네.' 찾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길마도 마구도 하나 없이 어찌나 말랐던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네. 앞으로 몰아 자네에게 데려오려 했는데, 벌써 어찌나 산짐승처럼 되고 사나워졌던지 내가 다가가자 달아나서 산속 가장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렸네. 우리 둘이 다시 찾으러 가겠다면, 이 암나귀를 집에 두고 올 테니 기다리게. 금방 돌아오겠네.' '그래 주면 정말 고맙겠네.' 당나귀 임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값으로 갚도록 애쓰겠네.' 이 일의 진상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정을 하나하나 곁들여,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두 의원은 걸어서 나란히 산으로 갔는데, 당나귀가 있으리라 생각한 곳에 이르러 보니 당나귀는 없었고, 아무리 찾아도 그 근방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나귀가 나타나지 않자, 그것을 보았다던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여보게. 좋은 꾀가 하나 떠올랐네. 이 꾀만 쓰면 그 짐승이 산속이 아니라 땅속 깊은 데 들어가 있다 해도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걸세. 다름이 아니라 나는 당나귀 울음을 기가 막히게 흉내 낼 줄 아네. 자네도 조금만 할 줄 안다면 일은 다 끝난 셈일세.' '조금이라니, 여보게?' 다른 의원이 말했습니다. '맹세코 나는 누구에게도, 아니 당나귀들한테도 지지 않네.' '그럼 이제 알게 되겠지.' 둘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네. 자네는 산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서 산을 빙 둘러 샅샅이 돌아다니세. 그러면서 이따금 자네도 울고 나도 울면, 당나귀가 산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 소리를 듣고 대답하지 않을 리가 없네.' 그러자 당나귀 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그 꾀 참 훌륭하네. 자네의 큰 재주에 걸맞은 꾀일세.' 그리하여 두 사람이 약속대로 갈라져 갔는데, 거의 동시에 당나귀 울음을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상대의 울음소리에 속아, 당나귀가 벌써 나타난 줄 알고 서로를 찾아 달려왔습니다. 서로 마주치자 당나귀 잃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운 것이 내 당나귀가 아니었단 말인가?' '아니었네, 나였네.' 다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말하네만' 임자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당나귀 울음에 관한 한 자네와 당나귀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네. 평생 그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칭찬과 추어올림은' 꾀를 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자네한테 더 어울리고 맞는 말일세, 여보게. 나를 지으신 하느님께 맹세코,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울고 가장 능숙하게 우는 당나귀 울음꾼에게도 두 울음은 접어 주고 이길 수 있네. 자네 소리는 높고, 길게 끄는 소리는 제때 제 박자에 맞고, 끝을 꺾는 소리는 잦고 빠르거든. 한마디로 나는 졌다고 손들고, 이 희한한 재주의 종려 가지와 깃발을 자네에게 넘기겠네.' '이제야 말하네만' 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더 높이 치고 아끼겠네. 내게도 재주가 있으니 나도 뭘 좀 안다고 생각하겠네. 내가 당나귀 울음을 잘 운다고는 생각했지만, 자네 말처럼 그 끝까지 이르렀다고는 미처 몰랐네.' '나도 이제 말하겠네만' 둘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버려진 희한한 재주들이 있고, 그것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헛되이 썩고 마는 법일세.' '우리 재주는' 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니면 다른 데는 쓸모가 없네. 이 일에서라도 하느님께서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비세.'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다시

갈라져 당나귀 울음을 울기 시작했는데, 걸핏하면 서로 속아 다시 만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나귀가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두 번씩 잇달아 울기로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음마다 울음을 곱절로 울며 산을 빙 둘러 다녔으나, 잃어버린 당나귀는 대답은커녕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엾고 박복한 짐승이 어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늑대들에게 뜯어먹힌 채 발견되었으니 말입니다. 당나귀를 보자 그 임자가 말했습니다. '어쩐지 대답을 안 한다 싶었네. 죽지만 않았다면 우리 소리를 듣고 울었을 테니까. 안 그러면 당나귀가 아니지. 그래도 여보게, 자네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우는 것을 들었으니, 비록 죽은 것을 찾았지만 찾느라 들인 수고가 아깝지 않네.' '자네 손에 달린 일이었지, 여보게.' 다른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수도원장이 노래를 잘하면 복사도 뒤지지 않는 법이거든.' 그리하여 그들은 낙담하고 목이 쉰 채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과 이웃과 아는 사람들에게 당나귀를 찾으러 다니다 겪은 일을 죄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마다 상대가 당나귀 울음을 얼마나 잘 우는지 부풀려 자랑했지요. 그 이야기가 모두 알려져 이웃 마을들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잠들지 않는 악마는 어디서나 다툼과 불화의 씨를 뿌리고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바람결에 소동을 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큰 망상을 지어내는지라,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만 보면 우리 의원들의 당나귀 울음으로 얼굴에 먹칠을 하듯 당나귀 울음을 울도록 일을 꾸미고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맛을 들였으니, 그것은 지옥의 온갖 악마들 손과 입에 그 일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당나귀 울음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번져 나가, 흑인이 백인과 구별되듯 당나귀 울음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놀림의 불행이 얼마나 커졌던지, 놀림당한 쪽이 놀린 쪽을 향해 무기를 들고 대오를 지어 싸우러 나간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왕도 차도 막을

수 없었고,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소용이 없었지요. 제 생각에는 내일이나 모레쯤 당나귀 울음 마을인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2레과 떨어진 다른 마을, 우리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마을 가운데 하나를 치러 들판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가려고 보신 이 창과 미늘창을 사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가 들려 드리겠다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으시다면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착한 사내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때 위아래로 양말이며 반바지며 윗옷이며 온통 샤미 가죽으로 차려입은 사내 하나가 객줏집 문으로 들어서더니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주인 양반, 묵을 방 있소? 점치는 원숭이와 「멜리센드라의 구출」 인형극이 여기 왔소."

"이런 세상에."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페드로 선생께서 오셨네! 오늘 밤은 재미나겠구먼."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페드로 선생은 왼쪽 눈과 뺨 거의 절반을 초록 호박단 헝겊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쪽이 온통 아픈 모양이었다. 객줏집 주인이 말을 이었다.

"어서 오세요, 페드로 선생님. 그런데 원숭이랑 인형극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요."

"가까이 오고 있소." 온통 샤미 가죽 차림인 사내가 대답했다. "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내가 앞질러 왔을 뿐이오."

"알바 공작님께라도 방을 빼앗아 페드로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원숭이랑 인형극을 들여오세요. 오늘 밤 객줏집에는 인형극이랑 원숭이 재주를 보는 값을 치를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좋소." 헝겊을 댄 사내가 대답했다. "값은 내가 깎아 주겠소. 밑천만 건져도 넉넉히 받은 셈 치겠소. 그럼 나는 돌아가서 원숭이와 인형극을 실은 수레를 몰고 오겠소."

그러고는 다시 객줏집을 나갔다.

돈키호테는 곧 객줏집 주인에게 그 페드로 선생이라는 이가 누구이며, 무슨 인형극과 무슨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객줏집 주인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이름난 인형극꾼이에요. 여러 날째 이 아라곤 라만차를 돌아다니며, 이름난 돈 가이페로스가 멜리센드라를 구해 내는 인형극을 보여 주고 있지요. 여러 해 이래 이 나라에서 본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잘 꾸민 이야기 가운데 하나랍니다. 또 원숭이 하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원숭이들 사이에서는 본 적이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상한 적이 없는 희한한 재주를 지녔어요. 무얼 물으면 묻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주인 어깨 위로 뛰어올라서 귀에 대고 대답을 일러 주고, 그러면 페드로 선생이 곧 그 대답을 밝히거든요. 앞으로 올 일보다 지나간 일을 훨씬 더 많이 말하는데, 늘 다 맞히지는 못해도 대개는 틀리지 않아서, 그 몸에 악마가 들었다고 믿게 만든답니다. 원숭이가 대답하면 물음 하나에 2레알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귀에 대고 말한 뒤에 주인이 원숭이 대신 대답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페드로 선생이 엄청난 부자라고들 믿지요. 이탈리아 사람들 말로 멋쟁이에 좋은 동무(bon compaño)라서,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게 살아요. 말은 여섯 사람보다 많이 하고 술은 열두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데, 그게 다 제 혀와 원숭이와 인형극 덕분이랍니다."

그때 페드로 선생이 돌아왔다. 수레에는 인형극 무대와 원숭이가 실려 있었는데, 원숭이는 크고 꼬리가 없었으며 엉덩이는 펠트 천 같았지만 생김새는 밉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원숭이를 보자마자 물었다.

"말해 주시오, 점쟁이 나리. 우리는 무슨 고기를 낚겠소? 우리는 어찌 되겠소? 여기 내 2레알이 있소."

그러고는 산초에게 그 돈을 페드로 선생에게 주라고 일렀다. 페드로 선생은 원숭이 대신 대답했다.

"나리, 이 짐승은 앞으로 올 일에는 대답하지도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좀 알고, 지금 일도 조금은 압니다."

"맹세코" 산초가 말했다. "제가 겪은 일을 누가 말해 준다고 저는 동전 한 닢도 안 내겠어요. 그걸 저보다 더 잘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걸 말해 준다고 돈을 내면 그거야말로 큰 바보짓이지요. 그래도 지금 일을 안다니, 여기 제 2레알 있어요. 원숭이 나리님, 제 마누라 테레사 판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말해 주세요."

페드로 선생은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일을 해 드리기도 전에 품삯을 미리 받지는 않겠소."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두 번 두드리자 원숭이가 한 번에 껑충 뛰어 그 어깨에 올라앉더니, 입을 귀에 대고 이를 딱딱 몹시 빠르게 부딪쳤다. 사도신경 한 번 욀 동안 그런 시늉을 하더니 원숭이는 또 한 번 껑충 뛰어 땅에 내려섰다. 그러자 곧 페드로 선생이 몹시 서둘러 돈키호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 다리를 껴안나이다, 마치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껴안듯이. 오, 이미 잊혔던 편력 기사도를 되살린 빼어난 분이시여! 오, 마땅한 만큼 칭송받은 적이 결코 없는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기운 잃은 이들의 용기요, 쓰러지려는 이들의 버팀목이요, 쓰러진 이들의 팔이요, 모든 불행한 이들의 지팡이요 위안이시여!"

돈키호테는 어안이 벙벙했고, 산초는 넋을 잃었고, 사촌은 얼떨떨했고, 시동은 놀라 자빠질 뻔했고, 당나귀 울음 마을 사내는

멍해졌고, 객줏집 주인은 어리둥절했다. 한마디로 인형극꾼의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는데, 인형극꾼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너, 오, 착한 산초 판사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의 가장 훌륭한 종자여, 기뻐하라. 네 착한 아내 테레사는 잘 있으니, 지금 이 시각 삼 한 파운드를 빗질하고 있느니라. 더 확실한 표시를 대자면, 그 왼쪽 곁에 포도주가 제법 들어가는 이 빠진 단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 일하는 시름을 달래고 있느니라."

"그건 정말 그럴 거예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복 받은 여자니까요. 질투만 안 하면 거인 여자 안단도나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주인 나리 말씀으로는 안단도나가 아주 야무지고 쓸 만한 여자였다던데요. 그리고 우리 테레사는 자기 상속인들 몫을 축내서라도 굶고 지내지는 않는 그런 여자거든요."

"이제야 말하겠는데"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많이 읽고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고 많이 아느니라.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본 것처럼 세상에 점치는 원숭이가 있다고 무엇이 나를 설득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이 착한 짐승이 말한 바로 그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내 칭찬을 좀 부풀리기는 했지만 말이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하늘에 감사하오. 하늘은 내게 부드럽고 가엾이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어, 늘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기울게 해 주셨소."

"돈이 있다면" 시동이 말했다. "원숭이 나리께 제가 떠나는 이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물어볼 텐데요."

벌써 돈키호테의 발치에서 일어나 있던 페드로 선생이 대답했다.

"이 짐승은 앞으로 올 일에는 대답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소. 대답한다면야 돈이 없어도 상관없었을 것이오. 여기 계신 돈키호테 나리를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세상의 모든 이익이라도 버렸을 테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이분께 빚진 것도 있고 이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도 싶어서, 인형극 무대를 차려 이 객줏집에 있는 모든 분을 공짜로 즐겁게 해 드리겠소."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진 객줏집 주인이 무대를 세울 자리를 가리켰고, 무대는 순식간에 세워졌다.

돈키호테는 원숭이의 점괘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원숭이가 앞으로 올 일이든 지나간 일이든 점을 친다는 것이 당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드로 선생이 무대를 꾸미는 동안 그는 산초를 데리고 마구간 한구석으로 물러나,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말했다.

"이것 보아라, 산초. 이 원숭이의 기이한 재주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내 셈으로는 틀림없이 이 원숭이의 주인 페드로 선생이 악마와 묵시든 명시든 언약을 맺었을 것이다."

"묵이 시고 악마 거라면" 산초가 말했다. "틀림없이 아주 쉰 묵이겠네요. 그런데 페드로 선생이 그런 묵을 가져서 무슨 득을 보나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산초. 내 말은 그저, 그가 악마와 무슨 약조를 맺어 악마가 원숭이에게 그런 재주를 불어넣게 하고, 그 재주로 먹고살다가 부자가 되면 제 영혼을 악마에게 주기로 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인류의 원수가 노리는 바이니라.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원숭이가 지나간 일이나 지금 일에만 대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악마의 지혜는 그 이상 미치지 못하느니라. 앞으로 올 일은 짐작으로나 알 뿐이고, 그것도 늘 맞히지는 못한다.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맡겨져 있고, 그분께는 지나간 것도 앞으로 올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지금이니라. 사정이 이러하니, 이 원숭이가 악마의 말투로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째서 이 원숭이를 종교 재판소에 고발하여 심문하고, 누구의 힘으로 점을 치는지 뿌리째 캐내지 않았는지 나는 놀랍구나. 이 원숭이는 점성가가 아닌 게 분명하고, 그

주인도 원숭이도 요즘 에스파냐에서 그토록 유행하는 판단 점성술의 천궁도라는 것을 세우지도 않고 세울 줄도 모를 테니 말이다. 요즘에는 하찮은 아낙이든 시동이든 헌 신 고치는 구두장이든, 바닥에 떨어진 카드의 잭 한 장 줍듯이 천궁도를 세울 줄 안다고 뽐내지 않는 이가 없어서, 제 거짓말과 무지로 그 학문의 놀라운 진리를 망쳐 놓고 있다. 내가 아는 어느 귀부인은 이런 천궁도쟁이 하나에게, 자기가 기르는 작은 무릎 강아지가 새끼를 배고 낳겠는지, 낳는다면 몇 마리를 무슨 빛깔로 낳겠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판단 점성가 나리는 천궁도를 세워 보더니, 그 강아지가 새끼를 배어 세 마리를 낳을 텐데 하나는 초록, 하나는 진홍, 하나는 얼룩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그 개가 낮이든 밤이든 열한 시에서 열두 시 사이에, 그것도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교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틀 뒤에 그 개가 너무 먹어 배가 터져 죽은 것이었다. 그래도 그 천궁도 세우는 나리는 그 고장에서 아주 용한 판단 점성가로 평판을 얻었다. 천궁도 세우는 자들은 다 그렇게, 아니 대개는 그렇게 평판을 얻느니라."

"그래도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페드로 선생한테, 그 원숭이에게 나리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겪으신 일이 참말인지 물어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리껜 죄송하지만 제 생각엔 그게 다 속임수고 거짓말이거나, 적어도 꿈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래도 네가 권하는 대로 해 보마. 뭔지 모를 꺼림칙함이 남겠지만."

그러고 있는데 페드로 선생이 돈키호테를 찾아와, 무대가 다 준비되었으니 볼 만한 것이니 와서 보시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고,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겪은 어떤 일들이 꿈이었는지 참말이었는지 원숭이에게 곧 물어서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일들에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페드로

선생은 한 마디 대답도 없이 원숭이를 다시 데려와 돈키호테와 산초 앞에 세우고 말했다.

"이것 보시오, 원숭이 나리. 이 기사께서 몬테시노스 동굴이라는 곳에서 겪으신 어떤 일들이 거짓이었는지 참이었는지 알고 싶어 하시오."

그러고는 늘 하던 신호를 하자 원숭이가 그의 왼쪽 어깨에 올라앉아 귀에 대고 말하는 듯하더니, 곧 페드로 선생이 말했다.

"원숭이가 말하기를, 나리께서 그 동굴에서 보시거나 겪으신 일은 일부는 거짓이고 일부는 그럴듯하답니다. 이 물음에 관해서는 이것이 아는 전부이고 다른 것은 모른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더 알고 싶으시면 다가오는 금요일에 묻는 것마다 다 대답하겠답니다. 지금은 신통력이 다 떨어져서, 말한 대로 금요일이 되어야 다시 돌아온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산초가 말했다. "주인 나리께서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신 게 다 참말이라고는, 아니 절반도 참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요."

"일이 되어 가는 대로 알게 되겠지,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세월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도 햇빛 아래 꺼내 놓지 않고 그냥 두는 법이 없느니라. 이제 그만하고, 착한 페드로 선생의 인형극이나 보러 가자. 내 생각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구나."

"무언가라니요?" 페드로 선생이 대답했다. "제 이 인형극에는 새로운 것이 육만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볼 만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으라(operibus credite, et non verbis)고 했지요. 자, 일을 시작합시다. 날이 저물었는데 할 일도 할 말도 보여 드릴 것도 많으니까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의 말을 따라, 벌써 무대가 세워지고 막이 걷힌 곳으로 갔다. 무대 사방에는 불 켠 작은 밀랍 초가 가득 꽂혀 있어 화려하고 눈부셨다. 그들이 다다르자 페드로 선생은 무대 안으로 들어갔다. 인형들을 놀리는 것은 그였기 때문이다. 무대 밖에는 페드로 선생의 하인인 소년 하나가 섰다. 그 인형극의 신비를 풀이하고 밝히는 해설자 노릇을 할 참이었는데, 소년은 손에 가는 막대를 들고 그것으로 나오는 인형들을 가리켰다.

이렇게 객줏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몇은 선 채로 무대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돈키호테와 산초와 시동과 사촌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자, 해설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다음 장을 듣거나 보는 사람이 듣고 보게 될 것이다.

제26장 인형극꾼의 우스운 모험을 이어 가며 정말로 퍽 좋은 다른 일들도 곁들인다

티로스 사람도 트로이 사람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다시 말해 인형극을 보던 사람들이 모두 그 경이를 풀이하는 해설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대에서 수많은 북과 나팔 소리가 울리고 대포가 여러 방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잠깐 사이에 지나가자 소년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기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이 참된 이야기는 프랑스 연대기들과, 사람들 입에, 그리고 거리의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는 에스파냐 로맨스들에서 글자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돈 가이페로스 나리가 아내 멜리센드라를 구해 낸 이야기를 다루지요. 멜리센드라는 에스파냐에서 무어인들 손에 사로잡혀 산수에냐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고사라고 부르는 도시를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저기 돈 가이페로스가 주사위 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노래에 나오는 그대로지요.

"돈 가이페로스는 주사위 판 놀이에 빠져
멜리센드라는 벌써 잊어버렸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손에 홀을 든 채 저기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카를로마뉴 황제인데, 그 멜리센드라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분입니다. 황제는 사위가 빈둥거리며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언짢아

꾸짖으러 나옵니다. 얼마나 격하고 매섭게 꾸짖는지 보십시오. 홀로 사위의 머리를 반 다스쯤 쥐어박으려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쥐어박았다고, 그것도 아주 호되게 쥐어박았다고 하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황제는 아내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사위의 명예가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숱하게 늘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또 보십시오. 황제가 등을 돌려 돈 가이페로스를 분하게 남겨 두고 갑니다. 보시다시피 돈 가이페로스는 화를 참지 못해 주사위 판과 말들을 멀리 내던지고는 서둘러 갑옷을 가져오라 하고, 사촌 돈 롤단에게 그의 칼 두린다나를 빌려 달라고 합니다. 돈 롤단이 칼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면서, 그 어려운 모험에 함께 가 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보십시오. 그러나 화가 난 그 용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다 해도 자기 혼자 힘으로 넉넉히 구해 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고는 곧장 길을 떠나려고 갑옷을 입으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탑으로 눈을 돌려 보십시오. 지금 알하페리아라고 부르는 사라고사 성채의 탑 가운데 하나라고 치는 탑입니다. 저 발코니에 무어인 옷차림으로 나와 있는 귀부인이 바로 견줄 데 없는 멜리센드라인데, 그곳에서 자주 프랑스로 가는 길을 바라보며 파리와 남편을 떠올리고 사로잡힌 신세를 달래곤 했습니다. 또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일,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입에 대고 살금살금 한 걸음씩 멜리센드라 등 뒤로 다가가는 저 무어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자가 멜리센드라의 입술 한가운데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자 멜리센드라가 서둘러 침을 뱉고 하얀 속옷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그 못된 짓의 죄라도 지은 듯 괴로워하며 쥐어뜯는지 보십시오. 또 저 회랑에 있는 근엄한 무어인이 산수에냐의

마르실리오 왕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왕은 그 무어인의 무례한 짓을 보고, 그자가 자기 친척이요 큰 총신이었는데도 곧 잡아들이라 명하고, 매 이백 대를 때리며 도시의 정해진 거리로 끌고 다니라 했습니다. 앞에서는 죄목을 외치는 자들이, / 뒤에서는 몽둥이 든 자들이 따르며.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죄를 저지르자마자 형을 집행하러 나옵니다. 무어인들 사이에는 우리처럼 '상대편에 송달'이니 '증거를 대고 기다리라'니 하는 것이 없거든요."

"얘야, 얘야." 그때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를 곧은 줄로 이어 가고, 곡선이나 옆길로 빠지지 마시오. 진실 하나를 깨끗이 밝혀내려면 증거와 반증이 많이 있어야 하는 법이오."

페드로 선생도 안에서 말했다.

"얘야, 꾸밈새 부리지 말고 저 나리께서 이르시는 대로 해라. 그게 가장 옳을 게다. 네 단선율 성가나 부르고 대위법에는 끼어들지 마라. 대위법은 너무 가늘어서 끊어지기 일쑤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년은 대답하고 말을 이었다. "여기 가스코뉴 망토를 두르고 말을 타고 나타난 인형이 바로 돈 가이페로스입니다. 아내는 사랑에 빠진 무어인의 무례에 벌써 앙갚음을 받은 터라 한결 밝고 차분한 얼굴로 탑의 전망대에 나와, 남편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고 그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나눈 말과 대화가 모두 저 로맨스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기사여, 프랑스로 가시거든 / 가이페로스를 찾아 주오.' 그 말을 지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장황함에서는 지루함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돈 가이페로스가 정체를 밝히고, 멜리센드라가 기쁜 몸짓을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만 보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멜리센드라가 착한 남편이 탄 말 엉덩이에 오르려고 발코니에서 매달려 내려오니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아, 가엾게도! 속치마 자락이 발코니

쇠창살 하나에 걸려, 땅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비로운 하늘은 가장 절박할 때 구원해 주시는 법입니다. 돈 가이페로스가 다가와서, 그 값진 속치마가 찢어지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멜리센드라를 붙잡아 억지로 땅에 내려놓고는, 한 번에 훌쩍 들어 말 엉덩이에 사내처럼 걸터앉힙니다. 그러고는 떨어지지 않게 꽉 붙잡고 팔을 자기 등에 둘러 가슴 앞에서 깍지를 끼라고 이르지요. 멜리센드라 아씨는 그런 말 타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오, 말이 기쁜 듯 우는 소리를 보면 제 주인과 주인마님이라는 용감하고 아름다운 짐을 싣고 흐뭇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이 등을 돌려 도시를 빠져나가 기쁘고 즐겁게 파리로 가는 길을 잡습니다. 잘 가시오, 오, 참된 연인들의 견줄 데 없는 짝이여! 운명이 그대들의 행복한 길에 걸림돌을 놓지 않아, 그대들이 그리던 고향에 무사히 닿기를! 그대들 벗과 친척의 눈이, 그대들에게 남은 생의 날들을, 네스토르의 날들처럼 길기를 바라는 그날들을 고요한 평화 속에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이때 페드로 선생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수수하게 해라, 얘야. 너무 높이 오르지 마라. 꾸밈은 모두 나쁜 법이다."

해설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무엇이든 다 보기 마련인 한가한 눈들이 멜리센드라가 내려오고 말에 오르는 것을 놓쳤을 리 없지요. 그 눈들이 마르실리오 왕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왕은 곧 경보를 울리라 명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보십시오. 모든 회교 사원 탑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도시가 벌써 무너질 듯합니다."

"그건 아니지!"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종 이야기는 페드로 선생이 아주 잘못 알고 있소. 무어인들 사이에서는 종을 쓰지 않고,

큰북과 우리 피리를 닮은 일종의 피리를 쓰오. 산수에냐에서 종을 울린다니 그것은 틀림없이 큰 엉터리요."

그 말을 들은 페드로 선생은 연주를 멈추고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자잘한 일을 따지지 마십시오. 어디서도 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일을 너무 끝까지 몰고 가려 하지 마시고요. 곳곳에서 거의 늘 천 가지 엉터리와 터무니없는 것으로 가득한 연극이 천 편이나 공연되는데도, 그런 연극들이 아주 순조롭게 무대에 오르고, 박수만이 아니라 감탄까지 받으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까? 계속해라, 얘야. 남이야 뭐라 하든 내버려 둬라. 내 자루만 채울 수 있다면 햇빛 속 먼지 알갱이보다 더 많은 엉터리를 보여 줘도 좋으니."

"그건 맞는 말이오." 돈키호테가 받았다.

그러자 소년이 말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병이, 얼마나 번쩍이는 기병이 그리스도교 신자인 두 연인을 쫓아 도시를 나서는지, 얼마나 많은 나팔이 울리고, 얼마나 많은 피리가 소리를 내고, 얼마나 많은 큰북과 북이 둥둥거리는지. 두 사람이 붙잡혀, 바로 그 말 꼬리에 묶여 끌려오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끔찍한 구경거리일 텐데요."

돈키호테는 그토록 많은 무어인 무리와 그토록 요란한 소리를 보고 듣자, 달아나는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눈앞에서 돈 가이페로스처럼 이름난 기사요 그토록 대담한 연인이 비겁한 짓을 당하게 두지는 않으리라. 멈추어라, 천하게 태어난 무리들아! 그를 쫓지도 뒤쫓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싸움을 벌이게 되리라!"

그는 말하는 동시에 칼을 빼어 들고 한 번에 껑충 뛰어 무대 곁으로 가더니, 보도 듣도 못한 성급한 분노로 인형 무어인 무리 위에 칼질을 비

오듯 퍼붓기 시작했다. 어떤 놈은 넘어뜨리고, 어떤 놈은 목을 베고, 이놈은 팔다리를 망가뜨리고, 저놈은 박살을 내다가, 그러는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칼질을 한 번 했는데, 페드로 선생이 몸을 숙이고 웅크리고 쭈그리지 않았더라면 마치 마지팬 반죽으로 빚은 것보다 더 쉽게 그의 머리가 잘려 나갔을 것이다. 페드로 선생은 소리소리 질렀다.

"멈추십시오,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쓰러뜨리고 부수고 죽이시는 것은 진짜 무어인이 아니라 반죽으로 빚은 인형들이라는 것을 아셔야지요. 보십시오, 이 죄 많은 놈 신세, 나리께서 제 재산을 몽땅 부수고 망쳐 놓으시잖아요!"

그래도 돈키호테는 내리치기, 두 손 칼질, 베기, 뒤로 베기를 비 오듯 퍼붓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사도신경을 두 번 외기도 전에 그는 인형극 무대를 통째로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줄이며 인형이며 모두 산산조각 나고 가루가 되었는데, 마르실리오 왕은 크게 다쳤고 카를로마뉴 황제는 관과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청중이라는 원로원은 뒤숭숭해졌고, 원숭이는 창문으로 지붕 위로 달아났으며, 사촌은 두려워했고, 시동은 겁에 질렸고, 산초 판사마저 몹시 무서워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그가 맹세한 대로라면, 주인이 그토록 분별없이 성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형극 무대를 모조리 부수고 나자 돈키호테는 조금 진정하고 말했다.

"편력 기사가 세상에 얼마나 쓸모 있는지 믿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금 이 자리에 불러다 놓고 싶구려. 보시오, 내가 여기 있지 않았더라면 착한 돈 가이페로스와 아름다운 멜리센드라가 어찌 되었겠소. 틀림없이 지금쯤은 이 개 같은 놈들이 그들을 따라잡아 무슨 몹쓸 짓을 했을 것이오. 한마디로, 오늘 땅 위에 살아 있는 모든 것 위에 편력 기사도여, 영원하라!"

"그래요, 영원하라지요." 그때 페드로 선생이 병든 사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는 죽으라지요. 나는 이토록 불행하니 돈 로드리고 왕[1]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려.

"어제는 에스파냐의 주인이었으나……
오늘은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성가퀴 하나 없구나!

"반 시간 전만 해도, 아니 잠깐 전만 해도 나는 왕과 황제들의 주인이었고, 마구간이며 궤짝이며 자루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려한 옷이 가득했지. 그런데 이제 보니 나는 망하고 꺾여 거지 신세가 되었고, 무엇보다 원숭이마저 잃었소. 맹세코 그놈을 다시 손에 넣으려면 이가 땀을 흘려야 할 거요. 이게 다 이 기사 나리의 분별없는 분노 탓이오. 고아를 돌보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다른 자비로운 일을 한다는 분인데, 그 너그러운 뜻이 하필 나 하나한테만은 미치지 못했구려. 하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찬미받고 찬양받으시기를. 결국 내 얼굴들을 망가뜨릴 사람은 슬픈 얼굴의 기사였구먼."

페드로 선생의 말에 마음이 약해진 산초 판사가 그에게 말했다.

"울지 마, 페드로 선생. 슬퍼하지도 말고. 내 가슴이 찢어지잖아. 알려 주는데, 우리 주인 나리 돈키호테께서는 아주 신실하고 꼼꼼한 그리스도교 신자시라서,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으시기만 하면 넉넉히 갚고 메워 주실 줄도 아시고 그러고 싶어 하실 거야."

"돈키호테 나리께서 부수신 인형 값을 조금이라도 물어 주신다면 나는 만족하겠고, 나리께서도 양심을 편히 하실 수 있을 것이오. 남의 것을 임자의 뜻을 거슬러 지니고서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렇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런데 페드로 선생, 지금까지 나는 그대 것을 무엇이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소."

"가지고 있지 않다니요?" 페드로 선생이 대답했다. "이 딱딱하고 메마른 땅바닥에 흩어진 이 유해들을 그 강한 팔의 무적의 힘이 아니고 누가 흩어 놓고 없애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몸뚱이들이 제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들 말고 무엇으로 먹고살았습니까?"

"이제야 확실히 믿게 되었소."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전에도 여러 번 믿었던 것이지만, 나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은 내 눈앞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내놓았다가 곧 저희 마음대로 바꾸고 뒤바꾸어 놓소. 내 말을 듣는 여러분, 참말로 진심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이 모두 내게는 글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소. 멜리센드라는 멜리센드라, 돈 가이페로스는 돈 가이페로스, 마르실리오는 마르실리오, 카를로마뉴는 카를로마뉴였소. 그래서 화가 치밀었고, 편력 기사의 본분을 다하려고 달아나는 이들을 돕고 지켜 주려 했으며, 이 좋은 뜻으로 그대들이 본 일을 했소. 그것이 거꾸로 되었다면 내 탓이 아니라 나를 쫓아다니는 악당들 탓이오. 그래도 비록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나 내 이 실수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비용을 물기로 판결하겠소. 페드로 선생은 부서진 인형 값으로 얼마를 바라는지 말해 보시오. 곧 카스티야의 좋은 통용 화폐로 물어 주겠소."

페드로 선생은 그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모든 궁한 이와 가난한 떠돌이들의 참된 구원자요 보호자이신 분의 전대미문의 그리스도교 정신에서 이보다 못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기 객줏집 주인 양반과 위대한 산초가 나리와 저 사이에서 중재인과 감정인이 되어, 이미 부서진

인형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니 얼마나 나갈 수 있었는지 정해 주겠지요."

객줏집 주인과 산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페드로 선생은 곧 머리가 떨어져 나간 사라고사의 마르실리오 왕을 땅에서 집어 들고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왕을 처음 모습으로 되돌리기란 불가능하니, 더 나은 판단이 없다면 그 죽음과 끝장과 마지막 값으로 4레알 반을 받아야겠습니다."

"좋소, 다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럼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갈라진 것에 대해서는" 페드로 선생이 두 쪽 난 카를로마뉴 황제를 두 손에 들고 말을 이었다. "5레알 1쿠아르티요를 청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적지 않네요." 산초가 말했다.

"많지도 않고요." 객줏집 주인이 받았다. "반씩 양보해서 5레알로 칩시다."

"5레알 1쿠아르티요를 다 주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대단한 불행의 액수가 1쿠아르티요 더하고 덜한 데 달린 것은 아니니 말이오. 그리고 페드로 선생은 어서 끝내시오. 저녁 먹을 때가 되었고, 나는 배가 좀 고픈 낌새가 있소."

"이 인형은" 페드로 선생이 말했다. "코가 없고 눈 하나가 떨어져 나갔는데, 아름다운 멜리센드라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따져 2레알 12마라베디를 받아야겠습니다."

"거기에는 악마가 끼었을 것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멜리센드라가 남편과 함께 적어도 벌써 프랑스 국경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말이오. 그들이 탄 말은 내가 보기에 달린다기보다 날아가는 것 같았소. 그러니 진짜 멜리센드라는 지금쯤 프랑스에서 남편과 함께 다리 쭉 뻗고 즐기고

있을 텐데, 여기 코 떨어진 멜리센드라를 내밀며 내게 토끼 대신 고양이를 팔 까닭은 없소. 하느님께서 저마다에게 제 몫을 거들어 주시기를 비오, 페드로 선생. 우리 모두 반듯한 걸음으로, 바른 뜻으로 갑시다. 그럼 계속하시오."

페드로 선생은 돈키호테가 비틀거리며 처음 망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이건 멜리센드라가 아니라 멜리센드라를 모시던 시녀 가운데 하나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60마라베디만 주시면 만족하고 넉넉히 받은 셈 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많은 부서진 인형에도 값을 매겨 나갔고, 두 중재 판관이 나중에 양쪽이 흡족하게 그 값을 깎아 주었는데, 모두 합해 40레알 3쿠아르티요에 이르렀다. 산초가 그 돈을 곧 치르자, 페드로 선생은 그 밖에 원숭이를 잡는 수고비로 2레알을 더 청했다.

"그것을 주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원숭이(mono)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암원숭이(mona)를 잡으라고 말이다.[2] 그리고 지금 누가 도냐 멜리센드라 아씨와 돈 가이페로스 나리가 벌써 프랑스에서 제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확실히 말해 준다면, 나는 기쁜 소식의 상으로 이백 레알이라도 주겠다."

"그건 제 원숭이보다 더 잘 말해 줄 수 있는 녀석이 없지요." 페드로 선생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악마라도 그놈을 잡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정과 배고픔 때문에 오늘 밤 저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테니, 하느님께서 날을 밝혀 주시면 다시 만나겠지요."

마침내 인형극의 폭풍은 끝났고, 모두 함께 사이좋게 평화로이 저녁을 먹었다. 비용은 더없이 너그러운 돈키호테가 댔다.

날이 밝기 전에 창과 미늘창을 실은 사내가 떠났고, 날이 밝은 뒤에는 사촌과 시동이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사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시동은 제 길을 이어 가려 했는데, 돈키호테는 시동에게 노자에 보태라고 레알 한 다스를 주었다. 페드로 선생은 돈키호테를 아주 잘 알았으므로 더는 그와 이러쿵저러쿵 얽히고 싶지 않아서, 해보다 먼저 일어나 인형극의 유해와 원숭이를 챙겨 그 역시 제 모험을 찾아 떠났다. 돈키호테를 모르던 객줏집 주인은 그의 광기에도 그의 너그러움에도 똑같이 놀랐다. 마침내 산초가 주인의 분부대로 그에게 값을 아주 넉넉히 치렀고, 그들은 그와 작별하고 아침 여덟 시쯤 객줏집을 떠나 길에 올랐다. 그들이 가는 대로 여기서 내버려 두자. 이 이름난 이야기를 밝히는 데 관계되는 다른 일들을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하려면 그러는 것이 좋겠다.

---

1. 돈 로드리고는 711년 무어인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은 서고트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이어지는 세 행은 그의 몰락을 노래한 옛 로맨스의 한 구절이다.

2. 스페인어에서 「암원숭이를 잡다(tomar la mona)」는 「술에 취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제27장 페드로 선생과 그 원숭이가 누구였는지 밝히고, 돈키호테가 당나귀 울음 모험에서 바라고 생각한 대로 끝내지 못한 불운을 이야기한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연대기 작가 시데 아메테는 이 장을 「나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맹세한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에 대해 그의 옮긴이는 말한다. 시데 아메테는 틀림없이 무어인이었는데 그가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맹세한다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가 맹세할 때는 진실을 맹세하고, 또는 진실을 맹세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듯이, 그 역시 돈키호테에 관해 쓰려는 것에서, 특히 페드로 선생이 누구였으며 점괘로 그 모든 마을 사람을 놀라게 한 점치는 원숭이가 무엇이었는지 말하는 데서,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맹세하는 것처럼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 이야기의 제1부를 읽은 사람이라면 저 히네스 데 파사몬테를 잘 기억할 것이라고 한다. 돈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에서 다른 갤리선 죄수들과 함께 풀어 준 그자인데, 그 사악하고 버릇 나쁜 무리는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고약하게 갚았다. 돈키호테가 히네시요 데 파라필라라고 부르던 이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바로 산초 판사의 잿빛 당나귀를 훔친 자였다. 그 일을 어떻게, 언제 했는지가 인쇄공들 잘못으로 제1부에 실리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인쇄의 빠뜨림을 작가의 기억력이 모자란 탓으로 돌렸다. 아무튼 히네스는 산초 판사가 당나귀 위에서 잠든 사이에, 사크리판테가 알브라카를 에워싸고 있을 때 브루넬로가 그의 다리 사이에서 말을 빼내 간 바로 그 꾀와 수법으로 당나귀를 훔쳤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산초가 나중에 그것을 되찾았다. 그런데 이 히네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악행과 범죄로 그를 벌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법 관리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했다. 그 죄가 어찌나 많고 대단했던지 그 자신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두꺼운 책을 한 권 썼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아라곤 왕국으로 넘어가 왼쪽 눈을 가리고 인형극꾼 노릇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형극과 손재주 부리는 요술이라면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잘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바르바리아에서 풀려나 돌아오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서 그 원숭이를 사게 되었다. 그는 원숭이에게 어떤 신호를 하면 자기 어깨에 올라와 귀에 대고 중얼거리도록, 또는 그러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해 놓고서, 인형극과 원숭이를 데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아는 사람에게서, 그 마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알아보았다. 그것을 잘 외워 두고는 맨 먼저 인형극을 보여 주었는데, 인형극은 어떤 때는 이 이야기, 어떤 때는 저 이야기였지만 모두 즐겁고 흥겹고 잘 알려진 것들이었다. 인형극이 끝나면 원숭이의 재주를 내놓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원숭이는 지나간 일과 지금 일을 모두 알아맞히지만 앞으로 올 일에는 재주가 없다고 말했다. 물음 하나에 대답해 주는 값으로 2레알을 받았고, 묻는 사람의 맥을 짚어 보아 어떤 물음은 값을 깎아 주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가 알고 있는 집에 이르면, 돈을 내기 싫어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원숭이에게 신호를 하고는, 원숭이가 이러저러한

일을 말해 주었다고 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과 꼭 맞아떨어졌으니,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용을 얻었고 모두가 그를 졸졸 따라다녔다. 또 어떤 때는 워낙 영리한 자라서 대답이 물음에 들어맞도록 대답했다. 아무도 그에게 원숭이가 어떻게 점을 치는지 밝히라고 다그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모두를 원숭이처럼 놀려 먹으며 제 주머니를 채웠다.

그는 객줏집에 들어서자마자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보았고, 그들을 알아본 덕에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 그 객줏집에 있던 모든 이를 쉽게 놀라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말했듯이 돈키호테가 마르실리오 왕의 목을 베고 그의 기병대를 모조리 박살 낼 때 손을 조금만 더 낮게 내렸더라면, 그 일로 그는 비싼 값을 치렀을 것이다.

페드로 선생과 그 원숭이에 관해 할 말은 이것이다.

그러면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로 돌아가 말하자면, 그는 객줏집을 떠난 뒤 사라고사 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브로강 기슭과 그 근방을 두루 보기로 했다. 거기서 마상 시합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길을 이어 갔는데, 이틀 동안은 글로 적을 만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 어느 언덕을 오르는데 북과 나팔과 화승총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느 보병 연대가 그쪽을 지나가는 줄 알고, 그들을 보려고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언덕을 올라갔다. 꼭대기에 이르러 보니 언덕 아래에 그가 보기에 이백 명이 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긴 창, 쇠뇌, 날 넓은 창, 미늘창, 장창, 화승총 몇 자루, 그리고 둥근 방패가 많았다. 그는 비탈을 내려가 그 무리에 어찌나 가까이 다가갔던지 깃발들을 똑똑히 보고 그 빛깔을 가려내고 거기 그려진 문장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특히 하얀 공단으로 된 군기인지 긴 깃발인지에 그려진 것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작은 사르데냐 당나귀만 한 당나귀 한 마리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머리를 쳐들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민 채 당나귀 울음을 우는 듯한 몸짓과 자세였다. 그 둘레에는 큰 글자로 이런 두 행이 적혀 있었다.

괜히 운 게 아니라네,
이 촌장도 저 촌장도.

돈키호테는 그 표지를 보고 저 사람들이 당나귀 울음 마을 사람들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산초에게 그렇게 말하며 군기에 적힌 글귀를 풀이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들에게 알려 준 사내가 당나귀 울음을 운 사람들이 마을 의원 둘이었다고 한 것은 잘못이며, 군기의 시구대로라면 그들은 촌장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나리,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나귀 울음을 운 의원들이 세월이 흘러 마을 촌장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두 직함으로 다 부를 수 있잖아요. 더구나 그들이 하나하나 당나귀 울음을 울기만 했다면, 우는 사람이 촌장이냐 의원이냐는 이야기의 진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촌장이나 의원이나 당나귀 울음을 울 위험이 있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마침내 그들은 놀림받은 마을이 이웃 사이의 정리를 넘어 지나치게 놀려 대는 다른 마을과 싸우러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키호테가 그들 쪽으로 다가가자, 그런 싸움판에 끼는 것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던 산초는 적잖이 언짢았다. 무리는 돈키호테를 자기편 사람으로 여기고 한가운데로 맞아들였다. 돈키호테는 얼굴 가리개를 올리고 늠름한 기세와 풍채로 당나귀 군기 앞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그 군대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그를 보려고 둘레에 모여들었는데,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으레 빠지는 그 놀라움에 그들도 빠졌다. 돈키호테는 그들이 아무도 말을 걸거나 무엇을 묻지 않고 자기를 그토록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 침묵을 이용하려고, 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훌륭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간곡히 청하오.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언짢고 성가시게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내 말을 끊지 말아 주시오.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신호만 보내도 내 입에 봉인을 찍고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겠소."

모두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기꺼이 듣겠다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허락을 얻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 나는 편력 기사요. 내가 하는 일은 무예이고, 내 본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궁한 이들을 거드는 것이오. 나는 여러 날 전에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이 원수에게 앙갚음하려고 걸핏하면 무기를 드는 까닭을 알게 되었소.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결투의 법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모욕당했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임을 알게 되었소. 어떤 개인도 한 마을 전체를 모욕할 수는 없기 때문이오.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반역자라고 결투를 신청한다면 몰라도 말이오. 그런 경우는 결투를 신청하는 까닭인 그 반역을 누가 저질렀는지 낱낱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오. 그 본보기가 돈 디에고 오르도녜스 데 라라요. 그는 벨리도 돌포스 혼자서 자기 왕을 죽이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 사모라 사람 모두에게 결투를 신청했소. 그래서 모두에게 신청했으니 앙갚음과 응답도 모두의 몫이 되었소. 하기야 돈 디에고 나리가 좀 지나쳤고 결투 신청의 테두리를 한참 넘어선 것도 사실이오. 죽은 자들에게도, 물에게도, 빵에게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거기서 밝힌 다른 자잘한 것들에게도 결투를 신청할 까닭은 없었으니 말이오. 그러나 어쩌겠소, 분노가 제 어미 품, 곧 물길을 벗어나 넘치면 혀에는 바로잡아 줄 아비도 스승도 재갈도 없는 법이오. 사정이 이러하여 한 사람이 왕국이나

지방이나 도시나 나라나 마을 전체를 모욕할 수 없다면, 그런 모욕에 대한 결투 신청에 앙갚음하러 나설 까닭이 없음은 명백하오. 그것은 모욕이 아니기 때문이오. 시계 마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을 걸핏하면 죽인다면, 그리고 냄비쟁이, 가지쟁이, 새끼고래, 비누쟁이[1] 같은, 아이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다른 별명과 딱지가 붙은 이들이 그런다면, 참 볼만하겠소! 이 모든 이름난 마을들이 아무리 하찮은 다툼에도 부끄러워하고 앙갚음하며, 늘 칼을 트롬본처럼 넣었다 뺐다 하며 돌아다닌다면 참으로 볼만하겠소! 아니, 아니오,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시기를. 신중한 사람과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네 가지 까닭이 있을 때 무기를 들고 칼을 뽑아 제 몸과 목숨과 재산을 위험에 내맡겨야 하오. 첫째는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둘째는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이니, 이는 자연법이요 하느님의 법이오. 셋째는 제 명예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넷째는 정당한 전쟁에서 제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요. 다섯째를 덧붙이자면, 둘째로 칠 수도 있겠지만, 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다섯 가지 으뜸가는 까닭에 정당하고 이치에 맞아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다른 까닭 몇 가지를 더할 수는 있소. 그러나 모욕이라기보다는 웃음거리요 심심풀이인 어린애 장난 같은 일로 무기를 든다면, 그 무기를 드는 사람은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오. 더구나 부당한 앙갚음을 하는 것은, 정당한 앙갚음이란 있을 수 없으니 말이오만, 우리가 믿는 거룩한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원수에게 잘해 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오. 이 계명은 지키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세상보다 하느님을 덜 지니고 영보다 육을 더 지닌 자들에게만 어려울 뿐이오. 참된 하느님이요 참된 사람이시며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고 하실 수도 없었고 지금도 하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입법자로서, 당신의 멍에는 쉽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일을 명하실 리가 없었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의 법과 사람의 법에 따라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오."

"악마가 나를 잡아가라지." 그때 산초가 속으로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가 싱학자가 아니라면 말이야. 싱학자가 아니라 해도 달걀이 달걀을 닮듯 꼭 닮았네."

돈키호테는 숨을 좀 돌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잠자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더 이어 가려 했고, 산초의 재치가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어 갔을 것이다. 산초는 주인이 말을 멈추는 것을 보더니 그 대신 나서서 말했다.

"제 주인이신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는 한때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리셨고 지금은 사자의 기사라고 불리시는데, 아주 사려 깊은 시골 귀족이세요. 학사처럼 라틴어도 에스파냐어도 아시고, 무엇을 다루시든 무슨 충고를 하시든 아주 훌륭한 군인처럼 처신하시고, 결투라고 하는 것의 법도와 규칙을 손톱 끝에 훤히 꿰고 계세요. 그러니 다른 수 없이 그분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지요. 더구나 당나귀 울음 한 번 들었다고 부끄러워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게 이미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음 내킬 때마다 당나귀 울음을 울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어찌나 멋들어지고 진짜 같았던지 제가 울면 마을 당나귀가 죄다 따라 울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부모님 자식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은 아주 명예로운 분들이셨지요. 이 재주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거들먹거리는 작자들 네댓은 저를 시샘했지만, 저는 두 푼어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말이 참말이라는 걸 보여 드릴 테니 기다려서 들어 보세요. 이 재주는 헤엄치는 재주 같아서 한번 배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고는 곧 손을 코에 대고 어찌나 세차게 당나귀 울음을 울기 시작했던지 가까운 골짜기들이 모두 쩌렁쩌렁 울렸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사람 하나가 산초가 자기들을 놀린다고 여기고 손에 든 막대기를 쳐들어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산초 판사는 어쩔 도리도 없이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산초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본 돈키호테는 창을 꼬나들고 그를 때린 자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앙갚음을 해 줄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돌 소나기가 자기 위로 쏟아지고, 겨눈 쇠뇌 천 개와 그만큼 많은 화승총이 자기를 노리는 것을 보자,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있는 힘껏 내달려 그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이 위험에서 구해 주십사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몸을 맡기며, 걸음마다 총알이 등으로 들어와 가슴으로 빠져나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했고, 숨이 끊어지지 않았나 보려고 쉴 새 없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무리는 그가 달아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총을 쏘지 않았다. 무리는 겨우 정신이 든 산초를 당나귀 위에 얹어 주인 뒤를 따라가게 내버려 두었다. 그가 당나귀를 몰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잿빛 당나귀가 로시난테의 발자국을 따라갔을 뿐인데, 잿빛 당나귀는 로시난테 없이는 한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한참 멀어진 뒤에 고개를 돌려 산초가 오는 것을 보았고, 아무도 뒤쫓아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를 기다렸다.

무리는 밤까지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맞수들이 싸우러 나오지 않자 기쁘고 흥겹게 제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이 그리스 사람들의 옛 풍습을 알았더라면 그 자리에 전승 기념비를 세웠을 것이다.

---

1. 당시 여러 도시와 마을 사람을 놀려 부르던 별명이다. 「가지쟁이」는 톨레도 사람, 「새끼고래」는 마드리드 사람, 「비누쟁이」는 세비야 사람을 놀려 부르던 말로

알려져 있다.

제28장 베넹헬리가 말하기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면 알게 될 일들

용감한 자가 달아날 때는 상대의 반칙이 드러난 것이며, 더 좋은 기회를 위해 몸을 아끼는 것은 신중한 사람의 일이다. 이 진리는 돈키호테에게서 확인되었으니,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그 성난 무리의 나쁜 뜻에 자리를 내주고 발에 먼지를 날리며 줄행랑을 놓았는데, 산초도, 산초를 남겨 두고 온 위험도 까맣게 잊은 채 안전하다 싶을 만큼 멀리 떨어졌다. 앞서 말했듯이 산초는 당나귀 위에 가로걸쳐진 채 그를 따라왔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산초가 다다르더니, 다다르자마자 잿빛 당나귀에서 로시난테의 발치로 털썩 떨어졌는데, 온통 숨이 가쁘고 온통 녹초가 되고 온통 두들겨 맞은 몰골이었다. 돈키호테는 그의 상처를 살피려고 말에서 내렸으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을 보자 몹시 화가 나서 그에게 말했다.

"하필 이런 고약한 때에 당나귀 울음을 울 줄 알았다니, 산초! 목매달린 사람 집에서 밧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자네는 대체 어디서 배웠나? 당나귀 울음 음악에 몽둥이찜질 말고 무슨 대위선율이 따라붙겠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게, 산초. 몽둥이로 성호를 그어 준 것으로 그쳤지, 언월도로 '십자 성호로(per signum crucis)'까지 긋지는 않았으니 말일세."

"대답할 기운이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등으로 말하는 것 같거든요. 올라타고 여기서 떠나요. 당나귀 울음은 이제 입 다물겠지만,

편력 기사들은 달아나면서 착한 종자들을 헤나 가루처럼, 아니 방앗간 곡식처럼 두들겨 맞게 원수들 손에 버려둔다는 말은 안 할 수가 없네요."

"물러나는 사람은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아 두어라, 산초. 신중함이라는 주춧돌 위에 서지 않은 용기는 무모함이라 부르고, 무모한 자의 무훈은 그의 용기보다 행운 덕으로 돌리는 법이다. 그러니 나는 물러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달아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나는 더 좋은 때를 위해 몸을 아낀 많은 용사를 본받았다. 이야기책마다 그런 일이 가득하지만, 너에게 쓸모도 없고 나에게 즐거움도 없으니 지금 늘어놓지는 않겠다."

그러는 사이에 산초는 돈키호테의 도움을 받아 벌써 당나귀에 올라 있었고, 돈키호테도 로시난테에 올랐으며, 그들은 천천히 걸어 4분의 1레과쯤 떨어진 곳에 보이는 포플러 숲으로 숨어들었다. 산초가 이따금 아주 깊은 앓는 소리와 괴로운 신음을 내기에 돈키호테가 그토록 쓰라리게 앓는 까닭을 묻자, 산초는 등뼈 끝에서부터 골통 뒤 목덜미까지 어찌나 아픈지 정신이 나갈 지경이라고 대답했다.

"그 아픔의 까닭은 틀림없이"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를 때린 몽둥이가 길고 쭉 뻗은 것이어서 네 등 전체를 덮쳤기 때문일 게다. 네가 아픈 데는 모두 그 안에 들어가니 말이다. 몽둥이가 더 많은 데를 덮쳤다면 더 많은 데가 아팠을 것이다."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제 큰 의문을 풀어 주시고 그걸 아주 멋진 말로 밝혀 주셨네요! 이거 원! 제 아픔의 까닭이 그렇게 꼭꼭 숨어 있어서, 몽둥이가 닿은 데가 죄다 아프다는 걸 일러 주셔야만 했나요? 발목이 아프다면야 왜 아픈지 알아맞히러 다닐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얻어맞은 데가 아픈 거야 알아맞힐 것도 없잖아요. 맹세코, 주인 나리, 남의 불행은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려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리를 모시고 다녀서 바랄 수 있는 게 얼마나 적은지 날마다 새로

깨닫고 있어요. 이번에 저를 두들겨 맞게 내버려 두셨으니, 다음번에도, 또 그다음 백 번에도 지난번 그 담요 헹가래며 다른 어린애 장난 같은 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게 등으로 나왔지만 나중엔 눈으로 나올 테니까요. 제가 훨씬 나은 짓을 할 텐데, 다만 저는 무지렁이라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못 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훨씬 나은 짓은, 제 집으로, 제 마누라와 자식들에게 돌아가서 하느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으로 마누라를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리 뒤를 따라 길 아닌 길로, 길도 오솔길도 없는 길로 돌아다니며 고약하게 마시고 더 고약하게 먹을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잠은 또 어떻고요! '종자 형씨, 땅 일곱 자를 재시오. 더 원하면 그만큼 더 재시오. 퍼 담는 건 당신 손에 달렸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드러누우시오.' 편력 기사도에 맨 처음 바늘땀을 뜬 놈이 불에 타 재가 되는 꼴을 보고 싶네요. 적어도 옛날 편력 기사들처럼 그런 바보들의 종자가 되겠다고 맨 처음 나선 놈은요. 지금 기사들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리께서 그 가운데 한 분이시니 존경하거든요. 또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생각하시는 것이며 악마보다 한 수 더 아신다는 것도 알고요."

"자네와 내기를 하나 해도 좋겠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금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이 떠들어 대는 동안에는 자네 온몸 어디도 아프지 않다는 데 말일세. 얘야, 생각나고 입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말하게. 자네가 아프지만 않다면 자네의 그 당찮은 소리에 언짢아지는 것쯤은 즐거움으로 여기겠네. 그리고 그토록 마누라와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하느님께서 내가 그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자네는 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세 번째로 우리 마을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셈해 보고,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고 벌어야 하는지 따져 본 다음 자네 손으로 품삯을 챙기게."

"제가 일할 때"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도 잘 아시는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아버지 토메 카라스코 밑에서는 밥 먹여 주고 한 달에 2두카도를 받았어요. 나리 밑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편력 기사의 종자가 농사꾼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고생이 더 많다는 건 알아요. 결국 농사꾼 밑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낮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밤이면 냄비 요리로 저녁을 먹고 침대에서 자거든요. 나리를 모신 뒤로 저는 침대에서 자 본 적이 없어요. 돈 디에고 데 미란다 댁에 머문 잠깐과 카마초의 솥에서 건진 거품으로 벌인 잔치, 그리고 바실리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잔 것 말고는, 나머지 내내 딱딱한 땅바닥에서, 하늘 아래 맨바닥에서, 하늘의 모진 날씨라는 것에 시달리며 잤어요. 치즈 조각과 빵 부스러기로 버티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외딴 데서 만나는 개울물이며 샘물을 마시면서요."

"인정하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산초. 토메 카라스코가 주던 것보다 얼마를 더 주어야 할 것 같은가?"

"제 생각에는"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한 달에 2레알만 더 얹어 주시면 넉넉히 받은 셈 치겠어요. 이건 제 품삯 이야기고요. 그런데 나리께서 섬 하나를 다스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 갚아 주시는 것으로 6레알을 더 얹어 주셔야 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합해서 30레알이 되겠네요."

"아주 좋네." 돈키호테가 받았다. "자네가 스스로 정한 그 품삯대로 하세. 우리가 마을을 떠난 지 스무사흘이 되었네. 산초, 비례로 셈해 보고 내가 자네에게 얼마를 빚졌는지 따져서, 말했듯이 자네 손으로 챙기게."

"이거 원!"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그 셈을 아주 잘못하셨네요. 섬 약속 몫은 나리께서 제게 그걸 약속하신 날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쳐야

하거든요."

"그러면 산초, 내가 자네에게 그것을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스무 해는 넘었을 거예요. 사흘쯤 더하거나 덜하거나요."

돈키호테는 제 이마를 손바닥으로 철썩 치더니 아주 신나게 웃기 시작했다.

"시에라 모레나에서도, 우리가 출정한 내내도 고작 두 달밖에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산초, 내가 너에게 섬을 약속한 지 스무 해가 되었다고? 이제야 알겠다. 네가 가진 내 돈을 몽땅 네 품삯으로 써 버리고 싶은 게로구나. 그렇다면, 그리고 네가 그러기를 바란다면 지금 여기서 그 돈을 주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토록 몹쓸 종자를 떼어 버릴 수 있다면 나는 가난뱅이가 되어 한 푼 없이 남아도 기쁘겠다. 그런데 말해 보아라, 편력 기사도의 종자 규칙을 어기는 놈아. 편력 기사의 종자 가운데 누가 제 주인과 '나리를 모시는 값으로 한 달에 얼마를 주셔야 합니다' 하고 흥정을 했다는 것을 너는 어디서 보았거나 읽었느냐? 들어가 보아라, 들어가 보아라, 이 흉악한 놈, 비겁한 놈, 괴물 같은 놈아. 너는 그 모두를 닮았으니. 들어가라는 말이다, 그 이야기책들의 큰 바다(mare magnum)로. 거기서 네가 여기서 한 말을 한 종자, 아니 그런 생각을 한 종자라도 찾아낸다면, 그것을 내 이마에 박아 넣고 덤으로 내 얼굴에 손바닥 도장을 네 번 찍어도 좋다. 잿빛 당나귀의 고삐를, 아니 굴레를 돌려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 한 걸음도 더 가서는 안 된다. 오, 은혜를 모르는 빵이여! 오, 엉뚱한 데 둔 약속이여! 오, 사람보다 짐승에 더 가까운 놈이여! 네 마누라가 싫어하든 말든 너를 '각하'라 부르게 될 신분으로 너를 올려 주려던 바로 이때 작별을 고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섬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굳고 확실한 뜻을 품고 오던 바로 이때 떠나겠다는 게냐? 결국 네가 여러 번 말했듯이, 꿀은 당나귀 주둥이에 맞는 게 아니라는…… 운운이로구나. 너는 당나귀요, 당나귀일 것이요, 생의 길이 다하면 당나귀로 끝날 게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기 전에 네 생이 먼저 마지막 끝에 다다를 것이다."

돈키호테가 그런 꾸지람을 퍼붓는 동안 산초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찌나 뉘우쳤던지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괴롭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 나리, 제가 완전한 당나귀가 되려면 꼬리 하나만 모자란다는 건 인정해요. 나리께서 꼬리를 달아 주시겠다면 잘 달아 주신 걸로 알고, 남은 평생 날마다 당나귀처럼 나리를 섬기겠어요. 나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어린 나이를 가엾게 여겨 주세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말이 많은 건 못된 마음보다는 병 탓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잘못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하느님께 몸을 맡기는 법이니까요."

"네가 이야기에 속담 하나라도 섞지 않았다면 나는 놀랐을 게다, 산초. 좋다, 너를 용서해 주마. 다만 행실을 고치고, 앞으로는 제 잇속을 그토록 밝히지 말고, 마음을 넓게 먹고 기운을 내어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그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불가능해지지는 않느니라."

산초는 약한 데서 힘을 짜내어서라도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포플러 숲으로 들어가, 돈키호테는 느릅나무 발치에, 산초는 너도밤나무 발치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나무들과 그 비슷한 나무들은 늘 발은 있어도 손은 없는 법이다. 산초는 밤이슬을 맞으니 몽둥이찜질이 더 쑤셔서 괴롭게 밤을 보냈고, 돈키호테는 늘 하던 대로 끝없는 추억에 잠겨 밤을 보냈다. 그래도 둘 다 눈을 붙였고, 새벽이

오자 이름난 에브로강의 기슭을 찾아 길을 이어 갔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제29장 마법에 걸린 배의 이름난 모험

센 걸음에 셀 걸음까지 세어 가며, 포플러 숲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돈키호테와 산초는 에브로강에 이르렀다. 강을 보자 돈키호테는 무척 기뻤다. 그 기슭의 상쾌함, 물의 맑음, 흐름의 고요함, 그 흐르는 수정의 넉넉함을 바라보고 눈여겨보노라니, 그 즐거운 광경이 그의 기억 속에 사랑에 겨운 생각 천 가지를 새로이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는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본 것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을 굴렸는데, 페드로 선생의 원숭이가 그 가운데 일부는 참이고 일부는 거짓이라고 했는데도, 그는 거짓보다 참 쪽을 더 믿었다. 모두를 새빨간 거짓말로 여기는 산초와는 정반대였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도 다른 장비도 하나 없는 작은 배 한 척이 강가에 서 있는 나무 밑동에 매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돈키호테는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다짜고짜 로시난테에서 내리더니, 산초에게도 잿빛 당나귀에서 내려 두 짐승을 거기 있던 포플러인지 버드나무인지의 밑동에 함께 아주 단단히 매어 두라고 일렀다. 산초가 갑자기 내리고 매어 두는 까닭을 묻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아 두어라, 산초. 여기 있는 이 배는 곧바로, 다른 무엇일 수도 없이 틀림없이, 나더러 올라타서 어느 기사나, 아니면 무슨 큰 시름에 빠져 있을 다른 궁하고 높은 사람을 도우러 가라고 나를 부르고 청하고 있느니라. 기사 이야기책들과 그 책에 끼어들어 활약하는 마법사들의

법도가 바로 이러하다. 어떤 기사가 무슨 곤경에 빠졌는데 다른 기사의 손이 아니면 거기서 풀려날 수 없을 때는, 두 기사가 서로 2천 레과나 3천 레과, 아니 그보다 더 떨어져 있어도, 마법사들이 그 기사를 구름에 싣고 낚아채 가거나 올라탈 배를 마련해 주어서, 눈 한 번 깜짝할 사이도 안 되어 하늘로든 바다로든 저희가 원하는 곳, 그 기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데려가느니라. 그러니, 오, 산초여, 이 배도 바로 그 목적으로 여기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이 낮인 것만큼이나 참말이다. 날이 저물기 전에 잿빛 당나귀와 로시난테를 함께 매어 두고, 하느님 손에 맡겨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빌자꾸나. 맨발의 수도사들이 말린다 해도 나는 배에 오르고야 말겠다."

"그렇다면야"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리께서 걸핏하면 이런, 엉터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일에 뛰어드시겠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과 한 상에 앉아라'라는 속담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제 양심의 짐을 덜려고 나리께 말씀드려 두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이 배는 마법에 걸린 배가 아니라 이 강 어부들 거예요. 이 강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보가가 잡히거든요."

산초는 이렇게 말하며 짐승들을 맸는데, 그것들을 마법사들의 보호와 비호에 맡겨 두자니 영혼이 몹시 아팠다. 돈키호테는 그 짐승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들을 그토록 요원한 길과 땅으로 데려갈 이가 저것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맡을 것이라고 했다.

"그 '요완한'이란 말은 모르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평생 그런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요원한'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다. 네가 그 말을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너는 라틴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라틴어를 안다고 으스대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마는."

"벌써 다 맸어요." 산초가 받았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무엇을 하느냐고?"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성호를 긋고 닻을 올려야지(levar ferro). 다시 말해 배에 올라 이 배를 매어 둔 밧줄을 끊자는 말이다."

그러고는 배 안으로 훌쩍 뛰어오르고 산초도 뒤따르자 밧줄을 끊었다. 배는 조금씩 강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산초는 강 안으로 2바라쯤 들어간 것을 알자 이제 끝장이로구나 싶어 떨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괴로웠던 것은 잿빛 당나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로시난테가 매인 것을 풀려고 버둥거리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잿빛 당나귀가 우리가 떠나는 게 슬퍼서 울고, 로시난테는 우리 뒤를 쫓아 뛰어들려고 풀려나려 애쓰고 있어요. 오, 더없이 사랑하는 벗들아, 잘 있거라. 우리를 너희에게서 떼어 놓는 이 광기가 깨달음으로 바뀌어 우리를 다시 너희 앞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그러면서 어찌나 서럽게 울기 시작했던지, 돈키호테는 언짢고 화가 나서 그에게 말했다.

"무엇이 무서우냐, 이 겁쟁이 같은 놈아? 무엇 때문에 우느냐, 이 버터 심장아? 누가 너를 쫓아오고 누가 너를 몰아대느냐, 이 집쥐 같은 배짱아? 풍요의 뱃속 한가운데서 무엇이 모자라 그러느냐, 이 궁상맞은 놈아? 네가 리페우스산맥을 맨발로 걸어가기라도 하느냐? 대공처럼 널빤지에 앉아 이 즐거운 강의 고요한 물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 강에서 우리는 곧 넓은 바다로 나갈 것이다. 아니, 벌써 나가서 적어도 칠백 레과나 팔백 레과는 왔을 게다. 여기 극의 높이를 잴 아스트롤라베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말해 줄 수 있을 텐데.

하기야 내가 아는 게 적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벌써 마주 보는 두 극을 같은 거리로 나누고 가르는 적도선을 지났거나 곧 지날 것이다."

"그럼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적도섶에 다다르면" 산초가 물었다. "우리는 얼마나 온 게 되나요?"

"많이 온 게지." 돈키호테가 받았다. "알려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우주지리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의 셈에 따르면, 물과 땅으로 된 지구는 삼백예순 도인데, 내가 말한 그 선에 다다르면 우리는 그 절반을 온 셈이 되느니라."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에 증인으로 끌어다 대시는 분이 푸토(puto, 남색쟁이)에 가포(gafo, 문둥이)에다 덤으로 메온(meón, 오줌싸개)인지 메오인지 하는, 참 점잖은 양반이네요."

산초가 우주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과 셈과 계산을 그렇게 풀이하자 돈키호테는 웃음을 터뜨리고 그에게 말했다.

"알아 두어라, 산초. 에스파냐 사람들과 동인도로 가려고 카디스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적도선을 지났다는 것을 아는 표시 가운데 하나는, 배에 탄 사람들 몸에 있던 이가 모두 죽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을 주고 사려 해도 배 안 어디에서도 한 마리 찾지 못할 게다. 그러니 산초, 네 넓적다리를 손으로 한번 쓸어 보아라. 살아 있는 것이 손에 걸리면 이 의문이 풀릴 것이고,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지난 것이다."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나리께서 시키시는 대로는 하지요.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눈으로 보니 우리는 강가에서 5바라도 떨어지지 않았고, 짐성들이 있는 데서 2바라도 비켜나지 않았거든요. 저기 로시난테와 잿빛 당나귀가 우리가 두고 온 바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듯이 겨냥해 보면, 맹세코 우리는 개미 걸음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나아가지도 않아요."

"산초, 내가 말한 대로 확인이나 해 보고,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천구와 지구를 이루는 분지경선이며 선이며 위선이며 황도대며 황도며 극이며 하지 동지며 춘분 추분이며 행성이며 별자리며 점이며 도수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아니 그 일부라도 알았다면 우리가 위선을 얼마나 가로질렀고 별자리를 얼마나 보았으며 성좌를 얼마나 뒤에 남겨 두었고 지금도 남겨 두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을 게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몸을 더듬어 잡아 보아라. 내 생각에 너는 매끄럽고 하얀 종이 한 장보다 더 깨끗할 것이다."

산초는 몸을 더듬었다. 손을 살며시 조심스럽게 왼쪽 오금 쪽으로 가져가더니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험이 엉터리든지, 아니면 우리는 나리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몇 레과나 남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물었다. "뭐가 잡혔느냐?"

"뭐가 잡힌 정도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손가락을 털어 손을 강물에 통째로 씻었다. 배는 강물 한가운데를 고요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는데, 무슨 숨은 지혜나 몸을 감춘 마법사가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부드럽고 잔잔하던 물살 자체가 배를 실어 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강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물레방앗간들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마자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보이느냐? 오, 벗아, 저기 도시인지 성인지 요새인지가 나타났구나. 저기에 어느 기사가 억눌려 있거나, 어느 여왕이나 공주나 왕녀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을 구하려고 내가 여기 이끌려 왔느니라."

"나리, 무슨 놈의 도시며 요새며 성이요?" 산초가 말했다. "저건 강에 있는 물레방앗간이고, 거기서 밀을 빻는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잠자코 있거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물레방앗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마법은 모든 것을 타고난 모습에서 뒤바꾸고 바꾸어 놓는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하나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말이다. 내 희망의 유일한 피난처인 둘시네아의 둔갑에서 겪어 본 그대로이니라."

그때 배가 강물 한가운데로 들어서더니 그때까지와는 달리 그리 느리지 않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물레방앗간의 방앗꾼들은 그 배가 강을 따라 내려와 물레바퀴의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여럿이 긴 장대를 들고 배를 막으려고 서둘러 뛰어나왔다. 그들은 얼굴이고 옷이고 온통 밀가루를 뒤집어쓴 채 나왔으므로 보기에 흉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어디 가는 거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 물레바퀴에 빠져 죽고 박살이 나고 싶으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산초?" 그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팔의 용맹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여 주어야 할 곳에 우리가 다다랐다고. 보아라, 흉악한 놈들과 비겁한 놈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맞으러 나오는지, 괴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막아서는지, 흉측한 낯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도깨비 얼굴을 지어 보이는지…… 자, 이제 보게 되리라, 이 악당들아!"

그러고는 배 안에서 벌떡 일어서서 큰 소리로 방앗꾼들을 을러대기 시작했다.

"사악하고 더 나쁜 꾀에 빠진 천것들아, 너희 요새인지 감옥인지에 억눌러 가두어 둔 사람을, 그가 높든 낮든, 어떤 신분이요 어떤 사람이든 풀어 주어 제 뜻대로 하게 할지어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자의 기사라 불리느니라. 드높은 하늘의 뜻으로 이 모험을 다행히 끝내는 일이 나에게 맡겨져 있노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칼을 빼어 들고 방앗꾼들을 향해 허공에 휘두르기 시작했다. 방앗꾼들은 그 헛소리를 듣고도 알아듣지 못한 채, 벌써 물레바퀴의 급류와 물길로 들어서는 배를 장대로 막으려고 했다.

산초는 무릎을 꿇고 이토록 뻔한 위험에서 구해 주십사 하늘에 경건하게 빌었다. 하늘은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방앗꾼들이 재빠르게 손을 써서 장대로 배를 막아 세운 것이다. 그러나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돈키호테와 산초는 물속으로 거꾸로 처박혔다. 그래도 돈키호테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으니, 그는 거위처럼 헤엄을 칠 줄 알았다. 그러나 갑옷 무게 때문에 두 번이나 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방앗꾼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건져 내지 않았더라면, 그곳이 두 사람에게는 트로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뭍으로 끌려 나와, 목말라 죽기는커녕 흠뻑 젖은 산초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눈을 박은 채, 앞으로는 주인의 무모한 소망과 덤벼듦에서 자기를 구해 주십사 길고 경건한 기도로 하느님께 빌었다.

그때 물레방아 바퀴에 산산조각이 난 배의 임자인 어부들이 와서, 배가 부서진 것을 보고는 산초의 옷을 벗기려 덤벼들며 돈키호테에게 배 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태연하게 방앗꾼들과 어부들에게, 그들의 성에 억눌려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인지를 아무 탈 없이 자유롭게 넘겨준다면 배 값은 기꺼이 치르겠다고 말했다.

"무슨 사람이며 무슨 성을 말하는 거야?" 방앗꾼 하나가 대답했다. "이 정신 나간 양반아. 혹시 이 물레방앗간에 밀 빻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도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만두자!" 돈키호테가 속으로 말했다. "이 천것들을 타일러 무슨 좋은 일을 하게 만들려는 것은 사막에서 설교하는 격이로구나. 그리고 이 모험에서는 용감한 마법사 둘이 맞붙은 것이 틀림없다. 하나가 꾀하는 일을 다른 하나가 훼방 놓는 게다. 하나는 내게 배를 마련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나를 거꾸로 처박았다. 하느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이 세상은 온통 서로 어긋나는 꾀와 계략뿐이로구나. 나는 더는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물레방앗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벗들이여, 그대들이 누구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이여, 나를 용서하시오. 나의 불운과 그대들의 불운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그 시름에서 꺼내 줄 수가 없소. 이 모험은 다른 기사를 위해 남겨 두고 마련해 둔 것인가 보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어부들과 합의하여 배 값으로 50레알을 치렀다. 그 돈은 산초가 몹시 내키지 않는 얼굴로 내주며 말했다.

"이런 뱃놀이를 두 번만 더 하면 우리 밑천을 몽땅 강바닥에 처박겠네요."

어부들과 방앗꾼들은 보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영 딴판인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하는 말과 물음이 어디를 겨누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그들을 미치광이로 여기고 내버려 둔 채 방앗꾼들은 물레방앗간으로, 어부들은 제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제 짐승들에게로, 그리고 짐승으로 돌아갔다. 마법에 걸린 배의 모험은 이렇게 끝났다.

제30장 돈키호테가 아름다운 여자 사냥꾼과 겪은 일

기사와 종자는 몹시 울적하고 언짢은 마음으로 짐승들에게 돌아왔다. 특히 산초가 그랬는데, 밑천에 손을 대는 일은 그의 영혼에까지 사무쳤고, 거기서 무엇이든 덜어 내는 것은 그의 눈동자를 빼 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마침내 그들은 말 한 마디 나누지 않고 말과 나귀에 올라 이름난 강을 떠났다. 돈키호테는 사랑의 생각에 파묻혔고, 산초는 출세할 생각에 파묻혔는데, 그때 산초에게는 그 출세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어리석기는 했어도 주인이 하는 짓이 모두, 아니 대부분 터무니없다는 것쯤은 그도 잘 알았으므로, 주인과 셈을 따지거나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고 어느 날 훌쩍 떨어져 나가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가 두려워하던 것과는 아주 거꾸로 일을 꾸며 놓았다.

이튿날 해 질 무렵 숲을 빠져나오던 돈키호테가 푸른 풀밭을 바라보니, 그 끝에 사람들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매사냥꾼들이었다. 더 다가가자 그들 가운데 늠름한 귀부인 하나가 보였는데, 초록 마구로 꾸미고 은 안장을 얹은 새하얀 귀부인용 말인지 작은 승용마인지에 타고 있었다. 그 귀부인도 초록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찌나 멋지고 화려하던지 멋 그 자체가 그 부인으로 둔갑해 온 듯했다. 부인이 왼손에 참매 한 마리를 얹고 있는 것을 보고 돈키호테는 저

부인이 어느 높은 귀부인이고, 저 사냥꾼들 모두의 주인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그는 산초에게 말했다.

"달려가거라, 얘야 산초. 그리고 말을 타고 참매를 든 저 귀부인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나, 사자의 기사가 그 크신 아리따움의 손에 입을 맞춘다고. 그리고 그 높으신 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몸소 가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내 힘이 닿는 한, 그리고 마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산초, 말을 조심해서 하고, 네 그 속담들을 사절의 말에 끼워 넣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속담 끼워 넣을 놈을 잘도 찾으셨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렇다니까요, 높고 크신 귀부인께 심부름을 가는 게 제 평생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요!"

"둘시네아 아씨께 간 심부름 말고는" 돈키호테가 받았다. "네가 다른 심부름을 간 적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적어도 나를 모시는 동안에는 말이다."

"그건 맞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셈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담보 잡히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고, 곳간이 그득한 집에선 저녁밥이 금세 지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게는 아무것도 일러 주시거나 당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줄 알고 무엇이든 조금씩은 알거든요."

"그렇게 믿는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잘 다녀오너라. 하느님께서 너를 이끌어 주시기를."

산초는 잿빛 당나귀를 제 걸음보다 빨리 몰아 달려가서 아름다운 여자 사냥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당나귀에서 내려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름다운 마님, 저기 보이는 기사, 사자의 기사라고 불리는 분이 제 주인이시고, 저는 그분의 종자로 집에서는 산초 판사라고 불립니다.

얼마 전까지 슬픈 얼굴의 기사라고 불리던 이 사자의 기사께서 저를 보내 마님께 이렇게 여쭈라 하셨습니다요. 마님께서 그분이 마님의 뜻과 기꺼우심과 허락에 따라 와서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분 말씀으로도, 제 생각으로도, 그 소원은 다름 아니라 하늘 높이 나는 매처럼 드높으신 마님과 그 아리따우심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 허락을 해 주시면 마님께서는 그분께 이로운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더없이 큰 은혜와 기쁨을 받게 될 겁니다."

"참으로, 착한 종자." 귀부인이 대답했다. "자네는 그런 심부름에 필요한 격식을 다 갖추어 말을 전했네. 땅에서 일어나게. 슬픈 얼굴의 기사처럼 위대한 기사의 종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옳지 않네. 그 기사의 소문은 이곳에서도 벌써 많이 들었다네. 일어나게, 벗이여. 그리고 자네 주인께 이렇게 전하게. 우리가 여기 가진 별장으로 오셔서 나와 내 남편 공작을 마음껏 부리시라고, 아주 잘 오셨다고."

산초는 그 착한 귀부인의 아름다움에도, 그 훌륭한 교양과 예의에도 감탄하며 일어섰는데, 무엇보다 부인이 자기 주인 슬픈 얼굴의 기사의 소문을 들었다고 한 말에 감탄했다. 그리고 부인이 주인을 사자의 기사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그 이름이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생각했다. 아직 그 작위는 알 수 없는 그 공작 부인이 그에게 물었다.

"말해 보게, 여보게 종자. 자네 주인 그분은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이야기책이 찍혀 나돌고 있는 그분이 아닌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분을 마음의 아씨로 모시고 있다는 그분 말일세."

"바로 그분입니다, 마님."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니 나올 게 틀림없는 그분의 종자, 산초 판사라고 불리는 놈이

바로 접니다. 제가 요람에서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기쁘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가 보게, 여보게 판사. 그리고 자네 주인께 내 영지에 아주 잘 오셨고 잘 찾아오셨다고, 그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게."

산초는 그토록 반가운 대답을 받아 들고 몹시 기뻐하며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 높은 귀부인이 한 말을 죄다 전하면서, 그 부인의 대단한 아리따움과 큰 맵시와 예의를 촌스러운 말로 하늘까지 추어올렸다. 돈키호테는 안장 위에서 몸을 곧추세우고 등자를 바로 디딘 다음 얼굴 가리개를 매만지고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늠름한 기세로 공작 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러 갔다. 부인은 남편 공작을 불러오게 하여 돈키호테가 다다르기 전에 그가 보낸 전갈을 모두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이 이야기의 제1부를 읽어 돈키호테의 엉뚱한 기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알고 싶은 마음에 몹시 즐거워하며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의 기질에 맞장구를 쳐 주고 그가 하는 말에 무엇이든 맞춰 주기로, 그가 자기들 곁에 머무는 동안 자기들이 읽어 본, 그리고 아주 좋아하기까지 하는 기사 소설에 흔히 나오는 온갖 의식을 갖추어 그를 편력 기사로 대접하기로 미리 마음먹었다.

그때 얼굴 가리개를 올린 채 다다른 돈키호테가 말에서 내리려는 기색을 보이자 산초가 등자를 잡아 주러 달려갔다. 그런데 산초는 어찌나 재수가 없었던지, 잿빛 당나귀에서 내리다가 한 발이 길마 밧줄에 걸려 도무지 풀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입과 가슴을 땅바닥에 댄 채 거기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다. 누가 등자를 잡아 주지 않으면 말에서 내리지 않는 버릇이 있던 돈키호테는 산초가 벌써 와서 등자를 잡고 있으려니 하고 몸을 한꺼번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뱃대끈을 허술하게 맨 모양인 로시난테의 안장이 그를 따라 딸려 왔고, 안장과 그가 함께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몹시 창피해하며, 아직도 발이 올가미에 걸려 있는 가엾은 산초에게 이 사이로 저주를 숱하게 퍼부었다.

공작이 사냥꾼들에게 기사와 종자를 도우라고 이르자, 사냥꾼들은 떨어져서 몸을 다친 돈키호테를 일으켜 세웠고, 돈키호테는 절뚝거리며 어떻게든 두 귀인 앞에 무릎을 꿇으러 갔다. 그러나 공작은 결코 그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말에서 내려 돈키호테를 껴안으러 가며 말했다.

"슬픈 얼굴의 기사 나리, 나리께서 내 땅에서 처음 하신 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약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오. 그러나 종자들의 부주의는 흔히 더 나쁜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용맹한 귀인이시여, 각하를 뵌 일이 나쁠 수는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것이 깊은 심연 밑바닥까지 이르렀다 해도, 각하를 뵌 영광이 거기서 나를 일으켜 끌어올렸을 것이오. 하느님이 저주하실 내 종자는 안장을 단단히 매어 놓는 것보다 못된 말을 하려고 혀를 푸는 데 더 능하오. 그러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쓰러져 있든 일어서 있든, 걸어서든 말을 타서든, 나는 늘 각하를, 그리고 각하의 훌륭한 배필이요 아름다움의 훌륭한 주인이며 예의의 온 세상 공주이신 공작 부인 마님을 섬기겠소."

"살살 하시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공작이 말했다. "도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가 계신 곳에서 다른 아리따움을 칭송하는 것은 옳지 않소."

이때쯤 산초 판사는 벌써 올가미에서 풀려나 바로 곁에 있었는데, 주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말했다.

"우리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가 아주 아름다우시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단언할 수 있습니다요. 그래도 생각지도 않은 데서 토끼가 튀어나오는 법이지요. 제가 들은 말로는 자연이라는 것은 흙으로 그릇을 빚는 옹기장이 같아서, 아름다운 그릇 하나를 빚는 이는 둘도, 셋도,

백도 빚을 수 있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맹세코 우리 공작 부인 마님께서도 제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 뒤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공작 부인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마님, 세상의 어떤 편력 기사도 내가 거느린 종자보다 더 수다스럽고 더 익살스러운 종자를 둔 적이 없다고 여기시오. 높으신 마님께서 며칠 동안 나를 부리고자 하신다면, 그가 내 말이 참말임을 보여 드릴 것이오."

그러자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착한 산초가 익살스럽다는 것을 나는 아주 높이 치오. 그것은 그가 슬기롭다는 표시이니까요. 돈키호테 나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익살과 재치는 둔한 머리에는 깃들지 않는 법이오. 그러니 착한 산초가 익살스럽고 재치 있으니, 지금부터 나는 그를 슬기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겠소."

"그리고 수다스럽지요."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그럴수록 좋지요." 공작이 말했다. "익살을 많이 부리려면 말이 적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로 시간을 다 보내지 않도록, 위대한 슬픈 얼굴의 기사께서는 이리로……"

"사자의 기사라고 하셔야 합니다요, 각하." 산초가 말했다. "이제 슬픈 얼굴도 없고 얼굴 놈도 없으니까요."

"사자의 기사라 합시다." 공작이 말을 이었다. "사자의 기사 나리께서는 여기서 가까운 내 성으로 가십시다. 그런 높으신 분께 마땅히 해 드려야 할 대접을, 그리고 나와 공작 부인이 그 성을 찾아오는 모든 편력 기사에게 늘 해 드리는 대접을 해 드리겠소."

그사이에 산초는 로시난테의 안장을 바로 얹고 뱃대끈을 단단히 매어 두었다. 돈키호테가 로시난테에 오르고 공작은 멋진 말에 올라, 공작

부인을 가운데 두고 성으로 향했다. 공작 부인은 산초의 슬기로운 말을 듣는 것이 한없이 즐거워 그에게 자기 곁에서 가라고 했다. 산초는 두 번 청하게 하지 않고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네 번째 말동무가 되었으니, 공작 부인과 공작은 몹시 즐거워했다. 두 사람은 그런 편력 기사와 그런 편력당한 종자를 자기들 성에 맞아들이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제31장 크고 많은 일들을 다룬다

산초는 공작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여겨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늘 좋은 생활을 좋아하던 그였기에, 공작 부인의 성에서도 돈 디에고의 집과 바실리오의 집에서 누린 것을 누리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몸을 편히 하고 배를 불릴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그 기회의 앞머리를 놓치지 않고 움켜잡았다.

그런데 이야기는 전한다. 일행이 별장, 아니 성에 닿기 전에 공작이 먼저 앞질러 가서 하인들에게 돈키호테를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모두 일러두었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공작 부인과 함께 성문 앞에 이르자마자, 발끝까지 덮는 이른바 아침 실내복을 더없이 고운 진홍빛 공단으로 지어 입은 하인 둘, 아니 마부 둘이 곧장 성에서 나와, 돈키호테가 미처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이에 그를 두 팔로 안아 내리고는 말했다.

"높으신 대인께서는 가셔서 저희 공작 부인 마님을 말에서 내려 드리십시오."

돈키호테는 그렇게 했고, 이 일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사양하는 인사가 한참 오갔다. 그러나 결국은 공작 부인의 고집이 이겨서, 공작 부인은 그토록 위대한 기사에게 그토록 쓸모없는 짐을 지울 만한 몸이 못 된다며 공작의 팔에 안기지 않고는 부인용 말에서 내려오려 하지도, 내려서려 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공작이 나와 부인을 내려 주었다. 그리고 큰 안뜰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시녀 둘이 다가와 더없이 고운

진홍빛 모직으로 지은 큰 망토를 돈키호테의 어깨에 걸쳐 주었고, 순식간에 안뜰을 둘러싼 회랑마다 그 귀인들의 남녀 하인들이 빙 둘러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편력 기사들의 꽃이요 정수이신 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아니 거의 모두가 향수병을 기울여 돈키호테와 공작 부부에게 향수를 뿌렸다. 돈키호테는 이 모든 일에 놀랐다. 지난 세기의 편력 기사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책에서 읽은 그대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보고,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기가 머릿속에서만 지어낸 기사가 아니라 참된 편력 기사임을 속속들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

산초는 잿빛 당나귀를 내버려 둔 채 공작 부인에게 바싹 들러붙어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당나귀를 혼자 두고 왔다는 생각에 양심이 찔려서, 다른 시녀 부인들과 함께 공작 부인을 맞으러 나온 지체 있어 보이는 시녀 부인 하나에게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곤살레스 마님, 아니 마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냐 로드리게스 데 그리할바라고 하네."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무슨 일인가, 형씨?"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마님께서 성문까지 좀 나가 주셨으면 해서요. 거기 가시면 제 잿빛 당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놈을 마구간에 들여놓게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마님께서 손수 들여놓아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그 불쌍한 녀석이 겁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해도 혼자서는 못 견디거든요."

"주인이 하인만큼 슬기롭다면"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우리 꼴 참 좋게 되었구먼! 가게, 형씨. 자네도, 자네를 여기 데려온 사람도 재수 옴 붙으라지. 자네 당나귀는 자네가 알아서 챙기게. 이 집 시녀 부인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야 정말로" 산초가 대답했다. "이야기라면 귀신같이 꿰고 계신 제 주인 나리께서 그 란사로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브리타니아에서 왔을 때,
귀부인들은 그를 보살폈고
시녀 부인들은 그의 말을 보살폈다네,

그리고 제 당나귀로 말하자면, 저는 그놈을 란사로테 나리의 말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요."

"형씨, 자네가 광대라면" 시녀 부인이 맞받았다. "그 익살은 그게 어울리고 값을 쳐주는 데 가서 부리게. 나한테서는 주먹 감자 말고는 얻어 갈 게 없을 테니까."

"그거 참 잘됐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 감자는 아주 잘 묵었겠네요! 마님께선 나이 끗수가 한 끗 모자라서 키놀라 판을 지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 갈보 자식아." 시녀 부인이 벌써 불같이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늙었든 안 늙었든 그 셈은 하느님께 해 드릴 것이지, 마늘 냄새 풀풀 나는 너 같은 악당한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어찌나 큰 소리로 했던지 공작 부인이 듣고 말았다. 공작 부인은 돌아서서 시녀 부인이 몹시 흥분하여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누구와 다투고 있느냐고 물었다.

"여기 이 착한 사람하고요."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성문 앞에 있는 자기 당나귀를 마구간에 들여놓아 달라고 저한테 간곡히 청하지 뭡니까.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귀부인들이 란사로테라는 사람을 보살피고 시녀 부인들이 그 말을 보살폈다는 예를 들면서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에둘러서 저를 늙은이라고 불렀어요."

"나라면 그 말을"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남이 내게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도 모욕으로 여기겠네."

그리고 산초에게 말했다.

"알아 두게, 여보게 산초. 도냐 로드리게스는 아주 젊다네. 저 두건도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위엄을 갖추고 관습을 따르느라 쓰고 있는 걸세."

"제가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제게 남은 목숨이 다 몹쓸 날이 되라지요. 그저 제 당나귀를 어찌나 아끼는지, 도냐 로드리게스 마님보다 더 인정 많은 분께는 그놈을 맡길 수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산초, 그것이 이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냐?"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사람은 저마다 어디에 있든 제 볼일을 말해야 하는 법이에요. 여기서 잿빛 당나귀 생각이 나서 여기서 그놈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마구간에서 생각이 났더라면 거기서 했겠지요."

그 말에 공작이 말했다.

"산초 말이 아주 옳소. 그를 탓할 것이 하나도 없소. 잿빛 당나귀에게는 입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을 것을 줄 터이니 산초는 걱정 마시오. 산초 자신을 대접하듯 그놈을 대접할 것이오."

돈키호테 말고는 모두가 즐거워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위층에 올라갔고, 돈키호테를 금실과 비단 양단으로 짠 더없이 호사스러운 천을 두른 큰 방에 들였다. 시녀 여섯이 그의 갑옷을 벗기고 시동처럼 시중을 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돈키호테가 자기를 편력 기사로 대접한다고 상상하고 또 눈으로 보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돈키호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공작과 공작 부인에게서 미리 가르침과 귀띔을 받아 두었다. 갑옷을 벗고 나자 돈키호테는 꼭 끼는 반바지와 영양 가죽 윗옷 차림으로 남았는데, 마르고 키가 크고 길쭉한

데다 두 볼은 안쪽에서 서로 입을 맞출 만큼 홀쭉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웠던지, 시중드는 시녀들이 웃음을 감추느라 애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인 부부가 그들에게 내린 엄한 분부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웃다가 배가 터졌을 것이다.

시녀들은 그에게 속옷을 갈아입게 옷을 벗겨 드리겠다고 청했으나, 그는 편력 기사에게는 용맹 못지않게 정숙함도 잘 어울린다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속옷은 산초에게 주라고 하고, 화려한 침대가 놓인 방에 산초와 함께 틀어박혀 옷을 벗고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산초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말했다.

"말해 보아라, 이 요즘 것 익살꾼에 옛날 것 얼간이 같은 놈아. 저렇게 존경스럽고 저렇게 공경받아 마땅한 시녀 부인을 욕보이고 모욕하는 것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가 잿빛 당나귀를 떠올릴 때였느냐, 아니면 그 주인들을 이토록 품위 있게 대접하는 이분들이 짐승을 소홀히 내버려 둘 귀인들이더냐? 제발 부탁이다, 산초, 몸가짐을 삼가거라. 네가 촌스럽고 거친 천으로 짜인 놈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아챌 만큼 네 바탕 실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 딱한 놈아, 하인들이 명예롭고 좋은 집안 출신일수록 주인은 그만큼 더 높이 대접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귀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가장 큰 점 하나는 자기들만큼 훌륭한 하인들에게 시중을 받는다는 데 있느니라. 이 가엾은 놈아, 그리고 불행한 이 몸아, 네가 상스러운 촌놈이거나 우스꽝스러운 바보라는 것을 저들이 보면 나를 떠돌이 사기꾼이나 속임수로 꾸민 가짜 기사로 여기리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산초, 내 벗아. 그런 꼴불견에서 달아나거라, 달아나거라. 수다쟁이에 익살꾼 쪽으로 발을 헛디디는 자는 첫 발길질에 넘어져 재미도 없는 광대가 되고 마느니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이 입에서 나가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고 되새겨라. 그리고 우리가 이른 이곳은, 하느님의 은총과 내

팔의 용맹이 있으면, 명성에서도 재산에서도 상속분을 3분의 1에 5분의 1까지 더 얹어 받은 자식처럼 나아져서 떠나게 될 곳이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산초는 주인이 시킨 대로 꼭 들어맞고 잘 생각한 말이 아니면 한마디도 하기 전에 입을 꿰매거나 혀를 깨물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 탄로 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옷을 입고 칼을 찬 칼띠를 두르고 진홍빛 망토를 걸치고 시녀들이 준 초록 공단 사냥 모자를 썼다. 그렇게 차려입고 큰 방으로 나가 보니 시녀들이 양쪽에 같은 수로 줄지어 서서 모두 손 씻을 물을 대령하고 있었고, 그들은 깊이 몸을 숙이며 격식을 갖추어 그 물을 그에게 바쳤다.

곧 시동 열둘이 식사 시중장과 함께 와서, 주인 부부께서 벌써 기다리고 계시니 식사하러 모시겠다고 했다. 시동들은 그를 가운데 두고 위풍당당하게 다른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상차림이 넷뿐인 화려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공작 부인과 공작이 방 문간까지 나와 그를 맞았고, 그들과 함께 근엄한 성직자 하나가 나왔다. 귀인들의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스스로는 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귀인으로 태어난 이들에게 귀인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칠 줄 모르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 위대한 이들의 위대함을 제 마음의 좁쌀만 한 크기로 재려 드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 자기가 다스리는 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친다면서 그들을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공작 부부와 함께 돈키호테를 맞으러 나온 그 근엄한 성직자는 바로 그런 부류였을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수없이 정중한 인사가 오가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돈키호테를 가운데 두고 식탁에 앉으러 갔다.

공작이 돈키호테에게 식탁의 상석을 권했다. 돈키호테는 사양했으나 공작이 하도 졸라 대어 결국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성직자가 맞은편에 앉고, 공작과 공작 부인은 양옆에 앉았다.

산초는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귀인들이 자기 주인에게 바치는 영예에 넋이 나가 어리둥절해 있었다. 돈키호테를 상석에 앉히려고 공작과 돈키호테 사이에 숱한 격식과 간청이 오가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다.

"나리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 이야기, 그러니까 앉는 자리를 두고 저희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요."

산초가 이 말을 하자마자 돈키호테는 몸을 떨었다. 틀림없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산초는 주인을 바라보고 그 속을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주인 나리. 제가 주제넘게 굴거나 딱 들어맞지 않는 말을 할 리 없어요.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두고 나리께서 조금 전에 해 주신 충고를 잊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다만 빨리 하거라."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산초가 말했다. "어찌나 참말인지, 여기 계신 제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도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게 하실 거예요."

"나로 말하자면"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산초, 네 마음껏 거짓말을 해라. 나는 너를 말리지 않겠다. 다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살펴보거라."

"살피고 또 살펴 두었으니, 종 치는 사람은 안전한 데 있는 셈이지요. 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높으신 분들께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바보를 여기서 내쫓으라고 분부하시는 것이 좋겠소. 엉터리 같은 소리를 천 가지는 늘어놓을 것이오."

"공작의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공작 부인이 말했다. "산초는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져서는 안 되오. 나는 그가 아주 슬기롭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무척 아끼오."

"성하께서 저를 그렇게 좋게 믿어 주시니" 산초가 말했다. "제게 그런 슬기는 없지만, 성하께서는 슬기로운 나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희 마을의 어느 시골 귀족이 손님을 청했는데요, 아주 부자에 지체도 높은 분이었어요. 메디나 델 캄포의 알라모스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그분은 도냐 멘시아 데 키뇨네스하고 혼인했는데, 도냐 멘시아는 산티아고 기사단 기사이던 돈 알론소 데 마라뇬의 딸이었어요. 돈 알론소는 라 에라두라에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1] 몇 해 전에 저희 마을에서 그분 때문에 그 싸움이 벌어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싸움에 제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도 끼어 계셨고, 대장장이 발바스트로의 아들 장난꾸러기 토마시요가 거기서 다쳐서 나왔어요…… 이게 다 참말 아닙니까요, 주인 나리?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 나리님들께서 저를 거짓말하는 수다쟁이로 여기지 않으시죠."

"지금까지로는" 성직자가 말했다. "자네를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수다쟁이로 여기겠네. 그러나 앞으로는 자네를 무엇으로 여길지 모르겠군."

"너는 증인도 많이 대고 증거도 많이 대니, 산초, 네가 참말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야기를 이어 가되 줄여라. 그러다가는 이틀이 걸려도 못 끝내겠다."

"줄이지 마시오." 공작 부인이 말했다. "나를 즐겁게 해 주려거든 말이오. 오히려 엿새가 걸려 끝내지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오. 그렇게 엿새가 걸린다면 그 엿새는 내 평생 보낸 날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나리님들" 산초가 이어 갔다. "그 시골 귀족은 제가 제 손바닥 보듯 잘 아는 분인데요, 저희 집에서 그 집까지가 쇠뇌 한 번 쏘는 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분이 가난하지만 떳떳한 농사꾼 하나를 청했어요."

"어서 이어 가게, 형씨." 그때 성직자가 말했다. "그렇게 가다가는 자네 이야기는 저세상에 가서도 멈추지 않겠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절반도 안 가서 멈출 겁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그 농사꾼이 손님을 청한 그 시골 귀족의 집에 갔는데요, 그 귀족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사람들 말로는 천사처럼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무렵 템블레케로 추수하러 가 있었거든요……"

"제발 부탁이니, 젊은이, 템블레케에서 얼른 돌아오게. 그리고 장례를 더 치를 생각이 아니라면 그 시골 귀족을 묻지 말고 이야기나 끝내게."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산초가 맞받았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지금도 그 두 사람이 어느 때보다 눈에 선한 것 같은데요……"

착한 성직자가 산초가 이야기를 질질 끌고 쉬엄쉬엄 들려주는 것에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며 공작 부부는 크게 즐거워했고, 돈키호테는 분노와 울화로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산초가 말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식탁에 앉으려던 참에, 농사꾼은 시골 귀족더러 상석에 앉으라고 우기고, 시골 귀족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농사꾼더러 상석에 앉으라고 우겼어요. 그런데 농사꾼은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인 체하느라 끝내 앉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다 시골 귀족이 부아가 나서 농사꾼의 두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억지로 앉히며 말했어요. '앉게, 이 미련퉁이야. 내가 어디에 앉든 거기가 자네의 상석일세.'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여기서 엉뚱하게 꺼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요."

돈키호테의 얼굴은 천 가지 빛깔로 달아올랐고, 그 빛깔이 거무스름한 살갗 위에 얼룩덜룩 번져 드러났다. 귀인 부부는 산초의 짓궂은 뜻을 알아차렸으나 돈키호테가 더 무안해하지 않도록 웃음을 감추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 산초가 다른 엉뚱한 소리를 이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공작 부인이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 아씨 소식은 어떠냐고, 요며칠 사이 거인이나 흉악한 놈들을 선물로 보내지는 않았느냐고, 틀림없이 많이 무찔렀을 테니 말이라고 물었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님, 나의 불운은 시작은 있었으나 끝은 결코 없을 것이오. 거인들을 무찌르고 비겁한 놈들과 흉악한 놈들을 아씨께 보냈으나, 아씨가 마법에 걸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생긴 농사꾼 여자로 바뀌었으니 그들이 어디서 아씨를 찾았겠소?"

"글쎄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던걸요. 적어도 날래고 펄쩍 뛰어오르는 데서는 곡예사한테도 지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잘 압니다요. 정말이에요, 공작 부인 마님. 땅바닥에서 암당나귀 위로 마치 고양이처럼 훌쩍 뛰어오르시더라니까요."

"자네는 마법에 걸린 그 아씨를 보았나, 산초?" 공작이 물었다.

"보다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도대체 저 말고 누가 그 마법인지 뭔지 하는 수작을 맨 먼저 알아챘겠어요? 그 아씨가 마법에 걸렸다면

우리 아버지도 걸렸게요!"

거인이니 비겁한 놈들이니 마법이니 하는 소리를 듣자 성직자는 이 사람이 공작이 늘 읽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라만차의 돈키호테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챘다. 성직자는 그런 엉터리를 읽는 것은 엉터리 짓이라며 그 일로 공작을 여러 번 나무란 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짐작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몹시 화를 내며 공작에게 말했다.

"각하, 이 사람이 하는 짓에 대해 각하께서는 우리 주님께 셈을 해 드리셔야 합니다. 이 돈키호테인지 돈바보인지 하는 자는, 제 생각에, 각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만큼 얼간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각하께서는 그자가 어리석고 허황된 짓을 계속하도록 손에 기회를 쥐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키호테에게로 말머리를 돌려 말했다.

"그리고 자네, 이 텅 빈 항아리 같은 사람아, 자네가 편력 기사이고 거인들을 무찌르고 흉악한 놈들을 사로잡는다는 생각을 누가 자네 머릿속에 처넣었나? 잘 가게,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돌려받게. 집으로 돌아가 자식이 있거든 자식이나 기르고, 재산이나 돌보고, 바람이나 들이마시며 세상을 떠돌아다녀 자네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웃음거리를 주는 일은 그만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무슨 꼴인가, 편력 기사가 있었다거나 지금 있다는 것을 알아냈나? 에스파냐 어디에 거인이 있고, 라만차 어디에 흉악한 놈들이 있으며, 마법에 걸린 둘시네아니 자네를 두고 떠도는 온갖 어리석은 이야기가 다 어디 있단 말인가?"

돈키호테는 그 존경스러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가 이제 입을 다문 것을 보자 공작 부부에 대한 예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난 얼굴, 흥분한 낯빛으로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따로 한 장을 차지할 만하다.

1. 라 에라두라: 그라나다 해안의 작은 만. 1562년 이곳에서 에스파냐 갤리선 함대가 폭풍을 만나 스물 척 넘게 가라앉고 수천 명이 빠져 죽었다.

제32장 돈키호테가 자기를 꾸짖은 사람에게 한 대답과 진지하면서도 우스운 다른 일들

그리하여 벌떡 일어선 돈키호테는 수은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면서, 다급하고 흐트러진 혀로 말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와 내가 마주한 이분들, 그리고 그대가 몸담은 신분에 내가 늘 품어 왔고 지금도 품고 있는 존경이 나의 정당한 분노를 붙들고 그 손을 묶고 있소. 그래서 방금 말한 까닭으로 해서도, 또 법복 입은 이들의 무기는 여자의 무기와 같아서 혀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는 것을 나도 알기에, 나도 내 혀를 들고 그대와 대등한 싸움에 나서겠소. 그대에게서는 치욕스러운 욕설보다 좋은 충고를 기대했어야 마땅했소. 거룩하고 선의에서 나온 꾸지람이라면 다른 형편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점들을 살펴야 하오. 적어도 남들 앞에서 그토록 거칠게 나를 꾸짖은 것은 좋은 꾸지람의 한계를 모두 넘어섰소. 첫 꾸지람은 거칠게 하기보다 부드럽게 해야 더 잘 자리를 잡는 법이고, 꾸짖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죄인을 얼간이니 바보니 부르는 것은 옳지 않소. 그렇지 않다면 말해 보시오. 그대는 내게서 본 어떤 얼간이 짓 때문에 나를 단죄하고 욕하며, 내게 아내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집에 돌아가 집안일과 아내와 자식들이나 돌보라고 명하는 것이오? 남의 집에 아무렇게나 쳐들어가 그 집 주인을 다스리기만 하면 그만이란 말이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느 기숙 학교의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라 스무 레과나 서른 레과 둘레에 담길

만한 세상밖에 본 적이 없으면서, 불쑥 끼어들어 기사도에 법을 정해 주고 편력 기사들을 심판해도 된단 말이오? 세상의 호사가 아니라 선한 이들이 불멸의 자리에 오르는 험한 길을 찾아 세상을 떠도는 데 쓰는 시간이 혹시 헛된 일이거나 잘못 쓴 시간이라는 말이오? 기사들이, 너그럽고 고결하고 높이 태어난 이들이 나를 바보로 여긴다면 나는 그것을 씻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기겠소. 그러나 기사도의 길에 한 번도 들어서 본 적도, 발을 디뎌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 나를 멍청이로 여기는 것쯤은 동전 한 닢 값어치도 없소. 나는 기사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기꺼워하신다면 기사로 죽을 것이오. 어떤 이들은 오만한 야망의 넓은 들판을 가고, 어떤 이들은 비굴하고 천한 아첨의 들판을 가고, 어떤 이들은 남을 속이는 위선의 들판을 가며, 또 어떤 이들은 참된 신앙의 들판을 가오. 그러나 나는 내 별이 이끄는 대로 편력 기사도의 좁은 길을 가오. 그 일을 하느라 나는 재산은 업신여기지만 명예는 업신여기지 않소. 나는 억울한 일을 풀어 주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무례한 자들을 벌하고, 거인들을 무찌르고, 괴물들을 짓밟았소. 나는 사랑에 빠져 있으나, 그것은 편력 기사라면 반드시 그래야 하기 때문일 뿐이오. 그리고 사랑에 빠져 있되 방탕한 연인이 아니라 절제하는 플라톤식 연인이오. 나는 늘 내 뜻을 좋은 목적으로 향하게 하니, 그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고 아무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오.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일로 삼는 사람이 바보라 불려야 마땅한지, 높으신 두 분, 훌륭하신 공작님과 공작 부인 마님께서 말씀해 주시오."

"하느님께 맹세코, 잘하셨어요!" 산초가 말했다. "주인 나리, 나리 편을 드는 말씀은 더 하실 것 없어요. 세상에 더 할 말도, 더 생각할 것도, 더 버틸 것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 나리께서 하신 대로, 세상에

편력 기사가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딱 잘라 버리시니, 자기가 한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혹시" 성직자가 말했다. "자네가, 형씨, 자네 주인이 섬을 하나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산초 판사인가?"

"네, 그렇습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누구 못지않게 그 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착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너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그런 사람이고, '누구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풀을 뜯느냐다'라는 그런 사람이고, '좋은 나무에 기대는 사람은 좋은 그늘이 감싸 주는 법'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주인에게 기대어 여러 달째 그분을 모시고 다니니,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그분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분도 오래 사시고 저도 오래 살면, 그분께는 다스릴 제국이, 제게는 다스릴 섬이 모자랄 일이 없을 겁니다."

"모자라지 않고말고, 여보게 산초." 이때 공작이 말했다. "내가 돈키호테 나리를 대신해서 내게 짝 없이 남아 있는 섬 하나를 자네에게 다스리라고 맡기겠네. 질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섬일세."

"무릎을 꿇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각하께서 네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각하의 발에 입을 맞추어라."

산초는 그렇게 했다. 그것을 본 성직자는 몹시 언짢아하며 식탁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입은 이 수도복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각하께서도 이 딱한 자들만큼 멍청하시다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저들의 미친 짓을 성인 반열에 올려 주는데 저들이 어찌 미치지 않겠습니까! 각하께서는 저들과 함께 계십시오. 저들이 이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집에 있겠습니다. 고칠 수 없는 일을 꾸짖는 수고는 덜겠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도 더 먹지도 않고 떠나 버렸다. 공작 부부가 붙잡으려고 아무리 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다만 공작은 그의 주제넘은 분노가 자아낸 웃음에 막혀 그에게 많은 말을 하지 못했다. 공작은 웃음을 그치고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사자의 기사 나리, 나리께서는 몸소 그토록 드높이 대답하셨으니 이 일로 더 갚으실 것은 남지 않았소. 이것은 모욕처럼 보여도 결코 모욕이 아니오. 나리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여자가 모욕을 줄 수 없듯이 성직자도 모욕을 줄 수 없기 때문이오."

"그렇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까닭은 모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모욕을 줄 수 없기 때문이오. 여자와 아이와 성직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 비록 해를 입는다 해도 치욕을 당한 것은 아니오. 각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해를 입는 것과 치욕을 당하는 것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오. 치욕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오고, 그 사람이 치욕을 주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어 낼 때 생기오. 해는 어느 쪽에서든 올 수 있고, 치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소. 예를 들어 보겠소.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거리에 있는데 열 사람이 무기를 들고 다가와 그에게 몽둥이질을 하오. 그가 칼에 손을 대고 제 할 일을 하지만, 적이 워낙 많아 그를 가로막는 바람에 앙갚음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오. 이런 사람은 해를 입었으나 치욕을 당한 것은 아니오. 다른 예도 같은 것을 확인해 줄 것이오.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 몽둥이로 때리고는 때리자마자 기다리지도 않고 달아나고, 맞은 사람이 쫓아가지만 따라잡지 못하오. 이 몽둥이를 맞은 사람은 해를 입었으나 치욕을 당한 것은 아니오. 치욕은 끝까지 버티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오. 만약 몽둥이질을 한 자가 비록 몰래 때렸다 하더라도 칼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적을 마주했다면, 맞은 사람은 해를 입은 동시에 치욕도 당했을 것이오. 해를 입은 것은 배신을

당해 맞았기 때문이고, 치욕을 당한 것은 때린 자가 등을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버티어 냈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 저주받은 결투의 법도에 따르면 나는 해를 입었을지는 몰라도 치욕을 당한 것은 아니오.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여자들도 그러하며, 그들은 달아날 수도 없고 버티고 서서 기다릴 까닭도 없기 때문이오. 거룩한 성직에 몸담은 이들도 마찬가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격할 무기도 막을 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니, 본래 자기를 지킬 의무는 있어도 누구를 해칠 의무는 없기 때문이오. 그리고 방금 나는 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소. 치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치욕을 줄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오. 이런 까닭으로 나는 그 착한 사람이 내게 한 말을 언짢게 여겨서도 안 되고 언짢게 여기지도 않소. 다만 그가 조금만 기다려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오. 세상에 편력 기사가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깨닫게 해 주었을 텐데 말이오. 아마디스나 그 가문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양반에게 좋을 일은 없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아오."

"그건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산초가 말했다. "칼로 내리쳐서 그 양반을 석류처럼, 아니면 푹 익은 참외처럼 위에서 아래로 쩍 갈라 놓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간지럼을 참고 있을 사람들인가요! 제 성호를 걸고 말하지만, 몬탈반의 레이날도스가 그 쪼그만 양반이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틀림없이 입을 한 대 딱 막아서 세 해 동안 말도 못 하게 했을 거예요. 어디 그 사람들한테 덤벼 봤어야 하는 건데, 그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나 보게요!"

공작 부인은 산초가 하는 말을 듣고 웃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공작 부인 생각에는 산초가 주인보다 더 익살스럽고 더 미친 사람이었고, 그 무렵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마음을 가라앉혔고 식사가 끝났다. 식탁보를 걷자 시녀 넷이 다가왔는데, 하나는 은 대야를, 또 하나는 역시 은으로 된 물 주전자를, 또 하나는 더없이 희고 더없이 값진 수건 두 장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넷째는 팔을 반쯤 걷어붙인 채 흰 두 손에, 그 손이 희었던 것은 틀림없다, 나폴리산 둥근 비누 한 덩이를 들고 있었다. 대야를 든 시녀가 다가와 우아한 맵시로 거침없이 대야를 돈키호테의 턱 밑에 갖다 댔다. 돈키호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런 의식에 놀라면서도, 손을 씻는 대신 수염을 씻는 것이 이 고장 풍습이려니 여겨 할 수 있는 한 수염을 쭉 내밀었다. 그 순간 물 주전자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비누를 든 시녀는 아주 서둘러 그의 수염을 문질러 댔다. 그러자 눈송이 같은 거품이 일었는데, 그 비누 거품도 눈 못지않게 희었다. 거품은 순순히 따르는 기사의 수염에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와 두 눈에까지 덮여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야 했다.

이 일을 하나도 모르던 공작과 공작 부인은 그 놀라운 씻김이 어떻게 끝날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발사 노릇을 하던 시녀는 그의 얼굴을 한 뼘 두께의 비누 거품으로 덮어 놓고는 물이 떨어진 척하며 물 주전자를 든 시녀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 시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돈키호테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하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꼴로 남게 되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수가 많았는데,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반 바라나 되는 목을 쭉 빼고, 보통보다 훨씬 거무스름한 얼굴에, 눈을 감고 수염에 비누 거품을 가득 묻힌 그를 보면서 웃음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놀랄 일이자 대단한 분별이었다. 장난을 꾸민 시녀들은 감히 주인 부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주인 부부는 몸속에서 화와 웃음이 함께 들끓어, 처녀들의 당돌함을 벌해야 할지 아니면

돈키호테의 그런 꼴을 보며 맛본 즐거움에 대해 상을 주어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물 주전자를 든 시녀가 돌아와 시녀들은 돈키호테를 다 씻겼고, 이어 수건을 든 시녀가 아주 차분하게 그의 얼굴을 닦고 물기를 훔쳤다. 그리고 네 시녀가 한꺼번에 깊이 몸을 숙여 공손히 절하고는 물러가려 했다. 그런데 공작은 돈키호테가 장난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대야를 든 시녀를 불러 말했다.

"이리 와서 나도 씻겨 주게. 그리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영리하고 재빠른 처녀는 다가와 돈키호테에게 했듯이 공작에게도 대야를 갖다 댔다. 시녀들은 서둘러 공작을 잘 씻기고 비누칠을 해 주었고, 공작의 물기를 닦아 깨끗하게 해 놓고는 절을 하며 물러갔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공작은 시녀들이 돈키호테를 씻긴 것처럼 자기를 씻기지 않으면 그 당돌함을 벌하겠다고 맹세했었고, 시녀들은 공작에게도 비누칠을 해 줌으로써 슬기롭게 그 일을 바로잡은 것이다.

산초는 그 씻김의 의식을 눈여겨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아이고 맙소사! 이 고장에선 기사들처럼 종자들 수염도 씻겨 주는 게 풍습일까? 하느님과 내 영혼을 걸고 말하지만 나는 그게 꼭 필요하거든. 아예 면도칼로 수염을 밀어 준다면 더 큰 은혜로 여기겠는데."

"혼자서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산초?" 공작 부인이 물었다.

"마님, 제 말은요" 그가 대답했다. "다른 귀인들의 궁정에서는 식탁보를 걷고 나면 손 씻을 물을 준다는 말은 늘 들었어도 수염에 잿물을 준다는 말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거죠, 많이 보게 되니까요. 하기야 오래 사는 사람은 궂은일도 많이 겪기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씻김을 겪는 거라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지요."

"걱정 말게, 여보게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내 시녀들을 시켜 자네를 씻기게 하고, 필요하다면 빨래 통에 넣어 삶아 주기까지 하겠네."

"수염만으로 만족합니다요." 산초가 대답했다. "적어도 지금은요. 세월이 가면 어찌 될지는 하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을 테고요."

"시중장, 착한 산초가 청하는 것을 잘 들어 두었다가"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가 바라는 대로 한 자도 어김없이 들어주게."

시중장은 모든 일에서 산초 나리를 받들겠다고 대답하고는 식사를 하러 가면서 산초를 데려갔다.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는 식탁에 남아 여러 가지 갖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는 모두 무예와 편력 기사도에 관한 것들이었다.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에게,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으니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아름다움과 생김새를 그려 보이고 묘사해 달라고 청했다. 소문이 그 아름다움을 떠들어 대는 것으로 보아 그 아씨가 온 세상에서, 아니 라만차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임이 틀림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공작 부인의 분부를 듣자 돈키호테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내가 내 심장을 꺼내어 높으신 마님 눈앞에, 여기 이 식탁 위 접시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수고를 내 혀에서 덜어 주었을 것이오. 마님께서 거기에 온전히 그려진 아씨를 보실 테니 말이오. 그러나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의 아름다움을 한 점 한 점, 한 부분 한 부분 그려 보이고 묘사하는 일을 지금 내가 왜 하겠소? 그것은 내 어깨가 아닌 다른 이의 어깨가 짊어져야 할 짐이고, 파라시오스와 티만테스와 아펠레스의 붓과 리시포스의 끌이 맡아서 나무판과 대리석과 청동에 그리고 새겨야 할 일이며, 아씨를 칭송하려면 키케로의 수사학과 데모스틴의 수사학이 있어야 할 일이오."

"데모스틴이 무슨 뜻이오,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이 물었다. "내 평생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낱말이구려."

"데모스틴의 수사학이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데모스테네스의 수사학이라는 말과 같소. 키케로의 수사학이 키케로의 것이듯이 말이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사가였소."

"그렇소." 공작이 말했다. "부인은 그런 질문을 하다니 눈이 어두웠구려. 그렇더라도 돈키호테 나리께서 아씨를 그려 보여 주신다면 우리는 크게 즐거울 것이오. 대강 그린 밑그림이라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나오리라는 것은 틀림없을 테니 말이오."

"물론 그렇게 해 드리겠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조금 전 아씨에게 닥친 불행이 내 머릿속에서 아씨의 모습을 지워 버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오. 그 불행이란 아씨를 묘사하기보다 차라리 울어야 할 만한 것이오. 높으신 두 분께서는 아셔야 하오. 지난 며칠 전 나는 이 세 번째 출정에 나서기에 앞서 아씨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축복과 승낙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내가 찾던 이와는 다른 여인을 만났소. 아씨는 마법에 걸려, 공주에서 농사꾼 여자로, 아름다운 이에서 못생긴 이로, 천사에서 악마로, 향기로운 이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로, 말씨 고운 이에서 촌스러운 이로, 차분한 이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로, 빛에서 어둠으로, 끝내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서 사야고의 촌 여자로 바뀌어 있었소."

"하느님 맙소사!" 이때 공작이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그토록 큰 해를 끼친 자가 누구요? 세상을 즐겁게 하던 아름다움과 세상을 기쁘게 하던 맵시와 세상의 이름을 높이던 정숙함을 세상에서 빼앗아 간 자가 누구요?"

"누구냐고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시샘 많은 마법사 가운데 어느 사악한 마법사 말고 누구겠소? 선한 이들의 무훈을 흐리게 하고 없애 버리며 악한 자들의 짓을 빛내고 높여 주려고

세상에 태어난 이 저주받은 족속 말이오. 마법사들이 나를 쫓아왔고, 마법사들이 나를 쫓고 있으며, 마법사들이 나를 쫓으리라. 나와 나의 드높은 기사도를 망각의 깊은 구렁에 처넣을 때까지 말이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장 아파하리라고 보는 바로 그 자리를 해치고 찌르오. 편력 기사에게서 그의 귀부인을 빼앗는 것은 그가 바라보는 눈을, 그를 비추는 해를, 그를 살게 하는 양식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오. 이 말을 다른 때에도 여러 번 했지만 지금 다시 말하겠소. 귀부인이 없는 편력 기사는 잎 없는 나무요, 주춧돌 없는 집이요, 그림자를 드리울 몸이 없는 그림자와 같소."

"더 할 말이 없소."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며칠 전 세상에 나와 사람들의 갈채를 한 몸에 받은 돈키호테 나리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면,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책에서 짐작하기로는, 나리께서는 둘시네아 아씨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그 아씨는 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지어낸 귀부인이며, 나리께서 그 아씨를 생각 속에서 잉태하고 낳으셔서 바라시는 온갖 아름다움과 완벽함으로 그려 내셨다는 것이오."

"그 일에는 할 말이 많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에 둘시네아가 있는지 없는지, 지어낸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느님께서 아시오. 그리고 이런 일은 끝까지 캐어 밝혀야 할 일들이 아니오. 나는 내 아씨를 잉태하지도 낳지도 않았소. 다만 나는 아씨를 세상 모든 곳에서 이름을 떨치게 할 만한 자질을 지닌 귀부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으로 우러러보오. 아름답되 흠이 없고, 근엄하되 오만하지 않고, 사랑스럽되 정숙하고, 예의 바르기에 은혜를 알고, 잘 자랐기에 예의 바르며, 끝으로 가문이 높은 분으로 말이오. 좋은 혈통 위에서는 아름다움이 미천하게 태어난 아름다운 여인들에게서보다 더 완벽한 빛을 내며 빛나고 돋보이기 때문이오."

"그렇소." 공작이 말했다. "그러나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내가 읽은 나리의 무훈 이야기가 말하게 하는 것을 내가 말하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소. 그 이야기에서 짐작하기로는, 토보소 안이든 밖이든 둘시네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리께서 우리에게 그려 보이신 대로 더없이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가문의 높이로 말하자면 그 아씨는 오리아나나 알라스트라하레아나 마다시마, 그리고 나리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책마다 가득한 그런 부류의 다른 귀부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는 못하오."

"그 말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둘시네아는 제 행실의 자식이고, 덕은 피를 바로잡으며, 높이 올라선 악한 사람보다 미천한 덕 있는 사람을 더 높이 치고 여겨야 한다고 말이오. 게다가 둘시네아에게는 왕관과 왕홀을 갖춘 여왕이 될 수 있게 해 줄 만한 한 조각이 있소. 아름답고 덕 있는 여인의 값어치는 더 큰 기적을 이루는 데까지 미치고, 형식상으로는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는 그 안에 더 큰 행운을 품고 있기 때문이오."

"돈키호테 나리, 내 말은" 공작 부인이 말했다. "나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두 납으로 된 발로 걷듯 신중하고, 흔히 말하듯 물 깊이를 재는 추를 손에 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토보소에 둘시네아가 있고, 지금도 살아 있으며, 아름답고, 지체 높게 태어났고, 돈키호테 나리 같은 기사가 섬기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고, 내 집안사람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내 남편 공작에게까지도 믿게 하겠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고 할 줄 아는 가장 큰 칭찬이오. 그러나 의심 하나는 품지 않을 수 없고, 산초 판사에게도 어딘지 모르게 얼마쯤 언짢은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소. 그 의심이란 이렇소. 앞서 말한 그 이야기에 따르면, 산초 판사가 나리를 대신해 그 둘시네아 아씨에게 편지를 가져갔을 때 그 아씨는 밀 한 자루를

키질하고 있었다고 하고, 게다가 그 밀이 붉은 밀이었다고까지 하오. 그 일이 그 아씨 가문의 높이를 의심하게 하는구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님, 높으신 마님께서는 아셔야 하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아니 거의 모두 다른 편력 기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보통 테두리를 벗어나오. 운명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이 그리로 이끌었든, 시샘 많은 어느 마법사의 악의가 그리로 이끌었든 말이오. 모든, 아니 거의 모든 이름난 편력 기사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은사가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이오. 어떤 이는 마법에 걸리지 않는 은사를, 어떤 이는 살이 뚫리지 않아 다치지 않는 은사를 지녔소. 이름난 롤단이 그러했소. 프랑스의 열두 대등 기사 가운데 하나인 그는 왼발 발바닥 말고는 다칠 수 없었고, 그것도 굵은 핀 끝으로만 다칠 수 있었지 다른 어떤 무기로도 다치지 않았다고들 하오. 그래서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가 론세스바예스에서 그를 죽였을 때, 쇠로는 상처를 낼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두 팔로 땅에서 들어 올려 숨을 막아 죽였소. 대지의 아들이라고들 하던 그 사나운 거인 안테온을 헤라클레스가 죽인 일을 그때 떠올린 것이오. 이 말에서 내가 끌어내고 싶은 것은 나도 그런 은사를 하나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오. 다치지 않는 은사는 아니오. 경험이 여러 번 보여 주었듯이 내 살은 무르고 조금도 뚫리지 않는 살이 아니기 때문이오. 마법에 걸리지 않는 은사도 아니오. 나는 이미 우리에 갇힌 적이 있는데, 마법의 힘이 아니고서는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나를 가두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나 나는 그 마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다른 어떤 마법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믿고 싶소. 그래서 이 마법사들은 내 몸에는 그 고약한 수작을 부릴 수 없음을 알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앙갚음을 하고 있소.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둘시네아의 목숨을 괴롭혀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것이오. 그래서 나는 내 종자가 아씨께 내 전갈을 가져갔을

때 그들이 아씨를 농사꾼 여자로, 밀을 키질하는 것처럼 그토록 천한 일에 매인 여자로 바꾸어 놓았다고 믿소.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그 밀은 붉은 밀도 아니었고 밀도 아니었으며, 동방의 진주알이었소. 이 진실을 증명하려고 두 분 귀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 내가 토보소에 갔을 때 둘시네아의 궁전을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것이오. 그리고 다른 날, 내 종자 산초는 아씨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씨 본래의 모습으로 보았는데, 내게는 세상의 슬기 그 자체인 아씨가 거칠고 못생기고 말씨도 전혀 곱지 않은 농사꾼 여자로 보였소. 그러니 사리를 따져 보면 나는 마법에 걸리지 않았고 걸릴 수도 없으니, 마법에 걸린 쪽은 아씨이고, 해를 입은 쪽도, 모습이 바뀌고 뒤바뀌고 뒤집힌 쪽도 아씨이며, 내 적들은 아씨를 통해 내게 앙갚음을 한 것이오. 그래서 나는 아씨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아씨 때문에 끝없는 눈물 속에 살 것이오. 이 말을 다 한 것은 산초가 둘시네아의 체질과 키질에 대해 한 말에 아무도 마음 쓰지 않게 하려는 것이오. 그들이 내게 아씨를 바꾸어 보였으니, 산초에게 아씨를 바꾸어 보였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오. 둘시네아는 지체 높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소. 토보소에 있는 시골 귀족 가문은 많고 오래되고 아주 훌륭한데,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가 그 가문들에서 받은 몫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틀림없소. 트로이가 헬레네 때문에, 에스파냐가 카바 때문에 그랬듯이, 아씨의 고장은 아씨 덕분에 다가올 세기에 이름을 떨치고 일컬어질 것이오. 다만 더 좋은 이름과 명성으로 말이오. 한편, 두 분 귀하신 분들께서는 산초 판사가 일찍이 편력 기사를 섬긴 종자 가운데 가장 익살스러운 종자 하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하오. 그는 때때로 어찌나 날카로운 어수룩함을 보이는지, 그가 어수룩한지 날카로운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즐거움을 주오. 그는 그를 악당으로 단죄하게 하는 짓궂음도 있고, 그를 바보로 굳혀 주는 얼빠짐도 있소.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소. 그가 바보짓으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겠구나 싶을 때면 그를 하늘까지 높여 줄 슬기로운 말을 꺼내놓소. 결국 나는 덤으로 도시 하나를 준다 해도 그를 다른 종자와 바꾸지 않겠소. 그래서 높으신 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통치에 그를 보내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지오. 하기야 그에게서 다스리는 일에 대한 어떤 소질이 보이기는 하오. 그 머리를 조금만 손질해 주면 임금이 세금 걷듯 거뜬히 어떤 통치든 해낼 것이오. 게다가 우리는 여러 경험으로, 통치자가 되는 데는 대단한 재주도 대단한 학식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소. 글을 겨우 읽을까 말까 하면서도 매처럼 날쌔게 다스리는 이가 세상에 백은 있으니 말이오. 요점은 좋은 뜻을 품고 모든 일을 바르게 하기를 바라는 데 있소.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충고하고 이끌어 줄 사람이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이오. 학식은 없는 기사 출신 통치자들이 보좌관을 두고 판결을 내리듯 말이오. 나는 그에게 뇌물은 받지 말고 권리는 잃지 말라고 충고하겠소. 그 밖에도 내 배 속에 남아 있는 자잘한 충고들이 있는데, 산초에게 쓸모 있고 그가 다스릴 섬에 이롭도록 때가 되면 나올 것이오."

공작과 공작 부인과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었을 때, 궁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큰 소란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산초가 잔뜩 겁에 질려 잿물 거르는 천을 턱받이로 두른 채 방에 들어왔고, 그 뒤로 젊은이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부엌데기 건달들과 다른 잡것들이 여럿 따라 들어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물을 담은 작은 함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물은 빛깔과 더러움으로 보아 설거지물이었다. 함지를 든 자가 산초를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며 어떻게든 그 함지를 그의 턱 밑에 갖다 대고 끼워 넣으려 했고, 다른 건달 하나는 그의 수염을 씻기려는 시늉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 공작 부인이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착한 사람한테 무엇을 하려는 게냐? 그분이 통치자로 뽑힌 분이라는 걸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냐?"

그 말에 이발사 노릇을 하던 건달이 대답했다.

"이 나리께서 풍습대로, 저희 주인 공작 나리와 이분의 주인 나리께서 씻으신 대로 씻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씻고 싶다니까." 산초가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다. "다만 더 깨끗한 수건하고 더 맑은 잿물하고 덜 더러운 손으로 씻었으면 한다는 거야. 내 주인을 천사의 물로 씻기고 나를 악마의 잿물로 씻길 만큼 내가 주인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 고장의 풍습이나 귀인들 궁전의 풍습은 괴로움을 주지 않는 동안에나 좋은 거지, 여기서 하는 이 씻김 풍습은 채찍 고행자들 풍습보다도 더 고약해. 내 수염은 깨끗하고 그런 청량제 따위는 필요 없어. 나를 씻기러 다가오거나 내 머리털, 아니 내 수염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주먹이 대갈통에 박혀 버리게 한 방 먹여 주겠어. 이런 의식이니 비누칠이니 하는 건 손님 대접이라기보다 놀림처럼 보이니까."

공작 부인은 산초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는 웃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산초가 얼룩덜룩한 수건을 두르고 그 꼴 사납게 차려입은 채 부엌의 한량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았다. 그래서 공작 부부에게 말할 허락을 청하듯 깊이 절을 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 잡것들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기사 양반들! 그대들은 그 젊은이를 놓아주고, 왔던 데로 돌아가거나 내키면 다른 데로 가시오. 내 종자는 다른 누구 못지않게 깨끗하고, 그 함지들은 그에게 좁고 거북한 물그릇이오. 내 충고를 받아들여 그를 놓아주시오. 그도 나도 장난 같은 일에는 통 모르는 사람들이니 말이오."

산초가 그 말을 입에서 가로채어 이어서 말했다.

"그래, 어디 그 임자 없는 촌뜨기를 놀려 먹으러 와 봐라. 지금이 밤인 만큼이나 내가 참아 줄 테니! 빗이든 뭐든 가져다가 이 수염을 말 빗질하듯 빗겨 봐. 거기서 깨끗지 못한 게 하나라도 나오면 내 머리를 열십자로 깎아도 좋다."

이때 공작 부인이 웃음을 그치지 않은 채 말했다.

"산초 판사가 한 말은 다 옳고, 앞으로 할 말도 다 옳을 것이다. 그는 깨끗하고, 자기 말대로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 풍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이야. 게다가 너희들, 깨끗이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은 너무 굼뜨고 칠칠치 못했고, 당돌하다고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런 분과 그런 수염에 순금 대야와 물 주전자와 독일산 수건을 가져오지 않고 나무 함지에 나무 구유에 찬장 걸레를 가져왔으니 말이다. 결국 너희는 나쁘고 버릇없이 자란 것들이라, 흉악한 놈들답게 편력 기사의 종자들에게 품은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구나."

장난꾸러기 하인들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시중장까지도, 공작 부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산초의 가슴에서 잿물 거르는 천을 벗겨 내고 모두 어리둥절하고 거의 부끄러워하며 그를 두고 물러갔다. 산초는 자기가 보기에 더없이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알자 공작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큰 마님께는 큰 은혜를 바라는 법입죠. 오늘 마님께서 제게 베푸신 이 은혜는 기사 서임을 받은 편력 기사가 되어 평생 날마다 그토록 높으신 마님을 섬기는 데 몸 바치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달리 갚을 길이 없습니다요. 저는 농사꾼이고, 산초 판사라고 하고, 장가들었고, 자식이 있고, 종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으로든 높으신 마님을 섬길 수 있다면, 마님께서 분부하시는 것보다 제가 따르는 게 더 빠를 겁니다요."

"산초, 보아하니"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자네는 예의 그 자체의 학교에서 예의 바르게 되는 법을 배운 것 같네. 내 말은, 돈키호테 나리의 젖을 먹고 자란 것 같다는 걸세. 그분은 정중함의 정수요, 격식의 꽃, 자네 말대로 하면 걱식의 꽃인 분임이 틀림없네. 그런 주인과 그런 하인에게 복이 있기를. 한 분은 편력 기사도의 북극성으로서, 또 한 사람은 종자다운 충성의 별로서 말일세. 일어나게, 여보게 산초. 자네의 정중함에는 내 남편 공작께서 되도록 빨리 약속한 통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것으로 갚겠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돈키호테는 낮잠을 자러 갔고, 공작 부인은 산초에게 아주 졸리지 않다면 아주 시원한 방에서 자기와 자기 시녀들과 함께 오후를 보내러 오라고 청했다. 산초는 여름이면 낮잠을 네댓 시간씩 자는 것이 버릇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님의 너그러우심을 섬기기 위해 그날은 한 시간도 자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애쓰겠으며 분부대로 공손히 가겠다고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공작은 옛 기사들이 받았다고 전해지는 대접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게 돈키호테를 편력 기사로 대접하라고 새로 명령을 내렸다.

제33장 공작 부인과 그 시녀들이 산초 판사와 나눈 재미있는 이야기, 읽고 새겨 둘 만하다

그런데 이야기는 전한다. 산초는 그날 낮잠을 자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밥을 먹자마자 공작 부인을 찾아왔다. 공작 부인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워 그를 자기 곁 낮은 의자에 앉혔는데, 산초는 버릇이 너무 바른 나머지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통치자로서 앉고 종자로서 말하라고 했다. 그 두 가지로 보아 그는 캄페아도르 시드 루이 디아스의 의자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산초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분부를 따라 앉았다. 공작 부인의 시녀들과 시녀 부인들이 모두 그를 둘러싸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더없이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먼저 입을 연 것은 공작 부인이었다.

"이제 우리끼리만 있고 여기서는 아무도 듣지 않으니, 통치자 나리께서 내가 품고 있는 몇 가지 의문을 풀어 주었으면 하네. 위대한 돈키호테에 관해 이미 인쇄되어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생긴 의문들일세.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네. 착한 산초는 둘시네아를, 아니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돈키호테 나리의 편지도 시에라 모레나에서 비망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답장을 꾸며 냈으며, 아씨가 밀을 키질하고 있더라는 그 이야기는 또 어찌 된 일인가? 그것은 모두 장난이요 거짓말이었고,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의 좋은 평판에 큰 해를 끼친 일이며, 모두 착한 종자의 자질과 충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아닌가."

이 말에 산초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한 걸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손가락을 입술에 댄 채 방 안을 빙 돌며 휘장들을 들추어 보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앉아 말했다.

"마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말고는 아무도 몰래 엿듣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 겁내거나 떨지 않고 물으신 것에, 그리고 앞으로 물으실 것에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 주인 돈키호테 나리를 아주 구제할 길 없는 미치광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은, 제 생각에, 아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기에도, 어찌나 슬기롭고 어찌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지 사탄 자신이라도 그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을 정도지요. 그래도 정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이 얼간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이 제 대갈통에 박혀 있으니, 저는 앞뒤도 머리꼬리도 없는 일을 그분께 믿게 하려고 대들기도 하는데요, 그 편지 답장 일이 그랬고, 엿새인지 여드레 전 일이 그랬어요. 그 일은 아직 이야기책에 실리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제 아씨도냐 둘시네아의 마법 일 말씀이에요. 저는 그분께 아씨가 마법에 걸렸다고 믿게 했지만, 그건 우베다 언덕 너머 이야기만큼도 참말이 아니거든요."

공작 부인이 그 마법인지 장난인지 하는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자, 산초는 일어난 그대로 모두 이야기했다.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적잖이 즐거워했다. 공작 부인은 이야기를 이어 가며 말했다.

"착한 산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영혼 속에서 의심 하나가 펄쩍펄쩍 뛰고, 어떤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려와 이렇게 말하네.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미치광이에 모자라고 얼간이인데, 그의 종자 산초 판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섬기고 따라다니며 그의 헛된 약속에 매달린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산초가 주인보다 더 미치고 더 바보일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정말 그러하듯이, 공작 부인이여, 그런 산초 판사에게 다스릴 섬을 준다면 그대에게 좋지 않은 셈이 되리라. 제 몸 하나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어찌 남을 다스릴 줄 알겠는가?'"

"하느님께 맹세코, 마님" 산초가 말했다. "그 의심은 아주 순산으로 바로 나왔네요. 그래도 마님께서 그 의심한테 똑똑히 말하든 마음대로 말하든 하라고 일러 주세요. 그 말이 참말이라는 걸 저도 아니까요. 제가 슬기로웠다면 벌써 오래전에 주인 나리를 떠났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게 제 팔자고 이게 제 불운인걸요. 어쩔 수 없어요, 따라다닐 수밖에요. 저희는 같은 마을 사람이고, 저는 그분 빵을 먹었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은 고마움을 아시고, 저한테 새끼 당나귀들도 주셨고, 무엇보다도 저는 충직하니까요. 그러니 삽과 괭이 말고는, 그러니까 무덤 말고는 무슨 일도 저희를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 높이 나는 매처럼 드높으신 마님께서 약속하신 통치를 제게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느님께서는 저를 그보다 못한 것으로도 만드셨으니 괜찮아요.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제 양심에는 오히려 이로울지도 모르고요. 제가 바보이긴 해도 '개미에게 날개가 돋은 것은 화를 입으려고였다'는 속담쯤은 알아듣거든요. 게다가 통치자 산초보다 종자 산초가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지도 모를 일이고요. 여기서도 프랑스만큼 좋은 빵을 굽고요, 밤에는 고양이가 다 잿빛이고요, 오후 두 시까지 아침을 못 먹은 사람은 꽤나 불행한 사람이고요, 남의 배보다 한 뼘 더 큰 배는 없는데 그 배는 흔히 말하듯 짚이든 건초든 채울 수 있고요, 들의 작은 새들은 하느님을 제 양식 대 주시는 분이요 곳간지기로 모시고요, 쿠엥카 모직 넉 바라가 세고비아 고급 나사 넉 바라보다 더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땅속으로 들어갈 때는 임금님도 날품팔이도 똑같이 좁은 길로 가고, 교황님 몸도 성당지기 몸보다 땅을 더 차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 해도 말이지요. 구덩이에 들어갈 때는 싫든 좋든

우리 모두 몸을 맞추고 오그리거나, 남들이 맞추고 오그려 놓거든요. 그러고는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님께서 제가 바보라고 섬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슬기로운 사람이니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는 말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도 들었고요. 농사꾼 왐바는 소와 쟁기와 멍에 끈 사이에서 끌려 나와 에스파냐의 왕이 되었고, 로드리고는 양단과 놀이와 재물 사이에서 끌려 나와 뱀들에게 뜯어 먹혔다는 말도 들었어요. 옛 로맨스의 노래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거짓말을 하다니, 천만에요!" 이때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어떤 로맨스에는 로드리고 왕을 산 채로 두꺼비와 뱀과 도마뱀이 가득한 무덤에 넣었는데, 이틀 뒤에 왕이 무덤 안에서 괴롭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를 뜯어 먹는구나, 이제 나를 뜯어 먹는구나,
내가 가장 많이 죄를 지은 데부터.

그러니 벌레들한테 뜯어 먹혀야 한다면 왕보다 차라리 농사꾼이 되고 싶다는 이 나리 말이 아주 옳아요."

공작 부인은 자기 시녀 부인의 어수룩한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고, 산초의 말과 속담을 들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작 부인이 산초에게 말했다.

"착한 산초도 알다시피 기사란 한번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려 애쓰는 법이네. 내 주인이자 남편인 공작께서는 편력 기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사가 아닌 것은 아니니, 세상의 시샘과 악의를 무릅쓰고 약속한 섬에 대한 말씀을 지키실 걸세. 산초는 기운을 내게. 생각지도 않을 때에 자네는 자네 섬의 자리, 자네 지위의 자리에 앉아

통치권을 손에 쥐게 될 걸세. 그러다가 세 겹 양단으로 된 더 좋은 통치를 얻으면 그것을 내버리게 되겠지. 내가 자네에게 당부하는 것은 자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잘 살피라는 걸세. 그들은 모두 충직하고 좋은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그들을 잘 다스리라는 건" 산초가 대답했다. "당부하실 것도 없어요. 저는 본디 인정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빵을 굽고 반죽하는 사람한테서 빵 덩이를 훔치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 성호를 걸고 말하지만 저한테 가짜 주사위를 던지면 안 되죠. 저는 늙은 개라서 '쭈쭈' 하고 부르는 소리는 다 알아듣고, 때맞춰 정신을 번쩍 차릴 줄 알고, 눈앞에 헛것이 얼쩡거리게 두지 않아요.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 알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착한 사람들은 제게서 손도 잡아 주고 품도 내주겠지만 나쁜 놈들은 발 디딜 데도 들어올 데도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통치라는 것은 모든 게 시작이 반이라, 통치자가 되고 보름만 지나면 그 일이 좋아서 손가락을 빨게 되고, 제가 자라 온 들일보다 그 일을 더 잘 알게 될지도 몰라요."

"자네 말이 옳고도 옳네,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배우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주교도 돌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는 법이지.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누던 둘시네아 아씨의 마법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나는 이것이 확실하고도 남김없이 밝혀진 일이라고 여기네. 산초가 자기 주인을 속여 그 농사꾼 여자가 둘시네아이고 주인이 아씨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씨가 마법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믿게 하려 한 그 생각은, 모두 돈키호테 나리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 가운데 누군가가 꾸며 낸 것일세. 내가 믿을 만한 데서 확실하고도 참되게 들은 바로는, 새끼 암당나귀 위로 훌쩍 뛰어오른 그 촌 여자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착한 산초는 자기가 속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속은 사람일세. 이 진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만큼이나 의심할 여지가 없네. 산초 판사 나리는 알아 두게. 우리 쪽에도 우리를 아끼는 마법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얽히고설킨 수작도 장치도 없이 우리에게 알려 준다네. 그러니 산초는 내 말을 믿게. 그 펄쩍 뛰던 촌 여자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그 아씨를 낳은 어머니만큼이나 마법에 걸려 있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아씨를 본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산초는 지금 빠져 있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될 걸세."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셨다는 주인 나리 말씀을 믿고 싶어지네요. 거기서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봤는데, 제가 순전히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아씨를 마법에 걸었을 때 봤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옷차림 그대로였다고 하시거든요. 마님 말씀대로 모든 게 거꾸로였나 봐요. 제 하찮은 머리로 그토록 날카로운 거짓말을 순식간에 지어냈다고 짐작할 수도 없고 짐작해서도 안 될 테니까요. 그리고 제 주인 나리가 제 말처럼 그토록 약하고 비쩍 마른 꼬드김에 넘어가 그토록 터무니없는 일을 믿으실 만큼 미치셨다고도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님, 그렇다고 해서 너그러우신 마님께서 저를 못된 놈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저 같은 멍텅구리가 지독하게 고약한 마법사들의 생각과 수작까지 꿰뚫어 볼 의무는 없잖아요. 제가 그 일을 꾸민 건 돈키호테 나리의 꾸지람을 피하려는 것이었지 나리를 해치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거꾸로 되었다면,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시지요."

"정말 그렇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런데 이제 말해 보게, 산초. 자네가 말하는 그 몬테시노스 동굴 이야기는 무엇인가? 알고 싶구먼."

그러자 산초 판사는 그 모험에 관해 앞서 이야기한 것을 한 점 한 점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작 부인이 말했다.

"이 일로 미루어 보면, 위대한 돈키호테가 산초가 토보소를 나서며 본 바로 그 농사꾼 여자를 거기서 보았다고 하니, 그 여자는 틀림없이 둘시네아이고, 이 근방에는 아주 약삭빠르고 지나치게 호기심 많은 마법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마법에 걸리셨다면 그건 그 아씨 손해죠. 저는 제 주인 나리의 적들하고 시비를 붙을 생각이 없어요. 그놈들은 수도 많고 고약할 테니까요. 사실을 말하자면 제가 본 건 농사꾼 여자였고, 저는 그 여자를 농사꾼 여자로 여겼고, 그런 농사꾼 여자로 판단했어요. 그 여자가 둘시네아였다 해도 그건 제 탓으로 돌릴 일도 아니고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일로 한바탕 붙을 줄 아세요. 걸핏하면 저를 붙잡고 이러쿵저러쿵 말씨름을 하라지요. '산초가 말했다, 산초가 했다, 산초가 돌아섰다, 산초가 되돌아왔다' 하고요. 마치 산초가 아무개라도 되는 듯이, 그리고 삼손 카라스코가 제게 말해 준 대로 벌써 책에 실려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바로 그 산초 판사가 아니라는 듯이요. 삼손 카라스코는 적어도 살라망카에서 학사가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내키거나 아주 그럴 만한 때가 아니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저하고 시비를 붙을 까닭이 없어요. 저는 평판이 좋고, 제 주인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좋은 이름이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하니, 그 통치를 저한테 덥석 안겨 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좋은 종자였던 사람은 좋은 통치자가 될 테니까요."

"착한 산초가 여기서 한 말은 모두" 공작 부인이 말했다. "카토의 금언이거나, 적어도 꽃다운 나이에 스러진(florentibus occidit annis) 바로 그 미카엘 베리노의 속에서 끌어낸 말들이네.[1] 결국, 결국 산초처럼 말하자면, 허름한 망토 밑에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정말이지 마님"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평생 못된 마음을 먹고 마셔 본 적은 없어요. 목이 말라서 마셨을 수는 있지요. 저는 위선자 기질은 조금도 없거든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을 때도 누가 주면 마셔요. 까다롭거나 버릇없어 보이지 않으려고요. 벗이 축배를 드는데 답례를 하지 않을 만큼 대리석 같은 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바지는 입어도 더럽히지는 않아요. 게다가 편력 기사의 종자들은 거의 늘 물을 마셔요. 언제나 숲과 덤불과 풀밭과 산과 바위 벼랑을 돌아다니니, 눈 한쪽을 내준다 해도 포도주 한 모금의 자비도 얻지 못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믿네."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럼 지금은 산초도 가서 쉬게. 나중에 더 길게 이야기하고, 산초 말대로 그 통치를 얼른 덥석 안겨 줄 채비를 하겠네."

산초는 다시 공작 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자기 잿빛 당나귀를 잘 보살펴 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놈이 자기 눈의 빛이라고 했다.

"잿빛 당나귀라니, 무엇 말인가?" 공작 부인이 물었다.

"제 당나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놈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저는 흔히 잿빛 당나귀라고 불러요. 이 성에 들어올 때 여기 이 시녀 부인 마님께 그놈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마치 제가 못생겼다거나 늙었다고 말씀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펄펄 뛰셨어요. 시녀 부인들이라면 방에 위엄을 보태는 일보다 당나귀에게 꼴을 먹이는 일이 더 제격이고 자연스러울 텐데 말이에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 마을의 어느 시골 귀족은 이런 마님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어느 상놈이었겠지."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그가 시골 귀족이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면 우리를 초승달 뿔 위에 올려 모셨을 테니까."

"자, 됐네."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만두게. 도냐 로드리게스는 입을 다물고, 판사 나리는 진정하게. 잿빛 당나귀 보살피는 일은 내가 맡겠네. 산초의 보물이니 내 눈동자 위에 올려놓겠네."

"마구간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산초가 대답했다. "높으신 마님의 눈동자 위에는 그놈도 저도 한순간이라도 있을 만한 몸이 못 되니까요. 그런 일은 칼에 찔리는 것만큼이나 제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 주인 나리 말씀으로는 예의에서는 패가 모자라서 지기보다는 남아서 지는 편이 낫다고 하시지만, 당나귀에 관한 예의, 이른바 나귀 눈동자 예의에서는 컴퍼스를 손에 들고 재어 가며 알맞게 해야 하거든요."

"산초는 그놈을 통치하러 데려가게." 공작 부인이 말했다. "거기서는 마음껏 보살필 수도 있고, 일에서 물러나 쉬게 해 줄 수도 있을 테니."

"공작 부인 마님,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지 마세요." 산초가 말했다. "통치하러 가는 당나귀를 둘도 넘게 봤으니, 제가 제 당나귀를 데려간다 해도 새로운 일은 아니니까요."

산초의 말에 공작 부인은 다시 웃음과 즐거움이 샘솟았다. 공작 부인은 그를 쉬러 보내고 공작에게 가서 그와 나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돈키호테에게 이름날 만하고 기사도 문체에 잘 맞는 장난을 하나 치기로 하고 그 계획과 순서를 짰다. 그들은 기사도 문체에 맞추어 그에게 장난을 여럿 쳤는데, 그 장난들이 어찌나 그럴듯하고 재치 있었던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실린 모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모험들이 되었다.

---

1. 미카엘 베리노: 미켈레 베리노(1469~1487). 피렌체의 젊은 인문학자로 열일곱에 죽었고, 학교에서 교재로 읽힌 라틴어 교훈시를 남겼다. 라틴어 구절은 폴리치아노가 그를 기려 지은 묘비명에서 왔다.

제34장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마법에서 풀어 줄 방법을 알게 된 경위를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가장 이름난 모험 가운데 하나

공작과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와 나누는 이야기에서 크나큰 즐거움을 얻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모험처럼 보이고 모험의 기미를 띤 장난을 몇 가지 치려던 뜻을 더욱 굳히고, 돈키호테가 이미 들려준 몬테시노스 동굴 이야기를 빌미로 이름날 만한 장난을 하나 꾸미기로 했다. (그런데 공작 부인이 무엇보다 놀란 것은, 산초가 바로 그 일의 마법사요 거짓말쟁이였으면서도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마법에 걸렸다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믿게 될 만큼 어수룩하다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하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둔 다음, 엿새 뒤에 그들은 왕관 쓴 임금이라도 거느릴 만큼 많은 몰이꾼과 사냥꾼을 갖추어 돈키호테를 큰 짐승 사냥에 데리고 갔다. 돈키호테에게는 사냥 옷 한 벌을, 산초에게는 더없이 고운 모직으로 지은 초록 옷 한 벌을 주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머지않아 고된 무예의 일로 돌아가야 하니 옷장이나 찬장을 끌고 다닐 수는 없다며 입으려 하지 않았다. 산초는 받은 옷을 받아 두었는데, 처음 오는 기회에 팔아 버릴 생각이었다.

기다리던 날이 되자 돈키호테는 갑옷을 입고 산초는 옷을 차려입었다. 산초는 사람들이 말을 내주는데도 잿빛 당나귀를 버려두려 하지 않고 그

위에 올라 몰이꾼 무리 속에 끼었다. 공작 부인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고, 돈키호테는 너무도 예의 바르고 정중한 나머지 공작이 허락하려 하지 않는데도 부인용 말의 고삐를 잡았다. 마침내 그들은 아주 높은 두 산 사이에 있는 숲에 이르렀다. 사냥터의 자리와 매복처와 오솔길을 정하고 사람들을 여러 자리에 나누어 배치하자, 크게 떠들썩한 소리와 고함과 함성 속에 사냥이 시작되었다. 개 짖는 소리와 뿔나팔 소리 때문에 서로 말소리도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공작 부인은 말에서 내려 날카로운 사냥창을 손에 들고 멧돼지가 흔히 지나간다고 알고 있던 자리에 섰다. 공작과 돈키호테도 말에서 내려 부인의 양옆에 섰다. 산초는 모두의 뒤에 섰는데, 잿빛 당나귀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길까 봐 감히 버려두지 못하고 당나귀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들이 발을 딛고 다른 많은 하인과 함께 줄지어 서자마자, 개들에게 쫓기고 사냥꾼들에게 몰린 엄청나게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이를 갈고 엄니를 부딪치며 입으로 거품을 뿜으면서 그들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는 방패를 팔에 끼고 칼에 손을 대고 앞으로 나서서 멧돼지를 맞았다. 공작도 사냥창을 들고 똑같이 했다. 그러나 공작이 막지 않았더라면 공작 부인이 모두를 앞질렀을 것이다. 산초만은 그 용감한 짐승을 보자 잿빛 당나귀를 내버려 두고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그는 키 큰 떡갈나무 위로 기어오르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오히려 나무 중간쯤에서 가지 하나를 붙잡고 꼭대기로 오르려고 버둥대다가, 운이 어찌나 모자라고 어찌나 박복했던지 가지가 부러져 버렸다. 그런데 땅으로 떨어지다가 떡갈나무의 갈고리 같은 가지에 걸려 땅에 닿지도 못하고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다. 그런 처지가 된 데다 초록 윗옷이 찢어지고, 그 사나운 짐승이 거기까지 오면 자기에게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어찌나 소리를 질러 대며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던지 그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어느 사나운 짐승의 이빨 사이에 물려 있는 줄 알았다.

마침내 엄니 달린 멧돼지는 앞을 가로막은 수많은 사냥창의 날에 꿰뚫리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고함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소리로 이미 그가 산초임을 알아차린 터였다. 돌아보니 산초는 떡갈나무에 머리를 아래로 하고 매달려 있었고, 잿빛 당나귀는 그 곁에서 불행에 빠진 그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시데 아메테는 산초 판사를 볼 때 잿빛 당나귀를 보지 않은 적이 드물었고 잿빛 당나귀를 볼 때 산초를 보지 않은 적도 드물었다고 말한다. 둘 사이에 지켜진 우정과 신의가 그만큼 두터웠다.

돈키호테가 다가가 산초를 끌어 내렸다. 산초는 풀려나 땅에 내려서자 사냥 윗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 그 옷 한 벌이 대대로 물려줄 세습 재산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힘센 멧돼지를 짐 나르는 노새 등에 가로로 싣고 로즈메리 덤불과 도금양 가지로 덮어, 마치 승리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이 숲 한가운데 쳐 둔 커다란 천막들로 가져갔다. 거기에는 식탁이 가지런히 놓이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어찌나 호화롭고 푸짐했던지 그것을 베푸는 이의 위대함과 너그러움이 한눈에 드러났다. 산초는 찢어진 옷의 상처를 공작 부인에게 보여 주며 말했다.

"이게 토끼나 작은 새를 잡는 사냥이었다면 제 윗옷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엄니 하나로 사람을 받으면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는 짐승을 기다리는 데서 무슨 재미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옛 로맨스 하나를 누가 부르는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거든요.

곰들에게 뜯어 먹히거라,
그 이름난 파빌라처럼."

"그는 고트족 왕이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큰 짐승 사냥을 나갔다가 곰에게 잡아먹혔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임금님이나 귀인들이 즐거움 하나 얻자고 그런 위험에 몸을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짐승을 죽이는 데 있는 즐거움이니, 그건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오히려 자네가 잘못 알고 있네, 산초." 공작이 대답했다. "큰 짐승 사냥은 다른 어떤 일보다 임금과 귀인들에게 알맞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세. 사냥은 전쟁의 그림이네. 사냥에는 적을 안전하게 무찌르기 위한 계략과 꾀와 매복이 있고, 혹독한 추위와 견딜 수 없는 더위를 겪으며, 게으름과 잠을 줄이고, 힘을 기르고, 사냥하는 이의 팔다리를 날래게 하지. 요컨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며 할 수 있는 일일세. 그리고 그 가장 좋은 점은, 다른 갖가지 사냥과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네. 다만 매사냥은 예외인데, 그것도 임금과 높은 귀인들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아, 산초, 생각을 바꾸게. 통치자가 되거든 사냥에 몸을 바치게. 빵 하나가 백 개 값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건 안 되죠." 산초가 대답했다. "착한 통치자는 다리가 부러진 듯 집에 있어야 하거든요. 볼일 있는 사람들이 지친 몸으로 통치자를 찾아왔는데 통치자는 산에서 놀고 있다면 그거 참 좋겠네요! 그랬다간 통치가 재수 옴 붙게 굴러가겠지요! 맹세코, 나리, 사냥이니 놀이니 하는 건 통치자보다는 게으름뱅이들한테나 어울려요. 제가 즐기려는 건 명절이면 판돈 올리는 트리운포 카드놀이고, 일요일과 축일이면 나무 핀 쓰러뜨리기 놀이예요. 그런 사냥인지 사발인지 하는 건 제 성미에도 안 맞고 제 양심에도 안 맞아요."

"제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산초. 말에서 행동까지는 길이 머니까."

"어찌 되든 상관없어요." 산초가 맞받았다. "셈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담보 잡히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보다 하느님이 돕는 사람이 더 낫고, 배가 발을 끌고 가지 발이 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제 말은, 하느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제가 좋은 뜻으로 제 할 일을 하면 틀림없이 매보다 더 잘 다스릴 거라는 뜻이에요. 어디 제 입에 손가락을 넣어 보세요. 제가 깨무는지 안 깨무는지 보시게요!"

"하느님과 모든 성인께 저주받아라, 이 저주받을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네가 속담을 빼고 술술 이어지는 반듯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을 볼 날이 언제나 오겠느냐! 높으신 두 분께서는 이 바보를 그냥 두시오. 이 녀석은 속담 둘 사이가 아니라 속담 이천 개 사이에 두 분의 영혼을 끼워 넣고 갈아 버릴 것이오. 그것도 하느님께서 이 녀석에게, 아니면 내가 그 속담들을 들어 주려 한다면 내게 건강을 주실 만큼이나 때맞고 철맞게 끌어다 붙인 것들로 말이오."

"산초 판사의 속담은"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리스인 기사단장의 속담보다 많기는 하지만,[1] 그렇다고 해서 그 금언들이 짤막하다는 점에서 덜 귀하게 여길 것은 아니오. 나로 말하자면, 더 잘 끌어다 쓰고 더 때맞게 맞추어 넣은 다른 사람들의 속담보다 산초의 속담이 더 즐겁소."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천막에서 숲으로 나가 몇몇 매복처를 둘러보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금세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왔다. 한여름이라는 철에 걸맞을 만큼 밝지도 고요하지도 않은 밤이었으나, 그 밤이 데려온 어떤 어스름이 공작 부부의 뜻을 크게 도왔다.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하자 땅거미가 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느닷없이 온 숲이 사방에서 불타는 것처럼 보였다. 이어 여기저기서, 이쪽저쪽에서 수없이 많은 나팔과 다른 군악기 소리가 들렸는데, 마치 기병 부대가 여럿 숲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불빛과 군악기 소리 때문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니 숲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눈이 멀고 귀가 먹을 지경이었다. 곧이어 무어인들이 싸움터에 들어설 때 외치는 '렐릴리' 소리가 수없이 들리고, 트럼펫과 클라리온이 울리고, 북이 둥둥 울리고, 피리가 삑삑 울렸다. 거의 모두가 한꺼번에, 어찌나 끊임없이 어찌나 빠르게 울려 대던지 그 많은 악기의 뒤엉킨 소리에 정신이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애초에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공작은 넋을 잃었고, 공작 부인은 얼이 빠졌고, 돈키호테는 놀랐고, 산초 판사는 떨었다. 마침내 그 까닭을 아는 사람들조차 겁에 질렸다. 두려움과 함께 정적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그때 악마 차림을 한 파발꾼 하나가 속이 텅 빈 엄청나게 큰 뿔을 나팔처럼 불며 그들 앞을 지나갔다. 그 뿔에서는 쉬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났다.

"여보시오, 전령 형씨!" 공작이 말했다. "그대는 누구요, 어디로 가는 길이오, 이 숲을 가로질러 가는 듯한 저 군사들은 누구요?"

그 말에 전령이 소름 끼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악마요.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찾으러 가는 길이오. 이리로 오는 무리는 마법사 여섯 부대로, 개선 수레에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태우고 오는 길이오. 아씨는 늠름한 프랑스 사람 몬테시노스와 함께 마법에 걸린 채로 오시는데, 그 아씨를 어떻게 마법에서 풀어야 하는지 돈키호테에게 일러 주려고 오는 것이오."

"그대가 말하는 대로, 또 그대 모습이 보여 주는 대로 악마라면, 그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벌써 알아보았을 것이오. 바로 그대 앞에 있으니 말이오."

"하느님과 내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악마가 대답했다. "미처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소. 하도 여러 가지 일에 생각이 흩어져 있어서 내가 온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있었소."

"틀림없이" 산초가 말했다. "이 악마는 점잖은 사람이고 착한 그리스도교 신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과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보니 지옥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자 악마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돈키호테에게 눈길을 돌리고 말했다.

"너, 사자의 기사여(그 사자들의 발톱 사이에 네가 끼어 있는 꼴을 보고 싶구나), 불운하지만 용감한 기사 몬테시노스가 나를 네게 보냈느니라. 그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 불리는 이를 데리고 오니, 네가 나를 만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라고 자기 대신 네게 전하라 하였노라. 그 아씨를 마법에서 풀어 줄 방도를 네게 일러 주라는 분부를 받고서 말이다. 내가 온 것은 이 일 때문이니 더 머물지 않겠노라. 나 같은 악마들은 너와 함께 있고, 착한 천사들은 이 귀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 엄청난 뿔을 불고는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려 가 버렸다.

모두의 놀라움이 새로워졌는데, 산초와 돈키호테가 특히 그러했다. 산초는 진실이야 어떻든 사람들이 둘시네아를 마법에 걸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고, 돈키호테는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참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어서 놀랐다. 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공작이 그에게 말했다.

"기다리실 생각이오, 돈키호테 나리?"

"기다리지 않고 어쩌겠소?" 그가 대답했다. "지옥이 통째로 나에게 덤벼든다 해도 나는 여기서 두려움 없이 굳세게 기다리겠소."

"저는 아까 같은 악마를 하나 더 보고 아까 같은 뿔 소리를 한 번 더 들으면 여기서 기다리느니 플랑드르에 가서 기다리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밤은 더욱 깊어졌고, 숲 사이로 수많은 불빛이 오가기 시작했다. 땅에서 피어오른 마른 기운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 눈에 별똥별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았다. 또 소달구지에 흔히 다는 통바퀴에서 나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거칠고 끊임없는 삐걱거림에는 지나가는 곳에 늑대나 곰이 있으면 달아난다고들 한다. 이 모든 폭풍에 다른 폭풍이 하나 더해져 모든 것을 더욱 키웠다. 숲의 네 귀퉁이에서 한꺼번에 네 번의 접전, 아니 네 번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보였던 것이다. 저기서는 무시무시한 대포의 거센 굉음이 울리고, 저쪽에서는 수없이 많은 화승총이 불을 뿜고, 가까이서는 싸우는 이들의 고함이 들리는 듯하고, 멀리서는 하갈의 자손 무어인들의 '렐릴리' 소리가 되풀이되었다.

마침내 나팔과 뿔과 뿔나팔과 클라리온과 트럼펫과 북과 대포와 화승총, 그리고 무엇보다 수레들의 무시무시한 소리가 한데 어울려 어찌나 뒤엉키고 끔찍한 소리를 이루었던지, 돈키호테도 그것을 견디려면 온 용기를 다 끌어모아야 했다. 그러나 산초의 용기는 땅에 떨어져, 그는 정신을 잃고 공작 부인의 치마폭에 쓰러졌다. 공작 부인은 그를 치마폭에 받아 안고 얼른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으라고 일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때 마침 삐걱거리는 바퀴를 단 수레 하나가 그 자리에 다다랐다.

수레는 온통 검은 덮개를 두른 느릿느릿한 소 네 마리가 끌고 있었다. 소들은 뿔마다 커다란 밀랍 횃불을 하나씩 매달아 불을 붙였고, 수레 위에는 높은 자리가 마련되어 그 위에 존경스러운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의 수염은 눈보다 더 희고 허리를 지나 내려올 만큼 길었다.

그가 입은 옷은 검은 거친 삼베로 지은 긴 옷이었는데, 수레가 수없이 많은 불빛으로 가득해서 수레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또렷이 보이고 가려 볼 수 있었다. 같은 삼베 옷을 입은 못생긴 악마 둘이 수레를 몰았는데, 얼굴이 어찌나 흉측했던지 산초는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버렸다. 수레가 그 자리와 나란히 오자 존경스러운 노인이 높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자 리르간데오이니라."

그러고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수레는 지나갔다. 그 뒤로 같은 모양의 다른 수레가 왔는데, 거기에도 노인 하나가 높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수레를 멈추게 하고 앞의 노인 못지않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자 알키페, 알 수 없는 여인 우르간다의 큰 벗이니라."

그리고 지나갔다.

이어 같은 모양으로 또 다른 수레가 왔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이는 다른 이들처럼 노인이 아니라 우람하고 인상이 험상궂은 사내였다. 그는 다가오자 다른 이들처럼 일어서서 더 쉬고 더 악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법사 아르칼라우스, 가울라의 아마디스와 그 온 일가의 철천지원수이니라."

그리고 지나갔다. 그 세 수레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추어 섰고, 바퀴의 성가신 소리도 그쳤다. 곧이어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가락이 맞는 음악 소리였다. 산초는 그 소리에 기뻐하며 좋은 징조로 여겼다. 그래서 한 치도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던 공작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음악이 있는 곳에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불빛과 밝음이 있는 곳에도 그렇다네."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 말에 산초가 맞받았다.

"불은 빛을 주고 모닥불은 밝음을 주지요. 우리를 둘러싼 저 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그런데 저 불들이 우리를 태워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음악은 언제나 기쁨과 잔치의 표시예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다음 장에서 드러난다.

---

1. 그리스인 기사단장: 에르난 누녜스 데 톨레도(1475?~1553). 살라망카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친 인문학자로, 그가 모은 에스파냐 속담집이 그가 죽은 뒤인 1555년에 나왔다.

제35장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일에 관해 들은 소식이 이어지고 다른 놀라운 일들

그 즐거운 음악 가락에 맞추어 이른바 개선 수레라는 것이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수레는 잿빛 노새 여섯 마리가 끌었는데, 노새들은 흰 아마포 덮개를 둘렀고, 노새마다 역시 흰옷을 입은 채찍 고행자가 한 사람씩 불 밝힌 커다란 밀랍 횃불을 손에 들고 타고 있었다. 수레는 앞서 지나간 수레들보다 두 배, 아니 세 배는 컸고, 그 양옆과 위에는 눈처럼 흰 채찍 고행자 열둘이 저마다 불 밝힌 횃불을 들고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광경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그리고 높이 세운 옥좌에는 요정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은실로 짠 천 너울을 천 겹이나 두르고 그 너울마다 수없이 많은 금박 장식이 반짝여서, 값지게 차려입었다고는 못해도 적어도 눈부시게 차려입은 것만은 틀림없었다. 요정은 비쳐 보이는 얇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그 올이 가리지 못해 올 사이로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이 드러났고, 수많은 불빛 덕분에 그 아름다움과 나이를 가려 볼 수 있었다. 나이는 스물에 이르지 못했고 열일곱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 곁에는 이른바 발까지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머리를 검은 너울로 덮은 형체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수레가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 바로 맞은편에 이르자 치리미아 피리 소리가 그치고, 이어 수레에서 울리던 하프와 류트 소리도 그쳤다. 그러자 긴 옷을 입은 형체가 일어서서 옷을 양쪽으로 젖히고 얼굴의 너울을 벗었는데, 살점 하나 없고 흉측한

죽음의 모습 그 자체임이 똑똑히 드러났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언짢아졌고 산초는 겁에 질렸으며 공작 부부도 얼마쯤 무서워하는 시늉을 했다. 이 살아 있는 죽음은 일어서서 몸을 세운 채 조금 잠긴 목소리와 그다지 또렷하지 않은 혀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메를린, 이야기책들이 말하기를
악마를 아비로 두었다는 바로 그 사람,
(세월이 보증해 준 거짓말이로다)
마법의 군주요 제왕이며
조로아스터 학문의 서고이니라.
세월과 세기들에 맞서는 자이니,
세월과 세기는 내가 예전에도 지금도
크게 아끼는 용감한 편력 기사들의
무훈을 덮어 가리려 하는도다.
마법사들, 술사들, 마술사들의
성품은 언제나 모질고
거칠고 억세다 하나,
내 성품은 여리고 부드럽고 다정하여
뭇사람에게 좋은 일 하기를 즐기노라.
디스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내 영혼이 마름모와 부적 글자를
그리며 소일하고 있을 때,
아름답고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내게 닿았도다.
나는 아씨가 마법에 걸린 일과 그 불행을,
고귀한 귀부인에서 촌스러운 시골 여자로
모습이 바뀐 일을 알고 가엾이 여겨,
내 넋을 이 무시무시하고 사나운
해골 속 빈 곳에 가두고,
악마 같고 추한 이 내 학문의
책 십만 권을 뒤적인 끝에,
그토록 큰 아픔, 그토록 큰 화에
알맞은 처방을 주러 왔노라.

오, 강철과 금강석의 겉옷을 입는
모든 이의 영광이요 명예인 그대여,
게으른 잠과 한가한 깃털 이불을
버리고 피 흘리는 무거운 무기를
견딜 수 없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빛이요 등불이요 길이요 북극성이요 길잡이인 그대여!
그대에게 말하노라, 오, 마땅한 만큼
칭송받은 적 없는 사람이여! 그대에게, 용감하고
아울러 슬기로운 돈키호테여,
라만차의 광채요 에스파냐의 별이여,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그대의 종자 산초가
제 손으로 채찍질 삼천삼백 대를
그 용감한 두 엉덩이에,
바람에 드러내 놓고, 그것도
쓰리고 쓰라리고 성가시도록 때려야 하느니라.
아씨의 불행을 지어낸 자들이
모두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것을 알리러 내가 왔노라, 귀인들이여."

"제기랄!" 이때 산초가 말했다. "삼천 대는커녕, 칼 세 번 찔리는 것만큼이나 세 대도 못 때리겠어요. 마법을 푸는 방법이 그 따위라니 악마나 물어 가라지! 제 엉덩이가 마법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맹세코, 메를린 나리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마법에서 풀어 줄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셨다면, 그 아씨는 마법에 걸린 채로 무덤에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내 자네를 붙잡겠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촌놈 양반아, 마늘 냄새 풀풀 나는 사람아. 자네를 자네 어미가 낳아 준 그대로 벌거벗겨 나무에 묶겠네. 그리고 삼천삼백 대는커녕 육천육백 대를 때려 주겠네. 어찌나 단단히 박아 주는지 삼천삼백 번을 잡아당겨도 떨어지지 않을 걸세. 그리고 나한테 한마디도 말대꾸하지 말게. 그랬다간 자네 넋을 뽑아 버리겠네."

그 말을 듣고 메를린이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오. 착한 산초가 받을 채찍질은 억지로가 아니라 제 뜻으로, 제가 원하는 때에 받아야 하오. 정해 둔 기한은 없소. 다만 그가 원한다면 이 매질의 절반은 남의 손을 빌려 고역을 덜 수 있게 허락하겠소. 그 손이 좀 무거울지라도 말이오."

"남의 손이든 제 손이든, 무거운 손이든 무거운 마음이든" 산초가 맞받았다. "어떤 손도 저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제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낳기라도 했나요? 그 아씨 눈이 지은 죄를 왜 제 엉덩이가 갚아야 하죠? 제 주인 나리라면 몰라도요. 나리는 그 아씨의 일부잖아요. 걸핏하면 아씨를 '내 생명, 내 영혼, 나의 양식이요 기둥'이라고 부르시니까요. 그러니 나리께서는 아씨를 위해 스스로 채찍질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셔야 하고, 아씨를 마법에서 풀어 드리는 데 필요한 온갖 애를 다 쓰실 수 있고 또 쓰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저를 채찍질한다고요……? 아베르눈시오(abernuncio)!"

산초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메를린의 넋 곁에 있던 은빛 요정이 일어서서 얼굴의 얇은 너울을 벗었다. 드러난 얼굴은 모두가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요정은 사내 같은 거침없는 태도로, 그리 곱지 않은 목소리로 산초 판사에게 곧바로 말했다.

"오, 불운한 종자야, 텅 빈 항아리 같은 놈아, 코르크나무 심장에 조약돌과 부싯돌 같은 창자를 지닌 놈아! 이 남의 낯가죽 벗기는

도둑놈아, 높은 탑에서 땅으로 뛰어내리라고 했다면, 이 인류의 원수야, 두꺼비 한 다스와 도마뱀 두 다스와 뱀 세 다스를 먹으라고 했다면,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언월도로 네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라고 꼬드겼다면, 네가 까다롭게 굴고 꽁무니를 뺀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겠지. 그러나 아무리 못난 아이라도 교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달마다 맞는 삼천삼백 대의 채찍질을 두고 이리 법석을 떨다니, 이 말을 듣는 이들의 모든 자비로운 창자와, 앞으로 세월이 흘러 이 일을 알게 될 모든 이의 창자까지도 놀라고 기가 막히고 질겁하는구나. 오, 비참하고 굳어 버린 짐승아, 그 겁 많은 노새 새끼 같은 네 눈을, 반짝이는 별에 견주는 내 이 두 눈의 눈동자에 맞추어 보아라. 그러면 그 눈이 한 올 한 올, 한 타래 한 타래 눈물을 흘리며 내 뺨의 아름다운 들판에 고랑과 길과 오솔길을 내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능구렁이 같고 속 검은 괴물아, 마음을 움직여라. 아직 열몇 살, 그러니까 열아홉이고 스물이 채 안 된 이토록 꽃다운 내 나이가 촌스러운 농사꾼 여자의 껍데기 속에서 시들고 말라 가고 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기 계신 메를린 나리께서 오로지 내 아름다움으로 너를 녹이려고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이다. 괴로워하는 아름다운 이의 눈물은 바위를 솜으로, 호랑이를 양으로 바꾸어 놓느니라. 때려라, 그 두툼한 살덩이를 때려라, 이 길들지 않은 큰 짐승아. 먹고 또 먹는 데로만 쏠리는 네 그 기운을 게으름에서 끌어내어라. 그리고 내 살결의 매끄러움과 내 성품의 온순함과 내 얼굴의 아름다움을 풀어 주어라. 나를 위해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려 이치에 맞는 데로 돌아설 생각이 없다면, 네 곁에 있는 저 가엾은 기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거라. 네 주인 말이다. 나는 지금 그분의 넋을 보고 있는데, 그 넋은 입술에서 열 손가락쯤 떨어진 목구멍에 걸려 있어서, 네 매몰찬 대답이나 부드러운 대답을 기다려 입 밖으로 빠져나가든지 배 속으로 되돌아가든지 하려 할 뿐이니라."

이 말을 듣자 돈키호테는 목을 더듬어 보고는 공작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코, 공작님, 둘시네아의 말이 참말이오. 내 넋이 쇠뇌의 시위걸이처럼 여기 목구멍에 걸려 있소."

"이 말에 자네는 뭐라고 하겠나, 산초?" 공작 부인이 물었다.

"마님, 제 말은요" 산초가 대답했다. "아까 한 말 그대로예요. 채찍질이라면 아베르눈시오라는 거예요."

"'아브레눈시오(abrenuncio, 끊어 버리노라)'라고 해야지, 산초, 자네처럼 말하면 안 되네." 공작이 말했다.

"높으신 나리, 저를 내버려 두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지금은 자잘한 걸 따지거나 글자 하나 더 있느니 덜 있느니 살필 때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때릴 채찍질인지 제가 저한테 때려야 할 채찍질인지 그것 때문에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아씨 마님 도냐 둘시나 델 토보소께서는 그런 부탁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셨는지 알고 싶네요. 채찍질로 제 살을 터뜨려 달라고 부탁하러 오셔서는, 저를 텅 빈 항아리라느니 길들지 않은 큰 짐승이라느니, 악마나 참아 줄 욕을 한 보따리 퍼붓거든요. 제 살이 청동으로 되어 있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아씨가 마법에서 풀리든 말든 제게 무슨 득이라도 있나요? 저를 누그러뜨리려고 앞에 무슨 바구니를 내놓으셨나요? 흰 속옷이나 셔츠나 머릿수건이나 덧양말 같은 걸 담은 바구니 말이에요. 저야 그런 건 쓰지도 않지만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욕에 또 욕뿐이잖아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속담도 다 아실 텐데요. 금을 실은 당나귀는 산을 가볍게 오르고, 선물은 바위도 깨뜨리고, 하느님께 빌면서 망치질은 해야 하고, '주마' 두 번보다 '받아라' 한 번이 낫다는 속담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인 나리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고 달래서 제가 양털이나 빗질한 솜처럼 말랑해지게 해

주셔야 할 판에, 저를 붙잡으면 벌거벗겨 나무에 묶고 채찍질을 곱절로 늘리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딱하신 나리님들께서는 채찍질하라고 하시는 상대가 종자일 뿐 아니라 통치자라는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말하자면 '버찌 띄운 술이나 마셔라' 하는 격이라니까요. 부탁하는 법이며 청하는 법이며 예의 차리는 법을 배우시라고요, 재수 옴 붙게 실컷 배우시라고요. 때가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늘 기분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초록 윗옷이 찢어진 걸 보고 속이 터질 지경인데, 저더러 제 뜻으로 저를 채찍질하라고 하러 오시다니요. 제 뜻은 제가 인디오 추장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런 일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그렇다면 정말이지, 여보게 산초" 공작이 말했다. "자네가 잘 익은 무화과보다 더 말랑해지지 않으면 통치권을 손에 쥐지 못할 걸세. 괴로워하는 처녀들의 눈물에도, 슬기롭고 위엄 있고 나이 든 마법사와 현자들의 간청에도 굽히지 않는 부싯돌 같은 창자를 지닌 잔인한 통치자를 내 섬사람들에게 보낸다면 그거 참 좋겠군! 요컨대, 산초, 자네가 자네를 채찍질하든지, 남들이 자네를 채찍질하든지, 아니면 통치자가 되지 못하든지 셋 중 하나일세."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한테 어느 쪽이 나은지 생각해 볼 말미를 이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오, 결코 안 되오." 메를린이 말했다.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오. 그러지 않으면 둘시네아는 몬테시노스 동굴로, 그리고 본래의 농사꾼 여자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모습 그대로 엘리시온 들판으로 실려 가서 거기서 매질의 수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게 될 것이오."

"자, 착한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기운을 내고, 돈키호테 나리께 얻어먹은 빵에 보답을 잘하게. 그분의 좋은 성품과 드높은 기사도를

보아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섬기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하네. 이 매질을 하겠다고 대답하게, 여보게. 악마는 악마에게로, 두려움은 겁쟁이에게로 가라고 하게. 자네도 잘 알다시피 좋은 마음은 나쁜 운수를 꺾는 법이니까."

이 말에 산초는 이런 엉뚱한 말로 대답했다. 메를린에게 대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메를린 나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그 전령 악마가 여기 와서 제 주인 나리께 몬테시노스 나리의 전갈을 전하면서, 그분이 도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를 마법에서 풀 방도를 일러 주러 오시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분 대신 말했는데, 지금까지 몬테시노스도, 그 비슷한 사람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 말에 메를린이 대답했다.

"여보시오 산초, 그 악마는 무식한 데다 아주 지독한 악당이오. 내가 그를 그대 주인에게 보냈으나 몬테시노스의 전갈이 아니라 내 전갈을 가지고 가게 했소. 몬테시노스는 자기 동굴에서 자기 마법이 풀리기를 궁리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오. 그 일은 아직 꼬리 가죽을 벗길 일이 남았소. 그가 그대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그와 볼일이 있다면 내가 그를 데려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겠소. 그러니 지금은 이 매질을 하겠다는 대답이나 마저 하시오. 그것이 그대 영혼에도 몸에도 크게 이로우리라는 것을 믿으시오. 영혼에 이로운 것은 그대가 자비심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이고, 몸에 이로운 것은 그대가 다혈질 체질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피를 조금 뽑아도 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오."

"세상에는 의사도 많네요. 마법사들까지 의사니까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래도 다들 그러라고 하시니, 저는 그런 줄 모르겠지만, 삼천삼백 대를 제게 때리겠다고 하는 데 동의합니다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채찍질은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 때리는 것이고, 날짜나 기한은 정하지 않는 겁니다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 빚에서 벗어나도록 애쓸게요. 세상 사람들이 도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말이에요. 보아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거꾸로, 그 아씨는 정말로 아름다우신가 봐요. 또 하나 조건은, 채찍질로 피를 낼 의무는 없다는 것, 그리고 파리 쫓듯 가볍게 때린 매도 셈에 넣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수를 잘못 세면 모든 걸 다 아시는 메를린 나리께서 수를 세어 두셨다가 모자라는 매나 남는 매를 알려 주셔야 해요."

"남는 매는 알려 줄 필요가 없을 것이오." 메를린이 대답했다. "수가 다 차는 대로 둘시네아 아씨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마법에서 풀려나, 고마움을 아는 분답게 착한 산초를 찾아와 그 좋은 일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상까지 줄 테니 말이오. 그러니 남는 매든 모자라는 매든 걱정할 것 없소. 하늘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를, 머리털 한 올만큼이라도 말이오."

"자, 그럼, 하느님 손에 맡기고!" 산초가 말했다. "제 불운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그 고행을 받아들이겠어요."

산초가 이 마지막 말을 하자마자 치리미아 피리 소리가 다시 울리고 수없이 많은 화승총이 다시 불을 뿜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목에 매달려 그의 이마와 뺨에 천 번이나 입을 맞추었다. 공작 부인과 공작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더없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고, 수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둘시네아는 지나가면서 공작 부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산초에게 깊이 절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벌써 새벽이 즐겁게 웃으며 서둘러 다가오고 있었다. 들의 작은 꽃들은 고개를 들어 꼿꼿이 섰고, 시냇물의 맑은 수정들은 희고 잿빛 나는 조약돌 사이로 졸졸거리며 자기들을 기다리는 강에

공물을 바치러 갔다. 즐거운 땅,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 고요한 빛이 저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새벽의 옷자락을 밟으며 오는 그날이 고요하고 맑으리라는 것을 뚜렷이 알려 주었다. 공작 부부는 사냥에,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그토록 재치 있고 멋지게 이룬 것에 흡족해하며 성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장난을 더 이어 갈 작정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진지한 일도 장난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36장 트리팔디 백작 부인, 일명 슬픔의 시녀 부인의 기이하고 일찍이 상상도 못 한 모험과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이야기한다

공작에게는 아주 익살스럽고 거리낌 없는 재주를 지닌 집사가 하나 있었다. 메를린 노릇을 하고 지난 모험의 장치를 모두 꾸민 것도, 시를 지은 것도, 시동 하나에게 둘시네아 노릇을 시킨 것도 그였다. 그는 마침내 주인 부부의 손을 빌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습고 기이한 장치로 된 모험을 하나 더 꾸몄다.

이튿날 공작 부인은 산초에게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려고 해야 하는 고행을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시작했다고, 그날 밤 자기에게 다섯 대를 때렸다고 했다. 공작 부인이 무엇으로 때렸느냐고 묻자 그는 손으로 때렸다고 대답했다.

"그건" 공작 부인이 맞받았다. "채찍질이라기보다 손바닥으로 철썩철썩 두드린 것이지. 내 생각에 현자 메를린은 그렇게 무른 매질로는 흡족해하지 않을 걸세. 착한 산초는 엉겅퀴 가시가 박힌 채찍이나 매듭 지은 끈 채찍처럼 아픔이 느껴지는 채찍으로 고행을 해야 할 걸세. 글은 피를 흘려야 들어가는 법이고, 둘시네아처럼 그토록 높으신 아씨의 자유를 그토록 헐값에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리고 산초는 알아 두게. 미지근하고 맥없이 하는 자선 행위는 공덕도 없고 아무 값어치도 없다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마님께서 알맞은 채찍이나 끈을 하나 주세요. 너무 아프지만 않으면 그걸로 제게 때리겠어요. 마님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촌사람이어도 제 살은 에스파르토 풀보다는 솜에 더 가깝거든요. 남 좋은 일 하자고 제 몸을 망가뜨리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세."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내일 자네에게 꼭 알맞은 채찍을 하나 주겠네. 자네 살의 연함에 꼭 맞아서 친자매처럼 어울릴 걸세."

그 말에 산초가 말했다.

"마님, 제 영혼의 마님, 알아 두세요. 저는 제 마누라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한 통 써 두었어요. 마누라 곁을 떠난 뒤로 제게 일어난 일을 모두 알려 주는 편지예요. 여기 품속에 넣어 두었는데, 겉봉만 쓰면 돼요. 슬기로우신 마님께서 그걸 읽어 봐 주셨으면 해요. 통치자다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써야 하는 투로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누가 불러 주었나?" 공작 부인이 물었다.

"죄 많은 이 몸 말고 누가 불러 주었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면 자네가 직접 썼나?" 공작 부인이 말했다.

"어림도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서명은 할 줄 알아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거든요."

"어디 보세." 공작 부인이 말했다. "틀림없이 그 편지에 자네 재주의 됨됨이와 역량이 드러나 있겠지."

산초가 품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꺼냈다. 공작 부인이 받아 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좋은 매를 맞았더라면 나는 좋은 기사가 되었을 거고, 좋은 통치를 얻으려니 좋은 매를 맞아야 하는구려. 테레사, 이 말은 지금은 당신이 못 알아들을 거야. 다음에 알게 되겠지. 테레사, 알아 둬. 나는 당신이 마차를 타고 다니게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게 중요한 일이야. 다른 걸 타고 다니는 건 다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은 통치자의 아내야. 이제 누가 감히 당신 뒤꿈치를 갉아먹겠어! 여기 초록 사냥 옷 한 벌을 보내. 공작 부인 마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그걸 고쳐서 우리 딸 치마랑 윗도리를 지어 줘. 내 주인 돈키호테 나리는 이 고장에서 들은 말로는 정신 멀쩡한 미치광이에 익살스러운 얼간이래. 그리고 나도 그분한테 뒤지지 않는대. 우리는 몬테시노스 동굴에 다녀왔고, 현자 메를린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마법을 푸는 데 나를 붙잡았어. 둘시네아는 거기서는 알돈사 로렌소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때려야 할 삼천삼백 대에서 다섯 대 뺀 매를 다 때리면, 그 여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큼이나 마법에서 깨끗이 풀릴 거야.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일을 마을 회의에 내놓으면 어떤 사람은 희다 하고 어떤 사람은 검다 할 테니까. 며칠 뒤에 나는 통치하러 떠나.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아서 가는 거야. 새로 가는 통치자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 들었거든. 가서 형편을 짚어 보고 당신이 나랑 같이 살러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려 줄게. 잿빛 당나귀는 잘 있고 당신한테 안부를 아주 많이 전해 달래. 사람들이 나를 튀르크 대황제로 데려간다 해도 나는 그놈을 버리지 않을 거야. 공작 부인 마님께서 당신 손에 천 번 입을 맞추신대. 당신은 이천 번으로 답례를 해. 내 주인 나리 말씀으로는 정중한 인사만큼 돈이 덜 들고 값싸게 먹히는 건 없다니까. 지난번처럼 에스쿠도 백 닢이 든 가방을 하느님께서 또 마련해 주시지는 않았어. 그래도 테레사, 걱정 마. 종 치는 사람은 안전한 데 있고,

통치라는 빨래를 하고 나면 다 빠져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그 맛을 보면 그게 좋아서 손가락을 빨게 될 거라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커. 그렇게 된다면 그건 나한테 싼값이 아닐 거야. 하기야 불구자와 외팔이들은 구걸하는 동냥으로 참사회원 녹봉 같은 걸 받고 있으니, 어느 길로든 당신은 부자가 될 거고 운이 트일 거야. 하느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 그 운을 주시고, 나는 당신을 섬기도록 지켜 주시기를. 이 성에서, 1614년 7월 20일.

당신의 남편 통치자,

산초 판사.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공작 부인이 산초에게 말했다.

"착한 통치자는 두 가지에서 길을 조금 잘못 들었네. 하나는 이 통치가 앞으로 자기가 맞을 매 때문에 주어졌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게 한 것일세. 내 남편 공작께서 그에게 통치를 약속하셨을 때는 세상에 채찍질이라는 게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다른 하나는 이 편지에서 몹시 욕심 사나워 보인다는 것일세. 오레가노 같은 향초가 아닐까 봐 걱정이네. 욕심이 자루를 찢는 법이고, 욕심 많은 통치자는 정의를 엉망으로 다스리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마님."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으시면 찢어 버리고 새로 쓰면 그만이에요. 하기야 제 머리에 맡겨 두시면 더 나빠질지도 모르지만요."

"아니, 아니." 공작 부인이 맞받았다. "이것으로 좋네. 공작께도 보여 드려야겠어."

그러고는 그날 식사를 하기로 한 정원으로 갔다. 공작 부인이 산초의 편지를 공작에게 보여 주자 공작은 몹시 즐거워했다. 식사를 하고 식탁보를 걷은 뒤 산초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주 구슬픈 피리 소리와, 쉬고 가락이 맞지 않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 뒤엉키고 무인답고 구슬픈 가락에 술렁이는 기색을 보였는데, 돈키호테가 특히 그러해서 너무 술렁인 나머지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했다. 산초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그를 늘 찾는 피난처인 공작 부인의 곁, 아니 치마폭으로 데려갔다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들려오는 소리가 정말로, 참으로 구슬프고 우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두 넋을 놓고 있는데, 상복을 입은 사내 둘이 정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상복이 어찌나 길게 늘어졌던지 땅에 질질 끌렸다. 두 사내는 역시 검은 천을 씌운 커다란 북 두 개를 치며 왔고, 그 곁에는 다른 이들처럼 새까맣게 차려입은 피리꾼이 따랐다. 그 셋 뒤로 거인 같은 몸집의 사람 하나가 왔는데, 입었다기보다 둘렀다고 해야 할 새까만 긴 웃옷 차림이었고, 그 옷자락 또한 터무니없이 컸다. 긴 웃옷 위로 역시 검은 넓은 칼띠가 허리를 감고 비스듬히 가로질렀고, 거기에 손잡이 장식도 칼집도 검은 엄청나게 큰 언월도가 매달려 있었다. 얼굴은 비쳐 보이는 검은 너울로 가렸는데, 그 너울 사이로 눈처럼 흰 아주 긴 수염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는 북소리에 맞추어 아주 엄숙하고 차분하게 걸음을 옮겼다. 요컨대 그 덩치와 그 거드름 피우는 걸음과 그 새까만 차림과 그 수행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바라보는 모든 이를 넋 놓게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넋 놓게 했다.

그는 앞서 말한 그 느린 걸음과 거드름으로 다가와, 거기 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서서 그를 기다리던 공작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공작은 그가 일어서기 전에는 결코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 놀라운 허수아비는 그렇게 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얼굴의 가리개를 들어 올리고, 그때까지 사람의 눈이 본 적이 없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길고 가장 희고 가장 숱 많은 수염을 드러냈다. 이어 넓고 두툼한 가슴에서

엄숙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끌어내고 뽑아내더니 공작에게 눈길을 두고 말했다.

"지극히 높고 힘 있는 나리, 저는 흰 수염의 트리팔딘이라 불리나이다. 트리팔디 백작 부인, 다른 이름으로는 슬픔의 시녀 부인이라 불리는 분의 종자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높으신 나리께 전갈을 가져왔나이다. 그 전갈인즉, 장엄하신 나리께서 백작 부인께 들어와 나리께 자신의 시름을 아뢸 수 있도록 허락과 승낙을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이나이다. 그 시름은 세상에서 가장 시름에 겨운 생각이 떠올릴 수 있는 시름 가운데 가장 새롭고 가장 놀라운 시름 하나이나이다. 그리고 백작 부인께서는 먼저 용맹하고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께서 이 나리의 성에 계신지 알고 싶어 하시나이다. 백작 부인께서는 그분을 찾아 칸다야 왕국에서 이 나리의 영지까지 걸어서, 아침도 들지 않고 오셨으니, 이는 기적이나 마법의 힘으로 여길 수 있고 또 여겨야 마땅한 일이나이다. 백작 부인께서는 이 요새, 아니 별장 문 앞에 계시며 나리의 승낙만 기다리고 계시나이다. 말씀드렸나이다."

그러고는 기침을 하고 두 손으로 수염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는 아주 차분하게 공작의 대답을 기다렸다. 공작의 대답은 이러했다.

"훌륭한 종자, 흰 수염의 트리팔딘이여, 마법사들이 슬픔의 시녀 부인이라 불리게 만든 트리팔디 백작 부인의 불행은 우리가 여러 날 전부터 소식을 들어 알고 있소. 놀라운 종자여, 백작 부인께 들어오시라 전하고, 용감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께서 여기 계시니 그 너그러운 성품에 기대어 온갖 보호와 온갖 도움을 틀림없이 약속받으실 수 있다고 전해도 좋소. 그리고 내 호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모자라지 않으리라고 내 말로 전해도 좋소. 나는 기사이니 이미 백작 부인께 호의를 베풀 의무가 있소. 온갖 여인, 특히 백작 부인께서 그러하시듯 과부가 되고

몰락하고 슬픔에 잠긴 시녀 부인들을 돕는 것은 기사에게 딸린 일이요 기사가 맡은 일이기 때문이오."

그 말을 듣자 트리팔딘은 무릎을 땅에 닿도록 굽히고, 피리꾼과 북잡이들에게 연주하라고 신호하고는, 들어올 때와 같은 가락, 같은 걸음으로 정원을 나갔다. 모두가 그의 풍채와 몸가짐에 감탄하며 남았다. 공작은 돈키호테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결국, 이름난 기사여, 악의의 어둠도 무지의 어둠도 용맹과 덕의 빛을 덮어 가리고 흐리게 할 수는 없구려. 이 말을 하는 것은 착하신 나리께서 이 성에 오신 지 겨우 엿새도 안 되었는데 벌써 멀고 먼 땅에서 나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오. 그것도 마차나 단봉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굶은 채로 말이오. 슬픈 이들, 괴로운 이들이 온 땅의 알려진 곳을 다 돌며 퍼지는 나리의 위대한 무훈 덕분에 그 더없이 힘센 팔에서 자기들의 시름과 고난을 풀 길을 찾으리라 믿고서 말이오."

"공작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난번 식탁에서 편력 기사들에 대해 그토록 고약한 마음과 그토록 지독한 미움을 드러낸 그 축복받은 성직자가 지금 여기 있었으면 좋겠소. 그런 기사들이 세상에 필요한지 제 눈으로 보도록 말이오. 적어도 그는 이것을 손으로 만져 보듯 알게 되었을 것이오. 남달리 괴롭고 위로받을 길 없는 이들은 큰일을 당하거나 엄청난 불행에 빠졌을 때 학자들의 집이나 마을 성당지기의 집에 해결책을 찾으러 가지 않고, 자기 마을 경계 밖으로 한 번도 나가 본 적 없는 기사에게도, 남들이 이야기하고 쓸 만한 일과 무훈을 하려 애쓰기보다 남에게 늘어놓고 들려줄 소식이나 찾아다니는 게으른 궁정 사람에게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오. 시름을 풀어 주고, 궁핍한 이를 구해 주고, 처녀들을 지켜 주고, 과부들을 위로하는 일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서도 편력 기사에게서만큼 잘 찾을 수 없소. 내가 편력 기사인 것을 하늘에 한없이 감사드리며, 이토록 명예로운 일을 하다가 내게

닥칠 수 있는 어떤 불운이나 고난도 아주 값지게 쓰인 것으로 여기오. 그 시녀 부인을 오게 하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청하게 하시오. 내 팔의 힘과 내 용감한 정신의 두려움 없는 결단으로 그 해결책을 내어 주겠소."

제37장 슬픔의 시녀 부인의 이름난 모험이 이어진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가 자기들의 뜻에 그토록 잘 맞추어 대답해 나가는 것을 보고 더없이 즐거워했다. 이때 산초가 말했다.

"이 시녀 부인 마님이 제 통치 약속에 무슨 걸림돌이라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울새처럼 말을 잘하던 톨레도의 어느 약방 주인한테서, 시녀 부인들이 끼어드는 데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고 맙소사, 그 약방 주인이 시녀 부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러니 제가 끌어내는 결론은, 시녀 부인들은 어떤 신분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같이 성가시고 주제넘은데, 이 트리팔디, 그러니까 세 치마(tres faldas) 백작 부인, 아니 세 꼬리 백작 부인처럼 슬픔에 잠겼다고들 하는 시녀 부인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장에서는 치마든 꼬리든, 꼬리든 치마든 다 그게 그거거든요."

"잠자코 있거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시녀 부인 마님은 그토록 먼 땅에서 나를 찾아오셨으니 그 약방 주인이 꼽던 무리에 들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분은 백작 부인이시다. 백작 부인들이 시녀 부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여왕이나 황후를 섬기는 것일 테고, 그런 분들은 자기 집에서는 다른 시녀 부인들의 시중을 받는 지체 높은 마님들이시다."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도냐 로드리게스가 대답했다.

"우리 공작 부인 마님을 모시는 시녀 부인들 가운데에도 운이 따랐다면 백작 부인이 될 수 있었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법은 임금님 원하시는 데로 가는 법이지요. 그러니 아무도 시녀 부인들, 그것도 나이 든 처녀 시녀 부인들을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처녀가 아니지만 처녀 시녀 부인이 과부 시녀 부인보다 나은 점은 잘 알고 훤히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털 깎은 사람은 가위가 손에 그대로 남았답니다."

"그래도요" 산초가 맞받았다. "제 이발사 말로는 시녀 부인들한테는 깎을 털이 어찌나 많은지, 쌀이 눌어붙더라도 휘젓지 않는 게 낫다던데요."

"종자들은 언제나" 도냐 로드리게스가 대답했다. "우리의 원수라네. 대기실의 도깨비들이라 걸핏하면 우리를 보니, 기도하지 않는 틈만 나면, 그런 틈은 많기도 하다네, 우리를 헐뜯는 데 그 틈을 쓰지. 우리 뼈를 파내고 우리 평판을 파묻으면서 말일세. 그러니 이 움직이는 통나무들한테 내가 일러두겠네.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도 지체 높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행렬하는 날 거름 더미를 양탄자로 덮거나 가리듯이 연한 살이든 연하지 않은 살이든 우리 살을 검은 수녀복으로 덮는 한이 있어도 말일세. 맹세코, 내게 허락되고 때가 그것을 원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시녀 부인 안에 깃들지 않은 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 줄 텐데."

"내 생각에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우리 착한 도냐 로드리게스 말이 옳고, 아주 옳네. 그러나 자기와 다른 시녀 부인들을 변호하고 그 고약한 약방 주인의 나쁜 생각을 꺾고 위대한 산초 판사의 가슴에 박힌 생각을 뽑아 버리려면 때를 기다려야 하겠지."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통치자 티가 연기처럼 오르고 나서부터 종자 시절의 어지럼증은 싹 가셨어요. 그러니 세상 시녀 부인들이 다 모여도 야생 무화과 한 알만큼도 상관없어요."

피리와 북이 다시 울리는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시녀 부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를 더 이어 갔을 것이다. 그 소리로 그들은 슬픔의 시녀 부인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 공작 부인은 공작에게, 백작 부인이요 지체 높은 분이니 마중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백작 부인이라는 점으로 보면" 공작이 대답하기도 전에 산초가 대답했다. "높으신 두 분께서 마중을 나가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녀 부인이라는 점으로 보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시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누가 너더러 이 일에 끼어들라고 하더냐,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누구냐고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끼어드는 거죠. 저는 끼어들 수 있으니까요. 온 궁정을 통틀어 가장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기사이신 나리의 학교에서 예의범절을 배운 종자니까요. 그리고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일에서는 패가 남아서 지나 모자라서 지나 지기는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말이 적어도 된다고요."

"산초 말대로요." 공작이 말했다. "백작 부인의 풍채를 보고 그것으로 그분께 드려야 할 예의를 가늠해 봅시다."

그러는 사이에 북잡이들과 피리꾼이 처음처럼 들어왔다.

그리고 작가는 여기서 이 짧은 장을 끝내고, 같은 모험을 이어 가며 다음 장을 시작했다. 이 모험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험 가운데 하나다.

제38장 슬픔의 시녀 부인이 자신의 불운을 털어놓은 이야기

구슬픈 악사들 뒤로 시녀 부인 열둘쯤이 두 줄로 나뉘어 정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모두 축융한 거친 모직으로 보이는 넓은 수녀복을 입고, 얇은 무명으로 된 흰 두건을 썼는데, 두건이 어찌나 길었던지 수녀복의 단만 겨우 드러났다. 그들 뒤로 트리팔디 백작 부인이 왔는데, 흰 수염의 종자 트리팔딘이 그 손을 잡고 이끌었다. 백작 부인은 아직 보풀을 일으키지 않은 더없이 고운 검은 바예타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천에 보풀을 일으켰더라면 올 하나하나가 마르토스산 좋은 병아리콩만 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 옷의 꼬리, 아니 치마, 아니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끝이 셋으로 갈라져 있었고, 역시 상복을 입은 시동 셋이 그 세 끝을 손에 받쳐 들고 있었다. 세 끝이 이루는 세 예각이 보기 좋고 수학적인 도형을 그려 냈으므로, 그 뾰족한 치마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치마 때문에 백작 부인이 트리팔디, 말하자면 세 치마 백작 부인이라 불리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베넹헬리는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부인의 본디 성은 로부나(늑대) 백작 부인이었는데, 그 백작령에서 늑대가 많이 자랐기 때문이며, 늑대가 아니라 여우였다면 소루나(여우) 백작 부인이라 불렸을 것이라고 한다. 그 지방에서는 영주들이 자기 영지에 가장 많은 것에서 이름을 따오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백작 부인은 자기 치마의 새로움을 내세우려고 로부나를 버리고 트리팔디를 택했다고 한다.

열두 시녀 부인과 그 마님은 행렬 걸음으로 왔다. 얼굴은 검은 너울로 가렸는데, 트리팔딘의 너울처럼 비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비쳐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한 너울이었다.

시녀 부인 부대가 모습을 다 드러내자 공작과 공작 부인과 돈키호테, 그리고 그 느릿한 행렬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열두 시녀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길을 터 주자, 슬픔의 시녀 부인이 트리팔딘에게 손을 잡힌 채 그 가운데로 나왔다. 그것을 본 공작과 공작 부인과 돈키호테는 열두 걸음쯤 나아가 그를 맞았다. 부인은 땅에 무릎을 꿇고, 가늘고 고운 목소리라기보다 굵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높으신 여러분께서는 이 하인 놈에게, 아니 이 하인 년에게 그토록 예를 차리지 마소서. 이 몸이 하도 슬픔에 잠겨 있어 마땅히 드려야 할 대답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이나이다. 기이하고 일찍이 본 적 없는 저의 불운이 제 분별을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는데, 아주 먼 곳인가 보나이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나이다."

"백작 부인" 공작이 대답했다. "부인의 모습에서 부인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분별이 없는 사람일 것이오. 그 값어치는 더 볼 것도 없이 예의의 정수와 교양 있는 격식의 꽃을 모두 받을 만하오."

그리고 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공작 부인 곁의 의자로 데려가 앉혔다. 공작 부인도 아주 정중하게 부인을 맞았다.

돈키호테는 잠자코 있었고, 산초는 트리팔디와 그 많은 시녀 부인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너울을 벗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모두가 진정하고 조용해지자 누가 그 침묵을 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의 시녀 부인이었고 그 말은 이러했다.

"지극히 힘 있으신 나리, 지극히 아름다우신 마님, 지극히 슬기로우신 여러분, 저의 지극시름이 여러분의 지극히 용맹하신 가슴에서 너그럽고 가엾이 여기는 만큼이나 다정한 환대를 받으리라 믿나이다. 이 시름은 대리석도 녹이고 금강석도 무르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굳은 심장들의 강철도 누그러뜨릴 만한 것이기 때문이나이다. 그러나 이 시름이 여러분의 귀, 아니 귓바퀴라고는 하지 않겠나이다, 그 광장으로 나서기 전에, 이 모임과 이 무리와 이 일행 가운데 지극히 순결하신 기사 지극라만차의 돈키호테와 그의 지극종자 판사가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판사는"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산초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요, 지극돈키호테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지극슬프신 지극시녀 부인께서는 지극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셔도 됩니다요. 저희 모두 지극종이 될 채비가 지극히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일어서서 슬픔의 시녀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괴로우신 부인, 부인의 시름이 어느 편력 기사의 용맹이나 힘으로 풀릴 희망을 바랄 수 있다면, 여기 내 용맹과 힘이 있소. 약하고 보잘것없으나 모두 부인을 섬기는 데 쓰일 것이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온갖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이 내 일이오. 사정이 그러하니, 정말 그러하듯이, 부인은 호의를 사려 애쓰거나 머리말을 찾을 필요 없이, 에두르지 말고 솔직하게 부인의 불행을 말하시오. 그 불행을 풀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귀들이 부인의 말을 듣고 있소."

이 말을 듣자 슬픔의 시녀 부인은 돈키호테의 발아래 몸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더니 정말로 몸을 던져, 그의 발을 끌어안으려고 버둥거리며 말했다.

"오, 무적의 기사여, 이 발과 다리 앞에 몸을 던지나이다. 이것이야말로 편력 기사도의 주춧돌이요 기둥이기 때문이나이다. 그

걸음에 제 불운의 해결이 온통 매달리고 걸려 있는 이 발에 입을 맞추고 싶나이다. 오, 용맹한 편력 기사여, 그대의 참된 무훈은 아마디스들과 에스플란디안들과 벨리아니스들의 꾸며 낸 무훈을 뒤로 밀어내고 빛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두고 산초 판사에게 돌아서서 그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오, 너, 지금 세기에도 지난 세기에도 편력 기사를 섬긴 종자 가운데 가장 충직한 종자여, 여기 와 있는 내 동행 트리팔딘의 수염보다도 착함이 더 긴 자여! 위대한 돈키호테를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무기를 다룬 모든 기사의 무리를 한데 모아 섬기는 셈이라고 자랑해도 좋으리라. 너의 지극히 충직한 착함에 걸고 너에게 간청하노라. 네 주인에게 나를 잘 말해 주어, 그가 곧 이 지극히 비천하고 지극히 불행한 백작 부인을 도와주게 하라."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마님, 제 착함이 마님 종자의 수염만큼 길고 크냐 하는 건 저한텐 별 상관이 없어요. 이승을 떠날 때 제 영혼이 수염과 콧수염을 달고 있으면, 그게 중요하죠. 이승의 수염 따위는 거의, 아니 전혀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그런 구슬림이나 애원이 없어도 제 주인 나리께 부탁드릴게요. 나리께서 저를 아끼시는 걸 알고, 게다가 지금은 어떤 일로 제가 필요하시니까요. 나리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서 마님을 도와드리고 거들어 드리라고요. 마님께서는 시름을 궤짝에서 꺼내 놓으시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 맡겨 두시면 다 서로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일로 공작 부부는 웃다가 배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 모험의 맥을 이미 짚어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속으로 트리팔디의 재치와 시치미를 칭찬했는데, 트리팔디는 다시 자리에 앉아 말했다.

"트라포바나 대섬과 남해 사이, 코모린곶에서 2레과 더 간 곳에 있는 이름난 칸다야 왕국은 도냐 마군시아 여왕이 다스렸나이다. 여왕은 그 주인이자 남편인 아르키피엘라 왕을 여읜 과부였나이다. 그 혼인에서 두 분은 왕국의 상속녀 안토노마시아 공주를 낳으셨나이다. 그 안토노마시아 공주는 제 보살핌과 가르침 아래 자라고 컸으니, 제가 그 어머니의 시녀 부인 가운데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지체 높은 시녀 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날이 오는 사이에 어린 안토노마시아는 열네 살이 되었고, 그 아름다움이 어찌나 완벽했던지 자연도 그보다 더 높일 수는 없었나이다. 그렇다고 분별이 코흘리개였다고 하겠나이까! 공주는 아름다운 만큼 슬기로웠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시샘 많은 운명과 모진 운명의 여신들이 그 목숨의 실을 끊어 버리지만 않았다면 말이나이다. 그러나 끊지 않았을 것이나이다.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송이를 덜 익은 채로 따 가는 것처럼 큰 해를 땅에 끼치는 일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 둔한 혀로는 마땅한 만큼 칭송할 수도 없는 이 아름다움에 이 나라와 다른 나라의 왕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궁정에 있던 어느 평범한 기사 하나가 그 젊음과 늠름함, 그 많은 재주와 매력, 그 재치의 날렵함과 솜씨를 믿고 감히 그토록 큰 아름다움의 하늘에까지 생각을 끌어올렸나이다. 높으신 여러분께서 언짢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아뢰거니와, 그는 기타를 쳤다 하면 기타가 말을 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시인이요 대단한 춤꾼이었으며, 새장을 만들 줄도 알아서 몹시 궁할 때면 새장만 만들어도 먹고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재주와 매력은 연약한 처녀는 말할 것도 없고 산 하나라도 무너뜨릴 만한 것이었나이다. 그러나 그 낯가죽 벗기는 도둑놈이 먼저 저를 무너뜨리는 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늠름함과 멋과 매력과 재주로도 제 아기씨의

요새를 함락하는 데 별로, 아니 전혀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흉악하고 넋 빠진 떠돌이는 먼저 제 마음을 얻고 제 비위를 매수하려 들었으니, 고약한 성지기인 제가 제가 지키던 요새의 열쇠를 자기에게 넘겨주게 하려 함이었나이다. 결국 그는 무슨 장신구니 노리개니 하는 것을 주어 제 분별에 아첨하고 제 마음을 굴복시켰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엎드리게 하고 바닥에 쓰러뜨린 것은 어느 날 밤 그가 서 있던 골목길로 난 창살에서 제가 들은 노래였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러했나이다.

나의 달콤한 원수에게서
영혼을 찌르는 아픔이 생겨나네,
게다가 더 큰 괴로움은
느끼되 말하지 말라는 것.

그 노래는 진주 같았고 그 목소리는 꿀 같았나이다. 그 뒤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시와 비슷한 시들 때문에 제가 빠진 화를 보면서, 질서 바르고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플라톤이 권했듯이 시인들을, 적어도 음란한 시인들은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노래는 아이와 여자들을 즐겁게 하고 울리는 만토바 후작의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가시처럼 영혼을 꿰뚫고 번개처럼 영혼을 다치게 하면서도 옷은 멀쩡히 두는 날카로운 재담들이기 때문이나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노래했나이다.

오라, 죽음이여, 그토록 숨어서
네가 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죽는 기쁨이
내게 다시 목숨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부류의 다른 짧은 노래와 후렴들을 불렀는데, 부르면 넋을 빼놓고 쓰면 넋을 잃게 하는 것들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렵 칸다야에서 쓰던 세기디야라는 시를 짓는 데까지 몸을 낮출 때는 어떻겠나이까? 그때는 영혼들이 펄쩍펄쩍 뛰고, 웃음이 깔깔 넘치고, 몸이 들썩이고, 끝내는 모든 감각이 수은처럼 떨렸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음유 시인들은 마땅히 도마뱀 섬으로 귀양을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나이다. 그러나 잘못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는 어리석은 사내들과 그들을 믿는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있나이다. 제가 마땅히 그래야 했을 착한 시녀 부인이었다면 그들의 밤새 짜낸 재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죽으며 살고, 얼음 속에서 불타고, 불 속에서 떨고, 희망 없이 바라고, 떠나면서 머문다'는 말이나, 그들의 글에 가득한 이런 부류의 다른 불가능한 말들을 참말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라비아의 불사조와 아리디아나의 왕관과 태양의 말들과 남쪽의 진주와 티바르의 금과 판카야의 향유를 약속할 때는 어떻겠나이까? 바로 여기서 그들은 펜을 가장 길게 늘이나이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약속하는 데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빠지고 있나이까? 아, 불행한 이 몸! 제 허물에 대해서도 할 말이 그토록 많은데 무슨 광기, 무슨 엉뚱함이 저를 남의 허물을 늘어놓게 하나이까? 아, 또 한 번, 운 없는 이 몸! 저를 굴복시킨 것은 시가 아니라 제 어수룩함이었고, 저를 무르게 한 것은 음악이 아니라 제 경박함이었나이다. 저의 크나큰 무지와 짧은 생각이 돈 클라비호, 이것이 앞서 말한 기사의 이름인데, 그의 걸음에 길을 열어 주고 오솔길을 터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중매쟁이가 되어, 그는 그가 아니라 제가 속인 안토노마시아의 방에 참된 남편이라는 이름 아래 한 번, 아니 아주 여러 번 들었나이다. 저는 죄 많은 몸이지만 남편이 되지

않고서는 그가 공주의 실내화 밑창 테두리에도 손대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안 되나이다. 제가 맡는 이런 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인이 앞서야 하나이다! 이 일에 해가 하나 있었다면 신분의 차이였으니, 돈 클라비호는 평범한 기사였고 안토노마시아 공주는 앞서 말했듯이 왕국의 상속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이 얽힌 일은 제 빈틈없는 조심성 덕분에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었는데, 안토노마시아의 배가 어쩐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이 일을 빠르게 드러내는 것 같았나이다. 그것이 두려워 우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고, 그 결과 그 고약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돈 클라비호가 주교 대리 앞에 나가 안토노마시아를 아내로 달라고 청하기로 했나이다. 공주가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써 준 서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그 서약서는 제 재주로 문구를 짜서 어찌나 단단했던지 삼손의 힘으로도 찢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차를 밟았고, 주교 대리는 서약서를 보았고, 그 주교 대리는 공주의 고백을 받았고, 공주는 숨김없이 고백했고, 주교 대리는 공주를 아주 점잖은 궁정 경관의 집에 맡겨 두라고 명했나이다……"

이때 산초가 말했다.

"칸다야에도 궁정 경관에 시인에 세기디야까지 있는 걸 보니, 온 세상이 다 같은 거라고 맹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트리팔디 마님, 서둘러 주세요. 날이 저물었고, 저는 이 긴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죽겠거든요."

"그러겠나이다."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제39장 트리팔디가 놀랍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이어 간다

산초가 하는 말마다 공작 부인은 즐거워했고, 그만큼 돈키호테는 속이 탔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이르자 슬픔의 시녀 부인이 이야기를 이어 갔다.

"마침내 숱한 물음과 대답이 오간 끝에, 공주가 처음 한 진술에서 한 치도 벗어나거나 바꾸지 않고 줄곧 제 고집을 꺾지 않자, 주교 대리는 돈 클라비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공주를 그의 정식 아내로 넘겨주었나이다. 이 일로 안토노마시아 공주의 어머니 도냐 마군시아 여왕은 어찌나 노여워하셨던지, 사흘이 채 안 되어 저희는 여왕을 땅에 묻었습니다."

"틀림없이 돌아가셨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당연하오!" 트리팔딘이 대답했다. "칸다야에서는 산 사람을 묻지 않고 죽은 사람을 묻으니 말이오."

"종자 나리, 그렇지도 않아요." 산초가 맞받았다. "기절한 사람을 죽은 줄 알고 묻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마군시아 여왕은 돌아가시기보다 기절하셨어야 했어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많은 일이 고쳐지는 법이고, 공주가 저지른 엉뚱한 짓도 그토록 마음 아파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아씨가 자기 시동이나 자기 집 다른 하인하고 혼인했다면, 제가 듣기로는 다른 많은 아씨가 그랬다던데, 그거야말로 손쓸 길 없는 화였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한테 그려

보인 대로 그토록 멋지고 그토록 똑똑한 기사하고 혼인했으니, 정말이지 정말이지 어리석은 짓이긴 해도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여기 계시고 제가 거짓말하게 두지 않으실 제 주인 나리의 규칙에 따르면, 학식 있는 사람으로 주교를 만들듯이 기사로, 그것도 편력 기사라면 더더욱, 임금과 황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편력 기사란 운이 두 손가락만큼만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될 가까운 잠재태에 있느니라. 그러나 슬픔의 시녀 부인께서는 이야기를 이어 가시오. 지금까지 달콤했던 이 이야기에서 쓴 대목을 아직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 말이오."

"쓴 대목이 남다마다요!"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것도 어찌나 쓴지 그에 비하면 쓴 오이가 달고 협죽도가 맛있을 정도나이다. 여왕께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으므로 저희는 여왕을 묻었나이다. 그런데 흙으로 덮자마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눈물을 참을 수 있으랴?(quis talia fando temperet a lachrymis?)

마군시아의 친사촌인 거인 말람브루노가 나무로 된 말을 타고 여왕의 무덤 위에 나타났나이다. 그는 잔인할 뿐 아니라 마법사이기도 했는데, 그 재주로 사촌의 죽음에 앙갚음하고 돈 클라비호의 당돌함을 벌하고 안토노마시아의 지나침에 분풀이하려고 두 사람을 바로 그 무덤 위에 마법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공주는 청동 암원숭이로, 돈 클라비호는 알 수 없는 쇠붙이로 된 무시무시한 악어로 바꾸어 놓았지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역시 쇠붙이로 된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는 시리아 말로 글자가 새겨져 있나이다. 그 글자를 칸다야 말로, 그리고 지금은 카스티야 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을 담고 있나이다. '용맹한 라만차 사람이 나와 일대일 결투로 맞붙으러 오기 전에는 이 당돌한 두 연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리라. 운명은 오직 그의 크나큰 용맹을 위해 일찍이 본 적 없는 이 모험을 남겨 두었느니라.' 그 일을 마치자 그는 칼집에서 넓고 엄청나게 큰 언월도를 뽑더니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제 목을 베고 머리를 뎅강 자를 듯한 시늉을 했나이다. 저는 얼이 빠지고 목소리가 목구멍에 달라붙어 더없이 풀이 죽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떨리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그는 그토록 혹독한 벌을 집행하려던 것을 멈추었나이다. 마침내 그는 궁전의 시녀 부인들을 모두 자기 앞에 끌어오게 했는데, 그들이 여기 있는 이 시녀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부풀리고 시녀 부인들의 성품과 그 못된 버릇과 더 못된 꾀를 욕하며, 저 혼자 지은 죄를 우리 모두에게 지운 뒤에, 사형으로 우리를 벌하지는 않겠고 다른 오래가는 벌로, 사람 구실을 못 하게 하는 끝없는 죽음을 주는 벌로 벌하겠다고 했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마친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얼굴의 털구멍이 열리고 얼굴 전체가 바늘 끝으로 찌르듯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나이다. 우리는 곧바로 손을 얼굴로 가져갔고, 이제 보시게 될 이런 꼴이 된 것을 알았나이다."

그러고는 슬픔의 시녀 부인과 다른 시녀 부인들이 쓰고 온 가리개를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다. 얼굴마다 수염이 수북했는데, 어떤 것은 금빛이고 어떤 것은 검고 어떤 것은 희고 어떤 것은 희끗희끗했다. 그것을 보고 공작과 공작 부인은 놀란 기색을 보였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넋을 잃었으며,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다.

트리팔디는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 비겁하고 속 검은 말람브루노는 이렇게 우리를 벌하였나이다. 우리 얼굴의 부드러움과 보드라움을 이 뻣뻣한 털로 덮어 버린 것이지요. 차라리 하늘의 뜻으로 그 엄청난 언월도로 우리 머리를 쳐 떨어뜨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덮은 이 북슬북슬한 털로 우리

얼굴의 빛을 가리다니요. 여러분, 따져 보면 말입니다(지금 하려는 이 말은 제 눈을 샘으로 만들어 놓고 하고 싶지만, 우리의 불행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비 오듯 흘린 바다 같은 눈물 때문에 눈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보리 까끄라기처럼 말라 버렸으니, 눈물 없이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수염 난 시녀 부인이 어디로 갈 수 있겠나이까?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그 여자를 가엾이 여기겠나이까? 누가 그 여자를 도와주겠나이까? 살결이 매끄럽고 온갖 약물과 분으로 얼굴을 들볶아도 아껴 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자기 얼굴이 숲이 된 것을 드러내면 어찌하겠나이까? 오, 나의 시녀 부인들이여, 나의 동무들이여, 우리는 불운한 때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는 불길한 시각에 우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며 트리팔디는 기절하려는 시늉을 했다.

제40장 이 모험과 이 기억할 만한 이야기에 관계되고 닿아 있는 일들

정말로, 참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의 첫 작가 시데 아메테에게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그는 아무리 자잘한 일이라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또렷이 밝혀내어 이 이야기의 가장 짧은 박자까지 꼼꼼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생각을 그려 보이고, 상상을 드러내고, 입 밖에 내지 않은 물음에 대답하고, 의심을 밝히고, 논란을 풀며, 끝내는 가장 호기심 많은 바람의 티끌까지 드러내 보인다. 오, 더없이 이름난 작가여! 오, 복 받은 돈키호테여! 오, 이름난 둘시네아여! 오, 익살스러운 산초 판사여! 모두 함께, 그리고 저마다 따로, 살아 있는 이들의 즐거움과 모두의 소일거리가 되도록 끝없는 세기를 살기를!

이야기는 전한다. 슬픔의 시녀 부인이 기절한 것을 보자 산초가 말했다.

"착한 사람의 신의를 걸고, 그리고 우리 판사 집안 모든 조상의 넋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모험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 제 주인 나리께서 들려주신 적도 없고, 나리 머릿속에 떠오른 적도 없어요. 말람브루노, 이 마법사에 거인 놈아, 너를 저주하지는 않겠다만 악마 천 마리나 너를 물어 가라! 이 딱한 여자들한테 수염을 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벌을 찾지 못했단 말이냐? 수염을 나게 하느니 차라리 코를 위쪽 절반쯤 잘라 내는 게, 그래서 콧소리로 말하게 되더라도, 낫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

여자들한테도 더 이로웠을 테고요. 장담하는데 이 여자들은 수염을 밀어 줄 사람한테 줄 돈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리." 열둘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우리는 털을 깎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몇은 돈 안 드는 수로 끈적끈적한 고약이나 붙임 천을 얼굴에 붙였다가 단번에 잡아떼는데, 그러면 돌절구 바닥처럼 반질반질 매끈해져요. 칸다야에도 집집이 다니며 솜털을 뽑고 눈썹을 다듬고 여자들에 관한 다른 약물 치장을 해 주는 여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마님의 시녀 부인들은 그 여자들을 결코 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은 대개 일등 노릇을 그만두고 나니 삼등, 곧 뚜쟁이 냄새를 풍기거든요. 돈키호테 나리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염을 단 채 무덤에 실려 가겠지요."

"내가 그대들의 수염을 고쳐 주지 못한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무어인의 땅에서 내 수염을 뽑겠소."

이때 트리팔디가 기절에서 깨어나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그 약속의 울림이 기절해 있던 제 귀에 들어와 저를 깨우고 모든 감각을 되찾게 하였나이다. 그러니 이름 높은 편력 기사여, 길들일 수 없는 나리여, 그 고마운 약속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다시 간청하나이다."

"나 때문에 일이 그르쳐지지는 않을 것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오. 내 마음은 부인을 섬길 채비가 다 되어 있소."

"일은 이렇나이다." 슬픔의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여기서 칸다야 왕국까지는 땅으로 가면 5천 레과에서 두 레과쯤 더하거나 덜하나이다. 그러나 하늘로 곧은 줄을 따라가면 3,227레과이나이다. 또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말람브루노가 제게 말하기를, 운명이 저희를 풀어 줄 기사를 제게 보내 주면 그 기사에게 탈것을 하나 보내겠는데, 그것은

삯말들보다 훨씬 낫고 고약한 버릇도 덜하리라 했다는 것이나이다. 그 탈것은 용맹한 피에레스가 어여쁜 마갈로나를 납치해 태우고 간 바로 그 나무 말인데, 그 말은 이마에 단 나무못 하나로 다루니 그 나무못이 재갈 노릇을 하고, 어찌나 날쌔게 하늘을 나는지 악마들이 실어 가는 것 같다고 하나이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말은 바로 그 현자 메를린이 만들었다고 하나이다. 메를린은 그것을 자기 벗인 피에레스에게 빌려주었고, 피에레스는 그 말을 타고 긴 여행을 여러 번 했으며, 앞서 말했듯이 어여쁜 마갈로나를 납치해 엉덩이에 태우고 하늘을 날아가 땅에서 바라보던 모든 이를 넋 나가게 했나이다. 메를린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나 값을 더 잘 치르는 사람에게만 그 말을 빌려주었는데, 위대한 피에레스 이래 지금까지 누가 그 말에 올라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나이다. 말람브루노가 자기 재주로 그 말을 거기서 꺼내 와 손에 넣고는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데, 그는 수시로 세상 여러 곳을 다녀서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프랑스에 있고 그다음 날에는 포토시에 있나이다. 그리고 좋은 점은 그 말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편자도 닳지 않으며, 날개도 없이 하늘을 측대보로 걷는데, 어찌나 평탄하고 차분하게 가는지 그 위에 탄 사람이 물을 가득 채운 잔을 손에 들고 있어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나이다. 그래서 어여쁜 마갈로나는 그 말을 타고 다니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나이다."

그 말에 산초가 말했다.

"차분하고 평탄하게 걷는 거라면 제 잿빛 당나귀죠. 하늘로 다니지는 않지만 땅에서라면 세상의 어떤 측대보 말하고도 겨루게 하겠어요."

모두 웃었고, 슬픔의 시녀 부인은 이야기를 이어 갔다.

"그리고 그 말은, 말람브루노가 저희 불행을 끝내 줄 생각이라면, 밤이 되고 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 앞에 와 있을 것이나이다. 그는 제가 찾던 기사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줄 신호로, 제가 편하고

빠르게 그 기사에게 갈 수 있도록 그 말을 보내 주겠다고 일렀기 때문이나이다."

"그런데 그 말에는 몇 사람이나 탈 수 있어요?" 산초가 물었다.

슬픔의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두 사람이나이다. 하나는 안장에, 하나는 엉덩이에 타지요. 납치한 처녀가 없을 때는 대개 그 두 사람이 기사와 종자이나이다."

"슬픔의 시녀 부인 마님" 산초가 말했다. "그 말 이름이 뭔지 알고 싶은데요."

"그 이름은" 슬픔의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벨레로폰의 말처럼 페가소스라 하지도 않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말처럼 부케팔로스라 하지도 않고, 광란의 오를란도의 말처럼 브리야도로라 하지도 않고, 몬탈반의 레이날도스의 말인 바야르테도 아니고, 루헤로의 말처럼 프론티노도 아니고, 해의 말들이라는 부테스나 페리토아도 아니나이다. 고트족의 마지막 왕인 불운한 로드리고가 목숨과 왕국을 잃은 싸움에 타고 나간 말처럼 오렐리아라 하지도 않나이다."

"장담하는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게 잘 알려진 이름난 말 이름을 하나도 붙이지 않았다면, 제 주인 나리의 말 이름 로시난테도 붙이지 않았겠네요. 제 것답기로는 지금까지 말한 이름을 다 앞지르는 이름인데요."

"그러하나이다." 수염 난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그래도 그 말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나이다. 날쌘 클라빌레뇨라고 하니, 그 이름은 나무(leño)라는 됨됨이에도, 이마에 단 나무못(clavija)에도, 그 날쌘(alígero) 걸음에도 맞기 때문이나이다. 그러니 이름으로 치자면 이름난 로시난테와도 겨룰 만하나이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산초가 맞받았다. "그런데 무슨 재갈이나 무슨 고삐로 다루나요?"

"이미 말씀드렸나이다." 트리팔디가 대답했다. "나무못으로 다룬다고요. 위에 탄 기사가 나무못을 이쪽저쪽으로 돌려서 원하는 대로 가게 하는데, 하늘 높이 날게 할 수도 있고, 땅을 거의 쓸 듯이 바싹 기어가게 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로 가게 할 수도 있나이다. 그 가운데야말로 잘 짜인 모든 행동에서 찾고 지켜야 할 길이지요."

"그 말을 보고 싶긴 하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안장이든 엉덩이든 거기 올라탈 생각을 하라는 건 느릅나무에서 배를 찾는 격이에요.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길마를 얹은 제 잿빛 당나귀 위에서도 겨우 버티는 판에, 이제는 방석도 베개도 없는 널빤지 엉덩이에서 버티라니 그거 참 좋겠네요! 제기랄, 남의 수염 깎아 주자고 제 몸을 짓이길 생각은 없어요. 저마다 알아서 마음 내키는 대로 수염을 깎으라지요. 저는 그렇게 긴 여행에 제 주인 나리를 따라갈 생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수염 깎는 일에는 제가 둘시네아 아씨의 마법을 푸는 일만큼 쓸모 있지도 않을 테고요."

"쓸모 있다마다, 벗이여." 트리팔디가 대답했다. "그것도 어찌나 쓸모 있는지, 그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여기오."

"임금님께 아뢸 일이네!" 산초가 말했다. "종자들이 자기 주인들의 모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인들은 자기들이 끝낸 모험의 명성을 가져가고 우리는 고생을 가져가야 하나요? 제기랄! 역사가들이 이렇게라도 써 준다면 몰라요. '아무개 기사가 이런저런 모험을 끝냈는데, 그의 종자 아무개의 도움이 있었으니 그가 없었다면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세 별의 돈 파랄리포메논이 여섯 괴물의 모험을 끝냈다'라고만 써 놓고, 모든 일에 함께 있었던 종자는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이름도 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주인 나리는 혼자 가셔도 돼요. 잘 다녀오시라지요. 저는 여기 공작 부인 마님 곁에 남겠어요. 그러면 나리께서 돌아오실

때쯤엔 둘시네아 아씨의 일이 상속분을 3분의 1에 5분의 1까지 더 얹어 받은 자식처럼 나아져 있을지도 모르죠. 한가하고 할 일 없는 틈틈이 털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호되게 한바탕 매질을 해 볼 생각이니까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자네는 주인을 따라가야 하네, 착한 산초. 착한 사람들이 자네에게 그렇게 청할 테니 말일세. 자네의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마님들의 얼굴이 계속 털로 수북해서는 안 되지. 정말이지 그건 딱한 일일 걸세."

"또 임금님께 아뢸 일이네!" 산초가 맞받았다. "이 자선을 수녀원에 든 처녀들이나 교리 학교 여자아이들을 위해 하는 거라면 누구라도 무슨 고생이든 무릅쓰겠지요. 하지만 시녀 부인들 수염을 없애 주자고 그런 고생을 하라니, 어림없지요! 차라리 그 여자들이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가장 까다로운 여자부터 가장 새침한 여자까지 다 수염을 달고 있는 꼴을 보는 게 낫겠어요."

"여보게 산초, 자네는 시녀 부인들을 몹시 싫어하는구먼."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 톨레도 약방 주인의 생각을 너무 따르는군. 정말이지 그건 옳지 않네. 내 집에는 시녀 부인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시녀 부인들이 있네. 여기 우리 도냐 로드리게스가 있으니, 내가 다른 말을 하게 두지 않을 걸세."

"마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실 것 없어요."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일의 진실을 아시니까요. 우리 시녀 부인들이 착하든 나쁘든, 수염이 났든 매끈하든, 우리도 다른 여자들처럼 어머니가 낳아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으니 무엇 때문인지는 그분이 아시겠지요. 나는 그분의 자비에 기대지 누구의 수염에도 기대지 않아요."

"자, 그만, 로드리게스 부인"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트리팔디 부인과 일행이여, 나는 하늘이 그대들의 시름을 좋은 눈으로 보아

주시리라 바라오. 클라빌레뇨가 오든 내가 말람브루노와 맞서게 되든, 산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오. 어떤 면도칼도 내 칼이 말람브루노의 어깨에서 그 머리를 쳐 내는 것만큼 쉽게 그대들의 수염을 깎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아오. 하느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참아 주시지만 영원히 참아 주시지는 않소."

"아!" 이때 슬픔의 시녀 부인이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하늘 나라의 모든 별이 높으신 나리를 너그러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나리의 마음에 온갖 번영과 용기를 불어넣으시어, 약방 주인들에게 미움받고 종자들에게 헐뜯기고 시동들에게 놀림받는, 이 욕먹고 짓밟힌 시녀 부인 족속의 방패요 보호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비나이다. 꽃다운 나이에 시녀 부인이 되기보다 먼저 수녀가 되지 않은 못된 여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불쌍한 우리 시녀 부인들이여! 우리가 트로이 사람 헥토르 자신에게서 사내에서 사내로 곧은 핏줄을 타고 내려왔다 해도, 우리 마님들은 그렇게 해서 여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자네'라고 하대하지 않을 리가 없나이다! 오, 거인 말람브루노여, 그대는 마법사이지만 약속만은 더없이 틀림없도다! 이제 비할 데 없는 클라빌레뇨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 불행이 끝나게 할지어다. 더위가 닥쳤는데 우리 이 수염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 우리 신세여!"

트리팔디가 이 말을 어찌나 절절하게 했던지 거기 있던 모든 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산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다. 산초는 그 존경스러운 얼굴들의 털을 없애 주는 데 그 일이 달려 있다면 세상 끝까지라도 주인을 따라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제41장 클라빌레뇨의 도착과 이 길고 긴 모험의 끝

그러는 사이에 밤이 되었고, 이름난 말 클라빌레뇨가 오기로 정해진 시각도 함께 왔는데, 클라빌레뇨가 늦어지자 돈키호테는 벌써 애가 탔다. 말람브루노가 말을 보내는 것을 미루는 것을 보면 자기가 그 모험을 위해 남겨 둔 기사가 아니거나, 말람브루노가 감히 자기와 일대일 결투를 하러 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라, 그때 느닷없이 온몸을 초록 담쟁이로 감은 야만인 넷이 커다란 나무 말 하나를 어깨에 메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말을 땅에 세워 놓았고, 야만인 하나가 말했다.

"용기 있는 자는 이 기계에 올라탈지어다."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나는 안 올라타요. 용기도 없고 기사도 아니니까."

야만인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종자가 있다면 종자는 엉덩이에 앉을지어다. 용맹한 말람브루노를 믿으라. 그의 칼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칼에도, 다른 어떤 악의에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이 말의 목에 달린 나무못을 돌리기만 하면 말이 그대들을 하늘 길로 말람브루노가 기다리는 곳까지 데려가리라. 다만 길이 높고 아득하여 어지럼증이 나지 않도록 말이 울 때까지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하느니라. 말이 우는 것이 여행이 끝났다는 신호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클라빌레뇨를 두고 점잖은 몸가짐으로 왔던 길로 돌아갔다. 슬픔의 시녀 부인은 말을 보자마자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말람브루노의 약속은 틀림없었나이다. 말은 와 있고 우리 수염은 자라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저마다, 그리고 수염 한 올 한 올마다 그대에게 비노니, 우리 수염을 깎고 다듬어 다오. 그대가 그대의 종자와 함께 말에 올라 그대들의 새 여행을 복되게 시작하기만 하면 되나이다."

"그렇게 하겠소, 트리팔디 백작 부인. 아주 기꺼이, 그보다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소. 지체하지 않으려고 방석을 얹거나 박차를 차지도 않겠소. 부인과 이 모든 시녀 부인들이 말끔하고 반들반들해진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크오."

"저는 안 하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언짢은 마음으로든 기꺼운 마음으로든, 어떻게 해도 안 해요. 제가 그 엉덩이에 올라타지 않고는 이 수염 깎기를 할 수 없다면, 제 주인 나리께서는 따라갈 다른 종자를 찾으시고, 이 마님들께서는 얼굴을 매끈하게 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마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섬사람들이 자기네 통치자가 바람을 타고 산책이나 다닌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칸다야까지 3천 하고도 몇 레과가 된다는데, 말이 지치거나 거인이 화를 내면 돌아오는 데 여섯 해는 걸릴 테고, 그러면 세상에 저를 알아볼 섬도 섬놈들도 없을 거예요. 흔히들 늦어지는 데 위험이 있다고 하고, 송아지를 주거든 고삐 들고 달려가라고 하니, 이 마님들 수염한테는 미안하지만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게 편하지요. 제 말은, 저는 이 집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인께서 저를 통치자로 만들어 주시리라는 큰 복을 바라는 이 집에요."

그 말에 공작이 말했다.

"여보게 산초,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섬은 움직이지도 달아나지도 않네. 땅 밑 깊은 곳까지 어찌나 깊이 뿌리를 내렸는지 세 번을 잡아당겨도 뽑히거나 자리를 옮기지 않을 걸세.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알기로는 이런 큰 직책 가운데 많든 적든 어떤 뇌물 없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네. 내가 이 통치를 주고 받으려는 뇌물은 자네가 자네 주인 돈키호테 나리와 함께 가서 이 기억할 만한 모험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일세. 클라빌레뇨의 날쌘 걸음이 약속하는 대로 빨리 그 말을 타고 돌아오든, 아니면 궂은 운이 자네를 순례자가 되어 여관에서 여관으로, 객줏집에서 객줏집으로 걸어서 돌아오게 하든, 언제 돌아오든 자네 섬은 자네가 두고 간 자리에 있을 것이고, 자네 섬사람들은 늘 그래 왔듯이 자네를 통치자로 맞고 싶어 할 것이며, 내 마음도 그대로일 걸세. 산초 나리, 이 진실을 의심하지 말게. 그것은 자네를 섬기려는 내 마음을 드러내 놓고 모욕하는 일이 될 테니까."

"그만하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저는 가난한 종자라 그렇게 많은 예의를 등에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제 주인 나리께서 올라타시고, 제 눈을 가려 주시고, 저를 하느님께 맡겨 주세요. 그리고 그 높은 데를 날아갈 때 우리 주님께 몸을 맡기거나 천사들에게 도와 달라고 빌어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그 말에 트리팔디가 대답했다.

"산초, 하느님께든 누구에게든 그대가 원하는 이에게 몸을 맡겨도 좋소. 말람브루노는 마법사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아주 영리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도 시비를 걸지 않고 마법을 부리니 말이오."

"자, 그럼" 산초가 말했다. "하느님과 가에타의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그 기억할 만한 축융 방아 모험 이래로"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가 지금처럼 겁에 질린 것을 본 적이 없소. 내가 남들처럼 징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겁 많음이 내 마음을 얼마쯤 간질였을 것이오. 산초, 이리 오게. 이분들의 허락을 얻어 자네에게 따로 두어 마디 하고 싶네."

그리고 산초를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데려가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보아라, 산초, 내 형제야. 우리 앞에는 먼 여행이 기다리고 있고, 그 여행에서 언제 돌아올지,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형편과 틈을 줄지는 하느님께서나 아신다. 그러니 지금 길에 필요한 무엇을 찾으러 가는 척하고 네 방으로 물러가서, 지푸라기 하나 집어 주는 사이에, 네가 맞아야 할 삼천삼백 대 가운데 적어도 오백 대만 셈에 넣어 때려 주었으면 한다. 때려 두면 때려 둔 것이 되고, 일은 시작하면 반은 끝낸 것이니라."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정신이 모자라신가 봐요! 이건 흔히 하는 말처럼 '바빠 죽겠는데 처녀인지 아닌지 묻는다!'는 격이네요. 반반한 널빤지에 앉아서 가야 할 판인데 지금 제 엉덩이를 다치게 하라고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나리께서 옳지 않으세요. 지금은 가서 이 시녀 부인들 수염이나 깎아 드려요. 돌아오면 제 이름을 걸고 나리께 약속하는데, 제 빚을 갚으려고 어찌나 서두를지 나리께서 흡족해하실 거예요.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 약속이라면, 착한 산초야, 나는 마음 놓고 가겠다. 너는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는다. 너는 바보이긴 해도 참말을 하는 사람(verídico)이니까."

"저는 초록(verde)이 아니라 거무튀튀한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얼룩빼기라 하더라도 제 말은 지킬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두 사람은 클라빌레뇨에 오르러 돌아왔다. 말에 오르면서 돈키호테가 말했다.

"눈을 가리게, 산초, 그리고 올라타게, 산초. 그토록 먼 땅에서 우리를 데리러 말을 보낸 이가 우리를 속일 리는 없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속여 봐야 그에게 돌아갈 영광은 보잘것없을 테니까. 그리고 설령 모든 일이 내 생각과 거꾸로 된다 해도, 이 무훈에 뛰어들었다는 영광은 어떤 악의도 흐리게 하지 못할 걸세."

"가시죠, 나리." 산초가 말했다. "이 마님들의 수염과 눈물이 제 가슴에 못 박혀 있어서, 그분들이 처음처럼 매끈해지는 걸 보기 전에는 무얼 먹어도 맛있지 않을 거예요. 나리께서 먼저 올라타셔서 눈을 가리세요. 제가 엉덩이에 타야 하니 안장에 타는 사람이 먼저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슬픔의 시녀 부인에게 자기 눈을 잘 가려 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나자 다시 손수건을 벗기고 말했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베르길리우스에서 트로이의 팔라디온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소.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여신 팔라스에게 바친 나무 말이었는데, 무장한 기사들을 배 속에 품고 있다가 그 기사들이 나중에 트로이를 완전히 멸망시켰소. 그러니 클라빌레뇨가 배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소."

"그러실 필요 없나이다." 슬픔의 시녀 부인이 말했다. "제가 그 말을 보증하고, 말람브루노에게는 악의나 배신 같은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돈키호테 나리, 조금도 두려워 마시고 올라타소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탓이나이다."

돈키호테는 자기 안전을 두고 무슨 말을 더 하든 자기 용맹에 흠이 되리라 여겼다. 그래서 더 말다툼하지 않고 클라빌레뇨에 올라 나무못을 더듬어 보았는데, 나무못은 쉽게 돌아갔다. 등자가 없어 두 다리가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은 꼭 어느 로마 개선 행렬을 그리거나 짠 플랑드르 양탄자 속의 인물 같았다. 산초는 마지못해 천천히 올라타서 엉덩이에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엉덩이가 좀 딱딱하고 전혀 부드럽지 않았으므로, 공작에게 할 수만 있다면 방석이나 베개를 하나 마련해 달라고 청했다. 공작 부인 마님의 응접 단에 깔린 것이든 어느 시동의 침대에 있는 것이든 상관없다고 했다. 그 말의 엉덩이는 나무라기보다 대리석 같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트리팔디는 클라빌레뇨는 어떤 마구도 어떤 장식도 제 몸에 얹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여자처럼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고 앉을 수는 있으니 그러면 딱딱함을 덜 느낄 것이라고 했다. 산초는 그렇게 하고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고는 눈을 가리게 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나서 다시 눈가리개를 벗기더니, 정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애틋하게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 고비를 넘기도록 저마다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한 번씩을 바쳐 도와 달라고 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고비를 맞았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바쳐 줄 사람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네가 교수대에라도 올랐느냐, 아니면 목숨의 마지막 끝에라도 이르렀느냐, 그런 기도를 다 청하게? 이 넋 빠지고 겁 많은 놈아, 너는 어여쁜 마갈로나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야기책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갈로나는 그 자리에서 무덤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왕비가 되러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네 곁에 가는 나는 지금 내가 누르고 앉은 바로 이 자리를 누르고 앉았던 용맹한 피에레스와 나란히 설 수 없겠느냐? 눈을 가려라, 눈을 가려라,

이 간 떨어진 짐승아. 적어도 내 앞에서는 네가 품은 두려움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가려 주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께 몸을 맡기지도 못하게 하고 남이 맡겨 주지도 못하게 하시니, 이 근처 어디에 악마들 나라라도 있어서 우리를 페랄비요에 처박지나 않을까 겁나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1]"

두 사람이 눈을 가리자, 돈키호테는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추어졌다고 느끼고 나무못을 더듬었다. 그가 나무못에 손가락을 대자마자 모든 시녀 부인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소리를 높여 외쳤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이끄시기를, 용맹한 기사여!"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하시기를, 두려움 없는 종자여!"

"벌써, 벌써 그대들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구나!"

"벌써 땅에서 그대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를 넋 나가게 하고 놀라게 하기 시작하는구나!"

"꽉 붙잡게, 용맹한 산초, 흔들리고 있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아버지 태양의 수레를 몰려던 그 당돌한 젊은이가 떨어진 것보다 자네가 떨어지는 게 더 끔찍할 테니!"

산초는 그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바싹 달라붙어 두 팔로 주인을 끌어안고 말했다.

"나리, 우리가 그렇게 높이 가고 있다는데 저 사람들 목소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리죠? 꼭 바로 우리 곁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데 마음 쓰지 마라, 산초. 이런 일과 이런 비행은 보통 길을 벗어나 있으니, 천 레과 밖에서도 네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를 그렇게 꽉 끌어안지 마라. 나를 떨어뜨리겠다.

정말이지 네가 왜 그렇게 허둥대고 겁을 먹는지 모르겠구나. 내 평생 이보다 걸음이 평탄한 탈것은 타 본 적이 없다고 감히 맹세하겠다. 꼭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벗아, 두려움을 쫓아 버려라. 일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순풍을 타고 있다."

"정말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이쪽에서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풀무 천 개로 저를 불어 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했다. 커다란 풀무 몇 개가 그들에게 바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공작과 공작 부인과 그 집사가 이 모험을 어찌나 잘 꾸며 놓았던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돈키호테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자 말했다.

"틀림없이, 산초, 우리는 벌써 대기의 둘째 층에 다다랐을 것이다. 거기서 우박과 눈이 생기느니라. 천둥과 번개와 벼락은 셋째 층에서 생기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곧 불의 층에 닿을 텐데, 불에 타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으려면 이 나무못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때 사람들이 불이 쉽게 붙고 쉽게 꺼지는 삼 부스러기를 장대 끝에 매달아 멀리서 두 사람의 얼굴을 덥혔다. 그 열기를 느낀 산초가 말했다.

"우리가 벌써 불의 층에 와 있거나 아주 가까이 와 있지 않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아요. 제 수염이 꽤 많이 그슬렸거든요. 나리, 눈가리개를 벗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볼까 봐요."

"그러지 마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토랄바 석사의 참말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라.[2] 악마들이 그를 갈대 장대에 태워 눈을 감긴 채 하늘로 휙 날라 갔는데, 열두 시간 만에 로마에 닿아 그 도시의 거리인 토레 디 노나에 내렸고, 거기서 부르봉의 패배와 공격과 죽음을 모두 보고는 아침에 벌써 마드리드에 돌아와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는 또 하늘을 날아갈 때 악마가 눈을 뜨라고 해서 눈을 떴더니, 자기가 보기에

달의 몸뚱이에 어찌나 가까이 와 있던지 손으로 달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어지러울까 봐 감히 땅을 내려다보지 못했다고 했느니라. 그러니, 산초, 눈가리개를 벗을 까닭이 없다. 우리를 맡아 데려가는 이가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빙빙 돌며 높이 오르는 중인지도 모른다. 세이커매나 송골매가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는 왜가리라도 잡으려고 단번에 그 위로 내리꽂듯이, 칸다야 왕국 위로 단번에 내려앉으려고 말이다. 그리고 정원을 떠난 지 반 시간도 안 된 것 같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먼 길을 왔을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다만 마가야네스 아씨인지 마갈로나 아씨인지가 이 엉덩이에 앉아 흡족해하셨다면 살이 그다지 연한 분은 아니었겠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공작과 공작 부인과 정원에 있던 사람들은 두 용사가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더없이 즐거워했고, 그 기이하고 잘 꾸민 모험을 마무리하려고 클라빌레뇨의 꼬리에 삼 부스러기로 불을 붙였다. 말 속에는 터지는 폭죽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말은 곧바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터져 날아갔고,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반쯤 그슬린 채 땅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사이에 수염 난 시녀 부인 부대도 트리팔디도 모두 정원에서 사라졌고, 정원에 있던 사람들은 기절한 것처럼 땅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엉망이 된 몸으로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자기들이 떠났던 바로 그 정원에 있고 그토록 많은 사람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게다가 정원 한쪽에 커다란 창 하나가 땅에 꽂혀 있고, 거기에 초록 비단 끈 두 가닥으로 매끈하고 흰 양피지 한 장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양피지에는 커다란 금빛 글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름 높은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트리팔디 백작 부인, 다른 이름으로 슬픔의 시녀 부인이라 불리는 이와 그 일행의 모험을 시도한 것만으로 끝내고 마무리하였다.

말람브루노는 바라던 바를 모두 이루어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시녀 부인들의 수염은 이제 매끈하고 말끔해졌고, 돈 클라비호 왕과 안토노마시아 여왕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종자의 매질이 다 채워지면 흰 비둘기는 자기를 쫓는 고약한 매들에게서 풀려나 사랑하는 구구 우는 짝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마법사들의 으뜸 마법사인 현자 메를린이 그렇게 정하였다.

돈키호테는 양피지의 글을 읽고 그것이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리는 일을 말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토록 큰 무훈을 그토록 적은 위험으로 끝내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존경스러운 시녀 부인들의 얼굴을 예전 살결로 되돌려 놓게 된 것을 하늘에 크게 감사드렸다. 그러고는 공작과 공작 부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공작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공작님, 기운을 내시오. 기운을 내시오, 아무 일도 아니오! 저 비석에 붙은 글이 똑똑히 보여 주듯이 모험은 이제 아무 탈 없이 끝났소."

공작은 무거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정신을 차렸고, 공작 부인과 정원에 쓰러져 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 그들이 어찌나 놀라고 질겁한 기색을 보였던지, 장난으로 그토록 잘 꾸밀 줄 알던 일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공작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글을 읽고 나서 두 팔을 벌리고 돈키호테를

끌어안으러 가며, 어느 세기에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훌륭한 기사라고 말했다.

산초는 수염이 없으면 어떤 얼굴인지, 그 늠름한 몸매가 약속하던 만큼 수염 없이도 아름다운지 보고 싶어서 슬픔의 시녀 부인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클라빌레뇨가 불타며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떨어지자마자 시녀 부인 부대가 트리팔디와 함께 사라졌고, 이미 수염도 그루터기도 없이 말끔해져서 떠났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공작 부인이 산초에게 그 먼 여행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마님, 저는 주인 나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의 층을 날아가고 있다고 느껴서 눈가리개를 조금 벗어 보려 했어요. 그런데 벗어도 되느냐고 허락을 구했더니 주인 나리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호기심이 좀 있어서 남이 막고 못 하게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데다, 아무도 못 보게 살짝 코 옆에서 눈을 가린 손수건을 아주 조금 들추고 거기로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땅이 통째로 겨자씨 한 알보다 크지 않고, 그 위를 다니는 사람들은 개암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해 보였어요. 그러니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고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그 말에 공작 부인이 말했다.

"여보게 산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게. 듣자 하니 자네는 땅을 본 게 아니라 땅 위를 다니는 사람들을 본 것 같은데. 땅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고 사람 하나하나가 개암 한 알처럼 보였다면, 사람 하나가 땅 전체를 덮었어야 한다는 것은 뻔한 일이지."

"그건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한쪽 귀퉁이로 들춰 보았는데 땅이 다 보였어요."

"이보게,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한쪽 귀퉁이로는 보는 것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네."

"저는 그런 보기는 몰라요." 산초가 맞받았다. "다만 마님께서 이걸 아셨으면 해요. 우리는 마법으로 날고 있었으니, 저도 마법으로 어디를 보든 땅 전체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믿으시면, 제가 눈썹 옆으로 들추어 보았더니 하늘에 어찌나 가까이 있었던지 제게서 하늘까지 한 뼘 반도 안 되더라는 말도 안 믿으시겠지요. 마님, 맹세할 수 있는데 하늘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우리가 마침 일곱 아기 산양 별이 있는 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3] 하느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말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고향에서 산양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자마자 그것들하고 잠깐 놀고 싶은 마음이 어찌나 들었던지……! 그 마음을 채우지 않았더라면 배가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아무한테도, 제 주인 나리한테도 말하지 않고 살짝 살그머니 클라빌레뇨에서 내려 그 아기 산양들하고 거의 사십오 분쯤 놀았어요. 그 아기 산양들은 꽃무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클라빌레뇨는 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착한 산초가 산양들하고 노는 동안" 공작이 물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무엇을 하며 노셨소?"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런 일과 이런 사건들은 모두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 있으니, 산초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소. 나로 말하자면 눈가리개를 위로도 아래로도 벗기지 않았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래밭도 보지 못했소. 대기의 층을 지나가는 것을 느꼈고 불의 층에 닿는 것까지 느낀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갔다는 것은 믿을 수 없소. 불의 층은 달의 하늘과 대기의 마지막 층 사이에 있으니, 불에 타지 않고서는

산초가 말하는 일곱 아기 산양 별이 있는 하늘에 닿을 수 없었을 것이오. 그런데 우리는 타지 않았으니, 산초가 거짓말을 하든지 산초가 꿈을 꾸든지 둘 중 하나요."

"거짓말도 안 하고 꿈도 안 꿔요." 산초가 대답했다. "못 믿으시겠으면 그 산양들 생김새를 물어보세요. 그걸 들으면 제가 참말을 하는지 아닌지 아실 거예요."

"그럼 말해 보게,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것들은요" 산초가 대답했다. "둘은 초록이고, 둘은 빨강이고, 둘은 파랑이고, 하나는 얼룩빼기예요."

"그것참 새로운 종류의 산양이구먼." 공작이 말했다. "우리 땅의 이 지방에는 그런 빛깔이, 아니 그런 빛깔의 산양이 없네."

"그야 뻔하지요." 산초가 말했다. "하늘의 산양하고 땅의 산양은 달라야 하니까요."

"말해 보게, 산초." 공작이 물었다. "거기 그 산양들 사이에서 숫산양은 보지 못했나?"

"못 봤어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느 놈도 초승달 뿔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산초에게 여행에 대해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산초가 정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으면서 온 하늘을 돌아다니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들려줄 기세로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이 슬픔의 시녀 부인 모험의 끝이었다. 이 모험은 공작 부부에게 그때만이 아니라 평생 웃을 거리를 주었고, 산초에게는 몇 세기를 산다면 몇 세기 동안이라도 이야기할 거리를 주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다.

"산초, 자네가 하늘에서 본 것을 남들이 믿어 주기를 바란다면, 나는 자네가 내가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본 것을 믿어 주기를 바라네. 더는

말하지 않겠네."

---

1. 페랄비요: 시우다드레알 가까이 있던 곳. 성스러운 형제단이 붙잡은 죄인을 여기서 처형하고 시신을 화살로 쏘아 세워 두었다.

2. 토랄바 석사: 에우헤니오 토랄바. 악마의 도움으로 하룻밤에 로마까지 날아가 1527년 부르봉 공작의 로마 약탈을 보았다고 말했다가 이단 심문소에서 재판을 받았다(1528~1531).

3. 일곱 아기 산양 별: 플레이아데스 성단(묘성). 에스파냐에서는 「아기 산양들(cabrillas)」이라 불렀다.

제42장 돈키호테가 섬을 다스리러 떠나는 산초 판사에게 준 충고와 잘 생각한 다른 일들

슬픔의 시녀 부인 모험이 이렇게 신나고 우습게 끝나자 공작 부부는 몹시 흡족하여, 장난을 진짜로 믿어 줄 이토록 안성맞춤인 사람들이 있는 바에야 장난을 더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하인들과 영지의 백성들이 약속한 섬의 통치에서 산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계획과 지시를 내려 두고, 이튿날, 그러니까 클라빌레뇨를 타고 하늘을 난 다음 날, 공작은 산초에게 통치자가 되러 갈 채비를 하고 차려입으라고 말했다. 섬사람들이 오월의 비를 기다리듯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다. 산초는 공작 앞에 엎드려 절하고 말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뒤로, 그리고 그 높은 꼭대기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땅이 그렇게 조그만 걸 본 뒤로, 통치자가 되고 싶던 그 커다란 욕심이 얼마쯤 누그러졌습니다요. 겨자씨 한 알을 다스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며, 개암만 한 사람 여섯 남짓을 거느리는 게 무슨 위엄이고 권세겠어요? 제가 보기엔 온 땅에 그 이상은 없었거든요. 각하께서 하늘을 아주 쪼끔이라도, 반 레과가 안 되더라도 떼어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큰 섬보다 그걸 더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보게, 산초." 공작이 대답했다. "나는 하늘을 손톱만큼도 누구에게 떼어 줄 수가 없네. 그런 은혜와 은총은 오직 하느님께만 맡겨져 있으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반듯하고 온전하고, 둥글고 균형이 잘 잡혔으며, 더없이 기름지고 넉넉한 섬일세. 자네가

솜씨만 잘 부리면 그 땅의 재물로 하늘의 재물까지 벌어들일 수 있을 걸세."

"그럼 좋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 섬을 주십쇼. 못된 놈들이 뭐라 하든 하늘나라에 갈 만한 통치자가 되도록 힘써 보겠어요. 이건 제 분수를 벗어나거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치자 노릇이 무슨 맛인지 맛보고 싶어서예요."

"한번 맛을 보면, 산초." 공작이 말했다. "통치를 쫓아 제 손가락까지 빨아 먹게 될 걸세. 명령하고 복종을 받는 것만큼 달콤한 일이 없으니까. 자네 주인이 황제가 되면,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 틀림없이 될 테지만, 그 자리를 웬만해서는 내놓지 않을 게 분명하고, 황제가 아니었던 지난 세월을 영혼 절반이 저리도록 아쉬워하고 서운해할 걸세."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저도 명령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축 한 떼를 부리는 거라도요."

"자네와 한 무덤에 묻히고 싶네그려, 산초. 자네는 모르는 게 없으니." 공작이 대답했다. "나는 자네가 자네 분별이 약속하는 만큼 훌륭한 통치자가 되리라고 믿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알아 두게. 자네는 내일 바로 그날로 섬을 다스리러 가야 하네. 오늘 오후에 사람들이 자네가 입고 갈 알맞은 옷과 떠나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춰 줄 걸세."

"옷은 마음대로 입히세요." 산초가 말했다. "무슨 옷을 입고 가든 저는 산초 판사일 테니까요."

"그야 그렇지."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옷은 맡은 직무나 지위에 맞추어야 하네. 법률가가 군인처럼 입거나 군인이 사제처럼 입으면 좋지 않을 테니까. 산초, 자네는 반은 학자, 반은 대장 차림으로 갈 걸세. 내가 주는 섬에는 무예가 학문만큼 필요하고 학문이 무예만큼 필요하니까."

"학문이라면" 산초가 대답했다. "별로 없어요. 아직 가나다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좋은 통치자가 되는 데는 글자판 맨 앞에 박힌

십자가(Christus)만 기억하고 있으면 넉넉해요. 무예라면 주시는 무기를 쓰러질 때까지 휘두르겠어요. 하느님을 앞세우고요."

"기억력이 그토록 좋으니" 공작이 말했다. "산초가 무엇 하나 그르칠 리가 없겠군."

그때 돈키호테가 왔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산초가 얼마나 서둘러 통치하러 떠나야 하는지 알게 되자, 공작의 허락을 얻어 산초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맡은 직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충고해 줄 생각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등 뒤로 문을 닫고, 거의 억지로 산초를 자기 곁에 앉힌 다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초, 내 벗아. 내가 무슨 좋은 운수를 만나기도 전에, 그보다 먼저 좋은 운이 너를 맞으러 나와 너와 마주쳤으니, 하늘에 한없이 감사하는구나. 나는 내 운이 트이면 거기서 네 섬김의 품삯을 치러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겨우 출세의 첫머리에 서 있고, 너는 때가 되기도 전에, 이치에 맞는 순서를 거슬러 바라던 것을 상으로 받았구나. 남들은 뇌물을 쓰고, 졸라 대고, 청을 넣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빌고, 우겨 대도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어찌 된 영문인지도 모르는 채 다른 많은 이들이 노리던 자리와 직무를 차지하게 되니, 벼슬을 구하는 데에도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 들어와 꼭 들어맞는다. 내가 보기에 너는 틀림없이 얼간이인데, 새벽같이 일어나지도 않고 밤을 새우지도 않고 아무 애도 쓰지 않고서, 편력 기사도가 너에게 불어넣어 준 입김 하나만으로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섬의 통치자가 되었다. 오, 산초여,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까닭은, 네가 받은 은혜를 네 공로로 돌리지 말고 모든 일을 부드럽게 다스리시는 하늘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는 편력 기사도라는 직분이 품고 있는 위대함에 감사드리라는 데 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을 믿을 마음의 채비가 되었으면, 오, 얘야, 너를 깨우쳐 주려 하는 너의 이 카토[1]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네가 이제 뛰어들려는 이 사나운 바다에서 너를 이끌어 안전한 항구로 데려다줄 북극성이 되고 길잡이가 되려 한다. 벼슬과 높은 자리란 바로 혼란의 깊은 바다가 아니겠느냐. 첫째로, 오, 얘야, 너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데 지혜가 있고, 지혜로우면 무엇 하나 그르칠 일이 없느니라. 둘째로, 너는 네가 누구인지에 눈을 두고 너 자신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그보다 어려운 앎은 상상할 수도 없다. 너 자신을 알면 황소와 몸집을 겨루려던 개구리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네 고향에서 돼지를 쳤던 일을 돌이켜 보는 마음이, 네 어리석음이 공작새 꼬리처럼 활짝 펼쳐질 때 그 꼬리를 접게 하는 못난 발 노릇을 할 것이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꼬마 때 일이고요, 좀 머리가 굵어서는 거위를 쳤지 돼지를 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별 상관없는 일 같아요. 다스리는 사람이 다 임금 혈통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그러니 귀한 집안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자리의 무게에 부드러운 온화함을 곁들여야 하고, 그 온화함은 신중함의 이끎을 받아 악의에 찬 뒷말에서 그를 지켜 주어야 한다. 그런 뒷말을 피해 가는 신분은 어디에도 없다. 산초, 네 가문이 낮은 것을 자랑으로 삼고, 농사꾼 집안 출신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도 너를 부끄럽게 만들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만한 죄인이 되기보다 덕 있는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자랑으로 여겨라. 낮은 혈통에서 태어나 교황과 황제의 지엄한 자리에까지 오른 이들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니, 이 진실을 보여 주는 예를 들자면 네가 지칠 만큼 많이 들 수

있다. 보아라, 산초. 덕을 너의 방편으로 삼고 덕 있는 행실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왕족이나 귀족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을 부러워할 까닭이 없다. 피는 물려받는 것이고 덕은 스스로 얻는 것이며, 덕은 그 자체만으로 피가 갖지 못한 값어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혹시 네가 섬에 있을 때 친척 가운데 누가 너를 찾아오거든 내치지도 말고 창피를 주지도 마라. 오히려 맞아들이고 대접하고 융숭히 보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만든 것을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잘 짜인 자연의 질서에 진 빚에도 보답하게 될 것이다. 아내를 데려가거든(오랫동안 통치를 맡은 사람이 제 아내 없이 지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가르치고 깨우치고 타고난 거친 티를 다듬어 주어라. 슬기로운 통치자가 얻는 것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내가 모조리 잃고 흩어 버리기 일쑤다. 혹시 홀아비가 되거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하는 말인데, 그 자리 덕에 더 나은 짝을 얻게 되더라도, 너에게 낚싯바늘이나 낚싯대 노릇을 하고 '나는 싫소' 하면서 두건을 벌리는 수도사 노릇을 할 여자는 얻지 마라. 참으로 너에게 말하거니와, 재판관의 아내가 받는 것은 무엇이든 그 남편이 온 세상의 마지막 감사에서 셈을 치러야 하고, 살아서 장부에 올리지 않은 항목은 죽어서 네 곱으로 갚게 될 것이다. 무식하면서 제가 영리한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통하는, 제멋대로 끼워 맞추는 법을 결코 따르지 마라. 가난한 사람의 눈물은 부자의 진술보다 너에게서 더 많은 동정을 얻되, 더 많은 정의를 얻어서는 안 된다. 부자의 약속과 선물 사이로도, 가난한 사람의 흐느낌과 성화 사이로도 진실을 찾아내도록 힘써라. 형평을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할 자리에서는 죄인에게 법의 엄격함을 모조리 지우지 마라. 엄한 재판관이라는 평판이 자비로운 재판관이라는 평판보다 낫지 않다. 혹시 정의의 지팡이를 굽히게 되거든, 선물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자비의 무게 때문이어야

한다. 네 원수의 소송을 판결하게 되거든 네가 당한 모욕에서 마음을 떼어 사건의 진실에 두어라. 남의 소송에서 네 감정에 눈멀지 마라. 거기서 저지른 잘못은 대개 바로잡을 길이 없고, 바로잡을 길이 있다 해도 네 신용을, 어쩌면 네 재산까지 치러야 할 것이다.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너에게 정의를 구하러 오거든 그 여자의 눈물에서 눈을 떼고 신음에서 귀를 떼고, 그 여자가 구하는 것의 알맹이를 천천히 따져 보아라. 그러지 않으면 네 이성은 그 여자의 울음에 빠져 죽고 네 선량함은 그 여자의 한숨에 빠져 죽을 것이다. 행동으로 벌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말로 모질게 대하지 마라. 불행한 그 사람에게는 형벌의 고통만으로도 넉넉하니, 험한 말까지 얹어 줄 것은 없다. 네 관할 아래 떨어진 죄인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조건에 매인 가련한 인간으로 여기고, 상대편에게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한 네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그에게 너그럽고 어진 모습을 보여 주어라. 하느님의 속성은 모두 똑같지만, 우리 눈에는 정의의 속성보다 자비의 속성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산초, 이 가르침과 이 규칙을 따른다면 네 날은 길고, 네 이름은 영원하고, 네 상은 넘치고, 네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너는 자식들을 원하는 대로 혼인시키고, 자식들과 손주들은 작위를 얻을 것이며, 너는 사람들과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다가, 삶의 마지막 걸음에서 부드럽고 무르익은 노년에 죽음의 걸음을 맞을 것이고, 네 증손주들의 여리고 고운 손이 네 눈을 감겨 줄 것이다. 지금까지 한 말은 네 영혼을 꾸며 줄 가르침이고, 이제부터는 몸을 꾸미는 데 쓰일 가르침이니 들어 보아라."

---

1. 카토: 대(大)카토의 이름을 빌린 라틴어 격언집 『 카토의 이행시(Disticha Catonis) 』 . 중세부터 17세기까지 아이들이 글을 배우며 외던 도덕 교본이라, 「카토」는 훈계하는 스승을 뜻했다.

제43장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준 두 번째 충고

돈키호테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아주 분별 있고 뜻이 더없이 바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 위대한 이야기가 흘러오는 동안 여러 번 말했듯이, 그는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을 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맑고 막힘없는 지성을 보여 주었고, 그래서 걸음마다 그의 행동이 그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그의 판단이 그의 행동을 깎아내렸다. 그런데 그가 산초에게 준 이 두 번째 가르침에서는 대단한 재치를 보여 주어, 그의 분별과 광기를 함께 드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

산초는 더할 나위 없이 정신을 쏟아 그의 말을 들으며, 그 충고들을 지키고 그 덕분에 통치라는 배 속의 아이를 무사히 낳아 보겠다는 사람답게 그것을 기억 속에 담아 두려고 애썼다. 돈키호테는 말을 이어 갔다.

"산초, 네 몸과 집안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관해서 첫째로 당부하거니와, 몸을 깨끗이 하고 손톱을 깎아라. 어떤 사람들처럼 손톱을 기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무지한 탓에 긴 손톱이 손을 아름답게 해 준다고 믿는데, 깎지 않고 내버려 둔 그 군더더기와 덧붙이가 손톱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도마뱀 잡는 황조롱이의 발톱이니 더럽고 터무니없는 악습이다. 산초, 띠를 풀어 헤치고 헐렁하게 다니지 마라. 흐트러진 옷차림은 무너진 마음의 표시이니라. 다만 그 흐트러짐과 헐렁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듯이 능청스러운 꾀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네 직무가 얼마만 한 값어치를 지니는지 슬기롭게 맥을 짚어 보고, 하인들에게 제복을 줄 형편이 되거든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 점잖고 쓸모 있는 것을 주되, 그것을 하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 말은, 시동 여섯을 입혀야 한다면 셋만 입히고 나머지 셋 몫으로는 가난한 사람 셋을 입히라는 뜻이니, 그러면 너는 하늘에 쓸 시동과 땅에 쓸 시동을 두게 될 것이다. 허영에 들뜬 사람들은 제복을 주는 이 새로운 길을 깨닫지 못한다. 마늘과 양파를 먹지 마라. 그 냄새로 네가 촌사람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걸어라. 차분하게 말하되, 제 말을 제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는 마라. 꾸밈은 모두 나쁜 법이다. 점심은 적게, 저녁은 더 적게 먹어라. 온몸의 건강은 위장이라는 대장간에서 벼려진다. 지나친 술은 비밀도 지키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여 마시는 데 절제하여라. 산초, 양 볼이 미어지게 씹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애기(erutar)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 애기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애기한다는 것은 트림한다(regoldar)는 말이다. 트림이라는 말은 뜻은 아주 잘 통하지만 카스티야 말에서 가장 상스러운 낱말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들은 라틴어에 기대어, 트림한다는 말 대신 애기한다고 하고, 트림 대신 애기라고 한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쓰다 보면 세월이 가면서 자리를 잡아 쉽게 알아듣게 될 테니까. 이것이 바로 말을 넉넉하게 하는 일이다. 말 위에는 뭇사람과 쓰임새가 힘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나리, 정말이지" 산초가 말했다. "제가 기억 속에 담아 가려는 충고와 당부 가운데 하나는 트림하지 말라는 것이 되겠네요. 제가 툭하면

트림을 하거든요."

"애기다, 산초. 트림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애기라고 할게요." 산초가 대답했다. "맹세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산초, 너는 늘 하던 대로 이야기에 속담을 잔뜩 섞어서는 안 된다. 속담이란 짧은 금언이긴 하지만, 너는 그것을 너무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금언이라기보다 헛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다."

"그건 하느님이나 고치실 수 있는 일입죠." 산초가 대답했다. "쇤네는 책 한 권보다 속담을 더 많이 알거든요. 말을 할라치면 한꺼번에 어찌나 많이 입으로 몰려드는지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움질을 해요. 그러면 혀는 맨 먼저 걸리는 놈부터 내던지는데, 그게 꼭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제 직책의 위엄에 걸맞은 것만 골라 쓰도록 조심하겠습니다요. 곳간이 그득한 집에선 저녁밥이 금세 지어지고, 미리 셈을 정해 둔 사람은 뒤에 다투지 않고, 종 치는 사람은 안전한 데 있고, 주는 데도 지키는 데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래, 바로 그거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끼워 넣고, 꿰고, 줄줄이 엮어라. 누가 너를 말리겠느냐! 어머니가 나를 혼내도 나는 팽이를 돌린다더니! 속담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속담을 기도문처럼 줄줄이 늘어놓았구나.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우베다 언덕 너머 이야기만큼이나 동떨어진 것들로 말이다. 보아라, 산초. 제자리에 맞게 끌어온 속담이 보기 싫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속담을 마구잡이로 쌓고 꿰어 대면 이야기가 맥이 빠지고 천해진다. 말에 오를 때는 몸을 안장 뒷가지에 젖혀 기대지 말고, 다리를 뻣뻣하게 쭉 뻗어 말 배에서 떼어 놓지도 말고, 그렇다고 잿빛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일 만큼 축 늘어져 가지도 마라. 말을 타는 일이 어떤 사람은 기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마부로 만든다. 잠은

알맞게 자거라. 해와 함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루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명심하여라, 오, 산초여.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요, 그 반대인 게으름은 좋은 바람이 바라는 끝에 다다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 너에게 주려는 이 마지막 충고는 몸을 꾸미는 데 쓰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준 충고들 못지않게 너에게 쓸모가 있으리라고 믿으니 기억 속에 잘 간직해 두어라. 가문을 두고 따지는 일에는 결코 나서지 마라. 적어도 가문들끼리 견주어서는 안 된다. 견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한쪽이 더 나은 것이 될 터이니, 네가 깎아내린 쪽에서는 미움을 받고 네가 추어올린 쪽에서는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옷차림은 통으로 된 긴 양말 바지에 기장이 긴 윗도리,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긴 망토로 하여라. 통 넓은 반바지는 꿈도 꾸지 마라. 그것은 기사에게도 통치자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 산초, 지금 충고해 줄 것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 정도다. 세월이 흐르면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주마. 네가 처한 형편을 잊지 말고 나에게 알려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좋고 거룩하고 이로운 말씀이라는 건 잘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기야 손톱을 기르지 말라는 것과, 기회가 생기면 다시 장가들라는 것은 제 대갈통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지만, 나머지 잡동사니며 얽히고설킨 것이며 뒤죽박죽인 것들은 지난해 구름만큼도 기억이 안 나고 앞으로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글로 써 주셔야겠어요.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지만, 그걸 고해 신부님께 드려서 필요할 때마다 제 머리에 집어넣고 되새겨 달라고 할게요."

"아, 가엾은 내 신세로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통치자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다니 이 얼마나 보기 흉한 일이냐! 알아 두어라, 오,

산초여,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왼손잡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천하고 낮은 부모의 자식이었거나 그 자신이 너무 말썽꾸러기에 못돼서 좋은 버릇도 좋은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말해 준다. 너는 큰 흠을 지니고 다니는 셈이구나. 그러니 적어도 서명하는 것만은 배웠으면 한다."

"제 이름은 서명할 줄 알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 신심회 회장을 맡았을 때 짐짝에 찍는 표지 같은 글자를 몇 개 그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사람들 말로는 그게 제 이름이라나요. 게다가 오른손을 못 쓰는 척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서명하게 할 거예요. 죽음 말고는 무엇에든 방도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호령권과 몽둥이를 쥐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촌장인 사람은…… 그런데 저는 촌장보다 높은 통치자가 될 테니, 가까이들 오시오, 구경시켜 준다니! 아니, 업신여기고 헐뜯어 보라지요. 양털을 깎으러 왔다가 제가 털을 깎이고 돌아갈 테니까요.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집을 아시고, 부자의 헛소리는 세상에서 금언으로 통하는 법이에요. 저는 통치자가 될 테고, 그러면서 마음씀이 후할 생각이니 부자가 될 테고, 그러면 제 흠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꿀이 되어 보라지요, 파리 떼가 빨아 먹을 테니. 가진 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우리 할머니가 늘 말했고, 뿌리내린 사람에게는 앙갚음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오, 하느님의 저주나 받아라, 산초!"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육만 사탄이 너와 네 속담을 함께 잡아가거라! 한 시간째 속담을 꿰어 대면서 하나하나로 나에게 고문의 쓴 잔을 들이켜게 하는구나. 단언하건대 그 속담들이 언젠가는 너를 교수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 속담 때문에 너의 백성들이 너에게서 통치를 빼앗거나,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말해 보아라, 이 무식한 놈아. 그걸 다 어디서 찾아내며,

또 이 얼간이야, 그걸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나는 속담 하나를 말하고 제대로 갖다 붙이려면 땅을 파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애를 쓰는데 말이다."

"정말이지, 주인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나리께서는 별것 아닌 일로 불평을 하시네요. 제가 제 재산을 쓰는데 무슨 놈의 일로 그렇게 속을 썩이세요? 저한테는 다른 재산도 다른 밑천도 없고, 속담에 또 속담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여기 안성맞춤인, 바구니에 담긴 배처럼 딱 들어맞는 속담 넷이 떠오르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말 잘 참는 사람을 산초라 한다니까요."

"그 산초는 네가 아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말을 잘 참기는커녕 말을 못되게 하고 못되게 우겨 대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금 네 기억에 떠올랐다는, 여기 꼭 들어맞는다는 속담 넷이 무엇인지 알고 싶구나. 나도 내 기억을 뒤져 보고 있는데, 내 기억력이 좋은데도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산초가 말했다. "'사랑니 두 개 사이에 절대로 엄지손가락을 넣지 마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 마누라한테 무슨 볼일이오 하는 말에는 대꾸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항아리가 돌에 부딪치든 돌이 항아리에 부딪치든, 항아리만 손해를 본다'. 다 꼭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 통치자나 자기에게 명령하는 사람한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니 두 개 사이에 손가락을 넣는 사람처럼 다치고 나올 테니까요. 사랑니가 아니더라도 어금니이기만 하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통치자가 하는 말에는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 마누라한테 무슨 볼일이오' 하는 말처럼 대꾸할 게 없다는 거고요. 항아리와 돌 이야기는 장님이라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 속의 티를 보는 사람은 제 눈 속의 들보도 봐야 해요. 그래야 '죽은 여자가 목 잘린 여자를 보고 놀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지요. 그리고

나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보도 제 집에서는 남의 집에 간 슬기로운 사람보다 더 아는 법이에요."

"그건 아니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바보는 제 집에서도 남의 집에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어리석음이 쌓인 터 위에는 슬기로운 집이 하나도 들어서지 못하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두자, 산초. 네가 잘못 다스리면 허물은 네 것이 되고 창피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힘이 닿는 한 진심과 분별을 다해 너에게 충고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로써 나는 내 의무와 약속을 다했다. 산초, 하느님께서 너를 이끄시고 통치하는 너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네가 섬을 통째로 발랑 뒤집어 놓으리라는 내 마음에 남은 걱정을 거두어 주시기를 빈다. 그 일은 공작께 네가 누구인지 밝히고, 네 그 뚱뚱한 몸과 그 조그만 체구가 속담과 잔꾀가 가득 든 자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제가 이 통치에 걸맞은 인물이 못 된다고 여기시면 지금 당장 그만두겠어요. 저는 제 영혼의 손톱 때 한 점을 제 몸뚱이 전부보다 더 아끼니까요. 맨 산초로 빵과 양파를 먹고 사나, 통치자로 자고새와 거세 수탉을 먹고 사나 매한가지예요. 게다가 잠든 동안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같아요. 그리고 나리께서 곰곰 생각해 보시면, 저를 이 통치 일에 끌어들인 건 오로지 나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야 섬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는 독수리만큼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통치자가 되면 악마가 저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통치자로 지옥에 가느니 산초로 천당에 가겠어요."

"참으로,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방금 네가 한 그 마지막 말만으로도 너는 섬 천 개의 통치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너는 타고난 바탕이 좋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학문도 소용이 없느니라.

하느님께 몸을 맡기고, 처음 품는 뜻에서 그르치지 않도록 힘써라. 내 말은, 네게 닥치는 모든 일에서 늘 바르게 해내려는 뜻과 굳은 결심을 늘 품고 있으라는 말이다. 하늘은 언제나 좋은 바람을 돕는다. 자, 식사하러 가자. 저 어른들께서 벌써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구나."

제44장 산초 판사가 통치하러 떠난 경위와 성에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기이한 모험

이 이야기의 원본에는, 시데 아메테가 이 장을 쓰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통역자가 그가 쓴 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들 한다. 그것은 무어인이 자기 자신을 두고 늘어놓은 일종의 푸념이었다. 그는 늘 돈키호테와 산초 이야기만 해야 하고 더 무게 있고 더 재미있는 다른 곁가지 이야기나 삽화로 감히 뻗어 나가지 못한다고 여겨, 돈키호테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좁은 이야기를 손에 잡은 자신을 탓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주제를 쓰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말하는 데 지성과 손과 펜을 늘 묶어 두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역이고, 그 열매가 작가에게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피하려고 제1부에서는 『주제넘은 호기심』과 『포로 대위』 같은 몇몇 이야기의 기법을 썼는데, 이 이야기들은 본 이야기에서 떨어져 있다시피 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일들은 돈키호테 자신에게 일어나 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한다. 또 그의 말을 빌리면, 그는 많은 사람이 돈키호테의 무훈에 정신이 팔려 그 이야기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멋과 기교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서둘러서든 짜증이 나서든 건너뛰어 버리리라고 생각했다. 그 멋과 기교는 그 이야기들이 돈키호테의 광기나 산초의 어리석은 말에 기대지 않고 저 홀로 세상에 나왔더라면 훤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2부에서는 따로 떨어지거나 억지로 갖다 붙인 이야기를 끼워 넣지

않고, 진실이 내놓는 바로 그 사건들에서 생겨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삽화 몇 가지만 넣으려 했으며, 그것조차 말을 아껴 그 일을 밝히는 데 넉넉한 만큼의 말로만 하려 했다. 그는 온 우주를 다룰 솜씨와 역량과 지성을 지니고도 이야기의 좁은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틀어막고 있으니, 자기의 수고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남겨 둔 것을 두고 칭찬해 달라고 청한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이어진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충고를 준 그날 식사를 마치자 그날 오후 그 충고를 글로 적어 주며 읽어 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산초는 그것을 받자마자 떨어뜨렸고, 그 글이 공작의 손에 들어갔다. 공작이 그것을 공작 부인에게 보여 주자 두 사람은 돈키호테의 광기와 재주에 새삼 감탄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장난을 이어 가며 그날 오후 산초를 많은 수행원과 함께, 그에게는 섬이 될 고장으로 떠나보냈다.

그런데 그를 맡아 데려가는 사람은 공작의 집사였다. 아주 슬기롭고 아주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슬기가 없는 곳에 재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 말한 그 멋진 솜씨로 트리팔디 백작 부인 노릇을 한 것도 그였는데, 그런 재주가 있는 데다 산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주인 부부에게서 단단히 일러 받고 갔으므로 그는 뜻한 바를 기막히게 이루어 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다. 산초는 그 집사를 보자마자 그 얼굴에서 트리팔디의 얼굴을 떠올리고 주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리,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악마한테 잡혀가든지, 아니면 나리께서 여기 있는 이 공작님 댁 집사의 얼굴이 슬픔의 시녀 부인 얼굴과 똑같다고 인정하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돈키호테는 집사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렇게 바라본 다음 산초에게 말했다.

"눈 깜짝할 사이든 아니든 악마가 너를 잡아갈 까닭은 없다, 산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슬픔의 시녀 부인 얼굴이 집사의 얼굴이라 해도, 그렇다고 집사가 슬픔의 시녀 부인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주 큰 모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을 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다가는 얽히고설킨 미로에 들어서게 될 테니까. 내 말을 믿어라, 벗아. 못된 요술쟁이들과 못된 마법사들에게서 우리 둘을 지켜 주십사 하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빌어야 한다."

"농담이 아니에요, 나리." 산초가 맞받았다. "아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트리팔디 목소리가 제 귀에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좋아요, 입은 다물고 있을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 의심을 굳혀 주든 풀어 주든 할 다른 표시가 드러나는지 눈을 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이 일에서 무엇을 알아내든, 통치하면서 무슨 일을 겪든 모두 나에게 알려 다오."

마침내 산초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떠났다. 그는 법률가 차림에, 그 위에 물결무늬 진 황갈색 낙타털 천으로 지은 아주 헐렁한 외투를 걸치고 같은 천으로 만든 사냥 모자를 썼으며, 짧은 등자를 단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공작의 분부에 따라 잿빛 당나귀가 비단으로 지은 번쩍이는 당나귀 마구와 장식을 달고 따라갔다. 산초는 이따금 고개를 돌려 자기 당나귀를 바라보았는데, 당나귀와 함께 가는 것이 어찌나 흐뭇했던지 독일 황제와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공작 부부에게 작별을 고할 때 그는 두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었고, 주인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내렸고 산초는 입을 삐죽거리며 울먹이면서 그것을 받았다.

다정한 독자여, 착한 산초가 무사히, 좋은 때에 떠나가게 놓아두어라. 그리고 그가 자기 직무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알게 되면 터져 나올 웃음 두 파네가를 기다려라. 그동안 그의 주인이 그날 밤 겪은 일을

알아보아라.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원숭이 웃음처럼 입술은 벌어질 것이다. 돈키호테의 일은 감탄으로 기리거나 웃음으로 기리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산초가 떠나자마자 돈키호테는 외로움을 느꼈고, 할 수만 있었다면 그에게 맡긴 일을 거두고 통치를 빼앗았을 것이다. 공작 부인은 그의 울적함을 알아채고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느냐고 물었다. 산초가 없어서 그렇다면 자기 집에는 그가 바라는 만큼 흡족하게 시중을 들 종자와 시녀 부인과 시녀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맞는 말씀이오, 마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가 없어서 서운하오. 그러나 내가 슬퍼 보이는 주된 까닭은 그것이 아니오. 그리고 마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많은 호의 가운데 나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마음씨만 받아들이고 고르겠소.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마님, 내 방 안에서만은 나 혼자 나를 시중들도록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기를 청하오."

"참말이지,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내 시녀들 가운데 꽃처럼 아름다운 넷이 나리 시중을 들게 할 거예요."

"나에게 그들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찌르는 가시와 같을 것이오. 그들이나 그 비슷한 무엇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마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계속하고자 하신다면, 나 혼자 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문 안에서는 내가 나를 시중들게 하여, 내 욕망과 내 정절 사이에 성벽 하나를 쌓게 내버려 두시오. 마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려는 너그러움 때문에 이 버릇을 잃고 싶지는 않소. 한마디로, 누가 내 옷을 벗기게 하느니 차라리 옷을 입은 채 자겠소."

"그만, 그만하세요,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이 맞받았다. "시녀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나리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분부를 내리겠어요. 나 때문에 돈키호테 나리의 단정함이 흐트러져서야 되겠어요? 내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나리의 많은 덕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정절이라니까요. 나리 혼자, 나리 식대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옷을 벗고 입으세요. 아무도 막지 않을 거예요. 방 안에는 문을 닫고 자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릇들이 마련되어 있을 테니 무슨 몸의 일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할 일도 없을 거예요. 위대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여, 천 세기를 살고 그 이름이 온 땅덩이에 널리 퍼지기를. 그토록 용감하고 그토록 정숙한 기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리고 자비로운 하늘이 우리 통치자 산초 판사의 마음에 채찍질 고행을 어서 끝내고 싶은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이 그토록 위대한 아씨의 아름다움을 다시 누리게 되기를."

그 말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높으신 마님께서는 마님다운 말씀을 하셨소. 착한 귀부인들의 입에는 나쁜 귀부인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 그리고 둘시네아는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들이 바칠 수 있는 온갖 찬사보다, 마님께서 칭찬해 주신 덕분에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널리 알려질 것이오."

"자, 그럼,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이 맞받았다. "저녁 먹을 때가 되었고 공작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가서 저녁을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어제 칸다야까지 다녀오신 여행이 짧지 않았으니 몸이 꽤 고단하실 테니까요."

"고단한 데는 하나도 없소, 마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님께 감히 맹세하거니와, 나는 평생 클라빌레뇨보다 더 얌전하고 걸음이 좋은 짐승을 타 본 적이 없소. 말람브루노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날래고

그토록 멋진 탈것을 버리고, 그렇게 다짜고짜 불태워 버렸는지 모르겠소."

"그건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공작 부인이 대답했다. "트리팔디와 그 일행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과, 요술쟁이요 마법사로서 저질렀을 못된 짓들을 뉘우치고 제 직업의 도구를 모두 없애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저를 이 땅 저 땅 떠돌게 하며 가장 마음을 어지럽힌 클라빌레뇨를 불태웠겠지요. 그 불탄 재와 양피지 방문이라는 전리품으로 위대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용맹이 영원히 남게 되었고요."

돈키호테는 공작 부인에게 거듭 새로이 감사를 드렸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는 아무도 시중들러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자기 아씨 둘시네아를 위해 지켜 온 정절을 잃도록 마음을 흔들거나 몰아붙일 일과 마주칠까 봐 그토록 두려워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편력 기사들의 꽃이요 거울인 아마디스의 착함이 들어 있었다. 그는 등 뒤로 문을 닫고 밀랍 초 두 자루의 불빛 아래서 옷을 벗었다. 그런데 신을 벗을 때, 오, 그런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운이여! 그의 깔끔한 몸가짐에 먹칠을 할 한숨이나 다른 무엇이 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양말 한 짝의 코가 스물네 개나 한꺼번에 풀려 버려, 양말이 격자창처럼 되고 말았다. 착한 나리는 몹시 괴로워했고, 그 자리에 초록 비단실 한 아다르메만 있다면 은 한 온스라도 내주었을 것이다. 초록 비단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말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베넹헬리는 외치며 이렇게 썼다. "오, 가난이여, 가난이여! 코르도바의 그 위대한 시인[1]이 무슨 까닭으로 너를

거룩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선물이여!

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비록 무어인이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사귀어 보아서 거룩함이 사랑과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가난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가난한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많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나는 말하겠다.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되 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라'고 한 그런 가난이라면 몰라도 말이다. 그런 것을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 내가 지금 말하는 두 번째 가난아, 너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시골 귀족과 좋은 집안에서 난 사람들에게 더 부딪쳐 오려 하느냐? 왜 그들에게 구두 틈을 검댕으로 메우게 하고, 윗도리 단추를 어떤 것은 비단으로, 어떤 것은 말총으로, 어떤 것은 유리로 달게 하느냐? 왜 그들의 칼라는 대개 늘 상추 잎처럼 손으로 주름을 잡은 것이어야 하고, 틀로 펴 낸 것이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을 보면 풀 먹이기와 틀로 편 칼라를 쓴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어 갔다. "가련하구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 제 체면에 환자 먹이는 고깃국물을 떠 넣어 가며 겨우 살려 두는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형편없는 끼니를 때우고는, 이를 쑤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면서 이쑤시개를 물고 거리에 나서서 이쑤시개를 위선자로 만드는 사람은! 가련하구나, 다시 말하지만, 체면이 겁을 잘 먹어서, 구두에 덧댄 헝겊이며 모자에 밴 땀자국이며 망토의 해진 올이며 제 배 속의 굶주림까지 1레과 밖에서도 다 보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말 코가 풀리자 돈키호테의 마음에 이 모든 생각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산초가 길에서 신는 장화 한 켤레를 두고 간 것을 보고 그는 위안을 얻었고, 이튿날 그것을 신으리라 마음먹었다. 마침내 그는 산초가 없는 허전함과 손쓸 수 없는 양말의 불운 때문에 시름에 잠겨 생각에 빠진 채 자리에 누웠다. 다른 빛깔 비단실로라도 양말 코를 꿰매고 싶었지만, 그것은 시골 귀족이 오래 끄는 궁핍 속에서 내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가난의 표시 가운데 하나다. 그는 초를 껐다. 날이 더워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정원 쪽으로 난 쇠창살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 창문을 열자 정원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이야기하는 기척이 느껴지고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오, 에메렌시아, 노래하라고 조르지 마. 저 나그네가 이 성에 들어오고 내 눈이 그를 본 그 순간부터 나는 노래할 줄은 모르고 울 줄만 안다는 걸 너도 알잖아. 게다가 마님은 깊이 주무시기보다 얕게 주무시는 편이라, 세상의 보물을 다 준대도 마님께 여기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마님이 주무시고 깨지 않는다 해도, 나를 웃음거리로 버려두려고 내 땅에 온 이 새로운 아이네이아스가 잠들어서 내 노래를 들으러 깨지 않는다면 내 노래는 헛된 거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알티시도라." 상대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공작 부인 마님도 이 집 사람들도 모두 자고 있어. 네 마음의 주인이요 네 넋을 깨우는 그 사람만 빼고. 방금 그 사람 방의 쇠창살 창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틀림없이 깨어 있을 거야. 노래해, 가엾은 내 동무야. 하프 소리에 맞춰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마님께 들키면 날이 더운 탓으로 돌리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 에메렌시아."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내 노래가 내 마음을 드러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변덕스럽고 헤픈 아가씨로 판단받을까 봐 그래. 하지만 될 대로 되라지. 가슴에 얼룩이 남는 것보다 얼굴에 부끄러움이 남는 편이 낫다니까."

그러고 나서 하프를 아주 부드럽게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돈키호테는 넋을 잃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미혹된 그의 기사 소설에서 읽은, 창문과 쇠창살과 정원, 음악과 사랑의 속삭임과 정신을 잃는 일이 나오는 이와 비슷한 수많은 모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곧 공작 부인의 시녀 가운데 누가 자기에게 반했는데 정숙함 때문에 그 마음을 숨기고 있다고 상상했고, 자기가 그 아가씨에게 넘어가지나 않을까 두려워 마음속으로 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몸을 맡기고 음악을 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일부러 재채기를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가 자기들 노래를 들어 주기만을 바라던 시녀들은 그것을 듣고 적잖이 기뻐했다. 이윽고 하프를 고르고 줄을 맞춘 알티시도라는 이런 로맨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침대에 누운 그대여,
홀란드 고운 아마포 홑이불 사이에서
다리 쭉 뻗고 잠든 그대여,
밤부터 아침까지,
라만차가 낳은
가장 용감한 기사여,
아라비아의 순금보다
더 정숙하고 더 복된 이여!
들어 다오, 서러운 아가씨의 말을.
다 자랐으나 피지 못한 이 몸은
그대 두 해님의 빛 속에서
넋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니.
그대는 그대의 모험을 찾다가
남의 불행을 찾아내고,
상처는 입히면서
낫게 할 약은 주지 않는구나.
말해 다오, 용맹한 젊은이여,
하느님이 그대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대는 리비아에서 자랐는가,
하카의 산중에서 자랐는가,
뱀들이 그대에게 젖을 먹였는가,
아니면 혹시 그대의 유모가
숲의 거칢과
산의 무서움이었는가.
둘시네아는,
포동포동 튼튼한 그 아가씨는,
사나운 범 한 마리를
꺾었다고 뽐낼 만도 하지.

그 덕에 그 아가씨는 이름을 떨치리라,
에나레스에서 하라마까지,
타호에서 만사나레스까지,
피수에르가에서 아를란사까지.
나는 그 아가씨와 자리를 바꾸고
덤으로 치마 하나를 주련다,
내 옷 가운데 가장 화사하여
금빛 술로 꾸민 치마를.
오, 그대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아니면 그대 침대 곁에서
그대 머리를 긁어 주고
비듬을 잡아 줄 수 있다면!
너무 많이 바라는구나, 나는
그토록 큰 은혜를 받을 몸이 아닌데.
그대 발이나 주물러 주고 싶어라,
미천한 계집에게는 그것으로 족하니.
오, 머릿수건을 얼마나 많이 주랴,
은빛 덧신을 얼마나,
다마스크 긴 양말을 얼마나,
홀란드 아마포 망토를 얼마나!
더없이 고운 진주를 얼마나,
알알이 떡갈나무 혹만 한 것을,
짝이 없었더라면
'외톨이 진주'라 불렸을 것을!
그대의 타르페야 바위에서
나를 태우는 이 불길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의 라만차 네로여,
그대의 노여움으로 불길을 돋우지도 마라.

나는 어린 계집, 여린 처녀,
내 나이는 열다섯이 못 된다.
열네 살 하고 석 달,
하느님과 내 넋을 걸고 맹세하마.
나는 다리를 절지도, 절름거리지도 않고,
팔이 성치 않은 데도 하나 없다.
머리카락은 백합 같아서
서 있으면 땅에 끌릴 만큼 길다.
내 입은 매부리처럼 나왔고
코는 조금 납작하지만,
이가 황옥 같으니
내 아름다움은 하늘까지 치솟는다.
내 목소리는, 들어 보면 알겠지만,
가장 고운 목소리와 맞먹고,
내 몸매는
보통보다 조금 작다.
이 몸과 다른 내 아리따움은
모두 그대 화살통의 전리품.
나는 이 집의 시녀,
알티시도라라 불린다."

여기서 깊은 상처를 입은 알티시도라의 노래는 끝났고, 사랑을 구걸받은 돈키호테의 놀람이 시작되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어찌하여 이토록 불행한 편력 기사란 말인가. 나를 보는 아가씨마다 나에게 반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어찌하여 이토록 운이 박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나의 비길 데 없는 굳은 지조를 그 아씨 홀로 누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니……! 여왕들이여, 그 아씨에게 무엇을 바라시오? 황후들이여, 무엇 때문에 그 아씨를 쫓아다니시오? 열넷에서 열다섯 살 아가씨들이여, 무엇하러 그 아씨를 몰아붙이시오? 그 가련한 아씨가 사랑의 신께서 내 마음을 그 아씨에게 굴복시키고 내 영혼을 바치게 하여 주신 그 운을 이기고 누리고 뽐내게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시오. 보시오, 사랑에 빠진 무리여. 나는 오직 둘시네아에게만 반죽이요 설탕과자이고, 다른 모든 여인에게는 부싯돌이로다. 그 아씨에게는 꿀이요 그대들에게는 쓴 알로에로다. 나에게는 오직 둘시네아만이 아름답고, 슬기롭고, 정숙하고, 늠름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요, 다른 여인들은 못생기고, 어리석고, 헤프고, 집안이 더 못한 이들이오. 자연은 내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그 아씨의 것이 되라고 나를 세상에 내던졌느니라. 알티시도라가 울든 노래하든, 마법에 걸린 무어인의 성에서 나를 두들겨 맞게 한 그 마님이 절망하든, 나는 삶든 굽든,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고 정숙한 몸으로 둘시네아의 것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요술의 권세가 막아선다 해도."

그러고 나서 그는 창문을 탁 닫고, 무슨 큰 불행이라도 닥친 것처럼 분하고 시름에 겨워 침대에 누웠다. 그를 그곳에 잠시 남겨 두기로 하자. 위대한 산초 판사가 이름난 통치를 시작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까.

---

1. 코르도바의 그 위대한 시인: 후안 데 메나(1411~1456). 그의 『운명의 미로』에 가난을 「거룩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선물」이라 부른 구절이 있다.

제45장 위대한 산초 판사가 섬을 손에 넣고 다스리기 시작한 경위

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이여, 세상의 횃불이여, 하늘의 눈이여, 술 식히는 병을 달콤하게 흔들어 주는 이여, 여기서는 팀브라이오스, 저기서는 포이보스, 이쪽에서는 활 쏘는 이, 저쪽에서는 의사, 시의 아버지요 음악을 지어낸 이여, 늘 떠오르고 지는 듯 보이지만 결코 지지 않는 그대여! 오, 사람이 사람을 낳는 데 힘을 보태는 해여,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에게 청한다, 나를 도와 내 재주의 어둠을 밝혀 다오. 위대한 산초 판사의 통치를 이야기하며 그 낱낱을 차근차근 짚어 나갈 수 있도록. 그대가 없으면 나는 미지근하고 맥이 풀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산초는 수행원들을 모두 거느리고, 공작이 거느린 고장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의 하나인, 집이 천 호쯤 되는 고장에 다다랐다. 사람들은 그곳이 바라타리아 섬이라고 그에게 일러 주었다. 그 고장 이름이 바라타리오여서 그렇다고도 하고, 그에게 통치를 값싸게(barato) 내주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고장의 문 앞에 이르자 고을 의회 사람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종이 울리고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를 성대하게 큰 성당으로 모시고 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한 다음, 몇 가지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그에게 고장의 열쇠를 넘겨주고, 그를 바라타리아 섬의 종신 통치자로 받들었다.

새 통치자의 옷차림과 수염과 뚱뚱하고 작달막한 몸집은 이 이야기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고,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놀라게 했다. 아는 사람도 많았다. 마침내 그를 성당에서 모시고 나와 재판석으로 데려가 앉혔다. 그러자 공작의 집사가 그에게 말했다.

"통치자 나리, 이 섬에는 오랜 관습이 있습니다. 이 이름난 섬을 손에 넣으러 오시는 분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하나에 대답하셔야 하는데, 그 질문은 꽤 얽히고 까다로운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대답으로 새 통치자의 재주가 어떤지 맥을 짚어 보고, 그에 따라 그분이 오신 것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요."

집사가 산초에게 이 말을 하는 동안 산초는 자기 자리 맞은편 벽에 크게 쓰인 많은 글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므로 저 벽에 있는 그림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나리, 저기에는 나리께서 이 섬을 손에 넣으신 날이 적혀 있습니다. 그 비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모년 모월 모일, 돈 산초 판사 나리께서 이 섬을 손에 넣으셨다. 부디 오래도록 누리시기를.'"

"그런데 누구를 돈 산초 판사라고 부르는 거요?" 산초가 물었다.

"나리를 부르는 것이지요." 집사가 대답했다. "이 섬에는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말고는 판사라는 성을 지닌 분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알아 두게, 형씨." 산초가 말했다. "나한테는 '돈'이 없고, 우리 집안 어디에도 있어 본 적이 없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산초 판사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도 산초, 내 할아버지도 산초였으며, 모두 판사라는 성이었지 '돈'이니 '도냐'니 하는 군더더기는 없었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섬에는 돌멩이보다 '돈'이 더 많을 것 같네. 하지만 됐네. 하느님은 내 뜻을 아시니, 통치가 나흘만 가도 이 '돈'들을 김매듯 뽑아 버릴지도 모르지. 이렇게 많으니 모기처럼 성가실 게 틀림없으니까. 집사 나리는

질문을 계속하시게. 백성들이 슬퍼하든 말든 내가 아는 한 가장 잘 대답할 테니."

바로 그때 재판정에 두 사내가 들어왔다. 하나는 농사꾼 차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가위를 든 것으로 보아 재봉사였다. 재봉사가 말했다.

"통치자 나리, 저와 이 농사꾼이 나리 앞에 온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 착한 양반이 어제 제 가게에 왔습니다(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는 실례지만, 시험을 거친 재봉사입니다요, 하느님께 찬미를). 그러고는 제 손에 천 한 조각을 쥐여 주며 묻더군요. '주인장, 이 천이면 두건 모자 하나를 지을 만큼 넉넉하겠소?' 저는 천을 가늠해 보고 넉넉하다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리고 제 짐작이 옳았습니다만, 제가 틀림없이 천을 얼마쯤 떼먹으려 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 못된 속셈과 재봉사들의 나쁜 평판에 기대서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을 만큼 되는지 보라고 맞받더군요. 저는 그 속을 알아채고 된다고 했지요. 그러자 이 사람은 처음 품은 못된 생각에 올라탄 채 두건 모자를 자꾸 늘리고, 저는 된다는 말을 자꾸 늘려서, 마침내 두건 모자가 다섯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걸 찾으러 왔기에 제가 내주었더니 바느질 삯을 치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천 값을 물어내든지 천을 돌려 달라는 겁니다."

"모두 그대로인가, 형씨?" 산초가 물었다.

"네, 나리." 농사꾼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지었다는 두건 모자 다섯 개를 나리께서 내보이게 해 주십쇼."

"기꺼이." 재봉사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짧은 망토 밑에서 손을 꺼내 손가락 다섯 개 끝에 하나씩 씌운 두건 모자 다섯 개를 보여 주며 말했다.

"이 착한 양반이 저한테 달라는 두건 모자 다섯 개가 여기 있습니다요. 하느님과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천은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감을 조합 검사관들에게 보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건 모자가 그렇게 많은 것과 처음 보는 소송을 두고 웃었다. 산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소송은 오래 끌 것 없이 곧장 올바른 사람의 판단으로 판결하면 될 것 같네. 그러니 판결을 내리겠네. 재봉사는 바느질 삯을 잃고 농사꾼은 천을 잃으며, 두건 모자는 감옥의 죄수들에게 가져다주고, 이것으로 끝일세."

앞서 가축 주인의 돈주머니에 관한 판결이 지켜보던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다면, 이 판결은 그들을 웃게 했다. 그러나 결국 통치자가 명령한 대로 되었다. 그다음에는 늙은이 둘이 그 앞에 나섰는데, 하나는 회향 줄기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지팡이가 없는 늙은이가 말했다.

"나리, 저는 오래전에 이 착한 사람에게 금화로 에스쿠도 열 닢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해 주고 좋은 일을 하려고, 제가 달라고 할 때 돌려준다는 조건으로요. 그 뒤로 여러 날을 달라고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겪던 궁핍보다 더 큰 궁핍에 빠지게 하면서까지 돌려받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아무래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달라고 했고 그 뒤로도 여러 번 달라고 했는데, 돌려주기는커녕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자기는 그런 에스쿠도 열 닢을 빌린 적이 없고, 빌렸다 해도 벌써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빌려준 일에도 돌려받은 일에도 증인이 없습니다. 돌려받은 일이 없으니까요. 나리께서 이 사람에게 맹세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돌려주었다고 맹세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앞에서도 그 돈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 말에 자네는 뭐라고 하겠나, 지팡이 짚은 착한 노인장?" 산초가 말했다.

그러자 그 늙은이가 말했다.

"나리, 저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을 인정합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 주십쇼. 이 사람이 제 맹세에 맡긴다고 하니, 정말로 틀림없이 돌려주고 갚았다고 맹세하겠습니다."

통치자가 지팡이를 내렸다. 그러자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는 맹세하는 동안 지팡이가 몹시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그것을 다른 늙은이에게 맡겨 들고 있게 한 다음, 통치자의 지팡이 십자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자기에게 달라는 그 에스쿠도 열 닢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상대의 손에 돌려주었으며, 상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다시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것을 본 위대한 통치자가 빚쟁이에게 상대의 말에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고 묻자, 빚쟁이는 틀림없이 빚진 사람이 참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를 착하고 선량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여기는데, 자기가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잊어버린 게 틀림없으니 앞으로는 결코 그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빚진 사람은 다시 지팡이를 받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을 나갔다. 산초는 그것을 보고,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 버리는 것과 고소한 사람의 참을성을 보고는, 고개를 가슴 위로 떨어뜨리고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눈썹과 코 위에 얹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있다가, 고개를 들고 벌써 가 버린 지팡이 짚은 늙은이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오자 산초는 그를 보고 말했다.

"착한 양반, 그 지팡이를 이리 주게. 내가 쓸 데가 있네."

"기꺼이 드리지요." 늙은이가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나리."

그러고는 그것을 산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산초는 지팡이를 받아 다른 늙은이에게 주며 말했다.

"하느님과 함께 가게. 이제 빚은 다 받았네."

"제가요, 나리?" 늙은이가 대답했다. "그럼 이 회향 줄기가 금화 에스쿠도 열 닢 값어치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네." 통치자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얼간이일세. 이제 내가 왕국 하나를 통째로 다스릴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될 걸세."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자리에서 그 지팡이를 부러뜨려 쪼개 보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자 그 속에서 금화 에스쿠도 열 닢이 나왔다. 모두 감탄하여 그들의 통치자를 새로운 솔로몬으로 여겼다.

사람들이 그 회향 줄기 지팡이 속에 에스쿠도 열 닢이 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맹세하던 늙은이가 맹세하는 동안 그 지팡이를 상대에게 맡기고, 정말로 틀림없이 돈을 주었다고 맹세하고는, 맹세를 마치자마자 지팡이를 도로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상대가 달라는 돈이 그 안에 들어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다스리는 사람은 바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이따금 그 판결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자기 마을 신부에게서 이와 비슷한 사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는 기억력이 어찌나 좋았던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온 섬에 그만한 기억력은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한 늙은이는 창피를 당하고 다른 늙은이는 돈을 받고서 돌아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감탄했으며, 산초의 말과 행동과 몸짓을 적던 사람은 그를 바보로 여기고 바보로 적어야 할지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적어야 할지 끝내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 소송이 끝나자 곧 한 여자가 부유한 가축 주인 차림의 사내를 꽉 붙잡은 채 재판정에 들어왔는데, 여자는 큰 소리로 외치며 왔다.

"정의를, 통치자 나리, 정의를 베풀어 주세요! 땅에서 정의를 찾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 찾을 거예요! 내 영혼 같은 통치자 나리, 이 못된 놈이 저 들판 한가운데서 저를 붙잡아 제 몸을 잘 빨지도 않은 걸레처럼

마구 다루었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년! 제가 스물세 해가 넘도록 무어인한테서도 그리스도교 신자한테서도, 이 고장 사람한테서도 낯선 사람한테서도 지켜 온 것을 앗아 갔어요. 저는 늘 코르크참나무처럼 단단하게, 불 속의 도롱뇽처럼, 가시덤불 속의 양털처럼 온전하게 저를 지켜 왔는데, 이 착한 양반이 이제 와서 그 깨끗한 손으로 저를 주물러 놓았다고요."

"그 멋쟁이 손이 깨끗한지 아닌지는 아직 따져 봐야 하네." 산초가 말했다.

그러고는 사내 쪽으로 돌아서서 이 여자의 고소에 무어라 말하고 대답하겠느냐고 물었다. 사내는 몹시 당황하여 대답했다.

"나리들, 저는 돼지를 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 고장에서 돼지 네 마리를 팔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판매세와 이것저것 뜯긴 돈이 돼지 값보다 조금 모자랄 만큼 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이 착한 아낙을 만났는데, 무엇이든 꾸며 내고 무엇이든 끓여 내는 악마가 우리 둘을 함께 눕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넉넉히 값을 치렀는데, 이 여자는 그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올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를 억지로 범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는, 아니 하려는 맹세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한 푼도 빠짐없는 진실입니다."

그러자 통치자는 그에게 은화로 돈을 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품속 가죽 주머니에 두카도 스무 닢쯤 있다고 했다. 통치자는 그것을 꺼내 그대로 고소한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사내는 벌벌 떨며 그렇게 했다. 여자는 그것을 받아 들고는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굽실거리며, 이렇게 가난한 고아와 처녀들을 보살펴 주시는 통치자 나리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그러고 나서 두

손으로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재판정을 나갔다. 물론 그 전에 안에 든 돈이 은화인지 먼저 들여다보았다.

여자가 나가자마자 산초는 가축 주인에게 말했다. 사내는 벌써 눈물을 쏟고 있었고 눈과 마음이 제 돈주머니를 따라가고 있었다.

"착한 양반, 저 여자를 쫓아가서 싫다고 하더라도 돈주머니를 빼앗아 가지고 이리 돌아오게."

바보나 귀머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사내는 곧장 번개처럼 떠나 명령받은 일을 하러 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 기다렸는데, 조금 뒤에 사내와 여자가 처음보다 더 단단히 엉겨 붙어 맞잡은 채 돌아왔다. 여자는 치마를 걷어 올려 그 앞자락에 돈주머니를 넣었고 사내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기를 썼지만, 여자가 하도 지키는 바람에 어림도 없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하느님과 세상의 정의를! 통치자 나리, 이 몹쓸 놈의 낯가죽 두껍고 겁 없는 꼴 좀 보세요. 마을 한복판, 길 한복판에서 나리께서 저한테 주라고 하신 돈주머니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래, 빼앗겼나?" 통치자가 물었다.

"빼앗기다니요?" 여자가 대답했다. "돈주머니를 빼앗기느니 차라리 목숨을 빼앗기겠어요. 제가 그리 만만한 계집애인 줄 알아요! 저를 할퀴려면 이 비루하고 더러운 놈보다 센 고양이를 제 얼굴에 던져야 할걸요! 집게와 망치, 메와 끌로도, 사자 발톱으로도 이걸 제 손톱 밑에서 빼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 몸 한가운데서 넋부터 뽑아 가야 할걸요!"

"이 여자 말이 맞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저는 손들었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제 힘으로는 이 여자한테서 그걸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자 통치자가 여자에게 말했다.

"정숙하고 용감한 여인이여, 그 돈주머니를 보여 주게."

여자가 곧 그것을 건네자 통치자는 그것을 사내에게 돌려주고, 힘이 센 데다 힘으로 당하지는 않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이보게, 아주머니. 이 돈주머니를 지키느라 보여 준 그 기세와 용기를, 아니 그 절반만이라도 자네 몸을 지키는 데 보여 주었다면 헤라클레스의 힘도 자네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을 걸세. 하느님과 함께 가되, 재수 옴 붙어 가게. 이 섬 안에도, 사방 6레과 안에도 머물지 말게. 어기면 매 이백 대일세. 당장 꺼지라니까, 이 수다쟁이에 뻔뻔하고 사기꾼 같은 여편네야!"

여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떨어뜨리고 못마땅한 얼굴로 가 버렸다. 통치자가 사내에게 말했다.

"착한 양반, 자네 돈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자네 마을로 가게. 그리고 앞으로 돈을 잃고 싶지 않거든 아무하고나 함께 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게."

사내는 서투르기 짝이 없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새 통치자의 판단과 판결에 다시 한번 감탄했으며, 이 모든 것을 그의 기록관이 적어 두었고, 곧 몹시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공작에게 글로 써 보냈다.

착한 산초는 여기 남겨 두기로 하자. 알티시도라의 음악에 마음이 들뜬 그의 주인이 우리를 몹시 재촉하고 있으니까.

제46장 사랑에 빠진 알티시도라의 연애 사건 와중에 돈키호테가 겪은 방울과 고양이의 무시무시한 소동

우리는 사랑에 빠진 아가씨 알티시도라의 음악이 불러일으킨 생각들에 휩싸인 위대한 돈키호테를 남겨 두고 왔다. 그는 그 생각들을 안고 자리에 누웠는데, 생각들이 벼룩처럼 굴어 그는 잠시도 잠들거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고, 거기에 양말에서 빠져나간 코들에 대한 생각까지 보태졌다. 그러나 시간은 날래고 시간을 붙잡아 둘 골짜기는 없는 법이라, 시간은 시각들을 타고 달려 아침 시각이 아주 빨리 찾아왔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는 푹신한 깃털 침대를 떠나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영양 가죽 빛깔의 옷을 입었고, 양말의 불운을 가리려고 길에서 신는 장화를 신었다. 그 위에 진홍색 큰 망토를 걸치고 은빛 장식 끈을 두른 초록 벨벳 사냥 모자를 머리에 썼으며, 잘 드는 좋은 칼을 매단 칼띠를 어깨에 걸고, 늘 지니고 다니는 큰 묵주를 손에 쥐고서 아주 의젓하게 몸을 흔들며 대기실로 나갔다. 거기에는 공작 부부가 벌써 옷을 차려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회랑을 지날 때 알티시도라와 그 동무인 다른 시녀가 일부러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티시도라는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기절하는 척했고 동무는 그 아가씨를 치마폭에 받아 안고 재빨리 가슴께의 단추를 풀려고 했다. 그것을 본 돈키호테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발작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알고 있소."

"저는 모르겠는데요." 동무가 대답했다. "알티시도라는 이 집에서 가장 튼튼한 아가씨라서, 제가 알고 지낸 뒤로 이 애가 '아야' 소리 한 번 내는 걸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의 편력 기사들이 모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벌이나 받으라지요. 돈키호테 나리, 저리 가 주세요. 나리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이 가엾은 애가 정신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가씨, 오늘 밤 내 방에 류트 하나를 갖다 두게 해 주시오. 이 상처받은 아가씨를 내 힘닿는 대로 잘 달래 보겠소. 사랑이 막 싹틀 때는 일찌감치 미몽을 깨 주는 것이 흔히 뛰어난 약이 되니까."

그러고는 거기서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리를 떠났다. 그가 미처 멀어지기도 전에 기절했던 알티시도라가 정신을 차리고 동무에게 말했다.

"류트를 갖다 놓아야겠다. 틀림없이 돈키호테가 우리한테 음악을 들려주려나 봐. 그 사람 음악이니 나쁘지는 않겠지."

두 사람은 곧 공작 부인에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돈키호테가 류트를 달라고 한 것까지 알렸다. 공작 부인은 몹시 기뻐하며 공작과 시녀들과 짜고 그에게 해롭기보다는 우스운 장난을 하나 치기로 했다. 그들은 몹시 즐거워하며 밤을 기다렸는데, 밤은 낮이 왔던 것만큼이나 빨리 왔고, 공작 부부는 그 낮을 돈키호테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다. 그리고 공작 부인은 그날 거짓 없이 정말로, 숲에서 마법에 걸린 둘시네아 노릇을 했던 자기 시동 하나를 테레사 판사에게 보냈다. 테레사의 남편 산초 판사의 편지와, 산초가 보내 달라고 남겨 둔 옷 꾸러미를 들려 보내며, 테레사와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잘 알아 오라고 일렀다.

그 일을 마치고 밤 열한 시가 되자 돈키호테는 자기 방에서 비우엘라 한 대를 찾아냈다. 그는 줄을 고르고 쇠창살 창문을 열었는데, 정원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비우엘라의 줄받이를 손가락으로 훑어 보고 아는 한 가장 잘 음을 맞춘 다음, 침을 뱉고 목을 가다듬고는, 조금 쉬었지만 음은 맞는 목소리로 그날 손수 지은 다음 로맨스를 불렀다.

"사랑의 힘은 흔히
영혼을 제자리에서 끌어내니,
그 연장으로 삼는 것은
마음 놓은 게으름이라.
바느질과 수놓기,
그리고 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사랑의 시름이라는 독에는
흔히 해독제가 되느니라.
얌전히 집에 머무는 아가씨들,
시집가기를 바라는 그들에게는
정숙함이 지참금이요
칭찬의 목소리라.
편력 기사들도,
궁정을 드나드는 이들도,
헤픈 여자들과는 사랑을 속삭이고
정숙한 여자들과는 혼인하느니.
해 뜨는 쪽에서 오는 사랑,
나그네끼리 나누는 사랑은
금세 해 지는 쪽에 이르니,
떠날 때 끝나 버리기 때문이라.
갓 찾아온 사랑,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사랑은
영혼에 그 모습을
깊이 새겨 두지 못한다.
그림 위에 덧그린 그림은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않고,
첫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아름다움은 끗발이 없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나는 영혼의 빈 서판에
그렇게 그려 두었으니
지울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조는
가장 값진 몫이니,
사랑은 지조로 기적을 이루고
또한 지조를 높이 세우느니라."

돈키호테의 노래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공작 부부와 알티시도라와 성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돈키호테의 쇠창살 창문 바로 위로 수직으로 나 있는 복도 위에서 방울 백 개 넘게 매단 밧줄 하나를 늘어뜨리고, 곧이어 그 뒤로 큰 자루 하나에 든 고양이들을 쏟아부었다. 고양이들 꼬리에도 더 작은 방울들이 매여 있었다. 방울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이 장난을 꾸며 낸 공작 부부조차 깜짝 놀랐고, 돈키호테는 겁에 질려 넋을 잃었다. 그리고 운수가 그렇게 되느라 고양이 두세 마리가 그의 방 쇠창살 창문으로 들어와 이리저리 부딪치며 날뛰니, 마치 악마 한 무리가 그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고양이들은 방 안에 타던 초들을 꺼뜨리고 빠져나갈 데를 찾아 헤맸다. 큰 방울들을 단 밧줄은 쉬지 않고 내려왔다 올라갔다 했고, 사건의 진실을 모르는 성안 사람들 대부분은 숨을 죽이고 놀라워했다.

돈키호테는 벌떡 일어서서 칼을 빼 들고 쇠창살 창문 너머로 찌르기 시작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물러가라, 사악한 마법사들아! 물러가라, 요술쟁이 패거리야!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너희의 못된 속셈은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느니라!"

그러고는 방 안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게로 돌아서서 칼을 마구 휘둘렀다. 고양이들은 쇠창살 창문으로 몰려가 그리로 빠져나갔는데, 한 마리는 돈키호테의 칼질에 너무 몰리자 그의 얼굴로 뛰어올라 발톱과 이빨로 코를 물고 늘어졌다. 그 아픔에 돈키호테는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공작 부부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서둘러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곁쇠로 문을 열고 보니 가엾은 기사가 얼굴에서 고양이를 떼어 내려고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불을 들고 들어가 그 어울리지 않는 싸움을 보았다. 공작이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가자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아무도 이놈을 떼어 내지 마시오! 이 악마, 이 요술쟁이, 이 마법사와 나를 일대일로 겨루게 내버려 두시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누구인지 내가 이놈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리라!"

그러나 고양이는 이 위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더 세게 조였다. 그래도 마침내 공작이 고양이를 뜯어내 쇠창살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돈키호테는 얼굴이 체처럼 구멍투성이가 되고 코도 성치 않았지만, 그 흉악한 마법사와 그토록 치열하게 붙은 싸움을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 몹시 분했다. 사람들은 아파리시오 기름[1]을 가져오게 했고, 알티시도라가 몸소 그 새하얀 손으로 다친 곳마다 붕대를 감아 주었다. 붕대를 감으며 그 아가씨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이 모든 불운이 너에게 닥치는 건, 돌처럼 굳은 기사야, 네가 모질고 고집스러운 죄 때문이야. 하느님께서 네 종자 산초가 매질하는 걸 잊어버리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둘시네아가 영영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너는 그 여자를 누리지도 못하고 신방에 들지도 못하기를. 적어도 너를 사모하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이 모든 말에 돈키호테는 깊은 한숨 한 번 쉰 것 말고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침대에 몸을 뻗고 누워 공작 부부에게 그 호의를 고마워했다. 그 고양이 같고 마법 부리고 방울 단 패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자기를 도우러 와 준 그 고운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공작 부부는 그를 쉬게 두고 물러갔는데, 장난이 잘못된 것을 마음 아파했다. 이 모험이 돈키호테에게 그토록 무겁고 값비싸게 치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 모험으로 그는 닷새 동안 방에 갇혀 자리에 누워 지냈고, 그동안 지난번 모험보다 더 재미있는 모험을 또 하나 겪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역사가는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통치에 몹시 열심이고 몹시 재미나게 굴던 산초 판사에게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

1. 아파리시오 기름: 16세기 마드리드에 살던 아파리시오 데 수비아가 만들어 이름을 떨친 상처 약 기름.

제47장 산초 판사가 통치를 하며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어 간다

이야기는 전한다. 사람들은 재판정에서 산초 판사를 호화로운 궁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의 큰 홀에는 임금님 상처럼 화려하고 더없이 깨끗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산초가 홀에 들어서자 피리가 울리고 시동 넷이 나와 손 씻을 물을 바쳤고, 산초는 아주 점잖게 그것을 받았다.

음악이 그치자 산초는 식탁 머리에 앉았는데, 자리는 그것 하나뿐이었고 식탁 전체에 다른 사람 몫의 상차림도 없었다. 그의 곁에는 나중에 의사로 드러난 사람 하나가 고래수염 회초리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은 수많은 접시를 덮고 있던 더없이 값지고 새하얀 보를 걷어 내자,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가 식사 축복 기도를 올렸고, 시동 하나가 산초에게 레이스 단 턱받이를 둘러 주었다. 식사 시중장 노릇을 하는 다른 사람이 과일 접시 하나를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런데 그가 한 입을 먹자마자 회초리를 든 사람이 회초리로 접시를 건드렸고,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접시를 그의 앞에서 치워 버렸다. 그러자 시중장이 다른 음식 접시를 갖다 놓았다. 산초가 그것을 맛보려고 했지만, 손이 닿기도 전에, 맛을 보기도 전에 회초리가 벌써 그 접시를 건드렸고, 시동 하나가 과일 접시를 치울 때만큼이나 재빨리 그것을 들어 갔다. 그것을 본 산초는 어리둥절해져서 모두를 둘러보며 이 음식은 요술쟁이 손장난처럼 먹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회초리를 든 사람이 대답했다.

"통치자 나리, 통치자가 있는 다른 섬들의 관례와 관습대로 드실 뿐입니다. 나리, 저는 의사로서, 이 섬 통치자들의 의사 노릇을 하라고 녹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건강보다 통치자의 건강을 훨씬 더 살피며, 통치자가 병이 나면 제대로 고쳐 드리려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통치자의 체질을 가늠합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에 지켜 서서, 제가 보기에 몸에 맞는 것은 드시게 하고 해가 되고 위장에 나쁘겠다 싶은 것은 치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접시는 너무 축축해서 치우라고 했고, 다른 음식 접시도 너무 뜨겁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 목마르게 하니까 치우라고 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깃든 근본 습기를 죽이고 닳게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기 구워 놓은, 내가 보기에 간도 잘 밴 자고새 접시는 나한테 아무 해도 안 되겠구려."

그 말에 의사가 대답했다.

"저것은 제가 살아 있는 한 통치자 나리께서 드시지 못합니다."

"아니, 왜요?" 산초가 말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우리의 스승이시요 의학의 북극성이자 빛이신 히포크라테스께서 그분의 잠언 하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옴니스 사투라티오 말라, 페르디세스 아우템 페시마(Omnis saturatio mala, perdices autem pessima).' 이것은 '모든 포식은 나쁘지만 자고새 포식은 가장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의사 나리께서 이 식탁에 있는 음식 가운데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이롭고 어느 것이 가장 덜 해로운지 보고, 그걸 회초리로 두들기지 말고 먹게 해 주시오. 통치자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목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빌며 말하는데, 나는

배가 고파 죽겠소. 의사 나리가 언짢아하든 무슨 말을 더 하든, 나한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건 내 목숨을 늘려 주기는커녕 빼앗는 일이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치자 나리." 의사가 대답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저기 있는 삶은 토끼 고기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털이 북슬북슬해서 까다로운 음식이거든요. 저 송아지 고기는 굽고 양념에 재운 것만 아니라면 맛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저 앞쪽에서 김이 오르는 커다란 접시는 오야 포드리다 같은데, 그런 잡탕 냄비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으니 나한테 맛있고 이로운 것 하나쯤은 걸리지 않을 수 없을 거요."

"당치도 않습니다(Absit)!" 의사가 말했다. "그런 몹쓸 생각은 우리에게서 멀리 물러가라지요. 세상에 오야 포드리다만큼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오야 포드리다는 참사회원이나 학교 교장이나 농사꾼 혼례에나 내놓으라고 하고, 모든 섬세함과 모든 깔끔함이 갖추어져야 할 통치자들의 식탁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까닭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든 섞은 약보다 홑약이 더 귀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홑약으로는 잘못할 수가 없지만, 섞은 약은 그 재료의 양을 바꾸다 보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통치자 나리께서 건강을 지키고 북돋우려면 지금 드셔야 할 것은 대롱 웨이퍼 과자 백 개쯤과 모과 젤리 얇은 조각 몇 개입니다. 그것이 위장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산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 의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엄한 목소리로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서 공부했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의사가 대답했다.

"통치자 나리, 저는 페드로 레시오 데 아구에로(agüero, 징조) 박사라고 하고, 카라쿠엘과 알모도바르 델 캄포 사이 오른편에 있는

티르테아푸에라(Tirteafuera, 꺼져라)라는 마을 출신이며, 오수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산초는 잔뜩 성이 나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카라쿠엘에서 알모도바르 델 캄포로 갈 때 오른편에 있는 마을 티르테아푸에라 출신이고 오수나에서 학위를 받은 페드로 레시오 데 말아구에로(mal agüero, 흉조) 박사 나리, 당장 내 앞에서 꺼지시오. 안 그러면 태양에 맹세코 몽둥이를 들고, 당신부터 시작해서 몽둥이찜질로 이 섬에 의사를 하나도 남겨 두지 않겠소. 적어도 내가 보기에 무식한 의사는 말이오. 슬기롭고 신중하고 분별 있는 의사들은 내 머리 위에 받들어 모시고 거룩한 사람처럼 공경하겠지만. 다시 말하는데, 페드로 레시오, 여기서 썩 물러가시오. 안 그러면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를 들어 당신 머리통에 박살을 내겠소. 임기 끝 감사에서 따지라고 하지요. 나라의 사형 집행인 같은 못된 의사를 죽여 하느님을 섬겼다고 하면 내 죄는 벗겨질 테니까. 그리고 먹을 걸 주시오. 아니면 이 통치를 도로 가져가든지. 주인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직무는 잠두 두 알 값어치도 없으니까."

통치자가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을 보자 의사는 허둥지둥하며 티르테아푸에라, 곧 방에서 꺼지려 했는데, 바로 그때 거리에서 역마 나팔 소리가 울렸고, 시중장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돌아서며 말했다.

"주인 공작님께서 보내신 파발꾼이 옵니다. 무슨 중요한 전갈을 가져오는 게 틀림없습니다."

파발꾼이 땀을 흘리며 놀란 얼굴로 들어와 품에서 봉한 편지 한 통을 꺼내 통치자의 손에 건네자, 산초는 그것을 집사의 손에 건네며 겉봉을 읽어 보라고 했는데,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돈 산초 판사에게, 본인 또는 그 비서의 손에.' 그 말을 듣자 산초가 말했다.

"여기서 누가 내 비서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저입니다, 나리. 저는 읽고 쓸 줄 알고, 비스카야 사람이거든요."

"그런 덤까지 붙었으니" 산초가 말했다. "자네는 황제의 비서라도 넉넉히 되겠네. 그 편지를 뜯어서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보게."

갓 태어난 비서는 그렇게 했고, 적힌 것을 읽어 보더니 단둘이 다룰 일이라고 했다. 산초는 홀을 비우라고 명령하고 집사와 시중장만 남게 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의사가 물러가자 비서가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 산초 판사 나리, 나와 그 섬의 적들이 어느 날 밤인지는 모르나 그 섬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리라는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네.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하네. 또 믿을 만한 첩자들에게서 들으니, 변장한 자 넷이 자네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 고장에 들어갔다고 하네. 그들이 자네의 재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걸러 오는지 살피고, 사람들이 바치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게. 자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도우러 가도록 마음을 쓰겠네. 모든 일에서 자네의 분별에 걸맞게 처신하게. 이곳에서, 8월 16일, 새벽 네 시.

자네의 벗,

공작.

산초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기색을 보였다. 산초는 집사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그것도 당장 해야 할 일은, 레시오 박사를 지하 감옥에 처넣는 거요. 누가 나를 죽이려 든다면 그 사람일 테니까. 그것도 굶어 죽는 것처럼 보조스럽고 지독한 죽음으로 말이오."

"그리고" 시중장이 말했다. "나리께서는 이 식탁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수녀들이 바친 것인데, 흔히들 말하듯이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으니까요."

"그 말은 부정하지 않겠소."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니 우선은 빵 한 조각과 포도 4리브라쯤 주시오. 포도에는 독이 들어 있을 리 없으니까. 아무튼 나는 먹지 않고는 못 배기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싸움들에 맞설 채비를 해야 한다면 잘 먹어 두어야 하오. 배가 심장을 끌고 가지 심장이 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자네, 비서는 내 주인 공작님께 답장을 써서 분부하신 대로 한 치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리게. 그리고 내 대신 공작 부인 마님께 손에 입 맞추는 인사를 올리고, 내 편지와 꾸러미를 따로 심부름꾼을 시켜 내 마누라 테레사 판사에게 보내 주시는 걸 잊지 마시라고 간청드린다고 쓰게. 그렇게 해 주시면 큰 은혜로 여기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마님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내친김에 내 주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께도 손에 입 맞추는 인사를 끼워 넣게. 내가 은혜를 아는 빵이라는 걸 아시게 말일세. 그리고 자네는 착한 비서요 착한 비스카야 사람이니 하고 싶은 말이나 이야기에 더 들어맞는 말은 무엇이든 보태도 좋네. 그리고 이 식탁보를 걷고 나한테 먹을 걸 주시오. 나와 내 섬에 첩자든 자객이든 마법사든 얼마든지 덤벼 보라지. 내가 다 감당하겠소."

그때 시동 하나가 들어와 말했다.

"여기 볼일이 있는 농사꾼 하나가 와서 나리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사람 말로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이 볼일 있다는 자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로군." 산초가 말했다. "이런 시각은 볼일 보러 올 때가 아니라는 것도 모를 만큼 멍청할 수가 있나? 우리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 재판관들은 살과 뼈로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몸이 바라는 만큼 쉬게 내버려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기라도 했다는 건가? 하느님과 내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 통치가 오래간다면(내가 어렴풋이 보기에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볼일 있다는 자들 여럿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겠네. 이제 그 착한 사람더러 들어오라고 하게. 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첩자나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이 아닌지 살펴보게."

"아닙니다, 나리." 시동이 대답했다. "항아리처럼 텅 빈 숙맥으로 보이니까요. 제가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게 아니라면, 좋은 빵만큼이나 착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우리가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시중장" 산초가 말했다. "페드로 레시오 박사가 여기 없는 지금, 나도 뭔가 든든하고 알찬 걸 좀 먹을 수 있겠소? 빵 한 조각에 양파 하나라도 좋으니."

"오늘 밤 저녁 식사 때 점심 못 드신 것을 채워 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 흡족하고 넉넉하게 드시게 될 겁니다." 시중장이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산초가 대답했다.

그때 농사꾼이 들어왔는데, 풍채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천 레과 밖에서도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맨 먼저 한 말은 이랬다.

"여기서 어느 분이 통치자 나리십니까요?"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말고 또 누가 있겠소?" 비서가 대답했다.

"그럼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농사꾼이 말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산초에게 손에 입을 맞추게 해 달라고 청했지만, 산초는 손을 내주지 않고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명령했다. 농사꾼은 그렇게 하고 나서 말했다.

"나리, 저는 시우다드레알에서 2레과 떨어진 미겔투라라는 마을 출신 농사꾼입니다."

"티르테아푸에라가 또 하나 나왔군!" 산초가 말했다. "말해 보게, 형씨. 내가 자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건, 나도 미겔투라를 아주 잘 알고 있고, 거기가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걸세."

"그러니까 사정은 이렇습니다요, 나리." 농사꾼이 말을 이었다. "저는 하느님의 자비로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품 안에서, 그 교회가 보는 앞에서 혼인한 몸입니다. 아들 둘이 공부를 하는데, 작은놈은 학사가 되려고, 큰놈은 석사가 되려고 공부합니다. 저는 홀아비입니다. 마누라가 죽었거든요. 아니, 더 바로 말씀드리면 돌팔이 의사가 마누라를 죽였습니다. 아이를 배고 있는데 설사약을 먹였지 뭡니까. 하느님께서 그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해 주셨더라면, 그리고 아들이었더라면, 그 녀석은 박사가 되라고 공부를 시켰을 겁니다. 학사 형과 석사 형을 부러워하지 않게요."

"그러니까" 산초가 말했다. "자네 마누라가 죽지 않았거나 누가 죽이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지금 홀아비가 아니겠군."

"그렇고말고요, 나리. 절대로 아니지요." 농사꾼이 대답했다.

"거참 잘됐군그래!" 산초가 맞받았다. "계속하게, 형씨. 지금은 볼일을 볼 때가 아니라 잠잘 때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농사꾼이 말했다. "학사가 될 그 제 아들 녀석이 같은 마을에서 클라라 페를레리나라는 아가씨한테 반했습니다. 아주 큰 부자 농사꾼 안드레스 페를레리노의 딸입죠. 이 페를레리노라는 이름은 조상 대대로나 무슨 문벌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중풍(perlático)을 앓아서 그 이름을 좀 낫게 해 주려고 페를레리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아가씨는 동양의 진주 같고, 오른쪽에서 보면 들판의 꽃 같습니다.

왼쪽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천연두로 그쪽 눈이 튀어나가 없어졌거든요. 얼굴에 얽은 구멍이 많고 크긴 하지만,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건 구멍이 아니라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넋이 묻히는 무덤이랍니다. 어찌나 깔끔한지 얼굴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코를, 흔히들 말하듯이, 걷어 올리고 다니는데, 꼭 코가 입에서 달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아가씨는 더없이 보기 좋습니다. 입이 크고, 이와 어금니가 열 개나 열두 개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가장 잘생긴 입들 가운데 끼고 그 위에 금을 그을 만하니까요. 입술은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찌나 가늘고 여린지, 입술을 실처럼 감는 관습이 있다면 한 타래는 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술에 흔히 보는 빛깔과 달라서 기적처럼 보입니다. 파랑과 초록과 가지 빛깔로 얼룩덜룩하거든요. 그리고 통치자 나리, 결국에는 제 며느리가 될 아가씨의 이곳저곳을 이렇게 시시콜콜 그려 보여 드리는 걸 용서해 주십쇼. 저는 그 애를 아끼고 그 애가 밉지 않거든요."

"마음껏 그려 보게." 산초가 말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즐기고 있으니까. 점심을 먹었더라면 자네 초상화보다 더 좋은 후식은 없었을 걸세."

"그거야 제가 기꺼이 해 드리려는 일이지요." 농사꾼이 대답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식구가 될 때가 오겠지요. 그리고 나리, 그 아가씨의 맵시와 키를 그려 보일 수 있다면 감탄할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 아가씨는 허리가 굽고 오그라들어서 무릎이 입에 닿거든요. 그래도 그 아가씨가 몸을 펼 수만 있다면 천장에 머리가 닿으리라는 건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는 벌써 제 학사 녀석에게 신부의 손을 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을 펼 수가 없어요. 마디가 다 오그라들어서요. 그래도 길고 홈이 진 손톱을 보면 그 아가씨가 얼마나 착하고 생김새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좋네." 산초가 말했다. "형씨, 이제 그 아가씨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렸다고 치게. 이제 원하는 게 뭔가? 에두르지도 말고 골목길로 빠지지도 말고, 자투리도 군더더기도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오게."

"나리" 농사꾼이 대답했다. "저는 나리께서 제 사돈 될 사람에게 추천장을 한 장 써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혼인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편지 말입니다. 우리는 재산으로 보나 타고난 것으로 보나 서로 기울지 않으니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통치자 나리, 제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악령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녀석을 괴롭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불 속에 넘어진 적이 있어서 얼굴이 양피지처럼 쭈글쭈글하고 눈은 좀 눈물이 많아 샘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성품은 천사 같아서, 제 손으로 저를 두들기고 제 주먹으로 저를 치지만 않으면 복 받은 녀석일 겁니다."

"또 바라는 게 있나, 착한 양반?" 산초가 맞받았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있습니다만" 농사꾼이 말했다. "감히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해 버리지요. 먹히든 안 먹히든 가슴속에서 썩히지는 말아야지요. 나리, 저는 나리께서 제 학사 녀석의 지참금에 보태라고 두카도 삼백 닢이나 육백 닢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 차리는 데 보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따로 나가 살아야 시부모, 장인 장모의 성가신 참견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또 바라는 게 있는지 보게." 산초가 말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말을 삼가지 말고."

"아니요, 이제 없습니다." 농사꾼이 대답했다.

농사꾼이 이 말을 하자마자 통치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가 앉아 있던 의자를 움켜쥐고 말했다.

"맹세코, 이 무례하고 버릇없는 촌뜨기 나리야, 당장 내 눈앞에서 물러가 숨지 않으면 이 의자로 자네 머리통을 깨서 쪼개 놓겠네! 이

화냥년 자식 같은 악당아, 악마의 화공 같은 놈아, 이런 시각에 와서 나한테 두카도 육백 닢을 달라고? 이 구린내 나는 놈아, 내가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이 능구렁이에 얼간이야, 그게 있다 한들 내가 왜 너한테 줘야 하느냐? 그리고 미겔투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페를레리노 집안 전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썩 꺼지라니까. 안 그러면 내 주인 공작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한 말대로 해 버릴 테다! 너는 미겔투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고 지옥이 여기 보낸 능구렁이 같은 놈이 틀림없다. 말해 봐라, 이 몹쓸 놈아. 내가 통치를 맡은 지 아직 하루 반도 안 됐는데 벌써 나한테 두카도 육백 닢이 있기를 바라느냐?"

시중장이 농사꾼에게 홀에서 나가라고 눈짓을 하자, 농사꾼은 고개를 떨군 채 나갔는데, 통치자가 화풀이를 정말로 해 버릴까 봐 겁이 나는 듯 보였다. 그 악당 놈은 제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낼 줄 알았다.

그러나 산초는 화가 난 채로 두고, 이 자리에는 평화가 돌게 하고, 돈키호테에게로 돌아가자. 우리는 고양이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얼굴에 붕대를 감은 그를 남겨 두고 왔는데, 그는 여드레가 지나도록 낫지 않았다. 그 여드레 가운데 하루에 그에게 일어난 일을, 시데 아메테는 이 이야기의 일들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듯 꼼꼼하고 참되게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한다.

제48장 돈키호테가 공작 부인의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와 겪은 일과 글로 남겨 길이 기억할 만한 다른 일들

게다가 심한 상처를 입은 돈키호테는 시무룩하고 울적했다. 얼굴에는 붕대를 감았고, 하느님의 손이 아니라 고양이 발톱에 흉터가 났으니, 이는 편력 기사도에 따라붙는 불운이었다. 그는 엿새 동안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밤, 잠 못 들고 깨어 누워 자기 불운과 알티시도라의 끈질긴 구애를 곰곰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열쇠로 그의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곧 사랑에 빠진 그 아가씨가 자기 정절을 흔들어 놓고, 자기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라고 상상했다.

"아니다." 그는 자기 상상을 그대로 믿고, 남이 들을 수 있을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해도, 내 마음 한가운데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찍어 둔 아씨를 내가 더는 섬기지 않게 할 수는 없으리라. 나의 아씨여, 그대가 양파 냄새 나는 시골 처녀로 모습이 바뀌어 있든, 금빛 타호 강의 요정이 되어 금실과 비단실로 짠 천을 짜고 있든, 메를린이나 몬테시노스가 그대를 마음대로 어디에 붙잡아 두고 있든, 그대는 어디에 있든 나의 것이요, 나는 어디에 있든 그대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이 말을 마치는 것과 문이 열리는 것이 한꺼번이었다. 그는 노란 공단 침대보를 위에서 아래까지 휘감고,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얼굴과 콧수염에는 붕대를 감은 채 침대 위에 우뚝 섰다. 얼굴은 할퀸 자국 때문이었고, 콧수염은 축 늘어져 처지지 않게 하려고 감은 붕대였다. 그런 차림이고 보니 그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희한한 유령 같았다.

그는 문에 눈을 박고, 그리로 사랑에 무너져 애태우는 알티시도라가 들어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들어온 것은 더없이 근엄해 보이는 시녀 부인 하나였다. 그 부인은 가장자리를 접어 꿰맨 길고 흰 머릿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수건이 어찌나 긴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덮어 망토처럼 감싸고 있었다. 왼손 손가락 사이에는 불붙인 초 토막 하나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불빛이 눈에 들지 않게 그늘을 짓고 있었는데, 그 눈은 아주 큰 안경으로 덮여 있었다. 부인은 아주 살금살금 걸어왔고 발을 사뿐사뿐 옮겼다.

돈키호테는 자기 망루에서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 차림새를 보고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자, 그는 어떤 마녀나 요술 할멈이 그런 차림으로 자기에게 무슨 몹쓸 짓을 하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그 환영은 점점 다가왔고, 방 한가운데 이르자 눈을 들어 돈키호테가 서둘러 성호를 긋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런 모습을 보고 겁이 났다면, 부인은 그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다. 침대보를 휘감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붕대를 감은 채 그토록 키가 크고 그토록 누렇게 서 있는 그를 보자마자, 부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예수님!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깜짝 놀란 나머지 초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캄캄해지자 부인은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겁에 질려 제 치맛자락에 걸려 크게 나동그라졌다. 돈키호테는 겁이 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유령아, 아니 무엇이든 간에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누구이며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말하라. 네가 연옥에서 고통받는 넋이라면 그렇다고 말하라.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 주리라. 나는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요, 온 세상 사람에게 좋은 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라. 그러려고 내가 몸담은 편력 기사도의 규율을 받았고, 그 일은 연옥의 넋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데까지 미치느니라."

넘어져 몸이 쑤시던 시녀 부인은 자기에게 명하는 말을 듣고, 제 두려움으로 미루어 돈키호테의 두려움을 짐작하고는 서글프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정말 돈키호테시라면, 저는 나리께서 생각하셨을 그런 유령도 환영도 연옥의 넋도 아니에요. 저는 공작 부인 마님의 수석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예요. 나리께서 늘 풀어 주시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나리께 왔어요."

"말해 보시오,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돈키호테가 말했다. "혹시 그대가 무슨 뚜쟁이 노릇을 하러 온 것이오? 미리 알려 두거니와, 나는 비할 데 없는 나의 아씨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아름다움 덕분에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오. 한마디로 말하겠소,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사랑의 전갈만 빼놓고 한쪽으로 치워 둔다면 초에 다시 불을 붙여 돌아와도 좋소. 그러면 무엇이든 그대가 원하고 마음 내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시다. 다만 말했듯이 마음을 꼬드기는 아양만은 빼고 말이오."

"제가 누구의 전갈을 가져와요, 나리?"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나리께서 저를 잘못 보셨네요.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어린애 장난에 매달릴 만큼 나이를 먹지는 않았어요. 하느님 덕분에 제 넋은 아직 제 몸에 붙어 있고, 이와 어금니도 모두 입안에 있거든요. 이 아라곤 땅에 흔한 감기가 몇 개 빼앗아 가긴 했지만요.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가서 초에 불을 붙여 가지고 금방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풀어 주시는 분께 제 시름을 털어놓겠어요."

그러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다. 돈키호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에 잠겨 부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곧 이 새로운 모험을 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밀려들었고, 자기 아씨에게 약속한 신의를 깨뜨릴 위험에 몸을 내맡기는 것은 잘못된 짓이요 더 잘못된 생각이라는 마음이 들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교활하고 꾀 많은 악마가 황후와 여왕, 공작 부인과 후작 부인과 백작 부인으로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시녀 부인 하나로 나를 속이려 들지 누가 알겠는가? 악마는 할 수만 있으면 매부리코보다 들창코 여자를 내준다는 말을 나는 여러 번, 여러 슬기로운 사람에게서 들었다. 이 외로움과 이 기회와 이 고요함이 잠든 내 욕망을 깨워,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걸려 넘어진 적 없는 곳에 끝내 넘어지게 만들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경우에는 싸움을 기다리느니 달아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생각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구나. 흰 머릿수건을 쓰고 키가 껑충하고 안경 낀 시녀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무정한 가슴에라도 음탕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땅에 살집 좋은 시녀 부인이 어디 있던가? 이 세상에 성가시지 않고 찌푸리지 않고 깐깐하지 않은 시녀 부인이 어디 있던가? 그러니 물러가라, 시녀 부인 무리여, 사람의 어떤 즐거움에도 쓸모없는 무리여! 오, 그 마님은 얼마나 잘했던가! 그 마님은 안경을 끼고 방석을 깔고 앉아 바느질하는 듯한 시녀 부인 인형 둘을 자기 단상 끝에 두었다는데, 그 조각상들이 진짜 시녀 부인들만큼이나 응접실의 위엄을 세워 주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며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문을 닫고 로드리게스 부인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문을 닫으려 했을 때는

벌써 로드리게스 부인이 흰 밀랍 초에 불을 붙여 돌아오고 있었다. 부인은 침대보를 휘감고 붕대를 감고 털모자인지 두건인지를 쓴 돈키호테를 더 가까이에서 보자 다시 겁이 나서 두 걸음쯤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우리 여자들 몸은 안전한가요, 기사 나리? 나리께서 침대에서 일어나 계신 걸 보니 그리 점잖은 표시로 보이지 않아서요."

"그건 바로 내가 물어야 할 말이오, 부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묻겠소. 나야말로 덮쳐지고 억지로 당하지 않으리라고 안심해도 되겠소?"

"누구에게서, 누구를 두고 그런 안전을 바라시오, 기사 나리?"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그대에게, 그대를 두고 바라는 것이오." 돈키호테가 맞받았다. "나는 대리석이 아니고 그대도 청동이 아니며, 지금은 낮 열 시가 아니라 한밤중, 아니 내가 짐작하기로는 조금 더 지났소. 그리고 여기는 배신자요 뻔뻔한 아이네이아스가 아름답고 어진 디도를 차지한 그 동굴보다 더 닫히고 더 은밀한 방이오. 그러나 부인, 손을 주시오. 나는 내 절제와 조심성, 그리고 그대의 그 더없이 근엄한 머릿수건이 주는 안전보다 더 큰 안전은 바라지 않소."

이렇게 말하며 그는 자기 오른손에 입을 맞추고 부인의 손을 잡았고, 부인도 똑같은 예를 갖추어 손을 내주었다.

여기서 시데 아메테는 괄호를 하나 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엮인 채 문에서 침대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마호메트를 걸고 자기가 가진 알말라파 두 벌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내주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침대 속으로 들어갔고, 도냐 로드리게스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안경도 벗지 않고 초도 놓지 않은 채

앉았다. 돈키호테는 몸을 웅크리고 얼굴만 내놓은 채 온몸을 덮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자 맨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돈키호테였다.

"이제 그대는, 나의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시름에 잠긴 마음과 아픈 가슴속에 품은 것을 모두 풀어 놓고 털어놓아도 좋소. 나는 그것을 정결한 귀로 듣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도와주겠소."

"그러시리라 믿어요."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나리처럼 점잖고 정다운 분께서 이토록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정은 이래요,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는 제가 이 의자에, 아라곤 왕국 한복판에, 다 쪼그라들고 고생에 찌든 시녀 부인 차림으로 앉아 있는 걸 보고 계시지만, 저는 오비에도의 아스투리아스 출신이고, 그 지방에서 손꼽히는 집안들과 얽힌 가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박복한 운과, 어찌 된 영문인지 때 이르게 가난해진 부모님의 소홀함 때문에 궁정이 있는 마드리드로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부모님은 마음 편히 살고 더 큰 불운을 피하려고 저를 어느 지체 높은 마님 댁에 바느질 시녀로 들여보냈지요. 나리께 알려 드리고 싶은 건, 올 뽑기 수나 흰 바느질에서는 평생 아무도 저를 앞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남의 집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해 뒤에 하늘나라로 가신 게 틀림없어요. 아주 착하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니까요. 저는 고아가 되었고, 궁정 같은 대갓집에서 그런 하녀들에게 흔히 주는 쥐꼬리만 한 품삯과 쪼들린 상여금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제가 빌미를 준 것도 아닌데, 그 집의 종자 하나가 저한테 반했어요. 나이가 지긋하고 수염이 텁수룩하고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산골 사람이라 임금님만큼이나 귀족 혈통이었지요. 우리는 사랑을 그리 은밀하게 나누지 못해서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고, 마님은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피하려고 거룩한 어머니 로마 가톨릭 교회의 품 안에서, 교회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혼인시켜 주셨어요. 그 혼인에서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제게 무슨 운이 있었다면 그 운을 끝장내려고 태어난 셈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는 순산했고 달도 제대로 채웠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뒤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겪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할 틈이 있다면 나리께서도 틀림없이 놀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인은 서럽게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돈키호테 나리.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일찍 간 그이를 떠올릴 때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거든요. 아이고 맙소사, 그이가 흑옥처럼 새까만 힘센 노새 엉덩이에 우리 마님을 태우고 얼마나 위엄 있게 모셨던지! 그때는 지금 쓴다는 마차도 가마도 쓰지 않았고, 마님들은 종자의 노새 엉덩이에 타고 다녔거든요. 적어도 이 이야기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착한 남편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꼼꼼했는지 아셔야 하니까요.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거리는 좀 좁은데, 그 거리에 들어설 때 궁정 판관 한 분이 포졸 둘을 앞세우고 그 길로 나오고 있었어요. 제 착한 종자는 그분을 보자마자 노새 고삐를 돌려 그분을 따라 모시려는 기색을 보였지요. 뒤에 타고 있던 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그이에게 말했어요. '무얼 하는 거냐, 이 딱한 사람아? 내가 여기 타고 있는 게 안 보이느냐?' 판관은 예의 바른 분이라 말고삐를 당겨 세우고 그이에게 말했어요. '나리, 갈 길을 가시오. 내가 도냐 카실다 마님을 모셔야 할 사람이오.' 제 주인 마님 이름이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 남편은 모자를 손에 들고 판관을 따라 모시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걸 본 마님은 분이 치밀고 화가 나서 바늘집에서 굵은 핀인지, 아마 송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꺼내 그이 허리에 콱 찔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트는 바람에 마님이 땅바닥에 나동그라지셨지요. 마님의 하인 둘이 마님을

일으키러 달려왔고, 판관과 포졸들도 그랬어요. 과달라하라 문 앞이,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던 한량들이 떠들썩해졌어요. 마님은 걸어서 오셨고, 남편은 창자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렸다며 이발사 집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의 예의 바른 짓이 어찌나 소문이 났던지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이를 쫓아다니며 놀려 댔어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그이가 눈이 좀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 마님이 그이를 내보내셨는데, 저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이가 죽을병을 얻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되었고 딸까지 짊어지게 되었는데, 딸은 바다의 물거품처럼 쑥쑥 예쁘게 자라났어요. 마침내 제가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공작님과 막 혼인하신 공작 부인 마님께서 저를 이 아라곤 왕국으로 데려오려 하셨고, 제 딸도 마찬가지로 함께 왔어요. 여기서 날이 가고 날이 오는 동안 딸은 자랐고, 그 애와 함께 세상의 온갖 멋도 자라났지요. 종다리처럼 노래하고, 생각처럼 날렵하게 춤추고, 넋 나간 사람처럼 신나게 뛰며 춤추고, 학교 선생처럼 읽고 쓰고, 구두쇠처럼 셈을 해요. 그 애가 얼마나 깨끗한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흐르는 물도 그보다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지금 열여섯 살 다섯 달 사흘쯤 되었을 거예요. 하루쯤은 더하거나 덜할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제 이 계집애한테 공작님 영지의 어느 마을에 사는 아주 큰 부자 농사꾼의 아들이 반했어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이에요. 결국 어찌 된 영문인지 둘이 어울리게 되었고, 그 녀석은 신랑이 되겠다는 약속을 걸고 제 딸을 농락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저는 공작님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소연하며 그 농사꾼 녀석이 제 딸과 혼인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청했으니 공작님도 아시는데, 장사꾼처럼 못 들은 척하시며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 까닭은 이래요. 그 농락한 녀석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서 공작님께 돈을 빌려 드리고, 공작님이 빚을 질 때마다 보증을 서 드리니까

공작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언짢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리, 나리께서 이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 주셨으면 해요. 간청으로든 무기로든요. 모두들 말하기를 나리는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고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 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리고 제 딸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것, 그 애가 얼마나 어여쁘고 젊은지, 제가 말씀드린 그 애의 좋은 점들을 모두 눈앞에 그려 보세요. 하느님과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님의 시녀들 가운데 그 애 신발 밑창에라도 닿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알티시도라라는 애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활달하고 늘씬하다고 여기는 그 애도 제 딸과 견주면 2레과는 떨어져요. 나리께서 아셔야 할 것은,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티시도라 계집은 아름다움보다 잘난 척이 더 많고, 얌전함보다 활달함이 더 많거든요. 게다가 몸도 그리 성하지 않아요. 숨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서 잠시도 곁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공작 부인 마님도…… 입을 다물래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공작 부인 마님께 무엇이 있다는 것이오? 내 목숨을 걸고 묻겠소,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렇게까지 다짐하며 물으시니"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물으시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 마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셨지요? 반들반들 갈아 낸 칼날 같은 그 살결, 한쪽에는 해가 있고 다른 쪽에는 달이 있는 젖빛과 연지 빛깔의 그 두 뺨,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깔보고 다니는 듯한, 지나가는 곳마다 건강을 흩뿌리고 다니는 듯한 그 늠름한 걸음걸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리, 마님은 그걸 첫째로 하느님께, 그다음으로는 두 다리에 낸 샘구멍 둘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의사들

말로는 마님 몸에 가득 차 있다는 나쁜 체액이 모두 그 구멍으로 빠져나간대요."

"성모 마리아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공작 부인 마님께 그런 물 빠지는 구멍이 있다는 게 정말이오? 맨발 수도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해도 믿지 않았겠지만,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게 틀림없겠구려. 그러나 그런 샘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나쁜 체액이 아니라 녹인 용연향이 흘러나올 것이오. 참으로 이제야 샘구멍을 내는 일이 건강에 중요한 일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소."

돈키호테가 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방문을 쾅 하고 열어젖혔고, 그 소리에 놀란 도냐 로드리게스의 손에서 초가 떨어졌다. 그러자 방 안은 흔히들 말하듯 늑대 아가리 속처럼 캄캄해졌다. 곧 가엾은 시녀 부인은 누가 두 손으로 자기 목을 꽉 움켜잡아 낑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재빨리 부인의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실내화 같은 것으로 어찌나 매질을 해 대는지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다. 돈키호테는 부인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매질 차례와 매타작이 자기에게도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했다. 그 두려움은 헛되지 않았다. 말 없는 형리들은 시녀 부인을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놓더니 (부인은 감히 신음도 내지 못했다)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어, 홑이불과 침대보를 벗겨 내고 어찌나 자주, 어찌나 세게 꼬집어 댔던지 그는 주먹질로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놀라울 만큼 조용하게 벌어졌다. 싸움은 거의 반 시간이나 이어졌다. 유령들이 나가자 도냐 로드리게스는 치마를 추스르고 제 불운을 한탄하며 돈키호테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밖으로 나갔다. 돈키호테는 꼬집혀서 아프고 어리둥절하여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다. 자기를 그런 꼴로 만든

고약한 마법사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 애태우는 그를 거기 남겨 두기로 하자. 그 일은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산초 판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야기의 좋은 짜임새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제49장 산초 판사가 섬을 순찰하다 겪은 일

우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그림 그리듯 떠벌린 능구렁이 농사꾼 때문에 화가 나 시무룩해 있는 모습을 남겨 두고 왔다. 그 농사꾼은 집사에게서, 집사는 공작에게서 꾀를 일러 받아 산초를 놀리고 있었지만, 산초는 바보에 무뚝뚝하고 뚱뚱한 사람이었으면서도 그들 모두에게 꿋꿋이 맞섰다.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공작의 편지에 관한 비밀 이야기가 끝나자 다시 홀에 들어와 있던 페드로 레시오 박사에게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소. 재판관과 통치자는 청동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아니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소. 그래야 볼일 있다는 자들의 성화를 느끼지 않을 테니까. 그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 제 볼일만 생각해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제 말을 들어 주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오. 그리고 가엾은 재판관이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일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서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정해 둔 때가 아니어서든, 당장 재판관을 저주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뼈를 갉아 대고 집안 내력까지 들추어낸단 말이오. 볼일 있는 멍청이야, 볼일 있는 얼간이야, 서두르지 마라. 볼일을 보려면 알맞은 때와 형편을 기다려라. 밥 먹을 때나 잘 때 오지 마라. 재판관도 살과 뼈로 된 사람이라 본성이 저절로 요구하는 것을 본성에 주어야 한다. 나만 빼고 말이다. 나는 내 본성에 먹을 것을 주지 못하니까. 여기 앞에 계신 페드로 레시오 티르테아푸에라 박사 나리 덕분이지. 이 사람은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면서 이 죽음이 삶이라고 우기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삶을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무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기를. 내 말은 못된 의사들 무리 말이오. 좋은 의사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와 월계관을 받아 마땅하니까."

산초 판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그토록 우아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어서, 무거운 직무와 자리는 사람의 지성을 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둔하게 만들기 마련이라는 데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페드로 레시오 아구에로 데 티르테아푸에라 박사는 히포크라테스의 모든 잠언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밤 그에게 저녁을 먹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통치자는 흡족해져서 밤이 오고 저녁 먹을 시각이 오기를 몹시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가 보기에는 시간이 한자리에 꼼짝 않고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토록 바라던 시각이 마침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에게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 무침과 나이가 좀 든 송아지의 삶은 족발을 저녁으로 내주었다. 그는 밀라노의 들꿩이나 로마의 꿩, 소렌토의 송아지 고기, 모론의 자고새, 라바호스의 거위를 내준 것보다 더 맛있게 그것을 몽땅 먹어 치웠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 동안 박사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보시오, 박사 나리. 앞으로는 나한테 사치스러운 것이나 맛이 별난 음식을 먹이려고 애쓸 것 없소. 그건 내 위장을 제자리에서 끌어내는 일이 될 테니까. 내 위장은 산양 고기, 쇠고기, 돼지 비계, 소금에 절여 말린 고기, 순무와 양파에 길들어 있소. 그래서 다른 궁중 음식을 넣어 주면 깨작거리며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역겨워하기까지 하오. 식사 시중장이 해 줄 수 있는 건 오야 포드리다라고 하는 이 잡탕 냄비를 나한테 갖다주는 거요. 이건 잡탕일수록 냄새가 좋고, 먹을 것이기만 하면 뭐든 원하는 대로 그 안에 쓸어 넣고 담아 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나는 고마워하고 언젠가 그 값을 치르겠소. 그리고 아무도 나를 놀리지 마시오.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이고 아니면 아닌 거요. 우리 모두

사이좋게 어울려 살고 먹읍시다. 하느님께서 날을 밝히시면 모두에게 밝히시니까. 나는 '뇌물은 받지 말고 권리는 잃지 말라'는 말대로 이 섬을 다스리겠소. 그러니 모두 눈을 부릅뜨고 제 화살이나 잘 살피라고 하시오. 내가 알려 두는데, 악마가 칸티야나에 와 있으니 나한테 빌미를 주면 놀라운 꼴을 보게 될 거요. 아니, 꿀이 되어 보라지요, 파리 떼가 빨아 먹을 테니."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통치자 나리." 식사 시중장이 말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지당합니다. 저는 이 섬의 모든 섬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더없이 정성껏, 사랑과 호의를 다해 나리를 섬기겠노라고 약속드립니다. 나리께서 이 첫머리에 보여 주신 부드러운 통치는 나리께 해가 될 일을 하거나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리라 믿소." 산초가 대답했다.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멍청이일 거요. 다시 말하지만 내 먹을 것과 내 잿빛 당나귀 먹을 것을 잘 챙겨 주시오. 이 일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일이오. 그리고 때가 되면 순찰을 나갑시다. 나는 이 섬에서 온갖 더러운 것과 떠돌이, 게으름뱅이, 못된 짓으로 소일하는 자들을 쓸어 낼 생각이오. 벗들이여, 알아 두시오.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나라에서, 부지런한 일벌들이 만든 꿀을 먹어 치우는 벌집의 수벌이나 마찬가지요. 나는 농사꾼을 보살피고, 시골 귀족에게는 그들의 특권을 지켜 주고, 덕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무엇보다 종교와 성직자들의 명예를 존중할 생각이오. 벗들이여,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아니면 괜히 머리만 쥐어짜는 거요?"

"통치자 나리, 어찌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집사가 말했다. "저는 나리처럼 학식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 금언과 깨우침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 보고 놀랄 따름입니다. 우리를 보낸 분들도, 여기 온 우리도 나리의 재주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장난이 참말이 되고, 놀리던 사람이 놀림을 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밤이 되었고, 통치자는 레시오 박사 나리의 허락을 받아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순찰 채비를 했다. 통치자는 집사와 비서와 식사 시중장, 그리고 그의 행적을 기록에 남기는 일을 맡은 기록관과 함께 나섰고, 포졸과 서기들도 따랐는데, 그 수가 어찌나 많은지 웬만한 부대 하나를 이룰 만했다. 산초는 지팡이를 들고 그 한가운데에서 걸어갔는데, 그것은 볼 만한 구경거리였다. 마을 거리를 몇 군데 지나지 않아 칼싸움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로 달려가 보니 단둘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관헌이 오는 것을 보자 꼼짝 않고 섰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하느님과 임금님의 이름으로 사람 살려요! 사람 사는 이 마을에서 도둑질을 하고, 길 한복판에서 날강도 짓을 하는 걸 어떻게 참고 보란 말입니까?"

"진정하시오, 점잖은 양반." 산초가 말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까닭이 무엇인지 나한테 이야기해 보시오. 내가 통치자니까."

그러자 상대편 사내가 말했다.

"통치자 나리,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께서 아셔야 할 것은, 이 신사 양반이 바로 맞은편 이 노름집에서 방금 1천 레알도 넘게 땄다는 겁니다. 어떻게 땄는지는 하느님이나 아시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 양심이 일러 주는 것을 모조리 거스르면서 미심쩍은 판을 한 번 이상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정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딴 돈을 챙겼고, 저는 적어도 에스쿠도 한 닢쯤은 개평으로 주리라고 기대했지요. 좋은 판이든 나쁜 판이든 지켜보며 억지를 거들어 주고 싸움을 막아 주는 저 같은 점잖은 사람들한테 개평을 주는 게

관례요 관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노름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분해서 이 사람을 쫓아와 좋고 점잖은 말로 적어도 8레알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점잖은 사람이고, 제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물려주지도 않아서 직업도 벌이도 없다는 걸 이 사람도 아니까요. 그런데 이 능구렁이는 카쿠스 못지않은 도둑이요 안드라디야 못지않은 사기 노름꾼인데, 4레알밖에 안 주겠다지 뭡니까. 통치자 나리, 이 얼마나 낯가죽 두껍고 양심 없는 짓인지 보십쇼! 맹세코, 나리께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딴 돈을 토해 내게 하고 저울추가 몇 근짜리인지 똑똑히 알려 주었을 겁니다."

"이 말에 그대는 뭐라고 하겠소?" 산초가 물었다.

그러자 다른 사내는 상대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지만, 4레알밖에 주지 않으려 한 것은 자기가 그에게 여러 번 개평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개평을 바라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하고, 딴 사람이 사기 노름꾼이고 그 돈이 부정하게 딴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지 못하는 한 딴 사람과 셈을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기쁜 얼굴로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의 말처럼 도둑이 아니라 점잖은 사람이라는 증거로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으니, 사기 노름꾼들은 늘 자기 정체를 아는 구경꾼들에게 공물을 바치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통치자 나리, 이 사내들을 어떻게 하실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소." 산초가 대답했다. "그대, 딴 사람은, 착하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당장 여기 그대에게 칼을 휘두른 이 사람에게 1백 레알을 주시오. 그리고 감옥의 가난한 죄수들 몫으로 30레알을 더 내놓아야 하오. 그리고 그대, 직업도 벌이도 없이 이 섬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은 당장 그 1백 레알을 받고 내일 하루 안에 이 섬을 떠나 십 년 동안

추방되는 거요. 그것을 어기면 남은 기한은 저세상에서 채우게 될 거요. 내가 그대를 칼 씌우는 기둥에 매달 테니까. 적어도 내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인이 매달 거요.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시오. 손을 매섭게 대 줄 테니."

한 사람은 돈을 내놓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았으며, 받은 사람은 섬을 떠나고 내놓은 사람은 집으로 갔는데, 통치자는 남아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내가 힘이 없든지, 아니면 이 노름집들을 없애 버리든지 둘 중 하나요. 내가 어렴풋이 보기에는 아주 해로운 것들이니까."

"적어도 이 집은" 서기 하나가 말했다. "나리께서 없애지 못하실 겁니다. 아주 높은 분이 하는 곳인데, 그분이 해마다 잃는 돈이 카드로 버는 돈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거든요. 더 하찮은 다른 노름판에는 나리께서 힘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가 해를 가장 많이 끼치고 무례한 짓을 가장 많이 감추고 있으니까요. 귀한 기사님들이나 영주님들 댁에서는 이름난 사기 노름꾼들도 감히 속임수를 쓰지 못합니다. 노름이라는 악습이 이제 흔한 놀이가 되어 버렸으니, 어느 장인 집에서 노름을 하느니 귀한 댁에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인 집에서는 불운한 사람 하나를 붙잡아 한밤중이 지나도록 산 채로 가죽을 벗겨 먹으니까요."

"그래, 서기 양반." 산초가 말했다. "그 일에는 할 말이 많다는 걸 나도 아오."

그때 포리 하나가 젊은이 하나를 붙잡아 와서 말했다.

"통치자 나리, 이 젊은 녀석이 우리 쪽으로 오다가 관헌이 보이자마자 돌아서서 사슴처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놈이 틀림없다는 표시지요. 제가 쫓아갔는데, 녀석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붙잡지 못했을 겁니다."

"이놈아, 왜 달아났느냐?" 산초가 물었다.

그 말에 젊은이가 대답했다.

"나리, 관헌들이 묻는 그 많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려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직조공입니다."

"무얼 짜느냐?"

"창날을 짭니다요, 나리께서 너그러이 허락하신다면."

"자네 나한테 재롱을 떠나? 익살꾼 행세를 하겠다는 건가? 좋네! 그래, 지금 어디 가던 길이었나?"

"나리, 바람 쐬러요."

"그럼 이 섬에서는 어디서 바람을 쐬나?"

"바람 부는 데서요."

"좋아. 아주 제대로 대답하는군! 자네 똑똑하네, 젊은이. 하지만 내가 그 바람이라 치고, 내가 자네 뒤에서 순풍을 불어 감옥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게. 여봐라, 이놈을 붙잡아 끌고 가라. 오늘 밤은 거기서 바람 없이 자게 해 주마!"

"맹세코" 젊은이가 말했다. "나리께서 저를 감옥에서 재우실 수 있다면 저를 임금으로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내가 너를 감옥에서 재우지 못한다는 거냐?" 산초가 대답했다. "나한테는 내가 원할 때마다 너를 잡아 가두고 풀어 줄 힘이 없다는 거냐?"

"나리께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해도" 젊은이가 말했다. "저를 감옥에서 재우실 만큼은 안 될 겁니다."

"어째서 안 된다는 거냐?" 산초가 맞받았다. "당장 이놈을 끌고 가라. 거기서 제 눈으로 똑똑히 깨닫게 될 거다. 간수가 제 잇속 차리느라

아무리 너그럽게 굴고 싶어도 소용없다. 간수가 너를 감옥에서 한 발짝이라도 내보내면 두카도 2천 닢을 물리겠다."

"그게 다 웃기는 소리지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요는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이 다 덤벼도 저를 감옥에서 재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말해 봐라, 이 악마 같은 놈아." 산초가 말했다. "내가 채우라고 할 족쇄를 풀어 주고 너를 꺼내 줄 천사라도 있느냐?"

"그럼, 통치자 나리" 젊은이가 아주 멋들어지게 대답했다. "이치를 따져 보고 요점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나리께서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저한테 족쇄와 쇠사슬을 채우고 지하 감옥에 처넣고, 간수가 저를 내보내면 무거운 벌을 내린다고 하시고, 간수가 명령받은 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쳐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자고 싶지 않아서 밤새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깨어 있겠다고 하면, 나리께서 아무리 힘이 있으셔도 제가 원하지 않는데 저를 재우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하시지요." 비서가 말했다. "이 사람이 뜻한 대로 해냈군요."

"그러니까" 산초가 말했다. "자네가 잠을 자지 않는 건 오로지 자네 뜻 때문이지 내 뜻을 거스르려고가 아니라는 거로군."

"그렇습니다, 나리." 젊은이가 말했다. "꿈에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하느님과 함께 가게." 산초가 말했다. "자네 집에 가서 자게. 하느님께서 단잠을 주시기를. 나는 자네 잠을 빼앗고 싶지 않네. 하지만 충고하는데 앞으로는 관헌을 놀리지 말게. 언젠가 그 장난을 자네 머리통에 되돌려 줄 관헌을 만날 테니까."

젊은이는 떠났고 통치자는 순찰을 계속했다. 조금 뒤에 포리 둘이 사내 하나를 붙잡아 와서 말했다.

"통치자 나리, 사내처럼 보이는 이 사람은 사내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것도 못생기지 않은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들이 그 사람의 눈앞에 등불 두세 개를 갖다 대자, 그 불빛에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열여섯 살이나 조금 더 되어 보였고, 금실과 초록 비단실로 짠 그물망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진주 천 알처럼 아름다웠다. 그들이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진홍빛 비단 긴 양말에 흰 호박단 대님을 매었고 대님에는 금실과 작은 진주로 술을 달았다. 통 넓은 반바지는 초록빛 금란이었고, 같은 천으로 지은 헐렁한 짧은 윗옷을 걸쳤는데, 그 밑에는 금빛과 흰빛이 섞인 아주 고운 천으로 지은 조끼를 입었으며, 신발은 흰색 남자 신이었다. 칼은 차지 않았고 아주 값비싼 단검 하나를 찼으며, 손가락에는 아주 좋은 반지를 많이 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 아가씨는 모두의 눈에 좋아 보였는데, 아가씨를 본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 그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고장 사람들은 누구인지 짐작도 못 하겠다고 했고, 산초에게 칠 장난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놀랐다. 이 사건과 발견은 그들이 꾸며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머뭇거리며 기다렸다.

산초는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무슨 일로 그런 차림을 했느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더없이 얌전하게 부끄러워하며 땅에 눈을 박고 대답했다.

"나리, 이토록 비밀로 해 두어야 할 일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도둑도 죄인도 아니고, 질투의 힘에 못 이겨 정숙함이 지켜야 할 체면을 깨뜨리고 만 불운한 처녀예요."

그 말을 듣자 집사가 산초에게 말했다.

"통치자 나리, 사람들을 물리시지요. 이 아가씨가 부끄러움을 덜 느끼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요."

통치자가 그렇게 명령하자 집사와 식사 시중장과 비서만 남고 모두 물러났고, 자기들끼리만 남게 되자 아가씨는 말을 이어 갔다.

"여러분, 저는 이 고장의 양털 도급업자 페드로 페레스 마소르카의 딸이에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 댁에 자주 오시곤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오, 아가씨." 집사가 말했다. "나는 페드로 페레스를 아주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들딸 할 것 없이 자식이 하나도 없소. 게다가 그 사람이 아가씨 아버지라고 하더니 곧바로 그 사람이 아가씨 아버지 댁에 자주 온다고 하는구려."

"나도 벌써 그걸 알아챘소." 산초가 말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디에고 데 라 야나의 딸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아실 거예요."

"그건 말이 되는구려." 집사가 대답했다. "나는 디에고 데 라 야나를 아는데, 지체 높고 부유한 시골 귀족이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었소. 그리고 홀아비가 된 뒤로 이 고장에서 그 딸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소. 해조차 들여다보지 못하게 딸을 꽁꽁 가두어 두었으니까. 그런데도 소문으로는 그 딸이 더없이 아름답다고 하오."

"그건 사실이에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저예요. 제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저를 보셨으니 벌써 아셨겠지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비서가 식사 시중장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나직하게 말했다.

"이 가엾은 아가씨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소. 그토록 지체 높은 집안 아가씨가 이런 차림으로 이런 시각에 집 밖을 나다니니

말이오."

"그건 의심할 것도 없소." 식사 시중장이 대답했다. "게다가 아가씨의 눈물이 그 의심을 굳혀 주는구려."

산초는 자기가 아는 가장 좋은 말로 아가씨를 달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며, 모두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해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겠다고 했다.

"사정은 이래요, 여러분." 아가씨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저를 열 해째 가두어 두셨어요. 어머니가 땅에 묻힌 지 꼭 그만큼 되었지요. 미사는 집안의 화려한 기도실에서 드렸고, 그동안 저는 내내 낮에는 하늘의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본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거리와 광장과 성당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남동생 하나와 도급업자 페드로 페레스 말고는 남자도 몰라요. 페드로 페레스는 늘 저희 집에 드나드니까, 제 아버지를 밝히지 않으려고 그분이 제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이렇게 갇혀 지내고 성당에조차 나가지 못하게 하니 벌써 여러 날, 여러 달째 마음이 몹시 울적했어요. 저는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태어난 마을이라도요. 이 바람이 지체 높은 집안 처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체면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투우를 한다느니, 죽창 놀이를 한다느니, 연극을 한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보다 한 살 아래인 남동생에게 그게 무엇이며 제가 보지 못한 다른 많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물었지요. 동생은 아는 대로 가장 잘 설명해 주었지만, 그럴수록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만 더 타올랐어요. 마침내, 제가 신세를 망친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생에게 빌고 졸랐어요. 차라리 그런 걸 빌지도 조르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집사가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저 이야기해 주시오. 아가씨의 말과 눈물에 우리 모두 애가 타는구려."

"말씀드릴 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흘려야 할 눈물은 많이 남았지만요. 엉뚱한 데 둔 바람은 그런 대가밖에 가져다주지 못하니까요."

아가씨의 아름다움은 식사 시중장의 넋에 자리를 잡고 들어앉았다. 그는 아가씨를 다시 보려고 또 등불을 갖다 대었는데, 아가씨가 흘리는 것이 눈물이 아니라 작은 진주알이나 들판의 이슬처럼 보였고, 그는 그것을 더 높이 쳐서 동양의 진주에까지 견주며, 아가씨의 울음과 한숨이 내비치는 만큼 그 불운이 크지 않기를 바랐다. 통치자는 아가씨가 이야기를 질질 끄는 데 애가 타서, 시간이 늦었고 마을을 돌아볼 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 더는 애태우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끝내라고 했다. 아가씨는 끊어지는 흐느낌과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한숨 사이로 말했다.

"제 불운도, 제 불행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동생에게 동생 옷 한 벌로 저를 남자 차림으로 꾸며 주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밤에 저를 데리고 나가 온 마을을 구경시켜 달라고 빌었어요. 동생은 제가 하도 졸라 대니 제 바람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옷을 입히고 자기는 제 옷 한 벌을 입었는데, 그 옷이 타고난 것처럼 잘 어울려요. 동생은 수염이 하나도 없어서 꼭 아주 아름다운 처녀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밤, 한 시간쯤 전에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젊은 혈기에 엉뚱한 생각에 이끌려 온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러자 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누나, 저건 순찰대인가 봐. 발을 재게 놀리고 발에 날개를 달아서 나를 따라 뛰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들키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더니 동생은 돌아서서, 뛰었다고 하기보다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섯

걸음도 못 가서 놀란 나머지 넘어졌고, 그때 관헌의 일꾼이 와서 저를 여러분 앞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못되고 변덕스러운 짓을 한 탓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산초가 말했다. "다른 불상사는 하나도 없었고, 아가씨가 이야기 첫머리에 말한 대로 질투 때문에 집을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질투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이 마을 거리를 보는 것 이상은 아니었어요."

아가씨의 말이 참말이라는 것은, 누나에게서 떨어져 달아나다가 포리 하나에게 따라잡힌 아가씨의 동생을 포리들이 붙잡아 오면서 확인되었다. 동생은 화려한 짧은 치마에 금실 장식 끈을 두른 파란 다마스크 작은 망토 하나만 걸쳤을 뿐, 머리에는 머릿수건도 쓰지 않고 다른 꾸밈도 없이 제 머리카락뿐이었는데, 머리카락이 금발에 곱슬곱슬해서 금반지들 같았다. 통치자와 집사와 식사 시중장은 동생을 따로 데리고 가서 누나가 듣지 못하게 왜 그런 차림으로 다니느냐고 물었다. 동생은 누나 못지않게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며 누나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사랑에 빠진 식사 시중장은 그것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통치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참으로 이건 큰 철부지 장난이었소. 이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이야기하는 데 이렇게 길게 끌 것도, 이렇게 많은 눈물과 한숨도 필요 없었소. '우리는 아무개와 아무개인데, 그저 호기심에서, 다른 아무 뜻도 없이 이런 꾀를 내어 바람 쐬러 부모님 집을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으면 이야기가 끝났을 텐데, 찔끔찔끔 흐느끼고 훌쩍훌쩍 울어 댈 것 없이 말이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아가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찌나 당황했던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잃은 건 하나도 없소." 산초가 대답했다. "갑시다. 두 사람을 아버지 댁에 데려다주겠소. 어쩌면 아버지는 두 사람이 없어진 줄도 모를 거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철부지처럼 굴지 말고 그렇게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하지 마시오. 정숙한 처녀는 다리가 부러진 듯 집에 있어야 하고, 여자와 암탉은 나돌아다니다가 금세 길을 잃으며, 보고 싶어 하는 여자는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법이오. 더는 말하지 않겠소."

젊은이는 자기들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통치자의 호의에 고마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았다. 그들이 집에 이르러 동생이 쇠창살 창문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자 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하녀 하나가 내려와 문을 열어 주었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맵시와 아름다움에 놀랐고, 밤에, 그것도 마을을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보고 싶어 한 그 바람에도 놀랐지만, 모든 것을 두 사람이 아직 어린 탓으로 돌렸다.

식사 시중장은 마음이 꿰뚫려서, 자기는 공작의 하인이니 거절당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고 바로 이튿날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딸을 아내로 달라고 청하리라 마음먹었다. 산초에게도 그 젊은이를 자기 딸 산치카와 혼인시키고 싶은 마음과 어렴풋한 기대가 생겨서, 통치자의 딸이라면 어떤 신랑도 마다할 리 없다고 여겨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꺼내 보기로 했다.

이렇게 그날 밤의 순찰은 끝났고, 이틀 뒤에는 통치도 끝났으며, 그와 함께 그의 계획은 모두 뿌리째 뽑혀 지워져 버렸는데, 그 일은 뒤에 보게 될 것이다.

제50장 시녀 부인을 매질하고 돈키호테를 꼬집고 할퀸 마법사들과 형리들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산차에게 편지를 가져간 시동이 겪은 일

이 참된 이야기의 티끌 하나까지 더없이 꼼꼼하게 캐는 시데 아메테는 이렇게 말한다.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으로 가려고 제 방을 나섰을 때, 함께 자던 다른 시녀 부인 하나가 그 기척을 느꼈다. 시녀 부인이란 모두 알고 깨닫고 냄새 맡기를 좋아하는지라, 그 부인은 어찌나 조용히 뒤를 밟았던지 착한 로드리게스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녀 부인은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모든 시녀 부인에게 있는 고자질쟁이 버릇이 자기에게도 빠지지 않도록,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곧장 자기 마님인 공작 부인에게 일러바치러 갔다.

공작 부인은 그 일을 공작에게 말하고, 자기와 알티시도라가 가서 그 시녀 부인이 돈키호테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지 보고 오게 해 달라고 허락을 청했다. 공작이 허락하자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방문 바로 곁에 섰는데, 어찌나 가까웠던지 안에서 하는 말이 모두 들렸다. 그런데 로드리게스가 공작 부인의 샘구멍들, 그 아랑후에스 정원을 길바닥에 내다 버리듯 떠벌리는 것을 듣자 공작 부인은 참을 수가 없었고, 알티시도라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분이 치밀고 앙갚음할 마음에 차서 방으로 와락 들이닥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돈키호테를 체처럼 구멍투성이로 만들고 시녀 부인을 두들겨 팼다. 여자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똑바로 겨눈 모욕은 여자들 안에서 분노를 크게 깨우고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불을 지르기 때문이다.

공작 부인이 자기가 겪은 일을 공작에게 이야기하자 공작은 몹시 즐거워했다.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를 놀리며 즐기려는 뜻을 이어 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그 연극에서 둘시네아 노릇을 한 시동을, 산초 판사는 통치 일에 매여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보냈다. 남편의 편지와 공작 부인 자신의 편지 한 통, 그리고 선물로 보내는 값진 산호 목걸이 한 줄을 들려서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한다. 그 시동은 아주 슬기롭고 눈치가 빨랐는데, 주인 부부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아주 기꺼이 산초의 마을로 떠났다. 그는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개울에서 여자들이 여럿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에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기사의 종자인 산초 판사라는 사람의 아내 테레사 판사라는 여자가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빨래를 하던 계집아이 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그 테레사 판사는 우리 엄마고요, 그 산초라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고요, 그 기사는 우리 주인 나리예요."

"그럼 이리 오시오, 아가씨." 시동이 말했다. "그대 어머니한테 데려다주시오. 그대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와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그건 아주 기꺼이 해 드릴게요, 나리." 계집아이가 대답했다. 열네 살쯤 되어 보였다.

그러고는 빨던 옷을 다른 동무에게 맡기고, 맨다리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머리도 매만지지 않고 신도 신지 않고 시동의 말 앞으로 뛰어나가 말했다.

"따라오세요, 나리. 우리 집은 마을 들머리에 있고, 엄마도 거기 있어요. 여러 날째 아버지 소식을 못 들어서 몹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 시동이 말했다. "하느님께 단단히 감사드려야 할 거요."

마침내 계집아이는 깡충깡충 뛰고 달리고 뜀박질하며 마을에 이르렀고,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크게 소리쳤다.

"나와 봐, 테레사 엄마, 나와 봐, 나와 봐! 우리 착한 아버지가 보낸 편지랑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리 한 분이 오셨어!"

그 소리에 그 애 어머니 테레사 판사가 삼 부스러기 한 뭉치를 자으며 밖으로 나왔다. 갈색 치마를 입었는데 어찌나 짧은지 남부끄러운 자리에서 싹둑 잘라 낸 것 같았고, 역시 갈색인 작은 조끼에 가슴께를 덮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 늙지는 않았지만 마흔은 넘어 보였는데, 튼튼하고 꼿꼿하고 힘줄이 불거지고 개암처럼 가무잡잡했다. 테레사는 딸과 말을 탄 시동을 보고 딸에게 말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이분은 어떤 나리시니?"

"도냐 테레사 판사 마님의 종입니다." 시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말에서 뛰어내려 아주 공손하게 테레사 부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마님의 손을 주십시오, 도냐 테레사 마님. 바라타리아 섬의 정식 통치자이신 돈 산초 판사 나리의 정식 부인이자 단 한 분뿐인 부인이시니까요."

"아이고, 나리, 비키세요. 그러지 마세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저는 대갓집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흙덩이나 부수는 사람의 딸이고, 어느 통치자가 아니라 편력하는 종자의 마누라인 가난한 농사꾼 여편네예요!"

"마님께서는" 시동이 대답했다. "더없이 훌륭하신 통치자의 더없이 훌륭하신 부인이십니다. 이 말이 참말이라는 증거로 이 편지와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러고는 곧 주머니에서 금으로 끝을 장식한 산호 목걸이 한 줄을 꺼내 테레사의 목에 걸어 주며 말했다.

"이 편지는 통치자 나리께서 보내신 것이고, 제가 가져온 다른 편지 한 통과 이 산호 목걸이는 저를 마님께 보내신 공작 부인 마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테레사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딸도 마찬가지였다. 계집아이가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 돈키호테가 이 근처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그 나리가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신 통치인지 백작령인지를 아버지한테 주신 게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시동이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를 보아서 산초 나리는 지금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리, 그 편지를 저한테 읽어 주세요." 테레사가 말했다. "저는 실은 자을 줄 알아도 글은 눈곱만큼도 읽을 줄 모르거든요."

"나도 못 읽어요." 산치카가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읽어 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신부님이든 삼손 카라스코 학사님이든. 아버지 소식을 듣고 싶어서 아주 기꺼이 오실 거예요."

"아무도 부를 것 없소. 나는 실은 자을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아니까 내가 읽겠소."

그래서 시동은 편지를 모두 읽어 주었는데, 그 편지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는 공작 부인의 편지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벗 테레사에게

자네 남편 산초의 착한 마음씨와 재주가 훌륭해서 나는 내 남편 공작께 그분이 가진 많은 섬 가운데 하나의 통치를 그에게 주시라고

청하지 않을 수 없었네. 소식을 들으니 그는 매처럼 날쌔게 다스린다고 하니 나는 몹시 흡족하고, 내 주인 공작께서도 그러하시네. 그래서 그를 그 통치에 고른 일이 잘못되지 않았으니 하늘에 크게 감사드리네. 테레사 부인이 알아 두었으면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통치자를 찾기란 어려운 일일세. 하느님께서 나를, 산초가 다스리는 만큼만 훌륭하게 해 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벗, 금으로 끝을 장식한 산호 목걸이 한 줄을 보내네. 동양의 진주 목걸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너에게 뼈다귀를 주는 사람은 네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가 서로 알고 사귈 때가 오겠지. 하느님께서 어찌 될지 아시겠지. 자네 딸 산치카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고, 내 대신 채비를 하라고 일러 주게. 그 애가 생각지도 않을 때 높은 집에 시집보낼 생각이니까.

그 마을에는 도토리가 귿다고 들었네. 두 다스쯤 보내 주게. 자네 손으로 보내는 것이니 아주 귀히 여기겠네. 그리고 편지를 길게 써서 자네가 잘 지내는지 알려 주게. 무엇이 필요하거든 입만 벙긋하면 되네. 자네 입이 바라는 대로 다 될 테니까. 하느님께서 자네를 지켜 주시기를. 이곳에서.

자네를 무척 아끼는 벗,

공작 부인.

"아이고!" 편지를 다 듣고 나서 테레사가 말했다. "이 얼마나 착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마님이야! 이런 마님들하고 한 무덤에 묻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서 흔히 보는 시골 귀족 마님들 말고요. 그 마님들은 시골 귀족이라는 이유로 바람도 자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줄 알고, 무슨 여왕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성당에 가요. 농사꾼 여편네를 쳐다보는 것조차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착한 마님은 공작 부인이신데도 나를 벗이라고

부르고 나를 자기와 대등한 사람처럼 대해 주시잖아요. 나는 이분이 라만차에서 제일 높은 종탑만큼 높아지시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리, 도토리라면 마님께 한 셀레민을 보내 드리겠어요. 어찌나 굵은지 사람들이 구경거리요 볼거리로 보러 올 만한 걸로요. 그리고 산치카, 우선 이 나리를 잘 대접해 드려라. 이 말을 매어 두고, 마구간에서 달걀을 꺼내고, 비계를 넉넉히 썰어서 왕자님처럼 대접해 드리자. 이 나리가 가져오신 좋은 소식과 이 나리의 훤한 얼굴이면 무엇이든 대접받을 만하니까. 그동안 나는 나가서 이웃 여자들에게 우리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신부님과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에게도 알려야겠다. 네 아버지와 예나 지금이나 그토록 친한 분들이니까."

"그럴게, 엄마." 산치카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목걸이 절반은 나줘야 해. 공작 부인 마님이 그걸 통째로 엄마한테만 보내실 만큼 바보라고는 생각 안 해."

"다 네 거다, 얘야." 테레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며칠만 내 목에 걸고 다니게 해 줘. 정말이지 이걸 걸고 있으니 가슴이 다 기뻐지는 것 같구나."

"이 옷 가방에 든 꾸러미를 보시면" 시동이 말했다. "또 기뻐하실 겁니다. 통치자께서 사냥 갈 때 딱 하루 입으신 아주 고운 나사 옷 한 벌인데, 그걸 몽땅 산치카 아가씨께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천 년이나 사셨으면!" 산치카가 대답했다. "그걸 가져오신 분도 마찬가지로요. 필요하다면 이천 년이라도요."

그러는 사이에 테레사는 편지들을 들고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집 밖으로 나가서, 편지를 소고처럼 두들기며 가다가 마침 신부와 삼손 카라스코를 만나자 춤을 추며 말하기 시작했다.

"맹세코 이제는 가난한 친척이 없다고요! 우리가 통치를 얻었어요! 아니, 제일 잘난 체하는 시골 귀족 마님이라도 나한테 덤벼 보라지요.

새것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테레사 판사? 이게 무슨 미친 짓이고, 그 종이들은 다 무엇인가?"

"미친 짓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공작 부인과 통치자들이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건 이건 진짜 산호고요. 성모송 알과 주님의 기도 알은 두들겨 편 금이에요. 그리고 나는 통치자 마님이고요."

"하느님 말고는 아무도 자네 말을 못 알아듣겠네, 테레사.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

"거기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에게 편지들을 주었다. 신부가 삼손 카라스코에게 들리게 편지를 읽었다. 삼손과 신부는 자기들이 읽은 것에 놀란 듯 서로 쳐다보았다. 학사는 누가 그 편지들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테레사는 자기 집에 같이 가면 심부름 온 사람을 보게 될 거라고, 금빛 소나무 같은 젊은이인데 그만큼 값나가는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다고 대답했다. 신부는 테레사의 목에서 산호 목걸이를 벗겨 보고 또 보고는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놀라며 말했다.

"내가 입은 이 사제복을 걸고 말하지만, 이 편지들과 이 선물들을 두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한쪽으로는 이 산호가 진짜라는 걸 보고 만지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공작 부인이 도토리 두 다스를 보내 달라고 했다는 걸 읽고 있으니 말이오."

"이거 앞뒤를 맞춰 볼 테면 맞춰 보라지!" 그때 카라스코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그에게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수수께끼를 알아봅시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테레사도 그들과 함께 돌아갔다. 가 보니 시동은 자기 말에게 먹일 보리를 체로 치고 있었고, 산치카는 시동에게 먹일 음식을 만들려고 달걀 사이에 박을 비계 한 토막을 썰고 있었다. 시동의

풍채와 좋은 옷차림이 두 사람의 마음에 무척 들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 삼손은 그에게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소식을 들려 달라고 했다. 산초와 공작 부인 마님의 편지를 읽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해서 산초의 통치라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지중해에 있는 섬은 모두, 아니 대부분이 국왕 폐하의 것인데 섬을 다스린다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그 말에 시동이 대답했다.

"산초 판사 나리가 통치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섬인지 아닌지는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지만, 집이 천 호가 넘는 고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도토리 이야기라면, 우리 공작 부인 마님께서는 어찌나 소탈하고 겸손하신지 농사꾼 아낙에게 도토리를 보내 달라고 하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동은 이어서, 그분은 이웃 부인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한다고 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아라곤의 귀부인들은 지체가 아주 높아도 카스티야의 귀부인들처럼 그렇게 격식을 따지고 콧대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훨씬 소탈하게 대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한창일 때 산치카가 치마폭에 달걀을 가득 담아 들고 뛰어 들어와 시동에게 물었다.

"말해 줘요, 나리. 우리 아버지가 통치자가 된 뒤로 혹시 끈으로 매는 통바지를 입고 다니세요?"

"그건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시동이 대답했다. "하지만 입고 다니실 게 틀림없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산치카가 맞받았다. "아버지가 방귀 바지를 입은 꼴은 볼 만하겠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끈으로 매는 통바지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다니, 이거 참 우습지 않아요?"

"그런 옷을 입은 아버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가씨가 오래 살기만 하면요." 시동이 대답했다. "맹세코, 통치가 두 달만 가도 여행용 두건을 쓰고 다니실 기세입니다."

신부와 학사는 시동이 비꼬아 말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챘지만, 산호가 진짜이고 산초가 보낸 사냥 옷이 있으니 그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테레사가 벌써 그 옷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치카의 바람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고, 테레사가 이렇게 말하자 더욱 웃었다.

"신부님, 누구든 마드리드나 톨레도에 가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둥근 버팀테 치마를 하나 사다 달라고요. 반듯하고 온전하고, 유행에 맞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 남편의 통치를 빛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화가 나면 그 궁정에 가서 남들처럼 마차를 굴릴 거예요. 남편이 통치자인 여자라면 마차쯤은 넉넉히 끌고 다니고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엄마!" 산치카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게 내일보다 오늘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엄마하고 그 마차에 앉아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것 좀 봐, 저 계집애, 마늘만 처먹던 놈의 딸이 여자 교황이라도 된 것처럼 마차에 앉아 거드름 피우며 가는 꼴 좀 보라지!' 하고 수군대도 상관없어. 저들은 진창이나 밟으라지, 나는 땅에서 발을 들고 내 마차를 타고 다닐 테니까. 세상의 수군대는 사람들은 모두 재수 없는 해, 재수 없는 달이나 맞으라지.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고 남들은 웃으라지! 내 말이 맞지, 엄마?"

"맞고말고, 얘야!" 테레사가 대답했다. "이런 복은 다, 아니 이보다 더 큰 복도 우리 착한 산초가 나한테 미리 일러 주었단다. 두고 봐라, 얘야, 그이는 나를 백작 부인으로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무슨 복이든 처음 시작이 중요하거든. 네 착한 아버지가, 그이는 네 아버지인 것처럼

속담들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그이가 여러 번 하는 말을 나도 들었다. 송아지를 주거든 고삐 들고 달려가라. 통치를 주거든 받아라, 백작령을 주거든 움켜쥐어라, 좋은 선물을 두고 '쭈쭈' 하고 부르거든 얼른 챙겨 넣어라. 아니면 잠이나 자라지, 당신들 집 문을 두드리는 행운과 복에 대답도 하지 말고!"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거드름 피우고 뽐내는 걸 보고 '개가 삼베 바지를 얻어 입더니……' 하고 그 뒷말을 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산치카가 덧붙였다.

그 말을 듣고 신부가 말했다.

"판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몸속에 속담 자루를 하나씩 지니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소. 이 집안 사람치고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속담을 쏟아 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도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시동이 말했다. "통치자 산초 나리께서도 걸핏하면 속담을 늘어놓으시는데, 들어맞지 않는 것이 많아도 그래도 재미가 있어서 우리 공작 부인 마님과 공작님께서 무척 칭찬하십니다."

"그대는 아직도" 학사가 말했다. "산초의 통치가 참말이고,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는 공작 부인이 세상에 있다는 걸 굳게 믿고 있소? 우리는 선물을 만져 보고 편지를 읽어 보았어도 믿기지가 않소. 이것도 우리 고향 사람 돈키호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오. 그 양반은 무엇이든 마법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대가 허깨비 사신인지 살과 뼈로 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대를 만져 보고 더듬어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을 지경이오."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시동이 대답했다. "저는 참된 사신이고, 산초 판사 나리는 실제 통치자이며, 제 주인이신 공작님 내외분은 그런 통치를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초 판사 나리가 거기서 아주 용감하게 처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끼리 따져 보십시오. 저는 다른 건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맹세를 걸고, 그러니까 살아 계시고 제가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제 부모님의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학사가 맞받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도 의심한다(dubitat Augustinus)고 했소."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라지요." 시동이 대답했다. "진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실은 기름이 물 위에 뜨듯 늘 거짓 위에 떠 있기 마련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말이 아니라 행위를 믿으라(operibus credite, et non verbis)'고 했으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 저와 함께 가 보십시오. 귀로 듣고 믿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길은 내가 갈래요." 산치카가 말했다. "나리, 나리 말 엉덩이에 나를 태워 주세요. 아버지를 만나러 아주 기꺼이 갈게요."

"통치자의 따님들은 혼자 길을 나서지 않고 마차와 가마와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다니는 법입니다."

"맹세코" 산차가 대답했다. "나는 마차를 타나 어린 암나귀를 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새침데기인 줄 아세요!"

"입 다물어라, 계집애야." 테레사가 말했다. "너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 나리 말씀이 옳다. 때가 그러면 몸가짐도 그래야 하는 법이야. 산초일 때는 산차, 통치자일 때는 마님이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테레사 부인께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시동이 말했다. "그런데 저한테 먹을 것을 주시고 곧 보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돌아갈 생각이니까요."

그 말에 신부가 말했다.

"그대는 나한테 와서 고행 삼아 변변찮은 밥이나 함께 드시오. 테레사 부인은 이렇게 훌륭한 손님을 대접할 마음은 있어도 살림살이가 그만 못하니까."

시동은 사양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더 나은 쪽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신부는 그를 기꺼이 데려갔는데, 돈키호테와 그의 무훈에 관해 천천히 물어볼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다.

학사는 테레사에게 답장을 써 주겠다고 나섰지만, 테레사는 학사가 좀 장난꾸러기라고 여겨서 자기 일에 끼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래서 글을 쓸 줄 아는 복사 아이 하나에게 둥근 빵 하나와 달걀 두 개를 주었고, 그 아이는 테레사가 제 머리로 불러 주는 대로 편지 두 통을 써 주었다. 하나는 남편에게, 하나는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위대한 이야기에 실린 편지들 가운데 가장 못한 것은 아니다.

제51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나아간 모습과 그만큼 좋은 다른 일들

통치자가 순찰을 돈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식사 시중장은 변장한 아가씨의 얼굴과 생기와 아름다움에 온 생각을 빼앗겨 그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지새웠고, 집사는 남은 밤 시간을 산초 판사가 하고 말한 것을 주인 부부에게 써 보내는 데 썼는데, 그는 산초의 행동에도 말에도 똑같이 놀라고 있었다. 산초의 말과 행동에는 슬기로운 기미와 어리석은 기미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통치자 나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페드로 레시오 박사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과일 설탕 조림 조금과 찬물 네 모금으로 아침을 먹였다. 산초라면 빵 한 조각과 포도 한 송이와 기꺼이 바꾸었을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제 뜻이 아니라 억지로 따라야 하는 일임을 알고 영혼은 몹시 괴롭고 위장은 몹시 고달픈 채로 참고 넘어갔는데, 페드로 레시오는 적고 정갈한 음식이 머리를 맑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몸의 힘보다 지성의 힘을 써야 하는 지휘와 중책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일이라고 그에게 믿게 했다.

이런 궤변 탓에 산초는 배를 곯았고,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속으로 통치를 저주하고 그 통치를 준 사람까지 저주할 지경이었다. 그래도 그는 그 배고픔과 그 설탕 조림을 안고 그날 재판을 하러 앉았는데, 맨 처음 들어온 것은 집사와 다른 시중꾼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어느 나그네가 던진 질문이었다. 그 질문은 이러했다.

"나리, 물이 많은 강 하나가 한 영지 안의 두 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나리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중대하고도 좀 까다로운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 강 위에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끝에 교수대 하나와 재판소 같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늘 재판관 넷이 앉아서, 강과 다리와 영지의 주인이 정한 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은 이러했습니다. '누구든 이 다리를 건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는 사람은 먼저 어디로 무엇 하러 가는지 맹세해야 한다. 참말로 맹세하면 건너가게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벌로 저기 보이는 교수대에 매달아 죽이되 조금도 봐주지 않는다.' 이 법과 그 엄한 조건이 알려진 뒤로 많은 사람이 건너갔는데, 그들이 맹세한 내용을 보면 곧 참말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서 재판관들은 그들을 거침없이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맹세를 시켰더니, 그 사람이 맹세하기를 자기는 저기 있는 저 교수대에서 죽으러 가는 것이지 다른 볼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그 맹세를 곰곰이 따져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건너가게 하면 이 사람은 맹세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 법에 따라 죽어야 한다. 그렇다고 목을 매달면, 이 사람은 저 교수대에서 죽으러 간다고 맹세했으니 참말로 맹세한 셈이고, 같은 법에 따라 풀려나야 한다.' 통치자 나리, 재판관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나리께 여쭙니다. 그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들은 나리의 날카롭고 높은 지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토록 얽히고 아리송한 사건에 나리의 의견을 내려 주십사고 자기들을 대신해 나리께 간청하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자네를 나한테 보낸 그 재판관 나리들은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됐을 걸세. 나는 날카롭다기보다는 임자 없는 떠돌이 짐승에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사건을 내가 알아듣게 다시 한번 말해 보게. 어쩌면 과녁을 맞힐 수 있을지도 모르니."

묻는 사람은 처음에 한 말을 다시, 또다시 되풀이했고, 산초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을 두 마디로 밝혀 줄 수 있겠네. 이런 거지. 그 사람은 교수대에서 죽으러 간다고 맹세하는데, 거기서 죽으면 참말로 맹세한 것이니 정해진 법에 따라 풀려나 다리를 건너야 마땅하고, 목을 매달지 않으면 거짓으로 맹세한 것이니 같은 법에 따라 목을 매달아야 마땅하다는 거 아닌가."

"통치자 나리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심부름 온 사람이 말했다. "사건을 온전히 알아들으신 점에서는 더 바랄 것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내 말은 이렇네." 산초가 맞받았다. "그 사람 가운데 참말로 맹세한 쪽은 건너가게 하고 거짓말을 한 쪽은 목을 매달게. 그러면 다리를 건너는 조건이 글자 하나 어긋남 없이 지켜질 걸세."

"하지만 통치자 나리" 묻는 사람이 맞받았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거짓말하는 쪽과 참말하는 쪽으로 쪼개야 할 텐데, 쪼개면 어쩔 수 없이 죽고 말 테니,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리 오게, 착한 양반." 산초가 대답했다. "자네가 말하는 그 길손은, 내가 얼간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죽을 까닭이 살아서 다리를 건널 까닭과 똑같이 있든지 둘 중 하나일세. 참말이 그 사람을 살린다면 거짓말이 그 사람을 똑같이 죽이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내 의견은 이렇네. 자네를 나한테 보낸 그 나리들에게, 그 사람을 벌할 까닭과 풀어 줄 까닭이 저울 바늘처럼 똑같이 맞서 있으니 그냥 건너가게 하라고 전하게.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더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서명할 줄만 알면 이 말에 내 이름으로 서명해 주겠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나는 내 머리에서 나온 말을 한 게 아닐세. 내가 이 섬의 통치자가 되러 오기 전날 밤에 내 주인 돈키호테 나리가 주신 숱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기억났을 뿐이네. 정의가 의심스러울 때는 자비 쪽으로 기울어 자비에 기대라는 가르침이었지. 하느님께서 이 사건에 꼭 들어맞게 그 말씀을 지금 생각나게 해 주신 거라네."

"그렇습니다." 집사가 대답했다. "라케다이몬 사람들에게 법을 준 리쿠르고스 자신도 위대한 산초 판사 나리께서 내리신 판결보다 더 나은 판결은 내리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재판은 이것으로 마치지요. 통치자 나리께서 아주 입맛대로 잡수시도록 제가 지시해 두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그걸세. 속임수 없이 말이네." 산초가 말했다. "먹을 것을 주게. 그러면 사건이고 의문이고 내 위에 비 오듯 쏟아져도 좋네. 내가 공중에서 다 심지를 잘라 환히 밝혀 줄 테니까."

집사는 약속을 지켰다. 그렇게 슬기로운 통치자를 굶겨 죽이는 것은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고 여겼고, 게다가 맡아 온 마지막 장난을 바로 그날 밤에 산초에게 쳐서 그와의 일을 끝낼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날 산초가 티르테아푸에라 박사의 규칙과 잠언을 거슬러 식사를 마치고 식탁보를 걷을 무렵, 파발꾼 하나가 돈키호테가 통치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산초는 비서에게 그 편지를 먼저 혼자 읽어 보고 비밀로 할 만한 내용이 없으면 소리 내어 읽으라고 명령했다. 비서는 그렇게 했고, 먼저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겠습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 나리께 써 보내신 것은 금 글자로 찍어 새겨 둘 만하니까요. 편지는 이렇습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산초, 내 벗아, 나는 네가 덤벙대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려니 하고 있었는데, 듣게 된 것은 네가 슬기롭게 처신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일로 나는 하늘에 각별히 감사를 드렸다. 하늘은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실 줄 알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로운 자로 만드실 줄도 안다. 사람들 말이, 너는 사람인 듯이 다스리면서도, 너 자신을 낮추는 품을 보면 짐승인 듯이 사람 노릇을 한다더구나. 산초, 알아 두어라. 직책의 권위를 위해서는 마음의 겸손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꼭 필요할 때가 많다. 중책을 맡은 사람의 몸차림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데 맞아야지, 그 사람의 낮은 처지가 이끄는 대로 맞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옷을 잘 입어라. 막대기도 차려 놓으면 막대기로 보이지 않는 법이다. 장신구나 화려한 옷을 걸치라거나 재판관이면서 군인처럼 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네 직무가 요구하는 옷차림으로 꾸미되, 깨끗하고 단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네가 다스리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에도 한 번 일렀다. 다른 하나는 먹을거리가 넉넉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굶주림과 물자 부족보다 더 괴롭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법령을 많이 만들지 마라. 만들거든 좋은 것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지켜지고 시행되도록 힘써라. 지켜지지 않는 법령은 없는 것과 같을뿐더러, 그것을 만들 분별과 권위가 있던 군주에게 그것을 지키게 할 용기는 없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겁만 주고 집행되지 않는 법은 개구리들의 왕이 된 통나무처럼 된다. 처음에는 개구리들을 놀라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개구리들은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올라앉았다.

덕의 아버지가 되고 악덕의 의붓아버지가 되어라. 늘 엄하지도 말고 늘 무르지도 말고,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가운데를 골라라. 분별의 요점이 바로 거기 있다. 감옥과 푸줏간과 장터를 찾아가 보아라. 그런 곳에 통치자가 몸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판결이 빨리 나기를 기다리는 죄수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푸줏간 주인들에게는 도깨비가 되어 그때만이라도 저울눈을 바로 맞추게 하며, 같은 까닭으로 장터의 여자 장사꾼들에게는 허수아비가 된다. 혹시 네가 탐욕스럽거나 계집을 밝히거나 먹보라 하더라도(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만) 그런 티를 내지 마라. 백성과 너를 대하는 사람들이 네가 무엇에 기우는지 알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너를 공격해서 마침내 너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무너뜨릴 것이다.

네가 여기서 통치하러 떠나기 전에 내가 글로 써 준 충고와 가르침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라. 그것을 지키면 그 안에서, 통치자들에게 걸음마다 닥치는 수고와 어려움을 견디게 해 줄 덤 같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주인 부부에게 편지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보여 드려라. 배은망덕은 교만의 딸이요, 알려진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이며, 자기에게 잘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느님께도 고마워할 사람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공작 부인께서는 네 옷과 또 다른 선물을 네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보내려고 심부름꾼을 따로 띄우셨다. 우리는 이제나저제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내 코에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고양이 소동을 좀 겪어서 몸이 조금 불편했지만, 아무 일도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는 마법사들이 있다면 나를 지켜 주는 마법사들도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는 집사가 네가 의심한 대로 트리팔디의 일에 관련이 있었는지 알려 다오.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나에게 차례차례 알려 다오. 길도 이렇게 짧지 않으냐. 더구나 나는 지금 지내고 있는 이 한가한 생활을 곧 그만둘 생각이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일로 나는 이 나리들의 눈 밖에 날 것 같다. 그러나 마음이 많이 쓰이기는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끝내는, 끝내는 이분들의 기분보다 내 직분을 먼저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말로 「플라톤은 벗이지만 진리는 더 큰 벗이다(amicus Plato, sed magis amica veritas)」. 너에게 이 라틴어를 쓰는 것은, 네가 통치자가 된 뒤로 라틴어를 배웠으리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잘 있거라. 아무도 너를 가엾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느님께서 너를 지켜 주시기를.

네 벗,

라만차의 돈키호테.

산초는 편지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들은 사람들은 편지를 칭찬하며 슬기로운 편지로 여겼다. 산초는 곧 식탁에서 일어나 비서를 불러 함께 자기 방에 틀어박히더니, 더 미루지 않고 바로 주인 돈키호테 나리에게 답장을 쓰려고 비서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했고, 비서는 그렇게 했다. 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산초 판사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보내는 편지

볼일이 어찌나 많은지 머리를 긁을 틈도, 손톱을 깎을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하느님께서나 고쳐 주실 만큼 길게 자랐습니다. 제 영혼의 주인 나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통치에서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지금까지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나리께서

놀라시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통치에서 저는 우리 둘이 숲과 빈 들판을 돌아다닐 때보다 더 배를 곯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주인 공작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저를 죽이려고 첩자 몇이 이 섬에 들어왔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리로 오는 통치자를 모조리 죽이라고 이곳에서 품삯을 받고 있는 어느 박사 말고는 다른 첩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박사의 이름은 페드로 레시오 박사이고 티르테아푸에라 태생입니다. 그러니 나리, 보십시오. 이런 이름이니 제가 그자 손에 죽을까 봐 겁이 안 나겠습니까! 이 박사란 자는 제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자가 쓰는 약이라고는 식이요법에 또 식이요법이라, 사람을 뼈만 앙상하게 남겨 놓습니다. 마치 열병보다 쇠약이 더 큰 병이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자는 저를 굶겨 죽이고 있고, 저는 분해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 통치에 오면 더운 것을 먹고 찬 것을 마시며 깃털 요 위에 네덜란드 아마포 홑이불을 덮고 몸을 쉬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은자처럼 고행을 하러 온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고행을 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니, 끝내는, 끝내는 악마가 저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수료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기로는, 이 섬에 오곤 하던 통치자들은 섬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거나 빌려주었고, 이것은 이 통치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통치를 맡으러 가는 이들에게도 흔한 관례라고 하니까요.

어젯밤에 순찰을 돌다가 사내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하나와 여자 옷을 입은 그 오라비를 만났습니다. 제 식사 시중장은 그 아가씨에게 반해서, 자기 말로는 마음속으로 그 아가씨를 아내로 골랐다고 하고, 저는 그 젊은이를 제 사위로 골랐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그 남매의 아버지에게 저마다 품은 생각을 꺼내 볼 참인데, 그 아버지는 디에고 데 라 야나라는 사람으로, 시골 귀족이고 바랄 수 있는 만큼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저는 나리께서 충고하신 대로 장터를 찾아다니는데, 어제는 햇개암을 파는 여자 장사꾼 하나를 만났습니다. 알아보니 그 여자는 햇개암 1파네가에 속이 비고 썩은 묵은 개암 1파네가를 섞어 놓았더군요. 저는 그 개암을 모두 교리 학교 아이들[1]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라면 잘 가려낼 테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보름 동안 장터에 들어오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용감하게 해냈다고들 합니다. 제가 나리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을에서는 장터 여자 장사꾼들보다 고약한 족속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뻔뻔하고 몰인정하고 겁이 없으니까요. 저도 다른 마을에서 본 여자들로 미루어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 마님 공작 부인께서 제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쓰시고 나리 말씀대로 선물을 보내 주셨다니 아주 흐뭇합니다. 때가 되면 고마운 마음을 보여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저 대신 마님의 손에 입을 맞춰 주시고, 마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구멍 난 자루에 던져 넣지 않았다고, 그건 행동으로 보시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나리께서 그 제 주인 나리들과 언짢게 셈이 얽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리께서 그분들께 화를 내시면 그 탈이 저한테 돌아올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저더러는 고마워할 줄 알라고 충고하시면서, 나리께서는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성에서 그토록 융숭히 대접해 준 분들께 고마워하지 않으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고양이 일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못된 마법사들이 나리께 늘 저지르는 몹쓸 짓 가운데 하나겠지요. 만나면 알게 되겠지요.

나리께 무엇이든 보내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섬에서는 돼지 오줌보에 끼워 쓰는 관장기 대롱을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데, 그거라면 모를까요. 그래도 이 직책이 오래가면 치맛자락으로든 소맷자락으로든 보내 드릴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아내 테레사 판사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거든 나리께서 운임을 치르시고 그 편지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집안 형편이며 아내며 자식들 소식이 몹시 궁금하니까요. 그럼 이만, 하느님께서 나리를 악한 마음을 품은 마법사들에게서 지켜 주시고, 저를 이 통치에서 무사히 평안하게 꺼내 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될지는 의심스럽지만요. 페드로 레시오 박사가 저를 다루는 꼴을 보니 이 통치를 떠날 때는 목숨도 함께 내려놓을 것 같으니까요.

나리의 종,

통치자 산초 판사.

비서는 편지를 봉하고 곧 파발꾼을 떠나보냈다. 산초를 놀리던 이들은 한데 모여 그를 통치에서 어떻게 내보낼지 저희끼리 궁리를 정했고, 산초는 그날 오후를 자기가 섬이라고 여기는 곳을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법령 몇 가지를 만드는 데 보냈는데, 나라 안에 먹을거리를 사서 되파는 장사꾼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고, 포도주는 어느 고장에서 나온 것이든 들여올 수 있게 하되 어디서 나온 술인지 밝혀서 그 값어치와 품질과 명성에 따라 값을 매기게 하며, 술에 물을 타거나 이름을 바꾸는 자는 목숨으로 갚게 하라고 했다.

모든 신발, 그중에서도 구두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여겨 그 값을 내렸고, 이익을 좇아 고삐 풀린 듯 내달리던 하인들의 품삯에 상한을 정했으며, 밤이든 낮이든 음탕하고 상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는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리게 했다. 장님들이 부르는 기적 노래는 대부분

꾸며 낸 것이어서 참된 기적에 해가 된다고 여겨, 어떤 장님이든 그 기적이 참되다는 확실한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기적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지 못하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순경을 하나 만들어 세웠는데, 가난한 이들을 쫓아다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지 가려내게 하려는 뜻이었다. 꾸며 낸 불구와 가짜 상처의 그늘에는 도둑질하는 팔과 술에 취한 건강이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아주 좋은 것들을 명령하여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그 고장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위대한 통치자 산초 판사의 법령」이라고 불린다.

---

1. 교리 학교(colegio de la doctrina)에서 거두어 기르던 고아들.

제52장 두 번째 슬픔의 시녀 부인, 곧 고통의 시녀 부인, 다른 이름으로 도냐 로드리게스의 모험을 이야기한다

시데 아메테가 이야기하기를, 돈키호테는 할퀸 상처가 다 낫자 그 성에서 보내는 생활이 자기가 몸담은 기사도의 규율에 온통 어긋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공작 부부에게 사라고사로 떠나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하기로 했다. 사라고사의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런 축제에서 상으로 걸리는 갑옷을 따 낼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 부부와 식탁에 앉아 그 뜻을 실행에 옮기려고 막 허락을 청하기 시작했을 때, 보라, 느닷없이 커다란 홀 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복을 뒤집어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여자들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돈키호테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발치에 길게 엎드려 입을 돈키호테의 발에 바짝 대고는, 꿰매 붙인 것처럼 떨어질 줄 모르고, 어찌나 슬프고 어찌나 깊고 어찌나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하는지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공작 부부는 하인들이 돈키호테에게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여자가 한숨짓고 신음하고 우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니 그래도 미심쩍고 궁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측은한 마음이 든 돈키호테가 여자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가린 망토를 걷어 얼굴을 드러내게 했다.

여자가 그렇게 하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드러난 것은 이 집 시녀 부인 도냐 로드리게스의 얼굴이었고, 상복을 입은 다른 여자는 부자 농사꾼의 아들에게 속은 그 딸이었다. 도냐 로드리게스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공작 부부는 누구보다도 더 놀랐다. 어리숙하고 사람 좋은 여자로 여기기는 했어도 이런 미친 짓까지 하러 올 만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도냐 로드리게스가 주인 부부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각하 내외분께서는 제가 이 기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못된 마음을 품은 어느 촌놈의 뻔뻔한 짓 때문에 제가 빠져든 이 일에서 무사히 벗어나려면 그래야 하겠습니다."

공작은 허락하겠으니 돈키호테 나리와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했다. 도냐 로드리게스는 목소리와 얼굴을 돈키호테 쪽으로 바로 하고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어느 못된 농사꾼이 내 몹시 사랑하고 아끼는 딸,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불쌍한 아이에게 저지른 이치에 어긋난 짓과 배신을 그대에게 아뢴 지 여러 날이 되었소. 그때 그대는 이 아이 편에 서서 이 아이가 당한 비뚤어진 일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내게 약속하였소. 그런데 이제 들으니 그대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좋은 모험을 찾아 이 성을 떠나려 한다 하오. 그러니 그대가 저 길들로 빠져나가기 전에, 이 길들지 않은 촌놈에게 결투를 청하여, 내 딸과 동침하기 전에 먼저 남편이 되어 주겠다고 한 그 말을 지켜 내 딸과 혼인하게 해 주기를 바라노라. 공작 나리께서 내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나리께 남몰래 털어놓은 그 까닭 때문에, 느릅나무에서 배를 찾는 격이랍니다. 그러니 이만, 우리 주님께서 나리께 건강을 많이 내려 주시고 우리 모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그 말에 돈키호테는 아주 엄숙하고 거창하게 대답했다.

"착한 시녀 부인이여, 눈물을 거두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눈물을 닦고 한숨을 아끼시오. 그대 딸의 구제는 내가 떠맡겠노라. 그대 딸은 사랑에 빠진 자들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오. 그런 약속은 대개 하기는 가볍고 지키기는 몹시 무거운 법이니까. 그러니 공작 나리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 그 몹쓸 젊은이를 찾아 길을 떠나, 그자를 찾아내고, 결투를 청하고, 그자가 약속한 말을 지키기를 피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자를 죽이리라. 내 직분의 으뜸가는 일은 겸손한 자를 용서하고 오만한 자를 벌하는 것이니라. 곧 불쌍한 자를 돕고 가혹한 자를 쳐부수는 것이오."

"그럴 필요 없소." 공작이 대답했다. "이 착한 시녀 부인이 원망하는 그 촌놈을 나리께서 애써 찾으러 다니실 필요도 없고, 그자에게 결투를 청하는 데 내 허락을 구하실 필요도 없소. 나는 그자가 결투를 신청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자에게 이 결투를 알려 받아들이게 하고 이 내 성으로 와서 스스로 답하게 하는 일을 내가 맡겠소. 이 성에서 나는 두 사람에게 안전한 결투장을 내주고, 이런 일에서 늘 지키고 또 마땅히 지켜야 할 조건을 모두 지키며, 저마다의 정당한 권리도 똑같이 지켜 주겠소. 자기 영지 안에서 싸우는 자들에게 자유로운 결투장을 내주는 군주라면 누구나 그렇게 지킬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각하께서 기꺼이 허락해 주시니"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나는 여기서 선언하오. 이번만은 내 귀족 신분을 내려놓고 해를 끼친 자의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 그자와 같아지며, 그자가 나와 겨룰 자격을 갖게 해 주겠소. 그리하여 비록 그자가 이 자리에 없으나 나는 그자에게 결투를 청하고 그자를 고발하노라. 처녀였으나 그자의 잘못으로 이제는 처녀가 아닌 이 가엾은 여인을 속인 것은 나쁜 짓이었으니, 그자는 이 여인의 정식 남편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다툼에서 죽어야 하리라."

그러고는 곧 장갑 한 짝을 벗어 홀 한가운데로 던졌고, 공작이 그것을 집어 들며 이미 말한 대로 자기 가신을 대신해 그 결투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기한은 그날부터 엿새 뒤로, 결투장은 그 성의 광장으로, 무기는 기사들이 늘 쓰는 것, 곧 창과 방패와 온몸을 감싸는 갑옷과 그 밖의 모든 부속으로 정하되, 속임수나 꼼수나 주술이 하나도 없도록 결투 심판들이 살펴보고 확인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이 착한 시녀 부인과 이 처녀답지 못한 처녀가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를 돈키호테 나리의 손에 맡겨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고, 그 결투도 제대로 치러질 수 없소."

"저는 맡기겠어요." 시녀 부인이 대답했다.

"저도요." 딸이 온통 눈물을 흘리며, 온통 부끄러워하며, 언짢은 얼굴로 덧붙였다.

이렇게 약정을 맺고 공작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를 마치자 상복 입은 두 여자는 물러갔다. 공작 부인은 그때부터 두 사람을 자기 하녀가 아니라 자기 집에 정의를 청하러 온 모험하는 귀부인들로 대접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따로 방을 내주고 손님처럼 시중을 들었는데, 다른 하녀들은 도냐 로드리게스와 그 운 나쁜 딸의 어리석음과 당돌함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 적잖이 놀랐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잔치를 마저 흥겹게 하고 식사를 잘 마무리하려는 듯, 보라, 통치자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갔던 시동이 홀로 들어왔다. 그가 여행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던 공작 부부는 그가 오자 몹시 기뻐했다. 그런데 그것을 묻자 시동은 이렇게 여럿 앞에서, 그것도 짧은 말로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 두 분만 계실 때로 미뤄 주시고 그동안 이 편지들로 즐거움을 삼으시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편지 두 통을 꺼내 공작 부인의 손에 쥐여 주었다. 한 통의 겉봉에는 「어디라더라, 아무개 공작 부인 마님께

드리는 편지」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한 통에는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내 남편 산초 판사에게.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오래 잘 살게 해 주시기를」이라고 쓰여 있었다. 흔히 하는 말로 공작 부인은 자기 편지를 읽기까지 빵이 익기를 기다릴 수도 없을 만큼 애가 탔고, 편지를 뜯어 혼자 읽어 본 뒤 공작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 내어 읽어도 되겠다고 여기고는 이렇게 읽었다.

테레사 판사가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마님, 대인 마님께서 써 보내 주신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몹시 기다리던 편지였거든요. 산호 목걸이는 아주 좋고, 제 남편의 사냥 옷도 그에 뒤지지 않아요. 나리 마님께서 제 짝 산초를 통치자로 만들어 주셨다니 온 마을이 무척 기뻐했어요. 하긴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특히 신부님하고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하고 학사 삼손 카라스코가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이 그렇기만 하면, 실제로 그렇고요, 누구든 하고 싶은 말을 하라지요. 그래도 사실을 말하자면, 산호와 옷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을에서는 다들 제 남편을 멍청이로 여기거든요. 산양 떼나 다스리는 거 말고는 그 사람이 무슨 통치에 쓸모가 있을지 상상도 못 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람 자식들한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영혼의 마님, 저는 마님의 허락을 얻어 이 좋은 날을 우리 집 안에 들여놓기로 마음먹었어요. 궁정에 가서 마차에 드러누워, 벌써 저한테 생긴 시샘쟁이 천 명의 눈알을 빠지게 해 줄 작정이거든요. 그러니 각하께 비오니 제 남편더러 저한테 돈 좀, 그것도 꽤 쓸 만큼 보내라고 일러 주세요. 궁정에서는 씀씀이가 크다잖아요. 빵 한 덩이가 1레알이고 고기는 한 리브라에 30마라베디나 한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지 않기를 바라시면 미리미리 알려 주세요. 길을 떠나고 싶어서

발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제 동무들과 이웃들이 그러는데, 저와 제 딸이 궁정에서 번드르르하게 차려입고 뽐내며 다니면 제가 남편 덕에 알려지기보다 남편이 제 덕에 더 알려지게 될 거래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 마차에 탄 이 마님들은 누구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대답하겠지요.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산초 판사의 부인과 따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산초는 이름이 알려지고 저는 대접을 받을 테니, 그다음 일은 로마에 가서 다 풀면 그만이에요.

올해 이 마을에서 도토리가 하나도 거두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전하께 반 셀레민쯤 보내 드려요. 하나하나 제가 산에 가서 줍고 골랐는데, 더 더 굵은 건 찾지 못했어요. 타조 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호화로우신 마님, 저한테 편지 쓰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꼭 답장을 드리면서 제 건강이며 이 마을에서 알려 드릴 만한 일은 다 알려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 대인 마님을 지켜 주시고 저도 잊지 말아 주십사 빌고 있겠어요. 제 딸 산차와 제 아들이 마님의 손에 입 맞춥니다.

나리 마님께 편지를 쓰기보다 나리 마님을 뵙기를 더 바라는, 마님의 하녀,

테레사 판사.

테레사 판사의 편지를 듣고 모두 몹시 즐거워했는데, 특히 공작 부부가 그랬다. 공작 부인은 통치자에게 온 편지도 뜯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돈키호테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 편지도 더없이 재미있으리라 짐작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즐겁게 해 주려고 자기가 뜯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테레사 판사가 남편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 편지 받았어, 내 영혼의 산초.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약속하고 맹세하는데, 기뻐서 미치기까지 손가락 두 마디도 남지 않았다니까. 이봐, 여보. 당신이 통치자라는 말을 듣고 나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는 줄 알았어. 당신도 알잖아, 갑작스러운 기쁨도 큰 슬픔만큼 사람을 죽인다는 말. 당신 딸 산치카는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어. 당신이 보낸 옷은 내 앞에 있지, 공작 부인 마님이 보내 주신 산호는 목에 걸려 있지, 편지들은 손에 들려 있지, 그걸 가져온 사람은 바로 거기 있지, 그런데도 내가 보고 만지는 게 다 꿈인 것만 같았어. 산양치기가 섬의 통치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는 많이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 이 말을 하는 건, 더 오래 살면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서야. 당신이 세금 도급인이나 세리가 되는 걸 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작정이거든. 그런 직책은 잘못 쓰는 사람을 악마가 잡아가기는 해도, 결국 결국은 늘 돈을 쥐고 굴리잖아. 내가 궁정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공작 부인 마님이 당신한테 말해 주실 거야. 잘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 줘. 나는 궁정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며 당신 체면을 세워 주도록 애쓸 테니까.

신부님, 이발사, 학사, 그리고 성당지기까지 당신이 통치자라는 걸 믿지 못하고, 다 속임수거나 당신 주인 돈키호테의 일이 다 그렇듯 마법에 걸린 일이라고 해. 삼손은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 머리에서는 통치를, 돈키호테의 머리통에서는 광기를 빼내 주겠다고 하고. 나는 그저 웃으면서 내 목걸이를 들여다보고, 당신 옷으로 우리 딸 옷을 지을 궁리나 하고 있어.

공작 부인 마님께 도토리를 좀 보내 드렸어. 금으로 된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나한테 진주 목걸이를 몇 줄 보내 줘, 그 섬에서 그런 걸 쓴다면 말이야.

이 마을 소식은 이래. 라 베루에카가 솜씨 나쁜 환쟁이한테 딸을 시집보냈어. 그 환쟁이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그리려고 이 마을에 왔는데, 마을 회의에서 마을 회관 문 위에 국왕 폐하의 문장을 그리라고 시켰거든. 그 사람이 2두카도를 달라고 해서 미리 줬더니, 여드레를 일하고도 결국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는 그렇게 자잘한 걸 잔뜩 그리는 건 자기 솜씨로는 안 된다고 했어. 돈은 돌려줬는데, 그런데도 솜씨 좋은 장인이라는 명목으로 장가를 들었지. 하기는 벌써 붓을 내려놓고 괭이를 들어서, 신사 나리처럼 들일을 나간다더라. 페드로 데 로보의 아들은 사제가 되려고 하급 서품과 삭발례를 받았어. 그 소식을 밍고 실바토의 손녀 밍기야가 듣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혼인 약속을 했다고 소송을 걸었어. 입이 험한 사람들은 그 애가 그 사람 아이를 가진 적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 사람은 두 발을 딱 붙이고 서서 잡아떼고 있어.

올해는 올리브가 하나도 안 열렸고, 온 마을을 뒤져도 식초 한 방울 찾을 수 없어. 군인 한 부대가 여기를 지나갔는데, 가는 길에 이 마을 처녀 셋을 데려갔어.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래. 돌아올지도 모르고, 흠이 좋든 나쁘든 그 흠째 아내로 데려갈 사람이 없지는 않을 테니까.

산치카는 레이스를 뜨는데, 날마다 8마라베디씩 고스란히 벌어서 혼수 밑천에 보태려고 저금통에 넣고 있어. 하지만 이제 통치자의 딸이니까 그 애가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지참금을 주겠지. 광장 샘물이 말라 버렸고, 형틀 기둥에 벼락이 떨어졌어. 벼락이란 벼락은 다 거기로나 떨어지라지.

이 편지에 대한 답장과 내가 궁정에 가도 될지 결정을 기다릴게. 그럼 이만, 하느님께서 당신을 나보다 더 오래, 아니면 나만큼 지켜 주시기를. 이 세상에 당신을 나 없이 남겨 두고 싶지는 않으니까.

당신의 아내,

테레사 판사.

편지들은 축하를 받고, 웃음을 사고, 귀히 여겨지고, 감탄을 자아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려는 듯 파발꾼이 도착했는데, 그는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었고, 그 편지도 여럿 앞에서 읽혔으며, 그 편지를 듣고 나자 통치자가 어리석다는 생각이 의심스러워졌다.

공작 부인은 시동이 산초의 마을에서 겪은 일을 들으려고 자리를 떴고, 시동은 빠뜨리는 사정 하나 없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도토리와 함께 치즈 하나를 바쳤는데, 테레사가 아주 좋은 것이라며 들려 보낸 그 치즈는 트론촌 치즈보다도 나았다. 공작 부인은 그것을 더없이 기쁘게 받았다. 그 기쁨 속에 공작 부인을 남겨 두고, 이제 우리는 모든 섬 통치자의 꽃이요 거울인 위대한 산초 판사의 통치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야기하기로 하자.

제53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맞은 고달픈 끝과 마무리

"이 세상의 일들이 언제까지나 한 가지 모습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이다. 오히려 세상은 온통 둥글게, 아니 빙빙 돌아가는 것 같다. 봄은 여름을 따르고, 여름은 한여름을, 한여름은 가을을, 가을은 겨울을, 겨울은 봄을 따르니, 시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바퀴를 돌며 다시 굴러간다. 오직 사람의 목숨만이 시간보다 더 빠르게 끝을 향해 달려가며, 끝이 없는 저세상에서가 아니면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못한다." 무함마드를 믿는 철학자 시데 아메테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삶이 덧없고 흔들리며 바라는 영원한 삶은 길이 이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빛 없이도 타고난 이성의 빛만으로 많은 사람이 깨달아 온 바이지만, 여기서 우리 작가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산초의 통치가 얼마나 서둘러 끝나고, 사그라지고, 허물어지고, 그림자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는지를 말하려는 데 있다.

통치를 맡은 지 이레째 되는 밤이었다. 산초는 빵이나 포도주에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재판하고 의견을 내고 규칙과 법령을 만드는 일에 물려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잠이 배고픔을 무릅쓰고 그의 눈꺼풀을 막 감기기 시작할 무렵, 온 섬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엄청난 종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그토록 큰 소동이 무엇 때문인지 짐작이 가는지 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그러나 알아내기는커녕 고함과 종소리에 셀 수 없이 많은 나팔 소리와

북소리까지 보태지자 더욱 어리둥절해지고 두려움과 겁에 질렸다. 그래서 일어서서 바닥이 축축하니 슬리퍼를 꿰어 신고, 실내 겉옷이나 그 비슷한 것도 걸치지 않은 채 자기 방 문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때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손에 불붙은 횃불을 들고 칼을 뽑아 든 채 복도를 따라 몰려오며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통치자 나리, 무장하십시오! 셀 수 없이 많은 적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나리의 재주와 용기로 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이렇게 떠들썩하고 사납게 소란을 피우며 그들은 산초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산초는 듣고 보는 것에 넋이 나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그에게 다다르자 하나가 말했다.

"나리, 어서 무장하십시오. 나리께서 망하고 이 섬 전체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면요!"

"내가 무슨 무장을 한단 말이오?"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무기니 구원이니 하는 것을 무얼 안단 말이오? 그런 일은 내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 맡기는 게 나을 거요. 그분이라면 두 마디로 해치우고 잘 수습하실 테니까. 하느님 앞에 죄 많은 이 몸은 이런 급한 일은 하나도 모르오."

"아이고, 통치자 나리!"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맥 빠진 소리십니까? 무장하십시오. 여기 치는 무기와 막는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저 광장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통치자이시니 마땅히 그러셔야지요."

"그럼 좋소, 무장시켜 주시오." 산초가 대꾸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미리 준비해 온 큰 방패 두 개를 가져와서, 다른 옷은 걸칠 틈도 주지 않고 속옷 위에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대고, 방패에 내 둔 구멍으로 그의 두 팔을 빼낸 다음 끈으로 아주 단단히

묶었다. 그러자 산초는 판자 사이에 벽처럼 갇혀 물렛가락처럼 꼿꼿이 선 채 무릎을 굽히지도 한 발짝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손에 창 한 자루를 쥐여 주었고, 산초는 서 있으려고 그 창에 몸을 기댔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은 그에게 앞장서서 모두를 이끌고 북돋워 달라고, 그가 자기들의 북극성이요 등불이요 샛별이 되어 주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했다.

"아이고, 이 불쌍한 몸이 어떻게 걸으란 말이오?" 산초가 대답했다. "내 살에 이렇게 꿰매 붙인 이 판자들이 가로막아서 무릎 뼈를 놀릴 수가 없는데. 당신들이 할 일은 나를 안아다가 어느 쪽문에 가로로든 세로로든 세워 놓는 거요. 그러면 내가 이 창으로든 내 몸으로든 그 문을 지키겠소."

"걸으십시오, 통치자 나리."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나리 걸음을 막는 건 판자가 아니라 겁이에요. 어서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늦었고, 적은 불어나고, 고함은 커지고, 위험은 몰려옵니다."

그렇게 달래고 꾸짖는 바람에 불쌍한 통치자는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그 바람에 바닥에 어찌나 세게 나동그라졌는지 몸이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다. 그는 등딱지와 배딱지 속에 갇힌 거북처럼, 반죽 통 두 개 사이에 끼운 돼지 옆구리 비계처럼, 아니면 모래톱에 얹혀 옆으로 누운 배처럼 누워 있었다. 그런데 장난치던 그 사람들은 그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조금도 가엾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횃불을 끄고는 다시 고함을 높이고 「 무장하라! 」 를 거듭 외치며, 불쌍한 산초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 방패 위로 칼질을 셀 수 없이 해 댔다. 산초가 몸을 움츠리고 방패 사이로 머리를 쑥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불쌍한 통치자는 아주 험한 꼴을 당했을 것이다. 그 좁은 틈에 웅크린 채 그는 땀을 흘리고 또 흘리며, 이 위험에서 꺼내 주십사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빌었다.

어떤 이는 그에게 걸려 비틀거리고 어떤 이는 넘어졌으며, 그 위에 한참 동안 올라선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망루에서처럼 거기서 군대를 지휘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편은 이리로 오라, 이쪽으로 적이 더 몰려온다! 저 샛문을 지켜라, 저 대문을 닫아라, 저 사다리들을 막아라! 불붙은 기름 솥에 화약 단지와 역청과 송진을 가져와라! 길마다 매트리스로 참호를 쌓아라!"

요컨대 그는 도시 공격을 막을 때 흔히 쓰는 자질구레한 것들과 연장과 전쟁 물자를 모조리 열을 올려 불러 댔고, 그것을 다 듣고 다 견디던 짓밟힌 산초는 속으로 말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이 섬이 이제 그만 다 망하게 해 주시고, 내가 죽든지 이 큰 고통에서 벗어나든지 하게 해 주신다면!"

하늘이 그의 기도를 들었는지, 그가 가장 바라지 않던 순간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겼다, 이겼다! 적들이 무너진다! 자, 통치자 나리, 일어나셔서 승리를 누리시고, 그 무적의 팔이 보여 준 용기로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눠 주십시오!"

"나 좀 일으켜 주시오." 아픔에 겨운 산초가 아픈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키는 것을 도왔고, 산초는 일어서서 말했다.

"내가 무찌른 적이 있다면 그놈을 내 이마에 못 박아 주시오. 나는 적의 전리품 따위는 나누고 싶지 않소. 그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포도주 한 모금만 달라고, 이 땀 좀 닦아 달라고 빌고 싶소. 나는 바싹 말라 가고, 몸은 물이 되어 흘러내리니까."

그들은 그의 땀을 닦아 주고 포도주를 가져다주고 방패를 풀어 주었고, 그는 침대 위에 앉더니 두려움과 놀람과 고생에 지쳐 정신을 잃었다. 장난친 사람들은 장난을 이토록 심하게 친 것이 벌써

후회스러웠지만, 산초가 정신을 차리자 그가 기절해서 생겼던 걱정이 누그러졌다. 그는 몇 시냐고 물었고, 사람들은 벌써 날이 밝아 온다고 대답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온통 침묵에 파묻힌 그를 모두가 바라보며 저렇게 서둘러 옷을 입어서 무엇을 하려는지 기다렸다. 마침내 옷을 다 입자, 몸이 짓밟혀 빨리 걸을 수가 없어 천천히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잿빛 당나귀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이마에 평화의 입맞춤을 하더니,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이리 오게, 내 동무, 내 벗, 내 고생과 설움을 함께 짊어져 준 자네. 내가 자네와 사이좋게 지내며 자네 마구를 깁고 자네 작은 몸뚱이를 먹여 살릴 걱정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던 때에는 내 시간도, 내 날도, 내 해도 행복했지. 그런데 자네를 두고 야심과 오만의 탑에 오른 뒤로는 내 영혼 속으로 천 가지 설움과 천 가지 고생과 사천 가지 근심이 밀려들었다네."

이런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가운데 당나귀에 길마를 얹고 있었다. 잿빛 당나귀에 길마를 다 얹자 그는 몹시 괴롭고 서운한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탄 뒤, 집사와 비서와 식사 시중장과 페드로 레시오 박사,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길을 비켜 주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를 옛날의 자유로 돌아가게 해 주시오. 지금의 이 죽음에서 나를 되살려 줄 지난날의 삶을 찾아가게 해 주시오. 나는 통치자가 되려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섬이나 도시를 쳐들어오려는 적들에게서 지키려고 태어나지도 않았소. 법을 만들거나 지방이나 왕국을 지키는 일보다는 밭을 갈고 땅을 파고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휘묻이하는 일을 나는 더 잘 아오.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게 편하다는 말이 있지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일을 하며 사는 게

편하다는 말이오. 나한테는 통치자의 지팡이보다 손에 든 낫이 더 잘 어울리오. 쓸데없이 참견하는 의사한테 매여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가스파초를 배 터지게 먹겠소. 그리고 통치에 매여 네덜란드산 고운 아마포 이불 속에 눕고 담비 모피 옷을 입느니, 여름에는 떡갈나무 그늘에 기대 눕고 겨울에는 두 겹 양가죽 옷을 두르고 내 자유 속에 지내겠소. 여러분, 하느님과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내 주인 공작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벌거벗고 태어나 지금도 벌거벗은 몸이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고요. 내 말은, 나는 블랑카 한 닢 없이 이 통치에 들어왔다가 한 닢 없이 나간다는 거요. 다른 섬의 통치자들이 흔히 나가는 것과는 영 딴판이지요. 그러니 비켜 주시오. 가게 해 주시오. 가서 고약을 붙여야겠소. 오늘 밤 내 위를 거닐어 준 적들 덕분에 갈비뼈가 죄다 멍든 것 같으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치자 나리." 레시오 박사가 말했다. "넘어지고 짓밟힌 데 듣는 물약을 나리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드시면 곧 예전처럼 온전하고 기운찬 몸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음식 일이라면 제가 고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나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넉넉히 드시게 해 드리지요."

"삐악 소리가 늦었소!"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안 떠나는 건 내가 튀르크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이런 장난은 두 번 당할 것이 못 되오. 하느님께 맹세코, 내가 이 통치에 눌러앉거나 다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건, 두 접시 사이에 받쳐 내준다 해도, 날개 없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만큼이나 안 될 일이오. 나는 판사라는 성을 쓰는 집안 사람인데, 그 집안은 다들 고집쟁이라서 한번 홀이라고 하면 짝이라도 홀이어야 하오. 온 세상이 뭐라 하든 말이오. 나를 하늘로 들어 올려 칼새며 다른 새들의 밥이 되게 한 그 개미 날개는 이 마구간에 남겨 두고, 우리는 다시 땅 위를 평발로 걸어갑시다. 그 발을 구멍 뚫어 멋

부린 코르도바 가죽 구두로 꾸며 주지 못한다 해도, 거친 노끈 짚신이야 모자라지 않을 테니까. 양은 저마다 제 짝과 함께, 그리고 아무도 이불 길이보다 다리를 더 뻗지 말 것. 그러니 지나가게 해 주시오. 시간이 늦어 가오."

그 말에 집사가 말했다.

"통치자 나리, 저희는 나리를 아주 기꺼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나리를 잃는 게 몹시 서운하기는 합니다만, 나리의 재주와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처신을 보면 곁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통치자는 다스리던 곳을 떠나기 전에 먼저 재임 중의 일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나리께서 통치하신 열흘 동안의 일을 심사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평화 속에 떠나십시오."

"그 심사는 아무도 나한테 청할 수 없소." 산초가 대답했다. "내 주인 공작님께서 명하신 사람이라면 모를까. 나는 그분을 뵈러 가는 길이니 그분께 딱 들어맞게 해 드리겠소. 더구나 내가 이렇게 벌거숭이로 나가니, 내가 천사처럼 다스렸다는 걸 알리는 데 다른 증거는 필요 없소."

"맹세코 위대한 산초 나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레시오 박사가 말했다. "가시게 해 드리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작님께서 나리를 보시면 한없이 기뻐하실 테니까요."

모두 그 말에 찬성하여 그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먼저 길동무와 그의 몸을 위로하고 길을 편히 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했다.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게 먹일 보리 조금과 자기가 먹을 치즈 반 덩이와 빵 반 덩이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길이 아주 짧으니 그보다 크고 좋은 먹을거리 꾸러미는 쓸모가 없다고 했다. 모두 그를 끌어안았고, 그도 울면서 모두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 말로도, 그토록 굳고 슬기로운 결심으로도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떠났다.

제54장 이 이야기에 관한 일이지 다른 어떤 이야기에 관한 일도 아닌 것들을 다룬다

공작 부부는 앞에서 말한 까닭으로 돈키호테가 자기 가신에게 청한 결투를 그대로 치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도냐 로드리게스를 장모로 모시기 싫어 도망쳐 플랑드르에 가 있었으므로, 공작 부부는 그 대신 토실로스라는 가스코뉴 출신 하인을 세우기로 하고, 먼저 그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아주 잘 가르쳐 두었다.

이틀 뒤 공작은 돈키호테에게, 앞으로 나흘 뒤에 상대가 기사처럼 무장하고 결투장에 나타나서, 자기가 그 처녀에게 혼인 약속을 했다고 우긴다면 그 처녀는 수염 한가운데로, 아니 온 수염에 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일러 주었다. 돈키호테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이번 일에서 놀라운 솜씨를 보여 주리라 스스로 다짐했고, 그 높으신 분들에게 자기의 힘센 팔의 용기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보여 줄 기회가 생긴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그래서 들뜨고 흐뭇한 마음으로 나흘을 기다렸는데, 그의 바람으로 셈하면 그 나흘이 사백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른 일들을 지나가게 두듯이 우리도 그 나흘을 지나가게 두고, 반은 기쁘고 반은 슬픈 마음으로 잿빛 당나귀를 타고 주인을 찾아가던 산초를 따라가 보자. 산초에게는 주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섬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았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던 섬에서, 그는 자기가 다스린 곳이 섬인지 도시인지 읍인지 마을인지 한 번도 따져 본 적이 없었지만, 아무튼 그 섬에서 그리 멀리 오지 않았을 때였다. 그가 가던 길을 따라 순례자 여섯 명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 것이 보였는데, 노래를 부르며 동냥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은 산초에게 다가오자 한 줄로 늘어서서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동냥」이라고 또렷이 발음하는 낱말 하나만은 알아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노래로 청하는 것이 동냥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데 아메테의 말로는 산초는 남달리 자비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길에서 먹으려고 챙겨 온 빵 반 덩이와 치즈 반 덩이를 자루에서 꺼내 그들에게 주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손짓으로 알렸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기꺼이 받고는 말했다.

"겔트! 겔트!"

"뭘 달라는 건지 모르겠소, 착한 양반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산초에게 보여 주었고, 산초는 그들이 돈을 달라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는 엄지손가락을 목에 대고 손을 위로 쭉 펴 보여, 동전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는 잿빛 당나귀에 박차를 가해 그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지나가는 순간, 아까부터 그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던 순례자 하나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더니 아주 또렷한 카스티야 말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뭐야? 내가 정말로 내 소중한 친구, 내 좋은 이웃 산초 판사를 끌어안고 있는 건가? 그래, 틀림없어. 나는 잠든 것도 아니고 지금 술에 취한 것도 아니니까."

산초는 낯선 순례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끌어안자 깜짝 놀랐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아주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알아보지 못했다. 순례자는 그가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산초 판사, 이 친구야. 네 이웃인 모리스코 리코테를, 네 마을의 가겟집 주인을 못 알아보다니?"

그러자 산초는 더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며 생김새를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알아보았다. 그는 당나귀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리코테의 목에 두 팔을 두르며 말했다.

"리코테, 네가 그 광대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대체 누가 너를 알아보겠냐? 말해 봐. 누가 너를 이렇게 프랑스 놈처럼 꾸며 놓았고, 너는 무슨 배짱으로 에스파냐에 돌아왔냐? 붙잡혀서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혼쭐이 날 텐데."

"네가 나를 고발하지만 않으면, 산초" 순례자가 대답했다. "이 차림이면 나를 알아볼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나는 믿어. 저기 보이는 미루나무 숲으로 길을 벗어나 가자. 내 동무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쉬려고 하거든. 거기서 너도 같이 먹자. 아주 순한 사람들이야. 너도 들었겠지만, 우리 겨레 불쌍한 사람들을 그토록 매섭게 몰아붙인 국왕 폐하의 칙령에 따라 우리 마을을 떠난 뒤로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거기서 이야기해 줄 틈이 있을 거야."[1]

산초가 그렇게 하자 리코테가 다른 순례자들에게 말을 건넸고, 그들은 큰길에서 한참 떨어진, 눈에 보이던 그 미루나무 숲으로 갔다. 그들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어깨 망토, 아니 순례자 망토를 벗어 홑옷 바람이 되었는데, 모두 젊고 아주 늠름한 사내들이었고 리코테만 나이가 지긋했다. 모두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모두 넉넉히 채워 왔고, 적어도 입맛을 돋우는 것들, 2레과 밖에서도 목마름을 불러오는 것들은 넉넉히 들어 있었다.

그들은 땅바닥에 몸을 눕히고 풀을 식탁보 삼아 그 위에 빵과 소금과 칼, 호두, 치즈 조각, 살을 다 발라 먹은 햄 뼈를 늘어놓았는데, 그 뼈는 씹히지는 않아도 빨아 먹히기는 마다하지 않았다. 캐비아라고 한다는 검은 음식도 내놓았는데, 물고기 알로 만든 것으로 술 부대를 깨우는 데 그만이었다. 올리브도 빠지지 않았는데, 말라서 아무 양념도 하지 않은 것이지만 맛이 좋고 오래 씹을 만했다. 그러나 그 잔칫상의 들판에서 무엇보다 위세를 떨친 것은 포도주 가죽 부대 여섯 개였다. 저마다 자기 자루에서 자기 것을 꺼냈는데, 모리스코에서 독일 사람, 아니 튜턴 사람으로 탈바꿈한 착한 리코테까지 자기 것을 꺼냈고, 그 크기가 나머지 다섯 개와 겨룰 만했다.

그들은 아주 즐겁게 아주 느긋이 먹기 시작했다. 한 입 한 입 칼끝으로 집어, 무엇이든 아주 조금씩 맛을 음미하며 먹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모두 한꺼번에 팔과 가죽 부대를 공중으로 쳐들고, 부대 주둥이에 입을 대고 눈은 하늘에 박았는데, 꼭 하늘에 조준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흔들며, 그것은 그들이 맛보는 즐거움을 증명하는 표시였는데, 한참 동안 그릇의 속을 자기들 배 속으로 옮겨 담았다.

산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느 것 하나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아주 잘 아는 「로마에 가거든 보는 대로 하라」라는 속담을 따르려고 리코테에게 가죽 부대를 청해, 다른 사람들처럼 조준을 했는데 그들 못지않게 즐거워했다.

가죽 부대들은 네 번까지는 높이 쳐들릴 틈을 주었지만 다섯 번째는 그럴 수 없었다. 벌써 에스파르토 풀보다 더 바싹 말라 버렸기 때문인데, 그 일로 그때까지 보여 주던 흥이 시들해졌다. 이따금 누군가가 자기 오른손을 산초의 오른손에 맞잡고 말했다.

"에스파냐 사람, 독일 사람, 다 하나. 좋은 동무(bon compaño)."

그러면 산초가 대답했다. "좋은 동무, 하느님께 맹세코!"

그러고는 한 시간이나 이어지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동안은 통치하면서 겪은 일을 하나도 떠올리지 않았다. 먹고 마시는 그 순간과 그 시간에는 근심도 힘을 별로 쓰지 못하기 마련이다.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모두에게 잠이 드는 시작이 되어, 그들은 바로 그 식탁과 식탁보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리코테와 산초만 깨어 있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덜 마셨기 때문이다. 리코테는 산초를 데리고 떨어져 나와, 순례자들을 달콤한 잠 속에 파묻어 둔 채 너도밤나무 밑동에 앉았다. 그리고 모리스코 말투에 조금도 걸리지 않는 순수한 카스티야 말로 산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산초 판사, 내 이웃이자 친구야, 너도 잘 알겠지만 국왕 폐하께서 우리 겨레를 겨냥해 공포하게 하신 포고와 칙령은 우리 모두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다. 적어도 나는 어찌나 떨었는지, 우리가 에스파냐를 떠나도록 주어진 기한이 되기도 전에 벌써 그 무서운 벌이 나와 내 자식들의 몸에 내려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딴에는 신중하게, 언제까지 지금 사는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옮겨 갈 다른 집을 미리 마련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정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떠난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식구들을 편히 데려갈 곳을 찾아보려고, 식구들은 두고 나 혼자 먼저 마을을 떠나기로 정했다는 말이다. 나도 보았고 우리 노인들도 모두 보았듯이, 그 포고는 어떤 사람들 말처럼 그저 으름장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반드시 시행될 참된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겨레가 품고 있던 그 비열하고 터무니없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계획들이 어찌나 고약했던지, 국왕 폐하께서 그토록 늠름한 결단을 실행에 옮기신 것은 하느님의 영감이 움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굳고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도 더러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막아설 수 없었고, 적을

집 안에 두고 품속에서 뱀을 기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는 추방이라는 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당한 벌이었다. 어떤 이들 생각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벌이었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벌이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에스파냐를 그리며 운다.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가 우리 타고난 조국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 불운이 바라는 만큼 따뜻이 맞아 주는 곳을 찾지 못하고, 우리를 받아 주고 맞아 주고 아껴 주리라 기대했던 바르바리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가장 업신여기고 학대한다. 우리는 좋은 것을 잃고 나서야 그 좋음을 알았다. 그리고 에스파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거의 모두에게 어찌나 큰지, 나처럼 말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내와 자식들을 거기 내버려 두고 에스파냐로 돌아온다. 그만큼 에스파냐를 사랑하는 거다. 이제야 나는 흔히 하는 말,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달콤하다는 말을 알겠고 몸으로 겪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우리 마을을 떠나 프랑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잘 대해 주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건너갔다가 독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 사람들은 자잘한 일을 깐깐하게 따지지 않아서 저마다 살고 싶은 대로 살거든. 그 나라 대부분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사니까. 나는 아우구스타 근처의 한 마을에 집을 얻어 두고 이 순례자들과 어울렸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해마다 에스파냐에 와서 그곳 성지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버릇인데, 그 성지들을 자기들의 인도 땅으로, 틀림없는 벌이와 뻔한 돈벌이로 여기거든. 이 사람들은 에스파냐를 거의 다 돌아다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적어도 1레알은 돈으로 받아 나오지 않는 마을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행이 끝날 무렵이면 쓰고도 남은 에스쿠도가 백 닢이 넘는데, 그것을 금으로

바꾸어 지팡이 속 빈 구멍에 넣든, 망토 기운 자리 사이에 넣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온갖 꾀를 다 써서, 짐을 검사하는 관문과 항구의 감시꾼들을 따돌리고 나라 밖으로 빼내 저희 고장으로 가져간다. 산초, 이제 내 뜻은 묻어 둔 보물을 꺼내는 거다. 마을 밖에 묻어 두었으니 위험 없이 꺼낼 수 있을 거다. 그런 다음 발렌시아에서 내 딸과 아내에게 편지를 쓰든지 건너가든지 할 생각이다. 아내는 알제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프랑스의 어느 항구로 데려올 궁리를 해서, 거기서 독일로 데려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기다릴 작정이다. 요컨대, 산초, 내 딸 리코타와 내 아내 프란시스카 리코타가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안다. 나는 그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무어인보다는 그리스도교 신자 쪽에 더 가깝고, 하느님께서 내 지성의 눈을 열어 주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십사 늘 빈다. 그런데 내가 놀라는 건, 내 아내와 딸이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 수 있는 프랑스가 아니라 왜 바르바리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이봐, 리코테, 그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야. 네 처남 후안 티오피에요가 데려갔거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알짜배기 무어인이라 제일 살기 좋은 데로 간 거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 줄게. 네가 묻어 둔 걸 찾으러 가 봤자 헛걸음일 것 같아. 네 처남과 네 아내가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던 진주와 금돈을 많이 빼앗겼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거든."

"그럴 수도 있지." 리코테가 대꾸했다. "하지만 산초, 내가 묻어 둔 데는 손대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안다. 무슨 탈이 날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한테도 어디 있는지 알려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산초, 네가 나와 같이 가서 그걸 꺼내고 감추는 걸 도와주겠다면 200에스쿠도를

주마. 그걸로 네 살림 궁한 데를 메울 수 있을 거다. 네가 궁한 데가 많다는 걸 내가 아는 줄 너도 알잖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산초가 대답했다.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거든. 욕심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 내 손에서 놓아 버린 일자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면 내 집 벽을 금으로 바르고 여섯 달도 안 돼서 은접시에 밥을 먹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임금님의 적을 돕는 건 임금님을 배신하는 일 같아서도 그렇고, 네가 약속한 대로 200에스쿠도가 아니라 여기서 400에스쿠도를 현금으로 준다 해도 너와 같이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만둔 일자리라는 게 뭐냐, 산초?" 리코테가 물었다.

"섬의 통치자 노릇을 그만뒀지." 산초가 대답했다. "맹세코, 세 번 잡아당겨 봤자 그런 섬은 다시 못 찾을 만한 섬이야."

"그 섬이 어디 있는데?" 리코테가 물었다.

"어디냐고?" 산초가 대답했다. "여기서 2레과 떨어진 데 있고, 바라타리아 섬이라고 해."

"그만해, 산초." 리코테가 말했다. "섬은 저 바다 안에 있는 거다. 뭍에는 섬이 없어."

"없긴 왜 없어?" 산초가 대꾸했다. "리코테, 친구야, 내가 오늘 아침 거기서 떠나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서 궁수자리처럼 마음껏 다스렸다니까. 그래도 통치자 노릇이 위험한 일 같아서 그만뒀지."

"그래서 통치하면서 무얼 벌었냐?" 리코테가 물었다.

"벌었지."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가축 떼라면 모를까 다스리는 일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통치에서 버는 재물은 쉼과 잠, 그리고 끼니까지 잃은 대가라는 걸 알게 됐어. 섬에서는 통치자들이 조금밖에 먹지 못하는 모양이야. 특히 건강을 돌봐 주는 의사가 붙어 있으면 말이야."

"나는 네 말을 못 알아듣겠다, 산초." 리코테가 말했다. "아무래도 네 말은 다 헛소리 같아. 누가 너한테 다스릴 섬을 주겠냐? 세상에 너보다 통치자 노릇을 잘할 사람이 모자라기라도 했냐? 그만하고, 산초, 정신 차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나와 같이 가서 내가 숨겨 둔 보물을 꺼내는 걸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 정말이지 보물이라고 부를 만큼 많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가 먹고살 만큼 주마."

"벌써 말했잖아, 리코테." 산초가 대꾸했다. "싫다고. 나 때문에 네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을 테니 그걸로 만족하고, 잘 가던 길이나 가. 나도 내 길을 가게 해 주고. 바르게 번 것도 잃기 마련이지만, 나쁘게 번 것은 그것도 잃고 그 주인도 잃는다는 걸 나는 알거든."

"더 우기지는 않으마, 산초." 리코테가 말했다. "그런데 말해 봐라. 내 아내와 내 딸과 내 처남이 우리 마을을 떠날 때 너도 마을에 있었냐?"

"있었지."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말해 주는데, 네 딸이 나섰을 때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마을 사람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고, 모두들 세상에서 제일 고운 아이라고 했어. 그 애는 울면서 동무들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모두 끌어안았고, 모두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원래 그리 잘 울지 않는 나도 울고 말았다니까. 그리고 맹세코 많은 사람이 그 애를 숨겨 주고 싶어 했고, 길에 나가 그 애를 빼내 오고 싶어 했어. 하지만 임금님의 명을 거스를까 두려워서 그만두었지. 누구보다 애가 탄 건 돈 페드로 그레고리오였어. 너도 아는 그 장자 상속을 받은 부잣집 젊은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 애를 무척 사랑했다고들 하는데, 그 애가 떠난 뒤로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다들 그 사람이 그 애를 데려가려고 뒤쫓아 갔나 보다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어."

"그 젊은 양반이 내 딸에게 마음을 둔다는 의심은 늘 품고 있었지." 리코테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리코타의 굳은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애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도 걱정해 본 적은 없다. 너도 들었겠지만, 산초, 모리스코 여자들은 대대로 그리스도교 신자인 사람들과 사랑으로 어울린 일이 아주 드물거나 아예 없었다. 그리고 내가 믿기로 내 딸은 사랑에 빠지기보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데 더 마음을 쓰는 아이라서, 그 장자 상속인 나리가 아무리 졸라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산초가 대꾸했다. "그건 두 사람 모두한테 좋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제 나를 보내 줘, 리코테, 친구야. 오늘 밤에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가 계신 데까지 가고 싶으니까."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산초, 친구야. 내 동무들이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도 이제 길을 이어 갈 시간이다."

그러고는 곧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았다.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 올라탔고, 리코테는 지팡이에 몸을 기댔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다.

---

1. 펠리페 3세가 1609년부터 1614년까지 잇달아 내린 모리스코 추방령. 개종한 무어인의 후손 약 30만 명이 에스파냐에서 쫓겨났다.

제55장 산초가 길에서 겪은 일들과 더없이 볼 만한 다른 일들

산초는 리코테와 시간을 보내느라 그날 공작의 성에 다다르지 못하고 성에서 반 레과 떨어진 곳에서 꽤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맞았지만, 여름이라 그리 괴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날이 밝기를 기다릴 생각으로 길에서 벗어났는데, 짧고 불운한 그의 운수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지, 더 편히 묵을 자리를 찾다가 그와 잿빛 당나귀가 아주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있던 깊고 몹시 캄캄한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순간 그는 끝없는 심연의 밑바닥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몸을 맡겼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사람 키 세 길쯤 조금 더 내려가자 잿빛 당나귀가 바닥에 닿았고, 산초는 그 위에 얹힌 채 아무 상처도 탈도 없이 멀쩡했다.

그는 몸이 성한지 어디 구멍이라도 났는지 보려고 온몸을 더듬어 보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몸이 멀쩡하고 온전하고 가톨릭 신자처럼 건강한 것을 알자, 틀림없이 몸이 천 조각으로 부서졌으리라 생각했던 터라 우리 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는 아무 도움 없이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보려고 손으로 구덩이 벽도 더듬어 보았지만, 벽은 모두 반반하고 손 붙일 데가 하나도 없었다. 산초는 그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고, 잿빛 당나귀가 애처롭고 고통스럽게 끙끙대는 소리를 듣자 더욱 그러했다.

당나귀가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고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당나귀는 몸이 그리 성하지 못했다.

"아이고" 그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이 비참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걸음마다 어찌 이리 일어나는지! 어제는 섬의 통치자로 높이 앉아 하인들과 가신들에게 명령하던 사람이 오늘은 구덩이에 파묻혀서,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구하러 달려올 하인이나 가신도 하나 없는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기서 나와 내 당나귀는 굶어 죽고 말겠지. 그 전에 당나귀는 짓밟히고 부서져서, 나는 시름에 겨워서 먼저 죽지 않는다면 말이야. 적어도 나는 우리 주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만큼 운이 좋지는 않을 거야. 나리께서는 그 마법에 걸린 몬테시노스의 동굴로 내려가셨다가 자기 집에서보다 더 잘 대접해 주는 사람을 만나셨지. 꼭 차려진 밥상과 펴진 잠자리로 찾아가신 것만 같았다니까. 거기서 나리께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상을 보셨지만, 나는 여기서 두꺼비와 뱀이나 보게 될 것 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미친 짓과 헛된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늘이 나를 찾아내게 해 주실 때가 오면, 사람들은 여기서 살 하나 없이 하얗게 닳아 버린 내 뼈를 꺼내겠지. 내 착한 잿빛 당나귀의 뼈도 함께. 그걸 보면 아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차릴 거야. 적어도 산초 판사는 한 번도 자기 당나귀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고 그 당나귀도 산초 판사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아이고 불쌍한 우리 신세야! 우리 짧은 운수는 우리가 고향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것조차 바라지 않았구나. 거기서라면 우리 불행을 고칠 길은 없어도 그걸 가슴 아파해 줄 사람은 있었을 테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겨 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오, 내 동무, 내 벗아, 네가 그렇게 잘 섬겨 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몹쓸 보답을 했는지! 나를 용서하고, 네가 아는 가장 좋은 말로 운명의 여신께 빌어 다오.

우리 둘이 빠진 이 비참한 고생에서 꺼내 달라고. 그러면 나는 네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서 꼭 월계관 쓴 시인처럼 보이게 해 주고, 먹이도 곱절로 주겠다고 약속할게."

산초 판사는 이렇게 탄식했고, 그의 당나귀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기만 했다. 불쌍한 당나귀가 빠진 궁지와 고통이 그만큼 컸다. 마침내 그 밤을 내내 비참한 하소연과 탄식 속에 보내고 나서 날이 밝았는데, 그 빛과 밝음으로 산초는 도움 없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란 불가능 중에서도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다. 그래서 누가 들어 주지 않을까 하고 탄식하며 소리를 질러 대기 시작했지만, 그 둘레 어디에도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었으니 그의 외침은 모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그러자 그는 이제 자기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여겼다.

잿빛 당나귀는 네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벌렁 누워 있었다. 산초 판사는 당나귀를 이리저리 추슬러 겨우 일으켜 세웠는데, 당나귀는 간신히 서 있었다. 그러고는 함께 떨어지는 똑같은 운명을 겪은 자루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당나귀에게 주었더니 당나귀는 맛나게 먹었고, 산초는 당나귀가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말했다.

"빵만 있으면 시름도 다 견딜 만하다니까."

그러다가 그는 구덩이 한쪽에서 몸을 구부리고 움츠리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찾아냈다. 산초 판사는 그리로 가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갔는데, 안쪽은 넓고 길었다. 지붕이라고 부를 만한 곳으로 햇살 한 줄기가 들어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굴이 다른 넓은 굴로 이어지며 길게 뻗어 있는 것도 보였다. 그것을 보자 그는 당나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나와 돌멩이로 구멍의 흙을 허물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당나귀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냈다. 당나귀가 들어오자 그는 고삐를 잡고, 다른 쪽에 나갈 데가 있는지

찾으려고 그 동굴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때는 어둠 속을, 어떤 때는 빛 없이 갔지만, 두려움 없이 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아이고 전능하신 하느님 맙소사!" 그는 속으로 말했다. "나한테는 불운인 이 일이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모험이었을 텐데. 그분이라면 이 깊은 굴과 지하 감옥을 꽃이 핀 정원이나 갈리아나의 궁전으로 여기시고, 이 어둡고 좁은 데를 빠져나가면 어느 꽃 핀 풀밭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셨겠지. 하지만 운도 없고 꾀도 모자라고 배짱도 쪼그라든 나는, 한 발짝 뗄 때마다 갑자기 발밑에서 아까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마저 삼켜 버릴 것만 같다니까. 오너라, 불행아, 혼자서만 온다면 반갑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며 반 레과 남짓 걸어온 것 같았을 때, 그 끝에서 희미한 밝음이 보였다. 벌써 날이 밝은 것 같았고 그 빛이 어디론가 들어오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저세상으로 가는 길 같던 그 길이 끝이 열려 있다는 표시였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여기서 산초를 두고 다시 돈키호테 이야기로 돌아간다. 돈키호테는 도냐 로드리게스 딸의 명예를 빼앗은 자와 치를 결투 날짜를 들뜨고 흐뭇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딸이 고약하게 당한 비뚤어진 일과 몹쓸 짓을 바로잡아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머지않아 맞닥뜨리리라 여긴 그 결전에서 해야 할 일을 익히고 연습해 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로시난테를 확 몰아 내닫게 하는 바람에 어느 동굴 바로 앞까지 다다랐는데, 고삐를 힘껏 당기지 않았더라면 그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 그는 가까스로 말을 멈추어 떨어지지 않았고,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금 더 다가가 그 깊은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안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이, 위에 누구 없어요! 내 말을 들어 줄 그리스도교 신자가 없나요? 산 채로 묻힌 죄인을, 통치를 잃고 통치에서 쫓겨난 불행한 통치자를 가엾게 여겨 줄 자비로운 기사 나리는 없나요?"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저 아래 있는 자는 누구냐? 하소연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 누가 있겠으며 누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대답이 들려왔다. "제 죄와 제 불운 탓에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가 되었고, 한때는 이름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종자였던 고생 많은 산초 판사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을 듣자 돈키호테는 곱절로 놀라고 더욱 아연해졌다. 산초 판사가 죽어서 그 영혼이 그곳에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상에 사로잡혀 그는 말했다.

"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내가 너에게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엄숙히 명하노라. 네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리고 네가 벌받는 영혼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지 말하라. 이 세상의 곤궁한 이들을 돕고 구하는 것이 내 직분이니, 스스로는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저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돕는 일에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렇다면" 대답이 들려왔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겠네요. 목소리를 들어 봐도 틀림없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나는 돈키호테다."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곤궁을 구하고 돕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누구인지 말해라. 너 때문에 내가 넋이 나갈 지경이다. 네가 내 종자 산초 판사이고 이미 죽었다면, 악마들이 너를 끌고 가지 않았고

하느님의 자비로 연옥에 있다면, 우리 거룩한 어머니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네가 겪는 벌에서 너를 꺼내기에 넉넉한 기도와 미사가 있다. 나도 내 재산이 닿는 데까지 내 몫으로 교회에 그것을 청하겠다. 그러니 어서 네 정체를 밝히고 네가 누구인지 말해라."

"제기랄!" 대답이 들려왔다. "나리께서 원하시는 누구의 탄생이든 그걸 걸고 맹세하는데요,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저는 나리의 종자 산초 판사고, 평생 단 하루도 죽은 적이 없어요. 다만 통치를 그만두었는데, 그 까닭과 사정을 말하자면 시간이 더 걸리고요, 어젯밤 제가 누워 있는 이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잿빛 당나귀도 같이요. 이놈이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게 해 줄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대자면 이놈이 여기 저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 당나귀가 산초가 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이, 곧바로 온 동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세차게 울어 대기 시작했다.

"훌륭한 증인이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울음소리는 내가 낳기라도 한 듯이 잘 알고, 네 목소리도 들린다, 내 산초야. 기다려라. 여기서 가까운 공작의 성에 가서, 네 죄가 너를 집어넣은 것이 틀림없는 이 구덩이에서 너를 꺼내 줄 사람들을 데려오마."

"가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그리고 제발 하느님 한 분만 보시고 얼른 돌아오세요. 이렇게 산 채로 묻혀 있는 건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무서워 죽겠어요."

돈키호테는 그를 두고 성으로 가서 공작 부부에게 산초 판사의 일을 이야기했다. 공작 부부는 적잖이 놀랐지만, 그가 아득한 옛날부터 거기 있던 그 동굴로 이어진 구멍으로 떨어졌으리라는 것은 잘 알아들었다. 다만 자기들에게 그가 온다는 기별도 없이 어떻게 통치를 그만두었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마침내 흔히 하는 말대로 밧줄과

동아줄을 가져가서, 많은 사람이 많은 수고를 들여 잿빛 당나귀와 산초 판사를 그 어둠에서 햇빛 아래로 끌어냈다. 그를 본 학생 하나가 말했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두 자기 통치에서 이렇게 나와야 해. 이 죄인이 깊은 심연 밑바닥에서 나오듯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핏기도 없고, 블랑카 한 닢 없이 말이야."

산초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험담꾼 형씨, 내가 받은 섬을 다스리러 들어간 지 여드레인가 열흘인데, 그동안 단 한 시간도 빵 한 번 배불리 먹어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의사들한테 쫓겨 다니고 적들한테 뼈가 짓밟혔고, 뇌물을 받을 틈도 권리를 챙길 틈도 없었다고요. 일이 이러하니, 실제로 이러하고요, 내 생각에 나는 이런 꼴로 나올 까닭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꾀하고 하느님은 정하시는 법이고, 하느님께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 저마다에게 무엇이 맞는지 아시지요. 때가 그러면 몸가짐도 그래야 하는 법이고, 아무도 '이 물은 안 마시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해요. 베이컨이 걸려 있으려니 하는 데에 정작 걸 말뚝도 없는 법이니까. 하느님께서는 내 말을 알아들으시니 그걸로 됐고, 할 말은 더 있어도 더는 하지 않겠어요."

"화내지 마라, 산초. 듣는 말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마라. 그러다가는 끝이 없을 거다. 너는 떳떳한 양심으로 오너라. 남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험담하는 자들의 혀를 묶으려는 것은 들판에 문을 달려는 것과 같다. 통치자가 부자가 되어 통치에서 나오면 도둑이었다고 하고, 가난해서 나오면 쓸모없는 얼간이였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산초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저를 도둑이라기보다 바보로 여기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아이들과 다른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성에 도착했다. 성의 회랑에서는 공작 부부가 벌써 돈키호테와 산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산초는 먼저 잿빛 당나귀를 마구간에 편히 들여놓기 전에는 공작을 뵈러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간밤에 당나귀가 묵은 숙소가 아주 고약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인 부부를 뵈러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두 분 나리, 저는 대인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제게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리들의 바라타리아 섬을 다스리러 갔습니다. 저는 벌거벗고 그 섬에 들어갔다가 지금도 벌거벗은 몸이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 다스렸는지 못 다스렸는지는 앞에서 지켜본 증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지요. 저는 의문을 풀어 주고 소송을 판결했는데, 그동안 내내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티르테아푸에라 출신으로 섬의 의사요 통치자 담당 의사인 페드로 레시오 박사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우리를 몹시 궁지에 몰아넣었는데, 섬사람들 말로는 제 팔의 용기 덕분에 무사히 이겨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 만큼만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요컨대 이 동안에 저는 통치라는 것이 지우는 짐과 의무를 달아 보았는데, 제 셈으로는 그 짐을 제 어깨로는 질 수 없고, 제 갈비뼈가 감당할 무게도 아니고, 제 화살통에 든 화살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저를 들이받아 뒤집어엎기 전에 제가 먼저 통치를 들이받아 뒤집어엎기로 했고, 어제 아침 섬을 찾은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있던 거리와 집과 지붕을 그대로 두고요. 아무한테도 돈을 꾸지 않았고, 돈벌이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쓸모 있는 법령을 몇 가지 만들 생각이었지만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을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지켜지지 않으면 만드나 안 만드나 마찬가지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잿빛 당나귀 말고는 아무 길동무 없이 섬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구덩이에 떨어져 그 안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고, 오늘 아침 햇빛에 나갈 데를 보았는데, 그리 쉽게 나갈 데는 아니어서 하늘이 제 주인 돈키호테 나리를 보내 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공작님, 공작 부인 마님, 여기 나리들의 통치자 산초 판사가 있습니다. 통치를 맡은 단 열흘 동안 저는 섬 하나는커녕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을 벌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으로 나리들의 발에 입 맞추며, 아이들이 놀이에서 '너 뛰어, 그리고 나한테 넘겨' 하듯이, 저는 통치에서 한 번 펄쩍 뛰어 내려와 제 주인 돈키호테 나리를 섬기는 자리로 건너가겠습니다. 결국 그분 곁에서는 빵을 마음 졸이며 먹기는 해도 적어도 배는 부르니까요. 그리고 저로서는 배만 부르면 그게 당근이든 자고새든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초는 긴 말을 마쳤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그 말 속에 수천 가지 헛소리를 늘어놓으리라 줄곧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적은 헛소리로 끝내는 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하늘에 감사했다. 공작은 산초를 끌어안고 그가 그렇게 빨리 통치를 그만둔 것이 마음 깊이 서운하다고 하면서, 자기 영지에서 짐은 덜하고 이득은 더한 다른 일자리를 그에게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작 부인도 그를 끌어안고, 그가 몹시 짓밟히고 더 험한 꼴로 온 기색이었으므로 잘 대접해 주라고 명했다.

제56장 도냐 로드리게스 시녀 부인의 딸을 지키려고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하인 토실로스와 벌인 엄청나고 전대미문의 결투

공작 부부는 산초 판사에게 통치를 맡겨 놀린 장난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더구나 바로 그날 집사가 와서 산초가 그동안 한 말과 행동을 거의 다 낱낱이 이야기해 주고, 마지막으로 섬이 습격당한 일과 산초가 겁에 질린 일과 그가 떠난 일을 실감 나게 늘어놓았으니, 공작 부부는 적잖이 즐거워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전하기를, 정해 둔 결투 날이 다가왔다. 공작은 자기 하인 토실로스에게 돈키호테를 죽이지도 다치게 하지도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일러 두었다. 그리고 창끝에서 쇠를 빼게 하고는,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도리로는 이 결투가 목숨을 그렇게 크게 걸고 위태롭게 치러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그러한 결투를 금하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땅에 자유로운 결투장을 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거센 대결을 너무 엄하게 끝까지 밀고 가려 하지는 말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각하께서 이 일을 가장 좋으실 대로 처리하시라고, 자기는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윽고 두려운 그날이 왔다. 공작은 성 앞 광장에 넓은 단을 세워 결투 심판들과 원고인 두 시녀 부인 모녀가 앉게

했는데, 그 결투라는 새로운 구경거리를 보려고 둘레의 모든 고을과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런 결투는 그 고장에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본 적도 들어 본 적도 없었다.

맨 먼저 결투장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의전관이었다. 그는 결투장에 속임수가 없는지, 걸려 넘어질 만한 무엇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보려고 결투장을 살피며 구석구석 걸어 다녔다. 이어서 시녀 부인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망토를 눈까지, 아니 가슴까지 덮어쓰고 적잖이 슬퍼하는 기색을 보였다. 돈키호테가 울타리 안에 나와 있는데 얼마 뒤 광장 한쪽에서 나팔 소리를 잔뜩 거느리고, 광장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힘센 말을 탄 덩치 큰 하인 토실로스가 나타났다. 그는 투구 얼굴 가리개를 내리고, 튼튼하고 번쩍이는 갑옷 차림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말은 프리슬란트산으로 보였는데, 품이 넓고 잿빛 얼룩이 졌으며, 앞발 뒷발마다 털이 1아로바씩 늘어져 있었다.

그 용맹한 결투자는 주인인 공작에게서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상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단단히 일러 받고 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돈키호테를 죽이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치면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하니 그 위험을 피하려면 첫 맞부딪침을 피하도록 애쓰라는 당부도 받았다. 그는 광장을 한 바퀴 돌고 시녀 부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남편으로 달라고 하는 여자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결투 감독관이 이미 광장에 나와 있던 돈키호테를 불러 토실로스와 함께 시녀 부인들에게 말을 건네며,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그대들의 권리를 위해 나서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모녀는 동의한다고, 이 일에서 그가 무엇을 하든 잘한 것이요 확고하고 유효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그때 공작 부부는 이미 결투장 울타리 위로 난 회랑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울타리 둘레는 보도 듣도 못한 그 치열한 대결을 보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으로 온통 빙 둘러싸여 있었다. 결투자들 사이의

조건은 이러했다. 돈키호테가 이기면 상대는 도냐 로드리게스의 딸과 혼인해야 하고, 돈키호테가 지면 상대는 요구받은 약속에서 풀려나 다른 아무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의전관은 두 사람이 해를 똑같이 나누어 받게 자리를 정하고, 저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웠다. 북이 울리고 나팔 소리가 하늘을 메우고 발밑에서 땅이 떨었다. 구경하는 무리의 가슴은 조마조마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잘되기를 바랐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온 마음으로 우리 주 하느님과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께 몸을 맡기고, 돌진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하인은 생각이 달랐다. 그는 지금 내가 이야기할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적수인 여자를 바라보는 동안, 그 여자가 평생 본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보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눈먼 꼬마는 하인의 영혼 하나를 굴복시켜 자기 전리품 목록에 올릴 기회가 오자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그에게 다가가 불쌍한 하인의 왼쪽 옆구리에 두 바라나 되는 화살을 꽂아 넣어 심장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었다. 사랑은 보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드나들며 자기가 한 짓을 누구에게도 해명하라는 말을 듣지 않으니, 그 일을 아주 안전하게 해치울 수 있었다.

그래서 말하건대, 돌진하라는 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리 하인은 이미 자기 자유의 주인으로 삼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느라 넋이 나가 있었고, 그래서 돈키호테처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돌진하여 로시난테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적을 향해 내달렸다. 그가 내닫는 것을 본 착한 종자 산초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느님께서 나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편력 기사들의 꽃이요 정수시여! 정의가 나리 편에 있으니 하느님께서 승리를 내려 주시기를!"

그런데 토실로스는 돈키호테가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큰 소리로 결투 감독관을 불렀고, 감독관이 무슨 일인가 보러 오자 말했다.

"나리, 이 결투는 제가 저 아가씨와 혼인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저는" 하인이 말했다. "양심이 두렵습니다. 이 결투를 더 밀고 나가면 제 양심에 큰 짐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진 것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당장 저 아가씨와 혼인하겠습니다."

결투 감독관은 토실로스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일의 계략을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한마디도 대답할 줄 몰랐다. 돈키호테는 적이 덤벼들지 않는 것을 보고 달리던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공작은 결투가 왜 이어지지 않는지 까닭을 몰랐지만, 결투 감독관이 가서 토실로스가 한 말을 알려 주자 어리둥절해하며 몹시 화를 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토실로스는 도냐 로드리게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마님, 저는 마님의 따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죽을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송이나 싸움으로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맹한 돈키호테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일이 그러하다면 나는 내 약속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소. 좋은 때에 혼인하시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주셨으니 성 베드로께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공작은 성 앞 광장으로 내려와 토실로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기사여, 그대가 진 것으로 하고, 두려워하는 양심에 떠밀려 이 아가씨와 혼인하겠다는 것이 정말이오?"

"그렇습니다, 나리." 토실로스가 대답했다.

"잘하는 거예요." 이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쥐에게 줄 것을 고양이에게 주면 걱정을 덜게 되는 법이니까요."

토실로스는 투구 끈을 풀고 있었는데, 숨이 차서 기운이 빠져 가고 그 좁은 방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을 수가 없으니 어서 좀 도와 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투구를 벗겨 주자 하인의 얼굴이 훤히 드러났다. 그것을 본 도냐 로드리게스와 그 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라고요! 우리 공작 나리의 하인 토실로스를 제 진짜 남편 자리에 세워 놓았어요! 이런 악랄한 짓을, 아니 비열한 짓을 하다니, 하느님과 임금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

"시름하지 마시오, 부인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것은 악랄한 짓도 비열한 짓도 아니오. 설령 그렇다 해도 그 까닭은 공작님께 있지 않고 나를 쫓아다니는 못된 마법사들에게 있소. 그자들은 내가 이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을 시샘하여 그대들의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그대들이 공작님의 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얼굴로 바꾸어 놓았소. 내 충고를 받아들여, 내 적들의 악랄함을 비웃어 주고 이 사람과 혼인하시오.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대가 남편으로 얻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들은 공작은 하마터면 화가 모두 웃음으로 터져 나올 뻔했다. 그는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께 일어나는 일들은 하도 기이해서 나도 이 하인이 내 하인이 아니라고 믿을 지경이오. 그러나 이런 꾀와 수를 써 봅시다. 다들 좋다면 혼인을 보름 미루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인물을 가두어 둡시다. 그 사이에 이자가 본디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마법사들이 돈키호테 나리께 품은 원한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테고,

더구나 이런 속임수와 둔갑을 부려 봐야 그자들에게 얻는 것도 별로 없을 테니 말이오."

"아이고, 나리!" 산초가 말했다. "이 흉악한 놈들은 제 주인 나리에 관계되는 것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꿔 놓는 게 벌써 버릇이 되고 몸에 배었어요. 요전에 나리께서 거울의 기사라는 기사를 이기셨는데, 그놈들이 그 기사를 우리 마을 사람이고 우리와 아주 친한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모습으로 바꿔 놓았고요, 제 마님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촌스러운 농사꾼 처녀로 바꿔 놓았어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이 하인은 평생 하인으로 살다가 하인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로드리게스의 딸이 말했다.

"저를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든 저는 고마울 따름이에요. 기사의 정부가 되어 놀림감이 되느니 하인의 정식 아내가 되는 편이 훨씬 나으니까요. 하기야 저를 속인 사람은 기사도 아니지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와 사건은 토실로스의 둔갑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두들 돈키호테의 승리를 외쳤지만, 대부분은 그토록 기다리던 결투자들이 서로 산산조각을 내지 않은 것을 보고 서운하고 울적해했다. 꼭 교수형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원고가 용서했든 법정이 사면했든 죄수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공작과 돈키호테는 성으로 돌아갔으며, 토실로스는 갇혔다. 도냐 로드리게스와 그 딸은 이런 길로든 저런 길로든 이 일이 혼인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알고 더없이 흐뭇해했고, 토실로스도 그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었다.

제57장 돈키호테가 공작에게 작별을 고한 경위와 공작 부인의 시녀인 영리하고 당돌한 알티시도라와 겪은 일을 다룬다

돈키호테는 이제 그 성에서 누리던 그 많은 빈둥거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편력 기사라고 해서 그 높으신 분들이 베풀어 주는 끝없는 대접과 즐거움 속에 갇혀 게으르게 지내는 동안 세상이 자기를 몹시 아쉬워하고 있으리라 상상했고, 그렇게 빈둥거리며 틀어박혀 지낸 일을 하늘에 엄하게 해명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공작 부부에게 떠나게 해 달라고 허락을 청하자 공작 부부는 그가 자기들을 떠나는 것이 몹시 서운하다는 기색을 보이며 허락해 주었다. 공작 부인이 아내의 편지를 산초 판사에게 건네주자 산초는 편지를 받아 들고 울며 말했다.

"내 통치 소식이 내 마누라 테레사 판사의 가슴에 그렇게 큰 희망을 낳아 놓았는데, 그 희망이 이제 내가 우리 주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의 고달픈 모험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우리 테레사가 공작 부인께 도토리를 보내서 제 됨됨이에 걸맞게 처신한 걸 보니 흐뭇하긴 하네. 도토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서운했을 테고, 그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테니까. 위안이 되는 건, 이 선물을 뇌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사람이 도토리를 보냈을 때 나는 벌써 통치를 맡고 있었고, 무슨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찮은 것으로라도 고마움을 나타내는 건 이치에 맞는 일이니까. 아무튼 나는 벌거벗고 통치에 들어갔다가 벌거벗고 나오니, 떳떳한 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게 작은 일이 아니야. '벌거벗고 태어나 지금도 벌거벗은 몸이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떠나는 날 산초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돈키호테는 전날 밤 공작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아침에 무장을 갖추고 성 앞 광장에 나타났다. 성안 사람들이 모두 회랑에서 그를 내려다보았고 공작 부부도 그를 보러 나왔다.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 올라 자루와 가방과 먹을거리를 챙겨 더없이 흐뭇해하고 있었다. 트리팔디 노릇을 한 공작의 집사가 길에서 쓸 데 보태라며 에스쿠도 금화 200닢이 든 작은 주머니를 주었기 때문인데, 돈키호테는 아직 그 일을 몰랐다.

앞에서 말한 대로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지켜보던 공작 부인의 다른 시녀 부인들과 시녀들 사이에서 느닷없이 당돌하고 영리한 알티시도라가 목소리를 높여 애처로운 가락으로 말했다.

"들어라, 몹쓸 기사야,
고삐를 잠깐 당겨 멈추어라.
옆구리를 지치게 하지 마라,
서툴게 모는 네 짐승의.
보아라, 거짓말쟁이야, 너는 달아나는 게 아니다,
어느 사나운 뱀에게서.
어린 암양 한 마리에게서 달아나는 것이다,
아직 양이 되려면 한참 먼.
끔찍한 괴물아, 너는 농락했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를,
디아나가 제 산에서 본,
베누스가 제 숲에서 바라본.
잔인한 비레노야, 달아나는 아이네이아스야,
바라바나 너와 함께 가라, 거기서 네 알아서 해라.
너는 가져간다, 오, 몹쓸 가져감이여,
갈퀴 같은 네 손아귀에
한 비천한 여자의 애간장을,
사랑에 빠진 만큼이나 여린.
너는 머릿수건 세 장을 가져갔고,
대님 한 쌍을 가져갔다, 다리에서,
순수한 대리석에 견줄 만한
매끄럽기로, 희기로, 검기로.
너는 한숨 이천 번을 가져갔다,
그 한숨이 불이었다면
트로이 이천 개를 태웠으리라,
트로이가 이천 개 있었다면.
잔인한 비레노야, 달아나는 아이네이아스야,
바라바나 너와 함께 가라, 거기서 네 알아서 해라.

네 종자 그 산초의
배 속이 몹시 고집스럽고
몹시 단단해져서, 끝내 못 벗어나기를,
둘시네아가 마법에서.
네가 지은 죄의
벌은 그 가엾은 여자가 받기를.
의인이 죄인 대신
값을 치르는 일이 우리 고장엔 이따금 있으니.
너의 가장 멋진 모험은
불운으로 바뀌고,
너의 즐거움은 꿈으로,
너의 굳은 마음은 망각으로 바뀌기를.
잔인한 비레노야, 달아나는 아이네이아스야,
바라바나 너와 함께 가라, 거기서 네 알아서 해라.
너는 거짓말쟁이로 손가락질받기를,
세비야에서 마르체나까지,
그라나다에서 로하까지,
런던에서 잉글랜드까지.
네가 레이나도 놀이를 하든,
시엔토스든 프리메라든 하든,
왕 패는 너에게서 달아나고
에이스도 일곱도 보지 못하기를.
네가 굳은살을 깎거든
그 상처에서 피가 쏟아지고,
뿌리만 남기를,
네가 어금니를 뽑거든.
잔인한 비레노야, 달아나는 아이네이아스야,
바라바나 너와 함께 가라, 거기서 네 알아서 해라."[1]

앞에서 말한 대로 상처 입은 알티시도라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동안 돈키호테는 그 여자를 바라보고만 있다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산초에게 얼굴을 돌려 말했다.

"네 조상들의 영원한 안식을 걸고 엄숙히 명하니, 내 산초야, 바른대로 말해 다오. 말해 보아라. 혹시 이 사랑에 빠진 아가씨가 말하는 머릿수건 세 장과 대님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머릿수건 세 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님은 우베다 언덕 너머 이야기예요."

공작 부인은 알티시도라의 당돌함에 놀랐다. 그 아이를 대담하고 재치 있고 당돌한 아이로 여기기는 했지만 이런 당돌한 짓까지 감히 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장난은 미리 귀띔받지 못했으므로 더욱 놀랐다. 공작은 이 익살에 힘을 보태고 싶어 말했다.

"기사 나리, 이 내 성에서 그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고도 내 시녀의 머릿수건을 적어도 세 장, 많게는 대님까지 감히 가져가다니 좋게 보이지 않소. 그것은 마음씨가 고약하다는 표시이고, 그대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짓이오. 대님을 돌려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그대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청하겠소. 흉악한 마법사들이 내 얼굴을 바꾸거나 다른 얼굴로 둔갑시킬까 두려워하지도 않소. 그대와 결투를 벌인 내 하인 토실로스의 얼굴은 그자들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지만 말이오."

"그럴 수는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은 존귀하신 각하를 향해 내가 칼을 뽑는 일은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실 것이오. 머릿수건은 돌려드리겠소. 산초가 갖고 있다고 하니까. 대님은 돌려드릴 수가 없소. 나도 받은 적이 없고 산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각하의 시녀가 자기가 감춰 두는 구석구석을 뒤져 본다면 틀림없이 찾을 것이오. 공작님, 나는 한 번도 도둑이었던 적이 없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한 평생 도둑이 될 생각도 없소. 이 아가씨는 스스로 말하듯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탓이 아니오. 그러니 나는 이 아가씨에게도 각하께도 용서를 빌 일이 없소. 각하께서는 나를 더 좋게 생각해 주시고, 내 길을 이어 가도록 다시 허락해 주시기를 비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그토록 좋은 길을 내주시기를, 돈키호테 나리."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대의 무훈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기를. 이제 하느님과 함께 가시오. 그대가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그대를 바라보는 시녀들의 가슴에 불길만 더 키울 테니까. 내 시녀는 앞으로 눈길로도 말로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내가 벌을 주겠소."

"오, 용맹한 돈키호테, 딱 한마디만 더 들어 다오." 그때 알티시도라가 말했다. "대님을 훔쳤다고 한 일은 용서해 줘. 하느님과 내 영혼을 걸고 말하는데, 대님은 내가 차고 있거든. 당나귀를 타고 가면서 당나귀를 찾던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었지 뭐야."

"거봐요, 내가 뭐랬어요?" 산초가 말했다. "내가 도둑질을 감출 위인이나 되나요! 도둑질을 하고 싶었다면 통치할 때 안성맞춤인 기회가 굴러들어 왔을 텐데요."

돈키호테는 고개를 숙여 공작 부부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잿빛 당나귀를 탄 산초를 뒤에 거느리고 성을 나와 사라고사로 길을 잡았다.

---

1. 비레노는 아리오스토의 『광란의 오를란도』에서 자기를 구해 준 올림피아를 무인도에 버리고 달아난 남자다. 아이네이아스도 카르타고의 디도를 버리고 떠났다.

제58장 돈키호테에게 모험이 쉴 새 없이 잇달아 쏟아진 일을 다룬다

탁 트인 들판에 나와 알티시도라의 사랑 타령에서 풀려나 홀가분해지자, 돈키호테는 자기가 제자리에 돌아왔고 기사도의 일을 새로 이어 갈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산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산초, 자유는 하늘이 사람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 가운데 하나다. 땅이 품고 있는 보물도 바다가 감추고 있는 보물도 자유에 견줄 수 없다. 명예를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고 또 걸어야 하며, 반대로 사로잡힌 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다. 산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온 그 성에서 누린 호사와 풍족함을 너도 잘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맛난 잔치 음식과 눈으로 차게 식힌 음료 한가운데서도 나는 굶주림의 궁핍 속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이 내 것이었다면 누렸을 자유로 그것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받은 은혜와 호의에 보답해야 하는 의무는 자유로운 마음이 마음껏 내달리지 못하게 하는 사슬이니라. 하늘이 빵 한 조각을 주었으되 하늘 말고는 아무에게도 고마워할 의무가 남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나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요" 산초가 말했다. "공작님의 집사가 작은 주머니에 넣어 준 에스쿠도 금화 200닢을 우리 쪽에서 고마워하지 않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그걸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고약이나 기운 나는 약처럼 가슴 위에 붙이고 다니거든요.

우리를 대접해 주는 성을 늘 만나지는 못할 테고, 어쩌면 우리를 몽둥이로 두들기는 객줏집을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편력하는 기사와 종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1레과 남짓 갔을 때, 푸른 풀밭의 풀 위에 망토를 깔고 농사꾼 차림의 사내 열두어 명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 곁에는 흰 홑이불 같은 것들이 있어 그 밑에 무엇인가를 덮어 두었는데, 그것들은 우뚝 솟기도 하고 길게 눕기도 한 채 띄엄띄엄 놓여 있었다. 돈키호테는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저 천들이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나리, 이 천 밑에 있는 건 우리 마을에서 만드는 제단 장식 병풍에 쓸 돋을새김 성상과 판에 새긴 성상들이에요. 빛이 바래지 않도록 덮어서, 깨지지 않도록 어깨에 메고 가는 길입니다."

"괜찮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것들을 보고 싶소. 그토록 조심스럽게 모셔 가는 성상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할 테니까."

"훌륭하고말고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아니라면 값이 말해 줄 거예요. 정말이지 50두카도가 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참말이라는 걸 나리께서 보시도록 잠깐 기다리세요. 나리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될 테니까."

그러고는 일어나 먹던 것을 그만두고 맨 첫 성상의 덮개를 벗기러 갔는데, 그것은 말을 탄 성 게오르기오였다. 발치에는 뱀 한 마리가 몸을 휘감고 있었고, 창은 흔히 그려지는 그 사나운 모습 그대로 뱀의 입을 꿰뚫고 있었다. 흔히 하는 말로 성상 전체가 금빛 숯불 덩이 같았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기사는 거룩한 군대가 거느렸던 가장 훌륭한 편력 기사 가운데 하나였소. 이름은 돈 성 게오르기오였고, 게다가 아가씨들을 지켜 주는 분이었소. 이 다른 것도 봅시다."

그 사람이 덮개를 벗기자 그것은 말을 탄 성 마르티노로, 가난한 사람과 망토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 기사도 그리스도교의 모험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내 생각에는 용감하기보다 너그러웠던 분이다. 산초, 네가 보듯이 이분은 가난한 사람과 망토를 나누어 반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때는 틀림없이 겨울이었을 거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토록 자비로운 분이니 망토를 통째로 주었을 테니까."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산초가 말했다. "그분은 이런 속담을 따랐겠지요. 주는 데도 지키는 데도 머리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는 속담 말이에요."

돈키호테는 웃고는 다른 천을 벗겨 달라고 했다. 그 밑에서 말을 탄 에스파냐의 수호성인의 상이 드러났는데, 피 묻은 칼을 들고 무어인들을 짓밟고 그 머리들을 밟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기사이시니, 그리스도의 부대에 속한 분이오. 이분의 이름은 무어인을 죽이는 돈 성 디에고요, 세상이 거느렸고 지금은 하늘이 거느린 가장 용감한 성인이자 기사 가운데 한 분이오."

이어서 다른 천을 벗기자 그것이 덮고 있던 것은 말에서 떨어지는 성 바오로였는데, 그분의 회심을 그린 제단 장식에 흔히 그려지는 모든 정황이 다 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한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바오로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다.

"이분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시대에 우리 주 하느님의 교회가 지녔던 가장 큰 적이었고, 앞으로 교회가 지닐 가장 큰 수호자이시오. 살아서는 편력 기사였고 죽어서는 꼼짝 않고 선 성인이 되었으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한 일꾼이요, 이방인들의 스승이셨소. 이분에게는 하늘이 학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이분을 가르치는 교수요 스승이셨소."

성상은 그것이 다였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다시 덮게 하고, 그것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형제들, 내가 본 것을 보게 된 것을 나는 좋은 징조로 여기오. 이 성인들과 기사들은 내가 몸담은 일, 곧 무예를 직분으로 삼았으니까. 다만 나와 그분들의 차이는 그분들은 성인이어서 하느님을 위해 거룩하게 싸웠고, 나는 죄인이어서 사람의 일로 싸운다는 것이오. 그분들은 팔의 힘으로 하늘을 정복했소. 하늘나라는 힘으로 빼앗는 자의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 고생의 힘으로 무엇을 정복하는지 모르겠소. 그러나 나의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지금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면, 내 운수가 나아지고 내 판단력도 바로잡혀 지금 가는 길보다 더 나은 길로 내 걸음을 이끌게 될지도 모르오."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는 귀를 먹기를." 이때 산초가 말했다.

사내들은 돈키호테의 모습에도 말에도 놀랐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밥을 다 먹고 성상들을 짊어진 뒤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 갈 길을 갔다.

산초는 주인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새삼 주인이 아는 것에 감탄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이든 주인의 손톱 끝에 다 적혀 있고 기억 속에 박혀 있지 않은 것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말했다.

"정말이지 주인 나리, 오늘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편력하는 동안 우리한테 일어난 모험 가운데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모험이었어요. 몽둥이찜질도 깜짝 놀랄 일도 없이 빠져나왔고, 칼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몸뚱이로 땅바닥을 치지도 않았고, 배를 곯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일을 제 눈으로 보게 해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것은, 때가 다 같지 않고 다 같은 모양으로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징조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런 타고난 이치에도 바탕을 두지 않으니,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그것을 좋은 일로 여기고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이런 징조를 믿는 사람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섰다가 복된 성 프란치스코회의 수사를 만나면, 무슨 그리핀이라도 만난 듯이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멘도사 집안 사람은 식탁 위에 소금을 쏟으면 가슴속에 우울을 쏟는다. 마치 자연이 앞으로 닥칠 불행의 표시를 그런 하찮은 것들로 보여 주어야 할 의무라도 있다는 듯이 말이다. 슬기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하늘이 하시려는 일을 두고 자잘한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스키피오가 아프리카에 이르러 뭍에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을 때, 병사들은 그것을 나쁜 징조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땅바닥을 끌어안으며 '아프리카여, 너는 내게서 달아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내 품에 안았으니'라고 말했다. 그러니 산초, 이 성상들을 만난 것은 내게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에스파냐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무어인을 죽이는 성 디에고를 부르면서 '산티아고, 그리고 닫아라(cierra), 에스파냐여!' 하고 외치는 건 무엇 때문인지 나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에스파냐가 열려 있어서 닫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무슨 의식인가요?"[1]

"너는 정말 지극히 순진하구나,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서는 붉은 십자가의 이 위대한 기사를 에스파냐의 수호성인이자 보호자로 주셨다. 특히 에스파냐 사람들이 무어인들과 치른 혹독한 결전에서 말이다. 그래서 에스파냐 사람들은 벌이는 모든 싸움에서 그분을 자기들의 수호자로 부르며 외치고, 그분이 그

싸움터에서 하갈의 자손 무리를 쓰러뜨리고 짓밟고 쳐부수고 죽이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본 적도 많다. 이 진실을 두고는 참된 에스파냐 역사책에 실린 많은 예를 너에게 들어 줄 수도 있다."

산초는 화제를 바꾸어 주인에게 말했다.

"나리, 공작 부인의 시녀 알티시도라의 당돌함에는 정말 놀랐어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이 그 아이를 지독하게 다치게 하고 꿰뚫어 놓은 모양이에요. 사랑은 눈이 짓무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눈이 먼 꼬마인데, 마음 하나를 과녁으로 삼으면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맞혀서 화살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꿰뚫어 버린대요. 사랑의 화살은 아가씨들의 수줍음과 조신함에 부딪히면 끝이 꺾이고 무뎌진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 알티시도라한테서는 끝이 꺾이기는커녕 더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알아 두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랑은 체면을 보지도 않고 생각할 때 이치의 한계를 지키지도 않는다. 사랑은 죽음과 성질이 같아서, 임금의 높은 궁궐이나 양치기의 초라한 오두막이나 가리지 않고 덮친다. 그리고 한 영혼을 온전히 차지하면 맨 먼저 두려움과 수줍음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알티시도라는 수줍음도 없이 제 바람을 털어놓았고, 그것은 내 가슴에 가엾음보다는 당혹을 낳았다."

"이런 지독한 잔인함이 있나요!" 산초가 말했다. "듣도 보도 못한 배은망덕이에요! 저로 말하자면 그 아이의 사랑 고백 가운데 가장 하찮은 한마디에도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제기랄, 무슨 대리석 같은 가슴에 청동 같은 속에 회반죽 같은 영혼이람!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나리한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맵시, 무슨 기백, 무슨 멋, 무슨 얼굴이, 그 가운데 하나가 따로든 모두 한꺼번에든 그 아이를 반하게 했을까요? 정말이지 정말이지 저는 걸핏하면 멈춰 서서 나리를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 마지막 머리카락까지 훑어보는데, 반하게 할 것보다는 놀라

자빠지게 할 것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반하게 하는 건 무엇보다 먼저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나리께는 아름다운 데가 하나도 없으니 그 불쌍한 아이가 무엇에 반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 두어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아름다움이다. 영혼의 아름다움은 지성과 정숙함과 바른 처신과 너그러움과 좋은 교양에서 빛나고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못생긴 사람에게도 담길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에 눈길을 두면 대개 사랑이 세차게, 그것도 더 낫게 생겨나기 마련이다. 산초,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흉하게 생기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이 사랑받는 데는, 내가 말한 영혼의 자질만 갖추었다면 괴물이 아닌 것으로 족하다."

이런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은 길에서 벗어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게 돈키호테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쳐 놓은 초록 실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아무래도 이 그물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모험 가운데 하나인 것 같구나. 나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이 내가 알티시도라에게 매몰차게 군 데 앙갚음이라도 하듯 나를 이 그물에 얽어매고 내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자들에게 알려 주겠노라. 이 그물이 초록 실로 짜인 대신 더없이 단단한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 해도, 아니 질투에 사로잡힌 대장장이 신이 베누스와 마르스를 얽어맨 그물보다 더 질기다 해도, 나는 그것을 바다 골풀이나 목화 실오라기처럼 끊어 버리리라."

그러고는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끊어 버리려는데, 갑자기 나무들 사이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양치기 처녀 둘이 그 앞에 나타났다. 적어도

양치기 처녀처럼 차려입고 있었는데, 다만 가죽 윗옷과 치마가 고급 금란이었다. 아니, 치마는 금실로 짠 물결무늬 비단으로 지은 더없이 호화로운 속치마였다. 두 처녀는 머리를 등 뒤로 풀어 내렸는데, 그 금빛은 해의 빛살과 견줄 만했고, 머리에는 초록 월계수와 붉은 아마란스로 엮은 화관을 하나씩 쓰고 있었다. 나이는 보아하니 열다섯 밑으로 내려가지도 열여덟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것은 산초를 감탄하게 하고 돈키호테를 넋 잃게 하고 해가 그들을 보려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한 광경이었고, 네 사람을 모두 놀라운 침묵에 잠기게 했다. 마침내 맨 먼저 입을 연 것은 두 처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처녀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기사 나리, 걸음을 멈추시고 그물을 끊지 마세요. 나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기려고 쳐 둔 것이니까요. 이 그물을 무엇 하러 쳤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물으실 줄 알고 짧게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2레과쯤 떨어진 마을에 지체 높은 사람과 시골 귀족과 부자가 많이 사는데, 친구와 친척 여럿이 의논해서 아들과 아내와 딸, 이웃과 친구와 친척을 다 데리고 이 둘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처녀들은 양치기 처녀로, 젊은이들은 양치기로 차려입고 모두 함께 새로운 양치기의 아르카디아를 꾸며 보자는 거였지요. 목가극 두 편을 익혀 왔는데, 하나는 이름난 시인 가르실라소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없이 훌륭한 카몽이스의 것을 그 사람 말인 포르투갈 말 그대로 익혔어요. 아직은 하나도 공연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어제 처음 이곳에 왔어요. 이 나뭇가지들 사이, 이 풀밭을 모두 기름지게 하는 물 많은 개울가에 야영 천막이라고들 하는 천막을 몇 채 쳐 두었어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 나무들에 이 그물을 쳐 두었어요. 우리가 떠드는 소리에 홀긴 순진한 작은 새들이 날아와 걸려들게 하려고요. 나리께서

우리 손님이 되어 주신다면 아낌없이 정중하게 대접해 드릴게요. 지금 이곳에는 시름도 울적함도 들어와서는 안 되니까요."

처녀는 입을 다물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참으로, 더없이 아름다운 아씨여, 디아나가 물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느닷없이 보았을 때의 안테온도, 그대의 아름다움을 보고 넋을 잃은 나보다 더 놀라고 더 감탄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대들이 즐기려는 뜻을 나는 칭찬하고, 그대들의 호의에는 감사하오. 내가 그대들을 섬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명하시오. 반드시 따를 것이오. 내 직분은 오직 온갖 사람에게, 특히 그대들이 보여 주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 그물이 온 땅덩이를 덮고 있다 해도, 나는 그물을 끊지 않고 지나갈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설 것이오. 그대들이 내 이 과장된 말을 조금이나마 믿도록 일러 두거니와, 이것을 약속하는 이는 적어도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그 이름이 그대들의 귀에 들어간 적이 있다면 말이오."

"아이, 내 영혼의 동무야!" 그때 다른 처녀가 말했다. "우리한테 이 얼마나 큰 행운이 찾아왔니! 우리 앞에 계신 이 나리 보이지? 내가 알려 줄게.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사랑에 빠져 있고, 가장 예의 바른 분이야. 이분의 무훈을 다룬 이야기가 책으로 찍혀 돌아다니는데, 내가 읽은 그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면 말이야. 내기해도 좋아, 이분과 함께 오는 이 착한 사람은 산초 판사라는 이분의 종자일 거야. 그 사람의 익살에 견줄 만한 익살은 하나도 없대."

"그건 참말이에요." 산초가 말했다. "제가 바로 아가씨가 말하는 그 익살꾼이고 그 종자예요. 그리고 이 나리는 제 주인이시고, 이야기에 나오고 이야기에 실린 바로 그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세요."

"어머나!" 처음 처녀가 말했다. "동무야, 이분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드리자. 우리 아버지들하고 오빠들이 무척 좋아할 거야. 나도 이분의 용기와 이분의 멋에 대해 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 무엇보다도 이분은 세상에 알려진 사람 가운데 가장 한결같고 가장 충실한 연인이고, 이분의 아씨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분인데 온 에스파냐가 그분에게 아름다움의 종려나무 가지를 바친대."

"그것을 바치는 것은 마땅하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들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 그것을 의심하게 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오. 아씨들, 나를 붙잡느라 애쓰지 마시오. 내 직분의 엄중한 의무가 어디에서도 나를 쉬게 하지 않으니까."

그때 두 처녀 가운데 하나의 오빠가 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도 양치기 차림이었는데, 처녀들의 차림에 걸맞게 호화롭고 화려했다. 처녀들은 함께 있는 이가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이고 다른 이는 그의 종자 산초라고 일러 주었는데, 그 젊은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서 이미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 늠름한 양치기는 돈키호테에게 정중히 대접을 청하며 자기 천막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그렇게 했다.

그때 몰이꾼들이 새를 몰아왔고, 그물은 갖가지 작은 새들로 가득 찼다. 새들은 그물 빛깔에 속아 피해 달아나던 위험 속으로 떨어졌다. 그곳에는 서른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모두 멋들어지게 양치기와 양치기 처녀로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은 금세 돈키호테와 그 종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이미 그 이야기로 돈키호테를 알고 있었으므로 적잖이 기뻐했다. 그들이 천막으로 가 보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는데, 푸짐하고 넉넉하고 깔끔했다. 그들은 돈키호테에게 맨 윗자리를 내주어 그를 높이 대접했고, 모두 그를 바라보며 그를 보는 것에 감탄했다.

마침내 식탁보를 걷자 돈키호테가 아주 침착하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사람이 저지르는 큰 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만을 으뜸으로 꼽지만, 나는 배은망덕이 으뜸이라고 말하겠소. 지옥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가득하다는 흔한 말을 따르는 것이오. 나는 철이 든 순간부터 할 수 있는 한 이 죄를 피하려고 애써 왔소. 그리고 내게 베풀어 준 선행을 다른 선행으로 갚을 수 없으면 그 대신 갚고 싶은 마음을 내놓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그 선행을 널리 알리오. 자기가 받은 선행을 말하고 널리 알리는 사람이라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선행으로도 갚을 사람이니까. 대개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기 마련이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오. 모든 것 위에서 주시는 분이니까. 사람의 선물은 끝없는 거리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에 똑같이 보답할 수 없지만, 그 옹색함과 모자람을 어느 정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메워 주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되 그것과 같은 크기로 보답할 수는 없으므로, 내 힘의 좁은 한계 안에 머물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밭에서 거둔 것을 내놓겠소. 그리하여 말하거니와, 나는 사라고사로 가는 저 큰길 한복판에서 꼬박 이틀 동안, 여기 계신 이 양치기 처녀로 꾸민 아씨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의 바른 아가씨들이라고 주장하겠소. 다만 내 마음의 유일한 귀부인이신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만은 빼고 말이오. 내 말을 듣는 모든 신사 숙녀께서 언짢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산초는 아주 주의 깊게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내 주인 나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고 맹세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양치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무리 슬기롭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우리 주인 나리가 한 말을 할 수 있는 마을

신부님이 있나요? 아무리 용감하다고 이름난 편력 기사라도 우리 주인 나리가 여기서 내놓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사가 있나요?"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돌아서서 얼굴을 붉히며 화가 나서 말했다.

"오, 산초야, 너더러 바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겠느냐? 안팎으로 바보에다 무슨 심술궂고 못된 테두리까지 둘렀는데. 누가 너더러 내 일에, 내가 슬기로운지 얼간이인지 따지는 일에 끼어들라더냐? 입 다물고 말대꾸하지 마라. 로시난테가 안장이 벗겨져 있으면 안장이나 얹어라. 내가 내놓은 말을 실행하러 가자. 이치가 내 편에 있으니, 그것을 거스르려는 자는 누구든 다 진 것으로 쳐도 좋다."

그러고는 몹시 성을 내며 화난 기색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겨야 할지 제정신인 사람으로 여겨야 할지 헷갈렸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벌이지 말라고, 그가 고마워하는 마음은 잘 알았고 그의 용맹한 마음을 알리는 데는 그의 무훈을 다룬 이야기에 실린 것으로 충분하니 새로운 증거는 필요 없다고 그를 설득했지만, 그래도 돈키호테는 끝내 제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로시난테에 올라 방패를 팔에 끼고 창을 잡은 채, 푸른 풀밭에서 멀지 않은 큰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잿빛 당나귀를 탄 산초가 그를 따랐고, 양치기 무리도 모두 그 오만하고 듣도 보도 못한 약속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어 따라갔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은 돈키호테는 이런 말로 허공을 갈랐다.

"오, 이 길을 지나가는, 혹은 앞으로 이틀 동안 지나갈 나그네들과 길손들이여, 기사들과 종자들이여, 걸어가는 이들과 말 탄 이들이여! 알지어다. 편력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내 영혼의 귀부인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제쳐 두고, 이 풀밭과 숲에 사는 요정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예의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예의를 넘어선다는 것을 지키려고 여기서 있노라. 그러니 생각이 다른 자는 오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노라."

그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두 번 다 그 말을 들은 모험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일을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이끌던 운명은, 얼마 뒤 길에 말 탄 사내들이 떼 지어 나타나게 했다. 많은 이가 손에 창을 들었고, 모두 한데 엉겨 우르르 몹시 서둘러 오고 있었다.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등을 돌려 길에서 멀찍이 비켜섰다. 그대로 기다리다가는 무슨 위험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만 겁 없는 마음으로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산초 판사는 로시난테의 엉덩이를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었다.

창을 든 무리가 다가왔는데, 그 가운데 맨 앞에서 오던 사람이 큰 소리로 돈키호테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비켜라, 이 악마 같은 놈아, 길에서 비켜! 이 황소들이 너를 산산조각 내 버릴 거다!"

"어림없다, 천한 놈들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라마 강가에서 기르는 가장 사나운 황소라 해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흉악한 놈들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내가 여기서 널리 알린 것이 참말이라고 털어놓을지어다. 그러지 않으면 나와 싸워야 하리라."

소몰이꾼은 대답할 틈이 없었고, 돈키호테도 비켜서고 싶었다 해도 비켜설 틈이 없었다. 그래서 사나운 황소 떼와 순한 길잡이 거세소 떼가, 이튿날 투우를 할 곳으로 소를 몰아넣으러 가던 소몰이꾼들과 다른 사람들 무리와 함께 돈키호테와 산초와 로시난테와 잿빛 당나귀를 짓밟고 지나가며 모두를 땅바닥에 메다꽂고 데굴데굴 굴렸다. 산초는 짓밟혀 녹초가 되고, 돈키호테는 혼이 나가고, 잿빛 당나귀는 두들겨 맞고, 로시난테는 그리 가톨릭 신자처럼 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마침내

모두 일어났고, 돈키호테는 여기서 비틀대고 저기서 넘어지며 몹시 서둘러 소 떼를 뒤쫓아 달려가며 외쳤다.

"멈추어라, 기다려라, 이 천하고 흉악한 무리야! 기사 한 사람이 너희를 기다리노라. 그 기사는 달아나는 적에게는 은으로 된 다리를 놓아 주라는 자들과 성품도 생각도 같지 않느니라!"

그러나 바삐 달려가던 무리는 그런다고 멈추지도 않았고, 그의 으름장을 지난해 구름만큼도 여기지 않았다. 지쳐서 걸음을 멈춘 돈키호테는 앙갚음을 하기는커녕 화만 더 나서 길에 주저앉아 산초와 로시난테와 잿빛 당나귀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오자 주인과 하인은 다시 올라탔고, 거짓된, 아니 흉내 낸 아르카디아에 다시 작별 인사를 하러 가지도 않은 채, 흐뭇함보다는 부끄러움을 더 안고 제 길을 갔다.

---

1. 「Santiago, y cierra, España」는 에스파냐 군대가 돌격할 때 외치던 함성이다. 여기서 cierra는 「적진으로 들이쳐라」라는 군사 용어인데, 산초는 이 낱말을 「닫아라」로 알아들었다.

제59장 모험이라 할 만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비범한 일을 이야기한다

황소들의 무례함 때문에 돈키호테와 산초가 뒤집어쓴 먼지와 피로를 덜어 준 것은 시원한 나무숲 사이에서 찾아낸 맑고 깨끗한 샘이었는데, 고생에 찌든 주인과 하인은 잿빛 당나귀와 로시난테의 굴레와 재갈을 벗겨 풀어놓고 그 샘가에 앉았다. 산초는 자루 속 먹을거리 창고로 가서 그가 늘 「끼닛거리」라고 부르던 것을 꺼냈다. 산초는 입을 헹구고 돈키호테는 얼굴을 씻었는데, 그 시원함에 맥 빠진 기운이 되살아났다. 돈키호테는 너무 시름에 겨워 먹지 않았고, 산초도 너무 예의를 차리느라 앞에 놓인 음식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한 채 주인이 먼저 맛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주인이 상념에 사로잡혀 빵을 입으로 가져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산초는 말 한마디 없이 온갖 예의범절을 다 짓밟고 앞에 놓인 빵과 치즈를 배 속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먹어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목숨을 이어 가거라. 네 목숨은 내게보다 네게 더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의 손에, 내 불행의 힘에 죽게 내버려 두어라. 산초, 나는 죽어 가며 살려고 태어났고, 너는 먹어 가며 죽으려고 태어났다.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네가 알도록 나를 보아라. 나는 이야기책에 찍혀 나왔고, 무예로 이름이 났고, 처신이 예의 바르고, 귀인들에게 존경받고, 아가씨들에게 구애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결국에는, 내 용맹한 무훈으로 얻고 받을 만한 종려나무 가지와 개선과 월계관을 기다리던 참에, 오늘 아침 더럽고

천한 짐승들의 발에 밟히고 차이고 짓이겨지고 말았다. 이 생각을 하니 이가 무디어지고 어금니가 굳고 손이 저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서, 나는 굶어 죽기로 마음먹었다. 죽음 가운데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산초가 쉬지 않고 바삐 씹으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마르타가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게 하라'라는 속담을 옳다고 하지 않으시겠네요. 적어도 저는 제 손으로 저를 죽일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구두장이처럼 할 생각이에요. 구두장이는 가죽을 이로 잡아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늘리잖아요. 저도 먹으면서 제 목숨을 잡아당겨 하늘이 정해 둔 끝까지 늘리겠어요. 그리고 나리, 알아 두세요. 나리처럼 절망하려는 것만큼 큰 미친 짓은 없어요. 제 말을 믿으시고, 드시고 나서 이 풀의 푸른 매트리스 위에서 한숨 주무세요. 깨어나시면 한결 가뿐해지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이 얼간이의 말이라기보다 철학자의 말 같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기로 하며 말했다.

"오, 산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네가 나를 위해 해 준다면 내 위안은 더 확실해지고 내 시름은 그리 크지 않을 텐데. 그것은 내가 네 충고를 따라 잠든 사이에, 네가 여기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로 가서 로시난테의 고삐로 맨살을 드러낸 채 너 자신에게 매질을 삼사백 대 하는 것이다.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려고 네가 맞아야 할 삼천 몇 대 가운데서 셈해 넣는 것으로 말이다. 그 가엾은 아씨가 네 부주의와 게으름 때문에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은 적잖이 딱한 일이니까."

"그건 할 말이 많은 일이에요." 산초가 말했다. "지금은 우리 둘 다 자고, 그다음 일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겠지요. 나리, 알아 두세요. 사람이 맨정신으로 자기를 때리는 건 고된 일이에요. 하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더 못 먹은 몸에 매가 떨어진다면 더 그렇지요. 둘시네아

마님께서는 참으세요. 마님이 생각지도 않을 때 제가 매를 맞아 체처럼 구멍이 숭숭 난 걸 보시게 될 테니까. 죽을 때까지는 다 삶이라고 하잖아요. 제 말은, 저한테는 아직 목숨이 있고,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고마워하며 조금 먹었고, 산초는 많이 먹었으며, 두 사람은 잠자리에 누우면서 늘 함께하는 동무요 벗인 로시난테와 잿빛 당나귀가 그 풀밭에 가득한 무성한 풀을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뜯어 먹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좀 늦게 깨어나 다시 올라타고 길을 이어 갔는데, 거기서 1레과쯤 떨어진 곳에 보이는 객줏집에 닿으려고 걸음을 서둘렀다. 내가 객줏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키호테가 객줏집을 모두 성이라고 부르던 버릇과 달리 그곳을 객줏집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객줏집에 이르러 주인에게 묵을 데가 있느냐고 물었다. 사라고사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편하고 좋은 잠자리가 다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은 말에서 내렸고, 산초는 주인이 열쇠를 준 방에 먹을거리를 들여놓고, 짐승들을 마구간에 데려가 먹이를 준 뒤, 돌 의자에 앉아 있는 돈키호테가 무엇을 시키는지 보러 나왔다. 주인 나리가 이 객줏집을 성으로 여기지 않은 것을 두고 그는 하늘에 각별히 감사드렸다.

저녁 먹을 때가 되자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산초는 주인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주인은 입이 원하는 대로 다 대령할 테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늘을 나는 작은 새든 땅의 새든 바다의 물고기든 이 객줏집에는 다 갖춰져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영계 두 마리만 구워 주시면 넉넉할 거예요. 우리 주인 나리는 입이 짧아서 조금밖에 안 드시고 저도 그리 대식가가 아니니까요."

주인은 솔개들이 다 잡아가서 영계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 주인장" 산초가 말했다. "연한 암평아리 한 마리를 구워 오라고 하세요."

"암평아리요? 어이구, 맙소사!" 주인이 대답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어제 쉰 마리도 넘게 도시에 팔러 보냈는데요. 하지만 암평아리 말고는 무엇이든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송아지 고기나 새끼 산양 고기는 모자라지 않겠지요."

"지금 집에는" 주인이 대답했다. "없어요.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남아돌 만큼 있을 거예요."

"그것참 잘됐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내기해도 좋은데, 이렇게 모자란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 남아도는 베이컨과 달걀이 되겠군요."

"맙소사" 주인이 대답했다. "손님은 참 눈치도 좋으시네! 영계도 암탉도 없다고 했는데 달걀이 있기를 바라세요? 원하시면 다른 맛난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닭 타령은 그만두세요."

"이런 젠장, 결판을 냅시다." 산초가 말했다. "결국 있는 게 뭔지 말해 주시고, 생각해 보라는 소리는 그만두세요, 주인장."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제가 정말로 참말로 가진 건 송아지 족 같은 소 발굽 두 개, 아니 소 발굽 같은 송아지 족 두 개예요. 병아리콩이랑 양파랑 베이컨을 넣고 삶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날 먹어 줘! 날 먹어 줘!'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제 것으로 찜해 둘게요." 산초가 말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누구보다 값을 잘 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는 그보다 더 입맛에 맞는 걸 바랄 수가 없거든요. 발굽이기만 하면 족이든 뭐든 저는 아무래도 좋아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거예요." 객줏집 주인이 말했다. "제가 모시는 다른 손님들은 워낙 지체가 높으셔서 요리사와 식료품 관리인과 먹을거리를 몸소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지체 높은 걸로 치면"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맡은 일은 식료품 창고니 술 창고니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풀밭 한가운데 벌렁 누워서 도토리나 모과로 배를 채우거든요."

이것이 산초가 객줏집 주인과 나눈 이야기였는데, 주인이 이미 그의 주인의 직업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산초는 그 이상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 먹을 때가 되자 돈키호테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객줏집 주인은 냄비를 있는 그대로 가져왔으며, 산초는 아주 작정하고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방 옆에 얇은 칸막이 하나로만 나뉜 다른 방이 있었던 모양으로, 돈키호테는 이런 말을 들었다.

"돈 헤로니모 나리, 제발 저녁을 가져오는 동안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를 한 장 더 읽읍시다."

돈키호테는 자기 이름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귀를 바짝 세우고 자기에 관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앞에서 말한 그 돈 헤로니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들렸다.

"돈 후안 나리, 이런 헛소리를 무엇 하러 읽자고 하십니까?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의 제1부를 읽은 사람이라면 이 제2부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도" 돈 후안이 말했다. "읽어 보는 게 좋겠지요.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좋은 데가 하나도 없는 책은 없으니까요. 이 책에서 내가 가장

못마땅한 건 돈키호테를 둘시네아 델 토보소에게서 이미 사랑이 식은 사람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돈키호테는 분노와 울분에 가득 차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잊었다거나 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든, 나는 같은 무기로 겨루어 그자가 진실에서 몹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리라.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잊힐 수 없고, 돈키호테에게는 잊는다는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느니라. 그의 문장(紋章)은 한결같음이요, 그의 직분은 그 한결같음을 부드럽게, 아무런 억지도 없이 지키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꾸하는 분이 누구시오?" 다른 방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누구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바로 그분이지요. 나리께서는 하신 말씀을, 아니 앞으로 하실 말씀까지 다 지키실 거예요. 셈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담보 잡히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산초가 이 말을 하자마자 기사 두 사람이, 적어도 기사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방문으로 들어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돈키호테의 목에 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대의 모습은 그대의 이름을 거짓말로 만들 수 없고, 그대의 이름은 그대의 모습을 보증하지 않을 수 없소. 틀림없이 나리께서는 참된 라만차의 돈키호테, 편력 기사도의 북극성이요 샛별이시오. 나리의 이름을 가로채고 나리의 무훈을 없애 버리려 한 자가 뭐라 하든, 내가 여기 나리께 건네드리는 이 책의 저자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이오."

그러고는 동행이 들고 있던 책 한 권을 돈키호테의 손에 쥐여 주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받아 한마디 대꾸도 없이 넘겨 보기 시작하더니, 얼마 뒤 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조금 보았을 뿐인데도 이 저자에게서 꾸지람받을 만한 것을 세 가지 찾아냈소. 첫째는 서문에서 읽은 몇 마디 말이고, 둘째는 말투가 아라곤 말투라는 것이오. 이따금 관사를 빼고 쓰니까. 그리고 셋째는 그가 무식하다는 것을 더욱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틀리고 진실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오. 여기서 그는 내 종자 산초 판사의 아내 이름이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그게 아니라 테레사 판사요.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틀리는 자라면 이야기의 다른 모든 대목에서도 틀리지 않을까 걱정할 만하오."

그 말에 산초가 말했다.

"역사가라는 사람이 참 우습기도 하지! 우리가 겪은 일을 아주 잘도 알고 있겠네요, 제 마누라 테레사 판사를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부르니! 나리, 그 책을 다시 집어 보시고, 거기 제가 나오는지, 제 이름도 바꿔 놓았는지 보세요."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여보게"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자네가 틀림없이 돈키호테 나리의 종자 산초 판사겠군."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런데 맹세코" 그 기사가 말했다. "이 새 저자는 자네를 자네 사람됨에서 드러나는 만큼 깔끔하게 다루지 않네. 자네를 먹보에 멍청이에, 익살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그려 놓아서, 자네 주인의 이야기 제1부에 그려진 산초와는 아주 딴판이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산초가 말했다. "저를 생각하지 말고 제 구석에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연주하는 법이고, 성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게 편하니까요."

두 기사는 그 객줏집에는 그의 신분에 걸맞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돈키호테에게 자기들 방으로 건너와 함께 저녁을 들자고 청했다. 늘 예의 바른 돈키호테는 그 청을 들어주어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산초는 냄비를 차지하고 전권을 쥔 채 남아 식탁 윗자리에 앉았고, 그와 함께 객줏집 주인도 앉았는데, 주인도 산초 못지않게 그 족과 발굽을 좋아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돈 후안이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소식을 물었다. 시집을 갔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가졌는지, 아니면 아직 처녀로서 정숙함과 품위를 지키는 가운데 돈키호테 나리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물음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둘시네아는 처녀 그대로이고,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으며, 답장은 예전처럼 메마른 채이고, 그 아름다움은 천한 농사꾼 처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소."

그러고는 곧 둘시네아 아씨가 마법에 걸린 일과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자기가 겪은 일, 그리고 마법을 풀기 위해 현자 메를린이 내린 명령, 곧 산초의 매질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다.

두 기사는 돈키호테가 자기 이야기의 기이한 사건들을 들려주는 것을 듣고 더없이 즐거워했고, 그의 엉뚱한 소리에 놀라는 만큼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우아한 말솜씨에도 놀랐다. 그들은 여기서는 그를 슬기로운 사람으로 여기다가도 저기서는 그가 얼간이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고, 슬기와 광기 사이에서 그에게 어느 자리를 매겨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산초는 저녁을 다 먹고 객줏집 주인을 술에 취해 다리가 X 자로 꼬이게 만들어 놓은 뒤 주인의 방으로 건너가서, 들어가자마자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빵가루 볶음을 나눠 먹는 꼴을 보기 싫은가 봐요. 아니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나를 먹보라고 부른다면, 술고래라고는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부르고 있네."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어떤 말로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듣기 거북한 말이었다는 건 알지. 게다가 여기 있는 착한 산초의 얼굴을 보아하니 거짓말이기도 하고."

"여러분, 제 말을 믿어 주세요." 산초가 말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산초와 돈키호테는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지은 이야기에 다니는 산초와 돈키호테하고는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주인 나리는 용감하고 슬기롭고 사랑에 빠진 분이고, 저는 순진한 익살꾼이지 먹보나 술고래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네." 돈 후안이 말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펠레스 말고는 아무도 감히 자기 초상을 그리지 못하게 명했듯이, 위대한 돈키호테의 일은 그의 첫 작가 시데 아메테 말고는 아무도 감히 다루지 못하도록 명해야 할 걸세."

"그리고 싶은 사람은 내 초상을 그리라지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나를 함부로 다루지는 말아야 하오. 인내도 모욕을 잔뜩 짊어지면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돈키호테 나리께 가해지는 모욕이라면" 돈 후안이 말했다. "나리께서 앙갚음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지요. 나리의 인내라는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 방패는 튼튼하고 크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밤의 대부분이 지나갔는데, 돈 후안은 그 책이 무슨 소리를 늘어놓는지 보려고 돈키호테가 그 책을 더 읽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를 설득하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그 책을 읽은 것으로 치겠고 철저히 어리석은 책으로 단정하겠다고, 혹시 자기가 그 책을 손에 들었다는 소식이 저자의 귀에 들어가 그가 자기가 그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란하고 추잡한 것에서는 생각도 멀리해야 하거늘 하물며 눈이야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들은 그에게 어디로 여행을 떠날 작정이냐고 물었다.

그는 사라고사로, 그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갑옷을 상으로 거는 마상 시합에 나가려고 간다고 대답했다. 돈 후안은 그 새 이야기에, 그게 누구든 간에 돈키호테가 그 도시의 반지 따기 시합에 나갔다고 적혀 있는데, 착상은 모자라고 글은 빈약하고 차림새는 더없이 초라하며 다만 어리석음만은 넘쳐 난다고 말해 주었다.

"바로 그 때문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사라고사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소. 그리하여 그 새 역사가의 거짓말을 세상의 광장에 끌어내면, 사람들은 내가 그자가 말하는 돈키호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바르셀로나에도 다른 마상 시합이 있으니,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거기서 용기를 보여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니 여러분께서는 물러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종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시오."

"저도요." 산초가 말했다. "어쩌면 무엇에든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기들 방으로 물러갔고, 돈 후안과 돈 헤로니모는 돈키호테가 슬기와 광기를 뒤섞어 놓은 것을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사람이야말로 참된 돈키호테와 산초이고, 그 아라곤 작가가 그린 사람들은 아니라고 참으로 믿었다.

돈키호테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옆방 칸막이를 두드려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산초는 객줏집 주인에게 아주 후하게 값을 치르고는, 객줏집 먹을거리를 덜 자랑하든지 아니면 더 넉넉히 갖춰 두라고 충고했다.

제60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겪은 일

돈키호테가 객줏집을 떠난 날은 아침이 서늘했고, 낮도 그러하리라는 기색이 보였다. 그는 떠나기 전에 사라고사를 거치지 않고 바르셀로나로 가는 가장 곧은 길이 어느 길인지 먼저 알아보았다. 자기를 그토록 헐뜯는다는 그 새 역사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다.

그런데 엿새가 넘도록 글로 남길 만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엿새가 지나 길을 벗어나 가던 중에 그는 우거진 떡갈나무인지 코르크참나무인지 숲속에서 밤을 맞았다. 이 점에서 시데 아메테는 다른 일에서 늘 그러듯 꼼꼼하게 밝혀 두지 않았다.

주인과 하인은 짐승에서 내려 나무 밑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날 오후 간식을 먹은 산초는 잠의 문으로 단숨에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상념 때문에 훨씬 더 잠을 이루지 못한 돈키호테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생각으로 온갖 곳을 오갔다. 몬테시노스 동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농사꾼 처녀로 바뀐 둘시네아가 암나귀 위로 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려면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조건을 일러 주던 현자 메를린의 말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종자 산초가 게으르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을 보며 절망했는데, 그가 믿기로 산초는 겨우 다섯

대만 자기를 때렸을 뿐이니, 아직 남은 끝없는 매에 견주면 턱없이 적은 수였다. 그는 그 일로 어찌나 괴롭고 화가 났던지 이런 생각을 펼쳤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르나 푸나 매한가지'라고 말하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랐어도 아시아 전체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내가 산초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그를 때린다면 지금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이 처방의 조건이 산초가 삼천 몇 대의 매를 맞는 데 있다면, 산초가 스스로 때리든 남이 때리든 내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요점은 매가 어디서 오든 산초가 그 매를 맞는 데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먼저 로시난테의 고삐를 집어 들고 그것으로 때릴 수 있게 손에 맞춘 다음 산초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허리끈을 풀기 시작했다. 산초의 헐렁한 반바지를 지탱하는 끈은 앞쪽 하나뿐이었다고들 한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다가가자마자 산초가 정신이 말짱해져서 깨어나 말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저를 건드리고 허리끈을 풀어요?"

"나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모자란 것을 채우고 내 괴로움을 덜러 왔다. 산초, 너를 때리러, 네가 지기로 한 빚을 얼마라도 갚게 하러 왔다. 둘시네아는 죽어 가는데 너는 태평하게 지내고, 나는 애가 타서 죽어 간다. 그러니 네 뜻으로 바지를 풀어라. 내 뜻은 이 외딴 곳에서 적어도 이천 대는 너를 때리는 것이다."

"그건 안 돼요." 산초가 말했다. "나리,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않으면 참하느님께 맹세코 귀머거리들까지 우리 고함을 듣게 될 거예요. 제가 맞기로 한 매는 제가 원해서 맞는 거지 억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내키면 제 몸을 두들기고 파리 쫓듯 후려치겠다고 나리께 약속드렸으니 그걸로 된 거예요."

"네 예의에 맡겨 둘 수는 없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마음은 모질고, 촌놈이면서도 살은 무르니까."

그러고는 산초의 허리끈을 풀려고 애쓰고 버둥댔다. 그것을 본 산초 판사는 벌떡 일어나 주인에게 덤벼들어 맞붙잡고 늘어지더니, 다리를 걸어 주인을 바닥에 벌렁 자빠뜨렸다. 그러고는 오른쪽 무릎을 주인의 가슴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주인의 두 손을 붙잡아 꼼짝도 못 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뭐냐, 이 배신자야? 네 주인이자 타고난 상전에게 감히 대드느냐? 너에게 빵을 주는 사람에게 감히 덤비느냐?"

"저는 임금을 끌어내리지도 세우지도 않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제 상전인 저 자신을 도울 뿐이에요. 나리께서 가만히 계시고 지금은 저를 때리려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놓아 드려서 홀가분하게 해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시면

여기서 너는 죽으리라, 배신자야,
도냐 산차의 원수야."

돈키호테는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자기 마음을 걸고 산초의 옷깃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으며 원할 때 자기를 때리는 일은 산초의 뜻과 마음에 온전히 맡기겠다고 맹세했다.

산초는 일어나 그 자리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다른 나무에 기대려고 가다가 무엇이 머리에 닿는 것을 느끼고 손을 들어 올렸더니, 신발과 긴 양말을 신은 사람의 두 발이 손에 잡혔다. 그는 무서워 덜덜 떨며 다른 나무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큰 소리로 돈키호테를 부르며 도와 달라고 했다. 돈키호테가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엇이 무서우냐고 묻자, 산초는 이 나무들이 모두

사람의 발과 다리로 가득하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더듬어 보고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는 산초에게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네가 더듬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는 이 발과 다리는 틀림없이 이 나무들에 목매달린 무법자와 도적들의 것이다. 이 근방에서는 관헌이 도적들을 잡으면 스물씩, 서른씩 목을 매다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우리가 바르셀로나 가까이 와 있는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가 짐작한 그대로였다.

동이 트는 듯하자 그들은 눈을 들어 그 나무들에 송이송이 매달린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도적들의 시체였다. 그사이에 날이 밝아 오고 있었는데, 죽은 자들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면, 느닷없이 그들을 에워싼 마흔 명이 넘는 산 도적들은 그에 못지않게 그들을 괴롭게 했다. 도적들은 카탈루냐 말로, 두목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려 있었고, 말은 재갈이 벗겨져 있었으며, 창은 나무에 기대 세워 두었으니, 결국 아무런 방비도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때와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도적들은 잿빛 당나귀에게 달려들어 털어 대며 자루와 가방에 든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산초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공작의 에스쿠도와 고향에서 가져온 돈이 그가 허리에 두른 전대 속에 들어 있었다. 그래도 그 착한 사람들은 그의 가죽과 살 사이에 숨긴 것까지 샅샅이 훑고 뒤졌을 텐데, 마침 그때 그들의 두목이 왔다. 나이는 서른넷쯤 되어 보였고, 몸집은 다부지고 보통보다 컸으며, 눈빛은 엄숙하고 얼굴빛은 가무잡잡했다. 그는 힘센 말을 타고 강철 사슬 갑옷을 입었으며, 양옆에 그 고장에서는 페드레냘이라고 부르는 단총 네 자루를 차고 있었다. 그는 자기 종자들이, 그 일에 몸담은 자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산초

판사의 것을 털려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명했고, 그들은 곧 그 명을 따랐다. 그래서 전대는 무사했다. 그는 나무에 기대 세운 창과 땅바닥의 방패, 그리고 무장을 한 채 생각에 잠긴 돈키호테를 보고 놀랐다. 돈키호테는 슬픔 그 자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울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두목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착한 양반. 그대는 어느 잔인한 오시리스의 손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로케 기나르트의 손에 떨어졌으니까. 이 손은 가혹하기보다 자비로운 편이오."[1]

"내가 슬픈 것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대의 손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오. 오, 용맹한 로케여, 그대의 명성은 땅 위의 어떤 경계도 가두지 못하는구려! 내가 슬픈 것은, 내가 몸담은 편력 기사도의 규율에 따라 늘 깨어 있고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는 보초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대의 병사들이 재갈도 물리지 않은 나를 붙잡을 만큼 내가 방심했기 때문이오. 오, 위대한 로케여, 알아 두시오. 그들이 말에 올라 창과 방패를 든 나를 만났더라면 나를 굴복시키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그 무훈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바로 그 사람이니까."

로케 기나르트는 곧 돈키호테의 병이 용기보다는 광기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돈키호테의 이름을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의 행적을 참말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기질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리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 그에 관해 들은 것을 가까이서 만져 볼 수 있게 그를 만난 것을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처한 이 일을 불운으로 여기지도 마시오.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사이에 그대의 비뚤어진 운수가 바로잡힐지도 모르오. 하늘은 사람이 상상도 못 한 기이하고 보도 듣도

못한 에움길로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일이 흔하니까."

돈키호테가 그에게 막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그들 등 뒤에서 말 떼가 몰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말 한 마리일 뿐이었고, 그 위에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 하나가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다. 젊은이는 금줄 장식을 단 초록 다마스크 비단옷에 헐렁한 반바지와 짧은 웃옷을 입고, 왈로니아풍으로 비스듬히 쓴 모자, 밀랍을 먹인 꼭 맞는 장화, 박차, 금도금한 단검과 칼을 갖추었으며, 손에는 작은 엽총을 들고 양옆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그 소리에 로케가 고개를 돌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젊은이는 그에게 다가오자마자 말했다.

"오, 용맹한 로케, 너를 찾아왔어. 내 불행을 고칠 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덜 길은 너한테서 찾으려고.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걸 아니까 애태우지 않게 내가 누군지 말할게. 나는 클라우디아 헤로니마야. 너와 각별한 친구이고 클라우켈 토레야스와는 원수인 시몬 포르테의 딸이지. 토레야스는 너와도 원수야. 네 적수 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도 알다시피 이 토레야스한테는 돈 비센테 토레야스라는 아들이 있어. 아니, 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렸지. 내 불행 이야기를 줄이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불행을 안겼는지 짧게 말해 줄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게 사랑을 속삭이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사랑에 빠졌어. 아버지 몰래. 아무리 들어앉아 지내고 아무리 조심하는 여자라도 제 성급한 바람을 실행에 옮길 틈은 남아도는 법이니까. 결국 그 사람은 내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나도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어. 행동으로 그 이상 나아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잊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약혼식을 올리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에 나는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참을성이 바닥났어. 마침 아버지가 마을에 안 계셔서 나는

이렇게 네가 보는 차림을 하고, 이 말을 재촉해 여기서 1레과쯤 떨어진 곳에서 돈 비센테를 따라잡았어. 그리고 원망을 늘어놓지도 변명을 듣지도 않고 이 엽총을 쏘고, 덤으로 이 권총 두 자루도 쏘았어. 내 생각에는 그 사람 몸에 총알을 두 개 넘게 박아 넣었을 거야. 그 사람 피에 휩싸여 내 명예가 빠져나올 문을 열어 준 셈이지. 그 사람은 하인들 사이에 내버려 두고 왔어. 하인들은 감히 막지도 못했고 막을 수도 없었어. 너를 찾아온 건 나를 프랑스로 건네 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야. 거기에 함께 살 친척들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 달라고 부탁하려고. 돈 비센테네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터무니없는 앙갚음을 하지 못하게."

로케는 아름다운 클라우디아의 늠름함과 씩씩함과 맵시와 그 사건에 놀라서 말했다.

"가자, 아가씨. 네 원수가 죽었는지 보러 가자. 그다음에 너한테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자."

클라우디아가 한 말과 로케 기나르트가 대답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아씨를 지키느라 아무도 수고할 필요 없소. 그 일은 내가 맡겠소. 내 말과 무기를 주고 여기서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그 기사를 찾아가서, 죽었든 살았든 이토록 아름다운 분께 약속한 말을 지키게 하겠소."

"이 말은 아무도 의심하지 마세요." 산초가 말했다. "우리 주인 나리는 중매 솜씨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다른 아가씨한테 약속을 안 지키던 사람을 혼인하게 만드셨어요. 나리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하인의 모습으로 바꿔 놓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그 아가씨는 벌써 아가씨가 아니었을 거예요."

로케는 주인과 하인의 말보다 아름다운 클라우디아의 사건을 생각하는 데 더 마음이 쏠려 있어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종자들에게 잿빛 당나귀에서 빼앗은 것을 모두 산초에게 돌려주라고 명하고, 그날 밤 묵었던 곳으로 물러가 있으라고 명한 뒤, 곧 클라우디아와 함께 다쳤는지 죽었는지 모를 돈 비센테를 찾아 몹시 서둘러 떠났다. 그들은 클라우디아가 돈 비센테를 만났던 곳에 이르렀지만 거기에는 갓 흘린 피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방을 둘러보니 비탈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그것이 돈 비센테일 것이라고, 하인들이 죽었든 살았든 그를 치료하려고 또는 묻으려고 데려가는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그 짐작이 맞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들을 따라잡으려 했고, 그들이 천천히 가고 있었으므로 쉽게 따라잡았다.

돈 비센테는 하인들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상처가 아파서 더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빌고 있었다.

클라우디아와 로케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하인들은 로케가 나타나자 겁을 먹었고, 클라우디아는 돈 비센테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반은 애틋하고 반은 모진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 네가 이 손을 나한테 주었더라면 너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친 기사는 거의 감긴 눈을 뜨고 클라우디아를 알아보고는 말했다.

"아름답고 속아 버린 아가씨, 나를 죽인 사람이 너라는 걸 잘 알겠어. 내 바람으로 보나 내가 한 짓으로 보나 받아 마땅하지도 않고 받을 까닭도 없는 벌이야. 나는 바람으로도 행동으로도 너를 해치려 한 적도 없고 해칠 줄도 몰랐으니까."

"그럼 네가 오늘 아침 부자 발바스트로의 딸 레오노라와 약혼식을 올리러 가던 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클라우디아가 말했다.

"정말 아니야." 돈 비센테가 대답했다. "내 나쁜 운이 너한테 그런 소식을 전해서, 질투에 사로잡힌 네가 내 목숨을 빼앗게 한 모양이야. 그래도 이 목숨을 네 손과 네 품에 두고 가니 내 운명은 복되다고 여겨. 그리고 이게 참말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니, 원한다면 이 손을 꼭 잡고 나를 남편으로 받아 줘. 네가 나한테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욕을 갚을 길로 이보다 더 큰 것은 내게 없으니까."

클라우디아가 그의 손을 꼭 잡자 그 여자의 가슴도 꽉 조여 들어, 그 여자는 돈 비센테의 피와 가슴 위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돈 비센테는 죽음의 발작을 일으켰다. 로케는 어쩔 줄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인들이 두 사람의 얼굴에 끼얹을 물을 찾으러 달려가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얼굴을 적셨다. 클라우디아는 정신을 차렸지만 돈 비센테는 발작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목숨이 다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본 클라우디아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자 한숨으로 허공을 찢고 탄식 소리로 하늘을 찔렀으며, 머리를 쥐어뜯어 바람에 흩날리고 제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상처 입은 가슴에서 나올 수 있는 온갖 고통과 슬픔의 표시를 다 보였다.

"오, 잔인하고 생각 없는 여자야." 클라우디아가 말했다. "그런 몹쓸 생각을 너는 어찌 그리 쉽게 실행에 옮겼느냐! 오, 미쳐 날뛰는 질투의 힘이여, 너희를 가슴에 들이는 자를 어찌 이리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느냐! 오, 내 남편아, 나와 정을 맺은 탓에 그 불행한 운명이 너를 신방에서 무덤으로 데려갔구나!"

클라우디아의 탄식이 어찌나 크고 슬펐던지, 어떤 일에도 눈물을 흘리는 데 익숙하지 않던 로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인들은 울고 클라우디아는 걸핏하면 정신을 잃었으니, 그 둘레가 온통 슬픔의 들판이요 불행의 자리 같았다. 마침내 로케 기나르트는 돈 비센테의 하인들에게 가까이 있는 그의 아버지 마을로 시신을 모셔 가 묻게

하라고 명했다. 클라우디아는 로케에게 고모가 원장으로 있는 수녀원에 들어가 더 나은 영원한 신랑과 함께 생을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로케는 그 좋은 뜻을 칭찬하며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고, 그리고 친척들이든 세상 누구든 그 여자의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면 지켜주겠다고 했다. 클라우디아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끝내 마다하고, 그의 호의에 자기가 아는 가장 좋은 말로 고마움을 전한 뒤 울면서 그와 작별했다. 돈 비센테의 하인들은 시신을 모셔 갔고 로케는 자기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으니, 클라우디아 헤로니마의 사랑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그 애처로운 이야기의 씨실을 짠 것이 질투의 꺾을 수 없는 혹독한 힘이었으니 무엇이 놀랍겠는가?

로케 기나르트는 명했던 곳에서 자기 종자들을 찾았는데, 돈키호테가 그들 사이에서 로시난테에 올라앉아 영혼에도 몸에도 그토록 위험한 그 생활을 그만두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스코뉴 사람들이라 거칠고 막돼먹은 자들이어서 돈키호테의 연설이 잘 먹혀들지 않았다. 로케는 도착하자 산초 판사에게 부하들이 잿빛 당나귀에서 빼앗은 세간과 패물을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돌려받았는데 도시 세 개 값어치가 나가는 머릿수건 세 장이 모자란다고 대답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사람아?" 그 자리에 있던 하나가 말했다. "그건 내가 갖고 있는데, 3레알 값어치도 안 된다."

"그렇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나 내 종자는 그것을 준 사람이 준 것이라 그가 말한 만큼 귀히 여기는 것이오."

로케 기나르트는 곧 그것을 돌려주라고 명하고는 부하들을 한 줄로 세우게 하고, 지난번 나누어 가진 뒤로 훔친 옷과 보석과 돈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앞에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재빨리 값을 셈하여 나눌 수 없는 것은 되돌려 돈으로 바꾸고, 그것을 무리 전체에 나누어 주었는데,

어찌나 공정하고 신중하게 했던지 분배의 정의를 한 치도 넘지 않았고 조금도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흐뭇하고 만족하고 셈을 받자 로케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이자들과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소."

그 말에 산초가 말했다.

"여기서 본 걸로 보면 정의라는 건 참 좋은 거라서 도둑들끼리도 써야 하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종자 하나가 화승총 개머리판을 치켜들었는데, 로케 기나르트가 소리쳐 멈추게 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것으로 산초의 머리를 깨 버렸을 것이다. 산초는 기겁을 하고, 그 무리 속에 있는 동안에는 입술을 꿰매 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길에 보초로 세워 두어 길로 오는 사람들을 살피고 일어나는 일을 두목에게 알리게 하던 종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 몇이 와서 그 하나가 말했다.

"두목님, 여기서 멀지 않은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로 큰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로케가 대답했다.

"우리를 찾는 놈들인지 우리가 찾는 놈들인지 알아보았느냐?"

"우리를 찾는 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놈들입니다." 종자가 대답했다.

"그럼 모두 나가라." 로케가 대꾸했다. "그리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곧장 여기로 끌고 오너라."

종자들이 그렇게 하자 돈키호테와 산초와 로케만 남아 종자들이 무엇을 끌고 오는지 기다렸다. 그동안 로케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우리 생활이 새로운 생활이요, 새로운 모험이요, 새로운 사건들이요, 그것도 모두 위험한 것들로 보이실 것이오. 그렇게 보이시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오. 정말이지 털어놓건대 우리 생활보다 더 불안하고 더 조마조마한 생활은 없으니까. 나를 이 생활에 들여놓은 것은 무슨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은 아무리 차분한 가슴이라도 어지럽히는 힘이 있소. 나는 본디 자비롭고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오. 그러나 말했듯이, 내가 당한 모욕을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내 좋은 성향을 모두 땅에 내팽개쳐 버려서, 나는 내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처지를 이어 가고 있소. 그리고 한 심연이 다른 심연을 부르고 한 죄가 다른 죄를 부르듯이 앙갚음이 사슬처럼 이어져서, 이제 나는 내 앙갚음뿐 아니라 남의 앙갚음까지 떠맡고 있소.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내 혼란의 미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가 안전한 항구에 닿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소."

돈키호테는 훔치고 죽이고 노략질하는 그런 일에 몸담은 자들 가운데에 사리를 제대로 따지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터라, 로케가 그토록 좋고 조리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놀라며 그에게 대답했다.

"로케 나리,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은 병을 아는 데, 그리고 환자가 의사가 지어 주는 약을 먹으려 하는 데 있소. 나리는 병이 들었으되 그 병을 알고 있으니, 하늘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의사이신 하느님께서 나리를 낫게 할 약을 지어 주실 것이오. 그 약은 대개 갑자기 기적처럼이 아니라 조금씩 낫게 하기 마련이오. 게다가 슬기로운 죄인은 어리석은 죄인보다 뉘우치는 데 더 가까이 있소. 나리께서는 그 말로 신중함을 보여 주셨으니, 마음을 굳게 먹고 양심의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오. 그리고 나리께서 길을 줄여 구원의 길로 쉽게

들어서고 싶으시다면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나리께 편력 기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편력 기사는 그토록 많은 고생과 불운을 겪으니, 그것을 고행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두 마디 말 하는 사이에 나리를 하늘나라에 올려놓을 것이오."

로케는 돈키호테의 충고에 웃고는 화제를 바꾸어 클라우디아 헤로니마의 비극적인 사건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처녀의 아름다움과 당돌함과 씩씩함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던 산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가슴 아파했다.

그때 노획물을 잡으러 갔던 종자들이 돌아왔는데, 말을 탄 기사 둘과 걸어가던 순례자 둘, 그리고 여자들이 탄 마차 한 대와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그 여자들을 수행하는 하인 여섯 명가량, 그리고 기사들이 데리고 다니던 노새꾼 젊은이 둘을 끌고 왔다. 종자들은 그들을 가운데 두고 에워쌌고, 진 자들도 이긴 자들도 깊은 침묵을 지키며 위대한 로케 기나르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로케는 기사들에게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고 물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나리, 우리는 에스파냐 보병대 대위 둘입니다. 우리 중대는 나폴리에 있고, 시칠리아로 건너가라는 명을 받고 바르셀로나에 있다는 갤리선 네 척에 오르러 가는 길입니다. 에스쿠도는 200닢인가 300닢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고 흐뭇합니다. 병사들은 늘 쪼들려서 그보다 큰 보물은 꿈도 못 꾸니까요."

로케는 순례자들에게도 대위들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을 물었다. 그들은 로마로 건너가려고 배를 타러 가는 길이며, 둘이 합쳐 60레알쯤 지녔다고 대답했다. 로케는 마차에는 누가 탔으며 어디로 가며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말을 탄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마차에 타신 분들은 저희 마님이신 나폴리 비카리아 법원 부원장의 부인 도냐 기오마르 데 키뇨네스 마님과 어린 따님, 그리고 시녀 하나와 시녀 부인 하나입니다. 저희 하인 여섯이 마님을 모시고 있고, 돈은 600에스쿠도입니다."

"그러니까" 로케 기나르트가 말했다. "여기 벌써 900에스쿠도와 60레알이 있다는 거로구나. 내 병사들은 예순 명쯤 되니,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셈해 보아라. 나는 셈이 서툴러서."

도적들은 이 말을 듣자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로케 기나르트 만세, 오래오래 사시기를! 그분을 망하게 하려는 도둑놈들(lladres)이 뭐라 하든!"

대위들은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였고, 부원장 부인은 슬퍼했으며, 순례자들도 제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보고 전혀 즐겁지 않았다. 로케는 한동안 그들을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두었지만, 화승총 사정거리 밖에서도 알아볼 만한 그들의 슬픔을 더 끌고 싶지는 않아서 대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대위님들, 예의로 생각하시고 저에게 60에스쿠도를 빌려주십시오. 부원장 부인께서는 80에스쿠도를 빌려주십시오. 저를 따르는 이 무리를 흡족하게 해 주려는 겁니다. 수도원장은 노래한 것으로 먹고사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곧 아무 거리낌 없이 홀가분하게 갈 길을 가셔도 됩니다. 제가 통행증을 써 드리겠습니다. 이 근방에 나누어 둔 제 다른 무리를 만나더라도 해코지하지 않도록요. 군인이나 여자를, 더구나 지체 높은 여자를 욕보이는 것은 제 뜻이 아니니까요."

대위들은 그들 자신의 돈을 그들에게 남겨 준 것을 예의와 너그러움으로 여기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리고 아주 잘 다듬은 말로 로케에게 감사했다. 도냐 기오마르 데 키뇨네스 마님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위대한 로케의 발과 손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로케는 끝내

그러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몹쓸 직업이 지운 어쩔 수 없는 의무를 다하느라 부인을 욕보이게 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부원장 부인은 하인 하나를 시켜 자기 몫으로 매겨진 80에스쿠도를 곧 내주게 했고, 대위들은 벌써 60에스쿠도를 꺼내 놓았다. 순례자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다 내놓으려 하자 로케는 그대로 두라고 하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 에스쿠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두 닢씩 돌아가고 스무 닢이 남는다. 열 닢은 이 순례자들에게 주고, 다른 열 닢은 이 착한 종자에게 주어라. 이 모험을 좋게 말할 수 있도록."

그러고는 늘 지니고 다니던 필기도구를 가져오게 해서 자기 무리의 우두머리들에게 보여 줄 통행증을 그들에게 써 주고, 작별 인사를 한 뒤 그들을 놓아 보냈다. 그들은 그의 고귀함과 늠름한 풍채와 남다른 처신에 감탄하며, 그를 이름난 도둑이라기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 종자 하나가 가스코뉴와 카탈루냐 말로 말했다.

"우리 이 대장은 도적보다 수도사(frade) 노릇이 더 어울려. 앞으로도 너그러운 척하고 싶거든 제 재산으로나 할 것이지 우리 재산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그 불운한 자가 그리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로케가 그 말을 듣고 말았다. 로케는 칼을 빼어 들고 그자의 머리를 거의 두 쪽으로 쪼개 놓으며 말했다.

"나는 입을 함부로 놀리고 버릇없는 놈은 이렇게 벌한다."

모두 기겁을 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에게 바치는 복종은 그만큼 컸다.

로케는 한쪽으로 물러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 그토록 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그 편력 기사가 자기와 함께 있다고 알리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나흘 뒤 세례자 성 요한 축일에 그를 무기란 무기를 다 갖추어 말 로시난테에 태우고 그의 종자 산초는 당나귀에 태워 그 도시 바닷가 한복판에 데려다 놓겠으니, 친구인 니아로 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함께 즐기게 하라고 했다. 적수인 카델 파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돈키호테의 광기와 슬기, 그리고 그의 종자 산초 판사의 익살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 그는 이 편지를 종자 하나에게 들려 보냈고, 그 종자는 도적 차림을 농사꾼 차림으로 바꾸고 바르셀로나에 들어가 받을 사람에게 편지를 전했다.

---

1. 실존한 카탈루냐의 도적 두목 페로 로카기나르다(Perot Rocaguinarda, 1582~?)를 본뜬 인물. 1611년 사면을 받고 나폴리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

2. 니아로(Nyerros)와 카델(Cadells)은 16~17세기 카탈루냐에서 대를 이어 싸운 두 귀족 파벌이다. 로케는 니아로 파에 속했다.

제61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에 들어서며 겪은 일과 슬기롭다기보다 참된 다른 일들

돈키호테는 사흘 낮 사흘 밤을 로케와 함께 지냈는데, 삼백 년을 지냈다 해도 그들이 사는 모습에서 구경하고 감탄할 거리가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아침을 맞고 저기서 밥을 먹었으며, 어떤 때는 누구에게서인지도 모르고 달아났고 어떤 때는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기다렸다. 그들은 선 채로 자다가 잠을 깨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녔다. 하는 일이라고는 모두 첩자를 내보내고, 보초의 보고를 듣고, 화승총의 심지를 불어 불씨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화승총은 몇 자루 없었다. 모두 페드레냘을 썼기 때문이다. 로케는 자기 부하들과 떨어져, 그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곳과 자리에서 밤을 보냈다. 바르셀로나 부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내린 숱한 포고 때문에 그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도 감히 믿지 못했고, 바로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거나 관헌에 넘길까 봐 겁을 냈다. 참으로 비참하고 지긋지긋한 삶이었다.

마침내 로케와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른 종자 여섯과 함께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과 지름길과 숨은 오솔길로 바르셀로나를 향해 떠났다. 그들은 성 요한 축일 전날 밤에 그 도시의 바닷가에 이르렀고, 로케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끌어안은 뒤 산초에게 그때까지 주지 않았던, 약속한 에스쿠도 열 닢을 주고, 이쪽저쪽에서 천 가지 호의를 서로 다짐한 끝에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났다.

로케는 돌아갔고, 돈키호테는 말에 탄 그대로 남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 발코니로 하얀 새벽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귀 대신 풀과 꽃을 즐겁게 해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귀도 즐거워졌다. 수많은 피리와 북소리, 방울 소리,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듯한 기마꾼들이 「다그닥 다그닥, 비켜라, 비켜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새벽은 해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둥근 방패보다 큰 얼굴을 한 해는 가장 낮은 지평선에서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사방으로 눈길을 던졌다. 그들은 그때까지 본 적 없던 바다를 보았는데, 라만차에서 보았던 루이데라 늪보다 훨씬 더 넓고 길어 보였다. 바닷가에 있던 갤리선들도 보였는데, 갤리선들이 차양을 걷어 내자 바람에 나부끼며 물에 입 맞추고 물을 쓸어 대는 긴 깃발과 삼각기가 가득 드러났다. 배 안에서는 나팔과 트럼펫과 피리 소리가 울려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부드럽고도 씩씩한 가락으로 하늘을 채웠다. 갤리선들은 잔잔한 물 위에서 움직이며 모의 전투 비슷한 것을 벌이기 시작했고, 도시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타고 화려한 제복을 입은 수많은 기사가 나와 거의 같은 몸짓으로 그것에 화답했다. 갤리선의 병사들이 셀 수 없이 대포를 쏘아 대자 도시의 성벽과 요새에 있던 이들이 그에 응답했고, 큰 대포가 무시무시한 굉음으로 바람을 찢자 갤리선 중앙 통로의 대포들이 그에 응답했다. 즐거운 바다, 흥겨운 땅, 이따금 대포 연기로 흐려질 뿐인 맑은 하늘이 모든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즐거움을 불어넣고 낳아 주는 것 같았다.

산초는 바다 위를 움직이는 저 덩치들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발을 가졌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제복을 입은 기사들이 고함과 릴릴리 하는 함성과 환호성을 지르며, 넋을 잃고 어리둥절해 있는

돈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 가운데 로케에게서 기별을 받은 사람이 큰 소리로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편력 기사도를 가장 넉넉히 담고 있는, 온 편력 기사도의 거울이요 등불이요 별이요 북극성이신 분께서 우리 도시에 잘 오셨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께서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가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 준 가짜도 아니고 꾸며 낸 것도 아니고 위작의 돈키호테도 아닌, 역사가들의 꽃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우리에게 그려 준 참되고 정당하고 충실한 돈키호테께서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기사들도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뒤따라온 다른 이들과 함께 이리 돌고 저리 돌며 돈키호테 둘레를 소용돌이치듯 빙빙 돌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아보았구나. 틀림없이 우리 이야기를 읽었고, 얼마 전에 찍혀 나온 아라곤 사람의 이야기까지 읽었을 거다."

돈키호테에게 말을 건넸던 기사가 다시 돌아와 그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는 모두 나리의 종이요 로케 기나르트의 절친한 벗들입니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예의가 예의를 낳는다면, 기사 나리, 그대의 예의는 위대한 로케의 예의의 딸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오.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오. 나는 그대의 뜻 말고 다른 뜻을 품지 않겠소. 더구나 그대가 내 뜻을 그대를 섬기는 데 쓰고자 한다면 더욱 그러하오."

기사는 이에 못지않게 정중한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모두 그를 가운데 두고 에워싼 채 피리와 북소리에 맞추어 그와 함께 도시로 향했다. 그런데 도시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나쁜 일을 꾸미는 악마와 그 악마보다 더 나쁜 아이들 가운데 장난꾸러기에 겁 없는 두 녀석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하나는 잿빛 당나귀의 꼬리를, 다른 하나는 로시난테의 꼬리를 들어 올리고 그 밑에 가시금작화 한 다발씩을 쑤셔 넣었다. 불쌍한 짐승들은 새 박차를 느끼고 꼬리를 바짝 오므렸는데, 그러자 괴로움이 더 커져서 천 번이나 날뛰며 주인들을 땅바닥에 메다꽂았다. 창피하고 모욕을 당한 돈키호테는 달려가 늙은 말의 꼬리에서 그 깃털 장식을 뽑았고, 산초도 자기 잿빛 당나귀의 꼬리에서 그것을 뽑았다. 돈키호테를 안내하던 사람들은 아이들의 무엄한 짓을 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뒤따르던 천 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 사이로 숨어 버렸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올라탔다. 그리고 같은 박수갈채와 음악 속에 안내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은 크고 훌륭해서, 말하자면 부유한 기사의 집다웠다. 시데 아메테가 그렇게 원하므로 우리는 지금은 그를 거기 남겨 두기로 하자.

제62장 마법에 걸린 머리의 모험과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어린애 장난 같은 일들을 다룬다

돈키호테를 손님으로 맞은 사람은 돈 안토니오 모레노라는 이름의 부유하고 슬기로운 신사로, 점잖고 다정하게 즐기기를 좋아했다. 그는 돈키호테를 자기 집에 들이자, 그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그의 광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 방도를 찾았다. 아픈 장난은 장난이 아니고, 남에게 해가 되는 놀이는 아무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맨 먼저 한 일은 돈키호테의 갑옷을 벗기고, 우리가 앞서 여러 번 묘사하고 그려 보인 그 꼭 끼는 영양 가죽 빛 옷차림 그대로 그를 발코니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 발코니는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가운데 하나로 나 있어,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를 원숭이 구경하듯 바라보았다. 제복을 입은 기사들이 다시 그 앞을 달려 지나갔는데, 마치 그 축제일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해 그 제복을 차려입은 것 같았다. 산초는 몹시 신이 났다.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도 또 하나의 카마초의 혼례,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집 같은 또 하나의 집, 공작의 성 같은 또 하나의 성을 만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돈 안토니오의 집에서는 그의 벗 몇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모두가 돈키호테를 높이 받들며 편력 기사로 대접하니, 돈키호테는 우쭐하고 으쓱해져서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산초의 익살은 어찌나 많았던지 집안의 하인들과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입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돈 안토니오가 산초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소문이 들려왔네, 착한 산초. 자네가 닭고기 우유 묵과 고기 완자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남으면 다음 날 먹으려고 품속에 넣어 둔다던데."

"아니에요, 나리, 그렇지 않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걸신들린 쪽보다 깔끔한 쪽이거든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주인 돈키호테 나리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둘은 도토리나 호두 한 줌으로 여드레를 버티는 일이 예사예요. 하긴 혹시 송아지를 주면 고삐 들고 달려가는 일이 있기는 해요. 주는 건 먹고 때는 만나는 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남보다 많이 먹고 깔끔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든,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아 두라고 하세요. 이 식탁에 앉으신 점잖은 수염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참으로"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가 먹을 때의 절제와 깔끔함은 청동판에 적고 새겨, 앞으로 올 세기들에 길이 기억되게 할 만하오. 하긴 배가 고플 때면 좀 게걸스러워 보이기도 하오. 서둘러 먹고 두 볼이 미어지게 씹으니까. 그러나 깔끔함만은 언제나 제대로 지키고, 통치자로 있던 동안에는 까다로운 사람들처럼 먹는 법을 배웠소. 얼마나 그랬느냐 하면 포도알도, 석류 알갱이까지도 포크로 먹었소."

"뭐라고요!"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산초가 통치자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산초가 대답했다. "바라타리아라는 섬의 통치자였어요. 열흘 동안 입맛대로 다스렸지요. 그 열흘 동안 저는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세상의 모든 통치를 우습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 섬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구나 했다가 기적으로 살아 나왔고요."

돈키호테가 산초의 통치에 얽힌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자 듣는 이들이 무척 즐거워했다.

식탁보를 걷고 나자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의 손을 잡고 외딴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탁자 하나 말고는 아무 꾸밈도 없었는데, 벽옥으로 된 듯한 그 탁자는 같은 돌로 된 다리 하나가 받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들의 흉상처럼 가슴께부터 위를 깎은, 청동으로 보이는 머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와 함께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탁자 둘레를 여러 번 돈 다음에 말했다.

"이제, 돈키호테 나리, 아무도 우리 말을 엿듣거나 귀 기울이지 않고 문도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희한한 모험 가운데 하나를,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희한한 새 일 가운데 하나를 나리께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나리께 드리는 말씀을 비밀의 가장 깊숙한 골방에 넣어 두신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더 안전하도록 그 위에 비석까지 덮어 두겠소. 돈 안토니오 나리," 그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대는 들을 귀는 있어도 말할 혀는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오. 그러니 그대 가슴에 품은 것을 마음 놓고 내 가슴으로 옮기고, 그것을 침묵의 심연에 던져 버렸다고 여기셔도 되오."

"그 약속을 믿고" 돈 안토니오가 대답했다. "나리께서 보고 들으실 것으로 나리를 놀라게 해 드리고, 저도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제 비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겪는 괴로움을 조금 덜고 싶습니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단단히 다짐을 받는 끝이 어디에 이를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때 돈 안토니오가 그의 손을 잡아 청동 머리와 탁자 전체와 그 탁자를 받치는 벽옥 다리를 차례로 쓸어 보게 하고 나서 말했다.

"이 머리는, 돈키호테 나리, 세상이 일찍이 본 가장 위대한 마법사이자 요술사 가운데 한 사람이 만들고 지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은 폴란드 태생으로, 수많은 기적이 전해지는 그 유명한 에스코티요[1]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제 집에 머물렀는데, 제가 준 에스쿠도 금화 천 닢을 받고 이 머리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이 머리에는 귀에 대고 묻는 것이면 무엇이든 대답하는 성질과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위를 재고, 부적 글자를 그리고, 별을 살피고, 때를 따진 끝에 마침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그 완벽한 솜씨로 이것을 지어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 머리는 말을 하지 않는데,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나리께서는 무엇을 물으실지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이 머리가 대답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저는 겪어 보아서 압니다."

돈키호테는 그 머리의 힘과 성질에 놀랐고, 돈 안토니오의 말을 믿지 않을 뻔했다. 그러나 시험해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는, 그토록 큰 비밀을 밝혀 준 데 고맙다는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방에서 나왔고, 돈 안토니오는 문을 열쇠로 잠근 뒤 다른 기사들이 있는 큰방으로 갔는데, 그동안 산초는 자기 주인에게 일어난 숱한 모험과 사건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돈키호테를 데리고 거리 구경을 나섰다. 그는 무장을 하지 않은 나들이 차림으로, 그 무렵이라면 얼음조차 땀을 흘리게 할 만한 황갈색 모직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그들은 하인들에게 일러 산초를 붙잡아 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가 아니라 걸음이 순하고 마구를 훌륭하게 차린 커다란 노새를 타고 갔다. 그들은 그에게 그 외투를 입히면서, 그가 모르게 등에 양피지 한 장을 꿰매 붙이고 거기에 큰 글자로 「이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다」라고 써 두었다. 구경길이 시작되자 그 글귀는 그를 보러

나온 사람들의 눈을 모조리 끌어당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하고 읽어 대니, 돈키호테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놀랐다. 그는 곁에서 가던 돈 안토니오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편력 기사도가 품은 특권은 참으로 크오.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땅끝까지 알려지고 이름나게 만드니 말이오. 못 믿겠거든 보시오, 돈 안토니오 나리. 이 도시의 아이들까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알아보지 않소."

"그렇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돈 안토니오가 대답했다. "불을 숨기고 가두어 둘 수 없듯이 덕도 알려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무예의 길을 걸어 얻은 덕은 다른 모든 덕 위에서 빛나고 두드러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앞서 말한 그런 갈채를 받으며 가는데, 등에 붙은 글귀를 읽은 카스티야 사람 하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같은 놈은 악마나 데려가라지! 아니, 네 등짝에 쏟아진 그 숱한 몽둥이찜질에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너는 미친놈이다. 혼자서만 미쳐서 네 광기의 문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덜 해롭겠지만, 너는 너와 어울리고 사귀는 사람을 모조리 미치광이와 얼간이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못 믿겠거든 너를 따라다니는 이 나리들을 보라지. 돌아가라, 이 얼간아.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살림과 네 마누라와 네 자식들이나 돌보고, 네 골을 갉아먹고 네 분별을 걷어내는 이 헛된 짓거리일랑 집어치워라."

"형씨."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가던 길이나 가게. 청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말고.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는 아주 분별이 있는 분이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도 바보가 아닐세. 덕은 어디서 만나든 받들어야 하는 법이야. 썩 꺼지게, 그리고 부르지도 않은 데 끼어들지 말게."

"맹세코 나리 말씀이 옳습니다." 카스티야 사람이 대답했다. "이 착한 사람한테 충고하는 건 가시 막대에 발길질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래도 이 얼간이가 모든 일에 훌륭한 재주를 지녔다는데 그 재주가 편력 기사도라는 도랑으로 다 새어 나가는 게 저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썩 꺼지라고 하신 그 재앙은, 제가 오늘부터 므두셀라보다 더 오래 산다 해도 누구에게든, 그 사람이 청한다 해도 충고를 해 준다면, 저와 제 자손 모두에게나 떨어지라지요."

충고하던 사람은 물러갔고 구경길은 이어졌다. 그러나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두 그 글귀를 읽으려고 어찌나 몰려들었던지, 돈 안토니오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떼어 내는 척하며 그것을 떼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귀부인들의 무도회가 열렸다. 돈 안토니오의 아내는 신분이 높고 쾌활하며 아름답고 슬기로운 부인이었는데, 손님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의 보도 듣도 못한 광기를 즐기러 오라고 벗인 다른 부인들을 불렀다. 몇 사람이 왔고, 저녁은 호화로웠으며, 무도회는 밤 열 시쯤에 시작되었다. 부인들 가운데에는 장난을 좋아하고 짓궂은 이가 둘 있었는데, 둘 다 몹시 정숙했지만 장난이 언짢음 없이 흥을 돋우도록 얼마간 허물없이 굴었다. 이 두 부인이 돈키호테를 춤추러 끌어내기를 어찌나 서둘렀던지, 그의 몸뿐 아니라 넋까지 녹초로 만들어 놓았다. 길고 쭉 뻗고 비쩍 마르고 누렇게 뜬 얼굴에 옷은 꼭 끼고 맵시라고는 없으며, 무엇보다 몸놀림이 조금도 가볍지 않은 돈키호테의 모습은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아가씨들은 몰래 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넸고, 그 역시 몰래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사랑의 말이 자꾸만 조여 오자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물러가라, 원수의 무리여(Fugite, partes adversae)! 나를 고요히 내버려 두어라, 반갑지 않게 찾아온 생각들아. 부인들, 그대들의 바람은 그대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내 바람의 여왕이신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께서는 그분의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바람도 나를 사로잡고 굴복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그 고된 춤 운동에 녹초가 되고 몸이 부서져 큰방 한가운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돈 안토니오는 그를 번쩍 들어 침대로 옮기게 했는데, 맨 먼저 그를 붙든 사람은 산초였다. 산초가 그에게 말했다.

"에라, 재수 없게 춤은 무슨 춤이에요, 주인 나리! 용감한 사람은 다 춤꾼이고 편력 기사는 다 무용수인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아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공중제비 한 번 도느니 차라리 거인 하나를 죽이겠다고 덤빌 사람도 있거든요. 발 구르기 춤이라면 제가 나리 대신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매처럼 날쌔게 발을 구르니까요. 그렇지만 춤이라면 저는 한 땀도 못 떠요."

산초는 이런저런 말로 무도회 사람들을 웃겼고, 주인을 침대에 눕혀 춤으로 얻은 오한을 땀으로 빼도록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튿날 돈 안토니오는 마법에 걸린 머리를 시험해 보기에 좋은 때라고 여겼다. 그래서 돈키호테, 산초, 다른 벗 두 사람, 그리고 무도회에서 돈키호테를 녹초로 만들고 그날 밤 돈 안토니오의 아내 곁에 묵었던 두 부인과 함께 머리가 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는 그 머리가 지닌 성질을 들려주고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한 뒤, 오늘이 그 마법에 걸린 머리의 힘을 시험해 보는 첫날이라고 말했다. 돈 안토니오의 두 벗 말고는 그 마법의 알맹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돈 안토니오가 그 벗들에게 먼저 밝혀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빠진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교묘한 꾀와 짜임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맨 먼저 머리의 귀에 다가간 사람은 돈 안토니오 자신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두가 알아듣지 못할 만큼 낮지는 않게 말했다.

"말해 보아라, 머리야, 네 안에 깃든 힘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머리는 입술을 움직이지도 않고, 모두가 알아들을 만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생각을 판가름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넋을 잃었는데, 방 안 어디에도, 탁자 둘레에도 대답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했다.

"여기 몇 사람이 있느냐?" 돈 안토니오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같은 투로 나지막하게 대답이 돌아왔다.

"너와 네 아내, 네 벗 둘과 네 아내의 벗 둘, 그리고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이름난 기사 하나와 산초 판사라는 이름의 그 종자 하나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다시 놀랄 일이었고, 이번에야말로 다들 무서워서 머리털이 곤두섰다! 돈 안토니오가 머리에게서 물러서며 말했다.

"너를 내게 판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슬기로운 머리, 말하는 머리, 말대답하는 머리, 놀라운 머리여! 다른 사람이 다가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시오."

여자들이란 대개 성미가 급하고 알기를 좋아하는 법이라, 맨 먼저 다가간 사람은 돈 안토니오 아내의 두 벗 가운데 하나였다. 그 부인이 물은 것은 이랬다.

"말해 보아라, 머리야. 내가 아주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아주 정숙하여라."

"더 묻지 않겠다." 물은 부인이 말했다.

이어 그 동무가 다가와 말했다.

"알고 싶구나, 머리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그가 너에게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 결혼한 부인은 물러서며 말했다.

"이 대답은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였네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품은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다음에는 돈 안토니오의 두 벗 가운데 하나가 다가가 물었다.

"나는 누구냐?"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그것은 네가 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다." 그 기사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아는지 말해 보라는 거다."

"알고말고." 대답이 돌아왔다. "너는 돈 페드로 노리스다."

"더 알고 싶지 않다. 오, 머리야, 네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걸 알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물러서자 다른 벗이 다가가 물었다.

"말해 보아라, 머리야. 내 맏아들, 내 재산을 물려받을 그 녀석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미 말했다."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바람을 판가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말해 줄 수 있다. 네 아들이 품은 바람은 너를 땅에 묻는 것이다."

"바로 그거야." 그 기사가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손가락으로 짚어 주는구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번에는 돈 안토니오의 아내가 다가가 말했다.

"머리야, 너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만 좋은 남편과 오래오래 함께 살게 될지만 알고 싶다."

그러자 대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살리라. 그의 건강과 절제 있는 생활이 오랜 수명을 약속하니까. 많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 그 수명을 줄이곤 하지만."

이어 돈키호테가 다가가 말했다.

"말해 보아라, 대답하는 자여.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내게 일어났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일은 참이었느냐, 꿈이었느냐? 내 종자 산초의 매질은 정말로 이루어지겠느냐? 둘시네아의 마법은 풀리겠느냐?"

"동굴의 일로 말하자면" 대답이 돌아왔다. "할 말이 많다. 그 일에는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다. 산초의 매질은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둘시네아의 마법은 마땅히 이루어질 대로 풀리리라."

"더 알고 싶지 않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둘시네아가 마법에서 풀려나는 것만 보게 된다면,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온 셈으로 치겠소."

마지막으로 물은 사람은 산초였는데, 그가 물은 것은 이랬다.

"혹시, 머리야, 내가 통치를 또 하게 될까? 종자 노릇의 궁색함에서 벗어나게 될까? 마누라와 자식들을 다시 보게 될까?"

그 말에 대답이 돌아왔다.

"너는 네 집에서 다스리리라.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자식들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남을 섬기기를 그만두면 종자 노릇도 그만두게 되리라."

"거참 좋기도 하네, 맹세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런 말이야 나도 나한테 해 줄 수 있겠다. 뻔한 소리의 예언자 페로그루요도 이보다 더 말하지는 않았겠다."

"이 짐승 같은 놈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무슨 대답을 바라느냐? 이 머리가 한 대답이 묻는 말에 꼭 맞으면 그것으로 넉넉하지 않느냐?"

"넉넉하기야 하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래도 좀 더 똑똑히 밝혀 주고 더 많이 말해 주었으면 싶었어요."

이것으로 묻고 대답하기는 끝났으나, 그 일을 아는 돈 안토니오의 두 벗을 빼고는 모두가 빠진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그 머리에 무슨 요술과 범상치 않은 신비가 깃들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믿으며 궁금해하지 않도록 곧바로 그 일을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마드리드에서 본, 어느 판화 장수가 만든 다른 머리를 본떠 스스로 즐기고 무지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자기 집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짜임은 이러했다. 탁자의 판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벽옥처럼 칠하고 윤을 냈고, 그것을 받치는 다리도 같은 재료였으며, 무게를 더 단단히 받치도록 그 다리에서 독수리 발톱 네 개가 뻗어 나와 있었다. 메달이나 로마 황제의 상처럼 보이고 청동 빛을 띤 머리는 속이 온통 비어 있었고, 탁자의 판도 꼭 그러했는데, 머리가 그 판에 어찌나 꼭 맞게 끼워져 있었던지 이음매 자국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판의 다리 역시 속이 비어 머리의 목과 가슴으로 이어졌고, 이 모든 것이 머리가 있는 방 아래의 다른 방으로 통했다. 다리와 탁자와 앞서 말한 메달 같은 상의 목과 가슴을 꿰뚫은 이 빈속을 따라 양철로 만든 대롱 하나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꼭 맞게 지나갔다. 위층 방과 맞닿은 아래층 방에는 대답할 사람이 들어가 그 대롱에 입을 대고 있었고, 그래서 바람총 대롱처럼 목소리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또박또박 맑은 말소리로 오갔으니, 이렇게 해서는 그 속임수를 알아챌 길이 없었다. 대답한 사람은 돈 안토니오의 조카로, 영리하고 슬기로운 학생이었다. 그는 그날 머리가 있는 방에 숙부와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지

숙부에게 미리 듣고 있었으므로, 첫 물음에는 재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쉬웠다. 나머지 물음에는 짐작으로 대답했는데, 슬기로운 사람답게 슬기롭게 대답했다. 시데 아메테는 또 이렇게 말한다. 이 놀라운 장치는 열흘이나 열이틀쯤 이어졌는데, 돈 안토니오의 집에 묻는 사람마다 대답해 주는 마법에 걸린 머리가 있다는 소문이 도시에 퍼지자, 그는 그 소문이 우리 신앙의 깨어 있는 파수꾼들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종교 재판관 나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들은 무지한 백성이 놀라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그것을 부수고 더는 이어 가지 말라고 명했다. 그러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생각 속에서 그 머리는 마법에 걸린, 말대답하는 머리로 남았는데, 산초보다는 돈키호테가 그 믿음에 더 흡족해했다.

도시의 기사들은 돈 안토니오의 마음에 들고 돈키호테를 환대하며 그가 엉뚱한 짓을 드러낼 기회를 주려고, 엿새 뒤에 반지 따기 시합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그 시합은 뒤에 이야기할 까닭으로 열리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다니면 아이들이 쫓아다닐까 두려워, 수수하게 걸어서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와 산초는 돈 안토니오가 붙여 준 하인 둘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어느 거리를 지나다가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 보니 어느 문 위에 아주 큰 글자로 「여기서 책을 찍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으니, 그때까지 인쇄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모두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한쪽에서는 찍어 내고 다른 쪽에서는 교정을 보고, 이쪽에서는 활자를 짜고 저쪽에서는 고치는 것을 보았으니, 한마디로 큰 인쇄소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보았다. 돈키호테는 식자대로 다가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곤 했다. 일꾼들이 그에게 설명해 주면 그는 감탄하고는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 어느 식자대에 이르러 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 일꾼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리, 여기 계신 이 기사분께서," 그러면서 그는 풍채와 용모가 아주 훌륭하고 제법 위엄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보였다. "토스카나 말로 된 책 한 권을 우리 카스티야 말로 옮기셨는데, 제가 그걸 인쇄에 넘기려고 활자로 짜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이 물음에 그 작가가 대답했다.

"나리, 그 책은 토스카나 말로 『레 바가텔레(Le bagatele)』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 바가텔레'는 우리 카스티야 말로 무엇에 해당하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레 바가텔레'는" 작가가 말했다. "카스티야 말로 하자면 '장난감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은 하찮아도 이 책은 아주 훌륭하고 알찬 것들을 담고 품고 있습니다."

"나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토스카나 말을 조금 알고, 아리오스토의 시 몇 연쯤은 읊을 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오. 그런데 말씀해 보시오, 나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리의 재주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일 뿐이오. 나리께서 옮기신 글에서 '피냐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소?"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작가가 대답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그것을 카스티야 말로 어떻게 옮기시오?" 돈키호테가 물었다.

"어떻게 옮기긴요." 작가가 되받았다. "'냄비'라고 하지 않고요?"

"이런 세상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토스카나 말에 어찌나 앞서 계신지! 장담하건대 토스카나 말에 '피아체(piache)'라고

되어 있는 곳은 나리께서 카스티야 말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고, '피우'라고 되어 있는 곳은 '더'라고 하시며, '수'는 '위'로, '주'는 '아래'로 풀어 옮기실 것이오."

"물론 그렇게 옮깁니다." 작가가 말했다. "그것이 그 말들에 꼭 맞는 짝이니까요."

"감히 맹세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으실 것이오. 세상은 언제나 꽃피는 재주와 칭찬받을 노고에 상을 주기를 꺼리니까. 얼마나 많은 솜씨가 여기저기서 버려지고 있소! 얼마나 많은 재주가 구석에 처박혀 있소! 얼마나 많은 덕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소! 그렇지만 이것만은 말해야겠소. 한 나라 말을 다른 나라 말로 옮기는 일은, 그것이 말들의 여왕인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플랑드르 벽걸이 융단을 뒤집어서 보는 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하오. 그림은 보이지만 그 그림을 흐리게 하는 실이 잔뜩 엉겨 있어서, 앞면처럼 매끈하고 고운 결로는 보이지 않소. 그리고 쉬운 말에서 옮기는 일은 재주나 말솜씨를 증명하지 못하오. 종이 한 장을 다른 종이에 베끼거나 옮겨 적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렇다고 이 옮기는 일이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오. 사람이 이보다 더 나쁘고 덜 이로운 일에 매달릴 수도 있으니까. 이 셈에서 빠지는 이름난 번역가가 둘 있소. 하나는 『충실한 양치기』를 옮긴 크리스토발 데 피게로아 박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민타』를 옮긴 돈 후안 데 하우리기요. 그들의 번역은 어느 것이 번역이고 어느 것이 원작인지 의심하게 할 만큼 훌륭하오. 그런데 말씀해 보시오, 나리. 이 책은 나리께서 손수 돈을 대어 찍으시오, 아니면 벌써 어느 책방 주인에게 특허를 파셨소?"

"제 돈으로 찍습니다." 작가가 대답했다. "이 첫판으로 적어도 두카도 천 닢은 벌 작정입니다. 2천 부를 찍을 텐데, 한 부에 6레알씩 받으면

지푸라기 하나 집어 주는 사이에 다 팔려 나갈 겁니다."

"나리의 셈이 참 훌륭하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인쇄업자들의 들고 나는 셈속과 그들끼리 주고받는 거래를 모르시는 게 분명하오. 내가 장담하는데, 2천 부나 되는 책을 짊어지게 되면 나리께서는 몸이 어찌나 녹초가 되는지 깜짝 놀라실 것이오. 책이 좀 엇나가고 조금도 맛깔스럽지 않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오."

"그럼 어쩌란 말씀입니까?" 작가가 말했다. "특허를 넘기는 값으로 3마라베디를 주면서 그걸 주는 게 저한테 큰 은혜나 베푸는 줄 아는 책방 주인한테 넘기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책을 찍는 게 아닙니다. 제 작품으로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까요. 저는 이득을 바랍니다. 이득이 없으면 좋은 명성도 쿠아트린 한 닢의 값어치가 없거든요."

"하느님께서 나리께 좋은 행운을 주시기를 바라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다른 식자대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영혼의 빛』이라는 책의 전지 한 장을 교정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그가 말했다.

"이런 책들은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 해도 마땅히 찍어 내야 하오. 요즘은 죄인이 많아서, 그토록 많은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많은 빛이 필요하니까."

그는 다음으로 넘어갔고, 거기서도 다른 책 한 권을 교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목을 물으니, 토르데시야스 주민이라는 어떤 사람이 지은 『기발한 시골 귀족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책이라면 나도 이미 알고 있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참으로, 내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나는 그 책이 쓸데없는 것이라 벌써 불태워져 가루가 된 줄 알았소. 그러나 돼지마다 잡히는 성 마르티노 축일이 오듯

그 책에도 제 성 마르티노 날이 올 것이오. 꾸며 낸 이야기는 진실에, 또는 진실다움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훌륭하고 즐겁고, 참된 이야기는 더 참될수록 그만큼 더 낫기 때문이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얼마간 언짢은 기색으로 인쇄소를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돈 안토니오는 바닷가에 있는 갤리선들을 보여 주러 그를 데려가기로 했다. 산초는 평생 갤리선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몹시 기뻐했다. 돈 안토니오는 갤리선 네 척을 거느린 사령관에게 그날 오후 자기 손님인 이름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데리고 배를 구경하러 가겠다고 알렸다. 사령관과 도시 사람들은 모두 벌써 돈키호테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가 그 배들에서 겪은 일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

1. 에스코티요(Escotillo)는 13세기 스코틀랜드의 학자 마이클 스콧(Michael Scot)을 가리킨다. 점성술과 연금술에 밝아 중세 유럽에서 이름난 마법사로 전해졌다.

제63장 산초 판사가 갤리선을 구경하다가 겪은 봉변과 아름다운 모리스코 여인의 새로운 모험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머리의 대답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길게 늘어놓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속임수를 알아채지는 못했고, 모든 생각은 그가 확실하다고 여긴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리리라는 약속에서 멈추었다. 그는 그 생각 속을 오가며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믿고 혼자서 기뻐했다. 한편 산초는 앞서 말했듯이 통치자 노릇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다시 명령하고 남의 복종을 받고 싶어 했으니, 다스리는 일이란 장난으로 하는 것이라 해도 이런 몹쓸 버릇을 함께 달고 오기 마련이다.

마침내 그날 오후 그의 집주인 돈 안토니오 모레노와 그의 벗 두 사람이 돈키호테와 산초를 데리고 갤리선으로 갔다. 그들이 온다는 기별을 미리 받은 사령관은 그토록 이름난 돈키호테와 산초 두 사람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이 바닷가에 이르자마자 갤리선들이 모두 차양을 걷고 피리를 불었다. 이어 화려한 양탄자와 진홍빛 벨벳 방석을 깐 작은 배를 물에 띄웠는데, 돈키호테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기함이 가운데 통로의 대포를 쏘았고 다른 갤리선들도 똑같이 했다. 돈키호테가 오른쪽 사다리로 올라가자 노 젓는 죄수들이 모두 높은 사람이 갤리선에 오를 때 하는 관습대로 '후, 후, 후!' 하고 세 번 외치며 그에게 인사했다. 장군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그를 이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그는 발렌시아의 신분 높은 기사였다. 그는 돈키호테를 껴안으며 말했다.

"오늘을 저는 흰 돌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를 뵈었으니, 제 평생 누리리라 여기는 가장 좋은 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편력 기사도의 모든 용기가 나리 안에 갇혀 있고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때요 표지입니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귀하신 분처럼 대접받는 것이 더없이 기뻐서, 이에 못지않게 정중한 말로 그에게 대답했다. 모두가 아주 훌륭하게 꾸민 고물로 들어가 고물 걸상에 앉자, 노역 감독이 가운데 통로로 건너가 노 젓는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호루라기로 신호했고, 그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 산초는 그 많은 사람이 알몸이 된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들이 차양을 다시 치는 것이 어찌나 재빨랐던지 악마란 악마는 모두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만 같았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이야기할 일에 비하면 과자에 꽃빵이었다. 산초는 오른편 맨 뒤 노꾼 곁의 고물 기둥 위에 앉아 있었는데, 할 일을 미리 일러받은 그 노꾼이 산초를 붙잡아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자 노 젓는 죄수들이 모두 일어서서 채비를 하고는 오른편부터 시작해 산초를 이 걸상에서 저 걸상으로 팔 위로 넘기고 굴리며 보냈는데, 어찌나 빨랐던지 가엾은 산초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틀림없이 악마들이 자기를 데려간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왼편으로 돌려 고물에 내려놓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가엾은 산초는 녹초가 되어 헐떡이며 진땀을 흘렸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날개도 없이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갤리선에 처음 오르는 사람들에게 치르는 의식이냐고 장군에게 물었다. 혹시 그렇다면 자기는 갤리선에 몸을 바칠 생각이 없으니 그런 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누구든 자기를 붙잡아 굴리려고 다가오면 발길질로 그놈의 넋을 빼놓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벌떡 일어나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차양을 걷고 엄청난 소리를 내며 돛 활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 산초는 하늘이 돌쩌귀에서 빠져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줄 알고 겁에 질려 머리를 숙여 두 다리 사이에 박았다. 돈키호테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서, 그 역시 몸을 떨며 어깨를 움츠리고 얼굴빛이 바랬다. 노 젓는 죄수들은 활대를 내릴 때와 똑같이 재빠르고 요란하게 활대를 끌어 올렸는데, 그 모든 일을 목소리도 숨소리도 없는 사람들처럼 말없이 해냈다. 노역 감독이 닻을 올리라고 신호하고는 가운데 통로 한복판으로 뛰어올라 쇠가죽 채찍, 곧 굵은 매를 들고 죄수들의 등을 파리 쫓듯 후려치기 시작하자, 배는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다. 산초는 그토록 많은 붉은 발이(그는 노를 그렇게 여겼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혼잣말을 했다.

"이거야말로 정말 마법에 걸린 일이지, 우리 주인 나리가 말하는 것들은 아니야. 이 불쌍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저렇게 매를 맞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휘파람을 불며 돌아다니는 저 사내는 혼자서 어떻게 감히 저 많은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거야? 이제 보니 여기가 지옥이다. 아니면 적어도 연옥이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벌어지는 일을 골똘히 바라보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 산초, 내 벗이여. 자네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대가로 허리 위를 벗고 이 양반들 틈에 끼어 둘시네아의 마법 풀기를 끝낼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사람의 비참함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자네는 자네 괴로움을 그리 느끼지 않을 걸세. 더구나 현자 메를린이 이 매 한 대 한 대를 솜씨 좋은 손이 때린 것이라 하여, 자네가 끝내 스스로 때려야 할 매 열 대로 쳐줄지도 모르네."

장군은 그것이 무슨 매질이며 둘시네아의 마법 풀기란 또 무엇이냐고 물으려 했는데, 그때 뱃사람이 말했다.

"몬주익 망대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서쪽 해안에 노 젓는 배가 한 척 있답니다."

이 말을 듣자 장군이 가운데 통로로 뛰어올라 말했다.

"자, 얘들아, 놓치지 마라! 망대가 알려 주는 저 배는 알제 해적들의 쌍돛배일 게다."

곧 다른 갤리선 세 척이 무슨 명령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기함에 다가왔다. 장군은 두 척은 먼바다로 나가고 자기는 다른 한 척과 함께 해안을 따라가겠다고 명했다. 그래야 그 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 젓는 죄수들이 노를 힘껏 저어 갤리선들을 어찌나 맹렬하게 밀어붙였던지 배가 날아가는 것 같았다. 먼바다로 나간 배들이 2마일쯤 가서 배 한 척을 발견했는데, 눈대중으로 노 걸상이 열넷이나 열다섯쯤 되는 배로 보았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 배는 갤리선들을 발견하자 빠른 배이니 달아날 수 있으리라는 뜻과 바람을 품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운이 나빴으니, 기함은 바다를 다니는 배 가운데 가장 빠른 축에 들어서 바짝 따라붙었기 때문에, 쌍돛배 사람들은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은 우리 갤리선들을 거느린 장군의 화를 돋우지 않으려고 노를 놓고 항복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른 길로 이끌던 운명은, 기함이 바짝 다가가 항복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 배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 배에 이 열두 사람과 함께 타고 있던 토라키 둘, 그러니까 술 취한 튀르크 사람 둘이 화승총 두 자루를 쏘게 했고, 그 총에 우리 배 뱃머리 망루 위에 있던 병사 둘이 죽었다. 이것을 본 장군은 그 배에서 사로잡는 자는 하나도 살려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들이받으러 갔지만, 그 배는 노들 밑으로 빠져나갔다. 갤리선은 한참을

지나쳐 나아갔다. 그 배 사람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보고 갤리선이 돌아오는 사이에 돛을 올렸고, 다시 돛과 노를 함께 써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지런함이 그들을 도운 것보다 그들의 무모함이 그들을 해친 것이 더 컸으니, 기함이 반 마일 남짓한 곳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노들을 그 배 위에 걸쳐 덮치고 모두를 산 채로 붙잡았다.

이때 다른 두 갤리선도 다다랐고, 네 척 모두 노획한 배를 데리고 바닷가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그들이 무엇을 끌고 오는지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은 뭍 가까이에 닻을 내리고, 도시의 부왕이 바닷가에 나와 있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부왕을 모셔 오려고 작은 배를 띄우게 하고, 그 배에서 붙잡은 선장과 다른 튀르크 사람들을 당장 목매달려고 돛 활대를 내리게 했다. 그들은 서른여섯 명쯤 되었는데 모두 늠름했고, 대부분이 튀르크 화승총 사수였다. 장군이 쌍돛배의 선장이 누구냐고 묻자, 포로 가운데 하나가 카스티야 말로 대답했는데, 그는 뒤에 에스파냐 출신 배교자로 밝혀졌다.

"나리, 여기 보이는 이 젊은이가 우리 선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상상력이 그려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늠름한 젊은이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 보였다. 나이는 보기에 스무 살이 채 안 된 듯했다. 장군이 그에게 물었다.

"말해 보아라, 이 철없는 개야. 달아날 수 없는 것을 뻔히 보면서 누가 너를 부추겨 내 병사들을 죽이게 했느냐? 기함을 그렇게 대접하는 법이 있느냐?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가망이 불확실하면 사람은 대담해져야 하지만 무모해져서는 안 된다."

선장은 대답하려 했지만, 장군은 그때 그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미 갤리선에 오르고 있는 부왕을 맞으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부왕과 함께

그의 하인 몇과 도시 사람 몇이 배에 올랐다.

"사냥이 훌륭했구려, 장군!" 부왕이 말했다.

"얼마나 훌륭한지는" 장군이 대답했다. "이제 각하께서 이 돛 활대에 매달린 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째서 그렇소?" 부왕이 되물었다.

"놈들이" 장군이 대답했다. "모든 법과 모든 이치와 전쟁의 관습을 거슬러, 이 갤리선들에 타고 온 가장 훌륭한 병사 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로잡은 놈들을 모조리 목매달기로 맹세했습니다. 무엇보다 쌍돛배의 선장인 이 젊은 놈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두 손이 묶이고 목에 밧줄이 걸린 채 죽음을 기다리는 젊은이를 가리켜 보였다.

부왕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아름답고 그토록 늠름하고 그토록 다소곳한 모습을 보자, 그 순간 그의 아름다움이 추천장 노릇을 하여 부왕의 마음에 그의 죽음을 면해 주고 싶은 바람이 일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말해 보아라, 선장. 너는 튀르크 태생이냐, 무어인이냐, 아니면 배교자냐?"

그 말에 젊은이도 카스티야 말로 대답했다.

"저는 튀르크 태생도 무어인도 배교자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부왕이 되물었다.

"그리스도교 신자인 여자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여자인 데다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그런 차림을 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믿기보다는 놀라야 할 일이로구나."

"나리들," 젊은이가 말했다. "제 죽음의 집행을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제 삶을 들려 드리는 동안 나리들의 앙갚음이 조금 미루어진다 해도

잃으실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만큼, 아니 적어도 그 슬프고 가엾은 젊은이가 하려는 말을 듣기까지 기다리지 않을 만큼 모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장군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지만, 이미 드러난 죄를 용서받으리라고 기대하지는 말라고 했다. 이렇게 허락을 받자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슬기롭기보다 불행한 그 겨레, 요즈음 불행이 바다처럼 쏟아져 내린 그 겨레에서 모리스코 부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불운의 물살에 휩쓸려 저는 두 숙부의 손에 바르바리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실제로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그것도 꾸며대거나 겉으로만 그런 신자가 아니라 참된 가톨릭 신자라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추방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말해도 소용없었고, 숙부들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태어난 땅에 남으려고 꾸며 낸 거짓말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제 뜻보다는 억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에게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어머니와, 꼭 그만큼 슬기롭고 그리스도교 신자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젖과 함께 가톨릭 신앙을 빨아 먹었고, 좋은 몸가짐 속에서 자랐으며, 제가 보기에는 말씨에서도 몸가짐에서도 모리스코라는 표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덕이라고 믿는 이런 덕과 나란히, 같은 걸음으로 제 아름다움도 자랐습니다. 제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몸가짐을 무척 조심하고 집 안에 깊이 틀어박혀 지냈지만, 그것도 젊은 기사 하나가 저를 볼 틈이 없을 만큼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사람은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라는 이로, 우리 마을 곁에 마을 하나를 가진 기사의 맏아들이자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가 어떻게 저에게 넋을 잃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에게 그리

넘어가지 않았는지는 이야기하자면 길고, 더구나 저를 위협하는 모진 밧줄이 제 혀와 목 사이를 가로지르지나 않을까 두려운 이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그레고리오가 우리가 쫓겨날 때 저와 함께 가려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아주 잘 알았으므로 다른 마을에서 떠나온 모리스코들 틈에 섞였고, 길에서 저를 데려가던 두 숙부와 벗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슬기롭고 앞을 내다보는 분이라, 우리를 쫓아낸다는 첫 칙령을 듣자마자 마을을 떠나 낯선 나라들에서 우리를 받아 줄 곳을 찾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 혼자만 아는 곳에 값진 진주와 보석을 많이, 그리고 크루사도와 도블론 금화로 얼마간의 돈을 함께 가두어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쫓겨나게 되더라도 남겨 둔 보물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저에게 일렀습니다. 저는 그 말대로 했고, 말씀드렸듯이 숙부들과 다른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바르바리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은 알제였는데, 지옥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곳 왕이 제 아름다움을 전해 들었고, 소문이 제 재물까지 알렸는데, 그것은 어느 면에서 제게 다행이었습니다. 왕은 저를 앞에 불러 에스파냐 어디서 왔는지, 돈과 보석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마을 이름을 대고, 보석과 돈은 거기 묻혀 있지만 제가 직접 가지러 가면 쉽게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제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의 탐욕이기를 바라고 두려워하며 그 모든 말을 했습니다. 왕이 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젊은이 하나가 저와 함께 왔다고 그에게 알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 그들이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추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도 뒤에 남겨 두니까요. 저는 돈 그레고리오가 맞닥뜨린 위험을 생각하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

야만스러운 튀르크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소년이나 젊은이를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높이 치기 때문입니다. 왕은 곧 그를 보게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하고는, 그 젊은이에 관해 들은 말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하늘이 미리 일러 준 듯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내가 아니라 저 같은 여자라는 것을 알려 드린다고, 그러니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보여 드리고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왕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제 본디 옷차림을 입히러 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러라고 하며 이튿날 제가 에스파냐로 돌아가 숨겨 둔 보물을 꺼내 올 방도를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돈 가스파르와 이야기하며 사내라는 것이 드러나면 맞닥뜨릴 위험을 들려주고 그에게 무어 여자 옷을 입혔고, 바로 그날 오후 그를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왕은 그를 보자마자 넋을 잃었고, 그 여자를 대군주께 선물로 바치려고 간직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의 후궁에 두면 그 여자가 처할 수 있는 위험, 또 자기 자신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위험을 피하려고, 그 여자를 지키고 시중들 신분 높은 무어 여자들의 집에 두라고 명했고, 사람들은 곧 그를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의 헤아림에 맡기겠습니다. 왕은 곧 제가 이 쌍돛배를 타고 에스파냐로 돌아가게 하고, 튀르크 태생 두 사람이 저와 함께 가게 했으니, 그들이 나리들의 병사를 죽인 자들입니다. 이 에스파냐 출신 배교자도 저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 먼저 말했던 사람을 가리켰다. "이 사람이 숨은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바르바리로 돌아가기보다 에스파냐에 남기를 더 바라며 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쌍돛배의 나머지 죄수들은 무어인과 튀르크 사람들로, 노를 젓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그 튀르크 사람

둘은, 우리가 가지고 온 그리스도교도 옷을 입혀 저와 이 배교자를 에스파냐의 첫 땅에 내려 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먼저 이 해안을 훑쓸어 할 수 있으면 노획물을 얻으려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뭍에 내려놓았다가 우리 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쌍돛배가 바다에 남아 있다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러면 이 해안에 갤리선이라도 있을 경우 붙잡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간밤에 우리는 이 바닷가를 찾아냈는데, 이 네 척의 갤리선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들켜 버렸고, 그래서 나리들께서 보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컨대 돈 그레고리오는 여자 옷을 입은 채 여자들 틈에 남아 몸을 망칠 위험이 뻔히 보이는 처지이고, 저는 두 손이 묶인 채 이미 지겨워진 목숨을 잃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리들, 이것이 불행한 만큼 참된 제 가엾은 이야기의 끝입니다. 제가 간청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죽게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겨레가 빠진 그 죄에 아무런 허물이 없으니까요."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는데, 그 눈에는 애틋한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의 눈물이 그 눈물에 함께했다. 마음이 여리고 인정 많은 부왕은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무어 여자의 아름다운 두 손을 묶은 밧줄을 손수 풀어 주었다.

그런데 모리스코 그리스도교 신자 여자가 기이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부왕이 배에 오를 때 함께 오른 늙은 순례자 하나가 그 여자에게 눈을 박고 있었다. 모리스코 여자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그는 그 여자의 발치에 몸을 던져 그 발을 끌어안고는, 천 번의 흐느낌과 한숨에 끊기는 말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오, 아나 펠릭스, 불행한 내 딸아! 나는 네 아비 리코테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내 영혼인 너를 찾으러 돌아오던 길이다."

그 말에 산초는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그는 그 구경길의 봉변을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례자를 바라보다가 그가 자기가 통치를 그만두고 떠난 날 마주쳤던 바로 그 리코테임을 알아보았고, 그 여자가 그의 딸임을 확신했다. 이미 밧줄이 풀린 그 여자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의 눈물에 자기 눈물을 섞었다. 리코테는 장군과 부왕에게 말했다.

"나리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겪은 일로 보면 이름만큼 복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이름은 아나 펠릭스, 성은 리코테라 하고, 제 재산만큼이나 그 아름다움으로도 이름났습니다. 저는 우리를 거두어 맞아 줄 곳을 찾으러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그런 곳을 찾아낸 뒤, 다른 독일 사람들과 함께 이 순례자 차림으로 제 딸을 찾고 숨겨 둔 많은 재물을 파내려고 돌아왔습니다. 딸은 찾지 못했지만 보물은 찾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리들께서 보신 기이한 돌고 돎 끝에, 저를 가장 부자로 만들어 주는 보물, 곧 사랑하는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작은 허물과 이 아이의 눈물과 제 눈물이 나리들의 올곧은 정의를 거쳐 자비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나리들께 해를 끼칠 생각을 한 번도 품은 적이 없고, 마땅히 추방된 우리 겨레의 뜻에 조금도 뜻을 같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저는 리코테를 잘 알아요. 아나 펠릭스가 이 사람 딸이라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 밖에 오고 가고, 좋은 뜻을 품었느니 나쁜 뜻을 품었느니 하는 자잘한 일에는 저는 끼어들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기이한 일에 놀라고 있을 때 장군이 말했다.

"그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구려. 아름다운 아나 펠릭스, 하늘이 그대에게 정해 준 햇수만큼 살아가시오. 그리고 죄를 저지른 그 오만하고 무엄한 자들이 그 죄의 벌을 받게 하시오."

그러고는 곧 자기 병사 둘을 죽인 그 튀르크 사람 둘을 돛 활대에 목매달라고 명했다. 그러나 부왕은 그들의 짓이 용기라기보다 미친 짓이었으니 목매달지 말라고 간곡히 청했다. 장군은 부왕이 청하는 대로 했다. 앙갚음이란 피가 식은 다음에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그들은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를 그가 남아 있는 위험에서 구해 낼 방도를 꾀했다. 리코테는 그 일에 쓰라고 진주와 보석으로 가지고 있던 두카도 2천 닢이 넘는 돈을 내놓았다. 여러 방안이 나왔지만, 앞서 말한 에스파냐 출신 배교자가 낸 방안만 한 것은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교도 노꾼을 태운 노 걸상 여섯 개쯤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알제로 돌아가겠다고 나섰다. 그는 어디서, 어떻게, 언제 뭍에 오를 수 있고 올라야 하는지 알았고, 돈 가스파르가 머무는 집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군과 부왕은 배교자를 믿어도 될지, 노를 저을 그리스도교도들을 맡겨도 될지 망설였다. 그러자 아나 펠릭스가 그를 보증했고, 아버지 리코테는 그리스도교도들이 혹시 붙잡히면 그들의 몸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뜻이 굳어지자 부왕은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돈 안토니오 모레노가 모리스코 여자와 그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부왕은 그에게 두 사람을 힘닿는 데까지 잘 대접하고 아껴 주라고 당부하며, 그들을 대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 집에 있는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했다. 아나 펠릭스의 아름다움이 그의 가슴에 불어넣은 호의와 자비는 그토록 컸다.

제64장 그때까지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그를 가장 괴롭힌 모험을 다룬다

이야기에 따르면 돈 안토니오 모레노의 아내는 아나 펠릭스를 집에 맞아들인 것을 더없이 기뻐했다. 그 부인은 모리스코 처녀의 아름다움에도 슬기에도 반하여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았는데, 그 처녀는 아름다움으로나 슬기로나 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모두 종소리를 듣고 모여들듯 그를 보러 몰려왔다.

돈키호테는 돈 안토니오에게, 돈 그레고리오를 풀려나게 하려고 그들이 정한 방안은 알맞다기보다 위험한 쪽이라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 차라리 자기를 갑옷과 말과 함께 바르바리에 데려다 놓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그러면 돈 가이페로스가 아내 멜리센드라를 구해 냈듯이 자기도 무어인들이 모두 가로막는다 해도 그를 구해 내겠다고 했다.

"나리, 알아 두세요." 이 말을 듣고 산초가 말했다. "돈 가이페로스 나리는 아내를 뭍에서 구해 내서 뭍으로 프랑스까지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혹시 돈 그레고리오를 구해 낸다 해도 에스파냐로 데려올 길이 없어요. 한가운데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죽음 말고는 무엇에든 방도가 있는 법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배가 바닷가에 닿으면 온 세상이 막아선다 해도 그 배를 타면 되느니라."

"나리께서는 참 그럴싸하게 그리시고 쉽게 말씀하시네요." 산초가 말했다. "그렇지만 말에서 행동까지는 길이 멀어요. 저는 그 배교자를

믿겠어요. 아주 착하고 속이 깊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돈 안토니오는 배교자가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위대한 돈키호테가 바르바리로 건너가는 방안을 쓰자고 했다.

이틀 뒤 배교자는 한쪽에 노가 여섯 개씩 달리고 아주 용감한 노꾼들을 태운 날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에는 갤리선들이 동쪽 바다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장군은 돈 그레고리오가 풀려나는 일과 아나 펠릭스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사고 부왕에게 청했고, 부왕은 청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돈키호테는 갑옷과 무기를 모두 갖추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그가 여러 번 말했듯이 갑옷이 그의 몸치장이요 싸움이 그의 쉼이어서, 그는 한시도 갑옷 없이는 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기사 하나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기사의 방패에는 빛나는 달이 그려져 있었다. 그 기사는 말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까지 다가오자 돈키호테에게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빼어난 기사, 아무리 칭송해도 마땅한 만큼 칭송받은 적이 없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나는 하얀 달의 기사요. 내 전대미문의 무훈이 어쩌면 그대의 기억에 이 이름을 떠올려 주었을지도 모르겠소. 나는 그대와 겨루고 그대 팔의 힘을 시험하러 왔소. 내 아씨가 누구이든 그대의 둘시네아 델 토보소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대가 알고 인정하게 하려는 것이오. 그대가 이 진실을 순순히 인정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면하고, 나는 그대에게 죽음을 안기는 수고를 덜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대가 싸우고 내가 이긴다면, 나는 다른 보상은 바라지 않소. 다만 그대가 갑옷을 내려놓고 모험 찾기를 그만둔 채 한 해 동안 그대의 마을로 물러가 들어앉아, 칼에 손을 대지 않고 고요한 평화와 이로운 안식 속에서 살기를 바랄 뿐이오. 그것이 그대 살림을

불리는 데도 그대 영혼을 구하는 데도 이로우니까. 그리고 그대가 나를 이긴다면 내 머리는 그대 마음대로 하고, 내 갑옷과 말은 그대의 전리품이 되며, 내 무훈의 명성은 그대의 명성으로 넘어갈 것이오. 무엇이 그대에게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 곧 대답하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이 일을 끝낼 기한으로 잡고 왔으니까."

돈키호테는 하얀 달의 기사의 오만함에도, 그가 결투를 청하는 까닭에도 어리둥절하고 놀랐다. 그는 침착하고 엄한 몸가짐으로 대답했다.

"하얀 달의 기사여, 그대의 무훈은 아직 내 귀에 들어온 적이 없소. 감히 맹세하건대 그대는 빼어난 둘시네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이오. 보았더라면 이런 요구를 내세우지 않으려 했을 것이 분명하오. 그분을 보았다면 그분의 아름다움에 견줄 만한 아름다움은 지금껏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대가 깨달았을 테니까. 그러니 그대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하지 않겠으나 그대의 주장이 과녁을 맞히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대가 말한 조건대로 그대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소. 그것도 그대가 정해 온 날이 지나가지 않도록 지금 당장 받아들이겠소. 다만 조건 가운데 그대 무훈의 명성이 내게 넘어온다는 것 하나만은 빼겠소. 그것이 어떤 무훈이며 어떠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오. 나는 내 무훈이 어떠하든 그것으로 만족하오. 그러니 그대가 바라는 만큼 들판을 잡으시오. 나도 그리하겠소. 그리고 하느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사람에게 성 베드로께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

도시에서는 이미 하얀 달의 기사를 알아보고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부왕에게 알린 터였다. 부왕은 이것이 돈 안토니오 모레노나 도시의 다른 어느 기사가 꾸민 새로운 모험이려니 생각하고, 돈 안토니오와 자기를 따르는 다른 많은 기사를 거느리고 곧 바닷가로

나왔다. 그때 마침 돈키호테는 필요한 만큼 들판을 잡으려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리고 있었다.

부왕은 두 사람이 서로 맞부딪치려고 돌아서는 기색을 보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느닷없이 싸움을 벌이려 하느냐고 물었다. 하얀 달의 기사는 아름다움의 우열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대답하고는, 돈키호테에게 했던 말을 짧게 간추려 그에게도 들려주었고, 양쪽이 결투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까지 일러 주었다. 부왕은 돈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그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 아는지, 아니면 돈키호테에게 하려는 무슨 장난인지 나지막하게 물었다. 돈 안토니오는 그가 누구인지도, 그 결투가 장난인지 진심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에 부왕은 그들이 싸움을 계속하게 둘지 말지 망설였다. 그러나 장난 말고 다른 것이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물러서며 말했다.

"기사 양반들, 여기서 인정하거나 죽거나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고, 돈키호테 나리께서 고집을 열셋만큼 부리시고 하얀 달의 나리께서 열넷만큼 부리신다면,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맞붙으시오."

하얀 달의 기사는 정중하고 슬기로운 말로 부왕에게 허락해 준 데 감사했고, 돈키호테도 그렇게 했다. 돈키호테는 맞닥뜨린 싸움을 시작할 때면 늘 그러하듯 온 마음으로 하늘과 자기의 둘시네아에게 몸을 맡긴 다음, 적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들판을 조금 더 잡았다. 그리고 돌격 신호를 해 줄 나팔도 다른 군악기도 울리지 않은 채, 두 사람은 같은 순간에 말고삐를 돌렸다. 하얀 달의 기사의 말이 더 날랬으므로 그는 달려갈 거리의 3분의 2쯤에서 돈키호테에게 다다랐고, 거기서 창으로 찌르지도 않고(그는 일부러 그런 듯 창을 들어 올렸다) 어찌나 거센 힘으로 들이받았던지 로시난테와 돈키호테를 함께 땅바닥에

위태롭게 나가떨어지게 했다. 그는 곧 돈키호테 위로 다가가 투구의 얼굴 가리개 위에 창을 들이대고 말했다.

"그대는 졌소, 기사여. 우리 결투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기도 하오."

돈키호테는 녹초가 되고 정신이 아득해진 채 얼굴 가리개를 올리지도 않고, 무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없고 병든 목소리로 말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기사요. 내 약함 때문에 이 진실이 욕되어서는 안 되오. 창을 눌러라, 기사여. 내 명예를 앗아 갔으니 내 목숨도 앗아 가라."

"그렇게는 하지 않겠소, 결단코." 하얀 달의 기사가 말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의 아름다움의 명성이여, 흠 없이 살아 있을지어다, 살아 있을지어다. 나는 오직 위대한 돈키호테가 한 해 동안, 아니면 내가 명하는 때까지 자기 마을로 물러가는 것으로 만족하오. 이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말이오."

부왕과 돈 안토니오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이 이 모든 말을 들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에게 해가 되는 것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모두 빈틈없고 참된 기사로서 지키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자 하얀 달의 기사는 고삐를 돌려 부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말을 반쯤 달려 도시로 들어갔다.

부왕은 돈 안토니오에게 그를 뒤따라가 어떻게 해서든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라고 명했다.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일으켜 얼굴을 드러내 보니, 그는 핏기 하나 없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로시난테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때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산초는 온통 슬프고 온통 괴로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는 그 모든 일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고, 그 모든 꾸밈이 마법의 일인 것만 같았다. 그는 주인이 항복하고 한 해 동안 무기를 들지 못하게 매인 것을 보았고, 주인이 세운 무훈의 영광의 빛이 흐려지고 주인의 새 약속에 걸었던 희망이 바람에 연기가 흩어지듯 흩어지는 것을 그려 보았다. 그는 로시난테가 절름발이가 되지나 않을지, 주인의 뼈가 제자리에서 어긋나지나 않을지 두려웠다. 그러나 어긋나서 광기가 제자리를 벗어나 준다면 그리 작은 행운은 아닐 터였다. 마침내 부왕이 가져오게 한 가마에 돈키호테를 태워 도시로 데려갔고, 부왕도 돈키호테를 그토록 처참한 꼴로 만들어 놓은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며 도시로 돌아갔다.

제65장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였는지 알리고 돈 그레고리오가 풀려난 일과 다른 일들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하얀 달의 기사를 뒤따라갔고, 많은 아이들도 그 뒤를 따라가다 못해 아예 쫓아다녀서, 마침내 그 기사는 도시 안의 어느 여관에 들어가 틀어박혔다. 돈 안토니오는 그를 알아내고 싶어서 그 여관에 들어갔다. 종자 하나가 나와 기사를 맞아 갑옷을 벗겨 주었고, 기사는 아래층 방에 틀어박혔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때까지 빵이 구워지지 않을 만큼 안달이 난 돈 안토니오도 함께 들어갔다. 하얀 달의 기사는 그 신사가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나리,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오신 것을 잘 아오. 그대에게 숨길 까닭이 없으니, 내 하인이 갑옷을 벗겨 주는 동안 그 일의 진실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말씀드리겠소. 알아 두시오, 나리. 사람들은 나를 학사 삼손 카라스코라고 부르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같은 마을 사람인데,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그의 광기와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엾게 여긴 사람이 바로 나요. 그가 낫는 길은 쉬는 데에, 그리고 제 고장 제 집에 머무르는 데에 있다고 믿었기에 나는 그를 집에 붙들어 둘 꾀를 냈소. 그래서 석 달쯤 전에 거울의 기사라고 이름을 대고 편력 기사 행세를 하며 길에서 그를 막아섰소. 그를 다치게 하지 않고 싸워 이길 작정이었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 싸움의 조건으로 내걸었소. 그리고 이미 그가 질 것이라고 여겼기에 내가 그에게 요구하려던 것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꼬박 한 해 동안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소. 그동안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운명은 다르게 정했소. 그가 나를 이기고 나를 말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이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루어지지 못했소. 그는 제 갈 길을 갔고, 나는 진 채로 창피를 당하고 몹시 위험하기까지 했던 그 낙마에 녹초가 되어 돌아왔소. 그렇다고 그를 다시 찾아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오늘 보신 대로 그렇게 되었소. 그는 편력 기사도의 규율을 지키는 데 그토록 빈틈이 없으니, 틀림없이 자기 말을 지키느라 내가 내린 명을 지킬 것이오. 나리, 일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밖에 드릴 말씀은 아무것도 없소. 부탁하건대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돈키호테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 주시오. 내 좋은 뜻이 이루어지고, 기사도의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더없이 훌륭한 분별을 지닌 한 사람이 그 분별을 되찾도록 말이오."

"오, 나리."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미치광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려 하다니, 그대가 온 세상에 끼친 그 해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나리, 돈키호테의 제정신이 가져다줄 이득이 그의 엉뚱한 짓이 주는 즐거움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르시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학사 나리의 꾀를 다 쏟아붓는다 해도 그토록 철저히 미친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려놓지는 못할 것 같소. 그리고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돈키호테가 결코 낫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겠소. 그가 나으면 우리는 그의 익살뿐 아니라 그의 종자 산초 판사의 익살까지 잃게 되니 말이오. 그 둘 가운데 어느 익살이든 우울 그 자체를 다시 즐겁게 만들 수 있소. 그래도 나는 입을 다물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카라스코 나리가 들인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내 짐작이 맞는지 보려고 말이오."

카라스코는 어쨌든 그 일은 이미 잘 풀려 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돈 안토니오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나서자 카라스코는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갑옷을 노새에 묶어 싣게 하고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싸움에 타고 나갔던 그 말을 타고 바로 그날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가는 길에 이 참된 이야기에 적어야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돈 안토니오는 카라스코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부왕에게 들려주었다. 부왕은 그 이야기가 그리 반갑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집에 들어앉으면 그의 광기를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이 누릴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엿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풀이 죽고, 슬프고, 생각에 잠기고, 기분이 언짢은 채로, 패배라는 그 불행한 일을 상상 속에서 끝없이 되씹었다. 산초가 그를 위로하며 여러 말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주인 나리, 고개를 드시고, 하실 수 있으면 기운을 내세요. 그리고 땅바닥에 나가떨어지시고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일어나셨으니 하늘에 감사드리세요. 주는 데서 받기도 하는 법이고, 말뚝이 있는 데마다 늘 베이컨이 걸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의사한테는 주먹 감자나 먹이세요. 이 병을 고치는 데는 의사가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과 고장으로 모험을 찾아다니는 일일랑 그만둬요. 잘 따져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잃은 사람은 저예요. 가장 심하게 다치신 분은 나리지만요. 저는 통치 자리와 함께 다시 통치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버렸지만, 백작이 되고 싶은 마음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리께서 기사도 일을 그만두셔서 임금이 되지 못하시면 그 마음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할 테고, 그러니 제 희망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셈이지요."

"잠자코 있거라, 산초. 내가 들어앉아 물러나 있는 것은 한 해를 넘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다시 나의 명예로운 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얻을 왕국도, 너에게 줄 백작령도 모자라지 않을 게다."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는 귀를 먹기를요." 산초가 말했다. "하찮은 소유보다 좋은 희망이 낫다는 말을 늘 들어 왔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돈 안토니오가 몹시 기쁜 기색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돈키호테 나리, 상을 주십시오! 돈 그레고리오와 그를 데리러 갔던 배교자가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바닷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벌써 부왕 댁에 와 있고, 곧 여기로 올 겁니다."

돈키호테는 얼마간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말하건대 차라리 모든 일이 거꾸로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소. 그랬더라면 나는 바르바리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을 테고, 거기서 내 팔의 힘으로 돈 그레고리오뿐 아니라 바르바리에 있는 그리스도교도 포로를 모두 풀어 주었을 텐데. 그러나 이 가련한 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진 사람이 아닌가? 나는 땅바닥에 나가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한 해 동안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을 약속한단 말인가? 칼보다 물레를 잡는 게 어울릴 판에 무엇을 자랑한단 말인가?"

"그런 말씀일랑 그만두세요, 나리." 산초가 말했다. "암탉은 혓바닥에 병이 들었어도 살아 있는 게 낫고, 오늘은 너 때문에 내일은 나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붙고 얻어맞는 일에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넘어진 사람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침대에 그냥 누워 있고 싶다면 모를까요. 기운이 꺾이는 대로 내버려 두고 새 싸움을 할 새 기운을 차리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자, 이제

일어나셔서 돈 그레고리오를 맞으세요. 사람들이 떠들썩한 걸 보니 벌써 집에 와 있나 봐요."

과연 그러했다. 돈 그레고리오와 배교자는 이미 부왕에게 다녀온 일을 보고했고, 아나 펠릭스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돈 그레고리오는 배교자와 함께 돈 안토니오의 집으로 왔다. 돈 그레고리오는 알제에서 빠져나올 때는 여자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배에서 함께 빠져나온 포로의 옷과 바꾸어 입었다. 그러나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사람들이 탐내고 섬기고 귀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그는 더없이 아름다웠고, 나이는 보기에 열일곱이나 열여덟쯤 되었다. 리코테와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는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은 정숙하게 맞았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지 않았다. 사랑이 깊은 곳에는 지나친 허물없음이 없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돈 그레고리오와 아나 펠릭스의 두 아름다움이 한데 모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감탄했다. 거기서는 침묵이 두 연인을 대신해 말했고, 눈이 그들의 기쁘고 정숙한 생각을 드러내는 혀가 되었다.

배교자는 돈 그레고리오를 빼내 오려고 쓴 꾀와 방도를 이야기했고, 돈 그레고리오는 자기가 남겨졌던 여자들 틈에서 겪은 위험과 곤경을 이야기했는데, 길게 늘어놓지 않고 짧은 말로 이야기하여 그의 슬기가 그의 나이를 앞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침내 리코테는 배교자에게도 노를 저은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값을 치러 갚아 주었다. 배교자는 교회로 돌아와 다시 그 품에 받아들여졌고, 썩은 지체였던 그는 고해와 뉘우침으로 깨끗하고 성한 몸이 되어 돌아왔다.

이틀 뒤 부왕은 돈 안토니오와 함께 아나 펠릭스와 그 아버지가 에스파냐에 남을 수 있도록 어떤 방도를 쓸지 의논했다. 그토록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딸과, 보기에 그토록 좋은 뜻을 품은 아버지가 에스파냐에 남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들은 여겼다. 돈

안토니오는 다른 볼일로 어차피 궁정에 가야 하니 그 일을 교섭하러 궁정에 가겠다고 나서며, 궁정에서는 연줄과 선물만 있으면 어려운 일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비쳤다.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리코테가 말했다. "연줄이나 선물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우리 추방의 임무를 맡기신 위대한 돈 베르나르디노 데 벨라스코, 살라사르 백작[1]께는 간청도, 약속도, 선물도, 동정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의에 자비를 섞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의 몸 전체가 더럽혀지고 썩었다고 보시기에 그 몸에는 누그러뜨리는 연고보다 지지는 인두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슬기와 날카로움과 부지런함, 그리고 그분이 불어넣는 두려움으로, 이 큰 일의 무게를 그 튼튼한 어깨에 지고 마땅히 집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꾀와 계략과 청탁과 속임수도 언제나 깨어 있는 그분의 아르고스의 눈을 흐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겨레 가운데 하나라도 남거나 숨지 않도록 늘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다. 숨은 뿌리처럼 남았다가 세월이 지난 뒤에 싹을 틔워, 이제 깨끗해지고 우리 무리가 안겨 주던 두려움에서 벗어난 에스파냐에 독 있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말입니다. 위대한 펠리페 3세의 영웅다운 결단이요, 그 일을 그런 돈 베르나르디노 데 벨라스코께 맡기신 전대미문의 슬기입니다!"

"어쨌든 나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수고는 다 하겠소. 그다음은 하늘이 가장 기꺼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겠지요."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돈 그레고리오는 나와 함께 가서 아들이 없어져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겁니다. 아나 펠릭스는 내 집에서 내 아내와 함께 지내든 수녀원에 머물든 하면 되고, 부왕 나리께서도 착한 리코테가 내가 일을 어떻게 풀어 가는지 볼 때까지 나리 댁에 머무는 것을 기꺼이 여기실 줄 압니다."

부왕은 내놓은 방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돈 그레고리오는 사정을 알고 나서 도냐 아나 펠릭스를 두고는 도무지 떠날 수도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도 부모를 뵙고 그 여자를 데리러 돌아올 방도를 찾을 생각으로 정해진 약속을 따르기로 했다. 아나 펠릭스는 돈 안토니오의 아내 곁에, 리코테는 부왕의 집에 남았다.

돈 안토니오가 떠날 날이 왔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떠날 날도 왔다. 낙마한 몸이 그보다 일찍 길을 나서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그레고리오가 아나 펠릭스와 작별할 때는 눈물도 있었고, 한숨과 혼절과 흐느낌도 있었다. 리코테가 돈 그레고리오에게 원하면 에스쿠도 천 닢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하나도 받지 않고, 돈 안토니오가 빌려준 다섯 닢만 받으며 궁정에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떠났고, 앞서 말했듯이 돈키호테와 산초가 그 뒤에 떠났다. 돈키호테는 갑옷을 벗은 나그네 차림이었고, 산초는 잿빛 당나귀에 갑옷을 실었기 때문에 걸어서 갔다.

---

1. 돈 베르나르디노 데 벨라스코(1560?~1630?), 살라사르 백작은 실존 인물로, 펠리페 3세의 명을 받아 1609~1614년 모리스코 추방을 맡아 집행했다.

제66장 읽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읽어 주는 것을 듣는 사람은 듣게 될 일을 다룬다

바르셀로나를 나서면서 돈키호테는 자기가 쓰러졌던 자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가 트로이였구나! 여기서 내 비겁함이 아니라 내 불운이 내가 얻은 영광을 앗아 갔다. 여기서 운명의 여신이 나를 상대로 그 변덕스러운 바퀴를 이리저리 돌렸다. 여기서 내 무훈이 빛을 잃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내 행운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산초가 말했다.

"주인 나리, 잘될 때 기뻐하는 것만큼 불행할 때 참는 것도 용감한 마음이 할 일이에요. 저는 제 경우를 놓고 그렇게 판단해요. 통치자였을 때 기뻤다고 해서 걸어 다니는 종자가 된 지금 슬프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운명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는 술주정뱅이에 변덕쟁이고, 무엇보다 눈이 멀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누구를 쓰러뜨리는지 누구를 치켜올리는지도 모른다고 들었어요."

"너도 제법 철학자가 되었구나,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주 슬기롭게 말하는구나. 누가 너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세상에 운명이란 없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든 나쁘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로 온다. 그래서 흔히 사람은 저마다 제 운의 대장장이라는 말이 생겼느니라. 나도 내 운을 내가 빚었지만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빚지는 못했다. 그래서 내 자만이 꼴사납게 무너졌다. 로시난테의 허약함으로는 하얀 달의 기사가 탄 말의 그 힘센 덩치를 견뎌 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결국 덤볐고,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땅바닥에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명예는 잃었어도 내 말을 지키는 덕은 잃지 않았고 잃을 수도 없다. 대담하고 용감한 편력 기사였을 때 나는 내 행동과 내 손으로 내 업적을 증명했다. 이제 걸어 다니는 종자가 된 지금은 내가 한 약속을 지켜 내 말을 증명하겠다. 그러니 가자, 산초, 내 벗아. 우리 고장으로 가서 수련기의 한 해를 보내자. 그렇게 들어앉아 있는 동안 새 힘을 얻어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 무예의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게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걸어서 가는 건 길을 많이 가고 싶어질 만큼 그렇게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갑옷일랑 목매단 사람 대신 아무 나무에나 걸어 두고 가요. 그리고 제가 잿빛 당나귀 등에 올라타 발을 땅에서 떼고 가면 나리께서 바라시고 재시는 대로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길을 많이 가라고 하시면 될 리 없는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잘했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갑옷을 전승 기념물로 걸어 두자. 그리고 그 밑이나 둘레의 나무에 롤단의 무구 기념물에 적혀 있던 글귀를 새겨 두자.

롤단과 겨룰 수 없는 자는
아무도 이것에 손대지 말라."

"그거 다 진주처럼 좋은 생각이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길에서 로시난테가 없으면 아쉬울 게 아니라면 로시난테도 나무에 매달아 두고

가면 좋을 텐데요."

"그도 갑옷도 매달고 싶지 않다!"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좋은 섬김에 나쁜 보답을 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말이다!"

"나리 말씀이 아주 옳아요." 산초가 대답했다. "슬기로운 사람들 말로는 당나귀 잘못을 길마에 덮어씌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 일은 나리 잘못이니 나리께서 나리 자신을 벌주세요. 이미 부서지고 피 묻은 갑옷에, 순한 로시난테에, 연한 제 발에 화풀이를 하시면서 제 발이 마땅한 것보다 더 걷기를 바라지는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와 말을 나누며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갔고, 다시 나흘이 더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어느 마을 어귀에 이르자 여관 문 앞에 축일이라 즐기러 나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농사꾼 하나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양쪽 다 모르는 사람이니, 여기 오시는 이 두 나리 가운데 한 분이 우리 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실 거예요."

"말해 주리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내기를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아주 올곧게 말해 주겠소."

"그러니까 일은 이래요, 착한 나리." 농사꾼이 말했다. "이 마을 사람 하나가 몸무게가 11아로바나 나갈 만큼 뚱뚱한데, 몸무게가 5아로바밖에 안 나가는 이웃 사람한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조건은 똑같은 무게를 지고 백 걸음을 달린다는 거였지요. 시합을 하자고 한 사람한테 무게를 어떻게 똑같이 맞추느냐고 물었더니, 시합을 받은 사람이 몸무게가 5아로바니까 쇳덩이 6아로바를 등에 지면 마른 사람의 11아로바와 뚱뚱한 사람의 11아로바가 똑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때 산초가 말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알다시피 통치자와 재판관 노릇을 그만둔 지 며칠

안 된 저야말로 이런 의문을 따져 보고 모든 소송에 의견을 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럼 대답해 보아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판단력이 이렇게 흔들리고 뒤집혀 있어서 고양이한테 빵 부스러기 줄 기운도 없구나."

이렇게 허락을 받자 산초는 자기 둘레에 빙 둘러서서 입을 벌린 채 자기 입에서 나올 판결을 기다리는 많은 농사꾼에게 말했다.

"형씨들, 그 뚱뚱한 사람이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정의의 그림자도 없어요. 결투를 받은 사람이 무기를 고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가로막고 거치적거리는 무기를 골라 주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시합을 하자고 한 그 뚱뚱한 사람이 제 몸을 가지 치고, 껍질 벗기고, 솎아 내고, 다듬고, 매만져서, 몸 여기저기 제일 좋다 싶고 알맞다 싶은 데서 살을 6아로바 덜어 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5아로바로 남으면 상대의 5아로바와 똑같아지고 딱 맞아떨어질 테니, 그러면 똑같이 달릴 수 있겠지요."

"맹세코" 산초의 판결을 들은 농사꾼 하나가 말했다. "이 나리는 복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참사회원처럼 판결하셨어!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 뚱보는 6아로바는커녕 제 살을 1온스도 떼어 내려 하지 않을걸."

"달리지 않는 게 제일 좋겠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야 마른 사람이 무게에 짓눌려 녹초가 되지도 않고, 뚱뚱한 사람이 살을 떼어 내지도 않지. 내기 돈의 절반으로 포도주나 사고, 이 나리들을 비싼 술파는 선술집으로 모셔 가자고. 비가 오면 외투는 내가 쓸 테니."

"여러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고맙소마는 나는 한시도 머물 수가 없소. 슬픈 생각과 슬픈 일 때문에 무례해 보이더라도 걸음을 서둘러야 하오."

그러고는 로시난테에 박차를 가해 지나갔다. 그 사람들은 그의 기이한 생김새에도, 그들이 하인이라고 여긴 산초의 슬기에도 눈여겨보며 놀랐고, 농사꾼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말했다.

"하인이 저렇게 슬기로우니 주인은 어떻겠어! 장담하는데 저 사람들이 살라망카로 공부하러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궁정 판관이 될 거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줄과 운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장난이거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손에는 판관 지팡이를 쥐고 있거나 머리에는 주교관을 쓰고 있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주인과 하인은 들판 한가운데서 하늘이 훤히 드러난 한데서 지냈고, 이튿날 길을 가는데 걸어오는 사내 하나가 그들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는데, 그는 목에 자루를 걸고 손에는 투창인지 짧은 창인지를 들고 있어서 걸어 다니는 파발꾼의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돈키호테 곁에 다다르자 걸음을 빨리하여 반쯤 뛰다시피 그에게 다가가더니, 거기까지밖에 닿지 않아 그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끌어안고는 몹시 기쁜 기색으로 말했다.

"오,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성으로 돌아오신다는 걸 아시면 제 주인 공작 나리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공작 나리께서는 공작 부인 마님과 함께 아직 성에 계십니다."

"나는 그대를 모르오, 벗이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대가 말해 주지 않으면 그대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저는요, 돈키호테 나리," 파발꾼이 대답했다. "제 주인 공작 나리의 하인 토실로스입니다. 도냐 로드리게스 마님의 딸 혼사 문제로 나리와 싸우려 하지 않았던 그 하인이요."

"하느님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가 바로 나의 원수인 마법사들이 내게서 그 결투의 명예를 빼앗으려고 그대가 말하는 그 하인으로 바꾸어 놓은 그 사람이란 말이오?"

"그만두세요, 착한 나리." 파발꾼이 되받았다. "마법이니 얼굴이 바뀌었느니 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하인 토실로스로 결투장에 들어갔다가 토실로스 하인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싸우지 않고 장가들 생각이었는데, 일이 생각과 거꾸로 됐어요. 나리께서 우리 성을 떠나시자마자 제 주인 공작 나리께서 결투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리신 명을 어겼다고 저한테 몽둥이 백 대를 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처녀는 벌써 수녀가 됐고, 도냐 로드리게스 마님은 카스티야로 돌아가셨고, 저는 지금 제 주인께서 부왕 나리께 보내시는 편지 한 묶음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이에요. 나리께서 한 모금 하고 싶으시면, 미지근하긴 해도 물 안 탄 비싼 술이 가득 든 호리병박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트론촌 치즈도 몇 조각인지 모르게 있는데, 목마름이 혹시 잠들어 있으면 그걸 불러내고 깨워 주는 노릇을 할 거예요."

"판돈 걸었다!" 산초가 말했다. "예의는 남은 판돈까지 몽땅 걸고, 착한 토실로스는 술을 따르라고. 인디아스에 있는 마법사들이 다 배 아파하든 말든 말이야."

"결국"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먹보에 이 땅에서 가장 큰 무식쟁이로구나. 이 파발꾼이 마법에 걸린 사람이고 이 토실로스가 가짜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 말이다. 그 사람과 남아서 실컷 먹어라. 나는 천천히 앞서가며 네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하인은 웃으며 호리병박을 꺼내고 자루에서 치즈 조각을 꺼내더니 작은 빵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와 산초는 푸른 풀밭에 앉아 사이좋게 자루 속 먹을거리를 모조리 먹어 치우고 바닥을 냈는데, 어찌나 왕성하게 먹었던지 편지 묶음에서 치즈 냄새가 난다는 까닭만으로 그것까지 핥았다. 토실로스가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 이 친구야, 네 주인은 미친 사람인 게 틀림없지 싶다."

"틀림없다니?" 산초가 대답했다. "그분은 누구한테도 셈을 틀리게 한 적이 없어. 빚진 것 없이 다 갚으시거든. 그 돈이 광기일 때는 더 그렇고. 나도 그걸 잘 알고 그분한테도 잘 말씀드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게다가 지금은 하얀 달의 기사한테 지셨으니 아주 끝장이 나셨다고."

토실로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 달라고 졸랐지만, 산초는 주인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니 다음에 또 만나면 그럴 틈이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겉옷과 수염에 붙은 빵 부스러기를 털고 잿빛 당나귀를 앞세워 몰고 가며 '잘 있어' 하고 토실로스와 헤어져, 나무 그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주인을 따라잡았다.

제67장 약속한 한 해가 지나는 동안 돈키호테가 양치기가 되어 들판에서 살기로 결심한 일과 정말로 재미있고 좋은 다른 일들

돈키호테는 말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많은 생각에 시달렸지만, 떨어진 뒤에는 훨씬 더 많은 생각에 시달렸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나무 그늘에 있었는데, 거기로 생각들이 꿀에 꼬이는 파리처럼 몰려와 그를 쏘아댔다. 어떤 생각은 둘시네아의 마법 풀기로 가고, 어떤 생각은 억지로 들어앉아 지내야 할 앞날의 삶으로 갔다. 산초가 와서 하인 토실로스의 너그러운 성품을 칭찬했다.

"오, 산초!"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그자가 진짜 하인이라고 아직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냐? 둘시네아가 농사꾼 처녀로 바뀌고 모습이 달라진 것을, 거울의 기사가 카라스코 학사로 바뀐 것을 본 일이 네 머리에서 달아나 버린 모양이구나. 그것이 모두 나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의 짓인데도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제 말해 보아라. 네가 말하는 그 토실로스에게 하느님께서 알티시도라를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았느냐? 그 아가씨가 내가 떠난 것을 슬퍼하며 울었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그 아가씨를 괴롭히던 사랑의 생각들을 벌써 망각의 손에 내맡겨 버렸는지 말이다."

"제가 품고 있던 생각은"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볼 틈을 줄 만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런, 나리! 지금 나리께서

남의 생각을, 그것도 사랑의 생각을 캐물으실 처지예요?"

"보아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랑으로 하는 일과 고마움으로 하는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기사가 사랑을 모를 수는 있어도, 엄밀히 말하자면 은혜를 모를 수는 없느니라. 보아하니 알티시도라는 나를 좋아했다. 너도 아는 그 머릿수건 세 장을 내게 주었고, 내가 떠날 때 울었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헐뜯고 원망했다. 모두가 나를 사모했다는 표시다. 연인의 분노는 대개 저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 나는 그 아가씨에게 줄 희망도 바칠 보물도 없었으니, 내 희망은 둘시네아께 다 맡겨 드렸고 편력 기사의 보물이란 도깨비의 보물처럼 겉보기만 그럴듯한 가짜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아가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를 이렇게 떠올리는 일뿐이지만, 그렇다고 둘시네아를 떠올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는 매질을 미루고 그 살덩이를 벌하지 않아서 그분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그 살덩이는 늑대한테나 뜯어 먹혔으면 좋겠다. 그 가엾은 아씨를 구하는 데 쓰이기보다 구더기 밥으로 남겨지기를 바라니 말이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참말을 하자면, 제 엉덩이에 매를 때리는 일이 마법에 걸린 사람들의 마법 풀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머리가 아프면 무릎에 연고를 바르라'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적어도 이건 감히 맹세할 수 있어요. 나리께서 읽으신 편력 기사도 이야기를 다 뒤져 봐도 매질로 마법이 풀린 사람은 보신 적이 없을걸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저는 매를 맞을 거예요. 마음이 내키고 때가 저를 벌하기에 알맞은 틈을 줄 때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리해 주시기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하늘이 너에게 은총을 내려, 네가 내 아씨를 도울 의무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빈다. 네가 내 사람이니 그분은 네 아씨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길을 가다가 황소 떼에 짓밟혔던 바로 그 자리와 장소에 이르렀다. 돈키호테는 그곳을 알아보고 산초에게 말했다.

"여기가 그 늠름한 양치기 처녀들과 멋진 양치기 젊은이들을 만난 풀밭인데, 그들은 이곳에 목가의 아르카디아를 새로 일으켜 본뜨려 했지. 슬기로운 만큼 새로운 생각이었다. 오, 산초, 네가 좋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본떠 우리도 양치기가 되었으면 한다. 적어도 내가 들어앉아 지내야 하는 동안만이라도 말이다. 내가 양 몇 마리와 양치기 일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모두 사겠다. 그리고 나는 양치기 키호티스, 너는 양치기 판시노라고 이름을 붙이고 산과 숲과 풀밭을 돌아다니며, 여기서는 노래하고 저기서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샘의 맑은 수정 같은 물이나 깨끗한 시냇물이나 넘실대는 강물을 마시자. 떡갈나무는 더없이 단 열매를 아낌없이 손으로 내주고, 더없이 단단한 코르크나무 줄기는 앉을 자리를, 버드나무는 그늘을, 장미는 향기를, 넓게 펼쳐진 풀밭은 천 가지 빛깔로 수놓은 양탄자를, 맑고 깨끗한 공기는 숨결을,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달과 별은 빛을, 노래는 기쁨을, 울음은 즐거움을, 아폴론은 시를, 사랑은 시상을 내줄 테니, 그것으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길이 이름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맹세코" 산초가 말했다. "그런 살림이라면 제 마음에 네모반듯하게 들어맞네요, 모서리까지 딱 맞아요. 게다가 삼손 카라스코 학사하고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이 그걸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 살림을 따라 하겠다며 우리하고 같이 양치기가 되려고 할걸요. 신부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분은 워낙 쾌활하고 노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말 한번 잘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삼손 카라스코 학사가 양치기 동아리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들어오겠지만, 양치기 산소니노나 양치기

카라스콘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발사 니콜라스는 미쿨로소라고 부르면 되겠고. 옛날 보스칸이 네모로소라고 불렸듯이 말이다.[1] 신부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끌어낸 이름이 아니라면 무슨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니, 양치기 쿠리암브로라고 부르자. 우리가 사랑할 양치기 처녀들의 이름은 배 고르듯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내 아씨의 이름은 공주에게도 양치기 처녀에게도 꼭 맞으니,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느라 애쓸 까닭이 없다. 산초, 너는 네 처녀에게 네 마음에 드는 이름을 붙이면 된다."

"저는" 산초가 대답했다. "테레소나 말고는 다른 이름을 붙일 생각이 없어요. 뚱뚱한 몸에도 맞고 제 이름에도 맞으니까요. 이름이 테레사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로 그 사람을 기리면 제 깨끗한 바람을 드러내게 되는 셈이에요. 저는 남의 집을 기웃거리며 밀보다 나은 빵을 찾아다니지 않으니까요. 신부님은 좋은 본보기를 보이셔야 하니 양치기 처녀를 두시면 안 되겠고요. 학사가 두고 싶어 하면 그건 그 사람 마음이고요."

"하느님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내 벗아,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누리게 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피리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모라 백파이프와 작은북과 방울북과 레벡 소리가 들려오겠느냐! 게다가 이 갖가지 음악 가운데 알보게스 소리까지 울린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양치기 악기란 악기는 거의 다 보게 될 게다."

"알보게스가 뭔데요?" 산초가 물었다.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고, 평생 본 적도 없어요."

"알보게스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놋쇠 촛대 같은 쇠판들인데, 비고 오목한 쪽끼리 맞부딪치면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좋거나 가락이 맞지는 않아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백파이프와 작은북의

투박함과도 잘 어울린다. 이 알보게스라는 이름은 무어 말인데, 우리 카스티야 말에서 알(al)로 시작하는 말은 다 그렇다. 이를테면 알모아사(말빗), 알모르사르(아침을 먹다), 알롬브라(양탄자), 알과실(포졸), 알우세마(라벤더), 알마센(곳간), 알칸시아(저금통) 같은 것들인데, 이와 비슷한 말은 이보다 조금 더 있을 게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무어 말이면서 이(i)로 끝나는 말은 셋뿐인데, 보르세기(반장화), 사키사미(다락방), 마라베디가 그것이다. 알렐리(비단향꽃무)와 알파키(이슬람 율법 학자)는 첫머리의 알로 보나 끝의 이로 보나 아랍 말임을 알 수 있다. 알보게스라는 말을 꺼내다 보니 생각이 나서 내친김에 너에게 이 말을 해 주었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간 시인이고, 삼손 카라스코 학사도 아주 뛰어난 시인이니,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게다. 신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만, 그 사람도 틀림없이 시인 끼가 좀 있을 거라고 내기를 걸겠다. 니콜라스 선생에게도 그런 끼가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이발사들은 모두, 아니면 거의 다 기타를 타고 노래를 지으니까. 나는 임이 곁에 없다고 탄식하겠다. 너는 한결같은 연인이라고 자랑하고, 양치기 카라스콘은 버림받았다고, 신부 쿠리암브로는 무엇이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두고 노래하면 된다. 그러면 일이 더 바랄 것 없이 잘 굴러갈 게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 저는 워낙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날이 끝내 오지 않을까 봐 겁나요. 아, 제가 양치기가 되면 얼마나 반들반들한 숟가락을 깎게 될까요! 빵가루 볶음이며 크림이며 화관이며 양치기 잡동사니를 얼마나 많이 만들게 될까요! 그것들이 저한테 슬기롭다는 명성은 못 얻어 주더라도 재주 있다는 명성만큼은 꼭 얻어 줄 거예요. 제 딸 산치카가 우리 움막으로 밥을 날라다 주겠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해요! 그 애는 얼굴이 반반하고, 양치기 가운데는 순진하기보다 엉큼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 애가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제가 털을 깎이고 돌아오는 건 싫어요. 사랑이니 좋지 못한 바람이니 하는 것들은 도시에서처럼 들판에서도, 임금님 궁궐에서처럼 양치기 움막에서도 돌아다니기 마련이에요. 까닭을 없애면 죄도 없어지고, 눈이 보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점잖은 사람들의 탄원보다 덤불에서 뛰쳐나가 달아나는 편이 낫다고 하잖아요."

"속담은 그만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늘어놓은 속담 가운데 아무것 하나만으로도 네 생각을 알아듣기에 넉넉하다. 속담을 그렇게 헤프게 쓰지 말고 말할 때 좀 삼가라고 내가 여러 번 타일렀다만, 사막에서 설교하는 격인 것 같구나. 어머니가 나를 혼내도 나는 팽이를 돌린다더니."

"제가 보기엔" 산초가 대답했다. "나리야말로 사람들 말마따나 '프라이팬이 가마솥더러 저리 비켜, 이 검정 눈아' 한 격이에요. 저더러는 속담을 말하지 말라고 나무라시면서 나리께서는 속담을 두 개씩 꿰어 내시잖아요."

"보아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속담을 알맞은 자리에 끌어다 쓰니, 내가 말할 때 속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꼭 맞는다. 그러나 너는 속담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오니, 그것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오는 것이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전에도 너에게 말했듯이, 속담이란 우리 옛 현인들의 경험과 사색에서 끌어낸 짧은 격언이며, 자리에 맞지 않는 속담은 격언이라기보다 헛소리니라.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만두자. 벌써 밤이 오니 큰길에서 얼마쯤 비켜나 오늘 밤을 지낼 곳으로 가자. 내일 일은 하느님께서 아시겠지."

그들은 길에서 비켜나 늦게, 그리고 형편없이 저녁을 먹었는데, 산초에게는 몹시 못마땅한 일이었다. 그는 숲과 산에서 겪은 편력

기사도의 궁색함을 떠올렸고, 그러면서도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집이나 부자 카마초의 혼례나 돈 안토니오 모레노의 집처럼 이따금 성과 집에서 넉넉함이 드러나기도 했던 일을 떠올렸지만, 늘 낮일 수도 없고 늘 밤일 수도 없다는 생각에 그 밤을 자며 보냈고, 그의 주인은 깨어 있으며 보냈다.

---

1. 보스칸(Juan Boscán, 1490?~1542)은 에스파냐 르네상스 시인으로, 벗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의 목가에 나오는 양치기 네모로소가 그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보스칸(bosque, 숲)과 네모로소(라틴어 nemus, 숲)가 뜻으로 짝을 이루듯이, 돈키호테는 니콜라스를 미쿨로소로 바꾸며 그 이름 놀이를 흉내 낸다.

제68장 돈키호테에게 닥친 돼지 떼 모험

밤은 조금 어두웠다. 달은 하늘에 떠 있었지만 보일 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 디아나 아씨께서는 이따금 지구 반대편으로 산책을 나가시어 산을 검게, 골짜기를 어둡게 남겨 두시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첫잠을 자서 자연에 갚을 빚은 갚았으나 두 번째 잠에는 들 틈을 주지 않았다. 산초는 정반대여서 두 번째 잠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는데, 그의 잠은 밤부터 아침까지 내리 이어졌으니 그것으로 그의 튼튼한 몸과 걱정 없는 성미가 드러났다. 돈키호테는 걱정 때문에 어찌나 잠이 달아났던지 산초를 깨워 그에게 말했다.

"산초, 네 성미가 어찌나 태평한지 놀랍구나. 나는 네가 대리석이나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는 어떤 움직임도 어떤 느낌도 깃들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네가 자는 동안 나는 깨어 있고, 네가 노래하는 동안 나는 울고, 네가 배가 불러 늘어지고 맥이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굶어서 기절할 지경이다. 좋은 하인이라면 적어도 보기 좋으라고라도 주인의 괴로움을 함께 지고 주인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법이다. 이 밤의 고요함을 보아라, 우리가 있는 이 호젓함을 보아라. 우리에게 잠 사이에 얼마쯤 깨어 있으라고 권하지 않느냐. 제발 일어나서 여기서 얼마쯤 떨어진 곳으로 가, 씩씩한 마음과 고마워하는 용기로 둘시네아의 마법 풀기에 셈할 매를 삼백 대든 사백 대든 우선 쳐 두어라. 이렇게 빌며 간청하는 것은, 지난번처럼 너와 맞붙고 싶지 않아서다. 네 팔이 무겁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네가 매를 다 치고 나면

남은 밤을 노래하며 보내자. 나는 임이 곁에 없는 슬픔을, 너는 너의 한결같음을 노래하며, 우리 마을에서 하게 될 양치기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수도사가 아니에요. 한창 자다가 일어나서 제 몸에 채찍질을 하게요. 그리고 매질의 아픔이 극에 달한 데서 음악의 극으로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 않아요. 나리께서는 저를 자게 내버려 두시고 매질 이야기로 저를 들볶지 마세요. 그러시면 제 살갗의 털은커녕 제 겉옷의 털끝 하나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만드실 거예요."

"오, 굳어 버린 영혼아! 오, 인정머리 없는 종자야! 오, 내가 너에게 먹인 빵은 헛되이 쓰였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고 앞으로 베풀려는 은혜는 헛되이 헤아려졌구나! 나 때문에 너는 통치자가 되어 보았고, 나 때문에 너는 백작이나 그에 맞먹는 다른 작위를 얻으리라는 머지않은 희망을 품고 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한 해가 지나가는 만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게다. '어둠 뒤에 나는 빛을 바라노라(post tenebras spero lucem).'"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산초가 되받았다. "제가 아는 건 이것뿐이에요. 자는 동안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수고도 영광도 없다는 거요. 잠을 만든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잠은 사람의 온갖 생각을 덮어 주는 외투요, 배고픔을 없애 주는 음식이요, 목마름을 쫓아 주는 물이요, 추위를 데워 주는 불이요, 더위를 식혀 주는 서늘함이요, 끝으로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온 세상의 돈이요, 양치기를 임금과,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 주는 저울이고 추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잠에는 나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죽음을 닮았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요."

"산초, 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걸 보니 네가 이따금 하는 속담, '누구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풀을 뜯느냐다'라는 말이 참말임을 알겠구나."

"아이고, 거참, 주인 나리!" 산초가 되받았다. "지금 속담을 꿰어 대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나리 입에서도 저보다 더 잘 두 개씩 떨어져 나오잖아요. 다만 제 속담과 나리 속담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겠지요. 나리 속담은 때맞춰 나오고 제 속담은 때도 없이 나온다는 거요. 그래도 결국 다 속담이긴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있는데 그 골짜기들 곳곳으로 퍼지는 둔한 굉음과 거친 소음이 들려왔다. 돈키호테는 벌떡 일어서서 칼을 움켜쥐었고, 산초는 잿빛 당나귀 밑으로 기어 들어가 웅크리고는 갑옷 꾸러미와 당나귀 길마로 양옆을 막았다. 돈키호테가 흥분한 만큼이나 산초는 두려움에 떨었다. 소리는 시시각각 커지며 겁먹은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적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그랬다. 다른 한 사람의 용맹은 이미 다들 아는 바이니까.

사실은 이러했다. 사람 몇이 돼지 육백 마리 남짓을 장에 팔러 몰고 가느라 그 시각에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내는 소리와 꿀꿀거림과 씩씩거림이 어찌나 요란했던지 돈키호테와 산초는 귀가 먹먹해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넓게 퍼져 꿀꿀대는 돼지 떼가 우르르 몰려와서는 돈키호테의 권위도 산초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 위를 짓밟고 지나가며 산초의 참호를 허물어뜨렸고, 돈키호테를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덤으로 로시난테까지 휩쓸어 갔다. 그 더러운 짐승들이 몰려든 기세와 꿀꿀거림과 재빠름이 길마와 갑옷과 잿빛 당나귀와 로시난테와 산초와 돈키호테를 뒤죽박죽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산초는 겨우겨우 일어나 주인에게 칼을 달라고 하며, 저 무례하기 짝이 없는 돼지 나리들을 여섯 마리쯤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 그제야 그것들이 돼지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내버려 두어라, 벗아. 이 모욕은 내 죄에 대한 벌이다. 진 편력 기사가 자칼에게 뜯기고 말벌에게 쏘이고 돼지에게 짓밟히는 것은 하늘의 마땅한 벌이니라."

"그렇다면 진 기사의 종자가 파리에게 물리고 이에게 뜯기고 배고픔에 들볶이는 것도" 산초가 대답했다. "하늘의 벌이겠네요. 우리 종자들이 우리가 섬기는 기사의 아들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허물의 벌이 우리한테 사대까지 미친다 해도 그리 큰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판사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하고 키호테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자리를 잡고 얼마 안 남은 밤이나 자요. 하느님께서 날을 밝혀 주시면 일이 잘 풀릴 거예요."

"너는 자거라,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너는 자려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깨어 있으려고 태어났으니, 여기서 날이 밝기까지 남은 동안 내 생각에 고삐를 풀어 주고, 네가 모르는 사이에 간밤에 머릿속으로 지어 둔 짧은 마드리갈 한 편으로 그 생각을 풀어 놓겠다."

"제가 보기엔" 산초가 대답했다. "노래를 지을 틈을 주는 생각이라면 그리 대단한 생각은 아닌가 봐요. 나리께서는 마음껏 노래를 지으세요. 저는 힘껏 잘 테니까요."

그러고는 곧 땅바닥을 마음껏 차지하고 몸을 웅크린 채 곯아떨어졌는데, 보증 선 빚도 갚을 빚도 어떤 괴로움도 그의 잠을 방해하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너도밤나무인지 코르크나무인지(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그것이 어떤 나무였는지 가리지 않는다) 나무 둥치에 기대어, 자기 한숨 소리에 맞추어 이렇게 노래했다.

"사랑이여, 네가 내게 주는
무섭고 모진 아픔을 생각하면
나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내 끝없는 아픔을 끝내려고.
그러나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항구가 되는 그 길목에 이르면
어찌나 기쁨이 솟는지
삶이 힘을 내어 나는 그 길목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사는 일이 나를 죽이니
죽음이 다시 내게 삶을 돌려준다.
오, 들어 보지 못한 처지여,
나를 두고 죽음과 삶이 흥정하는구나!"

그는 이 시를 한 줄 한 줄 읊을 때마다 숱한 한숨과 적지 않은 눈물을 곁들였으니, 패배의 아픔과 둘시네아가 곁에 없는 아픔에 가슴이 꿰뚫린 사람다웠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았고, 햇살이 산초의 눈을 비추자 그는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며 게으른 팔다리를 털고 늘였다. 그는 돼지들이 자기 식량 창고에 저질러 놓은 난장판을 보고 돼지 떼를 저주했고, 그보다 더 멀리까지 저주를 퍼부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시작했던 길을 다시 나섰고, 오후가 기울 무렵 말 탄 사람 열 명쯤과 걸어오는 사람 네댓이 자기들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돈키호테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고 산초의 가슴은 벌렁거렸으니, 다가오는 사람들이 창과 가죽 방패를 들고 싸움 채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산초, 내가 무기를 쓸 수만 있고 내 약속이 내 팔을 묶어 놓지만 않았다면, 우리에게 몰려오는 저 무리쯤은 과자에 꽃빵으로 여겼을

게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일일 수도 있겠지."

그러는 사이 말 탄 사람들이 다가와서 창을 치켜들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돈키호테를 에워싸고 그의 등과 가슴에 창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을러댔다. 걸어온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입에 손가락을 대어 잠자코 있으라는 시늉을 하고는 로시난테의 재갈을 잡고 길 밖으로 끌고 나갔고, 나머지 걸어온 사람들은 산초와 잿빛 당나귀를 앞세워 몰며 모두 놀라우리만큼 잠잠히 돈키호테를 끌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랐다. 돈키호테는 두세 번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려 했지만 입술을 달싹하기가 무섭게 그들이 창날로 그 입을 막으려 들었다. 산초도 마찬가지였다. 말할 기색을 보이기가 무섭게 걸어온 사람 하나가 가시 막대로 그를 찔렀고, 잿빛 당나귀도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보이면 똑같이 찔렀다. 밤이 내리자 그들은 걸음을 재촉했고, 두 포로의 두려움은 커져 갔다. 이따금 그들에게 이런 소리를 해 대는 것을 듣고는 더욱 그러했다.

"걸어라, 혈거인 놈들아!"

"닥쳐라, 야만인 놈들아!"

"값을 치러라, 식인종 놈들아!"

"투덜대지 마라, 스키타이 놈들아, 눈도 뜨지 마라, 살인마 폴리페모스들아, 고기를 뜯는 사자들아!"

그 밖에도 이와 비슷한 이름들로 그들은 가엾은 주인과 하인의 귀를 괴롭혔다. 산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갔다.

"우리가 헐거운 놈이라고? 우리가 양반에 식은 죽이라고? 우리가 '쉬쉬' 하고 부르는 강아지라고? 이 이름들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 타작마당엔 바람이 고약하게 부는구나. 개한테 몽둥이찜질이 몰리듯 불행이란 불행은 다 한꺼번에 몰려오네. 이 불운한 모험이 을러대는 게 그 몽둥이찜질에서 그치기만 해도 좋겠다!"

돈키호테는 넋이 나간 채 가며,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해 보아도 그들이 퍼붓는 그 욕설투성이 이름들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거기서 그가 뚜렷이 끌어낸 것은 좋은 일은 하나도 바랄 수 없고 나쁜 일은 많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밤이 이슥해질 무렵 그들은 어느 성에 이르렀는데, 돈키호테는 그것이 얼마 전까지 머물렀던 공작의 성임을 곧 알아보았다.

"하느님 맙소사!" 그는 그곳을 알아보자마자 말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기 그지없지만, 진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이 더 나쁜 일로 바뀌는구나."

그들은 성의 안뜰로 들어갔고, 뜰이 꾸며지고 차려진 모습을 보자 놀라움은 더 커지고 두려움은 곱절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제69장 이 위대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가장 희한하고 가장 새로운 일

말 탄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고, 걸어온 사람들과 함께 산초와 돈키호테를 번쩍 안아 들고 다짜고짜 안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뜰 둘레에는 횃대에 꽂은 횃불이 백 개 가까이 타오르고, 뜰의 회랑에는 등불이 오백 개 넘게 밝혀져 있어서, 밤이 조금 어두웠는데도 낮이 아닌 것을 느낄 수 없었다. 뜰 한가운데에는 땅에서 두 바라쯤 높이의 관대가 솟아 있었는데, 온통 검은 벨벳으로 된 아주 커다란 닫집으로 덮여 있었고, 그 둘레의 층계마다 은 촛대 백 개 넘게 꽂힌 흰 밀랍 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관대 위에는 어찌나 아름다운 처녀의 주검이 누워 있었던지 그 아름다움으로 죽음 자체까지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 처녀는 금실 비단 베개에 머리를 얹고, 갖가지 향기로운 꽃으로 엮은 화관을 쓰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은 채 그 사이에 승리의 누런 종려나무 가지 하나를 쥐고 있었다.

뜰 한쪽에는 무대가 하나 차려져 있었고, 의자 둘에 두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 홀을 쥐고 있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어느 나라의 왕들인 듯했다. 층계 몇 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 무대 곁에는 다른 의자 둘이 놓여 있었고, 포로들을 데려온 사람들은 그 의자에 돈키호테와 산초를 앉혔다. 이 모든 일을 그들은

말없이 했고, 두 사람에게도 몸짓으로 잠자코 있으라고 일렀다. 그러나 그런 몸짓이 없었어도 두 사람은 잠자코 있었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그들의 혀를 묶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신분이 높은 두 인물이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돈키호테는 곧 그들이 자기를 손님으로 맞아 주었던 공작과 공작 부인임을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왕처럼 보이는 두 인물 곁의 더없이 호화로운 의자 둘에 앉았다. 관대 위에 누운 주검이 아름다운 알티시도라의 것임을 돈키호테가 알아보았으니, 여기에 이 일까지 더해졌는데 누군들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공작과 공작 부인이 무대에 오르자 돈키호테와 산초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깊숙이 절을 했고, 공작 부부도 고개를 얼마쯤 숙여 똑같이 답례했다.

이때 관리 하나가 옆에서 나와 산초에게 다가가더니, 온통 불꽃 무늬를 그린 검은 거친 무명 옷을 그에게 덮어씌우고, 그의 두건을 벗기고는 종교 재판소에서 벌을 받는 죄인들이 쓰고 나오는 것 같은 고깔모자를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입술을 떼면 재갈을 물리거나 목숨을 빼앗을 테니 입을 꿰맨 듯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다. 산초는 자기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가 불꽃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불꽃이 자기를 태우지 않으니 그것을 두 푼어치로도 여기지 않았다. 그는 고깔모자를 벗어 보고 거기에 악마들이 그려진 것을 보고는 다시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행이다. 불꽃은 나를 태우지 않고 악마들은 나를 데려가지 않으니."

돈키호테도 그를 바라보았는데, 두려움에 넋이 빠져 있으면서도 산초의 몰골을 보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관대 밑에서 나오는 듯 나지막하고 듣기 좋은 피리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는

침묵마저 스스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 소리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에도 방해받지 않아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다. 그러자 주검인 듯 보이는 처녀의 베개 곁에 로마 사람 차림을 한 아름다운 젊은이 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손수 타는 하프 소리에 맞추어 더없이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이 두 연을 노래했다.

"돈키호테의 잔인함에 죽은
알티시도라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마법에 걸린 궁정에서
귀부인들이 거친 털옷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나의 마님께서 시녀 부인들에게
거친 모직과 상복 천을 입히실 때까지,
나는 그 아름다움과 그 불행을 노래하리라,
트라키아의 가인보다 더 나은 채를 들고.
그리고 이 일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는 여기지 않노라.
죽어서 차갑게 식은 혀를 입에 물고서도
너에게 바쳐야 할 목소리를 울리리라.
내 영혼이 그 좁은 바위에서 풀려나
스틱스의 호수를 건너 실려 갈 때도
너를 기리며 가리니, 그 노랫소리가
망각의 강물마저 멈추게 하리라."

"그만하라." 이때 왕처럼 보이는 두 인물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그만하라, 거룩한 가인이여. 비할 데 없는 알티시도라의 죽음과 아름다움을 지금 우리 앞에 그려 보이자면 끝이 없으리라. 그 아가씨는 무지한 세상이 생각하듯 죽은 것이 아니라 명성의 혀 위에 살아 있으며, 아가씨를 잃어버린 빚으로 되돌리려고 여기 있는 산초 판사가 겪어야 할

형벌 속에 살아 있느니라. 그러니, 오, 리테의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함께 심판하는 그대 라다만토스여, 이 처녀를 되살리는 일을 두고 헤아릴 수 없는 운명에 정해진 것을 그대는 모두 아니, 곧 말하여 밝혀 주오. 이 처녀가 새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쁨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말이오."

라다만토스의 동료 판관인 미노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라다만토스가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

"자, 이 집의 관리들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큰 자도 작은 자도 하나씩 차례로 나와 산초의 얼굴에 손바닥 도장을 스물네 번 찍고, 팔과 허리를 열두 번 꼬집고 바늘로 여섯 번 찔러라. 알티시도라의 목숨이 이 의식에 달려 있느니라!"

이 말을 듣자 산초 판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맹세코, 제 얼굴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제 낯짝을 주무르게 내버려 두는 건 무어인이 되는 것만큼이나 안 될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제 얼굴을 주무르는 거하고 이 처녀가 되살아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멈이 비름나물 맛을 들였구먼. 둘시네아한테 마법을 걸어 놓고는 그 마법을 풀겠다고 저한테 매를 때리고, 알티시도라가 하느님께서 주신 병으로 죽으니까 이번엔 저한테 손바닥 도장을 스물네 번 찍고 바늘로 제 몸을 체처럼 숭숭 뚫고 꼬집어서 제 팔을 시퍼렇게 멍들게 해야 그 처녀가 되살아난다고요? 그런 장난은 처남한테나 치라지요! 저는 늙은 개라서 '쭈쭈' 해 봐야 안 넘어가요!"

"너는 죽으리라!" 라다만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누그러져라, 호랑이야. 몸을 낮추어라, 오만한 니므롯아. 참고 잠자코 있거라. 너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일이 왜 어려운지 따지려 들지 마라. 너는 손바닥 도장을 받아야 하고, 바늘에 숭숭 뚫려야 하고, 꼬집혀 신음해야 하리라. 자, 관리들아, 내 명령을 이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점잖은 사람의 신의를 걸고 말하건대, 너희가 무엇 하러 태어났는지 보게 되리라!"

그러자 뜰을 가로질러 시녀 부인 여섯 명쯤이 줄지어 한 사람씩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가운데 넷은 안경을 썼고, 모두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는데, 요즘 하는 대로 손이 더 길어 보이게 손목을 손가락 네 개 너비만큼 소매 밖으로 내놓고 있었다. 산초는 그들을 보자마자 황소처럼 울부짖으며 말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제 몸을 주물러도 참을 수 있지만, 시녀 부인들이 저를 건드리는 것만은 안 돼요! 바로 이 성에서 우리 주인 나리한테 했던 것처럼 고양이를 시켜 제 얼굴을 할퀴게 하세요. 날카로운 단검 끝으로 제 몸을 꿰뚫으세요. 시뻘겋게 단 집게로 제 팔을 집으세요. 그러면 참고 견디든지, 아니면 이 나리들을 섬겨 드리든지 하겠어요. 그렇지만 시녀 부인들이 저를 건드리는 건, 악마가 저를 잡아간다 해도 그냥 두지 않겠어요."

돈키호테도 침묵을 깨고 산초에게 말했다.

"참아라, 얘야. 이 나리들의 뜻을 받들고, 네 몸에 그런 힘을 깃들게 하시어 네 몸이 받는 고난으로 마법에 걸린 이들의 마법을 풀고 죽은 이들을 되살리게 해 주신 하늘에 크게 감사드려라."

시녀 부인들이 벌써 산초 가까이 와 있었는데, 그는 한결 누그러지고 마음을 돌려 의자에 고쳐 앉고는 첫 번째 시녀 부인에게 얼굴과 턱을 내밀었다. 그 시녀 부인은 그에게 손바닥 도장을 아주 꾹 눌러 찍더니 깊숙이 절을 했다.

"인사는 좀 덜 하시오, 화장품도 좀 덜 바르시오, 시녀 부인 마님." 산초가 말했다. "맹세코 그대 손에서 시큼한 화장수 냄새가 나는구려!"

마침내 시녀 부인들이 모두 그에게 도장을 찍었고, 집안의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꼬집었다. 그러나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난 기색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곁에 있던 불붙은 횃불을 움켜쥐고 시녀 부인들과 자기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뒤쫓아 가며 말했다.

"물러가라, 지옥의 관리들아! 나는 청동으로 된 몸이 아니라서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안 느낄 수가 없어!"

이때 오랫동안 반듯이 누워 있느라 지쳤던지 알티시도라가 몸을 옆으로 돌렸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거의 다 한목소리로 외쳤다.

"알티시도라가 살아 있다! 알티시도라가 살아났다!"

라다만토스는 바라던 뜻을 이미 이루었으니 화를 거두라고 산초에게 명했다.

돈키호테는 알티시도라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산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때다, 내 종자라기보다 내 배 속에서 난 자식 같은 얘야.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네가 맞아야 할 매를 몇 대라도 맞을 때다. 지금이야말로 네 몸에 깃든 힘이 무르익어, 사람들이 너에게 바라는 좋은 일을 해낼 효험을 갖춘 때라는 말이다."

그 말에 산초가 대답했다.

"이건 꿀 바른 과자가 아니라 골탕 위에 골탕이네요. 꼬집히고 손바닥 도장 찍히고 바늘에 찔린 다음에 이제 매질까지 오면 참 좋기도 하겠네요. 차라리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다 제 목에 매달고 저를 우물에 처넣는 일만 남았네요. 남의 병을 고치려면 제가 혼인 잔치에 잡히는 소가 되어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별로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않으면 맹세코 팔리든 말든 다 내던지고 판을 엎어 버릴 거예요."

이때 알티시도라는 벌써 관대 위에 일어나 앉아 있었고, 바로 그 순간 치리미아 피리가 울렸으며, 다른 피리들과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거기에

어우러져 외쳤다.

"알티시도라 만세! 알티시도라가 살았다!"

공작 부부와 미노스 왕과 라다만토스 왕이 일어섰고, 모두 함께 돈키호테와 산초를 데리고 알티시도라를 맞아 관대에서 내려 주러 갔다. 알티시도라는 기운이 빠진 척하며 공작 부부와 왕들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돈키호테를 곁눈질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기를, 매정한 기사야. 네 잔인함 때문에 나는 저세상에 가 있었는데, 내 느낌으로는 천 년도 넘게 있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오, 온 세상이 품은 종자 가운데 가장 인정 많은 종자야, 내가 누리는 이 목숨은 너 덕분이니 고맙구나. 산초, 내 친구야, 오늘부터 내 속옷 여섯 벌을 마음대로 써라. 너에게 줄 테니 그걸로 네 속옷 여섯 벌을 지어 입어라. 다 성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다 깨끗하기는 하단다."

산초는 손에 고깔모자를 들고 무릎을 땅에 꿇은 채 그 고마움에 알티시도라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공작은 그의 고깔모자를 벗기고 두건을 돌려주고 겉옷을 입혀 주고 불꽃 무늬 옷을 벗겨 주라고 명했다. 산초는 그 옷과 고깔모자를 자기에게 남겨 달라고 공작에게 간청했다. 그 보도 듣도 못한 일의 표시와 기념으로 고향에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공작 부인은 남겨 주겠다고 대답하며, 자기가 그에게 얼마나 큰 벗인지 그도 이미 알지 않느냐고 했다. 공작은 뜰을 비우고 모두 제 방으로 물러가라고 명했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들이 이미 아는 방으로 데려가게 했다.

제70장 제69장에 이어지며 이 이야기를 밝히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일들을 다룬다

산초는 그날 밤 돈키호테와 같은 방에서 바퀴 달린 낮은 침대에 누워 잤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주인이 묻고 대답하느라 자기를 잠들게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는데, 그는 말을 많이 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지나간 고문의 아픔이 아직 생생해서 혀가 제대로 놀지 않았으니, 그 호화로운 방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자는 편이 그에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의 두려움은 어찌나 들어맞고 그의 짐작은 어찌나 정확했던지, 주인은 침대에 들자마자 말했다.

"산초, 오늘 밤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을 모르는 매정함의 힘은 참으로 크고 세구나. 너도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듯이 알티시도라는 다른 화살도 다른 칼도 다른 무기도 치명적인 독도 아닌, 내가 언제나 그 아가씨를 대하던 그 엄격함과 매정함을 곱씹다가 죽었으니 말이다."

"죽고 싶은 만큼, 죽고 싶은 대로 실컷 죽으라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제 집에 내버려 두고요. 저는 평생 그 아가씨를 꾀지도 않았고 매정하게 굴지도 않았으니까요. 슬기롭기보다 변덕스러운 처녀 알티시도라의 목숨이, 전에도 말했지만, 산초 판사의 고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제야 정말 세상에 마법사와 마법이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겠어요. 하느님께서 저를 거기서 건져 주시기를. 저는 저 스스로 빠져나올 줄을 모르니까요.

아무튼 나리께 부탁드리는데, 제가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를 자게 내버려 두시고 더는 묻지 마세요."

"자거라,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받은 바늘 찌르기와 꼬집기와 손바닥 도장이 너를 잠들게 내버려 둔다면 말이다."

"어떤 아픔도" 산초가 되받았다. "손바닥 도장의 모욕에는 못 미쳐요. 다른 까닭이 아니라 그걸 찍은 게 시녀 부인이라서요. 그 여편네들은 망하라지요.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저를 자게 내버려 두세요. 잠은 깨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을 덜어 주니까요."

"그러자꾸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하시기를."

두 사람이 잠든 사이, 이 위대한 이야기의 작가 시데 아메테는 공작 부부가 무엇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장치를 꾸며 세웠는지 적어 밝히고자 했다. 그가 말하기를, 삼손 카라스코 학사는 거울의 기사로서 돈키호테에게 지고 말에서 떨어진 일을 잊지 않았다. 그 패배와 낙마가 그의 모든 계획을 지우고 허물어 버렸지만, 그는 지난번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솜씨를 겨루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산초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와 선물을 가져갔던 시동에게 돈키호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다음, 새 갑옷과 말을 구하고 방패에 하얀 달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노새 한 마리에 실어 농사꾼 하나에게 끌게 했는데, 산초나 돈키호테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옛 종자 토메 세시알은 데려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공작의 성에 이르렀고, 공작은 돈키호테가 사라고사의 마상 시합에 나가려는 뜻을 품고 어느 길로 어디를 향해 갔는지 그에게 알려 주었다. 공작은 또 둘시네아의 마법을 산초의 엉덩이를 대가로 풀어야 한다는 꾀로 돈키호테에게 벌인 장난들도 들려주었다. 끝으로 산초가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려 농사꾼 처녀로 바뀌었다고 믿게 만들어 주인을 놀린 일과, 자기 아내인 공작 부인이

둘시네아는 정말로 마법에 걸려 있으니 속은 사람은 오히려 산초 자신이라고 그에게 믿게 만든 일까지 들려주었다. 학사는 산초의 날카로움과 어수룩함을, 그리고 돈키호테의 광기가 그토록 극에 달한 것을 생각하며 적잖이 웃고 놀랐다.

공작은 그에게, 돈키호테를 찾아내면 이기든 지든 이리로 돌아와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청했다. 학사는 그렇게 했다. 그는 돈키호테를 찾아 떠났고, 사라고사에서 그를 찾지 못하자 더 나아갔으며, 그다음 일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였다.

그는 공작의 성에 들러 결투의 조건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돈키호테가 이미 착한 편력 기사답게 한 해 동안 자기 마을에 들어앉아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돌아가고 있는데, 그동안이면 광기가 나을 수도 있다고 학사는 말했다. 돈키호테처럼 슬기로운 시골 귀족이 미쳐 있다는 것이 가엾은 일이라,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변장을 하게 만든 뜻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공작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돈키호테를 거기서 기다렸다.

공작은 이 일을 빌미 삼아 그 장난을 벌였으니, 그는 산초와 돈키호테의 일을 그토록 즐겼다. 그는 돈키호테가 돌아올 만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길목에 성에서 가깝든 멀든 걸어 다니는 하인과 말 탄 하인을 많이 풀어, 돈키호테를 만나면 억지로든 좋게든 성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찾아내 공작에게 알렸고, 해야 할 일을 모두 미리 마련해 두었던 공작은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뜰의 횃불과 등불을 밝히고,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차림새와 함께 알티시도라를 관대 위에 눕히게 했는데, 그것이 어찌나 생생하고 그럴싸했던지 진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시데 아메테는 또 이렇게 말한다. 그가 보기에는 놀리는 사람들도 놀림당하는 사람들만큼 미쳤으며, 공작 부부가 두 바보를

놀리는 데 그토록 열을 올렸으니 그들 자신도 바보로 보이기까지 두 손가락만큼도 남지 않았다고.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곯아떨어져 자고 다른 하나는 고삐 풀린 생각에 잠겨 깨어 있는 사이에 날이 밝았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 돈키호테는 이겼을 때든 졌을 때든 게으른 깃털 이불을 즐겨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티시도라는, 돈키호테의 생각으로는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온 그 아가씨는, 주인 부부의 장난 기분에 맞추어 관대 위에서 쓰고 있던 바로 그 화관을 쓰고, 금빛 꽃을 흩뿌려 수놓은 흰 호박단 짧은 옷을 입고, 머리채를 등 뒤로 풀어 늘어뜨린 채 아주 고운 검은 흑단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왔다. 돈키호테는 아가씨가 나타나자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몸을 움츠리고는 침대의 홑이불과 이불로 거의 온몸을 덮었고, 혀가 굳어 아가씨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했다. 알티시도라는 그의 머리맡 곁의 의자에 앉아 크게 한숨을 쉬고는 애틋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신분 높은 여인과 몸가짐 조심스러운 처녀가 명예를 짓밟고, 거리낌을 모두 무릅쓰고 혀를 풀어 가슴속에 품은 비밀을 사람들 앞에 털어놓는다면, 그건 막다른 처지에 몰려 있다는 뜻이야. 라만차의 돈키호테 나리, 나도 그런 여자 가운데 하나야. 궁지에 몰리고, 꺾이고, 사랑에 빠진 여자. 그래도 참을성 있고 정숙한 여자지. 얼마나 정숙했는지, 너무 정숙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영혼이 터져 목숨을 잃었어. 네가 나를 대한 그 모진 매정함을 곱씹다가 이틀 전부터,

오, 내 하소연에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처럼 굳은 기사야! 나는 죽어 있었어. 아니 적어도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여겼지. 사랑의 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이 착한

종자의 고문에 내 살길을 맡겨 두지 않았더라면 나는 저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야."

"사랑의 신이 그걸 제 당나귀의 고문에 맡겨 두었어도 좋았을 텐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랬으면 제가 고마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가씨, 하늘이 우리 주인 나리보다 더 무른 연인을 아가씨에게 짝지어 주시기를 빌며 여쭙는데, 말씀해 보세요. 저세상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해서 죽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말을 하자면"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나는 아주 죽지는 않았던 모양이오.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거기 들어갔더라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것이오. 참말은, 내가 그 문 앞까지 갔다는 거요. 거기서는 악마 열두 마리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반바지에 조끼 차림이었고, 플랑드르 레이스 끝장식을 두른 넓은 깃을 달고, 같은 레이스로 된 접단을 소맷부리로 대고 있었소. 손이 더 길어 보이도록 팔을 손가락 네 개 너비만큼 소매 밖으로 내놓고, 그 손에는 불붙은 라켓을 쥐고 있었소. 그런데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공 대신 책을 쓰고 있었다는 거요. 보아하니 바람과 솜 부스러기로 가득 찬 책이었는데,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일이었소.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노름꾼이란 본디 딴 사람은 기뻐하고 잃은 사람은 슬퍼하는 법인데, 거기 그 놀이에서는 모두가 투덜대고 모두가 으르렁대고 모두가 서로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악마들은 놀든 안 놀든, 따든 안 따든 절대로 흐뭇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겠구려."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소, 아니 그때 놀라웠던 일이라고 해야겠소. 공을 한 번 치면 그 공은 멀쩡히 남아나지 못해서 다시 쓸 수가 없었소. 그래서 새 책 헌 책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 볼만했소. 그 가운데 갓 나온 새 책 한 권은 제본도 번듯했는데, 그 책을 손가락으로 어찌나 세게 튕겼던지 창자가 빠져나오고 책장이 흩어졌소. 악마 하나가 다른 악마에게 '그게 무슨 책인지 보게' 하고 말했소. 그러자 그 악마가 대답했소. '이건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 일세. 첫 작가인 시데 아메테가 지은 게 아니라 아라곤 사람 하나가 지은 것인데, 그자는 자기가 토르데시야스 태생이라고 하네.' '그걸 저리 치워 버리게.' 다른 악마가 대답했소. '지옥의 심연 속에 처넣어 버리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형편없나?' 다른 악마가 대꾸했소. '어찌나 형편없는지' 처음 악마가 되받았소. '내가 일부러 더 나쁘게 만들려고 덤벼들어도 못 해낼 만큼일세.' 그들은 다른 책들로 공을 치며 놀이를 이어 갔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돈키호테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기에 이 환영을 기억에 담아 두려고 애썼소."

"환영이었던 게 틀림없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상에 나는 둘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는 벌써 이곳에서 이 손 저 손으로 돌아다니지만 어느 손에도 머물지 않소. 다들 발로 차 버리니까. 내가 유령 같은 몸으로 심연의 어둠 속을, 또는 이 땅의 밝은 곳을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어도 나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소. 나는 그 이야기가 다루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 이야기가 훌륭하고 충실하고 참되다면 몇 세기를 살아남겠지만, 형편없다면 태어나서 무덤에 들기까지의 길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오."

알티시도라가 돈키호테를 원망하는 하소연을 이어 가려 하자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아가씨, 그대가 나에게 마음을 둔 것이 안타깝다고 여러 번 말했소. 내 마음은 그대의 마음에 보답할 수는 없고 고마워할 수 있을 뿐이니까. 나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것이 되려고 태어났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운명은 나를 그분께 바쳤소. 그러니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내 영혼 속에 그분이 차지한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오. 이것으로 그대가 깨닫고 그대의 정숙함의 울타리 안으로 물러가기에 넉넉할 것이오. 아무도 불가능한 일에 매일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을 듣자 알티시도라는 화가 나서 흥분한 기색을 보이며 그에게 말했다.

"주님께 맹세코, 이 대구포 나리, 놋절구 같은 영혼, 대추야자 씨 같은 양반, 제 패를 과녁에 걸어 놓고 사정을 받는 촌놈보다 더 고집 세고 딱딱한 양반, 내가 그대에게 덤벼들면 그대 눈알을 뽑아 놓고 말 테요! 패배자 나리, 몽둥이찜질 당한 나리, 혹시 내가 그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시오? 오늘 밤 그대가 본 것은 다 꾸민 일이었소. 나는 그런 낙타 같은 작자 때문에 손톱 밑의 때만큼이라도 아파할 여자가 아니오. 하물며 죽기까지 하겠소."

"그건 정말 그럴 거예요." 산초가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웃음거리니까요. 말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죽는다는 건 유다나 믿으라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말한 두 연을 노래했던 악사이자 가수이자 시인인 젊은이가 들어와 돈키호테에게 깊숙이 절하며 말했다.

"기사 나리, 저를 나리의 가장 충실한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꼽아 주십시오. 나리의 명성으로나 무훈으로나 저는 오래전부터 나리를 몹시 흠모해 왔습니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누구인지 말해 주시오. 내 예의가 그대의 공덕에 걸맞게 답하도록 말이오."

젊은이는 자기가 지난밤의 악사이자 찬양 시인이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그대의 목소리는 더없이 훌륭하오. 그러나 그대가 부른 노래는 그리 알맞지 않았던 것 같소. 가르실라소의 연이 이 아가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소?"

"그런 일에 놀라지 마십시오, 나리." 악사가 대답했다. "요즘 머리도 깎지 않은 풋내기 시인들 사이에서는 저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제 뜻에 맞든 안 맞든 훔치고 싶은 사람에게서 훔쳐 오는 게 예사입니다. 그들이 노래하거나 쓰는 어리석은 소리치고 시인의 특권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돈키호테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를 보러 들어온 공작과 공작 부인이 그것을 가로막았다. 그들 사이에 길고 즐거운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가운데 산초가 어찌나 많은 익살과 짓궂은 말을 늘어놓았던지 공작 부부는 그의 어수룩함에도 날카로움에도 다시금 놀랐다. 돈키호테는 바로 그날 떠나게 허락해 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했다. 자기처럼 진 기사들에게는 임금님의 궁궐보다 돼지우리에 사는 편이 더 어울린다고 했다. 공작 부부는 아주 기꺼이 허락했고, 공작 부인은 알티시도라를 아직 마음에 두고 있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가 공작 부인에게 대답했다.

"마님, 이 아가씨의 병은 모두 한가함에서 생긴 것이니, 그 처방은 정숙하고 끊임없는 일거리라는 것을 아시오. 아가씨가 지옥에서도 레이스를 쓴다고 여기서 말했소. 그러니 아가씨는 틀림없이 레이스를 뜰 줄 알 것이오. 그 일을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오. 실패를 놀리느라 바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상상 속에서 놀지 못할 테니.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내 생각이며, 이것이 내 충고요."

"제 충고도 그래요." 산초가 덧붙였다. "레이스 뜨는 여자가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는 평생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일에 바쁜 처녀들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일을 끝내는 데 마음을 쓰니까요. 제

경우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땅을 파고 있을 때는 우리 집사람, 아니 우리 테레사 판사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제 눈썹보다 더 아끼는 사람인데도요."

"자네 말이 아주 옳네, 산초."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알티시도라가 무슨 바느질거리라도 하며 지내게 하겠네. 그 애가 바느질은 아주 잘하거든."

"그럴 것 없어요, 마님."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그런 처방을 쓰실 까닭이 없어요. 이 떠돌이 흉악한 놈이 저한테 저지른 잔인한 짓들을 곱씹다 보면 다른 꾀를 쓰지 않아도 이자는 제 기억에서 지워질 테니까요. 그럼 마님의 허락을 받아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어요. 이자의 슬픈 얼굴은 고사하고 그 추하고 끔찍한 낯짝을 더는 제 눈앞에서 보지 않으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공작이 말했다. "흔히 하는 이런 말이 떠오르는군.

욕을 퍼붓는 사람은
용서할 날도 머지않은 법."

알티시도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시늉을 하고 주인 부부에게 절한 다음 방에서 나갔다.

"내가 너한테 빌어 주마." 산초가 말했다. "가엾은 아가씨야, 빌어 주마, 불행을 말이다. 네가 상대한 건 에스파르토 풀 같은 영혼에 떡갈나무 같은 심장이었으니까. 맹세코 네가 나를 상대했더라면 다른 수탉이 너한테 울어 줬을 거다!"

이야기가 끝나자 돈키호테는 옷을 입고 공작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뒤 그날 오후에 떠났다.

제71장 돈키호테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종자 산초와 겪은 일

지고 시달린 돈키호테는 한편으로는 몹시 시름에 잠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기뻐하며 길을 갔다. 슬픔은 패배 때문이었고, 기쁨은 알티시도라를 되살려 낸 일에서 드러난 산초의 그 힘을 생각한 데서 왔는데, 하기는 그 사랑에 빠진 처녀가 정말로 죽었었다고 믿기에는 얼마간 꺼림칙한 데가 있었다. 산초는 알티시도라가 속옷을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슬퍼서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이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주인에게 말했다.

"참말이지, 나리, 저는 세상에 있는 의사 가운데 가장 재수 없는 의사일 거예요. 세상에는 고치던 환자를 죽이고도 수고한 값을 받으려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수고라는 게 약 몇 가지를 적은 쪽지에 서명하는 것뿐이고, 약은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약방 주인이 짓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남의 목숨을 살리느라 피를 몇 방울씩 흘리고, 손바닥 도장에 꼬집기에 바늘 찌르기에 매질까지 당하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맹세코 이제부터 저한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고쳐 주기 전에 먼저 제 손에 기름칠부터 하게 할 거예요. 수도원장은 노래한 것으로 먹고사는 법이니까요. 하늘이 저한테 주신 이 힘을 남들한테 거저, 공짜로 나눠 주라고 주셨다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네 말이 옳다,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티시도라가 약속한 속옷을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다. 네 힘은 거저

주어진 것(gratis data)이라 너는 그것을 얻으려고 아무 공부도 들이지 않았지만, 네 몸으로 고문을 받는 것은 공부보다 더한 일이다. 나로 말하자면,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한 매질에 네가 값을 바랐다면 벌써 넉넉히 치러 주었을 게다. 그러나 값을 치르는 것이 치료와 잘 어울릴지 모르겠고, 보수가 약효를 가로막지나 않을까 걱정이구나. 그래도 한번 해 보아서 잃을 것은 없을 것 같다. 보아라, 산초. 네가 원하는 값을 정하고 곧 매를 쳐라. 그리고 내 돈을 네가 지니고 있으니 네 손으로 그 자리에서 셈해 가져라."

이 제안에 산초는 눈과 귀를 한 뼘이나 크게 열었고, 기꺼이 매를 맞겠다고 속으로 마음먹고 주인에게 말했다.

"좋아요, 나리. 나리께서 바라시는 일로 나리를 기쁘게 해 드리고 저도 이득을 볼 채비를 하겠어요. 자식들과 마누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셈속을 차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매를 한 대 칠 때마다 저한테 얼마를 주시겠어요?"

"산초, 이 처방의 위대함과 값어치에 걸맞게 너에게 값을 치러야 한다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베네치아의 보물도 포토시의 광산도 너에게 치르기에 모자랄 게다. 네가 지닌 내 돈을 가늠해 보고 매 한 대마다 네가 값을 매겨라."

"매는" 산초가 대답했다. "3,300대 남짓이에요. 그 가운데 다섯 대쯤은 벌써 맞았으니 나머지가 남았지요. 그 다섯 대는 '남짓'에 넣어 버리고 3,300대로 쳐요. 한 대에 쿠아르티요 하나씩이면, 온 세상이 명령해도 그보다 덜 받지는 않을 거예요, 3,300쿠아르티요가 되는데, 그 가운데 3,000은 반 레알 1,500닢이니 750레알이 되고, 300은 반 레알 150닢이니 75레알이 돼요. 이걸 750에 보태면 모두 825레알이에요. 이 돈을 제가 가진 나리 돈에서 덜어 내면, 매는 흠씬 맞았어도 부자가 되어

흐뭇하게 집에 들어갈 거예요. 송어는 그냥은 안 잡히는 법이거든요……, 더는 말 안 할래요."

"오, 복 받은 산초! 오, 사랑스러운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둘시네아와 나는 너를 섬겨야 할 만큼 너에게 큰 빚을 지게 되겠구나! 그분이 잃어버린 모습을 되찾으신다면, 되찾지 않으실 리가 없지만, 그분의 불행은 행운이 될 것이고 내 패배는 더없이 기쁜 승리가 될 게다. 그리고 보아라, 산초, 언제 매질을 시작하겠느냐? 빨리 끝내도록 내가 100레알을 더 얹어 주마."

"언제냐고요?" 산초가 되받았다. "오늘 밤에 틀림없이 해요. 나리께서는 우리가 하늘이 훤히 열린 들판에서 밤을 보내도록 해 주세요. 저도 제 살을 활짝 열어젖힐 테니까요."

밤이 왔다. 돈키호테는 세상에서 가장 애타게 그 밤을 기다렸는데, 아폴론의 수레바퀴가 부서져 낮이 여느 때보다 길어진 것만 같았으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결코 제 바람의 셈을 맞추지 못하는 것과 꼭 같았다. 마침내 그들은 길에서 조금 비켜난 곳의 아늑한 나무숲으로 들어가 로시난테의 안장과 잿빛 당나귀의 길마를 벗겨 놓고 푸른 풀밭에 누워 산초의 먹을거리로 저녁을 먹었다. 그다음 산초는 잿빛 당나귀의 고삐와 굴레로 세고 낭창낭창한 채찍을 하나 만들어 너도밤나무 사이로 주인에게서 스무 걸음쯤 물러났다. 돈키호테는 그가 씩씩하고 기운차게 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아라, 벗아, 몸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하여라. 매와 매 사이에 틈을 두어라. 달리기를 너무 서두르다가 반쯤 가서 숨이 차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바라는 수에 이르기 전에 목숨이 다할 만큼 세게 치지는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패 한 장이 많거나 모자라서 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저만치 떨어져서 이 묵주로 네가 치는 매를 세겠다. 하늘이 네 좋은 뜻에 걸맞게 너를 도우시기를."

"셈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담보 잡히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죽지 않으면서도 아프게 칠 생각이에요. 이 기적의 알맹이는 틀림없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그는 곧 웃통을 벗고 밧줄을 움켜쥐고는 매를 치기 시작했고, 돈키호테는 매를 세기 시작했다.

산초는 여섯 대인가 여덟 대쯤 쳤을 때, 이 장난이 고되고 그 값은 너무 싸다고 생각되어, 잠깐 멈추고 주인에게 자기가 속았다고 하소연하며 이런 매라면 한 대에 쿠아르티요가 아니라 반 레알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라, 산초, 내 벗아. 기운을 잃지 마라."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내가 값을 곱절로 올려 주마."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하느님 손에 맡기고, 매야 쏟아져라!"

그러나 이 능청맞은 녀석은 제 등을 치기를 그만두고 나무들을 치면서 이따금 한숨을 쉬었는데, 한숨 한 번마다 영혼이 뽑혀 나가는 것 같았다. 돈키호테는 마음이 여려서 산초가 목숨을 잃지나 않을까, 그리고 산초의 분별없는 짓 때문에 자기 바람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 그에게 말했다.

"제발, 벗아, 이 일은 여기서 멈추자. 이 약은 너무 독한 것 같구나. 세월에 세월을 주는 것이 좋겠다. 사모라는 한 시간에 함락되지 않았느니라. 내가 잘못 세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천 대 넘게 쳤다. 지금은 그만하면 넉넉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당나귀는 짐은 견뎌도 덧짐은 못 견디는 법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를 두고 '돈을 받고 나면 팔이 부러진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나리께서는 조금만 더

물러나 계시고, 적어도 천 대만 더 치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두 번만 몰아치면 이 판은 끝나고 옷감도 남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이 내킨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늘이 너를 도우시기를. 쳐라, 나는 물러나 있으마."

산초는 어찌나 기세 좋게 다시 일에 매달렸던지 벌써 여러 나무의 껍질을 벗겨 놓았다. 그만큼 그는 매섭게 제 몸을 쳤다. 그러다 한번은 목소리를 높이며 너도밤나무 한 그루에 엄청난 매를 내리치고 말했다.

"여기서 죽어라, 삼손아,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다!"

돈키호테는 그 처절한 목소리와 매서운 매질 소리에 곧 달려가, 산초의 채찍 노릇을 하던 꼰 고삐를 붙잡고 그에게 말했다.

"산초, 내 벗아, 운명이 내 기쁨 때문에 네가 목숨을 잃게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란다. 네 목숨은 네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여야 한다. 둘시네아께서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라지. 나는 머지않은 희망의 테두리 안에서 참으며, 네가 새 힘을 얻어 모두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을 끝맺기를 기다리겠다."

"나리께서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주인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요. 나리 외투를 제 등에 걸쳐 주세요. 땀을 흘리고 있어서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거든요. 새로 채찍 고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요."

돈키호테는 그렇게 해 주었고, 자기는 홑옷 바람이 된 채 산초를 덮어 주었다. 산초는 해가 깨울 때까지 잤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서 거기서 3레과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그때의 길을 마쳤다. 그들은 어느 여관에서 말을 내렸는데, 돈키호테는 그곳을 깊은 해자와 탑과 쇠창살 문과 도개교가 있는 성이 아니라 여관으로 알아보았으니, 지고 나서부터 그는 모든 일을 더 분별 있게 따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곧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은 그를 아래층의 큰 방에 묵게 했는데, 시골에서 흔히 그러듯 그

방에는 무두질한 가죽 벽걸이 대신 그림을 그린 낡은 서지 천이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대담한 손님이 헬레나를 메날라오에게서 빼앗아 데려가는 헬레나 납치 장면이 아주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디도와 아이네이아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디도는 높은 탑 위에서 홑이불 반쪽을 흔들어 달아나는 손님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했고, 그 손님은 쾌속선인지 쌍돛배인지를 타고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는 두 그림에서 헬레나가 그리 싫지 않은 기색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헬레나는 몰래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디도는 호두알만 한 눈물을 쏟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두 부인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몹시 불행했고, 나는 그분들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서 누구보다 불행하오. 내가 그 사내들을 만났더라면 트로이가 불타지도 않았고 카르타고가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오. 내가 파리스 하나만 죽였더라도 그 숱한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

"내기를 걸어도 좋아요." 산초가 말했다. "머지않아 우리 무훈 이야기가 그려져 있지 않은 선술집이나 객줏집이나 여관이나 이발소는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들을 그린 화가보다 더 솜씨 좋은 화가의 손으로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네 말이 옳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화가는 우베다에 살던 화가 오르바네하 같구나. 그 화가는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되는 대로요' 하고 대답했고, 혹시 수탉을 그리면 여우로 여기지 않도록 그 밑에 '이것은 수탉이다'라고 써 넣었다지. 산초, 내가 보기에 요즘 나온 이 새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은 화가나 작가도, 둘은 매한가지지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되는 대로 그리거나 쓴

게지. 아니면 몇 해 전 궁정에 돌아다니던 마울레온이라는 시인 같은 사람이었을 게다. 그 시인은 무엇을 묻든 그 자리에서 대답했는데, 누가 '데움 데 데오(Deum de Deo)'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될 대로 되오'라고 대답했다는구나. 그건 그렇고, 산초, 오늘 밤에 한 차례 더 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지붕 밑에서 치고 싶은지 하늘이 훤히 열린 데서 치고 싶은지 말해 보아라."

"맹세코,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치려는 매라면 집 안에서 치든 들판에서 치든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나무들 사이에서 쳤으면 좋겠어요. 나무들이 저와 함께 있어 주면서 제 수고를 놀랍도록 덜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말자, 산초, 내 벗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힘을 차리도록 우리 마을에 갈 때까지 아껴 두자. 늦어도 모레면 거기에 닿을 게다."

산초는 주인 마음대로 하라고 대답하면서도, 자기로서는 피가 뜨거울 때, 방앗돌에 날이 서 있을 때 그 일을 얼른 끝내고 싶다고 했으니, 늦어지는 데 위험이 있는 일이 많고, 하느님께 빌면서 망치질은 해야 하며, '주마' 두 번보다 '받아라' 한 번이 낫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손안의 새 한 마리가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발 속담은 그만해라, 산초, 하느님 한 분을 걸고 부탁한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처음과 같이(sicut erat)로 돌아가는 것 같구나.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평이하고 매끄럽고 꼬이지 않게 말해라. 그러면 빵 하나가 백 개 값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게다."

"제 팔자가 무슨 고약한 팔자인지 모르겠어요." 산초가 대답했다. "속담 없이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말이 안 되는 속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니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고쳐 볼게요."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는 끝났다.

제72장 돈키호테와 산초가 마을에 다다른 경위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날 하루 내내 밤을 기다리며 그 마을 그 여관에 머물렀다. 하나는 탁 트인 들판에서 매질을 한 차례 마저 치르려고, 다른 하나는 그 매질의 끝을 보려고 기다렸으니, 그 끝에 그의 바람의 끝이 달려 있었다. 그러는 사이 말을 탄 나그네 하나가 하인 서넛을 거느리고 여관에 이르렀는데, 하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말했다.

"돈 알바로 타르페 나리, 오늘 낮잠은 여기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여관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보아라, 산초. 내가 내 이야기 제2부라는 그 책을 훑어볼 때, 지나가다가 이 돈 알바로 타르페라는 이름을 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말에서 내리게 놔둬요. 나중에 물어보면 되니까요."

기사는 말에서 내렸고, 여관 안주인은 돈키호테의 방 맞은편에 있는 아래층 큰 방을 그에게 내주었는데, 그 방도 돈키호테의 방처럼 그림을 그린 다른 서지 천으로 꾸며져 있었다. 새로 온 기사는 여름 차림으로 갈아입고, 넓고 시원한 여관 현관으로 나왔다. 돈키호테가 그 현관을 거닐고 있었으므로 기사가 그에게 물었다.

"나리,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돈키호테가 그에게 대답했다.

"여기서 가까운 마을이오. 내가 태어난 곳이라오. 그대는 어디로 가시오?"

"나 말이오, 나리" 기사가 대답했다. "내 고향인 그라나다로 가는 길이오."

"좋은 고향이구려!"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그런데 예의를 베푸시어 그대 이름을 말해 주시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할 것 같으니."

"내 이름은 돈 알바로 타르페요." 손님이 대답했다.

그 말에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그렇다면 그대는 틀림없이 요즘 어느 작가가 찍어서 세상에 막 내놓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에 찍혀 나오는 그 돈 알바로 타르페이겠구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오." 기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돈키호테는 나와 아주 가까운 벗이었소. 그를 그의 고향에서 끌어낸 것이 바로 나였소. 적어도 내가 가던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마상 시합에 오라고 부추긴 것이 나였소. 그리고 참말로 참말로 나는 그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었고, 너무 무모하게 굴다가 사형 집행인에게 등짝을 두들겨 맞을 뻔한 것을 막아 주기도 했소."

"그런데 말씀해 보시오, 돈 알바로 나리. 내가 그대가 말하는 그 돈키호테와 조금이라도 닮았소?"

"아니요, 결코." 손님이 대답했다. "조금도 닮지 않았소."

"그런데 그 돈키호테는" 우리의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판사라는 종자를 데리고 다녔소?"

"데리고 다녔소." 돈 알바로가 대답했다. "그런데 아주 익살맞다는 소문이 났는데도 정작 익살다운 익살을 하는 것은 한 번도 듣지 못했소."

"그건 정말 그럴 거예요." 이때 산초가 말했다. "익살을 부리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초는 엄청난 악당에다 싱거운 놈에다 도둑놈이기까지 한 게 틀림없어요. 진짜 산초 판사는 저예요. 저는 비 온 것보다 익살이 더 많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적어도 한 해만 저를 따라다녀 보시면, 걸음마다 익살이 제 입에서 떨어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것도 어찌나 대단하고 어찌나 많은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은데도 제 말을 듣는 사람은 다 웃는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름나고 용감하고 슬기로운 분, 사랑에 빠진 분, 모욕을 바로잡는 분, 미성년자와 고아의 후견인, 과부들의 보호자, 처녀들의 살인자,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오직 하나뿐인 아씨로 모시는 분은 여기 계신 이 나리, 제 주인이세요. 그 밖의 다른 돈키호테니 다른 산초 판사니 하는 건 다 장난이고 꿈같은 소리예요."

"맹세코 그 말을 믿네!" 돈 알바로가 대답했다. "여보게, 자네가 지금 몇 마디 한 말에 든 익살이, 내가 들은 그 다른 산초 판사의 말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으니 말일세. 그것도 아주 많이 들었는데 말이야. 그자는 말을 잘한다기보다 먹보였고, 익살맞다기보다 바보였네. 이제 보니 착한 돈키호테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이 나쁜 돈키호테로 나까지 쫓아다니려 한 게 틀림없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그자를 고쳐 달라고 톨레도의 눈시오 병원[1]에 넣어 두고 왔다고 감히 맹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또 다른 돈키호테가 나타났으니 말일세. 내가 아는 그자와는 아주 딴판이긴 하지만."

"나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착한 돈키호테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쁜 돈키호테가 아니라는 것만은 말할 수 있소. 그 증거로, 돈 알바로 타르페 나리, 알아 두시오. 나는 평생 사라고사에 가 본 적이 없소. 오히려 그 헛것 같은 돈키호테가 그 도시의 마상 시합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서, 그자의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 코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소. 그래서 곧장 바르셀로나로 갔소. 바르셀로나는 예의의 보고요, 나그네들의 숙소요, 가난한 이들의 구호소요, 용감한 이들의 고향이요, 모욕당한 이들의 복수요, 굳은 우정이 기쁘게 오가는 곳이요, 자리로나 아름다움으로나 하나뿐인 도시요. 거기서 내게 일어난 일들은 그리 즐겁기는커녕 몹시 괴로운 일들이었지만, 그 도시를 보았다는 것만으로 나는 괴로움 없이 그 일들을 견디고 있소. 마지막으로, 돈 알바로 타르페 나리, 나는 명성이 말하는 바로 그 라만차의 돈키호테요. 내 이름을 가로채고 내 생각으로 명예를 얻으려 한 그 불운한 자가 아니오. 그대가 기사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걸고 그대에게 간청하오. 그대가 지금까지 평생 나를 본 적이 없으며, 나는 제2부에 찍혀 나온 그 돈키호테가 아니고, 내 종자인 이 산초 판사도 그대가 알던 그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마을 촌장 앞에서 진술해 주시오."

"기꺼이 그리하겠소." 돈 알바로가 대답했다. "이름은 이토록 같은데 하는 짓은 이토록 다른 돈키호테 둘과 산초 둘을 한꺼번에 보다니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말이오. 그러니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내가 본 것을 보지 않았고, 내게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굳게 말하겠소."

"틀림없이" 산초가 말했다. "나리께서도 우리 둘시네아 델 토보소 아씨처럼 마법에 걸리셨나 봐요. 제가 그 아씨를 위해 맞는 것처럼 매를 3,000대 남짓 더 맞으면 나리의 마법이 풀린다면 하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무 값도 받지 않고 맞을 거예요."

"매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돈 알바로가 말했다.

산초는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혹시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들려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는 사이 밥때가 되어 돈키호테와 돈 알바로는 함께 식사를 했다. 마침 그 마을 촌장이 공증인 하나를 데리고 여관에 들어오자,

돈키호테는 그 촌장 앞에 청원을 냈다. 그 자리에 있는 기사 돈 알바로 타르페가, 역시 그 자리에 있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알지 못하며, 이 사람은 토르데시야스 태생의 아베야네다라는 자가 지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제목의 이야기에 찍혀 나온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촌장 나리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자기 권리에 합당하다는 청원이었다. 마침내 촌장은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렸고, 진술은 그런 경우에 갖추어야 할 효력을 모두 갖추어 이루어졌다. 그러자 돈키호테와 산초는 그런 진술이 자기들에게 아주 중요하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두 돈키호테의 차이와 두 산초의 차이를 그들의 행동과 말이 뚜렷이 보여 주지 않기라도 하는 듯이 몹시 기뻐했다. 돈 알바로와 돈키호테 사이에는 정중한 인사와 호의의 말이 많이 오갔는데, 그 가운데 위대한 라만차 사람은 자기의 슬기를 드러내어 돈 알바로 타르페가 빠져 있던 착각에서 그를 깨우쳐 주었다. 돈 알바로는 그토록 상반된 두 돈키호테를 손으로 만져 보았으니 자기가 마법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그 마을을 떠났다. 반 레과쯤 가자 길이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돈키호테의 마을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돈 알바로가 가야 할 길이었다. 이 짧은 길을 가는 동안 돈키호테는 자기가 진 불운과 둘시네아의 마법과 그 처방을 그에게 이야기했고, 그 모든 것이 돈 알바로를 다시금 놀라게 했다. 돈 알바로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끌어안고 자기 길을 갔고, 돈키호테도 자기 길을 갔다. 그는 산초에게 고행을 마칠 틈을 주려고 그날 밤을 다른 나무숲에서 보냈고, 산초는 지난밤과 똑같이 그 고행을 치렀는데, 자기 등보다 너도밤나무 껍질을 훨씬 더 희생시켰다. 그는 자기 등을 어찌나 아꼈던지, 그 등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해도 매질에 쫓겨 가지 않았을 것이다.

속아 넘어간 돈키호테는 셈에서 한 대도 빠뜨리지 않았고, 지난밤의 매까지 합쳐 3,029대라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 희생 제사를 보려고 일찍 일어난 것 같았는데, 그 햇빛을 받으며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고, 둘이서 돈 알바로가 속은 일과 그의 진술을 법관 앞에서 그토록 격식을 갖추어 받아 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날 낮과 그날 밤 그들은 이야기할 만한 일 하나 없이 길을 갔는데, 다만 그 밤에 산초가 자기 일을 끝마쳤고, 돈키호테는 그 일에 더없이 흐뭇해했다. 그는 길에서 이미 마법이 풀린 둘시네아 아씨를 만나게 될지 보려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길을 가며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 여자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인지 알아보러 가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메를린의 약속은 거짓일 수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과 바람을 품고 그들은 비탈길을 올라갔고, 거기서 그들의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산초는 마을을 보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눈을 떠라, 그리운 고향아. 그리고 보아라, 네 아들 산초 판사가 너에게 돌아온다.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매는 아주 흠씬 맞고 왔다. 두 팔을 벌려라. 그리고 네 아들 돈키호테도 맞아들여라. 남의 팔에 지고 돌아오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온다. 그분이 나한테 해 준 말로는 그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란다. 돈도 가지고 간다. 매는 흠씬 맞았어도 말 탄 신사처럼 의젓하게 갔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오른발부터 내디뎌 우리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 우리의 상상에 길을 터 주고, 양치기의 삶을 살아 보려고 생각한 그 계획도 세워 보자."

이렇게 하여 그들은 비탈을 내려가 자기들의 마을로 갔다.

---

1. 톨레도의 눈시오 병원(Casa del Nuncio)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거두던 곳이다. 아베야네다의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는 돈키호테가 이곳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다.

제73장 돈키호테가 마을에 들어서며 본 불길한 징조들과 이 위대한 이야기를 꾸미고 그 참됨을 보증하는 다른 일들

시데 아메테의 말에 따르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돈키호테는 마을 타작마당에서 아이 둘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아이에게 말했다.

"애쓰지 마, 페리키요. 넌 평생 그걸 다시는 못 볼 테니까."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고 산초에게 말했다.

"벗아, 저 아이가 한 말을 알아채지 못했느냐? '넌 평생 그걸 다시는 못 볼 테니까.'"

"그래서요, 저 아이가 그런 말을 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무슨 상관이냐고?"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저 말을 내 뜻에 갖다 대면, 내가 둘시네아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겠느냐?"

산초가 대답하려는데, 그 들판으로 산토끼 한 마리가 수많은 사냥개와 사냥꾼에게 쫓겨 달아나 오는 것이 보여서 대답하지 못했다. 겁에 질린 토끼는 잿빛 당나귀의 발밑으로 와서 숨어 웅크렸다. 산초는 손쉽게 토끼를 붙잡아 돈키호테에게 바쳤는데,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쁜 징조다(Malum signum)! 나쁜 징조다! 토끼는 달아나고 사냥개는 쫓는구나. 둘시네아는 나타나지 않으시는구나!"

"나리도 참 별나세요." 산초가 말했다. "이 토끼가 둘시네아 델 토보소이고, 토끼를 쫓는 이 사냥개들이 그 아씨를 농사꾼 처녀로 바꾸어 놓은 흉악한 마법사 놈들이라고 쳐 봐요. 아씨는 달아나고, 제가 붙잡아서 나리 손에 넘겨 드리고, 나리께서는 품에 안고 어루만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나쁜 징조고, 여기서 무슨 불길한 낌새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투던 두 아이가 토끼를 보러 다가오자, 산초는 그 가운데 하나에게 왜 다투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넌 평생 그걸 다시는 못 볼 거야'라고 말했던 아이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다른 아이에게서 귀뚜라미 상자를 하나 빼앗았는데 평생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산초는 주머니에서 쿠아르토 동전 네 닢을 꺼내 그 아이에게 주고 상자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돈키호테의 손에 쥐여 주며 말했다.

"자, 나리, 이 징조들은 이렇게 깨지고 흩어졌어요. 제가 바보이긴 해도 제 생각엔 이것들은 지난해 구름만큼도 우리 일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 마을 신부님께서 이런 어린애 장난 같은 일에 마음을 쓰는 건 그리스도교 신자답지도 슬기롭지도 않다고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리께서도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따지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다 바보라고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일에 매달릴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을로 들어가요."

사냥꾼들이 와서 자기들의 토끼를 달라고 하자 돈키호테는 토끼를 내주었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을 어귀의 작은 풀밭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신부와 카라스코 학사를 만났다.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산초 판사가 알티시도라가 되살아난 그날 밤 공작의 성에서

자기에게 입혔던 그 불꽃 무늬 거친 무명 옷을 잿빛 당나귀와 갑옷 꾸러미 위에 덮개 삼아 걸쳐 놓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나귀 머리에 고깔모자까지 씌워 놓았으니, 세상에 당나귀가 이보다 더 새롭게 변신하고 꾸민 꼴은 일찍이 없었다.

신부와 학사는 곧 두 사람을 알아보고 두 팔을 벌린 채 그들에게 다가왔다.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다. 쓸데없이 눈이 밝은 살쾡이 같은 아이들은 당나귀의 고깔모자를 알아보고 구경하러 몰려와서는 서로 말했다.

"얘들아, 와 봐. 산초 판사의 당나귀는 밍고보다 더 멋을 냈고, 돈키호테의 짐승은 오늘 처음 떠나던 날보다 더 비쩍 말랐어."

마침내 그들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신부와 학사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 돈키호테의 집으로 갔다. 집 문 앞에는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가정부와 조카딸이 나와 있었다. 산초의 아내 테레사 판사도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다. 테레사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반쯤 걸친 채 딸 산치카의 손을 잡고 남편을 보러 달려왔는데, 남편이 통치자라면 응당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잘 차려입지 못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여보, 어찌 이런 꼴로 오시오? 걸어서 발이 다 부르터 온 것 같고, 통치자라기보다 통치를 잃은 사람 꼴이구려."

"잠자코 있어,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말뚝이 있는 데에 베이컨이 없는 일이 많은 법이야. 우리 집으로 가자고.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테니. 돈은 가져왔어.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재주로 아무한테도 해 끼치지 않고 번 돈이야."

"돈만 가져오시오, 내 착한 영감." 테레사가 말했다. "이리 벌었든 저리 벌었든 상관없소. 어떻게 벌었든 세상에 새 풍습을 만든 것도 아닐 테니까."

산치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무엇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오월의 비를 기다리듯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했다. 딸은 한쪽에서 아버지의 허리띠를 붙잡은 채 잿빛 당나귀를 끌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 돈키호테는 그의 집에서 조카딸과 가정부의 손에 맡겨지고 신부와 학사와 함께 남았다.

돈키호테는 때도 시각도 가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학사와 신부와 함께 따로 물러나 앉아, 짧은 말로 자기가 진 일과, 한 해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무를 지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편력 기사도의 엄격함과 질서에 매인 편력 기사답게 그 의무를 털끝만큼도 어기지 않고 글자 그대로 지킬 생각이며, 그 한 해 동안 양치기가 되어 들판의 호젓함 속에서 지내면서 고삐를 풀어 놓고 사랑의 생각에 길을 터 주고 양치기의 덕스러운 일에 힘쓸 작정이라고 했다. 그러니 할 일이 많지 않고 더 중요한 일에 매여 있지 않다면 자기 동무가 되어 주기를 간청한다며, 그들에게 양치기라는 이름을 붙여 줄 만큼 넉넉한 양과 가축을 사겠다고 했고,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해 놓았으니 틀에서 찍어 낸 듯 꼭 맞을 이름을 벌써 붙여 두었다고 알려 주었다. 신부가 그 이름을 말해 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자기는 양치기 키호티스, 학사는 양치기 카라스콘, 신부는 양치기 쿠람브로, 산초 판사는 양치기 판시노라고 불러야 한다고 대답했다.

모두가 돈키호테의 새로운 광기를 보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기사도 일을 하러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병이 나을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그의 새로운 뜻에 동의하고 그의 광기를 슬기로운 일이라고 맞장구치며 그 일에 그의 동무가 되어 주겠다고 나섰다.

"게다가" 삼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온 세상이 이미 다 알다시피 나는 아주 이름난 시인이니, 걸음마다 양치기 시든 궁정 시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시를 지어서, 우리가 돌아다닐 그 외진 들판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 주겠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저마다 자기 시로 기릴 양치기 처녀의 이름을 고르는 일이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양치기들의 관습과 풍습대로,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그 처녀의 이름을 써 붙이고 새기지 않은 나무는 하나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하오."

"그거야말로 꼭 들어맞는 말이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나는 지어낸 양치기 처녀의 이름을 찾을 필요가 없소. 이 강기슭의 영광이요, 이 풀밭의 꾸밈이요, 아름다움의 버팀목이요, 우아함의 정수요, 끝으로 아무리 과장된 찬사라도 그대로 얹을 수 있는 분,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가 계시니까."

"그건 그렇소."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근처에서 쓸 만한 양치기 처녀들을 찾아보겠소. 마음에 네모반듯하게 들어맞지 않으면 모서리라도 맞추면 되겠지."

그 말에 삼손 카라스코가 덧붙였다.

"그리고 처녀가 모자라면, 세상에 가득한 책에 찍혀 나온 처녀들의 이름을 붙여 주면 되오. 필리스들, 아마릴리스들, 디아나들, 플레리다들, 갈라테아들, 벨리사르다들 말이오. 그런 이름들은 장터에서 파니 우리라고 사서 우리 것으로 삼지 못할 까닭이 없소. 내 귀부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양치기 처녀의 이름이 혹시 아나라면 아나르다라는 이름으로 기리겠소. 프란시스카라면 프란세니아라고 부르고, 루시아라면 루신다라고 부르겠소. 다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산초 판사도 이 신심회에 들어온다면 자기 아내 테레사 판사를 테레사이나라는 이름으로 기리면 되겠소."

돈키호테는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을 듣고 웃었다. 신부는 그의 정숙하고 명예로운 결심을 한없이 칭찬하며, 피할 수 없는 자기 직분을 돌보고 남는 시간에는 언제든 그와 함께 지내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몸을 잘 돌보고 좋은 것을 먹어 기운을 차리라고 부탁하고 충고했다.

운명이 그러려고 했는지 조카딸과 가정부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떠나자마자 둘이 함께 돈키호테에게 들어갔고, 조카딸이 그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삼촌? 이제 삼촌이 집에 들어앉아 조용하고 떳떳하게 사시려나 보다 하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미로에 빠져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노래에 나오는

'오는 너 꼬마 양치기야,
가는 너 꼬마 양치기야'가 되시겠다고요?

정말이지 피리를 깎기엔 보리 줄기가 벌써 다 굳었어요."

그 말에 가정부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리께서 들판에서 여름 한낮의 더위와 겨울밤의 이슬과 늑대 울음소리를 견디실 수 있겠어요? 결코 못 하시지요. 그건 거의 기저귀 차고 포대기에 싸여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하도록 길러져 단련된 튼튼한 사내들이 하는 일이고 직업이에요. 나쁜 것과 나쁜 것을 견주자면 양치기보다는 차라리 편력 기사가 나아요. 보세요, 나리, 제 충고를 들으세요. 빵과 포도주로 배가 불러서 드리는 충고가 아니라 빈속으로, 쉰 살 먹은 나이를 걸고 드리는 충고예요. 집에 계시면서 살림을 돌보시고, 자주 고해성사를 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제 영혼을 걸지요."

"잠자코들 있거라, 얘들아."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게 무엇이 맞는지는 내가 잘 안다. 나를 침대로 데려다 다오. 몸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구나. 그리고 내가 편력 기사가 되든 앞으로 양치기가

되든,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돌보아 주리라는 것을 믿어라. 그것은 행동으로 보게 될 게다."

그리고 착한 딸들은, 가정부와 조카딸은 틀림없이 착한 딸들이었으니, 그를 침대로 데려가 먹을 것을 주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제74장 돈키호테가 병들어 누운 일과 그가 남긴 유언과 그의 죽음

사람의 일이란 영원하지 않아서 처음 시작한 데서부터 늘 기울어 마침내 마지막 끝에 이르기 마련이고, 사람의 목숨은 더욱 그러하며, 돈키호테의 목숨도 제 흐름을 멈추게 할 특권을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의 끝과 마지막이 찾아왔다. 진 자기 모습을 본 데서 온 우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이 그렇게 정한 뜻 때문이었는지, 그에게 열병이 뿌리를 내려 그를 엿새 동안 침대에 눕혀 놓았는데, 그동안 그의 벗인 신부와 학사와 이발사가 여러 번 그를 찾아왔고, 그의 착한 종자 산초 판사는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진 자기 모습을 본 괴로움과, 둘시네아가 풀려나고 마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본 괴로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고, 할 수 있는 온갖 방도로 그를 기운 나게 하려고 애썼다. 학사는 그에게 기운을 내고 일어나 양치기 일을 시작하자고 했다. 그 일을 위해 자기가 벌써 목가 한 편을 지어 두었는데 산나차로가 지은 목가들이 다 무색해질 만한 것이라고 했고, 가축을 지킬 이름난 개 두 마리도 자기 돈으로 벌써 사 두었는데 하나는 바르시노, 다른 하나는 부트론이라 하며 킨타나르의 어느 목축업자가 팔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말로도 돈키호테는 슬픔을 떨치지 못했다.

벗들이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그의 맥을 짚어 보더니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으로, 몸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라 영혼의 구원을 돌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그 말을 차분한 마음으로 들었지만, 가정부와 조카딸과 종자는 그렇게 듣지 못하고, 마치 벌써 그의 주검을 앞에 두기라도 한 듯이 애달프게 울기 시작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우울과 낙심이 그의 목숨을 끝내 가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잠을 좀 자고 싶으니 자기를 혼자 있게 해 달라고 청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는 흔히 말하듯 한숨에 여섯 시간 넘게 잤는데, 어찌나 오래 잤던지 가정부와 조카딸은 그가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앞서 말한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잠에서 깨어 큰 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미하자! 참으로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어서, 사람의 죄도 그 자비를 줄이거나 가로막지 못하는구나."

조카딸은 삼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적어도 그 병을 앓는 동안 그가 하던 말보다 앞뒤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에게 물었다.

"삼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자비고, 무슨 사람의 죄예요?"

"얘야, 자비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베푸신 자비다. 말했다시피 내 죄도 그 자비를 가로막지 못했다. 이제 내 정신은 자유롭고 맑아졌다. 그 혐오스러운 기사 소설들을 쓰라리도록 끊임없이 읽은 탓에 내 정신 위에 드리워졌던 무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혔다. 이제 나는 그 책들의 터무니없는 소리와 속임수를 안다. 다만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와서, 영혼의 빛이 될 다른 책들을 읽으며 얼마간이라도 갚을 시간을 남겨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얘야, 나는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고 느낀다. 내 삶이

미치광이라는 이름을 남길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죽고 싶구나. 미치광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내 죽음으로 굳히고 싶지는 않다. 얘야, 내 좋은 벗들을 불러다 다오. 신부와 삼손 카라스코 학사와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 말이다. 고해를 하고 유언장을 만들고 싶구나."

그러나 그 세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카딸은 이 수고를 덜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말했다.

"기쁜 소식이니 상을 주시오, 착한 여러분. 나는 이제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아니라 알론소 키하노요. 내 됨됨이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은 알론소 키하노 말이오. 이제 나는 가울라의 아마디스와 그 가문의 끝없는 무리 모두의 원수요. 이제 편력 기사도의 세속 이야기들이 모두 밉살스럽소. 이제 나는 내 어리석음을 알고, 그 이야기들을 읽은 것이 나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아오. 이제 하느님의 자비로 내 머리로 쓴맛을 보고 깨우쳐 그 이야기들을 혐오하오."

세 사람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틀림없이 무슨 새로운 광기가 그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삼손이 그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둘시네아 아씨의 마법이 풀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마당에 나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우리가 왕자들처럼 노래하며 한세상을 보내려고 이제 막 양치기가 되려는 참인데, 나리께서는 은자가 되시겠다는 겁니까? 제발 그만두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그런 이야기일랑 집어치우시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돈키호테가 되받았다. "내게 해가 되는 쪽으로 참이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내 죽음이 그것을 내게 이로운 쪽으로 돌려놓을 것이오. 여러분, 나는 내가 급히 죽어 가고 있음을 느끼오. 장난은 그만두고 내게 고해를 들어 줄 신부와 유언장을 만들 공증인을

데려와 주시오. 이런 고비에서 사람은 영혼을 두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되오. 그러니 신부님께서 내 고해를 들으시는 동안 공증인을 불러오기를 간청하오."

그들은 돈키호테의 말에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미심쩍어하면서도 그를 믿고 싶었다. 그가 죽어 가고 있다고 그들이 짐작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 그토록 쉽게 미친 사람에서 제정신인 사람으로 돌아온 일이었다. 그는 앞서 한 말에 다른 많은 말을 보탰는데, 그 말이 어찌나 조리 있고, 어찌나 그리스도교 신자답고, 어찌나 앞뒤가 맞았던지 그들의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고, 그가 제정신이라고 믿게 되었다.

신부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와 단둘이 남아 고해를 들었다.

학사는 공증인을 부르러 갔다가 얼마 뒤 공증인과 산초 판사를 데리고 돌아왔다. 산초는 주인이 어떤 상태인지 학사에게서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가정부와 조카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입을 삐죽거리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고해가 끝나자 신부가 나와서 말했다.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는 정말로 죽어 가고 있고, 정말로 제정신이오. 그가 유언장을 만들도록 우리는 들어가도 되겠소."

이 소식은 가정부와 조카딸과 그의 착한 종자 산초 판사의 그렁그렁한 눈을 세차게 떠밀어,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슴에서는 천 번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앞서 한 번 말했듯이, 돈키호테는 그냥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였을 때나 라만차의 돈키호테였을 때나 언제나 성품이 온화하고 사람을 대하는 품이 상냥해서, 그의 집안사람들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증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돈키호테는 유언장의 머리말을 만들고,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절차를 갖추어

자기 영혼의 일을 정리한 다음, 유증할 몫을 정하는 대목에 이르러 말했다.

"하나. 내가 미쳤을 때 내 종자로 삼았던 산초 판사가 내 돈을 얼마간 가지고 있는데, 그와 나 사이에는 셈과 주고받은 것이 얼마간 있었으니, 그 돈에 대해서는 그에게 책임을 지우지도 말고 아무런 셈도 따지지 말 것이 내 뜻이다. 오히려 내가 그에게 진 빚을 치르고 나서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의 것으로 하라. 아주 적겠지만 그에게 쓸모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미쳤을 때 그에게 섬의 통치를 주는 데 한몫했듯이, 제정신인 지금 그에게 한 왕국의 통치를 줄 수 있다면 주고 싶다. 그의 순박한 성품과 충실한 몸가짐은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초에게 돌아서서 그에게 말했다.

"벗아, 나를 용서해 다오. 세상에 편력 기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내가 빠졌던 그 잘못에 너까지 빠뜨려 너를 나처럼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했구나."

"아이고!" 산초가 울면서 대답했다. "돌아가시지 마세요, 주인 나리. 제 말을 들으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미친 짓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우울 말고는 다른 어떤 손도 끝장내지 않는데 그냥 이유 없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그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정한 대로 양치기 옷을 입고 들판으로 가요. 어쩌면 어느 덤불 뒤에서 마법이 풀린 도냐 둘시네아 아씨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지신 게 분해서 돌아가시려는 거라면 저한테 허물을 씌우세요. 제가 로시난테의 뱃대끈을 잘못 매서 나리께서 떨어지셨다고 하시면 돼요. 게다가 나리께서도 기사 소설에서 보셨겠지만, 기사들끼리 서로 말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예사고, 오늘 진 사람이 내일은 이기는 법이잖아요."

"그렇소." 삼손이 말했다. "착한 산초 판사가 이런 일들을 아주 바르게 말하는구려."

"여러분" 돈키호테가 말했다. "천천히 갑시다. 지난해 둥지에는 올해 새가 없는 법이오. 나는 미쳤으나 이제는 제정신이오.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였으나, 지금은 말했듯이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요. 내 뉘우침과 내 진심이 여러분 앞에서 나를 예전에 받던 존중으로 되돌려 주기를 바라오. 공증인 나리는 계속하시오.

"하나. 내 모든 재산은 통째로 여기 있는 내 조카딸 안토니아 키하나에게 물려준다. 다만 그 재산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에서 내가 남긴 유증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먼저 덜어 낸다. 그리고 맨 먼저 치를 것은 가정부가 나를 섬긴 동안 내가 빚진 품삯이고, 거기에 옷 한 벌 값으로 20두카도를 더 얹어 주기를 바란다. 여기 있는 신부님과 삼손 카라스코 학사 나리를 내 유언 집행인으로 정한다.

"하나. 내 조카딸 안토니아 키하나가 혼인하고자 한다면, 기사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사 소설을 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조카딸이 그와 혼인하고자 하여 혼인한다면, 내가 물려준 것을 모두 잃게 하고, 내 유언 집행인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경건한 일에 나누어 쓰게 하라.

"하나. 앞서 말한 내 유언 집행인 나리들께 간청한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제2부』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지었다는 그 작가를 혹시 좋은 운수로 알게 되거든, 내 이름으로 그에게 할 수 있는 한 간곡히 부탁해 주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가 그 책에 쓴 그토록 많고 그토록 엄청난 터무니없는 소리를 쓰게 할 빌미를 준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그에게 그런 것을 쓸 까닭을 주었다는 꺼림칙함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이오."

이렇게 유언장을 마무리하자 그는 정신을 잃고 침대에 길게 쭉 뻗어 누웠다. 모두가 놀라 법석을 떨며 그를 돌보러 달려갔고, 유언장을 만든 그날 뒤로 그가 살았던 사흘 동안 그는 아주 자주 정신을 잃었다. 집안은 온통 뒤숭숭했지만, 그래도 조카딸은 밥을 먹었고 가정부는 술잔을 들었으며 산초 판사는 즐거워했으니, 무엇인가 물려받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남겨 놓아야 마땅한 슬픔의 기억을 상속자에게서 지우거나 누그러뜨리기 마련이다.

마침내 돈키호테의 마지막 날이 왔다. 그는 성사를 모두 받았고, 많은 말로 힘주어 기사 소설을 저주한 뒤였다. 그 자리에 있던 공증인은, 편력 기사가 자기 침대에서 돈키호테처럼 이토록 평온하게, 이토록 그리스도교 신자답게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사 소설에서도 읽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가엾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는 영혼을 내어 주었다. 죽었다는 말이다.

그것을 보고 신부는, 흔히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불리던 선한 사람 알론소 키하노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증서를 써 달라고 공증인에게 청하며,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 말고 다른 어떤 작가가 그를 거짓으로 되살려 그의 무훈을 끝없이 지어낼 빌미를 없애려고 그런 증서를 청한다고 했다.

라만차의 기발한 시골 귀족은 이렇게 끝을 맞았다. 시데 아메테는 그의 마을이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려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의 일곱 도시가 호메로스를 두고 다투었듯이 라만차의 모든 고을과 마을이 그를 제 아들로 삼고 제 사람으로 여기려고 서로 다투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산초와 조카딸과 가정부의 통곡도, 그의 무덤에 새로 바친 비문들도 여기에 적지 않겠다. 다만 삼손 카라스코가 그에게 이런 비문을 지어 바쳤다.

여기 굳센 시골 귀족이 누워 있다.
그 용맹이 어찌나 극에 이르렀던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으니,
죽음도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삶을 이기지 못했음을.
그는 온 세상을 하찮게 여겼고,
세상의 허수아비요 도깨비였으니,
그런 때를 만나
그의 행운을 보증한 것은
제정신으로 죽고 미쳐서 산 일이었다.

그리고 더없이 사려 깊은 시데 아메테는 자기 펜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 남게 될 것이다, 이 부엌 선반 걸이와 이 놋쇠 줄에 매달린 채로, 잘 깎였는지 잘못 깎였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펜이여. 주제넘고 흉악한 역사가들이 너를 더럽히려고 끌어 내리지만 않는다면, 너는 여기서 오랜 세기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에게 다가오기 전에, 너는 그들에게 미리 일러 주어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해 주어라.

"'게 섰거라, 게 섰거라, 비겁한 녀석들아!
아무도 이것에 손대지 마라.
착한 임금이여, 이 일은
나를 위해 남겨 둔 것이니라.

돈키호테는 오직 나를 위해 태어났고, 나는 그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행할 줄 알았고 나는 쓸 줄 알았다. 우리 둘은 오직 서로를 위한 한 몸이다. 토르데시야스에서 나온 가짜 작가가 거칠고 서툴게 깎은 타조 깃펜으로 내 용맹한 기사의 무훈을 감히 썼거나 감히 쓰려 하지만,

그것은 그자의 어깨가 질 짐도 아니고 그자의 식어 빠진 재주가 다룰 거리도 아니다. 혹시 그자를 알게 되거든 일러 주어라. 돈키호테의 지치고 이미 썩어 버린 뼈를 무덤 속에서 쉬게 내버려 두라고. 죽음의 모든 법도를 거슬러 그를 옛 카스티야로 끌고 가려고, 그가 진실로 참으로 길게 누워 세 번째 길도 새 출정도 떠날 수 없는 그 무덤에서 끌어내지 말라고. 그토록 많은 편력 기사들이 저지른 숱한 출정을 비웃는 데는, 그가 해낸 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그 두 번의 출정은 이 나라에서도 낯선 나라에서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모두 그토록 즐겁고 흐뭇하게 해 주었다고.' 이렇게 하면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충고를 해 주었으니 그리스도교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셈이고, 나는 내 글이 맺은 열매를 바라던 대로 온전히 누린 첫 사람이 되어 흡족하고 뿌듯할 것이다. 내 바람은 오직 사람들이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기사 소설을 혐오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그 이야기들은 나의 참된 돈키호테 이야기 때문에 벌써 비틀거리고 있고, 틀림없이 머지않아 완전히 쓰러질 것이다. 안녕히."

끝

판권면

돈키호테

원제 · El ingenioso hidalgo don Quijote de la Mancha (제1부, 1605) / 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 (제2부, 1615)

지은이 · 미겔 데 세르반테스 사아베드라 (Miguel de Cervantes Saavedra, 1547~1616)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제1부 1605년(1604년 말 인쇄), 제2부 1615년. 모두 마드리드의 후안 데라 쿠에스타 인쇄소.

저본 · 1999년에 공개되고 2010년에 고쳐진 퍼블릭도메인 스페인어 전자텍스트. 어느 학술판을 옮겨 적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스페인어 원전에서 직접 옮겼다. 저본에 빠진 제1부 끝 소네트 한 편(14행)만 존 오름스비의 1885년 영역본에서 옮겨 채웠고, 그 밖에는 오름스비 영역본을 대조용으로만 참고했다.

분량 · 원문 378,633단어 · 제1부(법정 앞부분·헌사·서문·머리 시, 4편 52장), 제2부(법정 앞부분·서문·헌사, 74장) · 원문 5,028문단(저본이 문장 가운데서 끊은 여덟 자리를 이어 5,018문단) · 옮긴이 주 71개

저작권 · 지은이가 1616년에 사망했고 원저작물은 1605년과 1615년에 나왔으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다. 대조한 오름스비 영역본(1885)도 옮긴이가 1895년에 사망해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30